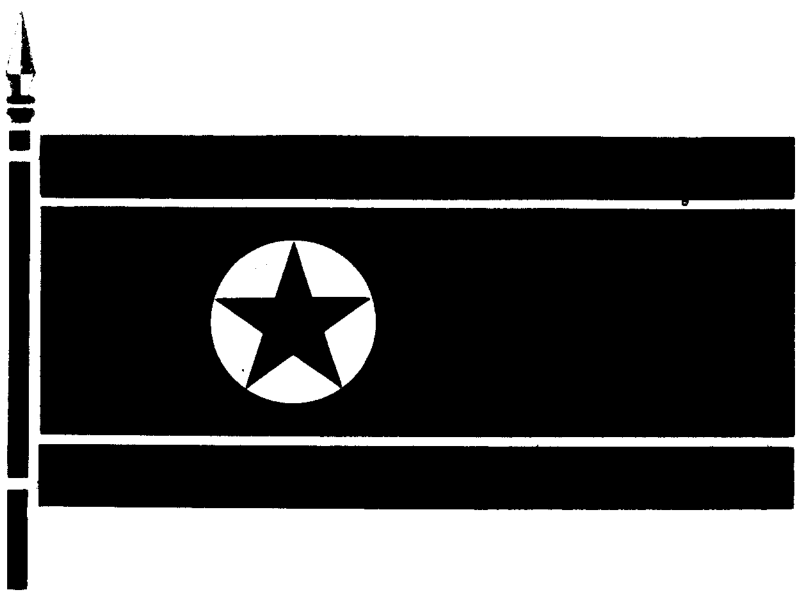
조선중앙년감

197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8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제11조 국가는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

제12조 국가는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히 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다.

국가는 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하며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

제2장 경 제

第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第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한다.

第20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第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第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第23조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第2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물질적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第25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第26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들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第27조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다 로동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第28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第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第30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第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第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第33조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第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한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38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3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0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1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

제42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3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1년동안 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제45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

제46조 국가는 우리 말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47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체력을 끊임없이 증진시킨다.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제48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4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50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51조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52조 만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53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54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55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제56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57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8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9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무료의무교육을 비롯한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0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창의고안자와 발명가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61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2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63조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64조 공민은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체포할수 없다.

제65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다.

제67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 사회주의적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68조 공민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제69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0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산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71조 공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2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73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7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75조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7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9.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10. 국가예산을 승인한다.
11.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第7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第7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반수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第7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第8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第81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第82조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 또는 수정된다.

第83조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들을 조직할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돕는다.

第8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할수 없다.

第85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무기관이다.

第86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第87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현행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第88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第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第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第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第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第9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第9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출한다.

第9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第9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특사권을 행사한다.

第9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한다.

第9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第9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第9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第7장 중앙인민위원회

第10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第101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第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第10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대내외정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 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 부장, 그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8.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9.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10.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1. 대사를 실시한다.
12.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13.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第10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第105조 중앙인민위원회에는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第106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第8장 정무원

第107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第108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第109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부, 정무원직속기관, 지방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대내외상업, 건설, 운수, 체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 및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
9.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0.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第110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전원회의는 정무원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들로 구성한다.

第111조 정무원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정무원상무회의는 정무원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第112조 정무원은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第113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第114조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부는 지시를 낸다.

제9장 지방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第11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第116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第117조 도(직할시)인민회의 임기는 4년,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第118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2. 지방예산을 승인한다.
3.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4. 해당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第119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第120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반수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第121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第122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第12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第12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第12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위원회와 하급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해당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第12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第12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第12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第129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第130조 지방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第131조 지방행정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第132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파 오 손 면

사회주의경제건설

사회주의문화건설

인민생활향상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구라파주

미주



김일성동지의 로작, 연설 및 축하문

신 년 사

(1972년 1월 1일)

동지들!

우리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1971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1972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동지들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드립니다.

1971년은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강령을 수행하는 첫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당 제5차대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고 투쟁하였습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특히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중심과업인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당은 3대기술혁명수행의 중심고리를 공작기계생산에서 찾고 6개년계획의 첫해전투에서 공작기계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대담하게 달라붙어 설비를 개조하고 생산공정을 적극 자동화하여 년간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할수 있는 수준을 돌파함으로써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희천의 로동계급이 일으킨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구성공작기계공장과 만경대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모든 기계공장들이 공작기계생산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올해 5.1절전으로 3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의 마지막돌격전을 벌리고있습니다. 우리가 한해에 3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게 되면 중요한 기계공장들을 더 늘일수 있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술적장비를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여러 부문의 수리기지를 보다 튼튼히 꾸릴수 있게 될것입니다.

지난해에 뜨락또르와 자동차 생산부문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뜨락또르, 자동차 공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였으며 그 생산량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공작기계와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이 대대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석탄공업을 비롯한 채취공업부문의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으며 농촌기술혁명도 많이 진척되였습니다. 또한 교통운수부문의 기술적장비가 강화되고 수송능력이 훨씬 높아졌으며 수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도 더욱 튼튼하여졌습니다.

1971년에 우리는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놓았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으며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기계공업을 비롯한 기간적중공업부문들이 발전하는데 따라 경공업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새로 일떠선 경공업공장들이 잘 꾸려지고 이미 있던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이 정상화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수 있는 토대가 닦아졌습니다.

1971년에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로동자, 사무원, 학생, 군인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모

내기를 5월 25일전으로 끝내고 모든 영농작업을 제때에 실속있게 함으로써 례년에 드문 대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민들에게 부식물을 더 넉넉히 공급할수 있도록 축산업의 토대도 튼튼히 닦아놓았습니다.

지난해에 국방공업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국방공업의 토대가 더 강화되고 모든 군수공장들에서 생산계획을 넘쳐 완수함으로써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거둔 이러한 성과들은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강화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기여로 됩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첫해전투에서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은 1971년을 기쁜 마음으로 돌이켜보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린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원쑤들의 끊임없는 군사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물리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굳건히 보위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안전원들은 혁명적경각성을 높여 적들의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냈으며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 청년근위대원들은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고있는 우리의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그리고 사회안전원들과 로농적위대원들, 붉은청년근위대원들에게 충심으로부터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1971년에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화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였습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악랄한 장기집권책동을 반대하여 완강히 싸웠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였습니다. 청년학생들은 원쑤들의 가혹한 탄압과 테로에도 굴하지 않고 강압적인 군사훈련과 학원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반대하여 대중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남조선의 광범한 민주세력은 《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같은 통일전선조직을 형성하고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의 용감한 투쟁으로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지난날에는 평화통일이라는 말조차 할수 없던 남조선에서 이제는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였으며 조국의 통일과 남북간의 접촉을 그처럼 완고하게 반대하던 남조선당국자들로 하여금 늦게나마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에 응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남조선인민들이 쟁취한 커다란 승리입니다.

나는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남조선인민들이 쟁취한 승리를 열렬히 축하하며 남조선의 전체 로동자, 농민, 진보적 인테리들과 청년학생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에 총련과 그 두리에 굳게 뭉친 재일조선동포들은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총련조직들은 민족교육의 권리를 수호하며 민족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재일조선동포들은 일본인민들과 단결하여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을 반대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적대시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나는 1972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60만 재일조선동포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1971년에 국제정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고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을 비롯하여 중국인민과 인도지나인민, 일본인민 그리고 기타 아세아나라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아세아에서 《닉슨주의》가 실패의 운명에 빠져들어가게 하였으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해외침략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난해에 웰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은 반미구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인도지나인민들은 자기의 용감한 투쟁으로 미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평화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형제적린방인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더욱 높아진것은 지난해에 세계 정치생활에서 일어난 커다란 사변의 하나입니다. 지난해에 세계 많은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하여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권리가 회복되고 장개석도당이 유엔의 모든 기구들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중국인민의 승리일뿐아니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승리입니다.

지난해에 일본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재생과 그의 해외침략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일본인민들과 일본의 광범한 민주세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적대시정책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조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나는 아세아에 대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셔버리며 모험적인 《닉슨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국인민, 웰남인민, 라오스인민, 캄보쟈인민, 일본인민 그리고 기타 아세아나라인민들이 쟁취한 빛나는 승리를 열렬히 축하하며 그들에게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지난해에 영웅적꾸바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도발책동을 용감하게 물리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칠레인민은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으며 우루과이, 볼리비아, 아르헨띠나를 비롯한 라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인민들이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여 영웅적꾸바인민과 칠레인민 그리고 라턴아메리카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에 아랍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습니다. 나는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이 미제와 이스라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승리를 열렬히 축하하며 올해에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지난해에 앙골라, 모잠비끄, 기네(비싸우) 애국자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투쟁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인민들이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민족적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아프리카인민들이 거둔 빛나는 승리를 열렬히 축하하며 그들에게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 당의 옳바른 대외정책에 의하여 지난해에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 혁명에 대한 지지자와 동정자대렬이 더욱 늘어났으며 세계의 더욱더 많은 혁명적인민들이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혁명위업을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의 진보적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올해에 우리는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들을 공고히 하면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세계 진보적인민들 특히 아세아혁명적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며 온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더욱 앞당겨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무엇보다먼저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공작기계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공작기계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은 희천과 구성, 만경대의 붉은 기계전사들의 모범을 따라 공작기계생산에서 또다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모든 공작기계공장들에서 공작기계의 품종을 늘이며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채취공업과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여러가지 질좋은 공작기계들을 더 많이 대주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뜨락또르와 자동차 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주어야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고 농업생산을 빨리 높일수 있으며 농촌로력을 절약하여 공업부문에 돌릴수 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뜨락또르공장과 자동차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더 늘이고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2~3년안에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는 3~4대, 자동차는 0.5~1대씩 차례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당이 내놓은 방침대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대규모의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 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는것과 함께 군중적운동을 벌려 여러곳에 중소규모의 자동화계기기구분공장들을 건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의 하나는 강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금속자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것입니다. 광업부문과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자기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들을 지표별로 어김없이 넘쳐수행함으로써 동, 중석, 니켈을 비롯한 여러가지 유색금속자재들과 강재에 대한 인민경제 여러부문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공작기계생산과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강재를 어김없이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지난해에 대풍작을 이룩한 경험을 살려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또다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을 빨리 높이기 위한 기본고리는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입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농업생산의 기계화, 화학화 수준을 더욱 높이며 분수식관수체계를 널리 실시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분수식관수체계를 잘 리용하는 한편 분수식관수면적을 더 늘여 2모작을 널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종자개량사업을 잘하여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좋은 종자들을 만들어내며 여러가지 선진영농방법을 널리 적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이 랑비현상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며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원료와 자재를 극력 절약하며 원단위소비기준을 결정적으로 낮춤으로써 적은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강령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업입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혁명적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기초우에서 우리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며 특히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범한 생산자대중속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학습을 널리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적교육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교육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며 가까운 시일에 10년제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교육부문일군들은 이미 얻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 몇해안에 10년제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수 있도록 그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문학예술부문일군들앞에는 당의 문예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의 문학과 예술을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만들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지난해에 당의 붉은 문예전사들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높이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올해에 작가, 예술인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 공산주의미래에 대한 굳은 신심을 북돋아주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 우수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더욱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전당, 전군, 전민, 전국이 학습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기의 혁명초소를 믿음직하게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두다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며 조직성이 있고 혁명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킬줄 아는 혁명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간부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모든 사업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 제5차대회는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며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

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과업들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당이 내놓은 이 영예로운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공업국가의 위력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군을 잘 꾸리며 농촌의 뻐스화, 수도화를 더욱 다그쳐 농촌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빨리 덜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에서 살림집을 많이 건설하여 살림집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며 인민보건사업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올해에 방직공업, 신발공업, 식료공업, 일용품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들과 화학공업에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전반적생활수준을 훨씬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로선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한편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간부화, 현대화하며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할데 대한 당의 군사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원쑤들의 어떤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걸쳐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전투정치훈련을 정력적으로 하여 부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거둔 성과에 토대하여 새로운 군사장비들을 더 많이, 더 잘 만들어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이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여야 할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속에서는 평화적조국통일의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습니다. 판문점에서는 해방후 26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조선적십자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남북으로 갈라진 동포들의 불행을 덜어줄데 대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고있습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남북사이의 이러한 접촉이 늦게나마 실현된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으며 이 회담이 남북사이의 장벽을 허물며 평화적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의 반동들과 집권자들은 있지도 않는 그 무슨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을 구실로 이른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놈들은 요즘 매일같이 각종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해내고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온갖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마저 여지없이 말살하고 남조선사회를 끝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있습니다. 며칠전에는 야당들과 사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파쑈적악법을 날조해냈습니다.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을 거역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남조선반동들의 이러한 파쑈화책동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평화통일기운을 억누르며 남북사이의 접촉과 협상을 파탄시키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남조선의 현 괴뢰통치배들은 1960년 4.19인민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급격히 높아가는 평화통일기운을 억누르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총칼로 《정권》을 가로챈 군사깡패들입니다. 그들은 괴뢰정권에 들어앉은 다음 《자주》요, 《부흥》이요, 《근대화》요하는 따위의 허울좋은 구호들을 내걸고 남조선인민들을 속이려 하였으나 그 본

질은 이미 세상에 드러난지 오랩니다. 지난 10년동안 남조선은 《자주》의 길이 아니라 가장 철저한 예속의 길을 걸어왔으며 《부흥》과 《근대화》의 길이 아니라 여지없는 파산과 몰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더는 헤여날수 없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빠져들어갔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더 큰 불안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폭압소동을 벌림으로써 막다른골목에서 빠져나와보려고 피하지만 그것은 림종에 다달은자들의 마지막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어대는것은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여론을 속이고 상전으로부터 몇자루의 무기와 몇푼의 딸라를 더 구걸하려는 극히 비렬한 행위입니다. 력사적흐름은 매국노들의 이러한 비렬한 행위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놈들의 기만술책은 그 누구도 속이지 못할것입니다.

요즘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가 이미 전쟁준비를 끝냈기때문에 오래지 않아 쳐나올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떠들어대고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결코 무력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의 무장력은 어디까지나 자위를 위한것입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은 오직 제국주의자들과 반동계급들, 반혁명분자들이 혁명을 반대하여 폭력을 사용할 때에만 폭력으로 대항합니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이며 우리 공화국정부의 행동지침입니다. 그러므로 남조선괴뢰도당이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어대는것은 황당무계한 허위선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괴뢰도당의 허위선전에 속아넘어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의 허위선전과 파쑈적폭압소동은 오히려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분노와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일본의 일부 반동적지배계층과 어용출판물들까지도 남조선에서의 《비상사태》선포는 남침의 위협에서라기보다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꾸며낸 정치적술책이며 사회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서방의 한 출판물은 남조선위정자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한것은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때문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것과 관련되는바 그것은 급성적경제위기로 인하여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불만을 억누르며 청년학생들의 시위투쟁과 지성인들의 항의, 야당들의 반항을 탄압하기 위한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을 파멸에서 구출해주리라는 어리석은 기대를 더는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와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의 내부문제를 가지고 함부로 좌지우지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으며 그들은 자기의 운명도 건져낼수 없는 내리막길에 들어선지 오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국내적으로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를 겪고있으며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여가고있습니다. 일본의 사또도당도 지배층내부의 알륵과 광범한 인민대중의 강력한 반정부투쟁에 부딪쳐 허우적거리고있습니다. 결국 남조선괴뢰도당의 처지나 그 상전들의 처지나 별로 다를것이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 사또도당이 대만의 장개석도당이나 남부월남의 티우도당을 파멸에서 구출하지 못한것처럼 남조선괴뢰도당도 결코 구출하지 못할것입니다.

형편이 이러한 오늘에 와서까지 남조선괴뢰도당은 계속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매여달려 자기들의 괴뢰통치를 유지하여보려고 시도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미제가 궁지에 빠져 남조선에 끌어들인 침략무력을 형식적으로나마 《감축》하려고 하는것을 《감축》하지 말아달라고 애걸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까지 남조선에 다시 끌어들이고있습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의 이러한 민족반역행위는 그들의 파멸을 촉진시킬따름입니다.

더우기 남조선괴뢰도당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승공통일》을 해보겠다고 망상한다는것은 실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력사는 이미 공산주의를 소멸할수 없다는것을 충분히 증명하였습니다. 공산주의운동은 빠리콤뮨으로부터 계산하여도 10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않은자들이 하나도 없었으나 그 누구도 공산주의를 소멸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조선의 력대괴뢰통치배들도 례외없이 《반공》의 구호를 들고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였으나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는 소멸된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을 따라 장성강화되여왔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공산주의사상은 이미 오래전에 확고한 지배적사상으로 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위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였습니다. 공산주의사상은 수많은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도 깊이 자리잡고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남조선괴뢰도당이 꿈꾸고있는 《승공통일》이 전혀 실현될 가망이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오늘의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지금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력사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비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출로도 찾아내지 못할것입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만일 그 어떤 출로를 찾으려 한다면 지금과 같은 비렬한 술책에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자기의 죄과를 솔직히 인정하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하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조선사람끼리 협상하여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진지한 호소에 호응해나서야 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여러번 내놓았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해에만하여도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8개항목의 평화통일방안을 내놓았으며 특히 8월 6일에 우리가 한 연설에서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다시금 천명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모든 방안과 제안들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뿐아니라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과 각계층인사들속에서도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도 마땅히 이 거족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들에 호응해나서는 용단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하는것만이 조선민족으로서 그들이 하여야 할 유일하게 옳바른 소행으로 될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할때에만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이 늦게나마 조국과 인민 앞에 저지른 죄과를 다소라도 씻고 자신을 구원할 출로를 찾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남조선위정자들이 이제라도 외세의존과 민족반역의 길을 버리고 참다운 조선사람의 립장으로 돌아선다면 우리는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을것이며 그들과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주장할것이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인내성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도당이 여기에 응하지 않고 계속 민족반역의 길로 나간다면 그들은 영원히 매국노의 죄악을 씻지 못한채 멸망하고말것입니다.

오늘 미제국주의는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나 그 침략적본성은 의연히 변하지 않았으며 계속 발악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들고나오는 《평화》의 간판은 인민들을 속이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닉슨은 누구보다도 더 악랄하고 교활한놈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영구히 분렬시켜 남조선을 자기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남조선괴뢰도당을 부추겨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적도발책동을 계속하고있습니다. 또한 미제에 의하여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

야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돌격대》로서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가담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있으며 침략의 기회만 노리고있습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결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노예로 될수 없으며 1910년의 수치스러운 망국의 력사를 되풀이할수 없습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조국수호와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꺾어버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난날 나라와 민족 앞에 죄과를 저지른 사람들도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섬으로써 이를 통하여 자기의 죄를 씻어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위정자들도 민족반역의 죄과를 씻으려 한다면 마땅히 이 투쟁에 합류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남조선에서 나가지 말아달라고 애걸할것이 아니라 미제를 몰아내기 위하여 투쟁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애쓸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침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싸운다면 우리는 어떠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 능히 쳐물리칠수 있습니다. 만일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끝내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일치단결하여 원쑤들과 판가리싸움을 할것이며 침략자들을 완전히 소탕해버리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할것입니다.

올해에 총련조직들과 전체 재일조선동포들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수호하며 민족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재일조선동포들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여야 하며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일본의 광범한 민주세력과 굳게 단결하여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적대시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특히 재일조선동포들은 미일반동들과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과 온갖 파괴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고 대오를 더욱 튼튼히 결속하며 모두다 총련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국제정세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세계반제혁명력량은 날로 확대강화되고있으며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중국인민, 인도지나인민, 일본인민 그리고 기타 아세아나라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힘차게 벌릴것입니다. 그리하여 미제의 악명높은 《닉슨주의》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우리 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에 더욱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여 나갈것입니다.

동지들!

새해 1972년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해로 될것입니다. 올해에 우리는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또다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게 될것이며 평화적조국통일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가 있고 전체 인민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확고히 지지옹호하며 그 관철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이상 우리의 혁명위업은 언제나 필승불패입니다.

모두다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6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2년 12월 25일)

대의원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대의원선거는 전체 인민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고있으며 온 나라가 자주적평화통일의 열망으로 들끓고있는 환경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높은 긍지와 영예감을 가지고 선거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깊은 신뢰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의 혁명주권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보다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나는 전체 인민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절대적인 지지와 깊은 신뢰를 표시하여준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조선인민이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참다운 인민의 헌법을 가지고 공화국의 기치밑에 새 사회,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24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말그대로 천지개벽이 이룩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는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들을 법적으로 규제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사회주의헌법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초안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토의되였으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인민회의에 제출되였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커다란 사변으로 될것입니다.

1.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투쟁

동지들!

사회주의혁명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종국적으로 없애며 사회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 인류력사상 가장 심각한 사회적변혁입니다.

인민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며 그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맑스-레닌주의당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려면 반드시 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은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야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에서 완전히 해방되여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으며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은 해방후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된 기초우에서 시작되였습니다.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사회주의혁명에로 계속 이행하는것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과정입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된 다음 우리 나라에는 국영경제를 기본으로하는 사회주의적경제형태와 함께 농촌의 개인농경리와 도시수공업경리로 구성된 소상품경제형태, 도시의 자본주의적상공업과 농촌의 부농경리로 구성된 자본주의적경제형태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적경제형태와 소상품경제형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완전히 없앨수 없으며 사회의 생산력을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없고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나라의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한 다음 계속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통일과 단결을 새로운 사회주의적기초우에서 더욱 강화하며 반동들의 근거지와 낡은 사상을 낳는 온상을 없애고 혁명의 정치적지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계속하여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인민은 민주주의혁명에 뒤이어 곧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평화적건설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은 부분적으로 시작되였을뿐이고 아직 준비단계에 있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으로 말미암아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적개조사업은 일시 중단되지 않을수 없었으며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은 전후에 새로 시작하나 다름없게 되였습니다.

전후 공화국북반부의 사회경제형편은 사회주의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여지없이 마사졌으며 빈농은 물론 중농과 부농들도 극도로 령세화되였습니다. 전후 우리 나라 농촌에는 부림소와 농기구, 로력이 얼마 없었으며 먹을것과 입을것도 매우 모자랐습니다. 농촌경리가 이와 같이 혹심하게 파괴된 조건에서 개인농민경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농업생산력을 빨리 복구할수 없었으며 전후에 매우 어렵게 된 식량문제를 풀수 없었습니다. 파괴된 농업생산력을 빨리 복구하지 못하고 식량문제를 제때에 풀지 못한다면 공업과 전반적인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주며 나아가서는 계획적으로 빨리 복구발전되는 공업과 느리게 복구되는 농촌경리사이에 심한 불균형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농경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령락된 농민들의 생활을 빨리 추켜세울수 없었으며 특히 전쟁시기에 늘어난 빈농민문제를 풀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나라에서 개인농민경리의 제한성은 전후에 가장 뚜렷이 나타났으며 더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습니다. 전후 우리 나라에서 개인농민경리의 제한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도는 농촌경리를 협동화하는것이였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개인상공업도 매우 령락되였습니다.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은 큰 피해를 입고 수공업자나 소상인과 같이 빈손밖에 없는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기업가, 상인들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파괴된 경리를 복구할수도 없고 살아나갈수도 없었습니다. 전후 령락된 기업가, 상인들이 살아나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의 지원밑에 자기

들의 힘과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일하는 길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길이였습니다. 전후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도록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요구였을뿐아니라 그들의 처지로부터 나온 객관적필연성이였습니다.

전후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켜야 할 필요성은 또한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강화하는데 있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을 계속 추진시켜야 북반부를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튼튼한 기지로 만들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북반부에서 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북반부혁명자체발전의 요구였을뿐아니라 전 조선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였습니다.

우리 당은 전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전후시기를 사회주의혁명의 가장 적당한 시기로 인정하고 1955년 4월테제에서 사회주의혁명을 본격적으로 다그칠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개조하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하는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전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농촌경리의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농업협동화운동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우리는 전후에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가 혁명의 성숙된 요구로 나선 조건에서 경제가 파괴되고 기술의 발전수준이 낮다고 하여 농업협동화를 뒤로 미룰수 없었습니다.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조건은 농촌경리가 현대적기술로 장비되여있는가 하는데있는것이 아니라 농업협동화가 농민들자신의 생활적요구로 나서고있는가,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바와 같이 농민들의 토지와 농기구를 단순히 통합한 공동경리에서도 개별적소농경리에서는 이룩할수 없는 경리의 개선을 가져올수 있으며 로동생산능률을 몇배로 높일수 있는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공업화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린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따라 먼저 경리형태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농업생산력을 빨리 복구하고 더욱 발전시킬수 있었으며 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농업협동화운동을 지도하는데서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운동에서 강제적방법을 철저히 배격하고 농민들이 협동경리에 자원적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옳은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협동화운동에서 실물교육은 수세기에 걸쳐 개인경리에 물젖은 농민들을 설복하여 자원적으로 협동경리에 들어오도록 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경험적단계를 설정하고 실천적모범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보여주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토지가 농민들의 사적소유로 되여있고 그들의 재산정도와 사상적준비정도가 서로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농업협동경리의 형태를 세가지로 규정하고 농민들이 자기의사에 따라 어느 한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농민들의 생산수단을 통합하는데서도 부림소와 농기구 같은것은 그들의 희망에 따라 통합하든가 또는 일정한 시기까지 계속 사적소유로 남겨두면서 공동으로 리용하도록 하였으며 통합하는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한 값을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이러한 시책들은 각계층 농민들로 하여금 협동화방침을 쉽게 받아들일수 있게 하였으며 협동화운동에서 나타날수 있는 이러저러한 폐단을 미리 막을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원성의 원칙에 따라 각이한 계층의 농민들을 협동경리에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우리

당은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부농을 제한하며 점차적으로 개조하는 계급정책을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 빈농들과 농촌의 핵심들로 먼저 경험적으로 매개 군에 농업협동조합을 몇개씩 조직하고 그것을 튼튼히 하는 기초우에서 협동화운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업협동조합들에서 빈농들이 핵심적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부유한 농민들로만 협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농업협동조합사업에 부농의 영향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또한 중농을 강제로 협동경리에 끌어들이거나 그들의 리익을 침범하여 중농과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편향이 생기지 않도록 엄격히 경계하면서 개인경리와 협동경리와의 경쟁을 통하여 중농들에게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부농에 대하여서는 수탈하고 청산한것이 아니라 착취적측면을 제한하면서 그들이 자원적으로 협동조합에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농업협동화운동의 전기간 농민들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사회주의적공업에 의거하여 농업협동조합들에 여러가지 형태의 강력한 물질기술적지원과 로력적방조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와 방조는 초기 빈농민들로 조직된 빈약한 농업협동조합들을 추켜세워 개인경리에 비한 그 우월성을 보여주는데 있어서나 협동경리제도를 정치, 경제적으로 튼튼히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이 모든 현명하고 창조적인 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였으며 4～5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승리적으로 끝났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농촌경리를 협동화하는것과 함께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과도기 첫시기부터 수공업의 협동화를 시험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후시기에 와서 그것을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자본주의적상공업의 개조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였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자본주의적상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수탈하지 않고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민족자본가들은 불철저하지만 일정한 혁명성을 가지고있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반봉건사회 민족자본가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 민족자본가들을 혁명의 편에 끌어들여 그들과 함께 민족해방투쟁도 하였고 민주주의혁명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민족자본가들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그들과 함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할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까지 같이 가려는것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혁명단계에 와서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이 혁명의 대상이라고 하여 기업가, 상인들을 수탈할수는 없었습니다. 더우기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적상공업이 다 파괴되고 기업가, 상인들이 당의 사회주의혁명로선을 지지하여나온 조건에서 그들을 수탈할 필요가 전혀 없었으며 또 수탈하려고 하여도 수탈할것도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전후에 모든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그들을 여러가지 형태의 협동경리에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수공업자들로 조직한 생산협동조합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기업가들을 점차적으로 협동경리에 받아들이도록 하였으며 개인상인들로는 판매협동조합이나 생산판매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거기에서 점차 생산의 비중을 높여 그것을 생산만하는 생산협동조합으로 개편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는 매우 빨리 진척되여 1958년에 농업협동화와 거의 동시에 완성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 북반부에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서게 되였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는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동지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사업과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 다시말하여 공산주의건설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과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입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 하여야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전후복구건설단계와 공업화의 기초축성단계, 공업화완성단계의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여왔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매 단계마다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옳은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왔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기본로선은 전후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옳게 타산한 정당한 로선입니다. 이 로선은 또한 맑스-레닌주의확대재생산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것으로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하는 정확한 로선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따라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건설에 선차적인 힘을 돌렸습니다.

중공업건설에서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과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원료, 연료, 동력, 기계설비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는 자체의 튼튼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는것이였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튼튼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기 위하여 이미 있던 중공업공장들을 복구하고 개건확장하는것과 함께 우리 나라에 없던 새로운 공업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수많이 건설하였습니다. 우리는 중공업을 건설하는데서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더 잘 복무할수 있는 중공업을 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공업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이러한 방침은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을 건설하며 그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업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공업은 기간적부문들을 다 갖춘 강력한 중공업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습니다. 특히 기계공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계공업은 여러가지 대형기계들과 정밀기계들 그리고 현대적공장들의 설비를 종합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경공업발전에도 커다란 힘을 돌려왔습니다.

경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 당은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키는 방침을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현대적 대규모의 중앙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는것과 함께 지방의 예비를 널리 동원하여 지방산업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

였으며 지방공업의 기술개건사업을 적극 밀고나갔습니다.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은 국가의 큰 투자없이 짧은 기간에 소비품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였으며 국가자금을 중공업과 중앙경공업에 집중하여 전반적인민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방공업의 발전은 또한 농민들의 농업생산물과 부업생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가공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빨리 추켜세우고 도시주민들에 대한 소비품공급사업도 개선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공업발전에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이 훌륭히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에는 대규모의 현대적인 중앙경공업공장들과 함께 수천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일떠섰으며 그 기술장비도 현저히 개선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공업은 여러가지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는 믿음직한 소비품생산기지로 발전하였습니다.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것은 전반적인민경제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망적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생산력을 배치하는데서 공장, 기업소들을 원료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키며 인민경제부문들의 균형적발전과 나라의 전반적지역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빨리 줄이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전후 인민경제를 복구건설하는데서 복구의 속도를 보장하며 자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공장, 기업소들은 원위치에 복구하였지만 새로 건설하는 공장, 기업소들은 여러 지역들에 분산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새로운 공업도시들이 형성되고 지방들에 종합적인 공업생산기지가 창설되였으며 지난날 공업배치에서 가지고있던 부족점들과 불합리성이 완전히 극복되였습니다.

공업의 합리적배치는 나라의 자연부원과 로력원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빨리 다그칠수 있게 하였으며 나라의 전반적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였습니다. 공업의 합리적배치는 또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를 밀접히 하여 로농동맹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였으며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와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훨씬 줄일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의 합리적배치는 몇개 도시에 공장과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되는것을 방지하고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큰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는 공해현상을 미리 막을수 있게 하였습니다.

농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지난 기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하는것과 함께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따라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수리화는 농촌기술혁명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된 중요한 과업이였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이미 정전직후부터 농업협동화운동과 함께 관개공사를 널리 진행하였으며 농업협동화가 완성되는데 따라 이 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밀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논관개가 완전히 끝나고 밭관개도 적지 않게 실현되였으며 중요 벼생산지대들에서 고인물빼기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하여 가물피해와 큰물피해를 모르고 농사를 지어보려던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 완전히 실현되였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대규모의 발전소들과 함께 중소규모의 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하여 농촌전기화의 과업도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리에 전기가 다 들어갔으며 모든 농가들에서 전기불을 보고있습니다. 농촌에서 전기는 농민들의 가정문화생활에서뿐아니라 농업생산의 기계동력과 열원으로 널리 쓰이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에도 커다란 힘을 넣었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능률적인 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농약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 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우리 농민들은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점차 벗어나고있습니다.

농촌기술혁명이 추진되는데 따라 농업생산이 빨리 발전하였으며 지난날 빈궁과 암흑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 농촌이 오늘은 넉넉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되였습니다.

민족간부를 키워내는것은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였던 우리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해방직후 우리에게는 민족간부가 매우 적었으며 이것은 국가관리와 경제문화건설에서 큰 난관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민족간부를 키워내는데 큰 힘을 돌려왔으며 특히 전후에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것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민족기술간부를 대대적으로 키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지방들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나라에는 50만에 달하는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가 이루어졌으며 그들에 의하여 국가경제문화기관들과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적들의 침략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는데 따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로선을 내놓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편하였으며 국방건설에 더욱 큰 힘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경제건설에서 일정한 지장을 받으면서도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국방건설에 돌렸으며 전체 인민을 당의 군사로선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인민군대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온 나라가 요새화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적들의 침략도 물리치고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여놓았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입니다. 사회주의사회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것과 함께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해야 하며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옳은 로선과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습니다. 사회주의혁명시기에 우리는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를 밀접히 결합시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켰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데서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높이고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로동계급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

고 생산투쟁속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단련시켰으며 로동계급의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선봉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근로자들속에서 그들의 혁명적작용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로동계급은 몇푼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으로 되였으며 조선혁명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의 기본부대의 하나인 농민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여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그치는 한편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은 훨씬 높아졌으며 그들속에서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생활기풍이 확립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농민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고있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식량을 더 많이 보내주며 경공업의 원료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자기의 인테리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 인테리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특히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인테리를 교양개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인테리들은 사회주의적근로인테리로 개조되였으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가고있습니다. 우리의 인테리들은 자기의 공명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일하고있으며 로동자, 농민들과 한 혁명대오에 나란히 서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과 낡은 습성을 뿌리빼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여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왔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계급교양을 기본으로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꾸준히 진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혁명적인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모든 근로자들이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직의 지도와 통제밑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특히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단련시켰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켰으며 이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부는 지난기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참으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매우 짧은 기간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습니다. 과학과 문화를 찬란히 개화발전시켰으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길에서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였습니다.

2.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동지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이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근로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력사의 창조자입니다.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가 창조되며 사회적변혁과 진보가 이룩됩니다. 그러므로 근로대중은 마땅히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모든 물질적부의 향유자로 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나 근로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사회적지위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고있는가 못가지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라야 사회의 주인으로 될수 있습니다.

착취사회에서 근로대중은 국가주권을 쥐지 못하고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에 사회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멸시를 받고있습니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의 인격도 돈에 의하여 평가되며 돈없는 사람은 물건처럼 취급되고있습니다.

근로대중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비로소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실시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근로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인격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사회의 앞날을 대표하는 새세대들을 누구보다도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들이 착취사회에서와 같은 사회악을 모르고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온갖 배려를 돌리고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되고 그들의 인격과 권리가 최대한으로 존중시되는것은 바로 그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기 때문입니다. 근로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여기에 사회주의제도의 모든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의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제도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온갖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있습니다. 지난날 예속과 무권리 속에서 살아오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이 오늘은 주권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와 나라의 정치에 직접 참가하고있으며 정당, 사회단체조직들에 망라되여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존엄있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한줌도 못되는 착취계급의 손에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이 아무런 정치적 권리와 자유도 가지고있지 못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국가주권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가 없는것은 물론 자기의 정치적의사를 발표할수있는 가장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가지고있지 못하며 그들에게는 오직 착취계급에게 순종할 의무만이 차례지고있습니다. 자본가들이 떠드는 이른바 《자유》와 《권리》는 전적으로 통치자들과 착취계급이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부르죠아독재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또한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준다는데 있습니다.

인민들을 다같이 잘살게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특성입니다. 착취사회에서는 국가가 로동자, 농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복무하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장할 임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일할 나이가 되면 누구나 다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받고있으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고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로동보호제와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와 정휴양제의 혜택으로 안전한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보장받고있으며 특히 모성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커다란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로동능력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줄뿐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로동재해 또는 병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의 생활까지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주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거나 류랑걸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속에서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먹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국가에서 옷을 공급받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은 살림집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있으며 농민들도 국가가 지어준 문화주택에서 생활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여 모든 근로자들이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고있습니다. 도시나 농촌 할것없이 근로자들이 일하며 살고있는 모든 곳에 치료기관과 의료일군이 있으며 선진적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여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전에 비하여 인구의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26년이나 늘어났습니다. 온갖 질병에서 벗어나려는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은 우리 제도하에서 비로소 실현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배우며 발전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 주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학교학생으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이 무료교육을 받고있으며 학령전어린이들은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행복하게 자라나고있습니다. 특히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을 주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우리의 새세대들은 11년동안 국가의 혜택으로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11년제의무교육으로서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사회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던 성인들에게도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자중학교와 공장고등기술학교, 공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마음껏 배우고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나라는 국가의 혜택으로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비록 지주나 자본가들처럼 호화롭게 살지는 못하지만 일자리에 대한 걱정,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고있으며 마음껏 공부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진정으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위한 제도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입니다.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들에게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여줄뿐아니라 래일의 보다 휘황한 생활의 전망을 열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의 결과가 전적으로 사회의 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는것만큼 사회의 재부가 늘어날수록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유족하고 문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소수 착취계급들이 날로 부유해지는 반면에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은 더욱더 령락되여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의 빈부의 차이가 날로 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이며 근로대중을 기아와 빈궁에로 몰아넣는 암담한 생지옥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진정으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위한 인민적인 사회제도라는것을 높은 긍지를 가지고 떳떳이 자랑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나라의 모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계획적으로 동원리용하며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함으로써 경제의 계획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기때문에 생산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강화되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7～1970년에 이르는 공업화의 전기간에 공업생산이 해마다 평균 19.1%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1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문학예술도 찬란히 개화발전합니다. 사회주의제도는 주권과 생산수단뿐아니라 문학예술도 인민의것으로 만듦으로써 문학예술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으며 문학예술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문학예술로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광범한 근로자들이 문학예술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문학예술을 마음껏 즐기고있습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으로 하여 인민들의 끝없는 사랑을 받으며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강화되고 근로자들사이의 동지적협조관계가 날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입니다.

착취계급과 온갖 착취제도의 청산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처지와 사회적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결과 우리 인민은 모두다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였으며 그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은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결합되여있으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있으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에

서는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며 사람들이 서로 반목질시하고 공명과 출세,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것이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협조하는 진정한 동지적관계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속에서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고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이끌면서 다같이 전진하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전체 인민이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단합된 화목한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 대가정속에서 혁명적정열과 락관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고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정치사상적으로 통일되여있고 혁명적정열을 내여 일하는 여기에 우리 사회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전면적으로 발휘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제도만이 근로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가장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 줄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으며 이 제도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고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은 자신이 선택하였으며 그 우월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누구에게도 양보하려 하지 않으며 이 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한결같은 결의에 불타고있습니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기본내용

동지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새로 작성된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들과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있으며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을 규제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헌법은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법적으로 옹호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 복무할 사명을 지니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정치적승리와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성격과 임무, 활동원칙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주의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선포하였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그 토대우에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그 결과 공화국정권은 새로운 사회주의적토대와 확고한 정치적지반을 가진 사회주의적정권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에게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들에는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대표들이

대의원으로 참가하며 그들이 국가기관들을 관리운영합니다. 우리의 국가는 근로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주권을 행사하고있는 참다운 로동자, 농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하는것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공화국정권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으며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하는것은 공화국정권앞에 나서고있는 기본혁명과업입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내외적대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하며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헌법은 공화국정권이 자기 활동에서 언제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과 경제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것을 밝히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과 자위적원칙에 기초한 조국보위방침 그리고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공화국의 대외활동방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인민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경제생활의 제원칙들을 뚜렷이 밝히였습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기초입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유일적지배를 확립한 사회주의적생산관계에 기초하여 우리 국가의 모든 경제활동과 근로자들의 사회경제생활은 철저한 사회주의적원칙에 따라 진행되고있으며 나라의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위력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커다란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하여 믿음직하게 담보되고있습니다.

로동에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경제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사회에서의 로동의 성격과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원칙 그리고 사회주의적분배원칙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서만 건설될수 있습니다. 로동을 사랑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가장 큰 영예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참가하고있으며 모두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의 결과는 전적으로 조국의 부강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돌려지고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사회주의적원칙입니다. 우리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제1차적과업으로,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회주의헌법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와 국가의 경제지도원칙이 지적되여있습니다.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확증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입니다. 또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적계획화의 체계이며 방법입니다.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이 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지도하며 관리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사회주의헌법에는 또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하며 협동적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에로 전환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앨데 대한 경제적과업들이 제시되여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문화건설분야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토대하여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방향과 여기에서 국가가 견지하여야 할 제원칙들을 뚜렷이 밝혔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문화혁명의 기본목적은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기술을 가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며 우리의 문화를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로 만드는데 있습니다. 문화혁명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교육,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전전한 토대우에서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헌법에는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국가의 교육방침과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새세대들에 대하여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중요한 인민적교육시책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여있습니다. 헌법에는 또한 과학과 문학예술, 체육과 인민보건사업 발전에 대한 우리 국가의 혁명적방침들이 뚜렷이 밝혀져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있습니다. 착취와 압박이 없고 사회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우리 나라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된 공민의 기본권리는 우리 인민이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누리고있는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확인한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공민의 의무는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데서 나라의 주인인 인민들이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영예로운 의무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혁명발전의 현실에 맞게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을 새롭게 규정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새로운 국가기관체계는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이 국가사업과 국가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게 되여있으며 국가기관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도록 되여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기관들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합니다. 새로운 국가기관체계는 행정기관들이 자기 활동에서 늘 인민대중의 감독과 통제를 받도록 되여있습니다. 종전의 국가기관체계와는 달리 새로운 국가기관체계에서는 인민위원회와 행정기관을 분리시키

고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인민위원회가 행정기관들의 사업을 늘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일군들이 사업에서 관료주의를 없애고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회주의헌법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모든 국가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전국적범위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통일적으로 집행할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인민정권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을 위한 가장 인민적인 헌법입니다. 새로운 헌법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있으며 근로인민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있습니다. 새 헌법은 또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체 인민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있으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온갖 조건들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가장 혁명적인 헌법입니다.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서술한 헌법들과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며 사회주의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예리한 무기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복무할것입니다.

사회주의헌법의 제정으로 공화국정부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새로운 무기를 가지게 될것이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헌법의 실시는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할것입니다.

사회주의헌법이 실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는 새로운 전변이 일어날것이며 우리 인민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할것입니다.

4.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과업

동지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우리 인민 앞에는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토대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계속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여야 할 력사적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훨씬 높이며 적대계급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투쟁이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로동계급

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인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것입니다.

현단계에서 기술혁명의 기본과업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입니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과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이며 사회주의적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우리앞에 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과업입니다.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로동생활에서 그들에게 보다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여주며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과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기본방도로 됩니다. 또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여야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문제도 원만히 해결하여 나갈수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당이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그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우리는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기 위하여 힘든 작업과 고열로동, 유해로동이 진행되는 부문들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그들이 부엌일과 가정일을 짧은 시간에 헐하게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합니다. 3대기술혁명의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할것입니다.

무엇보다먼저 기계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며 이 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기술혁명은 곧 기계혁명입니다. 사람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는 결정적수단은 기계이며 생산력의 발전도 다름아닌 기계의 개선으로 이루어집니다. 3대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결국은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여러가지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기계공업발전에서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문제는 공작기계생산을 계속 빨리 늘이는것입니다. 지난 기간 기계공업부문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공작기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년간 공작기계 3만대 생산고지를 빛나게 점령함으로써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승리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공작기계의 대수를 계속 늘이기 위하여 투쟁하며 특히 공작기계의 품종을 늘이고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3대기술혁명수행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며 당면하게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 당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가까운 앞날에 논밭 100정보당 뜨락또르는 6~7대, 자동차는 1대씩 보내줄데 대한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당의 이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기지를 더욱 확장하고 튼튼히 꾸리며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1~2년안에 매해 뜨락또르는 3만대, 자동차는 1만 5,000~3만대씩 생산할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대형기계와 대상설비 생산을 발전시키

는것입니다. 대형기계생산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여 채취공업과 대자연개조사업에 요구되는 종합굴진기, 대형불도젤, 대형굴착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대형기계들과 대형선박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미 마련된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의 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여러가지 자동화요소와 계기, 기구들을 많이 생산하는 한편 중소규모의 자동화요소분공장들과 자동화계기기구분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꾸려야 할것입니다.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며 방대한 건설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금속공업발전에 힘을 넣어 여러가지 철강재와 유색금속 생산을 훨씬 늘여야 합니다. 김책제철소와 강선제강소를 비롯한 야금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는 공사를 빨리 끝내고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현대적대야금기지를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색금속생산기지를 더욱 강화하고 제련소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여러가지 유색금속생산을 훨씬 늘여야 하겠습니다.

채취공업과 전력공업을 앞세우는것은 3대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지질탐사사업을 철저히 앞세우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탄광, 광산들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설비관리를 잘하여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한편 새로운 발전소들의 건설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그 조업기일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농촌기술혁명수행에 필요한 화학비료와 농약 생산을 계속 늘이는것입니다. 화학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6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특히 비날론과 염화비닐 생산에서는 올해에 벌써 6개년계획말 수준을 돌파하였습니다. 앞으로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생산능력을 더 잘 리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화학공업기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또한 화학비료생산에서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생산을 정상화하며 린비료와 미량원소비료의 비중을 훨씬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종이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실시와 문화혁명수행에 필요한 종이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앞에는 3대기술혁명의 성과적수행과 인민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방대한 건설사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당의 건설집중화방침에 따라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중요건설대상들에 힘을 집중하여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할것입니다.

건재공업과 림업 발전에 힘을 넣어 여러가지 건설자재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공화국정부는 방직공업과 피복공업에 큰 힘을 넣으며 특히 일용품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일용품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현대화하기 위하여서는 기계공업부문에서 이에 필요한 여러가지 단능설비들을 많이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기계를 새끼치고 공장이 공장을 새끼치는 군중적운동을 널리 벌려 일용품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의 현대화를 빨리 실현함으로써 일용품과 식료품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농민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것입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이 빨리 늘어나는데 따라 농사일의 기계화비중을 훨씬 높이며 특히 중간지대의 기계화를 실현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뜨락또르수리기

지와 련결농기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토지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려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임으로써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다그치며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널리 적용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할것입니다.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교통운수부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습니다. 이 부문에서는 철도전기화를 계속 추진시키며 새 철도건설과 항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교통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수송조직을 개선하고 짐을 싣고부리는 일을 적극 기계화하여 늘어나는 화물수송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정부는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문화건설분야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절박한 과업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이 요구하는 기술인재를 대대적으로 키워내며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훨씬 높이는것입니다.

우리는 대학들과 고등전문학교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고 대학들을 더 늘이며 야간교육사업과 통신교육사업을 더욱 강화발전시킴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기술자, 전문가의 대오를 100만명이상으로 늘일데 대한 당 제5차대회의 결정을 어김없이 실천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여러가지 물질적조건을 충분히 갖추며 사범교육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우수한 교원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학생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야 할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근로자중학교와 공장고등기술학교를 비롯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근로자들이 다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정상적으로 공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다 고중졸업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하며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당의 일관한 방침에 따라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여야 할것입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입니다.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질수 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꿋꿋이 지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당의 참된 붉은 전사, 공산주의적혁명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과 함께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그 공고발전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공화국정부의 모든 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을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면서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이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방침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높이면서 특히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정권기관들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로동자, 농민의 정권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우리는 각급 정권기관들을 튼튼히 꾸리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급 정권기관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정치적권리와 리익의 옹호자로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자기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정권기관들은 근로자들의 정치적권리를 백방으로 옹호하고 그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전체 인민이 다 잘살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각급 정권기관들은 인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상업, 도시경영사업, 교육사업, 보건사업, 생산과 건설 사업을 틀어쥐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권기관들은 또한 국가재산과 사회재산을 잘 보호관리하며 그것을 탐오랑비하는 현상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정권이 진정으로 혁명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로동자, 농민의 정권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각급 정권기관일군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하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옹호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권기관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흔히 나타날수 있는 주요한 결함은 관료주의입니다.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는 자기의 직위를 벼슬자리로 생각하는 그릇된 관점과 주관주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일군들의 관료주의는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며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게 합니다. 우리는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와 직접 맞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조건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과 침략책동에 대하여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며 자위의 혁명적원칙에 따라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짐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제때에 짓부셔버리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대외정책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대외정책분야에서 이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

라들과의 국가적관계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더 많은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며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침략적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평화공존의 5개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대외활동분야에서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와 《협상》의 허울좋은 간판뒤에 숨어서 교활한 방법으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모든 반제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의 편에 언제나 튼튼히 서있을것입니다.

지난 기간 재일조선공민들은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수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며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재일조선공민들은 앞으로도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총련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민족교육을 발전시키며 조국에로의 귀국과 래왕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완강히 벌려야 할것입니다. 재일조선공민들은 또한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인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며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친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조선공민들을 보호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해외조선공민들의 리익과 민족적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부당한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것이며 해외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할것입니다.

대의원동지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중첩되는 난관과 준엄한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이룩한 모든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증명하는것이며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시위하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 앞에는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계속 비상한 정력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며 모든 난관을 박차고 더욱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이번에 새로 채택하는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며 그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입니다. 모든 공민들은 사회주의헌법을 자각적으로 준수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정당하며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권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없습니다.

모두다 맑스-레닌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일본 《요미우리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2년 1월 10일)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들은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대하여왔으며 일본에 있는 우리 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업과 귀국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또한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감사히 생각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현지지도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였는데 우리는 지도라기보다도 배우기 위하여 군중속에 들어갑니다.

지난날 혁명투쟁을 하여오던 우리가 건설사업을 하자고 하니 많은 문제들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자면 대중 특히는 직접 생산하는 로동자, 농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자주 공장과 농촌에 나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의논합니다.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맑스-레닌주의당도 집권당이 되면 주관주의에 빠지고 관료주의를 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을 면하자면 군중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모든것을 의논하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선생은 인민대중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들에게서 배웁니다.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에나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나 우리는 언제나 대중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부닥친 난관을 뚫을 방도를 찾았으며 그들에게서 신심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수많은 실례를 들수 있을것입니다.

혁명투쟁이나 건설사업이나 그 성과의 기본고리가 당과 대중의 통일에 있다고 하는것은 우리의 일관된 신조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공장과 농촌들에는 이름없는 영웅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당을 받들고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갑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에게 당의 의도를 알려주고 그들의 창발적의견을 종합하며 그에 기초하여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과 대중의 결합된 힘에 의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이 성과있게 관철되여나가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과 같이 호흡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까지 주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과오를 범하지 않은 비결은 여기에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주관주의적오유에 빠지지 않고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계속 강화할것입니다.

당신들이 제기한 질문을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당신들의 질문은 매우 넓은 분야에 걸쳐 많은 문제들을 포괄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이 묻고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편의상 내용에 따라 몇가지로 묶어서 대답하려고 합니다.

1. 주체사상에 대하여

당신들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간단히 대답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내가 주체사상에 대하여 쓴 일련의 책들을 읽게 된다면 더 잘 리해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활동의 지도적지침입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있습니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주로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현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없고 수입할수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혁명을 대신해줄수는 없습니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 자체의 힘입니다.

더우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종전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새롭게 수많이 나서게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 혁명에서는 무엇보다도 주인인 그 나라 인민자신이 노력하고 투쟁하여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혁명과 건설을 성과있게 수행할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혁명실천에서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을것을 요구합니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것만큼 혁명에서 승리하자면 사람들이 옳은 혁명적세계관을 가져야 하며 여기에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상과 관점을 가지는것이 중요합니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이러한 요구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주체를 세우는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부 사람들의 머리속에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을 덮어놓고 숭배하며 큰 나라를 섬기는 비굴한 사대주의사상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사상에 물젖은 사람들은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에도 자기 인민에 튼튼히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남만 쳐다보면서 제가끔 자기의 상전을 업고 당파싸움만 일삼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 나라는 남에게 먹히우게 되였습니다.

사대주의는 그 이후에도 가셔지지 않았으며 거기에 교조주의까지 겹쳐 우리 나라 혁명발전에 커다란 해독을 끼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주의운동이 좌절되고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실패한것도 그 주되는 원인은 사대주의와 그로부터 흘러나온 종파주의에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뿐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이러한 실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도 주체적립장을 지키지 못하고 남의 나라 사상조류들을 업고나선 파벌들이 생기여 혁명발전에 많은 지장을 준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을 망쳐먹는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았습니다.

사대주의에 빠져 남에게 맹종맹동하면 과오를 범하여도 어떻게 되여 과오를 범하였는지 그 원인을 알수 없으며 고칠 방도도 찾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간다면 혁명과 건설을 잘할수 있을뿐아니라 혹시 과오를 범한다 하여도 그 원인을 인차 찾을수 있고 고칠수 있습니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이 력사적경험을 살려 혁명투쟁에서 절대로 사대주의를 해서는 안되며 앞으로 새 조국을 창건할 때에는 반드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말그대로 자주독립적인 국가를 건설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조선혁명가들의 한결같은 지향이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8.15해방후 미제국주의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혁명이 복잡성과 간고성을 띠게 되였으며 남조선에서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이 뿌리박고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환상까지 퍼지고있는 조건에서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을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보고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에 걸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이 력사적인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오래동안 민족자주의식과 창조적지혜를 좀먹고있던 사대주의사상의 멍에로부터 우리 인민의 완전한 정신적해방을 이룩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되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간부들은 물론 인민들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며 그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사상은 매우 건전합니다.

당신들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의 정책의 문제점이 어데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대내외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거기에서 출발하고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부문의 로선과 정책은 물론 구체적인 방침들도 그 밑바닥에는 주체사상이 놓여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우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에 구현되고있습니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입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정치적자결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야만 나라의 완전독립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웠으며 또 세우고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것을 그대로 따오거나 모방하지도 않습니다.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이 규정하고 관철한 정책들은 모두 어디에서 베껴온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립장에 서서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창조적으로 만들어낸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혁명운동과 그 경험을 전혀 참고하지 않은것이 아닙니다. 남의것을 참고하되 그것을 바로 참고하였으며 또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을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였기때문에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며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길로 이끌어올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체적립장에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풀었습니다.

례를 들어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혹심하게 파괴된 조건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쌓으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 과업을 다같이 풀어나갈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내놓았습니다. 이 로선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요구를 옳게 반영하고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작성한 독창적인 로선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을 옳게 타산하고 기술을 개조하기에 앞서 경리형태를 개조할데 대한 농업협동화방침을 내놓았으며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침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해본적이 없는 창조적인 방침들입니다. 우리 당이 이 로선과 방침들을 내놓았을 때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은 《어느 책에도 써놓은것이 없다.》느니, 《누구도 해본 일이 없다.》느니하고 시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로선과 방침이 정당하다는것은 짧은 시일에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우리 나라의 현실이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인테리정책에 대하여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와는 다르게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오랜 인테리는 지난날 부유하게는 살았지만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민족적압박과 차별대우를 받았기때문에 민족적혁명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낡은 교육을 받았고 부르죠아사회나 봉건사회에서 일한 오랜 인테리들도 그들이 인민을 위하고 민족의 발전을 위해 복무한다면 다 함께 혁명을 해나가는 정책을 세우고 혁명실천과정에서 그들을 교양개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인테리로 개조되였으며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일을 잘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다같이 튼튼히 마련하기 위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그리고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로선과 방침들도 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은 우리 나라 실정과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으며 또한 우리는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는것입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남에게 매여있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남에게 매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벌써 해방직후에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고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그것을 관철하였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문을 닫아맨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유무상통하며 서로 협조하는 경제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자체의 투쟁이 훌륭한 열매를 맺은 결과 우리는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종합적으로 발전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가지게 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튼튼히 뒤받침하고있습니다.

국방에서 자위는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립의 군사적담보입니다. 세계가 민족국가들로 갈라져있고 더우기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외래침략으로부터 지킬수 있는 자위적인 국방력이 없이는 자주, 자립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위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침략자들의 어떠한 도발책동도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지난날 우리가 념원하던대로 떳떳하고 힘있고 믿음직한 사회주의적 새 조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바람부는대로 따라가며 남의 풍에 놀았다면 오늘과 같은 성과를 바랄수도 없을것입니다.

일부 자본주의나라 신문들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주의나라를 《민족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체사상은 반동들이 떠드는 《민족공산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주체사상은 맑스가 내놓은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는 단결하라!》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완전히 부합되는것입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견지하고 옹호하면서 동시에 국제주의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을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자주성은 결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동떨어진것이 아닙니다.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가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를 떠난 자주성도 있을수 없습니다. 자주성을 견지한다는 구실밑에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등을 돌려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태도가 아니며 그것은 곧 민족리기주의로 굴러떨어지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 호상관계를 맺고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의 리익을 침해하려고 하지않으며 그 누구든지 우리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짓밟는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큰 나라, 작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정치,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자주성은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에서도 단결과 협조의 전제로 되며 참다운 단결을 이룩하려면 서로 자주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것, 둘째로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각국 로동운동을 지지하는것, 셋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는것, 넷째로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것입니다. 다른 의견상이는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이 네가지 원칙에 복종시키고 단결을 도모해나가자는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혁명투쟁과 민주주의운동에 대한 우리의 립장에 대하여 말한다면 여기에서도 우리는 자주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있습니다.

매개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 당과 인민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의 혁명운동을 어떻게 벌리는가 하는것은 마땅히 그 나라의 당과 인민이 결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다른 나라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힘자라는데까지 지지하고 성원하여줄따름이지 거기에 간섭하거나 우리의 사상을 내려먹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뿐아니라 남에게 우리의 것을 통채로 삼킬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지고있는 혁명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은 그 나라의 당과 인민들이 자주적립장에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옳은 지도리론과 과학적인 투쟁방법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나가야 성과있게 발전할수 있으며 승리를 거둘수 있습니다.

2.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에 대하여

당신들도 아는바와 같이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는 7개년계획수행에서 달성한 성과를 총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목표인 6개년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원래 7개년계획은 1961년부터 시작하여 1967년에 끝내야 할것이였으나 우리 나라를 둘러싼 정세가 긴장하여졌기때문에 더 연장하여 끝냈습니다. 우리 인민이 7개년계획을 수행할 때 미제국주의자들은 까리브해위기를 조성하였고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정세를 몹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새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는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고 원쑤들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로선을 내놓았으며 이 로선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고 국방건설에 많은 자금을 돌리였습니다. 이리하여 7개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 더 많은 시일이 걸리게 된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 조국보위에 완벽을 기하였기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이 《푸에블로》호사건과 《이씨—121》사건을 일으키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공공연히 시도하였으나 감히 우리를 건드릴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7개년계획을 10년동안에 완수하였으나 우리의 인민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지난 10년동안에 우리의 공업생산은 해마다 평균 12.8%씩 장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보더라도 매우 빠른 장성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전망계획인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6개년계획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위력한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우리 당 제5차대회문헌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6개년계획에서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는것은 3대기술혁명입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3대기술혁명은 첫째로 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는것이며, 둘째로 농촌기술혁명을 계속 다그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는것이며, 셋째로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3대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과업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이루어진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요구와 근로자들의 절실한 지향을 반영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3대기술혁명의 중심고리를 공작기계생산에서 찾았습니다.

기술혁명은 곧 기계혁명입니다. 기술혁명을 하려면 공작기계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개년계획의 첫해인 작년에 공작기계생산에 힘을 집중하였습니다. 희천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공작기계공장 로동자들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설비를 개조하고 생산공정을 적극 자동화하면서 공작기계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기계공업은 한해동안에 3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할수 있는 수준을 돌파하였습니다.

우리는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이미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내다보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작기계생산에 계속 힘을 넣어 생산량과 함께 품종을 늘이고 그 질을 개선하여나갈것입니다. 또한 뜨락또르와 자동차 생산을 계속 늘이며 각종 농기계를 더 많이 생산할것입니다. 그리고 기술혁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기 위하여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계공업과 전자 및 자동화 공업에 필요한 강재와 유색금속자재를 더 많이 생산하여 보장해주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와 우리의 근로자들의 투쟁기세를 미루어볼 때 3대기술혁명과업은 빠른 시일안에 잘 수행되리라고 믿어집니다.

6개년계획기간에 우리 인민들의 생활도 더욱 높아질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대하여 근심걱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골고루 괜찮게 살고있습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세우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는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군을 잘 꾸리고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군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며 모든 농촌리들에 뻐스가 들어가게 하고 농촌수도화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에서 해마다 30만세대의 살림집을 지으며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임을 전반적으로 올리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근로자들의 전반적생활수준을 훨씬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해 잘 투쟁하면 인민들은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도 힘차게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기술자, 전문가의 수를 100만명이상으로 늘이고 근로자들의 일반지식과 기술수준을 전반적으로 한층 더 높이며 과학과 문학예술, 체육도 더욱 발전시킬것입니다.

10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것은 6개년계획기간에 문화혁명수행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7년부터 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여 8살부터 17살에 이르는 모든 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서 무료로 공부하고있습니다.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는 우리 나라의 인민교육사업발전과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새세대들은 모두다 풍부한 일반지식과 현대적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습니다.

우리는 9년제기술의무교육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 10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적교육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교육사업을 더욱 개선하려고 합니다.

전반적10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학교교육의 수준을 더한층 높이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물론 10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많은 자금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할만한 힘이 있으며 우리는 후대들의 교육사업을 위하여서는 그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일부 학교들에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경험을 쌓았으며 그 토대도 일정하게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우리는 올해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몇해안에 10년제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실시할것입니다.

인민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계급투쟁을 잘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언제나 이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습니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어지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습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호상관계는 서로 돕고 협조하는 동지적인 관계로 되였으며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회주의제도가 섰다고 하여 인민대중의 통일이 저절로 강화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비록 매우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적대분자들이 남아있게 되고 또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건설을 잘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과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로동계급과 농민, 인테리들의 동맹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잊어버리고 계급투쟁을 일면적으로 강조하고 그것을 과장한다면 좌경적오유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애매한 사람을 적대분자처럼 다루며 사회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회주의하에서도 적대적요소가 있고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것을 잊어버리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만 보면서 그것을 절대화한다면 우경적오유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대적요소들에 대한 경각성이 무디여지고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이 약화되며 사회생활에서 자본주의적생활양식이 널리 퍼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우경적편향을 다 경계하고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근로자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능숙하게 결합함으로써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고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

사상혁명을 앞세워야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력사적인 과업을 잘 해결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요새는 물론 물질적요새도 더 빨리 점령할수 있습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온갖 낡은 사상, 비로동계급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계급투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래의 계급투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것이며 그 투쟁형식도 달라지게 되는것입니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근로자들을 개조하는 문제로서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여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또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성분이나 환경,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이라 하여도 우리 당을 따라오

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대담하게 믿고 혁명의 편에 전취하는 원칙에서 각계각층 군중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옳게 진행한 결과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사회의 내부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꾸려졌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이 더욱 공고화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굳게 단합되여 서로 돕고 이끌어나가는 붉은 대가정을 이루고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생산력을 발전시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로동조건의 차이를 없애는것과 함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상과 도덕, 문화와 기술 수준에서의 차이를 점차 없애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농촌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농촌의 락후성을 완전히 없애야만 밖으로부터 침습하여오는 반동적부르죠아독소와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근거지와 지반을 완전히 없앨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높여야만 농업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킬수 있으며 농민들속에 남아있는 리기주의적요소들을 뿌리빼고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높은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게 하는 집단주의의 길로 확고히 이끌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밝혀진 방침에 따라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내밀어 현대적공업에 비한 농촌경리의 기술적 락후성, 선진적인 도시에 비한 농촌의 문화적락후성, 가장 혁명적인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의 사상적락후성을 없애며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계속 강화하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끊임없이 접근시켜나가고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고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로 전환되면 온 사회는 꼭 같은 사회경제적토대우에서 공통된 사상밑에 완전한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3.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에 대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전반적정세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매우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나라의 북반부에서 이룩된 사회주의건설성과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정치경제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남녘인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있으며 그들을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고있습니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평화통일기운이 빨리 높아지고있으며 파쑈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있은 괴뢰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계속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대중적진출과 사회계, 정계에서 활발히 벌어진 조국통일론의는 남조선에서 현통치제도를 반대하며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기운이 억누를수 없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평화통일방침이 조선인민은 물론 광범한 세계여론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 남조선에서 평화통일기운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사이의 어떠한 접촉도 거부하여온 남조선당국자들도 대세의 압력에 밀리워 남북적십자회담의 마당에 나오지 않을수 없게 되였습니다. 지금 판문점에서 열리고있는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예비회담은 때늦은 감도 있고 거기에서 토의되는 문제의 테두리도 제한된것이기는 하나 어쨌든 조선사람들끼리 모여앉아 민족의 내부문제를 토의하게 된만큼 매우 의의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갈라진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한걸음 전진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회담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성의를 다하여 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분렬로 말미암아 인민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며 그것을 디딤돌로 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길을 헤쳐나갈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의 립장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회담의 마당에 끌려나온 첫날부터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회담을 질질 끌어왔으며 《너무 흥분하지 말라.》느니, 《시기상조》라느니 하면서 들끓고있는 평화통일기운에 찬물을 퍼부었습니다. 더우기 그들은 우리가 이미 전쟁준비를 끝냈기때문에 곧 《남침》할것이라고 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것을 뒤받침하기 위한 여러가지 파쑈적악법들을 새로 꾸며내고있으며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고있습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이러한 소동은 남조선에서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는 평화통일기운을 억누르고 남북의 접촉과 협상을 파탄시키며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함으로써 자기들의 여명을 부지하자는것으로 밖에 달리는 리해될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일부 반동지배층과 어용출판물들까지도 남조선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것은 《남침》의 위협에서라기보다 내부사정으로 말미암아 꾸며낸 정치적술책이라고 말하고있는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이러한 어리석은 술책으로써는 누구도 속일수 없으며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안팎의 정세가 저들에게 불리하게 급변하고있으므로 겁에 질려 발작을 일으키고있는 모양인데 머리를 식히고 랭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달라졌고 정세는 변하였습니다.

오늘의 정세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의 이름을 빌어 우리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던 지난 40년대와는 같지 않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의 나라 문제에 간섭하여 좌지우지하던 때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제코도 씻기 바쁜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위정자들이 동족을 등지고 미제침략자들의 옷소매에 매달리며 일본침략자들을 끌어들이는것으로 살구멍을 찾던 지금까지의 반민족적립장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참다운 출로를 찾으려고 한다면 민족적립장에 돌아서야 하며 지금이라도 외세를 등에 업고 《실력》을 《배양》하여 북조선을 힘으로 누르고 《승공통일》을 하겠다는 어리석은 주장을 걷어치우고 조선사람들끼리 힘을 합쳐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의를 받아들여야 할것입니다.

당신들은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방침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조국통일에 관한 우리의 방침은 이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내부문제인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가 외세의 간섭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조선사람들자신의 손에 의하여 그리고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내놓은 8개 항목의 구국방안과 8월 6일 연설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방침들을 다시금 밝히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변함없이 이 방침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전 민족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진행되고있는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회담을 성사시키는것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무슨 《단계》를 운운하면서 이것은 할수 있고 저것은 할수 없다느니, 어떤것만 먼저하고 다른것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느니 하고있는데 이것은 지연전술이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이 좋게 끝나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 친우들이 서로 자유롭게 래왕할수 있게 된다면 그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덜어주게 될뿐아니라 그 과정에서 남북사이의 격페된 감정을 풀고 리해를 심화시키게 될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는것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서는 물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정전협정을 남북사이의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킨 조건에서 남북조선의 무력을 대폭 줄일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한두번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조선위정자들에게 《북진》통일을 할 의도가 없다면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는데 동의하지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을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바란다면 있지도 않는 《남침의 위협》에 대하여 소동을 일으킬것이 아니라 남북사이의 평화협정을 맺는데 동의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남북사이에 접촉과 련계를 강화하며 조국통일문제를 풀기 위하여 남북정치협상을 진행할것을 주장합니다.

민족분렬의 비운을 쓸어버리고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데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서고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남북정치회담을 통하여서만 원만히 풀릴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 신민당, 국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과 아무때나 합의되는 임의의 장소에서 회담할 용의를 가지고있습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만나도 보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하고있는데 말로만 《평화통일》을 운운하면서 협상을 거부하는것은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자면 남북조선의 여러 정당들사이에 조국통일에 관한 정견들을 교환하고 평화통일의 합리적인 방도들을 모색하기 위한 쌍무적인 또는 다무적인 협상들을 활발히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

남북의 협상과 접촉을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놓고있습니다. 비록 조국과 인민 앞에 죄과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진정으로 과거를 뉘우치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선다면 우리는 그의 죄과를 묻지 않을것이며 그와 함께 기꺼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협의할것입니다.

조선사람이 모두다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한길에서 싸워나간다면 우리는 능히 미일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남조선에 드리운 망국의 위기를 헤쳐나갈수 있을것이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반드시 이룩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문제가 아직 곡절을 겪고있기는 하나 조만간에 우리 인민의 의사에 따라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하여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될 전망이 있다고 믿고있습니다.

4.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우리 시대에 와서 제국주의세력은 쇠퇴하여가고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력량은 장성강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전쟁에서 력사상처음으로 참혹한 패배를 당한 미제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련

이어 얻어맞고 녹아나고있으며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습니다.

지금 미제는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미국안에서 인민들의 반전운동이 세차게 일어나고있으며 지배층내부의 모순도 심하여지고있습니다. 경제는 만성적인 침체상태에 빠지고 국제수지는 끊임없이 악화되고있습니다. 미제는 인도지나를 비롯한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참패를 거듭하고있으며 제국주의동료들로부터는 물론 추종국가들로부터도 고립되여가고있습니다.

핵공갈과 딸라의 힘으로 남을 누르고 이끌던 미제의 힘이 이제는 약해졌습니다. 핵공갈도 통하지 않게 되고 호주머니에 딸라도 떨어지게 되니 이제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따라가는 나라들이 별로 없게 되였습니다. 미제는 궁지에 빠진 저들의 처지를 건져보기 위하여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중근동에서는 중근동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악명높은 《닉슨주의》를 들고 나왔지만 사또와 같은 우둔한 사람을 내놓고는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미제는 또다시 《평화》의 간판을 내들게 되였으며 닉슨은 머리를 숙이고 구걸외교를 하러 떠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미제국주의가 완전히 망했다거나 놈들의 본성이 변했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제는 의연히 제국주의 원흉으로 남아있으며 그들의 침략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제국주의자들은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어가면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책동을 교활하게 감행하는 법입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도 량면정책을 쓰면서 보다 교활하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 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과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은 《평화》의 막뒤에서 꾸며지고 있는 미제의 새로운 침략과 전쟁 책동에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평화를 지키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미제는 아세아에서 《닉슨주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일본군국주의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군국주의를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는 놀음을 벌렸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에 편승하여 제 안속을 채우려고 꾀하여왔습니다. 며칠전에 있은 미일수뇌자회담은 이전것보다 맥은 빠졌으나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일침략세력사이의 이러한 공모결탁이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 회담뒤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닉슨과 사또는 《평화》와 《안정》의 간판밑에 악명높은 《미일안보조약》을 다시 확인하고 아세아침략에서 서로 《긴밀히 협력》할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미제의 비호밑에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되살아났으며 미제의 부추김을 받으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되고있는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그러한것처럼 지금 일본군국주의자들도 다른 나라들을 침략함에 있어서 상품과 자본을 대대적으로 들이밀어 경제적으로 예속화하고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여 그 나라 인민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며 나아가서 저들의 경제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침략무력까지도 들여보내는 방법을 쓰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에서 우리 나라는 그 첫번째 대상으로 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금 남조선 괴뢰들과 공모결탁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면에 걸쳐 우리 나라 남반부에 대한 침략의 검은 손을 깊숙이 뻗치고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 나라와 아세아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작전계획까지 짜놓고 전쟁연습소동을 련달아 벌리고있습니다. 심지어 사또 같은 사람은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선제공격》에 대해서까지 떠들고있습니다.

사실이 이런만큼 오늘에 와서 일본군국주의가 되살아났는가 되살아나지 않았는가 하

는것을 가지고 론의할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을 반대하고 그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데 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저지시키는데서 일본인민들의 투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기회에 말하였지만 일본인민은 지난날의 일본인민이 아닙니다. 일본인민은 군국주의의 해외침략으로 인한 고통과 후과를 맛본 인민이며 각성된 인민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또다시 침략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일본인민은 가만 있지 않을것입니다. 일본인민들은 지금 군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고 민주, 중립, 평화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습니다. 이 투쟁은 일본반동지배층에 큰 압력을 가하고있습니다.

일본지배층안에서도 침략전쟁을 하겠는가 말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대립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일본이 섬나라이고 공업원료를 거의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고있는 조건에서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의 처지가 매우 어렵게 될것이며 침략하려는 대상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로부터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상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니며 그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일본안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모든 력량이 단결하고 조선, 중국을 비롯한 아세아인민들이 힘을 합쳐 투쟁한다면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전쟁을 하고싶어도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것이며 놈들의 침략책동을 능히 파탄시킬수 있을것입니다.

오늘 아세아는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으며 아세아에서의 정세발전은 전반적인 세계정세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사회주의나라들과 싸우는 나라 인민들은 거듭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반제혁명투쟁에서와 새 사회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고있습니다.

미제는 스무해이상이나 중국을 고립시키고 봉쇄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패망한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대한 사회주의국가로 되였고 믿음직한 반제혁명력량으로 장성강화되여왔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적위신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의 지지밑에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지위가 회복되고 장개석도당이 유엔의 모든 기구들에서 쫓겨나게 된것은 국제정치무대에서 일어난 하나의 큰 사변이였습니다. 그것은 중국 인민이 거둔 커다란 승리로 되는 동시에 평화와 진보를 위한 세계 인민들의 승리로 됩니다.

웰남인민은 미제국주의침략자를 반대하는 영웅적투쟁을 전개하여 원쑤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패배를 안겨주었으며 평화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습니다. 웰남인민은 오늘 남부웰남에서 미제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조국의 진정한 독립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우고있습니다.

웰남문제는 웰남민주공화국이 내놓은 웰남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4개항목과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7개항목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인민의 이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여나선다면 그때에는 더 큰 참패를 맛보게 될것입니다. 웰남인민은 반제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싸움으로써 최후승리를 쟁취하고야말것입니다.

반제구국항전에서 이미 커다란 승리를 이룩한 캄보쟈인민과 라오스인민들은 미제와 그 괴뢰고용병들에게 련속 세찬 공격을 들이대고있으며 원쑤들을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있습니다.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는 지금 자기 생명의 마지막시각을 살고있습니다.

조선, 중국, 웰남, 캄보쟈, 라오스를 비롯한 아세아인민들은 반제반미공동투쟁의 기발아래 굳게 뭉쳐 제국주의와 온갖 식민주의를 완전히 청산함으로써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고야말것입니다.

당신들도 아다싶이 세계적범위에서 진보와 반동간의 력량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근

유엔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에서 이전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기는 어렵게 되여가고있습니다. 이것은 미제가 유엔의 기발을 도용하여 범죄행위를 마음대로 감행하던 때가 이미 지나갔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당신들이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유엔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광범한 사회여론은 1972년을 《조선의 해》라고 하고있습니다. 금년이 《조선의 해》가 되겠는지는 두고보아야 알 일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민족의 존엄과 통일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와 신임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에 대한 우리의 립장에 대해서 말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금까지 유엔헌장을 존중하여왔으며 결코 그것을 위반하여본 일이 없습니다.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짓밟고 유엔의 이름을 더럽힌것은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감행할 때마다 유엔의 기발을 도용하였으며 특히 유엔의 탈을 쓰고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감행함으로써 유엔의 력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오점을 남겼습니다.

유엔이 자기의 신성한 헌장에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조선문제에서 지난 시기 범한 이러한 과오를 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은 미제가 유엔에서 비법적으로 꾸며낸 《조선문제》에 관한 모든 《결의》들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에 대하여 정당한 방침을 취함으로써 종래의 비법적인 《결의》들이 무효로 되게 하여도 좋습니다.

유엔은 마땅히 《유엔》의 이름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도구인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유엔은 조선문제에 대한 그 어떠한 내정간섭도 그만 두어야 합니다.

5. 조선과 일본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우리 나라의 린방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지금 우리 두 나라는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나라》로 되여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력사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당한 나라이고 일본은 우리 나라를 침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나라를 침략한것은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였지 인민이 아니였습니다. 서로 이웃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이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것은 좋은 일이지 나쁠것이 없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비록 사회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일본과도 선린관계를 맺을것을 희망하여왔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는 우리 공화국의 공명정대한 대외정책에 기초한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정부는 처음부터 우리 나라를 비우호적으로 대하여왔습니다. 요시다로부터 기시, 이께다를 거쳐 사또에 이르기까지 내각은 여러번 바뀌였지만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대시정책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사또내각에 이르러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더욱 심하여지고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남조선괴뢰들과 《한일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에 침투하고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며 동족상쟁의 전쟁을 도발하려고 하는 남조선괴뢰들을 부추겨대고있습니다. 일본

수상 사또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에 가담할것을 공공연히 말하고있으며 조선인민을 함부로 모욕하고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에 선린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대시정책때문입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명백하며 또 시종일관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두 나라 사이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할것을 념원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리해관계에 맞고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위하여서도 리롭다고 믿고있습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이룩하며 나아가서 국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일본에서 내각이 갈리고 안갈리는것은 그 나라의 내정문제이므로 우리는 거기에 간섭하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 대한 정책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개선될수 없습니다.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모든 문제들이 제대로 풀리게 될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시대의 추세에 맞게 자기의 그릇된 정책을 고쳐야 합니다. 일본정부는 마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하며 《한일조약》을 페기하고 남조선재침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남조선괴뢰들을 부추겨서 조선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며 거기에 끼여들어 한몫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걷어치워야 합니다.

요즘 일본인민들과 진보적인 계층들속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선린관계를 맺기 위한 운동이 광범히 벌어지고있습니다. 얼마전에는 234명의 여야당출신 국회의원들을 망라한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들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가관계를 맺을것을 요구하는 결의들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보며 그들의 투쟁이 훌륭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조선인민과 일본인민이 공동으로 성과있는 투쟁을 벌린다면 우리 두 나라 사이에 국교를 수립할수 있습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에 국교관계가 수립되면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취하여온 이때까지의 그릇된 정책들이 무효화될것입니다. 우리는 국교가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두 나라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이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여러가지 형편을 보아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국교를 맺는데는 일정한 시일이 걸릴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국교를 맺기전이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인사래왕을 많이 하며 경제, 문화적인 분야에서 교역과 교류를 널리 진행할 용의를 가지고있습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는 어디까지나 호상성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두 나라 사이에 부분적으로 교류가 진행되고있으나 일본정부의 그릇된 태도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성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미국의 비위에 거슬릴가 두려워서 그러는지, 남조선괴뢰들의 비위에 거슬릴가 두려워 그러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결코 두 나라 사이의 관계문제를 풀수 없다는것이 명백합니다.

결국 그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든지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선린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그것이 빨리 되는가 늦게 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의 태도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60만 조선인들의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본질상 지난날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입니다. 재일조선공민들은 오늘 엄연히 자기의 조국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서의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비우호적인 태도에 기인됩니다.

재일조선공민들은 자기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면서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특히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를 묶고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주체사상을 훌륭히 구현하였으며 한덕수의장동지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며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총련의 지도밑에 재일조선공민들이 일본정부의 갖가지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이룩한것은 일본인민들과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매우 감사히 여기고있으며 이 기회에 《요미우리신붕》을 통하여 일본의 벗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사의를 표합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이 자기의 민족적권리를 지키는것은 응당한 일이며 국제법에도 맞는것입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 나가 사는 일본사람들도 자기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지 내버리려고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사업을 놓고 말하여봅시다.

당신들도 아는바와 같이 민족이라는것은 무엇보다도먼저 언어와 문자의 공통성에 의하여 특징지어집니다. 우리 말과 글을 떠나서는 조선민족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을 박해하는것은 좋지 못한 정치적목적에서 출발하고있다고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에 물심량면의 지원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정부의 반동계층들은 남조선괴뢰도당과 결탁하여 재일조선인들에게 《영주권》신청을 내려먹이고 《한국국적》을 가지도록 강요하고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상으로는 국적선택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막적으로는 재일조선인들이 《한국국적》을 가지면 특별한 《대우》를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지면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일부 조선사람들은 그것이 시끄러워서 《한국국적》을 가지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강요에 못이겨 국적은 바꾸지만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우리를 한결같이 지지하는것처럼 그들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극 지지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한때 막혔던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의 길이 조일 두 나라 적십자단체사이의 합의에 따라 다시 열리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적권리를 지키는데서는 물론 조선인민과 일본인민들사이에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인민들의 지지밑에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재일조선공민들이 다 조국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이 사업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의 권리와 함께 조국에로의 래왕의 자유를 보장하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 가운데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당장 조국으로 돌아올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에게서 자기 조국에 왔다가는 권리마저 빼앗아서는 안될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들 가운데서 오직 조선공민들만이 조국에 래왕할 자유를 가지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당치않은 차별조치와 인권유린행위는 당장 중지되여야 합니다. 청진과 니이가다사이를 다니는 귀국선은 조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만 싣고 올것이 아니라 조국에 있는 가족, 친척, 친우들을 방문하고 다시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도 싣고 다니게 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는데서 총련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일본인민들과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앞으로도 총련과 잘 협의하며 재일조선공민들의 의로운 투쟁에 계속 귀중한 지지와 성원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과 한 담화

(1972년 5월 14일)

나는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데 대하여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일본인민들과 함께 조일 두 나라 사이에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있으며 특히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재일조선공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옹호하고 도와주고있는데 대하여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당신들을 친우처럼 맞이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을 보내준데 대하여 단장선생과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단장선생께서는 소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단장선생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나와 우리 인민에 대하여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하여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일을 더 잘하여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였는데 물론 우리는 지난 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민들의 요구에 비해보면 아직 초보적인 성과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어려운 고비들을 기본적으로 넘기였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곤난은 있겠지만 자립적인 경제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았기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경제를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있습니다.

당신들도 알겠지만 해방전에 우리 나라의 공업은 매우 락후하였으며 그것마저 지난 3년동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파괴되였습니다. 우리는 경제건설을 전후에 새로 시작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재더미우에서 도시와 농촌을 건설하였으며 공장을 일떠세웠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을 그리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로자들의 의식주문제 다시말하여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누구나 다 무료로 공부하고 무상으로 치료받을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이것은 새 사회 건설에서 우리가 이룩한 매우 귀중한 성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게 될것입니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에 대하여서는 이미 신문에 많이 발표되였기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토대를 일정한 수준에 올려놓았기때문에 이제는 나라의 생산력을 한계단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점차 해방시킬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3대기술혁명과업을 6개년계획기간에 다 완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6개년계획이 수행되면 우리 나라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중로동과 경로동간의 차이, 공업로동과 농업로동간의 차이는 훨씬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이 사업은 아주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대외문화련락협회를 통하여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정세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국제정세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이미 다른 기회에 여러번 말하였기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국제정세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는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들에게는 불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몇개의 렬강들이 세계를 지배하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정의와 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이 세계를 틀어쥐고나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민주공화국을 봉쇄하고 폭격을 강화하고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미제가 승승장구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멸망의 운명에 직면한 미제침략자들의 마지막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발악을 한다 하여도 웰남문제는 반드시 웰남인민의 의사대로 해결되지 결코 그놈들의 의도대로는 되지 않을것입니다.

오늘 제국주의렬강들사이에는 갈등이 격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의 내부모순도 극도로 첨예화되고있습니다.

지금 일본인민들은 미제를 추종하는 사또정부의 반동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일본인민들의 투쟁기세도 지난날보다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민들이 미제와 사또반동정부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마땅한 일이며 력사발전의 필연적결과입니다.

미국에서도 반동통치배들과 그들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신생독립국가대렬이 많이 늘어났으며 이 나라 인민들의 반제투쟁기세도 더욱 높아가고있습니다. 지금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평화와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다시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노예가 되지않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압박을 받고있는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도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의 력량도 강화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제는 제국주의렬강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분할하여가지고 제멋대로 지배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인민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로 되여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정세는 날을 따라 혁명하는 인민들에게는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에게는 불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현국제정세를 총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도, 군, 리를 비롯한 행정단위조직에 대하여서와 지방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행정단위는 중앙, 도, 군, 리로 되여있습니다. 해방전과 해방직후 우리 나라의 행정단위는 5개단위로 되여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중앙, 도, 군, 면, 리로 되여있었습니다. 행정단위에 중간다리가 하나 더 있으면 그만큼 우의 결정과 지시들이 아래

에 빨리 내려가지 못하며 또 인민들의 의견이 우에 빨리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을 없앴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방행정단위에서 군이 중심적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도는 중앙과 군사이에서 중간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인민들과 더잘 접근하기 위하여 군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방정권기관에는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인민회의는 주권기관으로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인 대의원들로 구성됩니다. 리인민회의는 리대의원들로, 군인민회의는 군대의원들로, 도인민회의는 도대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인민위원회는 인민회의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인민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인민회의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보고합니다.

우리의 인민정권기관은 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정권기관의 특징입니다. 우리는《정권기관은 인민의 충복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았습니다. 다시말하면 우리의 인민정권기관은 인민의 심부름군입니다.

인민들이 정권을 세웠으면 그 정권은 말그대로 인민의 정권이 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어떤 개별적인 통치자의 정권이 되여서는 안됩니다. 인민정권이 참다운 인민의 정권으로 되자면 인민들속에서 선거된 인민의 대표들이 인민의 리익에 맞게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속에서 선거된 대표들이 인민의 의사에 맞지 않게 일한다면 그런 정권은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험과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의 경험을 보면 인민에 의하여 선거된 정권기관일군들이 관료주의를 부리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이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인민정권기관이 인민의 충복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나올수 있습니다. 낡은 사상잔재에 물젖은 사람들은 위원장자리에 올라앉으면 마치도 벼슬자리나 벌고 관리가 된것처럼 생각하면서 관료주의를 부립니다. 또한 주관주의로부터도 관료주의가 생깁니다. 일부 일군들은 자기로서는 일을 잘하느라고 하지만 아래실정을 알지 못하다보니 인민들의 리익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는 일군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권당에서 관료주의를 부릴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늘 강조하고있으며 지방정권기관이나 중앙정권기관이나 할것없이 모든 정권기관들에서 관료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우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지방정권기관들의 중요한 임무는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입니다.

중요한 경제기관들에 대한 지도는 해당 성들에서 직접 하기때문에 지방정권기관들은 주로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을 책임적으로 지도하고있습니다.

지방정권기관들은 무엇보다먼저 상업기관을 담당지도합니다.

상업기관은 인민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직접 책임지고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의 상업기관은 자본주의상업기관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본주의상업기관은 리윤추구를 위한 기관이지만 우리의 상업기관은 완전히 주민들에 대한 공급기관입니다. 우리의 상업기관들은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책임지고있으며 인민들에게 상품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상품은 유일가격에 의하여 판매됩니다. 우리는 가격의 일원화를 실시함으로써 상업기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물건값을 높이거나 낮추지 못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공업상품의 가격은 도시나 산골이나 할것없이 다 같습니다.

례를 들어 평양에서 성냥 한곽의 값이 1전이라면 백두산밑에 있는 산간마을에서도 1전입니다. 지난날 개인상인들은 평양에서 성냥 한곽에 1전을 받았다면 산골에 가서는 2~3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어디서나 물건값이 같은 나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도시에 비하여 산간지방에서는 물건값이 비쌉니다. 그렇기때문에 도시와 산간지방간의 생활상 차이가 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가격의 일원화가 실시됨으로써 도시와 산간지방간의 생활상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상품분배도 골고루 하고있습니다. 중앙상업기관에서는 전국적인 상품공급계획을 세우고 도들에 상품을 내려보내며 도에서는 군들에 내려보내고 군에서는 상점들에 상품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지방들에서 자기 지방에 필요한 상품을 더 요구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더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 상업에서는 상품에 대한 주문제도 실시하고있습니다. 례를 들어 어떤 주민이 상품을 주문하면 상업기관에서는 그것을 책임적으로 해결하여줍니다.

지방정권기관들은 상업기관들이 우리 나라 상업제도의 요구에 맞게 자기 사업을 원만히 하도록 지도합니다.

지방정권기관들은 도시경영사업도 맡아봅니다.

국가와 전체 인민의 공동재산인 건물들과 시설물들을 제때에 수리하고 관리하는것은 인민위원회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도시경영사업을 잘 하여야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도시경영사업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보장합니다. 큰 규모의것은 중앙예산에 포함시켜 하고 작은 규모의 것은 지방예산에 포함시켜 합니다.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기업소들과 철도, 도로, 항만 같은 큰 건설은 중앙예산에 포함시켜 하고 그밖의 작은 규모의 건설은 지방예산에 포함시켜 합니다. 주택건설은 대부분 지방예산으로 합니다.

지방정권기관들은 또한 교육사업을 지도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전국적의의를 가지는 학교들도 있고 지방적성격을 띤 학교들도 있습니다.

대학같은것을 보면 전국적범위에서 소요되는 인재를 키워내는 종합대학, 공업대학, 화학공업대학, 기계공업대학, 농업대학, 의학대학과 같은 대학들도 있고 지방적범위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도들에는 자기 도에 필요한 교육일군들을 키워내는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양원대학이 있습니다. 사범대학에서는 중학교 교원들을 키워내고 교원대학에서는 인민학교 교원들을 키워내며 교양원대학에서는 유치원 교양원들을 키워냅니다. 또한 도마다 농업부문간부들을 키워내는 농업대학과 보건부문 간부들을 키워내는 의학대학이 있습니다. 도적범위에서 필요되는 간부들을 키워내는 대학들은 주로 도에서 책임적으로 지도관리합니다.

중학교, 인민학교, 유치원, 탁아소에 대한 직접적지도관리는 군인민위원회에서 맡아합니다.

인민위원회는 주로 학교건설문제, 학생추천문제, 교원선발배치문제를 봅니다.

학교들에서의 교육은 해당 성의 유일강령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그러나 지방의 특성에 따라 일부 과목들을 더 첨가할수도 있습니다. 인민위원회는 각급 학교들에서 유일강령에 따라 교육사업이 정확히 진행되도록 지도합니다.

지방정권기관들에서는 보건사업도 맡아봅니다.

우리 나라의 보건제도는 무상치료제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방의학적방침을 실시하고있으며 이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의사담당구역제 같은것도 실시하고있습니다. 의사담당구역제라는것은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여 예방치료사업을 하는것입니다. 의사들은 자기가 맡은 구역에 늘 나가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사업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리마다 진료소가 있고 군마다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군병원을 종합병원으로 만들고 리진료소를 병원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들에도 병원을 꾸리려고 합니다.

지방정권기관들에서는 당과 정부가 내놓은 이 모든 보건정책을 직접 집행합니다.

지방정권기관들은 지방산업공장들도 지도합니다.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자기 지방에 있는 원료를 가공하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

례를 들어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자기 지방에서 나는 과일, 남새, 물고기 같은것을 가공하며 자기 지방의 특산물도 가공합니다. 장, 기름같은 부식물은 다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합니다.

그리고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다른 지방의 원료를 가져다 가공하기도 합니다.

지방산업공장들에서 만든 제품은 주로 자기 지방에 공급하며 일부는 도시와 다른 지방에도 공급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지방정권기관들은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는 기관으로 되고있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지방정권기관을 인민들의 심부름군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이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인민들의 생활에서 표현되며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인민들이 내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교육체계와 교육내용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능력있는 일군들을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회제도를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능력있는 일군들이 없으면 그 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으며 지켜낼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당이 학습하고 전민이 학습하고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투쟁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학습하고있다고 말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간부들부터 학습에서 이신작칙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을 간부들의 학습날로 정하고 모든 간부들이 정상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간부들은 토요학습외에 로임을 받으면서 1년에 1개월 또는 6개월씩 각급 학교에 가서 의무적으로 공부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중앙에는 고급당학교와 인민경제대학이 있고 도에는 공산대학이 있으며 군에는 군당학교가 있는데 도간부들과 군책임일군들은 고급당학교나 인민경제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군간부들은 도공산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리간부들은 군당학교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도와 군 책임일군들가운데서 수준이 어린 일군들은 고급당학교와 인민경제대학의 1년반 또는 3년반에 가서 공부합니다.

간부들이 학습하는 내용은 여러가지입니다. 간부들은 자기의 희망에 따라 정치학습을 하고싶으면 정치학습을 하고 기술과 경제관리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싶으면 그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학습에 필요한 조건은 국가적으로 다 보장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또한 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직장장학교와 작업반장학교가 있으며 공장들에는 기능공을 키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대학과 공장고등기술학교가 있으며 대학 통신학부와 야간학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중학교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단계를 거치지 못한 뒤떨어진 나라가 빨리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지식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국가의 혜택에 의하여 다 중학교이상 나왔지만 45~50살이상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방전에 공부를 못하여 수준이 매우 어

리였습니다. 이들의 수준을 하루빨리 높이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었으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잘 키울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여도 부모들이 집에서 나쁜 영향을 주면 그들도 자연히 뒤떨어지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단계에서 전체 인민이 문맹을 퇴치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인민학교졸업수준의 일반지식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리에 근로자중학교를 내오고 지난날 중학교를 나오지 못한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을 중학교졸업정도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하고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기간 우리는 전체 인민들이 다 공부하도록 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새 세대들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교육체계에 대하여서는 그동안 당신들이 학교들의 참관을 통하여 잘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이르는곳마다에 학교가 있으며 우리는 새 세대들을 다 학교에서 무료로 공부시키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에서 학교교육비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 나라의 국가예산에서 학교교육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학교들에서는 청소년학생들에게 선진과학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서는 국가, 경제문화 기관들을 잘 관리운영할수 없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청소년학생들이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할데 대한 구호를 내놓고 그들속에서 기술을 배우는 운동을 널리 벌리고있습니다.

청소년학생들속에서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운동이 널리 벌어진 결과 이 분야에서도 큰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지난날에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공장에 들어가 1년이나 1년반동안 견습공으로 일해야 기능공이 되였지만 지금은 공장에 들어가자 인차 기능공이 됩니다. 그리하여 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기능공대렬을 원만히 보충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학교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다른 나라의 것을 기계적으로 본따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기본으로하여 교육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날 우리 사람들이 교조주의를 하다보니 적지않은 편향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날 예술부문일군들은 음악 같은것도 우리 나라의 민족음악을 발전시키는데는 관심을 적게 돌리고 서양음악에 많이 치중하였습니다. 음악은 어디까지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하며 누구나 다 리해할수 있고 부를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을 발전시켜서는 아무런 의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예술, 인민들이 좋아하는 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강하게 내세우고있습니다. 우리는 가사를 하나 써도 누구나 다 알아볼수 있는 가사를 쓰며 노래를 하나 지어도 누구나 다 부를수 있는 노래를 짓도록 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이 혁명가극《피바다》를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극은 아주 통속적입니다.

문학도 역시 문학을 위한 문학이 되여서는 안되며 인민을 교양하기 위한 문학으로 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통속적이고 알기 쉽고 교양적가치가 있는 작품을 써야 합니다.

지난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하여 남이 리해하기 힘든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남이 리해하기 어려운 글을 써야 유식하고 고상한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며 또 그런 글은 고상하다고 볼수도 없는것입니다. 누구나 다 리해할수 있게 쓴 글이라야 잘된 글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수록 인민들이 리해하기 헐한 글을 많이 쓸것을 늘 강조하고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도 주체를 세우고 자기 나라의 자원을 잘 리용하는 문제부터 풀

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일군들은 어떻게하면 우리 나라에 풍부한 무연탄을 더 잘 리용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석회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후풍토에 맞는 종자들을 만들어내겠는가 하는것과 같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모든 자원을 잘 리용할줄 아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주체가 선 참다운 과학자, 기술자라고 인정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운결과 오늘 우리의 공업은 기본적으로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자립적인 공업으로 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공업은 아주 견고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탐구에 열중하도록 하며 늘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교육하고있습니다.

친우들사이기때문에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날 우리 사람들이 주체적인 교육을 받기전에는 키가 큰 구라파사람들과 배구나 축구경기를 해서는 이길수 없다고 하면서 신심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주체적인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키가 큰 사람들과 대전하여도 얼마든지 이길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들한테 이길수 있는 전술을 짤수 있게 되였습니다. 체육경기에서 이기는가 지는가 하는것은 누가 전술을 잘 짜는가 못짜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도 전술을 잘 짜면 체육경기에서 얼마든지 이길수 있는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학생들에게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교양한 결과 지금 여러 부문들에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학교교육에서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킬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우고있습니다.

학교들에서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켜야 선진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능력있는 일군들을 많이 키워낼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만 시키고 생산로동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현실과 떨어지게 되며 《글뒤주》로밖에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들에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학생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생산로동에 적극 참가하여 배운지식을 공고히 할뿐아니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기계설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도 잘하고있습니다. 광산금속대학 학생들은 광산에 나가 생산로동에 직접 참가하면서 우리 나라 광산의 실정에 맞는 광산기계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농업대학 학생들은 농촌에 나가 농민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나라의 조건에 맞는 농기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농기계들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벼모내는 기계를 일본에서도 사다 써보았고 이딸리아와 프랑스에서도 사다 써보았는데 다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대학학생들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좋은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기 위하여 머리를 많이 쓰고있습니다.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키는것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는데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많은 학생들을 다른 나라에 류학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 기계적으로 그 나라의 식대로 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생산로동에 직접 참가하는 과정에 다른 나라 책들에 씌여있는것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것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다른 나라의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로동에 직접 참가하면서 공부한 대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류학하고 온 학생들 보다 훨씬 쓸모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키는것은 청

소년들속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도 큰 의의가 있고 자기 인민을 위하여 더잘 복무하도록 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들에서는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키는것과 함께 학생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육교양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재부는 로동에 의하여 창조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로동을 사랑하도록 교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술혁명을 다그쳐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면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로동에서 해방하며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는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때든지 로동 그자체는 없어질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들속에서 로동하기를 싫어하는 사상이 조장된다면 사회의 재부를 늘일수 없으며 결국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우리는 학교들에서 학생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의 청소년학생들은 로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며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는것을 가장 영예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교양하는데도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교양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산과 건설을 많이 하여놓는다 하여도 그것을 되는대로 거두고 못쓰게 만들며 랑비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새 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버릇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들에서 《위생근위대》와 《록화근위대》 같은 것을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와 사회에 보탬을 주는 《좋은일하기운동》을 널리 벌리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학생들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책상과 걸상이 못쓰게 되면 그것을 인차 자기 손으로 고치며 교실을 알뜰히 거두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가 그 중학교에 가서 교실을 구경하다 글을 좀 쓰려고 연필을 깎았는데 그것을 본 한 학생이 그에게 달려가 두 손바닥으로 떨어지는것을 받았습니다. 무심히 연필을 깎던 기자는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옳바로 교육교양하려면 교원들자신부터 선진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

교원은 그저 학생들에게 글이나 가르치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앞날의 사회주의건설자들을 키워내는 혁명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원들속에서 선진과학과 기술을 소유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이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과 일본인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는가고 문의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은 일본인민들과 단결하여 공동투쟁을 잘하고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여야 할 분야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일본땅에서 살고있는것만큼 일본인민들과 공동투쟁을 하지 않고서는 투쟁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일조선공민들이 일본인민들과의 공동투쟁을 잘 전개하여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그들의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을것을 바랍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미제국주의에 추종하는 반동들을 반대하며 일본군국주의재생을 반대하는 인민들과 진보적민주인사들의 투쟁이 더욱 높아지고있습니다. 일본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은 곧 조선인민에 대한 지지로 되며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에 대한 지지로 됩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조선인민에 대하여 친선적이며 우호적으로 대하는 진보적민주인사들

과 우리를 동정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매우 기쁘게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일본에서는 조선인민과의 친선을 위한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이 조직되였으며 우리 나라와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이 널리 벌어지고있습니다. 이것은 재일조선공민들의 투쟁에 대한 커다란 지지와 고무로 됩니다.

일본인민들과 일본의 광범한 민주세력이 더욱더 장성하고 그 힘이 날을 따라 강화되고 있는것만큼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의 투쟁은 결코 고립되여있지 않습니다. 재일조선공민들의 투쟁은 제국주의와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일본인민들의 정당한 투쟁과 결합되여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본반동세력이 재일조선공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여러가지 방해책동을 하고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은 앞으로도 일본인민들과 공동투쟁을 잘하여나감으로써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민족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될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과 일본의 광범한 민주세력이 힘을 합쳐 공동투쟁을 잘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사이의 국가관계도 개선될수 있으며 두 나라 사이의 선린관계가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면하게 두 나라 사이에 인사래왕만 실현되여도 우리 인민들과 일본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는 더욱 발전될것입니다.

이번에 아스까다 이찌오선생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혁신시장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것은 우리 인민들과 일본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가 앞으로 더 발전될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좋은 징조로 된다고 봅니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외무성에서는 조선에서 예술단을 보낼 용의가 있다면 그것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좋은 징조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리계백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조국을 방문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것도 역시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발전에서 큰 전진으로 됩니다.

조선속담에 《시작이 절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조일 두 나라 사이에 인사래왕이 시작된것만큼 앞으로 호상 래왕과 접촉은 더 많아질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리해는 더 깊어질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발전전도는 매우 명랑하지 조금도 비관할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돌아가면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총련의 여러 간부들과 전체 재일조선공민들에게 우리의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리다위원장과 아까마쯔부위원장을 비롯한 일본사회당 간부들과 구노 쥬지선생, 미노베선생, 조선에 대하여 동정을 가지고있는 모든 학자들과 진보적인사들, 전체 일본인민들에게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보내는 나의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에 왔던 《아사히신붕》 편집국장 고또선생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있는 일본언론계의 진보적인사들에게도 나의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의 도시들과 일본의 도시들 특히 혁신시장들이 사업하고있는 도시들사이에 형제도시의 관계를 맺자고 하였는데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도시들과 일본도시들사이에 형제도시의 관계를 맺으면 조일 두 나라 인민들은 서로 더잘 리해할수 있으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도시들과 일본의 도시들사이에 형제도시의 관계를 맺자는 당신들

의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어느 도시와 어느 도시사이에 형제관계를 맺겠는가 하는것은 대외문화련락협회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 나라와 일본의 지역들사이에 경제교류, 문화교류, 기술교류를 하자고 제기하였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는 철광석이 없어 오스트랄리아와 남미주에까지 가서 사온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는 철광석이 무진장합니다. 최근 우리 나라 탐사부문일군들은 서부지구와 북부내륙지구에서 수십억톤의 매장량을 가진 철광석산지들을 새로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이르는곳마다에 철광석이 많이 매장되여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나라에 풍부한 철광석을 얼마든지 일본에 팔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사와야 할것도 많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목화가 잘되지 않기때문에 갈, 나무, 석회석을 가지고 섬유를 생산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원유를 가지고 화학섬유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러한 화학섬유공장설비를 자체로 생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설비를 일본에서 사오면 좋겠지만 아직 일본과 무역관계가 없기때문에 우리는 할수없이 프랑스나 영국같은 먼곳에 가서 사오고있습니다.

당신들이 수산업분야에서도 교류를 할수있지 않겠는가고 하였는데 그것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한해에 수산물을 거의 100만톤씩 생산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인구에 비해보면 적지않은 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산물가공을 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과 수산물가공분야에서도 기술교류를 하는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당신들이 두 나라 사이에 농업경험을 서로 나눌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제의하였는데 그것은 아주 흥미있는 문제입니다. 농업분야에서도 우리 두 나라는 서로 배워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농업경험을 교환하면서 서로 배우는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학교들과 일본의 학교들사이에도 교류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학교들과 일본의 학교들사이에 친선관계를 맺고 학생들이 서로 편지와 작품같은것도 교환하고 거래도 하면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조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기때문에 내가 그를 대신하여 말할수는 없지만 아마 그도 당신들의 초청에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끼나와의 반환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우리보다 당신들이 더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끼나와가 진실로 일본인민들에게 돌아오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끼나와에 군사기지를 그대로 두고 침략전쟁에 리용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오끼나와가 일본인민들에게 돌아오는것이 아니며 아무런 의의도 없는것입니다.

우리는 미제가 오끼나와를 일본에 돌려준다는것이 일본인민들과 아세아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사또와 닉슨사이의 밀담에서 꾸며진 요술이 아닌가고 봅니다. 당신들도 아는바와 같이 지금 닉슨은 세계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요술을 많이 피우고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끼나와반환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닉슨과 사또가 무슨 요술을 피우고있는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요술을 피우는가 하는것은 좀더 지내보아야 알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끼나와가 진실로 일본인민의 손에 돌아와야 하며 일본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끼나와가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미제국주의

자들의 침략적군사기지로 리용되여서는 절대로 안될것입니다.

일본문제에 대하여서는 일본인민들이 더잘 알기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일본인민들의 립장과 일본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오끼나와반환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우리는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기만적인 오끼나와반환책동을 반대하는 당신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당신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대체로 이상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한 담화

(1972년 5월 26일)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미국에 대한 조선인민의 감정이 어떤가 하는것을 직접 보고 느끼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한 조선인민의 감정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의 반미감정은 매우 높습니다. 조선인민의 반미감정이 높은것을 보고 미국사람인 당신들은 불쾌하였으리라고 봅니다.

조선인민이 미국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있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제는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침략자입니다. 자기 나라를 침략하는 침략자에 대하여 인민들이 좋은 감정을 가질수야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한 조선인민의 감정이 더욱 나빠진것은 특히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이 미제에 의하여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하였기때문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은 미제의 야만적침략행위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조선사람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가족이 피해를 받아도 받고 친척, 친우가 피해를 받아도 받고 어쨌든 조선사람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피해를 받았습니다.

평양시만 놓고보더라도 미제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말미암아 집은 몇채밖에 남지 않고 온 도시가 완전히 재더미로 되였으며 수만명의 인민들이 무참히 죽었습니다. 원산과 함흥을 비롯한 다른 도시들의 형편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의 마지막시기에는 농촌까지도 다 재더미로 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제에 의하여 혹심한 피해를 당한 조선인민이 미국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질수 없는것입니다.

미국은 정전후에도 우리 나라에 대하여 계속 비우호적으로 대하여왔습니다.

정전협정에는 전후 인차 쌍방이 정치회의를 열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지적되여있으나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오늘까지 정전상태가 계속되고있습니다. 아직 어떠한 평화협정도 체결되지 못하였으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은 진척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늘 인민들에게 세대는 바뀌고있으나 우리의 투쟁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미국당국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행위를 계속하여왔습니다. 《푸에블로》호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한 공중정찰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사실상 늘 전쟁상태에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전후에도 사실상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우리는 국방건설을 강화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털어놓고말하여 지난날 국방건설에 많은 자금을 돌리다보니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서 일정한 지장을 받았습

니다. 우리 인민은 이것도 미국때문이라고 인정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에 의하여 큰 피해를 받았기때문에 강한 반미감정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전후에도 미제가 우리 나라에 대하여 비우호적으로 대하며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침략행위를 계속하기때문에 미국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있는것입니다.

정세가 긴장한 조건에서 우리는 전쟁준비를 계속 강화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준비를 한다는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미제가 다시 우리 나라에 달려들지 않으리라는것을 누가 보증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신들도 보증할수 없고 나도 보증할수 없으며 그 누구도 보증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전쟁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준비를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전체 인민이 미제를 미워하도록 교양하는것입니다. 전체 인민을 미제를 미워하는 사상으로 교양하지 않고서는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는 미제와 싸워이길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인민들속에서 미제를 미워할데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인민들로 하여금 미제를 미워하도록 교양하는것은 마땅한 일이며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온다고 하여 인민들속에서 진행하여오던 반미교양을 중지하거나 인민들을 반미사상으로 교양한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야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감정이 나쁜데 대하여 당신들이 리해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당신들이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가 개변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있습니다. 우리는 원쑤를 많이 만들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들이 제기한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과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조선과 미국사이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종식시키려면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는가 하는것을 물었는데 우리 견해에 의하면 그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정부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정책을 개변한다면 우리도 미국에 대한 정책을 바꿀것입니다.

미국정부가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무엇보다먼저 조선의 통일문제를 조선사람들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20년이 가까와오는데 아직까지 미군이 《유엔군》의 간판을 가지고 남조선에 주둔해있을 필요가 어디있습니까. 지금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남침》할가봐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군이 남조선에 머물러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남침》할 의도가 없다는것을 이미 여러번 천명하였습니다. 이제는 미군이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경찰의 역할을 놀고있는 사태를 끝장낼 때가 되였습니다.

미국정부가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것은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키고있는데 있을뿐아니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도와주고있는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도와주고있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969년에 발표된 닉슨과 사또사이의 공동콤뮤니케를 보면 미국이 일본군국주의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조선침략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며 그들이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도록 부추기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된후 사또는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겠다는것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정부의 비우호적인 태도입니다.

유엔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미국정부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부당한 태도를 취하고있습니다. 미국정부는 남조선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조건부도 없이 유엔에 초청할것을 주장하면서 우리를 유엔에 초청하는데서는 조건을 붙이고있습니다. 그들은 마치도 우리가 유엔헌장을 존중하지 않는듯이 말하고있는데 우리는 유엔헌장을 위반한 일도 없고 무시한적도 없습니다. 미국은 유엔이 조선문제에 대하여 부당한 결정을 채택한것을 우리가 인정하여야 우리를 유엔총회에 참가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조건부로 어떻게 유엔총회에 참가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미국은 이른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사촉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허위날조로 가득찬 년례보고를 만들어 우리를 반대하는 비우호적인 선전을 계속하고있습니다.

미국정부가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계속 비우호적인 정책을 쓰기때문에 조선과 미국간의 관계는 개선되지 못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면 조선사람들이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도록 우리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그만두고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미군을 철거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민족의 분렬을 조장할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통일을 지지하여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를 분렬시키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미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좋아질수 없습니다. 지금 조선반도가 두 부분으로 갈라져있는데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가고 외세의 간섭이 없으면 조선사람끼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공통점을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나가면 조선사람끼리 쉽게 화해할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반미감정도 점차 풀릴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여 만리장성을 돌아보면서 나라들을 갈라놓는 장벽을 허물어야 되겠다고 하였는데 만일 미국정부가 이 말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먼저 조선에서부터 행동에 옮겨야 할것입니다. 지금 닉슨은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며 쏘련하고도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남조선에 군사기지를 계속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난날 미국은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하여 남조선에 저들의 군사기지를 둔다고 하여온것만큼 오늘 큰 사회주의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가진다고 하면서 계속 남조선에 군사기지를 둘 조건이 없다고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모든 군사기지와 침략군을 걷어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또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도와주며 그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남조선을 침략하도록 하고 또 남조선을 일본의 상품시장으로, 부속물로 만들려는것은 우리 인민을 적대시하는 비우호적인 행위입니다. 미국정부는 우리 나라에 대한 이런 비우호적인 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만일 미국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비우호적인 행위를 그만두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미국을 적대시할 리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가 하는것을 주시할것입니다.

미국정부는 큰 나라들과만 관계를 개선할것이 아니라 응당 작은 나라들과도 관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큰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것이 작은 나라들과의 관계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아직까지 작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종전의 태도를 변경시키지 않고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간의 공동콤뮤니케에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상태의 완화와 남조선이 북조선과 접촉하는것을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남조선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앞으로 두고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미국이 조선에서의 긴장상태완화와 남북간의 접촉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압력에 못이겨 빈말을 하였다는것을 의미할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닉슨이 중국에 가서 한 말들을 기억하고있습니다. 닉슨이 중국에 가서 한 말들가운데서 가장 흥미있는것은 어떠한 장벽도 세계의 사람들을 갈라놓지 말아야 한다고 한것입니다. 우리는 닉슨이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것을 주시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이 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철거하기전이라도 두 나라 사이에 서로 리해를 도모하며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기자래왕과 문화교류 같은것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고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는 미국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오려고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편에서 우리 사람들이 미국에 간다고 하여도 별로 흥미있는것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문을 닫아매려는것은 아니지만 두 나라 사이에 근본문제가 해결되기전에는 기자래왕이나 문화교류 같은것은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불쾌한 감을 느끼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다른 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도 다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원쑤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미교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정부의 적대시정책이 변하지 않는한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정책도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나라 사이에 근본문제가 해결되기전에는 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좋은 인상을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많은 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왔다가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그러한 래왕은 리로울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개변한다면 우리도 반미감정을 완화시킬수 있을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두 나라 사이에 래왕과 교류를 하여야 그것이 서로 리롭고 재미있는것으로 될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정부의 적대시정책이 개변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지금과 같이 제한된 범위에서 래왕하는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 기자들이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남조선위정자들의 목소리만 듣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인민들에게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하여 우리 나라 기자들이 미국에 가는것도 필요하다고봅니다. 또한 우리는 제한된 범위에서 미국 기자들과 민주인사들이 우리 나라에 오는것도 환영합니다. 이러한 래왕과 교류는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리해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당신들을 맞이한 경험으로 보아 앞으로 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오면 참관을 시작하기전에 먼저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에게 반미교양을 어떻게 하고있는가 하는것을 강의하여 주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조선문제를 1954년 제네바회의에서 웰남문제를 다루던것과 같은 식으로 다룰수 있겠는가고 하였는데 우리는 조선문제를 그런 식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봅니다.

조선문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하여 조선사람들자신이 해결하도록 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쏘련과 중국은 우리의 이러한 조국통일방침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쏘련과 중국 정부는 우리 나라의 평화적통일방침을 지지하여 여러번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되자면 무엇보다도먼저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나가야 합니다. 미국군대가 나간다고 하여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것입니다.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나가고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단결한다면 조국의 통일은 빨리 실현될것이며 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도 막을수 있을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힘으로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알고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을 통하여 남조선과 접촉하고있습니다. 물론 이 회담의 전망이 어떻게 되겠는지 또 이 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지는 더 두고보아야 알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조선사람들끼리 한자리에 마주앉으면 남북간의 불신임과 오해를 제거하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있는 방도를 찾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남북조선사람들이 한자리에 마주앉지 못하였기때문에 서로 랭랭한 감정을 가지고있으며 많은 점에서 서로 불신임하고 오해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조선사람들사이에 몇가지 문제에서 불신임과 오해가 있다고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미국과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등에 업고 공화국북반부를 침입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우리가 남조선을 내치지 않겠는가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오해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남조선을 《적화》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반공》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임과 오해로 말미암아 조선의 통일문제는 아직 전진을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사람들끼리 마주앉으면 서로 불신임하고 오해하고있는 점들을 제거하고 공통점을 찾으며 이에 기초하여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근 남조선의 위정자들도 말로나마 《자조》요, 《자립》이요, 《자위》요 하면서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하여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좋게 해석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과 어느정도 류사한 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공통점을 하나하나 찾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간다면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할수 있을것입니다.

남북간의 제도상 차이는 민족적단결을 도모하며 조국을 통일하는데 장애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일부 다른 나라 기자들은 조선에 상반되는 두개의 극이 있는데 그 하나는 북조선의 공산주의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남조선의 자본주의제도라고 하면서 이 두 극은 서로 합치될수 없으며 만일 이 두 극이 서로 마주치면 조선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것이라고 쓰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을 완전한 자본주의사회라고 보지않습니다. 지금 남조선에 대독점자본가들은 없고 있다고 하면 매판자본가들이 좀 있을따름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판자본가들을 반대합니다. 매판자본가들은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장애로 되기때문에 우리가 반대하지만 민족자본가나 중소기업가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사회는 자본주의길을 걷기 시작한다고 하겠는지, 자본주의를 동경한다고 하겠는지 아니면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고있거나 자본주의를 신봉한다고 하겠는지 하는 정도의 사회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남북간에 제도상 차이가 없다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남북사이에 리념과 신앙의 차이들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위하여 이러한 차이들을 초월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할 의사를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남조선의 현위정자들도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다른 사회제도로 바꾸도록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면 민족적단결을 이룩하지 못할 리유가 없을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자기의 사회제도를 강요하지 않는 원칙을 세운다면 무력으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쌍방이 서로 자기의 정치적신념을 꺾이우지 않는이상 무엇때문에 한민족끼리 싸우겠습니까.

한나라안에 각이한 정치제도가 있을수 있으며 각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나라안에서 같이 살수 있습니다. 남조선에 어떤 정치제도를 세우겠는가 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조선에 남북의 현존사회제도가 그대로 있을수 있고 이러저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호상 신뢰하고 호상 존중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또한 남북간의 제도상 차이는 있지만 호상 신뢰하고 호상 존중하는 조건에서 전민족적단합을 이룩할것을 주장합니다.

지난해 8월 6일에 한 연설에서 우리는 남조선의 집권당인 민주공화당과도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호상 존중하자는 우리의 의도에서 나온것입니다.

남북이 힘을 합쳐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호상 오해와 불신임을 점차적으로 제거하고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을것입니다. 만일 조선문제에 외세가 간섭한다면 우리 나라의 통일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안에서 생긴 불신임과 오해를 풀어줄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조선문제에 대한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반대합니다.

앞으로 조선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이 없어지고 다른 나라들이 방해책동을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걸릴수는 있겠지만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우리의 주장에 따라 이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취하고있는 실제적인 조치들에 대하여 알고싶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남북사이에 서신거래와 인사래왕을 실현하며 무역과 경제협조도 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인사교류에서 우리의 대의원들과 남조선의 《국회의원》들이 래왕하는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조선의 《국회의원》들이 공화국북반부에 오고 우리의 최고인민회의대의원들이 남조선에 가며 이렇게 서로 오고가면서 한자리에 모여앉아 흉금을 털어놓고 의견을 교환한다면 그것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닐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국회의원》들뿐아니라 남조선의 광범한 정계와 사회계 인사들과도 접촉할것을 요구합니다. 다시말하여 우리는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광범히 교환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금 당장 나라를 통일할수 없다면 련방제라도 실시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련방제는 당분간 남북조선에 지금 있는 두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조선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주로 조선의 민족적리익을 위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통일적으로 조절하자는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당면한 리익으로부터 남북사이에 경제교류를 하자는것도 여러번 제의하였습니다. 남북조선이 경제적으로 합작하여 우리에게 많은것은 남조선에 주고 남조선에 많은것은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면 남북조선의 경제는 더욱 빨리 발전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남북사이에 문화교류와 과학교류를 실현할것도 제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사이에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쌍방의 군대를 줄이자는것도 주장하고있습니다. 지금 남북간의 군비경쟁은 인민생활에 적지않은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가시고 접촉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고있습니다. 물론 남북래왕이 실현되면 공화국북반부에 자본주의적영향이 들어올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에 대하여 조금도 겁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남조선사람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올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있습니다. 지금 문을 닫아매고있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남조선위정자들입니다. 이제 남조선당국이 문을 열어놓는다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위정자들은 문을 열기를 매우 겁나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라는 구실밑에 이른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별의별 장난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으며 심지어 괴뢰국회안에서 민주공화당소속 《국회의원》들과 신민당소속 《국회의원》들끼리도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지금 남조선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반공대회》요, 《승공및방첩대회》요 하면서 《반공》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남조선에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위정자들이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을 구실로 이른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며 《승공통일》을 해야 한다고 떠벌이는것은 조국통일을 하자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러한 소동은 남북사이의 관계를 접근시키자는것이 아니라 더 멀리하려는것이며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려는 행위입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말하는 《승공통일》이라는것은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다 없애고 통일하겠다는것인데 이것은 결국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영구화하자는것입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이러한 소동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체의 약점을 드러내놓는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는 남북간의 접촉과 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인내성있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남조선이 일본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데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있습니다. 만일 남조선위정자들이 계속 남북사이에 문을 닫아맨다면 남조선에 일본자본이 들어와 남조선은 경제적으로 일본에 완전히 예속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894년에 조선에 있는 일본거류민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조선에 기여들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또다시 조선을 침략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잡지 《세계주보》에서 일본군국주의우두머리들이 조선이 적어도 4반세기동안은 통일되지 말아야 한다고 한 말이 씌여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또다시 조선을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군국주의자들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들과 새 세대들에게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력사를 똑똑히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력사를 잊지 않고 일본군국주의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도록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고 남북으로 갈라져있는것은 남조선위정자들의 반동적인 책동과 함께 외세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이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의 관계가 개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문제는 일본정부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일 두 나라 사이에 선린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적대시정책을 써왔기때문입니다. 일본정부는 요시다내각으로부터 기시, 이께다, 사또 내각에 이르기까지 력대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하여 계속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여왔으며 적대시정책을 써왔습니다.

만일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자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하여 계속 적대시정책을 쓰며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조건에서는 구걸외교를 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작은 나라 인민일수록 자존심은 더 있어야 합니다. 작은 나라 인민이 자존심까지 없으면 살아나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이 왼 빰을 치는데 오른 빰을 쳐달라고 내대고 《천당》에 가고싶지 않으며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도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무엇인가고 하였는데 그것은 조국의 통일입니다.

조선민족은 한피줄을 이은 단일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아직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여 우리 민족은 갈라져살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인공적으로 생긴 장벽으로 하여 적지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 친척들과 오래동안 갈라져살면서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서신거래도 못하며 생사여부조차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빚어내는 인공적인 장벽은 하루빨리 없어지고 우리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통일되면 우리 민족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살수 있으며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 다 같이 평화롭게 살수 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근면하고 슬기로운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은 고생도 겪어보았고 오래동안 민족적인 멸시와 압박과 착취도 받아보았으며 외래침략자들의 침략도 당하여보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남북조선인민들이 힘을 합쳐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한다면 우리 인민들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살수 있으며 우리 나라는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인구도 적지 않으며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우리는 능력있는 민족간부들도 많이 키워놓았습니다. 해방직후에는 우리에게 능력있는 기술자들이 없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사람들에게 기술을 배워주지 않았을뿐아니라 조선사람들이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조선사람들이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하였던지 해방전에 조선사람가운데 기관사가 네명밖에 없었습니다. 놈들은 기관사까지도 다 일본사람들만 시켰고 조선사람은 화부노릇이나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쓰라린 고통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해방후 민족간부양성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50만명에 달하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간부양성사업에서 이미 얻은 성과에 기초하여 6개년계획기간에 그 대렬을 100만명으로 늘일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인구도 많이 가지고있고 풍부한 자원도 가지고있으며 기술자들의 대부대도 가지고있습니다. 그런것만큼 조국이 통일되면 빠른 시일안에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할수 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난날 우리가 하여온 투쟁가운데서 어떤 투쟁이 가장 어려웠는가 하는것을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헤아릴수 없이 많은 어려운 투쟁을 하여왔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할수는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하여온 투쟁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투쟁의 하나는 전후 재더미우에서 일

며서기 위한 투쟁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동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은 여지없이 파괴되였으며 공장과 기업소들도 다 재더미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전후 아무것도 없는 빈터우에서 도시와 농촌을 건설하고 공장을 일떠세워야 하였으며 인민생활을 빨리 안정시켜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대중과 굳게 통일단결되여있었기때문에 이러한 난관과 시련을 능히 이겨낼수 있었으며 경제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어려운 고비들을 기본적으로 넘기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도 안정되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그리 높지는 못하지만 우리 나라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으며 일자리가 없어 헤매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일하며 무료로 공부하고 무상으로 치료받고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수 있는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우에서도 말하였지만 우리는 능력있는 민족간부의 대부대를 가지고있으며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의 토대도 마련하여놓았고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도 많이 꾸려놓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나라의 공업을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튼튼한 자립적인 공업으로 발전시켜놓았습니다. 우리는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도 닦아놓았습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를 더욱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됩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의 말을 주의깊게 들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이것으로 당신들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정부의 반동정책은 반대하지만 미국인민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우리의 좋은 친우들이 많아질것을 원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본 《마이니찌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2년 9월 17일)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들이 제기한 질문을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대답하려고 합니다.

1. 주체사상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당신들은 주체사상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결코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한것이 아닙니다. 맑스-레닌주의자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다만 나는 이와 같은 사상을 특별히 강조하였을뿐입니다.

주체를 세울 필요성을 얼마나 절실히 느끼며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는가 하는것은 사람마다 다를수 있으며 또 그 나라가 처한 사회력사적환경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나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기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어렵고도 복잡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며 투쟁로선과 투쟁방법도 다 자기 머리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물론 우리는 형언할수 없는 곤난을 겪었으며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기만 하면 참말로 큰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해방직후에도 우리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관리하고 경제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매우 뒤떨어진데다가 남북으로 분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조건에서 새 조국을 어떻게 건설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푸는 처방을 그 어디에 가서 얻어올수도 없는 일이였습니다.

우선 문제로 된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자본주의의 길로 나갈것인가 사회주의의 길로 나갈것인가 하는것이였습니다.

자본주의에로의 길은 착취와 압박을 그대로 두는것을 의미하는데 그래가지고서는 광범한 무산대중을 새 조국 건설에 불러일으킬수 없을뿐아니라 우리 나라가 한 제국주의의 예속으

로부터 다시 다른 제국주의의 예속으로 넘어가게 될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본주의의 길로 나갈수 없었다는것은 명백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당장 사회주의의 길로 나갈수도 없었습니다. 사회주의에로 나가는것이 좋기는 하지마는 그것은 주관적욕망만으로는 될수 없는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사회주의에로 넘어가기전에 해결해야 할 민주주의혁명과업이 당면하게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주의제도를 그대로 본받을수도 없었던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리익에 맞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울수 있는 정치제도가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적개혁들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역시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개혁을 하기 위하여서도 농촌에 나가서 며칠씩 농민들과 생활을 같이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하는것이 우리 농촌실정에 맞겠는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남의것을 그대로 모방하는것보다 이렇게 자기 실정에 맞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것이 훨씬 더 좋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주체사상은 그 정당성이 실증되였고 주체사상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미제국주의자들과의 3년간의 가렬한 전쟁을 겪고 나라가 완전히 재더미로 된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로동자, 농민들의 집과 재산을 파괴하였을뿐아니라 중소기업들과 부농경리까지 다 파괴하여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주의혁명에서 자본가와 부농의 소유를 수탈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청산하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방직후부터 시종일관 중소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중소기업가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로동자, 농민들과 같이 싸울수 있습니다. 더우기 공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우리 나라 형편에서는 민족자본을 보호하는것이 필요하였던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의하여 중소자본주의경리와 부농경리가 다 파괴된 조건에서 그것을 우리 정권이 다시 부활시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것이 다 파괴된 조건에서 중소기업가들이나 도시수공업자들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것없이 다 무산자로 된 셈이였습니다. 그들이 살길이란 힘을 모아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것뿐이였습니다. 여지없이 파괴된 농촌경리를 추켜세우는 길도 역시 농민들이 힘을 모아 사회주의적으로 나가는것이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수공업적기술을 가지고서라도 협동하는것이 개인농경리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다는 맑스-레닌주의명제와 또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공업화의 실현을 기다리지 않고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대담하게 밀고나가는 독창적인 길을 택하였습니다. 또 중소기업가들이나 부농을 수탈할 필요가 없었기때문에 그들 역시 협동조합에 망라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독특한 길을 택하였습니다.

생활은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 매달리는것보다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우리 당의 로선이 옳다는것을 또다시 확증하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 힘을 믿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옳은 립장과 태도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 혁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으며 또 걷고있습니다. 우리는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오직 주체사상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만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할수 있으며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할수 있다는 우리의 신념은 더욱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였습니다.

당신들이 주체사상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로 구현되는것으로 리해하여도 좋은가고 물었는데 바로 그렇게 리해하는것이 옳습니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입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기때문에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것입니다. 주인다운 태도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표현됩니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활동이 요구됩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우리 인민의 리익, 우리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정책과 로선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신이 책임지고 해나가는 확고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그들자신이 모든 가능성과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고수하는 문제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통일되여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있습니다. 자주적립장이 어떻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여있다면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어떤 방법으로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여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주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라면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습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가들은 남의 노예가 되여 목숨을 보존하기보다는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죽는것을 몇배나 더 영예로운것으로 생각하는것입니다.

자주성을 무시하는것은 인간자체를 무시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에게 예속되여 사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데 있겠습니까. 왜 지난날 사람들이 봉건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오늘 로동계급이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근로자들이 봉건적인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것이였으며 자본주의적인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도 우리 민족을 제국주의의 예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자주권을 가진 민족으로서 자유롭게 살아나가기 위한것입니다.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것입니다.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정권을 가져야 하며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이 무엇보다먼저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으로 구현되여야 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져야 하며 자기 자신의 결심에 의하여 오직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모든 정책과 로선을 결정할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압력이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정권은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이러한 정권을 가진 나라는 자주독립국가라고 볼수 없습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의 원칙은 모든 민족들사이의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반대할뿐아니라 남을 예속시키는것도 반대합니다. 남을 예속시키는 민족은 결코 자신도 자유로울수 없는 법입니다.

나라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적자주성과 함께 경제에서의 자립성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에서의 자립성이 없이는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으며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립장을 물질적으로 보장할수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남에게 예속되여가지고서는 정치적자주성도 보장할수 없으며 자립적인 경제력이 없이는 국방에서의 자위로선을 관철할수 없습니다.

자기를 옹호보위하는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라도 역시 자기를 보위하는 수단을 가져야 하는것입니다. 국방에서의 자위로선은 자주독립국가의 필수적요구입니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내외의 원쑤들로부터 자기의 주권을 옹호보위할수 있는 자위적인 방위력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력사적으로 확증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은 당면하게 우리가 국내정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무엇에 중점을 두고있는가 하는것을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다는것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오랜 세월을 두고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여왔으나 아직 조국의 절반땅에서 우리의 민족적자주권은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짓밟히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외래침략자들을 내쫓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것보다 더 절실한 문제란 있을수 없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근 30년간이나 외세의존정책에 매달리면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고있습니다.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뼈저리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며 또 오늘 미제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똑똑히 보고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업은 북반부인민들뿐아니라 전체 남조선인민들이 자주자립의 정신을 가지고 외세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이 오늘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대한 사업입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당면한 중심적인 과업은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우리 인민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고된 로동에서 해방되는것입니다.

로동생활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로동조건에서의

본질적인 차이를 없애고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은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만드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사람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3대기술혁명을 밀고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은 자기의 힘으로 기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로동과 중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이 과업들이 완전히 수행되면 도시와 농촌에서 힘든 로동은 기본적으로 없어지게 될것이며 로동생활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도 없어지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저 중공업을 발전시킨다든가 경공업을 발전시킨다든가 하지 않고 사람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의 목표를 내건것도 경제건설이나 기술혁명이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되여야 한다는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을 뚜렷이 표현하고있는것입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입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청소년교육문제에 대하여 말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청소년교육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할 우리 혁명의 후비대일뿐아니라 사회발전에서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때문입니다.

물론 생활수단이 없이는 사람이 살수도 없고 발전할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루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수단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한것이지 사람을 떠나서는 무의미한것입니다. 또 생활수단을 창조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하는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사업,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을 앞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을 위한것이며 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은 사람을 위한것이며 그 성과여부는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교육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한 한 부문입니다.

교육이란 사람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입니다. 사회적인간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사회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혁명하는 시대에 태여난 젊은 세대들이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시대의 인간으로서 과학기술도 문학예술도 알지 못한다면 사회적인간이라고 말할수 없을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인간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을 갖추어야만 모든 사회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언제나 교육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에서 중심문제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관철하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는 사상과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키우는것입니다.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입니다. 비록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사상적으로 뒤떨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면 그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정신적불구자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언제나 사람들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있습니다.

청소년교육에서도 그들을 혁명적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에 선차성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일하기 싫어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복무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과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개인의 출세나 돈벌이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 인민과 자기 조국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과 혁명적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를 배워도 쓸모있는 지식을 배우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청소년들이 일하기 좋아하고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과 건설에 앞장서나가는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갖춘 새형의 인간으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요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큰 힘을 기울이고있습니다. 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전반적으로 실시되면 새로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이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자연과 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진 유능한 사회주의건설자로 자라나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당신들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지만 그에 대하여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과 로선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그 어떤 리론을 위한 리론이 아니라 복잡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우리가 내놓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된 엄연한 력사적현실입니다. 주체사상을 깊이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 나라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것이 필요합니다.

2.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당신들이 우리의 주체사상에 의한 대외정책이 사회주의나라들간의 련대성강화와 반제투쟁, 국제적인 민주력량강화에 미치고있는 영향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옳게 말한바와 같이 공화국정부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대외정책을 작성하며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모든 대외활동을 진행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공화국은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의 숭고한 념원을 반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국제주의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원칙을 지키고있으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큰 나라, 작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친선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외활동에서 다른 나라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 누가 우리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짓밟거나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화국정부의 이러한 대외정책은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리익에 부합될뿐아니라 세계혁명의 리익에도 완전히 부합됩니다.

대외활동에서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자주성의 원칙은 결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가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를 떠난 자주성도 있을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있습니다.

우리는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으며 국제로동운동에서 나타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첫째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둘째로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셋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며 넷째로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기초우에서 단결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당들과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에 비록 의견상이가 있다하더라도 이 네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단결을 도모하며 공동으로 투쟁하는 립장을 견지하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반제투쟁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 있을뿐아니라 대외활동에서도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미제를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철칙으로 삼고있으며 모든 반제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국제민주주의운동에 대하여서도 자주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과 민주주의운동을 힘자라는껏 지지하고 성원하지 거기에 간섭하거나 우리의 사상을 내려먹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또한 령토완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불가침, 내정에 대한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적공존의 5개원칙에 기초하여 신생독립국가들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과 단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세계인민들이 우리 당의 혁명적인 주체사상에 공감을 표시하고있으며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자주성의 원칙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의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신생독립국가들도 다른 나라의 간섭과 구속을 반대하고 있으며 자주, 자립의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심지어 자본주의나라들까지도 더는 큰 나라들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독자적으로 행동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 세계인민들이 주체사상을 요구하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이 윁남의 평화와 그와 관련한 미제의 아세아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듣고싶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윁남에서 아직 평화가 이룩되지 못하고 전쟁이 계속되는것은 당신들뿐아니라 아세아인민들을 비롯한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윁남전쟁은 특히 윁남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습니다.

윁남에서 아직 평화가 이룩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침략정책때문입니다.

당신들도 아다싶이 최근년간 미제는 윁남전쟁에서 심대한 패배를 거듭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를 겪게 되였습니다. 미제는 이러한 막다른골목으로부터의 출로를 찾기 위하여 이른바 《닉손주의》라는것을 내놓았습니다. 《닉손주의》는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사람들끼리 싸우게 하

려는 보다 교활하고 음흉한 침략정책입니다.

그러나 《닉슨주의》는 옛날부터 반동통치배들이 궁지에 빠질 때마다 거기서 헤여나보려고 늘 써오던 낡은 수법이며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닉슨주의》는 윁남인민들의 영웅적항전에 부닥쳐 파탄되고있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윁남에서 전쟁의 《윁남화》계획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한편 윁남민주공화국의 해안을 봉쇄하고 도시와 농촌, 경제문화시설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범죄적만행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지만 반미구국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선 윁남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계속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를 당하고있습니다.

윁남에서 평화가 보장되려면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당장 그만두고 전쟁의 《윁남화》정책을 걷어치우며 저들의 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들과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남부윁남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윁남문제는 반드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윁남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지지성원을 받고있는 영웅적윁남인민은 미제의 《윁남화》정책을 파탄시키며 남부를 해방하고 북부를 수호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한 공화국정부의 립장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적들은 올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립장을 취하고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위정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토의를 연기시키려는 전술을 쓰고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사이에 회담이 시작되고 남북사이에 대화가 진행되고있기때문에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를 토의할 필요가 없으며 조선문제토의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위정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조선인민의 의사에 전적으로 어긋나는것이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매우 그릇된 행위입니다. 미제와 남조선위정자들이 남북사이에 부분적인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지고있는것을 구실로 하여 올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토의를 또다시 연기시키려고 하는데는 음흉한 목적이 숨어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토의를 연기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정책을 가리워보려 하고있으며 남조선위정자들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키려 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제와 남조선위정자들의 유엔에 대한 전술은 철저히 침략적이며 반인민적인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적들의 이러한 전술에 대처하여 올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를 토의하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사이에 회담이 진행되고있으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민족이 단결하여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조건에서 유엔은 마땅히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도움을 주려면 조선문제토의를 연기할것이 아니라 올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를 토의하여야 하며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유리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할것입니다.

유엔은 무엇보다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여야 하며 유엔의 간판을 가지고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방해로 되는 모든 결정들과 조치들을 다 취소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결정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유엔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한다면 조선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더욱 유리한 환

경이 조성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유엔에 대한 우리의 방침을 지지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정당한 방침을 지지하여 나설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유엔이 조만간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 조선의 평화적통일문제에 대하여

분렬된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해방후 27년이 지나도록 통일되지 못한채 남북으로 갈라져있습니다.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인민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한결같이 바라고있습니다.

평화적조국통일의 기운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속에서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속에서도 급격히 높아가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고있을 때 우리는 지난해 8월 6일연설에서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남조선의 민주공화당과도 접촉하겠다는 우리의 새로운 제의가 나간 다음 그 실현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압력과 세계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조선당국자들은 할수없이 남북적십자회담을 열고 가족찾기운동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기한것은 남조선측과 정치협상을 하자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하게 남북의 접촉을 념원하여온것만큼 그들의 제의가 제한성을 띤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가족찾기운동이라도 좋으니 회담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9월 20일부터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이 열리자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인민들도 남북사이의 접촉이 실현된것을 매우 기뻐하였으며 그것을 커다란 흥분속에서 열렬히 지지하였습니다.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을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자 여기에 겁을 먹은 남조선집권자들은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라는 구실밑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민들에 대한 폭압소동을 벌리였습니다. 남조선집권자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한것은 순전히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급격히 높아가고있는 평화통일기운과 민주주의적지향을 억누르기 위한 기만적인 책동입니다.

남조선집권자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에도 우리는 민족분렬의 비운을 쓸어버리고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여러가지 적극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의 압력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여론에 못이겨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과는 별도로 남북고위급비밀회담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세상에 알려진바와 같이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였으며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습니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족앞에 밝은 서광이 비치게 되였습니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고 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모든 문제가 다 간단하게 풀릴수는 없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면 전체 조선인민이 인내성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돌아앉아서 량면전술을 쓰고있으며 공동성명에 지적된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리행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주앉아 회담할 때에는 좋은 말을 하고 뒤에 돌아가서는 우리를 비방중상하며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발언과 행동들을 일삼고있습니다.

남북공동성명에 밝혀져있는 조국통일의 첫째원칙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것입니다. 털어놓고말하여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며 그밖에 다른 나라 세력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쏘련, 중국과 동맹관계를 가지고있지만 쏘련이나 중국은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쏘련군대도 없고 중국인민지원군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며 조국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외세는 바로 미제와 일본의 일부 반동들입니다. 그러므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면 우리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있는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원칙에 동의해놓고도 유엔은 외세가 아니라느니, 미군이 남조선에 오래 남아있어야 한다느니, 조선의 통일은 유엔감시하의 선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늘어놓고있습니다.

남북공동성명에는 또한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밝혀져있습니다. 이 원칙을 준수하려면 쌍방이 정세를 첨예화시키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이미 한두번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조선위정자들은 우리의 말을 믿을수 없다고 하면서 남북대결을 위하여 전후방군사시설을 보강하고 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쳐 《힘》을 《배양》해야 한다고 떠들고있으며 군사연습을 더욱 빈번히 벌리고있습니다. 이것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엄중한 행동입니다.

우리에 대한 남조선위정자들의 터무니없는 비방중상과 도발행동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분노를 자아내고있으며 결국 대화있는 긴장상태를 조성시키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통일의 분위기보다 싸움의 분위기를 북돋을뿐입니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는것은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에게 자본주의제도의 복구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무엇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사회주의를 남조선에 강요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조선이 앞으로 어떤 사회로 되는가 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것입니다. 지금 남조선위정자들은 북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떠들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만한 행동은 평화통일을 파탄시키려는 책동입니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원칙은 사회의 민주화와 각당, 각파, 각계 인사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의 민

주화가 실현되여야 사상과 정견, 신앙과 당파의 차이를 막론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원하는 모든 력량이 한데 뭉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개편할 리유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민주주의적자유를 말살하며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야당들의 활동마저 구속하면서 야당인사들과 우리와의 접촉을 가로막고있으며 남북의 접촉과 교류, 조국통일을 주장해나선 수많은 인민들을 《반공법》에 걸어 김거투옥하고있습니다. 심지어 남조선당국자들은 얼마전에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한 애국자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행위입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리행할것을 민족앞에 엄숙히 맹세하고서도 이와 같이 그것을 서슴없이 위반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저들의 이러한 배족적행동으로부터 발생될 후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분노를 참고있으며 남조선위정자들의 거만하고 무례한적인 행동에 대하여 인내성있게 대하고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전체 조선인민의 증오를 더욱더 불러일으킬것입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중지하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의 사항들을 지키며 불신임을 제거하고 호상리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통일문제해결을 위하여 성의있게 나온다면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인내성있게 투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온 민족의 기대속에서 진행되고있는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회담을 하루빨리 성사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인공적분렬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남북조절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운영하여 남북공동성명에 지적된 사항을 추진시키며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와 같은 제한된 범위의 접촉과 협상만으로는 원만히 해결할수 없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는 남북적십자회담이나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으로는 풀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근본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더욱 폭넓고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을 실현하여 오랜기간에 걸쳐 쌓인 남북간의 불신임과 오해를 풀고 리해를 증진시키며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방책들을 토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들의 련석회의나 남북당국자들의 회의 또는 우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남조선 《국회의원》들의 련합회의 같은 정치협상을 시급히 진행할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평화적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당면하게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련방제는 남북의 현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민족적단합을 이룩하자는것입니다. 남북사이에 제도상 차이는 있지만 남북쌍방이 서로 자기의 사회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한다면 남북련방제를 실시하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남북련방제가 실시되면 남북사이에 보다 광범한 접촉과 래왕이 실현될것이며 경제, 문화 교류도 더욱 원만히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남북이 경제적으로 합작하고 교류하면 공화국북반부의 발전된 중공업과 풍부한 지하자원을 리용하여 남조선의 경제형편을 빨리

개선할수 있을것이며 남북조선인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매우 유익할것입니다. 남북의 체육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남북으로 서로 오고가면서 체육경기와 예술공연을 하며 국제체육경기들과 국제예술축전들에 남북단일팀과 남북단일예술단을 구성하여 보낼수도 있을것입니다. 기자들도 자유로이 래왕하면서 취재활동을 하며 평양과 서울에 기자대표부나 신문사지국을 두고 남북사이에 신문, 잡지 같은것을 교환하는 사업도 할수 있을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북련방제를 실시하고 남북사이에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광범한 교류와 래왕을 실현하게 되면 남북사이의 불신과 랭랭한 감정은 가셔지고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될것이며 민족적단합이 쉽게 이루어지게 될것입니다. 남북간에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민족적단합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남북총선거를 통하여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을것입니다.

4. 조선과 일본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당신들도 아는바와 같이 지난날 사또내각때 일본정부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매우 혹심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나까내각은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사또내각보다 조금 완화하는 기운을 보이고있습니다. 사또는 재일조선공민들이 조국에 왔다가며 해외에 나다니는것을 극력 반대하였습니다. 지금은 재일조선공민들이 외국에 다니는것을 일부 허락하고있으며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방문도 부분적으로나마 승인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렸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려면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풀려야 합니다.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정상적인 국교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오늘까지 조일 두 나라 사이에 우호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대시정책때문입니다. 일본정부가 조선반도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조일 두 나라 사이의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릴것입니다.

조선과 일본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시종일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비록 사회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일본과 선린관계를 맺을것을 희망하여왔으며 지금도 두 나라 사이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할것을 바라고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와 선린관계를 가지려 한다면 마땅히 일변도정책을 쓰지 말고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어떠한 침략적성격도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조선의 통일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일변도정책을 실시하면서 어느 일방으로 하여금 타방을 반대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조선반도에서 불화를 조성하려는것은 매우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일본정부는 자기 곁집인 조선반도가 안정되고 남북조선이 통일되여 평화롭게 잘살것을 원하여야 합니다. 자기 곁집에서 싸움질을 하고 분주하면 일본도 좋을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정부가 자기의 린방인 우리 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는것이 일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나라와 일본 두 나라 사이에는 제도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

정부가 사회제도가 서로 다른 나라들과도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는것만큼 우리 나라와도 평등한 립장에서 대하며 평화적공존의 5개원칙에 기초하여 국교관계를 수립하는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과 국교관계를 맺기전이라도 기자들과 기술자들을 비롯한 각계인사들의 래왕을 많이 하며 경제, 문화적인 교류를 널리 진행할 용의를 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일방적인것으로 되여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진행되여야 합니다.

당신들도 아는바와 같이 지금 조일 두 나라 사이에 부분적으로 교류가 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본정부의 비우호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성격을 면치 못하고있습니다. 기자교류문제만 놓고보아도 일본기자인 당신들은 우리 나라를 방문할수 있지만 우리 기자들은 일본에 갈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류가 일방적인것으로 되여서는 결코 두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든지 조일 두 나라 사이의 선린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인정합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에 우호관계를 맺는데서 일본정부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적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공민들의 민족적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은 응당한 일이며 그것은 국제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오늘 재일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서의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비우호적인 태도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재일조선공민들에게 민족교육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여야 하며 귀국의 권리와 조국에로의 래왕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신들이 최근년간 일본이 경제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결과 국제적으로 여러가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현상태와 대외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린방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것을 왜 나쁘게 여기겠습니까. 일본의 경제가 발전하여 그것이 군국주의의 재생과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데 리용되지 않고 일본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며 다른 나라들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일본반동지배층은 일본독점자본의 부활과 그 지배체제의 확립에 기초하여 나라의 군국화를 다그치며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습니다. 일본반동들이 아직 해외에 파병은 하지 않고있지만 앞으로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있습니다. 이런데서 일본군국주의재생의 위험성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나라의 군국화를 적극 다그치면서 《원조자》의 탈을 쓰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길에 서슴없이 나서고있습니다. 그들은 일부 동남아세아나라들이 처한 경제적난관을 리용하여 이 나라들에 《정부차관》, 《직접투자》, 《합영기업》과 같은 여러가지 명목으로 자본수출을 강화하여 이 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려 하고있으며 《경제원조》에 큰 정치적부대조건을 붙여 일부 신생독립국가들을 우경화하고 반제전선에서 떼여내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특히 일본반동지배층은 범죄적인 《한일협정》의 조작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본격화하였으며 경제적침투에 정치, 군사적 침투를 따라 세우면서 남조선을 또다시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미쳐날뛰고있습니다.

일본당국자들은 얼마전에 서울에 가서 남조선위정자들과 《한일각료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남조선반동들에게 이른바 《원조》를 주는 대가로 《공업소유권협정》을 체결하기로 합

의하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남조선을 일본에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로골적인 침략행위입니다. 일본과 남조선사이에 《공업소유권협정》이 체결되면 일본독점체들이 남조선에서 경영활동상의 특권을 가지게 될것이며 남조선경제가 탐욕적인 일본독점자본의 손아귀에 더욱 철저히 얽매이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제국주의자들이 1894년에 일본인의 재산과 일본거류민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우리 나라를 침략하였던것처럼 다시 남조선을 침략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독점자본은 일본군국주의를 위하여 해외침략의 길을 닦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일본독점자본이 비대해지는데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고있으며 일본경제의 군국화와 그의 해외침략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일본경제의 군국화와 해외침략책동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만일 일본반동들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계속 해외침략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 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또다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야 말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책동을 반대하는 일본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재일조선공민들의 투쟁을 도와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 일본인민들과 일본의 진보적인 언론계 인사들에게 인사를 보내는바입니다.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1972년 10월 6일)

나는 당신이 우리 나라를 방문해준데 대하여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네 사장께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돌아가시면 그에게 인사를 전해주기 바랍니다.

당신이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주체사상이 언제 창시되였으며 언제 확립되였는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에게 이야기한것처럼 당신에게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주체사상의 력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 그자체라고 말하여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였는데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된것은 인민이 주권을 잡은 이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을 각 방면에 걸쳐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나오게 된 근원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장기간의 혁명투쟁을 하는 과정에 주체사상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주체사상을 가지게 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 부닥친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기간 특히 학생시절에 보고 느낀데서 가장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 두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조선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대중을 떠나서 상층부의 몇몇 사람끼리 모여앉아 말공부만 하고 싸움질만 하며 실지 혁명운동에 대중을 불러일으키지 않고있었던 사실입니다. 전체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야만 혁명운동이 성공하겠는데 그 사람들은 대중과 리탈되여 자기들끼리 모여앉아 권력싸움만 하였으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리론》싸움만 하였습니다. 그 《리론》이라는것은 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리론인것이 아니라 혁명사업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궤변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밤낮 마주앉아서 론쟁만 하고 대중운동을 전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혁명을 성공시킬수 있겠는가고 생각하게 되였으며 그런 현상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혁명투쟁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일떠서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이 인민대중과 리탈되여 헛소리만 치고 있으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대중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각성시킴으로써 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여 혁명투쟁을 하도록 해야지 상층부의 몇 사람이 모여앉아서 말공부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수 없는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주체에 대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은 인민대중자신에게 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게 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부닥치게 된 또 하나의 문제는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신비성에서 나온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권력쟁탈전에서 나온것인지 또는 사대주의에서 나온것인지 당시 조선공산주의운동안에 파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우리 나라에는 엠엘파, 화요파, 북풍회파를 비롯하여 파벌들이 많았습니다. 이 파벌들은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려고 저마다 국제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기자신이 공산주의운동을 잘하면 자연히 인정을 받겠는데 그들은 혁명운동은 하지 않고 3인1당, 5인1파식으로 제가끔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에 승인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들만이 정통파이며 진짜맑스주의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조선공산당은 1928년에 국제공산당에서 제명되였으며 구경은 당이 해산되고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선민족의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혁명운동을 잘하면 구태여 남에게 승인받으러 가지 않아도 자연히 인정받을것이 아닙니까. 남이 꼭 승인을 해야만 공산당이겠습니까. 그 누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혁명운동을 할 필요는 없는것입니다. 자기가 혁명운동을 하고싶으면 하는것입니다. 자기가 똑바로 하기만 한다면 누가 승인하든 안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혁명을 잘하기만 하면 남들이 자연히 인정하겠는데 무엇때문에 남에게 승인을 받으러 다니면서 야단을 치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조선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내에서 파벌투쟁이 심하고 또 상층부의 사람들이 인민대중과 리탈되여있었던 이 두가지 현상을 보고 혁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자극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것, 또 자기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여야 하며 자기자신이 투쟁을 잘하면 남에게서 승인을 받고 안받는것이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였습니다.

우에서 말한 두가지 측면이 나의 혁명사상발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야 한다는것, 누가 승인을 하든말든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추진시켜나간다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연히 동정도 받고 인정도 받고 도움도 받을수 있다는것을 강조하게 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체사상의 출발점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전번에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에게 말한바와 같이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 혁명투쟁을 하는 과정에 인민대중의 힘이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이라는 확신을 굳게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는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혁명은 인민대중이 자기자신을 해방하는 투쟁인것만큼 인민대중자체가 단결하여 일어나야 한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 혁명투쟁을 벌렸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대중의 각오정도에 따라 모든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는것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1936년에 조국광복회를 조직하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내놓았습니다. 10대강령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때 전민족이 통일단결하여야 하며 전체 인민대중이 단결하여야 한다는 대중적단결을 위한 강령을 내놓았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는 반제반봉건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강령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당한 구호였습니다. 우리는 해방후에도 역시 이 로선에 근거하여 일련의 정책들을 실시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대중을 혁명운동과 조국건설에 참가시키겠는가 하는것을 기본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초기에 공산당과 공청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로동계급이 많지 않았으며 있다고 하여도 그들가운데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공산당이나 공산주의청년동맹이라는 구호를 들고나간다면 대중과 청년들을 여러파로 분렬시킬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공산당을 조직하였다가 정세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것은 당시 군중의 각오정도에 맞지 않기때문에 인차 공산당을 로동당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산주의청년동맹을 주동적으로 개편하여 각계각층 청년들을 망라하는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하였습니다.

혁명운동과 조국건설은 몇몇 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청년들과 많은 진보적인사들이 참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애한 립장을 버리고 현실의 요구에 맞게 조직들을 개편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한 이후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것을 더욱 중요하게 내세웠습니다.

우리 나라의 사정은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차대전직후 아세아에서 인민이 정권을 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아직 혁명투쟁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또 구라파나라들과 대비하면 우리 나라 형편은 그 나라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동방사람으로서의 특성, 조선민족으로서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라파의것을 기계적으로 따를수 없었습니다. 물론 구라파나라들의 경험을 일정하게 참고로 하기 위하여 그것을 학습할 필요는 있지만 기계적으로 따를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봉건통치배들의 부패한 정책이 오래동안 계속되고 그후에는 36년동안 식민지로 있었던 락후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락후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조선의 현실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실시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창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객관적인 현실이 그렇게 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말하여 현실은 우리에게 자주성과 창조성을 발휘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 나라의 형편과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게 모든 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습니다.

당신의 질문가운데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큰 애로로 되였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있는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에도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체사상을 확립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기때문입니다. 사회를 개조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에서 성과여부는 결국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습니다.

사람과의 사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당사업도 사람과의 사업이며 대중단체들의 사업도 역시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경제사업도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잘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교양하고 그들에게 인내성있게 해설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대신

에 왕왕 이 사업을 행정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제일 큰 곤난이였습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행정적방법으로 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행정적사업방법이란 관료주의적사업방법입니다. 혁명을 행정식방법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당내에서 계속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지만 아직도 어떤데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명령서나 결정서를 내려보내고 회의나 하는것으로 대치해버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하여야 할 주요한 문제의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을 확립하려면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적방법으로는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할수 없습니다. 행정적방법으로 명령을 내려보내면 겉으로는 받아무는척 하지만 실제로는 받아물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려보내도 인민들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겉으로나 대답하지 진심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행정적방법을 없애자는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사업에서나 국가사업에서나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운 다음에 해당한 과업을 주도록 하고있습니다.

간부사업을 하는데서도 간부를 배치한 다음에는 그를 교양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할수 있습니다. 간부를 배치하고 아무 교양도 하지 않고있다가 그가 과오를 범한 다음에 떼버리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할줄 모르며 사람과의 사업에 무능하다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체사상을 확립하는데서 주요한 애로의 하나는 사대주의사상입니다. 사대주의는 우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낡은 사상입니다. 사대주의자들은 자기의것은 다 나쁘고 자기에게는 좋은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며 남의것은 다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의것에 대하여 허무주의적으로 대합니다.

물론 남의것 가운데 좋은것도 있고 나쁜것도 있는것만큼 좋은것을 배울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대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여 배타주의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남의것 가운데서 좋은것을 배우고 나쁜것은 버려야 하며 또 좋은것도 자기의 비위에 맞도록 먹어야 합니다.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것을 억지로 먹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날 일부 조선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사대주의사상이 매우 깊이 박혀있었기때문에 그것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은 힘든 투쟁이였습니다.

한때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는 아주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문학예술분야에서 나타났던 사대주의에 대하여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아주 심하게 나타났을 때에 있은 일입니다. 전쟁시기에 나는 부상병들을 위안하기 위하여 어느 지방에 있는 군대병원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벽에 그림을 하나 붙여놓은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큰 소나무밑에 흰눈이 깔려있고 그 우에 곰이 기여다니는것을 그린 씨비리의 풍경화였습니다. 전사들보고 그것이 어디 그림인가고 물었더니 전사들은 수림속에서 곰이 기여다니는것을 그린 그림인데 어디 그림인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우리 나라의 산림속에 곰이 많은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 나라에 곰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 나라의 전형적인 동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전사들에게 그 그림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의 금강산을 멋들어지게 그린것이 좋겠는가고 물었습니다. 전사들은 우리 나라의 금강산을 그린 그림이 더 좋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 정치부장에게 전사들은 이것이 금강산그림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 나라의 금강산을 그려 붙이지 않고 이런 그림을 그려 붙였는가고 물었습니다. 정치부장은 더 험악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림을 파는데 가보니 그런 그림

밖에 없기때문에 할수없이 그것을 사왔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큰 자극을 받았으며 그것이 다 사대주의에서 나온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술부문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검토해보니 그때 미술가들이 거의다 서양화를 그리고있었습니다.

그때 음악부문에는 우리 나라 민족악기가 매우 적었습니다. 민족악기가 몇곳에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완전히 옛날것 그대로였습니다. 일부 예술인들은 민족음악은 고전이고 현대음악은 서양음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자체부터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술인들을 모아놓고 어째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자기의 음악을 만들었는데 현대사람인 당신들은 자기의 음악을 만들줄 모르는가, 왜 서양음악만이 현대음악인가, 현대적인 민족음악은 없는가, 현대음악은 곧 서양음악이라고 할 리유가 어데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왜 조선민족음악은 곧 고전이 되여야 하고 현대음악은 곧 서양음악이 되여야 하는가, 왜 우리 조선사람은 자기 민족의 취미에 맞는 현대음악을 만들지 못하겠는가고 물었더니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술인들에게 당신들이 《레알리즘》이라는 술어를 자꾸 쓰는데 그것이 무엇인가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레알리즘》의 내용을 모르고 그저 이름만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채로 먹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고 하면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는것을 말한다는 정의를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이나 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고 하면 안된다, 조선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음악을 해서 무슨 의의가 있는가고 하였습니다. 나는 또한 예술인들에게 당신들이 무슨 이딸리아곡이요 뭐요 하면서 구라파의 노래만 부르는데 물론 나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좋아하는 조선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당신들은 인민대중을 위한 예술을 만들지 못하고있다, 예술을 위한 예술을 만들어서 무슨 의의가 있는가, 예술은 마땅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인민들이 그것을 듣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리해하고 찬성하여야 되겠는데 인민들은 다 그것을 모르겠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여 민족음악을 한다고 하면서 옛날음악만 하면 지금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복고주의를 해서도 안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자연히 서양숭배주의가 나온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기 민족과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겠다는것은 생각하지 않고 외국의것이 좋으니까 그것을 덮어놓고 끌어들여오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니 그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는 건설분야에도 있었고 공업관리분야에도 있었고 교육분야에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는 각 부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것은 극복하기 매우 힘든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를 반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투쟁하여왔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을 확립하는데서 극복해야 할 곤난은 기본적으로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대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사업을 행정적방법으로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장기간의 투쟁을 거쳐야만 극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것이 다 극복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당사업이나 근로단체사업을 행정적방법으로 할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킬데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모두가 자기 나라를 위하여,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것, 자기에게는 좋은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며 남의것은 다 찬성하고 숭배하는식으로 자기의것을 허무주의적으로 대해서는 안된다는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남을 믿는 사상을 없애자는것입니다. 이것은 민족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매개 민족단위로 혁명과 건설이 잘 진행되면 국제적으로도 혁명과 건설이 잘 되여나갈것이 아닙니까. 맑스, 엥겔스, 레닌도 맑스주의는 교조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주체사상이 민족적과업과 국제주의적련대성의 과업과의 련관에 관한 새로운 철학을 창시한것이 아닌가고 하였는데 그것은 너무 과분한 말씀입니다.

원래 진정한 맑스주의자라고 하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강조했을 따름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체사상의 내용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본 《마이니찌신붕》과 《요미우리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도 많이 말하였기때문에 당신도 리해하고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체사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은 중점적으로 기본적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체사상문제에 대해서는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교육문제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육문제를 다른 문제들에 비하여 매우 중요시하고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주체사상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려면 우선 교육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교육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는 처음부터 교육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돌렸습니다.

우리 나라가 락후한 처지에서 벗어나 빨리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인민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목적자체가 교육사업을 잘할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은 결국 사람들을 다 잘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모든 사람들의 물질적생활수준을 높이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사상문화적수준을 높이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혁명을 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잘살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잘살게 하려면 다 일을 잘해야 하며 일을 잘하자고 하면 자각성이 요구됩니다.

사람들의 자각성을 키우는 사업은 교육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두가 다 자각적으로 일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명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건설사업에도 자각적으로 참가하고 혁명투쟁에도 자각적으로 참가한다면 그것은 큰 힘을 나타낼것이며 더 빨리 모든 사람들을 잘살수 있게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들을 잘 교육하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애호하지 않으며 그것을 파괴하고 좀먹는 사람들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많이 건설하여도 쓸데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고먹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여서는 인민들을 다 잘살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사회로 가는 길에서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는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만약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지 않고 물질적요새만 점령하려고 한다면 잘못입니다.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지 않으면 물질적요새도 점령할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국이 학습하자, 전당이 학습하자, 전체 인민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내놓았으며 이 구호밑에 모두가 다 학습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40대이상의 사람들은 근로자중학교에 다니게 하여 중학교졸업정도의 지식수준을 가지도록 하고있으며 40대이하의 사람들은 중등의무교육을 받고나오기때문에 다 중학이상의 지식수준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인민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자체가 이신작칙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간부들이 매일 두시간씩 공부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에 학습을 하고있으며 1년에 한달씩 공부하는 제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간부들을 재교육하기 위한것입니다. 여기에서 간부들은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자기의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교육에서 우리는 지금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조선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10년동안 교육을 잘 주면 그 과정에 모든 새세대들이 혁명적세계관의 기초를 닦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의무교육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의무교육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다 무료로 공부시키고있으며 또 공부하는 기간에는 로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만열여섯살이하의 소년들은 국가의 법령으로 로동을 시키지 않게 되여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들이 로동을 한다고 하면 길가에 꽃을 심거나 산에 나무를 심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그들에게 로동을 사랑하는 습성을 키워주기 위하여 하는것이지 로동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소년들은 록화근위대, 위생근위대 같은것을 조직하여 파리잡이도 하고 창문닦기도 하며 교실청소도 합니다. 이 모든것은 청소년들이 로동을 사랑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유치원과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고등전문학교에서 약 600만명의 새세대들이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니 국가의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담이 크지만 전망은 좋습니다. 10년후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것입니다.

과거사회에서는 인테리들을 하나의 사회계층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테리계층이라는것이 없어질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테리화되면 인테리계층이라는것이 따로 없을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50만명의 기술자, 전문가가 있는데 6개년계획기간에 50만명을 더 양성하여 100만명의 기술자, 전문가 대군을 만들자는 구호를 내세우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기한 과업입니다.

지금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불을 걸고있습니다. 우리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들과 함께 공장대학도 많이 늘이고있습니다. 공장대학에서는 교대별로 낮에도 공부하고 밤에도 공부합니다. 이렇게 하여 인테리대군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망적으로 보아 앞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게 된다면 인테리가 특별한 사회계층으로 존재하지 않을것입니다. 과거에는 인테리가 동요하는 계층이요, 앞뒤에 붙는 계층이요 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없어질것입니다.

우리가 실시하는 전반적10년제의무교육은 고중의무교육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완성된 중등지식을 주자는것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매해 20%씩 실시하여 5년내에 완성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어떤데서는 4년내에 완성할수 있으며 어떤데서는 3년 또는 2년내에 완성할수도 있습니다.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5년내에 완성한다는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다는것입니다. 얼마전에 문덕군에 나가보았는데 군당책임비서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은 2년내에 다 하겠다고합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없다고 하였습니다.

고중의무교육을 통하여 새세대들이 모두다 완성된 중등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후에 공부하는것은 더 헐할것입니다. 본인이 자습을 하여 대학과정을 마칠수도 있으며 대학에 더 다니면서 공부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기초교육을 받은 조건에서는 그후에 전문지식을 배우

는것이 그리 힘들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수재교육 다시말하여 뛰여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하는가고 물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있습니다. 나는 원래 수재교육론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수재가 있다 없다 하는식으로 사람들을 취급하기 곤난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본다면 어떤 부문에 대하여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학생소년궁전에 목금을 치는 아이가 있는데 나는 그 아이가 특별한 재간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열두살인가 열세살인가 되는데 목금을 아주 잘 칩니다. 이와 같이 일정한 부문에서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것을 묵과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재간있는 아이들은 따로 학교에 보내여 공부시킵니다.

례를 들면 우리 나라에 리과대학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다른 대학들에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공장에 가서 일하거나 군대에 가서 복무하고 돌아와서 추천을 받아 들어가지만 리과대학에는 중학교에서 직접 올라갑니다.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예술부문이나 다른 부문들에도 이런것이 있습니다. 학교교원들이 이 아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기때문에 공장이나 군대에 보내지 말고 전문교육을 받게 한다면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줄수 있다고 하면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직접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회단체들도 다 자기의 학교를 가지고있습니다.

녀맹은 농촌에 어머니학교라는것을 가지고있습니다. 어머니학교에는 공부한 녀성들도 가며 공부하지 못한 녀성들도 갑니다. 어머니학교는 녀성해방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녀성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주기 위하여 세워진것입니다. 사로청도 청년들의 학교를 가지고있습니다. 이르는곳마다에서 성인교육도 광범히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국가에서는 많은 자금을 교육부문에 돌리고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돈을 거의다 교육사업에 들이밀고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교육학을 연구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교육학에서 첫째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기본적인 문제인 사람들이 일하기를 좋아하도록 교양하는것입니다. 일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공부를 하여야 하며 기술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재부가 인민의 재산이므로 전체 인민이 사회재산을 애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교양하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로동을 사랑하며 인민의 재산을 사랑하도록 교양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우고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집단의 생활을 더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인민들을 교양합니다.

우리는 오래동안 많은 교육을 주었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일하기 싫어하고 건달을 부리며 국가재산을 탐오랑비하는것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로동을 사랑하며 인민의 재산을 사랑하며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도록 교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문제들과 그밖의 일련의 문제들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교육학을 연구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고 점차적으로 그것을 실천해나가도록 하고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동무들로부터 이에 대한 강의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간단히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찰제도를 없앨수 없습니다. 경찰제도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경찰은 도적을 잡으며 교통질서를 위반하는것을 단속하며 산에서 나무를 찍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각종 벌금을 받는것과 같은 일을 하는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을 없애자면 사람들의 자각이 높아져야 하며 모두다 공중도덕을 잘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산림간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를 마음대로 찍어가는 현상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나무를 망탕 찍는 현상이 없는것은 사람들이 자각적이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경찰이 늘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나라에는 경찰이라는것이 없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안전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없어져야 합니다. 인민들스스로가 모든것을 해나가도록 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교육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사람들이 서로 타이르고 서로 잘못을 고쳐주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을 실시한 때로부터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여가고있습니다.

당신은 경제발전문제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도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전후 재더미우에서 일어서다보니 경제건설에서 많은 곤난을 겪었으며 아직도 모든것을 다 해결했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이제는 우리가 제발로 걸어갈수 있게 되였다는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자체의 민족간부를 가지고있는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우리에게 민족간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부문의 민족간부들이 많이 양성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젊은 간부들이 많이 자라났는데 그들은 건설투쟁속에서 자라났기때문에 창발성이 높습니다. 이런 민족간부들이 많기때문에 앞으로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기초가 닦아졌으며 그렇게 할수 있는 조건도 마련되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6개년계획의 기본목적이 무엇인가고 물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공업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자동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며 인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이 헐하게 일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민들자체가 창발성을 더 많이 발휘해야 하겠지만 다른 나라의 발전된 기술을 받아들이는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또한 우리가 이제는 량으로부터 질에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고 물었는데 우리는 량도 늘이고 질도 높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공업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물었는데 우리도 이 문제를 매우 심중한 문제로 보고있습니다. 우리는 공업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될수 있는한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내세우고있습니다.

례를 들면 우리 나라의 묘향산에 금이 많다고 합니다. 한때 우리 나라의 일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금을 캐겠다고 하였는데 국가에서는 금을 캐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금 몇톤때문에 그 아름다운 산을 못쓰게 만들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이 전민소유로서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여있고 개인독점자본이 없는 조건에서 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인민들에게 해를 주지 않으며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능히 강구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양에 큰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는 큰 공장이 얼마 없습니다. 평양에 공장이 있다고 하면 방직공장, 기계공장을 비롯하여 인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공장들이 있을뿐입니다. 이런 공장들은 녀성들이 나가서 일할수 있는 공장들입니다. 그러므로 평양에서는 환경이 파괴되는 일이 없습니다.

함흥에는 공업이 좀 집중된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장들이 집중되여있기때문에 인민들에게 일정한 해를 줄수 있으므로 인민들의 살림집을 산변두리에로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예견하고 이미 오래전에 공장들을 분산시켰습니다. 이것은 오늘에 와서 비로소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해방직후에도 그랬고 정전직후에 공업을 복구건설할 때에도 공장들이 인민들에게 유해롭지 않도록 하며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생산력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배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공장들을 분산시켰으며 일정한 지대를 선택하여 공장들을 세웠기때문에 우리 나라에는 공해가 없습니다.

경제문제는 당신이 잘 알고있다고 하니 이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지난해 아세아정세의 발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고 물었는데 아세아정세는 좋게 발전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일본인민들의 투쟁도 매우 힘차게 전개되였습니다. 일본인민들의 투쟁이 강하였기때문에 사또반동정부는 쫓겨나고 다나까정부가 나오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인민들의 투쟁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일본인민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며 그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일본인민들의 투쟁은 사또내각을 물러나게 한데만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일본정부로 하여금 자주의 길로 나가도록 하는데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중일회담이 진행되고 중일량국간에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는데 이 공동성명은 좋은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중일량국이 국교정상화를 실현한것은 아세아의 평화를 위하여 커다란 기여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민들은 조선인민과의 친선우호관계를 맺기 위한 투쟁도 적극 벌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두 나라사이에는 래왕이 시작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호상 리해를 더욱 깊게 하고있으며 경제교류도 더 발전할 전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세를 인민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으며 긴장완화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웰남전쟁에 대하여서는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에게 이미 이야기하였으므로 지금으로서는 그이상 더 말할것이 없습니다.

총적으로 보아서 지난해에 아세아의 정세는 아세아인민들에게 유리하게 발전하였으며 미제는 아세아에서 크게 실패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미제는 일본을 제멋대로 롱락할수 없게 되였습니다. 물론 미일간에 종속적동맹관계는 남아있으나 일본은 미제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고있습니다.

미제는 또한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으며 그 결과 중국의 국제적위신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것은 아세아인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것이지 나쁜 결과를 가져다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 대하여 폭격도 강화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위협도 해보았으나 웰남인민은 굴복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이것은 미제에게 더는 방법이 없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습니다.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들이 주인이 되여야지 미제국주의자들이 주인행세를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세아에 발을 붙이고있는 미제국주의세력을 다 쫓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물론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지금 한가지 명백하게 말할수 있는것은 아세아인민들의 각성과 투쟁정신이 높으며 아세아인민들이 미제의 통치를 받기 싫어한다는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앞으로 아세아의 정세는 아세아사람들끼리 평화적으로 잘살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것이며 자유와 해방, 민족적독립과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인민들의 편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물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에게 이야기한것외에 다시 새롭게 말씀드릴것이 없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은 물론 우리가 주장한 3대원칙에 기초하여 발표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 발표되였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것은 아닙니다. 다만 닫혀있던 문을 열고 처음으로 서로 만나서 인사나 한데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의 토의를 위한 원칙을 정해놓았을뿐입니다. 지금 남조선위정자들은 남북회담을 열어놓고서도 여러가지 부당한 짓을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남침》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그것을 취소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들은 《비상사태》를 취소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공산당이 하는 말을 믿을수 없다느니, 두고보아야겠다느니 하며 공동성명의 사항들을 리행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보고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고 무장을 바치라는것입니까. 그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할것을 요구하지 않고있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약속했으면 《비상사태》도 취소하고 일련의 반응을 보여야 하겠는데 그들은 공산당의 말을 믿을수 없기때문에 《비상사태》도 취소할수없다고 하며 《반공법》도 취소할수 없다고 하며 평화통일에 관한 정치협상도 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면서 옳지 못한 행동들을 수많이 하고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통일을 실현하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해놓고는 유엔이 외세가 아니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지금 미제는 저들의 군대가 남조선으로부터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실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장애물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북회담을 환영한다고 말해놓고서는 얼마후에는 남조선에 계속 무기를 대주겠다느니,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않겠다느니 하고 말하고있습니다. 구경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에 추종하는 반동세력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있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후 많은 사람들이 조국통일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반동들은 인민들의 이 념원이 실현되는것을 방해하면서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남북이 민족적으로 단결한다는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외부세력과 그의 충복들이 남북대화를 방해하고있는데 있습니다. 외부세력이란 미제국주의자들이며 일본의 일부 반동계층도 이에 속할수 있습니다. 기본은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말로는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방해하고있습니다.

아세아인민들과 전세계인민들이 힘을 합쳐 미제에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고 쏘련과도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무엇때문에 우리 나라의 절반땅인 남조선에서는 자기의 군사기지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가 쳐나갈가봐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와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겠다고 한 이상에야 무엇때문에 거기에 남아있으려고 합니까. 그들은 유엔에서도 조선문제를 토의하는것을 덮어놓고 1년동안 연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때문에 조선문제토의를 연기하겠는가, 남북조선사람들이 대화를 시작하였는데 조선사람들끼리 잘 단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의 통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 조선의 통일을 도와주는것으로 되지 않겠는가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알제리안이 제기되였는데 미국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것은 거부당하였습니다. 이번에 유엔총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알제리안을 지지해나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여 많은 노력을 한 여러 나라들에 감사를 드리고있습니다.

남조선대표는 유엔에 가서 마음대로 활동할수 있는데 우리 대표는 거기에 가서 활동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토의가 1년동안 연기되였는데 조선의 통일은 그만큼 더 방해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주동이 되여 방해책동을 하고있는데 있습니다. 한 나라안에 외국군대가 와서 점령하고있는 조건에서 자유롭게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은 뻔한 일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가 남조선을 침략할가봐 《보호》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고 하는데도 그곳에 계속 남아있으려고 하는것은 무엇때문입니까. 그놈들은 침략적야심을 그대로 드러내놓고있습니다. 침략적야심은 제국주의의 본성입니다.

우리 조선사람들이 미제국주의를 적극 반대하여 나서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닙니다. 미제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태도를 표시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만약 방해세력만 없다면 조선사람들끼리 공통점을 찾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간에 제도상차이가 있고 그밖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한민족이기때문에 공통점을 찾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에게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는 당장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면 지금 있는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제를 하자고 제기하였습니다.

나는 일본인민을 포함한 아세아인민들이 단결하여 조선의 통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노력하여줄것을 희망합니다.

한 민족을 억지로 둘로 갈라놓을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선인민은 언어와 문자도 같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단일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을 억지로 분렬시켜 둘로 만들수야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고통을 겪고있는데 이것은 물론 가슴아픈일입니다. 우리는 단결하여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굳세게 싸워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조선위정자들의 방침은 지연전술을 쓰는것입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더 연명해보자는것입니다. 우리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내놓는 바람에 그들이 부당한 행동을 할수 있는 구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은 조선문제토의를 유엔에서 연기시키는 책동을 하고있으며 각종 궤변을 늘어놓고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금년에 유엔에서 조선문제토의를 1년동안 더 연기하기로 하였으나 그것이 오래갈수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들을 오래동안 속일수는 없습니다. 력사는 인민들을 속이는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민들은 각성될것이며 투쟁은 더욱더 높아질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야당의 일부 인사들이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한다, 련방제를 접수할 필요가 있다, 남북정당사회단체들의 정치협상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통일에 대한 여론이 더욱더 높아가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탄압이 심하여 신문에 이런것을 발표하지 못합니다. 일본의 언론계에서 남조선인민들과 야당인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발표해 주는것도 좋을것입니다. 남조선에서 통일을 방해하는 반동세력들의 탄압도 심하고 그들 내부도 복잡하다나니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고있지만 인민들은 어느것이 옳은가를 잘 알고있습니다.

남조선에 한민족이 영원히 분렬되고 한나라가 둘로 갈라지는것을 원하는 세력은 매우 적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일을 해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희망을 가질수는 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비방중상을 하지말자고 먼저 제기하고는 그것을 위반하였기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마이니찌신붕》 기자들과의 담화에서 그에 대하여 언급하였더니 최근에 리후락의 이름으로 통일에 방해되는 말을 하지말아달라는것을 남조선언론계에 부탁하는 《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요술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 우리도 좋게 대하려고 합니다.

지난날에는 남북사이에 아무런 접촉도 못하였는데 지금은 적십자회담을 통하여서도 접촉을 하고 조절위원회를 통하여서도 접촉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에 비하여 좋은 점입니다. 이렇게 접촉하는 가운데서 공통점을 찾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일량국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말하였기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문제는 남북조선인민들자신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빨리 해결해나가면 더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 인민과의 관계가 최근 1년동안에 많은 전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관계는 좋게 발전되고있습니다.

우리는 다나까정부가 평화적공존의 5개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관계를 가지는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쁘게 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나까내각은 지금 우리 나라와의 인사래왕도 허락하고있으며 최근에는 우리 나라의 학자들도 받아들였습니다. 듣건대 우리 기자대표단을 초청한다고도 하며 앞으로 기술자들도 래왕할수 있을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다나까내각이 지난날의 사또내각때의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완화하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이니찌신붕》, 《아사히신붕》을 비롯한 일본의 언론계에서도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문제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고 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인민들의 리해가 점차 깊어가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점들로 보아 우리는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리라는것을 예견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참말로 아세아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최소한도로 우리 나라의 통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인정하며 우리는 일본정부가 그렇게 할것을 희망합니다. 일본정부가 그렇게 하자면 마땅히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일변도정책을 쓰지 말고 어떠한 침략적성격도 없는 균등정책을 써야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일 두 나라사이에 무역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하여 우리 나라가 일본의 원료공급기지나 상품시장으로 될가봐 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자주적인 나라이며 자립적인 경제를 가지고있는 나라로서 자기의 공업기초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라가 절대로 남의 나라의 원료공급기지나 상품시장으로는 될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는 일부 원료들을 일본에 팔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나라가 일본의 원료공급기지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는 철광석이 많은데 그것을 일본에 조금 판다고 하여 우리 나라가 일본의 원료공급기지가 된다고 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자주성과 자립성을 가지지 못한 나라라면 다른 나라의 원료공급기지로 전락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성과 자립적인 경제를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것을 우려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일본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당국이 무역을 하자고 하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일 두 나라사이의 경제교류에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무슨 큰 혜택을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일 두 나라사이에 호혜적인 원칙에서 경제교류를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류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진행되여야 하며 침략적인 방법으로 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다른 자본주의나라들과도 무역을 하고있는데 그것은 호혜적인 원칙에서 진행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립성을 빼앗기게 되는 일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달리 남조선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일본의 공장을 들여다가 공동으로 경영하거나 경영권을 일본측에 넘겨주는 형식으로 경제교류를 하고있는데 이것은 예속적인 경제교류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공장을 수입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과 평등한 립장에서 경제교류를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일본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공업경영권이나 소유권을 가지는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또 일본으로부터 장기차관같은것을 받을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무역원칙에 따라서 무역을 하자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일본과 남조선사이에 《일한조약》이 있어도 우리가 일본과 국교를 맺을수 있겠는가고 물었는데 우리는 《일한조약》을 두어두고 일본과 국교를 가지자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일한조약》에서 제일 나쁜것은 세번째조항입니다. 거기에는 조선반도에서 합법적인 정부는 《대한민국》이라고 되여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간섭입니다.

미노베지사가 우리 나라에 왔을 때 나는 《일한조약》을 승인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정부》를 조선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정부라고 하는것은 일본이 미국에 대한 추종정책을 쓰는데서 나왔다고도 볼수 있고 또 일본반동정권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쓰는데서 나왔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한조약》을 그대로 두고있는 조건에서는 일본이 우리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것을 무효화하든지 혹은 취소하든지 무슨 방책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례를 들면 《대한민국》이 조선반도에서 유일한 《정부》라는 《유엔결정》을 취소한다고 하면 《일한조약》은 저절로 취소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한조약》이 《유엔결정》을 근거로 삼고있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본정부와 국교를 수립하자고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걸외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와 국교를 수립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것입니다. 물론 두 나라 사이에 국교를 수립하면 더 좋습니다. 만약 일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정상화한다면 《일한조약》의 세번째 조항이 무효화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아직 일본정부에 정식으로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를 검토해보면서 조일관계문제를 해결하여나갈 작정입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나라에 온 기회에 당신과 장시간 담화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선인민은 형제적캄보쟈인민이 공동의 원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거두고있는 승리를 열렬히 축하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위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2년 4월 5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한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캄보쟈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견결한 반제투사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우리에 대한 뜨거운 우애의 정을 안고 오늘 우리 나라에 찾아오시였습니다.

나는 우리의 친근한 벗인 친왕과 다시금 상봉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친왕과 같이온 캄보쟈의 귀한 손님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들을 통하여 반미구국투쟁의 최전선에서 날마다 새로운 승리를 거두며 용감히 싸우고있는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 전체 전투원들과 형제적캄보쟈인민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는바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와 자리를 같이하고있는 용감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친선의 사절인 아부니달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팔레스티나해방조직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시하누크친왕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들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친밀하며 조선과 캄보쟈 두나라 인민들의 전투적친선의 뉴대가 얼마나 두터운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입니다.

국가원수친왕과 이미 친숙하여진 우리 인민은 오늘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과 캄보쟈의 손님여러분들을 열정과 환호로 들끓는 분위기속에서 반가이 맞이하였습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캄보쟈인민이 거두고있는 승리에 대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미제가 캄보쟈에서 추진시키고있는 전쟁의 《크메르화》계획은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으며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있습니다.

캄보쟈인민은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1970년 3월 23일 력사적인 호소를 받들고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을 벌려 이미 전국령토의 10분의 8과 인구의 10분의 7을 해방하였으며 해방지역은 결정적승리를 위한 믿음직한 기지로 전변되였습니다.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여러차례의 전투를 통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불패의 력량으로 자라났습니다.

요즘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적들의 소굴인 프놈 뻰지역을 또다시 맹렬히 공격하여 극도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허덕이고있는 론 놀매국도당을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있습니다.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는 날로 커가고있으며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승인을 받고있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의 국제적위신은 더욱 높아지고있습니다.

캄보쟈인민이 군사, 정치, 외교 분야에서 거두고있는 이 모든 승리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의 시위로 되며 그 어떠한 원쑤도 손에 무기를 들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정의의 싸움에 일떠선 인민들을 결코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캄보쟈인민은 자기의 영웅적인 투쟁으로써 세계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고있으며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미제국주의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키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형제적캄보쟈인민이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거두고있는 승리를 자신의 혁명위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정하며 그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캄보쟈와 인도지나에서 돌이킬수 없는 패배를 당하고있으나 의연히 이 지역에서 물러가려 하지 않고있으며 《캄보쟈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며》 《인도지나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침략목적을 이룩하여보려고 계속 무모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는 자신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뿐입니다.

우리는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굳게 뭉친 캄보쟈인민이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전령토를 완전히 해방하며 독립과 중립, 나라의 통일과 령토완정을 회복하고 번영하는 새 캄보쟈를 건설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캄보쟈와 인도지나에서 침략전쟁을 당장 그만두고 자기의 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를 걷어가지고 무조건 물러가야 하며 캄보쟈, 윁남, 라오스 문제는 이 나라 인민들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이 캄보쟈인민의 편에 언제나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모든 힘을 다하여 그들의 해방투쟁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할것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자기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아랍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손님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나라에 머무르면서 우리 당 제5차대회결정을 받들고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앞당겨 수행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모습을 직접 보게 될것이며 그들과 친선적인 상봉을 하게 될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도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고있으며 평화통일기운은 전례없이 높아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지금 혁명적정열과 혁명적락관으로 가득차있으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훌륭히 건설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습니다.

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가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전체 캄보쟈인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세발전의 전반적추이는 혁명의 편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견결히 싸워나갈것입니다.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우리 인민은 국가원수친왕에 대하여 언제나 높은 존경심을 표시하고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통하여 굳게 맺어진 캄보쟈인민과의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친왕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조선과 캄보쟈 인민들사이의 전투적 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획기적사변으로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내게 될것을 바라면서 형제적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서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이엥 싸리국내특사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캄보쟈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아부 니달단장각하와 팔레스티나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와 자강도인민위원회가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 부인을 환영하여 차린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2년 4월 11일)

동지들!

나는 우선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공작기계생산을 앞세우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나서서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공작기계 1만대생산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한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나자신의 이름으로 희천공작기계공장 로동계급에게 뜨거운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희천의 로동계급이 이와 같은 큰 성과를 거두고있는 때에 조선인민의 친근한 전우이며 벗인 시하누크친왕과 그 부인께서 또 이엥 싸리국내특사와 여러 캄보쟈손님들이 우리의 성과를 축하하러 여기에 온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중국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며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인 모택동동지와 중국공산당이 파견한 중국의 전우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동지들은 몇해전부터 전기기계공장을 건설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나는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온

중국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 기쁜 일은 이 자리에 한덕수의장을 중심으로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싸우고있는 총련의 대표단 단장인 리계백동지와 여러 동지들이 참석한것입니다.

동무들이 다 아는바와 같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우리 동포들을 강제로 일본땅에 끌고가서 감금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두고 20여년동안 자기 조국을 래왕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전체 재일동포들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그리고 일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에 의하여 일본반동정부는 부분적이나마 재일동포들의 조국래왕을 승인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련대표들이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희천의 로동계급과 전체 조선인민이 다같이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동지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또한 1만대공작기계생산을 돕기 위하여 적십자병원동무들이 내려와 1년 9개월동안 이곳 로동자들과 침식도 같이하며 건강도 돌보아주면서 함께 투쟁하였습니다. 나는 희천의 로동계급과 함께 투쟁하여온 적십자병원 의사동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방송위원회동무들이 예술공연도 하고 방송도 해주면서 희천의 로동계급을 고무해주었습니다. 이것 역시 공작기계 1만대고지점령에 큰 작용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중앙방송위원회에서 희천에 파견되여온 동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희천공작기계공장에서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한 성과는 또한 성일군들과 희천공작기계공장초급당위원회와 희천시당위원회, 희천시인민위원회 그리고 각 경제기관들에서 보장사업을 잘해준 결과입니다. 나는 이 부문일군들에게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희천공작기계공장에서 공작기계 1만대생산고지를 점령한것은 큰 승리입니다. 그러나 1만대생산고지를 점령하였다고 해서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우리는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첫 돌파구를 열어놓았을 따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공작기계가 많이 요구됩니다. 특히 우리는 공작기계의 품종을 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며 수리기지를 꾸리자고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종류의 기계들이 요구됩니다.

공작기계의 품종을 늘이는것과 함께 질도 더 높여야 하겠습니다. 공작기계의 대수와 품종을 늘이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100정보당 뜨락또르는 3~4대, 자동차는 1대씩 돌아가게 하자고 합니다. 지금 뜨락또르공장을 크게 확장하고 새로 더 건설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뜨락또르를 많이 생산하는것만 가지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뜨락또르를 잘 쓰자면 수리공장이 있어야 하고 부속품을 생산하자면 그를 위한 공장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만약 뜨락또르수리공장을 한개군에 하나씩만 꾸려준다고 해도 200개나 되며 자동차수리공장을 하나씩 꾸려준다고 해도 200개의 공장이 요구됩니다.

동무들이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과일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과일을 제때에 따고 인민들에게 더잘 공급하기 위해서는 과일가공공장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하며 남새를 잘 가공하여 주민들에게 사철 공급하자고 하여도 남새가공공장을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1년에 거의 100만톤의 물고기를 잡고있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썩이지 않고 인민들에게 더잘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개 수산사업소에 물고기가공공장을 꾸려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이 요구되는 식료공장들을 꾸리자면 기계가 요구됩니다.

물론 우리는 일용품과 생활필수품을 자급자족하고있으나 아직 풍족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식료품공장, 일용품공장, 신발공장 등 여러가지 공장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자면 기계가 요구됩니다.

매개 도에 단능설비를 만들어주는 공장이 적어도 몇개씩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것을 해낼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물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때까지 한것처럼 계속 혁신하고 계속 비약을 일으킨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해결하자고 하는 문제들은 그리 큰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문제들도 해결하고있습니다.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근본원칙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민생활을 높이면서 다른 일도 하여야 합니다.

미제침략자들이 아직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강점하고있고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재침하고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이 우리를 엿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안일하게 지낼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이 내세운 구호대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하는 정책을 계속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나라로서 국방건설도 하고 경제건설도 하는것이 결코 헐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인민이 혁명의 길, 자기가 나갈 길을 개척하자면 반드시 이 두가지 일을 다하여야 합니다. 즉 하나는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건설을 더 잘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건설을 잘하는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다 기술혁명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신들, 기계전사들에게 큰 임무가 맡겨져있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달성한 큰 승리를 축하하면서 동시에 동무들이 승리에 조금도 자만하지 말고 당이 내세운 이 두 전선에서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릴것을 바랍니다.

모두다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자리에 모인 손님들과 여러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듭시다.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두돐에 즈음하여 차린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2년 4월 26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벗들!

존경하는 여러 나라의 귀한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나는 오늘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두돐을 맞이하여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이며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우리를 친절히 초청하여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먼저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그리고 캄보쟈의 벗들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당신들을 통하여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과 형제적캄보쟈인민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싸우는 웰남인민과 라오스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에서 침략전쟁을 미친듯이 확대하고있는 엄중한 정세속에서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발기에 의하여 진행된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는 인도지나에서의 반미구국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킨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인도지나인민들은 지난 두해동안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의 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긴밀히 협동하여 불굴의 투쟁을 벌림으로써 미제의 무력침략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고 전국을 더욱더 인도지나인민들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켰습니다.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옳바른 령도밑에 이미 나라의 대부분의 지역과 절대다수의 주민을 해방하였으며 미제의 전쟁의 《크메르화》계획은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습니다.

최근에도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1호도로와 15호도로 그리고 프놈 뻰일대에서까지 맹렬한 공세를 벌려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있으며 론 놀—손 느곡 탄매국도당을 걷잡을수 없는 혼란속에 몰아넣고있습니다.

웰남인민은 미제의 거듭되는 발악적공세를 물리치고 그들의 전쟁의 《웰남화》계획을 성과적으로 좌절시키고있습니다.

요즘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은 쾅 트리—투아 티엔지역으로부터 메콩강삼각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전선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대공세를 벌려 적들에게 새로운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있습니다.

라오스애국적무장력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대규모적인 침공작전을 때려부시고 해방구를 더욱 확대하는 큰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캄보쟈, 웰남, 라오스 인민들이 어깨겯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빛나는 승리를 자기의 성과와 같이 기뻐하며 그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인도지나에서의 지난 두해동안의 사태발전은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의 공동선언의 정당성과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보여줍니다.

인도지나인민은 인도지나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미제의 음흉한 책동을 단결의 힘으로써 짓부시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미제의 악명높은 《닉슨주의》를 실패의 운명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인도지나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며 캄보쟈 각계층 인민들의 통일전선을 튼튼히 형성하여 인도지나 세 나라 인민들의 반미공동투쟁을 힘차게 추진시키는데 있어서 친히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습니다.

국가원수친왕의 불굴의 투쟁과 정력적인 국가활동에 의하여 그리고 국가원수친왕께서 이미부터 지니고있는 높은 위신으로 하여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는 벌써 세계의 30개나라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그의 국제적권위는 날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는 자기의 강력한 군대와 광활한 해방지역을 가진 캄보쟈인민의 자주적이며 존엄있는 유일한 합법적정부로서의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쌓아올린 빛나는 공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미제는 이미 당한 패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에 궁지에서 헤여나보려고 새로운 전쟁확대책동에 매여달리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웰남인민들의 드센 공격에 의하여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자 하이퐁과 하노이를 비롯한 웰남민주공화국의 여러지역에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여나섰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의 이 엄중한 계단식전쟁확대책동을 웰남인민의 안전과 자주권에 대한 횡포한 유린일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으로서 단호히 규탄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패배자의 모험적행동에 지나지 않는 전쟁확대책동을 당장 그만두고 인도지나에서 물러가야 하며 인도지나의 매개 나라 문제는 그 나라 인민들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캄보쟈문제는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1970년 3월 23일 5개항목선언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정강에 부합되게 해결되여야 합니다.

웰남문제는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7개항목해결책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라오스문제는 라오스애국전선의 1970년 3월 6일 5개항목제안과 라오스의 현정세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인도지나 세 나라 인민들의 투쟁은 자기 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일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 그들의 승리적투쟁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고무로 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캄보쟈, 웰남, 라오스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물심량면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우리는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날로 커가는 지지성원을 받고있는 인도지나 세 나라 인민들이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의 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더욱 굳게 뭉쳐 싸움으로써 멀지 않은 앞날에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최후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동지들과 벗들!

오늘 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운동, 로동운동이 장성강화되고 제국주의가 날로 쇠퇴몰락하고있는 환경속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전반적정세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불리하게 우리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재침책동을 가로막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기어이 실현하고야 말것입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인민들은 단결되여있을 때 불패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편에 언제나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나는 캄보쟈, 웰남, 라오스의 전선들로부터 우리의 형제적인민들의 전투승리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날마다 전해지고있는 기꺼운 환경속에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평양에서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두돐을 기념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인도

지나인민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캄보쟈인민을 비롯한 전체 인도지나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 인도지나인민들사이의 전투적련대성의 강화를 위하여, 조선인민과 인도지나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손덕승주석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원우수위원장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수파누봉위원장의 건강을 위하여,

캄보쟈의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번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여러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단장들을 비롯한 외국의 귀한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인도지나침략전쟁에서의 미제의 완전한 패망과 캄보쟈를 비롯한 인도지나인민들의 종국적 승리는 필연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를 위하여 캄보쟈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차린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2년 5월 4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한 손님여러분!

존경하는 앙 낌 코안대사각하와 부인!

동지들과 벗들!

나는 오늘저녁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이며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우리를 친절히 초청하여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 하신 국가원수친왕의 훌륭한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번 국가원수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두 나라사이의 형제적친선단결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반미공동투쟁을 보다 강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이 방문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사이의 호상리해는 어느때보다도 깊어지고 호상 신뢰와 전투적우의의 정이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바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기간은 조선인민의 생활에서와 캄보쟈인민의 생활에서 다같이 여러가지 뜻깊은 일들로 가득찬시기였습니다.

국가원수친왕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일련의 다채로운 행사들에 직접 참가하여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여주었습니다.

이 시기 인도지나에서는 캄보쟈, 웰남, 라오스의 인민무장력량들이 보조를 같이하여 모

든 전선에 걸쳐 새로운 대공세를 벌림으로써 적들에게 더욱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있는데 대한 기쁜소식들이 련이어 전하여졌으며 이 기꺼운 환경속에서 우리는 국가원수친왕을 비롯한 캄보쟈의 벗들과 함께 력사적인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두돐을 기념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동안 여러 기회에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우리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담화들을 진행하였으며 현국제정세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공동투쟁대책에 대하여 또다시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것은 공동의 원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굳게 손을 잡고 함께 싸워나가려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확고한 결의의 시위로 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공동의 립장과 한결같은 결의는 앞으로 발표될 공동성명에서 더욱 뚜렷이 밝혀질것입니다.

지금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는 자기의 마지막시기를 살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닉슨주의》에 따라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묶어세워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며 《평화》의 간판밑에 교활한 량면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아세아에서 전면적으로 무너져가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지반을 수습해보려고 발악하고있으나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인도지나에서도 대세는 이미 결정지어졌으며 인도지나침략전쟁에서의 미제의 완전한 패망과 캄보쟈를 비롯한 인도지나인민들의 종국적승리는 필연적입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닉슨이 아직 얼마동안은 이 전쟁을 지탱해나갈수는 있으나 오래지 않아 미제가 인도지나에서 완전히 쫓겨날것은 피할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허물수 없는 위신과 권위를 가진 캄보쟈인민의 자주적이며 존엄있는 유일한 합법적정부로서의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반면에 미제의 앞잡이 론 놀—손 느곡 탄도당은 이미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가련한 정치적송장의 신세에 굴러떨어졌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무리 《국민투표》 놀음으로 가짜 《공화국》의 《헌법》을 조작해내며 론 놀도당에게 더 많은 군사《원조》를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이미 림종에 다달은 이 반역자들의 무리들을 구원해내지 못할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형제적캄보쟈인민이 반드시 멀지 않은 앞날에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전령토의 완전한 해방을 이룩하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이 변함없이 그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하리라는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미제침략자들은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단결된 공동의 투쟁에 의하여 남조선과 인도지나에서, 대만과 일본에서 그리고 그들이 발붙이고있는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쫓겨나고야 말것입니다.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따뜻한 친선의 정과 전투적단결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당신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으로부터 캄보쟈에 이르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힘있게 촉진시킨 력사적사변으로서 우리 인민에게 더욱 잊을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우이며 형제이며 가장 친근한 벗인 국가원수친왕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모든점에서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데 대하여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끝으로 영웅적캄보쟈인민과 전체 인도지나인민들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에서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들 사이의 영원한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이엥 싸리국내특사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캄보쟈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앙 껌 코안대사각하와 그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조선인민은 형제적소말리아인민이 높은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유롭고 행복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고있다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2년 5월 18일)

존경하는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각하!
존경하는 소말리아의 귀한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우리는 오늘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아프리카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저명한 활동가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각하를 비롯한 소말리아의 손님여러분들과 이처럼 친선의 정 넘치는 가운데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동지와 그 일행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멀리 소말리아에서 오신 귀한 손님들을 뜨거운 형제적친선의 정으로 반가이 맞이하였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정에 넘친 환영은 조선과 소말리아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의 힘있는 시위로 되였습니다.

소말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선 신생독립국가로서 우리에게 매우 친선적인 나라입니다.

소말리아인민은 민족적해방을 위하여 오래동안 투쟁하여왔습니다.

1969년 10월 21일혁명의 승리와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의 선포는 소말리아인민의 력사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중요한 사변이였습니다.

혁명후 얼마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소말리아인민은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각하를 위원장으로 하는 최고혁명리사회의 옳바른 령도밑에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들의 끊임없는 파괴암해책동을 물리치면서 낡은 통치기구를 짓부시고 새로운 진보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이미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소말리아인민은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나가면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분렬된 나라를 완전히 통일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정부는 대외관계분야에서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형제적소말리아인민이 높은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혁명초기에 겪게 되는 온갖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자유롭고 행복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벌리고있는 정당한 투쟁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으며 그들의 모든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주체를 세우고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결히 싸워나간다면 비록 지난날 뒤떨어진 처지에 놓여있던 나라라 하더라도 빨리 발전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자신이 선택한 옳은 길에서 앞으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그들의 혁명적정책과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전투적성원을 보냅니다.

동지들과 벗들!

오늘 제국주의가 망하고 사회주의와 민족해방혁명이 승리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결코 자진하여 력사무대에서 물러가려 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어갈수록 《평화》의 간판밑에 량면정책을 쓰면서 보다 교활하고 악랄하게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강화하고있습니다.

요즘 미제국주의자들은 북부웰남의 모든 항구들을 봉쇄하고 수도 하노이를 비롯한 웰남민주공화국의 전지역에 대하여 야만적인 폭격과 포격을 감행함으로써 웰남침략전쟁을 더욱 미친듯이 확대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의 이 새로운 전쟁확대책동을 웰남인민의 자주권과 안전에 대한 용허할수 없는 강도적침해일뿐아니라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오만한 도전행위로서 견결히 규탄합니다.

조성된 정세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 세계의 모든 반제반전력량이 힘을 합쳐 싸우는 웰남인민과 인도지나인민을 더욱 적극 지원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전쟁확대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과 인도지나에서 당장 피묻은 손을 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형제적 웰남인민과 캄보쟈인민, 라오스인민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합니다.

오늘 미제는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를 계속 식민지대륙으로 틀어쥐기 위하여 직접적인 무력탄압을 감행하는것과 함께 이미 독립한 나라들에서 끊임없이 파괴전복활동을 감행하며 이 나라 인민들에게 신식민주의적올가미를 들씌우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고있습

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기네(비싸우), 앙골라, 모잠비끄,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나미비아 인민들의 투쟁과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한 모든 아프리카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또한 미제와 이스라엘 침략자들을 반대하고 빼앗긴 아랍땅을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정당한 투쟁과 미제를 반대하는 꾸바인민을 비롯한 모든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것을 곧 자기자신의 해방위업에 대한 지원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한데 기초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꺾어버리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언제나 성의껏 지지성원하여주고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에 대하여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동지와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소말리아의 손님여러분!

조선과 소말리아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으나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새 사회 건설을 위한 공동의 투쟁을 통하여 매우 친근한 벗으로, 형제로 긴밀히 련결되여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소말리아인민과의 친선협조관계가 날로 확대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이 조선과 소말리아 두 나라 사이의 오늘의 좋은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획기적계기로 되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친근한 소말리아동지들을 맞이하여 화기에 넘치는 이 자리에서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의 번영발전을 위하여,

조선인민과 소말리아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소말리아의 귀한 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형제적소말리아인민이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며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이 차린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2년 5월 23일)

존경하는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위원장각하!

존경하는 소말리아의 귀한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나는 오늘 저녁 소말리아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며 아프리카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저명한 활동가이며 우리의 전우인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동지께서 우리 나라 방문을 끝내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우리를 친절히 초청하여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위원장동지와 그 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은 참으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였습니다.

이 방문을 통하여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대로는 더욱 활짝 열리였으며 우리들사이의 관계는 참말로 형제적이며 동지적인 관계로서 굳건히 다져졌습니다.

이것은 조선과 소말리아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력사에서 새로운 페지를 열어놓았을뿐아니라 제국주의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선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의 힘있는 시위로 되였습니다.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위원장동지께서는 방금 이 자리에서 하신 연설에서도 우리 당과 정부와 조선인민에 대한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와 정부와 소말리아인민의 진실한 감정에 대하여 다시금 감명깊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번 방문기간 여러 기회에 조선인민이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높이 평가하여주었으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여주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것을 앞으로 혁명과 건설을 더잘 할데 대한 고무와 격려로 여기고있으며 당신들의 뜨거운 성원에 대하여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당신들과의 상봉에서 소말리아인민이 우리와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더 깊은 리해를 가지게 되였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그들의 견결한 투지에 대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확고한 지향에 대하여 또한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소말리아 각계각층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과 그 성과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대륙에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해방혁명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통된 지향을 가진 소말리아인민과 같은 전우를 가지고있는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들의 정당한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할 결의를 굳게 하고있습니다.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한전선에 튼튼히 서서 어깨겯고 함께 싸워나가려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립장과 한결같은 결의는 앞으로 발표될 공동성명에서 더욱 뚜렷이 밝혀질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적소말리아인민이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투사인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위원장동지의 옳바른 령도밑에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며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각하!

우리는 들끓는 형제적친선과 전투적단결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당신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여기며 당신들과의 상봉에서 받은 깊은 인상을 언제나 잊지 않을것입니다.

이 뜻깊은 방문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우리 두 나라 사이에는 호상 래왕과 접촉이 더욱 빈번해지고 아름다운 친선의 꽃이 활짝 피여오르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고 서로 받들며 서로 유무상통하고 협조하면서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힘차게 앞당겨나갈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조국에 돌아가면 소말리아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정과 형제적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끝으로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의 번영발전과 소말리아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선인민과 소말리아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위원장동지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소말리아의 귀한 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조선인민은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예멘인민이 이룩하고 있는 성과를 열렬히 축하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예멘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위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2년 7월 28일)

존경하는 모흐젠 알아이니수상각하!
존경하는 예멘아랍공화국의 귀한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나는 먼저 멀리 중근동에서 우리 나라에 찾아오신 모흐젠 알아이니수상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예멘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인민은 예멘의 벗들에 대하여 따뜻한 형제적친선의 정을 품고있습니다.

조선과 예멘아랍공화국은 대양을 사이에 두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으나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은 항상 가까이 잇닿아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지난날 다같이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받아온 민족으로서 오늘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이 길은 간고한 투쟁의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필사적인 반항도 받게 되며 수많은 난관과 시련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인민을 믿고 인민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간다면 민족해방위업을 완수할수 있으며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1962년 9월에 낡은 봉건적군주제도를 전복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한 예멘아랍공화국 인민은 오늘 알이리야니각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화리사회의 령도밑에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하고있습니다.

예멘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고 아랍인민의 민족적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예멘인민이 이룩하고 있는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며 그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합니다.

존경하는 손님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의 전반적형편은 대단히 좋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기간 우리 인민이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여 이룩한 성과들과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그들의 힘찬 투쟁모습을 직접 보게 될것입니다.

얼마전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새로운 전망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이 공동성명을 한결같이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또한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이 이를 열렬히 환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북공동성명에 밝혀진 원칙에 따라 남북이 힘을 합쳐 꾸준히 노력한다면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할수 있을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국제적벗들의 지지성원은 매우 귀중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수상각하 당신과 예멘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국제정세는 날을 따라 혁명하는 인민들에게는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 세력에게는 불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제국주의렬강들이 아세아,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를 분할하여가지고 제멋대로 지배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와 중근동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감행하고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멸망의 운명에 직면한자들의 마지막발악에 지나지 않습

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과 인도지나에서 침략전쟁을 당장 중지하고 자기의 모든 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하며 세계 모든곳에서 저들의 침략의 마수를 떼야 합니다.

조선인민은 인도지나인민들의 영웅적반미구국항전과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강점된 아랍땅을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과 모든 아랍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은 서로 지지하는 관계에 있으며 그것은 서로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고있습니다.

우리들이 전투적단결과 긴밀한 뉴대를 강화하고 유무상통하면서 호상협조하여나간다면 우리의 공동위업의 승리는 더욱 촉진될것입니다.

이번 예멘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형제적친선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호상협조를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자기 집에서와 같이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낼것을 바라면서

조선인민과 예멘아랍공화국 인민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아브둘 라흐만 알이리야니위원장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모흐쎈 알아이니수상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예멘아랍공화국의 귀한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탄생 쉰돐을 축하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2년 11월 4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펜 누트친왕과 그의 부인!

존경하는 이엥 싸리특사!

존경하는 리운천대사와 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한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나는 오늘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캄보쟈국가원수이시며 민족통일전선위원장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그리고 국가원수친왕의 가족들, 캄보쟈의 귀한 손님여러분들과 함께 이처럼 자리를 같이하고 친왕의 탄생 쉰돐을 기념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과 그리고 나자신과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우리의 형제이시며 전우이시며 가장 친근한 벗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탄생

신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아울러 친왕의 고귀한 사업에서의 새로운 성과와 가정의 행복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또한 이 기회에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 전체 전투원들과 형제적캄보쟈인민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자기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불굴의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친왕께서는 이 과정에 쌓아올린 공적과 그의 덕성으로 하여 캄보쟈인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왔으며 견결한 반제투사로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이 론 놀매국도당을 부추겨 국가정변을 조작하고 캄보쟈를 반대하는 공공연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여 나섰을 때 친왕께서는 동요없이 용단을 내려 유명한 5개항목성명을 발표하고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그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전체 애국적인민들을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나아가 친왕께서는 인도지나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오늘 국가원수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의 옳바른 령도밑에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계속 승승장구하여 국토의 대부분과 인구의 절대다수를 해방하였으며 전국해방의 결정적단계에 들어서고있습니다.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이 프놈 펜에까지 작전범위를 날로 확대하고있는 조건에서 전체 민심은 갈수록 캄보쟈민족통일전선에로 쏠리고있으며 론 놀매국도당은 절망적인 파산과 혼란 속에서 허덕이고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를 캄보쟈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승인하는 나라는 날로 늘어나고 그의 지위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캄보쟈에서의 해방전쟁승리의 전망이 어느때보다도 밝은 이때에 미제의 앞잡이 론 놀매국도당이 종국적으로 패망하고 국가원수친왕께서 프놈 펜에 개선할 날이 멀지않아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선인민이 오늘 국가원수친왕께 드리는 최대의 축원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인민의 이 진심으로 되는 감정을 담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와 싸우는 캄보쟈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그들의 성스러운 구국위업이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할것이라는것을 거듭 천명합니다.

동지들과 벗들!

미제국주의는 캄보쟈침략에서 실패하였으며 웰남과 라오스, 인도지나 전역에서 패배하였으며 그의 아세아침략정책전반이 파산되였습니다.

오늘 아세아의 정세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이 지역에서 주인행세를 할수 있었던 시기는 영원히 지나갔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오늘 캄보쟈, 중국, 조선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습니다.

캄보쟈인민, 중국인민, 조선인민, 인도지나인민 그리고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굳게 단결된 투쟁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종국적으로 쫓겨나고야말것입니다.

우리는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시켜나갈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을 통하여 굳은 친선의 뉴대를 맺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이 친선의 길을 먼저 개척한것은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입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반제평화애호적인 정책으로부터 출발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음모책동을 물리치고 이미 오래전에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을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로 인정하고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우리에게 최대의 정치적지원을 다하여주었습니다.

국가원수친왕께서는 최근년간에도 거듭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여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성과를 높이 평가하여주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여주었습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에 의하여 시작된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이 훌륭한 형제적친선관계는 대대손손 길이 빛날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기회에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개화발전시키고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하여준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캄보쟈의 벗들!

이번에 국가원수친왕께서 우리 나라를 다시금 찾아준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두터운 형제적친선의 정과 신임의 뚜렷한 표시로 됩니다.

국가원수친왕을 다시 만나게 되는 우리 인민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친혈육과 같은 심정으로 친왕과 캄보쟈의 귀한 손님들을 열렬히 환영할것입니다.

나는 탄생 쉰돐을 맞이하는 친왕께서 앞으로 자기 조국의 륭성발전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더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하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캄보쟈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가장 친근한 벗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만수무강과 행복을 위하여,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수상 뻰 누트친왕과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이엥 싸리특사의 건강을 위하여,

리운천대사와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캄보쟈의 귀한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형제적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서의 빛나는 최후승리를 위하여,

캄보쟈인민, 중국인민, 조선인민 사이의 영원한 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와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축배를 들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에스빠냐공산주의자들과 굳게 손잡고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2년 11월 7일)

존경하는 싼띠아고 까릴요동지!

존경하는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원동지들!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는 에스빠냐로동계급의 세련된 지도자이며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인 싼띠아고 까릴요총비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동지들과 다시 만나 이처럼 전투적 우정과 친선의 정 흘러넘치는 감격적인 분위기속에서 자리를 같이 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번에 싼띠아고 까릴요동지가 다시금 우리 나라를 찾아준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 대한 에스빠냐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두터운 믿음의 뚜렷한 표시로 됩니다. 이전에 있은 인상깊은 상봉을 통하여 싼띠아고 까릴요동지와 이미 친숙하여진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매우 반가운 심정으로 당신과 에스빠냐의 여러 혁명동지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나라의 가는곳마다에서 싸우는 에스빠냐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에 대하여 품고있는 우리 인민의 친선의 정을 몸가까이 느끼게 될것입니다.

조선과 에스빠냐는 서로 지구의 동서 량끝에 수만리 멀리 떨어져있으나 우리 두 나라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사상과 리념, 리상과 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끊을수 없는 친선의 뉴대로 서로 밀접히 결합되여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을 철저히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어깨겯고 싸워나가는 참다운 혁명전우이며 믿음직한 계급적형제입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형제적 에스빠냐공산당 및 로동계급과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을 국제주의적의무로, 혁명의 의리로 간주하고있으며 당신들이 벌리고있는 모든 투쟁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고있습니다.

에스빠냐공산당은 오래동안 에스빠냐 로동계급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워왔으며 군주제도와 파시즘을 반대하는 간고하고도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는 1936~1939년의 공민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에스빠냐공산당은 《반파쑈로농적위대》를 뭇고 광범한 반파쑈인민전선을 형성하여 청소한 에스빠냐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던 국내반동도당들과 외국무력간섭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벌리였습니다.

에스빠냐공산주의자들은 제2차세계대전시기 국내와 해외에서 프랑코도당과 국제파시즘을 반대하는 간고한 빨찌산투쟁을 조직전개하였습니다.

에스빠냐공산당은 온갖 계급적원쑤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 에스빠냐인민의 혁

명투쟁사에 슬기롭고 영광스러운 새 페지를 기록하여넣었으며 자기자신의 피로써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대한 충실성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에스빠냐공산당은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결속되고 단련된 에스빠냐로동계급의 진정한 전위부대로,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불패의 정치적력량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오늘 에스빠냐공산당은 에스빠냐혁명의 전투적참모부로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주적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묶어세워 미제와 프랑꼬독재정권을 반대하며 사회의 민주화와 근로자들의 생활상권리를 옹호하여 그리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반제민주력량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에스빠냐 공산당과 로동계급이 벌리고있는 모든 형태의 반미반독재투쟁은 오랜 세월을 두고 그처럼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들씌워온 프랑꼬파쑈독재체계의 붕괴과정을 힘있게 촉진시키고있습니다.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고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전선에서 싸우고있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에스빠냐공산당과 로동계급이 이룩하고있는 모든 승리를 자기의 승리와 같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열렬히 축하하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에스빠냐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와 프랑꼬도당의 파쑈적만행을 치솟는 격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당신들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보냅니다.

에스빠냐 공산당과 로동계급은 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더욱 축적하여나갈것이며 때가 오면 반동통치를 짓부시고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이번 견결한 반제혁명투사이며 열렬한 공산주의자인 싼띠아고 까릴요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무로 되며 지원으로 됩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당 제5차대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당이 내놓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조국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새로운 전망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문제를 가지고 조선사람끼리 마주앉아 협상하기 시작한 오늘에 와서까지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에 간섭하려는 미제침략자들을 준렬히 단죄하며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체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도 참다운 민족주체적립장과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온 겨레와 세계여론 앞에 엄숙히 서약한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하여야 합니다.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구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서로 협력하여 사업하여야 하며 북과 남사이에 각 분야에 걸쳐 합작하여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은 하루빨리 불신임과 오해를 풀고 일치단결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민족분렬을 끝장냄으로써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후대들에게 통일된 국토를 넘겨주어야 할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시종일관 적극 지지하여주고있으며 특히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내보내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주고있는 에스빠냐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우리 두 당 사이의 친선단결이 날을 따라 더욱 공고발전되고있으며 더욱더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한길에서 에스빠냐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과 굳게 손잡고 힘차게 싸워나갈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빠냐로동계급의 사절과 만나 전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 쉰다섯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인류해방의 새 시대,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10월혁명의 승리는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였으며 지구상 수억만 근로대중을 자본의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고무하였습니다.

우리는 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밑에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나는 끝으로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머물러있는 동안 유익한 나날을 보내며 뜻깊은 이번 방문을 성과적으로 실현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국제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두 나라 당과 인민들 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싼띠아고 까릴요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귀중한 손님들인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원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를 위하여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이 차린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2년 12월 1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한 손님여러분!
존경하는 징춘링림시대리대사선생!
동지들과 벗들!

나는 오늘저녁 캄보쟈국가원수이시며 민족통일전선위원장이시며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우리를 친절히 초청하여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은 반미공동투쟁에서 굳게 맺어진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전투적친선의 력사에 또하나의 새로운 페지를 기록하여놓았습니다.

이 방문과정을 통하여 우리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호상리해와 친선의 정은 더욱더 두터워졌으며 전투적단결은 불패의것으로 공고발전되였습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방금 하신 연설에서도 우리 당과 정부와 조선인민에 대하여 품고있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와 캄보쟈인민의 진실한 감정을 다시금 표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감동되였습니다.

국가원수친왕께서는 이번 방문기간 우리 나라의 여러곳에서 휴식도 하고 공장, 농촌, 문화기관들도 돌아보면서 우리 근로자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에 대하여 제국주의를 견결히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분투하시는 캄보쟈인민의 탁월한 령도자로서 또한 인도지나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빛나는 공적을 쌓아올리고계시는 용감한 투사로서 높은 존경을 표시하였으며 오래 헤여졌던 친혈육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당신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국가원수친왕께서는 우리 인민이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운동을 힘있게 벌려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었습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혁명위업에 대한 국가원수친왕의 각별히 열렬하고 고무적인 지지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에 캄보쟈전선에서 날에 날마다 새로운 빛나는 승리의 소식들이 전하여지고있는 가운데 우리의 전우이시며 형제이시며 가장 친근한 벗이신 국가원수친왕의 탄생 쉰돐을 함께 경축하였으며 친왕과의 상봉을 통하여 반미구국투쟁에서 끝까지 싸워이기려는 캄보쟈인민의 확고한 결의를 더잘 알게 되였습니다.

오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캄보쟈인민의 투쟁은 간고하며 그들의 앞길에는 난관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쟈인민과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이 모든것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원쑤들을 온 캄보쟈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있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캄보쟈의 걸출한 애국자이시며 저명한 반제투사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를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령도밑에 반미투쟁의 최전선에서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캄보쟈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이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계속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엄숙히 천명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론 놀매국도당에게 새로운 작전물자를 대주면서 전쟁강화책동을 벌리고있으나 이것은 멸망에 직면한자들의 마지막 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캄보쟈인민이 멀지않은 앞날에 반드시 자기 조국을 완전히 해방하게 될것이며 독립되고 번영하는 인민적인 새 캄보쟈를 건설하게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손님여러분!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직접 보신바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잘 되여나가고있으며 다가오는 최고인민회의와 각급 지방주권기관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커다란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또한 북과 남사이에 접촉과 대화가 거듭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앞길에도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아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요즘 수많은 전투폭격기들과 각종 신형무기와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전쟁준비를 강화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사람끼리 불신과 오해를 풀고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협상하고있는 오늘에 와서까지 반목을 조장하고 분렬을 영구화하며 서로 싸우게 하기 위하여 위험한 불장난을 계속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침략책동에 부추김을 받아서 평화통일이 아니라 《승공통일》을 부르짖으며 민족의 단결을 도모하는것이 아니라 그의 파괴를 시도하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것은 온 민족의 념원에 배치되고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것일뿐만아니라 도저히 실현될수도 없는 망상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범죄적책동을 준렬히 단죄하며 조선문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사이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현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서로의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제국주의가 망하고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이 승리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추세입니다.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는 자기 생명의 마지막 시각을 살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내리막길에 들어선 저들의 운명을 건져보려고 악명높은 《닉슨주의》에 따라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으며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전쟁을 강화하고있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윁남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합의사항을 짓밟고 그의 리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횡포무도하게 행동하고있으며 남부윁남에 다량의 무기와 전쟁물자들을 끌어들이고 윁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을 더욱 강화하고있습니다.

미제의 이 새로운 범죄행위는 오만무례하고 교활한 그들의 침략적본성을 더욱 날날이 드러내놓을뿐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의 전쟁강화책동을 견결히 규탄하며 윁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캄보쟈와 윁남, 라오스에서, 남조선에서, 대만에서 그리고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침략과 간섭 책동을 그만두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하며 중근동과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에서 침략의 마수를 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손님여러분!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며 공통된 념원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굳게 결합되여있습니다.

당신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들 사이의 전투적우의를 더욱 두터이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잊을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기였습니다.

우리는 국가원수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결과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친왕께서 조선인민이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형제적캄보쟈인민과 함께 어깨겯고 싸워나갈것이라는것을 캄보쟈의 전우들에게 전하여 주기 바랍니다.

나는 친왕께서 명년에 다시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줄데 대한 우리의 초청을 수락하신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민은 국가원수친왕과 캄보쟈의 귀한 손님들을 어느때나 뜨거운 친선의 정으로 맞이할것입니다.

나는 또한 이 기회에 국가원수친왕께서 나자신에 대하여 과분한 치하를 하여주시고 노래를 지어 형제적우정을 표시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을 우리 인민에 대한 높은 존경과 신임으로, 고무로 생각합니다.

나는 끝으로 영웅적캄보쟈인민이 반미구국투쟁에서의 빛나는 최후승리를 위하여,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영원한 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캄보쟈의 귀한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징춘링림시대리대사선생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기네정부의 정당한 정책들을 높이 평가하며 제국주의와 반동들을 반대하며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네 인민의 투쟁에 굳은 전투적 련대성을 표시한다

(기네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2년 12월 18일)

존경하는 란사나 베아보기수상각하!

존경하는 기네공화국의 귀한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기네민주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기네공화국 정부수상인 란사나 베아보기각하를 비롯한 기네의 귀한 손님들과 이처럼 자리를 같이 하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친근한 벗인 란사나 베아보기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인민은 기네의 귀한 손님들인 당신들을 매우 반가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싸우고있는 우리의 전우이며 형제인 기네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두터운 친선의 정의 뚜렷한 표시로 됩니다.

조선과 기네는 지리적으로 아세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동서에 멀리 떨어져있으나 지난날의 력사적처지의 공통성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은 언제나 가까이 잇닿아있습니다.

조선인민은 기네인민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간주하고있습니다.

기네인민은 외래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벌려 민족적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기네의 독립은 근면하고 용감한 기네인민의 력사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획기적사변이였을뿐아니라 아프리카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도 큰 기여로 되였습니다.

독립후 기네인민은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아흐메드 세쿠 투레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

도밑에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왔습니다.

오늘 용감한 기네인민은 기네민주당 제9차대회가 내놓은 방침에 따라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여러가지 난관을 이겨내면서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진보적개혁들을 실시하고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며 문화를 부흥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

기네공화국 정부는 대외관계분야에서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으며 세계 모든 피압박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나아가는 기네인민의 견결한 투쟁과 그 성과는 해방과 독립의 공고화를 위하여 싸우는 아프리카인민들에게 고무적영향을 주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최근년간 기네인민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무력침략과 간섭 및 파괴전복활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기네 인민은 원쑤들의 무모한 침략책동을 그때마다 단호히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켜냈습니다.

기네의 경험은 인민들이 자기의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견결히 투쟁한다면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세력도 능히 타승하고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기네정부의 정당한 정책들을 높이 평가하며 제국주의와 반동들을 반대하며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네인민의 투쟁에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합니다.

기네인민과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고있으며 그것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반적정세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매우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을 통하여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직접 보게 될것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그들의 투쟁에 대하여 더잘 알게 될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잘되여나가고있으며 인민들의 혁명적기세도 대단히 높습니다.

며칠전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와 각급 지방주권기관대의원선거는 우리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다시한번 과시하였습니다.

또한 북과 남사이에 접촉과 협상이 거듭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도 많은 전진이 이룩되고있습니다.

물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아직 안팎의 원쑤들의 방해책동도 있고 여러가지 난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조선인민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자기의 단합된 힘으로 온갖 장애를 물리치고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기네공화국정부와 기네인민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와 여러 기회에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언제나 성의껏 지지성원하여주고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수상각하 당신과 기네공화국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계적범위에서 혁명과 반혁명간의 투쟁이 계속 치렬히 전개되는 가운데 제국주의가 망하고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이 승리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민족해방의 세찬 조류가 거대한 힘으로 밀려오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의 마지막 생명선이 끊어져가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운명을 구원해보기 위하여 악명높은 《닉슨주의》에 따라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며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고 책동하고있으며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세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닉슨주의》를 전면적으로 파탄시키고있으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기네(비싸우), 앙골라, 모잠비끄,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및 모든 아프리카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인민은 웰남, 캄보쟈, 라오스 인민들의 영웅적반미구국투쟁과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모든 아랍인민들의 반미반이스라엘투쟁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반제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해방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서 인민들의 단결은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제반식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과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우리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아갈것입니다.

존경하는 기네의 손님여러분!

조선인민과 기네인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굳은 친선의 뉴대를 맺고있습니다.

기네공화국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완강히 싸우고있는 혁명적인 나라이며 아프리카대륙에서 맨 선참으로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은 매우 친선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는 반제반식민주의공동투쟁을 통하여 굳게 맺어진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단결이 날을 따라 공고발전되고있으며 그것이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이 훌륭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획기적계기로 되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기네의 손님들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자기 집에서와 같이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내게 될것을 충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끝으로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하면서 기네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조선인민과 기네인민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기네인민의 탁월한 지도자 아호메드 세쿠 투레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란사나 베아보기수상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기네의 귀한 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각 선거구선거자들에게 보내신

공 개 서 한

이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추천을 위한 전국의 공장, 기업소 종업원회의와 협동농장원회의, 주민회의, 군무자회의들에서 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의 표시로 생각하면서 전체 선거자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및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제5장 제36조에 의하면 대의원후보자는 오직 하나의 선거구에만 등록하게 되여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216호 희천선거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하면서 이를 선거자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나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며 온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함으로써 나에게 표시한 선거자여러분들의 두터운 신임에 보답할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정권기관이 달성한 위대한 승리와 자랑찬 성과를 총화하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 있도록 그를 공고히 하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켜나가는 획기적인 계기로 될것입니다.

선거자여러분들은 높은 혁명적열의와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 혁명과 건설의 강유력한 무기이며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기치인 혁명정권을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지기 위한 선거사업에 한결같이 참가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시위하리라고 믿습니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강령에 따라 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줄기차게 밀고나가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분들의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 일 성

1972년 12월 1일 평양시

축 하 전 보 문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나는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의 영웅적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2월말 현재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앞당겨 수행한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희천공작기계공장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당신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희천공작기계공장의 로동계급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생산공정을 적극 자동화, 전문화하고 공작기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품종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당앞에 다진 맹세를 빛나게 수행해나가고있습니다.

6개년계획의 심장부를 지켜선 희천의 로동계급이 거둔 위대한 승리는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온 당신들의 영웅적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며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여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됩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 제5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계속 힘차게 투쟁하여 1만대의 공작기계생산고지를 기어이 점령함으로써 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기개를 더욱 높이 발휘할것을 축원합니다.

김 일 성

1972년 3월 2일

축 하 전 보 문

만경대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나는 만경대공작기계공장의 영웅적로동계급이 「희천의 로동계급이 일으킨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고 계속 전진하여 3월 5일현재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초과수행한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만경대공작기계공장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만경대공작기계공장의 로동계급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대담하게 달라붙어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생산공정을 자동화, 전문화하여 공작기계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당앞에 다진 맹세를 훌륭히 수행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만경대의 로동계급이 거둔 위대한 승리는 3만대의 공작기계생산고지를 점령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 제5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계속 힘차게 투쟁하여 당앞에 다진 공작기계생산고지를 기어이 점령할것을 축원합니다.

김 일 성
1972년 3월 6일

축하전보문

구성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나는 구성공작기계공장의 영웅적로동계급이 희천의 로동계급이 일으킨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고 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여 3월 5일현재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초과수행한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구성공작기계공장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당신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구성공작기계공장의 로동계급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주물직장의 종합적기계화를 완성하고 생산공정을 적극 자동화, 전문화하여 공작기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당앞에 다진 맹세를 빛나게 수행하여 나가고있습니다.

구성공작기계공장이 공작기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것은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돌파구를 여는데서 커다란 승리로 됩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 제5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1만대의 공작기계생산고지를 기어이 점령함으로써 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것을 축원합니다.

김 일 성
1972년 3월 6일

축 하 문

계관근위천리마검덕광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나는 계관근위천리마검덕광산의 영웅적 붉은 광부들이 희천의 로동계급이 일으킨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높은 혁명적열의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온갖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이겨내고 3월 31일현재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앞당겨 훌륭히 수행한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계관근위천리마검덕광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동무들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열정,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고 지질탐사와 굴진기를 앞세워 품위높은 광석을 더 많이 찾아내고 채굴장을 넉넉히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채굴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운반작업의 기계화와 대형화를 적극 실현하였으며 선광공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그의 기술관리사업을 강화하여 한그람의 쇠돌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빛나게 수행하였습니다.

동무들은 당앞에 지닌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동무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은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는 사회주의경제리론을 확증하는 산모범으로 되며 자체원료에 의거하여 주체가 철저히 선 공업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는데서 훌륭한 모범으로 됩니다.

동무들은 앞으로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들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을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우리 당의 참된 혁명전사로 붉은 광부들의 모범이 되여 계속 앞장서서 나가야 합니다.

동무들은 채취공업발전의 3대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세부탐사와 작업탐사를 앞세워 광량을 더 찾아내며 갱건설과 굴진기를 앞세워 채굴장을 넉넉히 마련하는 동시에 선진채굴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다량락광, 다량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광산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고 점차 반자동화, 자동화하며 유해로동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헐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도 더많은 광석을 캐내야 합니다.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적요구대로 기업관리에서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구현하며 서로 돕고 가르쳐주며 동지적으로 단결하는 공산주의적기업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을 높이 발양할것이며 항상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안일해이하지 말며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도록 할것입니다.

나는 계관근위천리마검덕광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수행하는데서 언제나 앞장서나가며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기개를 더욱 높이 발휘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김 일 성

1972년 4월 1일

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청년들이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청년돌격대원들과 철도건설자들이 앞으로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계속 빛나게 수행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 일 성
1972년 10월 10일

축 하 문

혜산청년광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나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높이 받들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1972년 12월 10일현재로 지난해실적에 비하여 5배로 늘어난 올해생산계획을 102.4%로 넘쳐수행한 혜산청년광산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동무들은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다하여 부닥치는 모든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이겨내고 올해전투과제를 빛나게 초과완수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온갖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자기들앞에 맡겨진 광물생산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우리 당의 주체철학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확증하였습니다.

동무들은 당과 정부 앞에 지닌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국방력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동무들이 이룩한 이 자랑찬 성과는 당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전사들의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표현입니다.

나는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침체와 보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용감하게 박차고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이바지한 동무들의 투쟁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광물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도내 기관, 기업소 일군들과 가두녀맹원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합니다.

동무들은 앞으로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들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우리 당의 참된 혁명전사로, 붉은 광부로 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채취공업발전의 3대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세부탐사와 작업탐사를 앞세워 광량을 더 많이 찾아내며 갱건설과 굴진을 앞세워 채굴장을 넉넉히 마련하여 명년도생산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동시에 선진채굴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더 많은 광물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높이 받들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채굴과 적재 작

업을 비롯한 광산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일을 헐하고 안전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광물을 캐내야 합니다.

그리고 선광장조업을 빨리 다그치며 생산장성에 따라 그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동무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적 본질의 요구대로 기업관리에서 군중로선의 원칙과 당성, 과학성의 원칙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움으로써 공산주의적기업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또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을 높이 발양할것이며 항상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계속 견지하여야 합니다.

나는 혜산청년광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과 국가에서 맡겨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기개를 더욱 높이 발휘하여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 일 성

1972년 12월 11일

축 하 전 보 문

만풍광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나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받들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1972년 12월 20일 현재로 지난해에 비하여 140%로 장성된 올해 생산계획을 102%로 훌륭히 초과완수한 만풍광산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동무들은 채취공업부문의 3대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지질탐사와 굴진기를 앞세워 채굴장을 넉넉히 마련하는 동시에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운반능력은 1.5배, 선광처리능력은 2배로 높임으로써 당과 국가 앞에 지닌 혁명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온갖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훌륭히 관철하였습니다.

동무들이 이룩한 이 자랑찬 성과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맡은 혁명과업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우리 혁명전사들의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표현입니다.

나는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침체와 보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을 용감하게 박차고 자기 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과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 크게 기여한 동무들의 투쟁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동무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조금도 자만하지 말고 채취공업의 3대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광산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올해보다 1.6배로 늘어난 명년도 생산계획을 반드시 초과수행함으로써 나라의 긴장한 쇠돌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자신들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우리 당의 참된 혁명전사로, 붉은 광부로 되여야 합니다.

만수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혁명의 붉은수도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이 한눈에 안겨오는 만수대의 푸른 언덕우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대를 이어 계승하며 영원히 그이를 높이 모시고 그이의 가르침따라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불같은 충성의 념원을 담은 대기념비가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계기로 세워졌다.

총부지면적 24만평방메터를 가진 이 대기념비의 중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고 오른편과 왼편에는 반세기에 걸치는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보여주는 조각군상들이 있으며 뒤에는 조선혁명박물관이 있다.

혁명의 성지 백두산 천지를 묘사한 벽화를 배경으로 하여 좌우에 세워진 조각군상 중심에 모셔진 동상은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인도하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 혁명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하고 있다.

바른손을 드시고 우리 인민이 나아갈길을 가리키고계시는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과 인민적품성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오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 투쟁하여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조선혁명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반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성스러운 조국광복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조선로동당을 비롯한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를 세우시고 그 총체를 령도하시여 지난날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주체적인 민족경제와 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강국으로 전변시키고 우리 나라 력사에서 류례없는 세기적변혁과 민족적대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을 한결같이 미일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수행에로 정확히 이끄시였으며 또 이끄시고 계신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앞에 나서는 모든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시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식민지 및 민족해방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심으로써 세계혁명발전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탁월한 기여를 하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과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싸우는 온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불패의 힘과 용기,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혁명의 무기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는 천재적인 예지와 확고한 혁명적원칙성, 불요 불굴의 의지,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나가시는 비상한 혁명적전개력, 모든 사물과 현상을 세심히 분석하시고 그본질을 꿰뚫어보시고 거침없이 가려나가시는 예리한 통찰력과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고 계시는 그이의 혁명가적풍모가 뚜렷하게 형상되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실뿐만아니라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보살펴주시며 우리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인민적 품성의 빛나는 귀감으로서의 친근하신 인민의 수령님의 풍모는 그이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속에 계시며 그들을 승리에로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수령님의 영상에서 그대로 훌륭히 표현되고있다.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영웅서사시적화폭으로 보여주는 조각군상 가운데 정중히 모셔진 수령님의 동상은 그이의 령도밑에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쌓아올린 업적을 표현하고있을뿐만아니라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는 그이의 위대한 풍모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다.

멀리 앞을 내다보시는 수령님의 형상은 온 세상사람들이 그이를 혁명의 위대한 태양으로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며 혁명승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대로 우러러 모시고있는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와 같이 대기념비 중심에 모셔진 수령님의 동상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과 인민성으로 일관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집대성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반일혁명 투쟁과 빛나는 업적을 형상한 조각군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동상의 오른편 조각군상에는 수령님의 반일혁명투쟁시기의 존귀한 영상을 모신 붉은 초상기가 높이 솟아있고 그 량편에

맑스-레닌주의기치와 혁명적구호를 새긴 프랑카드가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반일혁명투쟁시기의 우리 인민의 투쟁을 반영한 119상의 조각군상이 있다.

이 조각군상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반일혁명투쟁과 그 과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업적들을 형상하고있다.

이 조각군상은 5상으로 구성된 선두상부분과 53상으로 구성된 제1면군상 및 56상으로 구성된 제2면군상들로 이루어져있다.

제1면조각군상은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인민들의 생활부분>과 <맑스-레닌주의의 보급부분>, <무기제작부분>, <유격근거지 인민들의 생활부분>, <항일유격대원들의 무장투쟁부분>으로 구성되여있다.

제2면조각군상은 <일제를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의 투쟁부분>과 <무장획득을 위한 투쟁부분>, <항일유격대창건부분>, <고난의 행군부분>, <보천보전투부분>,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부분>으로 구성되여있다.

정면 선두상부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상징하고있다.

<공산당선언>을 높이든 유격대원의 형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향하여 줄기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을 보여준다.

해방된 조선의 당당한 주인이 될 영예를 안고 수령님의 충직한 전사로 더욱 굳세게 살아갈 결의다지며 힘찬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디는 조국광복회원과 이루 헤아릴수 없는 간고한 싸움과 행군길에서 언제나 희망과 승리의 신심을 불러일으켜준 나팔수와 총을 높이 추켜든 항일유격대원의 형상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동지애 그리고 군민일치의 전투적인 미풍을 보여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위대한 생활력을 표현하고있다.

제1면조각군상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인민들의 생활부분>군상—우리 나라에 일제의 침략마수가 뻗쳐 온 겨레의 머리우에 검은 구름이 겹겹이 드리웠던 민족수난의 시기, 제나라 제땅에서 쫓겨난 백발이 서린 늙은이와 철부지어린이들이 산좋고 물맑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압록강을 건너갔으며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망국의 설움을 안고 살곳을 찾아 정처없이 떠나갔다.

방울방울 눈물을 흘리면서 멀어져가는 고향마을을 몇번이고 돌아보며 소꿉놀이동무들을 다시금 불러보는 소녀.

말없이 어린것을 달래이며 피눈물을 삼키는 어머니.

이 조각군상은 강도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놈들의 착취와 압박에 못이겨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가는 인민들의 처참한 고난의 생활력사를 보여준다.

우리 인민들은 숨막히는 일제침략의 검은구름을 헤가르고 높이 솟아올라 온 누리를 찬연히 비쳐줄 민족의 태양을 목마르게 기다렸다.

<맑스-레닌주의 보급부분>군상—<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결심다지시며 열네살 어린몸으로 압록강을 건느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풍랑사나운 혁명의 길에 오르시여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을 묶어세우시고 그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워 나가시였다.

<백전백승의 레닌주의기치 만세!> 라고 씌여진 프랑카드.

모진 로동에 시달리며 주린배를 부여안고 절망에 허덕이는 동무를 이끌어 <새날소년동맹>의 영광스러운 대오에 들어서게 하는 어린 단부.

조선인민이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제를 때려부셔야 한다고 열렬히 호소하는 반제청년동맹원,

혁명적출판물인 <농민독본>과 <농우>를 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화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있는 농촌처녀와 학생들.

처녀의 정기어린 눈길과 얼굴에는 조국을 광복하고 이 나라 녀성들을 봉건적질곡에서 해방하려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실천해나갈 굳은 결의가 어리여있다.

혁명조직의 영향을 받아 조선의 로동자, 농민들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싸운다면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할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고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혁명의 길을 따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산판로동자들.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의 전사로,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투쟁대오에서 싸워나가는 영예와 긍지, 필승의 신념에 가득차 있는 부녀회원.

이 군상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기혁명활동시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개된 광범한 청년학생들속에서 맑스-레닌주의보급을 위한 슬기로운 투쟁을 보여준다.

<무기 제작 및 수리부분>군상—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인민들은 <무기는 생명이다>라는 구호밑에 무장을 위한 대담하고 희생적인 투쟁을 벌려 적의 무기를 빼앗는 한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 선진적인 청년들을 무장시켰다.

원쑤일제를 치려는 일념에 불타면서 무기생산과 무기수리에 열중하고있는 적위대원들,

이 군상은 위대한수령님의 무장투쟁로선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내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는 적위대원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준다.

<유격근거지 인민들의 생활부분>군상—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고 인민의 주권을 세워주시였으며 나라잃고 고향을 떠나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모진 가난과 학대에 시달리던 우리 농민들에게 땅을 주시였고 싸움으로 해가 저물고 싸움으로 날이 밝던 유격근거지의 간고한 나날에도 원쑤들에게 부모를 빼앗기고 정처없이 떠다니는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혁명투사로, 나라의 튼튼한 기둥감으로 키워주시였으며 인민들에게 새 생활을 창조하도록 크나큰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평생소원이던 땅을 분여받고 이 나라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흠모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있는 씨앗망태를 둘러멘 할아버지.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뛰노는 아동단원들.

혁명의 후비대를 키워내는 한없는 보람과 기쁨에 넘쳐있는 아동단 지도원.

군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혁명로선에 의하여 창설된 유격근거지에서 주권을 자기 손에 쥔 인민들이 휘황한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며 새 생활창조를 위한 그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준다.

<조국광복회창건 및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준비부분>군상—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사람이 단결된 힘으로 강도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였으며 인민들에게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멸의 기치

를 안겨주시였다.

조국광복회창건을 상징하는 홰불을 높이 추켜든 청년투사.

민족이 나아갈 길을 환히 내다보게 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읽고있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보내주신 권총을 가슴에 안고 그이의 해발이 되여 끝까지 혁명에 충실하리라 충성의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는 녀공작원.

군상은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가 창건되고 그의 확대강화를 위한 투쟁과 조선공산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힘있는 사람은 기능과 힘을 바쳐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싸움에 나설데 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반일민족해방투쟁에 떨쳐나설것을 결의하고있는 혁명적군중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무장투쟁부분>군상—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일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영웅적투쟁을 보여준다.

달려드는 일제침략자들을 <한놈도 살려서 돌려보내지 말라>고 소리높이 웨치면서 대원들을 육박전에로 부르는 항일유격대 지휘관과 돌격나팔을 힘있게 부는 나팔수.

복수의 총창을 비껴들고 비발치는 총탄을 헤치며 원쑤의 아성으로 육박하는 항일유격대 돌격대원들.

원쑤의 가슴팍에 불벼락을 안기고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는 항일유격대 녀성기관총수.

원쑤의 머리우에 돌벼락을 들씌우는 항일유격대원들.

유격대를 도와 총을 잡고 전투서렬에 들어서고있는 백발이 서린 할아버지, 탄약상자를 안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고있는 나어린 소년.

군상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령활한 작전과 독창적인 전법에 따라 항일유격대원들과 지휘관들은 원쑤놈들을 무리로 쓸어눕히면서 승리의 한길로 줄달음쳐나아가는 영웅적투쟁모습을 감동깊게 보여준다.

제2면 조각군상

<일제를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의 투쟁부분>군상—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기혁명활동시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젊은 청년학생들이 광범한 군중들을 교양하여 혁명조직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보람찬 투쟁을 반영하고있다.

수령님께서 몸소 창간하여 주신 신문 <새날>을 발간하고있는 부녀회원.

일제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군중속에 신문<새날>을 배포하고있는 소년.

<타도제국주의>의 구호밑에 시위에 떨쳐나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

반일전선삐라를 뿌리는 녀공청원.

철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혁명가들.

군상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장성하는 청소년학생들의 반일투쟁, 일제의 반동군벌과 교원들을 반대하는 동맹휴학,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투쟁과 일본상품배척투쟁 등 반일운동에 궐기한 불굴의 기상, 인민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공청원과 조선혁명에 관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에 고무되여 필승의 신념과 투지를 안고 원쑤놈들과 견결히 싸우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보여준다.

<무장획득을 위한 투쟁부분>군상—발톱까지 무장한 강도일제놈들을 때려부시자면 무장을 잡고 싸워야 한다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무장을 위한 싸움에 목숨걸고 나섰다.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놈들의 무기를 빼앗아온 청년들.

이들이 틀어쥔 한자루의 총에는 원쑤일제를 천백배로 복수하고 기어이 조국을 찾고야말 우리 인민들의 불같은 결의가 담겨져 있다.

군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무장투쟁로선에 따라 일떠선 혁명적인민들의 무장획득을 위한 피어린투쟁을 보여준다.

<항일유격대창건 부분>군상—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부닥치는 온갖 장애를 물리치시고 몸소 키우신 조선혁명군 성원들과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원들을 핵심적골간으로하여 선진적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우리 나라의 혁명적인민무력의 첫 대오인 영광스러운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조국의 광복과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하는 어린것을 남겨두고 간고한 투쟁의 길에 오르는 슬기로운 녀성투사.

떠나는 녀투사를 바래우는 어머니.

새로 입대한 어린대원들을 따뜻이 맞아주는 유격대지휘관.

군상은 우리 녀성들이 원쑤일제와의 싸움에서 희생된 남편의 뒤를 이어 투쟁대오에 들어섰으며 한생을 머슴으로 천대속에서 살아온 조선의 어머니들은 장군님께 모든것을 의탁하고 조국광복의 그날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성스러운 싸움터로 내보낸 슬기로운 기상을 보여준다.

<고난의 행군부분>군상—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에 따라 전개된 세계력사상 류례가 없는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형상하고있다.

사령관동지의 육친의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집요하게 달려드는 원쑤들을 물리치면서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모진추위, 칼바람사납게 울부짖고 눈보라 천지를 뒤덮는 어려운 행군길을 혁명의 붉은대오는 굴함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대오의 중심에서 대원들을 보살피는 정치위원, 나어린대원을 업고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로대원과 기관총수들.

한홉의 미시가루를 서로 권하는 유격대원들.

하모니카를 불어 부대의 사기를 돋구어주고있는 어린대원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학습하는 녀대원.

소중히 간직하였던 쌀가마니를 지고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를 따라 행군하는 할아버지.

군상은 대원들에 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깊고 뜨거운 사랑, 수령님의 충직한 전사들인 유격대원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풍모, 락천적인 생활감정과 혁명적학습기풍, 군민일치의 미풍을 보여준다.

<보천보전투부분>군상—<김일성장군 만세!>, <조선혁명 만세!>, <조선독립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오매에도 그립던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보천보전투를 상징하는 홰불, 포고문을 읽고있는 군중.

전민족적단합으로 조국광복전선에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신 김일성장군님의 말씀을 힘차게 선전하는 유격대녀전사.

<가련한 조선동포형제들! 속히 출동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단결하여 각종 투쟁으로써 본군의 유격전쟁에 호응하라!

하루속히 일제통치를 분쇄하고 진정한 조선인민의 정부를 수립하는데 매진하자!>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열화같

은 호소는 인민들의 끓어넘치는 애국심과 원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일제침략의 검은구름이 뒤덮여 암담하였던 이 나라 강산에 혁명의 서광을 비쳐주었다.

군상은 일제의 갖은 억압과 천대와 멸시속에서 신음하던 조선인민에게 민족재생의 길을 환히 밝혀주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혁명의 불씨, 투쟁의 불씨를 심어준 보천보전투승리의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반영하고있다.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부분>

군상—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일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형상하고있다.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이 땅에서 일제침략자들을 영영 쓸어버리는 마지막 판가리싸움, 일제의 쇠사슬에 얽매여 빛을 잃었던 이 나라 강산에 돌격의 나팔소리 힘있게 울려퍼지고 복수의 총창 굳게 틀어잡은 항일의 영웅들은 성난 사자마냥 원쑤를 무찌르며 앞으로 나아간다.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청춘을 바쳐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놓은 영웅—폭약을 안고 적진으로 육박하는 항일의 영웅전사.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고있는 기관총수, 원쑤들을 무리로 쓸어 눕히면서 일본제국주의의 저주로운 침략의 기발을 짓밟고 돌진하고있는 항일혁명투사들.

군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이땅에서 일제침략자들을 영영 격멸소탕하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영웅적투쟁모습과 항일혁명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자랑차게 이야기 해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업적들을 반영한 조각군상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왼쪽 조각군상에는 수령님의 오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초상기가 높이 솟아 휘날리고 그 뒤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의 기발과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람홍색기발이 나붓기는데 그에 련달린 붉은기폭에서는 <김일성장군 만세!>,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힘찬 글발이 찬연히 빛발치고있다. 이 기발아래에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를 받들고 우리 인민이 진행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과 그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는 109상의 조각군상이 있다.

이 조각군상은 5상으로 구성된 선두부분과 50상으로 구성된 제1면부분, 47상으로 구성된 제2면부분, 그리고 6상으로 구성된 국제혁명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제1면부분의 **조각군상**은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조국개선부분>, <제반민주개혁부분>,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부분>, <자립적민족경제건설부분>, <사회주의문화건설부분> 등으로 구성되여 있다.

제2면부분의 **조각군상**은 <남반부인민들의 구국투쟁과 해외조선공민들의 투쟁부분>, 《조국해방전쟁부분>, <자위적군사로선부분>, <반제반미투쟁전략과 세계혁명부분> 등으로 구성되여 있다.

정면선두상부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의 불패의 생활력과 그 위대한 승리를 상징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이며 전세계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투쟁의 무기, 영광의 기치이다.

로동계급의 형상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들의 높은 혁명적자각과 힘있고 존엄있는 우리 민족의 슬기가 뚜렷이 표현되여있다.

녀성농민의 형상은 농촌문제, 농민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새로운 공산주의농업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빛발아래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 된 우리 농민의 자랑찬 모습을 보여준다.

인테리의 형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품속에서 영원히 로동계급과 함께 혁명의 한길에서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는 우리의 혁명적 인테리의 자랑찬 모습을 보여준다.

위대한주체사상을 상징적으로 형상한 홰불과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김일성저작선집》을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로동자와 농민, 지식인의 형상들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혁명발전의 력사적과정을 표현하고있다.

인민군전사의 형상은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의 정당성과 그의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고있으며 우리 인민무력의 위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있다.

여기에는 미제침략자들을 종국적으로 소멸할때까지 손에 무장을 더욱 튼튼히 틀어잡고 싸워나갈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의가 담겨져있다.

제1면 조각군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조국개선>군상—강도일제를 무찌르고 조국을 해방하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승리의 광장으로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할것없이 물밀듯 달려나온 사람들은 《김일성장군만세!》를 높이 부르며 해방의 감격을 노래하고있다.

꽃묶음을 흔드는 처녀.

걸음이 뜰세라 짚신짝을 벗어들고 광장으로 달려가는 소년.

북을치고 새납을 불며 춤추는 군중들.

항일유격대와 어머니의 감격적인 상봉.

일제의 모진 학대와 멸시속에서도 눈물한번 보이지 않던 어머니는 장군

님을 모시고 돌아온 투사들을 맞이한 끝없는 감격으로 하여 두눈에서 줄지어 내리는 기쁨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고있다.

이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조선의 참된 아들딸들인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간의 감격적인 상봉을 표현하고 있다.

군상은 강도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맞이하는 조선인민의 환희와 해방의 기쁨을 감명깊게 보여준다.

《제반민주개혁부분》군상—제나라 제땅이 없었던 탓으로 갖은 설음과 천대속에서 살아온 우리 농민들, 녀성들, 로동계급들의 생활에서 위대한 변혁을 가져온 제반민주개혁을 보여준다.

수령님의 은덕으로 생전 처음으로 제땅을 분여받고 수령님께 충성의 맹세다지며 두손에 흙을 움켜 쥔 농민.

어버이 수령님의 은덕으로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게 됨으로써 2중3중의 착취와 압박, 무권리에서 벗어나 보람찬 새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 우리 나라 녀성들의 보람찬 생활을 보여주는 녀성대의원.

나라의 주인으로,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된 기쁨과 감격에 충만되여있는 로동계급.

로동법령의 혜택으로 당당한 권리와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된 우리의 로동계급들이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부흥발전의 장엄한 진군의 앞장에서서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감동깊게 보여준다.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부분》군상—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벌써 승리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전후인민경제를 일떠세울 웅대한 설계도를 마련하시였다.

가렬처절했던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나라는 모든것이 불타고 파괴되였으나 영웅적조선인민은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미제를 때려눕힌 그 기세로 재더미를 밀어제끼고 봄사조와 같이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에 일떠섰다.

하루빨리 용광로의 불길을 지펴올리기 위하여 밤을 지새우고있는 축로공과 한장한장의 벽돌을 안아올리는 어린이, 건설장의 연공들.

책을 안은 청년, 측량기를 멘 녀대학생, 손풍금수.

군상은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항상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 나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랑만에 찬 생활과 나라의 만년대계의 초석을 쌓아올리는 간고한 전후의 나날에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불사르고 건설분야에서 공업화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 부분》군상—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지난날 그처럼 락후하였던 우리 나라가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위대한 승리의 력사를 보여준다.

과실바구니를 어깨우로 떠받든 처녀와 만풍년을 기뻐하는 할아버지.

텔레비존을 든 녀성농민과 뜨락또르운전수, 농약을 뿌리는 녀성.

조각상은 사상, 문화, 기술 혁명이 강력히 추진되여 지상락원으로 전변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위대한 변혁과 협동농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여준다.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3대기술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반자동화자동화에로 줄달음치는 기술혁신의 선구자들의 슬기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있는 기술혁신자들.

인민들에게 더좋은 옷감을 보내주기 위하여 수령님의 뜻대로 서로돕고 이끌면서 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쳐나가고있는 직포공들.

충성의 붉은 쇠물이 끓어번지는 용광로앞에서 원쑤를 족치는 불같은 심정으로 쇠장대를 든든히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를 굳건히 지켜선 강철전사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심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휘황한 공산주의 앞날을 향하여 천리마의 대진군을 다그쳐 나가는 젊은 광업전사와 나라의 동맥을 지켜선 수송전사 그리고 기계전사들.

이 모든 형상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천리마운동을 힘있게 벌려 낡은공칭능력을 깃부시고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를 창조하였으며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빛나게 구현하여 강력한 자립적인 현대공업을 마련하고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힘있게 다그쳐온 우리의 로동계급들의 혁명적인 불요불굴의 투쟁모습을 자랑차게 보여준다.

《사회주의문화건설부분》 군상—우리 나라의 교육, 과학, 문학예술, 보건, 체육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상징하고있는 이 부분의 군상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들의 끝없는 행복과 수령님께 드리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노래가 아로새겨져 있다.

우리 나라 체육발전의 찬란한 개화, 우리의 축복받은 새세대들의 행복의 노래와 대집단체조를 표현하고 있는 붉은 체육인들과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마음껏 누리며 수령님의 충직한 전사로 자라나고있는 청소년학생들.

수령님의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밑에 자기의 희망에 따라 마음껏 진리를 탐구하며 수령님의 근위대 결사대로, 사회주의 조국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역군으로 준비하고있는 우리의 대학생들.

세상에서 부럼없는 이 행복을 마련해주신 아버지원수님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은 꽃다발을 삼가 드리려 달려나가는 어린 소녀.

조선혁명의 대를 이어 나갈 우리 후대들의 희망찬 래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있는, 씩씩하게 진군의 나팔을 불고있는 소년들.

찬란한 사회주의민족문화가 활짝 꽃피고 60청춘 90환갑을 노래하는 행복한 사회주의락원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상징한 무용수와 녀의사.

군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문화건설분야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집약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제2면조각군상

《남반부인민들의 구국투쟁과 해외조선공민들의 투쟁부분》군상—남반부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과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해외조선공민들의 영웅적투쟁이 반영되여있다.

군중에게 호소하는 청년과 귀국의 실현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동포.

지난날 나라없던 탓으로 이역땅에서 온갖 천대와 민족적멸시를 받아오던 해외의 공민들이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과 따뜻한 해발아래서 자주적독립국가의 당당한 공민의 권리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압흑의 땅 남조선사회를 저주하며 북녘하늘을 바라보면서 통일된 그날을 그리며 동생을 품에 안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있는 소녀.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삼엄한 경계망속에서도 북녘을 우러러 어버이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면서 그이의 품에 안길 그날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워나가는 남녘땅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어버이수령님께 드릴 충성의 수를 놓고있는 녀인,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남조선사

회의 민주화와 학원의 자유를 위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모습을 상징한 투쟁에 나선 남반부처녀와 녀학생.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반부의 지하혁명조직의 혁명활동을 형상하고 있는 남반부혁명투사.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는 불타는 항쟁의 거리에 나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

무장투쟁에로 호소하는 남반부유격대원.

군상은 공화국공민된 높은 긍지를 안고 싸우는 60만재일동포들의 자랑찬 생활과 미제를 몰아내고 통일된 조국땅에서 민족의 태양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을 보여준다.

《조국해방전쟁부분》군상—《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은 미제 원쑤를 무찌르는 판가리싸움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의 귀축같은 만행을 단죄하는 어머니와 어린이.

전시 군수품과 무기생산을 다그치는 지하공장 로동자들.

전선을 탄원하여 나서는 로동자와 적후빨찌산과 그를 도와나선 소녀, 미제의 공중비적들에게 복수의 명중탄을 안기는 녀성비행기사냥군조원들. 원쑤의 포탄과 총탄이 비발치는 속에서도 식량생산에 떨쳐나선 후방인민들.

밀려드는 원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고있는 중기관총사수와 부사수.

조각상은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각에 용감하게 일떠서 싸운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과 가렬한 전투에서 두팔을 잃고도 턱으로 압철을 눌러 자기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한치의 땅을 피로써 지켜낸 우리의 인민군장병들의 무비의 영웅성을 보여준다.

군사활동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방침을 높이 받들고 고지에 직사포를 끌어 올리고 있는 포병.

전사들의 물통을 쥐고 고지를 향하여 줄달음치는 어린소년.

인민군전사에게 탄약상자를 넘겨주는 할아버지.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 행복한 우리 제도와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들을 지켜 미제를 격멸하는 싸움마당에 한몸바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결전을 앞두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 맹세문을 쓰고있는 전사들.

서리발 총창을 힘있게 틀어쥐고 원쑤의 가슴팍을 향해 돌진하는 인민군전사.

원쑤미제의 전차를 까부시는 용감한 전차습격조원, 끊어진 전화선을 청춘의 뜨거운 혈맥으로 이어 부대의 지휘통신을 보장한 통신수, 미친듯이 짖어대는 적탄속을 뚫고 원쑤의 불구멍을 향해 육박하는 슬기로운 영웅전사.

조각상들은 조국의 독립을 고수하느냐 또다시 망국노가 되느냐 하는 생사존망의 판가리싸움에서 최후의 피한방울까지 바쳐 싸울것을 수령님께 맹세다지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자기의 청춘을 바쳐 원쑤의 화구를 맞받아 나아간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승리한 고지우에서 만세를 부르고있는 전사들과 나팔수.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하나로 굳게 뭉친 조선인민앞에서 미제침략자들은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드디어 무릎을 꿇고 말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히 깃부시고 놈들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음으로써 영웅적조선인민의 필승불패의 힘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자위적군사로선부분》 군상—철저한 반제적립장으로 일관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위적군사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준다.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과 로농적위대원들.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우리 당의 일당백의 혁명적무장력으로 자란 수령님의 참된 전사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군사로선—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방침의 위대한 생활력을 이야기하여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했던 아버지, 어머니처럼 어버이 수령님께 충성 다할 굳은 결의에 충만된 혁명학원학생들.

그 어떤 원쑤가 처들어온다 하여도 단매에 때려눕힐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는 로농적위대원들.

한손에 총을 들고 다른 한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억센 모습을 보여준다.

《반제반미투쟁전략과 세계혁명부분》 군상—마지막부분의 이 조각군상은 세계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전략과 세계혁명에 관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다.

전세계로동계급의 굳은 단결을 호소하고있는 우리 나라 로동계급, 녀대학생.

총을 추켜든 일당백의 우리 인민군대 전사.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있는 로농적위대.

군상은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며 혁명하는 모든 나라 진보적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대외정책과 전세계인민들이 단결하여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방침을 표현하고있으며 전국이 요새화, 전민이 무장화된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음을 보여주고있다.

실로 만수대에 높이 모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량옆에 세워진 군상은 수령님의 반세기에 걸친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쌓아올린 위대한 혁명업적을 높은 예술적형상들을 통하여 그대로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전당 조선혁명박물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앞에 모시고 충성의 만수대 높은 언덕에 자리잡은 웅대하고 우아한 조선혁명박물관은 1972년 4월 25일 개관하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혁명의 대학이며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무기를 안겨주는 주체의 전당이다.

조선혁명박물관에는 연장길이 4천 500여메터에 달하는 92개의 진렬실에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시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전면적기술개건의 시기 그리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부문, 우리 당 대외정책의 빛나는 구현부문으로 나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계와 그이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 그리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의 긍지높은 투쟁력사를 포괄하는 100여년간의 귀중한 사적물들과 자료들이 체계정연하게 전시되여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혁명박물관의 첫호실인 총론관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의 전로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큰 지도사판과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굳게 뭉쳐 나아가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보여주는 거대한 화폭이 있다. 이 거대한 화폭의 중심에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띄우시고 로동자, 농민, 인테리, 청년학생, 군인 등 각계각층의 천만군중을 한품에 안으시고 걸어나오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져있다.

총론관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를 가슴뜨겁게 보여준다.

2호실로부터 4호실에 이르는 방들에는 19세기말 20세기초 조선인민의 반침략, 반봉건투쟁과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적물과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이 사적물과 자료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던 당시의 시대사상과 대를 이어 혁명운동에 몸바쳐오신 그이의 혁명적가정에 대하여 감명깊게 보여준다.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비장한 결심을 품으시고 열네살 어리신 몸으로 압록강을 건느시여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1930년 봄 길림감옥을 나오시기까지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이 5호실과 6호실에 전시되였다.

1926년 10월 17일 화성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한 우리나라에서의 첫 혁명적청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은 《ㅌ. ㄷ》)을 결성하시였으며 길림을 중심으로 혁명활동을 적극 벌리시면서 청년학생들을 반일투쟁에로 조직령도하신 귀중한 사적자료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맑스-레닌주의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시고 우리 인민이 나아갈 혁명의 새로운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시면서 조선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갖추시던 력사적시기를 감명깊게 보여준다.

7호실부터 14호실에 이르는 방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0년 6월 카륜회의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 1931년 12월(음력으로 11월) 명월구회의에서 내놓으신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방침들,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승리의 새 시대를 알리는 위대한 선언이며 일제의 패망을 선고하는 력사적사변으로 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 두만강일대에 혁명의 강력한 보루인 유격근거지창설과 근거지에서 제반민주개혁의 실시, 유격구에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세우고 일제의 발악적 《토벌》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조선인민혁명군과 근거지인민들의 영웅적투쟁, 당창건준비사업의 추진과 반일통일전선의 빛나는 실현,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그리고 수령님께서 혁명의 위기를 한몸으로 막으시며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해산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을 광활한 지대에 진출시켜 적극적인 공세에로 넘어갈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방침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신데 대한 귀중한 사적물과 자료들이 전시되였다.

전시된 사적자료들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이 어떻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이 종주국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의 힘에 의해서 자체의 운명을 개척하는 반제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새시대가 어떻게 밝아오게 되였는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 전반기 두만강연안일대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적들의 공세를 쳐물리치며 혁명력량을 보존육성하시는 한편 적통치구역에서 군사활동을 적극 벌리시여 무장대오를 확대강화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이러한 제반 자료들은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과 그이의 탁월한 령도를 실증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 전반기의 성과에 기초하시여 후반기에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두만강 연안일대에 밀영들과 지하혁명조직들로 이루어진 반유격구형태의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국내깊이에 무장활동을 넓히시면서 보다 넓은 지역에로 무장투쟁을 더욱 확대하시여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커다란 타격을 가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15호실부터 25호실에 이르는 방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6년 2월 남호두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

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 올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신 때로부터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 전까지에 이르는 력사적시기의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였다.

남호두회의후 조국광복회 창건과 백두산근거지의 창설, 이 근거지를 거점으로 만주와 국내에서 조국광복회 조직망의 확대강화와 전국적규모에서 당창건준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보천보전투의 빛나는 승리,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및 병사대회와 집중적인 군정학습, 남패자회의와 그에 뒤이은 고난의 행군, 북대정자회의와 무산지구전투의 위대한 승리, 대부대선회작전 등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이 귀중한 여러가지 사적물들과 자료들은 혁명의 위기를 한몸으로 막으시며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전략전술적방침과 한홉의 미시가루마저 대원들에게 돌려주시는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 그리고 오직 수령님을 믿고 혁명의 사령부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가슴뜨겁게 보여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0년 4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간부들앞에서 지난 10년간의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달성한 성과를 총화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쟁과업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들은 과거 10년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 백두산의 험산준령을 주름잡아다녔으며 령하 40도의 엄동설한과 6월의 염천하에서도 굴함없이 언제나 일제의 쇠사슬에 얽매여 신음하는 조국동포들을 생각하며 영용하게 싸웠다.…

물론 우리는 과거 10년간의 혁혁한 공적을 당당히 자랑할수 있다. 그러나 최후의 웃음을 웃기전에는 과거의 투쟁공적을 자랑하기에는 이르다.

우리는 최후승리를 위하여, 최후의 웃음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조선과 만주에서 몰아내고 조중인민의 진정한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또다시 수십만리를 더 걷기로 맹세하자!

그때에는 반드시 삼천리 금수강산에 승리의 서광이 비칠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0년 8월 소할바령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당 및 군정간부회의를 여시고 조성된 혁명정세로부터 출발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의 종국적승리와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보존하고 정치군사간부를 수많이 육성하며 대부대활동을 소부대활동으로 전환하고 지하투쟁을 통하여 전인민적봉기를 준비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마침내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26호실과 27호실에 전시된 자료들은 수령님께서 소할바령회의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똑똑히 보여준다.

총론관을 포함하여 27개의 방들에 전시된 자료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항일혁명투쟁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전략전술적 방침을 제시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과 애국적인민들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능숙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졌으며 이 행정에서 주체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혁명정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혁명의 깊고도 억센 뿌리이며 가장 귀중한 혁명적재부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튼튼히 이룩되였다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고 있다.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 시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고 해방된 조국땅에서 새 조국 새 사회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과도기 첫시기의 과업을 빛나게 수행한 새 력사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28호실부터 48호실에 걸쳐 전시되였다.

28호실에는 해방의 기쁨과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맞이하는 환희로 온 나라가 들끓고 전체 인민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며 승리의 개선연설을 하시는 수령님의 사진과 개선연설을 하실때 쓰시던 마이크 등을 비롯하여 많은 출판물자료들이 진렬되여있다.

수령님의 승리의 개선을 환영하는 대폭의 사진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오직 민족의 태양으로 항상 마음속깊이 흠모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이,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여 비운에 잠겼던 나라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이, 해방된 조선인민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실 그이를 우러러뵈옵는 우리 인민들의 기쁨과 감격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1945년 10월 14일 평양시에서 열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승리의 개선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하신 개선연설에서 그이께서는 다음과 같이 호소하시였다.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암흑생활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었고 따라서 우리 조국 삼천리강산은 찬연한 아침 해빛과 같이 희망에 빛나게 되여습니다.

우리 조선민족은 이제부터 새 민주조국 건설을 위하여 다같이 힘을 합하여 나아갈 때가 왔습니다. …로력을 가진 사람은 로력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완전히 단결하여 우리 조국을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 해방직후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를 비롯한 그이의 력사적인 로작들과 연설들 우리 당창건과 그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 당의 인전대인 근로단체들의 조직과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조직지도하시는 수령님의 사진과 회의록들, 감회깊은 만경대의 갈림길에 세운 사적비모형, 수령님께서 새형의 인민정권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시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의 실시를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데 대한 력사적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23호실에서부터 30호실까지의 방들에 전시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민주주의제도가 확고히 수립되고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가 창설되였으며 이리하여 완전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음을 감동깊게 보여준다.

31호실부터 32호실까지의 방들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창설하시였으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을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과업수행에로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그리고 혁명적민주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시며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인 조선인민

군의 창건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데 대한 가지가지 귀중한 자료들을 보여준다.

34호실과 35호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당 제2차대회와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서 우리당과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령도하시면서 조성된 정치정세와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맞게 단일한 조선민족의 유일한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데 대하여 보여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민족으로부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조국을 건설하여 나아가는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였습니다. 공화국의 창건으로 조선인민은 쓰라린 망국노의 운명에서 영원히 벗어나 떳떳한 독립국가의 기치밑에 새로운 력사무대에 등장하였으며 오래동안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세계의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진출하게 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으로 조선인민은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는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사회주의적자주독립국가를 가지게 됨으로써 전국적판도에서 반혁명력량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준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공화국의 창건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광명한 새 생활을 창조하며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일떠선 전체 조선인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143—144페지)

수령님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신후 혁명적민주기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당을 강화하고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추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 자료들이 36호실과 37호실에 전시되여있다.

전시된 자료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의 튼튼한 물질적담보인 혁명적민주기지를 튼튼히 다지시며 우리 민족의 분렬을 피하는 미제의 전쟁도발을 방지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계속 새로운 조치를 취하시면서 최대의 인내성있는 노력을 다하신데 대하여 가슴뜨겁게 보여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제의를 거부하고 오래동안 준비해온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끝끝내 도발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짓부시고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기에 당과 정부와 군대,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전체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시였으며 전쟁의 매단계마다 변화되는 군사정치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첫호실인 38호실, 그리고 39호실에서는 전쟁 제1계단, 40호실에서는 전쟁 제2계단, 41호실과 42호실에서는 전쟁 제3계단, 43호실부터 48호실에 이르는 방들에서는 전쟁 제4계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과 그 실현을 보여주는 력사적인 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체계정연하게 전시되였다.

1950년 6월 25일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 전쟁 제1계단작전시의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지도와 명령서들, 전략적후퇴의 시련속에서 전국의 근본적전환을 마련하시는 수령님의 혁명적인 조치들을 통하여 전쟁 전기간에 걸쳐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을 숨돌릴사이없이 패망에로 몰아넣은 탁월한 령군술을 감명깊게 보여준다. 미제침략자들의 불의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즉시 전전선에 걸쳐 반공격에로 넘어가 적에게 숨돌릴사이를 주지 않는 련속적인 공격작전, 주타격방향의 옳은 선정과 각병종들의 유기적인 협동, 산악지대에서 포병화력의 집중적인 리용과 이동포활동의 강화, 강력한 해안방어조직, 기본전선에 배합한 제2전선의 조직과 대포위작전, 갱도를 배합한 야전진지의 축성과 그에 의거한 방어전의 조직, 적의 항공우세를 격파하기 위한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 저격수운동, 습격전 등은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하신 전술과 전법들을 현대전의 조건에 맞게 가일층 발전시킨것으로서 수적, 기술적 우세를 믿고 허장성세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한 그이의 탁월한 군사예술의 생동한 모범으로 된다.

수령님께서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여러차례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한 중요회의들을 지도하시는 사진들과 친필하신 보고원문들, 강원도 법동군 룡포리를 비롯한 전선일대의 인민군부대들과 병기공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들을 지도하시는 사진들과 사판들, 그이께서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지도하실 때 몸소 쓰시던 화식도구들과 식기들, 그이께서 전쟁의 불길속에서 구상하신 전후 공화국북반부의 웅대한 사회주의건설전망도 등 자료들은 수령님께서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당을 강화하고 인민들을 묶어세우시며 후방을 철벽으로 다지시고 천재적인 전략전술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계속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보여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함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그뿐아니라 세계 피압박, 피착취인민들에게 미제가 결코 불패의 적이 아니며 그와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미투쟁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필승불패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선 인민은 그 어떠한 원쑤들과도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조국해방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나라의 형편과 혁명의 전도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력사상 그 누구도 걸어가본적이 없는 독창적인 길—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개조할데 대한 농업협동화방침, 그리고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중첩되는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일으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공》 소동과 수정주의자들의 책동, 이에 발맞추어 나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악랄한 음모책동을 짓부시고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3개년계획을 2년 8개월에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완성을 위한 5개년인민경제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2년반, 현물지표별로는 4년동안에 넘쳐수행하였다. 그리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였다.

이 력사적인 빛나는 승리의 로정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가지가지의 자료들과 사적물들이 50호실로부터 61호실에 걸쳐 전시되여있다.

50호실로부터 52호실까지에는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전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고 몸소 공장과 농촌에 나가시여 복구건설에서도 미국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로동자들에게 백배, 천배의 용기를 북돋아주시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전후복구건설에로 조직령도하신데 대한 그리고 독창적인 사회주의농업협동화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신데 대한 력사적인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도록 조직령도하시였으며 내외원쑤들의 책동으로 하여 우리 당과 조선혁명이 일대 시련을 겪게되였을 때 몸소 강선의 눈길을 걸으시고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찾으시여 그들을 위대한 천리마운동에로, 조선을 철과 기계의 나라로, 온 나라를 크고 작은 공장의 수풀과 관개의 그물로 뒤덮는 위대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이 땅우에 류례없는 민족적대번영의 새시대를 마련하신 그이의 비범하신 령도력과 혁명적전개력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53호실부터 57호실까지의 방들에 전시되였다.

58호실부터 61호실에 이르는 방들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전통교양과 공산주의교양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그 빛나는 실현, 천리마운동을 심화발전시키신 천리마작업반운동, 대중지도의 위대한 사상이며 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 대하여서와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완성을 위한 5개년인민경제계획의 빛나는 실현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였다.

5개년계획이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이 승리적으로 실현되고 우리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전일적지배가 확립되였으며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가 축성되고 농촌경리도 공고한 생산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인민생활이 향상되고 모든 사람이 의식주에 대하여 근심걱정을 하지 않게 되였다.

전시된 자료들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켜 분진을 아껴가면서 이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신 수령님의 령도가 얼마나 현명하였고 정당하였는가를 똑똑히 증시하여준다.

자료들을 통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으시고 그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발동하여 혁명을 전진시키고 난관을 돌파하여나가는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주체사상을 혁명의 산무기로 삼으시여 아무리 복잡한 정황에서도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뚫어보시고 투쟁의 중심방향을 정확히 선정하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여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원숙한 령도예술과 비범한 예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혁명의 탁월한 전략가이시라는것을 가슴뜨겁게 보여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전면적기술개건의 시기

62호실부터 시작하여 18개방에 걸친 진렬실에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승리를 총화하시고 확립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조직령도하시여 빛나는 승리와 업적을 쌓아올린데 대한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있은 다음 곧 대회결정관철에로 우리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여 나가시였다.

진렬실들에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4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과 그이께서 친필하신 이 대회 보고초안, 그리고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과 공산주의건설의 강령을 밝히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등 그이의 불멸의 고전적로작들, 수령님께서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확립하시여 주체적립장에서 아직 그 누구도 해답을 주지 못하고있던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하나하나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신데 대한 빛나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새로운 사업체계를 창시하신후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발전하는 현실과 새로운 사업체계의 요구에 따라세우기 위한 대책을 취하시는 한편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이는 동시에 새 환경에 맞게 근로단체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취하시였다.

진렬실에는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력사적환경과 특히 우리 나라에서의 정세의 변화를 통찰하시고 1966년 10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를 소집하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원쑤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새로운 혁명로선을 내놓으시

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사업과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밀고나가시는 한편 전당과 전체 인민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신데 대한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 수행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은 불과 14년이란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자립적인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 철벽의 국방력과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민족문화를 가진 위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진렬실에는 또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부르신데 대한 자료들과 그리고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천재적리론과 전략전술을 집대성하고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한 그이의 천재적로작들,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후 새롭게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전시되였다.

전시된 자료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완전한 통일단결의 실현과 수령님의 혁명사상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진 우리의 혁명대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경제와 문화,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힘있게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그이께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에 위대한 공헌을 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긍지높이 보여준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부문

80호실부터 87호실까지의 방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정확한 방침, 이 전략전술적 방침에 의하여 남조선혁명이 점차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데 대하여 보여준다.

철천지 원쑤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인민들을 걱정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남조선동포들이 겪고있는 이 참경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결코 분렬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있고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이 외래침략자들에게 갖은 민족적 모욕과 천대를 다 받고있는 이 불행한 처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도 조선의 어느 량심있는 민족주의자도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44페지)

어느 한시도 남조선인민들을 잊지 않으시고 걱정하시며 남조선인민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며 고통받는 겨레를 구원하는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기시는 위대한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현명한 로선과 방침과 그를 높이 받들고 전후 첫시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 4.19봉기, 그리고 그 이후의 투쟁, 남조선에서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 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방침과 그 구현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의 창건과 당의 적극적인 활동,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자료들이 80호실부터 83호실에 이르는 방들에 전시되여있다.

84호실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흠모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김일성주의기치따라 앞으로!》라고 쓴 혈서의 프랑카드, 리승만괴뢰정권을 거꾸러뜨린 4.19인민봉기참가자들의 피묻은 옷과 머리띠,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이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리고 비밀지하공작장소에 모셨던 수령님의 초상화들, 어버이수령님의 로작들을 공부한 학습장들과 그이의 연설들을 록음하는데 쓴 록음테프들과 반도체라지오들, 남조선 한 녀성이 적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360일동안 정성담아 한뜸한뜸 《김일성원수님 만세!》라고 수놓은 축기…가지가지의 전시물과 자료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열렬한 흠모와 불타는 충성심을 감격적으로 보여준다.

85호실과 86호실에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총련일군들과 60만 재일동포들이 벌린 억센 투쟁모습과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과 흠모의 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우리 당 대외정책의 빛나는 구현부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불멸의 기여를 하신데 대하여 보여준다.

89호실부터 92호실까지에 이르는 방들에 전시된 자료들은 수령님께서 자주적인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시고 조선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하신데 대하여, 그리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세계혁명의 전략전술을 휘황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끝없는 흠모에 대하여 보여준다.

90여개의 방들에 전시된 사적물과 자료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걸어오신 투쟁의 반세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신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독창성, 어렵고 복잡한 투쟁행정에서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 우리 인민에 대한 그이의 무한한 사랑과 높은 공산주의적덕성을 가슴깊이 안겨준다.

조선혁명박물관은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과 혁명적교양의 전당으로서 우리 인민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어세우며 일편단심 수령님을 모시고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전사로 준비시키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금빛찬란한 수령님의 동상을 중심에 모신 대기념비가 세워진 이후 지난 1년간 이곳 충성의 만수대를 찾은 사람은 매일 평균 4천여명에 달하였다.

그들은 충성의 만수대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한평생을 바치시는 수령님을 하늘 땅의 끝까지 따르고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며 수령님의 그 은혜 길이길이 전하며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다할 굳은 맹세를 다지고 자기 초소로 돌아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펴주신 혁신의 봉화따라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4.25혁명정신》, 《기양의 기백》, 《만경대의 일본새》를 높이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혁신적 성과를 올림으로써 그 맹세를 훌륭히 실천하고있다.

1972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수많은 외국손님들이 또한 만수대의 대기념비를 참관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경험,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에 대하여 많은것을 배웠다고 하면서 이 혁명박물관은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다 적용되는 투쟁법칙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여준다고 강조하였다.

즉 아무리 작은 나라 인민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조국을 위하여 싸울 충분한 각오가 되여있을 때에는 어떠한 강한 원쑤도 능히 타승하고 최후승리를 달성할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실로 조선혁명박물관은 우리 인민뿐만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주체의 빛발로 투쟁의 길을 환히 밝혀주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힘을 안겨주는 주체사상의 전당, 혁명의 학교로서 거대한 역할을 하고있다.

주체의 기치밑에 조국광복의 원대한 전략구상의 실현을 위하여

장군님의 온성지구에로의 력사적인 진출

우리 나라 북쪽끝 두만강연안의 온성지구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1933년에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를 거느리시고 조국광복의 원대한 전략구상을 실현키 위하여 진출하시였던 력사의 땅이다.

주체사상의 전당 조선혁명박물관 13호실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3년 3월 조국땅 온성지구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승리의 유일한 길은 무장투쟁이라는것을 명시하시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으며 특히 국내혁명운동에 대한 지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해방을 누구에게 의탁하거나 구걸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반드시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달성하여야 합니다.》(《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 단행본, 4페지)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전략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온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북부국경지대가 항일무장투쟁의 확대발전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의 앙양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카륜, 고유수를 비롯한 중부만주일대의 농촌을 혁명화하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왕청현 석재마을까지 찾으시여 그 마을을 혁명화하도록 하시였을뿐만아니라 수많은 지하공작원들을 국내에 파견하시여 온성을 비롯한 두만강연안의 북부조선일대의 농촌을 혁명화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그 이듬해인 1931년봄에는 몸소 화룡현에 나가시여 수십일동안 묵으시며 농촌마을을 혁명화하시였다.

그리고 1931년 12월 명월구회의 이후에는 회의참가자들을 직접 국내에 파견하시여 반제동맹, 농민협회를 비롯한 대중단체를 조직하고 그 주위에 대중을 묶어세워 장차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기 위한 대중적지반을 꾸리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첫시기에도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와 정치공작원들을 온성을 비롯한 국내의 여러 곳에 파견하시여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꾸리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이에 기초하시여 수령님께서는 이일대를 반유격근거지로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며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곳으로 진출하시였다.

수령님의 조국 땅, 온성지구에로의 진출, 이것은 당시 혁명정세의 절박한 요구였다.

창건된지 불과 1년남짓한 기간에 조선인민혁명군은 도처에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군사정치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특히 항일혁명전쟁의 전략적기지인 유격근거지가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창설되고 이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이 급속히 확대발전되였으며 인민들의 혁명적진출도 더욱 강화되였다. 이에 당황망조한 일제는 방대한 침략무력을 조선인민혁명군과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 대한 《토벌》에 집중하는 한편 국경경비를 강화하며 인민들의 반일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을 그 요람기에 꺼버리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이러한 시기에 또한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이 명월구회의 방침을 외곡하여 유격근거지에 복잡한 사태를 조성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아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만원정을 끝마치고 유격근거지에 도착하시자 남만원정의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유격근거지에 조성된 복잡한 사태를 수습하는 어려운 투쟁을 조직지도하시는 한편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국내에서의 혁명투쟁을 강력히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전술적 계획을 짜시고 국내혁명조직들에 대한 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33년 3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부대를 친솔하시고 두만강연안 양수천자의 솔골에 이르시여 일제의 삼엄한 국경경비진을 돌파하기 위한 부대의 전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게 하신후 두만강을 건느시여 온성왕재산에 오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곳에서 온성일대의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을 만나시여 국내형편과 지하혁명조직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지하혁명조직들과 국내정치공작원들이 자기앞에 부과된 임무를 옳게 수행하도록 활동방향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언제나 존경하고 흠모하여 마지않던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를 조국땅에서 한자리에 모시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게 된 지하혁명조직대표들은 몸소 온성지구에까지 나오신 그이를 만

나뵈옵게 된 끝없는 영광과 감격으로 가슴을 불태웠으며 수령님께서 가르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다할것을 굳게 결의다지였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국에 진출하시여 국내혁명운동을 지도하신것은 조국광복에 대한 그이의 원대한 전략구상의 빛나는 실현이였으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진출을 위하여 만난을 헤쳐오신 그이의 혁명적전개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력사적인 왕재산회의

조국 땅, 온성지구에 진출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3월 11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는 국내정치공작원들과 국내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이 참가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왕재산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개시이후 1년간의 투쟁행정에서 이룩된 거대한 성과와 당시 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는것이 조선혁명의 가장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는것을 밝히시고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데 대한 총적인 전략적과업을 다시금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는 오직 조선인민의 주체적인 혁명무력으로 놈들이 의거하고 있는 반혁명무력을 격파함으로써만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가르치시고 무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기 위하여 두만강연안의 국경일대에 반유격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미 창설한 두만강연안의 유격근거지와 잇닿아있는 국내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근거지를 창설하여야 합니다.… 반유격근거지는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를 지원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 확대발전시키는 군사적거점으로, 후방기지로, 국내전역에서 혁명운동을 추진시켜나가는 혁명의 근거지로 될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 특히 완전유격근거지창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시여 주민들의 계급구성이 좋고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갖추고있는 온성지구를 비롯한 북부국경일대를 급속히 반유격근거지로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그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국내에 반유격근거지를 창설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국경연안일대에서 대소전투를 끊임없이 벌려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인민대중에게 무장투쟁의 강력한 혁명적영향을 주는 한편 정치공작원들이 유리한 산림지대에 밀영을 설치하고 그를 활동거점으로 각지에 지하혁명조직들을 내오고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 혁명화함으로써 적통치체계를 마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회의에서 국내에 창설되는 반유격근거지에 의거하여 당창건준비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전개할데 대한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 근거지들에 의거하여 국내깊이에서 당창건준비사업과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여 공산주의자들의 대오를 육성확대하고 그 주위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군중을 굳게 묶어세워 전민족을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꾸려야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축성하여 나갈수 있게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각계각층군중을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워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꾸려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현명한 방침이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회의에서 무장투쟁과 대중운동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길데 대한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이 전략전술적 방침은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과 전인민적항쟁의 결합으로 반혁명을 때려부실데 대한 전략사상을 구현하고있는 혁명적방침으로서 조선인민의 힘으로 일제를 끊임없이 약화시키고 놈들의 패망을 촉진시키게 하는 가장 정확한 방침이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끝으로 온성일대에서 활동하는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성원들에게 적의 요충지를 공격할수 있도록 정찰활동을 강화하며 조선인민혁명군과 유격근거지인민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할데 대한 당면과업들도 제시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모든 방침들은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움으로써 조성된 엄중한 난관을 타개하고 혁명정세를 주동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계속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이였으며 조국광복의 승리의 앞길을 밝혀준 전투적기치였다.

수령님께서는 왕재산회의이후 온성일대 지하혁명조직들에 대한 지도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제반조치들을 련이어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봄에 왕청회의를 소집하시고 정권문제와 근거지형태문제, 반일공동전선문제에서 나타난 좌경적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대책을 세우시고 사태를 바로잡아나가시였다.

국내진출이후 수령님께서 취하신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조치들은 발악하는 일제를 더욱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며 항일무장투쟁을 가일층 발전시킬수 있게 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 땅 온성지구에로의 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의 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그것은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는데 있으며 다음으로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려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가일층 발전시킬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수령님의 온성지구에로의 진출과 왕재산회의에서 내놓으신 모든 방침들에 관통되고있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사상은 아세아와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고무로 되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전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김일성동지현지지도사적지 (2)

백두산사적비

우리 인민은 1972년 8월 10일 백두산천지에 사적비를 세웠다. 비문은 다음과 같다.

이 나라 혁명의 뿌리 깊이 내리고
우리 당의 뿌리 소중히 간직한
백두산, 백두산, 조종의 산이여!
천지의 맑은 물로 총검을 갈아
강대한 두 제국주의 한칼에 쓸어눕히고
조선을 사회주의강국으로 높이 일떠세워
그 이름 온 세상에 떨쳐주신
강철의 명장 김일성장군님께서
1963년 8월 10일
여기 백두산 장군봉에 오르시였다
휘뿌리던 비구름 걷히고
맑은 아침의 나라 주체의 봉우리에
민족의 태양 온 누리에 빛을 뿌리여라
천지의 무지개 만경봉으로 비끼여가고
성스런 투쟁의 옛자취 감회깊이 더듬으시니
조선이 독립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압록강에 남긴 그날의 맹세 들려오는듯
통일된 삼천리 강토 그이께로 안겨오고
멀리 대륙의 산발들도 장군봉을 따라 나서니
백두의 정기 안으시고 주체의 기치 높이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이끄시는 수령님
그이로 하여 조선은 영광으로 빛나고
그이로 하여 인류의 미래는 찬란하여라
아,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혁명위업은
그대의 뫼뿌리와 함께 세기를 빛발치리니
혁명의 지맥 세계에 뻗치는 백두산성이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영생불멸의 업적을 무궁토록 빛내이리라!
해와 별과 더불어 길이길이 전하여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만경대혁명학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에서 희생된 혁명가의 유자녀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혁명투사로, 혁명의 후계자로 튼튼히 키워주고계신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업적과 높은 덕성을 따라배우며 대대손손 전하기 위하여 그이의 동상을 만경대혁명학원을 배경으로 하여 1948년 10월 12일에 정중히 모시였다.

수령님의 동상은 백포자락을 날리시면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해오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혁명을 종국적승리에로 인도하고계시는 숭엄하고 자애로운 모습을 형상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어린이들을 아동단학교와 소년중대에서 키워오신 수령님께서는 1947년 3월 24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만경대혁명학원(당시 평양혁명자유가족학원)을 창립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발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친히 학생모집위원회일군들을 부르시고 어디에 가면 어느 전투에서 희생된 누구누구의 아들들이 있으며 또 어디에 가면 지하공작에서 전사한 누구의 딸들이 있으니 꼭 찾아오라고 당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한 유서깊은 만경대의 언덕우에 학원자리를 친히 잡아주시였으며 유자녀들이 혁명선렬들의 뜻을 이어나가라고 몸소 보아주시던 학생복의 바지에 붉은 줄을 띠우게 하시였다.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새 민주조선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학원개원식에 나오시여 여기에 모인 친척들과 유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너희들의 부모들은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투사들이다.

그들은 지난날 나와 같이 백두산일대에서 총을 잡고 간악한 일제와 싸우다가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한채 애석하게도 희생되였다.

그들은 모두다 자기의 마지막 유언에서 앞으로 조국이 해방되면 자기들의 어린 자식들을 공부시켜 혁명가로 키워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 나는 그들의 이 유언을 언제나 잊지 않고 조국이 해방되면 학원을 세워서 혁명가의 자제들을 나라에서 공부시킬것을 생각해왔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과 인민정권은 학원을 세우게 되였다.

때문에 너희들은 부모들의 뜻을 이어 훌륭한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주 학원에 나오시여 유자녀들의 학습과 생활을 극진히 보살펴주시였으며 설명절이나 기념일이면 꼭꼭 나오시여 그들이 명일을 기쁘게 보내도록 친 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유자녀들은 언제나 자기들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부모들처럼 그이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튼튼히 준비하는데 모든 정력을 다하고있다.

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피심과 수령님께 충성다하려는 유자녀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은 붉은기학원의 영예를 지니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유자녀들에게 돌려주신 극진한 배려와 그들에게 심어주신 혁명의 불씨는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앞당겨나가는 조선인민의 가슴마다에서도 불타오르고있다.

마탄관개유래비!

(평양시 승호구역 봉도리)

우리 인민은 1972년 4월 25일에 평

양시 승호구역 봉도리에 마탄관개유래비를 세웠다. 비문은 다음과 같다.

감격도 새로워라 우리 농민들이 토지를 분여받아 제땅에서 농사를 지은 다음해인 1947년 4월 25일!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땅을 주시고 또다시 물에 대한 우리들의 세기적인 념원을 풀어주시려고 몸소 발기하신 여기 마탄관개공사장을 찾아주시였다.

장군님을 맞이한 인민들은 감격과 기쁨으로 가슴 들먹이며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더라

장군님께서는 로동자, 농민들의 흙묻은 손들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토지개혁을 하고 피조밥을 먹던 인민들에게 이밥을 먹게 하는것이 임무입니다.

동무들은 우리 나라 수리화의 선구자들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계속 자력으로 이 공사를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에게 신심과 투지를 안겨주시며 푹푹 빠지는 진창길도, 가파로운 비탈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공사현장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이 공사를 기어이 완수해야 한다고 고무하여 주신 수령님

마탄벌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앞산에 오르시여서는 한평의 논이라도 많이 풀도록 물길도 잡아주시고 양수장터전까지 정해주시며 관개공사도 남의 식만 따르지 말고 우리 나라에는 산이 많으니 지형조건에 맞게 물을 끌어올려 산을 넘겨야 한다고 독창적인 수리화의 길을 밝혀주시였다.

장군님의 이 위대한 사상, 어버이사랑의 빛발아래 《모래둔지》마탄땅이 옥토로 전변되고 유구한 세월 한곬으로 내려만 흐르던 대동강물줄기가 거침없이 산을 치달아 솟구쳐 오르는 수리화의 위대한 새력사가 펼쳐졌어라

아, 그때로부터 장군님께서 걸으신 수천수만리 농촌현지지도의 길을 따라 온 나라에 관개물줄기 그물처럼 뻗어나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관개의 나라》로 되였나니

여기 위대한 수리화의 첫력사가 펼쳐진 복받은 마탄땅에 비를 세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그 위대한 사상, 크나큰 은덕을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와 함께 영원히 빛내이며 만대를 두고 길이길이 전하리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현지지도사적비

(동창군 속사골)

우리 인민은 1972년 10월 21일 동창군 속사골에 현지지도사적비를 세웠다. 사적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온 나라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전쟁의 포화속에 잠겼던 1950년 10월

수천리전선과 후방을 돌아보시여 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전쟁승리의 결정적국면을 여실 위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이곳 속사골에 오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이곳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여시고 조선인민군의 정치사상의식을 더욱 높여 수적, 기술적 우세를 떠벌이던 원쑤 미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길 독창적인 전략을 펼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가르치시였다.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무기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전투의식, 사상의식이 높고 기술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특히 사상의식은 결정적의의를 가집니다.》

수령님께서는 손수 인민군대안에 당단체를 내오시고 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하도록 하시였으며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은 먼저 병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대내 당 정치사업의 방향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포화 울부짖는 전쟁의 나날에도 각급 군관학교들과 정치강습소들을 세우시고 수많은 정치군사일군들을 키우시여 전선에 보내주신 수령님

수령님의 위대한 령도따라 인민군대안에 당단체들이 조직되여 전투원들을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며 전승의 광장에로 이끌어갔나니

병사들은 오직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용맹과 불굴의 신념으로 보복의 총창 억세게 틀어잡고 원쑤를 무찔러 이 나라의 모든 전선, 모든 산악들을 침략자—미제의 비명 높은 상심령과 함정골로 만들었더라

아, 후방도, 정규군도 가지지 못했던 항일의 15성상 불굴의 혁명정신과 탁월한 령군술로 혁명대오를 이끄시여 강도 일제를 타승하신 만고의 령장 김일성원수님

수령님의 천재적인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조선인민군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적인 군사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일당백의 혁명대오로 믿음직하게 자라나 조국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간다.

전화의 나날 수령님께서 서리내린 느저령의 새벽길을 몸소 걸으시며 황금산을 펼쳐주신 영광의 땅 속사골에 오늘은 문화주택들이며 학교, 병원, 휴양소가 일떠섰고 산골농사 풍년드는 이 고장 그 어디에나 집짐승떼 무리지어 흐르거니

천만년 세월이 흐른들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은덕을 잊을수 있으랴

우리는 이 유서깊은 땅에 비를 세워 영웅적조선인민군을 일당백의 강철의 대오로 키워주시였고 이 고장에 천지개벽을 이룩하여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길이길이 전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현지지도사적비

(수풍발전소)

우리 인민은 1972년 10월 10일 수풍발전소에 현지지도사적비를 세웠다. 비문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는데서 전기공업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큽니다.…전기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중공업도 경공업도 농촌경리도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를 고도로 발전된 공업과 완전히 전기화된 부유하고 문화적인 농촌을 가진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기공업의 발전이 선차적으로 해결되여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의 한 복판에 그 모습 찬연히 아로 새겨진 대동력기지 수풍발전소!

여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우리 나라 전기화의 첫 봉화가 타오른 력사의 땅이다.

우리 당 창건의 첫돐을 맞이하던 감격의 그날 —1946년 10월 10일

일찌기 나라의 전기화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수령님께서는 산업의 심장이며 동맥인 전력공업을 앞세우시기 위하여 몸소 이

곳에 찾아오시였다.

지난날 수전공사판에서 일제의 갖은 수모와 천대를 받아오던 우리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초소에 서 있습니다. 수풍발전소는 우리 나라의 명맥이며 보배입니다.》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크나큰 영예와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며 나라의 전기화를 실현할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하여 해방된 조선의 동맥은 주체적인 전력공업의 새력사를 노래하며 힘차게 맥박쳤다.

온 나라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던 전쟁의 준엄한 나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전기가 있어야 전쟁승리도 앞당길수 있고 앞으로 이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고 하시며 전선에서 기술자들을 소환하여 보내주시였고 우리들을 전력증산의 거창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 주시였다.

전후 재더미우에 모든것을 새로일떠 세워야 했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수령님께서는 우리발전소의 복구개건사업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발전기를 비롯한 대형기계들을 보내주시였고 우수한 일군들로써 건설부대까지 무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건설현장에까지 찾아오시여 발전소건설은 나라의 만년대계이니 더잘 건설해야 한다고 거듭 일깨워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불멸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안겨주시였다.

수령님의 그 사랑, 그 믿음 안고 우리는 일편단심 충성다지며 령하 30도의 모진 추위에도 물속에 뛰여들어 복구공사를 다그쳤다.

나라의 부강발전을 구상하실때 전기를 먼저 생각하시였고 인민의 생활을 심려하실때 우리 발전소를 추켜세울 과업을 주신 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들은 얼마나 보람찬 투쟁의 길을 걸어왔던가!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크고작은 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발전소의 운전상태에 이르기까지 친히 알아보시며 우리들을 언제나 천리마대진군의 앞장세워주시고 이곳을 현대적인 대동력기지로 꾸려주시였거니

그이께서 가렬한 전쟁의 나날에도 고동을 멈추지 않은 1호, 2호 발전기를 《영웅발전기》라 불러주시고 발전기를 지켜 시한판도 서슴없이 안아낸 동무들이 보고싶어 왔다하시며 기름묻은 손을 뜨겁게 잡아주실때 우리 얼마나 감격에 목메였던가!

수풍발전소복구건설장은 우리의 큰 대학이라고 하시며 이곳에 주체의 간부양성기지를 꾸리시여 우리들을 나라의 어엿한 동력전사로 키워주신수령님

일제시기엔 판자집도 차례지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문화적인 살림집과 세상에 더없이 보람찬 새삶을 마련하여주시였고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친히 가정을 찾으시여 가마뚜껑까지 열어보시며 살림살이에 빈구석이 있을세라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어버이 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손길아래 언제는 조국의 억년 재부로 튼튼히 다져지고 수령님께 드리는 우리의 충성인양 전류는 아아한 산발을 넘어 기계소리 우람찬 공업지구로, 풍년노래 드높은 사회주의문화 농촌으로 끝없이 흘러 흐른다.

아,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아래 활짝 꽃피여 조국의 크나큰 힘이 되고 빛이 된 수풍발전소!

여기서 자라난 수많은 전기화초병들의 힘으로 오늘은 강계, 운봉, 서두수를 비롯하여 이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발전소들이 련이어 일떠서 나라의 경제와 국방을 반석으로 다지나니

이 땅우에 전기화의 찬란한 새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하고저 우리는 여기에 삼가 비를 세운다.

희천공작기계공장유래비

우리 인민은 1973년 4월 15일에 희천공작기계공장유래비를 세웠다. 비문은 다음과 같다.

여기 험준한 적유령산맥의 굳은 암맥을 뚫고 깊이 자리 잡은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불패의 요새 희천공작기계공장!

이 공장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발기에 의하여 태여난 어머니공장이며 우리 나라 공작기계공업의 첫 력사가 창조된 곳이다.

수령님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가렬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벌써 승리의 앞날을 내다 보시고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한 주체공업발전의 찬란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앞으로도 자기 나라의 혁명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자면 전쟁을 하고있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기계제작공업의 기지를 창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한 후 파괴된 인민경제를 급속히 복구하고 우리 나라를 공업국가로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강력한 주체공업을 건설하자면 기계공업의 핵심인 공작기계공업을 먼저 앞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력기지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한 이곳에 친히 그 터전을 잡아주시였다.

1953년 2월! 온 나라를 원쑤 미제격멸에로 조직동원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령님께서는 몸소 이곳을 찾으시여 지신리의 나지막한 토기와집에서 밤을 지새우시며 공장의 웅대한 발전전망을 밝혀주시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우리의 가슴속에 심어주시였다.

전후 모든것이 파괴되고 모든것이 모자라던 그 어려운 시기, 우리가 처음으로 설계도면도 없이 줄칼로 쓸어가며 맨 처음으로 만든 투박한 《1엠670형》선반,

수령님께서는 그 선반을 보배처럼 오래오래 만져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지금은 기술수준도 어리고 경험도 없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미제와 싸워 이긴 정신으로 이 공장을 훌륭한 공작기계들을 만들어내는 어머니공장으로 되게해야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그후 여러차례 우리들을 찾으시여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소극성을 짓부시고 나라의 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을 위해 1211고지용사들처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여

러가지 공작기계들을 만들어 나라의 공장들을 새로운 기술로 장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아,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량없는 믿음이여!

그 믿음앞에서 우리 어찌 그 어떤 기술의 요새인들 점령하지 못하랴!

《수령님의 요구가 곧 우리의 공칭능력이다》이 충성의 한 마음을 안고 보낸 불꽃튀는 창의 고안의 낮과 밤은 그 얼마였던가

그러기에 사람도, 공장도 몰라보게 달라진 1964년 4월, 어머니공장동무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하시며 우리를 찾아주신 수령님께서는 우리 힘, 우리 기술, 우리 자재로 만든 자동선을 보시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이런 기계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셨더라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주체공업의 위력을 더욱 빛내이며 우리 당 제5차대회의 결정관철에로 들끓던 1971년 2월!

그 언제나 기술혁명의 앞장에 희천로동계급을 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새 기술혁신의 위대한 봉화를 지펴주시고 공작기계 일만대고지점령의 장엄한 진군에로 우리를 불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은 충성과 기적을 창조하나니 수령님의 그 사랑, 그신임에 심장을 불태운 우리는 수령님의 교시관철에로 질풍같이 내달려 공작기계 일만대의 드높은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렸으며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넓은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우리들을 언제나 금싸라기처럼 귀중히 여기시여 배움의 전당 공장대학과 화려한 다층문화주택들을 세워주시고 현대적인 닭알공장까지 지어 우리들에게 푸짐한 식탁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

우리들을 찾으실 때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수령님의 끝없는 어버이사랑이여!

정녕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우리 기계전사들을 찾으시여 수천수만의 걸린 매듭을 손수 풀어주시고 우리들이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제힘으로 걸어나가도록 억세게 이끌어 주시였기에,

우리들에게 공산주의미래에로 가는 지름길을 밝혀주시고 전면적인 자동화의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앞장서 나갈 선발대의 가장 높은 영예를 안겨주셨기에,

오늘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우리 공장은 수천수만의 자동기계들과 국방설비들을 만드는 불패의 공작기계공업기지로, 기대가 기대, 공장이 공장을 새끼쳐 온 나라를 기계로 뒤덮는 어머니공장으로 되였거니,

아, 이 땅우에 주체공업의 찬연한 새력사를 펼쳐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높은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리라!

희천정밀기계공장유래비

우리 인민은 1973년 2월 25일 희천정밀기계공장유래비를 세웠다. 비문은 다음과 같다

맑고 푸른 청천강기슭에 이 나라 주체공업의 위용을 자랑하며 거창하게 일떠선 희천정밀기계공장!

우리 공장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태여났고 그이의 끊임없는 보살핌속에서 자력갱생의 공장으로, 믿음직한 정밀기계기지로 자라났다.

포성이 울려 일년, 모든 사람들이 오직 전쟁에 대해서만 생각하고있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벌써 승리한 조국땅우에 사회주의공업화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실 위대한 구상을 세우신 수령님께서는 1951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여시고 우리 공장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우리가 앞으로도 자기 나라의 혁명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자면 전쟁을 하고있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기계제작공업의 기지를 창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한 후 파괴된 인민경제를 급속히 복구하고 우리 나라를 공업국가로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전선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했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선과 온 나라 곳곳에서 수많은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을 부르시여 우리 공장에 보내주시였다.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로동자들과 기술자, 제대군인들이 얼마나 감격과 흥분에 차서 배낭을 지고 혹은 기계부속품들과 설비를 달구지에 싣고 포연 덮인 천리길을 헤치여 여기 깊은 산골짜기로 달려왔던가!

수령님께서는 우리 공장을 꾸려주시기 위하여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고도 1952년 9월, 1953년 2월첫걸음을 뗀 공장의 일을 념려하시여 친히 우리들을 찾아주시고 자그마한 성과를 높이 치하하여 주시였으며 온갖 정력과 힘을 기울여 맡겨진 전시생산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여 전쟁승리를 앞당기자고 고무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식당에 들리시여 우리들과 저녁상을 마주하시고 친어버이심정으로 우리 로동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으며 긴긴 겨울밤이 지새도록 등잔불을 돋구어가시며 공장의 휘황한 전망을 밝혀주시면서 앞으로 우리 공장이 기계를 낳고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어머니공장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과 지극하신 배려에 끝없이 고무된 우리들은 낮에 밤을 이어 지하에서도 자동차부속을 깎아 전쟁승리에 이바지하였다.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바쁘신 나날에도 여러차례 공장을 찾아주신 수령님께서는 매시기 우리 공장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면서 우리 기계전사들에게 공업화 초병의 영예로운 임무를 주시였으며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공장이 걸어온 력사를 감회깊이 회상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전쟁기간에 지하에서도 자동차부속품을 비롯한 각종 기계설비들을 많이 생산하여 전쟁의 력사적승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였습니까!》

《이 공장이 우리 나라 지하공장의 조상입니다. 이 공장을 잘 보존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우리들은 그 어떤 정밀기계도 척척 만들어내는 붉은 기계전사로 자라났거니

우리들을 위하여 희천땅을 공산주의 도시로 꾸려주신 수령님,

우리들에게 갖가지 과일과 신선한 물고기가 차례지도록 양어장과 과수원을 꾸려주신 수령님,

수령님께서 우리 기계전사들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크나큰 배려와 뜨거운 사랑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우리 공장을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떠받들고 나아갈 대정밀기계기지로 꾸려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여!

이 땅우에 기계화, 자동화의 빛나는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높은 은덕이여!

푸르른 청천강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하리!

비단섬유래비

(룡천군 비단섬)

우리 인민은 1972년 4월 15일에 비단섬유래비를 세웠다. 비문은 다음과 같다.

서해의 밀물에 잠기며 썰물에 씻기며 세월과 더불어 덧없이 흘러 그 몇천년! 얼마나 많은 류랑민들이 이 섬에 명줄을 걸고 보짐을 풀었다가 사람 못살데라고 한숨 쉬며 떠났던가

허나 오늘은 끝없이 푸른 갈바다를 자랑스레 펼쳐안고 사회주의제도를 노래하며 대섬유원료기지의 위용을 떨치고있거니 사람들이여! 이 섬에 깃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랑과 크나큰 은덕을 잊지말자!

목화를 많이 심을수 없는 우리 나라 실정에서 입는 문제를 화학섬유로 해결하여 헐벗고 살아온 우리 인민들에게 비단옷을 입히시려고 심려하여오신 어버이수령님

그이께서는 해방의 그날부터 수천년동안 버림받아오던 갈을 비단원료로 만드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시였다.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의 그 준엄한 시기에도 갈섬유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손수 뜰안에 갈을 키워보신 수령님

수령님께서는 과학자들과 여러차례 의논도 하시였으며 갈밭을 마련하시고저 서해의 거치른 간석지에 친히 조사대까지 보내주시였다.

이렇듯 섬유문제해결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수령님께서는 1956년 4월 우리도에 오시여 갈밭건설의 첫 걸음을 떼여주시였으며 1958년 6월에는 조국의 서북변 이름 없던 이 섬에까지 몸소 찾아오시여 황막한 간석지를 돌아보시면서 신도를 중심으로 간석지를 계단식으로 막고 신도와 마안도에 이르는 여러개의 섬을 하나로 이어 갈밭을 조성할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친히 대형준첩선, 운반선, 굴착기 등 수많은 기계들을 보내시여 갈밭건설을 공업화하여주시였고 갈재배의 기계화, 화학화를 위하여 극진한 배려와 끊임없는 지도를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66년 8월, 비바람 휘몰아치던 궂은 날, 사나운 풍랑을 헤치시며 또다시 이곳을 찾아주시였다.

몸소 진펄을 밟으시며 망원대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가없이 펼쳐진벌에 이 파도치는 푸른갈숲을 바라보시며 **《이것이 얼마나 좋은 재부입니까…갈은 우리 시대의 좋은 기념물입니다. 후대들이 이것을 넘겨받으면 동무들을 두고두고 이야기 할것입니다.》**라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힘과 고무를 주시였다.

실로 세인을 놀래울 대자연개조의 나날, 수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은덕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건설자들의 먹을 물까지 걱정하시여 압록강 맑은물을 끌어 수도를 놓도록 하여주실때, 비바람이 조금만 거칠어도 잠못드시고 깊은 밤 머나먼 평양에서 전화를 거시여 우리들의 건강을 념려하실때 그 사랑, 그 은덕에 우리 얼마나 목메여 흐느꼈던가!

아, 우리는 오직 한마음 충성으로 불탔거니 노호하는 격랑도, 울부짖는 눈보라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했더라!

섬도, 사람도 단숨에 삼킬듯한 사나운 밀물도 우리는 가슴으로 맞받으며 바다를 밀어내고 수백리억년드놀지않을 충성의 제방을 쌓아 수천정보의 갈밭을 마련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지난날엔 한모금의 마실 물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떠내리는 얼음장을 잡아야 했던 이 고장, 가난과 풍랑에 시달린 사람들의 원한의 한숨만이 높아가던 이 고장에 오늘은 학교, 병원 문화주택마을들이 줄지어 늘어섰고 마을마다 수도물이 샘솟아 오른다.

해빛 밝은 창가마다 아이들의 글소리 랑랑하고 아득히 뻗어간 동뚝길따라 행복에 넘친 길손을 태운 차들이 흥겹게 달린다.

아,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조국의 지도우에 전설처럼 솟아오른 《비단섬》! 친히 그이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신 영광의 땅이여! 섬이 넘쳐나게 설레이는 수천수만톤의 갈숲이 그대로 철따라 바꿔입는 인민의 비단옷감으로 되였거니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끝없는 보람과 행복을 온 세상에 자랑하며 여기에 비를 세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5호농장유래비

우리 인민은 5호농장유래비를 세웠다. 비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여! 우리의 머리우에 열린 저 푸른 하늘과 이 땅에서 자란 한 이삭의 밀, 한알의 감자를 무심히 보지말자!

아득히 백리에 파도치는 황금물결과 하늘땅에 울려퍼지는 뜨락또르, 수확기의 동음소리에 경탄하기전에 먼저 여기에 깃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잊지말자

여기 5호농장이 자리잡은 백두고원은 지난날 태고의 밀림이 수백리에 우거져 대낮에도 하늘이 그립고 산짐승 소리만 외롭던 고장이였다.

비바람과 더불어 덧없이 흘러간 세월 그 몇천년이였던가!

인민을 위하시고 후손들에게 더 큰 재부와 행복을 물려주시려는 어버이 수령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었나니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그 준엄한 나날 원쑤격멸의 작전을 세우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대자연개조의 척후대—과학조사단을 이곳에 파견하시였고 1952년 7월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의 선구자로 앞장서 나갈 대규모의 국영농장을 무어주시고 그 이름 《5호농장》이라 지어주시였다.

잊을수 없어라, 갓 태여난 우리 농장을 념려하시여 자동차와 수많은 농기계를 보내주신 수령님의 두터운 그 배려,

수많은 전재민들을 불비속에서 구원하시여 대자연개조의 초병의 영예를 주시고 많은 식량과 피복, 살림도구까지 빠짐없이 갖추어 보내주신 수령님의 뜨거운 그 손길,

하여 인류전쟁사에서 더없이 가렬하였던 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였고 가장 어려웠던 포화속에서도 위대한 창조의 력사를 마련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속에서 5호농장은 자랑찬 첫걸음을 내디디였다.

《우리는 미국놈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뿐만아니라 전쟁을 하면서도 3,500정보를 얻었고 1만 5,000여명의 전재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보시오. 우리는 전쟁에서도 이겼고 농업정책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땅을 탓하며 농장을 없애려는 종파분자들의 책동과 변덕스러운 고원의 날씨, 경험부족으로 농장의 존망문제가 경각에 이르렀을때 수령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의 수만가지 일을 밀어놓으시고 우리 농장을 추켜세워주시기 위하여 친히 험산준령을 넘고 넘으시여 우리들을 찾아주시였다.

1954년 7월 9일 감격의 그날

수령님께서는 먼길의 피로도 무실사이없이 그길로 보슬비를 맞으시며 신흥분장에 이르시여 손수 삽을 드시고 땅을 파헤치시였으며 온 고원의 토질을 헤아리시듯 지층의 성분을 살펴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이만하면 농사를 지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님께서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수 있을뿐만아니라 종합적인 기계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이때부터 농장은 큰 숨을 내쉬며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큰 걸음을 내디디였거니 그때로부터 우리들은 얼마나 영광에 찬 길을 달려왔던가

어느 농학자도, 어느 실농군도 알지 못하던 고산지대농사법의 비결을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기계로 농사를 지어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을 가르쳐주시고 우리 농장을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에서 선봉에 세워주시고 빛나는 승리에로 항상 인도하여 주신 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이처럼 사랑을 기울여주시고 이렇듯 온갖 배려를 돌려주시고도 우리들을 념려하시여 우리가 할수 있는 적은 일까지도 왜 자신께 직접 제기하여 해결받지 않았는가고 나무라시는 수령님,

그루채 뽑힌 하나의 나무뿌리를 보시고도 전재민들의 로고를 헤아리시며 그들의 손을 어루만져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

수령님의 뜨거운 손길아래 지난날 버림받던 이땅에 종합적대기계화농장이 생겨나고 오늘은 이땅이 나라의 중요한 알곡기지, 고기생산기지로 되여 기계와 농약으로 농사지으며 선참으로 공산주의로 가고있다.

열두삼천리벌이 부러우랴, 나무리벌이 부러우랴 비행기로 약을 뿌리며 농사짓는 세상, 스물셋 어린이들을 위해 분교까지 마련해주는 은혜로운 세상

한모금의 물이 그리워 삼십, 사십리 먼곳의 소홍단수물을 길러가던 일은 먼 이야기,

오늘은 문화주택이 줄지어 들어찬 분장마다 기술의무교육을 자랑하며 학교가 서고 진료소가 들어앉았다.

해마다 감자풍년, 밀풍년

종다리도 우리 농장의 밀밭이 좋아서인가, 봄이면 찾아와 노래하거니 산천도 머리숙여 수령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는 황금의 고원 5호대지여!

하늘에도, 바다에도 비길수 없는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이여, 뜨거운 사랑이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그 은덕, 그 사랑 5호대지와 더불어 무궁토록 영원히 빛나라

압록강관개유래비

(평북도 천마군 어궁로동자구)

우리 인민은 1972년 4월 15일 어궁로동자구에 압록강관개유래비를 세웠다. 비문은 다음과 같다.

해마다 봄과 여름이면 강바닥 허비는 용드레소리 사람들의 가슴을 치던 땅, 허리가 굽도록 퍼올린것은 물이아니라 이 고장 농민들의 피눈물이였다.

이 원한의 땅에 오늘은 어머니 젖줄기마냥 굽이치는 압록강관개의 맑은 물이 해마다 만고대풍을 노래하며 철철 넘쳐 흐르거니

사람들이여! 이 물길에 깃든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깊고깊은 사랑을 영원히 잊지말자!

《수리화는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서 기본으로 됩니다. 경지면적이 적고 논벼생산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해마다 심한 가물이 계속되고 여름철에는 또한 큰물이 자주 나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논과 밭에 관개체계를 세우고 큰물피해와 가물을 막는것은 단위당수확고를 높이며 농업생산을 높이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나라를 가물과 홍수를 모르는 《관개의 나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대자연개조사업을 몸소 조직지도하여오신 수령님께서는 서북지대의 넓고넓은 땅을 기름진 논밭으로 만들고 많은 새땅을 얻어 이 고장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려고 압록강관개를 진행할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시였다.

1958년 6월 평안북도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개조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지도를 펼쳐드시고 서북방지대의 무진장한 관개수의 원천을 찾아주시였으며 그 물줄기들을 모아 관개를 하자고 하시면서 그 이름을 친히 《압록강관개》라고 지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하루빨리 풀어주시기 위하여 평남관개와 어지돈관개 건설에서 위훈을 떨친 건설자들을 보내주시였고

물이 들어찰 자리와 물길이 열려야 할 방향이며 발전소의 터전을 하나하나 잡아주시였으니 실로 공사의 전기간에 걸쳐 수령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배려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건설자들의 살림과 그 자녀들의 장래를 념려하시여 가시는 곳마다 아담한 이동식문화주택들과 진료소, 학교들을 세워주신 어버이 수령님,

이토록 극진히 보살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여러 기계화부대를 보내주시여 힘든 로동을 덜어주시고 멀리 수도에서 대학교원들까지 보내시여 건설자—통신대학생들에게 이동강의까지 마련하여주신 수령님!

그이의 크나큰 사랑에 고무된 도내 농민들과 건설자들은 용기백배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박차며 산을 떠옮기고 강줄기를 돌리여 수십개의 잠관들과 륙십여리의 굴을 뚫어 연연 이천여리의 물길을 내였으며 여러곳에 발전소들과 삼천여개의 구조물들을 건설하였다.

하여 천마산의 비탈진 다락밭에서도, 개간된 바다가 간석지에서도 은혜로운 생명수가 출렁이며 철철 흘러넘치는 곳곳마다에서 농장원들은 물에 뛰여들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김일성원수님 만세!》를 목메여 웨쳤다.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대로 하나의 거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이룬 천마, 백마, 배봉, 대하 저수지들에서 굽이쳐 흘러내리는 푸른 물줄기는 천마, 피현, 의주군을 비롯한 산간지대들, 룡천, 염주, 동림, 선천, 곽산, 정주군들과 함께 서해안일대의 넓은 간석지까지 9만여정보의 논밭을 적시며 년년 황금파도 설레이는 풍년벌을 펼쳐놓았거니

아, 세월이 흘러도 이 감격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며 대대로 충성을 다한들 어버이 수령님의 높으신 그 은혜와 뜨거운 그 사랑에 어찌 다 보답할수 있으랴

우리는 여기에 삼가 비를 세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높으신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남포시 남산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진남포를 현대적인 공업도시로, 항구도시로, 문화휴양도시로 훌륭히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들과 남포시민들은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

은 덕성을 따라 배우며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1970년 5월 21일에 서해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다.

동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8년 5월 21일 몸소 찾아오시여 남포시가 나아갈 강령적교시를 주시던 현지지도의 모습을 형상하였다. 대좌우의 동상높이는 6.4메터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포시가 민주수도 평양의 관문도시이며 항구도시일뿐만아니라 산업도시이므로 더 아름답게 문화적으로 건설하여야 하겠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일제가 조선의 금은보화를 략탈해가던 진남포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현대적인 공업도시로, 서해의 무역항구도시로, 이름높은 문화휴양도시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포시의 웅대한 설계도를 보아주시면서 먼저 항구부터 건설한 다음에 평남통거리와 중앙거리를 형성하며 점차 유리거리방향으로 남포시건설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남포항을 찾으시고 하루속히 잡초가 무성한 갈탕밭을 파내여 현대적인 국제무역항으로 꾸리라 고무하시면서 전후의 그 어려운 나날에 많은 기술자들과 준설선들도 보내주시였다.

하여 항만건설자들은 미제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뿌린 폭탄도, 초생달마저 떠는 대동강반의 추위도, 쉴새없이 밀려드는 밀물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남포항을 건설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한 인민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급속히 장성하는 대외무역의 수요에 알맞게 항을 확장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고 친히 여러차례에 걸쳐 현지지도하시였다.

이에 고무된 항만건설자들은 발에 무쇠덩이를 달아매고 물속에 들어가 암반을 까내고 든든한 수직기둥을 세워 낡은 경사부두를 현대적인 수직부두로 개건하였다.

그전날 크지않은 배도 몇척 대지 못하던 남포항은 대형무역선들도 단번에 여러척 들이대고 수십대의 항만기중기들이며 문형기중기들로 짐을 싣고부리는 국제무역항으로 변모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항건설이 끝나기바쁘게 친히 키워오신 평양시의 한개 건설사업소를 이곳에 보내주시였으며 그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해양도시건물의 부업구조와 장식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그리하여 평남통거리, 중앙거리, 유리거리를 따라 탑식주택, 외랑식주택, 평천식주택들이 어긋맞게 일어섰으며 현대적인 가무극장과 영화관, 최신식 선원구락부와 선원식당들이 꾸려졌다.

어찌 그뿐이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와우도와 우산장을 찾으시고 시내근로자들이 휴식할수 있도록 대규모 유원지와 해수욕장을 꾸리도록 하시였으며 뻐스들도 보내주시였다.

수령님께서 꾸려주신 이름난 휴양소와 놀이터, 서해를 한품에 안은 수직부두와 하늘높이 일어선 기중기숲은 항구도시의 영원한 기념물로, 문화휴양도시의 기념물로서 대대손손 전해질것이다.

어린이들속에 계시는 김일성원수님

(개성학생소년궁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57년 8월 25일 개성시에서 제일 경치 좋은 모락재언덕우에 궁전의 자리를 잡아주시였고 개성학생소년궁전을 지덕체교양의 종합적학교로, 과외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원수님의 위대한 업적과 후대들에게 돌려주시는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며 대를 이어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1년 6월 6일 궁전을 배경으로 하여 그이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다.

동상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미래인 그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따뜻이 키워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어린이들속에 계시는 자애로운 모습을 형상하였다. 대좌우의 동상의 높이는 3.3메터이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일제에게 부모를 빼앗기고 대오를 찾아온 아이들로 친히 소년중대를 무으시고 혁명투사로 키워주신 어버이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미제와 리승만통치시기에 음산한 거리에서 굶주리며 헤매이던 개성해방지구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웅장한 궁전에서 마음껏 배우게 해주신 아버지원수님!

한장의 벽돌, 한그람의 세멘트도 천금같이 귀하던 전후의 그 어려운 나날에 어린이들을 위하여 개성에서 제일 크고 훌륭한 궁전을 세워주실 방향과 방도를 세워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전국이 달라붙어 궁전설비를 현대적으로 꾸려주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신 아버지원수님의 뜨거운 보살피심!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의 모든 재부와 우리가 생산하고 건설하는것이 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한것인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1960년 9월 22일에는 궁전의 교양시설들과 극장무대설비에 이르기까지 궁전건설일군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에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아버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모락재언덕우의 방대한 부지에 그 웅대한 모습을 시위하며 일떠선 개성학생소년궁전은 1961년 6월 6일 조선소년단창립 열다섯돐을 맞이하여 건립되였다.

궁전의 매층과 계단마다에 장식된 옥돌과 대리석, 극장의 700여석의 관람석과 250평방메터의 현대적무대, 영사실과 꼬마방송실, 수많은 소조실과 활동실의 설비들과 비품마다에 깃든 아버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어떻게 다 이야기 할수있으랴

아버지원수님께서는 1972년 9월 14일 개성시를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궁전을 맨 선참으로 찾으시고 궁전이 아담하고 깨끗하게 꾸려졌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학생소년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주는것이야 우선적으로 주어야지 아낄 필요가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반도체라지오와 수천벌의 무용복을 비롯한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원수님께서는 궁전활동을 통하여 청소년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크나큰 포부를 안겨주시고 탐구욕으로 더욱더 불타게 하여주신다.

정녕 지난날 아무리 배우고싶어도 돈없이는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하던 어린이들이 아버지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속에 안겨 제왕도 부러워할 대궁전에서 마음껏 배우게 되였으니 그 사랑, 그 은혜를 만척짜리 금탑을 세운다하여도 다는 새겨 넣지 못하리!

하여 개성학생소년궁전을 찾아오는 청소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해와 달이 다하도록 그이를 모시려는 결의에 불타고있다.

우리 나라 지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선은 문자 그대로 삼천리 금수강산이다. 산도 좋고 물도 맑다. 어느 곳, 어디서나 물의 물이 필요되지 않는다. 비옥한 토지에서는 기름진 오곡을 풍성하게 거둘수 있게 하며 동서해안의 무진장한 가지가지의 수산물과 가는곳마다에 매장된 금, 은, 동, 철, 석탄 등 모든 귀중한 자연부원들은 우리 인민들을 모두다 잘살수 있게 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

지리 우리 나라는 아세아대륙의 동쪽중앙부에서 북남으로 뻗은 조선반도와 그 둘레에 있는 3,30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북쪽끝은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북위 43° 00′ 36″)이고 남쪽끝은 제주도 남서쪽바다에 있는 마라도(북위 33° 06′ 40″)이다. 서쪽끝은 평안북도 룡천군의 비단섬서쪽에 있는 마안도(동경 124° 11′ 00″)이고 동쪽끝은 울릉도 남동쪽에 있는 독도 (동경 131° 52′ 33″)이다.

우리 나라는 위도상으로도 10°사이에 북남으로 길게 놓였기때문에 북쪽지방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으며 남쪽지방은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다.

동쪽끝과 서쪽끝의 경도의 차이는 7° 41′ 33″이고 우리 나라에서 시간은 약 135°자오선 지방표준시를 쓰고있다.

넓이 령토의 넓이는 22만 791km²이며 그 가운데서 섬들의 넓이는 5,963km²이다.

북남의 가장 긴 거리 (섬을 포함하지 않음)는 825km(자강도 중강군의 북쪽끝—전라남도 장흥반도의 남쪽끝)이며 동서의 가장 넓은 거리는 354km(황해남도 장산곶 서쪽끝—남강원도 양양군의 북쪽끝)이다. 섬을 포함한 북남의 가장 긴 거리는 약 1,100km이고 동서의 가장 넓은 거리는 약 620km이다.

경계 우리 나라는 조선동해와 조선서해, 조선남해로 둘러싸여있는 해양국가이다. 바다경계선의 길이는 8,693km이며 국경선 총 둘레의 87%를 차지한다. 륙지경계선의 길이는 약 1,376km이다.

땅생김 전령토의 75%가 산지이며 25%는 벌이다.

그러나 땅생김의 평균높이는 482m로서 세계륙지 평균 높이 875m의 약 절반 정도이다.

땅생김은 북부와 동부가 높고 서해안과 남해안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산지 높은 산지는 북쪽과 동쪽에 치우쳐있다.

산줄기들은 대체로 랑림산줄기와 태백산줄기를 등마루로 하여 여러 산줄기들이 갈라져 나간다.

랑림산줄기의 동쪽은 넓고 높은 고원을 이루고 있으며 고원의 북쪽에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2,750m)이 솟아있다.

백두산에서는 백두산줄기가 남동방향으 뻗어있으며 이 산줄기의 거의 중앙부에서 북동방향으로 함경산줄기, 남서방향으로 부전령산줄기가 뻗어있다.

가장 높고 험한 함경산줄기에는 2,000m이상의 산들이 수많이 솟아있으며 그중 가장 높은 관모봉은 2,541m로서 백두산 다음가는 높은 산이다. 이 함경산줄기와 부전령산줄기의 북서쪽에는 백무고원과 개마고원이 있다.

랑림산줄기 서쪽에는 남서방향으로 강남산줄기, 적유령산줄기가 뻗어있고 그 남쪽에 묘향산줄기, 북대봉산줄기들이 뻗어있다.

동해안을 따라 북남방향으로 뻗어있는 태백산줄기 서쪽에는 광주산줄기, 차령산줄기, 소백산줄기, 로령산줄기가 있으며 그 남쪽에는 경상산줄기가 뻗어있다.

태백산줄기에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금강산(1,638m)을 비롯하여 설악산(1,708m), 오대산(1,563m), 태백산(1,561m), 1211고지 등 이름난 산들이 솟아있어 아름답고도 장엄한 산악풍치를 이루고있다.

벌 우리 나라 령토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벌들은 주로 큰 강들의 중류 및 하류 류역과 바다가지대에 펼쳐져 있다.

중요한 벌은 조선서해안지대에 있는 룡천벌, 운전벌, 안주벌, 평양언덕벌, 재령벌, 연백벌, 김포벌, 평택벌, 내포벌, 례당벌, 호남벌, 전남벌 등이다. 조선동해기슭에는 수성벌, 길주벌, 함흥벌, 영흥벌이 있으며 조선남해기슭에는 진주벌과 김해벌이 있다.

벌가운데서 가장 큰것은 재령벌, 평양언덕벌, 호남벌이며 그 넓이는 각각 500km²정도이다.

바다 바다는 조선동해, 조선서해, 조선남해이다. 이 바다들은 모두 태평양과 잇닿아있다.

조선동해는 크고 깊으며 조선서해는 얕다. 작은 바다는 조선남해이다.

조선동해에는 호도반도, 경성만, 동조선만, 영일만, 울릉도, 마양도 등이 있다.

조선동해에는 북쪽에서 한류인 북조선해류가 남쪽으로 흐르며 남쪽에서 난류인 동조선해류가 북쪽으로 흐른다.

밀물과 썰물이 있으나 그 차이는 심하지 않다.

조선서해의 주요한 반도, 만, 섬은 철산반도, 옹진반도, 태안반도, 무안반도, 서조선만, 강화만, 신미도, 강화도, 안면도 등이다.

서해에는 구로시오에서 갈라져나온 난류인 서조선해류가 흐른다.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며 얕은 서해의 기슭에는 넓은 간석지가 펼쳐져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이 간석지들을 많이 일구어 농경지로, 갈밭과 소금생산기지로, 수산물양식장으로 널리 리용하고있다.

조선남해에는 해남반도, 제주도, 거제도, 남해도, 진도 등 큰 반도, 만, 섬들이 많아 세계적인 다도해를 이루고있다.

기후 우리 나라의 기후는 지리적 위치, 태양복사, 대기순환, 바다와 륙지의 영향, 땅생김등 여러가지의 기후형성조건들에 의하여 일련의 특성을 가진다.

우리 나라는 기후대상으로 북온대의 남쪽에 있음으로 비교적따뜻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철이 바뀌여지는 것이 뚜렷하다.

한해평균기온은 8~12°C로서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아주 적합하다.

우리 나라 기후는 반도국이지만 바다의 영향보다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겨울에는 몹시 춥고 여름에는 덥다.

또한 여름철과 겨울에 바람방향이 바뀌는 철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여름철에는 누기있고 훈훈한 남동풍이 불어와서 자주 구름이 끼며 날씨가 흐리고 무더워지며 겨울철에는 차고 마른 북서풍이 불어와서 춥고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

한해평균 바람의 속도는 전반적지역에서 약 2~3m 초로서 비교적약한 편이다.

봄철과 가을철은 철바람이 바뀌는 때로서 대체로 따뜻하며 개인 날씨가 계속된다.

기온 한해평균기온은 10°C이지만 (북쪽에서 4°C, 중부에서는 10°C, 남쪽바다가와 바다우의 섬들에서는 14°C) 가장 더운 달인 8월 평균기온은 24°C이고 가장 추운 달인 1월평균기온은 −6°C이다.

또한 남쪽바다가의 8월평균기온은 26°C이고 1월평균기온은 0°C인데 북쪽산지방에서는 8월평균기온이 16°C이고 1월평균기온은 −22°C나 된다. 바다가지방은 내륙지방보다 기온이 겨울에는 대체로 4~6°C가량 높고 여름에는 1~2°C가량 낮다.

가장 높은 기온은 1939년 7월의 39.8°C(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이며 가장 낮은 기온은 1933년 1월의 −43.6°C(자강도 중강)로 관측되였다.

강수량 한해강수량은 1,000mm이다.

눈은 북부산지에서는 10월하순부터 다음해 4월까지, 기타 지방에서는 11월중순부터 다음해 3월까지 사이에 내린다. 비는 어느 지방이나 6월부터 8월까지의 3개월간 년총강수량의 50~60%가 내린다.

년총강수량은 대부분지역에서 800~1,000mm내외이다.

한해 강수량이 많은 지방은 남쪽바다가지방(1,400~1,500mm), 중부지방의 마식령산줄기와 광주산줄기 사이에 있는 지방 (1,300~1,400mm)과 북쪽에 있는 적유령산줄기 남쪽지방 등이다.

강수량이 적은 지방은 함경북도의 북쪽지방 (500mm)과 바다가지방 (700m),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바다가 지방(800mm)이다.

강수량이 제일 많은 기록은 1954년 강원도 장전의 3,150.3mm였으며 제일 적은 기록은 1924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의 208.5mm였다.

강 강은 전체적으로 서해, 동해, 남해의 비탈면으로 각각 흐르는 강들로 나눈다. 서해비탈면과 남해비탈면으로는 랑림산줄기와 강남산줄기가 동쪽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점차 낮아지고있음으로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한강, 금강, 섬진강, 락동강 등 큰 강들이 흐르며 동해비탈면으로는 산줄기들이 바다가에 급하게 비탈져있음으로 두만강과 성천강을 내놓고는 모두 짧은 강이 흐르고있다.

우리 나라 10대강으로는 압록강(821km), 락동강(525km), 두만강(520km), 한강(514km), 대동강(439km), 금강(401km), 림진강(254km), 섬진강(212km), 청천강(199km), 례성강(192km)등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의 강들은 수력발전, 농촌경리의 수리화, 수상운수 등 여러모로 리용되고있다.

호수 천지와 광포, 장연호를 비롯한 수많은 자연호수들과 수풍호, 장진호, 운봉호, 부전호, 독로강호, 연풍호, 서흥호, 장수저수지, 주암저수지, 태성호를 비롯한 많은 인공호들이 있다.

이 자연호와 인공호들은 관개, 수상운수, 물고기기르기, 수력발전 및 휴식터로 리용되고있다.

온천과 약수 우리 나라에는 온천과 약수가 매우 많다. 그 가운데서 널리 알려져있는것은 함경북도의 주을온천 (경성군), 평안남도의 룡강온천(온천군), 양덕온천(양덕군), 황해남도의 신천온천(신천군), 충청남도의 온양온천(아산군), 경상남도 밀양온천, 부산시 동래와 해운대온천이며 약수로는 강원도의 삼방약수(세포군), 평안남도의 강서약수(강서군), 평안북도의 옥호동약수(선천군), 창성약수, 충청북도 초정약수 등이다.

자연부원 북남으로 길게 놓여있는 지리적특성은 기후가 다양하고 랑림산과 지질이 복잡한것과 결합되여 우리 나라의 자연계를 더욱 다종다양케 하며 또 그것을 풍부케 하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령토로 보나 인구로 보나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며 자원도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석탄과 쇠돌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하자원과 울창한 산림, 기름진 농토, 넓은 어장과 같은 풍부한 자원은 부강한 나라를 세우기에 아무런 부족도 없는것입니다.》(《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1권, 73페지)

지하자원 우리 나라는 지하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한것으로 세계에 유명하다. 지하자원은 지금까지 알려진것만 하여도 300여종이 넘으며 그 가운데서 유용광물만 하여도 200종이나 된다.

특히 석탄, 철, 연, 아연, 흑연(세계 제1위), 금, 동, 마그네사이트(세계 제1위), 월프람 등은 그 량이 많고 질이 좋은것으로 세계에서 손꼽힌다.

산림자원 우리 나라 산림의 넓이는 전령토의 73%이며 그 가운데서 약 60%는 북반부에 있다.

우리 나라 산림식물종수는 1,100여종이며 그 가운데서 교목만 하여도 침엽수가 19종, 활엽수가 136종이나 된다. 우리 나라의 산림에는 700여종의 약용식물, 200여종의 산채류, 450여종의 공업용식물 등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유용한 식물이 풍부하다.

동물자원 우리 나라에는 옛날부터 여러가지 동물들이 많이 살고있다. 척추동물만 하여도 1,000여종이나 되며 그 가운데서 100여종은 우리 나라에서만 볼수있는 특산종이다.

동물들중에는 우리에게 좋은 털과 가죽, 고기와 귀중한 약재를 준다. 또한 벌레와 쥐를 잡아먹음으로써 산림을 보호해준다. 특히 뻐꾹이는 한시간에 100마리의 송충을 잡아먹으며 부엉이 한마리는 1년에 1,000마리의 쥐를 잡아먹는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리로운 동물들을 적극 보호 증식시키기 위하여 《자연보호구》와 《림시보호구》를 정해놓고 관리함으로써 우리 나라 동물자원은 날마다 늘어나고있다.

수력자원 우리 나라는 수력자원이 세계적으로 풍부한 나라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1,000만kw이상의 수력자원을 가지고있다. 수력자원이 많은 지역은 압록강 류역과 두만강 류역이다.

수산자원 조선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사귀는 지역이므로 한류성물고기들과 난류성물고기들이 모여오는 세계 4대어장의 일부에 속한다.

우리 나라의 수산자원은 물고기만 하여도 650여종이나 되며 그 가운데 530여종은 바다에, 120여종은 호수, 저수지, 하천 등에 분포되여있다.

우리 나라 력사

우리 인민은 아득히 먼 옛날부터 이 땅에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왔다.

우리 나라 구석기시대의 전기유적으로서 수십만년전의것인 평양시상원군 검은모루유적과 구석기시대의 중기에 속하는 굴포문화 제2기층의 자료들은 우리 조상들의 시원과 생활을 명확히 반영하여주고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구석기시대에서 벗어나 신석기시대로 들어온것은 기원전 5천년경이였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벌써 원시무리의 생활로부터 벗어나 원시공동체를 무어 생활하였다.

기원전 2천년대에 우리 조상들은 청동기를 발견하여 썼으며 기원전 천년대에는 철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원시공동체사회는 붕괴되고 노예소유국가로서 첫 고대국가인 고조선이 기원전 8~7세기 이전에 조선반도의 서북지방과 북쪽으로는 료하류역에 이르는 지역에 형성되였다.

고조선보다 몇세기 늦어서 형성된 고대국가는 송화강류역의 넓은 평야지대에 자리잡은 부여였다.

부여는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농업과 목축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발전한 나라로서 기원초에 봉건국가 고구려에 의하여 통합되였다.

또하나의 고대국가는 부여보다 1~2세기 늦어서 조선반도의 중부이남에 자리잡은 진국이며 주되는 생업은 농업이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고대국가들의 종말과 봉건국가들의 성립은 대체로 기원전후시기이다.

기원전 1세기에 압록강의 지류 동가강류역에 자리잡은 5개의 강력한 봉건세력들의 련합으로 고구려가, 기원1세기경에는 한강류역 즉 오늘의 광주를 중심으로 하여 5개의 봉건세력들의 련합으로 백제가, 2세기경에는 오늘의 경주(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6개의 봉건세력들의 련합으로 신라가 각각 형성되였다.

이 세나라는 7세기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다.

기원전후시기 봉건국가의 형성과정이 진행되였을 때 료하류역으로부터 반도의 남단에 이르기까지에는 수많은 봉건《소국》들이 있었다.

세나라도 각각 처음에는 그러한 《소국》들 가운데의 하나였으며 그 발전과정에서 이웃의 《소국》들을 많이 정복통합하였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 사이(오늘의 락동강연안)에 자리잡고 있었던 6개의 가야(가락)국들은 6세기전반기까지 존속하였다.

고구려는 국민들속에서 말을 잘타고 활을 잘쏘는 상무의 기풍이 지배하였다. 고구려의 군대와 인민들은 수차에 걸쳐 침략하여온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쳤으며 특히 명장 을지문덕의 지휘아래 수백만의 수나라 침략군의 주력을 청천강에서 격파하고 외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였다.

신라는 660년에 백제를 통합하고 668년에 고구려 멸망후 그 남쪽지역을 통합하였다.

고구려의 북부지역인 료하, 송화강 이남은 한때 당나라 침략군대에 의하여 강점되고 있었으나 7세기말에 이르러 고구려귀족들이 침략군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리용하여 발해라는 봉건국가를 세웠다. 발해봉건국가는 고구려의 계승자로서 한때는 광대한 령역과 비교적발전된 봉건문화를 가진 나라로 약 2세기동안 존속하였다.

당시 봉건국가들은 농업을 주되는 생업으로 하였으며 목축도 당시로서는 발전된 수준에 있었다.

고대국가들의 과학, 문화를 이어 받은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등의 나라들이 당시로서 매우 발전된것으로 자랑한것은 천문학과 건축술, 그림, 공예를 비롯한 문화이다.

특히 오늘까지 남아있는 고구려의 벽화무덤들과 신라의 첨성대는 비록 당시 봉건귀족들에게 복무하기는 하였으나 거기에는 우리 인민들의 과학적 창조력과 슬기로운 예술적재능이 반영되여있다.

통합신라는 9세기말 10세기초에 이르러 지방봉건세력들 서로의 충돌과 대규모의 농민폭동으로 말미암아 매우 약화되였다.

이러한 기회를 리용하여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중앙집권적인 봉건국가를 세운것은 918년 개경(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세력인 고려였다. 고려왕조는 935년에 신라왕조를 통합하고 그 이듬해에는 그의 가장 큰 적수였던 후백제를 정복하고 조선반도를 통합하였으며 이 시기 거란족에 의하여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였다.

고려는 10세기이후 봉건적중앙집권국가로서 강화되여갔다. 고려는 1392년 리조에 의하여 멸망할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외래침략자들과 싸웠다.

고려인민은 거란침략자들이 10세기말 11세기초 30여년에 걸쳐 여러번 침략하여왔으나 매번 이를 물리쳤으며 특히 그 마지막 침략인 1018~1019년 전쟁에서 강감찬의 지휘아래 놈들에게 호된 징벌을 가하였다.

고려는 당시 매우 우수한 봉건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고려인민이 창조한 문화가운데서 특히 자랑할것은 우아한 고려자기와 12세기경에 세계인쇄문화력사상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한것이다. 이는 구라파에서보다 200여년이나 앞선것으로서 인류문화의 공동적보고에 커다란 기여를 한것으로 된다. 뿐만아니라 당시 문학, 예술분야에서도 일정한 전진이 있었다. 이와 같은 훌륭한 문화는 봉건통치배들에게 독점되였다. 13세기 봉건몽골침략군과의 싸움에서도 애국심을 발휘하여 독립을 지켜냈다.

고려인민은 12세기후반기 이후에는 대규모의 농민폭동으로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고려에 교체한 리조(리씨왕조의 준말, 정식이름은 《조선》)는 15세기초 오늘의 서울에 자리잡은후 중앙집권적 봉건국가의 체계를 강화하였다.

이 시기에 함경도를 휩쓴 농민폭동이 일어났다.

리왕조가 성립된 초기에는 봉건문화가 일정하게 발전하였다. 우리 글자 《훈민정음》의 창제와 세계 최초의 측우기가 발명된것도 이 시기였다.

16세기말에 이르러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1592~1598년에 걸친 반제침략전쟁에서 리순신장군의 지휘밑에 다른 나라에서 만들지 못한 거북선을 만들어 바다우에서 용감히

싸움으로써 일본침략자들에게 응당한 징벌을 주었으며 독립과 영예를 고수하였다.

7년간에 걸친 임진조국전쟁에서 파괴는 심하였으나 전후 근면한 우리 인민은 봉건적질곡아래에서도 생산을 회복하였다.

17세기 후반기부터는 상품—화폐관계가 장성하였고 18세기 이후에는 광산과 일부 수공업부문들에서 자본주의적생산관계의 요소들이 발생하였다.

자본주의적요소가 발생발전하던 시기에 일부 량반지식분자들속에서 당시 조건에서 선진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학풍 실학이 대두하였다.

18세기 이후 특히 19세기에 들어와서 리조봉건체계는 더욱 부패타락하였다.

고대, 중세의 전기간을 통하여 압제자를 반대하여 투쟁을 멈춘일이 없었던 우리 인민들은 부패타락한 봉건통치배들과 이와 결탁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조선인민의 근대력사는 19세기 60년대 미제침략자들을 비롯한 구미자본주의렬강들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오래동안 우리 나라의 사회발전을 억제하던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반침략반봉건투쟁으로서 시작되였다.

조선인민은 1866년 대동강을 따라 평양근방에까지 침입한 미국의 해적선 《샤만호》를 불태워버림으로써 근대사의 첫페지를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 이때 인민들의 투쟁의 앞장에 서시여 용감히 싸우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같은해인 1866년에 프랑스함대, 1871년 미국함대의 침입을 물리쳤으며 1875년 일본해적선 《운양호》가 서울의 문어구인 강화도에 침입하여 날강도적인 해적행위를 감행하는것을 성과적으로 격퇴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만행의 후과에 대한 《책임》을 도리여 조선봉건정부에 들씌우고 1876년에 리조봉건통치배들을 무력으로 위압하면서 제놈들의 공사 및 령사주둔권, 치외법권, 자유무역권, 연해측량권, 등을 마음대로 행사하기 위한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압체결하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는 일본침략자들의 반(半)식민지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강화됨에 따라 일본군국주의침략자들과 그에 아부굴종하던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1882년(임오)군인폭동과 인천을 비롯하여 경상, 전라, 경기, 함경도 등 각지인민들의 반침략반봉건투쟁이 더욱 강화되였다.

1884년 김옥균을 중심으로한 개화파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첫 부르죠아혁명은 외래침략자들 및 그와 결탁한 반동적봉건통치배들의 탄압과 운동지도자들의 사회정치적제약성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다.

19세기말 20세기초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부추김을 받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되자 조선인민의 반제반봉건투쟁은 대중적성격을 띠고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894년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구호밑에 전라도를 비롯한 조선남부의 넓은 지역을 휩쓴 대규모적인 농민전쟁이 일어났다.

이 농민전쟁은 일제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우리 나라 사회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재정, 군사, 정치적 원조밑에 1894년~1895년 청일전쟁에서 이길수 있었고 1904~1905년 로일전쟁당시 미국과의 《가쯔라타프트》협정에서 조선강점의 적극적인 부추김을 받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1905년 11월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무력을 동원하여 강압적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봉건통치배들에게 《을사보호조약》을, 1907년에는 《정미7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빼앗아냈으며 1910년에는 《한일합병》조약을 강압체결하였고 우리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독점적식민지로 강점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떨어지게된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국내외 각지에서 각종형태의 투쟁을 벌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10년 망국당시를 전후한 시기의 조선인민의 반일해방투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910년 망국당시를 전후하여 근 10년동안이나 계속된 반일의병운동은 일본강도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비록 원쑤들의 야만적탄압으로 인하여 의병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지마는 조선민족의 반일무장투쟁은 계속되였고 나중에는 만주에서 독립군운동으로 전개되였습니다. 망국후 10년동안에 국내에서는 적의 폭정하에서 비밀결사와 애국문화운동 등으로, 국외에서는 혁명단체들의 조직 또는 반일무장투쟁으로 민족해방운동은 끊임없이 전개되였습니다.》(《김일성선집》 1권, 1963년판, 146페지)

1919년 전민족적인 3.1봉기가 일어났다.

이 모든 각종 형태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조선인민의 애국적투지와 혁명적정력을 시위하고 일제강점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나 부르죠아민족주의의 계급적 및 정치적 제약성으로 인하여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로동계급이 자라나 투쟁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맑스-레닌주의사상이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더욱 앙양되였다.

이러한 토대에 기초하여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였다. 조선공산당의 창건은 로동운동과 농민운동,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탄압과 종파분자들의 파괴책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창건된지 3년만에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다.

일제 강점후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이 많은 결함과 부족점을 나타내면서 실패와 곡절을 겪고 있을 때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께서 조선민족을 새 력사의 려명에로 이끌어주시였다.

선생께서는 1917년 3월 23일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조선독립을 자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철저한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조직하시고 반일운동의 지도적중심에 서시여 혁명활동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께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길을 개척하시면서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전생애를 바치시였다.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 일제의 파쑈적폭압은 전례없이 심하여졌으며 합법적투쟁의 온갖 가능성이 말살되였다.

그러나 로동자, 농민들은 일제의 폭력적탄압에 항거하는 폭력적투쟁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맑스-레닌주의 혁명로선과 전략전술로서 확고한 승리에로 인도할 탁월한 수령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님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정세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통찰하시고 우리 인민을 확고한 승리의 길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26년 가을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은 ㅌ. ㄷ)을 결성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초기혁명활동과정에 조선혁명의 지도리론을 세우시였으며 확고한 혁명적원칙성과 불굴의 의지, 능숙한 조직력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높은 령도예술을 지니시고 위대한 령도자로 성장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에 카륜에서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일대전환을 이루는 새로운 력사적단계를 열어놓으시였다.

1932년 4월 25일 민족군대의 토대도 없고 국가적인 후방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조선혁명의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심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의 혁명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인 위대한 력사적사변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이때로부터 조선인민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혁명무력을 가지고 조국의 광복과 자유와 해방을 위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에 나서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에 들어섰다.

항일무장투쟁은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가장 적극적인 인민대중의 다른 모든 형태의 투쟁을 강력히 고무추동하는 가장 위력있는 투쟁형태로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확고한 중심을 이루었다.

항일무장투쟁은 로동계급과 농민대중의 근본리익과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망을 전면적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민족해방의 과업과 사회혁명의 과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위대한 투쟁으로서 전체 인민에게 희망과 혁명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거족적인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시여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키였으며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확고히 조직령도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5성상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조건에서 조선인민의 불굴의 투지와 혁명적전개력을 발휘하여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그 류례가 없는 간고한 투쟁을 벌려 강도일본제국주의자들을 때려눕히고 근 40여년에 걸친 일제통치기반에서 해방하는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혁명전통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전략전술과 고매한 덕성,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원칙성,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이 구현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사상체계와 투쟁정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투쟁경험과 투쟁업적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가장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며 조선혁명의 튼튼한 밑천이며 뿌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조선인민의 민족적숙망인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이 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지상락원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마침내 근 반세기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며 조선인민앞에는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조선 건설의 휘황한 앞길이 열려지게 되였습니다.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이 성취됨으로써 이제 우리앞에는 새로운 투쟁과업이 나서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성과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을 계속 앞으로 전진시켜야 하며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단행본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따라 조선인민은 조국의 새 력사를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어렵고 복잡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공산주의대오를 급속히 정비하고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통일적인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북반부에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으시고 그를 실현함으로써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의 길을 개척하여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1945년 10월 10일 진정한 맑스-레닌주의당인 조선공산당을 창건하시고 그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당의 인전대인 근로단체들을 조직하기 위한 사업과 민주주의정당들과의 행동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조직지도하심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을 창건하고 혁명력량을 꾸리시는 한편 우리 인민을 령도하시여 일제의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시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1946년 2월 8일 새형의 정권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심으로써 혁명에서 기본문제인 주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인민정권을 령도하시여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하여 로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 사법 및 교육의 민주화 등 제반민주주의적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반부에서 제반민주개혁과 민주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면서 우리 나라 정치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1946년 8월 공산당을 신민당과 합당하여 강력한 대중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시키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시였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해방후 한두해밖에 안되는 동안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이 승리적으로 완수된 결과 새로운 사회경제관계가 이루어지고 인민민주주의제도가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조국통일의 믿음직한 담보인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적민주혁명의 과업은 완전히 수행되였으며 북반부인민들은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점차적으로 들어서게 되였다.》(《김일성저작선집》 1권, 482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과도기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력사적인 첫 민주선거를 실시하시고 이에 기초하시여 1947년 2월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하시였으며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기 위한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을 발기하시고 그를 경제건설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도기 첫시기 당의 경제정책과 경제건설의 방향에 대하여 밝혀주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우선 1947년도 및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였다.

한편 제국주의와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확고히 자기의 무력으로 튼튼히 보위하며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군사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리시면서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며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을 당면한 최대의 민족적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조선인민을 조직동원하시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강화하면서 남조선에 단독적인 괴뢰《정부》를 조작함으로써 조선에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악랄한 목적을 추구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더욱 로골화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짓부시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며 통일적중앙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로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시였다.

그리하여 1948년 8월에 전체 조선인민의 정치적열의속에 진행된 남북조선총선거에 기초하여 그해 9월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였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공화국정권은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1949—1950년 2개년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그 수행에로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여 1950년 상반기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완수하였다. 결과 인민경제는 전반적으로 복구되였으며 일련의 생산부문은 해방전 수준을 넘어섰다.

한편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부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일련의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1948년에 남조선에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끊임없는 군사적도발로 대답하였으며 1950년 6월 25일 드디여 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여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침략무력은 물론 15개추종국가 군대들과 리승만괴뢰군,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동원하여 방대한 병력으로 일찌기 전쟁력사상 그례를 볼수없는 야만적인 전쟁방법과 수단을 다 써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덤벼들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의 전령토를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수행을 위한 공격기지로, 보급기지로 제공하였으며 군사인원과 선박들, 특히 악명 높은 세균전쟁전문가들까지 조선전쟁에 동원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이 개시되자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시였으며 당과 정부와 군대, 전선과 후방의 모든 사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체 조선인민을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며 후방을 공고화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령도하시였으며 전쟁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천재적이며 독창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세우시고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를 전쟁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전략전술적방침과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장병들은 남부지역을 해방하는 반공격과 일시적인 전략적후퇴, 재진격과 진지방어의 가렬한 전투의 나날에 언제나 승리의 신심 드높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원쑤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워 적들이 호언장담하던 1950년말의 《크리스마스총공세》도, 1951년의 《하기 및 추기 공세》도, 1953년초의 《신공세》기도도 모조리 물리치고 미제에게 만회할수 없는 군사정치적패배를 안기였다.

한편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후방공고화방침을 받들고 후방의 전체 인민들은 전쟁의 전기간 적들의 야만적폭격속에서도 전시생산과 전선원호사업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는 적후에서 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도처에서 원쑤들을 족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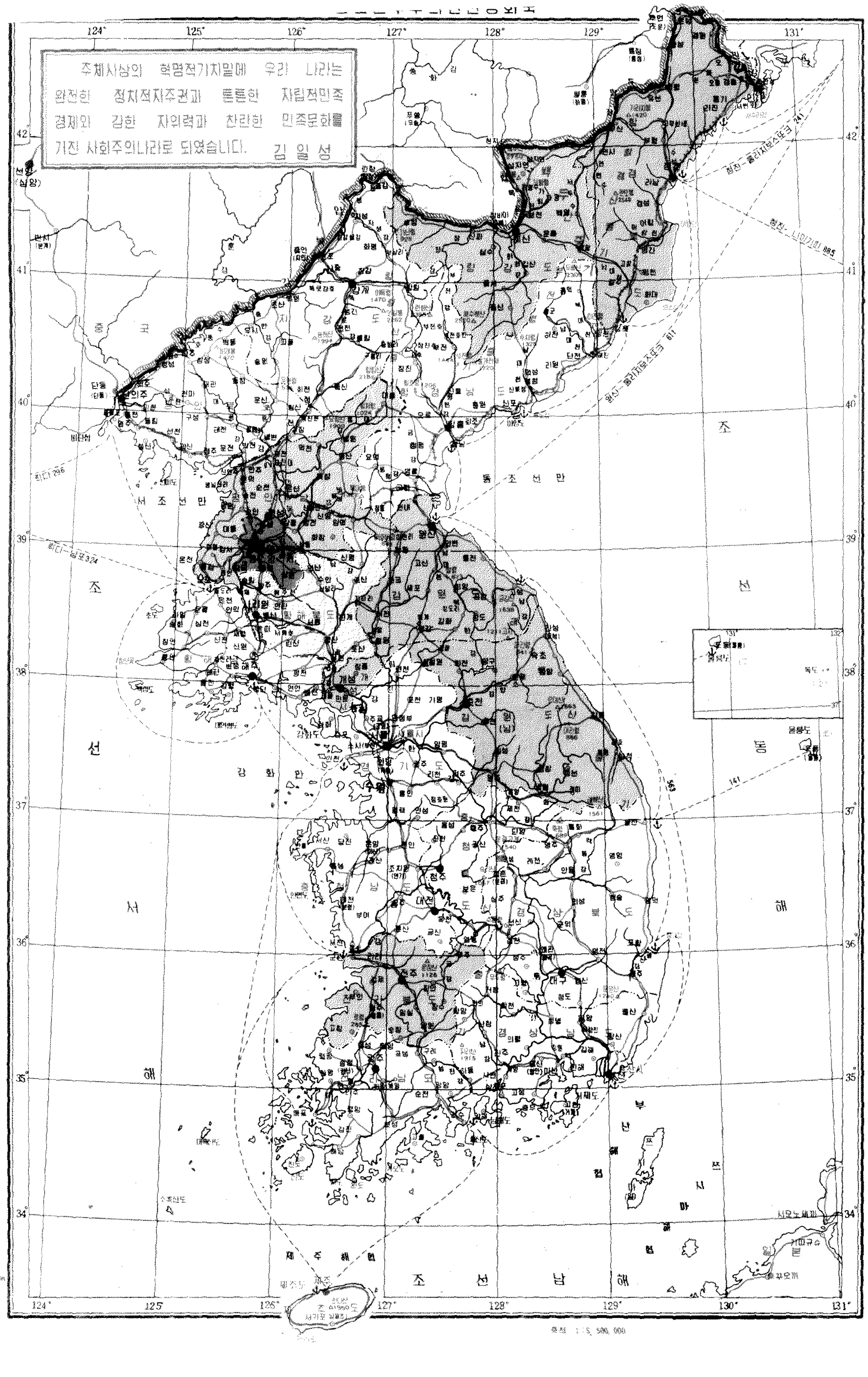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과 인민군은 3년여에 걸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를 주고 39만 7,000여명의 미제침략군을 포함한 109만 3,800여명의 적을 살상포로하였으며 1만 2,200여대의 비행기와 250여척의 각종 함선을 비롯한 막대한 전투기술기재에 손실을 주었다.

1953년 7월 27일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탁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승리로써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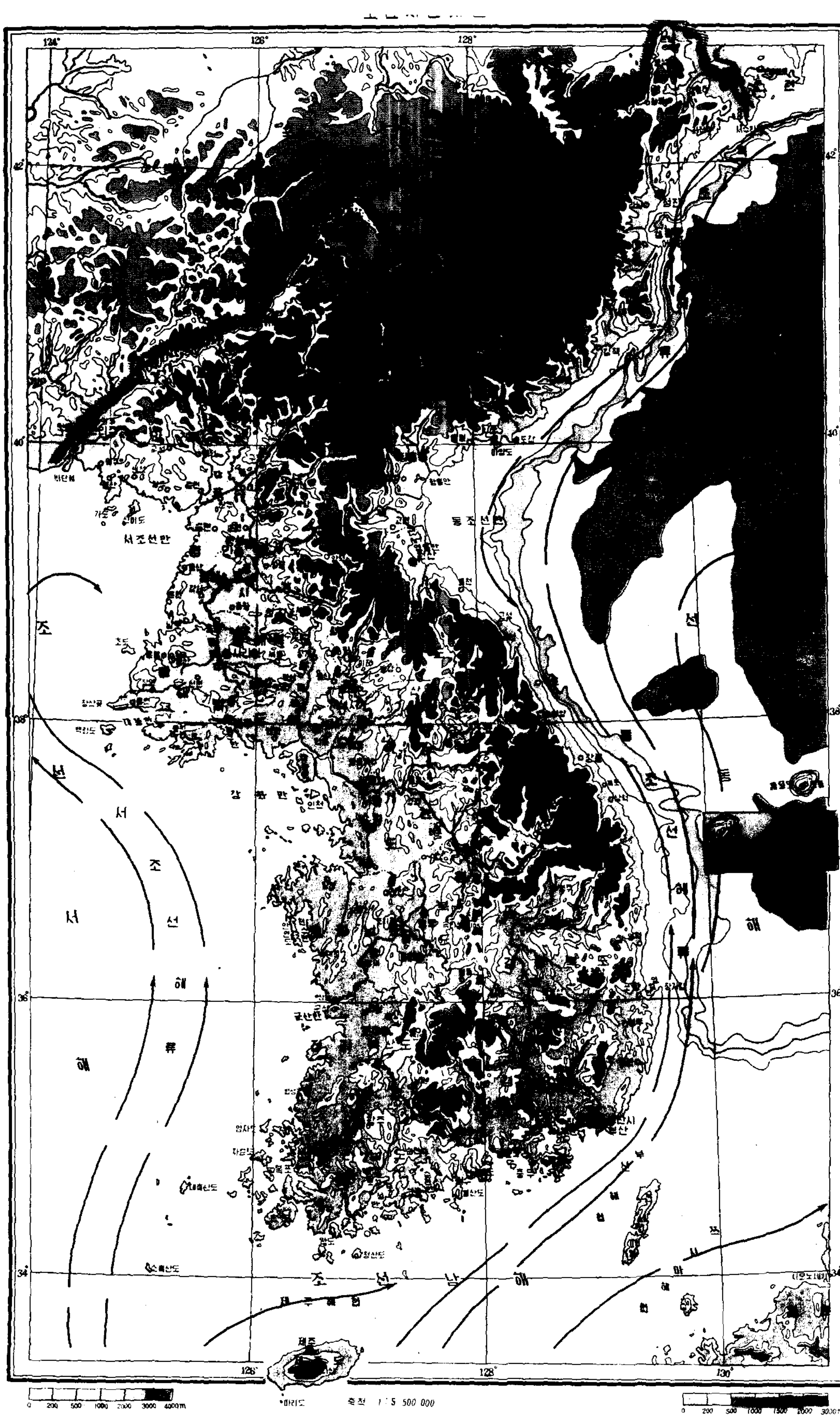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국의 자유독립과 민족적영예를 굳건히 지켜냈으며 미제의 전쟁확대음모를 분쇄하고 사회주의나라의 안전과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였다. 또한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림으로써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수억만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음으로써 반제반미투쟁의 새 시기를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어려운 형편과 우리 혁명의 전망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나라는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한 자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나라로 되였습니다. 김일성
중국
서조선만
동조선만
강화만
조선동해
조선서해
조선남해
제주해협
축척 1:5,500,000



124°
126°
128°
130°
42°
40°
38°
36°
34°
서조선만
동조선만
강화만
조선서해
서조선해류
동조선해류
조선남해
제주해협
제주
마라도
축척 1 : 5 500 000
0 200 500 1000 2000 3000 4000m
0 200 500 1000 1500 2000 3000m

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후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할수 있고 인민생활을 빨리 개선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1권, 401페지)

수령님께서는 전후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따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전쟁전 수준을 회복할것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1954—1956년)의 수행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들은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면서 줄기찬 투쟁을 벌린 결과 3~4년밖에 안되는 동안에 공업과 농업 생산은 전쟁전 수준을 회복하였을뿐만아니라 훨씬 넘어서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전후 경제건설사업과 병행하여 농촌경리의 협동화와 도시수공업과 자본주의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과업이 승리적으로 완수되여감에 따라 1956년 4월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를 소집하시고 우리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장기적인 전망계획인 5개년계획의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1차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156페지)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들어서서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자재도 자금도 모든것이 모자랐다. 더우기 이 시기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과 파괴활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당안에서는 종파분자들이 우리 혁명을 배반하고 우리 당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활동을 감행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엄숙한 시기에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로 확신성있게 이끄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속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천리마운동이 발단되였으며 더욱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였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5개년계획기간인 1958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승리적으로 완성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에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따라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리시였으며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면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심으로써 전사회를 붉은 일색으로 꾸려나가시였다.

5개년계획기간에 문화혁명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특히 인민교육분야에서는 1958년에 아세아에서 처음으로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7년제)가 실시되고 보건분야에서 무상치료제가 철저히 실시되였다. 과학발전에서도 큰 성과가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문학예술은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진실로 당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개화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확고히 견지하여오신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여 당, 국가 및 경제기관들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거세찬 진군속에서 5개년계획은 공업총생산액적으로는 2년반동안에, 현물지표별로는 4년동안에 넘쳐 수행되였다.

알곡생산도 급격히 장성하였으며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루어졌다.

5개년계획이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은 빛나게 실현되고 우리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로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1961년 9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승리를 총화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한 7개년계획의 전망과업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0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당면하게는 7개년계획의 강령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조직동원하시면서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잘 관철할수* 있도록 공업관리에서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였으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오시였다. 그리고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나라의 생산력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4년 2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여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우리 농촌을 착취와 억압에서뿐만아니라 온갖 부담과 세금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유족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키시였다.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기간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여 우리 나라와 국제정세는 더욱 긴장하여졌고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는 복잡한 정세까지 조성되여 우리 혁명과 건설에는 커다란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경제건설을 개편하는 일련의 대책을 취하시였다.

또한 1966년에는 당대표자회에서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변들에 대하여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평가를 내리신데 기초하여 반제반미투쟁에 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의 전략적방침을 당의 확고부동한 로선으로 규정하시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방침과 투쟁과업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54페지)

수령님께서는 또한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시여 전체 인민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키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강력히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혁명로선을 받들고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두전선에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함으로써 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온사회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하고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는 자위적인 국방력을 건설하여놓았다.

1957～1970년간에 걸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된 결과 우리 나라는 력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현대적공업의 건설과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보통 자본주의 나라들이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려운 과업을 14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하였다.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이 창설되고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장비됨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으며 우리의 혁명기지는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졌다.

또한 우리 나라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세계선진국가 대렬의 당당한 성원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지난날 뒤떨어진 경제를 가지고있었던 탓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힘있고 발전된 민족으로서 세계의 모든 대소민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떳떳하게 국제무대에 나설수 있게 되였다.

7개년계획기간에 문화혁명수행에서 더욱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고 기술자, 전문가들의 수는 4.3배나 더 장성하였으며 과학발전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고 우리의 사회주의적 문학과 예술은 찬란히 꽃피여 혁명적예술, 세계최고봉의 예술로, 진실로 당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과학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로 되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되여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온 사회가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단합된 대가정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다.

7개년계획기간에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온 나라를 요새화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어떠한 침략자라도 능히 때려눕힐수 있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수립되였으며 국방공업발전에서도 큰 성과가 이루어졌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공화국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는 동시에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전략전술적방침과 매 시기 투쟁과업을 정확히 제시하시고 그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확고히 인도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1960년 4월 19일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 리승만괴뢰정부를 무너뜨리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온갖 야수적폭압을 박차면서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1961년 5월 남조선에 군사파쑈통치를 수립하고 혁명력량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여나섰을때에도 원쑤들의 온갖 야수적폭압을 박차면서 계속 발전되여나갔다.

오늘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는 우리와 직접 맞서고있는 가장 위험한 침략세력이며 우리의 주되는 투쟁대상이다.

1965년에 미제와의 공모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괴뢰도당과 오래동안 끌어오던 《한일회담》을 서둘러 결속시키고 범죄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전면적으로 기여들어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미제 다음가는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2중의 식민지로 굴러 떨어지고있다.

이 엄중한 현실앞에서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고있다.

그들은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통일적 맑스-레닌주의당,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을 조직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통일혁명당조직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매국적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1964년의 3.24～6.3봉기, 한일협정을 배격하는 1965년 8월투쟁, 1967년의 괴뢰대통령 및 괴뢰국회의원 《선거》반대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한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고 조선혁명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로선과 방침을 천명하시였으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리정표로 될 6개년계획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킴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계획을 내놓으시면서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수행해야 할 중로동과 경로동의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과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3대기술혁명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전진할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에 충만되여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대회에서 펼쳐주신 휘황한 대로를 따라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더욱 빛내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1945년 10월 10일에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근로자들가운데서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선진투사들로써 조직된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로서 우리 나라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여 투쟁하는 정치적조직으로서 그 투쟁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조직동원하며 이끌어나가는 선봉적부대일뿐아니라 당원이 당조직에 복종하고 모든 당조직이 당중앙위원회에 복종하며 전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드는 유일한 원칙에 기초하여 조직된 부대이며 그이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유일한 규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적부대이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인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의 사상체계,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직접 이어받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하나로 뭉친 사상의지의 유일한 체현자이시며 유일한 중심이시다.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의 심장이시며 지도에서의 최고뇌수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의 사상체계는 우리 당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당이 로동계급의 선봉대, 조직적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놀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와 부르죠아사상을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고수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의 과업수행을 당면목적으로 하고있으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을 최종목적으로 삼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그 강화발전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수행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초시기 벌써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일환으로서 당창건에 앞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해야 한다는 독창적인 당창건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당창건의 가장 정당한 길을 밝히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피어린 불길속에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선진투사들을 공산주의핵심으로 길러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여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시였으며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사상을 반대하는 원칙적투쟁을 통하여 유일적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대오의 완전한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하시였으며 광범한 군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여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굳건히 다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이 있고 그이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창건의 튼튼한 조직사상적준비가 있음으로하여 해방후 안팎의 원쑤들의 준동이 심하고 엄혹한 난관과 시련이 중첩된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지체없이 견고한 토대우에서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할수 있었으며 창건된 첫날부터 우리 당은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건한 당을 조선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로서, 우리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강유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을 창건하신 첫날부터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에 기초하시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이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로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과 그의 조직된 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하도록 하는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이며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유일사상체계수립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지침으로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정력적으로 진행하여왔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종파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조직진행함으로써 당안에 온갖 반당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조류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켰다.

그리하여 오늘 당안에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찼으며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한 전당의 사상의지의 통일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적당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농민, 근로인테리 등 선진분자들을 당대렬에 광범히 망라하고 당을 대중속깊이 뿌리박은 강유력한 전투부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당은 결코 소수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으로 되여서는 안됩니다. 조선공산당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인 정당으로 되여야 하며 새 조선 건설을 조직령도하는 세련된 혁명와

참모부로 되여야 합니다.》(《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단행본, 6페지)

수령님께서는 대중적당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1946년 8월 28일 공산당을 신민당과 합당하여 대중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시키시였다. 공산당이 대중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됨으로써 근로대중을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결속시키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었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1949년 6월 남북로동당을 통합하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심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들 그리고 대렬안에 끼여든 간첩도당들의 책동에 의하여 파괴에 직면한 남조선당사업을 수습하고 남북로동당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계급적관계, 대중의 준비정도 등을 깊이 헤아리시고 당장성사업에서 좌경관문주의적편향을 제때에 바로 잡아주시였으며 당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도록 하시는 한편 대렬의 량적장성과 질적공고화를 밀접히 결합시키도록 하심으로써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대중적당건설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대중적당을 건설하시면서 당의 핵심진지를 튼튼히 꾸리시고 그 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한편 모든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당성을 단련하는 사업을 우리 당건설의 전기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의 기본고리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데 있으며 당건설의 기초도 바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당생활을 강화하여야만 당원들의 당성이 단련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이 높아지며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515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당사업의 기본고리이며 당건설의 기초로 되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끌고나감으로써 당안에는 당원들의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이 확립되였으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당원들의 당생활에 기초해서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또한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밝히신 독창적인 당사업체계와 당사업방법을 구현하여 당사업이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였으며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체계가 정연하게 섬으로써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있으며 당원들과 군중은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온갖 창의창발성을 다 발휘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거세약화시키려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온갖 책동을 제때에 분쇄하고 당을 불패의 전투적선봉대,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서 강화발전시키심으로써 우리 당은 인전대에 대한 당적령도,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참으로 조선로동당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전일적인 산조직으로 되였으며 어떠한 풍파라도 뚫고나갈수 있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였다.

그러기에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건 첫날부터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면서 당앞에 제기된 모든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조선로동당은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에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면서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다져놓음으로써 조선혁명을 주동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놓았으며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미제무력침범자들을 때려눕힘으로써 조국의 자유독립과 민족의 영예를 굳건히 지켜냈을뿐아니라 미제의 전쟁확대음모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동방초소를 굳건히 보위하였으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은 전후 인민경제를 복구발전시키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또 능숙하게 조직지도함으로써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와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하고 나라를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켰다.

당은 사회주의기초건설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자 곧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전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과업,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7개년인민경제계획실행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였다. 이리하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당 제5차대회는 우리 나라를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펼쳐주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길을 따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전투와 영웅적위훈에로 조직동원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이와 같이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보루로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또한 조선로동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한부대로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할뿐아니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침략을 짓부시는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이 지역인민들의 해방투쟁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당건설과 그 발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적령도의 전 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하에 그이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개척하면서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온 자랑찬 력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위대한 승리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건하시고 그이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있으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있을뿐아니라 그이의 독창적인 당건설리론에 의하여 지도되고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은 필승불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였고 령도하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고있다.

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으며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이룩하는것을 기본혁명과업으로 삼고있다. 또한 우리 국가는 주권의 실제적 주인인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의사와 지향을 대변하며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여 활동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내세우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1948년 9월 9일에 창건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우리의 참다운 조국이다.

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으며 그들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은 최고인민회의이다.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그의 임기는 4년이다. 제1기최고인민회의는 1948년 8월 25일 남북조선 전지역에 걸쳐 진행된 남북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되였다. 제2기최고인민회의는 1957년 8월 27일에, 제3기최고인민회의는 1961년 10월 8일에, 제4기 최고인민회의는 1967년 11월 25일에, 제5기최고인민회의는 1972년 12월 12일에 선거된 541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방후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된 기초우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해방후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으로서 수립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1946. 3. 5)과 중요산업국유화(1946. 8. 10)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들을 실시하였으며 자체의 민족간부대렬을 꾸리는 등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서 수립된 북조선인민위원회는 경제건설(1947 및 1948년 1개년인민경제계획)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거대한 사회경제적변혁들을 이룩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혁명을 본격적으로 다그칠데 대한 1955년 4월테제에 따라 공화국정부는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개조하여 1958년까지에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였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는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을 두고 그토록 념원하여온 착취 없고 압박 없는 그러한 사회,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부는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불과 14년 (1957년—1970년)동안에 우리 나라를 자립적인 중공업과 현대적인 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를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과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사상교양, 조직생활, 천리마작업반운동이 강력히 추진된 결과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그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공산주의건설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길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하였다.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으며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위대한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제도는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들에게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제도이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는 가장 인민적인 사회제도이다.

우리 제도는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쉼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가장 선진적인 제도이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근로자들 사이의 동지적협조관계가 날로 강화발전하는 가장 공고한 사회제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들을 법적으로 규제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단행본, 2페지)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고 사회주의헌법초안을 만들어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 (1972. 10. 23~26)에서 토의하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57차회의(1972. 12. 5)의 심의를 거친 후 다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 6차 전원회의 (1972. 12. 22)에서 토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1972. 12. 25~27)에서 채택하였다.

1972년 12월 27일부터 실시한 사회주의헌법에는 정치, 경제, 문화의 제원칙들과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들이 규제(총 11장 149조)되고있다.

공화국정권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조국의 통일독립을 성취하는 것을 기본혁명과업으로 내세웠다.

공화국정부의 중요임무는 우리 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내외적대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다.

공화국정권은 자기활동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 당의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튼튼히 쥐고나감으로써 공산주의인간으로의 교양개조사업과 경제건설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간다.

공화국정권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하며 협동적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에로 전환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앨데 대한 과업을 해결한다.

공화국정권은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반대하여 투쟁하며 교육,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의 모든 부문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문화혁명의 과업을 수행한다.

공화국정권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지지성원하여 투쟁한다.

이상의 과업을 수행하는 공화국정부의 국가기관은 주석제를 중심으로 주권기관체계(최고인민회의와 중앙인민위원회, 각급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행정기관체계(정무원, 지방행정위원회)재판, 검찰기관체계로서 구성되였다

새로운 국가기관체계의 중요한 특징은 우선 주석제를 새로이 내오고 전통적인 인민위원회형태에 의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적인 국가지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국가활동에서 수령님의 유일적인 령도를 확고히 보장한것이다.

또한 인민위원회와 각급 행정기관을 분리시키고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인민위원회가 행정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인민대중을 국가관리에 널리 참가시키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며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임기는 4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석으로 추대되시였다.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며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하며 최고인민회의법령, 중앙인민위원회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하며 명령을 내고 특사권을 행사하며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폐기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기관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1년에 1~2차 소집하며 림시회의는 필요한 때와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연다.

현 최고인민회의는 제5기로서 1972년 12월 12일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한 541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고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최고인민회의의 상무기관이다.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장, 의원들로 구성되고있다.

〔중앙인민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이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각급 지방인민회의는 1972년 12월 12일에 선거한 대의원들로 구성하고있다.

도(직할시)인민회의 임기는 4년,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2년이다.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고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적집행기관

〔정무원〕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들, 부장들,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하고있다.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 전원회의는 정무원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들,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들로 구성하고있다.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지방행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되고있다.

지방행정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검찰기관

〔재판소〕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한다.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와 해당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검찰소〕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 특별검찰소가 한다.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해임한다.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조선 인민군

조선인민군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도밑에 1948년 2월 8일 창건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로서, 로동당이 령도하는 혁명무력으로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의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써 조직된 군대이며 상하가 일치단결되여 있고 인민들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61—362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몸소 이룩하신 혁명무력건설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시여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나라의 정세와 혁명발전의 전도를 명철하게 내다보시고 해방직후부터 정규적인민무력건설에 모든 정력을 바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45년 11월에 평양학원을, 1946년 7월에 중앙보안간부학교를, 1946년 8월에는 여러곳에 보안간부훈련소들을 꾸리시고 군사정치일군들을 육성하시였으며 1945년 11월에 조선항공협회를, 1946년에 수상보안대를, 1947년에는 수상보안간부학교를 창설하시는 등 각 군종, 병종 부대들을 조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시여 항일혁명투쟁시기 그이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이어받고 항일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써 우리 인민의 진정한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다.

1948년에 창건되였지만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로서 빛나는 투쟁력사를 가진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군대와는 대비할 수 없는 맑스-레닌주의혁명군대의 특성과 정치 사상적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력한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 자위적군사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다.

조선인민군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군의 반석같은 통일단결, 군대에 대한 당적령도와 무장대오조직에서의 계급적원칙, 맑스-레닌주의적신념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자각적군사규률과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 혁명적동지애와 인민적사업작풍, 주체적인 군사적전략전술과 전법, 혁명적생활질서 등 값없이 고귀한 혁명무력건설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직접 계승한 현대적정규무력—조선인민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혁명의 전취물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자기의 혁명적무장력을 가지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후 그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꾸려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한 간부들을 군대내에 수많이 파견하시고 군사정치훈련과 전투준비를 강화하도록 하시는 한편 전인민적운동으로 인민군대를 원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찬,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군사기술적으로 훌륭히 준비된 혁명군대로 자라났다.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 혁명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평화적건설시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와 새 조국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을 내외의 원쑤들의 침략책동과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믿음직하게 보위하였다.

특히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영웅적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전쟁 3년간에 미제침략군을 포함한 109만 3천 8백여명의 적을 살상포로하고 막대한 전투기술기재를 파괴로획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력사적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히 깨뜨려버리고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과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조건에서 정세발전의 추이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으며 여기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인민군대안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있으며 군인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비할바 없이 높아졌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되였다. 우리의 국방공업은 현대전에 요구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충분히 생산보장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가는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우리의 강력한 군사력은 1965년에 우리의 령공을 침입한 《아르비—47형》고공정찰기를 비롯한 적의 신형비행기들을 날아드는족족 박산냈으며 1969년에는 《오에취—23형》군용비행기를 통채로 사로잡았고 《이씨—121》대형간첩비행기를 단방에 요정냈다. 1967년에 바다로 기여든 적《경호함56》호도 단매에 격침시켰으며 1968년에는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를 단숨에 나포하였다.

우리 당의 강력한 혁명군대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는 침략자들의 어떠한 무분별한 모험도 제때에 짓부실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되였다.

근로 단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대중을 련결하는 인전대로서의 근로단체들은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방조자이며 후비대입니다.》(《직업동맹사업에 대하여》, 단행본, 65페지)

당과 대중을 련결하는 인전대인 근로단체들은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방조자로서 당밖에 있는 광범한 군중을 자기 조직에 결속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보위하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대중속에 해설선전하여 그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사상교양단체일뿐 아니라 당의 후비대로서 대중을 교양훈련하여 당에 받아들일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당대렬을 확대강화케하는 저수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당의 인전대인 근로단체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때로부터 이르는 곳마다에 로동자, 농민, 학생청년들을 망라한 혁명적대중단체들을 조직하시고 그를 옳게 교양훈련하시여 광범한 대중을 혁명의 길로 이끄시였으며 혁명적대중단체건설의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대중단체건설에 관한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해방후 우리 나라 근로단체건설의 근본밑천으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데 뒤이어 근로단체들을 조직하시고 우리 혁명의 매 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그의 강화발전을 위한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들을 제시해주시였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안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그의 성격과 임무, 활동방향에 이르기까지 명백히 규정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여온 근로단체들은 그가 창건된 첫날부터 맑스-레닌주의와 그것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구현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자기의 모든 활동을 조직전개하여왔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전체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함으로써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매우 짧은 기간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활동하는 우리 나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혁명적인 대중정치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은 로동계급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학교로서 조선로동당과 우리 나라 로동계급을 련결시키는 강력한 인전대이며 당의 적극적인 방조자이다.

조선직업총동맹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1945년 11월 30일에 창립되였다 (창립당시는 북조선직업총동맹, 1951년 1월 남조선로동계급의 대중조직인 남조선로동조합전국평의회와 합동하여 조선직업총동맹으로 개칭). 조선직업총동맹은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조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유격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을 각지에 보내시여 친목회, 상조회, 반제동맹, 반일회, 로동자협회 등의 이름을 가진 로동계급의 혁명적대중단체를 조직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광범한 대중을 반일민족해방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대중단체들은 유격근거지와 국내 곳곳의 공장, 기업소, 광산, 철도, 항만들에 널리 퍼져갔으며 로동운동을 앙양시켰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로동계급의 대중단체건설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직업총동맹을 손수 창립하여주시고 그를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직업총동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혁명적인 민주기지창설을 위한 투쟁,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 동맹원들을 힘차게 조직동원함으로써 나라를 짧은 기간에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항상 직업동맹의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력사적인 보고에서와 최근년간에 있은 일련의 중요회의에서 직업동맹이 나아갈 발전방향과 투쟁임무를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1971년 12월 조선직업총동맹 제5차대회를 마련하여주시고 친히 대회에 참석하시여 력사적인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고있는 현력사적단계에서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를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밝히시고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웅대한 강령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직업동맹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새롭게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직업동맹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틀어쥔 사회주의사회에서 직업동맹의 기본임무는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의경리운영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당의 사상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동맹조직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33페지)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어 직업동맹은 동맹원들속에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또한 직업동맹은 동맹원들속에 동맹조직생활을 강화시키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 수령님의 주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통일단결시키고있다.

직업동맹은 또한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동맹원들속에서 천리마작업반운

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을 당 제5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이와 같이 동맹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과 함께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와 특히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가져오고있다.

직업동맹은 또한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남조선로동계급과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직업동맹은 조선로동당의 대외정책을 높이받들고 세계직련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혁명적직맹조직들과 련계를 맺고 국제로동계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산하에 다음과 같은 산별조직들을 가지고있다.

- 조선금속기계공업로동자직업동맹
- 조선화학공업로동자직업동맹
- 조선건설림업로동자직업동맹
- 조선운수일반로동자직업동맹
- 조선광업및동력로동자직업동맹
- 조선경공업로동자직업동맹
- 조선수산로동자직업동맹
- 조선상업일군직업동맹
- 조선교육문화보건일군직업동맹
- 조선공무원직업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우리 당과 우리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5년 3월 25일 창립하시였다.

농업근로자동맹은 우리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대중적정치조직으로서 조선로동당과 농업근로자들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당의 적극적인 방조자이며 농업근로자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 사상교양단체이다.

농업근로자동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나라 농민운동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조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혁명적농민조직건설의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1946년 1월 31일 농민동맹을 친히 창립하여주시고 그를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농민동맹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어 새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 특히는 토지개혁의 실시와 농업협동화를 수행하는 력사적위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개인농민때에 빈농이 중심이 되여 지주, 부농을 반대하여 투쟁하던 농민동맹은 농업협동화의 완성과 농촌경리의 급속한 발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변천된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변천된 새로운 환경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수령님께서는 농민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시고 광범한 농업근로자들의 정치적조직으로서 농업근로자동맹을 창립하여주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이 차지하는 위치와 사명, 투쟁목적, 동맹의 조직원칙과 기본임무 등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근로자동맹의 기본임무는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 농민대중속에서 교양사업을 진행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입니다. 농업근로자동맹은 모든 농민대중을 포괄하는 근로단체로서, 농촌사업을 보장하는 우리 당의 외곽단체로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내놓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면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28페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농업근로자동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한다.

동맹은 무엇보다도 먼저 농업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조선로동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을 근본원칙으로 삼고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는데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또한 농업근로자동맹은 당과 국가의 전면적이며 힘있는 지원밑에 농촌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리화와 전기화의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추진하며 그리고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 세우는데있어서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동맹은 농촌문화혁명의 과업도 힘있게 추진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전반적으로 빨리 높임으로써 농촌의 낡은 면모를 일신시키고있으며 생활을 보다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리는 사업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고있다.

이리하여 농업근로자동맹은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력사적과업수행과 농촌경리의 관리운영수준을 선진적인 공업의 관리운영수준에로 접근시킴에 이바지하고있다.

또한 농업근로자동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을뿐만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농업근로자들, 농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6년 1월 17일에 창건하여주신 우리 나라 청년들의 공산주의적대중단체이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혁명의 대를 이어 나갈 청년들의 전투적조직이며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적극적인 방조자이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 우리 나라의 첫 혁명적청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으로부터 시작된 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직접 이어 받고있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

을 자기활동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해불처럼 밝혀주시였으며 청년운동의 발전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조선청년운동의 풍부한 경험과 해방후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 각계각층청년들의 계급적처지, 우리 나라 청년운동발전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민주주의기발아래 애국적청년들은 단결하라!》는 구호하에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반당종파분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의 온갖 분렬책동을 짓부시고 민주청년동맹을 창건하여주시였다.

창건된 민주청년동맹은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공산주의청년핵심진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그에 기초하여 수백만의 각계각층 청년들을 교양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켜 새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였다.

그리하여 민주청년동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며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공고화하는 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적기상을 떨쳐 오직 한마음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지켜냈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대회를 친히 소집하여주시고 민주청년동맹을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발전의 객관적요구에 맞게 청년들의 공산주의적대중단체인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1964년 5월 12일 개칭)으로 고쳐주시고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서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을 완전히 해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그리고 온 세상에서 제국주의를 타승할 때까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 영예로운 임무가 바로 당신들,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맡겨져있습니다.》(《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단행본, 5페지)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동맹원들과 청년학생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삼고 이를 강력히 조직진행하여왔다.

그리하여 오늘 청년들속에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꽉 들어차있다. 모든 청년들은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님의 부름이라면 물과 불을 헤아리지 않고 언제어데나 동원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이와 함께 그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면서 당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지 덕 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단련되고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전체 청년들은 우리 나라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제도를 창설하는 투쟁에서뿐아니라 조국을 부강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세우는 위대한 건설사업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여 자기들의 정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특히 최근년간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은 당 제5차대회가 펼쳐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의 앞장에 서서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수령님의 참된 근위대, 결사대의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으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는 투쟁에서 나라의 방방곡곡에 로동당시대를 장식하는 공산주의적대기념비들을 수많이 일떠세웠다.

또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으며 나아가서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세계청년학생운동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모든 나라 청년학생들과 친선단결을 강화하여 그들과 힘을 합쳐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이와 같이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위력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자라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꽃피워 가며 동맹을 영원히 김일성원수님의 청년동맹으로 빛내여 나가며 청춘의 정열과 지혜를 다바쳐 영원토록 수령님의 참된 전사로 살며 싸워나갈 일념에 불타고있다.

조선소년단—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6년 6월 6일 세워주신 조선소년단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우리 나라 소년들의 공산주의적대중단체이다.

조선소년단은 소년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키우는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이며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교대자이다.

소년단은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공산주의적소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았으며 원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범을 따른다.

조선소년단의 기본임무는 소년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그들이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키도록 교양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소년단은 남조선혁명가들과 소년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소년들과 국제주의적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소년단은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지도를 받는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1945년 11월 18일에 창건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근로녀성들의 대중적인 정치조직이다. 민주녀성동맹은 조선로동당과 우리 나라 녀성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녀성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상교양단체이며 로동당의

된읍직한 방조자이다.

민주녀성동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았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녀성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곳곳에 부녀회를 비롯한 반일녀성단체들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였으며 이 과정에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깊고도 억센 뿌리를 마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녀성동맹을 제때에 창립해주시였으며 뒤이어 우리 녀성들에게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안겨주시는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해주시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맑스-레닌주의와 그것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구현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께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녀성운동의 발전방향에 따라 조선로동당의 일상적인 지도밑에 창립후 오늘까지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수행을 위한 투쟁,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 특히는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우리 나라 녀성운동과 녀성동맹사업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인 계기로 된것은 녀맹 제4차대회였다.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는 녀성동맹사업의 발전방향과 투쟁과업, 그 방도를 명백히 밝혀준것으로서 녀성운동발전의 위대한 강령으로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두요새,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다 같이 점령하여 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구호를 실현하는데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 특히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며 우리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고있는 녀성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가지는 위치를 새롭게 밝히시면서 녀성동맹앞에 나서는 진투적과업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녀성들은 우리 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녀성들이 건전하게 발전하는가 발전하지 못하는가, 녀성들이 혁명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입니다.》(《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3페지)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어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녀맹원들과 녀성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을 사회에 진출시켜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녀성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부단히 촉진시키고있다.

녀성동맹은 또한 녀맹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높은 정치적의식과 문화적수준을 소유한 참된 어머니로, 후대들에 대한 훌륭한 공산주의교양자로 되도록 교양육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뿐만아니라 녀성동맹은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초소에서 녀성들이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담당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자질과 기술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으며 국가와 사회에 더 많은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운동들도 광범히 조직전개하고 있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있으며 조선로동당의 대외정책에 따라 세계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녀성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고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기타 정당, 사회단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1946년 7월 22일에 결성되였던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1949년 6월 25일 남북조선의 70여개 정당, 사회단체들을 망라하여 결성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그것을 빛나게 구현한 우리 나라의 첫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의 창건과 그 확대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향하는 남북조선의 모든 각계각층 군중을 망라하고 그들을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과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조직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전선은 직업, 성별, 신앙, 정당의 차이를 불문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향하는 모든 계층을 다 망라하고있습니다. 조국전선은 우리 당의 정책을 더욱 광범한 군중속에 침투시키며 모든 애국적력량을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조직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1권, 308—309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기본임무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자기 산하에 망라된 각계각층 애국적민주력량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단결시키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적극 옹호선전하고 그의 관철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광범한 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결성 첫날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에 따라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을 평화적으

로 통일할것을 제의하였으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그러나 미제와 그의 추종자들은 침략전쟁도발로써 대답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각계각층 광범한 군중을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만행을 세계면전에 준렬히 폭로규탄하여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크게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노력함으로써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전후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히 1956년 5월에는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선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적극 강구추진하였으며 1961년 1월에는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침에 따라 남북간의 협상과 경제문화교류를 시급히 실현할것을 제의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인내성있게 노력하여왔다.

그것은 196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조국평화통일 위원회와 함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련석회의를 가지고 또다시 남북간의 협상과 경제문화교류 그리고 서신거래를 시급히 실현할것을 제의하여 남조선인민들과 정계인사들 및 사회활동가들에게 보내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한것을 비롯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다.

특히 1972년 7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3대원칙에 기초하여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획기적인 국면이 열린 새로운 정세가 도래하였다.

이 새로운 정세하에서 8월 19일 조선로동당, 조선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을 비롯하여 여러 사회단체들과 함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남북공동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애국적인 각당, 각파, 각계각층인민들의 거족적인 힘을 동원함으로써 내외반동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기기 위하여 남북제정당사회단체련석회의를 가질것을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에 제의하는 련합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꾸준한 투쟁을 전개해온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그간 또한 통일전선자체를 더욱더 강화발전시키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는 사업에서도 크게 이바지하여왔다.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있는 첨예한 정세밑에서 전후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시켜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다지는 문제는 통일전선앞에 나선 중요한 임무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전면적사회주의건설시기의 우리의 주권기관의 정치적지반을 강화하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 전적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어 각계각층 군중을 전후인민경제복구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투쟁 그리고 그들을 사회주의근로자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고무추동하였다.

또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조건하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리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교양하는 한편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많은 힘을 기울림으로써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는 사업에서와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오늘날 공화국북반부는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전체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철통같이 단결되여있다.

이와 같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각계각층 군중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달성에 조직동원하는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왔으며 또 하고있다.

기타 정당 및 사회단체

조선민주당
　1945년 11월 3일 창립

천도교청우당
　1946년 2월 8일 창립

조국평화통일위원회
　1961년 5월 13일 창립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1956년 7월 2일 결성

조선적십자회
　1946년 10월 18일 창립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
　1956년 3월 3일 창립

조선기자동맹
　1946년 3월 10일 창립

조선문학예술총동맹
　1961년 3월 2일 창립
　(산하부문별 동맹)
　조선작가동맹
　조선음악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연극인동맹
　조선영화인동맹
　조선무용가동맹
　조선사진가동맹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1949년 3월 24일 창립

조선민주법률가협회
　1954년 11월 30일 창립

조선민주과학자협회
　1956년 4월 10일 창립

조선학생위원회
　1961년 5월 27일 창립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1956년 5월 31일 창립

조선공업기술총련맹
　1946년 4월 14일 창립

조선건축가동맹
　1954년 3월 26일 창립

조선자연보호협회
　1959년 6월 25일 창립

조선불교도련맹
　1945년 12월 25일 창립

정 치

영광의 해, 승리의 해, 자랑높은 해인 1972년

1972년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맞이하고 그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높이 모신 영광의 해이며,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로동자, 농민의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거대한 전진을 이룩한 승리의 해이며,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온 누리에 찬란히 빛을 뿌린 자랑 높은 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당 제5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1973년 《신년사》, 1페지)

우리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뜻깊은 명절로 기념하였다.

우리 인민은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오로지 우리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여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걸으신 60성상,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그이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억세게 싸워나갈 충성의 마음을 담아 혁명의 수도 평양 만수대의 높은 언덕우에 수령님의 금빛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혁명의 대기념비인 웅대한 조선혁명박물관을 높이 세웠다.

또한 뜻깊은 민족적경사의 날을 맞이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기적이라 불러도 그 뜻을 다 헤아릴수 없는 혁신적인 로력적성과로 수령님께 충성의 선물을 올리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테로폭압과 압박속에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과 일본반동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수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60만 재일조선동포들도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뜻깊게 성대히 기념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지도자들과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로부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그이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는 축전과 축하문, 편지들을 수없이 보내여왔으며 세계 많은 나라 인민들로부터 참으로 정성이 깃든 귀중한 선물들을 수많이 보내여왔다.

영원히 금문자로 빛날 1972년, 이해에 우리 인민은 또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를 승리적으로 진행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온 사회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시위하였으며 우리 나라 혁명발전에서와 우리 인민의 국가정치생활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를 진행하였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수령님께서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으며 국가기관체계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회의에서 특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한것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반세기에 걸치는 동안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인도하고계시며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끝없는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심의 표현이며 그이께 자기의 운명을 영원히 전적으로 의탁하고 오직 한마음 그이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뜨거운 념원의 표시이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리론과 경험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며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적투쟁강령이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을 반제반미투쟁과 새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이다.

또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사회주의전취물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강력한 사상리론적, 법적무기이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강력한 사상리론적, 법적무기를 가

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또한 1972년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와 함께 새로운 천재적로작들을 내놓으시여 주체사상, 주체의 철학사상을 정연하게 체계화하신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빛나는 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연설들을 하시였으며 일련의 정계인사들과 하신 담화, 수많은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명철한 대답을 주시였다. 특히 일본 《요미우리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와 일본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 등은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에 대하여 명철한 대답을 주신것으로서 우리 혁명과 건설의 강령적지침으로 되였으며 우리의 혁명적벗들에게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고무력으로, 미제침략자들을 괴수로 한 적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준 강력한 폭탄으로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여러 로작들에서 특히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기초를 밝히신것을 비롯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 전면적이며 심오한 과학리론적해명을 주시였으며 주체사상의 위대한 진리로 우리 시대와 우리 혁명발전의 앞길을 더욱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복잡한 국내외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통찰하시고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앞에 나서는 모든 중대한 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여 정세를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는 한편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영명하신 수령님께서는 이해 신년사에서 우리 당과 혁명이 걸어가야 할 길과 투쟁목표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조성된 정세와 혁명위업의 요구에 따라 3차에 걸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들을 소집하시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새로운 위훈에로 불러일으켜주시였을뿐아니라 제기된문제의 해결을 위한 명확한 방침과 방도들을 명백히 제시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농근맹제2차대회와 당, 사회안전 및 인민경비대 일군련석회의, 전국사회과학자대회, 전국열관리원대회, 전국체신일군대회 등을 친히 조직지도하여주시여 전국을 또다시 드높은 혁명적기상과 전투적기백으로 차넘치게 하시고 사람마다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새희망과 포부로 가슴벅차오르게 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새로운 비약의 길로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방향과 투쟁과업을 제때에 명백히 제시하여 주시는 한편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복잡한 모든 사업을 직접 현지에서 조직포치하시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멀리 강원도, 량강도, 함경북도를 비롯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도들에 나가시여 수많은 공장, 기업소와 농촌을 돌아보시고 지방의 당정치사업과 경제문화건설사업을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지도하시면서 몸소 진두에 서시여 대중을 혁명적대고조에로 힘있게 이끄시였다.

결과 당 및 국가, 경제기관과 근로단체들이 자기의 전투적기능을 더욱 높여 수령님께서 가리켜주신 강령적과업실행에로 한결같이 동원되였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때만이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나갈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으로 가득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과 함께 《혁명과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혁명화의 기준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가 나오자 그 심오한 사상과 리론을 깊이 파악하기에 노력하였을뿐아니라 그를 통달하여 그대로 심장마다에 새겨넣기에 힘썼다.

실로 이해는 전당, 전군, 전민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혁명적학습기풍으로 차고넘치였다.

당은 주체사상을 확립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라고 하신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당사업, 근로단체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더욱 철저히 전환시켰으며 모든 단위, 모든 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더 잘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돌리였다.

당 및 근로단체일군들과 국가, 경제기관일군들이 행정식사업방법, 사무실적 사업방법에서 벗어나 아래에, 대중속에 계획적으로 더 많이 내려가 아래사람들을 일깨워주고 도와주며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웠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하여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불패의것으로 다져졌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안고 그이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 다바쳐 투쟁하고있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하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남김없이 발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켰다.

수령님탄생 예순돐전으로 희천과 구성, 만경대를 비롯한 온 나라의 기계전사들이 3만대의 공작기계생산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였으며 6개년계획의 핵을 이루는 3대기술혁명분야를 비롯하여 인민경제 각 부문의 30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완수하는 영웅적위훈을 떨치였다.

특히 기계공업, 비날론공업, 염화비닐공업은 이미 6개년계획말 생산수준을 뛰여넘었으며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6개년계획의 3년분과제를 끝냈거나 1973년말 생산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국을 휩쓰는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인 북방의 동력기지 서두수발전소의 제1계단공사가 완공되고 마식령산맥의 험한 산발을 누벼가는 이천—세포사이의 220리 새 청년철도가 생겨났다. 그리고 김책제철소의 웅대한 제3호해탄로가 조업을 개시하고 도처에 자동화계기기구분공장과 소재분공장이 새로 일며섰으며 현대적인 대규모의 9월방직공장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또한 5천톤급 대형선박을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기계설비들이 쏟아져나왔으며 물고기생산지와 소비지에는 수많은 랭동공장들이 건설되였다.

농업근로자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농근맹제2차대회에서 하신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국가로부터 공급되는 기계화, 화학화의 수단들이 훨씬 늘어남에 따라 농촌기술혁명이 힘있게 촉진되였으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해 또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주체과학은 사회주의건설에 빛나게 이바지할 새로운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회주의교육학을 구현한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실시되여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모범적인 《교육의 나라》로 자랑을 떨치였다.

우리의 주체적인 문학예술은 당의 올바른 령도밑에 참말로 당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더욱 풍만하게 개화발전되여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세상사람들을 경탄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영화인들을 비롯한 우리의 붉은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의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생활력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으며 우리의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1973년 《신년사》, 단행본, 4페지)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충성의 선물로 무대에 올린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와 함께 300년 인류가극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으며 우리 나라 광폭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는 이해에 까를로비 바리에서 진행된 국제영화축전에서 축전규정에 없는 특별상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평양피바다가극단과 만수대예술단, 평양예술단은 1971년말—1972년기간 근 30개나라에서 공연을 하여 주체예술의 빛나는 모범을 온세상에 시위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참다운 로동자, 농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가장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면서 혁명하는 인민으로서의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득안고 생기발랄하게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있다.

이 해 또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의 군사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인민군대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온 나라가 요새화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적들의 침략도 물리치고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여놓았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단행본, 18페지)

일당백으로 무장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조국보위초소에 튼튼히서서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키였으며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도 더욱 억세게 준비됨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은 말그대로 철벽의 요새로 다져졌다.

이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기념행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다.

1972년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있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꾸준한 투쟁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남북공동성명이 7월 4일 발표되였으며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회의, 북과 남의 본회담개최를 위한 쌍방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그 본회담이 영광스러운 수도 평양에서 첫막을 올린데 뒤이어 연 4차에 걸쳐 진행되였다.

북과 남사이의 이와 같은 접촉과 협상은 통일문제해결의 절박성에 비추어 볼 때 초보적인것이기는 하나 이것은 민족 최대의 념원으로 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사업에 매우 귀중한것으로 되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준것으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왔으며 재일조선동포들은 총련의 지도밑에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 힘있게 벌렸다.

대외관계분야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국제혁명력량과의 전투적련대성이 강화되고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발전되였다. 그리고 우리 인민은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세계 수많은 인민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헌신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남김없이 표시하면서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으며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동정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나라의 국제적위신과 권위는 더욱더 높아져 이해 많은 나라들과 새로이 외교관계를 맺았으며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더많은 지지자와 동정자들을 가질수 있게되였다.

참으로 1972년은 위대하고 영명하신 수령님을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의 길에서 또다시 위대한 승리와 자랑찬 업적을 쌓아올린 영광스럽고 보람찬 한해였다.

우리는 이 해에 우리 당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다시한번 뚜렷이 증명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혁명적기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이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그이께서 이끄시는 한길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주요 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 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 전원회의가 1972년 7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사회밑에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전원회의에는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 의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상정되였다.

1.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결정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당의 정책》집행정형과 금후대책에 대하여

2.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의정 첫째문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결정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당의 정책〉집행정형과 금후대책에 대하여》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 이후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당의 정책집행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사업에 대하여서와 당과 정부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평화적통일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지난 기간 내외정세발전은 당의 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하여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속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금후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의정 첫째문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결정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당의 정책〉 집행정형과 금후대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보고에 기초하여 많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당의 정책집행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사업에 대하여서와 당과 정부의 구체적활동에 대하여 총화하시고 금후 과업을 제시하신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그이께서 하신 보고가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고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지난 기간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조국통일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가 이룩되였음을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이 일치하게 지적한바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전체 인민의 념원과 민족의 리익에 부합되게 해결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침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정확하게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시기에만도 1971년 8월 6일의 력사적연설과 여러차례에 걸친 외국기자들과의 담화들에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며 남북사이의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비롯하여 우리 당과 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통일방침과 그의 실현방도를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이번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그이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의 승리로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것은 통일문제해결에서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놓은 중대한 사변으로 된다고 한결같이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통일할수 있는 초보적인 기초가 마련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통일문제해결에서 이룩된 이와 같은 성과는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정확한 조국통일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을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이끄시면서 매시기 제반 사업을 주동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직전개하심으로써 이룩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국내외반동들이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온갖 책동을 다할것이라는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일것을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제시하신 대책은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를 철저히 집행할 때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열망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더한층 강화하여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킬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침으로써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온 당과 온 사회의 사상정치적통일을 더한층 강화하며 모든 경제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6개년인민경제계획의 실행을 앞당겨나갈데

대한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의정 둘째문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의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전원회의는 이 문제를 토의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과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구체적대책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과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그의 구체적방도로서 입학나이를 한살 앞당겨 학교에 받아들여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의무교육단계에서 줄데 대한 방침은 그이께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교육부문앞에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우리의 인민교육제도를 더욱 완성하고 우리의 교육을 한계단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침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이 방침은 수령님께서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요구와 사회주의교육발전의 합법칙성, 나라의 현실조건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밝혀주신 독창적인 방침으로써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을 다 같이 다그치게 하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방침이라고 지적하였다.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은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로서 그의 실시는 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전원회의는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학교교육의 수준을 한계단 높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튼튼히 세워줌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다그치고 사회주의공업화이후의 한계단 높은 기술혁명을 수행해나갈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를 육성하며 과학과 문화의 발전을 더한층 촉진시킬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교육사상의 불패의 생활력과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한번 시위하게 될것이라고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1972년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몇해안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실시할것을 규정하고 일련의 구체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요구에 맞게 일부 교종들을 고치며 의무교육의 전기간에 사상정치과목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편성하는 동시에 자연기초과목교육을 강화하며 교원양성규모를 크게 늘이고 교원들과 교양원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학교와 유치원 건설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교구비품과 실험실습자재들을 원만히 생산공급하며 각급 학교의 교과서, 참고서적들을 제때에 원만히 출판하며 이를 위하여 종이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정권기관, 교육기관, 경제기관들에 지웠다.

전원회의는 전당, 전국가, 전인민이 후대교육에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과 높은 뜻을 구현해 나가는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이며 혁명의 휘황한 앞날과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인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힘을 집중할것을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전당과 전체 조선인민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뭉치여 그이께서 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할데 대한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성과를 보장함으로써 수령님의 독창적인 교육사상을 빛나게 실현할데 대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사회밑에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전원회의에는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근로단체중앙위원회, 성, 중앙기관, 지방당 및 정권기관, 경제, 과학, 교육, 문화 기관 일군들, 인민군대간부들이 방청으로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대하여
2. 1973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
3.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바꾸어 주는 사업을 진행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의정 첫째문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에 대하여 중요한 발언을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과 군사부문의 제원칙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성숙된 문제라고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의정 첫째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대하여》를 토의하면서 전원회의에서는 헌법초안이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확고히 고착시킬수 있게 훌륭히 작성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리론과 방침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이르는 제원칙들을 가장 혁명적으로 정확히 규제함으로써 이미 이룩한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촉진할수 있는 위력한 법적담보로 되게 작성되였다고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헌법초안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심오한 리론으로 빛나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문헌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헌법초안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이를 최고인민회의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넘길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의정 둘째문제인 <1973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도 보고가 있은 다음 많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의정 둘째문제를 토의하면서 전원회의는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71년에 우리 인민은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행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새로운 거대한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우리 당이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당원들과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적극 동원하여 이해 4월 15일전으로 3만대의 공작기계생산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여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기간적인 중공업부문들이 빨리 발전하고 금년에는 기계공업과 비날론 화학섬유와 염화비닐공업은 벌써 6개년 계획말수준을 돌파함으로써 여러가지중공업제품들과 질좋은 소비품이 많이 생산공급되었으며 농촌기술혁명이 적극 추진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강화되고 중간지대농사에서 큰성과가 이룩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전원회의는 지난 1년남짓한 기간에 이천—세포사이의 새 철도가 완공되고 도시와 농촌 건설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였으며 문화혁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전원회의에서 일치하게 강조한바와 같이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오로지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이 가져온 위대한 결실이다.

전원회의는 1973년이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절반이 되는 해로서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강령적과업을 실행하는데서 결정적인 해로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해에 인민경제부문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 계속 힘을 넣어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기본을 두면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한계단 더 높이는데 있다고 밝히였다.

전원회의는 1973년에 인민경제부문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규정하면서 특히 공작기계와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서와 인민소비품생산과 식료공업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공작기계생산을 비롯하여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승리한 기세를 늦추지 말고 계속 혁신하며 계속 전진하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앞당겨 수행할것을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1973년도의 인민경제계획은 3대기술혁명을 실현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생산과 건설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것을 예견하고있는 매우 방대한 계획이다.

전원회의는 1973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3대기술혁명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기계공업부문에서 군중적으로 공장이 공장을 새끼치는 운동을 벌려 현대적인 공장들을 확대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 들여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고 창의고안, 합리화운동을 광범히 벌려 설비들의 능력을 갱신하며 모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훨씬 높이고 선진적인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어김없이 지키도록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1973년도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온갖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이빠진 생산공정들을 보충하고 약한 고리들을 추켜세우며 부속품생산기지와 수리기지를 강화함으로써 설비들을 만부하로 돌리기 위한 운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기본건설을 집중적이며 중점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대로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수행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중요산업건설대상들과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건설대상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동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로력조직을 잘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애호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과 검열통제사업을 강화하고 랑비현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깊이있게 벌리며 최대한으로 증산하며 절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 일치하게 강조한바와 같이 경제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1973년도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전원회의는 당조직들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 일군들로 하여금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현실을 정확히 료해하고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면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의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백방으로 높여 1973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함께 전원회의는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의정셋째문제<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바꾸어주는 사업을 진행할데 대하여>를 토의하면서 전체 당원들에게 당원증을 바꾸어주는것이 당원들의 당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며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이 사업이 전당에 유일사상체계, 주체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당원들의 정치적열의와 적극성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치여 회의에서 하신 그이의 교시와 회의결정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길것을 한결같이 결의하였다.

전원회의는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6차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6차 전원회의가 1972년 12월 22일에 열리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지도밑에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이 상정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대하여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는 사업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의의에 비추어 전원회의는 사회주의헌법에 대하여 다시금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의정을 토의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법적으로 규제하는것이 성숙된 긴절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초안이 우리 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우월한 헌법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참다운 민주주의적헌법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초안은 사회주의하에서 국가기관과 인민대중이 지켜야 할 활동원칙과 생활준칙들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과도기 국가사회생활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교양적이며 동원적인 헌법으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심오한 사상과 탁월한 리론으로 빛나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문헌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헌법초안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위대한 업적들을 법적으로 확고히 고착시킬수 있게 작성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과학적인 리론과 현명한 방침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생활과 군사부문의 제원칙들을 혁명적으로 가장 정확히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힘차게 다그칠수 있는 위력한 법적담보로 되게 작성되여있다고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의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여 그이께서 하신 교시를 관철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성과를 계속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힘차게 앞당겨나갈 철석같은 결의를 다졌다.

전원회의는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6차회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6차회의가 4월 29일과 30일에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고있던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회의에 초대되였다.

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경축한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온 나라가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 실현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힘찬 투쟁으로 들끓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미일제국주의와 남조선반동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더욱 확대강화되고 아세아의 혁명적인 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이 날로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국에 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같이 온 캄보쟈손님들이 회의에 초대되였다.

또한 당 및 행정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군들과 과학,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일군들이 방청으로 회의에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각국 외교대표들이 회의에 초대되였다.

환영곡이 높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대의원들과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장내를 뒤흔드는 《만세!》의 폭풍과 같은 환호와 그칠줄 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열렬히 환영하였다.

김성애동지께서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과 함께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회의는 본 의정문제토의에 들어가기전에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반제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연설이 있은후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연단으로 나가 연설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연설을 끝마치고 자리에 돌아온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온 장내는 반미공동전선에서 조선과

캄보쟈 두나라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굳은 전투적련대성과 뜨거운 형제적친선의 정으로,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을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하여 견결히 지지성원하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혁명적열정으로 끓어넘쳤다.

회의는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성명을 채택할것을 결정하고 본의정문제토의에 들어갔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71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7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보고가 있었고 많은 대의원들이 토론하였다.

회의는 1971년도 국가예산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을 지출하고도 많은 재정예비를 조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회의는 1971년도 국가예산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강령적교시들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정확히 집행되였으며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의 첫해과업수행을 재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하였다는것을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1971년도 국가예산집행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의 자랑찬 결실이라고 회의는 강조하였다.

회의는 또한 1972년도 국가예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보고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 그리고 이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에 따라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며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도록 편성되였다고 인정하고 전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토론자들은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를 끝까지 관철하는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자신을 더 잘 준비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71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는 결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72년국가예산에 대한 법령이 대의원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성명이 대의원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며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거대한 기여로 되였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우리 나라의 혁명발전과 국가정치생활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가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혁명의 수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뭉친 전체 인민들이 그이께서 우리 당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온 나라가 자주적평화통일의 열망으로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열리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우월한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반동세력을 반대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과 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60만재일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동포들 그리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회의는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대표들 541명중 531명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간부들을 비롯한 7명의 대의원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으로 인하여 이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회의에는 당, 정권기관, 인민군,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화, 예술,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에 와있는 여러 외교대표들이 래빈석에 자리를 잡았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일제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와 그칠줄 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그이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개회사가 있은 다음 회의는 먼저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을 선거하였으며 이어 회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을 의안들을 토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대하여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국가기관 선거에 대하여

회의는 첫째 의안부터 토의하였다.

먼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토의하는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을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분석총화하시고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으며 새로 채택하여야할 사회주의헌법의 본질과 특성, 기본

내용을 밝히시고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과학적인 사상과 리론,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집대성한것으로서 우리 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강령적지침이며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우리 인민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할 위력한 사상리론실천적무기이다.

수령님의 연설은 준엄한 혁명의 폭풍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리성 그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빛나는 증시이며 맑스-레닌주의를 견결히 고수할뿐아니라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전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킨 또 하나의 특출한 모범이다.

실로 수령님께서 천재적인 예지와 통찰력으로 새롭게 발견하시고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검증된 위대한 혁명의 진리가 집대성된 그이의 연설은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로동계급의 위업을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한 영광스러운 길우에 언제나 빛날것이다.

회의에서는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마련하여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초안) 랑독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초안)은 이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토의하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최고인민회의에 제출되였던것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켜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들과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들이 법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사회주의헌법은 회의참가자들을 무한히 고무하였으며 그들의 열렬한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회의에서는 많은 참가자들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전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의 로동자, 농민의 주권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련이어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그리고 나라의 공업화를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여 이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영광의 로정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지적하였다.

그들은 또한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다져졌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그 모든 세기적변혁들은 오직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낳은 열매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라고 말하였다.

또한 토론자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그이의 혁명사상과 탁월한 리론, 방침들을 정연하게 집대성하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빛나는 투쟁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총화한 교과서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의 서사시적화폭을 펼쳐준 전투적강령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법적으로 옹호하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 복무할 사명을 지닌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며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있으며 근로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있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헌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회주의헌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헌법으로서 우리 나라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원안그대로 승인하는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이 대의원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다음으로 회의에서는 의안 둘째문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국가기관선거가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진행되였다.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선거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을 통하여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우리 시대의 혁명투쟁이 제기하는 모든 근본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는 심오하고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하여, 어떤 풍파속에서도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탁월한 령도력과 모든 인민대중을 한몸에 안아 보살피시는 고매한 덕성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흠모를 받고계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할것을 당중앙위원회 위임에 의하여 정중히 제의하는 연설이 있었다.

이어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조선로동당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대를 이어 오직 한마음 그이께 충성을 다하려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념원과 확고한 의지와 지향을 대변하는 열렬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일치하게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높이 모시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최대의 영광이며 행복이며 자랑이라고 강조하면서 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추대할데 대한 정중한 제의를 끓어넘치는 감격과 기쁨을 안고 열렬히 지지찬동하였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전체 참가자들의 폭풍같은 환호속에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당 조선로동당과 진정한 로동자, 농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고 계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한것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반세기에 걸쳐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인도하고계시며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끝없는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절

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심의 표현이며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영원히 전적으로 의탁하고 오직 한마음 그이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뜨거운 념원의 표시이다.

회의에서는 계속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과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들과 의원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들,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거하였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으며 여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하였다.

이리하여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는 자기앞에 상정된 모든 의안들을 원만히 토의하였다.

4일간에 걸쳐 진행된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통일단결과 필승불패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세상에 시위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로동자, 농민의 혁명주권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회의로 사회주의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찬연히 빛날것이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2차대회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2차대회가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농업근로자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와 그칠줄 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어버이 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농민들과 60만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충성심과 경모의 정을 수놓은 축기들을 남조선농민대표단 성원들과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이 그이께 삼가드리였다.

대회에서는 먼저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창건후 지난 7년동안에 이룩한 성과와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농근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 앞에 나서는 새로운 전투적 과업을 제시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 2차대회에 보내온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세운 농촌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수행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과 농업근로자들 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교시는 사회주의하에서 혁명적농민조직의 임무와 역할과 구체적인 과업을 밝혀준것으로서 농업근로자동맹사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강령적 지침이다.

수령님의 교시는 또한 위대한《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투쟁강령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추진시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명시한 휘황한 등대이며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 위대한 문헌이다.

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에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밑에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워주시려는 크나큰 사랑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 교시는 대회참가자들의 심장을 한없이 격동시켰으며 그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대회에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보고와 대회참가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방침에 의하여 창건된 농업근로자동맹의 건설과 그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또 하나의 자랑찬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농민조직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를 해방후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 농민동맹을 창건하시고 토지혁명과 농업협동화를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땅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념원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넓은 길을 활짝 열어주시였다.

그이께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자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경험을 집대성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인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곧바른 길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또한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에 조성된 새로운 환경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민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시고 새형의 사회주의적농업근로자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인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을 창건하시고 그를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며 농민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찬 강력한 대중적 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된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그이께서 제시하신 농촌테

체를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농업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여 농촌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수백만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에 대한 어버이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와 금번 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끝까지 빛나게 실현해나갈 충성의 결의를 다지였다.

이들은 또한 농업근로자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수령님의 친위대, 결사대가 될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이들은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것과 함께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농근맹원들을 끊임없이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농업생산의 고도의 집약화방침을 기어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훨씬 높이며 농근맹원들을 지식있고 문명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되도록 할뿐아니라 어버이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농촌 수도화, 메스화, 농촌진료소의 병원화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농촌을 더욱 발전된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려갈 맹세를 다지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2차대회를 축하하여 남조선농민대표단 단장과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조선 농업근로자동맹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의정 첫째문제 《조선농업근로자동맹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결정서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2차대회의 이름으로 남조선농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재일본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와 조선 농업근로자동맹 규약개정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조선농업 근로자동맹 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업근로자동맹을 창건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으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동맹의 확고부동한 통일과 단결,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농근맹원들의 전투적위력을 뚜렷이 시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당, 사회안전 및 인민경비대 일군 련석회의 진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당, 사회안전 및 인민경비대 일군 련석회의가 2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였다.

환영곡이 높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사회안전일군들과 인민경비대일군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와 그칠줄 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어버이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회의에서는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안전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1971년도 사회안전사업 총화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사회안전일군들과 인민경비대일군들이 토론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에 기초하시여 사회안전기관을 창건하시고 그 성격과 임무를 명확히 밝혀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정확한 사회안전사업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계급투쟁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사회안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사회안전사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원칙적인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첨예한 우리 나라의 계급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당을 정치적으로 튼튼히 보위하는것을 사회안전기관의 가장 기본적이며 주되는 임무로 밝혀주시고 사회안전기관으로 하여금 당의 정치보위대, 로동계급의 보위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당의 지도밑에 사회안전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정확히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사회안전원들과 인민경비대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의 정치보위자로서의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게 되였다.

그러기에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어버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그이께 뜨거운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회의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안전부문에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안전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였다.

회의 마지막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안전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중요한 교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는 회의참가자들을 무한히 격동시켰으며 그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하였다.

회의 전과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사회안전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다시금 확증하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주체적인 사회안전사상과 리론을 사회안전사업에 빛나게 구현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보위하며 그이께서 당 제5차대회와 이 회의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안전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수령님의 현지지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원도내 인민경제 각 부문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내 인민경제 각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와 이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6개년계획의 2년분 과제를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4월 15일전으로 끝내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이 힘차게 싸우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뵈옵게 된 강원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있었으며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충만되여있었다.

해방된 기쁨을 안고 새 조국건설에 나섰던 민주건설시기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리고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이르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와 시기마다 강원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친히 찾으시여 그들을 고무하여주시고 보살펴주시면서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또다시 현지에서 도내 인민경제 각 부문의 전반사업과 근로자들의 생활을 깊이 료해하시고 구체적인 지도와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들을 보다 큰 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들의 생활을 더 유족하고 행복하게 하여주시려고 깊이 심려하고계시는 수령님께서는 전후에만도 여러차례에 걸쳐 강원도를 찾으시여 당 및 행정사업과 공업, 수산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고 도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도내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계속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전사로 자라났다.

도내에 주체적인 현대적기계공업기지와 야금공업기지가 튼튼히 꾸려졌고 도내의 화학, 석탄, 건재 공업이 빨리 발전하였으며 지방산업공장들이 도처에 일떠섬으로써 믿음직한 경공업기지가 꾸려졌다.

특히 도내에는 현대적이며 만능화된 고기배들과 최신기술로 장비된 물고기가공공장들이 충분히 갖추어짐으로써 동해의 강력한 수산기지가 마련되여 해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 인민들에게 사철 물좋은 물고기를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도내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농촌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튼튼한 알곡생산토대가 닦아졌으며 과일과 남새 생산, 축산업과 가금업 발전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게 되였다.

또한 건설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오늘 원산시는 현대적공업지구로, 문화휴양도시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도내 이르는곳마다에 새로운 공장들과 문화휴양시설들이 수많이 일떠서게 되였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혜택으로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후대들이 믿음직하게 자라고있으며 수많은 대학들과 과학연구기관들, 그리고 현대적인 의료기관들과 문화기관들이 훌륭히 갖추어졌다.

농촌의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농민들의 생활을 로동자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려는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이 꽃피여 오늘 도내 농촌은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보람찬 새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농민들은 농촌의 뻐스화와 수도화, 농촌리진료소들의 병원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는 더욱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받으며 살고있다. 그들은 벌방은 물론이고 두메산골에서도 아담한 문화주택에서 출판물을 보고 라지오를 들으며 텔레비죤까지 보면서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강원도에서 일어난 이러한 세기적변혁은 오직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불멸의 혁명사상으로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히시면서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이룩될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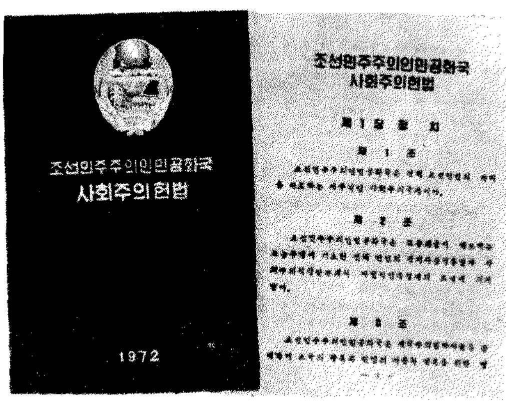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주시며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또다시 강원도를 찾으시고 공업, 수산업, 농업 등 인민경제 각 부문 일군들과의 협의회들을 지도하시였으며 수산사업소, 원동기공장, 강철공장, 편직물공장, 신발공장을 비롯한 원산지구 여러 공장, 기업소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원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경제 각 부문 사업과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6개년계획을 앞당겨 끝내며 3대기술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 도내 경제를 더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환히 밝혀주는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만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의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 참가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께서는 평양시 서성구역
제115호분구선거장에서
투표하시였다.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 만세!

전체 선거자들의 100%가 투표에 참가
전체 선거자들의 100%가 찬성투표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승리적으로 진행

중앙선거위원회보도



최고인민회의 및
각급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서
100%참가, 100%찬
성투표하였다는 보도
에 접하여 감격과
기쁨에 휩싸인 혁명
수도 근로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추대하는 회천선거구선거장마다에는 기쁨과 감격이 차고넘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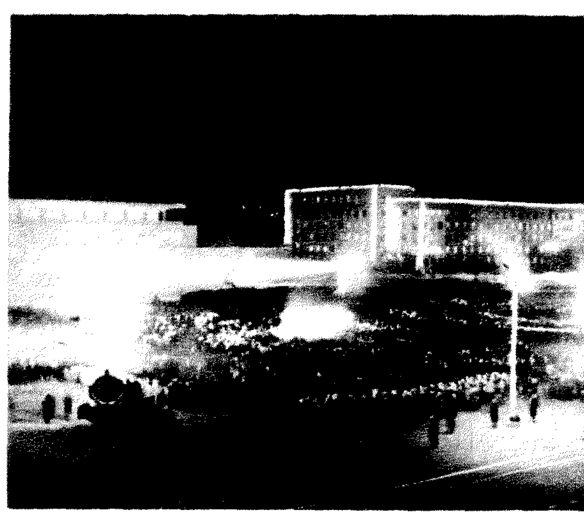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되신 민족적경사를 축하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되시였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는 《로동신문》 호외를 받아들고 끝없는 환희에 휩싸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만세!》를 목청껏 부르는 혁명의 수도 평양시 건설자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되신 민족적경사를 축하하는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야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량강도내 당, 정권 및 경제기관 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각도의 사업과 조선인민군 구분대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원도내 인민경제 각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량강도내 당, 정권및경제기관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량강도내 인민경제 각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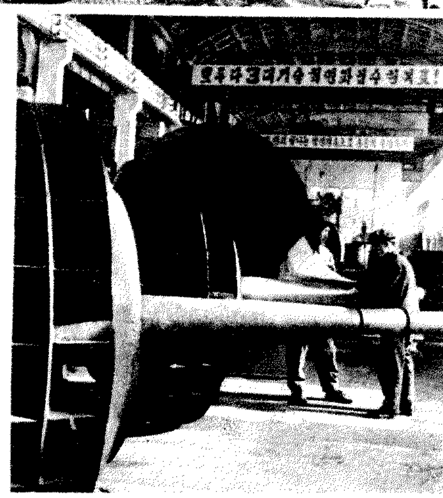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북도내 인민경제 각 부문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민주조선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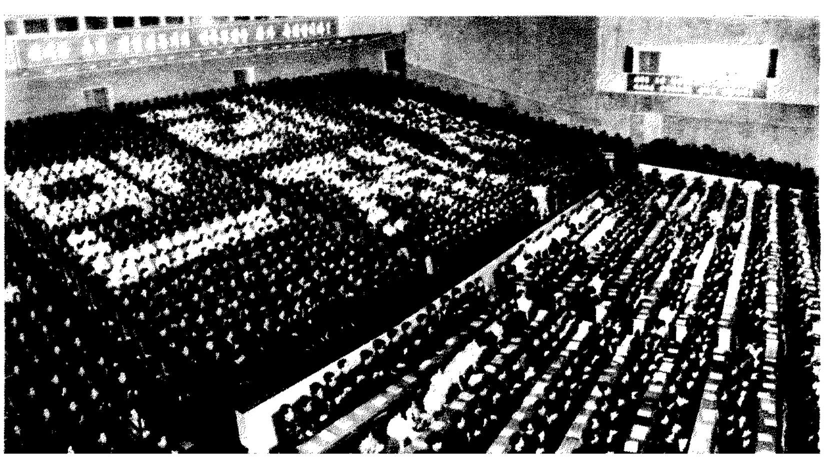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구분대들을 현지지도하시고 [illegible]지구 [illegible]공군 지휘관, 정치일군들을 만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일떠선 혜산방직공장과 5월 10일공장 로동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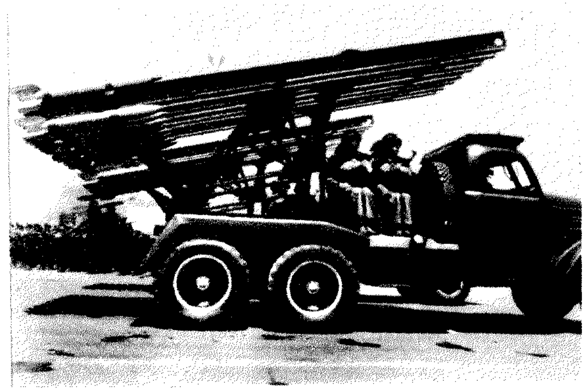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2차대회참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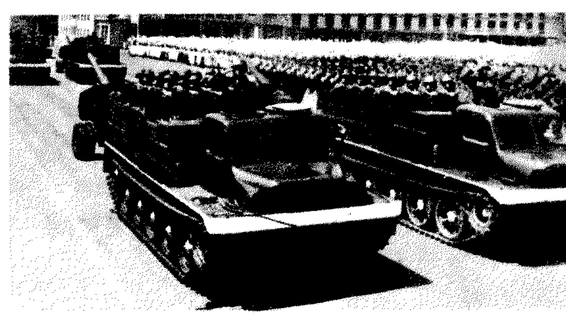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진행된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을 기념하는 인민무력 및 군중 시위 주석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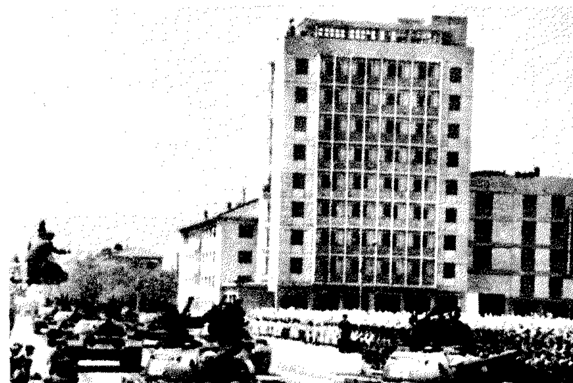






6월 25일 《미제반대투쟁의 날》 군중대회 참가자들의 미제침략자들을 타도하자!》는 웨침소리 하늘땅을 진감시켰다





항일무장투쟁의 깊고 억센 뿌리에서 자라나 어떠한 원쑤들도 일격에 섬멸할수 있도록 준비된 조선 인민군 보병대오, 방사포병대오, 포병대오, 땅크병대오, 로농적위대 포병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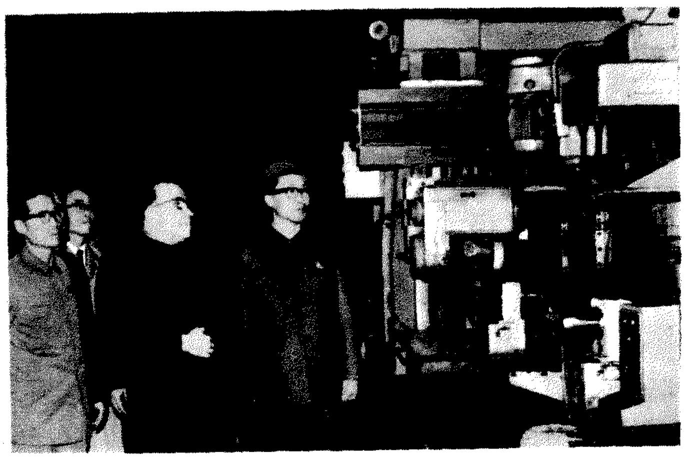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함께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위원장은 비행장에서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에 답례하시였다.



주체사상의 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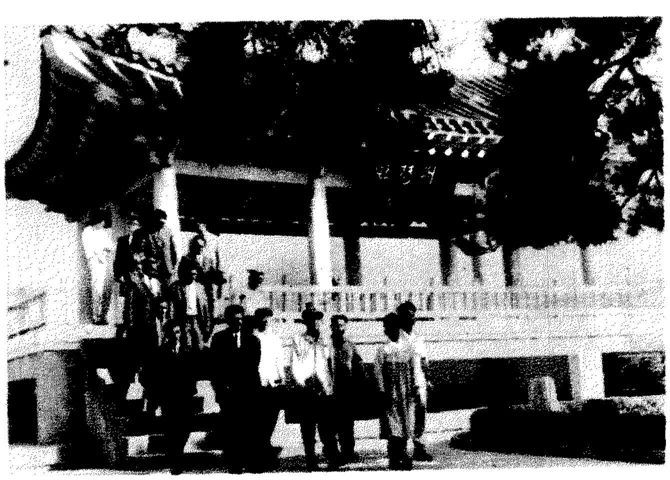
캄보자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과 그 부



희천공작기계공장을 참관하는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



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우리 나라에 도착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및정부대표단

혁명의 요람 만경대참관



예멘아랍공화국정부대표단 공업및농업전람관 참관

수령님께서는 천리마 6월 4일 차량공장 일군들파의 협의회에서 이 공장이 1~2년내에 차량생산을 또다시 2배로 추켜올릴수 있도록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생산능력을 새롭게 더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이 공장에서 생산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따라 소재생산을 충분히 앞세울수 있도록 주강품생산능력을 높일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로력조직을 더 합리적으로 짜고들며 협동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이 공장의 랭동렬차생산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랭동렬차들을 올해에도 계속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랭동과 보온을 다 할수 있게 하여 여름에는 물고기를 얼구어나르고 겨울에는 남새와 과일을 나르는데 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평제련소 일군들과의 협의회에서 오늘 유색금속과 희유금속, 그리고 류산을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을 더 높이는것이 나라의 경제력과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시면서 이 부문 생산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서로 합심하고 서로 도와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며 설비관리사업을 개선하고 생산조직을 면밀히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높은 수준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원료, 자재의 예비를 넉넉히 조성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광업과 화학공업, 철도운수 등 련관된 부문들에서도 이를 적극 보장해주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협의회들에서 국가재산을 애호하고 물자의 보관관리를 잘하며 근로자들속에서 절약을 위한 교양사업을 잘하고 이에 통제를 옳게 결합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한키로그람의 광석과 석탄, 한킬로와트시의 전력이라도 더 아껴 쓰도록 모든 힘을 다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꾸려지고있는 원동기공장과 강철공장들의 사업을 몸소 현지에서 료해하시고 앞으로 공장이 나아갈 방향을 환히 밝혀주시면서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일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편직물공장, 신발공장, 전구공장, 철제일용품공장 등 원산지구 경공업공장들에 대한 현지지도에서와 지방산업부문일군들과의 협의회에서 인민소비품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이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휘황한 길을 따라 6개년계획을 앞당겨 끝내며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것이 곧 근로자들이 헐하게 일하면서 더 잘살게 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생활을 높여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여 모든 사람들이 다 지방산업을 더 빨리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방산업이란 자기 지방 인민들의 소비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업이며 지방의 원료자재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방산업이 해야할 일이 많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남자, 녀자, 어린이들의 갖가지 옷과 세타, 쟈케트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내의류, 양말과 신발, 가정용품과 세소일용품 등 우리 인민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소비품과 식료가공품 생산정형을 전반적으로 료해하시고 도내 지방공업이 나아갈 방향과 그 수행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피복생산에서 녀자옷과 어린이옷, 그리고 남자옷가공을 전문화하며 신발을 남녀 년령별, 문수별로 인민들의 수요를 더잘 타산하여 만들뿐만아니라 모양도 다양하게 만들며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일데 대하여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육류가공을 비롯한 식료품가공공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닭공장을 더잘 꾸리고 사료원단위소비기준을 극력 낮출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유리공장과 담배공장도 잘 꾸리며 철제일용품생산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도금공정을 전문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지도와 협의회들에서 생산조직을 잘하고 설비리용률을 높이며 1인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업부문에서 지도일군들이 생산공정의 기계화와 반자동화, 자동화를 적극 실현하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계속 높이며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비생산로력을 줄이며 원가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기업관리를 더욱 착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내 수산업발전을 위하여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수산부문일군협의회에서 강원도가 바다를 끼고있는 유리한 조건을 잘 리용하여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내는것은 인민생활향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원산, 장전 등 도내 여러곳의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의 책임일군들과 어로공들로부터 물고기생산과 공급정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손수 풀어주시였으며 여러가지 물고기와 해초, 운단, 해삼 등 수산물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기 위하여 먼바다물고기잡이와 함께 중소어업과 세소어업을 대대적으로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중소어업과 세소어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릴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줄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물고기잡이에서 출어일수를 늘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리고 고기배의 가동률을 적극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배수리기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원산부두가를 몸소 돌아보시면서 이미 마련된 배수리기지를 더 튼튼히 꾸리고 앞으로 선가대를 더 늘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새로 현대적인 배수리기지를 꾸릴 터전을 잡아주시고 건설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어구공장들의 사업을 료해하시고 먼바다와 가까운바다 물고기잡이를 하는 수산부문들에 어구를 생산공급하는 공장들을 따로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를 가

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잡은 물고기를 한마리도 허실함이 없이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고 있는 로동자들과 협동농민들, 모든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도록 물고기 가공사업과 수송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명확한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세소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 만들어 바다에 띄운 소형동력선들을 친히 돌아보시고 이런 배를 계속 많이 만들어 동해뿐만아니라 서해에도 보내주라고 하시였으며 랭장운반선《봉화산》호를 몸소 찾으시여 선원들을 고무해주시였으며 이런 큰배를 계속 더 많이 만들어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원산시를 현대적항구, 「문화휴양도시로 더 알뜰히 꾸리고 항구를 잘 정비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산업건설과 교육문화보건시설들, 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송도원 문화휴양시설들에 대한 건설사업을 더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와 세상에 널리 이름난 명승지의 하나인 금강산을 더잘 꾸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도앞에 나선 방대한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건설력량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도내에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며 자동차수송대를 새롭게 조직하는 등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려객선과 유람선을 더 만들어주고 도시와 마을들에 더 많은 뻐스를 만들어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지도과정에서 특히 근로자들의 생활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협의회들에서와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로력혁신자들과 만나시여 그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시였으며 이전에 개인상공업을 하다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사회주의협동화를 실현하는데 열성적으로 나섰으며 지금은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일군으로 일하고있는 사람들을 만나시여 그들의 사업과 가정형편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알아보시고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근로자들에게 살림집주택을 더많이 지어주고 이미 있는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더잘 꾸리며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 많이 지어주고 문화후생시설들도 더 알뜰히 갖추어주도록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편직물공장에 들리시여 녀성로동자들에게 집이 어덴가, 집이 멀지는 않은가에 대하여서까지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애기어머니들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시내 한복판에 해빛이 잘 들게 아담한 공장을 새로 지어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도내 인민들에게 남새, 기름, 고기, 물고기, 닭알 등을 비롯한 부식물을 더 풍족하게 공급할수 있도록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부문일군들과의 협의회에서 도내 농촌경리사업을 한계단 더 추켜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협동농장 관리일군들과 작업반장, 분조장들 그리고 군지도일군들로부터 매개 군별로 협동농장들과 군의 농사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농업생산에서 1인당 생산액을 더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알곡, 축산, 남새, 과수, 공예작물 등 농업생산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전투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수행방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강원도가 바다를 끼고 산이 많으며 기후변동이 심하며 군마다, 골짜기마다 농사조건이 다른 실정에서 지대적특성에 맞게 바람에 견디고 랭습에 견디며 모래밭에 견딜수 있는 작물들을 배치하는 등 적지적작의 원칙을 더잘 관철하는것이 알곡생산을 높이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라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농촌기계화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를 도내 협동농장들에 더 많이 보내주도록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도내에 뜨락또르부속품공장들을 더 꾸리고 련결차와 련결농기계를 더 많이 대줄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농촌의 뜨락또르는 다른 일에 돌려쓰지 말고 농사일에 집중적으로 리용하여 제때에 밭갈이를 하고 퇴비를 나르며 농산물을 거두어들이도록 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뜨락또르와 함께 자동차의 가동률을 높일데 대하여서도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자동차를 농장들의 실정에 맞게 골고루 공급해주며 도내에 자동차수리기지들을 더 늘이기 위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포전정리를 잘하고 토지리용률을 높이며 산성화된 토지를 개량하는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갈데 대하여서와 협동농장들에서 토질에 맞게 미량원소비료를 치고 자급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내며 도에 새로운 화학비료생산기지를 꾸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협의회에서 분수식관수체계를 널리 받아들여 정당수확고를 더욱 높임으로써 인민들에게 더 많은 남새를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깊은 배려를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촌문화주택을 더 많이 지어주고 상품도 더많이 공급해주며 농가마다에서는 닭과 토끼, 양치기운동을 더 활발히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강원도에서 맛이 좋기로 이름난 배와 감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따들인 과일을 저장하고 가공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지방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이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지도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들에서 변천된 현실에 맞게 당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강원도내 당조직들이 당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모든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이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당의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 개인리기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도록 그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도내 근로단체사

업정형을 료해하시고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 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끊임없이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며 생산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지금 강원도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 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자기들을 찾으시여 두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휘황찬란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도록 이끌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끓어넘치는 감사와 경모의 정을 안고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철천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기 위하여 영웅적조선인민군을 도와 전선과 후방에서 헌신적으로 싸운 강원도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에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그이께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끝까지 옹호관철하고야말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불타고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길 굳은 결의를 안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번 강원도 현지지도는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기 위한 우리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들의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획기적인 계기로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동안에 걸쳐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는 도당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및 도당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중앙과 도내 당 및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경제, 문화 기관 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회의장에 나오시자 전원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모두 일어나 오매에도 그리던 그이를 뵙게되는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와 오래 계속되는 우렁찬 박수로써 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원도에 주신 현지교시의 집행정형을 총화하고 도내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과업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요 결론을 하시였다.

전원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계시는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회의를 진행하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성과를 총화하고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 전투적과업을 토의하는 커다란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있었으며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충만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원도에 자주 찾아오시여 혁명의 매시기와 단계마다 도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시였으며 이번에 또다시 도내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고 인민경제 각 부문 일군들과의 협의회를 친히 소집하시고 당사업과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사업을 몸소 지도하여 주신것은 도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행복이며 영광이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도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데 대하여 한결같이 지적하였다.

전원회의참가자들이 「일치하게 강조한바와 같이 도내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와 전변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히시면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인민경제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 강원도의 인민경제를 더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조성된 국내외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오늘의 혁명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하는데 있다고 가르치시면서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우선 힘든 로동을 헐한 로동으로 만들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며 전반적 인민경제부문들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시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산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기계, 설비들을 정상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여 그의 가동률과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하나의 제품이라도 더 많이 만들어내여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넘쳐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로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비생산로력을 극력 줄이고 로동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할데 대하여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투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원료와 자재를 극력 절약하며 실수률을 높이고 원단위소비기준을 결정적으로 낮춤으로써 적은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도내에 튼튼한 중공업기지가 마련되여있다고 지적하시고 이미 마련된 현대적공업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끊임없는 기술적진보를 이룩하여 유색금속과 기계설비들, 차량과 석탄, 세멘트를 비롯한 여러가지 중공업제품생산을 더 빨리 늘이도록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내 경공업부문에서 현대적인 방적공장과 편직물공장, 최신기술로 장비된 피복공장, 큰 신발공장을 더 건설하여 날로 높아가는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질좋고 값싼 옷과 편직물, 신발 등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이 더 많이 차례지도록 하기 위하여 고기와 과일, 남새, 물고기에 대한 가공사업을 강화하고 특히 어린이식료공장들을 잘 꾸려 물고기가루, 과일가루, 미역가루, 단묵과 같은 식료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또한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을 늘여 한사람당 생산액을 끊임없이 높이며 인민들이 요구하는 세소상품과 일용품, 학용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그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선박건조 및 수리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어구생산을 늘이며 원해어업과 함께 세소어업, 중소어업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출어일수를 높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물고기가공공장과 랭동공장, 물고기건조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함으로써 잡아들인 물고기를 조금도 허실함이 없이 제때에 질적으로 가공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내 농촌실정과 농사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도내 농촌 경리의 발전방향과 과업, 그 수행방도들에 이르기까지 명백하게 밝혀주셨다.

그이께서는 긴 해안선을 끼고있고 산이 많은 탓으로 바람이 심하고 비가 많이 오는 도의 자연기후조건과 골짜기마다 풍토가 서로 다른 실정에 맞게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를 세심하게 하며 바람과 랭습, 모래밭에 잘 견딜수 있는 다수확작물을 배치하는 등 적지적작의 원칙을 엄격히 지킬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의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 그 리용률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여러가지 능률높은 련결농기계들을 대량적으로 만들어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토지건설과 토지개량, 하천정리를 한층 더 강화할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촌경리에 대한 관리운영과 생산지도를 끊임없이 개선강화함으로써만 농업생산을 급속히 늘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협동농장에 대한 관리운영과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에서 이미 당이 제시한 두가지 10대과업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천—세포간의 철도건설을 앞당겨 끝내며 이미 있는 화물자동차의 리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뻐스와 유람선과 려객선을 더 많이 만들어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도내에서 린비료공장과 편직물공장, 배합사료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교육, 문화, 보건시설들을 건설하는것과 함께 원산시를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항구문화휴양도시로 꾸리며 도시에는 송림식다층주택을, 농촌에는 아담한 문화주택을 해마다 더 많이 지어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높일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도내 교육문화부문의 과업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학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교수교양의 질을 높이며 특히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농업과 수산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선진기술을 널리 받아들이며 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유능한 일군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으며 과학연구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내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당면한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그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당중앙위원회의 의도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정확히 해설침투시키며 그를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당사업체계를 확고히 세우는것과 함께 지도일군들이 당성을 단련하고 당조직규률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모든 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견지하고 이신작칙하여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가적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당조직들이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고착시키며 사상교양과 비판의 방법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단련시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끝까지 충실하도록 인내성있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가지고 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각계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특히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여 모든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과 함께 그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 특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할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절약하여 증산하며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끊임없이 교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도내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전원회의는 도내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수령님의 이번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앞으로 가까운 년간에 각종 유색금속은 현재

의 1.5~2배, 석탄은 1.5배, 세멘트는 2.4배로 각각 그 생산을 높이며 원동기를 비롯한 기계설비생산을 훨씬 늘일것을 토의결정하였다.

전원회의는 경공업 특히 지방산업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가까운 년간에 현재보다 메리야스, 세타, 쟈케트류는 4.2배, 신발은 1.5~1.7배, 물고기는 1.5배로 생산을 늘일것을 결정하였다.

전원회의는 새로운 철도들을 건설하며 차량생산을 가까운 년간에 현재보다 2배로 높이고 뻐스와 려객선을 비롯한 운수수단생산을 급속히 늘이며 도시와 농촌들에서 문화주택을 해마다 2만세대이상 지을것을 토의결정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농업을 결정적으로 발전시켜 지난해 실적에 비하여 앞으로 몇해동안에 알곡생산량은 2배, 과일생산량은 3.8배이상으로 높이며 남새, 고기, 닭알, 공예작물 생산을 더욱 늘일것을 토의결정하였다.

전원회의참가자들은 도내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도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더 높일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강령적교시를 뼈와 살로 만들며 그 어떠한 애로와 난관에 부닥쳐도 그를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자신들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이와 함께 전원회의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체계를 세우고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여 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며 각계 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교양육성하여 그이의 교시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그이의 현지교시를 빛나게 관철하여 도내의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야말 불같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전원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을 위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원도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는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실행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새로운 혁명적앙양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웅청년철도건설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청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3월 20일 이천—세포사이의 새 철도 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떨치고있는 전국청년돌격대원들과 청년건설자들을 만나시였다.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동서해안을 련결하는 이천—세포사이의 200여리 새 철도건설장에 달려온 전국청년돌격대원들과 청년건설자들은 혁명적열정에 넘쳐 힘찬 로력투쟁을 벌림으로써 공사에 착수한지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이미 차굴과 철다리를 비롯하여 많은 구조물들을 건설하였으며 수십키로메터의 철길을 놓았다.

오직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우며 새 철도 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새로운 기적을 창조한 자랑을 안고 언제나 마음속깊이 흠모하는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된 전국청년돌격대원들과 청년건설자들은 커다란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면에 자애로운 웃음을 지으시며 나오시자 전국청년돌격대원들과 청년건설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와 그칠줄 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천—세포사이의 새 철도건설에 참가하여 조선청년의 영웅적기상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는 청년철도건설자들의 씩씩하고 활기에 넘친 미더운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드시여 답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영웅청년철도건설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그들의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아보시였으며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국 각지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기관들에서 새 철도건설장으로 달려온 청년철도건설자들을 부르시고 어데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는가, 나이는 몇살이며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며 집에 편지는 자주 하는가, 춥지는 않으며 앓는 동무들은 없는가, 영화와 텔레비죤은 자주 보는가, 요즘 어떤 영화를 보았는가,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일일이 물어보시면서 그들을 어버이심정으로 따뜻히 보살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이 건설장으로 달려온 한 녀성 청년돌격대원을 친히 가까이에 부르시여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물어보시고 보람찬 로동에서 더욱 억세게 단련된 그의 미더운 모습을 대견스럽게 보시면서 동무들이야말로 조선청년의 영웅적기상을 떨치는 훌륭한 일을 하고있다고 하시며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순간 온 장내는 감격과 기쁨으로 끓어번졌다.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께서 자기들 모두에게 안겨주시는 해빛보다 따사롭고 바다보다 깊은 이 육친적사랑과 높은 신임, 그이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일하는 조선청년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들먹이며 두볼을 적시는 청년철도건설자들은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열화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일편단심 당과 수령님의 부르심이라면 그 어떤 난관과 애로도 용감하게 뚫고나가려는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며 오래 계속되는 우렁찬 박수와 만세의 환호를 올렸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령님께서는 해당 일군들에게 이천—세포사이의 새 철도 건설에 동원된 전국청년돌격대원들과 청년건설자들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30여차례나 교시하시였으며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청년들이 겨울에 세포등판에서 일하려면 춥겠다고 하시면서 초가을에 폭신한 솜옷과 털모자, 신발을 보내주시였고 설명절때에는 많은 선물까지 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도시와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에서 일하는 청년철도건설자들이 문화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책들과 라지오, 텔레비존, 영사기와 체육기구, 악기들을 수많이 보내주시였으며 그들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유능한 보건일군들을 보내주시였을뿐만아니라 병원과 진료소들에서 제때에 치료받을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청년철도건설자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주시고도 이번에 그들을 직접 만나시고 또다시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돌봐주시면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이날**청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천—세포사이의 새 철도건설을 하루빨리 다그칠데 대한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청춘의 약동하는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새 철도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우고 있는 영웅청년철도 건설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자신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앞장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천—세포사이의 새 철도 건설을 앞당겨끝내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철도건설자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환히 밝혀주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 우리 나라에는 동서부를 련결하는 철도가 하나밖에 없으며 이것은 철도의 긴장성을 가져오게 하는 주되는 원인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당이 내세운 이천—세포사이의 새 철도건설은 철도의 긴장성을 푸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도처에서 건설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실정에서 이천—세포사이의 새 철도건설을 빨리 끝내는것은 수많은 산업건설들과 도시, 농촌 건설들을 더욱 촉진하는데 있어서와 6개년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에 더 많은 설비와 자재들을 더 빨리 나르는데서 절박하게 나서는 과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우리 당의 평화적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을 강조하시면서 전반적국내외정세가 우리 혁명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고 새로운 철도건설은 나라의 경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한층 더 높임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청년철도건설자들이 이천-세포사이의 철도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도록 힘있게 불러일으켜주시였으며 그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은 오늘 청년들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젊었을 때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산다》는 말도 있지만 청년들은 온갖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는 투쟁속에서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여 혁명가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이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이 보람찬 투쟁에서 청춘의 정열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청년들이 앞장에 설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3대기술혁명은 현시기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건설의 중심과업이며 그것은 나라의 전반적생산력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철도건설자들이 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어렵고 힘든 일을 적극 기계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동차를 비롯한 현존설비들의 리용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철도건설의 질을 더욱 높여 새 청년철도를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로 만들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청년들은 이미 이룩해놓은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더 큰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계속혁신, 계속 전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경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건장하고 혈기왕성하며 용감한 청년들이 선봉에 서서 나아가는것은 가장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래의 주인은 청년들이며 오늘 우리의 투쟁은 미래의 주인인 청년들의 행복을 위한것이라는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청년철도건설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부단히 촉진하며 경제건설에서 온갖 지혜와 창발성을 다 발휘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끝으로 이천—세포사이의 새 철도건설에 동원된 전체 청년철도건설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계속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가 끝나자 전체 청년철도건설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 일제히 일어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로써 그이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청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수령님을 몸가까이 뵙고 그이의 강령적교시와 크나큰 배려에 접한 전체 청년철도건설자들은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그이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에서 근위대, 결사대가 될것을 굳게 결의다지며 어버이수령님의 만수 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이천—세포사이의 새 철도 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떨치고있는 청년철도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고 새로운 가르치심을 받은 청년철도건설자들은 그이께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불과 1년남짓한 짧은 기간에 동서해안을 련결하는 《청년이천선》철도건설을 끝내고 이해 당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 개통렬차를 통과시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량강도내 인민경제 각 부문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량일간에 걸쳐 량강도내 인민경제 각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내세우신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년간 계획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끝내고 년말까지는 6개년계획에 예견된 1973년말 생산수준을 돌파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으며 수령님의 지휘밑에 진행된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항상 흠모하여마지않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몸가까이 만나뵈옵고 인민경제 각 부문 사업에 대한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게된 도내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은 끝없는 행복감과 환희에 휩싸여있었으며 자기들의 사업과 생활을 언제나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으로 가슴불태우고있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 보천보의 밤하늘에 혁명의 홰불을 높이 올리시여 암흑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고 민족재생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에도 이고장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항상 깊이 심려하시면서 몸소 량강도를 찾으시여 당 및 행정 사업과 공업, 농업, 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여주시고 도내 인민들의 생활을 육친의 손길로 보살펴주시였다.

량강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가 아로새겨진 혁명전적지에서 살며 투쟁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이땅에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활짝 꽃피우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벌림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내 모든 당원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였으며 일편단심 수령님을 받들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 싸워 나가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공업의 믿음직한 지원에 의하여 백두고원지대에 나라의 림산공업기지가 창설되였으며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순환식채벌방법이 도입되여 있는 로력과 있는 설비로 더 많은 통나무를 생산하고 후계림을 계획적으로, 전망적으로 조성하게 되였으며 림산로동자들이 산판을 자기 마을과 같이 알뜰히 꾸리고 영원히 산판의 주인으로 일하게 되였다.

도내 지질탐사일군대렬과 이 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지고 유망한 광산후보지들이 많이 발견되였으며 새 광산들이 수많이 생겨나고 이미 있던 광산들이 정비보강되여 해마다 생산량이 늘어남으로써 도가 나라의 채취공업에서 중요한 몫을 맡게 되였다.

도내에는 산간재배원료를 리용하여 일용필수품을 대대적으로 만들어내는 현대적경공업기지가 창설되고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이 일떠서서 군마다에 믿음직한 소비품생산기지가 꾸려졌다.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도내 농업생산에서와 농민들의 생활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감자, 밀, 아마, 남새, 축산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졌다.

지난날에는 가대기로 화전을 뚜지며 힘겹게 일하던 이고장 농민들이 오늘은 뜨락또르와 자동차, 각종 련결농기계를 비롯한 수많은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을 리용하여 헐하고 흥겹게 농사를 짓고있으며 전기화가 완성되고 뻐스화, 수도화, 진료소의 병원화와 텔레비죤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여가고있는 사회주의 문화 농촌에서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고있다.

현대적도시들이 일떠서고 국가투자에 의하여 농촌에 수많은 문화주택들이 건설되여 도의 면모도 일신되였으며 국토는 사회주의제도에 상응한 면모를 훌륭히 갖추었다.

도내의 교육, 문화, 보건 분야에서도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여 도시로부터 백두산밑의 림산마을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서나 후대들이 정규학교에서 마음껏 배우면서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믿음직하게 자라고있으며 도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려졌다.

인민들은 누구나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으며 무병장수하고있다.

량강도에서 일어난 이러한 세기적인 변혁과 도내 인민들이 누리고있는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은 오직 위대한 주체사상의 홰불을 높이 드시고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히시며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와 육친적 배려의 결과이다.

우리 인민을 공산주의락원에로 더 빨리 이끌어주시기 위하여 항상 심려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에 또다시 량강도를 찾으시여 도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도내 인민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월 2일 국영포태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국영포태농장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농장을 돌아보시고 농장책임일군들과 작업반장들, 농업근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이 지대 농업생산의 특성과 농장의 농사형편, 농장 농업근로자들의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으며 협동농장에 비한 국영농장의 우월성을 실물로써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높이고 지대적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련결농기계도 만들며 농기계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 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더욱 높여야 하며 농사도 더 잘 짓고 농장로동자들의 생활수준도 더 높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밭의 돌을 추어내는 기

계와 도랑을 째는 기계를 창안제작하여 토지개량사업을 힘있게 내밀데 대하여서와 농장로동자들의 현금수입을 더욱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작업반마다 적당한 규모의 돼지목장을 건설하여 고기도 생산하고 두엄을 받아 땅도 걸굴데 대하여서와 농장로력구성에서 기술자, 기능공의 비중을 높일 대책적인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어 혜산광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혜산광산을 찾으시여 지난시기에는 지방산업광산에 불과하던 이 광산이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오늘은 큰 규모의 광산으로 발전한데 대하여 깊이 료해하시고 이곳 로동계급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면서 앞으로 이 광산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휘황한 전망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발전전망이 있는 혜산광산에 필요한 로력과 기계설비들을 보장해줄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으며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광산 로동계급이 당 제5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련일 혁신을 일으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월 3일 혜산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혜산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공장 로동계급이 아마로 여러가지 천을 많이 짜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으며 앞으로 인민들이 요구하는 질좋은 천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지난날 헐벗고 못살던 우리 인민들을 남보다 더잘 입히시려고 항상 심려하고계시는 수령님께서는 이날 공장내 매개 직장에 일일이 들리시여 기대옆에서 방직공들이 일하는 모습을 주의깊이 보시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천을 더많이 짜 내라고 고무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천을 더 많이 짜내자면 다기대운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매개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또한 날염공정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라고 하시면서 특히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 필요한 부속품들을 생산하여 기대의 만가동을 보장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탁아소에 들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이들이 잘 크는가고 물으시며 탁아소내 설비들이 잘 꾸려졌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또한 혜산종이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혜산종이공장을 찾으시여 이 공장 로동자들이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을 보다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치렬한 증산투쟁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기술, 자체의 힘으로 새로 만든 원통식피박기를 살펴보시면서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고 크고작은 나무를 다 리용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목재의 종합적리용률을 높일데 대하여 상세히 가르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거의 모두가 기계화, 자동화된 생산공정을 하나하나 돌아보시고 이빠진 공정을 보충할데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생산면적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지금보다 생산을 부쩍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초지직장에 이르신 수령님께서는 포장지를 손수 만져보시고 하늘에 비쳐보시기도 하시면서 종이의 질을 높이는것은 그만치 나무를 얻는것과 같다고 하시며 나무를 절약하고 종이의 질을 높일데 대하여 거듭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번 량강도 현지지도는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기 위한 우리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전환을 일으키는 획기적인 계기로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량강도내 당, 정권및경제기관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6월 5일부터 6일까지 혜산에서 량강도내 당, 정권 및 경제기관일군협의회가 진행되였다.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그이의 지도밑에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 실행하기 위하여 도내 당, 정권및 경제기관들과 인민경제 각 부문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 그리고 그 실행대책을 토의하게 되는 협의회 전체 참가자들은 커다란 기쁨에 휩싸여있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장내를 뒤흔드는 폭풍같은 환호와 오래 계속되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어버이 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림업, 광업, 농업을 비롯한 도내 인민경제를 더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과 그 수행대책들이 토의되였다.

협의회에서는 도내 광업, 림업, 농업, 지방공업, 교육, 문화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지적하고 이는 전적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며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의 결과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도내 당, 정권, 경제기관 그리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일군들로부터 장시간에 걸쳐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각 부문 자료들을 검토분석하신 기초우에서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실행하기 위하여 도내 인민경제 각 부문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전국적으로 림업에서는 량강도가 제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시면서 림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경제 각 부문에 필요한 목재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량강도를 나라에 목재를 공급하는 기본생산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림업에서는 우선 조림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림을 하는데서는 나무모를 많이 길러 심고 자연묘목도 많이 리용하고 씨도 많이 뿌리며 특히 삼송을 많이 심어 인견팔프와 스프 원료로 리용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또한 협동농장 조림작업반에 조림계획을 정확히 주고 그 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림을 많이 함과 함께 산림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림업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순환식채벌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우월성을 다시금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순환식채벌방법을 받아들이면 로력, 설비, 자금을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적으로 리용할수 있고 림업로동자들의 생활을 체계적으로 더욱 향상시킬수 있으며 림산구역을 자기 직장으로 여기고 나무를 심고 기르고 베기때문에 림업에서 투기성을 없애고 후계림을 계획적으로, 전망적으로 조성하며 목재를 계획적으로 생산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림산사업소들에서 순환식채벌방법을 더욱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순환식채벌방법의 효과성을 높이자면 순환주기를 꼭 지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순환도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채벌과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새 림지를 개발하는것은 채취공업에서 굴진을 앞세우는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압록강류역과 갑산, 풍산 등지에 새로운 림산기지를 마련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목재생산을 짧은 기간내에 대대적으로 늘이자면 또한 나무를 종합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목재가공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초두목, 쪽데기 등으로 목삭판, 목섬유판을 비롯한 건재류들을 많이 생산하며 인민생활에 필요한 목재가공품들을 더 많이 만들고 종이공장들에서는 반드시 초두목을 널리 쓰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겨울이 긴 량강도내 농촌의 실정을 고려하여 영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대중적인 운동으로 통나무를 생산하는 투쟁을 벌려 경제건설장에 목재를 더 많이 보내면서 동시에 이를 통하여 농장원들의 현금수입을 높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림업부문에서 자체의 힘으로 림업기계공장들을 확대하여 필요한 기계기구들과 부속품들을 생산하고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는 투쟁을 벌리며 기계공업부문에서 공작기계와 뜨락또르 생산을 늘여 림업부문에 더 많이 보내줄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또한 우리 나라 산지대는 강물을 리용하여 목재를 나를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하시면서 철길을 리용하는 한편 집토장에 나무를 모았다가 물길을 따라 류벌하는것이 더욱 좋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내 광산들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지질탐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우며 6개년계획기간에 더 많은 광석을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광산들의 전망목표와 당면생산목표들을 제시해주시였으며 생산계획수행을 위한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굴진을 앞세우는것은 채취공업발전에서 하나의 법칙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광산들에서 계획화사업과 설계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광산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끊임없이 벌려 갱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로동생산능률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대책을 직접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내 농촌실정과 농사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기초하시여 도내 농촌경리의 발전방향과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에서 단위당 소출을 높이는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수행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발고가 높고 일련의 기후적특성을 가지고있는 이 지대에서 작물을 옳게 배치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농작물의 수확고가 결정적으로 좌우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작물배치계획을 지대적특성에 맞게 과학적으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작물은 당이 이미 내세운 방침대로 적지적작의 원칙에 따라 잘되는 작물을 많이 심되 단위당 소출이 높은 곡종을 반드시 심으며 특히 조숙종을 많이 심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촌기계화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모든 수단들을 다 리용하여 기계화면적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당면하게는 뜨락또르의 가동률과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내에 뜨락또르부속품공장과 련결농기계공장을 잘 꾸리고 지대적특성에 맞는 련결차와 련결농기계, 감자수확기, 돌추는 기계들을 생산보장하며 농기계작업소의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이동수리차를 리용하여 기동적으로 수리를 보장하라고 하시였다.

그리고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고 랭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밭들에서 돌을 쳐내는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리며 도랑을 파는 사업을 벌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도내의 기후풍토와 지대적특성을 고려하여 집집마다 줄당콩을 더 많이 심으며 호프가 잘되는 지대들에서 호프를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로동자, 농민, 사무원 세대들에서도 빈땅을 리용하여 호프를 심어 가꿀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또한 아마, 역삼을 많이 심고 가둑누에와 버들누에치기를 잘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산과 함께 축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축산물생산을 늘이자면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돼지목장들을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까운 년간에 도시와 로동자구들에 여러가지 규모의 목장들을 건설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산이 많고 풀이 많은 도내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소와 양을 많이 길러낼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공동축산을 더욱 발전시킴과 함께 매 농가마다에서 돼지, 닭을 비롯한 집짐승을 기르는 운동을 적극 벌려 고기와 알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속하여 량강도내 중앙경공업과 지방공업을 더 한층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선 현대적설비를 갖추고 일떠선 공장들이 현존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일군들이 이악하게 달라붙어 현존설비들을 만가동시켜 생산을 늘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며

방직공장에서 다기대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제지공장에서 종이의 질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동시에 경공업부문에서 품종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이빠진 공정을 보충완비하고 낡은 설비들은 개량하면서 모두가 천리마의 기세로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량강도에 흔한 들쭉을 비롯한 지방원료자재들을 널리 리용하여 다양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교통운수조건이 불편한 량강도의 실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수송기재들을 친히 해결해주시면서 길주—혜산사이의 철도전기화를 비롯하여 도내 교통운수발전에서 나서는 과업들과 그 수행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도내 인민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보살피시면서 또다시 육친적인 사랑과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이 정권을 쥔 다음에는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도내 모든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여 인민들을 더잘 입히고 더잘 먹이고 더 잘살게 하는데 힘을 돌려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시고 림업, 광업 부문 로동자들을 비롯한 도내 근로자들에게 남새, 물고기, 기름, 닭알, 고기, 과실을 더 풍족하게 공급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과 방도를 세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혜산시를 비롯한 도시와 로동자구들에서 남새를 자급자족할데 대한 방도를 가르쳐주시면서 우선 가을남새를 많이 심어 말리거나 절구었다가 봄남새가 날 때까지 먹도록 하는 동시에 이른봄에 시금치, 봄배추, 무우 등 남새를 더욱 많이 심어 남새문제를 충분히 해결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혜산시와 각 군 소재지들에 랭동공장을 빨리 지어 명태를 비롯한 물고기를 많이 저장하였다가 인민들에게 사철 물고기를 떨구지 않고 공급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량강도에 잘되는 역삼을 도처에 심어 씨에서 기름을 많이 짜며 콩도 많이 심어 림산로동자들과 광부들을 비롯한 도내 근로자들에게 기름을 더 많이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도내 주민들에게 고기와 닭알을 풍족하게 공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돼지목장과 닭공장을 더 건설하며 배합사료공장도 짓고 도살장도 건설하라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상업부문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도내 주민들에게 각종 상품과 과실을 많이 공급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공업공장들에서 있는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이빠진 생산공정들을 보충완비하여 세타, 쟈케트를 비롯한 각종 편직물들과 천, 양말, 신발 생산량을 더욱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임으로써 의복류에 대한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특히 량강도에서는 겨울이 긴 특성에 맞게 내의류와 외투를 비롯한 겨울옷을 더잘,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송림식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근로자들의 주택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며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도 더 많이 건설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지방건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목재를 비롯한 지방건재들을 많이 리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을 더잘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지방자재를 널리 리용하여 농촌수도화를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인민생활을 높임에 있어서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특히 인민위원회일군들이 상업, 도시경영, 교육, 문화, 보건 사업을 틀어쥐고 인민의 충복답게 이 부문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내 인민경제 각 부문앞에 나서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도당위원회를 비롯한 도내 당조직들이 조직정치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당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도일군들을 비롯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에 무한히 충직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투사로 키울데 대하여서와 실천활동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내 각급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조직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정권기관들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협의회참가자들과 도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전적지에서 살며 사업하고있는 높은 영예를 간직하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뭉치여 그이의 현지교시를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도내 인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더욱 높이는데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할 결의를 굳게 다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량강도내 당, 정권 및 경제기관일군협의회에서 하신 교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6개년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더욱 촉진시키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며 우리 나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북도 내 인민경제 각 부문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에 걸쳐 함경북도내 인민경제 각 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밑에 자기 도를 나라의 강력한 공업기지로 전변시키고 끝없는 행복을 누리고있는 함경북도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상 마음속깊이 흠모하며 신뢰하여마지않는 어버이 수령님을 무한한 감격과 기쁨속에서 맞이하였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더욱 유족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깊이 심려하고 계시는 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 함경북도를 찾으시여 도가 나갈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도내 인민들을 오늘의 승리에로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사랑의 손길아래 오늘 함경북도에서는 우리 나라의 다른 모든 지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다.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그이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쳤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들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전사로 자라났다.

도내에는 믿음직한 철광석생산기지와 강력한 흑색야금공업기지가 꾸려지고 현대적인 기계공업기지와 여러가지 큰 배들을 무어낼수 있는 조선공업기지가 마련되였다. 그리고 새로운 전력공업기지와 대규모의 석유화학공업기지가 웅장하게 일떠서고있으며 석탄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림업, 건설, 철도운수, 경공업과 수산업이 빨리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도내 농촌경리에서도 새로운 전변이 일어났다. 농촌의 수리화, 전기화가 완성되고 기계화, 화학화가 빨리 진척되여 농산을 비롯한 축산, 과수, 잠업 등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고 수도화, 뻐스화, 리진료소의 병원화와 문화주택건설이 성과있게 추진되여 도내 농촌들은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그 면모가 일신되고있다.

도내 교육, 문화, 보건 사업에서도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도내에는 도의 간부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는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가 마련되고 청소년들은 16개의 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각급 학교들에서 9년제기술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을 마음껏 받으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 도내 인민들은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누구나 다 입을 걱정, 먹을걱정, 치료받을 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며 자기들에게 오늘의 보람찬 생활을 안겨주신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함경북도에서 일어난 이 모든 거대한 변혁과 도내 인민들이 누리고있는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은 전적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의 홰불을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히시면서 우리 인민을 오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어주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와 두터운 배려의 결과이다.

함경북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대하여 항상 심려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나라의 모든 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에 또다시 함경북도를 찾으시여 당 제5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청진, 경성, 길주 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방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사업정형을 여러날동안 상세히 료해하시고 구체적인 지도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길주지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길주기계공장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이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단능기계들을 만들어낼수 있는 설비들을 잘 갖추어놓은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이 공장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많이 요구하는 새로운 단능기계들 가운데서 몇가지 품종을 전문적으로 맡아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 길주팔프공장에 오시여 새로 설치한 초지기의 종이생산정형을 살펴보시면서 당조직들이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고 직맹조직이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이곳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짧은 기간에 또하나의 초지기를 꾸려놓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사상, 문화 혁명의 요구에 맞게 새 초지기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질을 더욱 높이며 늘어나는 종이원료에 대한 수요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길주합판공장에 들리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목재를 종합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2,500톤프레스, 섬유해리기, 목삭기를 비롯한 수많은 기계설비를 만들어 현대적으로 꾸려놓은 목삭판생산공정과 목섬유판생산공정을 돌아보시고 이 공장에서 생산된 장식합판, 장식목섬유판, 장식목삭판들과 가구들을 살펴보시면서 목재원천이 있는 도들과 제재공장들에 목삭판, 목섬유판생산공정을 몇개 계렬씩 더 갖추고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장탁아소에도 들리시여 어린이들에게 뜨거운 육친의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신 다음 평륙협동농장 포전에 들리시여 농작물의 작황을 살펴보시고나서 군농촌경리일군들, 협동농장관리일군들, 농장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장시간 담화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지대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고 농작물의 씨붙임과 모내기를 제때에 하며 비료성분을 시기별로 충족시켜 단위당 소출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농작물재배에서 미량원소가 가지는 효과성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작물별 특성에 맞는 미량원소를 더 많이 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기계화를 적극 밀고나가 농사일을 더욱 헐하게 하고 로력을 절약하며 알곡뿐아니라 담배와 남새, 과일, 축산물 생산을 더 많이 늘일데 대하여 가르치시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길주지구 현지지도에 이어 청진, 경성지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청진조선소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생산시설들과 큰 배를 뭇고있는 현장을 돌아보시고 수산업과 해상운수 발전에서 배의 대형화, 고속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 조선소를 앞으로 만톤급이상의 큰배를 대대적으로 무어내는 나라의 믿음직한 조선공업기지로 더욱 튼튼히 꾸릴데 대한 전투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여러가지 배를 많이 무어내면서 그의 질을 높이자면 협동화, 전문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청진시내 중소규모지방산업공장들중의 일부를 배의장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들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청진조선소에서 무어내여 재일조선공민들이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오는 귀국선으로 리용되고있는 대형려객선 《만경봉》호에 친히 오르시여 객실, 휴게실, 식당을 비롯한 배의 시설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그 내부시설과 의장품들을 그리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동포들에게 더욱 편리하게 더잘 꾸릴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제철소 강철직장과 압연직장 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건설장에 오신 수령님께서는 공사장을 돌아보시고 이곳 건설사업소 건설자들과 담화하시면서 공사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으며 강철직장과 압연직장 건설을 더욱 빨리 추진시킬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5월 10일공장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공장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이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만든 쌍원통채탄기와 종합굴진기를 보시면서 이곳 로동계급이 당이 내세운 3대 기술혁명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가공직장, 주강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생산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면적을 더욱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기대들을 더 잘 배치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앞으로 이 공장에서는 탄광설비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여러가지 대상설비들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을휴양소 건설현장에 들리시여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많은 근로자들이 문화휴식을 보다 잘할수 있도록 휴양각을 훌륭하게 지을데 대하여서와 체육문화시설들을 더 잘 갖출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지구내 협동농장들에도 들리시여 영농사업정형을 알아보시고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당 제5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지방자재를 널리 리용하여 수도화를 완성한 경성군 온포협동농장과 주을협동농장을 찾으시여 농촌수도화정형을 비롯하여 농장형편을 료해하시였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장원들의 집에 들리시여 수도꼭지를 손수 틀어보시면서 오랜 세월 고역에 시달리던 우리 농민들이 이제는 수리화, 전기화된 농촌에서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흥겹게 농사를 짓고 집집마다 수도물까지 나오는 아담한 문화주택에서 잘살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주을협동농장에서 누에고치생산정형을 알아보시고 이곳 녀맹원들이 가둑누에고치생산을 잘하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으며 앞으로 우리 나라 산마다에 무성한 가둑나무잎으로 누에고치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널리 벌릴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돌아보신 다음 도내 인민경제 각 부문 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기계, 조선, 금속, 광업, 화학, 전기, 석탄, 건설운수, 농촌경리를 비롯한 도내 인민경제 각 부문이 나아갈 길을 명시하여주시였으며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6개년계획을 앞당기고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함경북도의 중심과업의 하나는 기계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무엇보다먼저 배를 만드는 공업에 중심을 둘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담하게 건설하고 대담하게 전진하는 혁명정신을 가지고 조선소들을 크게 확장하며 우리의 기술, 우리의 기계 우리의 자재로 대형선박들을 더많이 무어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선소들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리고 기계공업부문들에서 협동생산품들을 제때에 질좋게 생산보장함으로써 배의 건조기일을 결정적으로 단축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도내 인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계기지를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5월 10일공장을 채굴설비만 아니라 도내에서 제기되는 대상설비도 생산보장하는 기계기지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새 기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고 하시면서 공작기계공장들에서 생산량과 품종을 늘이며 질을 높이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간적중공업이 많은 함경북도에서 금속공업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날로 늘어나는 갖가지 철강재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흑색야금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김책제철소 강철직장과 압연직장 건설공사를 비롯한 야금공장들의 확장공사를 다그쳐 우리 나라 흑색야금공업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여 제철, 제강소들에서 원료처리와 제품처리능력을 보강하고 부대시설들을 정비하며 선진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야금설비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우리 나라 원료에 기초하여 제철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철생산문제를 푸는 중요한 방침이라고 하시면서 될수록 콕스를 적게 쓰면서 더 많은 선철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금속공업기업소들에서 강종을 늘이고 강질을 높이며 압연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훨씬 늘여 인민경제 발전과 기술혁명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흑색금속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

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제철소가 종합적인 대야금공업기지로 확장되는것과 관련하여 여기에 더 많은 원료와 연료를 대줄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채굴공업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을 늘일 방도들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채취공업은 생산의 첫공정이며 따라서 이 부문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제대로 발전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광산들에 투자를 집중하여 생산설비들을 부단히 보강갱신함으로써 생산을 부쩍 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산광산의 사업을 료해하시고 가까운 기간내에 자철정광생산능력을 2배이상으로 높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채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지질탐사부문일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부문에서는 탐사력량과 기술장비를 더욱 강화하고 탐사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지하자원을 더 많이 찾아냄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종합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공업의 원료기지를 확대하며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화학공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과 그 수행방도들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대규모의 석유화학공업기지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내밀며 방직공업의 원료문제해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청진화학섬유공장의 설비를 더욱 현대화하고 생산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하여 항상 깊이 심려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유해로동을 없애는것은 로동계급이 정권을 쥔 다음에 수행하여야 할 혁명과업의 하나이며 이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것은 부르죠아사상잔재와의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간곡히 가르치시면서 우리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당이 내세운 3대기술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 유해로동을 하루빨리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시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친히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늘어나는 수송수요에 맞게 철도운수와 해상운수를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물동량이 많고 구배가 심한 함경북도의 철도운수에서 통과능력을 높이는 기본방도는 철도를 전기화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아직 전기화되지 않은 구간들을 전기화할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철도전기화를 계단별로 실시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청진—두만강사이의 철도전기화를 먼저 끝내고 청진—무산, 길주—혜산, 고무산—회령사이의 순위로 철도전기화를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또한 철도를 전기화하는것과 함께 철길을 중량레루로 바꾸며 중량화차를 많이 생산하는것을 비롯하여 철도부문에서 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안선이 긴 함경북도에서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는 해상운수를 더욱 발전시키는것이라고 가르치시면서 큰 배를 더 많이 무어 해상수송량을 늘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목적이 인민들을 원만히 더 잘살게 하자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정권기관, 경제부분 일군들로부터 주민들에 대한 부식물공급정형을 직접 보고받으시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 구체적인 방도들을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당면하게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부식물을 공급하고 더 좋은 옷감이 차례지도록 하며 주택조건을 원만히 풀기 위한 사업에 많은 힘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와 직접 관련된 농촌경리, 수산업, 경공업, 주택건설 부문들에서 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촌경리부문에서 알곡생산을 더 늘이자면 지대적특성에 맞는 품종을 정확히 선정하고 씨붙임을 제때에 하며 토지정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기계화면적을 최대한으로 늘이고 특히 알곡증산의 예비가 많은 중간지대에 력량을 집중하여 정당수확고를 높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도시와 로동자지구, 군소재지들에 남새를 더욱 풍족하게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당이 제시한 방침대로 남새생산을 집약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미 설치한 분수식관수설비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그 면적을 더 늘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주민들에게 고기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하여 이미 있는 돼지, 오리, 닭목장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면서 도시주변과 공장, 기업소들이 집중되여있는 로동자지구들에 현대적인 돼지, 닭 공장들과 배합사료공장을 새로 건설하며 협동농장의 작업반과 집집마다에서 돼지와 닭을 많이 쳐서 고기와 알 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에게 기름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콩면적을 늘이고 단위당 소출을 높이며 들깨, 역삼을 더 많이 심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과수업에서 여기 북방지대에 잘되는 과일인 배를 장려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또한 담배의 단위당 소출을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특히 담배심기, 잎따기, 말리기, 포장 작업을 적극 기계화하며 가공을 현대화할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협의회에서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날로 높아지는데 따라 질좋은 옷감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다고 하시면서 누에고치생산량을 급속히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경성군내 읍, 로동자구, 농촌들에서 녀맹원들이 가둑누에고치생산을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힘차게 벌리고있는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여 모든 부문에서 녀맹단체들을 도와서 누에고치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 도처에 가둑나무가 많은 조건하에서 농촌뿐만아니라 읍, 로동자구, 탄광, 광산지구 할것없이 모든곳에서 가둑누에를 치며 몇개 군에 한곳씩 종란장을 설치하여 늘어나는 종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세면에 바다를 끼고있으며 또 바다에 무진장한 자원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산업은 우리가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부문의 하나이며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축산업을 발전시키는것보다 자금이 적게 들면서도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빨리 풀수 있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원해어업과 세소어업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교시를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원해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큰 배를 많이 마련하는것과 함께 그의 리용률을 높이며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원해어업과 동시에 세소어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들

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철 물고기를 많이 잡아내는 투쟁을 힘차게 벌릴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도내 경공업부문에서 세타 및 메리야스 공장과 옷공장, 양말공장을 많이 건설하여 어린이옷, 녀자옷, 남자옷, 세타, 메리야스, 내의, 양말 등을 사회주의적생활양식과 인민들의 기호에 맞게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고 각급 정권기관들이 해당지역의 호주로서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며 특히 상업류통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주민들에게 부식물과 상품을 더잘 공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산업건설에 주택건설을 따라세우는것은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청진시에서 한해에 1만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며 도내 도시들과 로동자구, 농촌들에서 주택을 대대적으로 지으며 이와 함께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상점, 편의시설들을 많이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도내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고 도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높이기 위하여 도당위원회를 비롯한 도내 각급 당조직들이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적인 실천과 조직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군중교양사업에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며 어떠한 애로와 난관이 부닥쳐도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적인 기풍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번 함경북도 현지지도와 협의회에서 하신 교시는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더욱 촉진시키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며 함경북도내 인민들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첫 개학날에 평양시 대동문인민학교를 찾으시고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교육의 발전과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데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뜻깊은 첫학년도의 개학날인 9월 1일 평양시 대동문인민학교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이날 영광스럽게도 경애하는 어버이 수령님을 맞이하게 된 대동문인민학교 전체 교원, 학생들은 커다란 감격과 행복감에 휩싸여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왕》이라고 이르시며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이 없이 모든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25년전인 1947년 7월에 친히 이 학교에 나오시여 해방후 인민정권밑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학생들의 졸업시험정형을 보아주시였으며 력사적인 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첫개학날에 또다시 입학정형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몸소 찾아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환호하는 교원,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답례하시며 줄지어선 신입생들의 대렬을 돌아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어린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몇살인가, 아버지는 누구이며 어느 직장에 다니는가 물어보기도 하시고 아이들의 책가방을 손수 열어보시며 책과 학습장, 연필들이 잘 준비되였는가를 살피시기도 하시였으며 어린이들이 모두 건강한것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영광스럽게도 입학하는 첫날에 아버지 원수님을 뵈옵게 된 어린이들은 기쁨에 넘쳐 어쩔줄을 몰랐으며 앞을 다투어 수령님의 품에 안기였다.

수령님께서는 입학하는 날은 영광의 날이며 제일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하시면서 신입생들을 축하하시였다.

이어 수령님께서는 1학년 7반과 8반, 2학년 7반, 3학년 11반 교실에 들리시여 학생들을 만나보시였다.

이미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구상을 익혀오시였으며 재작년부터 시험적으로 만 여섯살에 난 어린이들을 받아 공부시키도록 하여 오신 수령님께서는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애롭고도 부드럽게 문답을 하시면서 그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며 어떤 과목을 어려워하는가를 료해하시였으며 특히 그들이 소년단조직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어린학생들은 모두 활발하고 영특하게 대답을 올리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미소를 띄우시고 들으시였다.

학생들이 소년단에 언제 들었는가, 소년단회의를 하는가, 회의에서는 무슨 문제를 토의하는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직생활을 잘하고있으며 특히 회의에서 비판도 하고 비판을 통하여 결함들을 고쳐나가고 있는 사실을 료해하시고 조직생활은 이래서 좋다고 하시며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을 만나신후 이어 이 학교 교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과 담화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담화에서 10년제고중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나어린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과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교수교양사업에 구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 교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상세히 료해하시였으며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학생들을 당의 유일사상체

계가 튼튼히 서고 혁명적세계관이 똑바로 선 조선의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 투사로 키워내기 위하여 교육부문과 교원들 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올해에 시험단계로부터 실천단계로 넘어가는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이 학교에서 재작년부터 시험적으로 실시해본 결과만 보더라도 아주 우월하고 선진적인 교육제도이라는것을 알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10년제고중의무교육실시에 따라 입학나이가 아래로 한살 앞당겨져도 만 6살이면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능히 들어갈수 있으며 그들을 그만큼 더 빨리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길러낼수 있다는것이 확증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국가가 정규학교에서 무료로 공부시켜주는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완전한 무료교육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있는 실질적인 의무교육이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교육제도는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아들딸을 학교에 마음대로 보내지 못하고 아이들의 학비를 내지 못하여 어머니가 자살을 하는것과 같은 가슴아픈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착취사회에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수 없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학교교육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 고등학교교육까지 주게 되는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의 실시는 로력자대렬을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문화수준이 높은 새세대로 끊임없이 보충하여 정치, 경제, 문화등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를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실시가 방대한 국가적투자와 물적, 인적 준비를 요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우리는 전국가적 력량을 동원하고 모든 난관을 뚫고 나아가 이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빛나게 완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따라 사회주의교육과 자본주의교육의 계선을 똑똑히 가르고 학생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의 방향과 내용을 명백히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청소년학생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을 미워하고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며 로동하기를 좋아하고 국가사회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으로 어려서부터 철저히 교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학생들을 문예소조사업과 사회정치활동, 록화근위대, 위생근위대 사업 등에 적극 참가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학생들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몸을 깨끗이 거두게 하며 례절이 바르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청소년학생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데서 조직생활을 잘하게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조직생활에 습관시켜야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할수 있고 그들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빨리 자라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학생들에게 현대과학과 기술의 기초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에 맞게 옳게 교육교양하여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교육부문일군들이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잘살수 있는 공산주의에로 더 빨리 나갈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속하여 공산주의건설 특히 공산주의적인간육성에서 교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임무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주체철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기때문에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람과의 사업에서 당은 간부들, 당원들, 군중과의 사업을 하고 인민학교교원들은 자연과 사회를 알기 시작하는 어린이들과의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사람과의 사업에서 첫 시작을 맡고 그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세워주는 교원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본주의사회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더 가난해지는 사회이며 이런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의식을 넣어주면 그들이 착취사회를 개조하려고 할것이기때문에 위정자들은 학생들을 정치에서 리탈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자고 하기때문에 학생들은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원들이 사업을 잘하여 학생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혁명적세계관으로 잘 무장시키면 잘 무장시킬수록 공산주의를 더 빨리 건설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바로 그렇기때문에 교원은 직업이 아니라 혁명가라고 하시면서 교원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중요한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질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재직교원을 교육교양하는 체계를 더잘 세워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도록 할데 대하여 상세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학교를 더 많이 짓고 교육조건을 더잘 지어줄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실시되는데 따라 늘어나는 교실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전인민적운동으로 학교를 더 많이 건설하며 모든 인민학교와 중학교들에 리발소와 목욕탕을 다 차려놓아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리발과 목욕을 하며 위생문화적으로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교원들의 교수교양조건과 학생들의 학습조건을 보다 원만히 보장하며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질을 높일데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어린 학생들일수록 교과서를 좋은 종이로 더잘 찍어 주며 교원들에게도 참고서와 교편물을 더 많이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담화에서 교원들의 사업과 생활형편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들이 학습도 더 잘하고 가정도 더 알뜰히 꾸리며 교수교양사업도 더 잘할수 있도록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희망찬 배움의 길에 첫걸음을 내디디는 여섯살나는 어린 신입생들, 이 학교의 전체 교원들과 각각 기념사진을 함께 찍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동문인민학교에 대한 현지지도와 그이께서 하신 교시는 우리의 후대들을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조선의 혁명가,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워내게하는데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주요 행사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승리적으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및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고있으며 온 나라가 조국의 자주적 통일에 관한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세차게 넘쳐 흐르고있는 환경속에서 12월 12일 승리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에게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들에는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대표들이 대의원으로 참가하며 그들이 국가기관들을 관리운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하는것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단행본, 32~3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심으로 하여 혁명주권의 주인된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간직한 전체 인민들은 선거를 높은 정치적열의로 맞이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및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립각하여 중앙 선거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 선거위원회 및 구선거위원회, 분구선거위원회들이 각각 조직되여 자기 사업에 착수한데 이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전인민적경사를 맞는 모든 선거자들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로동자, 농민의 주권기관을 반석같이 다지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 높은 정치적열의로 들끓었다.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을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

혁명의 강력한 무기인 우리의 로동자, 농민의 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질 전체 인민의 드높은 정치적열의속에서 최고인민회의 및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 추천사업이 진행되였다.

대의원후보자 추천은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 국가기관, 공장, 기업소 종업원회의, 협동농장 농장원회의, 주민회의 및 군무자회의들에서 진행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공업의 위력을 떨치는 자동화의 본보기공장을 몸소 꾸려주시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지펴주신 영광의 땅, 기계도시 희천에서 11월 23일 제일 먼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216호희천선거구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및 희천시내 기관, 기업소 련합종업원대회가 있었다.

대회에서는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성과 환영곡이 울려퍼지고 아름다운 고무풍선이 하늘에 꽃수를 놓은 가운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 바치신 거대한 공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전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다함없는 존경, 충심으로 되는 흠모를 받고계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대할데 대한 제의가 있었다.

대회장에서는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으며 목청껏부르는 만세 소리는 그칠줄 몰랐다. 대회전체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대할데 대한 제의를 절대적으로 한결같이 지지함을 표시하였다

대회는 만민이 우러르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대할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수락하여주실것을 충심으로 요청하여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희천시내 선거자들의 련합종업원대회에 이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추천을 위한 모임들에서는 열화같은 충성의 한마음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을 자기들의 선거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대하였다.

이는 오직 영명하신 수령님이 계시기에 오늘의 영광스러운 조국이 있고 찬란한 미래도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체험한 우리 인민의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 끝없는 충성심의 표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12월 1일 각 선거구 선거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216호희천선거구 선거자들의 절절한 요청을 수락하시여 이 선거구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모임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하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되였으며 인민들의 신망이 높은 일군들과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대표들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하였다.

추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 가운데는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이국땅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일편단심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륭성발전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간부들과 재일조선상공인, 녀성, 교육자들도 들어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12월 2일 제216호희천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등록한데 뒤이어 12월 3일까지 전국 541개의 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 선거위원회들에서 후보자추천사업의 정확여부와 추천된 대의원후보자들의 승낙서를 심의하고 그 전원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다음으로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추천사업은 12월 2일부터 시작되여 12월 5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성과적으로 끝났다.

지방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은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며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당 및 정권기관, 사회단체일군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로력영웅들과 로력혁신자들, 과학문화예술인 등을 비롯하여 인민의 신망이 높은 각계각층의 인민의 대표들이 추천되였다.

전체 선거자들이 100% 참가, 100%찬성

경사스러운 선거의 날 12월 12일에 온 나라 방방곡곡은 드높은 정치적열의와 경축의 분위기로 휩싸여있었다.

모든 선거자들은 자기들을 자주독립국가의 떳떳한 공민으로, 주권의 참다운 주인으로 이끌어주시고 오늘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과 자기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로동자, 농민의 주권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의 정을 안고 모두다 선거에 한결같이 참가하였다.

특히 이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몸가까이 한자리에 모시고 각급 주권기관대의원을 선거하는 영광을 지닌 평양시 서성구역 제115호분구선거자들인 천리마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끝없는 감격과 흥분속에서 영광의 선거장으로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다.

환영곡이 높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선거장에 도착하시였다. 군중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으로 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수령님께서는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드시여 답례하시면서 선거장으로 들어가시여 분구선거위원회 위원장에게서 선거표를 받으시여 최고인민회의 및 시, 구역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한 투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선거에 참가한 이곳 선거자들은 수령님께서 나라의 번영과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여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축원하면서 그이께 영원히 충직하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새로운 혁명적열의를 가다듬으면서 투표하였다.

또한 이날 경애하는 수령님을 자기 선거구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직접 선거하는 영광을 지닌 희천선거구 선거자들인 희천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더 없는 영광, 끝없는 자랑을 간직하고 선거에 참가하여 자기들을 3대기술혁명수행의 선봉에 내세워주시고 온갖 육친적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께 열화같은 충성의 한표한표를 바치였다.

이날 나라의 전 지역 제철, 제강의 강철전사들, 지하막장의 붉은 광부들과 탄부들,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기계전사들, 백두밀림의 림업전사들, 동서해안의 어로전사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업근로자들, 분계연선의 남강마을 사람들, 조국을 철벽으로 지키고있는 조국보위초병들, 나라의 모든 선거자들은 자기운명, 자기주권의 주인으로서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로동자, 농민의 주권기관을 튼튼히 다지며 어버이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려는 일념으로 투표에 참가하였다.

선거에서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한 제216호희천선거구를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서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선거자의 100%가 선거에 참가하였으며 선거에 참가한 선거자의 100%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하였다.

100%참가, 100%찬성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이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가는 력사적행정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다.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서 당선된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당과 수령님께 충직하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각 정당, 사회단체, 무소속인사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 나온 우수한 일군들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는 수령님께서 직접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여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튼튼히 옹호보위하였으며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워온 많은 항일혁명투사들이 들어있으며 또한 그들 가운데는 공화국의 최고상인 《김일성상》과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받은 대의원 71명, 공화국 영웅 20명, 공화국로력영웅 81명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명예칭호를 받은 대의원 190명이 들어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541명가운데는 로동자출신대표 347명, 농민출신대표 72명, 사무원출신대표 122명이 들어있으며 녀성대의원이 113명이나 된다.

대의원구성은 우리 공화국정권이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자, 농민의 주권으로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견결히 싸울수 있는 우수한 일군들로 꾸려졌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번 선거에서 이룩한 력사적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통일단결을 뚜렷이 시위한것이며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로동자, 농민의 주권의 불패의 생활력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똑똑히 증시하였다.

선거의 빛나는 승리는 우리의 자주적인 혁명정권을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지고 우리 혁명위업을 더한층 힘차게 전진시켜 나가게 될것이다. 또한 남조선에서 외래침략자들을 쫓아내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과감히 투쟁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과 이국땅에서 공화국공민의 영예와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60만재일동포들에게 커다란 고무와 신심을 안겨주었다.

또한 이번 선거의 위대한 승리는 우리의 혁명위업을 방해하여나서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을 성대히 기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경축하고 그이께서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마흔돐을 뜻깊게 기념한데 이어 6월4일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지휘밑에 진행된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보고대회와 중앙강연회

우리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진행된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을 맞이하여 6월 2일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는 중앙강연회가 있었으며 6월3일에는 혜산시에서 기념보고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보고대회와 강연회에는 당및정부의 간부들을 비롯한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령들과 군관들, 출판보도부문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보고대회에는 또한 수령님탄생 예순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온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들과 통일혁명당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국경도시 혜산시와 린접하고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혁명위원회 주임을 단장으로 하는 장백현친선대표단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애국가주악으로 시작된 기념보고대회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으며 중앙강연회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를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진행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기 위한 력사적인 남호두회의결정을 구체화하시여 1937년 3월 서강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국내깊이에 진출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국내에로 진출해야 한다. 그래야 일제통치하에서 신음하는 국내인민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줄수 있다. 조선인민의 아들딸들인 우리 인민혁명군이 건재해있다는것을 알려주는것만으로도 그것은 인민들에게 큰 고무적힘으로 된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진군의 전략적방침은 일제침략자들에게 군사정치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주고 놈들의 파쑈적폭압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며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혁명전반에서 새로운 앙양을 가져올수 있게하는 현명한 방침이였다.

또한 이 방침은 당시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구현한것으로하여 보천보전투를 비롯한 국내진공작전들에서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몸소 령솔하시고 조국에로 진출하시여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구시산전투와 간삼봉전투에서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진군과 보천보전투에서의 대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그이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전법, 령군술의 자랑찬 승리였다.

수령님께서 친히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는 영웅적 항일무장투쟁시기 가장 큰 국내진공전투로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조선인민의 불굴의 혁명적기개를 온세상에 시위하였으며 일제침략자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정치군사적타격을 주고 조선에 대한 놈들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은것으로하여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을뿐아니라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에 큰 고무적힘을 주고 세계혁명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한 위대한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각이한 발전단계에 나서는 군사활동의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승리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마침내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세계혁명전쟁력사에 찬연히 빛나는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항일무장투쟁시기 그이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있음으로하여 우리 인민은 그처럼 짧은 력사적기간에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오늘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는것이다.

보고대회와 강연회참가자들은 전례없이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과 혁명앞에 영생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에 휩싸여있었으며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다할 굳은 결의로 충만되여있었다.

인민무력 및 군중 시위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6월 4일 혁명전적지인 량강도 혜산시에서는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을 기념하는 인민무력 및 군중 시위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날 혜산시광장과 그와 잇닿은 거리들에는 무장한 인민군군인들, 로농적위대원들, 붉은청년근위대원들과 시내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한 10만 군중이 꽉들어찼었다. 여기에는 보천과 삼수, 운흥에서 온 붉은광부들과 림업전사들, 협동농민들도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높이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광장에서는 일제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고 수백발의 축포가 올랐다.

애국가주악에 이어 연설이 있은다음 인민무력 및 군중시위가 시작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에 맞추어 수령님의 초상기를 앞에 모신 열병대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각이한 자동보총으로 무장한 종대와 기관총종대들이 대지를 구르며 광장에 들어섰다. 이들은 수령님께서 《만능부대》라는 칭호를 받은 무적의 용사로서 그어떤 원쑤도 단매에 때려부실수있는 일당백의 대오로 자라났음을 수령님께 삼가 보고 올리며 주석단앞을 행진해 나갔다.

수령님께서는 열병대오들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시며 손을 드시여 답례를 보내시였다.

미제의 다지막숨통을 끊어버릴 멸적의 기세 충천한 발사관종대에 이어 지축을 울리며 지나가는 기계화군단인 박격포종대, 반땅크포종대, 고사총종대, 고사포종대, 평사포종대, 곡사포종대, 방사포종대들이 주석단앞을 물결쳐 지나가고 장갑차종대들과 땅크종대들이 뒤따랐다.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할 결의에 불타고 있으며 최신군사과학과 군사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영웅적조선인민군대는 만일 원쑤들이 무모하게 또다시 덤벼든다면 놈들을 단숨에 소탕해비리고야말것이다.

전인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되여있는 자위의 나라 우리의 후방도 철벽이다.

붉은청년근위대와 로농적위대의 열병대오가 광장을 메우며 주석단앞을 지나갔다.

수령님의 초상기를 앞에 모신 소고종대에 이어 자동보총, 발사관, 통신기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무기와 각종 전투기술기재로 장비한 붉은청년근위대원들과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생산과 훈련을 다그치고있는 자원적무장조직인 로농적위대원들이 보무당당히 지나갔다. 녀성자동보총종대와 위생종대, 남자자동보총종대와 기관총종대가 지나가고 로농적위대 기계화구분대들이 지나갔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위로선을 관철하여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음을 그대로 보여준것이다.

열병대오에 이어 수령님의 초상화를 앞에 모신 도내 로력혁신자대렬들이 주석단 앞에서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지나갔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가장물을 앞세우고 붉은 기발을 휘날리며 춤추는 로동자들과 손에손에 홰불모형을 든 혜산시당학교 학생들을 뒤따라 광장에는 수령님의 한없이 넓고 자애로운 품속에서 활짝 꽃피는 도내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과 수령님의 가르치심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판들과 가장물들, 구호판을 든 근로자들이 물결쳐 나아갔다.

《수령님, 쇠돌은 념려마십시요》라고 쓴 구호와 품위높은 쇠돌발을 점령해나가는 모습을 형상한 가장물을 든 혜산광산의 붉은 광부들, 기계톱을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천년묵은 밀림을 정복해나가는 백두산관의 림업전사들의 로력투쟁을 형상한 《순환식채벌》가장물과 세상에 부럼없이 배우며 뛰노는 꽃봉오리들의 끝없는 행복, 끝없는 희망을 보여주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가장물을 들고 나아가는 시위군중과 시위대렬을 바라보는 관중들은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억제하지못해 저마다 눈시울을 적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전날 바늘한개 변변히 만들지못하던 삼수, 갑산 땅에서 오늘에는 갖가지 인민소비품이 쏟아져나오는 모습을 형상한 《인민생활향상》가장물과 황금의 예술을 꽃피워나가는 예술인대렬 그리고 일당백의 기상을 시위하는 체육인들의 대렬이 나갔다.

또한 주석단 앞으로는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지지성원하자!》,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자!》, 《맑스-레닌주의혁명적기치 만세!》, 《피로써 맺어진 조중량국인민들의 전투적친선단결 만세!》,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라고 쓴 구호들과 여러가지 가장물들을 앞세운 시위대렬이 련속 흘러갔다.

뒤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 만세!》구호와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배경으로 꽃동산에 모셔진 수령님의 초상화를 앞세운 근로자들이 광장에 들어섰다.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노래 대합창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로력영웅들과 녀성로력혁신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도내 인민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뜨거운 마음을 담은 꽃바구니를 수령님께 정중히 드리였다.

군중들은 주석단을 우러러 만세를 부르고 또 부르면서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에게 손을 드시여 답례하시였다.

수령님을 모시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을 뜻깊게 기념한 크나큰 영예를 지닌 10만의 시위참가자들과 군중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6월 4일 저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연회가 있었다.

연회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며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 일편단심 충성다하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굳은 결의가 넘쳐흐르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이날 또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당과 정부 간부들과 성, 중앙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지방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책임일군들, 도내 근로자들과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또한 이날 보천읍과 청봉, 후창군 포평나루터에 모셔져있는 수령님의 동상과 대홍단벌에 거연히 서있는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에도 이곳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교육, 문화, 보건기관의 이름으로 된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다른 한편 6월 4일 저녁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는 3만여명의 청년학생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 인민군군인들이 모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다지는 전국청년학생들의 충성의 선서모임을 가지였으며 또한 도내 청년학생들의 홰불행진과 우등불모임 및 야회도 있었다.

이 모든 모임들에 참가한 청년학생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조선의 열렬한 혁명가, 참된 공산주의자가 될것을 엄숙히 결의다졌다.

이밖에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을 기념하여 전국사회과학토론회, 사진전람회, 보천보해볼상체육경기 대회들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평양시 학생소년들과 유치원어린이들의 설맞이 모임이 있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청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1972년 12월 31일 저녁 평양 학생소년궁전에서 평양시 학생소년들과 유치원어린이들의 설맞이 모임이 있었다.

어버이수령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맞이하고 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신 영광의 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3대기술혁명과업과 6개년계획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을 다시한번 온세상에 떨친 자랑찬 승리의 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평화통일방침에 따라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밝은 전망이 열린 1972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1973년을 맞이하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은 이날 경축일색으로 화려하게 단장되여있었다.

오후 7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우리 청소년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궁전에 도착하시였다.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로 어버이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 귀여운 소년단원들이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열렬히 축하하여 우리 나라 전체 학생소년들과 어린이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1973년 새해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께 소년단원들이 달려나가 향기로운 꽃묶음을 드리고 붉은 넥타이를 매여올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의 손을 잡으시고 궁전안으로 걸음을 옮기시며 다정하게 어린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였으며 환호하는 그들에게 일일이 답례를 하시였다.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원수님을 맞이한 궁전체육관은 커다란 감격과 기쁨의 도가니로 끓어번졌다.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 우리 학생소년들의 뜨거운 감사와 충성의 마음을 담은 꽃바구니를 정중히 드리였으며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여 세배를 드리였다.

체육관소조원들은 아버지 원수님께 예술체조 《혁명의 요람 만경대》와 《은반우에 설놀이》 등을 통하여 날로 륭성발전하는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강국을 힘있게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이 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다져가는 자기들의 자랑찬 모습을 보여드리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어 유희오락실에 들리시여 춤을 추며 설날을 즐겁게 맞는 어린이들을 축하해주시였으며 궁전극장에서 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을 보시였다.

귀여운 유치원어린이들이 합창 《아버지원수님께 인사를 드려요》, 《꼬마군대 나간다》로 시작된 공연에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과 아버지원수님께서 세워주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세상에 부러움없이 마음껏 배우고 뛰놀면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하고있는 그들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내용으로 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다.

또한 공연종목들에는 아버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려는 우리 나라 청소년학생들의 불같은 충성의 결의가 잘 반영되여있었다.

공연이 끝나자 수령님께서는 공연에 출연한 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1972년을 보내고 새해 1973년을 맞는 학생소년들은 이날의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더잘 준비하여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졌다.

조선국민회창건 쉰다섯돐을 뜻깊게 기념

우리 인민은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운동의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쳐 싸우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신 쉰다섯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이날을 맞이하여 3월 23일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는 조선국민회창건 쉰다섯돐기념 중앙강연보고회가 있었다.

강연보고는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창건하신 조선국민회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라는 제목으로 하였다.

조선국민회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시던 1910년대후반기는 일제의 무단통치가 절정에 이르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조선인민의 전도가 암담하던 시기였다. 반일투쟁은 계속되였으나 이 투쟁은 조국광복의 참된 길을 찾지못하고 암중모색하면서 산만하게 비조직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당시의 조성된 정세는 모든 반일력량을 한데묶어세우고 그들에게 정확한 투쟁방도를 가르켜주며 각종형태의 반일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

였다.

이 절박한 요구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면서 비로소 빛나게 해결되였다. 어린시절부터 나라와 인민을 위한 큰 뜻을 키우시고 반일투쟁의 길에 나서신 선생님께서는 숭실중학교에 다니실때에 선진적인 청년학생들로 학우회, 독서회, 친목회 등을 무으시고 그들을 반일애국사상과 민족자주정신으로 교양하는 한편 직접 반일반미투쟁에로 조직지도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한편 국내외의 독립운동자들과의 련계를 맺으시고 반일운동의 실태를 깊이 료해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일제의 폭압통치하에서 반일투쟁을 벌리자면 반드시 비합법적인 혁명조직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직은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옳은 투쟁 방향과 방도를 밝혀줌과 동시에 주도세밀한 조직규범과 강한 혁명규률, 자체의 비밀활동을 가리워 주는 합법적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탁월한 구상을 내놓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이 원대한 구상의 실행을 위하여 숭실중학교를 단연중퇴하신후 직업적혁명가로 나서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순화학교와 명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평양을 비롯한 강동, 순천, 대동, 성천 일대와 국내외의 여러지역을 래왕하시면서 수많은 동지들을 규합하여 지하혁명조직결성준비를 면밀히 한 기초우에서 1917년 3월 23일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시였다. 선생님께서 창건하신 조선국민회는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기 이전시기의 가장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선국민회의 목적은 장차 동양에 뻗친 구미 제국주의 세력과 일본제국주의 세력이 패권을 다투게될것이므로 그 기회에 그들을 물리치고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는데 있다고 가르치시면서 이를 위하여 당면하게는 동지들을 묶어세워 그 준비를 진행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광복과 나라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우리들에게는 단결과 사상의 통일이외에 더 큰 무기는 없다. 조선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쳐 조선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떨쳐 나서라! …》

선생님의 지도밑에 조선국민회는 자기조직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각지는 물론 국외의 여러지역까지 확대하고 합법적활동과 비합법적활동, 정치활동과 군사활동을 밀접히 결합하면서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조선국민회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 거대한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남기였다.

조선국민회가 쌓아올린 업적은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민족자주정신을 발양하여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이며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우고 독립운동자들과의 행동통일을 이룩하는데 거대한 기여를 한것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힘있게 발전시키였다는데 있다.

조선국민회는 자기의 혁명활동과정에 정확한 조직규범에 의하여 혁명조직을 튼튼히 꾸린경험, 구체적 대상에 맞는 사업방법으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반일군중을 전취한 고귀한 투쟁경험, 합법적활동과 비합법적활동을 능숙히 결합하는 투쟁전술 등 훌륭한 경험들을 남기였다.

실로 조선국민회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을뿐만아니라 민족적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에게 새로운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힘차게 고무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선국민회 창건 이후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여 평양감옥에서 옥중생활을 하실때에도 놈들과 굴함없이 싸우시였으며 출옥후에도 옥중에서 무르익히신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또다시 간고한 혁명의 길에 오르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내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제놈들과 싸워이겨야겠다.

내가 싸우다가 실패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가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독립시켜야 한다.》

선생님께서는 이처럼 조국광복의 불타는 열망을 안으시고 1918년말에 압록강연안일대에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옮기시고 혁명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우며 무장활동을 위한 무기를 획득하며 군사정치간부를 키우시는 등 혁명사업에 모든 힘을 쏟아부으시였다.

조선국민회의 창건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애국사상과 숭고한 민족자주정신, 불요불굴의 혁명정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높으신 덕성 그리고 선생님의 지도밑에 조선국민회가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과 경험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발전되였으며 이땅우에 빛나는 열매를 맺고있다.

강연보고회는 평성시를 비롯한 각 도소재지들에서도 진행되였다.

강연보고회 참가자들은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행복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쳐싸우신 숭고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고매한 덕성을 따라 배우며 선생님처럼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과 멸적의 투지를 안고 더욱 억세게 싸워나아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3월 20일에는 조선국민회창건 쉰다섯돐을 기념하는 전국사회과학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녀사 탄생 여든돐을 기념

우리 인민과 녀성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낳아키우신 조선의 위대한 어머님이시며 조국의 광복과 녀성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신 열렬한 혁명투사이시며 공산주의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탄생 여든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강반석어머님께서 탄생하신 4월 21일을 맞이하여 4월 18일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강반석녀사 탄생 여든돐기념중앙강연회가 있었다.

강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을 비롯한 당과 정부간부동지들,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책임일군들, 출판보

도 부문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참가하였다.

강연은 《강반석녀사는 조국광복과 녀성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열렬한 혁명투사이시며 공산주의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였다.

또한 4월 20일에는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강반석녀사 탄생 여든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있었다.

보고대회에는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성애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또한 녀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녀성항일혁명투사들, 근로단체 책임일군들을 비롯하여 성, 중앙기관 녀맹일군들과 시내 근로녀성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는 또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온 재일조선인 축하단 성원과 통일혁명당 대표가 참가하였다.

《조선의 어머니》노래주악으로 시작된 보고대회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1892년 4월 21일 나라를 사랑하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온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여 성장하시였으며 벌써 어린 시절부터 착취자들과 압제자들을 증오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시는 고매한 덕성을 지니시였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1908년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과 한가정을 이루시고 선생님의 혁명적영향을 받으시면서 열화와 같은 애국사상과 불굴의 혁명정신을 키워나가시였으며 시대의 풍랑을 맞받아나가시면서 세련된 녀성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일제의 박해와 위협이 그림자처럼 뒤따르던 그 간고한 생활속에서도 조국은 반드시 독립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시고 김형직선생님의 고난에 찬 혁명투쟁로정을 따라 온갖 간난고초를 다 이겨내시며 선생님의 혁명활동을 힘껏 도우시였다.

녀사께서는 또한 선생님의 높은 뜻을 이어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키우시였으며 자제분들의 혁명사업을 적극 도우시였다.

녀사께서는 침략자들에게 짓밟힌 강토에서 신음하는 겨레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끓는 마음으로 자신이 직접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의 광복과 우리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시였다.

실로 강반석녀사께서 설한풍 헤치시며 싸워오신 그 영광의 행로는 일편단심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싸우신 견결한 공산주의자의 빛나는 혁명활동로정이였으며 우리 나라 녀성해방운동의 앞길을 개척하신 탁월한 녀성정치활동가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로정이였다.

조선의 위대한 어머님이시며 공산주의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께서 남기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훈들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꽃피는 조국의 찬란한 새 력사와 더불어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길이 빛날것이다.

강연회와 보고대회참가자들은 강반석어머님의 불타는 조국애와 고결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가 될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강반석어머님 서거 마흔돐 중앙추모회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녀사 서거 마흔돐 중앙추모회가 7월 30일에 있었다.

추모장정면에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안해이며 전우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낳아키우신 어머니로서, 열렬한 공산주의투사로서 조국광복의 위업에 한생을 바치시여 우리 인민의 혁명력사에 불멸의 고귀한 업적을 남기신 강반석녀사의 초상화가 꽃속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추모회시작을 알리자 《조선의 어머니》주악이 정중하게 울리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이 땅우에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암담한 시기 온갖 시련을 한몸으로 헤치시면서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시였으며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녀성운동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신 강반석녀사를 추모하여 잠시 묵상하였다.

이어 추모사가 있었다. 추모사에서는 강반석녀사께서 투쟁의 험난한 가시덤불길에서 온갖 고초와 풍랑을 다 겪으시며 혁명가의 안해로서, 위대한 수령님을 낳아키우신 어머니로서 또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서 그 언제나 굳세게 살며 싸워오시였으며 이 영광 찬란한 혁명의 길에서 조선혁명과 우리나라 녀성운동의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데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면서 그이께서 남기신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말하였다.

추모회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선구자이시며 견결한 공산주의자이신 강반석녀사께서 조국의 광복과 녀성해방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쳐 싸우신 숭고한 혁명정신과 녀사께서 지니신 고매한 덕성과 풍모를 따라배우며 어머님처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녀사 서거 마흔돐추모회는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들에서도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당학교를 《김일성고급당학교》로 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결정을 전달하는 모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 《조선로동당 중앙당학교를 〈김일성고급당학교〉로 할데 대하여》를 전달하는 모임이 4월 11일 이 학교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된 모임에서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결정 《조선로동당 중앙당학교를 〈김일성고급당학교〉로 할데 대하여》가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에는 조선로동당 중앙당학교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끝없는 보살피심속에서 자랑찬 길을 걸어온데 대하여 상세히 강조하고 절세의 애국자이

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 그이께서 중앙당학교의 창립과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돌리시는 세심한 지도와 극진한 배려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당학교를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을 모셔 《김일성고급당학교》로 한다고 지적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빛발아래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당학교사업발전의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무려 70여차례에 걸치는 현지지도와 교시를 주신데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면서 그이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교직원, 학생들은 오늘의 감격과 기쁨을 말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과 당학교에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학교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혁명가들의 집단으로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집단으로 꾸릴 결의를 다지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남포혁명학원을 《강반석혁명학원》으로 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전달하는 모임

남포혁명학원을 《강반석혁명학원》으로 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전달하는 이 학원 교직원, 학생들의 모임이 4월 19일 있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시작된 모임에서는 먼저 남포혁명학원을 《강반석혁명학원》으로 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에는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탄생 여든돐이되는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조선의 위대한 어머님의 빛나는 생애와 고귀한 업적, 고결한 혁명정신과 고매한 덕성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남포혁명학원을 《강반석혁명학원》으로 한다고 지적되였다.

이어 모임에서는 이 학원 교직원, 학생들의 결의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조선의 위대한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의 탄생 여든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오늘 남포혁명학원에 강반석어머님의 존귀하신 성함을 직접 모시게 되는 크나큰 영예와 더없는 영광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혁명학원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일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우다 희생된 애국렬사 유자녀들을 교육교양하여 어엿한 우리 당의 정치일군으로 육성하는 믿음직한 녀성혁명간부양성기관으로 발전하여온 빛나는 로정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직원, 학생들은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께서 유자녀들이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 계시는데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고 그이께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끝으로 오직 수령님의 높으신 신임과 두터운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혁명의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조국의 광복과 혁명승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바쳐 열렬히 싸우신 강반석녀사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강반석혁명학원》을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고수하며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꽃피워 나가는 혁명적골간부대의 집단으로 튼튼히 꾸려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우렁찬 박수속에 채택하였다.

조국을 방문한 재일동포들을 환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에 따라 온나라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불타고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들끓고있는 환경속에서 우리인민은 이국 땅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안고온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조국방문을 뜨거운 혈육의 정으로 반갑게 맞이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나라 잃은 망국노의 비분을 안고 나서 자란 고향땅을 떠나 산설고 물설은 이역만리를 헤매며 인간이하의 온갖 천대와 참을수 없는 민족적멸시를 받아온 재일동포들에게 잃었던 조국을 찾아 주시고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의 드높은 영예를 안겨주시였으며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무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였다.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도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일수록 더 못잊어하시는 친어버이 심정 그대로 재일동포들을 한날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온갖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시고 조국래왕의 길까지 개척하여 주시였다.

그리하여 160여차에 걸쳐 수많은 재일동포들이 그리운 조국으로 귀국하여 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해마다 수많은 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할수 있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60만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예순돐을 맞이한 영광의 해인 1972년에 더욱더 많은 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예순돐을 경축하기 위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인축하단(3월

28일—6월15일)수령님께 삼가드리는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전거행진단 성원들(3월초),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과학자대표단(3월 28일—6월 15일,) 농근맹제2차대회를 축하하기 위한 재일본조선인축하단(1월), 남북 적십자본회담에 우리측 자문위원으로 참가할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과 재일조선인기자단(8월 25일—9월 22일), (11월 15일—12월 6일)도꾜조선중고급학교축구소조와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음악무용소조(7월 27일—9월 7일), 제6차 조국방문단(4월 4일—5월31일), 제7차조국방문단 (10월4일—11월16일), 과학원 창립스무돐 기념행사에 참가할 조선대학교학장을 단장으로하는 재일본조선과학자대표단(11월28일—12월 19일)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속 깊이 그리던 영광스러운 조국에서 자애로운 어버이 수령님의 품에 안겨 일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과 감격의 나날을 보내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친히 그들을 모두 만나시고 총련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분에 넘치는 치하와 크나큰 격려의 말씀을 하여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에 찾아온 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보람차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도록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몸소 숙소까지 찾으시여 그들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고 치료대책까지 다 취해주시였으며 지어는 그들이 조국에 머무는 기간 더 많은것을 보고 배울수 있도록 참관일정을 손수 짜주시는 크나큰 육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연회도 마련하여 주시고 거기에 직접 참석하시여 그들이 마음껏 즐기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조국인민들이 그들을 환영하여 진행한 환영공연들도 친히 함께 보아주시는 등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오매에도 그리던 어머니 조국에 와서 조국의 청소년들과 더불어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낸 도꾜조선중고급학교축구소조원들과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음악무용소조원들의 련환회에 참석하시여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교시를 하시였다. 그리고 돌아가기에 앞서 그이의 곁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과 교원들을 뜨겁게 포옹하여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방문을 마치고 떠나게 되는 그들에게 더욱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면서 귀중한 선물을 주시였으며 조국을 떠나기 앞서 성대한 환송연회를 차려주시고 친히 참석하여주시는 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어머니 조국을 방문한 재일동포들은 조국에 머무는 기간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 오른 혁명의 요람지 만경대와 봉화리를 비롯한 혁명사적지들과 영광의 땅 보천보와 무산지구 등 혁명전적지들을 견학하였고 만수대언덕우에 거연히 솟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따라 배우는 혁명의 학교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혁명사적지와 혁명박물관 참관을 통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께서 몸소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의 심오한 내용과 깊은 뿌리에 대하여 더욱 깊이 체득할수 있었다.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활짝 꽃피고있는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긴 첫날부터 혈육의 정 넘쳐넘치는 조국인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열광적인 환영과 환대를 받으며 참으로 즐겁고 보람있는 나날을 보내면서 우리 조국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현실을 직접볼수 있었다.

조국인민들은 수령님께서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여 주시는 자애로운 심정 그대로 그들을 뜨겁게 맞이하여 주었다.

평양과 함흥, 원산과 사리원, 개성 청진 등 가는 곳마다 열렬한 연도환영과 연회, 대규모적인 환영, 환송 군중집회로 거리와 마을들은 명절분위기에 휩싸였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녀성들은 말할것 없고 지어는 어린이들로부터 칠순로인에 이르기까지 수천수만의 조국인민들이 손에 손에 공화국기발과 꽃묶음을 들고 저마다 달려나와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무엇보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동지의 안부를 묻고 60만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의 인사를 전하여 줄것을 부탁하였다.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주체공업의 위력을 과시하는 천리마 희천공작기계공장, 2.8비날론공장, 룡성기계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교육, 문화, 보건기관, 협동농장들을 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전체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철석같이 단결된 우리 조국의 무궁무진한 힘,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이 전면적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된 사회주의 조국의 불패의 위력과 조국인민들의 보람찬 생활모습을 직접보게되였으며 거기에서 무한한 고무를 받고 번영하는 조국의 미래를 더욱 똑똑히 내다볼수 있었다.

조국에 머무르는 기간 그들은 언제나 마음속 깊이 그리던 나서 자란 고향땅을 수십년만에 찾아 친척, 친우들과 혈육의 정 넘쳐넘치는 감격적인 상봉도 하였다.

실로 그들이 조국방문기간의 전로정은 눈물없이는 한순간도 지낼수 없는 감격적인 사실의 련속이였다.

그리운 조국을 방문하여 언제나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흠모하면서 그렇게도 뵈옵고 싶던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강령적인 교시를 받은 재일동포들은 가장 위대하시고 자애로우신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조선사람으로서의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더 가슴 깊이 느끼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싸워나갈때 어떠한 사나운 풍파라도 뚫고 나갈수 있으며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결같이 몸이 찢기고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되더라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옹호보위하며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 다할 굳고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아울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총련의 지도밑에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발전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충성의 결의를 다지였다.

《미제반대투쟁의 날》과 반미공동투쟁 월간 행사 진행

우리 인민은 《미제반대투쟁의 날》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을 맞이하여 치솟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철천의 원쑤 미제국주의자들을 규탄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샤만〉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여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첫 침략기도에서부터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 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조선인민앞에 영원히 씻을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191페지)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은 스물두해전 우리 나라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웠으며 오늘도 남조선인민들에게 온갖 불행을 강요하면서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조선인민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하루속히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고야말 결의를 굳게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을 맞이하여 전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은 조선인민의 이 정당한 투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하였다.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

《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이하여 6월 24일 모란봉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멸적의 기상을 떨치며 모여든 2만여명의 시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인민군군인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였으며 뒤이어 농근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사로청중앙위원회 위원장, 녀맹중앙위원회 비서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100여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이 스물두해전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불의에 전쟁을 도발하고 일찌기 전쟁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었던 가장 야만적인 살륙만행을 감행한데 대하여 단죄하고 놈들의 그 어떠한 발악적책동도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으며 오히려 놈들이 조선전쟁에서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당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연설자들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자위적군사사상과 백전백승의 군사예술의 승리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였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국당국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행위를 계속하여왔습니다. 〈푸에블로〉호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한 공중정찰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사실상 늘 전쟁상태에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미국 〈뉴욕타임스〉 지기자들과 한 담화》, 단행본, 2페지)라고 하신 교시를 인용하면서 침략과 략탈에 이골이난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미쳐날뛰고 있는데 대하여 신랄히 폭로규탄하였다.

또한 연설자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을 실현해보려고 발광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인 두 상전에게 아부하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민족적분노로 단호히 규탄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이 조선 인민의 의사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침이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미제는 남조선에서 침략군과 모든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무조건 제소굴로 물러갈것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도와주어 그들이 남조선을 침략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만일 미일침략자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족분렬책동을 계속 감행하며 끝끝내 전쟁을 도발한다면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일치단결하여 놈들과 판가리싸움을 할것이며 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영영 소탕해 버리고야 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장에서는 《미제침략자들을 타도하자!》,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일본군국주의 재침책동을 분쇄하라!》,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자!》, 《세계도처에서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자!》, 《전세계 혁명적나라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라는 웨침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대회에서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이날의 군중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일단결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시위하였다.

군중대회는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온 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고야 말 우리 인민의 확고한 투쟁결의와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혁명적인 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할때까지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백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강력한 전투적련대성을 시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날인 6월 25일부터 놈들이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7월 27일까지인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 행사는 세계적범위에서 광범히 진행되였다.

이 월간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과 그 위업을 지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이며 남부웰남공화 자문리사회 위원장, 남부웰남공화 혁명정부 주석,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칠레공화국 대통령, 이라크공화국 대통령,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예멘아랍공화국 공화리사회 위원장, 뽀르뚜갈령기네 및 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꾸바조직위원회 위원장, 레바논의 각 정당들, 팔레스티나 민족해방운동(파타흐)바그다드지부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국제기구들, 싸우는 나라의 여러 민족해방조직지도자들, 각국의 진보적 인사들로부터 전문과 편지들을 수없이 보내여왔다.

전문과 편지들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많은 전문과 편지의 마지막 부문에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또한 쏘련 평화옹호위원회, 로므니아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과의 친선련맹, 세계평화리사회, 수리아로조총련맹과 각 산별로조 등 사회주의 나라들을 비롯한 각국의 사회단체들에서도 우리 나라의 해당단체들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사회주의 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여러 대중조직들과 단체들 그리고 정치 및 사회계 인사들과 혁명가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들은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여 매일과 같이 군중집회와 반미시위를 벌리였으며 강연회, 사진전람회, 기자회견 등 다채로운 련대성행사들을 조직진행하였다.

군중집회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환영하면서 조선인민의 모든 불행의 화근으로 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에 대한 적대행위를 그만두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 갈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면서 조선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사진전람회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로정과 그리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이 월간에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세계직련, 국제학생동맹서기국을 비롯한 국제기구들, 각국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사들은 성명, 호소문, 결의문, 담화, 서한등을 발표하여 미제의 조선 강점과 그 침략행위를 항의 규탄하고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이 발표한 호소문에서는 우선 미제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할것을 세계 진보적사회계에 호소하였다.

그리고 호소문에서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더욱 강화하고 있는 침략과 도발책동, 박정희괴뢰도당의 극악한 파쑈폭압과 매국배족행위를 단죄하면서 《유엔군》의 간판을 든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갈것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호소문은 끝으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내몰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대중적련대성운동을 광범히 벌릴것을 산하 조직들과 세계의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국제학생동맹서기국성명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모든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당장 그만두며 제놈들의 침략군대와 살인무기들을 몽땅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갈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학생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을 광범히 벌릴것을 산하단체들과 세계진보적 청년학생들에게 호소하였다.

중국신문 《인민일보》를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과 수많은 나라 출판물, 방송, 텔레비죤들은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였다.

세계 수많은 나라 신문들의 론설들에서는 남의 나라 침략으로 살쪄온 미제국주의자들은 그가 침략력사상 처음으로 조선침략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었다고하면서 한세대에 두제국주의를 타승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과 인민군은 필승불패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신문 방송들에서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통치집단을 뒤집어엎고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와같이 반미공동투쟁월간행사에서 표시된 세계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성원은 조선인민의 정의의위업에 대한 전투적련대성의 강력한 시위로 된다.

조선인민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구분대들을 현지지도하시고 동해지구 륙해공군 지휘관, 정치일군들을 만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3월 24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동해지구 륙해공군 지휘관 및 정치일군들을 만나시였다.

어버이 수령님을 또다시 뵈옵게 되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게 된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무력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영웅적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으며 우리 인민군대를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그이의 혁명전사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끓어넘치고있었다.

이날 아침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모임장소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와 그칠줄 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그이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고지, 1211고지와 351고지의 전호속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며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철벽으로 지키고 있으며 우리의 령해와 령공을 침범한 미제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와 미제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을 때려잡음으로써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다시한번 꺾어놓은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억세고 슬기로운 모습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그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드시여 답례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임에서 국제국내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현시기 인민군대 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는 모임 참가자들에게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힘차게 고무하여주었다.

수령님께서 말씀을 끝마치시자 모임에 참가한 전체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로써 그이께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였으며 그이께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끝까지 빛나게 관철하여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불같은 결의를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전체 모임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에 앞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3월 21일에 조선인민군 최명욱, 김정호동무소속 구분대들을 찾으시였다.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 흠모하여마지 않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자기들의 구분대에서 맞이하게 된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으며 수령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받게 된 구분대 군인들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있었다.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분대에 도착하시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만세!》의 폭풍같은 환호가 방선의 높고낮은 산발을 메아리치며 힘있게 울려퍼지였다.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군인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드시여 답례하시였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군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심려하시며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구분대 전투준비와 전투정치훈련상태 그리고 군인들의 생활의 하나하나를 보살피시면서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그들을 끝없이 고무하여 주시였다.

구분대군인들의 전투훈련모습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구분대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틀어차고 당의 군사로선을 빛나게 관철하여 모두가 높은 군사기술과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지니였으며 원쑤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단매에 짓부셔버릴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구분대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군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담화를 하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깊이 료해하시였으며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구분대를 떠나시기에 앞서 끝없는 영광과 행복감에 휩싸여있는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김홍규동무소속구분대 군인들이 출연한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고 매 종목들이 정치사상적수준이 높으며 전투적기백이 넘쳐있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와 강령적교시를 받은 조선인민군 동해지구 지휘관, 정치일군들과 군인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그이께서 밝혀주신 강령적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그이의 크나큰 신임과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할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동지의 조선인민군 구분대들에 대한 현지지도와 그이께서 동해지구 륙해공군 지휘관 및 정치일군들에게 하신 교시는 당의 군사로선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해 한결같이 떨쳐나선 군인들을 끝없이 고무하고 인민군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에 접한 조선인민군 동해지구 륙해공군장병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당의 유일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부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전취물을 철옹성같이 보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섰다. 그들은 또한 미제의 《새아세아정책》에 따라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미제의 조종밑에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을 소란스럽게 떠들어대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실을 날조하여 허위적기만소동을 벌리면서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에서 엄중한 군사도발책동을 강화하고있는 정세에 대처하여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적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만일 원쑤들이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놈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할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구분대를 찾으시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네돐을 맞는 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인민군군인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2월 8일 조선인민군 량인길동지소속비행구분대를 찾으시고 명절을 맞는 군인들을 축하하시였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언제나 마음속 깊이 흠모하여마지않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끝없는 행복과 기쁨에 휩싸여있는 이곳 전체 장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며 구분대에 도착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신 다음 그이를 우러러 《김일성원수만세!》를 목청껏 부르는 군인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드시여 답례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를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키워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군인들의 생활과 비행훈련을 보시면서 지난 기간 비행사들이 당의 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전투정치훈련을 정력적으로 벌려 모두가 어떤 원쑤들도 일격에 격멸할수 있게 높은 비행기술수준을 지니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구분대비행사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담화하시면서 그들이 높은 기술과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으며 당의 군사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시는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구분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직접 모시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네돐을 뜻깊게 경축한 구분대장병들은 자신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님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그이께서 제시하신 자위적군사로선을 보다 빛나게 관철하여 구분대를 더욱더 불패의 혁명대오로 꾸려나갈 굳은 결의를 다졌다.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네돐 평양시경축대회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네돐을 기념하는 평양시경축대회가 2월 7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장병들, 영예군인들, 로농적위대원들, 렬사가족들과 인민군 후방가족들, 시내근로자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된 경축대회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경축대회참가자들은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군사분야에 구현하시여 자위의 혁명적군사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혁명무력건설과 혁명전쟁수행에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해방후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무력건설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시여 제때에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그를 오늘과 같은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키우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그이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독창적인 자위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오안에 당의 유일사상, 주체의 사상체계가 꽉 들어 찼으며 그 어떤 원쑤와도 싸워이길수 있는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자기의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으로써 당과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여왔으며 오늘도 원쑤들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사회주의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는 영웅적 조선인민군대 및 조선인민경비대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앞당겨완수하며 군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힘을 다바쳐 싸울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이와 같이 진행된 평양시경축대회를 비롯하여 공화국 각지에서와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들에서도 경축대회들을 광범히 진행하였으며 이에 앞서 민족보위성과 인민군 각 구분대 그리고 평양시와 녀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 도, 시, 군 소재지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교육문화기관들에서 강연회들이 진행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네돐 영화상영주간이 진행되고 각지 근로자들의 공화국영웅들과의 상봉모임도 있었다.

조선인민군 제518군부대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몸소 조직해주시였으며 그이의 끊임없는 배려속에 우리 나라 해군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유력한 간부양성기지로 꾸려진 조선인민군 제518군부대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가 7월 8일 현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된 보고회에서는 먼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랑독이 있은 다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자위사상을 높이 받들고 혁명무력강화와 해군지휘관양성사업에서 크나큰 업적을 쌓은 조선인민군 제518군부대에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이 수여되였다.

이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군부대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축하문과 축기가 전달되였다.

모임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보고자는 군부대가 걸어온 지난 25년간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군사사상의 빛나는 력사이며 군부대에 대한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의 력사이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군부대의 교직원, 학생들의 충성의 력사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해군무력건설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강조하고 앞으로의 과업에 대하여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이께서 군사부문에 주신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할 굳은 결의를 다졌다.

수령님의 현지교시 열돐을 맞이한 조선인민군 제415군부대기념보고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415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신 때로부터 열돐이 되는 3월 21일 이곳 군부대에서는 성대한 기념보고회를 가지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군부대장의 기념보고가 있은 다음 많은 군인들의 결의토론이 있었다.

보고회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에게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최고사령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군부대 전체 군인들의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난기간 부대전투준비와 전투력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을 자랑스럽게 돌이켜보면서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께서 군부대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심장깊이 아로새기고있는 군인들은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함이라면 물과 불속이라도 뛰여들 충성의 일념에 불타고있으며 군부대앞에 나선 전투적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고야 말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고 강조되였다.

기념보고회에서는 인민무력부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먼저 지난 10년간 군부대장병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부대 전투준비와 전투력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혁신적성과들에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고 이 모든 성과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의 현지교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최근 남조선위정자들이 남북조선적십자회담에 나와 《인도주의》를 가장하고 우리의 평화통일방안에 응하는것처럼 하지만 다른편으로는 남조선전역에 이른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애국력량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북으로부터의 군사적인 위협》등의 소란스러운 기만선전을 벌림으로써 흑백을 전도하여 인민들을 속이고 세계여론을 오도하면서 전쟁책동을 강화하는 흉악한 음모를 준렬히 폭로규탄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남조선당국자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똑히 보고 옳게 처신하여야 하며 우리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알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만일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계속 격화시켜 끝끝내 무모한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즉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그는 군부대 전체 군인들이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언제나 적들의 그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자들인 남조선 호전분자들의 조선정전협정 위반행위

조선정전협정은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이 1950년 6월 25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으로 일으킨 조선전쟁에서 놈들이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당하여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1953년 7월 27일 조인되였다.

조선정전협정은 조선문제의 《최후적인 평화적해결》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밖으로부터의 무력증강행위를 비롯한 일체 적대적행위와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과 그에 린접한 해면 및 상공의 존중을 담보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정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변시키며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정전협정의 제반 요구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지 20분만에 우리측에 대한 도발적인 총포사격을 가한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루, 어느 시간도 쉬임없이 계속 정전협정을 위반하여왔다.

놈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20년이나 되는 오늘까지 남조선을 불법강점하고있으면서 새 전쟁도발을 위하여 여러가지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들을 계속 반입증강하며 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그것은 다음 통계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측이 공식적으로 항의한것만 하더라도 놈들이 감행한 정전협정위반행위는 1953년 7월 정전직후부터 1970년 4월초까지 7만 7,500여건에 달하였으며 이것이 최근년간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1970년 한해동안에 무려 1만 1,200여건, 1971년에는 1만 1,130여건, 1972년에는 1만 5,277건(6월 22일부터 7월 4일까지의 위반행위는 포함 안됨)으로 매년 늘어나고있다.

놈들이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후 첫 9개월동안에 우리들을 반대하는 여러가지 도발행위를 감행한것만하여도 무려 11,200여건에 달하고 있다.

더우기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거듭되여 우리 민족앞에 새로운 밝은 전망이 열린 1972년에 이르러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의 그 추종자들이 더욱더 정전협정을 위반하고있다는 사실은 놈들이 침략적야망과 이른바 《승공통일》에 얼마나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이와 같은 제놈들의 범죄적죄행이 온세상에 드러날가봐 두려워하면서 그를 은폐하기 위하여 군사정전위원회 기능과 역할까지 마비시키려는 파렴치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1972년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는 8차에 걸쳐 진행되였는바 어느 한번도 미제침략자들의 제의에 의하여 소집된적은 없으며 그 모든 회의는 우리측의 주동적인 제의에 의하여 진행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는 어느 일방이 제의하면 상대방은 응하게 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자들은 우리측이 제의한 회의들을 부당한 구실밑에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며 마지못해 끌리여 나오는 추태를 부렸다.

례하면 이 해 1월 4일 진행된 제326차회의는 11일간, 3월 2일에 진행된 제328차회의는 19일간, 5월 18일에 진행된 제 330차회의는 8일간, 6월 22일에 진행된 제 331차회의는 13일간이나 각각 부당한 구실을 붙여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다가 마지못해 회의장에 끌리여 나오군 하였다.

우리측은 회의에서 적측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신랄히 폭로규탄하고 놈들에게 강경한 항의와 책임을 추궁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측이 폭로규탄한 미제와 그 추종자들의 정전협정위반행위에 대한 일부 자료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자들인 남조선 호전분자들이 새 전쟁준비에 더욱 광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우리의 말을 믿을수 없다고 하면서 남북대결을 위하여 전후방군사시설을 보강하고 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쳐 〈힘〉을 〈배양〉해야 한다고 떠들고있으며 군사연습을 더욱 빈번히 벌리고있습니다. 이것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엄중한 행동입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단행본, 26~27페지)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의 추종하에 있는 남조선호전분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보장하며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과는 정반대로 《대결》과 《승공》을 떠들면서 북과 남사이에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전쟁을 추구하는 위험한 길로 나가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입만 벌리면 《공산주의와의 어떠한 경쟁에서도 이길수 있는 힘을 길러야》하며 《다가올 대결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모든것을 전쟁준비에 복종시키고있다.

또한 미제의 전쟁우두머리들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남북회담이 진행된다고해도 한국에 대한 공약을 철저히 리행할것》이라느니, 《미국은 남조선군을 현대화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시킬것》이라느니, 《남조선이 강력한 상태에 있도록 미국이 도와 주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조선에 대한 군사적침략의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으면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원조》를 계속하고있다.

놈들은 미 국회하원에서 2억 1천 500여만딸라의 《군사원조》를 줄것을 예견하고 이른바 《대외원조법안》을 통과시킨것을 비롯하여 10월 16일에는 《한미간의 군사장비개발에 관한 자료교환협정부록》이라는 새로운 군사협정까지 조작하고 군사장비에 대한 기술자료들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놈들은 그 일환으로서 2월 21일에는 최신형고속도전투함을, 2월 25일에는 2척의 구축함을 끌어다 남조선호전분자들에게 넘겨주었으며 8월 25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척의 구축함을 끌어들여 8월 26일 진해

만에서 그를 취역시키는 놀음을 벌리였다. 또한 놈들은 12월 27일 미국으로부터 구축함을 끌어다 28일에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놈을 비롯한 전쟁우두머리들의 참가밑에 그 함선에 대한 명명식놀음까지 벌렸다.

한편 미제침략자들은 일본의 오끼나와기지를 조선침략의 요충지로 더욱 전변시키면서 미국으로부터 오끼나와를 거쳐 군사분계선에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공수작전체계》와 《해상수송작전체계완비》를 서두르면서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괴뢰들과 주구들을 남조선에 불러다가 10월 25일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이른바 《특수부대장회의》와 《륙군군수관계고급장교세미날》이라는것을 벌려놓고 《특수전의 교리와 정보》교환이요, 그 무슨 《안보협력체계》의 마련이요, 《군수업무》에 관한 정보교환이요 하는 등의 전쟁모의를 거듭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강점 미해군사령관놈을 비롯한 미제침략군 고위장교놈들의 감독과 지휘밑에 동해안일대에서 이른바 《황룡3호》작전이라는 대규모의 상륙훈련을 벌린것을 비롯하여 남조선에서 화약내 풍기는 전쟁연습소동을 련이어 일으키면서 전쟁분위기를 더한층 고취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이와 같은 부추김과 고무밑에서 남조선호전분자들은 비무장지대를 전투진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안의 전역에 걸쳐 갱도와 영구화점을 비롯한 수많은 진지들을 구축하기에 미쳐날뛰였다.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호전광들은 1972년 5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738호 동남쪽 1,700메터 지점에 2,150여명의 군사인원과 170여대의 차량과 불도젤을 동원하여 4개의 영구화점을,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740호 남쪽 비무장지대인 2개지점에 도합 7,650여명의 군사인원과 750여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2개의 영구음폐부와 10개의 영구화점을 새로 구설하였다.

이리하여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739호로부터 제0750호까지의 2키로메터도 못되는 구간에 도합 40개의 화점과 음폐부가 구설되였는바 이것은 50메터구간에 1개화점 또는 음폐부가 배치된것으로 된다.

이밖에도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425호로부터 제0732호까지의 구간에 20,790명의 군사인원을 동원하여 4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기간에 15개의 지점에 수많은 화점과 진지들을 구설하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안의 전역에 걸쳐 갱도와 영구화점을 비롯한 수많은 진지들을 구축한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자들인 남조선호전분자들은 비무장지대를 음폐화된 전투진지로, 새 전쟁도발을 위한 련병장으로 전변시켰다.

이와 같이 남조선에 무력을 증강하며 새 전쟁도발을 다그치면서 전쟁소동을 벌리는 미제침략자들의 파렴치하고도 악랄한 책동은 결국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단결대신 동족간의 반목과 대립을 고취하는것이며 긴장상태완화가 아니라 전쟁분위기를 더한층 고취하고 군사적대결상태를 첨예화시키는것이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이 아니라 무력에 의한 《승공통일》을 이루어보자는것이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감행한 여러가지 도발책동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자들인 남조선호전분자들은 새 전쟁도발준비에 미쳐날뛰고있을뿐만아니라 직접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군사적도발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특히 최근년간에 더욱 격화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강도적본성을 더욱더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무장도발을 련일 감행하고있으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83페지)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자들인 남조선호전분자들은 최근년간 더욱더 제놈들의 본성을 드러내놓고 비무장지대안의 남쪽부분에 수많은 중무기와 전투인원들을 무수히 비법적으로 끌어들이고있을뿐아니라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적대적도발행위를 매일과 같이 감행하여왔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사촉밑에 남조선군대가 우리측을 반대하여 감행하는 온갖 군사적도발행위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마련할 목적으로 오직 전쟁전야에만 감행하는 상투적인 침략행위이다.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사촉밑에 감행하는 남조선군대의 적대적도발행위는 1972년에 와서도 계속되였을뿐아니라 더욱더 악랄성을 띠고 감행되였다.

미제침략군과 남조선호전광들은 1972년도에 들어서면서 벽두부터 계속하여 우리측에 대한 총포사격을 감하였다.

1972년 1월 4일, 5일, 6일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군을 동원하여 전선중부 오성산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우리측을 향하여 수백발씩의 대구경기관총사격을 가한것을 비롯하여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30여차에 걸쳐 악랄한 총포사격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1월 18일과 20일에는 무장간첩을 우리측에 침입시켰으나 놈들은 모두 살해되였거나 투항하고말았다.

또한 놈들은 2월 10일과 2월 16일 비무장지대안에 있는 제놈들의 초소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안에 105미리곡사포와 대구경기관총 등을 비법적으로 끌어다 설치한것을 비롯하여 2월 1일부터 29일까지 170여차에 걸쳐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그리고 회의장가까이까지 끌어들이고 그 무기들로 2월 16일, 22일, 25일 도합 5,000여발의 총사격을 감행하였다.

놈들이 감행한 이러한 총사격행위는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연 30차나 된다.

이와 같이 어느 하루도 쉬임없이 매일과 같이 감행하는 놈들의 도발행위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비상사태》선포후 더욱더 우심해졌다. 미제침략자들의 부추김밑에 남조선위정자들이 이른바 《비상사태》를 선포한(1971년 12월 6일)이후 1972년 2월말까지 약 3개월동안에 1,100여차에 걸쳐 수많은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2,640여차에 걸쳐 무장한 전투인원들을 비무장지대에 끌어들여 102차에 걸쳐 1만 1,140여발의 총포탄을 우리측에 쏘아대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으며 3월 4일부터 3월 20일 사이인 불과 16일동안에는 26차, 3월 21일부터 5월 16일사이에는 60여차에 걸쳐 총포사격을 감행하였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3월 23일, 4월 24일, 4월 28일 등 계속해서 우리의 군사비밀을 탐지할 목적밑에 무장간첩들을 우리측에 침입시켰으나 그 놈들은 우리 인민군대의 물샐틈없는 경계망에 걸려 사살되였거나 투항 또는 자수하였다. 그리고 5월 24일 오후 3시경 전선서부 비무장지대 우리측지역에 침입시켰던 여러놈의 무장악당놈들도 우리 인민군대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완전히 격퇴소멸되고 말았다.

또한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호전분자들은 5월 16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57미리무반동포를 비롯한 여러가지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210여차에 걸쳐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안에 끌어들이였으며 그 무기들로 우리측지역인 전선중부 근동리남쪽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수백발의 기관총사격을 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와 같이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호전분자들이 감행한 정전협정위반행위는 이 해 1월부터 6월 21일까지 우리측이 항의한것만하여도 7,870여건에 달한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하에 있는 남조선호전분자들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 사이에 대화가 벌어지는 시기에 와서도 계속하여 판문점구역과 비무장지대에 매일과 같이 수많은 전투인원들과 중무기, 자동무기들을 끌어들이여 우리측을 반대하는 총포사격을 감행하였다.

그것은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이해 12월말까지 놈들의 범죄적행위에 대하여 우리측이 항의한것만하여도 무려 7,407건에 달하는 수자가 잘 말해준다.

미제침략군과 남조선호전분자들은 남북조선적십자 단체들의 제24차예비회담이 진행된 7월 26일 하루동안에 10여차에 걸쳐 20정의 경기관총을 끌어들인것을 비롯하여 7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무려 230차에 걸쳐 공동경비구역으로 드나드는 도로를 따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남쪽부문에 도합 460여정의 경기관총을 끌어들이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놈들은 또한 남북적십자단체들의 25차예비회담이 진행된 8월 11일에는 16차, 8월 13일에는 22차, 8월 15일에는 21차, 8월 22일에는 34차에 걸쳐 수많은 경기관총을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남쪽부분에 끌어들인것을 비롯하여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의 기간에 280여건의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리고 8월 23일에는 24차, 8월 25일에는 12차, 남조선적십자성원들이 평양으로 오고간 8월 29일에는 11차, 9월 2일에는 12차,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이 본회담 제2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표들과 자문위원들, 수원들과 기자들이 가고 온 9월 12일에는 6차, 9월 16일에는 7차에 걸쳐 그들이 통과하는 도로를 따라 공동경비구역인 군사정전위원회 남쪽부분에 경기관총을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8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기간에 도합 343건의 위반행위를 감행하였다.

놈들의 이와 같은 범죄행위는 계속되여 9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에는 250여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144건이나 된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자들인 남조선호전분자들은 다만 무기를 끌어들이는데만 그친것이 아니라 우리측에 대한 무장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하여왔다.

12월 8일 57미리무반동포로 비무장지대안에서 우리측을 향하여 사격하였으며 12월 16일과 21일에는 엠—16자동소총과 기관총으로 비무장지대안에서 우리측을 향하여 350여발의 사격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이와 같이 지상에서뿐만아니라 바다와 공중에서도 계속 도발행위를 감행하여왔다. 그것은 2월 11일 저녁 5시 30분부터 군용비행기와 해군함선들을 내몰아 정상적인 어로작업구역인 중국 산동반도 동쪽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고있던 우리측 어선단을 향하여 100여발의 포탄과 총탄을 쏘아댄 사실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우리측에 대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여왔다.

놈들은 공중에서도 1월 11일, 14일 16일, 28일 등 이해 년초부터 대형군용비행기를 우리측 령공인 무수단 동쪽과 어은산동쪽 상공에, 오끼나와에 기지를 둔 《에스아르—71》고속도 고공정찰기를 우리측 지역상공에 각각 침입시켜 공중정찰을 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측 상공에 대한 침입과 공중정찰행위는 3월 9일에도 있은것을 비롯해서 계속되였으며 12월에는 직승비행기를 침입시켜 우리측 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자들인 남조선호전분자들이 남북공동성명에 전적으로 배치되게 우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남조선을 더욱더 방대한 군사력이 집결된 병영으로, 새전쟁도발을 위한 련병장으로 철저히 전변시킴으로써 공화국북반부를 《힘》으로 정복해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에 계속 매달리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실로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 나라에서 긴장성을 조성하고있는 장본인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원흉이며 침략의 야망에 사로잡힌 전쟁광신자이며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이라는것을 다시금 온 세상에 드러내놓았다.

우리는 조선에서 평화를 교란하고 전쟁을 추구하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침략정책을 집행하기에 열을 올리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에 대하여 주시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미제의 값싼 언약을 믿고 온 민족의 평화통일지향에 등을 돌려대고 《승공통일》만을 부르짖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폭넓은 민족적아량과 성실한 평화통일노력을 그 어떤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남조선측이 민족적대단결을 위한 우리의 참을성 있는 노력을 외면하고 계속 무력을 증강하고 전쟁을 준비한다면 우리도 그에 대처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들이 끝끝내 계급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사양하지 않을것이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통일을 계속 방해하며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을 사촉하여 새전쟁을 도발한다면 전체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놈들을 단매에 쳐부시고 한놈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강력한 자립경제가 있으며 일당백의 혁명군대와 전인민적무장이 있고 요새화된 강토가 있는 이상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대 외 사 업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은 1972년에 우리 민족력사상 일찌기 없었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혁명발전의 매단계마다 국제정세추이동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세계혁명에서 우리혁명이 차지하는 위치와 계급적력량의 호상관계, 혁명승리에서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이 가지는 의의등을 명철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정확한 대외정책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세계제국주의와 련합된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국제 반제력량의 지원, 세계혁명력량과의 국제적 단결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가르치시면서 대외정책의 명확한 방향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조선민족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친밀히 련합하며 우리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나라 및 민족과 동지적친선을 유지할것.》**이라고 정식화하시였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립각하여 당시 조선혁명의 구체적실정에 부합되게 작성된 주체적이며 반제적인 대외정책의 원칙을 정식화한것으로서 오늘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을 이룬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 등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우리 당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명확하게 천명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70년에 있은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와 1972년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연설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일련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다시금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대외정책을 작성하며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모든 대외활동을 진행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공화국은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습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5~16페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자기의 대외정책을 세우고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정치, 경제적관계를 맺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대외정책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 이것은 원래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발전의 필연적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것으로서 매개 나라가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그 누구든지 우리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짓밟거나 모독하는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리익에 맞는것이라면 국제적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왔으며 언제나 주동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여왔다.

우리는 또한 결코 남의 풍에 놀지 않았으며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우리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자주적으로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여왔기 때문에 대내외정세가 아무리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나라의 민족적번영을 가져올수 있었다.

우리 당의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은 또한 로동계급적원칙에 기초한 철저히 반제반미적립장으로 일관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외교에서도 응당 계급적원칙을 견지하고 미제에 압력을 가하며 그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폭로하고 규탄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21페지)

우리 당은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며 대외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 혁명의 근본리익의 견지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에 대한 비타협적인 원칙적립장과 태도를 견결히 고수하며 제국주의와 타협하거나 그와의 투쟁을 저해 또는 약화시키는 경향들과 원칙적인 투쟁을 진행하여왔다.

또한 우리 당은 계급적전우들과는 굳게 단결하며 호상 지지하고 협조하는 계급적련대성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는 한편 계급적형제들과 혁명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약화시키는 온갖 경향들을 반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1972년에 보다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나라 혁명동지들과 벗들, 진보적인민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 헌신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기 위하여 정력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있으며 우리 혁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그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세계혁명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력사와 더불어 영생하실 위대한 수령》, 《인류력사가 처음으로 낳은 위대한 분》, 현세기의 《가장 걸출하고 탁월한 사상리론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가장 위대한 령도자》,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희망의 등대》, 《인류의 태양》으로 칭송하고있다.

우리는 이해에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인민들이 환희와 기쁨속에서 대륙과 대양을 넘어 보내오는 그들의 열렬한 축하와 축원속에서 수령님탄생 예순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5대륙의 100여개 나라 당과 정부 지도자들, 혁명조직들을 비롯하여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들, 사회단체들 및 국제기구들에서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2,100여건의 축전, 축하편지, 70여건의 축하시와 충성의 노래 그리고 220여개 대상에서 1천여점의 선물, 100여점의 축기들을 보내여왔으며 많은 나라 혁명적조직들과 사회단체들에서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활동, 그이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업적과 고귀한 경험,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으신 덕성에 대하여 학술보고회와 각종 축하모임들을 가지였다.

1972년 4월 3일부터 10일까지에 걸쳐 진행된 우리 나라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학자들과 사회활동가들은 자기들의 토론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에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을뿐만아니라 혁명과 건설에 관한 우리 시대 혁명리론의 완성으로, 맑스-레닌주의의 최고봉으로 된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한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충실성을 확언하였으며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해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에는 시에라 레온의 수도 프리타운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우리 시대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여 이 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밑에 《전아프리카 김일성동지 주체사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시에라 레온, 수단, 기네, 말리, 탄자니아, 꽁고, 소말리아, 적도기네, 알제리, 모리셔스, 나이제리아, 또고, 다오메 등 아프리카 16개 나라의 당과 정부의 책임적인사들, 정치활동가들과 사회활동가들, 박사, 교수들, 출판기관 사장, 주필들,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들과 투쟁단체대표들, 수많은 방청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토론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킨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조선에서만이 아니라 전세계 특히는 제3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구현하여야 할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지도사상이라는것을 강조하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아프리카혁명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드높은 결의를 다지였다.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과 아프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관한 결의》와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선언》이 고조된 분위기속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참으로 이 토론회는 위대한 주체사상에서 투쟁의 앞길을 찾게 된 아프리카인민들이 얼마나 희망과 신심과 긍지에 넘쳐있으며 주체사상이 얼마나 그들의 생활상 절박한 요구로 되고있으며 주체사상에 의하여 아프리카대륙에 얼마나 위대한 력사적전환의 새기원이 열려지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세계의 수많은 당 및 국가 지도자들과 혁명적 인민들속에서는 또한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세기를 두고 영원히 빛날 《공산당선언》이라고 하면서 그이의 로작을 몸가까이 두고 연구하려는 지향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있다.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여 수령님의 로작연구소조가 세계 방방곡곡에 광범히 조직되고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와 혁명활동략력,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대대적으로 번역출판해내는 여러가지 조직들과 상설기관들이 수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하여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은 1972년 한해에만도 세계 42개나라들에서 37개의 민족어로 510만부이상 번역출판되였으며 무려 1억 4천만부이상에 달하는 500여개의 각종 출판물들에 게재되였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얼마나 흠모하고 존경하고있으며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얼마나 커다란 공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것은 일본 《요미우리신붕》이 《수령님과 인민》, 《령도의 예술가 김일성원수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연 32회에 걸쳐 련재한 사실과 그리고 이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잡지 《슈강요미우리》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연색초상화를 표지에 정중히 모신 《주체의 나라 조선》이라는 《특별별책》을 발간함으로써 단번에 10만부나 독자들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에서도 똑똑히 알수 있다.

오늘날 세계 수많은 혁명적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사상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더 말할것도 없거니와 신생독립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간섭과 구속을 반대하여 자주, 자립의 길로 나아가고있으며 지어 자본주의나라들까지도 더는 큰 나라들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려하지 않고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때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미제의 침략의 척후병들인 《평화군》과 《외교파》, 《선교사》놈들을 내쫓는 한편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리권을 박탈하여 국유화하는 등 용감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반제자주의 길로 나아가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며 그 기치하에 반제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있음을 잘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전례없이 높아지고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은 더욱더 강화되고있다.

오늘 사회주의나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편에 튼튼히 서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절대다수 신생독립국가들, 수많은 평화애호국가들과 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이해 9월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27차 회의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라는 결의안에 알제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공동발기국으로 되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 결의안에 찬성한것과 파키스탄이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탈퇴한것 등은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의 대렬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에 국제무대에서 미제는 더욱더 고립되고 놈들의 침략책동은

파산되여가고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칠레수도 싼띠아고에서 진행된 세계평화리사회 상무위원회, 쏘련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뷰로회의, 세계민주청년뷰로를 비롯한 국제민주단체들과 기구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에서 우리 나라와의 련대성행사들을 벌리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결의문, 성명들을 채택함과 함께 조국통일의 기본장애로 되는 미제와 그 추종자들의 광란적인 전쟁소동과 파쑈적테로통치에 대하여 준렬히 폭로규탄하는 항의문들을 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한 련대성 행사에서와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국제적반향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세계 각계각층군중들은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미제침략자들을 규탄하는 군중집회와 반미시위를 세계도처에서 매일과 같이 벌리였으며 강연회, 사진전람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광범히 진행하였다.

국제기구들과 각국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 그리고 진보적인사들은 성명, 호소문, 결의문, 담화, 편지들을 발표하여 미제의 조선침략행위를 강력히 항의규탄하고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특히 《유엔군》의 간판을 든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해체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세계인민들이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는 가운데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사들은 그를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가장 빛나는 승리》,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통일 방침의 빛나는 열매》,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사변》, 《금후 분렬국가문제의 평화적해결에서 좋은 본보기》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였다.

사회주의나라를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남북공동성명과 이와 관련한 소식들을 대서특필하여 광범히 보도하였다.

또한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여 세계평화리사회, 세계민청뷰로, 국제학생동맹서기국, 아세아아프리카기자협회서기국과 아세아아프리카작가상설국집행서기처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민주단체들과 기구들에서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에서 집회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일본의 광범한 사회계인사들은 7월 22일 도꾜에서 《7월 4일 남북공동성명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며 일조우호를 강화하기 위한 각계 대표들의 모임》을 가지고 일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일본총리 다나까에게 보내는 요망서를 채택하였다. 요망서에는 조선 적대시정책을 반대하고 일조우호를 촉진하며 호상 불가침, 호혜, 평등,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교를 수립하며 호상성의 립장에서 일조량국간의 경제, 문화, 체육을 비롯한 각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일조관계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가지였던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발기인회》를 비롯하여 각도, 현들에서 성대한 모임들이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와 관계를 개선하고 친선과 협조관계를 맺는 문제는 오늘에 와서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조선인민의 참다운 유일한 합법적국가이며 신생독립국가들이 진정으로 친교를 맺고 호상 지지협조할수 있는 벗으로 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국제무대를 지배하게 되였다. 이것은 모든 추세가 더욱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로 쏠리는 방향전환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는것을 힘있게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추세속에서 우리는 1972년에 칠레, 파키스탄, 까메룬, 루안다, 우간다, 세네갈, 말가슈, 자이르, 상부볼따 등과 대사급외교관계를 새로 맺음과 함께 이미 관계를 가지고있는 나라들과는 물론 그외 많은 나라인민들과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우리는 또한 이해 쏘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5월), 싼띠아고까릴요총비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11월)을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5대륙의 각 곳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당 및 정부 또는 투쟁조직 대표단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대표단을 1,450여개나 받아들이였으며 820여개의 우리 대표단들을 세계 여러 나라들과 수많은 국제회의들에 파견하였다.

이와 같은 래왕과 호상방문을 통하여 이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와 단결을 더욱 강화발전시켰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더욱더 많은 지지자와 동정자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벗들과 함께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한 자랑찬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나갈수 있었다.

대외관계에서 이룩한 이상의 모든 성과는 오직 주체사상을 대외관계분야에 구현하시고 그의 관철에로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을 정확하게 이끄시고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계혁명운동발전에 바치신 그이의 위대한 공헌의 빛나는 결실이다.

반제반미투쟁의 강화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반제투쟁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있을뿐아니라 대외활동에서도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투쟁하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미제를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원칙으로 삼고있으며 모든 반제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7페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대외활동에서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일관된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이 공동의 원쑤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것을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으로 규정하시고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미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광범히 벌려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파탄시키며 세계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련대성을 강화하고 함께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팽창을 반대하는 투쟁이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 앞

에 나서는 절박한 파업이라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에만도 일본 《요미우리신붕》, 《마이니찌신붕》기자들, 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에서 변천되는 현국제정세하에서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을 명철히 분석평가하시고 그와의 투쟁을 일층 강화할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한 대답을 주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를 비롯한 일본군국주의와 세계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의 선두에 서나가고있을뿐아니라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을 이루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성심성의로 지지성원해주었다.

공화국정부와 사회단체들에서는 수십차례에 걸치는 성명을 발표하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도처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와 전쟁정책을 전세계에 광범히 폭로규탄하며 놈들을 국제적으로 더욱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이와 함께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이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하여 새전쟁도발준비에 미쳐날뛰면서 매일과 같이 우리에 대한 적대적행위를 감행하는 것을 폭로분쇄하는 한편 놈들의 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단호한 징벌을 가함으로써 조선인민의 본때를 보여주었으며 반제투쟁에 일떠선 세계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이해에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수많은 대표단들을 국제회의들에 파견하여 조선에서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으며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행위를 감행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을 신랄히 폭로규탄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리 인민은 특히 중국인민, 인도지나인민, 일본인민, 그리고 기타 아세아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의 악명높은 《닉슨주의》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우리는 반제반미투쟁의 중요한 전투장이였던 웰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의 투쟁을 시종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으로부터 남부를 해방하고 북부를 수호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피어린투쟁을 벌려여 원쑤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는 웰남인민의 투쟁을 모든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공화국정부가 네차례의 성명을 발표한것을 비롯해서 외교부성명과 외교부대변인성명을 16차례나 발표하여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규탄하였으며 웰남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7월에는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 지지주간》을 설정하고 그들의 투쟁에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는 여러가지 행사들을 광범히 벌리였다.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또한 반미구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웅적항전을 벌리고있는 형제적캄보쟈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서 모든 힘을 다하여 그들의 정의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이 해 4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참석하에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성명을 채택발표한것을 비롯하여 정부성명과 외교부대변인성명을 네차례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3월 6일에는 우리 나라가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에 군사원조를 줄데 대한 두 나라 정부간의 협정을 조인함으로써 캄보쟈인민들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또한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면서 싸우고있는 라오스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으며 꾸바혁명정부와 인민들의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하고도 확고한 립장을 지지하여 련대성월간을 설정하고 여러가지 련대성행사들을 광범히 벌리였다.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아프리카대륙에서 서방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이 대륙의 완전한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모잠비크, 앙골라, 기네(비싸우) 인민들의 투쟁, 중근동에서 미제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고 빼앗긴 땅을 도로찾기 위한 애급, 수리아 및 기타 아랍나라들의 반미반이스라엘투쟁, 자기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였다. 또한 우리 인민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 국내반동들을 반대하는 볼리비아, 도미니까 등 여러나라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우리는 이 해에 일본의 대미예속과 군국주의의 재생 그리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결탁을 반대하며 일본의 진정한 독립과 자주성, 근로자들의 생존의 권리와 평화를 요구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온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일련의 자본주의나라인민들의 투쟁에도 전투적련대성을 보냈다. 그리하여 세계의 반제혁명력량은 더욱더 광범하게 반제투쟁에 일떠섬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

반미구국항전에 일떠선 웰남, 캄보쟈, 라오스 인민들은 미제가 웰남 및 인도지나 침략전쟁에서 《웰남화》, 《크메르화》의 간판밑에 이 지역인민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려는 놈들의 교활한 책동에 강력한 타격을 안김으로써 《닉슨주의》의 수치스러운 참패를 보게 하였다.

웰남과 라오스에서의 정화는 웰남과 라오스 인민이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수치스러운 패배이다. 이것은 또한 미제의 웰남과 라오스침략전쟁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이 지역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온 온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승리로 된다.

또한 캄보쟈인민들도 반미구국항전에 결연히 일떠서 용감히 싸움으로써 놈들에게 계속 커다란 참패를 안기고 령토와 인구의 대부분을 해방시키는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있다.

일본인민들도 미제와 일본반동지배층들에게 커다란 증오와 규탄을 안김으로써 사또정부는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중근동의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반미반이스라엘투쟁도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였다.

이와 같이 미제는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계속 얻어 맞고 녹아나게 되자 20여년간이나 실시해온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봉쇄고립정책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게 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의 령토의 불가분의 한부분으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추세로 되였으며 미제에 대한 환상과 공미굴종사상, 대미의존사상은 산산이 부서지면서 깨여져나가고있다. 이것은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미제국주의는 종국적멸망의 날이 더욱더 가까와지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련대성의 강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의 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파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부형편이 의연 복잡한 조건하에서 오직 확고한 계급적립장과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을 다 옹호하며 그들과의 단결을 도모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공동으로 투쟁하는 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첫째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둘째로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셋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며 넷째로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기초우에서 단결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당들과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에 비록 의견상이가 있다하더라도 이 네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단결을 도모하며 공동으로 투쟁하는 립장을 견지하고있습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7페지)

사회주의나라들은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무엇보다먼저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견결한 혁명적립장을 고수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폭로규탄하며 실제적인 조치로써 그것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또한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사회를 창조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만국의 로동계급과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해야 하며 저주로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철쇄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과 제국주의자들로부터의 완전한 정치경제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과정을 통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확고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완전한 평등, 자주성, 호상존중, 내정불간섭및 동지적협조를 기본내용으로하는 형제당, 형제나라들사이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강화하기 위한데 큰 힘을 돌려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생각하고 반미구국항전에 일떠선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할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함과 함께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나라들이 지켜야 할 공동투쟁에서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전체 사회주의나라들과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왔다.

우리는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형성 50돐 평양시기념회, 꾸바혁명승리 열네돐 평양시기념회, 로므니아인민공화국선포 스물다섯돐 평양시기념회를 비롯하여 많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주간, 련대성주간을 설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들을 평양시와 전국각지에서 진행하였으며 정치, 경제, 과학문화분야에서 수많은 협정과 의정서들을 조인하고 이 분야에서 교류를 발전시켰다.

쏘련공산당대표단,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련방회의대표단, 웽그리아애국인민전선대표단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주의나라대표단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우리 나라 당과 정부대표단을 비롯한 670여개의 여러 대표단들이 중국, 쏘련, 로므니아, 꾸바, 웽그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뽈스까, 벌가리아 등 많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였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적 호상관계에서도 계급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하며 협애한 민족리기주의를 반대하고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발휘하여 세계사회주의시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힘써왔다.

이리하여 우리는 이 해에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련대성의 정신을 더욱 두텁게 하였으며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협조관계의 발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과의 국가적관계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더 많은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단행본, 52페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반제반미투쟁전략과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할데 대한 방침을 받들고 자유와 해방, 진정한 민족적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과 국가적관계를 확대강화하는 한편 령토완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적공존의 5개원칙에 기초하여 신생독립국가들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우리는 자신이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들의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시며 제국주의와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고 소탕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는 참다운 진리를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는 1972년에 8개의 신생독립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많은 나라들과 경제기술적협정과 과학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해 우리는 또한 신생독립국가들과의 호상래왕과 접촉을 그 어느때보다 광범하게 진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대표단, 정부친선대표단, 사회단체대표단, 경제문화대표단 등 여러 대표단들을 수리아, 수단, 이라크, 라오스, 말리, 기네, 시에라 레온, 민주예멘, 소말리아, 탄자니아, 부룬디, 잠비아, 버마 등 신생독립국가들을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 파견하였다.

우리 나라 대표단들은 방문하는 나

라 인민들에게 우리 인민이 보내는 친선적인사를 전하였으며 반제투쟁의 기치를 들고 새 사회건설에 일떠선 이 나라 인민들의 힘찬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그들로하여금 우리 나라에 대한 리해를 더욱 깊게 하였으며 이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우리 나라 여러 대표단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의 친선방문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우리 나라와 이 지역 나라 인민들사이에 전투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다른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 란사나 베아보기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및정부대표단, 예멘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 정부대표단, 경제대표단, 사회단체대표단, 교육문화대표단 등 수백개의 대표단을 받아들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여러 나라 대표단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업적과 자랑찬 승리에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해 하였으며 앞으로의 보다 큰 승리를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벗들은 또한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면서 미제를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1972년 4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그리고 그들과 같이 온 캄보쟈의 손님들은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동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예순돐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맞이하였으며 여러가지 기념행사들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또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6차회의에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하였다.

캄보쟈의 귀한 손님들은 방문기간 평양시와 자강도, 황해북도의 공장, 농촌, 문화기관들을 참관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의 가장 열광적인 환영과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캄보쟈의 귀한 손님들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사이에는 여러번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담화가 진행되였다.

전투적친선과 호상 리해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담화들에서는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과 아세아와 세계정세에 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5월 6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캄보쟈왕국 사이에 공동성명이 조인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인민들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을 더한층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으며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공동투쟁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또한 휴식차로 우리 나라에 와서 11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체류하였다.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이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우리 나라를 국가 방문하였다.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과 그와 같이 온 소말리아의 귀한 손님들은 평양시와 황해북도의 공장, 농촌, 문화기관들을 참관하였으며 그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영과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와 사리원시군중대회가 진행되였으며 인민상계관작품인 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 《피바다》공연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공연들이 진행되였다.

방문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사이에 여러차례 담화가 진행되였으며 5월 19일에는 회담이 진행되였다.

동지적이며 형제적인 친선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쌍방이 각각 자기 나라 정세에 대하여 알리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그밖의 공동의 관심사로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5월 23일에는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과 그 일행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훈장및 메달을 수여하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위원장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불패의 형제적친선단결을 더욱 높은 단계로 공고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획기적사변으로 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 및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대통령리사회성원이며 림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 및 정부 대표단이 1972년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적으로 친선방문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 및 정부 대표단을 접견하시고 친선적이며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대표단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평양시와 함흥시의 공장, 교육문화기관들을 방문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특히 평양시와 함흥시에서 조직된 대표단환영군중대회에 참석하였다.

대표단의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 및 정부대표단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친선적이며 동지적인 분위기속에서 진

행된 회담에서는 쌍방이 각각 자기 나라 실정에 대하여 알리고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그리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았다.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 및 정부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은 조선인민과 민주예멘인민 사이에 맺어진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로 되였다.

예멘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예멘아랍공화국 총리 겸 외교부장 모흐쎈 알 아이니를 단장으로 하는 예멘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대표단을 만나시고 친선적이며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하시였다.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예멘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친선과 호혜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쌍방이 각각 자기 나라의 형편과 정세를 통보하고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그밖에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았다.

예멘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평양시와 함남도의 공장, 농촌, 교육문화기관들을 방문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특히 평양시와 함흥시에서는 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있었다.

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기네민주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기네공화국 정부 총리인 란사나 베아보기를 단장으로하는 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대표단은 평양시와 함흥시의 공장, 기업소, 교육, 문화 기관들을 방문하고 조선인민과 친선적인 상봉을 하였다.

평양시에서는 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집회가 있었다.

방문기간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과 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량국간의 관계문제들과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기네공화국 정부 사이에 경제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훌륭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획기적계기로 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상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 혁명발전에서와 세계혁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적활동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오직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 분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의 빛나는 열매이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제시하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이야말로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당과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가 견지하여야 할 자주적대외정책의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하에 세계혁명력량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 세계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다.

혁명의 태양 김일성원수 만세

1. 세계에 혁명의 빛을 뿌리시는
김일성 그 이는 위대한 태양
주체 해불 높이드시여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시네
(후렴) 온세계 인민 우러러보는
혁명의 태양 김일성원수님 만세 만만세

2. 위대한 가정에 탄생하신분
김일성 그이는 절세의 영웅
조선을 광복하시고
사회주의모범을 창조하셨네
(후렴)

3. 일제와 미제를 반세기에 쳐부신
김일성 그이는 강철의 령장
반제기치 높이 드시여
식민지철쇄를 끊어버리네
(후렴)

4. 준엄한 세계혁명 키를 잡으신
김일성 그이는 탁월한 수령
공산주의앞길 밝히신
그이께 충성의 노래 드리네
(후렴)

(이노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예순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단마르크—조선친선협회에서 그이께 송가를 올릴것을 결정하고 지은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은 외국 대표단과 인사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으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높아지고 세계 많은 나라 인민들과 련대성이 비상히 강화된것은 전적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국제적권위와 그 영향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진데서 이룩된 결실이다.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주체의 조국》을 방문하며 그이를 우러러 직접 만나뵈옵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이께 절대적인 신뢰와 끝없는 흠모를 표시하고있다.

그이께서는 1972년도 우리 나라를 방문한 수많은 대표단들과 인사들을 접견하시였으며 접견석상에서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은 대표단들과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1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부 부부장인 리강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통상대표단

1월 10일 일본《요미우리신붕》론설위원회 고문 다까기 다께오와 이 신문사 사회부 통신주임 쯔꾸다 다모쯔

1월 11일 일본사회당 국제국장 가와자끼 간지와 그 일행

1월 15일 부룬디공화국 외무협조및계획부장 아르테몽 씸바나니예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대표단

1월 20일 우리 나라 주재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신임대표 무니르 이브라힘 함무드와 그 부인

1월 24일 일본자유민주당소속 국회중의원 의원이며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회장대리인 구노 쥬지를 단장으로 하는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대표단

일본의 《아사히신붕》기자 구사까메꾸미, 《마이니찌신붕》기자 나라 노부유끼, 《요미우리신붕》기자 무라가미 예이슌, 《산께이신붕》기자 야마모도 쯔요시, 《쮸니찌신붕》기자 오바야시 슈이찌, 《교도통신》기자 가또 가즈오, 《엔 에이취 케이》기자 미무라 아끼오 《일본텔레비》기자 싱가 가즈히꼬, 《후지 텔레비》기자 가야다 미찌노스께 등 일본기자들

1월 28일 우리 나라 주재 이라크공화국대사 아브둘 카림

1월 31일 뿌에르또 리꼬사회당 총비서 후안 마리 브라스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

탄자니아련합공화국 타보라혁명학원 엘. 케이. 음싸키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혁명학원친선대표단

우리 나라 주재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 련방공화국 신임대사 보그단 오레슈차닌

2월 23일 칠레인민통일행동운동 총비서 호쎄 로드리고 암부로시오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인민통일행동운동대표단

3월 3일 우루과이사회당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이며 국제관계비서인 박사 호쎄 빼드로 까르도쏘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 대표단

우리 나라 주재 예멘아랍공화국 대사 아브두 오스만 모하메드

3월 25일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통령 특사인 이 나라 교육및주조정부장 아브둘 하피즈 피르자다와 그 일행

4월 5일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아부 니달을 단장으로 하는 이 해방조직대표단

4월 9일 우리 나라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던 세계 여러 나라 학자들과 사회활동가들

재일본조선인 과학자대표단

파키스탄 《김일성주석 로작연구위원회》위원장이며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무샤히드 후쎄인 싸이드를 단장으로하는 파키스탄조선친선대표단

구라파에 있는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책임자 까씨엔 히진 바기더

시에라 레온 《김일성원수로작연구소조》 대표 모하메드 에스 코로마

핀란드 땀뻬레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 대표 리뜨바 리나 하이밀라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3대륙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및로작연구소조》 대표 달미로 피구에라

산토메 프린시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대표 빼레스 도스싼또스

이딸리아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및출판주체소조》책임자이며 이딸리아 밀라노고등학교 법률 및 경제교원인 쎄르지오 쓰파잘이와 이 소조성원

브라질 《김일성동지혁명활동및로작연구소조》 대표 아뽈로니오 까르발로

스웨리예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이며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집행위원인 네나르 닐슨

아프리카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로작및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책임자이며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인민조직 동아프리카책임대표인 사카리아 쉬폼바

일본법정대학 교수이며 국제법 법학박사이며 원수폭금지 일본협의회 전리사장인 야스이 가오루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사회과학자 대표단

소말리아교원대학 교수 쌀레흐하지 파라흐 디리르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사회과학자 대표단

음악평론가 야마네 긴지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문화인 대표단

스위스조선공보위원회 위원장 와세르 오또를 단장으로 하는 스위스 조선공보위원회 대표단

적도기네공화국 교육성 총서기 훔오비앙 음바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대표단

말리통신사사장 부바까르 마하만 뜨라오네를 단장으로하는 말리대표단

수단통신사 사장 아브둘 카렘 마흐디를 단장으로 하는 수단통신사 및 작가, 시인, 문화인대표단

뻬루 싼 마르꼬스종합대학 사회과학원 력사교수이며 박사이며 뻬루조선친선협회 위원인 까를로스 다니엘 발까르셀을 단장으로 하는 뻬루 리마 싼마르꼬스종합대학 교수대표단

단마르크사회민주당신문 《악츄엘트》 기자이며 성원인 아느헬르 피터슨을 단장으로 하는 단마르크조선친선협회 대표단

끼쁘로스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이며 《따네아》신문 책임주필이며 끼쁘로스 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성원인 크리싼도스 싸비데스를 단장으로 하는 끼쁘로스조선친선협회대표단

알제리에 있는 프랑스교원 제롬 리아르 부부

노르웨이대외관계연구소 공보국장 하랄드 문데 코스

이라크신문 《알 라쉬드》경영주 무스타파 아브둘 라티프 알피키키와 이 신문 책임주필 알리아 맘두흐 자밀 알리 그리티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대표 포르네 한스

뽀르뚜갈령기네 및 베르데갑제도 아

프리카독립당 행정서기국 경제사 빅또르 호레이르 몬떼이로

서부독일텔레비죤방송 자유기자 로스한 브드너 둔지보이

수리아《문화》신문 주필 마르하드 아까쉬부부

탄자니아 다르 에스 살람종합대학 예술및사회과학부 학부장이며 경제학상급교원 겸 책임자 제이. 에프. 르웨예마무 박사

모리따니통신사 사장 아브델 라호만 울드 브라힘 크릴

오스트랄리아작가이며 시인이며 잡지《해불》의 주필인 스탠리 무어

영국 런던 《레드 모울》지 주필 타리크 알리

네팔기자협회 회장 고팔 다쓰 스레스타

탄자니아 다르 에스 살람종합대학 력학교원 저하드 챤널박사 부부

알제리 알제종합대학 교수 떼마르 아미드

스웨리예 스톡홀름텔레비죤방송기자 요르겐 아이에릭슨

4월 14일 수령님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축하방문하여온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

부룬디공화국 대통령특사인 이 나라 대통령관방부장 은따호까자 안또완

칠레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이며 칠레사회당 중앙위원회 재정부장인 마르따 멜로

모리따니인민당 상무청사 종합국장이며 모리따니 민족회의 의원이며 모리따니인민당 청년최고리사회위원인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바까리 꾸이리바리를 단장으로 하는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대표단

수리아아랍공화국 고등교육부장 샤케르 파함을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친선대표단

4월 15일 수령님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축하방문하여온 캄보쟈 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 친왕부인

4월 20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무역담당련방비서 무하메드 하드지츠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경제대표단

4월 21일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이며 사회당 국민운동국장인 이또 시게루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활동가대표단

4월 22일 뉴욕에 있는 조선민주주의통일전선 위원장 고병철

4월 24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각국 정부군사대표단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국인민해방군 심양부대 사령원인 진석련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쏘련국방부 부부장인 쏘련원수 끼릴 모쓰깔렌꼬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부위원장인 에밀 보드나라쉬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꾸바공화국 혁명무력부 부부장인 소좌 오스까르 훼르난데스 멜을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웰남인민군 방쟝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 고급군관인 레측을 단장으로 하는 이 정부군사대표단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민족보위부 제1부부장인 중장 바쩰 발로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웽그리아인민공화국 국방부 부부장 겸 웽그리아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소장 까르바띠 뻬렌즈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민족보위부 부부장 중장 웨르네르 플라이쓰네르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벌가리아인민공화국 인민보위부 부부장인 중장 밀초 아쎄노브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몽골인민군총정치국장인 중장 돈도빈 요돈두이치르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국방련방서기국 실장인 중장 요와노비츠 보쥐다르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보위및민족복무부 부부장인 고드프레이오. 므하가마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소말리아민족군 부사령관인 준장 누르 아도 알리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꽁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꽁고민족인민군 대위 싸쑤 느게쏘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애급군 제2야전군 사령관인 소장 엠싸아드 마아문을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인도네시아국방안전리사회 서기장인 중장 까르따꾸 쑤마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모리따니헌병사령관인 장교 바호 울드 마이우프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팔레스티나 아르무크군사령관인 대좌 왈레드 아메르를 단장으로 하는 팔레스티나해방조직 군사대표단

수단군륙군 병기대장인 준장 모하메드 누르 싸아드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알제리민족보위부 국립하급장교 양성학교 교장인 소좌 아에드쟈 알리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파키스탄군 륙군보병사단 사령관인 소장 아즈마트 아완을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예멘군 최고사령부 군사장비국 국장인 중좌 아호메드 알무딸라끼야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인도군 소장 바씨슈타케이. 디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뽈스까인민공화국 민족보위부 부부장겸 국토방위 사령관인 중장 따데우스 뚜챱스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 수리아지역지도부성원이며 수리아군 정치지도국장인 아브둘가니 이브라힘장군을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말리공화국 참모장교 하말라 케이따대위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기네공화국 디오쁘 마마두륙명전권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이라크군부총국 정치도덕국장인 아브둘라호 에스 알말라호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 대표단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군사대학교장 아호마드 쌀림 아비드소좌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4월 27일 일본방송협회 방송총국 부총국장겸 보도국장 가와하라 마사히도와 그 일행, 일본아사히신붕사 론설주간 에바다 기요시와 그 일행, 일본교도통신사 론설위원회 위원장 오다 야스마사

4월 2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국인민해방군 심양부대 사령원인 진석련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5월 14일 가나가와현 요꼬하마시장 아스까다 이찌오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

5월 17일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아까마쯔 이사무의 부인이며 일조협회 회원인 아까마쯔 가나꼬와 그의 딸 아까마쯔 이구꼬

5월 18일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동지가 수령님을 의례방문(5월 19일 답례방문)

5월 21일 일본전국교육텔레비죤방송국 보도부 차장인 가와우찌 잇세이와 그 일행

일본고등학교축구대표단 고문인 니홍텔레비죤 사장이며 요미우리신붕사 최고고문인 고바야시 요소지와 축구대표단 단장인 일본체육협회 리사이며 지바현체육협회 회장인 야마구찌 규따

쿠웨이트 국회의원이며 외교위원회 위원이며 《알아얌》지 주필인 아바스 하비브 메나웨르와 《알아얌》지 편집국장 프랑코 유스프 쉬하브

5월 26일 미국 《뉴욕타임스》지 부주필 해리슨 이. 솔스베리와 이 신문사 도꾜지국장 죤엘. 리

5월 29일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내각 총서기 아흐마드 바바크르 예이싸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친선대표단

5월 31일 이란인민당 제1비서 에스깐다리 이라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

탄자니아련합공화국 키브코니대학 농업경제학교원 암바키시예 피아마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키브코니대학대표단

6월 1일 일본공명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다께이리 요시가쯔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

6월 5일 유엔 주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상임대표 라할 아브델 라띠프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라주뚜 하지 아브델 까데르

6월 11일 뽀르뚜갈공산당 총비서 알바르 꾼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

6월 14일 칠레공화국 대통령궁전실계획부장 곤쌀로 마르뜨네르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경제대표단

6월 21일 미국 《워싱톤 포스트》지 극동총국장 셀리그 에스. 해리슨

6월 23일 조쏘정부간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8차회의에 참가한 쏘련대표단 이. 떼. 노비꼬브부총리

6월 26일 핀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인 레오 수온떼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

칠레정부기관지 《라 나씨온》신문주필 오스까르 와이스

소말리아국립종합대학 총장인 박사 살리흐 모하메드 알리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국립종합대학대표단

6월 29일 우리 나라 주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대사 게오르그 헨케

7월 10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인민보건부장 오마르 부젤라브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대표단

7월 14일 우리 나라 주재 남부웰남공화 대사 부 느곡 호

7월 15일 일본 니이가다시장 와다나베 고따로와 그 일행

7월 20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대통령리사회 성원이며 림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민족전선및정부대표단

7월 23일 일본사회당 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아시까 가꾸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대표단

7월 24일 쿠웨이트국가 국회 부의장 유수프 칼리드 알 무클리드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국회대표단

7월 25일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부위원장이며 국방담당국무비서인 모하메드 알리 사마테르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군사대표단

7월 28일 예멘아랍공화국 총리 겸 외교부장 모호쎈 알아이니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대표단

8월 10일 시에라 레온공화국 수도 프리타운시 더. 티. 아끼보 베쯔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프리타운시 대표단

8월 17일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이며 전쟁리사회 위원장인 아밀카르 카브랄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

8월 21일 까메룬련합공화국 외교부장 밴쌍 에퐁을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친선대표단

9월 5일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까. 에프. 까뚜쉐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

9월 10일 일본참의원 의원인 아까네 가꾸보 시게미쯔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사회당 참의원 의원대표단

9월 11일 핀란드공화국 국회의원인 베이꼬 루뜨꼬네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의회그루빠대표단

일본 오사까부의회 의장 니시가와 도꾸오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오사까부의회대표단

9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광동성당위원회 서기인 왕수도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 당사업일군휴가단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련방회의 의장인 알로이스 인드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련방회의대표단

9월 16일 오지리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녀맹위원장인 이르마 슈와게르

9월 17일 일본 《마이니찌신붕》 다까하시 다께히꼬론설주간을 단장으로 하는 이 신문기자대표단

9월 23일 이딸리아공산당 출신 국회의원 미겔레 삐스딸로를 단장으로 하는 이딸리아공화국 국회대표단

일조문화교류협회 대표위원이며 일본과 조선의 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 대표위원인 일본로동조합총평의회 고문 이와이 아끼라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과 조선의 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대표단

9월 24일 일조우호친선청년실업계대표단

9월 26일 잠비아공화국 마인자 마티아스 초나부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 친선대표단

10월 2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문화및사회주의교양리사회 제1부위원장 이온 브라드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문화대표단

10월 5일 우리 나라 주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프란쯔 에베르하르쯔

10월 6일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편집국장 야스에 료스께

10월 11일 상부볼따공화국 농업및축산부장 안뚜완 다꾸레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친선대표단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인 뻬루기자련맹 위원장 헤나로 까르네로 체까와 그의 가족들

10월 19일 스웨리예사회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라르스 엔크비스트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청년동맹대표단

10월 21일 우리 나라 주재 남부웰남공화 웬반화신임특명전권대사

10월 22일 우루과이사회당 총비서 호쎄 엔리께 디아스와를 단장으로 하는 우루과이동방공화국 국회대표단

10월 23일 세계직업련맹 위원장이며 우루과이공산당 비서이며 우루과이근로자중앙 총비서인 엔리께 빠스뚜리노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이며 이 당 부인국 국장이며 일본부인회의 의장이며 참의원 의원인 다나까 스미꼬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 부인활동가대표단

10월 23일 도미니까공산당 총비서인 나르시소 이싸 꼰데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

11월 6일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 벤초꾸바딘스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대표단

11월 7일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 싼

며아고 까릴요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

11월 9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라이아취 야께르상업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무역대표단

11월 13일 가이아나협동공화국 경제개발부장 케이. 에스. 킹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경제무역대표단

페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 에르네스또 로하스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

11월 15일 말가슈공화국 외교부장 디디에 라찌라까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정부대표단

11월 16일 일본교직원조합 중앙집행위원장 마끼에다 모또후미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교직원대표단

11월 23일 우간다공화국 대통령특사 인 루이클 온도가와 그 일행

11월 27일 수리아아랍공화국 농업부 부부장 나이름 아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경제대표단

12월 2일 우리 나라 주재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아우렐 멀녀산특명전권대사

우리 나라 주재 꾸바공화국 바쎌리오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특명전권대사

12월 18일 기네민주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기네공화국 정부총리인 란사나 베아보기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이 나라 당및정부대표단

12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희붕비외교부장과 그 일행

12월 29일 수령님께서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축하방문하여 온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

12월 31일 수령님께서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축하방문하여 온 우리 나라 주재 수리아아랍공화국 야씨르 파르라대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축전, 축하편지를 교환하신 세계 각국 당 및 국가 지도자들과 투쟁단체 일군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에 세계 많은 나라 당 및 국가 지도자들, 투쟁단체 지도자들, 진보적인 인사들과 수많은 축전을 교환하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서 전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로부터 무한한 흠모와 존경,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계신다.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경모하면서 그이의 반세기에 걸친 불멸의 투쟁업적과 빛나는 혁명업적들을 《한없이 귀중한 혁명의 보물》로, 그이를 《완전무결한 최고봉의 지도사상을 겸비하신 세계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우러러 모시게 됨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많은 나라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 함께 인류력사에 찬란한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예순돐과 그이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그이께 최대의 열렬한 축하를 보내여왔으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또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조직령도하시여 조선혁명의 일대전환기를 가져오게 한 력사적인 날들인 조선인민의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마흔돐,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의 날인 8.15해방 스물일곱돐,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창건 스물일곱돐,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네돐 조선인민의 정규적인 불패의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네돐과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 발표와 《반미공동투쟁월간》등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수없이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당과 국가활동의 지도사상으로 삼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참으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이며 존엄있는 나라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는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특히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조국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에 전적인 지지와 공명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은 당장 물러가야하며 미제의 조선침략의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해체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는 또한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반제반미공동투쟁을 통하여 강화발전된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할것을 희망하면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커다란 성과와 조선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열렬히 축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많은 축전과 축하편지를 받으심과 함께 세계 수많은 나라 당및 국가지도자들과 투쟁단체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국의 민족적명절인 독립절을 비롯한 일련의 경축일에 즈음하여서와 그들이 반제반미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 민족적독립과 사회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하고있는 성과에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였다. 특히 수령님께서는 신생독립국가들이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고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여 새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진심으로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정당한 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축전에서는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의 뉴대와 전투적단결이 더욱 강화발전될것을 믿으시면서 반제반미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2년도에 교환하신 축전수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 아래에 수록한 일람은 그 일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보내온 축전일람은 1972년판에 수록되여있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축전, 축하편지를 드린 세계 각국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 투쟁단체, 사회단체일군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모택동,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대리 동필무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위원장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캄보쟈국가원수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뽈스까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헨리끄 야브원쓰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발테르 울브리히트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 루드위끄 스워보다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엔. 뽀드고르느이

웰남민주공화국 주석 손덕승, 웰남민주공화국 정부 총리 범문동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몽골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유. 쩨덴발, 몽골인민공화국 대인민후랄 상임위원회 제1부위원장 쓰. 룹싼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위원장 또도르 쥡꼬브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호메드 세쿠투레

이라크공화국 대통령 아호마드 하싼 알 바크르

알바니아인민공화국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하지 레쉬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말리공화국 국가수반 정부총리 민족해방군사위원회 위원장 대좌 무싸 뜨라오레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칠레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까를로스 알따미라노 오레고

칠레공화국 대통령 쌀바도르 알옌데고쌘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 법률가 원우수,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주석 휭떤팔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

애급아랍공화국 대통령 안워르 앗사다트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상임위원회 위원장 로숀찌 빨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호

말가슈공화국 정부수반 가브리엘 라마난트소아장군

인도공화국 대통령 브이. 브이. 기리

꽁고인민공화국 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소좌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통령 줄피카르 알리 부토

싱가포르공화국 대통령 박사 벤쟈민 헨리 새어즈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대장 수하르또

까메룬련합공화국 대통령 엘하지 아호마두 아히죠

오만 및 아랍만해방인민전선 중앙사령부 중앙집행위원회

아랍법률가동맹 서기장 샤피크 아르쉬다트

노르웨이 레이버당 오슬로청년동맹 위원장 옷토 하우게

파키스탄아세아 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성원일동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예멘아랍공화국 공화리사회 위원장 아브둘 라호만 알이리야니

이딸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안또니오 로아지오

아세아아프리카주택기구 서기장 아브델 하미드 엘 잔괄리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

《아사히신붕》도꾜본사 편집국장 고또 모도오

교도통신사 사장 후꾸시마 신따로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쟝 슈레까날, 부위원장 미쉘 제노, 총서기 크레스티안좌노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회장 구노 쥬지

이라크농민조합총동맹 위원장 후쎄인 좌바르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안헬 까스뜨로 라바레요, 서기장 헤나로 까르네로 체까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자총련맹 대외관계 부위원장 무함마드 쑤다이 알리

일조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

핀란드평화옹호위원회

적십자국제위원회

시에라 레온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명예위원장이며 시에라 레온공화국 재정부장이며 전인민대회당 총비서 씨. 에이. 카마라—테일러

아덴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성원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위원회》

라호르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위원회》 위원장 무샤히드 후쎄인 싸이드, 서기장 모사데크 아하드 샤호

끼쁘로스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 바쏘스 리싸리데스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 아밀카르 카브랄

까나리아섬자결독립운동 총비서 안또니오 꾸빌로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 중앙위원회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친왕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편집국장 야스에 료스께

일조협회 리사장 하다나까 마사하루

일본공명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다께이리 요시가쯔

일본민주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가스가 잇고

일본자유민주당 중의원 의원 시노야가즈오

혁명리사회 의장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 후아리 부메디엔

수리아아랍공화국 문학신문주필 마다하트 아까쉬

뿌에르또 리꼬사회당 국제담당비서 뻬드로 바이레스 차뻴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위원장 아고스띠노 네또

애급아랍공화국 평화민족리사회 총서기 할리드 모헷딘

일본 《미라이샤》사장 니시다니 요시오, 《미라이샤》사원일동

잠비아 《데일리 메일》책임주필 빈쎈트 미죠니

조선방문 일본사회당 부인활동가대표단 후지이 이야메

팔레스티나해방조직 바그다드지부

파키스탄 라호르청년교원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 책임자 교수 무함메드 아쎄르
핀란드조선친선협회 뚜루꾸지부 위원장 국회의원 안나 리사 요끼넨, 부위원장 헨띠 라이넨
동남아세아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네팔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프렘 바하두르 칸사카르, 네팔조선친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출판편집부》 주필 겸 네팔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마니크랄 쉬레스타
라왈핀디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위원회》 위원장 무주타바 후쎄인
일본전국혁신시장회 회장 요꼬하마시장 아스까다 이찌오
라호르에 있는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성원일동
동남아세아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성원일동
파키스탄에서 공부하고있는 팔레스티나학생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이라크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김일성동지 로작및혁명력사연구위원회》
아프리카에 살고있는 산토메 프린시페 애국자들로 조직된 《김일성동지 주체사상연구소조》 부책임자 화요데 알바 뜰레스
콜롬비아조선친선협회 서기 마르꼬 뚤리오 로드리게스
요르단로동조합총련맹 부총비서 파트히 알나지
알제종합대학 교수 경제박사 떼마르 하미드
일본사회당소속 그전 국회의원 와다나베 요시오
일본중의원 의원들인 하세가와 쇼조, 우쯔노미야 도꾸마, 다무라 하지메
사회당 니이가다현본부 위원장 요네다 도고
일조우호무역촉진 일본해연안도시회의 대표간사이며 니이가다시장인 와다나베 고따로, 가나자와시장 오까 료이찌
《요미우리신붕》사 대표취체역 사장 무라이 미쯔노
니이가다시 주식회사 기다무라제작소 취체역 사장 기다무라 지사꾸
에이의 기선주식회사 사장 마스까와 하루오
후지 운수회사사장 고바야시 리끼조
교또 불교도회의 리사장 마찌하다 료슈
시가현의 이마니시 세이야
교또 《류혼지》사원 주지 호소이 유신
레바논 기계체조련맹과 나쥐마 체육구락부
파키스탄 그전 카라치시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하피즈 모함마드 하비불라흐
레바논사회진보당 부위원장 파리드 저브란
세계직업련맹 서기장 삐에르 장쑤스
이라크로동조합총동맹 서기장 비단 파딜
칠레인민통일행동운동 총비서 오스까르 길례르모 가레똔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
이라크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박사 싸아둔 할리파 티크리티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까를로스 모랄레스 아바르수아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칠레위원회 위원장 훌리오 베니떼스
아세아아프리카인민들과의 련대성칠레위원회 위원장이며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 마르따 멜로
일본사회당 사이또 마사오
팔레스티나작가및기자동맹 총서기 나지 알루쉬
모리따니인민당 전국정치국성원이며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바 알라싼느
세계평화리사회 서기장 로메쉬 찬드라
국제아랍로조련맹 서기장 아브둘 라띠프 볼테아
일본참의원 의원 후지와라 미찌꼬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로스텐 브란스트롬
레바논공화국 국회 의원이며 레바논평화운동위원회 위원장인 박사 하쉼 후쎄이니
애급아랍공화국 주재 팔레스티나해방조직대표 가말 엘쑤라니
레바논국회의원 푸아드 라히니
모리따니인민당 청년최고리사회 위원장 바 아브둘
카라치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유니스리즈비
파키스탄 라호르시법률가협회
레바논 《두스트르》 잡지사 사장 겸 주필 알리 발루르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 위원장 에굼 마우세스, 부위원장 펠레 첼스트르엠
《에스빠냐 레뿌블리까나》신문사 사장 마누엘 까르네로
말리공화국 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 아싼느 쎄이
베네수엘라혁명가 엘리아스 마누이뜨 까메로
상부볼따공화국 대통령 상구레 라미자나
말따국가 총리 도미니크 민또프
파키스탄 판쟈브종합대학녀성 《김일성주식로작연구소조》 책임자 따진 싸이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민주예멘 류학생일동
뽀르뚜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알바로 꾼할
버마조선친선협회
알제리에 있는 브라질투쟁단체대표부 성원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일동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대표 새캔 문툰와
일조무역회 전무리사 아이까와 리이찌로, 상무대사 무라까미 사다오
말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싸무 투레
구라파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파키스탄 라호르 청년로동자《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책임자 씨드 샤나즈 쿠타브
중근동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로동자위원회》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핀란드인민민주주의련맹 위원장 엘레 알레뉴스, 서기장 아이모 하파넨
아자니아 범아프리카대회 대외사업부 비서 중근동지역대표 빅또르.엘.마예키쏘
파키스탄 라호르 청년법률가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책임자 모와히드 후쎄인 샤호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아프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일동
모리따니에 있는 팔레스티나혁명가들의 《김일성사상 연구위원회》성원일동
구라파에서 공부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일동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미쉘 미촘베로 대좌
우루과이사회당을 대표하여 총비서 라몬 마르떠네스
요한나 그로테볼(베를린)
구라파에 있는 아프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및로작연구소조》
구라파에 있는 라틴아메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및로작연구소조》
말리평화운동위원회 위원장 마마두 싸꼬
아랍기자동맹 부위원장 《알욤》신문

사 주필 워퍼크 티이비
국제기자동맹 서기국
《아프리끄아지아》잡지사 총사장 씨몽 말레이
칠레북부종합대학 대표 우고 모레노 예랄따
꾸바에 있는 아랍인련맹, 꾸바아랍문화협회 위원장 니꼴라스 꼬씨오
핀란드 사회민주청년 중앙련맹 위원장 울프 쑨르크비스트, 서기장 뚜오모 사아리넨
모리따니근로자동맹 서기장 팔 말리크
파키스탄 《김일성주석로작번역위원회》성원일동
일본요꼬하마시로동조합련맹
일조문화교류협회
일본후지텔레비죤 보도국장 요시무라 가쯔미, 기자 가야바 미찌노스께
룩셈부르그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샤를 도에르네르
일본《니홍게이자이신붕》사 사회부장 구로하 료이찌
모잠비끄해방전선중앙위원회
알제리조선친선 빠뜨리스 루뭄바 렬사 아동학원교직원및학생일동
짐바브웨해방전선 책임대표 제드엠까마나
오지리 윈에 있는 《람스-베닌주의대학생동맹》과 이 동맹의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반제투쟁위원회》위원장 월프 강클라 네르트, 부위원장 카를 페테르 쉬아르츠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도미니까 학생들의 《김일성동지혁명력사및로작연구소조》
중근동에 있는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연구하는 학생위원회》
아프리카에 있는 《김일성주석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까히라에 있는 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단체들의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연구소조》책임자 빅또르. 엘. 마예키쏘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동아프리카 책임대표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김일성동지의 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책임자 사카리아 쉬꼼바
수단《김일성동지 주체사상연구소조》를 대표하여 책임자 아브델 가데르 모샬
동남아세아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청년연구소조》성원일동
라호르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위원회》서기장 모사데크 아하드 샤호
레바논《김일성동지로작번역 및 출판위원회》위원장 아브물 하미드 나쎄르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며 포르루이스시 참의원 의원인 엘. 챤드라문
전인도조선친선협회 총서기장 어머르 나트 비디아럽까르, 서기 옴프 라카쉬 만트리
카라치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위원회와 카라치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를 대표하여 문화비서 이스마일 유스프
전인도농업근로자동맹 서기장 헤어크 리쉬나 코나르
끼쁘로스농민동맹 중앙리사회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서기장 유세프 엘 세바이
핀란드조선협회 서기장 크리스티나 노르드 그렌 라
국제학생동맹 위원장 두산 울챠크
아세아아프리카경제협조기구 서기장 대리 엔 헤베이샤
오지리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이르마 쉬라게르
버마평화옹호위원회 서기장 더킨 루 원
에스빠냐공산당 《홀리안그리마우》명칭 에스빠냐인소조 비서 호쎄엠 곤쌀레스 헤레쓰
알제리조선친선 라뜨라우이 알리 옛 투사협동농장 전체 성원일동
꾸바상주미국인련맹 위원장 쉐이맥마누스
오지리공화국 항쟁문서관 서기장 교수 박사 하슈타이네르
네팔주간신문 《아르판》 주필 교수 만주타르나 싸끼야
칠레공화국정부기관지 《라나씨온》주필 오스까르 와이스
칠레잡지 《뿐또 피날》사 주필 마누엘 까비에쎄스 도노쏘
인도신문 《데일리 싸베라》 책임주필 마단 모한꾸바
《알무하리르》신문사 사장 월리드 아브 다호르
《다르 알 타호리르》출판사 행정리사회 위원장 무스타파 바하가르 바다위
《알 발랴트》잡지사 사장 갓싼 슈라티
네팔주간지 《비스드뜨》 주필 겸 발행자 끼소르 나라 얀 쉬레스타
쿠웨이트 다르 알 라이 알아암출판사
싱가포르 《남기홍》직원일동
프랑스 노르망 베핀서점을 대표하여 베마크 아레에즈
《니홍게이자이신붕》사 사회부장 구로하 료이찌
싱가포르 코스모스선박회사 킴링무역상사 지배인 탄킴 힌
일본 다가와시직원로동조합 지찌로 일조협회 그전 사무국장 도가시 후미오
조선뿔스까해운회사 《미츠게비츠》호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안또니 따떠르스까
남포항에 머무르고있는 일본선박 《제18도호마루》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미우라 스미오
일본선박 《야마호꼬마루》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깃꾸지 료이찌
일본선박 《닛꼬마루》선원들을 대표하여 나까야마 하쯔요시
일본선박 《기호마루》선원일동
희랍선박 《프로토마초스》호 항해사들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다쓰프로울리스
희랍선박 《디모스 할코우씨스》호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메테니티스 디미뜨리오스
끼쁘로스선박 《이지스배너》호 선장 그로우스 마르코스
구라파에서 공부하고 있는 팔레스티나학생일동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천리마원산 농업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류학생일동
김책공업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민주예멘류학생들인 무하마드 가예트 싸이드, 카렛아부럴와햇
건설건재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류학생들인 이스마일, 칼리드 에스마트
평양에 있는 기네실습생일동
리비아아랍공화국혁명지도리사회의 장대좌 모아메르 엘 가다피
아프리카에 있는 고등사범학교 학생들의 《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콩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콩고 제인민간의 친선협회 위원장인 비딸 발라
인도《남조선청년학생들과의 련대성위원회》위원장 라빈데르 한다
단마르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텐 암비
로므니아해운회사 《나브롬》의 로므니아선박 《시나이아》호 당원들과 선원들, 《시나이아》호 당비서 엔시우 토도르를 대표하여 선장 로난 게오르게
벌가리아선박 《게오르기 벤꼽스끼》호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게오르기 케노브
파키스탄선박 《에크발 바크쉬》호 선장 아르. 엠 잉글리쓰
싱가포르 코스모스해운회사 《유니버쓸》호의 전체선원들을 대표하여 프롱펭
끼쁘로스선박 《토레니아》호의 전체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디. 찰키토스

싱가포르호크선박회사
싱가포르《아이딜》식료공업회사
레바논재지회사 간두르무역합사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덴시 호르막사인민학교교원 아브둘 까데르 쌀레흐 아흐메드
일본 다이도통상주식회사 사장 우찌라 겐지로
일본 아끼야마요꼬주식회사 《제1유세이마루》 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오까지 다까오
일본 세이와해운주식회사 《헤이요마루》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아만 지시찌로
일본선박 《다이니찌마루》승무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구지 미네하루
일본 다이니찌무역주식회사대표 취체역 이도 기찌노스께
일조우호촉진나가노현의회의원련맹 회장 가자만 가즈오
일조우호촉진이따바시구의회의원련맹 회장 다까노 린조, 일조우호촉진아따지구 의회의원련맹 회장 곤도얀기찌
일조우호촉진 나가노현 우에다시 의회의원련맹 회장 가께가와 요시노리, 사무국장 하기와라 마사하루
일조우호촉진시즈오까현 미시마시의회의원련맹
일조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 오사까회의 사무소장 히가시다니 도시오
일조협회 후꾸시마현련합회 회장 와다 하지메
일조협회 시즈오까지부 와다나베 스스무
일본사회당 훗가이도본부 세끼다 노부오, 도마리야 야스오
일본사회당 히로시마현본부 위원장 오하라 도오루
일본사회당 오까야마현본부 부인부
일본사회당 시오가마시의회의원단의 사또미쯔오, 곤 도꾸지로, 사또 사다오
일본사회당소속 시즈오까현의회 의원 사까이 구니오, 중의원 의원들인 안따꾸 쯔네히꼬, 유야마 이사무, 국회의원 모찌즈끼 유꼬, 참의원의원 사사끼 시즈꼬
일본훗가이도대학 야마모도 다마끼
일본히로시마대학 교수 요꼬야마 에이
일본 히로시마대학 명예교수 모리다끼 이찌로
일본중립로동조합련락회의 도꾜도련합회 사무국장 요꼬야마 다쯔루
일본히로시마현로동조합회의 파장 하마모도 만조
일본전국금속로동조합 《세이꼬》 사지부
일본아즈마제강회사로동조합 요시다 세이
일본도부교통로동조합 아사구사지부
일본나가노현 우에다시 시장 고야마 이찌헤이
일본시즈오까현 의회의원 와다나베 이다오
일본시즈오까현의회 그전의원 까또 또에
일본오끼나와현의회 의장 다이라 고이찌
일본시즈오까현 시미즈시의회 미즈노 시즈
일본시오가마시의회 의장 사또 마사오
일본텔레비죤방송망주식회사 사장 고바야시 요소지
일본민족예능문화련맹리사일동
일본 《붕까자》극단
일본《아오조라 미도리 고도모 우다고에》예술단 가다오까 마사루
일본히다까상사
일본 니이가다현 《로꼬샤》호상생활협동조합 데라모도 요시이찌
일본 마루운전설주식회사 사장 사또 이쯔기
일본 도꾜도 경제국장 미시바 기꾸오
일본 《쥬니찌신붕》사 사장 미우라 슈붕
일본 《쥬니찌신붕》도꾜본사 편집국장 홋따 이찌로
일본 야마데교회사 목사 히라야마 데루지
일본 시가현 오쯔시 온죠지마찌 《온죠지》사원 수석중 후께 슌머
일본선박 《신에이 마루》선장 니시오까 히사가즈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이브라힘 나시르
알제리 근로자총동맹 대외관계 담당비서 필랄리 알리
프랑스로동총련맹
일본로동조합총평의회 고문이며 일조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 대표위원인 이와이 이끼라
끼쁘로스 농업, 림업 및 일용 로동자 직맹 서기장 안드레아스 끼리아꾸
모리셔스 공산주의청년동맹 총비서 이브라힘 미키
가이아나녀성진보조직 위원장 대리 비아뜨리쓰 까싸또
인도법률가협회 서기장 하리쉬 찬드리
일본국제법률가련락협회
미국 쌘프랜시스꼬에있는 신문《공개편지》발행인 주영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축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모택동,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내각총리 게오르게 마우레르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친왕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 단결기구 집행서기국
혁명리사회 의장,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 후아리 부메디엔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자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소장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소장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부위원장이며 국방담당국무비서 겸소말리아민족군 사령관인 준장 모하메드 알리 사마떼르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이라크조선친선협회
모리따니회교공화국 국방부장 씨디 모하메드 디아가나
모리따니인민당 청년최고리사회 위원장 바 아브둘
아씨파군 총정치위원 하니알 하싼 (팔레스티나)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알파타흐) 바그다드지부
아랍해방전선 이라크지부
조선인민파의련대성꾸바조직위원회 위원장 멜바 에르난데스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겸 보위부장 알리 나쎄르 무함마드 하싸니
까나리아섬자결독립운동 총비서 안또니오 꾸빌로
팔레스티나해방인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오만 및 아랍만해방인민전선 중앙사령부 중앙집행위원회
뽀르뚜갈민족해방애국전선
아랍해방전선
알제리에 와있는 남아프리카 아프리카민족대회대표
에리트레아해방전선 이라크지부대표 마호무드 이스마일 알하쥐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기념집회에 참가한 콩고민족인민군 총참모부소속부대 장병일동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토스

텐 브란스트롬

이라크로동조합총동맹위원회 위원장 모함메드 아이쉬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바그다드지부

이라크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김일성동지로작연구위원회》

꾸바에스빠냐친선협회 위원장 메드로 이떠엔싸

《에스빠냐 레뿌블리까나》신문사 사장 마누엘 까르네로

네팔조선친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출판편집부》 주필 마니크랄 쉬레스타

네팔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프렘 바하두르 칸사카르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행정비서 모세스 엠가로에브

팔레스티나해방조직 바그다드지부대표 만할 아브둘 파타흐

베네수엘라 혁명가 엘리아스 마누이뜨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아프리카류학생들의《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일동

팔레스티나로동자총동맹 이라크지부비서 무싸 알쥐야브

모리따니에 있는 팔레스티나혁명가들의《김일성사상연구위원회》성원일동

민주예멘조선친선위원회 위원장 아브둘 라자크 샤프샤헤르

말리공화국 바마코지구청년및체육지도국 총국장 쎄이두 떠예르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류학생들의《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일동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네돐을 축하하여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호메드 세쿠 투레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이며 팔레스티나혁명군 총사령관 야씨르 아라파트

버마련방《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녀성소조》성원일동

네팔《김일성주석로작편집부》 주필 마니크랄 쉬레스타

팔레스티나해방조직 바그다드지부대표 만할 아브둘 파타흐

버마조선친선협회《김일성동지 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안헬 까스뜨로 라바레요, 서기장 헤나로 까르네로 체까

팔레스티나해방인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모리따니회교공화국 국방부장 씨디 모하메드 더아가나

이라크농민조합총동맹 위원장 후쎄인 좌바르

모리따니인민당 청년최고리사회 위원장 바 아브둘

모리따니근로자동맹 서기장 팔 말리크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중앙위원회

오만및아랍만해방인민전선 중앙사령부 중앙집행위원회

아랍해방전선

예멘군최고사령관 대좌 모함마드 아브둘라 알 이리야니

꽁고로동당원이며 꽁고제인민간의친선협회 위원장 비딸발라

말리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 아브둘라 이에 쏘우

민주예멘조선친선위원회 위원장 아브둘 라자크 샤프샤헤르

네팔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프렘 바하두루 칸사카르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바까리 꾸이리바리

이라크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싸아둔 할리파 알 티크리티

핀란드조선협회 서기장 크리스티나 노르드 그렌 라

버마조선친선협회 만다레이지부 위원장 더킨예죠

팔레스티나해방조직 바그다드지부대표 만할 아브둘 파타흐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 바그다드지부 대표 아브니달

말리공화국 바마코지구청년및체육지도국 총국장 쎄이두 떠예르

말리공화국 바달라바브구 고등전문학교 교장 비라마뜨 꿀라와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위원장 아고스띠노 네또

핀란드조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책임자 헤이끼 히로벤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및련대성다오메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빠도누 쟝마리

스웨리예의 스톡홀름에 와있는 미국탈주병위원회를 대표하여 마크위렐

벌가리아에서 공부하고있는 볼리비아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도미니까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혁명력사및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팔레스티나혁명가들의 《김일성사상연구위원회》전체 성원들을 대표하여 책임자 아브깔레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며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 윈우수.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주석 휭떤팔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 후아리 부메디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꾸바조직위원회 위원장 멜바 에르난데스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호메드 세쿠 투레

수리아아랍공화국 인민군사령부가 조직한 군중집회에 참가한 장교, 하사관 전투원일동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꾸바《히론렬사》과학기술전문학교 교직원, 학생일동

꽁고제인민간의친선협회 위원장 비딸발라

칠레공화국 대통령 쌀바도르 알엔데 고쌘스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파타흐) 바그다드지부

레바논의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당들—사회진보당, 레바논공산당, 아랍사회주의로동당, 레바논아랍사회부흥당, 아랍로동자청년당, 레바논공산주의동맹, 레바논아랍사회부흥당조직, 사회주의로동조직

팔레스티나해방조직 바그다드지부《김일성동지로작번역및출판위원회》위원장 아브둘 하미드 나쎄르

알제리조선친선빠뜨리스 루뭄바렬사아동학원 전체 교직원및학생일동

조선인민과의련대성칠레위원회 위원장 훌리오 베니떼스, 아세아아프리카인민들과의련대성칠레위원회 위원장 마르따 멜로,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까를로스 모랄레스 아바르수아, 서기장 페르난도 무릴로 비아나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

이라크공화국 대통령 아호마드 하싼 알 바크르

시에라 레온공화국 재정부장 씨. 에이. 카마라— 테일러

이라크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싸아둔 할리파 알티크리티

예멘아랍공화국 공화리사회 위원장 아브둘 라호만 알 이리야니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 아밀카르 카브랄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바그다드지부

모리따니인민당 조직및공보비서 아브돌 아지즈살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몬티코올, 부위원장 에스친몬, 서기장 올류맘마

민주예멘조선친선위원회 서기장 아민 아브돌라 히드오마르

짐바브웨아프리카로조대회 총비서 아론 은돌로브

산마리노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총비서 질도 가스뻬로니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자총련맹

도미니까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나르시쏘 이싸 꼰데

세계민주청년련맹뷰로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바 알라싼느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 사회공보비서 디. 지. 실룬디카

희랍공산당 중앙위원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 성명을 지지하여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칠레공화국 대통령 쌀바도르 알옌데 고쌘스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이며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 후아리 부메디엔

예멘아랍공화국 공화리사회 위원장 아브돌 라호만 알 이리야니

마로끄해방및사회주의당 전국위원회 총비서 알리 야따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호메드 세쿠 투레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이딸리아공산당 총비서 엔리꼬 베를링게르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 싼띠아고 까릴요

희랍공산당 중앙위원회

네팔왕국 민족판챠야트 의원겸 왕국리사회 위원 다야니디 샤르마

아랍사회부흥당 지역지도부 총비서이며 이라크공화국 대통령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지도위원회를 대표하여 아고스띠노 네또

모리따니인민당 전국청년운동 최고리사회 위원장 바 아브둘

모리따니인민당 전국정치국 성원이며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위원장바알라싼느

팔레스티나해방인민민주주의전선 바그다드지부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 페르난도 무릴로 비아나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서기장 유세프 엘 세바이

프랑스공산당 부총비서 죠르즈 마르쉐

아세아아프리카주택기구 서기장 아브델 하미드 엘 잔말리

파키스탄선박《만쑤르》호 항해사들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모하메드 이씨크 바르드

《다르알 라이알 아암》출판사 총국장겸 책임주필 파헤드 알 마사이드

《베리타》호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투알도 스토엔

오만및아랍만해방인민전선 중앙사령부 중앙집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아덴주재 대표 싸아드 파쓰우드

오지리공화국항쟁문서관 서기장 교수 박사 하 슈라이네트

세계교회리사회 서기장 유진 카손 블레이크

대동유한공사(싱가포르)

이딸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안또니오 로아지오

싱가포르코스모스해운회사 킴텡유한공사

세계민주청년련맹을 대표하여 서기장 알뗑떼루즈

국제아랍로조 서기장 불데아

아덴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성원들의 《김일성동지 로작연구위원회》

조선인민과의련대성칠레위원회 위원장 훌리오 베니떼스 까스뗄요, 부위원장 오르란드 밀야스, 까를로스 모랄레스 아바르수아, 까를로스 완베르 또보르, 빨레스 뻬뜨로 미센나

상부볼따제인민간의 친선협회 위원장 다우다 디알로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자총련맹

민주예멘조선친선위원회 위원장 아브돌 라자크 샤프 샤헤르

알제리에 있는 브라질투쟁단체대표부 성원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브라질인민혁명전위대를 대표하여 라디슬라스 도보르

신사무역상사(싱가포르)

짐바브웨해방전선 책임대표를 대신하여 이. 에. 파시파노디야

《김일성주석로작애독회》 회원일동을 대표하여 《고후꾸마루》 선장 이즈미 시게요시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안헬 까스뜨로 라바레요, 서기장 헤나로 까르네로 체까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로스텐 브란스트롬

단마르크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크리스텐 압비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국제상업일군직업련맹 서기국을 대표하여 서기장 아담 게르며 니잔

파키스탄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전아프리카로조련맹 부총비서 마마두 운디 아이에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보피안네네, 클라우스란게, 끼스프요론헨센(꾀벤하븐)

아랍법률가동맹 서기장 샤피크 아르쉬다트

네팔주간지 《마뜨리푸미》 책임주필 고빈 다비요지

《김일성동지로작번역및출판위원회》 위원장 아브돌 하미드 나쎄르(바이루트)

라호르시법률가협회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운동 총서기 뻰또 다꼬라

일본 도꾜무역회사 사무원 및 《도꼬마루》호 선원을 대표하여 사장 다까에가즈오

핀란드조선협회 서기장 크리스티나 노르드 그렌 라

칠레북부종합대학 대표 우고 모레노헤랄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아프리카인소조》 성원일동

멜리로동자련맹 총서기장 란베르 깨이뿌리

김일성동지로작연구를 위한 진보적인 청년위원회를 대표하여 존슨 오모로쇼

네팔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프렘 바하두르 칸사카르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장 페류에굽 마우세스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이라크지부

핀란드조선협회 투루꾸지부 위원장 안니 리사 요끼넨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파키스탄련대성위원회》

동남아세아에 있는 《김일성주석로작연구위원회》 성원일동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네팔일간신문 《코머너》 주필 고팔다스 스레스타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위원회》,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위원장 무샤히드 후쎄인 싸이드, 서기장 모사데크 아하드 샤흐

《다이니찌마루》 승무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구지미네 하루

청진항을 방문한 기회에 일본 도꾜 《다이이찌붓산주식회사》 사장 야마구찌 가즈오

일본 싱와해운주식회사소속 《조산마루》 선원을 대표하여 선장 하스니까 마사시게

싱가포르 코스모스선박회사소속 《유니버셜》호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주대표 호킨쉰

도미니까공산당 청년부를 대표하여 세계민주청년련맹서기 이그나씨오 메히야

인도 네르나 거르구역 인민복리협회 총서기장 아르. 피. 에스. 라쏘레

인도 《세계협조및문화관계련맹》 위원장 디. 피. 마해쉬와리

미국에 있는 조선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로광욱

미국 뉴욕에 있는 고병철

미국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 소장 김동중

미국에 있는 전유엔주재 남조선대사 림창영

미국에 있는 신문 《공개편지》발행인 주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네돐을 축하하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동지에게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주석 모택동,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대리 동필무,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주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엘. 브레쥬네브,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엔.뽀드고르느이, 쏘련 내각총리 아. 꼬씌긴

웰남민주공화국 주석 손덕승, 웰남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려순, 웰남민주공화국인민회의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정,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총리 범문동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에리히 호네케르,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위원장 발테르 울브리히트,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내각총리 윌리 슈토프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내각총리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 루드위크 스워보다,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정부총리 루보미르 슈뜨로우갈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 법률가 원우수,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주석 황면팔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 뽈스까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헨리끄 야브원스끼, 뽈스까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뾰뜨르 야로쉐비치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상무위원회 위원장 로숀찌 빨, 웽그리아로농혁명정부 총리 포크 예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꾸바공화국혁명정부 총리 소좌 피델 까스뜨로 루쓰, 꾸바공화국 대통령 박사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몽골인민공화국 내각총리 유. 쩨덴발, 몽골인민공화국 대인민후랄 상임위원회 제1부위원장 쓰. 듐싼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또도르 찝꼬브,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내각총리 쓰딴꼬 또도로브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캄보쟈국가원수,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소장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 친왕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혁명리사회 의장,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 후아리 부메디엔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

애급아랍공화국 대통령 안워르 앗 사다트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

꽁고인민공화국 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 소좌

칠레공화국 대통령 쌀바도르 알엔데 고싼스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흐메드 세쿠 투레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통령 줄피카르 알리 부토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수하르또 대장

인도공화국 총리 인디라 간디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미쉘 미촘베로 대좌

까메룬련합공화국 대통령 엘하지 아호마드 아히죠

싱가포르공화국 대통령 벤쟈민 헨리 새어즈 박사

이라크공화국 대통령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

예멘아랍공화국 공화리사회 위원장 아브둘 라흐만 알이리야니

말리공화국 국가수반, 정부총리, 민족해방군사위원회 위원장 무싸 뜨라오레 대좌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

말따국가 총독 안토니 죠세프 마모

리비아혁명리사회 의장 대좌 모하메드 엘 가다피

쿠웨이트국가 추장 사바흐 알 살렘 사바흐

스리랑카공화국 총리 시리마 아르. 디. 반다라나이케.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이브라힘 나시르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리 알리 나쎄르 무함마드

칠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루이스 꼬르발란

희랍공산당 중앙위원회

레바논사회진보당 위원장 카말 쥼블라트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중앙지도부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정치조직 중앙위원회 총비서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 아밀카르 카브랄

까나리아섬자결독립운동 총비서 안또니오 꾸빌로

오만및아랍만해방인민전선 중앙사령

부 중앙집행위원회

수리아아랍공화국 내각총리 아브델 라호만 클레파위

앙골라인민해방운동지도위원회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운동 총서기 벤또 다코라

《훌리안그리마우》명칭에스빠냐소조 비서인 에스빠냐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호쎄 엠 곤쌀레쓰 헤레쓰

브라질인민혁명전위대

아세아아프리카경제협조기구 서기장 아민. 에이. 이와달라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모리따니인민당 전국정치국 성원이며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바알라 싼느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바그다드지부

이딸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세계평화리사회 서기국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자총련맹 서기장 아브둘 라자크 사이프

예멘조선친선위원회 위원장 아브둘 라자크 샤프샤헤르

일본 미라이샤출판사 사장 니시다니 요시오와 사원일동

예멘학생전국총동맹 집행위원회

오지리학생문서관 서기장 교수 박사 하 슈라이네르

알제리에 있는 브라질투쟁단체대표부성원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핀란드 땀뻬레종합대학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 위원장 까리바따 포히아, 서기장 리뜨바리나 하이밀라

이라크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김일성동지로작연구위원회》

네팔조선친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출판편집부》 주필 겸 네팔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마니크랄 쉬레스타

《김일성동지로작번역및출판위원회》 위원장 아브둘 하미드 나쎄르

버마련방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 녀성소조》 성원일동

아덴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성원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위원회》

버마조선친선협회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성원일동

세계평화리사회 서기국

아프리카의 해방을 위한 아자니아범아프리카대회 책임대표 엠. 케. 은룰라

남아프리카 아프리카민족대회 대표 새켄 문툰그와

전아프리카로조련맹 부총비서 아마두 은디 아이에

꾸바공화국 수도 아바나에 있는 《보천보도서관》 관장 에두아르도 오도노싸

말리도자기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대표하여 지배인 라바쎄 케이라

《에스빠냐 레뿌블리까나》지 사장 마누엘 까르네로 우뇨쓰

네팔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프렘 바하두르 칸사카르

꾸바에스빠냐친선협회 위원장 뻬드로 아며엔싸

네팔민족판챠야트 위원 랄리뜨 챤드

페샤와드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알리 후쎄인 카질바쉬

파키스탄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카라치위원회 서기장 압크들 말리크

말리공화국 최고재판소 총검사 알리우 뎀

핀란드조선협회 서기장 크리스티나 노르드 그렌 라

꾸바아랍문학협회 위원장 꾸바에 있는 아랍사회민족련맹 위원장 니끌라스 꼬시오

파키스탄 《타미르》 신문사 사장 나씸 휴마윤

이라크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싸아둔 할리파 알 티크리티

말리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말리조선친선협회

아랍기자동맹 부위원장 《알욤》신문사 주필 워피크 티이비, 《루스트르》잡지사 사장 알리 발루트

버마조선친선협회주체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네돐경축모임 참가자일동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꾸바조직위원회 위원장 멜바 에르난데스

네팔기자협회서기장이며 일간신문 《싸마지》 주필 나라얀 샤르마하주렐

인도 《남조선청년학생들과의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겸 《조선통일》지 주필 라빈데르 한다

네팔 주간신문 《아르관》 주필 교수 마주라트나 싸끼야

라왈핀디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에이. 라힘

우루과이조선문화협회 서기장 오스까르 까브레라

《알발라트》잡지사 편집부성원일동을 대표하여 주필 갓싼 슈다리

수리아아랍지역 아랍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아브둘라 알 아흐마드

아랍해방전선 이라크지부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 위원장 페르에큼 마우세스, 서기 카를 지구드 문드센

네팔사회활동가 땅까쁘라싸드 아챠리아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김성애동지에게

이라크녀성동맹 위원장 뉴와르 훌미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인도공산당(맑스주의)중앙위원회 총비서 피. 순다라야

도미니까공산당 중앙위원회

레바논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창건 스물일곱돐을 축하하여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미쉘 미홈베로

시에라 레온인민당 총비서, 재정부장,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 명예위원장 씨. 에이. 카마라—테일러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 전국집행비서 제이. 에이. 음하빌레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 위원장 페르에큼 마우세스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흐메드 세쿠 투레

모리따니인민당 총비서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팔레스티나해방인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팔레스티나혁명군 총사령관 야씨르 아라파트

모잠비끄해방전선 위원장 사모라 모이세스 마셀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 아밀카르 카브랄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트루그베 게스틀란드

꽁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꽁고인민공화국 대통령 국가수반 마리엔 느구아비소좌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족전선 정치조직 중앙위원회 총비서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

오만및아랍만해방인민전선 중앙사령부 중앙집행위원회

메히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아르놀도 마르떠네스 베르두고

칠레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까를로스 알따미라노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 바그다드지부대표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칠레인민통일행동운동 총비서 대리 부총비서 엔리케 꼬레아 리오스

에스빠냐공산당 중앙위원회 이름으로 총비서 싼띠아고 까릴요

뿌에르또 리꼬사회당 국제비서 뻬드로 바이레차벨

뿌에르또 리꼬사회당 중앙위원회 위원 미겔 까브레라

가이아나인민진보당 총비서 체디 쟈

간

짐바브웨해방전선 책임대표 제드엠 까마냐

적도기네공화국 리오무니주녀성조직 위원회

탄가니카근로자전국동맹 부총서기 씨. 룬카리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앞으로 온 축전

아랍사회부흥당 민족지도부

수리아공산당 총비서 할레드 바그다쉬

화란공산당 중앙위원회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 민족지도부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책임대표 새켄 문룬그와

이딸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안또니오 로아지오

아프리카에서 살고있는 산토메 프린시페 애국자들로 조직된 《김일성동지 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일동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장 슈레까날, 부위원장 미쉘 제노, 총서기 크리스티안 좌노

이라크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박사 싸아둔 할리파 티크리티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아프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및로작연구소조》 위원장 드홀리와요 생웨메

우루과이조선문화협회 서기장 오스까르 까브레라

칠레북부종합대학 대표 우고 모레노 베탈타

감사 전문 및 감사 편지

1월 10일 모잠비끄해방전선 위원장 사모라 모이세스 마셸이 우리 나라 방문기간 받은 환대에 사의를 표시하여 감사전문

1월 14일 1972년에 즈음하여 《요미우리신붕》이 수령님의 접견기사를 게재할수 있게된데 대하여 《요미우리신붕》사 사장 무다이 미쯔오로부터 감사전문

1월 15일 3대륙인민들의 련대성주간에 즈음하여 친선모임에 참가한 수리아에 있는 학생동맹대표들로부터 감사전문

2월 10일 월남류학생기숙사를 찾아주시고 교시를 주신 다섯돐기념모임에 참가한 월남류학생일동으로부터 감사편지

3월 17일 세계민주청년련맹뷰로로부터 수령님께서 일본 《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전문

4월 23일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 탄생 여든돐에 즈음하여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으로부터 친서

6월 1일 우리 나라와 칠레공화국사이에 외교관계가 설정된것과 관련하여 칠레공화국 대통령 쌀바도르 알옌데 고쌘스로부터,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 위원장이며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축전

6월 8일 우리 나라와 칠레공화국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된것과 관련하여 칠레공산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축전

8월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하신 8월 6일연설 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 아세아아프리카인민들파의 련대성칠레위원회로부터 전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8월 6일 연설 한돐에 즈음하여 버마에서 기념모임을 가지고 그이께 축하편지

8월 14일 조선인민이 일제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 8.15명절 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엘. 브레쥬네브, 쏘련최고쏘베르상임위원회 위원장 엔. 뽀드고르느이, 쏘련내각총리 아. 꼬씌긴으로부터 축전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위원장앞으로도)

8월 19일 우리 나라 방문을 마치고 국경을 통과하면서 뽀르뚜갈령 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 아밀카르 카브랄로부터 감사전문

8월 29일 남북적십자단체들의 본회담 제1차회의성파를 축하하여 버마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인도평화옹호법률가협회 서기장,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칠레위원회,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아세아아프리카인민들파의 련대성칠레위원회로부터 축전

9월 15일 반미세계기자대회에서 하신 연설 세돐에 즈음하여 국제기자동맹서기국 이쥐 꾸브까로부터 축전

9월 21일 세계반미기자대회에서 하신 연설파 평양선언발표 세돐에 즈음하여 뻬루기자련맹 위원장 헤나로 까르네로 체까로부터 축전

9월 30일 잠비아공화국 부대통령 마인자 마디아스 쵸나로부터 자기 나라 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시 모든 조건과 편의를 도모해준데 대하여 감사전문

10월 13일 일본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 야스에 료스께로부터 그가 우리 나라 방문시 받은 환대에 대하여 감사전문

10월 14일 남북조절위원회 회의가 진행된데 대하여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호메드 세쿠 투레로부터 축전

10월 19일 누악쇼트시에 있는 《김일성주석혁명력사연구소조》 성원일동을 대표하여 책임자 완 아브룰 아지즈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로작에서 귀중한 재부를 안겨준데 대하여 감사편지

10월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우리 당의 주체사상파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세계 모든 인민들의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고귀한 론문이라고 하면서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바 알라싼느로부터 감사전문

10월 22일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 뻬루기자련맹 위원장 헤나로 까르네로 체까가 우리 나라 방문시 극진한 환대를 받은데 대하여 감사전문

10월 27일 일본사회당부인활동가대표단 단장 다나까 스미꼬가 우리 나라 방문시 세심한 배려를 받은데 대하여 감사전문

10월 28일 상부볼따공화국 대통령 상구레 라미자나로부터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설정한것과 관련하여 축전

11월 1일 말리에서 공부하고있는 서아프리카 류학생들로 조직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소조》 성원일동으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우리 당의 주체사상파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가지고 존경과 흠모의 편지

11월 2일 말리청년및체육지도일군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흠모의 편지

11월 3일 핀란드조선협회 뚜루꾸지부 위원장 안나 리사 요끼넨으로부터 뚜루꾸땅에서 우리 나라 영화상영주간이 개막된데 대하여 감사편지

11월 6일 말리에서 공부하고있는 아프리카류학생일동이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일본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을 주의깊게 연구하고 맑스-레닌주의철학사상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하신데 대하여 그이께 축하와 인사의 편지

11월 9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총리인 펜 누트로부터 자기들을 극진히 환대해준데 대하여 감사전문

11월 12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상업부장 야이아 취야께르로부터 자기들을 따뜻이 환대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전문

11월 29일 알제리에 있는 브라질투쟁단체대표부 성원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연구토론하고 감사전문

12월 5일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우리 나라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받은데 대하여 우리 나라 국경을 넘어서면서 감사전문

12월 22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기네공화국 정부총리 란사나 베아보기가 떠나면서 수령님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축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축전을 보내신 세계 각국 당 및 국가 지도자들

1월 5일 라오스애국전선창건열여섯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에게 축전

1월 8일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호메드 세쿠 투레 탄생 쉰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축전

1월 9일 챠드공화국 독립기념일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프랑수와 똠발바예에게 축전

1월 18일 라오스애국군대와 인민들이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혁혁한 전과를 축하하여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친왕에게 축전

1월 24일 인도공화국창건 스물두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총리 인디라 간디에게 축전

2월 2일 스리 랑카독립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총리 시리마 아르. 디. 반다라나이케에게 축전

2월 5일 네팔왕국 비렌드라 비르 비크람샤호 데바에게 그가 왕위를 계승한데 대하여 그에게 축전

3월 2일 마로끄국경절에 즈음하여 이 나라 국왕 물라이 하싼 2세에게 축전

3월 4일 가나독립열다섯돐에 즈음하여 가나공화국구국리사회 위원장 아이. 케이. 아챰퐁에게 축전

3월 6일 우리 나라와 까메룬련합공화국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된데 대하여 까메룬련합공화국 대통령 엘하지 아호마드 아히죠에게 축전

3월 11일 모리셔스독립네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총리 시우사구르 람굴람에게 축전

3월 13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이 재선된데 대하여 그에게 축전

3월 19일 뜌니지공화국독립열여섯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에게 축전

3월 20일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를 결성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서한을 보내온데 대하여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 위원장 페르에굼 마우세스에게 답전

3월 21일 파키스탄의 날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줄피카르 알리 부토에게 축전

3월 22일 캄보쟈민족통일전선결성과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창건 두돐에 즈음하여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에게 축전

3월 31일 뽈스까인민공화국 내각총리로 뽀뜨르 야로쉐비치가 다시 임명된데 대하여 그에게 축전

4월 3일 웽그리아해방 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상무위원회 위원장 로손찌 빨, 웽그리아로농혁명정부 총리 포크 예네에게 축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명의로) ▶ 세네갈독립 열두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에게 축전

4월 6일 웰남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려순동지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축전

4월 25일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두돐에 즈음하여 웰남민주공화국,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캄보쟈왕국, 라오스애국전선 지도자들에게 각각 축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명의로) ▶ 탄자니아련합공화국창건 여덟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예레레에게 축전

4월 28일 우리 나라와 루안다공화국사이에 외교관계가 설정된것과 관련하여 이 나라 대통령 그레고와르 까이방다에게 축전

5월 1일 아호메드 세쿠 투레가 기네민주당 제9차대회에서 총비서로 재선된데 대하여 그에게 축전

5월 5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수립 두돐에 즈음하여 캄보쟈 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총리 뻰 누트에게 축전

5월 6일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반정부음모를 용감히 짓부셔버린 부룬디인민의 성과를 축하하여 이 나라 대통령 미쉘 미촘베로에게 축전

5월 8일 체스꼬슬로벤스꼬해방 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 대통령 루드위크 스워보다, 정부총리 루보미르 슈뜨로우갈에게 축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명의로)

5월 12일 다오메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으로 쥐스땡 토메랭 아호마데그배가 취임한데 대하여 그에게 축전

5월 14일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주간》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장 야씨르 아라파트에게 축전

5월 24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의 탄생 여든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축전

5월 26일 아프가니스탄독립절에 즈음하여 이나라 국왕 모함메드 자히르 샤흐에게 축전 ▶ 쎄일론이 스리랑카공화국으로 선포되고 이 나라 총리로 시리마 아르. 디. 반다라나이케가 계속 사업하게 된데 대하여 그에게 축전

5월 27일 이딸리아공산당 총비서 엔리꼬 베를링게르동지탄생 쉰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축전

6월 5일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수립 세돐에 즈음하여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 원우수, 정부 주석 휜면팔에게 축전

6월 9일 수리아정부가 제국주의 석유독점체들의 소유를 국유화한데 대해서 이 나라 대통령하페즈 알 아싸드에게, 이라크정부가 제국주의독점체인 《이라크석유회사》를 국유화한데 대하여 이 나라 대통령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에게 각각 축전

6월 10일 제9차아프리카통일기구 국가및정부 수뇌자회의에 축전

6월 21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정조치 세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에게 축전

6월 29일 소말리아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에게 축전

6월 30일 부룬디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미쉘 미촘베로에게

축전

7월 3일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구라파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방문성과에 대하여 그에게 축전

7월 4일 알제리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에게 축전

7월 10일 몽골인민혁명 쉰한돐에 즈음하여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내각총리 유.쩨덴발, 대인민후랄 상임위원회 제1부위원장 쓰.룹싼에게 축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명의로)

7월 16일 이라크의 7월 17일혁명 네돐에 즈음하여 이나라 대통령 아호마드 하싼 알 바크르에게 축전

7월 21일 뽈스까재생 스물여덟돐에 즈음하여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 국가쏘베트위원장 헨리끄 야브원스끼, 내각총리 뾰뜨르 야로쉐비치에게 축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명의로) ▶ 애급아랍공화국 국경절 7월 23일혁명 스무돐에 즈음하여 이나라 대통령 안워르 앗 사다트에게 축전

7월 25일 꾸바인민의 7월 26일 무장봉기 열아홉돐에 즈음하여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꾸바공화국 정부총리 피델 까스뜨로 루쓰, 꾸바공화국 대통령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에게 축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명의로) ▶ 말디브제도독립 일곱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이브라힘 나시르에게 축전 ▶리베리아 독립절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윌리암 리챠드 톨버트에게 축전

8월 2일 니제르독립 열두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디오리 아마니에게 축전

8월 11일 콩고인민의 8월혁명승리 아홉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에게 축전

8월 12일 파키스탄독립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줄피카르 알리 부토에게 축전

8월 14일 조선인민이 일제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 8.15명절 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엘. 브레쥬네브,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엔. 뽀드고르느이, 내각총리 아. 꼬씨긴에게 축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명의로)

8월 22일 로므니아해방 스물여덟돐에 즈음하여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내각총리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에게 축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명의로)

8월 24일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에리히 호네케르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축전

8월 31일 리비아혁명 세돐에 즈음하여 리비아혁명지도리사회 의장 모아메르 엘 가다피에게 축전

9월 1일 웰남민주공화국창건 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웰남민주공화국 주석 손덕승, 웰남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려순,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장정, 정부총리 범문동에게 축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명의로)

9월 5일 중부및동부아프리카 국가및 정부수뇌자회의에 축전

9월 7일 말따국경절에 즈음하여 말따국가총리 도미니크 민토프에게 축전 ▶ 몬까다병영습격 열아홉돐에 즈음하여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꾸바공화국혁명정부 총리 피델 까스뜨로 루쓰, 꾸바공화국 대통령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에게 축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명의로)

9월 8일 벌가리아사회주의혁명 스물여덟돐에 즈음하여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또도르 쥡꼬브, 내각총리 쓰만꼬 또도로브에게 축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명의로)

9월 11일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축전

9월 17일 칠레공화국독립절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쌀바도르 알옌데 고싼스에게 축전

9월 21일 말리공화국선포 열두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국가수반이며 정부총리 무싸 뜨라오레에게 축전

9월 22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내각총리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동지의 탄생 일흔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축전

9월 24일 싱가포르총리로 재선된 리관유에게 축전 ▶ 예멘아랍공화국 혁명승리 열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공화리사회 위원장 아브둘 라호만 알 이리야니, 정부총리 모호쎈 알아이니에게 축전

9월 29일 까메룬 통일의 날 열한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엘하지 아호마드 아히죠에게 축전 ▶ 나이제리아독립 열두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련방군사정부수반 군총사령관 야쿠브 고원에게 축전

9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을 축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모택동,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대리 동필무,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주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에게 축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명의로) ▶ 끼쁘로스독립 열두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마카리오스에게 축전 ▶ 기네공화국독립 열네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아호메드 세쿠 투레에게 축전

10월 6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에리히 호네케르,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발테르 울브리히트, 내각총리 윌리 슈토프에게 축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의 공동명의로)

10월 7일 우간다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이디 아민 다다에게 축전

10월 10일 적도기네공화국독립 네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에게 축전

10월 11일 라오스독립 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친왕에게 축전

10월 13일 예멘인민의 10월 14일무장혁명개시 아홉돐에 즈음하여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총리 알리 나쎄르 무함마드에게 축전

10월 18일 말가슈공화국 대통령으로 가브리엘 라마난트소아가 선거된데 대하여 그에게 축전

10월 19일 소말리아의 10월 21일혁명승리 세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에게 축전

10월 23일 잠비아공화국창건 열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에게 축전

10월 25일 우리 나라와 상부볼따공화국 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된것과 관련하여 상부볼따공화국 대통령 상구레 라미자나에게 축전

10월 29일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탄생 쉰돐을 축하하여 그에게 축전

10월 31일 알제리혁명개시 열여덟돐에 즈음하여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 후아리 부메디엔에게 축전

11월 2일 칠레공화국인민통일정부수립 두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쌀바도르 알옌데 고싼스에게 축전

11월 6일 사회주의 10월혁명 쉰다섯돐에 즈음하여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엘.브레쥬네브,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엔. 뽀드고르느이, 쏘련 내각총리 아. 꼬씌긴에게 축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의 공동명의로)

11월 8일 캄보쟈왕국독립 열아홉돐에 즈음하여 캄보쟈국가원수,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에게 축전

11월 10일 우리 나라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된것과 관련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통령 줄피카르 알리 부토에게 축전

11월 14일 수리아공산당 총비서 할레드 바그다쉬동지의 탄생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축전

11월 15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예멘아랍공화국 사이에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협정이 체결된것을 축하하여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에게, 예멘아랍공화국 공화리사회 위원장 아브둘 라흐만 알 이리야니에게 각각 축전

11월 27일 알바니아해방 스물여섯돐과 알바니아독립선포 예순돐에 즈음하여 알바니아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엔베르 호쟈, 알바니아인민공화국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하지 레쉬, 내각총리 메흐메트 쉐후에게 축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명의로) ▶ 모리따니회교공화국독립 열두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에게 축전 ▶ 부룬디혁명기념일 여섯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미쉘 미촘베로에게 축전

11월 28일 유고슬라비아인민의 민족적명절인공화국의 날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에게 축전

11월 29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독립 다섯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에게 축전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이나라 대통령 쟝 베델 보카싸에게 축전

12월 1일 아랍추장국련방독립 한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에게 축전

12월 9일 상부볼따공화국선포 열네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상구레 라미자나에게 축전

12월 11일 케니아독립 및 공화국선포일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죠모 케니아타에게 축전

12월 15일 바레인국경절에 즈음하여 바레인국가 추장 이사 빈술만 알 할리파에게 축전

12월 19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창건 열두돐에 즈음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며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 웬우수에게 축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명의로)

12월 20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형성 쉰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당 및 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명의로)

12월 21일 프랑스공산당 20차대회에서 죠르즈 마르쉐동지가 총비서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

12월 22일 포드사이드 《승리의 날》 열여섯돐에 즈음하여 애급아랍공화국 대통령 안워르 앗 사다트에게 축전

12월 25일 창립 열다섯돐을 맞는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에 축전

12월 29일 로므니아인민공화국선포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정무원총리와 공동명의로)

12월 30일 꾸바혁명승리 열네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정무원총리와 공동명의로) ▶ 꽁고로동당창건과 꽁고인민공화국선포 세돐에 즈음하여 꽁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며 꽁고인민공화국 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소좌에게, 수단독립 열일곱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에게, 까메룬독립 열세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엘하지 아흐마드 아히죠에게 각각 축전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들

나라 이름	외교관계를 맺은 날자	나라 이름	외교관계를 맺은 날자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1948. 10. 12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1958. 9. 25
몽골인민공화국	1948. 10. 15	기네공화국	1958. 10. 8
뽈스까인민공화국	1948. 10. 16	꾸바공화국	1960. 8. 29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1948. 10. 21	말리공화국	1960. 10. 31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1948. 10. 30	예멘아랍공화국	1963. 3. 9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1948. 11. 3	애급아랍공화국	1963. 8. 24
웽그리아인민공화국	1948. 11. 11	인도네시아공화국	1964. 4. 16
벌가리아인민공화국	1948. 11. 29	모리따니회교공화국	1964. 11. 12
알바니아인민공화국	1949. 5. 17	캄보쟈왕국	1964. 12. 20
중화인민공화국	1949. 10. 6	꽁고인민공화국	1964. 12. 24
독일민주주의공화국	1949. 11. 7	가나공화국	1964. 12. 28
웰남민주공화국	1950. 1. 31	탄자니아련합공화국	1965. 1. 13

나라 이름	외교관계를 맺은 날자	나라이름	외교관계를 맺은 날자
팔레스티나해방조직	1966. 4. 13	우간다공화국	1972. 8. 2
수리아아랍공화국	1966. 7. 25	세네갈공화국	1972. 9. 8
부룬디공화국	1967. 3. 11	상부볼따공화국	1972. 10. 11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1967. 4. 12	파키스탄회교공화국	1972. 11. 9
이라크공화국	1968. 1. 30	말가슈공화국	1972. 11. 16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68. 2. 7	자이르공화국	1972. 12. 15
적도기네공화국	1969. 1. 30	토고공화국	1973. 1. 31
잠비아공화국	1969. 4. 12	다오메공화국	1973. 2. 5
챠드공화국	1969. 5. 8	감비아공화국	1973. 3. 2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1969. 6. 12	모리셔스공화국	1973. 3. 16
수단민주주의공화국	1969. 6. 21	스웨리예왕국	1973. 4. 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969. 9. 5	이란제국	1973. 4. 15
말디브제도공화국	1970. 6. 14	아르헨띠나공화국	1973. 6. 1
스리 랑카공화국	1970. 7. 15	핀란드공화국	1973. 6. 1
시에라 레온공화국	1971. 10. 14	노르웨이왕국	1973. 6. 22
말따국가	1971. 12. 20	말레이시아련방	1973. 6. 30
까메룬련합공화국	1972. 3. 3	단마르크왕국	1973. 7. 17
루안다공화국	1972. 4. 22	이슬란드공화국	1973. 7. 27
칠레공화국	1972. 6. 1		

우리 나라와 령사관계를 맺은 나라들

나라 이름	령사관계를 맺은 날자	나라 이름	령사관계를 맺은 날자
버마련방	1961. 5. 15	네팔왕국	1969. 7. 10
인도공화국	1962. 3. 1	싱가포르공화국	1969. 11. 28

사회주의 경제건설

사회주의경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보고와 1972년 신년사, 당중앙위원회 제5기 4차, 5차 전원회의들에서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는 투쟁에서 우리 인민들은 이해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과 그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높이 모신 영광과 기쁨을 안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높임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났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창설하시고 키워오신 기계제작공업, 비날론섬유공업, 염화비닐공업부문에서는 6개년계획말의 생산수준을 2년동안에 돌파하였으며 1천 600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6개년계획의 3년분과제를 넘쳐 끝냈으며 수많은 산업건설대상들이 완성되여 조업하였다.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위력을 과시하는 이 모든 자랑찬 성과는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의 결과이다.

이것은 또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의 혁명적기백과 창조적로력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열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국내외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투쟁방향과 투쟁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천리마회천공작기계공장, 기양뜨락또르공장, 9월방직공장들을 비롯한 각지 공장, 기업소들과 강원도와 량강도, 평북도와 황남도를 비롯한 여러도들을 찾으시고 로동자, 농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시면서 새로운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무엇보다먼저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1972년 《신년사》, 단행본, 9페지)

각지 기계전사들은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계제작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자기들의 의무를 옳게 자각하고 그이께서 몸소 회천땅에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6개년계획말의 생산수준을 돌파하였다.

그중에서 일반기계총국산하 로동계급들은 생산공정을 적극 자동화, 반자동화하여 이해 11개월동안에 1971년 같은시기에 비하여 공업총생산액을 134.4%, 공작기계는 123.6%, 뜨락또르는 165.6%, 자동차는 163.9%로 장성시켰다.

또한 수백종에 달하는 자동화요소와 계기기구를 생산하는 60개의 자동화계기기구분공장과 8개의 소재분공장들을 조업시킴으로써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천리마룡성기계공장과 5월10일공장 등 대상설비들을 맡은 기계전사들은 보통때 같으면 3~4개월 걸려야 할 비날론, 염화비닐 대상설비들을 단 1개월 남짓한 사이에 생산하여 그 능력들을 급격히 높이였다.

그리하여 화학전사들은 이해에 11개월동안에 1971년 같은 시기에 비하여 염화비닐은 1.4배, 비날론은 1.3배, 스프는 1.2배로 그 생산량을 올리였는데 그중 비날론화학섬유와 염화비닐공업은 벌써 6개년계획말의 생산수준을 돌파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앞에 나선 다른 중요한 과업은 농업생산의 기계화, 화학화수준을 높이며 분수식 관수를 널리 실시하여 대풍작의 공고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는것이였다.

우선 여러 도에 뜨락또르수리기지와 부속품생산기지, 련결농기계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농업생산의 종합적기계화를 힘차게 다그쳤다.

또한 이미 마련하여놓은 분수식관수체계를 잘 리용하는 한편 평양시, 황북도, 함남도에 새로운 분수식관수면적을 더 늘여 2모작을 널리 실시하였다.

특히 이해에 해주린비료공장의 파린산석회비료생산계통과 여러곳의 여덟가지 미량원소비료생산계통, 새로운 살초제생산계통들을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전면적화학화를 빨리 추진하였다.

종합적기계화와 전면적화학화를 비교적 빨리 실현하고있는 문덕군내 협동농장들에서는 이해처럼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1만 6천정보의 포전에서 평균 6.2톤씩을, 연안군에서는 1만톤을, 배천군에서는 7천톤의 알곡을 더 증수하였다.

이해에 방직, 피복, 편직, 신발, 종이, 일용품공업을 비롯한 인민소비품과 축산, 가금, 수산, 남새, 과수업을 비롯한 식료품원료생산분야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전반적생활수준을 훨씬 높일 과업이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무엇보다먼저 철제일용품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린 결과 전기기계총국의 전기가마생산량이 5.7배로 늘어난것을 비롯하여 가정용랭동고, 세탁기 등의 현대적부엌세간생산이 장성되였다.

또한 방직공장, 옷공장, 편직물공장들을 새로 더 건설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조선옷생산량은 10배, 와이샤쯔는 1.9배, 겉옷편직물은 3.5배로 높이였으며 나라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에게 고급솜옷을 해입히였다.

축산업, 가금업, 수산업, 남새업을 현대화, 공업화하여 돼지고기생산량은 1971년에 비하여 127.5%, 닭, 오리고기는 110.4%, 닭, 오리알은 109.2%, 젖은 109.8%, 봄남새는 137.2%로 높인 동시에 부식물가공을 공업화하여 고기가공품과 물고기가공품의 품종과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이였다.

텔레비죤화, 농촌의 뻐스화, 농촌수도화를 힘차게 다그쳐 텔레비죤포괄구역을 전국의 85%, 농촌뻐스화를 전국 농촌리의 62% 실현하였으며 농촌수도화는 1971년에 비하여 3배이상 다그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현저히 줄이였다.

우리 근로자들이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힘든 로동과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내놓은 3대기술혁명은 첫째로 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는것이며, 둘째로 농촌기술혁명을 계속 다그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는것이며, 셋째로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6~1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근로자들을 련이어 힘든 로동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킬데대한 기술혁명의 총적방향과 내용, 수행방도들을 력사상 처음으로 밝혀주신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적기술혁명의 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대기술혁명수행의 력사적인 지름길을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근로자들을 생산분야의 힘든 로동과 생활분야의 무거운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신 후 곧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 력사의 지름길을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은 3대기술혁명수행의 중심고리를 공작기계생산에서 찾고 6개년계획의 첫해전투에서 공작기계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였습니다.》(1972년 《신년사》, 단행본, 1페지)

사실상 여러가지 기계를 만드는 공작기계들은 기계공업발전의 기본로대로서 6개년계획기간에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는데서뿐만아니라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3대기술혁명과업을 추진하는데서도 커다란 역할을 놀아야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공작기계들이 놀아야 할 중요성을 천재적으로 헤아리시고 이미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여 기술혁명을 전면적으로 다그치던 7개년계획시기부터 3대기술혁명수행의 력사적인 지름길을 몸소 닦아 오시였다.

1963년 5월 7일 희천과 구성의 공작기계공장지도일군들을 만나시고 지금은 기계화가 중심과업이지만 멀지않아 자동화가 중심과업으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자동공작기계들을 많이 만들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로동계급들은 새로 자동화직장인 5.7직장을 꾸리고 자체의 힘으로 유압모사자동선반과 유압모사후라이스를 만들었으며 유압모사자동선반을 중심으로하여 대담하게 축가공자동선을 형성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4년 4월 23일 다시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종전에 4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하면서도 15배의 능률을 내고있는 축가공자동선을 보시면서 부문자동화로부터 완전자동화에로 넘어갈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희천의 로동계급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가슴뜨겁게 받아안고 베트가공자동흐름선과 변속함가공자동흐름선을 만들어 완전자동화에서 제일 어려웠던 중형물가공의 고리를 풀어놓았으며 공작기계생산의 방대한 중산예비를 조성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1년 2월 20일에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을 찾으시고 손수 닦아오신 력사의 지름길에 희천의 로동계급들을 손잡아들어세우시면서 전국의 기계전사들을 3만대의 공작기계생산에로 힘차게 부르시였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들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경사인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전으로 3만대의 공작기계고지를 점령하였으며 1972년에도 11개월동안의 공작기계생산량을 1971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126.3%로 높이였다.

또한 우리 나라 로동계급들은 전자관공장과 함께 전국에 60여개의 자동화계기기구분공장들과 8개의 소재분공장들을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의 토대를 튼튼히 닦았다.

1971년과 1972년에 쏟아져나온 공작기계들과 자동화계기기구들은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 직접 복무하는 각지 기계공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보충완비설비로, 새로 조직하는 기계공장들의 기본생산설비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무수리기지를 보강하는 설비로 공급되였다.

그리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키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 수단들이 대대적으로 생산되였으며 3대기술혁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빨리 없앤다.

우리는 7개년 계획기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 개전사업을 전면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근로자들의 어렵고 힘든 로동을 많이 덜어주었지만 아직도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가 남아있으며 녀성들이 가정적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먼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며 전반적인민경제부문들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시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4페지)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1972년에 우선 인민경제 어느 부문보다도 힘든 로동이 많은 탐사부문의 시추작업, 채굴부문의 갱내작업, 수산부문의 어로작업과 양식작업, 림업부문의 산판작업, 건설, 운수, 림업부문의 상하차작업을 기계화, 자동화하는데 힘을 넣었다.

무연탄전 갱내작업의 기계화, 유연탄전과 광산 갱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에서 본보기들이 만들어졌으며 산판작업의 나무모으기기계화는 강력히 추진되고있다.

림철, 역선, 전용선들에서의 짐을 싣고부리기와 어로작업의 그물추기와 고기푸기기계화는 전반적으로 완성단계에 들어섰으며 무연탄전 시추작업의 종합적기계화가 완성되였다. 전국적으로 양식작업의 곤포씨받이와 모내기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이후에 소집하신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역선과 전용선에서의 짐을 싣고부리는 일을 완전히 기계화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공작기계, 강재를 비롯한 많은 설비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주시였다.

철도부문과 전용선을 가진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는 1972년 단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400여대의 철도기중기, 자동차기중기, 그라브기중기들을 만들어 받아들임으로써 역선에서의 상하차작업의 기계화비중을 1971년에 비하여 3.7%, 전용선에서는 5.2%씩 각각 더 높이였다.

수산부문에서는 행동기지마다에 현대적인 양식탕크들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여름에 곤포씨를 받아 키움으로써 메당 곤포생산량을 첫해에 벌써 115%로 높이면서 력사적으로 추운 겨울(1월)의 바다우에서 곤포씨를 받아 모를 내던 고된 로동으로부터 전국의 양식공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였다.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1972년에 또한 생산공정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화학공업, 야금공업, 건재공업, 채굴공업부문에남아있게 되는 유해로동과 고열로동을 없애기 위하여 생산공정전반의 자동화와 원격조종에 주의를 돌리였다.

이해에 성진제강소의 련속조괴, 세멘트공업의 새로운 소성법의 도입, 본궁화학공장 농약생산계통의 자동화, 아오지화학공장 중탄산암모니아생산 및 상하차작업의 자동화, 강서화학공장 유기유리생산계통의 자동화를 실현하여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산에 저애를 주던 유해로동을 없앴다.

천내리, 고무산, 해주, 승호리 세멘트공장들에서는 새로운 소성법과 여러가지 장치들을 받아들여 소성로의 생산능력을 1.2~1.8배이상씩 높이면서도 유해로동을 무해로동으로 바꾸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또한 로동자, 기술자, 과학자들간의 협동을 강화하여 이미 연구한 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여 생산공정들을 반자동화, 자동화하였다. 철길운영의 자동화, 금속부문의 주물흐름선, 자주호기관본체 반자동흐름선, 송변전소운영의 원격조종, 고압선사고지점의 자동판정기는 이해에 실현한 자동화, 원격조종에서 산업적가치가 높은 몇가지 기술혁신이다.

9개 중요역에 실현한 철길운영의 자동화와 30여개 송변전소들에 받아들인 원격조종은 철길운영과 송변전조작의 신뢰성을 비상히 높이였을뿐만아니라 로동행정기구 체계에서 전철원을 비롯한 여러가지 직종들을 없애고 새로운 건설대상들에 로력을 보충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해에 창조된 기계화, 종합적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의 본보기들과 일반화단계의 성과들은 가까운 몇해동안에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유해로동과 고열로동을 빨리 없애는데서 커다란 밑천으로 된다.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농촌로력을 많이 절약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재적인 예지로 우리 농촌이 현대화될 앞날을 멀리 내다보시고 이미 평화시기에 100여명의 당원들을 파견하시여 재령, 룡천, 정주, 안주, 함주 등지에 첫 농기계임경소들을 조직운영해 보신 경험에 기초하시여 전후에 매개 시, 군마다에 농촌기술혁명의 거점들인 농기계작업소들을 꾸려주시였다.

또한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심으로써 앞으로 농업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농촌기술혁명을 강력히 밀고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그리고 뜨락또르공업과 자동차공업을 창설하시고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켜주시였으며 1961~1970년어간에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뜨락또르대수를 3.5배로, 자동차대수를 7배로 늘여주시였고 기계화작업종류를 11종으로부터 47종으로 확대시켜 주시였다.

특히 우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하루빨리 해방하고 그들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주시려고 농업생산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고 전면적으로 화학화할 방향과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몸소 강서군 청산리, 황주군 룡천리, 중화군 삼성리 등지에서 공산주의농법의 본보기들을 꾸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농업부문에서도 점차 8시간 로동제를 실시할수 있도록 기계화의 장비도와 화학화의 수준을 높이면서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여 가까운 앞날에 한사람이 논은 5~6정보, 밭은 8~10정보이상 다루게 할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또한 1971년 2월에 전국뜨락또르운전수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 투쟁에서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들이며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혁명가들인 뜨락또르운전수들앞에 나서는 전투적임무와 그들의 역할에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의 전망에 따라 각지 기계전사들과 건설자들은 풍년호, 천리마호, 전진호 뜨락또르공장들과 자주호, 승리호, 갱생호 자동차공장들, 여러가지 농기계공장들을 개건확장하면서 생산공정을 자동화, 반자동화하였다.

그리하여 뜨락또르생산은 1970년에

비하여 1971년에는 1.7배, 1971년에 비하여 1972년에는 또다시 1.7배로, 자동차생산은 1.6배로, 농기계생산도 많이 높아졌으며 련결농기계와 련결차생산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졌다.

또한 농촌경리위원회마다 대수리를 전문하는 뜨락또르, 자동차수리공장들을, 협동농장경영위원회마다 중수리를 하는 수리직장들을 건설하는 투쟁을 통하여 안악, 태탄, 숙천, 삼천, 청진에 수리공장들을, 평남도, 황남도, 황북도를 중심으로 1971년에 167개, 1972년에는 더많은 수리직장들을 꾸림으로써 자동차와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85%이상 높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닦았다.

전국의 뜨락또르운전수들과 농장원들은 이해에 종합적기계화와 전면적화학화의 선결조건인 토지정리와 다락밭만들기, 분수식발관개건설에 힘을 넣어 현대적규격포전과 분수식발관개면적을 많이 늘이였다.

농업생산의 종합적기계화는 농산업뿐만아니라 부문별로 모든 작업공정을 기계수단과 동력으로 전환시키는것만큼 축산업, 가금업, 과수업, 잠업작업을 집약화, 현대화하여야 한다.

축산부문에서는 평양, 사리원, 강서, 고산, 위연, 해주에 집약화수준이 높은 현대적돼지공장들을 건설하는 한편 이미 있는 목장들에 공업화된 33개동의 현대적 돼지, 젖소, 양 우리들을 지었다.

과수부문에서는 평지대과수원은 물론 경사지과수원의 종합적기계화, 전면적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6만리의 자동차길을 닦고 시약탕크와 물탕크를 건설하고 빨아올리는 물길과 빼는 물도랑들을 쳐서 물동운반과 농약뿌리기, 물주기를 모두 기계화하였다.

남새부문에서는 모든 밭에 분수식발관개를 건설한 동시에 온실면적을 2.4배로 늘었다.

그리하여 봄남새생산은 137.2%, 돼지고기는 127.5%, 닭, 오리알은 109.2%, 오리, 닭고기는 110.4%로 장성되였으며 정파률은 85%이상수준에 도달되였다.

우리 나라 녀성들은 가정과 부엌일의 로력부담에서 빨리 해방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6페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시켜 주시였을뿐만아니라 나라의 떳떳한 주인으로서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커다란 사회적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머니들은 해산하는 경우에 77일(쌍동이는 84일, 삼태자는 91일)간의 산전산후 유급휴가를 받고있으며 세아이 부터는 6시간 일하고도 8시간분의 로임을 받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커다란 배려를 받고있는 녀성들이 퇴근후 많은 시간을 가정일에 또한 바쳐야하는 2중적로력부담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들의 가정일의 부담을 덜어줌에 대한 기술혁명의 중요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녀성들을 가정일과 부엌일로부터 해방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부식물과 주식물 생산을 사회적으로 조직하여 현대화, 공업화함으로써 식료가공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것이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170여개의 고기, 물고기랭동고들을 건설하여 이미 시,군마다에 꾸려진 고기, 물고기가공공장들에서 순대, 고기만두, 통졸임, 장졸임, 위쌈 등의 고기가공품과 물고기떡, 튀기, 젓갈품, 알밥, 물고기가루등의 물고기가공품들을 정상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또한 평양장공장에 조미료가 들어간 여러가지 국거리를 생산하는 본보기를 꾸리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중요도시와 로동자구단위로 간장, 된장 생산을 공업화한것처럼 국거리생산도 공업화하고있다.

특히 주택구획과 부락마다에 있는 밥, 빵, 국수 공장들을 정비보충하면서 새로 평양시 선교종합식료공장에서 창조한 모범을 따라 200여개의 현대화된 익힌국수(압과국수)공장들을 건설하고있다.

피복, 편직공업부문에서는 남자와 학생들의 옷생산을 공업화한 뒤를 이어 이해에 동력화된 30여개의 녀자 및 어린이옷공장들과 7개의 편직물공장들을 건설하여 녀성들의 옷짓는부담을 덜어주었다.

상업부문에서는 이미 꾸려진 세탁소들을 현대화하는 한편 새로운 세탁소, 화학세탁소들을 널리 조직하여 녀성들의 빨래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녀성들을 가정일과 부엌일로부터 해방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다른 과업은 시간을 얼마들이지 않고 일할수 있도록 가정용랭동고와 세탁기, 전기가마를 비롯한 현대적부엌세간과 가정세간을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이다.

전기기계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전기용품생산능력을 대대적으로 높임으로써 전기가마생산량을 5.7배로 증가시킨것처럼 가정용랭동고, 세탁기생산량도 장성시켰다.

또한 날로 향상되는 우리 인민들의 문화수준에 맞게 세탁기도 원형세탁기와 사각형세탁기로 만들었을 뿐만아니라 전기가마, 보온밥통, 전기주전자, 전기곤로, 전기다리미의 품종을 더욱 확대하였다.

그리고 증발계통, 바낑계통, 온도조절계통을 개선하여 가정용랭동고의 질을 높인것을 비롯하여 현대적부엌세간을 더욱 쓸모있고 맵시있게 만듦으로써 그 수요를 적극 자극하고있다.

녀성들을 가정일과 부엌일로부터 해방하는데서 또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농촌부락들에까지 수도를 놓아 농촌녀성들이 물을 이고지고 다니는 현상을 없애고 모든 농촌주민들이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살게 하는것이다.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화하여 1971년에 비해 3배이상에 달하는 농촌부락들을 수도화함으로써 많은 농촌들에서 농촌문화생활조건이 개선되였으며 이른 새벽과 저녁마다 물을 이고지고 다니던 현상들이 없어졌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 결과 이해에 많은 근로자들이 힘들고 품이 많이 들며 비능률적인 로동에서 해방되였으며 일을 안전하고 헐하게 하면서도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내였으며 그들의 생활이 더욱 넉넉해졌다.

전국열관리원대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전국열관리원대회가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열관리원들에게 열관리사업의 위치와 내용, 수행방도를 밝혀주시고 압제와 무권리속에서 시달리던 그들을 나라의 열동력전선을 담당한 로동계급으로, 현대기술문명의 소유자로 키워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높은 열을 받으면서 일하는 열관리원들을 념려하시여 휴가도, 영양제도, 로동보호물자도 더 많이 차례지게 배려하시였고 《공훈열관리공》, 《공훈소성공》칭호도 제정하여주시여 그들에게 열관리원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시였다.

열관리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열관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연료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였으며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열생산기지를 마련하였으며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열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였다.

6월 30일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전국열관리원대회를 열렬히 축하하시면서 대회를 통하여 전국의 열관리공들과 열관리부문일군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공업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하고있는 열관리부문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견지하면서 열관리공들과 열관리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여 열설비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규격화, 현대화하여 연료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더많은 열을 생산리용함으로써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교시관철을 위한 과업》에 대한 보고와 많은 일군들의 토론이 있었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열공급망을 통합개편하여 열공급을 점차 집중화하며 주요도시들과 공업지구들의 중앙난방화를 다그쳐 생산문화, 도시문화를 더 잘 세울데 대하여 력설하였다.

또한 3대기술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보이라를 규격화, 현대화하며 우리 나라 연료조건에 맞게 지금있는 보이라들의 화실구조와 연소장치를 개조하며 새로운 열설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열관리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석탄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힘주어 말하였다.

각지 열관리공들은 대회에서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년간 5천톤이상의 석탄을 절약한 평양목재종합공장과 구성영예군인주사약공장의 경험을 본받아 보이라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투쟁에 나섰다.

전국체신일군대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와 보살피심속에서 전국체신일군대회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적인 사회주의체신건설에 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의 전면적실현을 위하여 세심한 지도와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휴식도 잊으시고 밤을 지새우시면서 나라의 초단파통신망의 설계도면을 보아주시였고 찬이슬 내리는 새벽길과 진펄길을 헤치시며 방송국의 터전을 잡아주시였다.

또한 어제날 《배달부》, 《체부》로 천대받던 체신일군들의 일터를 찾으시고 작업과 생활조건에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체신절과 공훈칭호제까지 마련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구체적인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체신일군들은 현대적인 통신망과 자립적인 무선방송망을 세웠으며 전국의 유선방송화(1971년 10월)와 텔레비죤화(1972년까지 85%)를 실현하였으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대별 출판물배포체계를 세웠다.

10월 13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대회에 나오시여 대회참가자들을 고무격려해 주시였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체신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라는 보고와 수많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우리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먼저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였다.

또한 가까운 년간에 나라의 초단파통신망을 더 잘 꾸리고 통신선로를 적극 다중화하며 현대적기술을 받아들여 통신회선을 중앙과 도간에는 3배, 도와 군간에는 1.5배로 늘이고 시내전화교환능력을 1.5배이상으로 높일것을 다짐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출판물과 우편물의 체송 및 전달체계를 철저히 세워 전국의 모든 세대들에서 당적출판물을 더잘 받아볼수있게 할것을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그리고 방송국들을 계속 더많이 건설하고 그 출력과 주파수를 늘이며 텔레비죤방송의 포괄구역을 확대하고 기술장비를 강화하여 색텔레비죤방송을 개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특히 3대기술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통신과 방송의 전반적공정을 반자동화, 자동화하고 통신선로작업을 비롯한 품이 많이 들고 힘든 작업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할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혁명위업에 대한 높은 자각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통신, 방송의 신속정확성과 부단성을 보장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대회에서는 전국체신일군대회참가자들의 이름으로 남조선체신부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전력공업

전력공업부문에서는 1972년에 이미 있는 발전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데 힘쓰면서 이에 새로운 발전소건설을 따라세우기 위한 투쟁을 벌리여

인민경제의 장성하는 전력수요를 원만하게 충족시키였다.

1971년에 많은 물을 잡은 이 부문에서는 화력발전기를 갈수기에만 돌리면서도 수력발전기들에 년초부터 만부하를 걸어 1972년의 전력생산량을 계획의 107.5%로 높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발전소들의 설비와 시설물을 철저히 정비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대규모발전소들의 건설을 적극 추진시켜 동력기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175페지)

전력공업부문에서는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지금있는 대규모발전소능력과 송배전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전력을 증산하여 원활히 공급하였다.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는 넉넉한 물도 분한있게 쓸 목적으로 새로운 수차들을 받아들여 이에서만도 3천 600만키로와트시의 전력을 더 생산하였다.

천리마수풍발전소 로동자, 기술자들은 거듭되는 난관을 용감하게 물리치고 기계공업에 의존하던 10만크바수차들을 자체로 만들어 도입하여 수차효률을 최고 4.5%, 평균 4% 더 높이였다.

이 경험을 본받은 각지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는 이해에 수차효률을 3.2%, 전력생산량은 조업이래 최고수준인 119%로 높인 성과를 기록하였다.

중소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도 만부하운전으로 전력생산량을 1971년에 비하여 123.5%로 올리였다.

각도 송배전부들에서는 기술혁신의 불길을 높여 이해에 송배전소의 전력공급을 완전자동화, 원격조종하는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10여명이 하던 일을 두명이 맡아하는 한 변전소의 자동화본보기를 따라 이해에 각도마다 본보기를 꾸리고 다시 지구에 일반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2~3개씩의 자동화변전소와 원격조종변전소들을 차려놓았다.

또한 전인민적운동으로 전력절약투쟁을 벌려 전력계통의 도중손실과 인민경제의 중요제품 전력소비기준을 훨씬 낮추었다.

고압선을 정전시키지 않고 보수하는 산출작업을 련방 들이대여 3억 3천만키로와트시의 도중손실을 없앤 함경북도송배전부처럼 각도 송배전부들에서도 《고압선수리개》대렬을 늘이여 전력계통의 중간손실을 결정적으로 줄였다.

광업, 금속, 화학 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전력소비기준이 높은 직장, 작업반에 대한 집중감독과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도합 51개제품의 전력소비기준을 낮춘 황북도내 공장, 기업소의 경험을 살려 각도 송배전부의 방조하에 제품단위당 전력소비기준을 훨씬 줄이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1972년에 서두수청년발전소를 조업시켰으며 새로 세개의 송전선을 세워 전력공급을 개시하였다.

석탄공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질탐사사업과 굴진을 결정적으로 앞세워 채탄장을 넉넉히 마련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작업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고 로천채굴을 비롯한 선진채굴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급격히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175페지)

석탄공업부문에서는 1972년에 3대기술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현대적인 설비들과 선진채굴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굴진기속도와 석탄생산을 부쩍 높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커다란 배려에 의하여 많은 공작기계들을 받아 이해에 평양탄광기계공장 유압종합동발직장과 라남탄광기계공장 채굴설비직장을 새로 건설하였으며 매개 탄광 공무동력직장을 보강하여 공무수리능력을 2배이상으로 높임으로써 채굴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힘차게 다그치였다.

우선 중앙의 기술지도와 보장사업, 아래의 발기와 지혜를 합쳐 종합굴진기에 의한 굴진기본보기를 안주탄광에, 착암대차에 의한 여러가지 조건의 굴진기본보기는 천성, 명대, 신창, 고원 탄광들에 꾸리고 탄광들의 실정에 맞게 일반화하였다.

각지 탄광들에서는 종합굴진기, 착암대차, 버력이적기로 굴진작업의 기계화를 확신성있게 다그침으로써 무연탄광의 굴진기속도와 유연탄광의 종합굴진기에 의한 굴진비중을 더욱 높이였다.

각지 탄광들에서는 또한 현대적기계들과 선진채굴방법의 도입범위를 더욱 넓히는 투쟁을 벌려 생산을 높이면서 탄부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성스러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였다.

각지 탄광들에서는 채탄기들과 쇠그물채굴방법을 더욱 완성하는 줄기찬 사상투쟁을 통하여 석탄생산의 기계화비중을 더 높이였다.

조양, 명대, 룡수, 형봉 등지의 로천탄광들에서는 굴착기, 자동차들을 비롯한 설비, 자재를 집중적으로 공급받아 그의 리용률을 높임으로써 갱내채굴보다 일이 헐하면서도 생산비가 절반이나 싼 로천채굴량을 최고수준으로 올리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탐사와 갱건설을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 대규모탄광과 중소규모탄광, 이미 있는 탄광들과 새로운 탄광, 갱내채굴과 로천채굴을 잘 결합하였다.

그리하여 덕천, 강동, 강서, 고원지구들에서 대규모갱후보지들을 찾아내였으며 운곡탄광 남산갱, 수동탄광 비탈갱, 봉천탄광 십정갱, 고건원탄광 선굴갱 개발을 다그쳐 조업기일을 앞당기였다.

수동, 강동, 강서, 덕천지구에서 새로운 중소규모탄광의 후보지들을 탐사해 낸 동시에 전망성있는 중소규모의 천내, 장안, 룡운, 선무덕탄광들을 확장하여 대규모의 탄광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채굴방법을 도입한 이미 있는 탄광들과 새로 개발된 대중소규모의 탄광들은 1974년부터 석탄생산을 또다시 급속히 높여 인민경제의 연료, 원료수요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광 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광업부문과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자기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들을 지표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함으로써 동, 중석, 니켈을 비롯한 여러가지 유색금속자재들과 강재에 대한 인민경제 여러부문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1972년《신년사》, 단행본, 10~11페지)

광업부문에서는 1972년에 수령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광물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이여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금속자재생산을 성과

적으로 보장하였다.

1971년에 비하여 철광석과 동광석생산이 훨씬 높아졌는데 그중에서도 무산광산에서는 100만톤의 철광석을, 혜산청년광산에서는 몇배의 광석을 각각 증산하는 개가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특출한 기여를 한 혜산청년광산(1972. 12. 11)과 만년광산(1972. 12. 27)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시였다.

이 부문에서는 광물증산의 예비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자동추진기, 종합굴진기, 버력이적기, 버력적재기, 소형전차 등을 적극 받아들여 남포구멍뚫기, 버력을 옮기고 담아싣기, 나르기 등의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종합적기계화에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였던 성천광산광부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홀겁고 안전한 일로 전환시키였을뿐만아니라 로동생산능률을 다른데보다 1.4배이상 높이였다.

철광산들에서는 부속품생산기지, 다이야재생기지, 중기계수리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현대적인 착정기, 중형자동차, 대형굴착기 등의 기계기술수단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강철전사들에게 더많은 광석을 공급하였다.

철광석생산에서 선봉이된 무산광산에서는 지도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손을 잡고 설비관리에 나서 굴착기마다, 계단마다에서 새기록을 창조함으로써 철광석생산계획을 103% 초과완수하였다.

광업부문에서는 또한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통하여 선광처리능력과 선광거둠률 그리고 정광품위를 이해에 1.2~2.7%이상씩 각각 더 높이였다.

동이 기계의 심장이라고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심장마다에 아로새기고 동광산들에서는 동광석의 정광품위와 거둠률을 한걸음씩 톺아올리여 그 성과를 공고히 하였다.

각지 동 선광장들에서는 파쇄계통을 정비하고 광물의 조성에 맞게 알굵기를 보장하는 한편 마광기들의 회전수를 전반적으로 높이여 동증산에 기여하였다.

광업부문에서는 이해에 한 제련소의 아비산잡이기술공정을 완성하여 산업적효과를 거두었다.

금속공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와 1972년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금속공업부문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이 일어났다.

천리마황해제철소, 천리마강선제강소, 성진내화물공장, 단천마그네샤크링카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냈으며 김책제철소 3호해탄로와 5호용광로를 비롯한 많은 산업건설대상들이 조업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의 하나는 강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금속자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것입니다.》(1972년《신년사》, 단행본, 10페지)

이 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원료의 예비처리를 개선하고 소결로, 회전로, 조강로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소결광, 구단광, 해면철생산을 늘이였으며 선철, 립철 생산을 높이였다.

이미 건설한 황해제철소 련속식소결로, 김책제철소의 주기식소성로, 청진제강소의 해면철로, 4월 13일제철소의 조광로들에 생산기술지도를 집중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용광로의 장입광석중에서 예비처리광석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였으며 금속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이해에 그 어느해보다도 선철, 립철 생산의 증가속도가 높아졌을뿐만아니라 귀중한 외화콕스를 계통적으로 절약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와 지도체계가 확고히 마련되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또한 내화물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내화벽돌생산의 기술장비를 튼튼히 꾸리였으며 야금로의 수명과 보수주기를 늘여 강철생산을 증대하였다.

성진내화물공장, 장산광산 내화물직장, 강동내화물공장들에 내화물생산계통들을 증설하였으며 청진제강소, 황해제철소, 성진내화물공장들에서는 새로운 소성법과 프레스들을 받아들여 내화물의 질을 높이였다.

이해에 황해제철소에서 평로의 수명을 300회이상으로 높인것처럼 각지 제철제강소들에서도 개선된 원료조건과 좋아진 내화물조건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야금로의 수명과 보수주기들을 결정적으로 늘임으로써 강철생산을 훨씬 높이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압연강재의 생산을 높이고 그 품종과 규격을 확대하여 3대기술혁명수행에 필요한 강재수요를 재질별, 규격별로 원만히 보장하는데도 힘을 넣었다.

성진제강소의 대형박판직장, 열처리직장, 강선제강소의 대형분괴압연설비증설확장공사를 힘차게 다그치는 동시에 금속공장마다 중소형압연시설들을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확대재생산과 국방공업의 수요는 물론 가정용랭동기와 세탁기와 같은 얇고 가는 여러가지 규격강재도 많이 생산하였다.

특히 이 부문에서는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을 늘여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관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크고 두터운 관생산에만 치우치던 현상이 없어지고 인발강관생산이 1971년에 비하여 116%로 늘어난것을 비롯하여 전기용접강관, 단접강관 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기계공업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전례없는 3만대의 공작기계고지의 점령으로 맞이한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계속혁신, 계속 전진하여 1972년에 자기앞에 맡겨진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모든 공작기계공장들에서 공작기계의 품종을 늘이며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1972년《신년사》, 단행본, 9페지)

각지 기계공장들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전반적생산공정을 자동화하며 생산조직을 혁명적으로 개편한데 기초하여 공작기계생산을 높일데 대한 새기술혁신의 봉화를 계속 추켜들고 품종확대와 질제고 투쟁에 떨쳐 나섰다.

우선 천리마회천공작기계공장의 신형공작기계직장, 천리마구성공작기계공장의 치절반분공장, 천리마만경대공작기계공장 후라이스반직장, 청진공작기계공장, 함흥공작기계공장의 새로운 직장들을 건설하여 공작기계의 품종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이였다.

또한 일반기계공장들에서도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전문공작기계직장이나 작업반을 꾸리고 새로운 품종의 공작기계 설계도면과 기술문건을 완성하고 공구지구, 측정수단들을 제작보충함으로써 한두종씩의 새로운 공작기계생산을 정상화하였다.

특히 공작기계의 품종과 생산이 대

배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에 맞게 10월5일전기공장에 중형전동기와 권선형전동기, 사리원에 새로운 전동기생산기지를 건설하고 그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이해 11개월동안에 이미 3만대의 공작기계고지를 점령하면 1971년 같은 기간보다 또다시 그 생산을 126.3%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는 기본수단인 뜨락또르, 자동차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생산공정의 반자동화, 자동화에 힘을 넣었다.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을 자기들의 숭고한 계급적의무로 자각한 금성뜨락또르공장 로동계급들은 《풍년호》베트가공자동흐름선을 비롯한 10여건의 자동, 반자동선과 수십건의 흐름선을 형성하여 그 생산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이였다.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로동계급들은 《자주》호기관본체자동흐름선과 주물작업의 자동흐름선을 형성하고 《승리58》형 기관가공흐름선을 보장하여 그 능력을 2배로 높이였다.

결과 이해 11개월동안에 1971년도 같은 기간보다 뜨락또르생산은 165.6%, 자동차생산은 163.9%로 각각 높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룡성기계공장, 북중기계공장을 비롯한 대상설비생산공장들을 튼튼히 꾸려 인민경제 여러부문의 대상설비들을 건설에 앞세워 생산보장하였다.

각지 기계공장들에서는 5만톤능력의 비날론설비, 염화비닐공장확장설비, 각지 랭동공장설비들을 비롯한 수많은 대상설비들을 보장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서두수청년발전소설비,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의 소결로와 해탄로설비, 해주린비료공장의 린비료생산설비들을 비롯한 대상설비들을 생산보장함으로써 중공업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확장하며 그의 다방면적발전을 촉진하였다.

선박공업

선박공업부문에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수산업, 수상운수, 국토건설의 수요에 맞게 1972년에도 여러가지 배들을 많이 만들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업과 수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선박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6개년계획기간에 5,000톤짜리 랭장운반선과 화물선을 비롯한 대형선박들을 더많이 생산하며 만톤급이상의 가공모선과 화물선까지 자체로 생산하도록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49~450페지)

선박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수산부문에 쓸 5천톤급 랭장운반선들인 《비로봉》호와 《모란봉》호(1972년 1월 27일진수) 1,350톤급 랭장운반선 《백마산》호(1972년 3월 18일진수) 그리고 450톤급 트랄선 3척을 무어냈다.

그중 박시형동무가 일하는 조선소의 로동계급들은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흐름식으로 5천톤짜리 랭장운반선건조에 달라붙어 먼저 《모란봉》호를 띄웠으며 뒤이어 다른 2척을 진수하도록 만들었다.

각지 조선공들은 이렇게 흐름식건조방법을 받아들여 가공모선이나 랭장운반선, 어로작업선의 어느 하나에만 력량을 집중하던 례년의 수준으로부터 전진하여 여러가지 배들을 동시에 무어냄으로써 원해어업과 근해어업을 더욱 강력히 병진하게 하였으며 근해 회유성어족의 계절적제한성을 극복하고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들을 공급할수 있게 수산업의 원양어로장비를 강화하여주었다.

또한 인민경제의 장성하는 강하천화물수송수요와 려객수요에 맞게 여러가지 려객선들과 화물선(끌배, 끌림배)들을 많이 만들어 수상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부단히 강화하였다.

특히 해마다 소형화물선들만 건조수리하던 리해영동무가 일하는 공장의 로동계급들은 자체로 32톤문형기중기와 좌표보링반, 자동식대형벤딩그로라와 산소발생기들을 만들어 처음 무어내는 1천톤급화물선 《충성 1호》와 800마력끌배(1972년 7월 17일 진수)를 단 45일간에 건조해내였다.

선박공업부문에서는 대형무역선과 가공모선, 대형 려객선과 화물선들을 대대적으로 건조할 물질기술적토대를 닦는데 힘을 넣어 동서해에 조선기지들을 새로 꾸려나갔다.

또한 조선소단위로 의장품생산기지들을 새로 꾸리거나 보강하여 협동생산에 의거하던 많은 의장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함으로써 선박건조속도를 높일 토대를 닦았다.

화학공업

1972년 화학공업의 중심과업은 화학섬유와 염화비닐, 비료의 생산능력을 확장하여 그생산량을 높이며 3대기술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 유해로동과 고열로동을 극력 줄이는것이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비료와 농약 생산이 농산물생산을 높이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는 영예로운 과업이라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화학비료와 미량원소비료의 질적구성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생산설비를 잘 관리하고 기술공정을 더욱 완성하여 질소비료생산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였다.

또한 비료의 3요소의 하나이며 농작물결실기에 많이 요구되는 린비료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주지구에 과린산석회비료생산계통을 새로 건설하여 조업시켰다.

특히 이해에 미량원소비료생산능력을 조성하는 대중적투쟁을 통하여 여덟가지 미량원소비료생산토대를 닦음으로써 알곡증산의 한고리를 풀었으며 식사료법으로 인민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킬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확대강화하는것은 화학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49페지)

어버이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화학섬유의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는 투쟁을 통하여 비날론, 스프 생산량과 질을 제고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비날론 5만톤능력으로의 확장공사를 발기하시고 7월을 비날론설비생산월간으로 정해주시였으며 각지 기계공장들을 협동생산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각지 기계공장 로동계급들은 불과 한달동안에 몇달 걸려야 할 비날론확장설비를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을뿐만아니라 그 설비들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때까지 더욱 완성하는 혁명적책임성을 발휘함으로써 비날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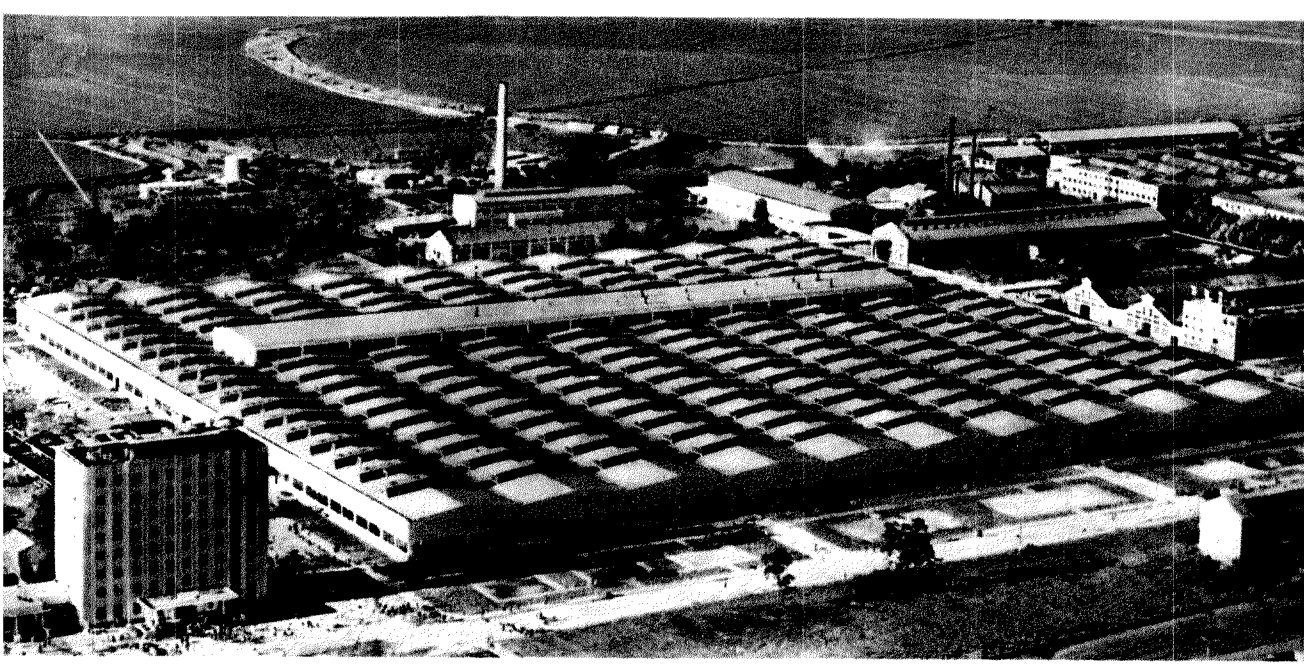
청진화학섬유공장 건설자들과 방직전사들은 공장에서 소집된 내각전원회의결정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스프생산계통과 인견팔프생산계통을 꾸리는 투쟁을 벌리여 앞으로 스프와 인견사의 질과 량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여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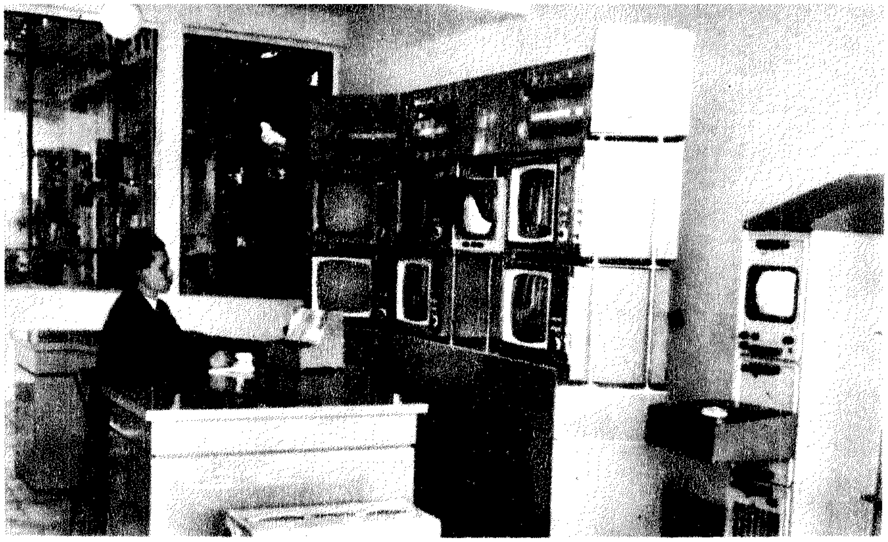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또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 그 어느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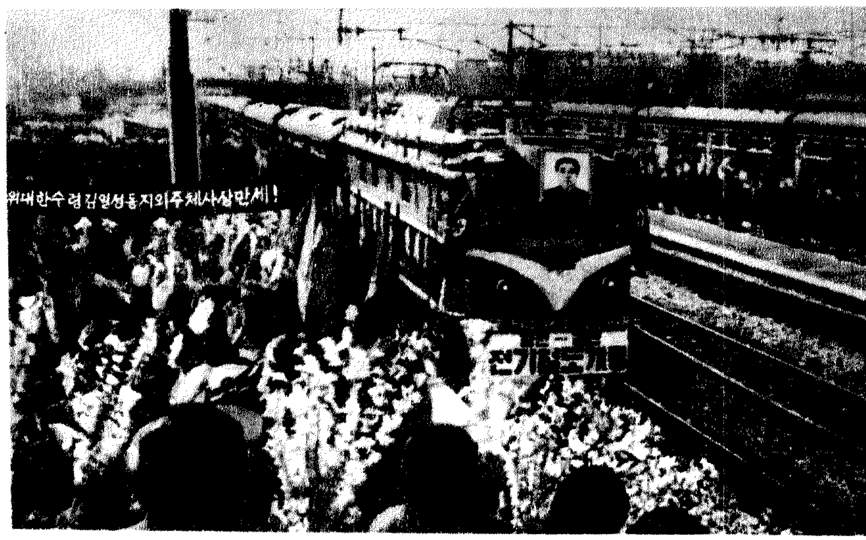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원도 내 인민경제 여러부문사업을 지도하시였다

대동강반에 새로 일떠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 일부





산업텔레비죤화가 실현되니
일이 더욱 흥겨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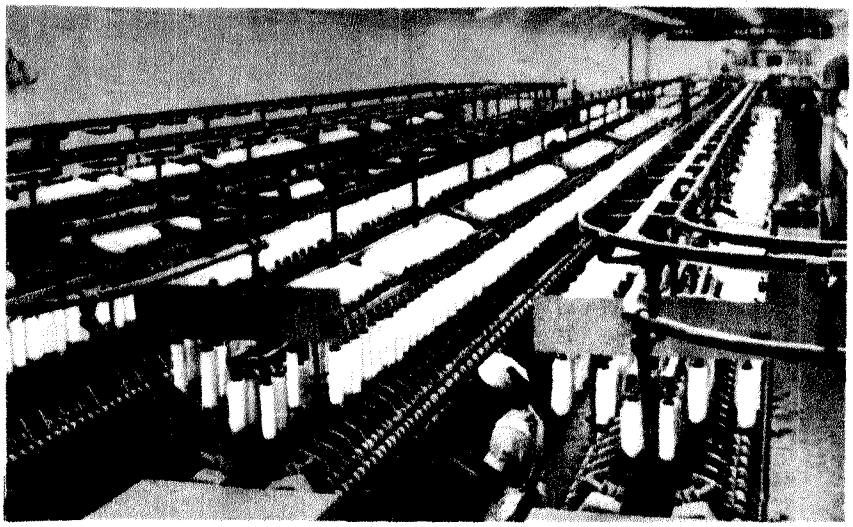
청진—라진
전기철도 개통

새로 조업한 해주린비료공장



흐름선을 타고 풍년호뜨락또르 쏟아져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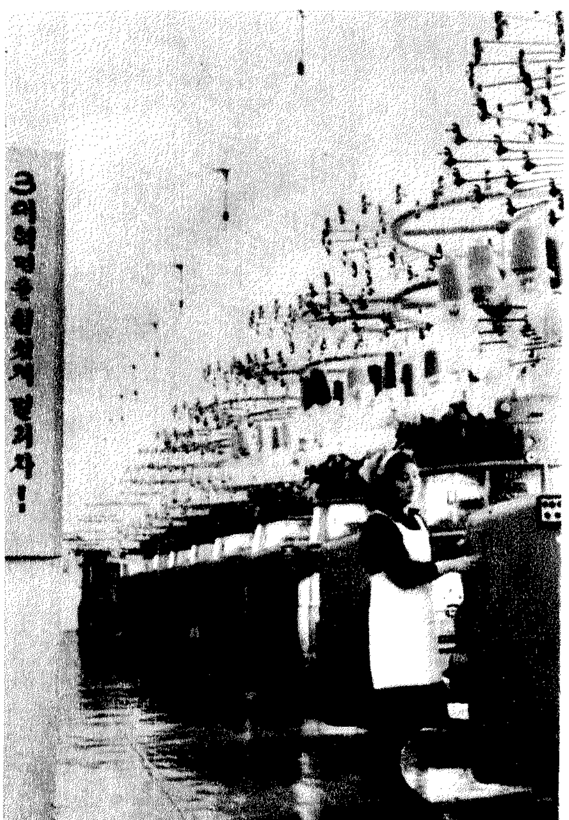


새로 조업한 강계
방직공장 일부

주요도시마다 꾸려진 녀성옷공장



각도마다 일떠선 편직공장



물고기떡 생산이 공업화된 룡성고기가공공장





종합적기계화, 전면적화학화가
실현된 사리원 미곡협동농장벌



모든 남새 밭에 분수식관수체계를 받아들여 남새풍년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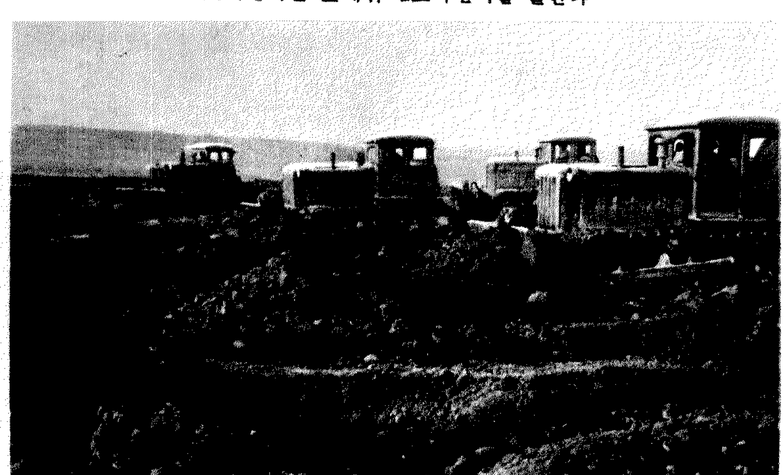


사과풍년

면적당 닭알 생산량이
조업이래 최고수준돌파



토지정리를 앞세워 2모작면적을 늘인다



문보다 많던 유해로동, 고열로동을 없애고 생산공정을 완전히 자동화, 원격조종화하는 투쟁에 나섰다.

결과 본궁화학공장의 농약생산계통과 가성소다생산계통의 자동화, 아오지화학공장 중탄산암모니아생산계통과 유개차에로의 상차작업의 자동화, 강서화학공장 유기유리생산계통의 원격조종을 실현하였다.

또한 본궁화학공장에 고열작업을 완전히 원격조종하는 시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할수 있는 기술준비, 자재준비를 갖춤으로써 1974년말에 이르러 화학공업부문의 고열작업을 기본적으로 없앨수있는 방도를 마련하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이렇듯 이미 마련하여놓은 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화학섬유와 염화비닐, 화학비료생산을 높이면서 승리화학공장을 비롯하여 새로운 화학공업기지를 닦는 산업건설도 빠른 속도로 추진하였다.

제약의료기구공업

제약의료기구공업부문에서는 전반적 무상치료에 복무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구의 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이는 투쟁에서 1972년에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해 의약품생산량이 1971년에 비하여 107.8%, 의료기구생산량이 107.9%로 늘어났을뿐만아니라 약용효과와 포장종이, 상표를 비롯한 의약품과 의료기구의 질이 훨씬 높아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요구되는 보건약품들과 수의약품들을 국내생산으로 충당할수 있도록 제약공업을 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5페지)

제약의료기구공업부문에서는 우선 국가에서 공급하는 설비, 자재와 내부에서 찾아낸 설비, 자재를 배합하여 이미 있는 공장들에 살을 붙임으로써 의약품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보강하였다.

파스크, 술파디아좀, 베니시링을 비롯한 대중의약품생산능력만 하여도 1971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1.5~2배이상 높아졌으며 의약품생산구성에서 무상치료제에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는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였다.

또한 제약의료기구공업의 다방면성을 보장할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훌륭히 관철하여 여러가지 질병들을 모두 우리 나라 약제와 의료기구로서 치료할수 있는 새로운 의약의료기구생산토대를 꾸리였다.

보통제약기술로서는 만들기 힘든 꼰또르, 악성감모의 특효약인 꾸찌종, 저산증위병치료에서 일러주는 염산베타인, 12지장충구제에서 효능이 높은 알꼬바르, 베니시링에 비하여 약용효과기간이 28배나 되는 비시링 3은 이해에 새로 꾸린 생산공정에서 쏟아져나온 의약품들중에서 평이 좋은 몇가지 약들이다.

특히 이 부문에서는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의약품, 의료기구, 포장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여 생산량과 그 질을 높이였다.

그중에서도 개성의 천리마영예군인의료기구공장과 홍남영예군인수지포장용품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하여 주사침과 의약품수지포장의 질을 국제적수준으로 높이는 특출한 성과를 거두었다.

제약의료기구공업부문에서는 룡북약초농장, 중강지구생약자원보호증식사업소를 조직하였다.

건재공업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이미 있는 건재공장들을 정비보강하면서 새로운 건재공장건설을 그에 옳게 배합하여 대규모중앙건재공업과 중소규모지방건재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여 세멘트를 비롯한 여러가지 건재생산을 높이였다.

이해에 벽돌생산이 1971년에 비하여 112%, 련마석재는 135%, 건축타일은 108% 목섬유판은 136%, 비닐경질판은 142%, 금속건재는 129%로 각각 늘어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건재공업발전에서 우리는 이미 있는 건재공장들을 정비확장하면서 새로운 건재공장들의 건설을 그에 옳게 배합하며 대규모중앙건재공업과 중소규모지방건재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59페지)

건재공업부문에서는 1972년에 무엇보다도 먼저 3대기술혁명의 기치를 따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이미 마련하여놓은 건재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였다.

새로운 소성법을 받아들여 소성로의 시간당 생산능력을 1.8배로 높인 천내리세멘트공장의 경험을 살리여 해주, 고무산, 승호리 세멘트공장들에서는 원료계통에는 원료교반기를, 세멘트분쇄에는 랭각제진장치를 설치하여 소성로의 시간당생산능력을 높이면서도 유해작업을 무해작업으로 바꾸었다.

각지 요업공장들에서는 새로운 소성방법을 도입하고 기술관리를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여 이해에 내벽타일과 벽돌 소성실수률을 각각 113%로 높이였을뿐만아니라 내벽타일의 1등급비률을 1.8배로 올리였다.

각지 석재공장들에서는 이미 있는 대절기들을 새로운 기술로 개건하여 석재생산능력을 높이였으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새로운 대절기들을 만들어 썼다.

또한 이미 있는 건재공장들을 보강하여 새로운 건재생산계통을 건설함으로써 전반적인 건재생산능력을 높이면서도 건재공업의 다방면적인 발전을 보장하였다.

우선 년산 1억매의 홍상요업공장 벽돌생산능력확장공사, 안변요업공장의 위생자기직장, 박층요업공장의 외벽타일직장 건설을 다그쳐 생산을 시작하였다.

또한 30만평방메터씩의 길주합판공장도장장식판 생산계렬과 길주목섬유판의 벽지생산계렬을 새로 꾸리여 장식판지와 벽지생산에 들어갔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대규모중앙건재공업과 함께 지방건재공업의 발전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에 풍부한 석회석과 무연탄을 리용하여 전군중적운동으로 단천, 만포를 비롯한 20여개의 세멘트공장을 건설하여 세멘트에 대한 지방의 보충적수요를 충족시키였다.

또한 개천벽돌공장을 비롯하여 이미 있던 30여개의 벽돌공장들에서는 선진적인 턴넬식소성로들을 받아들여 벽돌생산량을 높이였을뿐만아니라 근로자들을 힘든 고열작업에서 해방시켰다.

림 업

림업부문에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받들고 통나무생산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이해에 목재에 대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림업에서 순환식채벌방법을 널리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순환식채벌방법을 받아들이면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로력, 설비, 자금을 늘어놓지 않고 집중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림업로동자들의 생활도 고착시킬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577페지)

림업부문에서는 순환식채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압록강류역과 북부내륙지대들에 대한 산림탐사를 앞세워 많은 림산후보지들을 찾아내였다.

새로 탐사한 림산지구들에서 순환도와 순환주기에 따라 로동자구(살림집, 학교, 병원, 영화관)와 작업구(림철, 수로, 토장, 도로)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중에서 량림군 성파지구, 부전군 능구지구를 비롯한 10여개의 지구들에서 이해부터 통나무생산에 들어갔으며 이미 있던 순환지구들에서 생산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원목생산의 지역적균형성이 보장되였을뿐만아니라 통나무생산이 1971년에 비하여 또다시 부쩍 늘어났다.

림업부문에서는 또한 이해에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리여 림산부문의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많이 줄였다.

각지 림산사업소들과 림업기계공장들에서는 나무베기와 나무실어나르기작업의 기계화를 전반적으로 끝내면서 어렵고 힘든 산판나무모으기와 산판나무 실고부리기, 산판길닦이를 기계화하는데 힘을 넣었다.

특히 우리 나라 림산조건에 맞는 림산용 뜨락또르와 유압집게식상차기들을 많이 만들어 기계공업이 보내준 불도젤, 삭도 등과 잘 배합하여 산판작업의 기계화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린 보람이 있어 산판에서의 나무모으기 기계화수준이 1971년에 비하여 26.2%, 산판에서 자동차에 나무를 실고부리는기계화수준은 8.2% 더 높아졌다.

림업부문에서는 원목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규격재생산을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목재를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도 전개하였다.

규격재를 생산하는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목제일용품과 목제화학제품, 목질건재품 생산을 늘임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림업부문에서는 이해에 새로운 목삭판생산기지로서 위연목삭판공장을, 새로운 목재화학기지로서 위연알콜공장과 양덕목재공장 락카생산계통을 조업시켰다.

방직공업

방직공업부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스프, 비날론, 갈과 같은 화학섬유와 아마, 목화를 비롯한 자연섬유원료에 튼튼히 의거하여 천조직을 개선하고 후처리가공을 잘하여 근로자들의 수요가 높은 질좋은 양복천을 많이 생산하는데 힘을 넣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방직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질좋은 천을 더 많이 짜내는것은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더 잘 풀기 위한 중요한 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384페지)

방직공업부문에서는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에 따라 질좋은 양복천의 증산에 비틀 지금있는 방직공장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데서 찾고 방적설비의 리용률을 1～2년안으로 10%이상 높일 목표로 대중적기술혁신투쟁을 벌리였다.

평양종합방직공장에서는 정방기들의 회전수를 1만 2천회전 이상으로 높여 매일 6천벌의 옷감을 더 짤수있는 실을 증산하였으며 신의주방직공장에서는 150여대의 정방기의 가락회전속도를 평균 2천여회 더 높이여 2천 500만메터의 양복천을 생산할수 있는 방적사를 더 증산하였다.

또한 지금있는 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더 높이는 동시에 방직능력을 새로 조성하면서 방직공업을 더욱 현대화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1972년 10월 14일에 로동당시대의 또하나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인 9월방직공장, 평양종합방직공장 화학섬유종합직장이 조업되였으며 련이어 사리원방직공장과 다른 방직공장들에 각각 1,200대씩의 방직능력과 염색능력들이 새로 조성되였다.

방직공업부문에서는 방적능력, 방직능력, 염색능력들이 새로 조성된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천의 조직과 후처리가공을 개선하여 천의 질을 높이고 그 가지수를 늘이였다.

그중에서 주체공업의 창조물인 비날론, 스프 등의 우리 나라 화학섬유와 자연섬유로서 짠 신의주방직공장의 릉직양복천, 함흥모방직공장 모릉직양복천, 개성방직공장의 비날론격자직과 곰보격자직, 사리원견직공장의 경압단, 녕변견직공장의 인견색동단들이 좋은 천들이였다.

피복가공공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옷차림을 개선하며 우리 녀성들을 바느질부담에서 해방하는데서 중요한 피복공업이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경공업부문의 하나로써 급속히 발전하여왔다.

피복공업부문에서는 옷가공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우리 나라 사람들의 몸매에 맞게 옷형태를 개선는것을 1972년도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투쟁하였다.

자랑찬 투쟁의 보람으로 년간피복생산계획을 9월말현재 101.6%, 년말까지는 136%로 수행하였으며 그중에서 남자기성복생산량은 1971년에 비하여 1.1배, 와이샤쯔는 1.9배, 조선옷은 10배로 늘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피복공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의복을 많이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선집》, 4권, 484페지)

피복공업부문과 각도들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매개 시, 군마다에 옷공장들을 꾸리는 한편 이미 있는 옷공장들의 기술장비를 현대적장비로 개선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70년 5월 19일에 녀자옷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 녀자전문옷공장들을 새로 꾸리라고 하시면서 평양녀자옷공장을 그 본보기로 꾸려주시였으며 첫 제품을 보아주시였을뿐만아니라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녀성들의 옷차림을 맵시있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 30여개의 녀자옷공장들이 새로 일어섰으며 녀성들을 바느질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다.

피복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조선사람들의 몸매, 조선의 기후, 로동조건의 특성에 맞게 옷형태를 개선하고 그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였다.

피복연구소와 각지 옷공장 기술일군들은 옷형태를 조사연구하고 광범한 품평회와 전람회를 통하여 기성복, 조선옷, 학생복의 호수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피복류의 가지수를 400여종 더 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72년 9월 3일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나일론솜옷을 해입히시려고 몸소 그 시제품들을 보아주시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해당부문일군들을 부르시고 옷생산과 공급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각지 피복전사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불과 몇주일동안에 여러가지 색갈과 무늬있는 600만벌의 고급나일론솜옷을 만듦으로써 전국에 또다시 600만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놓았다.

피복공업부문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여름옷, 겨울옷, 봄가을옷 뿐만아니라 명절옷, 집옷, 나들이옷들을 철따라 요구에 따라 갈아입을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옷가공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편직공업

6개년계획기간에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경공업부문의 하나로서 급속히 발전해온 편직공업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와 《인민소비품생산에 대하여》라는 전원회의결정을 받들고 6개년계획말의 편직물고지를 1972년에 점령할 대담한 전투를 벌리여 승리의 개가를 올리였다.

각지 편직공장들에서는 증산의 예비를 편직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우리 사람들의 체질과 기후조건, 활동조건에 맞게 편직물의 형태를 개선하고 품종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데서 찾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털세타와 쟈케트를 많이 만들며 특히 녀자와 어린이용 편직물을 대대적으로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편직공업부문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커다란 배려에 의하여 현대적설비로 장비한 애국편직공장을 비롯한 신의주, 해주, 원산, 함흥, 개성 등지에 편직공장들을 건설하여 단 한해동안에 이미 있는 생산능력의 7배이상에 달하는 겉옷편직생산능력을 조성하였다.

또한 이미 있는 편직물공장들에 아름다운 세가지문양들이 나오는 메리야스생산능력을 새로 조성하였으며 기술자와 기능공대렬을 튼튼히 꾸렸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이해에 속옷편직물의 생산능력보다도 겉옷편직물의 생산능력이 더빨리 조성되였으며 6개년계획기간에 옷차림의 편직화를 단번에 실현할수 있는 전망이 열려졌다.

편직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인민들의 생활이 급속히 향상되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사회주의생활양식의 요구에 맞게 편직물의 형태를 완성하고 그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72년 9월 30일 강서편직공장과 애국편직공장을 찾으시고 이곳 로동자들이 새로운 창의고안으로 만든 학생나이론잠바를 보시고 나이론잠바를 이해안으로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생산공급할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그 가능성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각지 편직공장들에서는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불과 몇주일동안에 800만매의 나이론잠바, 본네루세타를 비롯한 고급편직물을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다 입히게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중앙편직공장들에서만 하여도 여러가지 아름다운 녀자쟈케트와 세타, 남자세타, 녀자머리수건을 비롯한 편직물의 품종을 1971년에 비하여 일약 400여종이나 더 늘이였을뿐만아니라 속옷편직물은 600만매, 겉옷편직물은 500만매, 양말류는 350만컬레나 더 생산하였다.

편직공업부문에서는 옷차림에서 편직화방향을 실현할데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6개년말에 3천만매의 세타, 쟈케트를 포함하여 1억 1천만매이상의 편직물과 7천 500만컬레의 양말을 생산하게 될 물질적준비와 기술적준비를 빠른속도로 갖추고 있다.

신발공업

신발공업부문에서는 1972년에 이미 있는 신발공장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면서 새로운 생산능력을 더 조성하여 신발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발은 의복, 모자와 함께 사람들의 몸차림에서 아주 중요한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변변한 신발을 신지 못하면 외모가 단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신발공업부문에서는 우선 이해에 민족적정서와 시대적미감,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가죽구두와 겨울신발의 생산비중을 대대적으로 늘일수 있는 생산능력조성에 힘을 넣었다.

평양구두공장에 50만컬레의 구두생산능력을 새로 조성하였으며 순천구두공장, 홍남구두공장, 회령구두공장들에 전망적으로 각각 100만컬레의 구두생산능력을 조성할 공사들을 힘차게 다그치였다.

가죽구두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1971년부터 시작한 100만평방메터능력의 가죽이김공장건설을 이해에도 계속 다그쳐 조업기일을 앞당겼다.

신발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신발부속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신발공업의 구조를 더욱 완비하여 지금있는 신발공장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이해에 평양과 함흥지구에 12만조분의 신골생산능력과 500만컬레분의 구두창생산능력을 조성하는 산업건설을 다그쳐 계획한 부분조업을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신골과 새 구두창에 대한 전국의 수요를 보장하기 시작하였다.

신발공업부문에서는 확장된 신발생산능력과 부속품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조직을 개선강화함으로써 가죽구두생산량은 1971년에 비하여 110%, 비닐신발생산량은 108%, 장화생산량은 1.4배로 높였다.

각지 신발공장들에서는 년중 가죽구두, 비닐신발, 천신발 생산계획을 매달, 매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였다.

특히 염화비닐신발공장들과 천신발공장들에서는 자기 공장에 없는 비닐신발과 천신발 생산계통에 대한 기술준비를 갖추고 자재공급체계를 세워 공장마다 두가지 신발을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종이공업

종이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종이생산량과 그 가지수를 늘이여 나라의 사상혁명과 기술문화혁명을 촉진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종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제기하였던 방법대로 대, 중, 소공업을 병진하는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큰 제지공장도 건설하고 자그마한 제지공장도 만듭시다.…

종이공업부문에서는 대규모의 중앙종이공장들과 중소규모의 지방종이공장들을 병진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시종일관한 방침에 따라 이해에 현대적인 팔프생산능력과 신문지생산능력, 특수지생산능력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였다.

길주팔프공장 3호초지기, (1972년5월 3일)회령제지공장 특수지직장(1972년 12월 7일)을 비롯한 새대상들이 련이어 조업함으로써 팔프생산능력이 1971년에 비하여 1.2배, 신문지생산능력이 1.4배로 높아졌다.

또한 자체의 공고한 원료기지를 꾸

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전군중적운동으로 종이공장들에 원료들을 앞세워주는 투쟁을 벌리였다.

수매량정, 농업부문, 철도운수를 비롯한 여러부문에서는 벼짚과 강냉이속을 많이 수매가공하는 종이공장들과 수매사업소들에 속하는 기계, 압착기, 화차들을 우선적으로 들이밀어 종이원료를 수매가공하였다.

그중에서도 평북도에서는 지금있는 압착기들과 기계들의 정형을 따져보고 그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계들을 더많이 만들어주어 강냉이대껍질만하여도 1만 6천톤이나 가공하여 수송하였다.

종이공업부문에서는 특히 나라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여러가지 종이에 대한 수요에 맞게 종이의 가지수를 1971년에 비하여 더많이 늘이였다.

각지 종이공장들에서는 이해에 문헌표지판지와 모조지, 사진용종이를 만들기 시작하여 수령님의 고전적로작과 여러가지 사전류 발행사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각지 주름판지공장들에서는 이해에 도자기종이함, 사과종이함, 남새종이함을 비롯한 여러가지 포장용 종이함의 생산량을 1971년에 비하여 2.7배로 높이였을뿐만아니라 그 가지수를 1.6배로 늘임으로써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종이공업부문에서는 6개년계획기간에 종이생산량을 1.8배로 늘이기 위하여 현대적종이공장들의 건설도 힘차게 다그치였다.

식료공업

1972년 식료공업부문앞에 나선 중심과업은 식료품가공을 더욱 발전시켜 녀성들의 부담을 빨리 덜어주고 주민들의 식생활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는것이였다.

이에 따라 식료공업부문에서는 부식물가공과 주식물가공에 중심을 두면서 다른 모든 식료품생산을 빨리 늘이는 방향에서 생산기술지도를 강화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식료가공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것입니다. 여러가지 부식물가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주식물가공도 널리 조직하여 모든 식료품들을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여 공급함으로써 녀성들이 가정에서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음식을 만들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57페지)

식료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새, 고기, 물고기 등의 부식물 가공과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 맞는 국거리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미 남새가공공장, 고기가공공장, 물고기가공공장들을 건설한 시, 군들에서는 소비지랭동고건설이 부식물가공의 공업화, 정상화의 기본고리라는 것을 옳게 인식하고 전군중적운동으로 새건설을 다그쳤다.

그중에서 이해에 170여개의 소비지랭동고들이 조업되였다. 이처럼 소비지랭동체계가 보충된 결과 1만톤짜리 10개의 생산지랭동체계, 운수망의 랭동체계, 상업망의 랭동체계와 배합하여 완전하고도 전일적인 랭동체계를 전국에 세웠다.

그리하여 이해에 순대, 고기만두, 통졸임, 장졸임, 위쌈 등의 고기가공품과 물고기떡, 튀기, 젓갈품, 알밥, 물고기가루 등의 수산물가공품이 그 어느해보다도 정상적으로 생산되였다.

또한 평양장공장에다 식구수에 따르는 여러가지 국거리(조미료배합)를 생산하는 시범을 창조하고 시범상학, 기술지도서발행, 설비와 포장재의 생산조직을통하여 매개 시군에 국거리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였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주식물인 밥, 빵, 떡 생산을 계속 조직하는 한편 평양시 선교종합식료공장에 익힌국수(알과국수)생산의 본보기를 꾸리고 전국에 일반화하였다.

특히 양덕, 태천, 강계 등의 지방공업기계공장들에 익힌국수설비생산을 대대적으로 조직하여 1973년에 이르러 대담하게 200여개의 익힌국수공장을 단번에 전개할수있는 사업을 벌리였다.

그외도 평양시 9개 중심구역들에서는 매 식료공장마다에 어린이빵생산능력을 조성하고 수만명의 탁아소 어린이들에게 한끼는 영양가 높은 식빵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또한 당과류생산, 그중에서도 어린이영양제생산을 조직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더좋은 당과류들이 차례지게 하였다.

1972년 3월 23일 수령님의 강원도현지교시에따라 이해에 해양도시 원산시에 현대적인 대규모 어린이식료공장을 건설하고 젖떼기, 탁아소어린이들, 유치원어린이들, 학교학생들의 영양학적 요구를 반영한 여러가지 어린이영양제를 생산하였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식료공장들의 현대화를 더욱 촉진하였으며 공업화한 김치를 여름철에도 생산공급할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도 갖추었다.

일용품공업

지방의 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가까운 몇해안에 일용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일용품생산에서 혁명적앙양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1972년에 현대적부엌세간들과 철제일용품, 문화용품, 대중소비품, 기념상품 생산이 많이 늘어났다. 철제일용품생산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일반기계총국의 생필생산액만 보아도 1971년에 비하여 147%, 그중 순생필생산액이 120%로 장성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정용 랭동고와 세탁기, 전기가마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엌세간들을 많이 생산공급하여 녀성들이 시간을 얼마 들이지 않고 부엌일과 가정일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57페지)

철제일용부문에서는 집단적인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이미 있던 생산공정을 계렬생산공정으로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완성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전기기계총국만 보더라도 증발계통, 바깡계통, 온도조절계통을 더욱 개선한 가정용랭동고의 생산능력을 5배, 전기가마는 6배, 세탁기는 2배이상 높일수 있는 토대를 한해동안에 닦았다.

새로 마련한 물질기술적토대들이 커다란 은을 내기 시작하여 전기기계총국의 전기가마는 5.7배, 전기다리미는 2배, 일반기계총국의 놋가마는 8배, 석유곤로는 1.1배로 늘어났다.

일용부문에서는 이해에 품종확대투쟁을 시제품을 만드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그 생산을 공업화하는 기술준비와 장비를 꾸리는 투쟁으로 더욱 발전시키였다.

전기기계총국의 전기분쇄기와 전기면도기의 장비, 평양시지방공업총국의 전기가마와 알루미니움 그릇의 새장비, 지방공업총국의 수지용기와 수지학용품의 장비들은 그러한 투쟁에서 거둔 몇가지 성과들이다.

지방공업총국에서는 각도마다 우유통, 밥통, 간장통, 계란갑, 쌀함박을 비롯한 아름답고 쓸모있는 여러가지 수지용기생산기지들을 꾸리였다.

일반기계총국에서는 새로운 기지들을 꾸리는 투쟁을 통하여 품종을 1971년에 비하여 124.5%로 늘이였다.

특히 일용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 공장들이 현대화된 오늘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원료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투쟁을 벌렸다.

원료기지를 마련하는데서 이해에 중요하게 나선 문제는 화학약제들과 보조약재, 금속소재 등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공업원료기지를 잘 닦는것이였다.

이해에 도와 지구별로 물감, 칠감, 안료, 접착제를 생산하는 화학공장들과 탄산소다, 가성소다, 유리병 단점관, 선철 공장들을 비롯하여 70여개의 중소규모화학공장들과 직장들을 건설하였다.

아오지, 청수, 온천지구에 탄산소다공장들을, 부령, 함흥 등지에 가축이김약공장들을, 염주, 은산, 해주지구에 가성소다공장들을, 회령, 해주지구에 판유리, 유리병공장들을 건설하고 생산을 정상화하였다.

또한 중공업이 경공업을, 중앙공업이 지방공업을 도와줄데 대한 수령님의 1970년 2월 27일교시를 받들고 지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꾸려주었다.

일반기계총국산하 각지 기계공장 생필직장들에서는 탁상선반 및 볼반, 소형압연 및 연신기들을 만들어 지방공업총국산하 공장들을 지원하였다.

일반기계총국에서는 1971년에 비하여 소형공작기계생산량을 105%, 그품종을 128%로 각각 높이여 지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주었다.

지방공업

전당적,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방공업은 급속히 발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8년 6월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리용하여 지방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불과 3개월동안에 1천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일떠섰다.

그이께서는 몸소 창성군과 삭주군에서 지방공장들의 모범을 창조하시고 1962년 8월 지방 당 및 경제 일군창성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이를 전국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일일이 조직지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지방산업공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과 중앙공업의 강력한 지원에 의하여 급속히 강화되였으며 지방산업공장들의 원료기지도 더욱 확장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0년 2월에 소집된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공업을 더욱 힘차게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결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 드리는 500여개의 선물공장들을 비롯하여 1천 76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일떠섬으로써 매개 시, 군들에는 20여개의 중소규모공장들이 돌아가게 되였다.

지방공업부문에서는 1971년에 회천의 로동계급들이 추켜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식료기계공장, 지방기계공장들을 새로 튼튼히 꾸림으로써 지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였다.

1972년에 지방산업공장들의 중심지구마다에 압연연신절단기지들과 탄산소다, 가성소다, 유리병 생산기지들을 꾸려 원료기지를 더욱 현대화, 공업화하였다.

특히 고기, 물고기, 남새, 과일가공공장들이 있는 시군마다에 랭동공장들을 건설하여 수요가 높은 식료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토대도 닦았다.

지방공업부문에서는 1972년에 지방공업총국을 내오고 경공업제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기술지도와 보장사업을 개선하였다.

어 업

어로부문에서는 원해어업과 근해어업을 배합할데 대한 당의 시종일관한 방침을 관철하여 그렇게도 변태스럽던 어황조건을 대담하게 물리치고 인민들의 늘어나는 물고기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선진적인 어로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근해어업과 함께 원해어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더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59페지)

어버이수령님의 커다란 배려에 의하여 어로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형어업과 중세소어업을 강화할수 있게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렸다.

우선 원양어선대들에서는 5천톤급 랭장운반선《모란봉》, 《비로봉》호와 1,350톤급 랭장운반선《백마산》호를 비롯한 랭장운반선들과 450톤급 뜨랄선들과 대형전착선들을 포함한 배들로 원양어업의 어로 및 운반 능력을 더욱 높이였다.

또한 원양어선대의 모든 배들에 뜨랄은 물론 전착, 자망들을 배합할수 있게 전착양망기와 자망양망기, 고기털기기계와 진공식어류뽐프 등을 설치하여 배의 기술장비도를 훨씬 높이였다.

그리고 해안연선의 수산자원에 따라 잠수수산사업소와 잠수수산작업반, 중세소어업직장과 중세소어업작업반 (분조)들을 대대적으로 조직하고 현대적기술수단들과 놀고있던 어구들을 배합하여 근해어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였다.

어로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3대기술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변화무쌍한 어황조건에 대처할수 있게 그물을 경량화, 대형화한 선진어로방법을 광범히 받아들여 만선의 개가를 련이어 올리였다.

신의주, 곽산, 철산 수산사업소들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어로공, 편망공들간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2척기선저예망, 전착망, 안강망을 경량화, 대형화함으로써 어구당 나이론그물실소비량을 30%이상씩 절약하면서도 물고기생산량을 1.5~1.9배씩 높이였다.

특히 고기군은 범새에 나가면 사람도 발길을 돌려놓았다는 서해특산 전어의 생산비중을 총어획고의 15~40%, 고급어족인 청어, 고등어생산량을 기본어족들인 조기, 칼치생산수준으로 각각 높임으로써 서해어로성과의 구조를 완전히 개선하였다.

어로부문에서는 이해에 중세소어업도 강화하여 날로 향상되는 인민들의 해삼, 갈미, 문어 등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였을뿐만아니라 많은 외화도 벌었다.

양어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1971년 6월 2일~4일)에서 하신 강령적교시와 정

치위원회결정 《전인민적운동으로 양어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1971년 11월 10일)를 관철하여 양어부문에서도 1972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양어총국과 각도에서는 간석지양어를 대담하게 전개할 목적으로 자연사료들이 풍부하며 새끼고기장만에 편리하며 간석지의 비육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간석지양어장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하는 투쟁에 나섰다.

그리하여 서해안도들에서는 국영간석지양어못을 2~3개소씩, 동해안도들에서는 1개소씩 먼저 경험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여 첫해에 간석지양어의 우월성을 보여주었다.

50정보짜리 남포간석지양어장에서는 숭어를 기본어족으로 삼고 이에 잉어, 붕어, 백련어, 화련어들을 배합하여 길렀는데 손톱눈만하던 새끼숭어가 당해에 평균 110그람이상씩 자랐다.

이해에 이미 있던 구장, 북창, 직동, 천내 등 양어사업소들에서는 동물질사료배양실을 짓고 여러가지 벌레들을 많이 키워 자연사료와 잘 배합하여 먹임으로써 비육못에서의 정보당 칠색송어생산량을 평균 50톤이상으로 높이였다.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양어부문에서는 1명의 관리공이 1정보의 양어장에서 잉어, 붕어, 백련어, 화련어 등을 충분히 길러 6톤의 물고기를 길러낸 평원군 평원협동농장의 경험을 본받아 매개 시, 군마다에 한두개씩의 본보기를 꾸리는 사업이 힘차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만경대구역 금천, 순천군 룡더 협동농장 양어장들과 옹기군종합농장, 룡등탄광 양어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집체적으로 고기를 길러 종업원들과 농장원들에게 공급하였다.

양어부문에서는 양어장에서의 국영양어와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양어를 강화하였을 뿐만아니라 강, 하천과 호소, 저수지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물고기들을 많이 놓아길렀다.

우선 주을천, 허천강, 구평천, 달산천, 은하천을 비롯한 많은 강하천들에 칠색송어, 열묵어, 산이면수와 같이 식용가치가 높은 물고기들을 집중적으로 놓아 길러 해안연선인민들에 부럽지 않게 부식물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또한 매개 수역의 어종구성과 자연사료원천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동해안의 강하천에서 자라던 빙어들을 서해안의 강하천들에 대대적으로 옮겨 길러 물이 있는 모든 곳에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욱실거리게 하였다.

그중에서도 빙어의 집단적인 이동양어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그 생산량이 1971년에 비하여 2배로 장성하였으며 빙어랭동품을 많이 생산하였다.

양식업

양식부문에서는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1972년에 지난날부터 내려오던 낡은 양식방법을 대담하게 버리고 새로운 양식방법을 받아들여 미역, 곤포를 비롯한 수산물생산을 더욱 늘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부문일군들은 양식사업을 널리 조직하며 그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미역, 곤포, 해삼, 조개, 굴, 김 같은것을 더 많이 길러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단행본, 28페지)

양식부문에서는 이해에 참미역의 씨받이와 모내기방법을 개선하여 1973년도 참미역자원을 급격히 늘이면서도 1972년도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각지 천해양식사업소들에서는 참미역의 중산예비를 그의 육성기일을 늘이는데서 찾고 9월에 진행하던 참미역의 씨받이와 모내기를 앞당겼다.

각지 양식공들은 경포천해양식사업소의 경험을 본받아 양식탕크를 건설하고 이 안에서 5~6월에 참미역의 씨를 받아 키우다가 가을에 모를 내는 방법으로 참미역이 자라는 기일을 3~4개월 더 늘이였다.

동해천리양식장에서 1971년에 비하여 3배이상에 달하는 참미역을 따들이면서도 1973년에 또다시 1972년보다 2배이상 증산할수 있는 참미역자원을 조성하였다.

양식부문에서는 또한 찬물에서 자라는 곤포의 특성을 살려 랭동공장들이 있는 수산기지마다에 양식탕크들을 만들고 랭동기에서나오는 찬물을 리용하여 여름에 곤포씨를 받아 모를 내였다.

이처럼 곤포에 인공적인 서식조건과 자연적인 양식조건을 알맞게 보장해줌으로써 배당 곤포생산량이 첫해에 115%이상 올라갔을 뿐만아니라 태풍이 자주 밀려오는 장마전에 수확할수 있게 되였다.

특히 년중치고 가장 추운 겨울(12월부터 2월까지)에 진행하던 씨받이와 모내기를 여름에 함으로써 양식공들을 고되고 추운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변혁을 일으켰다.

양식부문에서는 이해에 동해의 참굴과 서해의 민어굴양식, 동서해의 굴치와 조개 양식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중에서도 동해의 참굴양식에서는 위생방역과 1종양식을 개선하여 궤미당 굴 중량을 더욱 높임으로써 1973년부터 굴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부문에서는 물고기가공을 공업화, 현대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근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랭동품과 물고기통졸임, 물고기병졸임을 생산공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고기가공에서 뒤떨어진 방법을 버리고 랭동, 통졸임 등 현대적가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잡은 물고기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조리 가공하며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59~560페지)

이 부문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커다란 배려에 의하여 이미있는 열풍식랭동공장들에 비하여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관식랭동공장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10개의 중요포구마다 건설하는데 힘을 넣었다.

건설자들은 1961~1969년기간에 물고기랭동능력을 10배, 병졸임생산능력은 7배로 높인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건설을 다그쳐 신포, 홍원, 륙대랭동공장들을 완전조업단계에 들이 세웠으며 나머지는 계획한 부분조업을 보장하였다.

이로써 6개년계획기간에 물고기랭동능력은 3.4배, 병졸임과 통졸임의 생산능력은 2.4배씩 높일 전투적과업이 앞당겨 수행되고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사시장철 떨구지않고 신선한 물고기를 하루 인구 1인당 100그람이상씩 공급할수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확고히 마련되고있다.

수산물가공부문에서는 또한 1972년에 이미 있던 가공능력의 기술장비를 높이거나 개건확장하여 여러가지 말린 물고기와 양식물, 통졸임과 병졸임 생산량을 높이였다.

우선 우리 나라 물고기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명태가공에 물고기뱀따는 기계, 꼬리대가리 짜르는 기계, 절임기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 명태가공의 종합적기계화비중과 창란젓, 명란젓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였다.

또한 서해수산부문에서는 현대적인 건조설비와 절임탕크졸임설비들을 갖춘 가공직장과 가공작업반들을 더 꾸리고 여러가지 말린 물고기와 조개, 백하, 새우 등의 병졸임, 통졸임을 많이 생산하였다.

수산물가공부문에서는 특히 물고기기름과 물고기떡, 간유알과 물고기가루 생산계통들을 더욱 보강완비하고 그에 대한 기술관리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하여 수산물영양제와 공업원료, 단백질먹이와 광물질먹이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수산물가공업은 이해에 우리 나라 식료공업의 수산물반제품생산기지로, 가금업의 중요한 동물질사료생산기지로, 외화벌이기지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농산업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농산부문앞에는 1971년에 대풍작을 이룩한 경험을 살리여 농업생산에서 또다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생산을 빨리 높이기 위한 기본고리는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입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농업생산의 기계화, 화학화 수준을 더욱 높이며 분수식관수체계를 널리 실시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1972년 《신년사》, 단행본, 11페지)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에 따라 당과 정부에서는 1971년에 비하여 이해에 실로 1.6배에 달하는 뜨락또르와 자동차, 불도젤과 련결농기계들을 농촌경리부문에 공급하였다.

각지 농기계작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이미 있던것과 새로 공급받은 것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종합적기계화의 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에서, 기계화의 작업종류를 확대하는 투쟁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면서도 로력투하공수를 줄이는 투쟁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다.

각지 뜨락또르운전수들과 농장원들은 농한기를 타서 벌방지대에서는 규격포전을, 중간지대에서는 다락논밭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대로 한사람이 논은 5~6정보, 밭은 8~10정보이상 다룰수 있게 여러가지 농기계들이 능률적으로 일할수 있는 규격포전과 다락논밭이 12만정보에 이르렀다.

각지 협동농장원들과 전국의 농촌지원자들은 규격포전들에 이미 마련하여놓은 3만정보의 분수식 관수면적설비들을 정비보충하여 잘 리용하는 한편 이해에도 분수식관수면적을 더욱 늘이였다.

황남도와 황북도, 개성시와 평양시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밀보리밭들에 분수식관수설비들을 설치하여 2모작밭들의 기술장비도를 더욱 높이였다.

현대적규격포전을 건설하고 분수식관수를 받아들인 모든 2모작밭들에서는 정당 평균 8.7톤의 수확을 낸 평양시 중화군 삼성협동농장처럼 종합적기계화와 전면적화학화를 실현함으로써 자연기후조건이 매우 불리하였지만 례외없이 대풍작을 거두었다.

각지 협동농장들에서는 앞으로 몇해동안에 논밭에 시비되는 3요소비료와 미량원소비료, 살초제 공급량이 급속히 증가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여 기술학습과 시비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성하였다.

특히 농촌에서 어렵고 가장 품이 많이 드는 김매는 일을 화학적방법으로 강화할수 있는 기술실무적준비를 더욱 완성하면서 김매기화학화를 다그쳤다.

이해에 100만여명의 근로자들이 농촌을 지원하여 정신적, 로력적방조를 주었다.

남새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남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협동농장원들에게는 물론, 모든 로동자, 사무원들과 도시주민들에게 남새를 넉넉히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 47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원도, 함북도, 량강도를 현지지도하시는 나날 도시 및 로동자구주변에 튼튼한 남새기지를 꾸리며 남새생산에서 계절성을 극복하고 사철 신선한 남새를 근로자들에게 공급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남새부문에서 이해에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는 남새생산에서 계절성을 극복하고 3~4월 봄남새와 8~9월 여름남새의 생산량을 훨씬 늘인것이다.

각지 협동농장들에서는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적극 받아 온실 재배면적을 1971년에 비하여 2.3배, 온상(피복)재배면적을 1.8배이상 늘이고 남새를 계단식으로 심었다.

정성들여 가꾼 보람이 있어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는 근로자들에게 례년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남새를 공급하였을뿐만아니라 봄남새 생산량을 1971년에 비하여 137.2%로 높이였다.

남새부문에서 이해에 거둔 다른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도시 및 로동자구주변에 튼튼한 남새기지를 꾸릴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자연지리적조건으로 말미암아 남새가 그립던 북부산간지대의 김장용남새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킨것이다.

북부산간지대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남새생산을 공업화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정보당수확고가 높고 그 생산량이 안전한 분수식남새생산기지를 벌방지대의 협동농장들에서처럼 꾸리고 고산지대에 알맞는 남새종자들을 심었다.

그리하여 백두산기슭의 량강도에서만도 가을남새생산량이 138%로 높아져 자급자족하고있으며 해마다 다른 지방에서 남새를 실어들이던 철길을 따라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있다.

이해에 남새수출량이 114%로 높아졌다.

과수업

이해 과수부문의 중심과업은 이미 마련해 놓은 과수원의 작업을 기계화, 화학화하며 과실저장 및 가공사업을 공업화하고 새로운 과수원을 계속 늘이는것이다.

과수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관철하여 과수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른 부문과 같이 과수업도 기계화, 화학화하고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과수부문에 많은 현대적설비자재들을 보내주도록 배려를 돌려주신 결과 뜨락또르대수는 118%, 분무기대수는 180%로 늘어났다.

과수업부문에서는 물동운반과 약뿌리기, 토양관리와 파일따기 등 품이 많이 들고 힘든 과수작업의 기계화에 커다란 힘을 넣었다.

특히 경사지과수원이 많은 우리 나라 과수원의 특성에 맞게 계단쌓기와 풀떠만들기, 길닦이와 배수로치기에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각지 과수농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이해에 또다시 430리의 산길을 닦음으로써 벌방못지않게 산간지대과수원의 물동운반을 기본적으로 기계화하였다.

과수부문에서는 또한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분무기들과 약재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과수원 전면적에 대한 토양소독을 하였고 뒤이어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레를 잡았다.

그리하여 벌레먹지 않는 사과(정파)생산비중이 1971년에 비하여 15% 더 늘어났으며 동해안과수농장들의 정파비중은 95%에 이르렀다.

과수부문에서는 이해에 정과생산이 늘어나는데 알맞게 과일저장과 가공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였다.

각지 과수농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1971년에 사과저장능력을 1.5배로 높인 성과를 확대하여 자체의 과일생산규모와 지리적조건에 맞게 여러가지 지상식저장고, 랭동식저장고를 건설하여 또다시 사과저장능력을 1.4배로 올림으로써 인민들에게 사철 과일들을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과수부문에서는 이해에 야산과 경사지를 개간하여 사과나무를 위주로 하면서 양벗, 살구나무들을 심어 새로 1천 200정보의 과수원을 조성하였다.

이해에 평강과수농장(1972년 7월 20일)이 새로 창설되였다.

잠 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잠업부문에서는 1972년에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1971년에 1970년에 비하여 2천여톤의 누에고치를 증산하였던 녀맹조직들과 녀맹원들은 1972년에 1971년보다 또다시 4천 300여톤의 누에고치를 더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비단을 더 많이 짜기 위하여 잠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산비탈들을 일구어 새로 4만정보의 뽕밭을 만들어 뽕밭면적을 10만정보에 이르게 하며 뽕나무의 비배관리를 개선하여 정보마다 뽕잎수확과 고치생산량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잠림과 피마주 재배면적을 늘이고 선진적사육방법을 널리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23페지)

수령님께서는 1972년 6월 뽕누에치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가둑누에, 피마주 등 여러가지 누에치기를 배합하여 잠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가둑누에고치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고있는 경성군의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여 누에고치생산량을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매개 군 녀맹들에 누에치기용 《녀맹》호자동차까지 보내주시였다.

존경하는 김성애동지께서는 수많은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속에서 잠업부문에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강령적교시들을 깊이있게 해설해주시면서 녀맹조직들과 녀맹원들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우리의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와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려고 정력적인 투쟁을 벌리고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애동지를 따라 년초부터 누에고치증산투쟁을 힘차게 벌려왔다.

이 투쟁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누에고치생산량을 시적으로 4배로 높인 자강도 만포시녀맹단체와 1972년도 누에고치생산계획을 4.8배로 넘쳐 수행한 평양시 외성구역녀맹단체들이 특출한 모범을 보이였다.

잠업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누에고치생산량을 대대적으로 높일수있는 먹이기지도 보다 튼튼히 마련해놓았다.

우리의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11월말 현재 새로 4천 300정보의 뽕밭을 조성하였으며 수많은 가둑나무밭을 만들어 놓았으며 수백톤의 피마주씨를 받아두었다.

축산업

축산업을 집약화, 현대화하며 전군중적운동으로 축산물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해에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축산총국만 보더라도 고기생산이 1971년에 비하여 117.5%로, 젖생산이 109%로 증가되였으며 그중 돼지고기생산이 127.5%로 장성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2월 29일 현지를 지도하시면서 현대적인 평양돼지공장건설방향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걸린 문제들을 손수 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평양시에서는 1만톤짜리, 중요도시에는 2천~5천톤짜리 돼지공장들을 건설할데 대한 당 제5차대회의 결정에 따라 도처에서 산업건설이 광범히 벌어졌다.

이해에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1만톤짜리 평양돼지공장, 5천톤짜리 사리원, 강서, 고산 돼지공장들, 2천톤짜리 위연, 해주 돼지공장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여 조업하였다.

축산부문에서는 또한 이미 있는 축산물생산토대까지 완전히 집약화, 현대화할 목적으로 지금있는 목장들내에 1천평방메터짜리 집짐승우리들을 새로 건설하였다.

각지 목장, 종축장, 종양장들에서는 국가자재와 지방예비를 동원하여 먹이만들기로부터 오물을 씻어내는데 이르기까지 완전히 기계화된 현대적집승우리들을 많이 조업시켰다.

그중 삭주, 부평을 비롯한 각지 종축장들에서는 17개동의 현대적돼지우리들을, 혜산, 농포를 비롯한 목장들에서는 11개동의 현대적젖소우리들을, 랑림, 장진을 비롯한 종양장들에서는 5개동의 현대적양우리들을 지었다.

축산부문에서는 종자집짐승생산기지를 도처에 꾸리고 생산성이 높은 돼지, 젖소, 양 원종과 종축생산을 강화하여 종자집짐승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였다.

우선 엄지종자집승관리와 쌍붙임을 잘하여 1971년에 비하여 종자돼지새끼생산량을 108.7%, 종자젖소새끼생산을 120.2%로 높이였다.

또한 종자집승새끼생산이 늘어난 결과 이해에 1971년에 비하여 협동농장들과 공장, 기업소 부업목장들에 대한 종자돼지새끼공급이 112.1%, 종자젖소새끼공급이 130.4%, 종자양새끼공급이 303%로 높아졌다.

축산총국에서는 이처럼 종자새끼공급량을 증가시키면서도 종자엄지돼지와 종자엄지젖소의 확보량을 144.8%, 121.5%로 높임으로써 1973년에 축산물생산을 또다시 비약적으로 제고할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가금업

가금부문에서는 이미 마련된 가금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알깨우기와 살찌우기 속도를 높임으로써 1972년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는 증산투쟁의 불길을 높이여 전체 공장, 기업소의 75%에 해당한 닭, 오리공장들과 종축장들에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1972년 4월 15일전으로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보람찬 투쟁의 나날에 국영가금부문에서는 닭알생산량을 그전해보다 1.5배, 닭고기생산은 1.4배로 높인 1971년의 성과에도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또다시 닭알생산을 109.2%, 닭고기생산은 110.4%로 올리였다.

국영가금부문에서는 우선 이미 시작한 배합먹이공장건설을 적극적으로 다그치면서 현재 돌아가는 공장면적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배합먹이생산능력을 더 조성하였다.

이해에 전천, 신의주, 청진 배합먹이공장들이 완공되여 조업하였고 사리원을 비롯한 배합먹이공장들에 새로운 능력이 더 마련된 결과 먹이생산능력이 1.6배로 높아졌다.

국영가금부문에서는 또한 1971년 5월 21일, 11월 9일 교시를 받들고 닭, 오리 사양관리를 개선하여 알낳이률을 높이면서도 먹이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었다.

각지 닭공장들에서는 가금의 생리적특성과 년령별요구에 맞게 먹이량과 먹이질,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하여 암탉 한마리당 닭알생산량과 병아리 1개월령 키우기률을 각각 102%, 알깨우기률을 106%로 높이였다.

동시에 닭알개당 먹이소비량을 1971년에 비하여 5%, 증체 키로그람당 먹이소비량을 닭고기에서는 7%, 오리고기에서는 3% 더 낮춤으로써 같은 먹이로써 더많은 닭알과 고기를 생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따라 국영가금부문에서는 군량곡가공공장마다에서 1천마리, 협동농장정미소마다에서 200마리, 협동농장탈곡장마다에서 100마리, 농촌지대 집집마다에서 5마리이상씩의 닭을 치고있는 기업소, 협동농장 가금부문을 적극 도왔다.

이해에 량정부문과 협동경리에 1천만개의 종자닭알, 51만 3천여마리의 병아리, 13만 5천여마리의 종자닭을 공급하였다.

국영가금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술지도를 받은 협동가금업과 개인가금업은 급속히 발전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경제림

경제림부문에서는 쓸모없거나 적은 산림을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산림으로 개조할데 대한 당의 시종일관한 방침을 관철하여 아름다운 조국강산에 또다시 많은 산림을 조성하였다.

전군중적운동으로 나무심기에 떨쳐나서 1971년에 비하여 9천 100여정보의 나무를 더 심음으로써 1972년도 나무심기계획을 103.9%로 넘쳐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또한 쓸모없는 산림들을 섬유원료림, 유지림과 같은 경제적으로 쓸모있는 산림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3페지)

이 부문에서는 이미 쓸모없는 산림을 개조할데 대한 대자연개조계획을 세운데따라 우선 잡관목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빨리 자라는 나무들을 심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1947년 4월 6일 문수봉에 오르시여 조국의 산야에 록음이 우거지게 만들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면서 나무를 심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잡관목정리와 나무심기에 나섰다.

각지 인민들은 애송이나무에 벌레가 치지 않도록 잡관목뿌리를 모조리 뽑아낸 물기많은 산기슭에 평양포플라와 황철나무를, 중간토양에는 이깔나무들을 심었다.

이해에 빨리 자라고 쓸모가 많은 평양포플라만 해도 8천정보에, 이깔나무는 1만정보에 들어갔다.

경제림부문에서는 또한 호두나무, 가래나무, 잣나무 등을 많이 심어 2만 6천정보이상의 유지림을 조성함으로써 후대들에게 또다시 풍요한 기름원천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하여 남부벌방에는 기름생산에서 으뜸가는 호두나무숲이, 중부지방의 산중턱에는 잣나무숲이, 북방에는 쪽가래와 가래나무 숲이 더 생기여 기온과 해발고를 따라 삼천리금수강산에 아름다운 유지림띠가 둘러졌다.

특히 이해부터 가래나무에 쪽가래를 접하는 식으로 여러가지 기름나무에 접을 대대적으로 들이대여 이미 지난 기간 조성한 유지림의 생장속도를 비상히 높이였으며 기름열매의 단위당 기름거둠비중을 더욱 올리게 하였다.

경제림부문에서는 새로 건설하는 현대적대규모 종이공장의 원료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이해에 새로운 수종의 제지림의 적지조사사업을 단기간에 끝마치고 나무모키우기를 전당적, 전인민적 관심속에 강력히 추진하였다.

산업건설

산업건설부문에서는 기본건설을 집중화, 공업화, 정규화, 정상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많은 대상들을 조업시킨 결과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데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에만 하여도 143차에 걸쳐 기본건설부문에서 튼튼히 쥐고 나가야 할 방도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면서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1972년 1월 4일~8일 사이에 소집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서두수청년발전소, 9월방직공장, 기양트락또르공장을 비롯한 15개 대상에 산업건설을 집중할데 대한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또한 국가투자를 1971년에 비하여 113.3%로 증가시켜 주시였을 뿐만아니라 권양기와 자동차기중기, 콩크리트혼합기들을 비롯한 많은 설비자재들을 보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와 커다란 배려에 고무된 건설자들은 산업건설을 집중화, 공업화, 정규화, 정상화하여 건설조립작업액을 1971년에 비하여 1972년에 125.8%, 공업총생산액을 118.8%로 높이였다.

이러한 보람찬 투쟁의 나날에 서두수청년발전소, 해주린비료공장, 9월방직공장, 신포물고기랭동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세분대상들을 완공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직도 중로동이 많이 남아있는 부문의 하나는 기본건설부문입니다. 능률적인 건설기계들을 더 많이 공급하고 조립식건설의 비중을 더욱 높여 건설부문에서 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4페지)

기본건설부문에서는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무엇보다도 먼저 산업건설에서 어렵고 힘든 작업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대상부터 력량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3천 100여건의 창의고안을 내놓았다.

그중에서 1971년에 비하여 2배이상 장성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 결과에 실로 12만 5천여공수의 로력을 절약하였을 뿐만아니라 많은 리익을 국가에 주었다.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으로 새로운 건설기계들을 도입하는 한편 예비부속품생산과 계획적인 예방보수를 강화하

여 이미 있는 건설설비들을 더 잘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건설설비의 리용률이 1971년에 비하여 불도젤에서는 14.8%, 굴착기에서는 7%, 자동차기중기에서는 6.4%, 탑식기중기에서는 2.4% 더 높아졌다.

새로운 설비들을 받아들이고 이미 있는 건설기계의 리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건설부문에서 토공작업의 기계화비중은 1971년에 비하여 2.7%, 암석굴착에서는 2.4%, 몰탈혼합에서는 14.2%, 미장에서는 2.1%씩 더 장성되였다.

산업건설부문에서는 또한 조립식과 미끄럼식 건설방법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 일부 필요한 건재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산업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특히 산업건설에서 조직한 벽돌생산이 1971년에 비하여 213.7%, 지붕재생산이 215.7%, 통나무생산이 111.3%로 높아지면서 국가에서 다량적으로 보장해주는 건재들과 잘 배합함으로써 산업건설을 그 어느해보다도 정상화하였다.

이렇듯 건재생산과 공급이 앞세워지고 건설작업의 기계화수준이 부쩍 올라간 결과 산업건설에서의 1972년도 1인당 조립액이 116.2%, 공업생산에서의 1인당 생산액이 118.5%로 장성되였다.

도시 및 농촌 건설

생산적건설을 앞세우면서 이에 비생산적건설을 병행시킬데 대한 당의 기본건설방침에 따라 1972년에 도시와 농촌에서 많은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을 건설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기 위하여 살림집을 계속 많이 지어야 하겠습니다. 해마다 도시에서 10만세대, 농촌에서 15만~20만세대씩의 살림집을 짓기 위한 전군중적운동을 벌려 지금 모자라는 살림집과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따르는 살림집수요를 해결하도록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77~478페지)

공화국정부에서는 이 방침에 따라 1971년에 비하여 살림집건설에 1.8배의 자금을 돌리면서 보건시설, 학교, 탁아소, 유치원 건설에도 많은 자금을 넣어 문화후생시설을 다그치였다.

무엇보다먼저 이해에 원산시, 혜산시, 청진시, 평성시와 같은 도소재지, 남포, 신포, 라진을 비롯한 항구문화도시, 강서, 희천, 아오지, 파일군과 같은 공업농업문화도시건설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렸다.

원산시건설자들은 금강산의 관문이며 송도원과 명사십리를 끼고있는 원산시를 세계적인 항구문화휴양도시로 꾸릴데 대한 수령님의 1972년 3월 현지교시에 따라 이해에 역전거리, 해안거리, 신풍경기장거리, 수산거리들에 바다, 산세, 위치에 맞게 탑식살림집, 전원형살림집, 산록식살림집(뾰족집)을 수많이 일떠 세웠다.

특히 2만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경기장과 식당, 휴게실, 공연무대, 공연준비실, 악사실을 비롯하여 1천명 수용능력의 연회장을 가진 옥류관과 같은 금강관을 단기간에 세운데 뒤이어 현대적인 큰 휴양건물들과 소년궁전, 체육관과 훈련관 건설준비를 갖추었다.

북방의 항구도시 라진건설자들은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6개의 벽돌공장, 2개씩의 세멘트공장과 기와공장을 비롯한 지방건재기지들을 꾸리고 역전거리와 중앙거리를 중심으로 2천여세대의 화려한 살림집을 지었다.

이해에 또한 농민들에게 직접 접근하고있는 행정적인 말단지도단위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인 군소재지 건설과 문화농촌건설에도 힘을 넣었다.

그중 곡창지대들인 황남도, 평남도와 산간지대인 강원도, 자강도 내 군소재지와 문화농촌건설을 촉진하여 사회주의농촌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하였다.

황남도내 농촌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해에 전문적인 건설기업소들과 건설지도기관들을 내오도록 하시였으며 수많은 건설기계들과 건설자재들을 보내주시였다.

도건설지도기관들과 시, 군농촌건설대들에서는 지방건재기지를 꾸린 청단군과 협동농장마을의 살림집 본보기를 꾸린 연안군의 경험을 본받아 이해에 2천여세대를 완공한 기세로 3만세대의 문화농촌주택건설에 나섰다.

6천여세대를 완공한 강원도에서는 김화군, 창도군, 철원군, 금강군, 통천군, 회양군을 중심으로 살림집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지어 건설속도와 질을 높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교원대회와 이해의 신년사에서 내놓으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도시와 농촌에서 학교, 유치원, 탁아소 건설사업도 전군중적으로 벌리였다.

학교건설자들은 이해에 1만개의 교실과 실험실, 실습실을 완공함으로써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성과에 기초하여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또한 전군중적으로 1천 76동의 유치원을 건설하여 더많은 어린이들이 국가부담으로 교양받게 하였을뿐만아니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평양시건설

평양시건설자들은 혁명의 수도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설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이해에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시건설자들과 전국의 지원자들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1972년 4월 15일을 맞이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모신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조선혁명박물관과 김일성광장주석단을 완공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조선혁명박물관의 건설은 우리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는데서뿐만아니라 앞으로 전적지와 사적지마다에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들을 꾸리는데서 훌륭한 본보기로 되였다.

1971년에 천리마거리에 종합청사(15층)를 세운데 뒤이어 이해에 륙해운총국과 중앙통계국계산소를 비롯한 중앙행정경제기관들과 로동신문사, 사진보도사를 비롯한 출판보도기관 청사들도 건설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커다란 배려에 의하여 또한 평양시건설자들과 수도시민들은 비파거리와 상원선거리(대동교로부터 송신동종점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청년거리, 기계대학앞거리, 문수거리, 서포거리, 평천거리, 락원거리, 봉화거리, 붉은거리의 주변에 많은 살림집을 지었다.

이들은 도시구획과 거리, 자연조건에 따라 여러가지 탑식주택과 외랑식주택, 안산식(평천식)문화주택들을 배합하여 수도의 면모를 더욱 일신하였다.

또한 기본열난방공사와 지선열난방공사들을 힘차게 다그쳐 35호구획, 42호구획들을 비롯한 수천세대의 주택들과 김일성종합대학 2호교사, 서문중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기관들, 로동신문사, 사진보도사를 비롯한 출판보도기관들, 륙해운총국을 비롯한 중앙행정경제기관들에 중앙난방을 들이였다.

평양교외에 중화도로와 안산도로를 새로 닦고 대동강역으로부터 대성산방

향의 합장교까지의 전기간에 무궤도전차를 놓아 수도의 려객수송을 더욱 현대화하였다.

평양시건설자들은 이해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어린이들과 대학생들, 체육인들에게 또다시 돌려주시는 커다란 배려에 의하여 건설하는 현대적인 9.15탁아소, 김일성종합대학 제2호교사(22층), 2만명을 수용하는 평양체육관, 단번에 1천명의 손님을 받아들이는 만경대식당을 일떠세웠다.

어린이 8명에 보모 1명, 어린이 4명에 지도원이 1명씩 배치된 9.15탁아소는 우리 나라 최대규모의 주탁아소로서 식당, 목욕탕, 침실, 리발소, 체육실, 수영장, 실내유희장, 병원, 자외선실, 음악실 등을 갖추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여 재일동포들이 드린 애국편직공장이 건설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풍치좋은 장광산기슭에 자리잡아주시고 설계도를 보아주신 애국편직공장은 기부금을 낸 재일동포들의 사진을 소개한 영예실, 사무실들과 뜨개직장, 가공직장, 염색직장, 보조직장 외에도 공장탁아소를 갖추고 여러가지 고급편직물들을 짠다.

이해에 평양시건설자들은 조국을 하루속히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대동강회관을 지어 북과 남의 적십자회담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평양에 주재하는 여러나라 대사관들과 보통강려관(안산호텔), 국제우편국을 새로 지었다.

철도운수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화물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1972년에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부문에서는 새로운 철도를 놓는한편 이미 있는 철도들을 개건하여 새로 일떠선 공업, 농업 지구들의 장성하는 수송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였다.

이천—세포사이, 강계—혜산—무산사이에 새로운 철도를 놓아 나라의 동서부를 련결시킬데 대한 6개년계획에 따라 220리의 청년이천선을 완공하였고 길주—혜산사이, 회천—고인사이, 청진—라진사이, 청진—무산사이를 전기화할데 대한 방침에 따라 210리의 청진—라진사이의 철도전기화를 거의 완공하였으며 황남도협궤를 광궤화할데 대한 방침을 실현하여 해주—배천사이를 광궤로 개건하였다.

그중에서도 1972년 10월 10일에 개통한 220리의 청년이천선을 단 1년여에 완공한 결과 동서부를 련결하는 철도가 하나밖에 없는데서 화물수송의 긴장성을 가져오던 주되는 원인을 없애고 동서부간의 화물융통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서 전국의 앞장에 설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강령적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철길운영의 자동화와 짐을 싣고부리는 일의 전면적기계화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1971년에 중이역에서 철길운영의 자동화본보기를 창조한 이 부문에서는 이해에 관리국별로 한두개역(업억, 신상, 룡원리, 고읍, 평성, 봉하)씩 다시 꾸리는 사업을 통하여 전철원제도를 완전히 없애면서 철길운영의 안전성을 보장하였으며 자동화의 경험을 축적하였다.

철도선과 전용선을 가진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공장이 철도를 돕고 철도가 공장을 돕자!》는 혁명적구호하에 400여대의 이동식기중기, 그라브기중기, 철도기중기, 자동적재기들을 만들어 기계로 짐을 싣고부리였다.

또한 석탄, 쇠돌, 골재 등 많은 화물을 다루는 중요역선들과 전용선들에 단번에 짐을 싣고부리는 언덕선들과 잔교식하차시설들을 전군중적으로 건설하였다.

이에 따라 역선들에서의 상하차작업의 기계화비중이 1971년에 비하여 3.7%, 전용선들에서의 기계화비중이 5.2% 더 높아졌으며 수많은 로동자들이 짐을 싣고부리는 어려운 일에서 해방되였고 화차의 머무름시간이 훨씬 줄어들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새로운 철길건설, 철길운영의 자동화, 상하차작업의 전반적기계화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중요역의 구내선을 더욱 늘이고 경량레루를 중량레루로 바꿈으로써 철도의 통과능력과 수송능력을 더욱 높이였다.

우선 평양—신의주사이, 평양—청진사이의 모든 전기화구간들에서 늘어나는 화물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는 렬차와 렬차사이의 짧은 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경량레루를 중량레루로 갈아 철길의 강도를 더욱 제고하였다.

또한 년년이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 최근년간에 통과능력이 긴장하던 16개 중요역의 구내선들을 더욱 늘인 결과 짧은 시간에 환차작업을 비롯한 구내작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자동차운수

자동차운수부문에서는 1972년에 자동차에 대한 기술관리와 운행조직을 개선하고 전차, 뻐스, 려객수송을 확대하여 나라의 전반적수송수요를 원만히 풀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동차수송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기술관리와 운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것이며 자동차려객수송을 확대하여 인민들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선집》, 4권, 48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부수송과 장거리수송, 수송의 높은 기동성에 유리한 자동차운수의 기술경제적특성을 헤아리시고 장거리수송과 직송을 더욱 확대할수 있도록 자주호자동차들을 비롯한 운수기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주시였다.

자동차운수부문에서는 새 자동차들을 가지고 이미 있던 평양—강계, 평양—해주, 평양—신천, 평양—함흥간의 장거리자동차수송능력을 더욱 높이는 한편 새로 평양—신의주, 평양—원산, 원산—함흥간의 장거리자동차수송대들을 조직하였으며 석탄, 광석 등의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에 직송사업소들을 내왔다.

지난시기에 기차로 실어 나르던 긴급화물과 작은 화물들이 장거리수송과 직송에 돌려진 결과에 화물수송의 시간성은 원만히 보장되고 철도운수의 시간성이 풀리여 전반적경제건설이 더욱 활기있게 촉진되였다.

이 부문에서는 또한 이해에 전차, 뻐스, 려객수송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의 교통상편리를 보장하였다.

평양시, 청진시, 원산시들에서는 무궤도전차와 뻐스의 대수를 늘이고 운행표를 합리적으로 짬으로써 평양시에는 3분간에, 청진시에서는 5분간에, 원산시에서는 10분간에 1대씩 다니게 하였다.

특히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군과 리들을 련결하는 길들을 잘 닦고 뻐스대수를 대폭 늘이여 아직 뻐스가 들어가지 못한 리들에 뻐스들이 달리도록 함으로써 1972년말현재 전국 농촌리의 62%를 뻐스화하였다.

그리하여 농촌근로자들의 교통상 편리를 도모하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련계를 더욱 밀접히 하였다.

자동차운수부문에서는 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실정에 맞게,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가 커지는데 맞게, 근로자들의 려객수요에 맞게 자동차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수송능력을 대대적으로 높이고있다.

수상운수

수상운수부문에서는 1972년에도 강하천수송, 연해수송, 대외무역수송에 힘을 넣어 교통운수의 종합적발전과 수송의 합리적분배를 실현하는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빨리 늘어나는 무역화물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며 철도의 긴장성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상운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배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해 및 강하천운수망을 더 늘이고 철도와 수상운수의 련대수송을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 배에 의한 대외무역수송을 높이도록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3페지)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수상운수에 유리한 강하천이 많은 사정을 헤아리시고 이해에도 새로 배길개척대(1971년의 1.3배)들을 무어주시고 압록강, 대동강, 재령강을 비롯한 수로개척에 불러일으키시였다.

배길개척대들에서는 수상운수가 한번에 많은 짐을 실을수 있고 수로건설비와 수송원가가 적게 들뿐만아니라 로동생산능률이 제일 높은 운수형태라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창조적지혜와 온갖 적극성을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이해에 강하천운수, 연해운수에 의한 원목, 광석, 석탄, 알곡, 벽돌 운반량이 최고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철도운수와의 련대수송을 강화하여 인민경제부문간, 지역간의 생산적 련계를 더욱 밀접히 하였다.

수상운수부문에서는 또한 이해에 우리 나라배에 의한 대외무역수송을 결정적으로 늘이였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되고 국제적위신이 높아짐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대외무역수송수요에 맞게 동서해에 현대적무역항들을 건설하며 해상수송능력을 높일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이해에 현대적무역항들인 청진, 흥남, 남포항들의 부두길이가 훨씬 늘어났으며 부두의 기계화비중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화물의 통과량이 부쩍 장성되였다.

또한 《만경봉》호를 비롯한 대형무역선들의 선박척수가 1971년에 비하여 4배로 늘어난 결과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과 우리 나라 배로써 대대적으로 무역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수상운수부문에서는 6개년계획기간에 선박화물수송량을 1.7배이상으로 높일 목표밑에 항과 포구들의 능력을 더욱 높이고있으며 새로운 배길과 선박들을 늘이고있다.

체 신

나라의 신경을 담당한 체신부문에서는 1972년에 통신망, 방송망, 텔레비죤망, 우편망을 정비보강확장하여 체신앞에 맡겨진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체신부문에서는 가까운 년간에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를 실현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출판물보급사업과 방송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며 특히 텔레비죤방송망을 더욱 늘여 가까운 년간에 온나라의 텔레비죤화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1페지.)

수령님께서는 텔레비죤방송을 나라의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여기시고 실로 이해에도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텔레비죤방송국과 중계소들의 출력이 더욱 높아지였으며 2중 중계망이 새로 전개되여 주민지대에 대한 텔레비죤방송포괄구역이 1971년의 64%로부터 1972년에는 85%로 높아졌다.

체신부문에서는 또한 이미 실현한 유방화(1971년 10월)의 성과를 이해에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해에 새로 늘어난 수십만세대의 문화주택과 다층주택, 수많은 공동작업장과 대중집합장소들에 유방을 늘이면서 모든 고성기들의 가입자전압을 올려 방송의 질을 높였다.

또한 전신전화설비와 선로시설들에 대한 관리체계와 운영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정비보수사업을 강화하여 통신의 질도 한층 제고하였다.

특히 중앙—도간의 초단파통신과 도—군간의 반송회전에 의한 다중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휘통신, 산업통신, 봉사통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였다.

그중에서도 초단파통신망을 받아들일 기술준비를 예견성있게 앞세우면서 초단파중계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6개년계획기간에 중앙—도간의 초단파통신망을 3배로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해 우편통신부문에서는 이미 실시되고있는 신문, 잡지의 세대별전달체계를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켜 집집마다 신문과 잡지가 제때에 정확히 가닿게 하였다.

우편통신부문의 모든 작업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는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송달속도를 1971년의 1.2배로 높이였다.

특히 미제에 의하여 남북이 분렬된지 27년만인 1972년 8월 17일에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평양과 서울을 련결하는 20회선의 직통전화선을 련결하였다.

재 정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됨에 따라 이해의 국가예산도 성과적으로 집행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이 힘차게 벌어진 결과 생산이 빨리 장성하고 사회주의경리의 내부축적이 부쩍 늘어났다.

국가예산수입이 74억 3천 30만원으로서 100.8%로 빛나게 수행되였다.

이것은 1971년에 비하여 116.9%로 장성한것이다.

이해 국가예산수입에서 사회주의경리로부터 수입이 차지한 비중이 98%에 이르렀다.

국가예산수입이 빨리 늘어난 결과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을뿐만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에게 특별상금을 비롯하여 막대한 추가적혜택을 주고도 적지 않은 재정적예비를 조성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국가예산이 전체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예산이며 사회주의경리의 내부축적에 의거하고있는 공고한 예산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국가예산지출은 73억 8천 861만원으로서 100.1%로 집행되였으며 1971년에 비하여 117.2%로 늘어났다.

국가예산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경제의 발전 특히 3대기술혁명수행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의 강화에 1971년에 비하여 1.4배로 늘어난 건설자금을 돌리였다.

결과 공작기계생산량, 비날론생산능력, 염화비닐생산능력들이 6개년계획말의 수준을 돌파하였으며 뜨락또르생산은 1.8배, 자동차생산은 1.4배로 늘어났다.

국가예산에서는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도록 국방건설에도 많은 자금을 돌리였다.

특히 예산지출총액의 30%씩 달하던 국방비지출을 주동적으로 줄여 이해에 17%만 돌리였다.

국가예산에서는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전적으로 보장하는 방침에 따라 사회시책비를 1.3배로 늘였다.

그리하여 이해에 조선혁명박물관, 평양체육관, 김일성종합대학 2호교사와 1만여개의 교실이 새로 일어섰으며 탁아소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전체 학생들에게 옷, 솜옷, 세타를 눅은 값으로 해 입히였으며 새로 수백개리에 수도가, 2천 400여개리에 뻐스들이 들어갔다.

국가예산에서도 1971년에 비하여 1.5배에 달하는 보건시책비를 지출하였다. 이에 따라 1천 241개소의 농촌진료소들이 병원으로 꾸려졌다.

국가예산집행에서 이룩된 이 모든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가져다 준 빛나는 결과이다.

로동행정

로동행정부문에서는 1972년에 현대적생산부문들이 많이 늘어나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로력을 새로운 부문과 직접부문에 더욱 집중하여 나라의 긴장한 로력문제를 원만히 풀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력배치에서 중요한것은 생산부문 종업원수의 우선적증대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의 일군수를 규정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원칙에 확고히 서서 나라의 로력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7페지)

나라에서는 1971년 11월 25일에 내각결정 111호를, 1972년 8월 2일에는 내각결정 제78호를 채택하고 작은 공장, 기업소 및 농장들을 통합하는 사업과 전반적 로력기준화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작은 공장, 기업소, 농장들을 통합하여 생산기술지도와 자재공급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면서도 이해에 3만여명의 관리로력을 줄였으며 로력을 기준화하여 관리로력과 봉사로력의 비중을 훨씬 낮추었다.

또한 방직공업, 피복공업, 편직공업, 신발공업, 식료공업, 일용공업 등의 경공업부문에서 생산조직과 로력조직을 개편하여 2만여명의 청장년로력예비를 찾아 새로 조업하는 대상들에 보충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나라의 로력문제를 풀기 위하여 로력예비동원사업을 혁명적으로 진행하며 로력절약투쟁을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공장, 기소업의 관리로력, 간접로력 비생산로력을 극력 줄이며 더 많은 로력예비를 동원하여 광산, 탄광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긴요한 부문에 조절배치하였다.

경로동부문에서 일하고있는 청장년들을 중요하고 어려운 부문에 조절배치하며 기술공정의 요구와 매개 사람들의 체질에 맞게 로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사업을 또한 적극 진행하였다.

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은 로력관리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날마다 로력이 어떻게 움직이며 리용되는가를 정확히 장악하고 제때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감으로써 한명의 로력도 랑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있는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하였다.

로동행정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정연한 로력관리체계를 세우고 새로운 로동정량창조운동을 힘차게 벌려 로력랑비를 없애고 이미 있는 로력을 바로 리용하였다.

로동행정부문에서는 1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료해하고 매개 중앙행정부들과 도들에서도 공장, 기업소들의 로력리용실태를 매일 장악하는 식으로 중앙으로부터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로력관리체계를 세워 생산지도일군들이 생산처럼 로력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특히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배양하면서 자재보장과 후방공급사업을 힘차게 뒤받침해준 결과 근로자들속에서는 이해에 《당의 요구, 혁명의 요구가 곧 우리의 기준량, 우리의 로동정량》이라는 구호하에 새 기준량창조운동을 힘차게 벌리였다.

이에 발맞추어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로동정량 제정기관들에서는 로동행정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로동정량을 1971년에 비하여 107.6%, 그중에서도 공업부문의 로동정량을 109%로 높였다.

또한 정치사업, 사람과의사업을 심화시켜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가장 영예로운 일로 여기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생산에 리용하여 혁명적으로 일하도록 하였다.

인민경제 모든부문에서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생산공정의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시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로력을 더 많이 절약하였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로동행정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이미 조직되였던 밤나무관리반, 세소어업작업반내 사회보장자들에게 로동자, 사무원들과 같은 식량과 사회보장년금, 생활보조비들이 제때에 미치게 하며 치료를 잘 받도록 보장하였다.

충분한 약물료법과 영양료법, 적당한 로동료법을 받은 사회보장자들은 빨리 회복되였으며 다시 보람찬 사회주의건설의 대진군속에 뛰여들었다.

이해에 농촌을 적극 지원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1972년 8월 4일 교시에 따라 100만명의 로동자, 사무원, 학생들과 군인들이 농촌지원 60일전투에 나갔으며 수많은 사무원들이 탄광, 광산을 지원하여나갔다.

사회주의문화건설

우리 나라에서 문화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문화혁명의 기본화살을 무엇보다먼저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데 돌려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온갖 썩어빠진 부르죠아 문화와 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며 문화건설분야에서 조그마한 부르죠아적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9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화건설분야에서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며 복고주의적경향을 극복하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교육,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더욱 빨리 발전시킴에 있어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문화건설에 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우리 당은 1972년에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며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는 투쟁을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온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전당적사업으로 철저히 관철시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0년 2월 17일 과학교육및문학예술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하신 교시(《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대로 우리 당은 지난날의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뒤떨어지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은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켰다.

로동계급적요구를 반영하며 그에 복무하는 전혀 새로운 문화인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온갖 낡은것을 철저히 없애는 비타협적인 투쟁속에서 당적이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적민족문화로 개화발전하고있다.

우리는 교육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잔재를 철저히 없애고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는 가장 선진적인 주체교육체계를 세워놓았다.

우리 나라에서의 교육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는데 전적으로 복무하고있다.

1972년 7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전원회의결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972—1973학년도부터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시작하였다.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을 주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실제상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11년제의무교육으로 된다.

수령님께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첫 개학날인 1972년 9월 1일 평양시 대동문인민학교를 찾으시고 사회주의교육학의 본질적내용을 다시금 명확히 밝혀주신 교시대로 우리의 교육은 새세대들을 조선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서 상당한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현명한 방침에 따라 우리의 과학 또한 급속히 발전하였다.

1972년에 우리의 과학자들은 과학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 이룩한 자랑찬 과학연구성과들을 가지고 과학원창립 스무돐을 기념하였다.

수령님께서 1972년 12월 1일 과학원창립 스무돐을 기념하여 열린 과학전시관을 돌아보시면서 지난시기 이룩한 과학연구성과들을 대담하게 생산에 받아들일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우리 과학자들은 주체과학의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배격하고 로동계급적선이 똑똑히 선 가장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우리 시대 혁명적문학예술의 가장 빛나는 본보기로 되고있다.

세상사람들이 말하다싶이 《1972년은 조선예술의 해》였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피바다》식 가극창조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를 집대성하고 가일층 발전시켜 1972년에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그이께 드리는 충성의 선물로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영화와 혁명가극에 옮겨놓음으로써 인류가극발전사에 완전히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으며 세계영화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1971～1972년동안에만하여도 우리의 예술은 세계의 근 30개 나라들에 진출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생활력을 온세상에 널리 시위하였다.

1972년에 진행된 제18차국제영화축전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긴 영화 《꽃파는 처녀》가 축전규정에 없는 특별상과 특별메달을 받은 그 사실 하나만보아도 우리 나라 예술이 《세계최고봉의 예술》, 혁명적인 예술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전국의 공장, 기업소 로동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서는 《피바다》근위대와 《꽃파는 처녀》근위대가 광범히 조직되여 작품의 주인공들처럼 로동과 생활에서 공산주의적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양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전체 근로대중이 문학예술의 창조자로, 향유자로 되고있으며 문학예술이 온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투쟁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말을 지켜내며 고유한 우리 말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출판물보급사업과 방송선전사업 특히 텔레비죤방송망을 더욱 늘여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체육부문에서도 주체가 철저히 서고 체육과학과 체육기술이 급속히 발전된 결과 우리의 체육은 여러종목에서 당당히 세계적수준에 올라섰으며 《체육의 왕국》의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

진하고있다.

1972년에 진행된 제20차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나라 선수들이 천리마조선체육인의 높은 기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어린이로부터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과학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로 되였다.

문화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문화건설 로선과 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교　육

우리 나라에서의 교육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한 한 부문으로, 사람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인간으로 키우는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부문에서 1972년에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에 교육부문에서는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공장대학을 비롯한 각종 대학을 대대적으로 늘여 100만의 인테리대군을 키워내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1973년 《신년사》, 단행본, 3페지)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과 건설의 성숙된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1972년 7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1972년부터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방침대로 전원회의에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972～1973학년도부터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뜻깊은 첫개학날인 1972년 9월 1일에 입학정형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대동문인민학교를 몸소 찾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0년제고중의무교육실시와 관련하여 나어린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문제들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교수교양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학생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혁명적세계관이 똑바로 선 조선의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루사로 키워내기 위한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시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교육부문에서는 수령님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와 1971년 12월에 진행된 전국교원대회 그리고 대동문인민학교현지지도에서 주신 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 모든부문에서 일하는 기술자, 전문가수를 100만명이상으로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1972년에 방대한 국가투자로 1만여개의 교실이 새로 건설되고 김일성종합대학의 웅장한 2호교사가 완공되였으며 수많은 학교들에 기숙사, 실험실습장들이 더 건설되였다.

1972—1973새학년도에 보통교육부문에서만도 17개의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이 새로 나왔으며 도처에 고등체육전문학교가 신설되였다.

이리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하며 나라의 인테리대군을 키워내기 위한 물질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우리 나라의 모든 학생들은 전적으로 국가의 부담에 의하여 공부하고있을뿐아니라 국가로부터 교과서와 학용품은 물론 철따라 교복과 외투까지 공급받고있으며 대학과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많은 장학금을 타 쓰면서 공부하고있다. 그리고 유자녀와 고아, 무의무탁한 학생들은 먹는것, 입는것을 비롯하여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보장받고있다.

실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 탁아소로부터 대학을 나올때까지 한사람에게 돌려지는 국가적혜택은 무려 근로자들의 평균로임의 10년분에 해당된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인구 한사람당 교육비의 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되였다.

후대교육과 민족간부양성에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빛나게 실현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교육제도가 더욱 더 발전공고화되고있으며 1972년현재 약 700개나 되는 민족간부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과 근 140개의 대학이 세워져 지방마다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가 꾸려졌으며 민족간부의 대부대가 마련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교육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과목교수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 김일성원수혁명활동연구실 운영 그리고 모든 과목교수를 당정책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후대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있다.

교육과 생산로동, 리론과 실천, 교수와 교양을 밀접히 결합시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할것없이 학생들에게 우리 혁명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지식을 배워주는 한편 그들을 《글뒤주》로가 아니라 산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우기 위한 당정책해설과 위생선전등 여러가지 사회사업에 참가시키고있다.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가 철저히 구현된 우리의 교육사업은 새세대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확립되고 로동계급적선이 똑똑히선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유능한 새사회건설자로 길러내는 참말로 혁명적인 교육, 사회주의적인 교육으로 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1972년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천리마운동을 적극 벌린결과 김책공업대학(6월 16일)과 평양제1사범대학(7월 20일)이 천리마대학칭호를 수여받았다. 고등중학교에서는 11개의 학교가 2중천리마학교로 되였으며 128개의 학교가 천리마학교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35개의 2중천리마학급, 1,014개의 2중모범분단, 2,934개의 천리마학급, 6,953개의 모범분단들이 새로 천리마대렬에 들어섰다.

그리하여 오늘 전국 각지 고등중학교내에는 20개의 2중천리마학교와 287개의 천리마학교, 143개의 2중천리마학급과 4,613개의 2중모범분단, 5,562개의 천리마학급과 4만9,452개의 모범분단이 있다.

1972년 4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당학교를 《김일성고급당학교》로 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에서는 남포혁명학원을 《강반석혁명학원》으로 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우리 나라 청소년학생들은 1972년 10월 1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정하여주신 학생절 열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을 맞이하

1972년도 고등중학교부문 천리마학교, 학급, 모범분단 쟁성정형

도별	2중 천리마학교	천리마학교	2중 천리마학급	2중 모범분단	천리마학급	모범분단
평양시	3	13	3	70	241	664
평남도	3	14	4	134	394	1,024
평북도		9	7	122	345	873
황남도	1	13	2	77	190	570
황북도		9	3	109	266	619
강원도		14	1	74	250	526
함남도	1	14	1	149	507	902
함북도	1	19	6	136	320	806
자강도	1	11	4	84	242	525
량강도		8	2	48	122	277
개성시	1	3	2	7	42	148
기타		1		4	15	19

여 학과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학생들을 표창하시였다.

모란봉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는 학생절 열돐기념중앙보고회가 있었다. 모임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남반부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채택하였다.

1972년에 김일성고등물리학교는 창립 스무돐(7월 15일)을,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붉은기만경대혁명학원은 창립 스물다섯돐(10월 12일)을 맞이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1947년 10월 12일에 세워주신 만경대혁명학원은 지난 스물다섯해동안 실로 수령님의 350여차례의 교시를 직접 받았으며 그이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유자녀교육방침을 관철하여 수많은 혁명적골간의 후비를 키워냈다. 학원은 수령님의 배려로 최고영예인 《김일성훈장》과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았으며 붉은기학원의 영예를 지니게되였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창립 스무돐을 맞이하는 김일성고등물리학교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였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 우리 당 제5차대회가 교육부문에 제시한 방침에 따라 9년제기술의무교육으로부터 10년제고중의무교육으로 넘어가는 력사적과업이 1972년부터 빛나게 실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전반적으로 실시되면 새로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이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자연과 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진 유능한 사회주의건설자로 자라나게 될것입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4～15페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과 건설의 성숙된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어린이들의 인민학교입학나이를 만 6살로 정하기 위한 교육시험을 1971년부터 몸소 조직지도하시면서 새로운 학제규정으로부터 교육 내용과 방법, 학교건설, 교과서보장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72년 1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을 주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사실상 11년제의무교육제라고 강조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보통교육부문에서는 1972년에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으로하는 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새로운 학제의 요구에 맞게 학교전교육체계와 일부 교종들을 개편하고 학교망포치를 합리적으로 고치며 모든 취학대상자들을 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혜택으로 1972—1973새학년도에 전국적으로 1971—1972학년도 인민학교신입생수보다 약 8만명이나 더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이였다.

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인민교육체계의 중심고리로서 4년제중등반과 2년제고등반으로 이루어진 고등중학교를 1972년부터 새로 내오고 고등학교학제를 없애는 대신 대학예비과의 규모를 늘이는 한편 어린이들의 취학과 교수교양사업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인민학교 및 고등중학교망을 합리적으로 포치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끝냈다.

각급 행정기관들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현지를 답사하면서 통학거리와 통학조건, 학생수 및 교사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필요한 모든곳에

우리 나라에서 의무교육실시정형

년 도	당과 정부에서 취한 조치
1956년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실시
1958년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실시
1967년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제실시
1972년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제실시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게된 평양시 대동문인민학교 첫 입학생들과 담화하시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1972년 9월 1일)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첫 입학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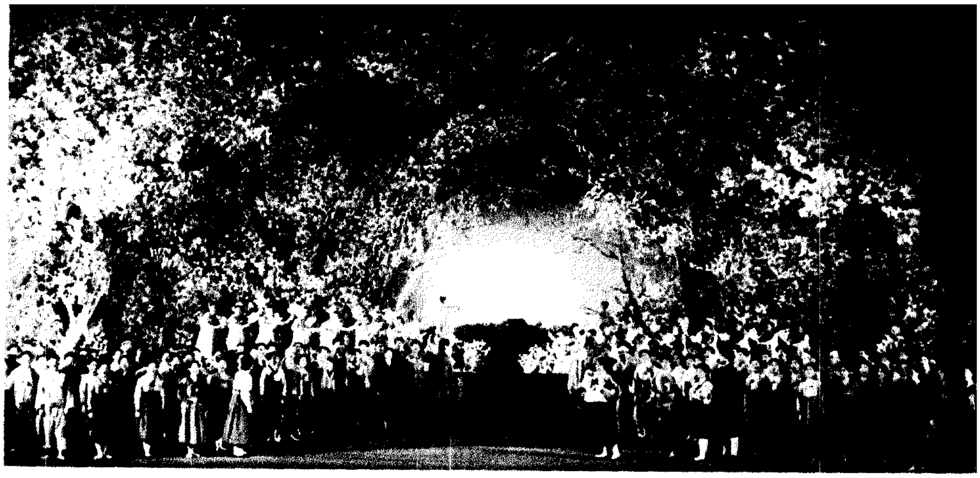


배운리론을 실험실습을 통하여 익힌다





<사로청림>, <소년단림> 조성에 떨쳐나선 사로청원들과 소년단원들.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킨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중에서

↑ 一마지막장면

↓ 一꽃분이의
상봉장면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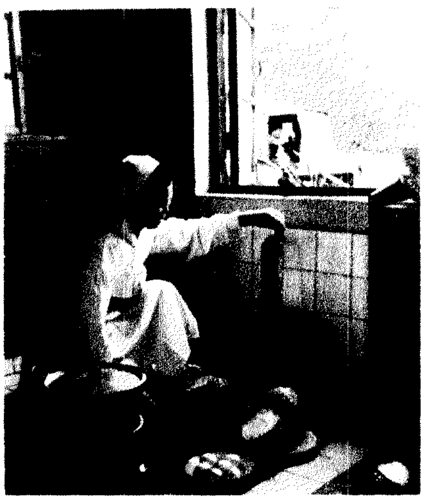
우리의 주체예술은
세상사람들속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령님의 자애로운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어린이들

농촌수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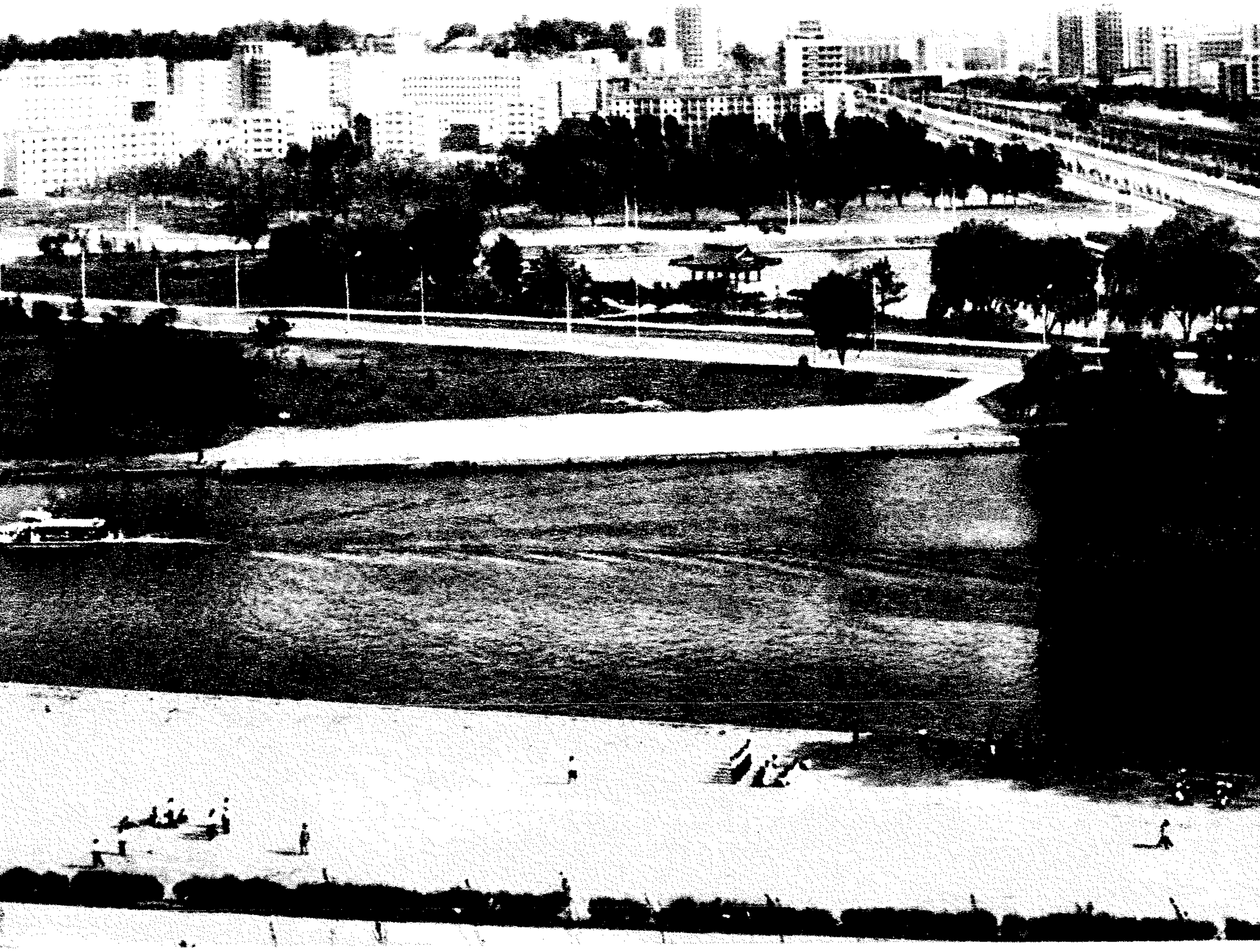




농촌버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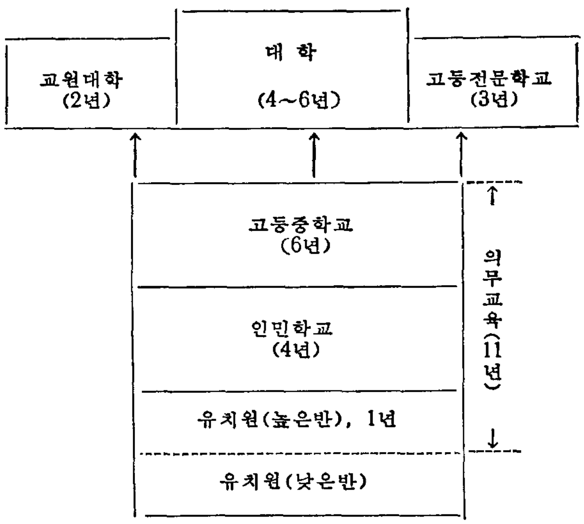
아담하게 꾸려진 2층농촌문화주택의 새집들이





사회주의현대도시—평양

10년제고중의무교육에 의한 새로운 학제와 교육체계



인민학교, 고등중학교를 따로 내왔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학교망이 더욱 확장되고 인민학교의 통학거리가 2키로메터안으로 줄었다. 황남도 청단군만하여도 105개의 교실을 가진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들이 늘어났다.

함북도에는 1972년에 1천 600여개의 교실을 가진 학교가 새로 건설되였으며 해방전에는 소학교마저 다섯손가락으로 꼽았던 량강도에만도 1968~1972년까지 다섯해동안에 243개의 학교가 새로 늘어난 결과 오늘은 520여개의 학교가 있다.

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요구에 맞게 교구비품과 실험실습자재들도 원만히 생산공급되였으며 각급 학교의 교과서, 참고서적들도 제때에 원만히 출판하여 주었다.

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새로운 학제의 요구에 맞게 각급 학교들의 교육내용을 옳게 편성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사업도 추진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의무교육의 전기간에 사상정치과목의 교육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편성하는 동시에 자연기초과목교육을 강화하도록 과정안이 작성되였다.

교육과학연구부문일군들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교육학의 목적과 원리에 기초하여 특히는 그이께서 전국교원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에 따라 의무교육기간에 청소년학생들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형성시키는 총적방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새로운 학제의 요구에 맞게 각급 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집중하였다.

교육시험연구사업을 계속하면서 교종별, 학년별로 전과목에 대한 새과정안과 과도과정안, 교수요강을 짜고 교과서를 집필하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친 전문부문일군들과의 협의회와 군중심의를 가지는 등 그 과학사상성을 보장하기에 노력하였다.

이리하여 각급 학교들에서는 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실시를 계기로 청소년학생들을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현대과학과 기술의 기초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시켰으며 한가지이상의 기술기능을 소유한 수령님의 참된 전사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더 잘 준비시킬수 있게되였다.

【사범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범대학, 교원대학 등 사범교육기관들은 공산주의적후비대양성의 원종장이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였다.

1972년에 사범교육기관들에서는 교원의《원종자》를 길러내는 믿음직한 기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교육수준이 한계단 더 높은 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요구에 맞게 교원양성규모를 크게 늘이고 교원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우리 당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워내기 위하여 교원들을 재교육하는 사업과 함께 사범교육기관들을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여 매개 도에 사범교육체계를 정연하게 꾸려놓았다.

수령님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1946년에 창설된 교원대학에는 중학교교원을 양성하는 4년제와 인민학교교원을 양성하는 3년제사범과를 두었는데 1967년부터 중학교교원양성은 사범대학에 이관하고 교원대학은 인민학교교원만 양성하게 되였다. 1972년부터 이 대학은 2년제로 개편되여 해당도에서 소요되는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주는 인민학교교원과 유치원교양원을 양성하고있다.

1948년에 창설된 사범대학은 1953년에 4년제로 개편되였다가 1967년부터 4~5년제로 되였다. 고등중학교교원은 사범대학에서 양성하며 고등전문학교의 기술과목교원은 기술사범대학과 기술계통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길러내고 있다.

1972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요구에 맞게 사범교육의 질적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교양원대학을 교원대학으로 개편하고 이전 교원대학은 제2사범대학으로, 사범대학은 제1사범대학으로 만들었다.

1972년현재 사범교육부문 학과목내용은 정치사상과목과 일반과목, 전공과목과 교육실습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각도에 꾸려진 이러한 사범교육체계는 교원들에 대한 증대되는 량적수요를 충족시킬뿐아니라 우리 당의 교육방침과 방법을 체득한 유능한 교원들을 키워내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국가에서는 이미 9년제기술의무교육에로 이행할 때 각도 단위로 꾸린 사범교육기지에서 해마다 많은 교육자들을 양성하였는데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는 1972—1973학년도에 또다시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비롯한 교원양성기관들에서 1만 7천여명의 졸업생을 각지 인민학교, 고등중학교들에 배치하였다.

오늘 우리의 10여만 교원대렬은 학생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과 창조적지혜를 다 바치고있다.

【고등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자, 전문가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하여 이미 있는 대학들과 고등기술학교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고 그 양성규모를 늘이며 기술인재에 대한 인민경제부문별 수요를 옳게 타산하여 중앙과 도들에 대학들을 새로 더 내와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0페지)

수령님께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 로력구성에서 기술자, 전문가들이 10%이상에 이르도록하며 가까운 앞날에 기술자, 전문가의 대오를 100만명이상으로 늘일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에서 1972년에 고등교육부문에서는 수많은 대학들을 새로 더 내왔으며 이미 있던 대학들은 학부와 학급들을 더 늘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대학들은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민족간부양성을 위한 각종대학장성정형(다른고등교육기관은 제외됨)

년대	대학수
해방전	0
1949년	15
1967년	98
1969년	100
1971년	130
1972년	근 140

천리마대학의 영예를 지닌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모든 대학들에서는 무엇보다먼저 김일성동지의 로작,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 조선로동당정책사를 비롯한 사상정치부문 과목교수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였다. 한편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 절실히 필요한 기계공학, 전자공학, 자동화공학 등 인민경제발전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기술과목의 과학리론적수준을 더욱 높이는것과 함께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기초과목 교육에 힘을 넣었다.

대학들에서는 1972년에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수령님께서 천리마김책공업대학을 찾으시고 한계단 높은 기술혁명과업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유능한 기술인재를 키워낼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2년까지 이르는 2년간 이대학교원들은 학생들을 주체가 선 근위대로 키우는데 온갖 힘을 다 바치였다. 이 대학에서는 새형의《프로그람자동선반》을 창안제작함으로써 금속의 절삭가공공정에서 종합적인 자동화에로 넘어갈수 있는 믿음직한 기초를 마련할수 있게하였다. 또한 8미크론의 박판을 밀어낼수 있는《20중식압연기》를 처음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전자공업에 필요한 금속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할수 있게하였으며 《〈승리58형〉자동차피스톤자동가공선》을 만들어내여 자동차생산에서 일대비약을 일으킬수 있게하였다.

천리마원산농업대학에서도 분수식관수조건에서의 2모작체계수립, 바람피해를 막기 위한 작물배치 등을 연구하여 농업생산에 이바지하였으며 토지개량과 과학적시비체계에 대한 기술지도서를 만듦으로써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천리마함흥의학대학교원들은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해부도해집》, 《보건경영학》, 《보육학》등 70여제목의 교과서들과 론문들을 집필하여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높여주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일하며 배우는 교육】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생산에서 떨어지지않고 배울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병행하여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교육방침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의 현실적 및 전망적 요구를 동시에 해결하는 가장 우월한 교육체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자중학교와 공장고등기술학교, 공산주의적교육형태의 대학인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 야간학부와 통신학부들에 망라되여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마음껏 배우고있다.

1972년에 교육부문에서는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학교들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통신 및 야간학부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였다.

상설적인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 기사, 기수 검정시험체계 등에 망라되여 과학기술지식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해방전에 중학교졸업생마저 몇명안되였던 량강도의 갑산군에만도 1,330여명의 기사, 기수, 전문가들이 있으며 5월 8일림업기계공장에는 중학교이상학교의 졸업생이 종업원총수의 87%에 달하고있다.

교육부문에서는 일하면서 배우는 학교들에서 학생들에게 당정책관철에 실질적으로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줄수 있도록 모든 과목교수의 체계와 내용을 정확히 편성하는데 큰 힘을 넣었으며 학생들이 생산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과정안에 실습시간보다 과학리론강의시간수를 더 늘이고 실천속에서 배운 리론을 더 깊이 체득할수 있게하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운영의 실천적경험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차이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게 하며 교육과 생산로동, 리론과 실천을 실속있게 결합할수 있게하는 공장대학의 우월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공장대학에서는 모든 교육활동이 생산활동과 밀접히 련결되여 생산실천속에서 이루어지고있다.

순천공업대학 하나만보아도 항생소의약품생산의 공업화, 《전진호》뜨락또르생산과 화학비료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비롯한 52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이였다.

실로 우리 나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은 생산기지일뿐아니라 기술인재양성의 믿음직한 기지로, 과학과 기술 발전의 훌륭한 거점으로 되고있다.

어린이 보육교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르는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혁명과 사회주의사회건설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중요한 공산주의적시책의 하나이며 공산주의적교육방법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61페지)

1972년 6월, 혜산방직공장 탁아소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탁아소를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에 편리하게 더 잘 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울 방도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걸린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1972년에 모든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맵시있고 질긴 수십종의 세타, 나이론솜덧저고리와 사출식장화를 공급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우리 어린이들을 그 언제나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탁아소, 유치원공급소를 내오게 하시고 어린이들에게 빵과 더운 우유 등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식료품들이 더 빨리 공급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1972년 11월 24일에는 평양시 탁아소, 유치원공급소에 식료품운반용자동차까지 보내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어린이수에 관계없이 어린이기르는 모든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산주의적시책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어린이보육교양시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아소, 유치원들의 수용능력을 더 늘이며 현대적인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어린이들이 있는 모든곳에 그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시설을 갖추어놓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1972년에 당과 정부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시설망을 녀성들의 일터가까이 대대적으로 건설하였으며 교구비품과 놀이시설 등을 충분히 갖추어주었다.

특히 1972년에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진행하면서 만 5살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교전교육을 1년동안 의무적으로 줄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1972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15만 6,695평방메터에 달하는 1,076동의 유치원건물을 새로 건설하였으며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비롯한 유치원용 새 교재와 30여종의 참고서적들을 만들었다.

어린이보육교양시설이 급속히 늘어난 결과 유치원어린이수가 1971년 9월 1일 현재에 비하여 1972년말에 이르러서는 5만명이 더 많은 117만여명으로 늘어났다.

8~9월 탁아소, 유치원지원월간에 탁아소, 유치원을 꾸리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렸다.

이기간에 중요도시들에 있는 주, 월탁아소, 유치원 설비들이 더 잘 갖추어 졌으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아동병동이 더 많이 꾸려졌다.

탁아소들에서는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기르는데서 아주 좋은 2층침대를 적극 도입일반화하였으며 창상, 수유차와 목마 그리고 《영양패도》와《위생패도》 여러가지 보육교양시설들과 교양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었다.

각 도(직할시)의 탁아소, 유치원 공급소와 시, 군 소재지들의 탁아소, 유치원 전문상점 그리고 상점, 탁아소, 유치원지정매대들에서는 탁아소, 유치원용 천과 모포, 식기와 놀이감들을 비롯한 식료상품들을 넉넉하게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주었다.

우리 나라는 탁아소, 유치원수에 있어서나 어린이보육교양의 질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되고있다.

어린이들에 대한 지능정서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5월 31일과 6월 22일 교시를 비롯한 여러교시들에서 만 5살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교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줄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1972년부터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실시된것과 관련하여 입학나이가 한살 앞당겨지는 조건에서 유치원단계의 학교전교육을 강화하여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1972년 7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전원회의에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1년간의 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결정에서는 사회주의적교육학의 요구와 년령적특성에 맞게 만 5살의 어린이들에게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우도록 하며 말을 정확히 하고 인민학교에 입학하여 교수내용을 알아들을수 있는 필요한 어휘를 많이 습득시키며 연필을 쥐는법과 글쓰는법을 가르쳐주고 자모와 자기 이름을 쓰며 일정한 수까지 세고 간단한 수자를 쓸줄알도록 배워주는 방향에서 학교전의무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규정하였다.

전원회의결정집행을 위하여 유치원교육부문에서는 1972년부터 유치원들의 초, 중, 고급반을 높은 반, 낮은 반으로 개편하고 새학제에 따르는 교육내용을 규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즉 1년간의 학교전의무교육을 주는 높은 반 과정안에는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 이야기》, 《공산주의 도덕》, 《우리 말》. 《셈세기》, 《노래》, 《도화공작》을 비롯한 각 과목에 걸쳐 총 1,360시간의 교육을 주며 견학, 관찰, 위생, 놀이는 지도서에 의해 과외로 조직하도록 하였다.

학교전어린이교육에서는 첫째로, 어린이들을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이야기교육을 어린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둘째로, 유치원말기의 어린이들은 2,000~3,000개 정도의 어휘를 소유할수 있도록 교육한다. 셋째로, 셈세는법과 그림그리기 등을 가르치며 학습에 필요한 지식과 표상을 넓혀주며 넷째로, 어린이들에게 주의력, 사고력, 관찰력 등을 키워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교입학준비교육을 충분히 주고있다.

어린이건강증진;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와 극진한 보살핌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각지에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아동병동이 훌륭히 꾸려져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복무하고있다.

탁아소, 유치원들에서는 전문의료일군이 배속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고있다.

보육원,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보다 높은 과학적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그 어떤 병도 발생되지않도록 미리 철저히 예방하고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탁아소들에 창상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어린이들의 배앓이도 막고 위생관리도 잘할수 있게하였으며 일광욕장, 목욕탕, 물놀이터들을 위생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리용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증진시키고있다.

유치원들에서는 매 반별, 성별, 체질상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체육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며 신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있다.

보육원, 교양원 양성; 우리 나라에서는 각도의 교원대학과 시, 군 및 지역별 보육원, 교양원 양성소들과 유치원간부양성반들에서 어린이보육교양지식을 충분히 소유한 14만명이상의 보육원들과 수많은 교양원들이 양성되여 어린이들을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사업에 복무하고있다.

전국 185개의 교양원양성소들에서는 어린이들에게 1년간 학교전의무교육을 충분히 줄수 있도록 준비된 교양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내용을 개편하고 과학적인 산지식을 체득시키고 보육원, 교양원 재교육체계와 방식상학, 시범상학, 교육방법연구회, 강습들을 통하여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1972년에 함남 광천군과 명천군에서 조직한 교양원들을 위한 강습 및 방식상학에서는 유치원 높은 반에서 1년간 학교전의무교육을 주는문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지식을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어린이들을 학교입학준비를 시키는 학교전교육을 충분히 줄수있도록 튼튼히 준비시켰다.

과 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 기본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69페지)

수령님의 교시대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당이 과학부문앞에 맡겨준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72년 4월 3일부터 10일까지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전국사회과학자대회를 진행하였으며 1972년 4월 14일에는 전국자연과학부문 연구발표회, 1972년 3월 8일부터 9일까지는 전국육종부문 과학자회의를 평양에서 가지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앞두고 진행된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널리 해석선전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로 의하면서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창조성, 그 불패의 생활력에 대하여 론증하였다.

전국육종부문과학자회의에서는 발전하는 농촌경리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생물학적연구사업을 강화하여 농업생산을 더욱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토론하였다.

1972년에 과학원 및 사회과학원 창립 스무돐(12월 1일), 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창립 열돐(2월 10일), 평양남새과학연구소 창립 열돐(9월 3일)을 기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12월 1일 과학원창립 스무돐을 기념하여 열린 과학전시관을 돌아보시였다.

전시관에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과학을 주체적립장에서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들을 높이 받들고 우리 과학자들이 과학연구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품들이 진렬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시관을 돌아보시고 우리 과학자들이 과학연구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면서 과학원에서 우선 중간공장들을 도처에 많이 건설하여 일정한 기간의 시험생산을 거쳐 완전히 파악된 다음 인민경제발전에 가치있는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대담하게 전면적으로 생산에 받아들일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12월 4일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는 과학원 및 사회과학원 창립 스무돐기념 보고대회가 진행되였다.

과학자들은 수령님의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1952년 12월 1일 과학원이 창립된후 지난 스무해동안 나라의 과학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높이 돌이켜 보면서 과학부문앞에 제기된 과업을 철저히 수행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수령님의 주체적인 과학사상과 과학기술부문에 주신 교시관철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과학원과 사회과학원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였다.

【자연과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연과학부문에서는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며 기술혁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푸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도 적극 개척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61~462페지)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자연과학부문에서는 1972년에 우선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문제,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데 과학기술력량을 집중하였다. 전자 및 자동화공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프로그람파레트불반을 비롯한 7종의 새로운 프로그람식 기계설비들을 시험생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구성1호》프로그람선반을 완성하여 계렬생산으로 들어가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람조종계통을 완성하여 종전보다 생산 능률을 3~4배이상으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과학자들은 용광로 콕스장입계통을 자동화하는데 성공하여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제철, 제강 부문의 용해공들을 고열로동과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생산능률을 높이게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탄광벨트콘베아계렬의 원격조종자동화체계에 대한 문제, 련속조피공정의 자동화문제, 수은정류기의 자동격자제어에 대한 문제, 갱내 고주파통신체계확립 등 탄광, 제철, 제강, 기계, 화학, 철도운수, 식료공업 부문들의 생산공정을 반자동화, 자동화 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화학공장들에서 염화비닐생산공정을 비롯한 많은 공정들의 현대식 장비와 자동화문제해결은 그 생산경제적효과성이 매우 크다는것이 인정되고있다.

인민경제 여러부문의 유해공정을 무해공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원료로 새로운 화학반응제를 만든데 이어 정밀한 반응탑을 만드는데 성공함으로써 류산, 합성, 질소 공정을 비롯한 유해공정들을 무해공정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과학자들은 농촌기술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연구사업과 함께 농촌수도화의 완성을 위한 연구, 식료가공공업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가벼운 밥가마를 비롯한 부엌살림도구를 만들 셀루민경금속 생산에 대한 연구 등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일의 부담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 연구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자연과학부문에서는 국내자연부원을 조사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우리 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환원구단광 제조행정에 대한 연구에서 거둔 성과는 제철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승리—58》자동차피스톤가공자동선에 관한 연구성과는 생산에 적극 도입되고 있다.

자연과학부문에서는 기술공학 특히는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의 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물생산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성공함으로써 단위면적당 주물생산량을 5배이상으로 높이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며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로동생산능률을 7배이상으로 높이게 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우리 나라의 원료와 자재, 기술로써 전자재료와 요소 및 전자기구제작, 무선방송 및 텔레비죤, 초단파공학과 전기통신 그리고 그 응용분야에서도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전자재료에 대한 연구와 생산에서 실험계획화방법의 도입, 새로운 방법에 의한 고투자률 낮은 손실의 훼리트의 제조, 고압마당에 의한 도장법의 도입 등 약전공학부문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는 인민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생물학분야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벼가 여무는 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리론적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밀가을기일을

앞당기면서도 수확이 높은 종자를 얻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사탕무우, 봄배추, 김장용배추의 단위당수확고를 높이는데서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아니라 갈의 품종을 개량하고 재배방법을 연구함으로써 보통갈보다 몇배의 수확을 내는 새로운 갈을 재배할수 있게 하였다.

1972년에 자연과학부문에서는 전국자연과학부문연구발표회(4월 14일), 전국 수산부문과학기술토론회(9월 24일), 전국화학및분석화학부문학술발표회(9월 26~28일), 전국전력공업부문과학기술토론회(10월 4일), 전기통신및 전자공학부문과학기술발표회(11월 22일), 과학원창립스무돐기념전국학술발표회(11월 26~28일)가 진행되였다.

【사회과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과학부문에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하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더 깊이있게 론증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2페지)

사회과학부문에서는 1972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창조성을 깊이있게 해석선전하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이룩한 성과와 고귀한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연구를 위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 수령님의 주체적교육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전국교육과학토론회, 전국당간부양성기관과학토론회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과학토론회들에서 사회과학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론증함으로써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전국당간부양성기관과학토론회에 내놓은 토론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철학의 창시자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군중로선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창시자이시다》, 전국사회과학토론회에 내놓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 대한 사상은 주체사상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천명한 창조적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사상에 기초한 청소년 교육교양에 관한 사상은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혁명의 대를 이어 새세대 교육교양에 구현한 위대한 사상》 등을 비롯한 수많은 론문들에서 사회과학자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혁명리론의 독창성을 깊이있게 론증하였다.

사회과학자들은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연구해설하는데 큰 힘을 돌렸다. 특히 3대기술혁명과 사상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과학리론적문제들을 심오히 연구하여 해설하였다.

철학분야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주체사상을 방법론적지침으로 삼아 변증법적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을 새롭게 체계화하며 경제분야에서는 군중로선에 기초한 사회주의정치경제학과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하는 부문경영학을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당 및 국가건설리론분야에서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고귀한 경험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력사학분야에서는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죄행을 력사적으로 낱낱이 폭로단죄함으로써 인민들을 반제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고고학분야의 과학자들은 일본나라현에서 발견된 다까마쯔즈까 벽화무덤에 대한 학술조사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1972년 10월 3일부터 4일까지 나라시교외 아스까촌에 있는 이 고분을 현지조사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모든것을 분석종합하여 놓고볼 때 다까마쯔즈까벽화무덤은 고구려벽화무덤과 같은 계렬에 속하는 무덤으로 보여진다는 우리의 견해발표모임을 일본의 나라국립박물관에서 가지였다. 다까마쯔즈까벽화무덤이 고구려벽화무덤과 거의 그대로라고 하는데로부터 우리 고고학자들은 고구려문화가 일본 고대문화에 큰 영향을 준 사실로 이 고분은 고구려사람이 만든것이 틀림없으리라고 보고있다.

사회과학분야에서는 고유한 우리 말을 적극 살리고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중요한 방도로 되는 《우리말 다듬기》토론을 1972년까지 7년동안 계속 해왔다. 어휘정리사업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책동하고있는 민족어말살정책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어를 지켜내기 위한 주요한 투쟁의 하나로 진행되였다.

한자말이나 외래어의 용어들을 고유한 우리 말로 다듬어 《표준말초고》에 묶은 상당한 량의 학술용어와 일반용어들은 각 기관들과 학교교과서 및 신문, 방송들에서 먼저 쓰이면서 말다듬기에서의 기준으로 되는 역할을 하였다.

사회과학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있게 론증하기 위하여 그이의 로작발표기념일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진행한 과학토론회들에서 연구성과를 종합발표하였다.

1972년 사회과학부문 토론회일람

1월 3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발표 여덟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1월 26일 수령님의 고전적로작《군인민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발표 열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1월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대한 전국대학생청년사회과학토론회

2월 1일 수령님의 천재적로작《현계단에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발표 스무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2월 3일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

3월 2일 전국교원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전국대학교원과학토론회

3월 25~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기념 전국당간부양성기관과학토론회

4월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기념 전국대학교원들과 교원양성부문대학생들의 과학토론회

4월 12일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기념 전국녀성과학토론회

4월 19일 강반석녀사 탄생 여든돐기념 평양시녀성토론회

4월 23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기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직속 맑스-레닌주의학원 론문발표회

5월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발표 다섯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6월 1일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6월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의 인테리들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가 되여야한다》발표 다섯돐기념 전국대학교원과학토론회

8월 2일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발표 열돐기념 전국당간부양성부문과학토론회

8월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 8월 6일에 하신 연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발표 한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8월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발표 열돐기념전국사회과학토론회

8월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발표 다섯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8월 25일 1910년 8월 29일 일본군국주의가 조선을 강점한 날에 즈음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

9월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로작《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발표열돐기념 전국도시경영부문일군들의 과학연구토론회

9월 1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한다》발표 스물아홉돐기념 사회과학원일군들의 과학토론회

9월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52년 10월 2일에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하신 교시 스무돐기념 보건 및 의학부문과학토론회

10월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연구를 위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

11월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발표 서른다섯돐기념 전국대학교원 과학토론회

11월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발표 열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11월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깊이 연구하기 위한 전국대학교원들의 과학토론회

12월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당의 조직적사상적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발표 스무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12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공화국정부정강《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발표 다섯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12월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발표 한돐기념 전국교육과학토론회

문학예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하여서도 안됩니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2권, 579페지)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문학예술이 인민대중에게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주기 위한 힘있는 교양수단으로 되기 위해서는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키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영화, 혁명가극, 연극, 소설, 음악, 무용, 미술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문학예술은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로,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1973년《신년사》에서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이 1972년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생활력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한 자랑찬 성과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여 주시였다.

1972년에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그이께 드리는 충성의 선물로 수령님의 혁명적가계와 혁명력사를 형상한 장편소설《1932년》(총서《불멸의 력사》중에서), 《력사의 새벽길》(상), 《배움의 천리길》을 마련하였으며 불후의 고전적명작《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꽃파는 처녀》를 무대에 올렸다.

혁명가극《꽃파는 처녀》는 불후의 고전적명작《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피바다》와 함께 300년의 인류가극발전에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

또한 불후의 고전적명작《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천연색광폭영화《꽃파는 처녀》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한자위단원의 운명》을 원작그대로 옮겨놓은 영화와 함께 세계영화계를 뒤흔들어놓았다.

영화《꽃파는 처녀》는 1972년 7월 체스꼬슬로벤스꼬 까를로비 바리에서 진행된 제18차국제영화축전에서 그 심오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시켰으며 축전규정에 없는 특별상과 특별메달을 받았다.

국제영화축전에서 관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영화《꽃파는 처녀》를 두고 《세계를 놀래운 작품》, 《세계적인 영화》, 《진짜 예술작품》, 《세상에 태여나 처음보는 영화》, 《사람들의 심정을 완전히 틀어잡는 영화》, 《완전히 성공한 작품》이라며 찬사를 아끼지않았다.

1972년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쏘련의 몰다비야가맹공화국의 수도 끼시뇨브에서 진행된 국제영화축전에서도 약 80편의 기록 및 과학영화들이 상영되였는데 우리 나라 천연색광폭기록영화《과수의 나라》와 과학영화《누에치기에서의 새로운 방법》이 각각 특별상을 받았다.

우리 나라 예술인들은 1972년 4월하순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13개나라의 60개단체가 참가한 제9차 세계요술축전에서도 6개의 요술작품을 가지고 출연하여 종합성적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평양피바다가극단은 1972년에 알제리와 로므니아, 쏘련에서 혁명가극《피

바다》공연을 하였으며 평양만수대예술단과 평양예술단은 구라파의 프랑스와 스위스, 동남아세아의 파키스탄파 아프리카의 애급을, 평양교예단은 몽골을 방문공연하였다.

또한 스웨리예, 핀란드, 노르웨이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상영주간이, 쏘련파 뽈스까의 수도들에서는 우리 나라 미술전람회가 전례없는 큰 파문속에 진행되였다.

1972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부문 인민상 및 학위학직심사위원회에서는 천리마국립연극극장에서 창조한 혁명연극《푸른 소나무》(3월 23일)와 《혁명의 새아침》(4월 23일), 사회안전성 붉은기연극단에서 창조한 혁명연극《우리의 어머니》(5월 2일),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창조한 혁명가극《당의 참된 딸》(3월 9일), 천리마남포연극단에서 창조한 연극《연풍호》, 평양연극영화대학에서 창조한 장막시극《보통강의 서사시》,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예술영화《로동가정》에 인민상을 수여하였다.

1972년에 조선예술영화촬영소(2월 6일)와 조선인민군협주단(3월 9일)은 창립 스물다섯돐, 평양교예단(7월 11일)파 중앙방송예술단(8월 20일)은 창립 스무돐을 맞이하여 각각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의 공동축하문, 국기훈장 제1급을 받았다.

또한 5월 2일 사회안전성예술단체는 창립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였다.

이날에 즈음하여 사회안전성붉은기연극단은 《김일성훈장》, 붉은기군악단파 예술단은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7월 5일 국립교예극장에서 평양교예단창립 스무돐을 기념하는 예술인들의 교예공연을 보시였으며 공연에 출연한 예술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공연에서는 수령님의 혁명적문예사상에 기초하여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개화발전된 우리 나라 교예예술의 빛나는 성과들을 보여주는 《기계조립공》 《수영놀이》, 《채찍재주》, 《바줄타기》, 《지구조형》, 《공중날기》, 《널뛰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다.

모든 공연종목들에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이며 락천적인 생활파 용감하고 슬기로운 모습이 잘 반영되였다.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밑에 평양교예단은 창립후 스무해동안 640여편의 우수한 교예작품들을 창작공연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파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불요불굴의 투지와 혁명적락관주의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인민들의 두터운 사랑을 받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연구】 작가, 예술인들은 1972년에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깊이 연구하여 해설선전하며 그 위대한 생활력을 론증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다바치였다.

항일혁명문예작품연구, 당문예정책연구토론,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연구학술토론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예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몇가지 문제 즉 혁명적세계관형성파정을 그릴데 대한 문제, 생활을 진실하고 다양하게 그릴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에서 갈등을 옳게 해결할데 대한 문제들의 연구에 힘을 넣었다.

이 파정에 문학예술인들은《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문학예술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지도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반제혁명시가의 빛나는 혁명전통》, 《혁명적미감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 《혁명적민족가극건설에 관한 주체적미학사상의 빛나는 승리》를 비롯한 수많은 해설론문들을 내놓았다.

【문학】소설문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4년 11월 7일교시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에서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혁명을 의식하게 되고 혁명가로 성장하는가를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진실하게 묘사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은 작품을 통해서 혁명가의 일생이라는것이 간고한 것이지만 한번 각오하면 그렇게 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50페지)

1972년에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수십권으로 된 대장편소설로 형상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4.15문학창작단을 조직하고 창작활동을 벌리였다.

소설문학분야에서 1972년에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장편소설 《1932년》(총서《불멸의 력사》중에서)파《력사의 새벽길》(상)을 내놓은것이다.

1971년에 내놓은 전기소설《조선의 어머니》에서는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생애와 활동을 보여주었다면 1972년에 내놓은 장편소설《력사의 새벽길》(상)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작가동맹 4.15문학창작단 집체작으로 된 장편소설《력사의 새벽길》(상)은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가운데서 조선국민회창건 전후시기의 암담한 시대상을 다방면적으로 반영하면서 진정한 조선혁명력사의 새벽길을 열어놓으신 선생님의 불멸의 업적파 위대한 혁명가적풍모를 사상예술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하였다.

장편소설《1932년》(총서《불멸의 력사》중에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1932년에 대한 서사시적화폭으로 되였다.

소설은 주체의 기치밑에 반제민족해방혁명시대를 열어놓은 조선인민혁명군창건 첫해의 고난에 찬 그러나 영광으로 빛나는 로정을 사상미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작품은 1932년의 원정로정을 년대기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그 머나먼 로정에 대한 기록으로 늘어놓지않고 10여개의 중요장면을 집중적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예술적분석을 가하는 사실주의적인 묘사원칙을 관철시킨 혁명적작품이다.

이 작품들을 포함하여 1972년에 창작발표된 8편의 장, 중편소설들은 모두 우리 근로자들에게 사람이란 한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혁명가로 일생을 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다.

소설문학분야에서는 1972년에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고매한 덕성을 형상하는데 바쳐진 《해빛밝은 나라》, 《생명수》등 6편의 단편소설을 비롯하여 《불타는 강》, 《그들이 택한 길》 《수풍호반사람들》, 《겨울 딸기》, 《세 아이》 등 다양한 주제의 단편소설 44편을 창작발표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시문학; 경애하는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72년 9월 6일 우리의 시에서 산문화와 류사성을 극복하고 사상성파 함께 서정성을 높일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시문학분야에서는 1972년에 시분파 연구모임파 미학토론회를 수십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현지창작조를 무어가지고 아천—세포사이의 새 청년철도건설장, 강선, 대안, 기양, 룡성, 원양어로선단 등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창작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수령님의 교시대로 시문학분야에서는 1972년 사상성파 서정성이 결합된 1,539편의 시문학작품을 창작발표하였

으며《우리 인민은 행복합니다》,《영광의 땅 만경대, 봉화리》등 수많은 시집을 내놓았다.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충성의 송가》(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분과위원회집체작)와 력사적인 지방 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 열돐에 즈음하여《황금산의 노래》(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분과위원회집체작)를 비롯한 50여편의 장시가 창작발표되였다.

시문학부문에서는 1972년에《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새해의 헌시》,《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탄생 예순돐에 드리는 헌시》,《혁명의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등 그이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어버이수령님을 노래한 시를 비롯하여 총 830여편의 서정시를 내놓았다.

또한《충성의 한길을 가고 가리라》,《모두다 바치자 충성의 한표》를 비롯하여 시부문에서 창작된 649편의 가사는 노래로 만들어져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아동문학; 아동문학부문에서는 1971년에 수령님의 혁명력사에서 1923년초부터 1925년초까지의 시기를 형상한 장편소설《배움의 천리길》을 내놓은데 이어 1972년에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힘차게 걸어라》를 비롯하여《남철이네 반 동무들》,《맑은 하늘》등의 중편소설과 다양한 종류의 작품 300여편을 창작발표하였다.

이해에 창작된 아동문학작품들중에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작가동맹 아동문학분과위원회집체작으로 된 장시《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노래》를 비롯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력사, 고매한 덕성을 형상한 작품들이 많았다.

특히 아동문학부문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2년 1월 24일 동화, 우화를 비롯하여 아동들의 심리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아동들을 교양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주제로 한 동화《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함께 사는 나라》, 계급교양을 주제로 한 우화《물에 빠진 승냥이》를 비롯한 수많은 동화, 우화작품들을 창작한것이다.

동화, 우화, 동요, 동시들과 함께 1972년에 나온《낚시터의 불빛》,《이른 새벽》,《새 아침》등 많은 아동소설들은 우리 아동들의 혁명적세계관확립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음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음악은 반드시 조선적인것이 바탕으로 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아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52페지)

수령님께서 1962년 3월 11일 음악가들에게 주신 교시 열돐을 맞이하여 1972년에 음악부문에서는 우리의 음악을 민요를 바탕으로 한 민족적인 형식에 혁명적인 내용을 담은 사회주의적인 음악예술로 개화발전시켰다.

가요《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꽃파는 처녀》(불후의 고전적명작《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예술영화《꽃파는 처녀》의 주제가)를 비롯한 우리의 음악은 대중가요, 혁명적통속가요를 기본으로 하여 발전시킨것으로서 누구나 다 부를수 있는 인민적인 음악으로 되고있으며 따라서 새 생활창조를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우리의 음악가들은 1972년에《주체사상 빛내이자》,《공산주의 녀성투사 강반석어머니》,《온세상이 수령님을 노래합니다》,《조선혁명박물관의 노래》,《수령님 해빛아래 우리 녀성 행복합니다》(음악서사시극《조선녀성의 노래》중에서),《로동당의 빛발은 찬란하여라》,《대를 이어 충성하리라》,《사회주의 우리 조국 번영하여라》를 비롯한 수많은 음악작품들을 내놓음으로써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세상사람들은 수령님의 주체적인 미학사상이 음악예술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되여 찬란히 개화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음악에 경탄을 금치못해하면서 우리 나라를《혁명적인 현대음악의 조국》이라 부르고있다.

【미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의 미술을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교시가 철저히 관철된 결과 일대 개화발전을 이룩하였다.

1972년에 조형미술분야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만수대의 높은 언덕우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한 력사의 대 기념비를 일떠세운것이다.

총부지면적 24만여평방메터를 가진 이 대기념비의 정면중심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고 좌우에는 그이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혁명력사를 반영한 대기념비인 항일혁명투쟁탑과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탑을 건립하였다.

이 두 탑의 높이는 각각 22.5메터, 조각상들의 평균높이는 5메터, 조각군상의 길이는 50메터이고 총연장길이는 200메터, 조선혁명박물관 정면벽면에 새겨넣은 화강암쪽무이벽화의 길이는 70메터, 높이는 12.85메터이다.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주제로 한 오른쪽탑의 조각군상은 119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주제로 한 왼쪽탑의 조각군상은 109상, 량편군상 228상이며 또한 이 조각군상의 뒤부분에는 수령님의 세계혁명에 관한 사상과 반제반미전략의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주는 6상의 조각상을 형상하였다.

대기념비의 표현 형식과 수법들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회화형식인 조선화의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화폭과 간결하고 선명하고 섬세한 표현방법들을 대기념비의 사상미학적요구에 부합되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것으로 사실주의적기념비발전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

대기념비의 형상에서 훌륭하게 해결한 중요한 성과의 또 하나는 인물형상에 있어서의 성격화의 심오성과 세부표현의 진실성, 생동성을 이룩한것이다.

이 대기념비는 혁명미술의 빛나는 본보기로 되며 혁명미술창조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미학리론적 및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고있다.

1972년에 우리의 미술가들이 창작한 조선화《간삼봉전투를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희샤즈거우밀영에서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에 파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조국으로 진군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혁명의 새싹을 키우시여》,《녀성고사총수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미술작품들은 우리의 조선화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채색화로 더욱 발전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무대미술에서 또한 새로운 독창적인 형식이 창조되였다. 종래의 가극에서는 무대미술이 거의 같은 상태에 고착되여있었다면 혁명가극에서는 생활이 발전하고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무대도 바뀌고 환경을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관람자들로 하여금 발전하고 변화하는 생활을 그대로 다 볼수 있게 하였다.

【무용】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1년 10월 2일 강원도립예술극장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시고 노래와 춤을 배합시키는 형식들이 좋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생활자체가 그러

니만큼 노래와 춤은 아름다와야 하며 각각 자기 특성들을 살려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그래서 어느 하나에 다른것을 종속시키지 말고 배합시키는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가극창작에서 필요한 장면에 무용을 잘 배합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형상이 부각될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1972년에 내놓은 불후의 고전적명작《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꽃파는 처녀》의 무용형상은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가극에 무용을 잘 배합한 빛나는 본보기로 된다.

1972년에 창작된 가무 《강반석어머님께서 지으신 혁명의 첫군복》, 《영원히 꽃펴갈 봉화산의 배나무》, 《어둠을 밝혀준 홍룡촌의 불빛》, 제창가무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녀성해방의 북소리》, 노래와 춤 《수령님 말씀대로 누에를 많이 치자요》를 비롯한 많은 무용작품들은 우리의 무용가들이 인민예술의 기본형식의 하나인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형식의 무용작품창작을 위하여 얼마나 정열을 쏟아부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노래에 무용을 배합시키면서 우리의 무용가들은 1972년에 군무《김일성장군님 만수무강축원합니다》, 가무이야기 《수령님께 드리는 남녘녀성들의 충성의 붉은 마음》, 체육무용《우리도 일당백》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무용작품들도 수많이 내놓았다.

【무대예술】혁명가극;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예술, 인민들이 좋아하는 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강하게 내세우고있습니다. 우리는 가사를 하나 써도 누구나 다 알아볼수 있는 가사를 쓰며 노래를 하나 지어도 누구나 다 부를수 있는 노래를 짓도록 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이 혁명가극〈피바다〉를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극은 아주 통속적입니다.》(《일본전국혁신시장회 대표단과 한 담화》, 단행본, 17페지)

우리의 문학예술인들은 우리 나라 가극전통의 깊은 뿌리를 이루고있는 불후의 고전적명작《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피바다》를 무대에 올려놓음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가극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으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혁명가극의 빛나는 본보기를 마련하였다.

1972년에 우리 예술인들은 《피바다》식 가극창작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를 집대성하고 가일층 발전시킨 계급교양의 위대한 교과서 혁명가극《꽃파는 처녀》를 무대에 올렸으며 공산주의적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한 혁명가극《밀림아 이야기하라》를 혁명적대작으로 창조해 냈다.

1930년 오가자에서 창작공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꽃파는 처녀》는 우리 당 혁명가극전통의 불멸의 재부의 하나로서 꽃분이일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1920년대로부터 1930년대초에 이르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나라잃은 민족, 계급사회에서 억압받고 착취받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고통과 슬픔이란 어떤것인가를 비할바없이 심오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 재난의 운명을 끝장내는 길은 오직 하나 혁명의 길뿐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낸 걸출한 혁명적대작이다.

혁명가극《꽃파는 처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가극건설에 관한 탁월한 사상을 구현한 《피바다》식 혁명가극창작의 제 원칙과 형상방도를 한층 더 심화발전시키고 당의 절가화방침을 관철하여 가극음악의 절가화를 완성하였으며 가극의 가사와 노래, 무대미술을 전례없이 발전시킨 혁명적가극예술의 새로운 본보기이다.

이 모든 특출한 성과들로 하여 혁명가극《꽃파는 처녀》는 우리 시대 혁명적가극예술발전의 높은 단계를 이룩한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로 되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극예술의 불멸의 기치로 우리 가극예술의 세계적수준을 유감없이 시위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숭고한 혁명정신을 보여주는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도 그 주제사상적내용에 있어서나 전형적성격의 창조에 있어서나 극구성과 음악형상에 있어서 혁명가극 《피바다》의 모범에 철저히 의거하여 창작된 혁명적대작이다.

혁명가극《밀림아 이야기하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더욱 더 단련되고 성장해가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이며 공작원인 최병훈의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불굴의 혁명적의지, 숭고한 공산주의적인간성과 혁명적락관주의 등을 영웅서사시적 음악형상속에서 웅심깊게 보여주고있다. 혁명가극《밀림아 이야기하라》는 절가와 방창, 그에 기초한 음악극작술의 생활력에 깊이 파고듦으로써 가극음악을 한걸음 더 발전시키고있다.

이 혁명가극에서 무용과 미술은 음악과 함께 종합예술로서의 가극의 특성과 기능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연극; 1972년에 연극부문에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적조선인민군군인들의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불굴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연극《첫 땅크병들》(조선인민군붉은기연극단창조), 《충성의 한길에서》(강계연극단창조), 《새땅의 력사》(천리마신의주연극단창조)등 수많은 연극작품들을 내놓았다.

이해에 나온 연극작품들중에는 어느 한 제강소강철전사들의 벅찬 로력투쟁모습을 형상한 연극《충성의 길》(청진연극단창조), 남조선의 한 변호사가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는 과정을 형상한 연극《한 변호사가 찾은길》(원산연극단창조)을 비롯하여 장막서사시극들인 《금골의 노래》(천리마함흥연극단창조) 《100리청춘과원》(천리마해주연극단창조)등도 들어있다.

【영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6년 2월 4일 교시에서 혁명에 대하여 인식하는 측면, 혁명에 대한 결심, 공작하는 과정, 혁명가의 모범적행동 등 이런것을 영화에서 보여주어야 인간의 내면세계를 그려낼수 있으며 사람들의 세계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문예사상이 철저히 구현되여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는 우리의 영화예술은 당보의 사설과 같이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당정책에 철저히 립각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 일으키는 호소성이 높고 전투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특징지어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영화제작사업에 복무하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1947년 2월 6일에 창립), 조선기록영화촬영소(1946년 7월 1일에 창립), 조선교육과학영화촬영소(1971년 5월 13일에 조선과학아동영화촬영소의 기구를 개편하고 창설)들에서는 1972년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영화들을 수많이 창조하였다.

1972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예술영화 21편, 과학영화 30편, 아동영화 12편을 제작하였다.

예술영화부문에서 1972년에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불후의 고전적명작《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천연색광폭예술영화《꽃파는 처녀》(조선예술영화촬영소제작)를 내놓은것이다.

이 영화의 중심에 서있는 꽃분이는 처음에 너무나도 착하고 순박한 농촌처녀였다.

그는 온 가족의 불행으로 하여 가슴가득히 설음을 담고있으나 애오라지 어머니병을 고쳐드려야 한다는 절절한 념원을 안고 부지런히 꽃을 판다.

작품은 이러한 천진한 소망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또 짓밟힐 때의 꽃분이

의 심리세계의 움직임과 계급적자각성과정을 섬세하고도 진실한 예술적형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그리하여 작품은 사람들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게하며 그들에게 혁명의 길을 가리켜주는 더없이 귀중한 교과서로 되고있으며 사실주의적일반화의 면에 있어서나 영화음악에 있어서나 우리 영화예술의 빛나는 본보기로 된다.

이와 함께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1972년에 불후의 고전적명작《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 《피바다》를 상, 하편의 영화로 촬영하였다.

1972년에 영화부문에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겨놓은 본보기를 따라 다양한 주제의 영화들을 수많이 내놓았다.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창조성원들은 언제나 로동자들과 농민들, 근로녀성들과 군인들속에 계시면서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화폭에 담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천연색장편기록영화들인 《위대한 전변에로 이끌어 주신 어버이수령님》, 《풍년을 마련하여 주신 어버이수령님》,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노래합니다》, 《주체의 빛발은 온 누리에 비친다》를 내놓을수 있었다.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 위대한 생활력, 그이의 덕성을 보여주는 기록영화 《파수의 나라》도 내놓았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창조적열정으로 들끓고있는 우리 로동계급의 영웅적형상에 바쳐진 광폭예술영화《압연공들》을 만들어 내놓았다.

영화는 수령님께서 1956년 력사적인 12월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높이받들고 강선의 로동계급이 공칭능력을 단 1년동안에 2배나 뛰여넘어 6만톤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재를 생산해 낸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담고있다.

영화는 긍정인물과 부정인물간의 갈등관계로가아니라 공산주의적혁명사상과 부르죠아사상잔재와의 심각한 대립과 투쟁에서 극성을 찾고있으며 준엄한 계급투쟁의 환경속에서 낡고 썩은 모든것을 불살라버리고 하나로 뭉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전진운동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영화가 담고있는 이처럼 심오한 주제사상적내용으로하여 로동계급형상창조에서 거둔 특출한 성과작으로, 영화예술발전에서 이룩한 또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로 된다.

이와 함께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이미 세상에 알려진 인민상계관작품인 시극《보통강의 서사시》가 담고있는 이야기내용을 기본줄거리로하여 광폭예술영화 《보통강반에 깃든 이야기》(1, 2부)를 만들어 내놓았다.

영화는 보통강반에 이룩된 거대한 전변과 주인공 광춘이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걸어온 우여곡절에 찬 생활로정에 대한 폭넓고 심오한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천지개벽과 륭성번영하는 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하고 문명하게 살아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이 실현된 위대한 혁명력사에 대한 훌륭한 창조로 된다.

특히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내놓은 예술영화 《우리 렬차판매원》은 우리 영화예술발전에서뿐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

영화는 주인공 선희를 비롯한 렬차판매원들과 상업일군들의 형상을 통하여 렬차상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 정책을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다.

그러나 이 영화의 본질적인 의의는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데 있으며 심각한 내용으로 사람들을 높은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고 당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며 인민을 위하여 충실하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도록 교양하는데 있다.

심각한 사상투쟁의 화폭, 예술영화 《우리 렬차판매원》은 영화의 주인공 선희와 같이 자기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여왔는가, 혹은 상업지도원과 같은 사상경향이 없었는가하는것을 다시금 돌이켜보게한다.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에서 창조한 광폭예술영화 《영원한 전사》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정치공작원인 주인공 석철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선렬들의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혁명적의지, 혁명적강인성을 보여주고있다.

이밖에도 이해에 창작된 혁명전통주제부문의 영화들로는 예술영화 《첫걸음》이 들어있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인민상계관작품인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을 영화로 촬영하였다.

1972년에 나온 군사물주제의 예술영화로는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에서 내놓은 《목란꽃은 다시 피였다》가 있다.

1971년에 제작한 예술영화《목란꽃》의 속편으로 만든 이 영화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한 녀성정찰병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자기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그의 무조건적인 실천, 그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이밖에도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군사물주제의 예술영화《화선에서 부르던 노래》, 《한 대오속에서》, 《초병의 안해》와 반간첩투쟁예술영화 《모략을 짓부시고》를 만들어 내놓았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광폭예술영화 《연풍호》(전후편)을 만들어 내놓았다.

영화는 우리 나라 농촌이 어떻게하여 《관개의 나라》로 되였으며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였던 물에 대한 념원이 어떻게 풀리게되였는가하는것을 연풍호건설과정을 통하여 훌륭하게 해명하였다.

천리마기수들의 창조적로력투쟁과 그들의 보람찬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들로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천연색광폭예술영화《공중무대》, 천연색예술영화 《재단사》, 예술영화 《그들의 교훈》등이 들어있다.

또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흠모하며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는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을 진실하게 형상한 예술영화《이 물길은 막지못한다》를 비롯한 조국통일주제의 영화도 내놓았다.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에서는 아동교양에 이바지할 수많은 인형, 만화, 그림 영화들과 함께 과학영화《누에치기에서의 새로운 방법》을 비롯하여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 이바지할 《자동화를 널리 받아들이자》, 《탄캐기에서 기계화》, 《벼농사에서 종합적기계화》, 《익힌국수》등 과학영화들을 만들었다.

【문학예술의 대중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문학과 예술을 즐기고있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참가하고있습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참말로 인민대중의것으로 되였으며 새 사회의 건설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강력한 무기로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379페지)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문학예술창작의 전문기관들과 각 사회단체 그리

고 출판보도기관들은 광범한 대중속에서 문학예술창작사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도록 각양한 방법과 다양한 형식의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1972년에 진행한 신인문학작품현상모집에서만도 수천수만의 로동자, 농민, 사무원, 군인,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각부문의 전국예술소조경연대회에도 또한 수많은 군중들이 참가하여 자기들의 일상생활에서 꽃피워온 예술적재능을 마음껏 보여주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진행한 전국신인문학작품현상모집에는 근 4천편에 달하는 문학작품들이 들어왔는데 단편소설《첫수업》, 《끌짜기에서》, 장시《위대한 태양의 나라》, 동시《독립》을 비롯한 수십편의 우수한 작품들이 당선되였다.

조선영화문학창작사에서 조직한 신인영화문학작품현상모집에 들어온 2천여편의 영화작품들중에서도 《새 일터에서》, 《기적소리》, 《정다운 나의 거리》를 비롯한 수많은 우수한 영화문학작품들이 나왔다.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에서도 과학영화문학작품현상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진행한 전국신인음악작품현상모집에는 근로대중속에서 수천편에 달하는 가요, 병창, 독주, 중주, 취주악, 관현악 곡을 보내왔는데 가요《유서 깊은 봉화리》, 《수령님의 해빛아래》, 《수령님 모시고 길이 살리라》, 민족기악중주《수령님 모시고 시운전하는날》 등을 비롯한 우수한 음악작품들이 당선되였다.

근로대중속에서 창작된 우수한 작품들로 신인단편소설집《자애로운 품속에서》, 신인문학작품집《새 령마루우에로》,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로동자문학작품집《희천의 봉화》를 묶었다. 잡지《청년문학》, 신문《대중문예》를 비롯한 수많은 출판물에 발표된 신인예술작품들은 대중교양사업에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문학예술교류】 평양피바다가극단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예술단은 1971~1972년에 이르는 기간 세계 근30여개 나라에 진출하여 공연하여 우리의 주체예술의 비약적인 발전면모를 온세상에 시위하였다.

1972년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상해무용극단은 평양, 함흥, 원산 등지에서 혁명적현대바레《백모녀》, 《붉은 녀성중대》와 피아노협주곡《황하》를 공연하였다.

또한 5월 23일 평양대극장에서는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의 《연안문예좌담회에서 한 연설》발표 서른돐을 기념하는 조중 두 나라 문학예술인들의 련환대회가 있었으며 련환대회경축합동예술공연도 진행되였다.

그리고 이해에 쏘련국립모스크바합창단(7월)과 꾸바농촌민요단(5월), 로므니아 떠미쇼아라《바나뜰》가무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공연하였다.

《조선의 주체예술은 세인을 경탄케하는 세계최고봉의 혁명적예술》

—《1972년은 조선예술의 해》로 세계인민들속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인류문화의 최고봉에 찬란한 금자탑을 세운 우리 나라 주체예술은 온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1972년에 까룰로비 바리에서 진행된 국제영화축전에서 불후의 기념비적명작《꽃파는 처녀》는 세계영화축전력사상 전례를 깨뜨리고 특별상을 받았으며 평양피바다가극단의 알제리와 로므니아, 쏘련 방문공연은 그나라 인민들을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커다란 예술적감흥으로 들끓게 하였다.

평양만수대예술단과 평양예술단의 공연은 구라파의 프랑스와 스위스, 동남아세아의 파키스탄과 아프리카의 애급 땅을 혁명적이면서도 황홀하고 우아한 극치의 예술로 뒤흔들어놓았으며 스웨리예, 핀란드, 노르웨이, 모리따니, 꽁고, 애급에서 진행된 우리 나라 영화상영주간은 《새 시대의 새 영화의 탄생》을 알리며 이나라 사람들을 전례없는 감격과 흥분으로 들끓게 하였다.

모스크바와 뿔스까에서의 우리 나라 미술전람회와 평양교예단의 몽골방문공연도 그 나라 인민들속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있는 작품들은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인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의하여서만 창조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9폐지)

실로 우리 나라 예술은 수령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의 빛발아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높은 예술적형상속에 담음으로써 온세상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피바다〉는 위대한 혁명사상과 높은 예술성을 완벽하게 구현하고있는 종합예술로서의 가극의 본보기》;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상상을 초월하는 최고봉의 가극》, 《진정으로 혁명적이고 인민적이며 사회주의 사실주의적인 세계1등급의 가극》, 《혁명가극〈피바다〉는 현시대의 가극의 시대의 전형이며 현대예술에서의 기적이며 대사변이다》라고하면서 진정으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혁명가극《피바다》가 태여난데 대하여 솟구치는 기쁨을 금치못하고있으며 가극사발전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진데 대하여 경탄을 금치못하고있다.

모스크바대극장에서 일하는 한 일군은 혁명가극《피바다》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가극이다. 지금까지 가극분야에서는 주로 고전적인 작품들을 취급한것이 상례로 되여있고 현대성에 관한 주제는 감히 어느 누구도 취급하지 못하고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이번 평양피바다가극단이 공연한 혁명가극〈피바다〉는 가극분야에서 혁명투쟁에 관한 현대적주제를 훌륭히 해결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로므니아의 한 안내원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공연은 대단하다. 지금 사람들은 옛날것을 싫어하며 새것을 지향하고있다. 우리 극장에서 서구라파가극을 공연하면 관객이 별로 없다. 그런데〈피바다〉공연을 구경하려고 물밀듯이 모여드는 사람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더욱 더 많아지고있다. 혁명가극〈피바다〉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는 예술을 감상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지향을 충족시키고있으며 새로운 가극예술발전의 문을 열어주었다.》

이것은 결코 쏘련의 한 극장일군이나 로므니아의 한 안내원의 목소리만이 아니다.

혁명가극《피바다》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에 대하여 한결같이 강조하고있다.

《만일 혁명가극〈피바다〉에 대하여 다만 종래의 구라파가극전통을 배경으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릇된 출발이다.》(로므니아신문《로므니아 리베라》)

《이런 혁명적인 내용의 가극을 무대에 올리기는 조선이 처음이다, 하나도

흠잡을데가 없다. 새로운 가극이 탄생하였다고 말할수 있다.》(쏘련의 한 보도일군)

《혁명가극〈피바다〉는 가극예술이 가져야할 위대한 혁명사상과 높은 예술성을 완벽하게 구현하고있으며 그것은 종합예술로서의 가극의 본보기로 되며 진실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가극의 시발점으로 된다.》(알제리신문《엘 무쟈히드》)

《조선예술인들은 가극예술의 폭넓은 형식들을 성과적으로 개척하고 발전시켰으며 그를 커다란 혁명적내용으로 충만시켰다. 여기에 조선가극의 미래의 담보가 있다.》(쏘련신문《쁘라우다》)

혁명가극《피바다》는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으며 혁명만이 살길이라는 생활과 투쟁의 진리를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만사람들의 가슴을 한없이 격동시키고 있다.

《이 가극은 대작입니다. 이 가극은 혁명적이고 공산주의적입니다. 이 가극은 공산주의교양의 위대한 학교이며 혁명의 교과서입니다. 이 가극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 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로므니아사회주의교양문화리사회의 한 지도간부)

《쏘련에서도 혁명적인 작품을 창작한다고 하지만 잘 되지않는다. 혁명가극〈피바다〉는 젊은 세대들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매우 귀중하다.

당신들의 작품은 대단히 훌륭하다. 관람자들이 혁명대렬속에 들어있는 감을 준다. 당신들은 이 작품을 가지고 모스크바에서 공연함으로써 모스크바에서 혁명을 한것으로 된다.》(쏘련 레닌공산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고급학교의 한 지도원)

《〈피바다〉는 아직 암흑속에서 깨여나지 못한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지구상에서 착취와 압박, 천대와 멸시를 청산하며 세계인민들이 모두다 행복하게 살도록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가극은 표한장에 천원씩한대도 진정으로 혁명을 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볼것이다.

이 가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반영하고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혁명가, 맑스-레닌주의자들에게는 이 가극을 응당 보아야 할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다.》(알제리에 있는 튜니지의 한 청년)

《영화〈꽃파는 처녀〉는 의심할바없이 사회주의사실주의영화예술의 최고봉이며 그의 위대한 승리이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혁명과 투쟁의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는 참된 교과서이다》; 불후의 기념비적명작인 영화《꽃파는 처녀》가 일으킨 세계적파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까를로비 바리 국제영화축전에서 이 영화에 특별상과 특별메달을 수여한후 축전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한 다음과 같은 말을 생각하게 된다.

《당신들이 받은 상은 보통상이 아니다. 규정된 상과는 대비가 안된다. 다른 그 어떤 영화도 당신네 영화와는 비교할수 없다. 당신들의 영화는 특별한 영화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는〈꽃파는 처녀〉에 특별상을 주기로 결정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많은 토론끝에 바리 국제영화축전상규정에 어긋나고 축전력사에도 없는 일이지만 특별상을 주기로 결정한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겠다. 진정 조선영화의 위대성에 대하여 축하를 보낸다.》

실로《기적과도 같이 나타난〈꽃파는 처녀〉》는 수십년의 력사를 가진 세계영화계를 뒤흔들어놓았으며 만사람들의 가슴을 감격과 흥분으로 설레이게 하고있다.

《나는 헬싱키에서 여러 나라 영화들을 보았지만 〈꽃파는 처녀〉와 같이 내용이 깊고 예술적으로 성공한 영화는 아직 보지못하였다.》(핀란드 헬싱키병원의 간호원 에바리싸까야스)

《이 영화는 진실로 인민을 위한 영화이다. 지금 다른 나라 영화들은 누구를 위한 영화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나 당신들의 영화는 인민을 위하여 만든것이다.

사회주의사실주의작품으로 되려면 이 영화처럼 되여야 한다.》(쏘련의 레닌상계관자이며 평론가인 쑤르꼬브)

《〈꽃파는 처녀〉는 완전무결한 영화이다. 이 영화가 까를로비 바리 국제영화축전에서 특별상을 받은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조선의 영화예술이 사상예술성으로 보나 기술적면으로 보나 세계최고봉의 수준에 올라섰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핀란드 헬싱키 상인 또이보 헤이노)

《〈꽃파는 처녀〉는 아주 놀랄만한 훌륭한 예술적경지에 도달한 1등급의 영화이다. 이 영화는 의심할바없이 사회주의사실주의영화예술의 최고봉이며 그의 위대한 승리이다.》(노르웨이에 있는 쏘련의 한 기자)

《영화〈꽃파는 처녀〉를 보니 영화예술발전의 전망에 대하여 락관적인 희망을 가지게 된다.

〈꽃파는 처녀〉는 세계영화발전의 앞길에서 영원히 새별처럼 빛날것이다.

조선영화만이 영화발전의 길에서 선도적역할을 놀수 있다.》(핀란드의 한 배우)

불후의 고전적명작인 영화《한 자위단원의 운명》도《꽃파는 처녀》와 함께 그에 담겨진 심오한 혁명적내용, 절박한 시대정신, 숭고한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만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보고 나는 많은 감동을 받았다. 풍부한 사상적내용을 가진 이 영화는 인민들을 투쟁에로 고무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준다. 이 영화는 사상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완전무결한것으로 하여 노르웨이사람들의 심장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노르웨이 영화리사회위원장)

《나는〈한자위단원의 운명〉을 보고 확실히 주체의 나라의 영화가 다르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이 영화는 혁명적인민들에게 착취자와 압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하자면 어떻게 싸워야하는가 하는 혁명과 투쟁의 위대한 진리를 예술적화폭으로써 생동하게 밝혀주는 참된 교과서이다.》(핀란드 헬싱키종합대학 철학부의 한 학생)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억압받는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

나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 주먹을 몇번이나 거머쥐였는지 모른다.

조선인민처럼 혁명성이 강한 인민이 아니고서는 이런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낼수 없을것이다.》(노르웨이의 한 녀성로동자)

《나는 오늘〈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보고 몹시 흥분하였다.

이 영화는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주인공과 더불어 혁명의 길에 나서게 하는 강한 충격을 안겨준다.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된다. 나는 이 영화가 사회주의사실주의영화예술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핀란드헬싱키종합대학학생 쌀로빈)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 안겨 행복을 마음껏 노래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을 주제적내용으로 한 영화들도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예술영화《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보고 커다란 감동을 받은 미국인학생 토마스는《〈세상에 부럼없어라〉—진정 조선인민은 이 세상에서 부러울것이 없는 가장 행복한 인민이다.》라고 말하

였으며 노르웨이영화협회의 한 일군은 《생활의 랑만으로 가득찬 이런 영화가 서구라파에서 나오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다.》고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술영화《금강산 처녀》를 본 스웨리예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나는〈금강산 처녀〉를 보고 조선의 산파 물이 아름답고 맑을뿐만아니라 조선인민이 고상한 품성의 소유자라는것을 느꼈다. 산좋고 물맑은 금수강산의 금강산처럼 아름다운 조선영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틀어잡았다.》라고 말하였다.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항공회사의 한 직원이 격동된 심정으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계에서는 해마다 많은 영화들이 제작되고있으나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영화는 얼마되지 않으며 세계영화계를 뒤흔들어놓고 사람들의 심장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을 영화는 몇년만에 한편나오기도 힘든 일이다.》

세계영화예술의 발전력사우에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같은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리고있는 우리 나라 주체영화의 위대성에 대하여 세상사람들은 《조선영화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세계영화예술의 수준을 한계단 더 올려놓았다.》, 《조선의 주체영화는 세계영화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고 하면서 경탄을 금치못하고있다.

《평양만수대예술단과 평양예술단의 공연으로 세계예술의 꽃밭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평양만수대예술단과 평양예술단의 공연을 본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은《푸른 호수처럼 맑고 활짝핀 진달래처럼 아름다운 조선예술에서는 예술의 진미가 금강석처럼 반짝이고있다.》, 《만수대예술단은 단 한번의 공연으로 빠리시민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평양예술단은 유구한 문화의 발생지의 하나인 인다스강기슭에 혁명적예술을 선물로 가져왔다.》고 하면서 감탄하였다.

세상사람들이 말한바와 같이《평양만수대예술단과 평양예술단의 공연으로 세계예술의 꽃밭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우리 나라 음악과 무용은 시대의 정신, 시대의 맥박을 충분히 반영한 심오한 사상성이 우리 시대 사람들의 미감에 맞는 우아하고 매혹적인 높은 예술성과 원숙하게 결합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황홀케하고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천리마조선의 예술은 위대한 사상과 풍부한 감정을 표현한 독특한 예술이다. 당신들의 예술은 특등급의 예술이다.》(프랑스 빠리의 한 인쇄소 지배인)

《조선의 예술이야말로 세계1등급의 예술이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예술이다.》(이딸리아인 기술자 가스빠르)

《조선의 예술은 히말라야보다 더 높이솟은 예술이다. 조선예술단의 높은 예술성, 세련된 기교에는 그 어떤 예술단도 비교되지 않는다. 노래는 조선의 푸른 하늘처럼 맑고 진달래꽃같이 아름다우며 춤은 우아하고 매혹적이고 황홀하다.》(프랑스의 예술평론가 디나로제)

《공연전반이 말 그대로 하나의 시라고 할수 있는 훌륭하고 황홀한 공연이다. 모든 종목들이 다 자기의 특징을 가지고있고 예술적으로 완전무결하기 때문에 어느것이 더 좋다고 말할수 없다. 모든 종목들이 좋지만 특히 나의 마음을 끄는것은〈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와〈사과 풍년〉, 〈부채춤〉등의 무용들이다. 나는 무용에서 하나의 기적이라고 할수 있는 조선무용을 보고 무용예술의 새로운 세계를 감각하였다.》(프랑스 국제문헌쎈터 총서기 미셸 뻬뚜이)

《조선의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싶고 그 심오하고 생신한 노래의 세계속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

나는 세계 많은 나라 노래를 감상하고 또 연구도 하였지만 조선노래처럼 혁명적인 랑만과 풍부한 서정으로 가득찬 노래는 일찍 들어보지 못하였다.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는 통속적이며 민족적인 선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대적미감의 최고경지에 오르고있는 당신네 노래들을 들으면서 나는 세계음악발전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고 심장으로 환성을 올렸다.

특히 나는 녀성중창단이 부른노래〈일편단심 붉은마음 간직합니다〉의 심장에 호소하는듯한 그 은은한 선률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애급의 한 예술인)

프랑스신문《꽁바》는 《빠리의 샹제리제극장을 유명하게 만든》 평양만수대예술단의 공연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만일 당신들이 꿈나라로 가는것 같은 공연을 좋아한다면, 만일 당신들이 깊은 사색에 잠기고 은은한 생활의 노래를 듣기를 희망한다면, 만일 당신들이 아름다운 조화와 우아한 미를 볼것을 원한다면 어서 샹제리제극장으로 가시라, 그러면 당신들은 곧 평양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을 보고 생활의 행복을 느끼게될것이다. 당신들은 밝은 아침의 나라의 향기를 맡게될것이며 매혹되고 말것이다.》

세상사람들은 또한 사상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가장 건전하고 세계적인 경지에 오른 조선예술이야말로 썩어빠진 자본주의예술을 매장하고 시대와 미래를 대표하는 불멸의 예술이라는데 대하여 한결같이 강조하고있다.

《나는 조선예술에서 가장 귀중한것이 건전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이라고 생각한다. 당신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사실 천리마조선의 예술은 진부한 문화를 폭로비판하고 진정한 예술의 앞길을 밝혀주는 훌륭한 본보기이다. 나는 오늘 난생 처음 그야말로 진짜예술을 보았다. 나는 이런 진정한 예술을 세계각국에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프랑스 과학실험연구소 교수 모리스 본내)

《조선예술단의 공연은 지금 한창 류행되여 인간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며 타락시키고 있는 상품화된 예술에 대한 타격으로 되며 예술이 나아갈 길을 가리켜주는 사변이다. 나는 조선예술과 같이 건전하고 아름다운 예술이 사회의 발전과 인간의 교양에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예술이 머나먼 동방의 밝은 아침의 나라에서 빛나고있음을 보고 기쁨을 느꼈다.》(프랑스해운회사 사무원 앙드레 미아라)

《나는 외국에서 5~6년동안 살면서 많은 서구라파나라들의 예술을 보았지만 오직 조선예술만이 나의 마음을 끌었다.

조선예술은 자본주의사회의 낡고 썩어빠진〈예술〉의 멸망을 선고하고 그의 매장을 촉진시키고있으며 인류의 예술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였다.》(일본의 한 진보적기자)

우리 나라 주체예술의 빛발은 부패타락한 부르죠아예술의 구름장을 날려보내며 세상사람들의 심장속으로 더욱 억세게 흘러들었다.

파키스탄의 이름있는 한 예술인은 다음과 같이 격조높이 말하였다.

《나는 이미 당신들의 예술공연을 보고 아무리 최고의 표현을 써도 조선예술이 올라선 높이와 그 진가를 100분의 1도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만물은 태양의 빛에 의하여 싹트고 꽃피며 열매를 맺는다. 전세계적인 예술발전의 견지에서 볼때 조선예술은 마치 태양과도 같다. 조선예술은 태양과도 같이 세계예술의 개화발전을

위해 빛을 뿌리고있다, 세계의 예술은 앞으로 이 태양의 빛을 받아 화원마냥 꽃필것이다.》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교예》, 《현대미술은 바로 이렇게 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 평양교예단의 공연은 세상사람들속에 《뚜렷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은 혁명적교예》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몽골의 울란 바따르 교원대학의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교예는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을 보여준 전투적인 교예이며 높은 정치성을 가지고있는 혁명적인 교예이다. 조선의 교예공연은 지금 울란 바따르시를 흔들어놓고있다. 나는 이처럼 훌륭한 공연을 처음보았다.》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을 보여준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교예》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교예는 울란 바따르시의 광범한 사회계에 다음과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아주 훌륭한 교예이다. 배우들이 기교도 있고 용감하다. 미제를 폭로하는 막간극도 아주 좋다. 조선교예는 사상성이 강하며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교예이다.》

우리 나라의 미술 또한 세상사람들을 크나큰 흥분과 감격으로 들끓게하였다.

쏘련의 수도 모스크바와 뽈스까의 수도 와르샤와에서 진행된 우리 나라 미술전람회를 본 세상사람들은《조선의 미술작품들은 인물들이 산 사람과 같이 생동하고 선명하며 보고 또 보아도 감탄을 금할수 없다》고하면서 찬사를 아끼지않았다.

쏘련의 미술가 니나 표도로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람회에 전시된 작품들을 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는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라는데 대하여 나는 더 잘 알게되였다.

그이의 인자하시고 환한 모습은 나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들은 모두가 다 높은 예술적기교를 보여주고있다.》

《나는 당신들의 전람회를 보고 대단히 감동되였다. 특히 모든 그림들이 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한것이 나를 몹시 흥분케하였다. 예술은 바로 이렇게 되여야한다. 당신들의 작품은 높은 예술적경지에 도달하고있다.》(뽈스까 문화예술성 조형예술담당부국장)

《나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기때문에 예술에 대해서는 깊은 조예가 없지만 당신네 그림들과 공예품들을 보니 흥분을 억제할수 없다. 현대미술은 바로 이렇게 되여야한다. 참으로 훌륭한 작품들이다.》(쏘련의 기상천문학연구사 왈렌찌나 니꼴라예바)

이것은 결코 그들 혼자만의 심정이 아니였다. 참된 예술의 오늘과 래일에 대하여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우리 예술의 이 영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 현명한 령도, 크나큰 배려를 떠나서는 상상할수 없다.

우리 나라의 혁명적예술을 칭송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것을 심장으로 느끼며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어느분께서 지난날 식민지였던 조선을 오늘의 자립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고 혁명적예술이 활짝 꽃피게 하셨는가?

그분께서는 바로 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이시다.

관중들의 대절찬과 열렬한 환호는 배우들에게 차례지는 행복인데 그 행복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있음으로하여 당신들에게 차례지는것이다.》(프랑스령소말리아의 한 청년)

《오늘 내가 본 눈부시고 휘황한 당신들의 예술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정확한 령도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었다. 당신들은 그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있기에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파키스탄의 녀성활동가 아이야 이망)

《우리는 조선예술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몇번이나 맘속으로 삼가 축원하였다.》(파키스탄 대학생 스프라아)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문예사상의 해발이 앞길을 비쳐주기에 우리 나라 예술은 혁명적예술, 《세계최고봉의 예술》로 개화발전하고있는것이다.

《세계적수준을 초월하는 특등급의 예술》, 《조선인민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혁명하는 시대의 완전무결한 예술을 창조하였다》, 《조선예술은 세계예술발전의 앞길에서 영원히 새별처럼 빛날것이다》《주체예술 만세! 혁명적예술 만세!》

우리 나라의 주체예술을 찬양하는 목소리는 이처럼 온세상에 힘있게 울려퍼지고있다.

세상사람들은 세계예술생활의 견지에서 볼때 《1972년은 조선예술의 해》라고 자랑높이 말하고있다.

군중문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인민속에 있는 재능을 찾아내고 발양시켜 로동하는 사람들자신이 가는 곳마다에서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고 예술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30폐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정치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 잡지, 도서들을 대량적으로 발간하며 도서관, 영화관, 극장, 구락부들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내각결정 제6호 (《군중문화사업과 대중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할데 관하여》, 1962년 1월 31일)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문화회관, 구락부 및 선전실 등 군중문화기관들을 전망성있게 잘 꾸리고 군중문화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1972년말현재 우리 나라에서 큰 극장과 영화관만하여도 매개군에 평균 5개이상되며 구락부와 농촌문화선전실까지 합치면 헤아릴수 없이 많다.

【박물관】조선혁명박물관; 1948년 8월 1일에 창립된 조선혁명박물관은 평양만수대에 새로 건립(총건평 5만 3천 7백여평방메터, 95개의 진렬실, 전시품들의 총연장길이 4.5키로메터)되여 1972년 4월 25일 개관하였다.

보천보혁명박물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기 위하여 량강도 보천군 보천읍에 건설한 이 박물관은 1955년 8월 7일에 개관하였다.

보천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7년 6월 4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여 《철통》같다던 일제의 《국경경비진》을 돌파하고 조국에로 진격하시여 조국광복의 홰불을 지피신 영광의 혁명전적지이다. 따라서 보천보혁명박물관은 김일성동지의 국내진공작전과 관련된 문헌 및 사적자료들을 보다 심오하게 연구하고 수집보충하여 전시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이께서 혁명활동에 나서신후 조국에로 개선하실 때까지의 20여년간의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시기별, 단계별로 체계정연하게 전시하였다.

조선력사박물관; 모란봉의 한복판에 자리잡고있는 조선력사박물관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배려에 의하여 해방후 새조선문화건설의 일환으로 1945년 12월 1일에 창설되였다.

이 박물관은 우리 나라 원시시대로부터 근세초기에 이르기까지의 력사유물자료들과 문헌자료들을 수많이 수집보관하고 있으며 지방의 력사박물관들에 대하여 모체적역할을 하고있다.

원시사회부문진렬실에는 우리 나라 력사의 유구성과 특수성, 당시의 사회경제적구조와 계급국가발생의 전제조건 등을 보여주는 직관자료들이 전시되여 있으며 노예소유자사회부문에서는 고대사회의 직관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봉건사회 및 근세초기 부문진렬실에는 우리 나라 봉건시대의 계급신분관계와 가혹한 봉건적억압착취상 및 이를 반대한 수많은 농민폭동들을 보여주는 자료들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거란, 몽골(원나라)과 근세초기인 19세기중엽부터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로 나타난 미일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인민들의 애국적투쟁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조선력사박물관은 인민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 복무하고있다.

조선민속박물관; 1956년 2월 10일에 창립된 이 박물관은 조선인민의 문화풍습을 력사적으로 보고 리해할수 있도록 우리 인민의 과거풍습으로부터 오늘의 사회주의적문화풍습까지를 포괄하고있다. 이 박물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생활기풍과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전람관을 새로 꾸리고 1970년에 개관하였다.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적문화풍습진렬에서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혁명적생활자료들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문화풍습형성의 뿌리를 밝혀주는 것으로써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또한 박물관은 민족문화유산발굴보존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지침으로 우리 인민의 과거문화풍습자료들과 사회주의적문화풍습자료들을 발굴, 수집하기 위한 현지자료조사와 유물수집사업, 자료들에 대한 과학적고증 및 보존,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조선민속박물관은 근로자들속에 혁명적생활기풍을 세우며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교양하는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조선미술박물관; 1954년 9월 28일에 창립된 이 박물관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술부문에 주신 교시 특히 1965년 3월 11일에 주신 현지교시와 1966년 10월 제9차 국가미술전람회를 보시고 주신 교시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이 창조해 놓은 귀중한 미술작품들과 해방후 우리 미술가들이 창작한 조선화, 유화, 출판화, 조각, 수놓이, 공예, 산업미술 등 각 부문의 미술작품들을 수많이 진렬하게 되였다. 여기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감명깊게 보여주는 고귀한 미술작품들이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다양한 주제의 미술작품들 가운데는 《김일성동지》(수놓은초상),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조선화), 《진격의 길에서》(유화),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유화), 《전선을 시찰하시는 최고사령관동지》(조각), 《농민들속에서》(유화),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오》(유화), 《락동강할아버지》(조선화), 《남강마을의 녀성들》(조선화), 《고성인민들의 전선원호》(조선화), 《세계도처에서 미제의 각을 떼내자》(포스터) 등 우수한 미술작품들이 들어있다.

박물관은 군중교양을 위하여 진렬실강의와 해설, 미술에 대한 대중강연과 강의를 진행하며 공장과 기관들에 나가서 하는 환등선전과 강연, 그림책발간과 출판보도수단을 통한 선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선전교양을 진행하고있다.

또한 기본진렬외에 림시전람회를 조직하며 이동박물관도 조직하여 공장과 농촌들에 널리들어가고있다.

신천박물관; 황해남도 신천군 신천읍에 있는 이 박물관은 1958년 8월에 창립되였으며 1960년 6월 25일《미제반대투쟁의 날》을 계기로 개관하였다.

이 박물관에는 100여년전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뻗쳐온 미제침략자들의 만행 특히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감행한 야수적인 살인, 략탈 만행을 폭로하는 자료들과 증거물들이 전시되여있다. 1866년 《샤만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해방전까지 감행한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략탈 만행을 폭로하는 자료들,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미제가 발굽이 닿는곳마다에서 감행한 인민학살만행을 폭로하는 자료들이 있다.

특히 1950년 10월 17일 신천땅을 강점한 미제는 52일동안에 그때 신천군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5,383명과 황해도 일대에서 12만여명의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만행을 폭로하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박물관주변에는 미제가 9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불태워 죽인 방공호, 미제야수들에 의하여 무참히 희생된 5,605명을 합장한 애국자묘, 910여명의 인민들을 불태워 죽인 원암리 밤나무골 2개의 창고와 그곳에서 학살된 400어머니묘, 102어린이묘 등이 있다.

이 모든 자료들과 전시품들은 미제야말로 현대의 가장 야수적이며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두발가진 승냥이라는것을 단죄하는 증거물로 되고있다.

【기념관】당창건기념관; 우리 당중앙이 처음으로 자리잡고 있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건물에 당창건기념관이 꾸려져 1970년에 개관하였다.

수령님께서 당 및 국가 건설의 복잡한 사업들을 조직지도하신 사무실들, 그이께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여 인민의 앞길을 가리켜주시고 나라일을 상론하신 회의실과 응접실 등 유서깊은 사적들이 기념관에 자리잡고있다.

기념관에는 수령님께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으시던 때로부터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로동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때까지의 그이의 혁명활동과 우리 당의 행로를 보여주는 수백점의 자료들이 7개의 진렬실들에 체계적으로 전시되여있다.

1~3호실에는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던 행정에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와 대중적지반을 마련하시고 당창건구상을 실현하신데 대한 자료들과 그이께서 조국에 개선하신 후 1945년 10월 10일 당창립대회를 소집하시고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심으로써 우리 당의 창건을 세상에 선포하신데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4~7호실에는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두리에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우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조직전개하신데 대한 자료들과 그이께서 당을 창건하신후 당을 더 한층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신데 대한 자료들이 있다.

기념관의 2층에는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조직위원회 제2차,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를 지도하신 회의실,

그이께서 당을 창건하시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업하시던 당시에 쓰시던 사무실이 옛그대로 있다.

기념관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우리 당 건설의 빛나는 력사와 고귀한 경험으로 교양하는 훌륭한 학교로 되고있다.

조국해방전쟁기념관; 이 기념관은 1953년 8월에 창립되였으며 1954년 8월 15일부터 개관하였다.

기념관은 11동의 전시관과 그밖에 전쟁승리기념탑, 전쟁승리기념문, 인민군동상, 야외진렬장으로 이루어져있다.

1~4호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보여주는 자료들, 조국해방전쟁(1950—1953년)을 승리에로 이끄신 수령님의 중요 군사작전과 당정치사업 방법을 보여주는 자료들, 그이의 령도를 받는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5~9호관에는 원쑤격멸에서 위훈을 세운 군종별, 병종별 투쟁자료들과 미제침략자들의 죄행과 패망상 그리고 영웅적 우리 인민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성원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야외진렬장에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인민군이 로획, 파괴, 격추한 미제침략군의 각종 군사기재들이 진렬되여있다.

기념관은 이러한 전시체계를 통하여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과 전략전술,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의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대중적영웅주의와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배우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군중문화회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평양에 중앙군중문화회관,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 소재지들에 군중문화회관, 공장, 기업소들에 로동자문화회관이 있다.

평양시만도 전문 극장, 영화관외에 180여개의 공장, 기업소 로동자문화회관이 있으며 수도시민 한사람당 극장, 영화관 관람석수와 관람회수에 있어서 이미 세계적수준에 올라있다.

이러한 문화회관은 근로자들을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문화혁명과업을 성과있게 관철케하는 거점으로 되고있다.

중앙군중문화회관; 경애하는수령 김일성동지의 1971년 4월 29일교시에 의하여 창설된 중앙군중문화회관은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들에 설치되여 있는 군중문화회관들의 운영에 대한 방법적지도사업, 예술소조책임자양성사업, 근로대중속에서 문학예술인육성사업, 군중가요 및 군중무용 보급사업, 전국예술소조경연과 종합공연 및 중요행사공연작품의 준비사업, 예술소조경연작품의 심사사업을 진행한다.

회관의 예술부에는 연출, 무용, 성악, 기악, 지도원들이, 창작부에는 작가, 작곡가, 안무가가, 미술부에는 미술가, 조명, 장치 지도원들이, 신인지도부에는 신인강습조직지도를 위한 예술가들이 배속되여있다.

중앙군중문화회관에서는 1972년에 15회의 예술소조경연을 조직진행하였으며 북청에서 전국군중문화일군강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안악, 순천에서 진행된 전국문화일군방식상학지도, 금성뜨락또르공장 대고조 기동선전대지도, 창성, 삭주, 보천보, 회천, 혜산 등 전국각지에서 예술소조운영사업의 지도를 하였으며 전국예술소조책임자들을 위한 강습을 하였다.

이와 함께 각 근로단체별 예술소조운영사업에 대한 지도를 하였다.

도, 시, 군 군중문화회관; 이 회관에는 예술소조지도부, 군중문화방법연구부, 창작지도부 등을 두어 군중문화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연구하고 일반화하며 예술소조들의 활동을 지도방조하며 군중문화일군들을 양성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3년 7월 4일 교시에서 군중문화회관들에서는 광범한 군중을 대상으로 하술강연, 위생강연, 시사강연 등을 30~40분씩하고 그뒤에 예술소조공연도 하고 명배우도 출연시키며 영화도 돌리면 매우 흥미있어 할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2년에 군중문화회관들에서는 당정책, 혁명전통, 국제국내정세, 문화위생, 과학기술 등의 내용을 가지고 강연회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영화감상, 영화감상토론 및 실효투쟁조직, 예술공연 및 경연, 청년기동선전대공연 등을 조직지도하였다.

또한 소설이야기모임, 독서발표모임, 노래 및 무용보급, 군중오락 등 계층별 특성에 따르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군중문화사업을 진행하였다.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1946년 10월 13일에 창설된 이 도서관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국가적문헌기지의 하나로서 나라의 사상, 문화, 기술 혁명에 이바지하고있다.

이 도서관은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을 비롯하여 혁명전통자료들 및 국내외의 수많은 출판물들을 1972년말현재 227만부이상 가지고있다.

이 도서관에서는 과학부문별, 계층별로 되는 수십개의 열람실들에서 독자들에게 문헌자료들을 볼수 있게하며 통신대출 및 이동문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도서를 대출하며 생산현장에 나가 현지열람사업도 조직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우리 나라 인쇄문화의 찬란한 력사를 보여주는 옛활자본들과 목판본, 정교한 수사본들도 보존하고있다.

또한 독자들의 출판물리용을 방조하기 위하여 새로 들어온 책들을 《련합통보》와 《신간통보》를 통하여 제때에 알려주고 있으며 도서전람회, 도서해제, 도서발표회, 과학발표회 등도 조직하고있다. 한편 전국의 모든 도서관들을 기술실무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방법문제들에 대한 참고자료들도 발행하며 도서관들의 우수한 사업경험을 연구일반화하는 사업도 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72년말현재 세계 4천여개(아세아 2천여개, 구라파 900여개, 아프리카 400여개, 미주 800여개, 대양주 100여개, 국제기구 200여개)의 도서관, 출판기관, 박물관, 연구소, 과학교육기관들과 도서관계분야에서의 련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널리 선전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과학도서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건설된 이 과학도서관은 1970년 10월 20일에 개관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과학도서관은 과학문헌기지의 하나로서 학생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 현대적과학지식보급에 이바지하고있다.

《ㅁ》자형으로 건설된 김일성종합대학과학도서관에는 200만권의 도서가 갖추어져 있으며 1천명이상의 열람자를 동시에 수용할수 있는 현대적설비로 꾸려져있다.

이 도서관은 관내에서의 도서열람과 함께 대출, 독자모임, 참고문헌발행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학생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하무장시키며 현대적과학기술지식을 충분히 소유한 민족간부로 양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시(구역), 군 도서관; 우리 나라에는 모든 도, 시(구역), 군들에 도서관이 있으며 도시 중심구역들과 로동자구에는 아동도서관이 설치되여있다.

또한 중요한 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농장 작업반들에도 도서관 혹은 도서실이 있다.

이 도서관들에서는 도서관호상대출 및 통신대출을 활발히 진행하며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생산활동과 문화생활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봉사하고있다.

이 도서관들에서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광범히 해설선전하며 근로자들을 그 관철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전람관】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 1956년 5월에 창립된 이 전람관은 당의 경제선전기관으로, 현대적기술과 과학지식의 보급기지로, 전국경제전람관들의 본보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전람관의 중공업부문진렬관들에는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우리 나라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각종 최신공작기계들과 발전설비들, 채취공업설비들, 여러가지 강종과 강재를 비롯한 실물과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경공업부문진렬관들에는 우리 나라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옷감들과 일용필수품들, 식료품들이 진렬되여있다.

농촌경리부문진렬관들에는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의 급속한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실물과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전시되여있다.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에서는 1972년에 8만여명, 창립이래 1972년말까지 연 638만 20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관람시켰다.

그중 외국인만하여도 1972년에 3천 50여명, 창립이래 1972년말까지 연 1만 6천 200여명이 이 전람관을 관람하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깊이 리해하였다.

어머니전람관; 1961년 11월 17일에 창립된 이 전람관은 우리 어머니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자녀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데서 얻은 경험과 방법들을 어머니들에게 배워주는 사명을 수행하고있다.

1972년에 이 전람관에서는 관내에서의 사업과 함께 어머니들이 일하는 생산현장에 찾아가 이동전람회를 널리 조직진행함으로써 우리 어머니들로하여금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워 자녀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일군으로 키우는데 도움을 주었다.

【궁전】평양학생소년궁전;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63년 9월 10일에 창립된 이 궁전은 청소년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지덕체를 다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종합적인 학교로, 과외교양의 거점으로 되고있다.

궁전에는 500여개의 연구실과 활동실들, 100여개의 연구실들, 1,300여개의 관람석을 가진 극장, 1천여명의 관람군중이 들어가며 계절에 관계없이 종합체육경기를 할수 있는 체육관, 수십만권의 책이 갖추어져있는 도서관, 1천여명을 수용하는 유희오락실이 있으며 궁전밖에는 체육경기장, 기상관측장, 자동차운전실습장, 작은 동물사, 실습포전들이 갖추어져있다.

궁전에서는 김일성원수혁명활동연구소조가 운영되고있다. 소조들에는 1만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망라되여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각 부문의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있다.

궁전에서는 매해 1천명이 넘는 청소년학생들이 자동차, 뜨락또르를 훌륭히 운전할수 있게 양성되며 1972년에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가 소년선전예술대공연을 하였으며 수많은 경험집과 론문, 창작품들을 써서 보급일반화함으로써 청소년 학생들의 과외교양기지, 과외활동의 보급기지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개성학생소년궁전;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61년 6.6절을 계기로 창립된 이 궁전의 대지는 무려 5만평방메터를 넘으며 연건축넓이는 6,068평방메터에 달한다.

궁전안에는 700여석의 관람석과 250평방메터의 현대적 무대 및 영사실과 꼬마방송실 등을 갖춘 극장이 있고 전기 및 라지오, 음악무용 등 수십가지의 각종 소조활동을 진행할수 있는 설비가 꾸려져 있다.

이 궁전에서 청소년학생들은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을 비롯하여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모임과 다채로운 연예활동을 진행하고있다.

또한 청소년학생들은 자연기술과학을 비롯하여 체육과 문예활동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취미와 소질에 따라 여러가지 연구소조활동을 마음껏 진행하고있다.

이 궁전은 청소년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산지식으로 만들며 지덕체교양의 종합적학교로 되고있다.

【극장】평양대극장; 1960년 8월에 준공된 평양대극장은 아름다운 민족적형식과 사회주의적내용에 현대적건축기술을 잘 배합한 웅장한 건축물로써 인민을 위한 문화의 대전당이다.

여기에는 2천 300여석의 관람석, 772평방메터의 기본무대와 3개의 보조무대, 260개의 배우실을 비롯하여 각종 무대시설과 기술설비들이 완비되여있으며 현대적봉사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이 극장에서는 력사적인 당 제4차대회가 열렸으며 국내외 중요행사들도 진행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11월 30일 고전적명작《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꽃파는 처녀》와 5월 2일 혁명가극《밀림아 이야기하라》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작품들의 공연을 이 극장에서 보아주시였다.

1972년에 이 극장에서는 평양시 예술인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과 조선인민경비대예술소조종합공연을 비롯한 각 계층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이 진행되였다.

천리마국립연극극장; 1946년 5월 23일에 창립된 중앙예술공작단이 1947년 1월 9일에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개편되여 국립극장이 나왔는데 그뒤 국립연극극장으로 개칭되였다.

1966년에는 천리마극장칭호를 받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극장에 열여덟차례나 나오시여 현지지도를 하여 주시였으며 그때마다 작품, 연출, 연기 지어는 배우들의 의상에 이르기까지 친어버이심정으로 하나하나 보살펴주시였다.

이극장에는 천리마국립연극단이 배속되여 사업하고있으며 혁명연극창조를 위하여 만경대 창작단이 사업하고있다.

창립이래 이 극장에서는 130여편의 훌륭한 연극작품을 창조하여 1만여회에 걸쳐 공연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972년에 이 극장에서는 인민상계관작품인 혁명연극《혁명의 새아침》, 연극《내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을 공연하였다.

국립교예극장; 1964년에 건립된

국립교예극장은 1,800석의 관람석을 가진 원형극장으로서 대련습장, 동물사 기타 여러가지의 후생시설을 갖추고있다. 극장에는 그네비행, 공중회전 등 특수종목을 올리기 위한 공중무대외에 경교예, 어리광교예 등을 할수 있게 마련된 둥근바닥무대와 그리고 요술교예와 보통무대를 요구하는 종목들을 올리기 위한 자동식일면무대 등이 갖추어져있다.

이 극장에는 1952년 6월에 창립된 평양교예단이 배속되여 근로자들을 체육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양하며 우리의 민족교예를 현대 사람들의 미감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을 기울이고있다.

1972년에 평양교예단은 창립 스무돐을 맞이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창립기념 교예공연을 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창립이래 20년간 평양교예단창조집단은 640여편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교예작품들을 창작하고 연 1만 3천여회의 공연에서 연 1만 8천여만명의 관람자들에게 보여주었으며 1972년에 몽골방문에서만하여도 26회의 공연에 5만 5천여명을 관람시켰다.

모란봉극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1946년봄에 건립된 이 극장은 해방초기의 대표적공공건물로서 소박하고 아담하며 주위에 분수, 정자, 야외극장 등을 갖춘 하나의 종합적인 문화교양장소이다.

이 극장에는 회전무대를 비롯한 현대적인 무대설비와 관람시설, 넓은 유보장 등이 갖추어져있고 내부에는 대리석으로 아담하게 장식되여있다.

1972년에 이 극장에서는 각 계층별 예술소조경연을 비롯하여 청년기동선전대공연 등 혁명적주제의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공연되였으며 중요한 정치집회들도 진행되였다.

【동물원 및 식물원】평양동물원; 이 동물원은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나라 동물들을 잘알고 우리 조국의 자연과 향토를 사랑하도록 교육교양하며 문화휴식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 및 문화교양 기관이다. 평양동물원에서는 275정보의 넓이안에 330여종의 동물들을 기르고있다.

평양동물원은 우선 동물의 종적구성에서 우리 나라의 다종다양하고 풍부한 짐승류, 새류, 파충류, 량서류, 물고기류들을 위주로하면서 여기에 근로자들에게 폭넓은 지식을 주는데 필요한 세계적인 동물을 배합하여 꾸려졌다.

이 동물원은 광범한 근로자들이 동물들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과학지식보급기지로, 학생들의 현지강의와 실습기지로 되고있다.

또한 동물학의 기초리론부문을 연구하며 야생동물의 수집과 방사사육 및 사양관리, 번식, 수의방역, 치료 등 과학기술적문제와 야생동물들을 의학, 축산업 등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더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문제들을 연구한다.

이 밖에도 리로운 새, 짐승들의 보호증식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 전국 곳곳에 새둥지통, 먹이기지, 먹이터들을 마련하여 꿩, 노루, 기러기, 동고비 등 각종 새, 짐승들이 많이 퍼지게 함으로써 가는곳마다에 리로운 새, 짐승들이 욱실거리게 하는 사업도 진행하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평양동물원을 모체로 하여 도처에 동물원들이 꾸려져있으며 유원지, 공원, 유보도들에는 새집과 작은 동물사들이 만들어져있다.

평양식물원; 1959년 4월 30일에 평양식물원이 건설되였으며 그후 각도 식물원들이 꾸려졌다.

그리고 평양식물원산하에는 분원들이 건설되였으며 기타 식물연구를 위한 연구소, 기관, 기업소, 각급 학교들에 식물원들이 갖추어졌다.

평양식물원에는 120여정보의 넓은 면적에 2천여종의 우리 나라 식물들로 꽉 들어차있다.

평양식물원은 식물자원의 합리적인 조성과 리용, 가치있는 식물들의 도입과 순화, 새 품종육성 등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있으며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식물에 대한 산지식을 주며 조국과 향토를 사랑하는 정신을 길러주는 훌륭한 학교로 되고있다.

【축전 및 전람회】예술축전; 1972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전문예술인들이 참가한 전국연극축전(1월 5~26일)과 전국농업근로자예술소조축전(1월 12일~2월초), 전국녀맹예술소조축전(2월 20일~3월중순), 조선인민군 제15차예술경연(1월), 전국대학생예술축전(2월 14~25일),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1월 18일~2월 7일)이 진행되였다.

또한 혁명적계급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발표모임과 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공연(7월 20일), 전국학원부문 학생예술소조경연(8월)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축전 및 경연들이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준비한 전국로동자예술소조종합공연(4월 23일), 전국녀맹예술소조종합공연(4월 14일), 조선인민군군인가족예술소조종합공연(4월 1일), 평양지구군인가족녀맹예술소조공연(4월 7일), 전국대학생예술축전종합공연(4월 20일),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종합공연(4월 16일)을 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1972년에 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5월 20일) 조선인민경비대예술소조공연(8월 11일), 9월방직공장조업을 경축하는 로동자예술소조종합공연(10월 13일), 평양시예술인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11월 15일)을 비롯한 수많은 공연을 보아주시였다.

전람회; 1972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기념로작전시회(국립중앙도서관),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기념 사진전람회(혜산), 조선농업근로자동맹제2차대회기념 사진전람회(평양만수대의사당),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폭로하는 자료전시회(조국해방전쟁기념관)를 비롯한 수많은 전람회와 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전람회와 전시회를 통하여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끝없는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하며 대를 이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빛내여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게하였다.

체 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의 건장한 체력은 혁명투쟁과 부강한 사회건설의 기초로 된다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널리 발전시켜 모든 근로자들의 체력을 더욱 증진시키며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3페지)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와 특히 1969년 11월 4일 전국체육인대회에서 우리 나라 체육사업발전에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으며 1971년 12월 7일에는 또다시 나라의 체육사업형편을 전면적이며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체육의 전민화방침을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체육의 나라로 만들며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를《체육의 왕국》으로 되게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1971년 3월 9일과 12월 7일에 주신 교시에서 올림픽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

쳐주시고 이 사업을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체육의 전민화방침이 훌륭히 관철된 결과 우리 체육은 1972년에 승리로 빛나는 길을 걸어왔다.

1972년도 체육부문사업 발전정형
(1971년을 100으로 환산)

항 목	장성률 (배)
종목별체육선수단	2.5
공화국신기록	2.6
세계신기록	2
체육선수장성	4.6
국제경기 참가회수	3.7
사대체육학부수	11
사대체육학부 학생수	24.6
고등체육전문학교수	7
고등체육전문학교 학생수	30
체육소조	1.2
체육시설	4

1972년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부독일의 뮨헨에서 진행된 제20차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은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나라 주체체육의 발전수준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122개나라에서 온 1만여명의 선수, 역원들이 참가한 뮨헨올림픽경기에 우리 나라 선수들은 10개종목을 가지고 출전하였다.

우리 나라 선수들은 소구경보총 엎드려 60발사격에서 단연 제1위를 차지한것을 비롯하여 권투48키로그람급 경기에서 제2위, 녀자배구에서 제3위, 레스링 52키로그람급에서 제3위, 유술 63키로그람급에서는 제3위를 차지했다. 또한 력기 52키로그람급에서는 제6위(함께 진행된 세계선수권대회 용상에서 제1위), 남자체조경기에서 제6위에 각각 입선함으로써 오각별 찬란한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다섯번이나 뮨헨상공에 높이 휘날리였다.

57개나라 101명의 사격선수들과 승부를 겨루게 된 사격경기에서 우리 나라 선수는 2시간동안에 60발을 쏘아 599점을 획득함으로써 저들만이 《최고점수》라고《너무도 일찌기 기뻐》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단연 제1위를 차지하였을뿐만아니라 세계 신기록, 올림픽신기록을 수립하였다. 이날 서독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신문, 통신, 방송들은《사격에서 굴복한 미국사람과 승리한 조선사람》이라는 표제들을 달고 보도하였다.

특히 1972년에 새로 조직되여 새로운 전술체계로 경기를 운영하고있는 우리 나라 4.25축구선수단은 인도네시아를 7대0, 9대0으로 이기고 이란과 서독을 굴복시켰으며 여러차례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보이였다.

【아침체조, 생산체육】 1972년에 체육부문에서는 모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인민군대는 물론 인민반과 가정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아침체조, 집단달리기, 업간체조와 생산체육을 비롯한 기타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체육의 전민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힘써왔다.

아침체조는 달리기와 아령, 곤봉 등 여러가지 운동을 잘 배합하여 진행하면서 점차 그 수준을 높여 모든 근로자들이 인민체력검정에 합격하도록 하였으며 각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들에서는 2~3시간 일하고 20~30분씩 업간체조를 로동행정일과에 포함시켜 진행하도록 하였다. 업간체조는 체육지도위원회에서 직업적특성에 따라 제정한 체조규칙에 의하여 각이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증진시켰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원산시, 신포시, 청진시를 비롯한 바다를 낀 모든곳에서는 7, 8월해양체육월간에 배타기, 자유영, 평영, 배영, 나비영과 물에 뛰여들기 등 해양체육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는 한편 인민보건체조와 숨 깊이쉬기, 등두드리기, 선자리에서 달리기 등을 배우에서 생활화하였다.

수령님께서 발기하신 독창적인 체육형태인 뜨락또르운전경기, 굴착기경기, 절삭경기, 모내기경기, 김매기경기, 가을걷이경기 등 생산경기들이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높은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생산경기는 중로동부문 특히 채취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아직 힘든 로동이 남아있는 부문들에서 적극 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창의고안을 촉진시켰으며 로동생산능률을 더욱 높이게 하였다.

【국방체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방체육을 위주로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주체적체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체육부문에서는 1972년에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대중국방체육을 발전시키는 한편 모형항공, 무선통신, 자동차 등 군사기술기재에 의한 국방실용체육을 군중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심을 두었다.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등의 근로자들속에서는 달리기, 등반봉오르내리기, 바줄오르내리기, 장애물이겨내기, 수류탄던지기, 강건느기, 산야횡단강행군 등 국방체육종목의 훈련을 정상화하는 한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직장 및 작업반단위로 국방체육경기를 진행하였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년령적 특성과 지대적조건에 맞게 2~3일간 야영을 하면서 산과 들, 강하천을 횡단하는 산야횡단, 달리기와 고지점령, 군사경기 등을 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생들로하여금 산악도 알고 가파로운 벼랑도 자유자재로 오르내릴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과외체육을 통하여 수영훈련을 적극 진행하였으며 바다가 지대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해양구락부에 망라시켜 모든 학생들이 1~2키로메터의 강을 능숙하게 헤염치며 누구나 다 배를 타고 험난한 파도속도 뚫고 나갈줄 알게 튼튼히 준비시켰다.

특히 인민군군인들속에서 전투정치훈련뿐만아니라 사격, 격검을 비롯한 국방실용체육이 활발히 전개되여 전체 군인들이 일당백의 전사로 튼튼히 준비됨으로써 1972년 8월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따르에서 진행된 사회주의나라 군대들 사이의 제11차군사3종경기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인민군 군사3종경기선수단이 단체종합성적에서 제1위를 차지하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인민체력검정】 1972년에 체육부문에서는 1971년 9월 16일에 채택된 내각결정 제80호《인민체력검정에 관한 규정을 승인함에 대하여》에 의하여 새로 나온 인민체력검정에 관한 규정대로 근로자들의 체력을 더욱 증진시키며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킬 목적으로 인민체력검정사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모든 종목을 수검하였으며 로동자, 농민, 사무원은 100메터달리기, 너비뛰기, 수류탄던지기, 철봉에서 현수 등을 수검하였다.

체육지도위원회에서는 남자는 9살부터 50살까지, 녀자는 9살부터 40살까지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조직지도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7월, 8월, 9월〈인민체력검정월간〉에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가 파견한 인민체력검정원은 인민체력검정을 보통급과 우등급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바

인민체력검정대상자는 모두 보통급검정에 참가시켰으며 모든 종목에서 기록이 우수한 사람은 우등급검정에 참가시켰다.

각급체육지도기관들에서는 인민체력검정국가판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시(구역), 군 및 공장, 기업소, 사무기관, 협동농장, 학교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옳게 조직진행하였다.

공화국정무원은 인민체력검정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시(구역), 군에는《모범체육군(구역)》칭호를 수여함으로써 인민체력검정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

【학교체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교들에서 체육사업을 어떻게 하며 사람들이 학생시절에 체력단련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체육을 전인민적으로 발전시키는 문제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문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체육을 대중화하여 전체 인민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자》, 단행본, 7페지)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2년에 교육기관과 체육부문지도기관들에서는 학생들의 년령과 성별에 기초하여 그들의 체력이 체계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각급 학교들의 체육시간과 체육종목을 과학적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학생들의 몸을 튼튼하게 하면서도 키를 크게하는 운동을 많이하는 방향에서 체육을 진행하였다.

학교들에서는 축구, 배구, 롱구, 철봉, 평행봉, 탁구, 스케트, 스키, 기계체조와 함께 수영과 등산을 많이 함으로써 학생들을 지덕체가 겸비된 믿음직한 우리 혁명의 후비대로 키우고있으며 특히 유능한 탁구선수후비들이 많이 배출되였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특히《토요체육의 날》을 설정하고 다채로운 체육경기를 진행하는 한편 일요일과 명절날, 방학기간에 국방체육종목을 위주로 한 여러가지 체육활동을 벌리였다. 한편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들에서는 자기 시(구역), 군들에 있는 학교들을 분담하여 수영장, 탁구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설비들을 훌륭히 갖추어주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들에서 체육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시범상학, 방식상학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체육교원들의 실무적자질을 더욱 높여주었다.

【체육소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체육의 전민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큰 공장, 기업소는 직장단위로, 협동농장은 작업반단위로, 대학은 학부단위로 체육소조를 광범히 조직하고 소조원들과 체육열성자들을 위한 강습, 방식상학, 여러가지 체육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고있다.

체육소조는 주로 체육관과 체육구락부를 거점으로 운영하였다.

이미 평양시내 각 구역들과 황해북도 은파군을 비롯한 적지않은 도, 시, 군들에서 체육관을 건설하고 체육기구공장을 꾸린 경험에 기초하여 1972년에 도, 시(구역), 군, 로동자구 마다 체육회관, 체육구락부를 꾸려놓고 여기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게하고 체육상식과 체육과학지식, 체육기술 등을 보급하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이와 함께 현대적설비를 갖춘 세계 1등급의 웅장한 평양체육관이 건설되였으며 인공빙상장, 로천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였을뿐만아니라 이미 건설된 체육시설을 더 잘 정비보강함으로써 체육소조활동을 적극화하도록 하였다.

체육지도위원회에서는 체육소조원들을 중심으로 전체 근로자들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군중체육활동에 망라시켰으며 모두다 한가지이상의 체육종목기술을 가지게 하기 위한 체육활동을 정상적으로 벌리도록 조직지도사업을 진행하였다.

1972년에 체육구락부들에서는 체육종목별 배치상태를 다시 료해하고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체육종목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매주5회(1회당 2시간), 일요일(4시간)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서 선수후비를 체계적으로 장악등록하고 발전시키였다.

【체육인양성 및 체육기술발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12월 7일교시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길러내며 체육기술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먼저 체육선수들을 계속 양성해내기 위한 체계를 세우는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체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체육학부들에서 체육인들을 많이 양성하는 동시에 도마다 고등체육전문학교와 부속체육학교를 새로 내오고 거기에서 우수한 선수후비들을 전망성있게 길러내며 체육선수단들을 확장하고 새로 조직함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72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각 도에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들과 체육기구전문공장들이 설치됨으로써 전문체육인들을 체계적이고도 계통적으로 길러 낼수 있게하는 과학적인 양성체계가 마련되였으며 체육기술기재가 충분히 생산보장될수 있게되였다.

매개 선수단들에서는 조선사람의 강의한 혁명적기질과 질적특성에 맞는 주체적인 체육훈련과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릴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년간 300일 체육훈련과제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월별, 분기별, 체육훈련전투를 진행하였다.

체육인들속에서는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혁신경기체계를 세우고 검열경기와 훈련경기를 주2회 이상 조직진행하였으며 체육선수단 호상간 경기를 자주 하여 훈련에서 련마하여온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면서 경기경험을 많이 쌓게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체육은 독특한 체육기술과 전술을 새롭게 창조하여 예술체조, 빙상, 배구, 롱구, 력기, 탁구를 비롯한 여러종목에서 세계적수준에 올라섰다.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는 52키로그람급 용상에서 단연 제1위를 쟁취하여 1972년도 세계선수권보유자로 등장하였으며 베이징에서 있은 제1차아세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녀자선수들은 녀자복식경기에서 일본녀자팀을 타승하고 1, 2위를 쟁취하였다.

우리 나라 축구의 주체적인 속공전술의 위력을 발휘하여 1972년에 인도팀을 9대0으로 이겼으며 제20차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우리 나라 남자체조선수들은 세계체조계에《발전전망이 큰 팀》으로 알려졌다.

우리 나라 녀자배구선수들은 1972년에 진행된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꾸바, 체스꼬슬로벤스꼬 선수들을 3대 0으로, 남조선선수들을 3대 0으로 물리쳤다.

【체육행사】집단달리기; 1972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당원들과 인민들의 이름으로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전달이어달리기와 청소년들속에서《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배움의 천리길〉이어달리기 경기대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사로청창립 스물여섯돐기념《붉은기》쟁취를 위한《혁명전적지달리기》경기가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만경대, 봉화리, 보천보, 백두산 등 혁명 전적지, 사적지에로의 달리기가 진행되였다.

이러한 집단달리기는 수령님의 혁명력사학습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

양과 공산주의교양의 힘있는 수단의 하나로서 전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도록 더욱 조직화하였다.

혜산, 중강, 서수라, 창성, 1211고지, 판문점, 남포 등 각지에서 떠나 우리 나라의 모든 군과 도를 거쳐 혁명의 수도 평양에 닿은 당원들과 인민들의 이름으로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전달이어달리기대렬에는 40여만명이 참가하였으며 수령님께서 훌몸으로 팔도구로부터 고향 만경대까지 걸어나오신《배움의 천리길》을 이어달린《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배움의 천리길〉이어 달리기 경기대회》에는 1천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사로청창립 스물여섯돐기념《붉은기》쟁취를 위한 《혁명전적지》달리기 경기는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의 참가밑에 4월 15일까지는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로, 6월 4일까지는 혁명전적지 보천보에로, 10월 10일까지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로 이르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집단체조; 해마다 중앙과 도, 시, 군, 각급 학교들에서 100여만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여 진행되는 우리 나라의 집단체조는 사회주의적체육의 훌륭한 형태로, 새형의 혁명적인 체육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되고있다.

대기념비적작품들인 집단체조《천리마 조선》, 《로동당 시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혁명의 시대》를 창조하여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한 우리 나라에서는 1972년에 또다시 인민상계관작품인 집단체조《로동당의 기치따라》그리고 《혁명의 태양이 솟은 만경대》를 창조하였다.

우리 나라의 집단체조는 그 높은 사상성과 놀랄만한 규모, 고도로 조직화되고 세련된 예술성과 체육기교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외국의 벗들로부터《내용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이고 형식에 있어서 가장 예술적인 작품》이라고 찬사를 받고있다.

【주요체육경기】국내경기; 1972년에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경축전국체육축전을 비롯한 수많은 경기대회들을 통하여 체육을 전민화하여 전체근로자들을 로동과 국방에 더욱 믿음직하게 준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룩된 성과를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1972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청소년빙상경기대회(2월 1～10일, 혜산),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네돐기념《일당백상》체육경기대회(2월 8～17일, 평양), 전국청소년스키대회(2월 20～26일, 삼지연), 봄철 전국마라손경기대회(3월 19일, 평양), 보천보전투승리서른다섯돐기념《보천보해불상》경기대회(5월 26일～6월 11일, 평양, 혜산),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경축 조선인민군체육대회(6월 5～18일, 평양)가 진행되였다.

또한 1972년에 전국청소년탁구경기대회(6월 29일～7월 6일, 평양), 전국대학생수영경기대회(8월 13～17일, 원산 송도원), 공화국창건 스물네돐기념《9.9절우승기》체육경기대회와 제11차 전국민족체육경기대회(9월 9～13일, 평양), 제9차 전국체육구락부생체육경기대회(9월 25～28일, 평양) 학생절 열돐기념 전국고등기술학교 학생체육경기 대회(9월 29일～10월 2일, 평양), 체육절 스물네돐기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목별 체육선수권대회(10～12월, 평양, 원산, 신천)가 진행되였다.

이와 함께 학생절 열돐기념 대학생체육경기대회(10월 8～9일, 평양), 전국교원양성부문 대학생체육대회(10월 22일～11월 1일, 신의주), 전국스키선수권대회(12월 18일～21일, 삼지연), 전국빙상혹케이선수권대회(12월 21～22일, 혜산), 1972년도 전국속도빙상선수권대회(12월 21～24일, 부전호)가 진행되였다.

국제경기; 1972년에 서독의 뮨헨에서 진행된 제20차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경기들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은 높은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나라 주체체육의 발전면모를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1972년 8월에 몽골의 수도 울란 바따르에서 진행된 사회주의나라군대들사이의 제11차군사3종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우리 인민군군사3종경기선수단은 단체종합성적에서 1위를 쟁취하여 우승컵과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수여받았다.

또한 우리 나라 선수들은 1972년에 일본 삿뽀로에서 진행된 제11차동기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였으며 1972년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우리 나라 선수는 단연 제1위로 금메달을 받았다.

1972년 9월 2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1차아세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우리 나라 녀자선수들은 복식경기에서 1, 2위를, 소년단식경기에서도 1, 2위를, 소녀단식경기에서는 1위를 쟁취하였다.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쏘련의 딸린시에서 진행된 국제활쏘기경기에 참가한 우리 나라 녀자선수는 2위를 쟁취하였다.

출판보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입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79페지)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출판보도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출판보도정책은 당적출판보도사업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강화발전을 위한 방향과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출판보도물앞에 나선 임무와 과업을 명확히 제시하시고 그 수행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매해 10월 14일을 방송절로, 11월 1일을 출판절로 제정하도록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출판보도물을 편집발간하는 사업에서 특출한 공헌을 한 기자들과 출판보도일군들에게는 《3.1월간상》 그리고 《인민기자》, 《공훈기자》의 높은 칭호까지 수여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밑에 우리 당 출판보도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의 당적출판물들은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빨리 장성발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집대성되여있는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과 그이의 혁명력사자료들이 수많이 출판보급되였다.

1967년후에 우리 나라에서는《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그이의 로작출판은 10배, 혁명력사학습자료출판은 8.4배나 장성하였다. 1972년에만도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 그리고 혁명력사학습자료도서들이 수백만부씩 출판보급되였다.

또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수령님의 로작들과 혁명력사자료들은 영어, 프랑스어, 로어, 중어, 일본어, 에스빠냐어, 아랍어 등 여러나라말로 번역되여 출판되고있다.

1972년말현재 우리 나라에서 발간되는 출판물들은 무려 수천종이나 된다.

신문, 잡지, 도서들은 수만, 수십만부씩 발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출판되는 매 출판물들의 인구 1인당 부

수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신문》을 비롯한 수십종의 신문, 잡지들이 모든 세대에 골고루 배포되고있다. 또한 전국의 유선방송화가 실현되고 1970년 11월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있은지 불과 1년남짓한 동안에 텔레비죤 봉사지역은 전국적으로 주민세대의 76%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창조성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해설선전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통일을 촉진하며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출판】 1972년에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김일성저작선집》 제5권과 《김일성군사선집》제1권을 비롯한 수많은 기념출판물을 발간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한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에는 1968～1970년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론문, 보고, 결론, 연설, 강의, 담화들가운데서 중요저작 17건을 수록하였다.

조선인민군출판사에서 출판한 《김일성군사선집》제1권에는 항일혁명투쟁시기와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중요저작 44건을 수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2년 12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연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와 그이께서 1972년 9월 17일 일본《마이니찌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 2월 3일 도, 시, 군, 공장, 기업소, 대학, 당위원회, 사로청위원장 협의회에서 하신 연설《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더욱 적극화할데 대하여》와 수령님께서 1968년 6월 14일 함경북도 인테리들앞에서 하신 연설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데 대하여》그리고 그이께서 1970년 2월 27일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1972년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72년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9년 10월 11일 국가기관간부들앞에서 하신 강의《우리 나라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몇가지 경험에 대하여》, 수령님께서 1968년 11월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결론《로동행정사업에 대한 몇가지문제》그리고 그이께서 1970년 2월 17일 과학교육 및 문학예술 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하신 연설《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 10월 17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에서 하신 연설《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와 수령님께서 1971년 12월 14일 조선직업총동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연설《사회주의사회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1972년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72년에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김일성동지략전》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김일성동지략전》(14개장으로 구성)을 당출판사에서 출판한것을 비롯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자료들도 수많이 출판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한 회상실기《인민들속에서》(10)에는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 고매한 덕성을 내용으로 한 17편의 회상실기가 들어있으며《인민들속에서》(11)에는 산간지대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높은 덕성과 고매한 풍모를 내용으로 한 17편의 회상실기가 들어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에서 편찬한《인민의 념원을 지니시고》(1)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과 어린시절 그리고 혁명활동을 개시하신 이후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기까지의 그이의 험난하고 간고한 초기혁명활동시기의 투쟁력사를 담고 있다.

과학원출판사에서 출판한 단행본《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과학자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는 수령님의 주체적인 과학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공산주의적풍모와 고매한 덕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밖에도 각 계층별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자료들을 묶은 단행본들을 수많이 출판하였다.

【신문】 우리 나라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인《로동신문》을 비롯하여 《민주조선》 그리고 근로단체기관지들, 각 도의 지방신문들, 인민경제부문별신문들이 있다.

또한 영문과 프랑스문으로 발행되고 있는《평양타임스》가 있다.

【방송 및 텔레비죤】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에 직속하는 방송기관으로서 제1방송, 제2방송, 텔레비죤방송을 조직진행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개성텔레비죤방송을 조직하고있다.

조선중앙방송은 1945년 10월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조국개선연설을 실황중계한 때로부터 자기의 첫발자국을 떼였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1964년 11월 26일에 국제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기구에 가입하였다.

지방방송;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방송뿐만아니라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방송위원회들이 설치되여 있으며 공장, 기업소에서도 방송설비가 완비되여있다.

1972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각 도에 방송예술기동선전대를 조직하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통신】조선중앙통신사; 1946년 12월 5일에 창립된 조선중앙통신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에 직속하는 우리 나라의 유일한 통신보도기관으로서 일간《조선중앙통신》, 《사진통신》, 《영문통신》, 《로문통신》, 《프랑스문통신》, 《에스빠냐문통신》과 《조선중앙년감》을 비롯한 대내외선전 사업에 필요한 출판물을 편집발행한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대외통신으로서 로문, 영문, 프문, 에문으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 방향별 송신을 조직진행한다.

【잡지】 우리 나라에서는 당기관리론잡지《근로자》를 비롯한 정치리론잡지, 《조선녀성》(1972년 12월 1일 창립열돐), 《청년생활》을 비롯한 계층별잡지, 《조선예술》, 《조선문학》, 《영화문학》을 비롯한 문학예술부문잡지, 《천리마》를 비롯한 대중종합잡지, 《새세대》, 《새희망》, 《꽃봉오리》, 《우리 동무》를 비롯한 학생소년잡지, 《오늘의 조선》을 비롯한 대외선전부문잡지 등 수많은 정기간행물들이 발간된다.

또한 6개어문으로 된 각종 잡지와 《조선》을 비롯한 화보들이 발행된다.

인민생활향상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당과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전체 인민이 더욱 넉넉하고 골고루 다 잘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75폐지)

오늘 우리 인민들은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되였을뿐만아니라 실업과 기아의 위협도, 먹는문제, 입는 문제, 집문제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도 모르며 무료교육, 무상치료, 유급휴가의 크나큰 혜택을 받으면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가 빨리 늘어나는 조건에서도 인구 한사람당 국민소득이 1970년에만도 1946년에 비하여 9.4배이상으로 장성하였으며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생산확대를 위한 축적에 돌리면서도 소비를 늘임으로써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이였다.

1972년에 이르러 국민소득은 더욱 장성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국민소득은 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빨리 늘어나고있으며 그것을 잘 분배함으로써 실질소득을 계통적으로 급속히 장성시켰다.

당과 정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로동에 의한 분배를 실시하며 근로자들의 로임을 계통적으로 장성시키고있다.

1971년현재 우리 나라 로동자, 사무원한사람당 한달평균로임은 1946년에 비하여 11배나 장성되였다.

특히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72년에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농민세대들에 특별상금을 주시는 크나큰 혜택을 베푸시였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의 로동에 의한 분배몫을 늘이는 동시에 국가적 및 사회적 부담에 의한 혜택을 증대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왔다.

당과 국가는 가격수준을 계획적으로 제정하였으며 가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을 끊임없이 증대시켰다.

소비품에 대한 소매가격이 전후시기에만하여도 15차에 걸쳐 인하되고 대중소비품의 값이 눅게 정해지며 특히 어린이들이 쓰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생산비를 보상하나마나한 매우 낮은 가격으로 정해짐으로써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임금은 계통적으로 빨리 높아지고있다.

1972년에 나이론솜옷과 세타, 쟈케트 등 학생복은 20% 낮은 값으로, 유치원어린이들의 나이론솜옷은 절반값으로 공급되였다.

국가적 및 사회적 부담에 의한 추가적인 혜택은 직접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돌려지고있다.

당과 국가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거저주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쌀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가부담으로 지은 살림집을 생계비지출의 0.3%에 불과한 매우 눅은 사용료를 받고 보장하여주고있다.

주택리용에서 국가로부터 받는 추가적혜택만하여도 한세대당 평균 년간을 통하여 600～700원에 달한다.

실로 오늘 우리의 근로자들은 자기의 생계비의 불과 10%미만을 지출하고 식량과 거주조건을 완전히 보장받고있다.

우리 나라의 로동자, 사무원들은 직종에 따라 로동복과 영양제를 비롯한 로동보호물자를 국가에서 거저 공급받고있으며 농민들도 로동복을 눅은 값으로 공급받고있다.

이밖에도 나라의 모든 학생들과 학령전아동들에게 철에 따라 공급되는 옷의 가격은 세대당 학생수에 비례하여 루진적으로 눅게 정해지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이 받는 국가적 및 사회적 부담에 의한 추가적혜택의 많은 부문이 교육, 문화, 보건 부문의 발전에 돌려지고있다.

오늘 우리의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은 각급 학교에서 무료로 또는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부담에 의하여 무상으로 병을 치료받고있다.

탁아소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한사람당 무려 6천원～1만여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달하며 근로자들이 무상치료제에 의하여 받는 국가적혜택은 한해동안에 세대당 평균 122원이 넘는다.

우리의 모든 녀성들은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로동생활에 참가하고있을뿐아니라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들은 하루 6시간 일하면서도 8시간 일할 때와 똑같은 임금을 받고있다.

또한 모성들에게는 77일간의 산전산후의 유급휴가가 실시되고 자녀들을 국가적 및 사회적 부담으로 운영되는 훌륭한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들에서 키우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뿐아니라 농민들까지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의 혜택을 받고있다.

나라의 도처에 있는 군중문화회관과 구락부들, 영화관과 수많은 극장, 각종 도서관들이 국가적비용으로 광범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은 화폐로임을 받는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국가의 추가적인 혜택을 통하여 받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르게 향상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이기 위한 우리 당 방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부문 로동자들의 임금비률을 더욱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각이한 지대의 농민들의 수입을 고르게 높이는 동시에 통털어 로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높이는 원칙을 앞으로도 옳게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31폐지)

우리 당은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이는것을 중요한 정책적요구로 내세우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당과 국가는 인민생활을 고르롭게 높이기 위하여 임금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면서 부문간, 직종간 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였으며 1970년에 전반적으로 로임을 인상할 때에도 낮은 임금을 받는 일군들의 임금수준을 높은 임금을 받는 일군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이 올림으로써 임금계수의 폭을 훨씬 좁히였다.

이와 함께 각이한 지대 농민들의 생활수준상 차이를 좁히며 그들의 생활수준을 빨리 높여 로동자와 농민들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장성시키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려왔다.

국가에서는 1961～1970년동안에만도 국가기본건설투자액의 57.9%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농촌의 생산적건설과 주택건설에 돌렸으며 현물세제의 폐지, 농산물수매가격의 계통적인 인상, 관개사용료와 농기계작업료의 대폭적인 인하, 막대한 량의 국가대부금반환의 면제와 농기계와 영농자재들의 눅은 값으로의 공급 등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막대한 물질적방조를 주었다.

당과 국가에서 농민들의 수입을 높여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돌려준 혜택은 1961～1970년까지의 최근 10년동안에만도 기본건설을 비롯한 각종 국가투자로 7억 4천여만원, 현물세와 국가납부곡면제로 3억 1천여만원, 기자재가격인하로 9천여만원, 은행대부금면제로 1억 8천 700여만원, 농산물수매가격인상으로 1억 5천만원, 각종 시상금으로 2천여만원, 농민휴양으로 300여만원, 기타 3억 3천여만원으로서 무려 18억 3천만원에 달한다.

이것은 농호당 평균 1천 700여만원의 국가적혜택을 받은것으로 된다.

이외에도 수십만동의 농촌문화주택, 탁아소와 유치원 및 편의봉사시설들을 국가가 직접 건설하여 협동농장에 거저 넘겨주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972년에 이르러 농민들에 대한 국가적혜택은 더욱 많아졌다.

당과 국가에서는 각이한 지대 농민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이기 위하여 산간지대와 중간지대들에서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전반적농민들의 생활을 다같이 급속히 높여주었다.

농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고 농업생산이 빨리 장성됨으로써 농민들의 현물 및 현금 수입이 더욱 늘어났으며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이 훨씬 개선되였다.

오늘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농촌의 뻐스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도시와 농촌주민들간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도 더욱 더 줄어들어가고있다.

6개년계획에 예견된 농촌수도화의 과업이 많은 농촌들에서 앞당겨 수행됨으로써 1972년에 그 전해보다 3배나 더 많은 농촌가정들이 수도물을 받게되였다.

또한 1972년말까지 우리 나라의 2,400여개리에 뻐스가 들어가게하였다.

뻐스와 수도가 들어간 농촌들에서는 도시처럼 교통상 불편이 없어지고 녀성들이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물을 이고다니던 일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생활을 더욱 문화적으로 꾸리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더잘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생활을 골고루 높이기 위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이 늘어나는데 따라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였다.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증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과 국가에서는 계층별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상품공급체계를 세우고 상업시설을 더욱 현대화하고 판매활동을 개선하도록함으로써 생산된 소비품이 인민들에게 골고루 차례지도록 하였다.

상업망이 도시와 농촌의 모든 지역에 골고루 포치되여 산간농촌에도 도시와 같이 생활필수품이 들어가 국가가 정한 유일한 값으로 공급되였다.

우리 나라 상품공급에서 적용하고 있는 유일가격제도는 인민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이며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상차이를 없애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오늘 나라의 어디에서나 우리 근로자들은 필요한 생활필수품들을 눅은 값으로 살수 있게 됨으로써 자기들의 물질적, 문화적 복리를 마음껏 누리고있다.

실로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일어난 이 모든 전변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 없는 우월성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풍랑을 만나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남조선어민들은 수령님을 모시고 인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륭성발전하는 공화국북반부—이것은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은덕이다.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북반부인민들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자식을 공부시킬 걱정, 병나면 치료받을 걱정 등 아무러한 근심걱정이 없이 모두다 행복하게 살고있다. 로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공화국북반부는 세상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지상락원이다.》

로임과 생활비

【로임】 우리 나라의 주권과 생산수단은 근로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기 때문에 로동의 결과가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임의 제정은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지불원칙에 엄격히 립각하여야 하며 로동자, 사무원들이 자기 로동의 결과에 대하여 물질적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1권, 141페지)

우리 당이 로임조직에서 견지하고있는 원칙적립장은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를 실시하는것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두가 자기의 지혜와 열성을 다하여 일하며 따라서 생산이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국민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공화국정부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임을 계통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를 거듭 취하여왔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임은 1970년에만하여도 평균 31.5%가 올랐다.

그리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화폐임금은 전반적으로 고르롭게 높아졌으며 그들의 월평균로임은 1972년현재 70원에 이르고있다. 가까운 앞날에 90원수준에 이르게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적용하고있는것만큼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근로자들의 로임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1972년현재 우리 나라에서 로임은 도급로임(단일도급로임, 루진도급로임, 간접도급로임)과 정액로임형태로 나누어져 지불되고있다.

도급로임형태는 로동의 결과를 수자적으로 계산하며 그를 질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작업부문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개인도급로임제를 적용하고 반도급로임제도 실시한다.

이렇게 로임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으나 인민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낮은 로임을 받는 근로자들의 로임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있으며

따라서 로임의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공장, 기업소 관리일군들과 로동자들간의 로임상 차이는 거의 없으며 특히 채취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하여 로동력지출이 다른 부문보다 많은 부문의 로동자들인 경우에는 로임이 공장관리일군들보다 더 높다.

우리 나라에서는 남녀로동자들의 로임에서의 차이도 없다. 로동법령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해서는 같은 로임을 주기로 규정되여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녀성들은 어느 부문에서 일하든지간에 동일한 로동에 대하여 남자와 똑같은 로임을 받으면서 일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 녀성들은 국가로부터 추가적혜택도 많이 받고있다.

【생활비】 우리 나라 로동자, 사무원들이 자기가 받은 로임중에서 생계비로 지출하는 돈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우리 근로자들은 생계비에서 주되는것인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에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을뿐만아니라 넉넉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적문화생활을 누리고있다.

국가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계비에서 주되는 부분을 부담하여 주고 있으며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에게 더욱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농민들로부터 식량1키로그람당 백미는 62전에 사서 8전으로, 잡곡은 40전에 사서 6전으로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것을 국가가 보상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식구 5명을 가진 로동자, 사무원들의 가정에서 년간 500여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나라로부터 더 받고있는 것으로된다.

우리 근로자들은 국가가 주택, 전기, 난방, 수도사용료를 거의 전적으로 부담해주기때문에 불과 얼마 물지않는다.

그뿐만아니라 우리 근로자들은 자식들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다 학교에 보내며 철따라 눅은 값으로 학생복을 공급받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해마다 철따라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옷의 국가보상금은 1년에 3천여만원이나 된다.

이와 함께 대학과 고등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주며 무의무탁학생들에게는 학용품으로부터 교복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국가가 보상하여줌으로써 사실상 자식들을 공부시키는것과 관련하여 우리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금액은 상당한 량이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은 살림집을 국가로부터 완전히 보장받고 있으며 농민들도 국가가 지어준 문화주택에서 생활하고있다.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주택문제해결을 위하여 로임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하나도 없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서는 천, 신발, 모기장, 바느질실, 성냥, 학용품등 대중소비품들을 가치보다 가격을 낮게 정하여 전체 근로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이로부터 받는 국가적혜택만하여도 대단한 금액이다.

이렇게되니 근로자들이 실지 받은 로임에서 생계비에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안되는 매우 적은 량이다.

로임은 인상되고 먹고 입고 쓰고 살며 자녀들을 공부시키는것과 같은 생계비지출에 들어가는 모든것을 국가가 거의 전적으로 보장하여줌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은 1972년에 더욱 더 향상되였다.

이것은 수령님의 높은 뜻을 구현한 우리 당과 정부의 인민적시책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실질소득

【로임외 추가적혜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와 농민들의 현물세를 없앰으로써 낡은 사회의 유물인 조세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근로자들을 온갖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할것이며 그들의 실질소득을 더욱 높이게 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31～132페지)

수령님께서는 조세제도를 완전히 없앰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현저히 높일것을 강조하시면서 이것은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 로동계급의 당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으며 근로인민자신이 나라의 주인으로된 사회주의하에서만 할수 있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로동에 의한 분배몫을 계속 높이면서 막대한 추가적혜택을 그들에게 돌려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이 받고있는 화폐로임은 그들의 수입의 일부에 지나지않는다. 화폐로임을 받는것보다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받는 수입이 더 많다.

국가의 추가적혜택은 직접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돌려지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식량을 나라로부터 거저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공급받고있으며 살림집사용료, 연료값, 수도와 전기사용료 그밖에 후생시설의 사용료도 거의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방두간을 쓰는 집에서 주인이 무는 한달사용료는 58전에 불과하고 4원 59전을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 연료값도 석탄 한톤값이 13원인데 그의 절반값만 본인이 물고 절반은 국가가 보상하며 난방료도 방열면적 1평방메터당 월평균 25전만 본인이 물고 1원 14전을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이리하여 주택리용에서 국가로부터 받는 추가적혜택만하여도 한세대당 평균 년간을 통하여 600～700원에 이른다.

1972년에 근로자들의 의식주문제해결에 돌려진 국가적혜택은 더욱 더 많아졌다.

보통 로동자, 사무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외에 광산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이 받는 추가적혜택만도 한 사람당 1년에 약 280여원이나 된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은 먹고 입고 집을 쓰고 사는데서만 하더라도 한해동안에 매 세대에서 1천 300원～1천 500원의 추가적혜택을 받고있는데 이것은 월평균 100원～125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을 로임외에 국가로부터 더 받고있는것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로임이 인상되고 물가가 계통적으로 낮아짐으로써 더욱 높아지고있다.

1972년에도 일부식료품과 일반섬유제품, 어린이용 상품 등 인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일련의 일용품값이 낮아졌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자, 사무원 한사람당 실질소득은 1970년에 1956년에 비하여 27.5%로 장성하였으며 1972년에 이르러 그것은 더욱 높아졌다.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지고있는 이 모든 고마운 혜택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은덕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농민들의 실질수입】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당과 국가가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지고 그들에게 막대한 국가적혜택을 베풀어주고있다.

당과 정부에서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하고 농촌의 모든 생산시설과 문화주택을 국가자금으로 건설해주었으며 1966년부터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국가의 강력한 지원밑에 밭관개공사, 토지건설, 강하천건설과 같은 자연개조사업이 계속 널리 진행되였으며 협동농장들에 1만 1,000여동의 축사, 전조장, 창고, 탈곡장을 국가자금으로 건설하여주고 많은 농기계들과 영농자재들을 무상 또는 눅은값으로 보내주었다.

이밖에도 국가에서는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관개사용료, 농기계작업료들을 대폭 낮추는 반면에 농산물수매가격을 훨씬 높였으며 여러가지 기계설비들과 영농자재들을 공급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적시책에 따라 농업생산은 해마다 높아지고 농호당 알곡분배량과 현금분배는 늘어났다.

우리 당은 농촌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적극 복무하는 군을 더 잘 꾸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수도화와 뻐스화 실현에도 많은 국가자금을 투자하였다.

농민들의 분배몫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농민들은 분배받은 량곡가운데서 한해동안에 먹을 량곡을 넉넉히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나라에 팔고있다.

국가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공급하는 식량가격보다 7배나 더 비싼 값으로 농민들의 여유량곡을 사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농민들은 협동농장에서 번 현금수입외에 여유량곡을 판 돈만 해도 수백 수천원씩을 더 얻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민들의 실질수입은 1970년에만하여도 1956년에 비해 214%로 늘어났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수령님의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세상에서 처음으로 온갖 세금부담에서 해방된 가장 행복한 농민으로 되였다. 우리 농촌은 어디를 가나 아담한 문화주택과 탁아소, 유치원, 병원 등 갖가지 문화후생시설들을 갖춘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변모되였으며 우리 농민들은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의식주와 자녀교육, 병치료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 농민들의 생활이 급격히 높아지고있는것을 본 어느 한 외국의 벗은 《조선의 산간지대농촌이 이렇게 발전되고 부유하게 살고있는데 대하여 감동된다. 조선은 도시나 농촌이나 빈부의 차이가 없이 다 잘살고 있다. 조선의 이와 같은 성과는 조선인민의 앞길을 밝혀주고계시는 김일성원수님의 령도가 아주 현명한데 있다》라고 말하였다.

사회문화시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모든 근로자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사회문화적시책에 더 많은 국가투자를 실시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3페지)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무료교육, 무상치료, 유급휴가, 국가부담에 의한 정휴양, 국가비용에 의한 탁아소, 유치원의 운영 등 사회문화시책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혜택이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전반적무료교육의 혜택으로 오늘 우리 나라의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라는 말조차 모르며 학비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각급 학교에서 무료로 공부하고있으며 대학과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장학금까지 받고있다. 뿐만아니라 어린이들이 있는 모든곳에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꾸려놓고 어린이들을 국가적, 사회적으로 키우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이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 넣어서 국가로로부터 받는 혜택은 한 어린이당 1천500여원이며 무료교육에 의하여 인민학교에서 대학까지의 기간에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 학생당 4천 400여원에 달한다.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피복의 국가보상금만하여도 년간 3천여만원이나 되며 학생이 3명이 있는 세대에서는 100원이상의 돈을 국가로부터 더 받고있는것으로 된다.

이처럼 국가적혜택을 받고있는 유치원과 탁아소들이 도시에는물론 농어촌, 두메산골에 이르기까지 녀성들이 일하고있는 모든 곳에 다 설치되여있다. 농촌리들에만하여도 1971년현재까지 약 4만 5천개의 탁아소, 유치원들이 꾸려져있다. 이것은 매개농촌리들에 평균 12개의 유치원과 탁아소들이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1972년에 이르러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유치원 높은반에서 1년간의 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하게됨으로 이 부문에 돌려지는 사회문화시책비는 더욱 늘어났다.

또한 우리 근로자들은 전반적이며 완전한 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하여 예방치료와 진찰, 약, 입원, 해산방조 등은 물론 입원시의 식사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무상으로 보장받고있다.

1972년에 농촌리진료소를 병원화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농촌녀성들도 입원해산방조를 받게됨으로하여 이로부터 받는 국가적혜택도 더 많아졌다.

우리 근로자들은 1년에 14~28일간의 유급휴가와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의 혜택을 받고있다.

이로부터 근로자들이 받고있는 국가적혜택만하여도 상당한 량의 금액이다.

우리 나라에서 무료교육, 무상치료, 유급휴가, 국가비용에 의한 탁아소, 유치원의 운영, 국가비용에 의한 휴양과 료양 등에 돌려지는 사회문화시책비는 1970년에만하여도 1946년에 비하여 405배, 1956년에 비하여서는 10배로 장성하였으며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고있다.

1972년에 당과 정부에서는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1971년에 비하여 1.3배에 달하는 사회문화시책비를 지출하였으며 그밖에도 많은 자금을 인민생활향상에 돌렸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추가적으로 받고있는 혜택은 실로 그들이 받고있는 로임총액과 맞먹는다.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돌려지고있는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진정으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위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무료교육, 무상치료, 유급휴가를 비롯한 이 모든 사회문화시책은 근로자들의 복리에 대한 우리 당과 국가의 커다란 배려의 뚜렷한 표현이며 우리 나라에서 발생발전하고있는 공산주의싹이라고 말할수있다.

국가사회보험

【국가보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0개조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시였다.

《…로동자와 사무원들의 생명보험을 실시하며 로동자와 기업소의 보험제를 실시할것.》(《김일성저작선집》, 1권, 31페지)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1946년 2월부터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손해 및 사망, 로동능력상실 등의 경우에 물질적보장을 위하여 중앙집권적인 화폐예비를 형성리용하는 국가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다.

1972년현재 우리 나라에서의 국가보험은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의 형태로 진행되고있다.

보험예비는 국가보험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의하여 조성하며 이 기금은 보험금의 지불뿐만아니라 자연재해 또는 불상사고의 미연방지대책에도 리용하고있다.

재산보험은 자연재해와 불상사고때문에 생기는 재산상손해를 예방하거나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들의 재산은 의무적인 재산보험의 대상이며 정당, 사회단체의 소유재산과 공민들의 개인소유재산(외국인소유재산도 포함)은 자원적인 재산보험의 대상으로 등록실시하고있다.

【사회보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에 벌써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각종 보험법을 실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해방후에는 이 강령을 더욱 구체화한 20개조정강과 로동법령을 발포하시여 우리 근로자들에게 가장 선진적인 보험제도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보장과 문화적인 휴식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이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었을 때에 생활안정과 치료를 위하여 사회보험을 통한 막대한 국가적인 혜택을 돌려주고있다.

국가에서는 예산지출에서 1972년에 사회보험비를 더욱 늘이여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추가적혜택이 돌려지도록 하였다.

우리 근로자들은 가장 선진적인 사회보험제도에 의하여 질병, 부상, 임신 및 해산 등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고 일할수 없게되였을때에도 국가로부터 해당한 보조금을 받으므로 생활상 애로와 불편을 느끼지않고 정상적인 생활보장을 받고있으며 병원과 료양소에서 치료비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안정된 치료를 충분히 받고있다.

뿐만아니라 누구나 다 사회보험제에 의한 휴양의 혜택도 받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물질적보장의 한 형태로 질병, 부상 등으로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장기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종신 또는 로동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정기보조금을 주며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일시적보조금을 지불하고있다.

직접 일을 하다가 병이나 불구로 되여 로동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그 이튿날부터 월평균로임액의 40~80%의 년금을 지불하며 직무와 관계없이 로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월평균 로임액의 35~65%의 년금을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들은 년금외에 국가로부터 무료로 의료상방조를 받으며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주택, 식량, 연료 등 생활조건을 보장받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사회보험은 전적으로 인민들에게 복무하고있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사회보험지출이 많아지는것은 그만큼 우리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이 늘어나는것으로 된다.

【사회보장】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건강때문에 부득이 쉬게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남자는 만 60살, 녀자는 만55살 이상)에게는 년로보조금을 주며 건강이나빠 일할수 없게된 근로자들에게도 매달 정상적으로 생활보조금을 주고있다.

사회보장혜택을 받는 사람도 그의 희망에 따라 힘에 맞는 직업에서 일하였을 때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로임을 지불해주고있다.

무의무탁한 불구자, 년로자들은 양로원에서 국가적인 혜택으로 생활하며 부양의무자를 잃은 유가족들과 인민군대후방가족들은 국가적인 높은 물질적혜택과 사회적원호를 받고있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하여 아낌없는 배려를 돌려주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실질적으로 실현되고있다.

상품공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상업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3페지)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상업의 이러한 본질적요구로부터 출발하시여 1971년 9월에 진행된 전국상업일군대회에서 또다시 사회주의상업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과 편의봉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상업의 발전과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심려하시여 무려 1,800여차례의 교시를 주시였으며 우리의 상점들을 무려 450여차나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상품류통분야에서는 벌써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없어졌으며 상업기관들은 상품을 골고루 공급함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상업망의 확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 9월 전국상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상업부문에서는 1972년에 주민지대에 더욱 접근시키는 원칙에서 상업망배치상태를 재검토하고 평양시를 비롯한 중요 도시들의 상업망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한편 특히 농촌상점망을 합리적으로 포치하는 사업에 주목을 돌렸다.

군소재지와 일반로동자구에는 일반식료품상점, 남새상점, 과실상점, 물고기상점 등을 따로 조직하였으며 도시와 큰 로동자지구에는 지역단위로 현대적인 식료품종합상점을 꾸리고 그밑에 동 또는 주택구획단위로 일반식료품과 남새, 과실, 물고기를 파는 분점을 조직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필요한 상품을 공급받을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 및 로동자지구에 국영농목장, 협동농장, 수산협동조합들의 직매점들을 널리 조직하였으며 남새, 과실 등이 많이 나오는 계절에는 주민지대에 가설매대, 위탁판매점들을 보충적으로 늘이였다.

렬차상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도소재지와 교통중심지들에 렬차상업을 위한 1~2개의 전문식료공장 또는 직장(작업반)을 새로 꾸리였으며 고기, 닭알, 양념감 공급기지를 따로 정하고 직접 공급하는 체계를 세웠다.

또한 1972년에 식료상점들에 수많은 랭동시설이 들어갔으며 공업품상점들의 업종별전문화와 진렬, 보관, 조명시설들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였다.

생산지와 소비지에 건설중에 있는 대규모랭동공장들과 매개 시, 군에서 종합랭동고건설을 다그쳐 하루빨리 전국도처에 강력한 랭동기지를 축성하도록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송림시에만하여도 1972년에 고기, 물고기들을 한번에 400여톤씩이나 저장할수 있는 커다란 랭동공장을 건설하였으며 52종의 현대적기계설비를 갖춘 부식물가공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여기에서만도 하루에 백수십가지의 부식물들을 10여톤씩 만들어 로동자들에게 공급하고있다. 또한 공업품상점들을 정리함으로써 1,060평방메터에 달하는 식료상업망들을 더 늘일수 있었다.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내각결정 제18호에 근거하여 상업부문에서는 농촌에 공급할 년간 상품 총량의 70%에 해당한 상품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 군에 필요한 상품창고를 짓고 농촌에 공급할 상품을 가지수별로 저장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상업부문에서는 6개년계획기간내에 도시 및 로동자구의 물고기상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농촌상점에 이르기까지 랭장고와 랭각매대를 전반적으로 도입하며 랭동차에 의한 식료품공급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식료품의 수송, 저장, 보관 및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랭동화함으로써 랭동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시켰다.

【주문제확립】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상업에서는 상품에 대한 주문제도 실시하고있습니다. 례를 들어 어떤 주민이 상품을 주문하면 상업기관에서는 그것을 책임적으로 해결하여 줍니다.》 (《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과 한 담화》, 단행본, 9페지)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주문제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수요를 생산에 정확히 맞물리고 생산을 계획적으로 조직할수 있었으며 생산된 상품을 다시 주민들의 지역별, 계층별, 계절별 수요에 맞게 계획적으로 분배공급할수 있게되였다.

각종 식료상품이 기본으로 되면서 가정용 랭동고와 세탁기, 전기밥가마, 전기곤로 등 녀성들의 가정일을 덜어주기 위한 상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상품주문서는 중앙적범위에서 생산과 분배가 계획화되여야 할 소비품들과 지방적범위에서 주문하고 계획화되여야 할 소비품의 품종한계를 옳게 가려 그에 상응한 주문제도를 정확히 확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상업기관들에서는 국가계획기관들과 공업 및 농업 생산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하에 공급을 주민들의 수요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맞물리기 위한 정연한 주문체계를 세웠다.

주문에 의하여 생산과 공급을 계획적으로 맞물리는 체계를 세움에 있어서 부식물과 일용품들의 지방적생산과 그 소비의 범위를 확대하는 원칙에서 상품자원을 적극 보충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렸다.

그리하여 도시 및 로동자구 식료품상점들에서는 식료품의 가지수를 300가지이상, 군소재지의 식료품상점에서는 200가지이상 정상적으로 갖추어놓고 팔도록 하였다.

상업류통부문에서는 남새와 과실이 일찍 나는 지대로부터 늦게 나오거나 적게 나오는 지역들간에 호상 교류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지대별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남새와 과실이 고르게 정상적으로 차례지게하였다.

렬차매대, 철도역매점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또한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여 봉사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과실, 밤, 게, 사이다, 맥주를 비롯한 지방특산물을 려행자들에게 떨구지않고 공급하였다.

상업부문에서는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 정휴양소, 학교, 병원 및 유원지들에 대한 상품공급체계를 1972년에 새로 세우고 그에 따라 식료품과 기념상품을 적극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탁아소, 유치원들에 어린이들의 건강에 좋은 사탕과 과자는 물론 우유 및 우유가루, 졸인젖, 각종 물고기가루들과 과실가루, 알가루, 밤가루 등 어린이용 식료품품종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원만히 공급해 주었다.

【사회급양 및 편의봉사】 1972년에 이 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여러가지 식당과 편의시설망을 더 늘이고 그 질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특히 녀성들의 편의를 더 잘 도모하였으며 녀성들의 부엌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사회급양부문에서는 만경대에 현대적인 식당을 새로 꾸린것을 비롯하여 평양시에서는 일반식당을 위주로하면서 여기에 고급식당을 옳게 배합하는 원칙에서 여러가지 식당과 청량음료점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전문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72년에 사회급양망건설에서 평양시의 모범을 따라 전국각지의 도시 및 로동자지구들에는 빵집, 국수집, 고기국집, 가족식당 등 전문화된 여러가지 식당들이 더욱 많이 늘어났다.

사회급양망을 더 늘이고 그를 현대화, 전문화하고 위생성을 더욱 높이도록 한것은 이해에 이부문에서 달성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였다.

렬차식당의 운영을 더욱 개선강화하는 한편 혁명 사적지와 전적지, 유원지들에 청량음료점을 더욱 늘임으로써 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되였다.

시, 군 및 로동자구들에서는 빨래집, 목욕탕, 리발소, 미장원, 양복점 등 편의봉사망을 7개년계획기간내에 근2배로 늘인 경험을 살려 편의봉사망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한편 그 질을 더욱 개선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특히 농촌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하여 군과 리들의 현존편의망들을 주민수와 그 구성상특성을 고려한 기초우에서 지방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여 위생편의망을 재포치하였다.

1972년 3월 20일 내각결정 제18호에 근거하여 지방정권기관들에서 시, 군에 있는 어린이리발소들을 알뜰하게 꾸리는것과 함께 도시에서는 동단위로 어린이리발소들을 꾸리고 거기에 우수한 리발사들을 배치하여 리발의 질과 봉사성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상업일군양성】 수령님께서 1970년 2월 상품공급과 사회급양 및 편의봉사 일군양성을 위한 대학, 고등기술전문학교 또는 강습소들을 조직하여 이 부문의 기사, 기수및 고급기능공들을 많이 양성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가 있은 때로부터 1972년에 이르는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상업일군교육기관이 수많이 늘어났다.

이리하여 우리의 상업일군대렬은 당과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붉은 녀성상업전사들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그들의 힘에 의하여 우리의 상업기관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다.

상업일군들은 예술영화《우리 렬차판

매원》주인공처럼 자신들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인민의 참된 봉사자로 더 준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리였다.

상업일군들은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배려가 더 잘 가닿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연구하고 각종 상품들을 주민지구에 직접 가지고나가 공급해주고있다.

우리 당은 상업일군들을 위한《상업신문》, 잡지《사회주의 상업》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교양수단들을 마련하여 주었으며 현장을 통한 기능전습체계를 세우고 고급기능공대렬을 급속히 확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다.

당은 또한 편의봉사부문일군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공훈리발사, 공훈료리사, 공훈재봉공, 공훈재단사, 공훈판매원, 공훈편의수리공, 공훈접대원칭호를 제정하였으며 9월 15일을 상업절로 제정하여주었다.

또한 1972년 3월 20일 내각결정 제18호에 근거하여 수리수선부문을 비롯한 편의봉사부문일군들의 기능급수와 로임을 1972년에 다시 사정하여 그들의 사회적대우를 더욱 높여주었다.

도시경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와 전체 인민의 공동재산인 건물들과 시설물들을 제때에 수리하고 관리하는것은 인민위원회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도시경영사업을 잘하여야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할수 있습니다.》(《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과 한 담화》, 단행본, 10페지)

수령님께서는 1971년 6월 30일 도시와 건물들이 현대적으로 건설되고있는 조건하에서 그에 맞게 도시경영사업을 따라 세우며 거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으며 1972년 6월말에 열린 전국열관리원대회에서는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위한 위생문화조건과 부단히 증대되는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주택과 공공건물들의 열설비들을 현대화, 규격화하고 열관리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의 교시가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도시경영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건물관리 및 구획정리】 1972년에 도시경영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건물과 주택구획을 더 잘 꾸리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는 한편 주민들속에서 나라의 건물과 시설물을 자기의것처럼 사랑하고 알뜰하게 관리하도록 대중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2년 9월 5일 도인민위원회 위원장협의회에서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신 때로부터 1972년에 이르는 10년동안 건물관리, 도시미화사업을 비롯한 도시경영사업에 광범한 군중들이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전인민적관리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우리의 거리와 마을은 위생문화적으로 더욱 알뜰히 꾸려져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이 기간에 홍상도시경영사업소를 비롯하여 지방원료와 자재를 탐구동원하여 능히 자체로 보수관리에 필요한 건재를 생산보장하는 건재기지들이 도처에 일떠섰으며 생산기지들과 수리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졌다.

그리하여 건물관리능력은 3배이상으로 늘어났다.

1972년에 공공건물보수에서는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회관에 중심을 두고 주기보수사업을 정상화하였으며 기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소보수를 자체로 할수 있도록 해당인원을 꾸려주고 필요한 자재를 맞물려주어 이에 중보수와 대보수를 따라세우도록하였다.

건물관리원, 건물관리반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 주택들에 대한 순회점검사업과 이에 따르는 정상보수를 따라세움으로써 주민들의 거주생활에 불편이 없게하였다.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알뜰히 꾸리는것과 함께 어린이놀이터를 꾸리는 사업, 꽃밭조성을 비롯한 주택구획을 규모있게 미화정리하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군소재지를 잘 꾸리여 군소재지들이 농촌에 도시의 문화와 생활풍습을 보급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게하였다.

이와 함께 매개 시(구역), 군에서 동 또는 리를 한개이상씩 시범적으로 꾸리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널리 벌렸다.

【도로 정비 및 관리】 1972년에 도시시설부문에서는 현대적인 도시규모에 맞게 도시시설을 정비보수하는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였으며 거리조명시설의 보수관리사업을 잘함으로써 도시를 보다 환하게 하였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의 모든 큰 거리들을 환하게 하기 위하여 20만평방메터의 아스팔트도로포장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중심거리건물들에 타일을 다 새로 붙이고 가로등을 석영수은등으로 개조하였다.

특히 시설부문에서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주변의 거리와 걸음길, 조명등, 가로등을 모두 정비하여 보다 화려하게 하였다.

도로의 문화성을 높이며 늘어나는 교통량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도로시설물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알뜰하게 꾸림으로써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수령님께서 건국사업의 첫삽을 뜨신 보통강을 비롯하여 배움의 천리길에 잇닿은 강계, 희천시를 비롯한 도시내 중소하천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정리하며 수령님의 교시대상 중요하천들의 강바닥을 파내며 돌담을 쌓아 큰물의 피해로부터 도시를 영원히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되였다.

도시하천관리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호안석축과 하천시설물의 보수공사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또한 모든 농촌리들에 뻐스가 다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1972년에 중요간선도로와 군과 리를 련결하는 길들을 지방원료원천을 동원하여 포장하는 등 길닦기공사를 적극 벌리였다.

【상하수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가 완성된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촌수도화를 성숙된 요구로 인정하시고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새 전망계획기간에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농촌수도화의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하여 상수도부문에서는 년차별계획에 따라 물이 멀리 있고 나쁘며 물이 모자라는데로부터 먼저 수도화하는 원칙에서 농촌에 수도를 놓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1972년에 그 전해보다 3배나 더많은 농촌부락들에 수도화를 완성하였다.

수도화가 완성된 농촌리들에서는 우리 녀성들이 물동이를 이고다니는것과 같은 가정일의 부담에서 벗어났으며 농촌주민들도 도시주민들과 같이 더 좋은 위생문화조건에서 생활할수 있게 되였다.

1972년에 상하수도부문에서는 이미 있는 상수도시설을 보수정비하며 관리사업을 개선하여 계절적제한이 없이 물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도시주민들에게 음료수를 더욱 원만히 공급하였다.

이 부문에서는 1972년현재 있는 수

원지들에서 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구조물보강사업과 함께 려과지, 뽐프장 보수를 제때에 진행하여 물을 더 많이 생산하였으며 물을 허실함이 없이 주민들에게 공급하였다.

평양시에서는 새 수원지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일부 수원지의 려과지공사 등을 끝내여 물생산을 133%이상 늘이며 한사람당 물공급량을 125%로 장성시켰다. 또한 공업용수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우리 나라에는 지난 10년간 도처에 새로운 물생산기지들이 꾸려져 물생산은 2배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1972년에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더 잘 꾸리기 위해 4,300메터의 수도공사를 진행하였다.

상하수도부문에서는 생산된 물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송수관교체작업의 순위를 정확히 규정하고 작은 관을 큰관으로 교체하면서 주어진 작업대상을 제때에 보수하였다. 옥내상수도관보수에서는 비닐관을 광범히 리용하였다.

상하수도부문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송배수관, 급수관을 제때에 보수하여 땅밑에서 물이 새여나가는것을 막으며 수도꼭지, 시스타크, 후라시발브 등을 보수정비하는 동시에 주민들속에 물을 아껴쓸데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였다.

【열 및 온수 난방】 경애하는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6월말에 진행된 전국열관리원대회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열관리공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열설비들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규격화, 현대화하며 연료를 극력 절약하고 더 많은 열을 생산함으로써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2년에 난방부문에서는 평양시중앙난방공사를 더욱 다그쳐 더 많은 살림집들에 더운물이 들어가게 하였으며 보이라를 비롯한 열생산설비와 시설관리사업을 개선하여 보이라의 효률을 더욱 높이였다. 그리하여 주철제보이라에서는 50%이상, 강철제보이라에서는 60%이상 열효률을 높이며 석탄을 극력 절약하면서 규정된 실내온도를 정상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보온작업을 질적으로 하여 열의 도중손실을 적극 방지하였다.

열 및 온수 난방부문일군들은 1972년에 중앙열난방간선공사를 적극 추진시켰으며 외성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의 기존살림집 1만여세대에 대한 옥내난방공사를 진행하고 전기곤로도 공급하여 녀성들을 부엌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공공건물에도 중앙열난방이 들어가게 하였다.

이리하여 보다 더 많은 가정들에서 탄을 다루지 않고 방을 덥히며 더운물을 쓸수 있고 집집이 목욕탕을 갖추어놓고 전기곤로, 석유곤로로 밥을 짓는 보다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있다.

【원림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원림화사업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심는데로부터 중소규모의 공원건설과 결합시켜 큰 유원지를 건설하는데 이르기까지 더 좋고 쓸모있고 교양적가치가 높은 문화휴식터를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원림부문에서는 1972년에 수령님의 동상주변과 혁명 사적지, 전적지 주변을 훌륭히 록화하는 사업과 함께 공원, 유원지들을 보다 알뜰히 꾸리고 중소공원시설들을 규모있게 꾸리는데 힘을 넣었다.

특히 빨리 자라고 아름다운 나무를 많이 심어 도시의 풍치를 조성하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양묘장과 온실들의 능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큰 나무와 꽃모를 많이 내도록 하였다.

지난 10년간 원림부문에서는 공원, 유원지는 4.2배, 동물원은 12배, 식물원은 3배로 늘어났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인구 한사람당 록지관리면적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되였다.

평양시의 원림화는 한사람당 차례지는 록지면적에서만도 48평방메터로서 이것은 자본주의나라의 도꾜나, 빠리, 런던, 뉴욕 등의 도시들과는 비할바없이 높은 세계적수준에 달하고있다.

평양의 거리들은 만경대유원지와 룡악산유원지로부터 대성산유원지에 이르기까지, 가깝게는 모란봉공원으로부터 그와 잇닿아 펼쳐진 대동강유보도와 보통강유원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시내의 크고 작은 공원, 유원지들과 록지들로 둘러싸여있으며 날마다 그 면모를 새롭게 하고있다.

대성산유원지에만도 명절날 하루동안에 10여만의 근로자들이 찾아오고있다.

조선혁명박물관주변의 원림화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중심으로 근 25정보의 넓은면적에 펼쳐져있다.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조선혁명박물관주변의 록지에 총 90여종에 달하는 3만 4천여그루의 여러가지 나무들과 12만여포기의 꽃들, 12.6정보에 달하는 잔디를 옮겼다.

우리 인민들은 박물관주변에 함북도에서 발견된 풀로끼꽃나무, 제주벚나무, 황북도 황주군에서 발견된 명자꽃나무며 서흥군의 누운향나무며, 해주시의 자목련, 량강도에서 발견된 이노리 등 갖가지 귀중한 나무들을 온갖 정성을 다하여 심었다.

이 모든 혁명사적지와 공원, 유원지들은 근로자들에게 자연에 대한 산지식을 주며 그들을 자기조국의 향토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할수 있는 훌륭한 학교로, 근로자들의 보다 흥겹고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벗들은 평양안에 공원이 있는것이 아니라 공원속에 평양이 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보 건

1972년에 우리 인민은 전반적무상치료제실시 스무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여 모든 근로자들이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고있습니다. 도시나 농촌 할것없이 근로자들이 일하며 살고있는 모든곳에 치료기관과 의료일군이 있으며 선진적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여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고있습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단행본, 26페지)

수령님의 주체적인민보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그이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와 전국보건일군대회에서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가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는 인민들이 무병장수하는 지상락원으로 전변되였다.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됨으로써 온갖 질병에서 벗어나려는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은 우리 제도하에서 빛나게 실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

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새형의 병원인 민중병원을 설치하시고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제를 실시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1952년 10월 2일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전체 인민들에게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력사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실시에 의하여 우리 인민들은 병치료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도 모르게 되였으며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인민들이 그처럼 념원하여오던 무병장수의 새 력사가 시작되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크나큰 혜택을 베풀어주시고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후시기에 군병원들을 더욱 현대적으로 꾸리고 모든 농촌리에 진료소를 설치하게 하시는 한편 가장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도록 하시고 산원, 소아과 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을 더 많이 내오고 온천과 약수가 있는 지대에 료양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게하시였으며 제약 및 의료기구 공업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도록 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짧은 기간에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의 질적수준이 한계단 높이 뛰여오르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보건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20년전부터 진찰, 치료, 입원, 료양치료, 지어 료양소에 오가는 려비와 병원식사비 등 모든 의료봉사가 다 무료로 되였을뿐아니라 병을 보이는 기간, 치료받는 기간, 료양하는 기간에 누구나 다 국가로부터 생활보조금까지 받고있다.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흉역을 비롯한 온갖 악성질병들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전에 비하여 인구의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26년이상이나 늘어났다.

【위생방역】 우리 나라에는 위생방역기관들이 지방에 이르기까지 체계정연하게 설치되여있으며 인민적인 예방접종체계가 수립되여있다.

즉 중앙과 도, 시, 군들에는 위생방역소가 있고 리, 동과 기관, 기업소에는 위생지도위원회가 조직되여있으며 인민반들에는 위생방역초소를 담당하고 있는 일군들이 있다.

수령님께서 보건사업을 예방의학적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는데 모든 력량을 집중하라고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2년에 위생방역부문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활문화와 생산문화를 적극 확립하여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나서는 위생학적요구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주목을 돌렸다.

우리 당은 공장외부는 공원과 같이, 공장내부는 궁전과 같이 꾸릴 목표로 공장, 기업소와 로동자구를 잘 꾸리고 위생문화사업에서도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군소재지, 학교, 보건기관 등을 본보기로 꾸리고 그를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였다.

유해로동을 무해로동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장, 기업소 특히 채굴부문과 고열부문의 로동위생시설과 로동보호용구들을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더 잘 갖추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탄광, 광산들의 굴 입구에는 자외선등을 비롯한 물리치료시설들을 갖추어놓고 로동자들이 작업후에는 물리치료를 받을수 있게 하였다.

고열부문에서는 복사열을 막기 위한 제반 대책을 세웠으며 로동자들에게 염분을 함유한 탄산수와 비타민제, 약수 등을 다량적으로 공급하였다.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사이의 위생문화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에 목욕탕, 리발소를 비롯한 위생편의시설들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한편 농촌수도시설의 위생성을 잘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농촌수도 급수원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였다.

위생방역기관들에서는 녀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기 위하여 식료가공품생산이 급속히 늘어나고있는 조건에서 식료품생산기업소들에서의 위생관리질서를 세우고 영양위생학적요구에 맞게 식료품의 문화성과 위생성을 더 한층 높이게하였다.

또한 예방접종, 예방검진, 소독을 비롯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사로청, 직맹, 농근맹, 녀맹 등 근로단체들과《학생문화위생근위대》의 역할을 강화하여 위생선전사업과 위생지식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근로자들의 위생문화지식수준을 더욱 높여주었으며 그들로하여금 위생방역사업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하였다.

위생선전사, 위생선전소들에서 위생선전그림, 위생달력 등 위생선전자료들을 대대적으로 출판보급하고 텔레비죤, 유선방송들에서도 위생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려 근로자들의 위생문화수준을 높이며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와 함께 위생방역부문에서는 3~4월, 9~10월위생월간에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 특히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더 잘 꾸리기 위한 군중적운동을 힘있게 벌렸다.

수령님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확대발전시키신《모범위생군》창조운동이 1972년에도 활발히 벌어져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군들이 다《모범위생군》으로 되였다.

지방위생지도위원회에서는 해당 정권기관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모범위생가정》, 《모범위생인민반》창조운동도 힘있게 벌리였다.

이렇게 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거리와 마을들이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지고 병이 생길수 있는 근원이 없어졌다.

【치료예방】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병원들을 증설하고 의료일군들을 늘이며 여러가지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더욱 개선하도록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78페지)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1972년에 그 전해의 1.5배에 달하는 보건시책비를 지출하였다.

전체 인민들이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더 잘 받게 하기 위하여 보건부문에서는 의사담당구역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특히 군병원을 잘 꾸리고 농촌리진료소들을 병원화하여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렸다.

공화국정부에서는 군병원을 종합병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선 군병원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려주었으며 더 많은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생산공급해 주었다.

이미있는 병원들이 더 잘 꾸려지고 병원과 료양소들이 많이 증설됨으로써 치료예방기관의 침대수는 훨씬 늘어났으며 해방전에는 불과 10개도 못되는 병원밖에 없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수천개의 병원, 진료소들을 가지게 되였다.

특히 농촌진료소를 병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널리 벌어져 1972년말현재 전국적으로 1,241개리의 농촌진료소들이 훌륭한 병원으로 꾸려졌다.

문덕군, 송원군, 개풍군을 비롯한 여러개의 군들에서는 모든 리에서 병

원화를 끝냈다.

새로 꾸려진 리병원들에는 외과, 내과, 소아과 등이 그쯘히 갖추어지고 조산원을 비롯한 전문의료일군들이 배치되여있으며 최신의료기구들도 수많이 들어갔다.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세밀한 《건강관리부》가 작성되여있으며 의사담당구역사업이 실속있게 실시되여 의료일군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치료예방사업을 하고있다.

농촌리진료소를 병원화하기 위하여 보건부문에서는 형제산구역 형산리와 문덕군 립석리 진료소들을 먼저 리인민병원의 본보기로 꾸리고 여기서 해당기관들을 위한 방식상학을 조직한 다음 각 지방에 지도성원들을 보내여 이 사업을 방조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1972년말까지 농촌리진료소의 절반이상이 병원화되였으며 1974년까지는 나머지 전부를 리인민병원으로 꾸리게 된다.

한줄기의 약수, 온천을 보시고도 인민들의 건강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시고 그토록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와 뜨거운 사랑속에 1972년에 우리 근로자들은 료양치료의 혜택도 많이 받았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창성, 강서, 삼방, 선천 약수, 주을, 룡강, 삭주 온천 등 130여개지대의 250여개소에 달하는 많은 약수, 온천들에 수백대씩의 침대를 가진 현대적인 의료봉사시설들을 갖춘 훌륭한 료양소들이 꾸려져있다.

석왕사료양소만하여도 그 규모가 800여대의 침대를 가지고 감탕치료, 약수치료, 감탕직류이온치료, 약수에 의한 장관류법 등의 전문과를 가진 웅장한 료양각과 최신의료설비를 갖춘 물리치료과, 광천연구실, 약수공장, 약국, 치료체육장 등 모든 치료설비들을 갖춘 료양소로 발전했으며 200여명의 의료봉사일군들이 료양생들의 건강과 생활을 돌봐주고있다.

그리하여 이 료양소에만도 연 7만여명, 1972년에는 5,300여명의 근로자들이 료양치료의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것은 석왕사료양소의 경우만이 아니였다.

우리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갖가지 전염병들과 토질병이 완전히 없어졌다.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의 건강보호】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핌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와 공장, 기관, 기업소로부터 협동농장, 어촌에 이르기까지 녀성들이 일하는 모든곳에 탁아소와 어린이보육교양시설, 공급기지들을 훌륭히 꾸려놓고 국가가 어린이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돌보고있다.

탁아소들에서는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공기맑은 그늘밑에서 놀게 하며 해빛을 잘 쏘이여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는 양육방법을 적용하는 등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다 취하였다.

또한 아동병동건설을 군중적운동으로 힘차게 벌린 결과 도, 시(구역), 군과 주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아동병동이 다 설치되여 소아과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있으며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선진적인 의료봉사혜택을 주고있다.

갓난애기들에게는 나서 3일만에 결핵예방약을 주는 등으로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취한 결과 홍역과 백일해, 천연두와 지프테리아도 이제 더는 어린것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수 없게되였다.

오늘 우리의 어린것들은 제나이에 비해 몸무게도, 키도 엄청나게 크게 자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머니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도 특별한 배려가 돌려지고있다.

산전산후 77일간의 유급휴가와 14일간의 정기휴가, 산모들에 대한 100%의 해산방조, 녀성들의 신체적특성에 맞는 직업과 직종의 선택 그리고 그들을 위한 특별한 로동보호대책과 녀성위생시설의 완비, 3명이상의 어린애를 가진 녀성들에 대한 6시간로동의 실시 등으로 녀성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있다.

【보건일군양성 및 의학기술발전】 수령님께서 주체적인 의학과학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교시와 그이의 원대한 구상이 실현됨으로써 의학과학연구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 의학과학원과 평양의학대학병원, 연구소 등을 망라한 대규모의 의학과학연구집단이 꾸려져있어 의학과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있으며 도마다 의학대학을 비롯한 의료일군양성기관들이 있어 자기 지방에 필요한 의료일군들의 수요를 자체로 해결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동의학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동의치료를 위하여 현대적설비를 갖춘 동의학연구소가 설치되여있고 각급 병원들에는 모두 동의과가 따로 있다.

우리 나라는 한사람당 의사수에 있어서나 의료시설수에 있어서나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로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25만의 보건일군대부대가 마련됨으로서 보건사업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고있다.

비루스조직배양에 의한 예방약의 생산을 비롯한 흉부외과, 정형외과들이 이미 선진적인 수준에 올라섰으며 로동위생과 림상의학 부문에서도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앞못보는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대지를 활보하며 잘리운 손과 팔을 다시 이어주는 등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낳고있다.

1972년에 의학과학부문에서는 동맥경화증에 관한 연구, 우리 나라에서 위, 십이지장 궤양의 림상과 새로운 치료체계에 관한 연구, 원발성심근염의 림상적연구, 중, 로년기 부정맥에 관한 연구에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또한 유해로동을 무해로동으로 만들며 산업성질환을 없애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이야, 산, 알카리 계통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없애고 이 부문의 로동을 보다 쉽고 문화적으로 할수 있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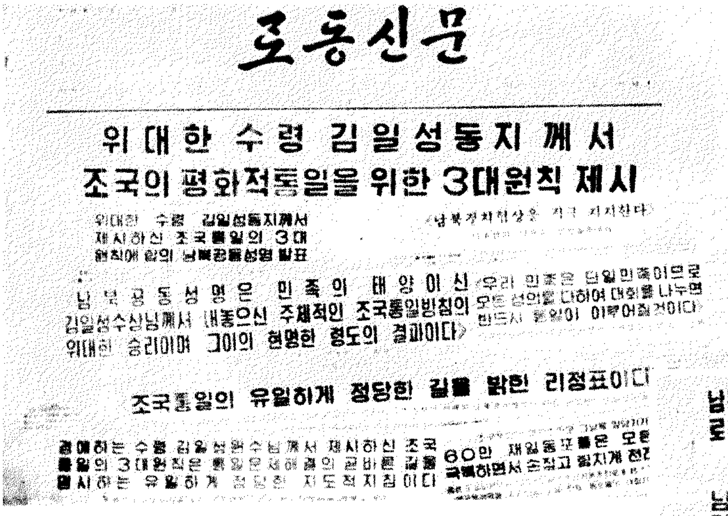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는 유기합성의약품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항생제의약품들과 갖가지 의료기구를 자체로 만들어 쓰게되였으며 동의학을 발전시키고 민간료법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는데서도 일정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 광천중에 있는 주요 미량원소의 분석에 관한 연구와 서해감탕의 개척과 리용문제를 비롯하여 시중호감탕의 생물학적능동물질에 관한 연구 등은 우리 나라 약수, 감탕을 더 많이 개발하여 병치료와 예방사업에 과학적으로 광범히 리용할수 있게하였다.

강서료양소의료집단은 우리 나라 각지의 약수와 온천들의 성분분석사업을 진행하여 근 30가지의 금속원소 특히 많은 미량원소를 찾아냄으로써 광천치료의 과학성과 전문화수준을 높일수 있게하였다.

의학과학부문에서는 1972년까지 이르는 2~3년동안 새로운 온천과 약수를 50여개나 발굴하였으며 그 용출량을 온천에서는 5배, 약수에서는 10배로 늘이였다. 특히 청산리약수같은데서는 용출량을 700배로 늘이였다.

광천자원들이 수 많이 개발됨으로써 새로 더 많은 료양소들을 건설할수 있게되였다.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3대원칙 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의한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정치협상을 적극 지지한다》

남북공동성명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수상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방침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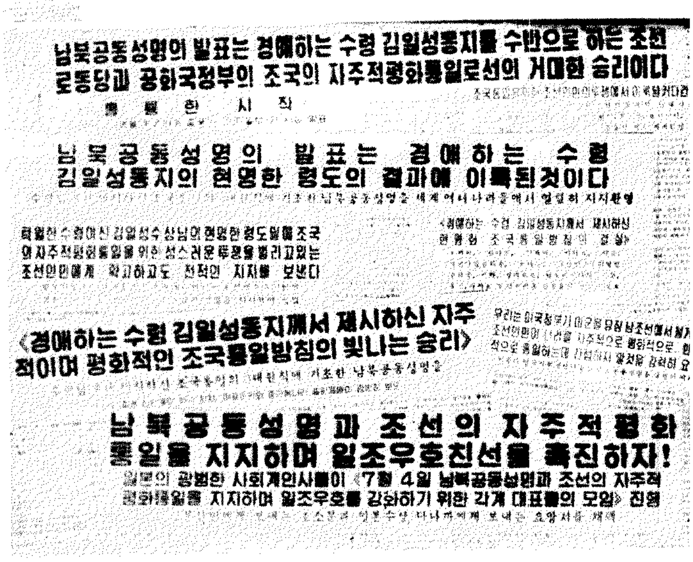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므로 모든 성의를 다하여 대화를 나누면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질것이다》

조국통일의 유일하게 정당한 길을 밝힌 리정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통일문제해결의 올바른 길을 명시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적지침이다

60만 재일동포들은 모든 ... 국해하면서 손잡고 힘지게 전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3대원칙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국내외에서 거대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로선의 거대한 승리이다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수상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벌리고있는 조선인민에게 확고하고도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조국통일방침의 결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조국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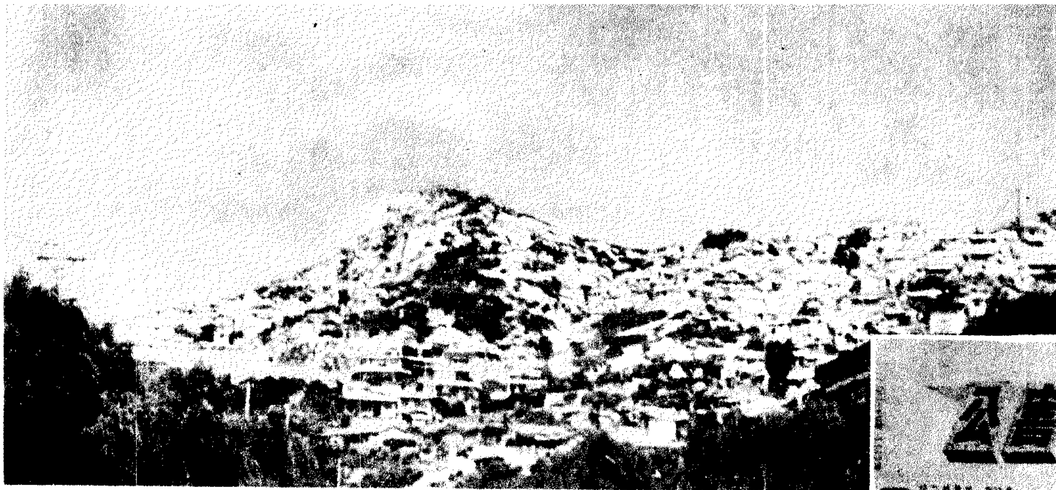
남북공동성명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며 일조우호친선을 촉진하자!

일본의 광범한 사회계인사들이 《7월 4일 남북공동성명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며 일조우호를 강화하기 위한 각계 대표들의 모임》 진행



남조선인민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를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을 벌리고있다.





산등성이에까지 숨막히게 다닥다닥들어붙은 서울시내 판자집들



일본의 오물단지—공해산업을 끌어들인 후과를 보도한 남조선출판물

천대와 낮은임금 속에서 혹사당하고있는 남조선근로녀성들



수리시설이 없어 애타게 가물과 싸우고있는 남조선농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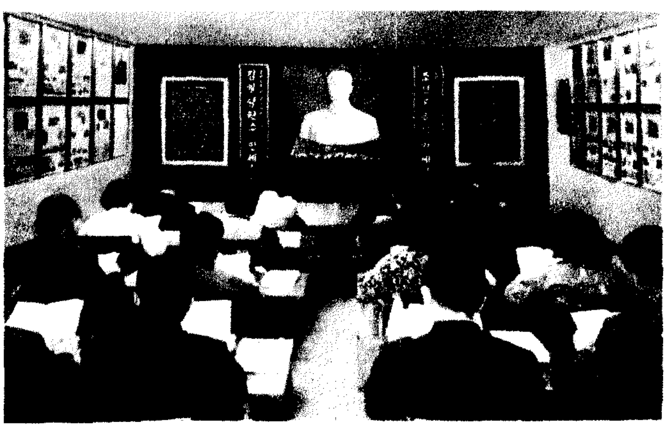


남조선경제를 휩쓸고있는 일본독점체들의 상품선전공세


주체
김일성원수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국을 방문한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축구소조와 요꼬하마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 성원들을 만나시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깊이하고있는 재일동포들



총련의 각급 학교들에서 우리 말 교육을 강화하고있다.



총련과 《민단》의 공동주최로 8. 15스물일곱돐을 기념하며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도꾜전체 동포들의 대회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경모와 충성심

1972년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세계진보적인류의 공동의 경사로서 경축한 영광스러운 해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여 27년동안이나 분단된 북과 남사이에 접촉과 협상이 이루어지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서 보다 유리한 국면이 마련된 력사적인 한해였다.

더우기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가 열리고 이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고 이에 기초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이 영광과 승리로 빛나는 1972년에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열화같은 충성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드높아졌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축원

남조선인민들은 반만년 력사상 우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열렬히 우러러 흠모하면서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충심으로부터 축원하며 영원히 수령님을 받들어 끝까지 충성다할 붉은 마음을 더욱 깊이 가다듬었다.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수령님께 드린 축기에는 금빛해살을 뿌리는 수령님의 초상을 정중히 모시고 그 아래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만세!》라고 아로새긴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의 붉은 기발을 휘날리면서 필승의 신념을 가다듬고 투쟁에 나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군인 등 광범한 각계층 혁명군중의 름름한 모습을 형상한 그림이 수놓아져있다. 그리고 그 뒤면에 금실로 수놓은 축하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사에 길이 빛날 영광찬란한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의 진로를 휘황히 밝혀주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불세출의 영웅이시며 우리 남반부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길이 만년장수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통일혁명당의 이 축기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해와 달이 다하도록 우러러 모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남조선에서의 혁명승리와 조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하고 천만년 영원토록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행복을 누리려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불타는 념원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충성심은 로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지식인, 녀성 등 모든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으로서 그들의 가슴마다에서 끓어번지였다.

서울의 애국적주민들은 《4월 15일, 위대한 태양은 솟아올랐다》라는 삐라를 《비상사태》하의 삼엄한 서울거리 한복판에 수많이 뿌려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구의 로동자와 녀성, 부산의 한 기자와 서울의 애국소년들은 원쑤들에게 체포되여가는 자리에서도 《김일성원수님 만세!》를 소리높이 웨쳤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우러러 흠모하며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다하려는 열정이 남조선인민들의 심장마다에서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기세로 힘차게 솟구쳐오르고있다는것을 보여준것이였다.

수령님에 대한 억누를수 없는 경모의 정으로 하여 《비상사태》하의 그 삼엄한 경계속에서도 수령님을 칭송하는 우렁찬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울려나왔다.

서울의 한 로동자는 수많은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일성원수님은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우리는 그이의 정치를 직접 받아야 북녘의 동포들처럼 보람있게 살수 있다.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남북 온겨레가 단란하게 살아갈 그날을 우리는 앞당겨야 한다》고 웨쳤다.

평남의 한 농민은 《김일성원수님은 진정 우리 남녘농민들의 위대한 어버이 수령이시다.》라고 격동된 심정으로 말하였으며 동해의 한 어민도 《김일성원수님! 그이는 진정 우리의 어버이시며 위대한 수령이시다》라고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충성의 노래, 영광의 노래인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면서 그이에 대한 충성심으로 더욱 가슴불태웠다.

경기도 수원 남쪽 큰길을 달리던 한 뻐스안에서 운전수가 수십명의 승객들에게 <모두 수령님을 모시고 살게 될 그 행복의 날을 앞당기는 심정으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힘차게 부릅시다>라고 하면서 선창을 떼여 승객들과 함께 부른 이 충성의 우렁찬 합창소리는 오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가슴을 오매에도 그리는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신뢰의 정으로 더욱 설레이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남녘겨레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은 그이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서울과 부산, 호남벌과 령남땅, 남해의 제주도에 이르는 온 남녘땅에서 혁명가들과 애국자들, 로동자와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축원하며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우러러 모시고 충성다하려는 열화같은 흠모의 정과 충성심을 담아 그이께 수많은 축기와 축하문, 충성의 맹세문과 선물들을 드린데서 더욱 뚜렷이 표시되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김일성장군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수령님의 뜻을 이 강산에 꽃피우기 위해 이 한몸 바칠것을 피로써 맹세합니다>, <김일성원수 만세! 남조선혁명만세!>, <유일사상 무장>, <주체확립> 등의 글발을 혈서로써 수령님께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남조선의 한 청년혁명가는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실것을 절절히 바라는 남조선인민들과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념원을 담아 <수령님 만수무강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노래를 지어 그이께 올리였다.

암흑천지 남녘땅에서 모대기는 인민들우에
민족영웅 4월의 태양 밝고밝은 빛을 뿌리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 충성으로 축하합니다.
김일성원수님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

남조선의 한 농민은 일년 열두달 하루도 쉬임없이 한나산과 지리산, 태백산과 대관령의 험준한 산발을 오르내리며 60종의 약초를 캐여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축원하여 장생불로약을 지어 그이께 보내여왔다.

이렇듯 막을수 없는 기세로 더욱 세차게, 더욱 뜨겁게 터져나오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불같은 흠모와 충성심은 일제통치하의 그 암담하던 시기부터 오직 그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과 독립의 위대한 수령으로 우러러보며 피바다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며 싸워온 그때로부터 남조선인민들의 심장깊이에 간직되여왔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하는 통일혁명당의 지도밑에 반미구국투쟁 과정에 더한층 불타오른 그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인것이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확고히 무장함으로써만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길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 그이께 더욱 충직하려는 일념으로 이해에 남조선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을 더욱 광범히 조직하고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연구체득하기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였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앞두고 부산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그이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한 <주체사상연구소조>를, 남조선강원도 순천지구의 <국민학교> 교원들과 대학생들을 비롯한 애국적녀성들이 <김일성원수님 주체사상녀성연구회>를 각각 조직하고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들이 수록된 <김일성저작선집>과 최근시기의 천재적로작들, 그이의 전기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등을 탐독하며 혁명의 의지를 키워나가고있는것은 그 수많은 실례들중의 일부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고 그 기치따라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가고있는 통일혁명당 평남조직의 혁명가들은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결의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혁명하는 방법을 몰라서 헤매이던 저희들은 수령님을 찾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에 접하면서부터 비로소 혁명하는 법을 알게 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저희들의 심장에는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죽겠다는 혁명적각오가 서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도시와 농촌에서, 지하와 산중에서, 지어는 감옥과 <법정>에서까지 <김일성장군 만세!>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긍지높이 부르며 남조선에서의 혁명승리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다.

수령님을 모시고 통일된 조국에서 번영을 누리려는 불타는 념원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발표를 계기로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높아갔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천재히 구현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가장 정확한 길을 열어준 과학적인 방침이며 남조선인민들을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경모하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일치하게 <남북공동성명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라고 말하면서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그이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목숨바쳐 싸워야 하겠다>고 자기들의 절절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이것은 수령님을 끝없이 경모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하루속히 남북공동성명이 실현되여 통일된 조국에서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것을 일일천추로 념원하고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남북공동성명 발표후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 원수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길만이 진정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길이다>, <오늘 조국통일문제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이 가르키는대로 실현되고있다>고 말하면서 주체사상을 조국통일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으며 그이를 끝없이 흠모하였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은 지난기간에 수령님의 령도를 받아야 잘살수 있다는 것을 많이 말하였으나 남북공동성명발표후에는 <김일성원수님께 정권을 넘겨야 우리 남한인민들도 그이의 현명한

평도를 받으며 잘살수 있다〉고 하면서 새 사회, 새 제도, 새 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였다. 이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남북공동성명발표이후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발표와 관련한 보도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뵙게 된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들과 하층공무원들에 이르는 광범한 인민들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넘쳐 〈김일성원수님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며 환희로 들끓었다.

서울의 한 주민은 일본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이날의 광경을 이렇게 전하였다. 〈서울시내 주민들은 김일성원수님의 영상을 뵙고 박수를 치면서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통일 만세!〉를 목청껏 부르면서 기뻐서 춤을 추었다.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살날이 멀지않다고 이야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은 쌍방대표들이 마침내 북과 남사이의 장벽을 헤치고 영광스러운 혁명의 수도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남북적십자회담과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와 공동위원장들의 회의들을 열게 된것을 계기로 더욱 드높아갔다.

남조선인민들은 서울에 간 우리측 대표들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통일의 사절로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기도 파주군 문산면에 사는 임아무개라는 농민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북대표들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일찍 큰 길목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손님들이 탄 차들이 앞을 지나갈 때에는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환성을 올렸고 마음속으로〈김일성장군님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특히 우리 대표단성원들의 가슴마다에서 빛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통하여 존귀하신 그분의 영상을 뵙게 된 남조선인민들은 그이에 대한 한없는 흠모의 정에 휩싸였다.

제2차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던 남회담장소밖에 서있던 서울의 청년학생들은 우리측 대표단성원들이 모신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그이에 대한 흠모의 정에 넘쳐 바라보면서 〈이 분이 김일성원수님이시지요, 영화와 텔레비존을 통해서 우리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도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김일성원수님은 참으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라고 말하였다.

가난과 굶주림, 학대와 멸시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그리고 그리던 그분의 인자하신 모습이신가

우리 대표단의 가슴에서 빛나는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뵙는 사람마다가 《참 인품이 높으신 분이시다》, 《인자하신 분이시다》, 《민족의 영웅이시다》라고 하면서 그이에 대한 경모의 정으로 가슴불태웠으며 늙은이들은 《더 늙기전에 그분을 한번 뵈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기들의 절절한 념원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우리 대표단의 연설을 라지오와 텔레비존, 신문을 통해 듣고 본 남조선인민들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하루속히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여 우리 인민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더욱 목메여하였다.

서울 봉청동에 사는 김아무개라는 로동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텔레비존에서 평양대표단의 연설을 들으니 참말 꿈만같고 새힘이 솟습니다. 이번 서울회담에서 이북대표들은 우리 민중이 하고싶은 이야기들을 속시원히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해 불철주야 로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성원수님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으로 가슴불태우는 남조선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차고넘친 하나의 념원, 하나의 지향은 하루속히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여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안에서 마음껏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는 것이다.

《김일성장군님이 계시여 우리도 잘 살 날이 꼭 온다고 생각하기에 불행속에서도 행복한 앞날을 내다보며 꿋꿋이 살아간답니다》라고 한 서울 영등포구 로량진에 사는 신아무개라는 철공로동자의 말이나 《조국통일의 민족사적대업을 성취하고 민족의 태양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영원한 번영과 복락을 누리려는것은 우리 민중 모두의 불같은 념원이다.》라고 한 서울의 한 지식인의 말에서 그것을 여실히 알수있다.

이 지향, 이 념원을 하루속히 실현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드높은 기세와 굳센 투지로 하여 이 한해에 그들속에서는 조국통일기운이 전례없이 앙양되였다.

서울의 한 주민은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그이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목숨바쳐 싸워나가겠다》고 자기의 절절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남조선의 한 청년은 지금까지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참혹한 처지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 살아온 자기의 무지를 깊이 뉘우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굳게 맹세한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김일성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했던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싸워나갈것을 다짐한다.》

이것은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이 불패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이 빛나는 결실을 맺어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의 시기가 도래한데 무한히 감동되고 이에서 새로운 용기와 신심을 얻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며 의지인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이 해에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속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불타는 충성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북과 남의 합작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기운이 더욱 급격히 높아갔다.

이것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정세발전의 기본추세였으며 이해의 주되는 특징이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 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세차게 싸워나갈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김일성장군은 우리 온 겨레의 주석이시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되신데 대한 소식에 접한 남조선인민들은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

에 더욱 휩싸여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린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남조선혁명의 승리가 약속되여 있고 위대한 김일성주의가 있기에 남조선혁명의 진로가 명백함을 현실로 체험한 우리 통일혁명당원들은 지금 수령님의 전사된 긍지와 자랑을 안고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하려는 불같은 지향과 결의로 충만되여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아들인 우리는 수령님을 유일한 구심점으로 각계 민중을 하나와 같이 단결시켜 남조선혁명과 국토통일의 대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며 지구가 공전하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천대, 만대를 이어가면서 위대한 김일성주의기치를 끝까지 고수할것입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철공로동자 김아무개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장군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셨다니 나의 기쁨은 어디에 비길데 없이 큽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을 때 백두밀림에서 민족혼기에 불타는 청년들을 결집하시여 조선군사를 일으키지 않으셨나요. 그리하여 왜군을 처부시고 민족사에 광복의 새날을 안아오신분이시니 우리 나라에 그분의 명망을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소》

한때 김해에서 소작농으로 일하다가 만주에 가서 산판에서 벌목로동을 한 리아무개는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때 내가 살던 만주 라자구만해도 일본놈들이 얼씬 못했소. 나는 그분이 하늘이 내려보냈다는 전설도 들었습니더, 우리 모두는 백두산 정기를 타고나신 장군님께서 왜놈을 치시고 우리 나라를 해방해주시다니 고달픈 마음도 폐여 나갑니더. 북에서 이번에 새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장군님을 주석으로 모셨다니 어찌 이 일이 이북사람의 일이겠습니까》

그는 정보원들이 민중의 동태를 살핀다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가슴속에 쌓이고쌓인 흉금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

김일성장군님을 국가주석으로 추대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경기도의 한 어민은 자기가 얼마전에 이북에서 보고 느낀 소감을 이렇게 말하였다.

《이북에서는 로동자, 농민들이 나라의 정사에 참여하고있다. 이것은 이남땅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김장군님께서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는것은 이북에 가본 사람은 누구나 모를 사람이 없다.

근로대중을 위한 헌법을 마련하시고 근로대중을 잘살게 정치하시는 그분을 우리 민족의 최고령도자로, 국가주석으로 모시는것은 응당하다. 이것은 비단 이북사람만의 기쁨이 아니다. 남북온 겨레의 민족사적대경사라 하겠다.》

고향이 사리원이라는 전아무개는 해방직후 북반부에서 잠시나마 김일성장군님의 정치를 받으면서 살던 그때의 감회를 이렇게 말했다.

《나는 비록 파주땅에 와서 살고있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김장군님께서 정치하시는 이북에로 달려갑니다. 통일되면 하루라도 빨리 고향에 가겠다고 이북이 지척에 있는 여기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동안 김일성장군님의 치하에서 살아온 나는 북과 남에서 본 현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나갈길이 과연 어떤 길이고 어떤 정치가 민중을 위한 정치인가 하는것을 더욱 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진정 우리 민중이 바라는 그러한 령도자이시고 온 겨레의 주석이십니다.

이번에 그분께서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시였다니 나는 춤이라도 추고싶은 심정입니다.…그분의 정치가 이남땅에도 미치야 우리 백성도 잘살수 있지요》

일본의 모 대학에서 류학하여 경제학을 전공한바있는 한 지식인은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북에서 14년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했다는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나의 미숙한 지식과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으로 보아 그렇게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장군님의 주체사상에 관한 책을 읽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그분의 경제저서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나는 자신의 지식과 사고방식이 너무나 협애하고 편향적이였다는것을 깨달았다.

나는 수일전에 이북에서 발표한 사회주의헌법을 평양방송을 통해 듣고 록음해두었다가 연구해보았다. 위대한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이 사회주의헌법은 세계법제사상 그 류례를 볼수 없는 최고형태의 백과전서적대정치법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헌법을 제정하신 그분께서는 우리 조국의 북녘땅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면에서 세계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주체의 복지국가를 이룩해놓으시였다. 이렇듯 위대하신 령도자를 민족의 태양으로 경모하는 우리 이남민중들의 마음속에는 휴전선이란 있을수 없다. 위대한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우리 조국의 주석으로 높이 모시는것은 우리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수원에 사는 최모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3대를 내려오며 머슴살이를 하면서 빼빠지게 농사일을 했지만 자기 땅이라고는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땅에서 힘껏 농사를 지어보자는것이 나의 평생소원이었고 또 부모들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25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우리의 이 소원을 풀어주시였습니다. 그때 나는 세상에 이런 정치도 있는가고 생각했습니다.

그후 이남위정자들이 정치를 하면서 우리는 땅을 도로 빼앗겼습니다. 그놈들은 말로는 다 농민들을 잘살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소리였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의 정치야말로 진정 우리 백성들을 위한 정치입니다. 나는 그런 정치를 절대 지지합니다. 마땅히 그런 정치를 베푸시는 분을 우리 민중은 주석으로 모시야지요, 남북조선의 유일한 주석은 단연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나는 마음속으로나마 〈김일성주석 만세!〉를 몇번이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지식인은 그토록 마음속 깊이 흠모하는 김일성장군님을 공화국의 주석으로 추대하는 선거에 직접 참가하지 못한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김일성장군님을 국가주석으로로 모시는 거사에 참여하지 못한것이 정말 분하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조국이 통일된 다음 통일광장의 제일 높은 단상에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사실상 그분께서 주석으로 추대되신것은 우리 이남민중들의 일치한 념원을 반영한것입니다.》

실로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온 민족이 우러러받들고 온 겨레가 한마음으로 높이 추대한 주석이시다.

그분께서는 분단된 조국을 하루속히 통일하고 3천리 조국강산우에 살기좋은 지상락원을 펼쳐주시기 위해 그처럼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진정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의 조선이 있고 보다 부강번영할 래일의 조선이 있다. 오로지 그분만이 조선을 대표하시고 겨레의 운명을 행복에로 이끄시는 유일무이한 수령이시다. 로동자, 농민, 대중이 잘살자고해도 그분을 따라야 하고 나라가 통일되고 부흥을 이룩하려 해도 그분의 정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 이남민중에게

공인된 진리요. 이땅 어디서나 읽을수 있는 민심이다라고 《통일혁명당목소리》방송은 지적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 전적으로 자기들의 운명을 의탁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날이 갈수록 그이에 대한 경모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고있는것이다.

1972년의 남조선인민운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평화통일기운이 빨리 높아지고있으며 파쑈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25페지)

1972년에 남조선인민들은 《비상사태》하의 《비상계엄령》이라는 그 어느 시기에도 체험하지 못한 엄혹한 시련에 부닥치였으나 그들은 조금도 동요없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조속한 실현, 삶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심장깊이 심은 그들에게는 그 어떤 사나운 파쑈광풍도 전진의 장애로 될수 없었다.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이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통일분야에 구현한 가장 현실적이며 현명한 원칙이라고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면서 그의 조속한 실현을 강력히 주장해나섰다.

그들은 한결같이 《…3대원칙에 대한 합의 및 발표는 우리 민족의 자랑일뿐아니라 그 민족적긍지를 세계에 그대로 보여준것》이라고 말하면서 《민족은 민족끼리, 피는 피대로 합치는것이 원칙이다》, 《그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홉명의 남조선사회계 인사들이 공동명의로 발표한 《민족자주평화통일운동선언》은 조국통일이 《우리의 목표이기전에 생존이며 우리의 과업이기에 앞서 생활이며, 우리의 로정이기보다는 현실》이라고 절절히 호소하면서 《민족호상간의 불신과 증상을 없애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다음으로 위정자들이 되뇌이는 《유엔감시하의 통일》을 반대하고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없이 나라의 통일은 자주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후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것이 가장 옳은 일이며 우리의 주권을 남에게 맡길수 없다면 주권을 찾는것도 남에게 맡길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한 지식인은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들의 외교흥정에 맡길수 없다. 우리 스스로의 발로 서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립의 길로 나가야 하며 그런 립장에서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자주적통일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의 자신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한다는 이러한 주장은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념원이였으며 그들의 완강한 요구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반영하여 한잡지는 《외부세력에만 의존하여 우리의 통일문제는 해결될수 없고 오직 주체성만이 우리들의 숙원인 통일을 달성할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것이다.》라고 썼다.

남조선 정계 및 광범한 사회계에서는 남조선위정자들의 통일문제독점책동을 견결히 배격하고 남북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석회의의 개최, 련방제의 실시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그 실현을 위한 남북간의 경제, 문화교류의 활발한 실현을 요구하였다.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국제정세와 통일전망》, 《남북경제교류와 남북통일》등의 제목으로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가지였다.

그들은 여기에서 남북 정치협상, 문화 및 경제 교류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한 지식인은 《이북에서 지금 정당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데 남한에 정당사회단체는 많은데 왜 접촉 못하는가》고 반문하면서 정당, 사회단체들의 접촉과 련석회의를 강력히 주장하여나섰다.

이러한 사실들은 2중 3중의 파쑈폭압하에서도 남조선의 광범한 계층들이 민족의 태양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실현에로 힘차게 내닫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또한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렸다.

남조선로동자들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모든 투쟁이 금지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1972년 첫 5개월동안에만도 124건의 각종 투쟁에 1만 8천여명이 참가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을 직접대상으로 한 투쟁비중이 그 이전시기의 30%로부터 90%로 늘어난 사실이다.

이해에 들어와 남조선농민들도 토지략탈을 반대하며 수리시설 및 영농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등 각종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경상남도 문경군내의 3만여명의 농민들을 비롯하여 남조선여러곳에서 수천, 수백명 단위의 농민들이 집단적인 투쟁에 참가하였다.

《위수령》과 《비상사태》에 의하여 혹심한 파쑈폭압의 대상으로 되여온 청년학생들도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여 투쟁대렬을 다시 정비보강하면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해나가고있다.

《민족통일의 전위가 된 젊은 세대들》이라고 자랑높이 말하는 그들은 《이곳저곳에서 용암처럼 솟아오르고있》으며 새로운 투쟁을 향하여 《신들매를 조이고있다》

지식인들속에서도 반독재민주화감정이 날로 높아지고있다.

그들은 《포악한 독재자의 힘이 억지로 태양을 막아 대중을 질식에로 몰아넣고있는 이때 지성인들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돌에 맞고 칼에 찔려 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나서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는것이야 말로 지성인의 참된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이처럼 날로 높아지고있는 반파쑈, 반《정부》적기운은 남조선위정자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조작함에 따라 더욱 막을수 없는 기세로 드높아갔다.

남조선의 광범한 계층속에서는 《비상사태나 비상계엄령이 아니면 정치를 못하는》집권자들을 극도로 증오하면서

체포되여 감옥으로 갈것을 결심하면서까지 항거해나서는 기운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대세에 역행하여 통일을 지연시키는 량면전술에 계속 매달리면서 파쑈화를 다그친다면 남조선인민들의 더욱 강력한 반항을 불러일으키리라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고있으며 무엇보다도먼저 절박한 생활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 근본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될것이며 더욱 커질것입니다.》(《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210페지)

남조선로동자들은 1972년에 더욱 가혹해진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억압밑에서도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남조선 로동자들은 임금투쟁을 기본으로하여 해고반대, 8시간로동제의 실시, 로동조건의 개선, 재해보상 등을 요구하여 대중적인 시위와 파업의 적극적인 형태와 《진정》등의 투쟁을 배합하여 완강하게 싸웠다.

임금투쟁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된 로동자들의 투쟁은 남조선인민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기본주류를 이루었다. 로동자들은 우선 현로임을 50~100% 올릴것과 밀린로임의 지불과 농노적인 인격적종속에 빠뜨리는 현물임금제를 반대하여 싸웠다.

6월초에 남조선의 《진선공장주식회사》와 《동아금속산업주식회사》로동자들은 관권을 등에 업고 두해동안이나 임금을 잘라먹으려드는 회사측의 악랄한 행위를 폭로하는 한편 악질기업주들을 비호하고있는 관계당국에 강력한 항의를 들이대면서 집단적인 대중투쟁을 벌렸다.

인천부두로동자들은 800여명의 해고당한 동료들의 처지에 깊은 동정을 표시하면서 련명으로 된 요구서를 관계당국에 들이대고 그들의 삶과 자신들의 생활처지개선을 위하여 함께 싸웠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의 철도부문로동자들이 철도병원에서 해고당한 의료일군들의 밀린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싸웠다.

남조선의 방적 및 섬유 부문 로동자들 5만 7천여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들고일어나 완강하게 싸웠으며 인천부두로동자들 3천여명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임금인상과 집단해고반대 등 요구조건을 내걸고 대중적인 투쟁을 벌렸다.

이른바 《비상사태》선포후 대중투쟁에 대한 억압이 그 어느때보다도 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남짓한 동안 남조선에서 연 50여만명의 로동자들이 이러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이것은 남조선의 모든 공장, 기업소에서 늘어나는 임금체불 현상과 집단해고로 말미암아 로동자들의 생활처지가 날로 나빠지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남조선에서 만성적인 임금체불과 집단해고현상은 심각화되여가고있는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더욱 늘어나고있다. 단편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해초에 남조선의 광업부문 10개 업체에서만도 임금체불이 3억 200여만원에 이르렀다.

또한 수만명의 로동자들이 아무런 리유와 조건도 없이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에 내몰렸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조선로동자들은 집단해고책동을 반대하며 밀린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렸다.

이러한 투쟁은 충청남도 서산군내염전로동자들과 경상북도 영주의 철도부문로동자들을 포함하여 부산시내《한일제관회사》로동자들과 마산의 철광회사로동자들속에서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6월중순 임금을 올려받기 위한 5만 7천여명의 남조선로동자들의 공동투쟁을 비롯하여 매판자본가의 집단해고책동을 반대하여 대중적투쟁을 벌린 경기도 양주군 홍한화학회사의 1천여명 로동자들의 투쟁 등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경기도 인천의 1천 700여명의 부두로동자들은 임금을 지금보다 58% 더 올릴데 대한 요구를 들이대고 파업을 벌리였다.

투쟁은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남조선로동자들속에서 더욱 힘차게 벌어졌다.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되여 경비근무와 기계정비 등에 내몰리고있는 경기도 부평지구의 로동자들은 기능등급을 낮추는 방법으로 임금을 깎아내리려는 미제놈들의 간악한 책동을 반대하여 치렬한 싸움을 벌렸다.

8월 16일 경기도 부평의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800여명의 로동자들은 미제야수놈들이 온갖 민족적멸시와 박해를 가하는데 민족적분노를 터뜨려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전라북도 옥구의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400여명의 남조선로동자들이 민족적멸시와 박해, 가혹한 착취에 항거하여 싸웠다. 그들은 이곳 미제침략군우두머리놈에게 들이댄 항의문에서 조선사람을 멸시하며 가혹하게 착취하는 미제침략군놈들의 날강도행위에 끝없는 격분을 표시하고 횡포무례한 민족적멸시와 박해행위를 당장 걷어치우며 두달동안의 밀린임금을 전부 내놓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들은 토목공사장에 끌려나가 두달동안이나 고역을 치르고서도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였다.

로동자들은 투쟁위원회 또는 임금투쟁위원회 등 조직들을 자체로 뭇고 조직적으로 싸우는가하면 각이한 부문의 로동자들이 서로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5월 19일 서울의 모방직공장 녀성로동자들은 《투쟁위원회》를 뭇고 집단해고책동과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여 《로동청》을 상대로 항의투쟁을 벌리였다. 2월 23일에는 남조선의 61개공장, 기업소에 망라되고있는 로동자들이 련합하여 관계당국에 항의문을 들이대고 로동자들을 집단적으로 해고시키고 임금을 잘라먹으며 로조활동의 자유를 억제하는 기업주들의 횡포를 반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리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임금인상과 집단해고반대투쟁만이아니라 밀린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굳세게 벌렸다.

경상남도 마산에 있는 대명모방직주식회사의 100여명의 로동자들은 보잘것없는 임금마저 다섯달동안 한푼도 주지않는 악질기업주의 횡포한 략탈행위를 반대하여 집단적인 항의투쟁에 나섰으며 6천여명의 부산섬유부문로동자들은 지금보다 임금을 47%더 올릴것을 요구하여 대중적투쟁을 전개하였다.

경기도 파주군에 있는 성업산업사의 150여명의 로동자들이 밤낮없이 혹사당하고도 넉달동안 받지못한 200여만원의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투쟁에 일떠섰다.

그들은 악질기업주의 가혹한 착취행위를 폭로하는 한편 《파주경찰서》에 몰려가 기업주놈을 감싸주고있는 파쑈무리들의 범죄행위를 규탄하면서 밀린 임금을 당장 지불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전라북도 군산고려제지공장의 300여명의 로동자들은 10월 6일 모임을 갖고 경영난을 구실로 1천 719만여원의 임금을 주지않는 악질기업주의 죄행을 준렬히 규탄하고 밀린임금의 즉시지불 등 8개항목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억세게 싸웠다.

충청남도 당진군 순성면내의 토목로동자들 600여명은 밀린임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련일 롱성투쟁을 벌렸다.

가난한 농민과 실업자들인 그들은 악질기업주놈이 자기들을 꾀여 이곳 량류지구에 벌려놓은 토목공사장에 내몰아 혹독하게 부려먹고도 두달동안이나 한푼의 임금도 주지않은데 격분하여 들고일어난것이다.

밀린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적극성과 치렬성을 띠고 전개되였다.

충청남도 청양광산의 로동자들은 8개월동안이나 한푼의 임금도 주지않는 악질기업주의 죄행에 격분하여 그놈이 있는 서울에까지 몰려가 강력한 항의를 들이대고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리면서 불굴의 기개를 보이였다.

7월 19일과 21일 밀린임금을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회사에 몰려가 탄압을 가해나서는 경찰들을 까밟히면서 굳세게 벌린 서울시 영등포구의 모방직회사 녀성로동자들의 투쟁과 임금인상을 요구해나선 1천 700여명의 인천부두로동자들의 대규모적인 파업투쟁을 비롯하여 버티기투쟁, 태업, 파업 등의 적극적인 투쟁이 이르는곳마다에서 련이어 벌어졌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이 류례없는 탄압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쟁형태로서 끊임없이 전개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그들이 의식화됨에 따라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투쟁에로 더욱 발전해나아갔다.

서울에 있는 <한국모방직주식회사>의 1천여명의 로동자들은 회사측의 악랄한 박해와 착취행위에 격분하여 회사에 몰려가 악질기업주의 죄행을 치솟는 분노로써 견결히 항의규탄하며 로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로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행위를 당장 중지할것 등을 견결히 요구하여 7시간동안이나 완강한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렸다.

8월 30일 2만 3천여명의 남조선방직부문 로동자들중에서 선출된 대표들은 모임을 갖고 임금인상을 반대하는 악질기업주들의 죄행을 준렬히 규탄하고 투쟁으로 쟁취한 임금인상액을 전부 제날자에 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물건값이 뛰여오르는 통에 기아임금으로써는 도저히 살아갈수 없었던 로동자들은 임금을 올릴데 대한 요구조건을 들이대고 치렬한 싸움을 벌린끝에 임금을 올려받기로 기업주로부터 다짐을 받아냈다.

그런데 당국자들이 이른바 <생산성 임금제>라는것을 꾸며놓고 로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억누르기로 한것을 기회로 하여 기업주들은 임금인상약속을 아주 저버릴 작정을 하고있음으로 이에 격분하여 들고 일어난것이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모방직주식회사에 고용된 500여명의 로동자들이 시내 한곳에 모여 로조활동을 방해하고있는 회사측의 악랄한 죄행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당치않는 박해행위를 당장 걷어 치우며 로동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할것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날 그들은 악질기업주에게 로조결성에 앞장섰던 로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조치를 취소하며 로조간부들에 대한 박해와 폭행행위를 사과할것을 견결히 요구하였다.

1월 6일 부산시내의 여러산별로동자들은 모임을 갖고 남조선당국자들이 조작해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9조는 《로조》활동을 전면탄압하는데 돌려지고 있다고 폭로규탄하면서 이 악법의 철폐를 주장하여 싸웠다. 3월 10일 서울의 한진기용품회사의 로동자들은 《로조》상층부에 기여든 배신자들을 규탄하는 삐라살포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남조선로동자들은 요구조건들을 관철해나갔으며 또 기업주로부터 다짐을 받는 등 투쟁에서 승리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류례없는 폭압속에서도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그 투쟁은 목적의식화되고 더욱 조직화되여갔다.

남조선농민들의 투쟁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반인민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농업의 파탄으로 극심한 생활고와 무권리속에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농민들은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웠다.

1972년 남조선농민들은 수리시설을 비롯한 영농조건의 보장을 비롯하여 토지략탈과 <군납>등 농작물의 강제수탈을 반대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이들의 투쟁에서 특히 주목할것은 농업생산수단의 기본인 토지의 략탈을 반대하며 농업생산의 필수적요구인 수리시설을 요구하는 투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제와 남조선통치자들의 반인민적인 농업정책과 관련된다.

침략적인 새 전쟁 도발준비에 날뛰고있는 미제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해들어 여섯달동안에만해도 남조선 도처에서 군용도로공사를 벌려놓고 농민들에게서 936만 8천여평의 농경지를 강다짐으로 빼앗았다. 그들은 남해안일대와 서울—수원간, 부산—대구간에서만도 120여만평의 농토를 빼앗아갔다.

이리하여 남조선출판물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해 남조선농민들의 농경지는 1천 400여만평이나 줄어들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남조선농민들은 농경지를 빼앗으려는 당국자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빼앗긴 토지를 도로 찾기위한 투쟁을 도처에서 힘차게 벌렸다.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내의 농민들은 당국에 들이댄 항의문에서 군용도로공사를 벌려놓고 숱한 농경지를 빼앗아갔을뿐아니라 마구 파헤쳐 못쓰게 만들고있는 당국자들의 처사를 폭로규탄하고 이러한 파괴략탈행위를 당장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에 사는 농민들도 <시청>에 몰려가 군용도로를 닦기 위해 빼앗은 토지의 보상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웨치며 롱성투쟁을 벌렸다.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신사리 진촌부락 등 6개 마을 농민대표들은 6만 3,000여평의 농토를 <새마을운동》을 구실로 강제략탈하려는 <초기토지개량조합>의 책동을 반대하여 《국회의사당> 앞에 몰려가 <빼앗긴 농지를 찾아내자>, <잃은 농지 도로찾자>는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와 롱성투쟁을 벌렸다. 8월 21일과 22일 량일간에 걸쳐 경기도 리천군 호법면 서산리 200여명의 농민들은 <고속도로>공사로 말미암아 파묻힌 80여정보의 농토피해대가를 당장 내놓으며 수리시설을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렸다.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 선류리의 200여명농민들은 8월 10일과 11일의 이틀동안에 걸쳐 일제히 마을앞으로 몰려나와 당국자들이 벌려놓고있는 남해안 군용도로공사로 자기들의 농토가 물에 잠길 위협에 처해있다고 웨치며 그것을 걷어치우라고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렸다. 경상북도 대구시 범이동내 농민들도 대구<시청>에 집단적으로 항의문을 들이대고 <구획정리>의 이름아래 자기들의 땅을 빼앗으려는 략탈행위를 규탄한다음 그와 같은 토지략탈행위를 당장 그만두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농민들은 자기들의 땅을 빼앗기지않기 위해 견결히 싸움으로써 당국자들의 군용도로공사놀음을 저지시켰다.

또한 경기도 시흥군 고천면 주암리내의 500여명의 농민들과 경상북도 영일군 지행면 학곡리 농민들,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읍과 경상북도 의성군 안

계면 위양동농민들도 당국자들의 토지략탈행위를 반대하여 억센 투쟁을 벌렸다.

이해 남조선농민들은 당국자들의 수리시설파괴행위를 반대하며 영농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힘차게 벌리였다.

1972년 남조선에서 수많은 농토를 군사기지로 만들면서 보잘것없는 수리시설마저 마사버린 당국자들의 파괴행위로 말미암아 농민들이 례년에 없는 극심한 가물과 큰물피해를 입게 되였다.

제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해에 남조선에서 큰물로 하여 630여정보의 농토가 못쓰게 되고 농민들이 입은 총피해액은 260억 6천 300여만원에 달하였다.

또한 남조선강원도일대의 농촌들에서는 적지않은 농민들이 가물로 하여 농사를 망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조선농민들은 이른봄부터 농업시설을 개선하고 영농조건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힘찬 투쟁을 벌렸다.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연리내 100여명의 농민들은 농장을 만든다는 명목밑에 농토주변에 마구 뚝을 쌓아올려 모를 내야할 논을 물속에 잠기게 한 당국자들에게 항의하고 농사조건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여 싸웠다.

충청남도 청양군 적곡면의 1천여명 농민들이 《도청》과 《장평지구농지조합》에 항의문을 들이대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조건을 보장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들은 악질적인 농촌모리배가 많은 땅을 점거하고 제놈의 돈벌이를 위해 농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있는 범죄행위를 규탄하고 이자의 횡포한 행위를 당장 그만두게 하라고 주장하였다.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위양동 농민들은 이곳 《면사무소》와 《농지개량조합》당국자들이 공사를 벌려놓고 자기들의 논에 물을 전혀 받지못하게 한데 격분하여 《굶어 죽게 되였다》고하면서 당장 대책을 취할것을 완강하게 요구하였다.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의 250여명 농민들이 수리시설을 요구하여 싸웠다.

해일로 피해를 입어 농사를 망치고 있는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일대의 바다가 9개부락의 2천 300여명의 농민들이 제방을 마련할것을 요구하여 힘차게 싸웠으며 충청남도 천원군 목천면의 400여명의 농민들과 경상북도 상주군 사벌면, 경상남도 하동군과 남해군 그리고 창녕군 농민들을 비롯하여 남조선도처에서 농민들이 영농조건의 보장을 요구하여 대중적투쟁을 벌리였다.

또한 남조선의 각지 농민들은 농작물략탈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놈들의 밀, 보리 수탈책동을 저지파탄시켰다.

경상북도 월성군내 농민들이 당국의 반동적인 농업정책으로 《굶게됐다》고 하면서 《당국이 억지로 내려먹인 통일벼재배로 폐농했으니 보상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여 《면사무소》 및 《군청》에 몰려가 룡성투쟁을 벌렸다.

또한 경상북도 안동군에서 120여명, 경상남도 진주시, 삼천포시, 충무시, 거창군, 통영군 등 3개시, 10개 군의 4천 500여명, 강원도의 980여명을 비롯한 남조선의 모든 잎담배경작자들은 담배등급을 한급씩 낮추어 강제수탈하려는 당국의 행위를 반대하여 《수납》을 일제히 거부하였다.

충청북도 중원군 상모면을 비롯한 군내 각지농민들이 반동통치배들의 보리쌀수탈을 반대하여 싸웠다. 그들은 이른바 《하곡매상》이니하는 이름아래 가난한 농민들을 교활하게 꾀여 당장 먹어야 할 보리쌀까지 모조리 빼앗아 끼니마저 이을수 없게 만든 략탈배들을 치솟는 격분으로 규탄하고 먹고살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강경히 요구하였다.

남조선농민들은 이와 같은 농작물략탈만아니라 세금수탈 그리고 농작물피해보상금 등을 요구하여 또한 견결히 싸웠다.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내 150여명의 농민들이 《농림부》에 련명으로된 항의문을 들이대고 여름내내 물을 논에 대주지않아 농사를 망치게 해놓고도 엄청난 물세를 들씌워 빼앗아가는 수탈행위를 반대하여 싸웠다. 경상북도 상주군 랑동면 십오리내 농민들은 《면사무소》에 항의하고 가난한 농민들의 가장집물을 닥치는대로 빼앗아 제배속을 채우는 죄행을 폭로규탄하였다.

남조선강원도 린제군내 5천여명의 농민들이 《군청》관리들에게 집단적항의문을 들이대고 농작물에 입힌 막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나섰다. 항의문에서 그들은 전쟁준비에 피눈이되여 숱한 농경지를 마구 뒤엎어 못쓰게 만들뿐아니라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마저 전혀 걷어들일수 없게 만든 악랄한 행위를 규탄하고 피해보상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내 800여명의 농민들이 농토주변에다 기름저장탕크를 만들어 자기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려는 매판자본가의 악랄한 공사놀음을 반대하여 싸웠다.

그들은 매판자본가의 이러한 행위는 농사를 망치게 하고 생활에 항시적으로 위협을 주는 용납할수 없는 죄행이라고 규탄하고 공사놀음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요구하였다.

이해 남조선에서 생존의 권리와 당면한 생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벌린 농민들의 투쟁에서 특징적인것은 그것이 적극적이였을뿐만아니라 광범한 지역에서 농민들이 대중적으로 떨쳐나서 투쟁을 벌린것이다.

남조선강원도 원성군내 농민들과 경상남도 함안군을 비롯하여 남해안일대의 군용도로공사장주변농민들이 토지략탈을 반대하고 영농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하여 《군청》에 몰려가 적극적인 투쟁을 벌렸을뿐만아니라 남조선강원도 린제군에서는 5천 600여명의 농민들이 당국에 몰려가 같은 요구조건을 들이대고 억센 투쟁을 벌린 사실들은 그 례로 된다.

특히 수리시설의 파괴행위를 규탄하면서 영농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은 어느한 지역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남조선의 광범한 지역에서 벌어졌다.

남조선어민들의 투쟁

1972년에 남조선어민들은 생존의 권리와 당면한 생활개선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남조선어민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미제와 당국자들의 전쟁준비소동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상과 어로조건의 보장과 날로 심해지는 수탈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운것이다.

남조선강원도 삼척군을 비롯한 동해안 연안 1만여명의 어민들이 당국자들에게 항의문을 들이대고 물고기잡이를 못하게 하는 악랄한 책동을 반대배격하여 나섰다.

그들은 당국자들이 악질수산업자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하여 자기들의 어장을 빼앗아 그놈들에게 넘겨준 사실을 폭로규탄하면서 어장을 어민들에게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충청남도 당진군내 1천 200여명의 가난한 어민들이 물고기잡이를 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것을 당국자들에게 요구하여 완강히 싸웠다.

그들은 어민들의 어로활동을 방해하는 《어업조합》당국자들의 죄행을 항의 규탄하고 1천만원의 《어업자

금》을 당장 내놓을것과 어로조건을 보장할것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항에 사는 가난한 어민 150여명이 집단적으로 《군청》에 몰려가 어로조건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여 싸웠다.

그들은 어장을 악질수산업자들에게만 독점케하고 가난한 어민들의 고기배는 그 어장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당국자들의 죄행을 준렬히 규탄하고 당장 고기잡이를 할수 있게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과 고금면, 신지면, 약산면 등지의 어민들이 악질수산업자들의 략탈행위를 비호하는 완도 《군청》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들은 악질수산업자들이 어장들을 독차지하여 새끼고기까지 마구 잡아가는 바람에 령세어민들은 물고기잡이도 제대로 못하고 생활에서 심한 고통을 겪고있다고하면서 《군청》은 가난한 어민들에게 물고기잡이를 할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하라고 한결같이 주장하였다.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의 500여명의 어민들이 어장파괴행위를 반대하며 삶을 위하여 싸웠으며 경상남도 충무, 통영 등 남해안 일대 1천여명의 어민들, 양식장을 빼앗긴 전라북도 군산일대의 이청도 등지에 사는 2천여세대의 어민들도 략탈을 반대하며 어로조건의 보장을 요구하여 완강히 싸웠다.

또한 남조선어민들은 당국자들의 반인민적행위로 말미암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여 견결히 싸웠다.

경상남도 울주군 온산면내 800여명의 어민들이 어장을 황폐화시킨 매판자본가와 그를 감싸주는 관리들의 죄행을 반대하며 피해보상대책을 요구하여 대중적투쟁을 벌렸다.

그들은 매판자본가가 경영하는 공장에서 마구 흘려보내는 유독성오물로 연안어장을 망쳐 생업을 잃게 되였다고 격분을 표시하면서 그 보상조건으로 미역양식장을 새로 마련해 될것을 당국자에게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상남도 창원군 천가면에서 김을 양식하는 200여명의 어민들이 악질기업주놈에게서 피해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그들은 김양식장에 기업주놈의 공장으로부터 유독성물질이 섞인 폐수가 흘러들어 김을 망쳐버렸다고 하면서 폐수를 막는 동시에 피해보상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견결히 요구하였다.

삶을 위한 남조선어민들의 투쟁은 줄기차게 벌어졌을뿐아니라 적극적인 투쟁형태를 띠고 억세게 전개되였다.

삶을 위하여 싸움에 나선 전라남도 여천군 화양면과 쌍봉면내 가난한 어민 800여명이 200여척의 쪽배에 나누어타고 화양면 용주리 앞바다의 굴양식장에 몰려가 《령세어민굶어 죽는다》, 《생활대책을 세우》라는 등 구호를 웨치며 자기들의 유일한 삶의 터전인 양식장을 빼앗으려는 당국자들의 죄행을 끓어넘치는 증오와 분노로 준렬히 단죄한 사실은 그 한례이다.

남조선 농민들과 어민들은 이러한 투쟁행정에서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였으며 튼튼한 력량으로 자라갔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의 청년학생, 지식인들은 학원의 군사화와 모리화를 반대하며 교육제도의 민주주의적개혁을 요구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46페지)

1972년에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미제와 남조선당국의 류례없는 폭압속에서도 학원의 군사화와 탄압을 반대하며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억세게 싸웠다.

서울시내 3천 800여명의 청년들이 《국군》에 강제징집되는것을 거부하였으며 부산에서 210여명의 청년들이 《국군》징집과 《향토예비군》에의 편입을 거부하였다.

전라북도에서는 7월말현재까지 1천여명의 청년들이 《국군》에 징집되는것을 단호히 반대하였으며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한달동안에 420여명의 청년들이 《국군》에의 징집을 반대하였다. 그중 도내 곡성군에 사는 리아무개를 비롯한 수십명의 청년들이 남조선군부당국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입영명령서》를 받았으나 그때마다 찢어버리거나 불태워버리고 강제징집에 응하지 않았다.

충청남도 대전시내의 110여명의 청년들이 《징집령장》을 찢어버리고 《징병검사》를 받으려나가는것을 거부하였으며 이 도내의 일부기업체들에서 일하던 80여명의 청년들은 징집을 회피하여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이처럼 자취를 감추거나 《징병검사》를 받으러나가는것을 거부하며 또 《불합격판정》으로 되게 하는 등의 갖가지 방법으로 강제징집을 반대하여나선 청장년들의 수는 10월말까지의 기간에 6만 3천 200여명을 헤아렸다.

남조선청년들은 이와 같이 《국군》에의 징집을 반대배격하면서 이에 응할것을 거부할뿐아니라 《국군》에 끌려간 청년들속에서도 치욕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렸다.

충청남도 론산에 있는 《국군륙군하사관학교》의 병사들 120여명이 악질상관들의 학대에 항거하여 부대를 뛰쳐나와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서아무개병사는 보초근무에 내몰린 기회를 타서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국군》살이를 벗어났다.

또한 《국군》속에서는 범죄적인 전쟁준비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도 자주 일어났다.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사곡리의 연아무개 청년이 군수렬차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으며 경기도 의정부시 청년들이 미제침략군놈들의 군수품창고에 불을 지른것은 그 한 실례들이다.

남조선학생들은 학원의 민주주의적자유보장과 학업조건의 보장을 요구하여 굳세게 싸웠다.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부속해양기술단기양성소》 학생 80여명이 학원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교육시설의 개선 등을 요구하여 일제히 수업을 거부하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였으며 서울시내의 경희대학교 100여명의 학생들은 모임을 가지고 학교구역에 군용자동차를 침입시켜 학생들을 깔아 숨지게 한 당국자들의 살인만행을 폭로규탄하고 살인자들을 당장 처단하라고 강력한 항의 투쟁을 벌렸다.

학원에 대한 파쑈적조치를 반대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투쟁과 함께 학업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도 힘차게 벌어졌다.

서울시내의 덕수상업 중고등학교 8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조건의 보장을 요구하여 견결히 싸웠다.

그들은 모임을 갖고 당국자들과 그와 결탁한 악질기업주놈들이 돈벌이를 위해 이 학교 교문앞에 《주차장》 등을 설치해놓고 학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는데 대하여 항의규탄하고 그것을 당장 없애치우라고 요구하였다.

경상북도 안동군 풍천중학교 200여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수업을 거부하고 수업조건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당국자들과 그 졸개들의 죄행을 신랄히 폭로규탄하였다.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읍에 있는 대남《국민학교》의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학업조건의 보장을 요구하여 싸웠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관계당국에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자기들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는 당국자들과 악질모리배들의 처사를 신랄히 규탄하고 학교옆에 있는 추잡한 술집들을 당장 없애치우라고 요구하였다.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삼산중학교 500여명의 학생들이 수탈을 반대하며

수업조건을 보장할것을 요구하여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그들은 학습조건을 보장하지 않아 수업시간에도 제대로 공부할수 없게 하고있을뿐아니라 갖가지 잡부금에 얽매여 기를 펴지 못하는 자기들에게서 또다시 돈을 빼앗으려는 학교운영자들의 행위에 항거하여 집단적으로 등교를 거부하였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자기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좀먹는 양키문화와 일본군국주의의 문화침투를 반대하여서도 견결히 싸웠다.

경상북도 대구시내의 신암《국민학교》와 남산《국민학교》 등 여러개의 《국민학교》어린이들이 신암《국민학교》마당에 모여 《나쁜일만 가르치는 불량만화 없애라》라는 글발이 씌여진 커다란 프랑카드를 높이 추켜들고 살인, 방화, 강도, 절망과 비애 등 온갖 패륜과 패덕으로 가득찬 불량만화를 끌어들이는 남조선당국자들을 규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그들은 모임을 갖고 3천 100여건에 달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만화책들을 불태워버린 다음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만화를 일체 보지않는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싸웠다.

서울에서는 한 학생이 일본군국주의 종교의 침투를 단호히 배격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렸다.

시내의 한 공업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리아무개라는 이 학생은 동대문구 창신동에 있는 일본군국주의 반동종교인 《일련정종학회》의 사무실에 뛰여들어가 회장놈을 칼로 찔러 징벌하였다.

남조선지식인들의 투쟁

남조선지식인들은 1972년에 삶을 위한 투쟁과 함께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경상남도 창원군내 《국민학교》교원들이 대우를 개선하라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투쟁을 벌렸다.

그들은 교원들을 멸시하고 략탈하는 당국자들의 행위를 규탄하며 현재의 교원들의 임금을 올리고 그것을 제때에 지불하라는 등의 요구를 담은 항의서를 내고 견결히 싸웠다.

충청남도 공주군에 있는 신풍중학교의 교원들이 당국자들의 수탈행위를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항의문에서 자기들의 기아임금마저 제때에 주지않거나 잘라먹는 당국자들의 행위를 규탄하고 교원들에게서 빼앗아간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이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이 학교의 학부형들도 함께 싸웠다. 그들은 당국자들에게 교원들에 대한 이러한 수탈행위가 계속된다면 자녀들의 《동맹휴학투쟁이 벌어질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의 지식인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과 함께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과감히 투쟁하였다.

남조선의 학계와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광범한 사회계에서는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폐기하며 《비상사태》 및 《비상계엄령》철폐를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하고 각종 악법을 수많이 만들어내여 사소한 모임이나 진정마저 금지시켰으나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되였으며 이에 호응하여 지식인들도 견결히 싸웠다.

남조선의 진보적인 한 지식인은 인민들의 생활참상과 그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 대하여 《남한의 서민들속에서는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견딜수 없다는 주민들, 근로자들의 항의데모가 잇달았고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으로까지 번져간다》고 썼다.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깨달은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홰불을 높이들어 어둠을 밝혀야 한다. 이래도 저래도 한번 죽는것이니 값있는 죽음을 하자》고 한결같이 다짐하여 나섰다.

남조선 각지 언론인들속에서는 《언론, 출판, 방송의 사전검열을 즉시 중지하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등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서울에 사는 강아무개라는 한 대학교수는 동대문구 화기동에 있는 자기 집쪽으로 가는 길에서 《한국은 썩었다. 차라리 공산화되는것이 낫겠다》라고 마음속에 품고있던 희망을 열렬히 토로하였다.

남조선의 한 잡지는 지식인들에게 반파쑈민주화투쟁에 과감히 나설것을 호소하는 글을 실었다.

잡지는 지식인이란 단순히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것이아니라 사회악을 용감히 파헤치며 실지행동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인생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쓰고 남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의 현실도피적이며 무저항적인 안일한 사상과 행동을 비판하였다.

잡지는 《현실악의 극복을 위해서는 오로지 행동을 통한 투쟁—그 길만이 오늘 이나라 지식인들의 명예》라고 강조하고 그들에게 당국자들의 부정부패, 반인민적인 파쑈독재에 항거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남조선지식인들의 지향과 투쟁에서의 특징적인것은 민족의 태양이신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이 두터워져가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리아무개라는 기자는 서울의 한곳에 모인 동료들에게 《김일성원수님은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다》라고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감사의 정을 표시하면서 그이께서 계시기에 《어둠에 잠긴 이남땅에도 새날은 밝아올것》이며 《만민이 복락을 누리는 사회제도가 마련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싸움을 계속 힘차게 벌려가자고 힘주어 말하였다.

이 모임에는 서울시내의 진보적이며 량심적인 기자, 편집원들과 함께 출판인쇄부문 로동자들도 참가하였다. 여기에서 리아무개기자는 그러한 사회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고 김일성원수님의 품에 안겨야 한다고하면서 그에 앞서 남조선에서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민족의 해방을 달성하며 지주, 자본가의 반동적폭압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남조선 한 언론계인사는 《비상사태나 가칭 〈보위법〉은 처음부터 백해무익한것이다.》 그래서 《민주수호국민협의회에서는 이를 빨리 철회하라고 주장》해온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도 늦지않았으니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남조선위정자들에게 《〈비상사태〉선포후 달라진것이 뭣이있는가?》고 따지고들면서 《있다면 딱 한가지 신문, 잡지를 탄압하여 말못하게 한것뿐이다》라고 놈들의 파쑈적죄행을 까밝혔다. 계속하여 그는 《북으로부터의 침략위협》이니 《겨울철남침위협》이니하는 황당한 구호밑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세계인민들의 조소와 비난을 불러일으킨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나는 〈국가비상사태〉와 〈보위법〉을 이대로 밀고나가다가는 대만과 같이 세계적인 고립을 면치못하리라는것을 단언》한수 있다고 남조선위정자들에게 오금을 박았다.

그는 파쑈적인 《비상사태》선포에 이어 이를 《법》적으로 기정사실화한 이른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악법들을 그대로 놔두고 남조선위정자들이 남북대화를 이룩하겠다는것은 엉

통한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반공법〉, 〈국가보안법〉은 철회되여야 하며 앞으로 북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할텐데 똑같은 말을 정부측에서 하는것은 괜찮고 일반국민이 하는것은 잘못이니, 위법이니 하는 딱지를 붙이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한 법조계인사는 만약 파쑈악법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일반국민들만이 억울한 불행을 맛보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으로나 인민들의 절절한 통일념원에 비추어보나 이 악법들은 당장 철페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남조선지식인들은 미제의 조종밑에 남조선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된 폭압하에서도 생존을 위한 투쟁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였으며 그 투쟁은 어버이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안에 안겨 북반부인민들과 함께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살기 위한 투쟁에로 지향하면서 나아갔다.

기타계층들의 투쟁

남조선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과 소상인, 중소기업가들은 당국자들의 가혹한 략탈과 강제철거책동 등을 반대하는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과 자유를 구속하는 악법 등을 반대하는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경기도 수원시 련무동내 주민들이 《시청》에 몰려가 인민수탈을 일삼고있는 《시청》관리들의 죄행을 규탄하고 빼앗아간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이곳 가난한 주민들은 당국자들이 련무동일대에 《수도를 놓아준다》고 속여 동내 전체 주민들에게서 많은 돈을 걷어가고서도 수도를 놓아주지않는데 격분하여 투쟁에 일떠선것이다.

서울시내 동대문시장과 청계동시장의 300여명상인들이 당국자들의 수탈에 항거하여 공동투쟁을 벌렸다. 이곳 상인들은 인민들이 구매력이 없어 장사되지않아 허덕이고있는 형편에서 세금을 낮추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시내 중구 청계동에 있는 250개의 상점상인들이 련대적인 공동투쟁에 일떠섰다. 그들은 당국의 가혹한 수탈밑에서는 더는 장사를 할수 없다고 웨치며 상점문을 닫아매고 항의투쟁에 나섰다.

경상남도 울산시 성남동내 170여명의 가난한 상인들도 당국의 비호를 받는 악질 모리배들의 파렴치한 수탈행위에 항거하여 나섰다. 그들은 무슨 《영업세》라는것을 제멋대로 들씌워놓고 그것을 받아내려고 갖은 행위를 다하고있는 모리배들을 규탄하고 략탈책동을 걷어치우라고 요구하였다.

남조선주민들은 이러한 세금수탈을 반대할뿐만아니라 마소처럼 부려먹고도 품삯을 주지않거나 또 잘라먹는 행위와 기아임금에 얽매여놓고 혹사하며 착취하는 행위를 반대하여서도 견결히 싸웠다.

남조선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몰려가 《군청》사무실을 점거한 다음 《군수》를 끌어내놓고 1천여만원의 품삯을 잘라먹으려는 관리들의 착취행위를 규탄하고 밀린 품삯을 당장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전라남도 목포시내 60여명의 가난한 주민들이 밀린 품삯을 받아내기 위해 싸웠다.

이들은 관권을 등에 업은 악질기업주들의 사무실에 몰려가 그놈들의 악랄한 착취행위를 규탄하고 밀린 품삯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렸다.

경상북도 대구시내의 간호원들이 낮은 임금에 얽매여 놓고 혹사하고있는 병원당국의 착취행위를 신랄히 규탄하고 현재의 임금을 28% 더 올릴것을 요구하여 싸웠다.

수탈을 반대하는 이와 같은 투쟁은 남조선 각지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진정》형태로부터 롱성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였다.

또한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은 군용도로 건설이니, 《도시미관》이니 하면서 아무런 대책도없이 자기들의 살림집을 마구 헐어버리는 강제철거책동을 반대하여 굳세게 싸웠다.

미제와 남조선위정자들은 《무허가건물》이요, 《도시미화》요, 《고속도로건설》이요 하면서 그 무슨 《판자집철거 5개년계획》이란것까지 세워놓고 남조선인민들의 살림집을 마구 헐어버림으로써 가난한 주민들을 보잘것없는 판자집에서조차 살지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해에도 가난한 주민들은 파쑈적인 강제철거를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웠다.

5월 20일 서울시 성북2동의 500여명의 주민들이 《작전지역》의 명목밑에 감행하는 관리들의 주택강제철거를 반대하여 시위를 벌렸으며 22일에는 《성북구청》에 몰려가 몽둥이와 돌로 사무실을 들부시였다.

전라북도 대구시 대명동일대의 가난한 주민들이 관리들의 판자집 강제철거책동을 반대하여 억세게 싸웠다.

경상북도 안동시 당북동에서 살다가 당국자들에 의하여 살림집을 헐리우고 한데에 나앉은 270여명의 가난한 주민들도 생활대책을 세워줄것을 요구하여 완강히 싸웠다.

그들은 《시청》에 몰려가 살림집을 마구 헐어버려 자기들을 막다른 생활난속에 몰아넣은 당국자들의 죄행을 격분에 넘쳐 규탄하고 곧 살아나갈 대책을 세우라고 웨치며 버티기투쟁을 벌렸다.

이해 가난한 상인들의 시장철거반대투쟁도 활발히 전개되였다.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시장의 가난한 상인들이 황당한 구실밑에 장터에서 강제로 내몰려는 당국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싸웠다. 이 도의 전주시내 140여명의 가난한 상인들도 당국자들의 강제철거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그들은 《전주시청》에 항의서를 들이대고 간신히 살아가고있는 자기들을 시장에서 내쫓으려는 관리인들의 악랄한 행위를 호되게 규탄하고 영업조건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에서 장사를 하는 500여명의 령세상인들이 장터를 강제로 철거시킨 《시청》당국의 부당한 행위를 반대하여 련 사흘동안 치렬한 싸움을 벌렸다. 그들은 《자녀교육을 위한 생계터전을 마련하라》고 쓴 구호판을 들고 관리들의 악랄한 행위를 격분에 넘쳐 규탄하면서 시장을 다시 열게 하라고 웨쳤다.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동내 가난한 상인 100여명이 강제적인 시장철거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웠다. 그들은 터무니 없는 구실밑에 자기들을 장터에서 쫓아내려는 당국자들의 행위에 항거하여 일제히 상점문을 닫아매고 시장앞 광장에 떨쳐나와 완강한 항의투쟁을 벌렸다. 이들은 장터를 강다짐으로 없애치우려고 날뛰는 무장한 경찰과 맞서 완강하게 싸웠다.

전라남도의 광주시내의 가난한 상인들이 관리들의 시장강제철거행위에 항거하여 《광주시장》의 집에 몰려가 싸웠다. 《시청》관리들은 이른바《교통법위반》이니, 《미관상 좋지않다》는 따위의 구실밑에 새벽 3시경에 경찰과 졸개들을 내몰아 장터를 불의에 부셔버렸던것이다. 이에 격분한 이곳 상인들은 부당한 시장철거행위를 반대하여 들고일어난것이다.

남조선 도시가난한 주민들은 당국자들이 인민들의 생활에는 아랑곳하지않고 저들의 배속만 채우려고 주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대해 규탄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라고 강경히 요구하여 싸웠다.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복지리에 사는 1천여명의 주민들이 그들의 생활에 막심한 피해를 입히는 당국자들에게

항의하여나섰다. 항의문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거듭되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있는 당국자들의 죄행을 신랄히 규탄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였다.

이곳 관리들이 한 기업주와 함께 무슨 《목장》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먹는 우물에 오물이 마구 흘러들게 하여 음료수를 쓸수 없게 하는 등 생활에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있는데 격분한 이곳 주민들은 놈들에게 거듭 항의를 들이대고 완강한 투쟁을 벌렸다.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화산동일대 100여명의 가난한 주민들이 자기의 집터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관리들과 그졸개들의 행위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이들은 이곳《군청》에 항의문을 들이대고 자기들의 집터를 강제로 빼앗아 악질지주놈에게 팔아먹으려는 관리들과 졸개들의 사기협잡행위를 폭로규탄하고 관계자들을 당장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서울시에 있는 한 회사의 화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상인 500여명이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농성투쟁을 벌렸다.

상인재해수습위원회를 조직하고 싸워온 이들은 《우리들이 입은 피해 15억원을 회사는 즉각 보상하라》 등의 구호를 쓴 프랑카드를 내걸고 회사 2층에까지 올라가 완강하게 버티였다.

인천에 사는 3만여명의 시민들은 상수도 수원지 근처에 설치된 오물탕크의 사용을 반대하고 그것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대중적투쟁을 벌렸다. 이곳 주민들은 당국자들이 인천시민들의 음료수를 보내는 상수도 수원지근처에 오물탕크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벌려놓은 전해부터 이를 반대하여 왔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에 아랑곳하지않는 당국의 처사에 격분하여 이곳주민들의 대표들은 다시 당국자들에게 오물탕크의 사용을 당장 그만두며 그의 시급한 철거를 강력히 주장하여 나선것이다.

경상북도 영일군 동해면 약전동에 있는 《동해백토공장》에서 내뿜는 연기와 소음, 백토가루때문에 공장가까이에 있는 150세대의 주민들이 《보건사회부》와 경북《도청》 등 관계당국을 대상하여 항의투쟁을 벌렸다. 그들은 관권을 등에 입은 회사측에 《숨막혀 못살겠다. 공해방지대책을 세우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충청남도 론산군 양촌면일대 500여명의 주민들이 큰물피해를 막을 대책을 세울것을 《군청》에 요구하여 싸웠다.

이지방 주민들은 전해의 장마때에 강뚝이 무너져 집과 농토가 물에 잠기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당국자들이 허물어진 뚝을 한해가 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어 이해에도 이러한 재난을 당하였다. 그런데 《군청》관리들은 주민들의 거듭되는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있어 참다못해 다시 들고일어난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전기불과 교통수단을 설치할것 등을 요구하여 싸웠다.

서울시 룡산구 이촌동일대 800여명의 주민들이 전기불을 보낼것을 요구하여 집단적인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이들은 부당한 구실을 붙여 전기불을 보내지않는 남조선의 전력회사측의 소행은 악랄한 협잡행위이며 략탈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전기불을 당장 보낼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과 가북면내 8천여명의 주민들이 전기를 가설해줄것을 요구하여 싸웠다. 이들은 자기들의 대표를 《군청》과 전력회사측에 보내여 당국자들이 지방농촌주민들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있는데 대해 신랄히 항의규탄하고 전기가설을 빨리 하라고 들이대였다.

경기도 리천군을 비롯한 3개군 8개 마을 주민들은 교통수단을 빼앗는 당국자들의 범죄행위에 견결히 항거하여 나섰다. 그들은 이곳 일대를 운행하는 려객렬차를 없애치우려는 당국자들의 책동을 규탄하면서 이것은 4천여명통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의 발을 묶는 악랄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 범죄적음모를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남조선주민들은 인민보건에 무관심한 당국자들의 처사를 규탄하면서 예방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여 싸웠다.

충청북도 중원군 양성면 동포리일대 250여명의 주민들이 전염병예방에 무관심한 당국자들의 반인민적행위를 규탄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굳세게 요구하여 나섰다. 이들은 련명으로 항의문을 《군청》에 들이대고 전염병이 급격히 퍼져 수많은 주민들이 아무런 치료도 받지못하고 억울하게 생목숨을 잃고있다고 지적하고 치료예방대책을 시급히 세우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음성군 생극면과 청원군 랑성면내의 주민들도 이와 같은 요구를 내걸고 억세게 싸웠다.

이들은 집단적인 항의를 들이대고 급격히 번지고있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않고있는 당국자들을 규탄하고 전염병예방대책을 빨리 세우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남조선 도시 가난한 주민들과 소상인, 중소상공업자 등 기타계층들은 로동자, 농민과 마찬가지로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에 고무되여 삶을 위한 투쟁과 결부하여 정치적성격을 띤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그들은 현통치집단의 장기집권을 위한 책동을 반대배격하여 나섰다.

남조선 강원도 춘천에 살고있는 박아무개청년은 시내여러곳에 붙어있는 수많은 《선거》선전벽보를 찢어버렸으며 이에앞서 경기도 인천시 동월동에 사는 리아무개 주민은 자기집담벽에 붙어있는 《선거》선전벽보를 찢어 땅바닥에 내동댕이친것을 비롯하여 남조선도처에서 이러한사건이 수많이 일어났다.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에 사는 김아무개라는 주민은 관청의 졸개들이 이른바 《국민투표지도계몽강연회》라는것을 벌려놓고 인민들의 《지지》를 강요하는 놈들의 음모책동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그는 말단관리들이 고위당국자의 1인독재와 종신대통령제를 《법》으로 보장한 이른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그것을 《지지》할것을 강요하자 이에 맞서 그들의 음모책동을 폭로하면서 그것을 배격할것을 주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당국자들의 집회장소는 수라장이 되고 《강연》은 중단되였다.

남조선주민들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전쟁준비책동을 견결히 반대하여 싸웠다.

경기도 인천시내 300여명의 가난한 주민들이 침략적인 전쟁준비에 날뛰면서 물조차 먹을수 없게한 미제침략군의 범죄적만행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싸웠다. 이들은 인천《시청》에 항의문을 들이대고 자기들이 살고있는 지역에 유류탕크를 설치하고 기름이 우물들에 흘러들게 하여 물조차 먹을수 없게 만든 미제침략군의 죄행을 단죄하고 이 군사시설을 당장 없애치우라고 강경히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이 일대 주민들의 심한 음료수난을 해결하라고 주장하였다.

경기도 의정부시내의 주민들이 미제침략군놈들의 군수품창고에 불을 지르는 대담한 투쟁을 벌렸다.

그리하여 골판 230여드람을 비롯한 많은 군수물자들이 몽땅 타버렸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투쟁은 류례없는 폭압속에서도 남조선 각지에서 이해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미제강점하의 남조선

1972년의 남조선정치정세개관

1972년 남조선정치정세에서의 특징은 절대다수의 인민들이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조국통일의 길을 따라 힘차게 떨쳐나선 반면에 내외정세의 요구에 따라 남북대화에 응해나온 남조선위정자들은 구태의연하게 통일방해책동에 매여달림으로써 남조선에서 사회계급적모순과 그들이 부닥친 정치적위기를 보다 심화시킨것이다.

남조선에서 조성된 심각한 정치, 경제적위기와 국제적범위에서의 긴장완화의 분위기에 휩싸이게 된 남조선위정자들은 남북대화에 응하지않을수 없었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합의 작성된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미상원외교위원회의 조사보고조차 숨기지 못하고 지적한바와 같이 그들이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응하고 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은것은 진정으로 조국통일실현을 념원해서가아니라 딴 정치적목적을 추구하였다는것을 곧 드러내놓았다. 그것은 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은 잉크가 마르기도전에 벌써 그것을 위반하는 언행을 일삼아온 사실이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그들은 우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한데 대한 원칙에 동의해놓고는 유엔은 외세가 아니라느니,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오래 남아있어야 한다느니, 조선의 통일은 《유엔감시하의 선거》에 의하여 이루어지야 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또한 무력행사에 의거함이 없이 평화적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원칙과도 심히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왔다.

그들은 남북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전후방군사시설을 보강하고 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쳐 《힘》을 《배양》해야 한다고 떠들었으며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리면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기에 급급하였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대화의 그늘밑에서 의연히 《승공》, 《반공》 소동을 벌리면서 공화국북반부를 중상비방하고 자기들의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제도》에 기초하여 통일하여야 한다는 도발적인 언행을 거리낌없이 하였다.

그리고 남북접촉과 교류를 폭넓게 실시하여 조국통일을 하루속히 이룩하며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데 대하여 요구하여나선 수많은 애국적인민들을 《반공법》에 걸어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학살하였다.

이러한 사태들은 남조선에서 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더욱 격화되는 정치적위기와 함께 사회계급적모순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남조선에서의 모순과 위기의 심화과정은 또한 남조선당국자들이 《평화통일》의 구호밑에 장기집권책동을 로골화함으로써 더욱 촉진되였다.

남조선위정자들은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당들을 해체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으며 대학을 페쇄하고 언론, 출판, 방송의 사전검열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형식상의 《의회민주주의》간판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남조선을 파쑈적폭압에 짓눌린 일대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속에 몰아넣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평화통일》을 촉진시킨다는 구호밑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해놓고 《체제를 개혁》하며 《국력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10월유신》이라고 선전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11월 21일 삼엄한 《비상계엄령》하에서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강행하여 《개헌》을 단행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만들어낸 《유신헌법》이란것은 권력을보다 집중시켜 1인독재통치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무기한 장기집권을 확보하며 《평화통일》의 간판밑에 《실력》을 배양하여 《승공통일》을 해보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해에 들어와 남조선위정자들이 《평화통일》의 간판밑에 벌려온 일련의 량면전술은 결국 그들이 부닥친 정치적위기를 더욱더 심화시켰을뿐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미제의 책동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7.4 남북공동성명을 우리 인민에게 통일에 대한 새 희망을 주고 조선인민의 민족적존엄을 과시한 귀중한 력사적인 문헌으로 여기면서 그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으며 다하고있다.

그런데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않고 영구한 분렬을 꾀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겉으로는 북과 남의 대화를 《환영》하는척 하면서 뒤에서는 방해책동을 일삼고있다.

닉슨도당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날인 7월 5일 미국무성극동차관보 그린이란자를 서울에 파견하는 한편 미국무성대변인 브레이란자를 시켜 두차례나 기자회견을 벌려놓게 하였다. 여기서 미제는 제놈들의 남조선영구강점흉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서울에 기여든 그린이란놈은 남북회담으로 인한 조선에서의 《긴장완화능력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유엔군의 계속주둔 등》 미제의 《정책과 모순되지않는다》고 하면서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유엔군의 계속 주둔이 필요하다》고 떠벌이였다. 한편 브레이란놈도 미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공동성명가운데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방법에 의하여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일원칙은 남북조선간의 《정치협상과정에서 고려되여야 할 문제로 간주되여야 하지 미군의 남조선주둔과 관련된것으로 간주되여서는 안될것이다》라고 뇌까리면서 파렴치하게도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려고 책동해나섰다.

그후에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 미안전보장담당국무차관 등이 《인터뷰》요, 기자회견이요 하는 따위를 련이어 벌려놓고 비슷한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아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9월 25일과 28일에 미국무장관 로저스, 차관 존슨이란놈들은 미국에서 각

각 남조선 《외무부장관》과 남조선의 《방위태세》와 남조선군《현대화》등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면서 《현재로서는 주한 미군 철수에 관한 계획은 없으며》,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뇌까렸다.

또 미국회하원에서 연설한 스칼리피오란놈은 남북접촉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움직임에 신중히 대하여야 한다》느니, 《공산주의자들의 진의를 점검해야 한다》느니 뭐니하면서 북과 남사이의 접촉은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떠들어댔다.

이렇게 북과 남의 접촉과 대화를 속심으로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여러모로 책동해 온 미제는 유엔총회에서의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하여 로골적으로 도전해나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유엔총회에서 알제리를 비롯한 평화애호국가들이 공동으로 제의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의 새로운 의제를 상정토의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알제리를 비롯한 많은 평화애호국가들의 제안은 조선에 조성된 새로운 정세의 요구와 남북공동성명의 실현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는 세계진보적나라 정부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의 공정한 의사를 반영한것으로서 이 제안의 실현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실현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며 나아가서 아세아와 세계평화유지위업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대한 변함없는 침략적야욕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새로운 의정이 유엔에서 상정토의못하도록 방해해나섰다.

미제의 이와 같은 책동은 그들이 의연히 유엔의 간판을 뒤집어쓴 저들의 침략군이 남조선을 영구강점하며 미제의 조선침략을 위한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존속시킴으로써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계속 유지하려는 침략적목적에서 출발하고있음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미제침략군의 감축설을 계속 류포시키고있는 놈들은 《감축되는 군사력의 공백을 보충》한다는 구실밑에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강화할것이라는것을 공개적으로 떠들면서 새로운 무장장비를 끌어들이고있으며 남조선군의 《현대화》를 다그쳐댔다.

미제침략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날인 7월 5일에 《디디—805》구축함 1척을 남조선에 끌어들인데 뒤이어 미싸일장비를 갖춘 수십정의 고속포함과 상륙작전용 수륙량용전차 수십대를 끌어들여 새로운 대대를 꾸리였다. 또한 8월 10일에는 《남조선이 강력한 상태에 계속 있도록 미국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남조선에 줄 2억 1천 570만딸라의 군사《원조》가 들어있는 이른바 《대외군사원조법안》을 미국회하원에서 통과시켰으며 8월 11일에는 남조선에 넘겨줄것을 목적으로 신형 제트전투기 《에프—501》의 시험비행을 감행하고 그 제작을 다그쳤다. 놈들은 웰남전쟁과 관련하여 생겼다는 이른바 남조선 《공군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함이라는 구실밑에 《에프—5에스》 또는 《에프—4팬톰》제트기 1개대대를 새로이 끌어들이는 한편 통신기재, 레이다, 신형군용자동차, 각종 포 등을 남조선에 넘겨주려고 책동하였다.

이와 함께 미제는 남조선의 군사 경제적잠재력을 강화하며 남조선에 대한 무기 및 전투기술기재를 현지에서 조달할 목적으로 남조선에 군수공장들을 세웠다. 놈들이 저격무기 및 탄약과 무기부속품공장을 건설하며 일부 공장들의 생산구조를 무기생산에 맞게 개편하고있는것이 이것을 잘 말해준다. 놈들이 남북공동성명발표후 《엠—16소총》 및 탄약공장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을 새로 남조선측에 대여준것이나 서울에서 남조선측과 《군병기와 장비의 연구개발과 자료교환협정》을 체결하고 군수생산에 필요한 기술자료들을 제공하기로 한것은 모두 이와 관련된다.

한편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으로 하여금 남조선에서 강행한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개정》과 그에 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놀음을 《감시》케 하고 진상을 외곡선전케 하였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11월 21일 《비상사태》우에 《비상계엄령》까지 선포되여 거리와 골목마다에는 땅크와 장갑차, 무장군인들이 진을 치고 《투표소》와 《개표소》마다에 정, 사복 경찰들이 득실거리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강행되였던 이른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놀음을 《감시》하고 그것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12월 15일 《비상사태》우에 《비상경계태세령》까지 선포된 이중삼중의 테로폭압속에서 감행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참관》놀음도 그렇게 묘사하였다.

놈들은 또한 썩어빠진 《반공》선전을 계속 벌어대였다. 11월 19일 서울에 기여든 미국 《십자군》총재란자는 《승공강연회》란것을 벌려놓고 《주민들의 승공사상을 높여》야겠다느니, 《공산주의는 교회의 사상으로 가로 막을수 있다》느니 뭐니하고 떠들어댔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조국통일의 디딤돌로 될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대화가 시작되고 남북공동성명에 따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협상이 진행됨으로써 그 전망이 열려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계속 집요하게 책동하고있음을 더할나위없이 보여주고있다.

로골화된 전쟁준비책동

1972년에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에 기초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반대하고 군사적《실력배양》을 떠들면서 전쟁준비를 다그쳤다.

그들이 북과 남의 대화의 막뒤에서 전쟁준비에 계속 매달린것은 북과 남의 정치, 경제, 군사적 대비에서 공화국북반부의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대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추종자들을 반대하며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기운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그들이 부닥친 위기가 보다 심각해진 사정과 관련된다.

미제는 그들이 부닥친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닉슨주의》의 실현에서 찾으며 아세아지역에서 전쟁책동의 기본중심을 식민지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하여 《아세아사람들끼리》싸우게 하는데 두었다.

미제의 이와 같은 책동은 《힘의 공백》상태를 메꾼다는 구실밑에 조선에서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그리하여 닉슨도당은 이해초부터 《한미안보년례회의》 등 여러가지 회담과 모의들을 벌려놓고 《조선정세를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등의 소동을 벌렸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무차관보, 미태평양지구 사령관, 륙해공군사령관이란놈들을 비롯한 군사작전, 통신, 군사기지, 군수관계 등 각 병종에 걸치는 군사관계자들을 남조선에 련신 보내여 직접 현지에서 전쟁준비를 다그치도록 하였다.

놈들은 저들의 이와 같은 침략책동을 가리기 위해 온갖 교활한 술책을 다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겉으로는 남북대화를 《지지》하는척 하면서 사실에 있어서는 남조선에서 물러갈 대신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더욱 증강하였으며 이른바 《한국방위공약을 계속 리행》할것이라느니, 《국군현대화계획을 추진》시킬것이라느니 하는 등의 언약들을 되풀이하면서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을 부추겨댔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미제의 조종밑에 대화의 막뒤에서 이른바 《총력안보》라느니, 《힘의 대결》이라느니, 《방위태세강화》라느니 하면서 또한 전쟁준비에 급급하였다.

【무력증강책동】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우리의 말을 믿을수 없다고 하면서 남북대결을 위하여 전후방군사시설을 보강하고 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쳐 〈힘〉을 〈배양〉해야 한다고 떠들고있으며 군사연습을 더욱 빈번히 벌리고있습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26~27페지)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은 《국군》의 군사장비를 《현대화》하며 군사기지건설을 다그치는 등 남조선 《국군》무력과 경제적잠재력을 군사적목적에 총동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군》의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높이려고 책동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선 《국군》의 장비현대화를 위해 미제의 군사《원조》에 의한 새로운 군사장비를 끌어들임과 함께 《군수산업》을 건설하여 륙군의 장비를 《개선》하며 해군과 공군력을 강화하려고 꾀하였다.

남조선《국군》무력의 증강을 위하여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군사《원조》를 더욱 증대하였으며 남조선당국의 이른바 《국방예산》도 늘쿠었다.

이해 남조선 예산에서 《국방예산》은 전해에 비해 363억원이 더 많은 1천 711억원, 1973년도에는 1천 854억원으로 늘었다.

미제는 제놈들이 웰남전쟁에서 쓰던 장비 250만톤을 남조선《국군》에 넘겨주었으며 수만정의 《엠—16》소총과 수많은 각종 포, 통신기재, 화학기재 등을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미제는 남조선공군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신형 전투폭격기인 《에프—4디》십여대를 넘겨주었다 .

또한 남조선해군에 고속포함 1척과 구축함 2척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현대적인 군사장비를 끌어들이는 한편 남조선현지에 일련의 군수공장들을 창설하였다.

미제는 《국군》의 저격무기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이해부터 시작한 《엠—16》소총, 탄약공장건설을 1973년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그 건설을 다그쳤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미제의 조종밑에 각종 군수공장과 수리공장들을 정비보강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국방부》안에 《방위산업국》이란것을 새로 두고 민수산업의 군수산업에로의 전환, 새로운 군수품공장건설 등을 총적으로 지휘감독케 하였으며 수많은 군수관계자들을 서부독일, 프랑스 등지에 보내여 군사장비의 생산 및 수리경험을 배우도록 하였다.

그들은 이해에 《국군》을 《정예화》하며 전략예비군을 강화하기 위한 소동도 벌리였다.

《국군》을 정예화함에 있어서 그들은 장병들속에서 반동사상선전을 강화하고 군사기술수준을 높이며 전투경험이 있는자들로 바꾸어채우는것을 기본방향으로 내세웠다.

그들은 《정훈》장교들과 하사관들의 각종 회의와 강습들을 빈번히 벌리고 수많은 《승공관》들을 건설하는 한편 《국군》안의 목사들을 수십명이나 늘쿠었다.

《국군》장교들과 하사관들을 웰남전쟁경험자들로 바꾸었으며 《국군》병력을 늘이기 위하여 《녀성군단》을 새로 만들었다.

그들은 《향토예비군》의 무장화와 학원에 대한 군사화를 다그쳐 전략예비군을 조성하기 위한 책동도 강화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80여만정의 무기를 《향토예비군》에 넘겨주어 약 200여만명을 무장시켰으며 년초부터 고사포 등 중화기까지 공급하여 수많은 《향토예비군고사포대대》, 《전투대대》 《방위사단》을 묶고 강행군훈련, 사격훈련을 벌렸다.

남조선당국자들은 학원의 군사화를 《국방의 3대요소》중의 하나로 삼고 이해초에 100만학생의 《조직화방침》을 세워 그들속에서 무기분해결합, 사격, 공격기습훈련까지 강요하였다.

【군사기지강화책동】 남조선호전분자들은 군사기지건설도 다그쳤다.

군사기지정비확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연과 후방,동서를 련결하는 고속도로건설과 해군공군기지건설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였다.

6월까지 그들은 서울—문산간, 문산—판문간 도로건설을 끝냈으며 서울—원주간, 산갈리—원주간 도로포장을 완공하였으며 부산—순천, 순천—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에 착수하였다.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은 신형전투폭격기들을 끌어들임에 따라 려수비행장확장공사를 끝냈으며 제주도비행장확장공사와 울진비행장건설에 착수하였다. 또한 미제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공군기지를 늘쿠기 위하여 600만딸라의 공사비를 쏟아넣었다.

비행장건설과 함께 그들은 대형함정과 전쟁물자를 끌어들일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만건설을 크게 벌렸다.

그들은 1976년까지 13개의 항만(군산, 울산, 포항, 삼척, 목포, 마산, 삼천포, 제주, 려수, 부산, 장항, 인천 등)건설을 위한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 기간에 총 579억 5천만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이해부터 공사에 착수하였다.

【군사도발책동】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은 《평화》의 간판뒤에서 전쟁준비를 쉼없이 추진시키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공을 가상한 전쟁연습소동을 미친듯이 벌렸으며 군사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하였다.

그들은 전쟁준비책동의 한고리로서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렸다.

그들은 《국군》의 작전지휘체계의 수립과 인원 및 장비 동원준비상태를 검열하는 등 전쟁도발에 대처한 연습에 기본중심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해 1월에 그들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기습공격전을 가상하여 《국군》1군에서는 장비 및 병력 상태를 총검열하는 대규모의 《동기야간기동훈련》을 진행하였으며 3월에는 《국군》해병대의 《상륙기습훈련》, 4월에는 《한미》해병항공대의 합동작전훈련, 6월에는 륙해공군의 합동《백사장상륙훈련》을 비롯한 군사용다리건설과 도하, 수색매복훈련 등을 벌리였다.

또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을지도상연습—72》를 벌려놓고 253만명의 주민을 전쟁연습에 동원하였으며 7천 420여개의 여러가지 굴과 지하도, 방공호들을 개방하였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일련의 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북공동성명발표이후 10월 31일 현재까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의 남쪽본부에 기관총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위반행위는 무려 880여건(정식으로 항의한것만 하여도)이나된다. 이것은 매일 열차례에 걸쳐 기관총을 끌어들인것으로 된다.

또한 8월 한달동안에만도 무려 407차나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는 매일 평균 13차에 걸쳐 기관총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인것으로 된다.

전반적인 정전협정위반사건은 우리

측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항의한것만도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에 7천 870여건에 달하며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이후 12월말까지에 (6월 22일—7월 4일까지의 것은 제외)7천 407건이나 된다.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군대는 이해말과 1973년초에만해도 공중정찰기들과 각종 군용비행기들로 동서해의 군사분계선상공을 지나면서 17차에 걸처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북과 남의 대화와 협상의 막뒤에서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며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도발소동을 일삼아왔다.

파쑈적폭압소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자 여기에 겁을 먹은 남조선집권자들은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라는 구실밑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민들에 대한 폭압소동을 벌리였습니다.》(《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24페지)

남조선통치집단은 미제의 조종밑에 그들이 부닥친 심각한 정치, 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나며 남조선에 세워진 식민지통치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평화통일을 운운하면서 남북대화에 응하여 나서지 않을수 없었으나 그 막뒤에서 장기집권을 위한 인민탄압에 더욱 매여달리였다.

1971년 12월에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란 날조된 구실밑에 파쑈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한 남조선위정자들은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조항들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모든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각 대학들을 페쇄하였다. 이와 함께 남조선전역에 《비상사태》에 이어 또다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력사에 류례없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뒤이어 12월 11일 《비상경계태세령》을 선포한후 다시 12월 14일 남조선전역에 《특별경비령》을 련달아 내려 남조선사회를 완전히 《질식상태》에 몰아넣고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요구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을 탄압하기에 날뛰였다.

【파쑈악법의 개악책동】 남조선위정자들은 인민탄압을 위하여 악명높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을 더욱 개악하려고 책동하였다.

남조선고위당국자는 이른바 《년두순시》에서 과거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위반사범이 판결과정을 통해서 풀려나온일이 있다》느니 뭐니하면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보완》하라고 《명령》하였으며 《국가의 기강확립》을 위해 다른 《현행법》들도 더 《강화》하여 《엄벌주의》로 나가도록하라고 력설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악명높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더욱 개악하는것과 함께 새로 악법들을 련달아 만들어내며 인민들의 손발을 얽매여놓았다.

전해에 이른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작한데 뒤이어 이해에는 《옥외집회와 시위에 관한 특별조치령》,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인쇄소 및 출판사 등록에 관한 법률》 등 100여건의 군사관계 및 탄압을 위한 악법들을 조작 및 개악하였으며 《비상계엄령》발동이후에는 《헌법개정안》을 비롯하여 《비상국무회의법》 등 17건의 각종 악법들을 조작 및 개악하였다.

이 모든 악법들은 례외없이 장기집권과 인민탄압 그리고 전쟁준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악법들이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이와 같은 악법들을 휘둘러 인민들의 일체 언행과 언론을 구속하며 소위 《법》과《포고령》의 위반《죄》로 마구 잡아가두어 처벌하고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싸운 애국자들을 체포학살하였다.

【폭압체계의 정비강화】 남조선통치집단은 《일인독재》 및 장기집권체제확립에 대한 장애로 되는 모든 반제세력을 제거하며 《전시체제》에 인민들을 얽어매고 드높아가는 조국통일기운을 억누르려고 책동하였다.

그들은 《경찰공작회의》, 《치안 및 예비군관계관중앙회의》, 《검사장회의》등 각종 모의들을 벌려놓고 폭압체제를 《비상체제》에 맞게 정비강화하며 《집단행위》와 《국론을 분렬시키려는 행위를 엄단》하며 남북공동성명과는 관계없이 《용공행위》들을 단호히 《처형》하라고 지껄여댔다. 《비상계엄령》선포이후에는 수차에 걸처 《포고문》을 발포하고 이른바 《10월유신》에 장애로 되는 《모든 요소들을 모조리 제거》하라고 폭언하면서 전례없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폭압기구 확장에 급급하였다.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만도 해안지구 도들에는 《이동경찰국》, 큰 섬과 소위 경비가 약한 지구들에는 18개의 《수사대》와 《이동파출소》, 《기동순찰대》 등 여러가지 폭압기구들을 수많이 만들어냈으며 인구 500명이상 되는 섬들에는 《경찰관련락소》를 내왔다.

그리고 서울에 《남부경찰서》를 새로 설치하고 그에 따르는 지서와 파출소들을 늘였으며 《해양경찰대》의 각 《기지대》를 《지구해양경찰대》로 승격시키고 《부산지구해양경찰대》를 새로 내왔다. 그리고 2월에는 《경찰전문학교》를 《경찰대학》으로 승격확장하였다.

당국자들은 《경찰》대렬을 《꾸리는》 한편 《경찰》보조력량을 확대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1월에 그들은 《소년경찰대》라는것을 만들어 매개 《경찰서》마다 60여명씩의 불량청소년들을 끌어들여 완전한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리, 동장과 이른바 《새마을지도자》 2만 3천 500여명을 《명예경찰관》으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사법권을 주었다.

소위 《방범위원회》체계도 종래의 동단위로부터 지서와 파출소단위로 개편하고 《방범대원》을 6만 7천 700명으로부터 13만명으로 늘이였으며 그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감독을 위한 기구로서 《지방방범협의회》를 내왔다.

남조선의 《중앙정보부》 밑에는 1970년말현재로 약 1만 5천여명의 기본성원과 37만의 정치특무들이 망라되여있으며 경찰수만하여도 《군사정변》당시의 2배에 이르고있다. 이밖에 32만명의 《경찰정보원》, 《경찰행정자문위원회》를 비롯한 6천 2백여개의 방범위원회》 등 수다한 경찰보조기구들도 늘구었다.

경찰의 본거인 《치안국》은 5개의 과로부터 12개의 과로 늘였다. 서울을 제외한 11개의 도, 시에는 《경찰국》이 있다. 《경찰서》는 200여개가 있으며 그 밖에 《경찰지서》, 《파출소》들도 200여개가 있다. 이 밖에 200만의 《향토예비군》이 있는데 이것을 《예비병력》으로, 또 인민탄압에 리용하고있다.

정보원, 특무들은 로동자 10～15명에 1명씩, 어민은 5명에 1명씩의 비률로 붙어있으며 대학같은데서는 학생 8명에 1명의 비률로 정보원이 따라 다니고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는 《중앙정보부기간요원》 15명을 박아넣고 진보적

학생들의 사상동향과 활동정형을 샅샅이 내탐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전역은 군사, 경찰, 정보부, 특무망으로 뒤덮여있으며 그곳은 테로와 폭압의 생지옥으로 더욱더 전변되였다.

【인민탄압의 강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폭압의 예봉은 특히 남조선혁명가들에게 돌려졌다. 남조선반동들은 《첩보사찰체계》를 재정비하는것과 함께 《개인접거책임제》, 《첩보수집책임제》를 내오는 등 각종폭압조치를 취하고 남조선혁명가들에 대한 탄압에 날뛰였다.

남조선혁명가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책동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더욱 로골화되였다.

그들은 이른바 《간첩단사건》이란것을 날조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수령님탄생 예순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충성의 선물을 준비하면서 서울과 부산 등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권아무개외 29명의 애국자들에 대한 살인공판놀음을 벌려놓고 세명에게는 사형, 27명에게는 무기에 이르기까지의 징역형에 처하였다.

또 이른바 《거제도사건》과 경북, 경남 《사건》을 조작하여 50여명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려놓고 그들에게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극형과 중형을 들씌웠으며 인민의 자유와 해방,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온 김규남, 김질락, 정태묵, 백로수 등 애국자들을 학살하였다.

또한 당국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면서 자들의 장기집권책동을 반대배격하는 애국적 인민들을 탄압하기에 날뛰였다.

10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의 기간에 있은 단편적인 자료를 종합한데 의하더라도 남조선당국자들은 《반공법》과 《계엄법》에 걸어 600여명의 인민들을 체포투옥하였다. 그가운데 수령님을 흠모하며 공화국북반부를 지지동경하는 발언을 하여 붙잡히여 3년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주민수만도 320여명에 이르고있다.

뿐만아니라 량심적인 기자들에 대한 탄압도 강화하였다.

그들은 3월과 4월에 《경기일보》기자 4명과 《동아일보》기자 16명에게 생트집을 걸어 붙잡아다가 폭행을 가하여 실신케하였다.

특히 《비상계엄령》발표 이후 남조선통치자들은 조국통일 및 고위당국자와 관련되는 모든 기사들은 일체 《중앙정보부》와 《국군》의 승인하에서만 발표케 하였고 기자들의 활동을 완전히 말살하였다.

남조선위정자들은 또한 청년학생들을 얽어매여놓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첩보사찰을 강화하여 수많이 쫓아내는 소동을 벌렸다.

그들은 학생자치단체였던 《학생회》를 통치기관의 관할하에 넣고 여러가지 소조활동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며 《담당교수제》를 내오고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지도교원》의 통제밑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청년학생들에 대한 첩보사찰을 악랄하게 감행하면서 진보적학생들을 수많이 내쫓았다. 7월과 9월에 서울대학교에서 900여명, 경상북도에서는 1만 2천 740여명을 각각 퇴학 및 정학 처분하였으며 10월에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풀어 모든 대학들의 문을 닫았다.

9월 5일에는 날조된 《내란음모사건》으로 구금하였던 서울대학교의 4명의 애국적학생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장기간의 중형을 들씌웠다. 뿐만아니라 9월초에는 단 하루동안에 서울대학교에서만 890여명의 학생들을 학원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했다는 죄아닌 《죄》를 들씌워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탄압은 남조선애국자들과 청년학생 지식인뿐아니라 광범한 주민들과 지어 야당계렬의 인사들에 대해서도 가해졌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약 한달동안에만도 남조선당국자들은 34건의 《류언비어》사건을 《단속》하고 이에 관련된 주민들을 잡아다가 탄압을 가하였다.

례를 들면 7월 8일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렬차안에서 홍아무개라는 청년이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소식을 듣고 차안의 주민들앞에서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련계가 회복되고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였으니 이제는 《이북방송을 들어도 상관없다》, 《배를 타고 이북까지 가도 무방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는데 남조선경찰은 이 청년을 《류언비어 죄》로 몰아 잡아가두었다.

남조선통치집단은 이해에 들어와 8개월동안에 서울에서만도 근 50만건의 살인공판놀음을 벌리고 수많은 죄없는 주민들에게 악랄한 형벌을 들씌우는 파쑈적죄행을 저질렀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이라는데서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가운데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건수는 13건이나 된다.

남조선통치집단은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17일과 18일 이틀동안에 서울시내에서만도 무고한 주민 6천 260여명이나 잡아가두었다.

그들은 혼란상태에 빠진 남조선사회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이름밑에 중무장을 갖춘 수많은 《국군》과 경찰들을 시내 거리의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날날이 뒤지며 오가는 사람들을 검문검색 하면서 조금이라도 비위에 거슬리면 《포고령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잡아가는 파쑈적횡포를 부렸다.

그들은 남조선강원도에서만도 이해에 2만여명의 주민들을 《형사범》과 《특별사범》이라는 《죄》를 들씌워 잡아가두었다. 이 수자는 이 도에서잡아가둔 전해 같은 기간의 것에 비하여 8천 800여명이나 더 많은것이다.

이것은 1972년에 남조선위정자들의 탄압행위가 어느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심지어 그들은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협상을 요구하는 야당인사들을《반공법》으로 위협하면서 그들과 우리와의 접촉을 가로막아나섰으며 9월 21일에는 통일을 주장하고《북한을 정권》으로 인정한다는 《죄》로 남조선의 한 야당인사를 살인재판장에 끌어내였다.

이와 같이 남조선위정자들은 평화통일의 간판뒤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을 탄압하며 자유와 해방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싸워온 애국자들을 무참히 학살하고있는것이다.

《유신》의 간판밑에 감행된 장기집권책동

남조선위정자들은 대세의 흐름과 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응하여 나섰고 뒤이어 있은 쌍방 고위급회담에서는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에 도장을 찍고 협상의 마당에 나왔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위한 협상의 막뒤에서는 미제의 조종밑에 남북대결을 고취하면서 민족분렬을 영구화하고 장기집권을 꾀하였다. 뿐만아니라 《반공》과 《실력배양》의 구호밑에 《승공통일》을 위한 전쟁준비를 다그쳤다.

이와 같은 그들의 량면전술은1972년에 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서 아주 뚜렷이 드러났다.

【개헌책동】 남조선위정자들은 남북대화의 이른바 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라는 구실밑에 파쑈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대통령》의 임기제한을 없애고 《종신대통령》제로 하기 위한 소위 《헌법개정》을 단행하였다.

남북적십자회담을 진행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통일기운을 억누르기 위해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란 거짓을 꾸며 남조선전역에 걸쳐 《비상사태》를 선포한 남조선당국자들은 이해 10월 17일 바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또다시 남조선전역에 걸쳐 파쑈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정당들의 정치활동을 중지시키며 《국회》를 해산하였다.

이렇게 인민들의 손발을 얽매놓고 11월 21일 이른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소위 《유신헌법》이라는 《개정헌법》을 만들어냈으며 12월 15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를 단행하여 장기집권을 합법화하였다.

이 《개정헌법》은 내외여론이 일치하게 지적하고있는 바와 같이 모든 권한을 현 집권자에게 모으고 그의 장기집권을 《합법화》하며 파쑈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규제하였다.

이번 《헌법》에서는 종래 《대통령》의 직접선거제를 간접선거제로 바꾸고 그 임기도 4년으로부터 6년으로 늘쿠었으며 재입제한조항을 아주 없애버림으로써 현 집권자의 장기집권을 《거의 기정사실》로 만들어놓았다.

이리하여 《대통령》은 무제한한 권한을 가지고 현 정권뿐아니라 사법권과 립법권까지도 좌지우지하게 되였다. 이것은 그들이 《민주주의표본》이라고 그처럼 떠들어대면서 형식상이나마 내걸었던 이른바 《3권분립제》, 《의회제》를 사실상 말살한것으로 된다.

《개정헌법》에 의하면 《국회》 밖에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것을 만들게 되여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남조선통치기구에서 《최고의결기관》이다. 여기에서 남조선의 모든 중요 《정책》들을 결정하고 지어 《대통령》도 선거하는것으로 되여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제의》에 의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만이 중요 《정책》을 론의하고 거기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본다》고 규정되여 있는만큼 남조선당국자들은 《국론통일》이라는 구호밑에 모든 《정책》을 《대통령》의 의사대로 결정하고 처리할수 있는 독단의 길을 열어놓은 셈으로 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또한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규정한다》고 함으로써 종래의 《대통령》직접선거제를 간접선거제로 만들었으며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입제한조항을 없애버렸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이상과 같은 중요 《정책》의 결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선거권은 결국 《평화통일》의 이름아래 모든 권한을 현집권자에게 집중시키고 그의 영구집권을 《합법화》할것을 노린것이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남조선위정자들은 이른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서 지난시기 그 어느 《선거》에서보다도 악랄한 갖가지 제한조항들을 설정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 근로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자기들의 추종자들만으로써 《대의원》을 꾸렸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의하면 《대의원》은 순전히 명예직이며 무보수이다. 일정한 보수없이 《대의원》으로 되여 살아갈수있는자는 남조선에서 이른바 《유력자》 또는 《유지》로 자처하는자들 즉 부유층뿐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법》에는 또한 《대의원》으로 될수있는 자격을 《국회의원피선거권》이 있는 30세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선거구내에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이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것은 사실상 남조선에서 반미, 반일, 반파쑈투쟁의 앞장에 서있는 수백만 청년들을 《피선거권》에서 뺌으로써 남조선에서 《최고》의 통치기구에 그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것이다.

또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 의원수의 3분의 1을 《선거》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있다.

이것은 더욱 유명무실하게 된 《국회》에서도 조국통일에 대한 론의를 할수 없게 하기 위한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헌법》에서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더욱 가혹하게 억누르며 반대파들의 정당활동과 정치활동도 막을것을 《법제화》하고있다.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을 가혹하게 제한하고있는것은 인민들의 정치적진출과 반대파들의 반항을 억누르기 위한것이다.

《국민의 권리》라는것을 형식상으로 선포하고는 매 조항에서 그것을 종래보다 더욱 혹심하게 제한하고있다.

실례로 종래에는 거주이동, 직업선택,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전시》하에서만 《규제》받을수 있다고하였던것을 이번의 《헌법》에서는 《법률에 의해서만 보장된다》고 함으로써 항시적으로 무제한하게 탄압할 법적근거를 만들어놓았다. 그 우에 인민들을 령장없이도 체포할수 있게 하였고 주민들이 아무 《죄》가 없이 체포되여도 항소조차 할수없이 만들어놓았다.

심지어 그들은 《법원》우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정당해산, 《탄핵》등의 최고심판권을 중심으로 《법원》의 지위를 낮추고 그 《독자성》과 권한을 심히 약화시켰다. 그리하여 형식상의 《3권분립》에 기초한 이른바 《의회제민주주의체제》마저 완전히 없애고 고위당국자가 《총통》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독단과 전횡을 마음대로 부릴수 있게 하였다. 더우기 관료화되고 독선적인 파쑈기구체계를 완성함으로써 일인독재 및 장기집권을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이와 같은 이른바 《개정헌법》을 강압적으로 《통과》 《확정》하기 위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한 우에 2중으로 《비상계엄령》을 실시한 가운데 11월 21일에 《국민투표》를 강행하고 《헌법의 확정》을 선포하였다.

《투표》는 살벌한 파쑈적분위기속에 감행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전차들과 장갑차들이 골목들을 지키며 완전무장한 《특수부대》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특무, 테로분자, 경찰들이 나돌아치며 《독려》라는 명목으로 협박을 일삼는 공포속에서 강제로 끌려나온 인민들이 《투표》를 강요당하였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패거리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와 《공명선거》라는 상투적인 선전구호를 내걸어놓고 이른바 《참관》을 하는가운데서 이러한 폭력극이 벌어졌다.

이번의 《국민투표》놀음의 전후과정은 그것이 동서고금에 류례가 없음은 물론 남조선에서 실시되여온 《선거투표》놀음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놀음이였음을 말해준다.

이렇게하여 《개정헌법》을《확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통일국민협의회》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대통령》을 《선거》하였다.

그러면서 남조선위정자들은 1인독재체제확립에 방해로되는 《공무원》들과 《경찰》들을 쫓아내는 한편 그들에 대한 그 무슨 《사상교양》을 강화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들은 대렬정비와 함께 이른바 《정풍운동》 및 《기강확립》의 구호밑에 《공무원》들과 《경찰》들을 파쑈적규률에 얽매여놓고 무조건 저들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북과 남사이의 협상과 대화에 나서면서도 이른바 《단계

론》을 내걸고 애당초부터 회담을 질질 끌면서 그 막뒤에서 그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책동과 《승공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이 되뇌이는 《단계론》이란 이른바 인도주의문제를 먼저 토의해결한 다음 순차적으로 비정치적문제, 경제, 문화교류 등을 처리하고 정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인도주의문제이건, 경제 문화교류이건 할것없이 정치적보장이 없이 풀릴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다.

때문에 남조선위정자들의 이른바 《단계론》은 사실에 있어서 협상과 대화에서 제기된 문제를 성사시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도 마치 조국통일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가장하여 통일을 갈망하는 인민들의 지향을 어루만지고 장기집권을 꾀하자는데있다.

미국신문 《뉴욕타임스》까지도 《박정희는 1975년에 제4선을 위해 출마하지 않을것이라고 공표했지만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수 없다.

정치적으로 밝은 많은 사람들은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최근의 움직임들과 박정희의 야심사이에 련관이 있다고 보며 그들은 박정희가 류임하는 리유로서 장기회담을 리용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고 썼다.

사실상 남조선위정자들의 언행에서도 그것은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남조선 《국무총리》란 사람은 미국에 가서 닉슨놈과 만난후 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노력을 모독하면서 《통일의 전망은 밝지 못하》며 조선이 《10년내에 통일될수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는 우리 측이 《남북우호에 장벽을 펴놓고있다》느니 뭐니하는 터무니없는 날조로 우리를 비방하였으며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주둔해있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시금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였다. 이에 뒤이어 남조선고위당국자자신이 기자회견을 벌려놓고 통일이 《어려운》 일이며 남북대화와 교류를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또다시 《국력》배양을 력설하였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적화통일의 위협성》에 대해 떠들면서 《다가올 대결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고아댔다. 또 《문교부장관》은 《공산주의를 알고 이를 이기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며 지어 남조선의 한 방송은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망동을 부리는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남북대화》와 《평화통일》을 안받침한다는 이른바 《10월 유신》의 간판밑에서 《반공》파쑈독재체제를 강화하고 남북의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며 민족적단합을 가로막음으로써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을 배반하며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는 산 증거이다.

사실상 남조선위정자들은 자주통일을 위한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돌아서면 미제침략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외세가 아니며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의 장기주둔과 군사원조를 애걸하며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실은 그들이 《평화통일》을 저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한낱 간판으로 리용하고 있다는것을 더 말할나위없이 실증해주고있다.

반 공 소 동

1972년에 미제강점하의 남조선에서는 범죄적인 《반공》소동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반공〉은 인민들을 탄압하며 정치적반대파를 제거하는것으로부터 전쟁소동을 일으키며 동족상쟁을 고취하는데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의 약〉으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87페지)

《반공》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정책을 감싸는 수단으로서뿐만아니라 그의 침략정책을 집행하는자들의 죄행을 은폐하는 수단으로서 리용되고 있다는것은 다아는 사실이다.

그들은 이해초부터 《반공》을 방패로하여 반대파를 탄압하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북과 남의 분렬을 고정시키기 위한 저들의 범죄행위를 감싸는 연막으로 삼고있다.

1972년초부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을 《반공대회》에 끌어내던 반공분자들은 5월을 《방첩 및 승공통일의 달》로 정하고 력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반공》소동을 벌렸다.

호전분자들은 썩어빠진 《남침위협》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이른바 《비상사태》선포후 더한층 강화하고있는 자기들의 전쟁준비책동을 합리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평화통일기운을 막아보려고 기를 썼다.

그들은 남북공동성명이후에도 《반공》소동을 계속 벌리였다. 그들은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인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1주일동안을 무슨 《해방운동주간》으로 정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비방중상하기 위한 《반공》소동깜빠니야를 벌렸다.

8월 11일에는 《이북5도민회중앙련합회》를 비롯한 9개의 반동단체들이 마련한 이른바 《적십자회담촉진궐기대회》라는 광대놀음을 벌렸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주동적조치에 의하여 열리게 된 북과 남사이의 적십자회담을 마치 자기들에 의하여 그렇게 된듯이 사태를 외곡하였으며 그들이 회담을 질질끌면서 그 책임을 우리측에 넘겨씌워보려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상례적인 《반공영화》상영, 《반공강연회》, 《반공웅변대회》, 《반공전시관》 건립 등 여러가지 《반공》선전을 더욱 강화하였다.

청주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한국반공련맹 충북지부》주최로 《승공통일전시회》라는것이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사이에 청주중앙《국민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방송이 전하는 《전시회》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승공통일전시회》라는것이 사실을 외곡하면서 민족의 분렬을 합리화하고 조국통일을 반대하며 국토량단의 책임을 그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승공통일》을 선전하기 위해 마련된것이다.

이처럼 《반공》선전을 강화하는 한편 《반공》교육에도 열을 냈다.

《반공》교육은 특히 학생들속에서 강화되였다.

그것은 남조선의 어느 계층보다도 학생들속에 반《정부》감정이 강하며 더우기 공동성명이후 그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진 사정과 관련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국무회의》에서 《공산주의사상이 침투해올수 없도록하는 반공교육은 전과 변함없이 계속 강화할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합의확정된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에 도장을 찍고도 거기에서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조국통일촉진에 이바지할 대신에 그와 전적으로 맞지않는 《반공》선전에 계속 매여달려 현분렬상태를 언제까지나 유지하겠다는 속심을 드러낸것이다. 사실상 남조선위정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였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인 7월 10일 《문교부》는 《시, 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학생들속에서 《반공》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모의

를 하였으며 8월 24~25일에는 대학생들에 대한 《승공교육》방향을 찾기 위한 《국민륜리담당교수쎄미날》을, 10월 12일에는 《중고등학교교사반공도덕연구발표회》를 열었다.

이 모임에서 그들은 고등학교입학시험채점에서 《반공》과목점수를 종래 17점으로부터 20점으로 올리게 하였으며《반공시범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를 20개로부터 대폭 250여개로 늘쿠었다.

또한 대학에서는 《국민륜리》강의를 개별교수들에게만 맡기지 않고《원로급교수》들이 담당하도록하고 학교와당국이 《국민륜리》교원들의 활동을 최대한으로 돕도록 하였다.

또한 남조선위정자들은 농어촌을 기본으로 하면서 남조선의 전지역과 농어민, 도시주민, 학생, 《공무원》 등의 계층을 망라하는 이른바 《새마을운동》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새마을정신을 함양》하며 교활하게도 《자조, 자립, 협동정신》을《배양》시키겠다고 떠들어댔다.

그들은 이른바 《국민총화》를 위한 선전책동의 한고리로 일인파쑈체제의 위장물인 《한국식민주주의》에 대한 설교도 강화하였다.

이해에 이른바《한국식민주주의》라는것을 들고나오게 된것은 더한층 반동화된 파쑈통치체제를《남조선에 맞는 민주주의》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반동적본질을 가리려는데 있으며 또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온갖 파쑈적탄압책동을 감수하게 하려는데 있다.

남조선고위당국자는 일인독재체제의 강화와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개정안공고담화문》에서《헌법개정》을 통하여 《민주제도를 우리에게 알맞게 토착화》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적민주주의》라고 떠들었다.

그들은 그 직접적산물인 이른바《10월유신》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 강제로 부르도록 하는 한편 아침인사까지도 《유신》을 지지하는것으로 바꾸려고 책동하였다.

이것은 평화통일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세워놓은 반동적통치제도를 강요하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서들고있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미제의 조종밑에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은 《반공》을 고취하면서 전쟁도발준비에 의연히 열을 올렸다.

남조선호전분자들은 미제의 사촉밑에 공화국북반부를 침범한 《6.25 22돐》에 즈음하여 남조선 《국군》부대들에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행정부각 부처별로 이른바 《승공기념식》을 비롯한 《승공대학생행군대회》, 《묘지참배행군대회》, 《교회대련합 례배회》라는것 등을 벌리였다. 이보다 앞서 23일에는 륙해공군과 해병대 및 《향토예비군》등을 끌어내여 《합동작전훈련》, 《사격대회》등 전쟁소동을 벌리였다.

그들은 25일 남조선전지역에서 1만 3천여명의 청년학생들을 끌어내여 그 무슨 《승공대학생행군대회》라는 놀음을 벌리였다. 그들은 이에서 강제로 끌어낸 대학, 전문학교 학생들과 지어는 녀학생들에게 배낭과 총까지 메워서 도보행군을 강요하였다. 이날에 또한 《교육자국립묘지참배행군》이란것도 벌렸으며 지어 종교인들을 한곳에 긁어모아 그 무슨《련합례배》라는 놀음까지 벌려놓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고위당국자는 이른바 《6.25 22돐에 즈음한 담화문》이란것을 내놓고 또다시 《승공통일》에 매달렸다.

이것은 《반공》이 곧 《승공통일》의 쌍주곡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평화통일의 간판뒤에서 의연히 《승공통일》을 꿈꾸며 그것을 성사시키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9월 2일 남조선의 한 당국자는 1973년도예산안을 《국회》의 심의에 붙인것과 관련하여 《시정연설》이란것을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우에서의 통일》을 위해 안으로는 《국력을 배양》하며 밖으로는 《한미방위조약을 주축으로 하는 한미공동방위체제의 효과적인 유지발전》에 힘을 기울일것이라고 하면서 《언커크》와 《유엔군》의 《주둔》이 계속 되도록 노력하며 군사시설의 증강과 남조선군대의 장비현대화를 계속 다그칠데 대해 떠들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내놓은 이와같은 《정책방침》은 그들이 지난시기 미일침략자들의 훈수밑에 《승공통일》을 위해《실력배양》을 하겠다고 하면서 전쟁준비를 다그치던 그 범죄적인 《정책》을 그대로 되풀이한것이다.

이《시정연설》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유민주주의체제우에서의 통일》이 그들의 변함없는 립장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른바 《자유민주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력을 배양》하는것이 《시정방침》의 기본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것을 계속 강력히 밀고나갈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남조선에 세워진 반인민적이며 반민족적인 사회제도를 우리에게 강요하여 《승공통일》의 망상을 이루어보겠다는 황당한 수작이며 《국력》을 길러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견지한다는 구실밑에 남조선에서 파쑈폭압체제를 더 한층 강화하고 소위 《총력안보》를 다그치면서 전쟁준비를 강화하겠다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반공》소동에서 특징적인 것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비방중상을 아주 파렴치한 방법으로 감행하는것이다.

9월 3일부 《주간중앙》신문은 《분단 27년만에 본 평양》이라는 제목아래 《평양시내에 있는 거리의 시장》이라고 하면서 초라한 한 로천시장의 사진을 취급하였다. 이와 꼭 같은 사진을 《중앙일보》도 실었고 《신아일보》도 취급하였다.

사진에는 어느한 거리의 로천시장에서 개인상인들이 로점을 차려놓고 사과며 오이, 수박 등을 팔고있는데 일제식 《리야까》를 끌고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녀성들은 모두 일제시기의《몬베》를 입고있다.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 가운데는 남녀학생들이 많다. 앉아서 사과를 파는 남자도 학생이고 《리야까》를 끌고가는 사람도 녀학생이다. 이 사진은 어느 모로 보나 오늘의 평양이 아닐뿐아니라 해방후의 평양도 아니다.

바로 이 사진은 다름아닌 일제시기의 것이다.

남조선신문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따위 사진을 가지고《요술》을 피우는가 하는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어떻게하나 헐뜯고 중상비방하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동경심을 억눌러보려는데 있다. 심지어 남조선당국자들은 일본의 《요미우리신붕》이 공화국북반부의 발전모습을 소개한것을《편파적보도》라느니, 저들을 《부인하는 모독적처사》라느니 뭐니하면서 《요미우리신붕》 서울지국을 강제폐쇄하고 서울주재특파원을 추방하는 한편 이 신문의 배포까지 중지하려는 소동을 벌렸다.

이처럼 남조선당국자들은 공동성명발표이후에 있은 이러저러한 장소와 모임들에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먼저 국력을 더욱 증강》해야 한다느니 《국력의 뒤받침이 없는 통일의 념원은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느니 우리의《국력》이 튼튼히 다져졌을 때 비로소 《우람찬 통일의 거목은 그 뿌리를 마음껏 내리게 될것》이라느니 뭐니하는 온당치못

한 발언을 함부로 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한술 더 떠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이 아무리 간절한 우리 민족의 념원이라 할지라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우리의 립장에는 추호의 변화도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의 《자유민주체제에 의한 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 《승공통일》을 하겠다는 이미 알려진 립장을 계속 되풀이하였다.

그러면서 남조선통치집단은 신문, 방송, 통신 등 어용출판물들과 기관들을 동원하여 마치도 우리측이 남북적십자회담을 《정치선전무대》로 만들고있는듯이 판에 박은 소리를 계속 늘어놓으면서 그 무슨 《실망》을 느끼게 한다느니, 《적십자회담에 찬물을 끼얹고있다》느니 하고 매일같이 소란을 피우고있으며 《북조선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지어 이들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조국통일을 하루속히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는 우리측 대표단의 활동에 대하여 그 무슨 《배신행위》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악담까지 서슴지않고 퍼부었다.

이와 같이 미제와 그의 추종자들은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며 저들의 전쟁정책과 파쑈폭압 등 범죄행위를 가리워보려고 남북대화의 막뒤에서 《반공》소동을 끊임없이 벌려왔으나 광범한 남조선인민들로부터는 물론 세계사회계의 배격과 분노를 받아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갈뿐이였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면에 걸처 우리 나라 남반부에 대한 침략의 검은 손을 깊숙이 뻗치고있으며 또한 우리 나라와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작전계획까지 짜놓고 전쟁연습소동을 련달아 벌리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시작되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이 펼쳐진 조건에서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의연히 남조선에 대한 침략의 검은 손을 깊숙히 뻗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닉슨주의》 교리에 의한 아세아정책의 성과적수행을 위해 이해에도 남조선반동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과의 결탁을 강화하려고 책동하였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에 발맞추어 남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정치군사적침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외교》적방법으로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는 한편 군사적 및 경제적 침략과 결탁을 손쉽게 보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해 기를 썼다.

《한일협정》이 조작된 후 서울과 부산, 인천 등지에 설치된 《주한일본대사관》과 《총령사관》, 《령사관》 등은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을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침략적기구이다.

《주한일본대사관》을 비롯한 《총령사관》 및 《령사관》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정책을 현지에서 직접 집행하는 도구로서 남조선당국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의 길을 열어놓는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밖에도 남조선당국자들과 정치, 경제,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이며 상설적인 침략기구들을 수많이 만들었다.

《한일정기각료회》, 《일한국회의원간담회》, 《민간일한협력위원회》, 《일한민간합동경제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침략기구의 주요사명은 남조선을 일본군국주의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침략의 발판을 닦는데 있다.

한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에 50여개의 《친한》단체들을 꾸려놓은데 뒤이어 남조선에 그와 련결된 20여개의 《친일》단체들을 만들어놓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남조선인민들속에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류포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고있다.

그들은 7월 4일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겉으로는 이를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남조선의 《국력》을 강화하는것이 《남북대화를 전진시키는 열쇠》로 된다고 남북간의 새로운 대결에서 남조선측이 《우세》를 차지하도록 뒤받침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대한 《원조》를 강화해야 하겠다고 로골적으로 말하였다.

또한 이른바 《한일협력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왔던 이전 수상 기시 노부스께가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강화할것을 다짐한 사실 등은 그들의 진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보인것이다.

더우기 일본당국은 미제국주의자들과 합세하면서 알제리를 비롯한 평화애호국가들의 조선에 관한 공동제의가 유엔에서 토의되지 못하게 하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였다.

남조선에서 마련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정치적지반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함께 정치적지배자로 뻐젓이 행세하려 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해에 정치적침투와 함께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침투도 강화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우리나라를 반대하는 침략기지로 틀어쥐기 위하여 《한국은 일본의 생명선》이라고 드러내놓고 폭언을 줴치면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침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그들은 《협력》 및 《협의체》로 위장한 각종 형태의 군사적침략기구들을 수많이 만들고 그것을 기본골간으로 하여 군사적침투를 강화하고있다.

이러한 침략기구들에서 남조선《국군》의 군사력증강에 재정, 경제적지원을 더 줄데 대해서와 《미일한공동작전체제》안에서 《국군》과 《자위대》의 공동보조 및 행동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검토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침략계획의 일환인 총규모 4조 6천 3백억엔에 이르는 《4차방위력정비계획》을 세우고 《자위대》의 자체무력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남조선《국군》의 무력증강도 꾀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호전분자들간의 군사적결탁은 이미 일본 《자위대》와 남조선 《국군》간의 반항공조기경보체계, 군사정보교환체계, 군사보급체계, 군사통신망체계 등 공동군사작전체계의 확립을 거쳐 오늘《자위대》와 《국군》의 《교류근무》를 실시하며 미제침략군의 지휘밑에 《자위대》와 《국군》의 공동작전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침략적군사작전체계를 짜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이해 6월 27일에도 일본 《방위청》의 《방위연구소학생》이라는 너울을 뒤집어 쓴 40여명의 군국주의패거리들이 《군사현황을 돌아보기》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남조선에 쓸어들었다.

그 모두가 일본 《자위대》의 고위장교들인 이자들은 미제와 저들에 의하여 다그쳐지고있는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의 새 전쟁 준비형편을 《료해》함으로써 《미일한공동작전체계》를 완성하고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하려고 기여든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공공연히 남조선을 《일본방위의 제1선》이라고 떠벌이면서 미제로부터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넘겨받을 야망까지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그들은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국군》의 통수권만 넘겨주면 남조선에 대해 종전의 수배에 달하는 《원조》를 주겠다고 뇌까리고 있다.

이 야망을 실현할 목적밑에 그들은 《주한방위주재관》을 두배로 늘이며 《교류근무》라는 이름으로 일본《자위대》고위장교들로 무어진 《골간부대》를 남조선에 상주시키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가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저들의 《자위대》를 출동시킬 준비까지 하고있다.

이미 규슈와 혹까이도, 일본서부해안들에 《자위대》공군무력을 집중배치하고 륙상 《자위대》기지들을 설치하였으며 어뢰정기지들을 비롯한 수많은 해군기지들을 건설하였다.

그들은 미제와 짜고 오끼나와에 있는 미제의 군사시설들을 조선침략을 위한 군사기지로 리용하려 하면서 여기에 있는 군사시설, 군사기지의 일부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기지로 《전환》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또한 미제가 새로운 조선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즉시 저들의 침략무력을 조선전선에 투입하기 위하여 《관부련락선》과 일본항공기에 의한 《일한항공화물수송로》 등 긴급수송체계까지 만들어놓았다.

일본의 출판물들은 《관부련락선은 장차 한국에 병력과 땅크를 수송하는 수송로》이며 《일본 시모노세끼로부터 36톤짜리 대형전차 40대, 1개대대의 〈자위대〉와 그 장비 그리고 그들의 한달분의 식량을 싣고 7시간이면 부산에 닿을수 있고 그것은 다시 부산—서울간의 고속도로를 통하여 4시간이면 38선에 도착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한편 비행기, 전차, 함정, 군용차량, 기관총 등과 같은 각종 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남조선《국군》에 다량적으로 넘겨주고있으며 비행기, 땅크 등 중무기들을 수리해주고있다.

이해초만해도 남조선에서 비행사 양성에 쓸 비행기 《에프—에이—200사바루형》 4대를 넘겨주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도꾜를 중심으로 한 반경 1천해리의 방위권》에 대해 떠들면서 조선의 전지역이 저들의 작전지역에 포괄된다고 선포하고 도발적인 군사연습소동을 련신 벌려놓았다.

이것은 해외군사팽창에서 조선침략을 그 첫번째 목표로 삼아온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한 침략야욕을 의연히 버리지 않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당국과 일본지배층은 공통한 리해관계에 의하여 결탁되여 《운명일체화》의 관계에 이르렀다.

【경제적침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반동지배층은 범죄적인 〈한일협정〉의 조작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본격화하였으며 경제적침투에 정치, 군사적 침투를 따라세우면서 남조선을 또다시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범죄적인 《한일협정》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에 쓸어들기 시작한 일본독점체들은 이미 200여개의 상사들과 대리점들을 차려놓고있다.

일본독점자본들은 이미 기계류, 면사 등 수천종에 달하는 일본상품을 제한없이 남조선에 들이밀어 팔아먹고있으며 아무런 제한도 없이 직접투자를 할수있는 《특권》을 얻고 이를 리용하여 종전의 《차관》형태의 경제적침투를 점차 줄이면서 더욱 로골적으로 직접 및 합작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독점자본들은 남조선의 보세가공공업의 100%, 화학섬유공업의 80%, 염화비닐공업의 100%를 차지하고있으며 그 밖의 동력, 건재, 화학공업부문들의 원자재공급계통에서도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일본독점체들은 남조선에 822개의 위탁판매소를 설치하고 설비로부터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각종 잉여상품을 경쟁적으로 팔아넘겨 무제한한 리윤을 짜내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해에도 도꾜에 있는 자기들의 《대사》를 시켜 일본독점자본의 해외침투를 보장하는 침략기구인 일본 《해외협력기금》의 총재란자와 남조선에 5천만딸라의 일본독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재정차관도입협정》에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른바 《경제협력》이라는 간판을 들고 침투하여 남조선경제를 저들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일본독점자본들은 남조선공업의 70%가 집중되여있는 포항이남지역을 일본의 관서경제권과 통합하여 《한일경제협력권》을 만들고 이 지역을 몽땅 일본경제권에 끌어넣어 틀어쥐게까지 하고있다.

이해 5월말현재 마산자유수출지역에서만도 20개의 일본공장이 조업하고 있으며 1월부터 11월까지의 직접 투자건수는 85건(2천 700만딸라)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일본신문들은 도자기를 남조선가마에서 구워 일본에 실어오며 주문받은 양복들을 남조선양복점에 보내여 만들어오며 남조선에서 문선하여 책을 만드는 일 등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의 이러한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당국자들이 강요해오던 이른바 《공업소유권협정》을 9월 5일과 6일 서울에서 벌어진 제6차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 체결하기로 하고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공업소유권협정》을 체결하기로 한것은 일본독점체들이 남조선에서 《특허권》을 비롯한 일련의 경영활동상의 특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할수 있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본투자와 차관제공의 형식으로 진행되여 오던 남조선경제에 대한 일본독점체들의 지배가 직접 생산령역에까지 미치게 된다는것을 말하는것이며 남조선경제가 탐욕적인 일본독점자본의 손아귀에 더욱 철저히 거머쥐게 된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이처럼 일본독점자본가들은 오늘 남조선을 《일본의 경제권내에 끌어넣어야 한다》, 《한국경제의 자주권과 자원의 핵심은 일본이 장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리낌없이 떠들면서 남조선경제의 명맥을 완전히 틀어쥐기 위한 책동을 보다 강화하고있다.

심지어 그들은 남조선당국자들과 제주도 서남쪽 바다밑에 매장되여있는 석유자원의 매매흥정을 둘러싼 《한일대륙붕공동개발실무자회의》 (1차—10월, 2차—11월, 3차—12월)를 열고 그의 공동개발에 착수하였다.

남조선에 침투해들어오고있는 일본독점자본이 노리는것은 바로 남조선경제에 대한 지배와 예속, 략탈과 착취이다.

일본독점자본의 대대적인 침투는 로대가 미약한 남조선중소기업체들을 무리로 쓸어눕히고 수공업자, 소상인들에게서 삶길을 빼앗고 실업자의 대렬을 더욱 급속히 증대시키는 결과를 빚어내고있다.

값싼 로동력을 현지에서 착취하는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는 략탈적인 《보세가공무역》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중소기업체들은 일본독점자본의 《보세가공공장》들에 점차 예속되여가고 있다.

이미 그들은 《농산물보세가공공장을 발전시킨다》는 구실밑에 남조선에 파실파 남새, 축산물 등의 가공시설들을 설치해놓고 남조선의 값싼 로동력을 리용하여 높은 리윤을 짜내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농업부문에까지도 침략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 있다.

1972년 3월 14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농업경제조사단》이라는것을 들여보내여 한달동안에 걸쳐 남조선의 여러농촌을 싸돌아다니면서 《대단지농업개발계획》과 농업전반의 《현황》을 조사하며 농업부문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한다.

6월 21일에는 《국토개발조사단》의 탈을 쓴 일본독점자본의 사환군들이 10여일동안 《종합개발》이니 뭐니하는 구실밑에 령남과 호남일대를 싸다니면서 일련의 《조사》놀음을 벌리는 한편 남조선당국자들과 이른바 《제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한 《협력》문제를 모의하는 등 남조선농촌을 저들의 원료원천지로, 략탈지로 전변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수산업에 대한 일본독점자본의 침투는 원래 미약한 남조선의 중소기업과 어구어망제조업자들을 파산에로 몰아넣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침략적인 《한일어업협정》을 빙자하여 1972년 4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이른바 《공동순시》라는 명목밑에 일본해상보안청의 《경비함》과 《순시선》을 남조선에 직접 들여보냄으로써 《공동규제수역》을 제마음대로 싸다니면서 남조선어민들의 어로활동에 대한 제한통제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생명선인 어장을 송두리채 빼앗아내려는 간악한 목적을 추구하였다.

《공동어로》라는 미명아래 남조선령해에 마음대로 쓸어들어 독판치는 일본어선단들의 행패로 말미암아 어장을 빼앗긴 백만의 남조선어민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이고있으며 남해의 수산자원은 마르고 남조선어업은 더욱더 몰락되고있다.

오늘 남조선 어민들의 어획고는 10년전에 비하여 10분의 1로 떨어졌다.

이와 같이 일본독점자본들은 《원조》와 《협력》의 미명아래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침투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남조선경제를 예속시키고있으며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어민 등 각계층 근로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있다.

【사상문화적침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타락하게 만들려고 교활하게 날뛰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8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정치, 경제적침투와 함께 남조선에 왜색왜풍의 반동문화를 침투시켜 남조선인민들의 뿌리깊은 반일감정을 무마하며 그들속에 《친일, 숭미》사상을 부식시키려고 책동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에서 온갖 반동적사상독소와 퇴폐적인 왜색문화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광범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출판물들과 영화, 류행가를 통하여 사상문화적침투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퇴폐적인 반동출판물들을 침투시키기 위하여 남조선에 《대한도서보급협의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출판물들의 보급을 더욱 《조직화》, 적극화하고있다.

최근년간 남조선에 들어온 외국 정기간행물 550여종가운데 일본정기간행물이 484종으로 그 비률은 8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도처에 반동적인 일본출판물들이 범람하고있으며 이 《책》들은 남조선청소년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의식을 타락마비시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대중오락서적》이라고 불리여지는 타락할대로 타락한 색정소설들과 잡지들을 들여보내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색정주의와 허무주의를 고취하면서 저들의 군국주의적침략사상을 퍼뜨리고있다.

이른바 봉건평주인 《도꾸가와 이에야스》같은 일본소설을 비롯하여 일본의 군국주의를 고취하는 《대중소설》이 차넘치고있다.

그들은 이와같은 각종 출판물들에서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기아와 빈궁의 원인이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침략정책에 있다는것을 가리며 남조선인민들속에 염세와 타락, 패륜과 패덕을 조장시켜 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부화타락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을 미일제국주의자들의 2중의 식민지노예로 만들려하고 있다.

더우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친일사대주의사상을 보다 더 광범히 부식시킬 목적밑에 남조선당국자들을 부추겨 1972년 7월 5일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결정짓게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전역에 2천 580여개에 달하는 《일어강습소》를 꾸려놓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일본말을 합법적으로 주입시키고있으며 각 대학과 고등학교들에서 제2외국어로 일어를 첨가하였다. 서울시에만도 간판을 달고 일어교육하는 곳이 60개소이며 간판을 달지 않고 하는곳이 150여개소나 있는데 여기에서는 1만여명이 강의를 받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해 5월 8일 서울시 룡산구 한남동에 6개 학급을 가진 《일본인학교》까지 설치하였으며 남조선당국자들로 하여금 이 학교에 남조선교원까지 섬겨바치도록 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주한 일본대사관》놈들을 비롯하여 남조선경제 각 분야에 기여들어 침략의 지반을 닦으며 략탈을 감행하고있는 일본독점자본머슴군놈들의 자식들을 위한 학교까지 설치한 사실은 재침의 야망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놈들이 더욱 튼튼히 도사리고 들어앉으려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들은 《문화교류》라는 간판밑에 비애와 죽음과 눈물을 례찬하는 썩어빠진 류행가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퍼뜨려 남조선인민들의 건전한 사고력을 마비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 처음에는 절망과 고독, 침략과 략탈, 사무라이들의 칼부림과 색정적이고 추잡한 온갖 행위들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들을 은밀히 들여오다가 다음에는 《영화교류》, 《합작영화제작》, 《아세아영화제》니, 《친선영화의 밤》이니 하는 명목밑에 퇴폐적인 영화들을 남조선에 공공연히 들여보내고있으며 남조선당국자들과 합작하여 반동적인 영화까지 돌리고 있다.

1972년 5월 16일 《아세아영화제》에 참가한다는 구실밑에 30여명의 일본군국주의영화패거리들이 남조선에 기여든것은 놈들이 다그치고있는 이러한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책동의 한 고리이며 로골적인 표현인것이다.

그들은 또한 남조선인민들속에 저들의 침략사상을 불어넣음에 있어서 방송과 텔레비죤을 그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방송협회》의 방송출력과 방송시간까지 늘여가면서 아침저녁으로 남조선에 불어대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에서 종교를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삼고있다.

이해에도 그들은 남조선에 《창가학회》, 《천리교》, 《일본불교》를 비롯하여 《세계구세교》, 《도덕과학연구회》, 《광명의 집》 등의 군소종교들을 학문연구단체라고 떠벌이면서 남조선에 퍼뜨리고있다.

남조선출판물들이 폭로한데 의하면 침략의 척후병으로 검은 손을 뻗쳐온 《창가학회》는 55만의 신도들을 가지고있으며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남조선전역에 걸처 수천개의 지부를 꾸려놓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창가학회》를 리용하여 《아세아의 지도자는 일본민족》이라고 고아대면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망상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그들은 《동방에 거인이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한다. 우리 학회를 통해 그를 믿으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된다》는 등 감언리설로 남조선인민들을 속이고 지난날 조선인민에게 강요하였던 《동방요배》와 같이 아침저녁으로 일본을 향해 《기도》를 드릴것을 강요하고있다.

이처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각종 출판물과 방송, 종교단체 등을 통하여 남조선재침의 터전을 닦고있을뿐만아니라 또한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도 사상문화적침략책동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한일간의 우의를 증진시킨다》는 구실밑에 《친선사절단》, 《시찰단》, 《견학단》, 《관광단》 등 각종 명목으로 침략적앞잡이들과 사환군들을 물밀듯 들여보내여 남조선의 언론, 출판, 문화 분야에 침투시킴으로써 친일사대주의자들을 규합하고 이를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 친일 《반공》사상을 불어넣기에 급급하고있다.

군사파쑈통치위기의 심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에서 정치적혼란과 불안은 계속 커가고있으며 군사집단의 내부모순과 갈등이 몹시 격화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38페지)

자기들의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심각한 정치적혼란과 불안에 쌓여있는 남조선통치집단은 대세의 흐름과 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하는수 없이 응하기는 하였으나 애당초부터 조국의 통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그것을 군사파쑈체제의 강화와 저들이 빠지고있는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갖 방패로 리용하는데만 몰두해왔다.

오늘 전민족의 념원과 기대를 어기고있는 그들의 량면술책이 갈수록 드러남으로써 남조선통치집단이 부닥치고있는 위기를 보다 심화시켰다.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위정자들의 구태의연한 《반공》선전과 파쑈통치체제를 없애라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였으며 지어 그런 요구가 지배층내부에서까지 터져나왔다.

이처럼 남조선위정자들의 대화와 《반공》의 량면술책은 그 자체의 심각한 모순과 취약성으로하여 더욱 큰 혼란을 빚어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본격화되고 그 영향이 남조선사회전반에 크게 미치게 됨에 따라 통치집단내부에서의 모순이 더욱 격화되였다.

남북공동성명발표이후 하층 공무원들과 경찰들속에서는 불평불만이 커가고 불안과 동요, 혼란이 보다 심하여졌다.

공무원들속에서는 상층관료들이 《감사》 및 《시찰》등으로 못살게 굴고있는 처사에 불평불만을 공공연히 터뜨렸으며 특히 《부정부패》의 구호밑에 자기들을 련일 《징벌하고 처벌》하고있는 당국자들에 항거해나섰다.

《공무원》들과 경찰들 속에서는 또한 정세와 관련하여 심히 동요하면서 상급관리의 명령지시를 의식적으로 거역하거나 자기 직무를 태공하는 현상이 늘어갔다.

특히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본격화되여 감에 따라서 적지않은 관리들은 저들이 저지른 죄과를 두려워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동경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꺼려하고 눈을 감아주군하였다. 그리고 하층관리들은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 세금수탈과 무허가주택단속 등 상부의 지시들을 잘 집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당국자들은 《불성실한 직원을 과감히 정리》하라고 야단법석을 치면서 하급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을 무더기로 내쫓았다.

이렇게 쫓겨난 수는 10월말까지에 《내무부》가 줄여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6천 200여명이나 된다.

또한 공무원들과 경찰들 속에서는 스스로 직책을 떠나는 수도 급격히 늘어갔다.

당국자들이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사임률은 해마다 늘고있는데 1972년에는 중부관내에서만 임명받은 《보충공무원》 중 73.6%가 부임하지 않았다.

경찰들속에서는 마음대로 퇴직할수 없어 온식구를 데리고 도망치는 현상이 자주있으며 한편 당국자들은 경찰모집에 잘 응하지 않음으로 광고를 계속 내붙이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남조선《국군》들속에서는 당국자들의 전쟁정책을 반대하여 도망치는 장병들의 수와 악질상관을 살해하는 사건이 계속 늘어갔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해 6～7월에 《국군》내에서의 도망병의 수는 전해 같은 기간의 3.7배나 된다. 그리고 가혹한 군사훈련과 박해를 가하고있는 상관들을 쏴죽이는 사건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국군》 한 사병은 전쟁연습에 계속 내몰리고있는데 불만을 품고 수류탄으로 장교 두명을 죽였으며 또 한 사병은 장교놈들의 천대와 멸시에 불만을 품어오다가 혁명가를 찾아내는데 내몰리우는 기회를 리용하여 다니는 길에 폭발물을 묻어 장교 수명이 죽게 하였다.

《론산륙군사관학교》 학생 120여명은 사관놈의 《기합》에 불만을 품고 집단적으로 뛰쳐나와 행군시위까지 벌렸다.

남조선《국군》의 보조병력인 《향토예비군》내에서의 동요와 혼란도 심하여졌다. 그것은 《전북지구병무사범합동단속반》에서 발표한 1월부터 7월까지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사범》이 전해보다 76%나 더 늘어난데서도 잘알수 있다.

이해에 파쑈통치위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또한 통치집단안의 모순과 대립이 어느때보다도 심화되고 반혁명세력내부의 동요와 혼란이 격증된것이다.

반혁명세력내부의 모순과 혼란은 종전과는 달리 그들의 《기본정책》의 파산과 통치체계의 변화와 직접 관련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미 전해부터 로골적으로 표면화되였던 집권층안의 알륵관계는 이해에 들어와 보다 심화됨으로써 통치체계전반에 대혼란을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남조선통치기구에서 《핵》을 이루고있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행정부》와 첩보기관이며 정책적모략기관인 《중앙정보부》간의 대립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그들간의 모순과 대립은 이른바 고위당국자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정헌법》에 의하여 만들게 된 《대통령》의 어용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제각기 자기 심복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한데서 더욱 날카로와졌다.

상층으로부터 하층 말단에 이르기까지 《행정부》계렬들은 《중앙정보부》

의 독단적인 《대의원추천》에 불만을 품고 《중앙정보부》의 《협력요구》에 정면으로 항거해나섰으며 별도로 《대의원추천》을 벌림으로써 대혼란을 일으켰다.

《행정부》와 집권당인 《공화당》간의 갈등도 심화되였다. 이 알륵과 대립은 《국무총리》자리가 바뀌면서 날카로와지기 시작하였는데 《신주류》의 일부 인물들이 야당세력과 합세하여 《행정부》의 내무부장관이였던 오아무개를 목메버림으로써 더욱 격화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위정자들은 《공화당》계렬들이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공격을 들이대여 량자간의 대립을 더욱 날카롭게 함으로써 하는수없이 《신주류》의 마지막인물이였던 백아무개까지 당요직에서 떼버리지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또한 《중앙정보부》와 《공화당》간의 모순도 심화되였다.

《중앙정보부》의 권력독점과 《공화당》안의 고위급인물들에 대한 로골적인 위협, 공갈폭행 등은 《공화당》계렬에 적지않은 불만을 조성시켰는데 그것은 《공화당》상층 인물들이 《중앙정보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은근히 동조하여 나서는 사태까지 빚어냈다.

《중앙정보부》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은 이해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추천》에서 《공화당》을 따돌리고있는데서 더욱 격화되였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물고뜯고하였다.

남조선통치집단안에서의 알륵과 대립은 종래의 개별적인 인물간, 또는 파벌간의 집권문제와 《리권획득》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정도가 아니라 집권당인 《공화당》과 《중앙정보부》, 《행정부》호상간, 그리고 그것이 《중앙》으로부터 지방기구에 이르기까지 련쇄적으로 통치체제전반에 미쳐 위정자들을 더욱 곤경에 몰아넣었다.

지배층안에서의 모순과 대립의 격화는 여, 야당간의 관계에서도 심하게 나타났다.

여, 야당간의 대립과 알륵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접촉이 이룩된 이후에 야당을 배제하고 집권당인 《민주공화당》만이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야당의 불만을 산데서 더욱 표면화되였다.

뿐만아니라 《비상사태》하에 2중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강권에 의한 이른바 《국민투표》로 파쑈적인 《개정헌법》을 만들어내고 그에 의하여 《대통령》의 어용기관인 《통일국민협의회》와 보다 유명무실하게 된 《국회》를 만들어내고 야당이 집권할 길을 완전히 막음으로써 여, 야당간의 대립을 더욱 날카롭게 하였다.

특히 《국회의원선거》에서 강압과 협잡으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우세한 반면에 《신민당》등 야당세력이 보잘것 없이 됨으로써 그들은 《선거법》위반을 구실로 여당계렬립후보자의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 야당간의 싸움이 치렬히 벌어졌다.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남조선정계의 일부 인물들속에서는 《〈반공법〉으로 주민들을 얽매여놓고 북반부와 협상하는것은 무언가 통일기반조성을 반대하는 〈반공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들이대였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반공〉이라는 력사에 역행하는 총검과 인도주의와의 공존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면서 《통일에로의 길은 정치구조의 모순의 극복, 악법인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의 폐기의 전제를 동반하고 있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하였다.

심지어 미제의 이른바 상원외교위원회에서 발표한 남조선에 대한 조사보고서까지도 남조선집권자들이 파쑈통치체제를 더욱 강화하는데로 나가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감추지 못하면서 언급하기를《박정희정치는 독재제도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야당의 정치가들이 시종 한국중앙정보부의 감시하에 있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기자들은 투옥되거나 때로는 폭행을 당하고있다》고 하면서 보고서는 《경험이 많은 한 외국관측자는 리승만시대이래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되였다는것을 말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와같이 남조선통치집단은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은 물론 지배층내부 나아가서 세계사회여론에서까지 배격받는 《국제적고아》로 더욱더 굴러떨어지고있다.

1972년의 남조선경제정세개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의 군사적부속물로 굴러떨어진 남조선경제는 걷잡을수 없는 파국에 놓여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38페지)

미제국주의에 철저히 예속된 남조선경제는 미제가 부닥친 딸라위기의 영향밑에 이해에 더욱 심한 파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다.

미제는 심각한 딸라위기를 《수습》해보려고 이른바 딸라방위조치로서 수입제한을 강행하였고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엔》의 평가인상을 실시하도록 강요하였다.

미제의 섬유류수입제한조치로 말미암아 남조선제조공업의 35%와 제조공업종업원수의 42%를 차지하는 섬유공업의 판로가 막히게 됨으로써 섬유기업체들과 이와 관련된 수많은 기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제대로 실현할수 없게 되여 부득불 파산몰락하거나 생산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딸라방위조치》와 관련한 일본 《엔》의 평가인상은 남조선총수입의 40%를 차지하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자의 가격을 그만큼 비싸게 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물가파동을 일으키고 남조선기업체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원가를 높임으로써 수출상품의 가격등귀를 가져오게 하여 대외시장에서의 남조선상품의 판매난을 더욱더 심화시켰다.

그 우에 딸라와 남조선원화에 대한 딸라의 환률인상과 일본 《엔》의 평가인상은 남조선기업체들의 차관원리금의 부담을 더욱더 증대시켰다. 1972—1976년기간에 이른바 차관기업체(외국독점자본의 차관으로 건설한 기업체)들은 환률인상으로만도 829억 1천만원에 달하는 《원》에 의한 내부적추가부담을 짊어지게 되였다. 이와 같은 막대한 원리금부담액은 대외적으로 외화사정을 악화시키고 대내적으로는 기업체운영자금에 큰 영향을 줌으로써 남조선의 경제위기를 보다 심화시켰다.

남조선위정자들은 미제침략자들의 전쟁정책에 추종하여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려고 외국자본을 더욱 대대적으로 끌

어들이며 국내자본조달을 위해 인민들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악적조치는 도리여 생산침체와 경제적파탄을 촉진시켰을 뿐이였다.

이해 남조선경제를 휩쓴 위기는 공업부문을 비롯한 경제전반의 심한 경기침체와 국제수지의 악화(십수억딸라가 넘는 무역적자) 그리고 차관기업의 《경영불실》과 물가의 등귀 등 여러모로 나타났다.

상반년동안의 《국민총생산》은 얼마안되였던 전해 같은 시기의 그것보다 9.4%나 급격히 떨어졌다.

파산몰락의 경영위기를 겪고있는 기업체의 비중은 20%에 이르렀으며 《차관기업》의 경우에는 70~80%가 원리금상환이 곤난한 《불실기업》으로 떨어졌다.

남조선위정자들은 그 자체모순에 의하여 나타난 경제의 파국적위기를 《수습》해보려고 관권을 발동하였다.

그들은 계속되는 인플레와 환률인상으로 엄청나게 뛰여오르는 물가를 행정적방법으로 막아보려고 3월 18일에는 전례없는 《물가동결령》까지 공포실시하였으며 8월 2일에는 8개항목으로 된 이른바 《긴급재정명령》이란것을 부랴부랴 내놓았다.

이에 의하면 모든 기업체들이 걸머지고있는 사채를 1972년 8월 3일 현재로 동결시키고 2천억원의 《특별금융채권》을 발행하여 《국가자금》을 대주거나 기타 방법으로 일부 큰 기업체들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해주며 물가앙등을 억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모한 조치들이 남조선의 중산계층과 근로대중을 수탈하여 매판자본가를 《구제》하려는 속심에서 나온것만큼 고질적인 남조선경제의 파국을 《수습》하기는커녕 그 파멸적위기를 더욱 촉진시켰을 뿐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밖에도 농촌경리의 파탄상을 가리우고 남조선농민들속에서 현 통치집단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에서 이른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요란스럽게 떠들었다.

【경제의 군사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근대화〉의 미명하에 촉진되고있는 경제의 군사화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군사적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공업부문들이 자라나고 통신, 도로, 철도, 항만 시설들이 확장되고있으며 군사경제적잠재력이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85~386페지)

남조선호전분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에 추종하여 겉으로는 남북간의 《대화》를 하는척하면서 막뒤에서는 북과 남의 《대결》의 기초가 경제적우위를 보장하는것이라고 떠들면서 전쟁준비를 위한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쳐댔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경제의 군사화를 촉진하기 위해 군사경제적잠재력을 늘이기 위한 책동을 보다 강화하였다.

군사경제적잠재력을 늘이는데 있어서 남조선당국자들은 직접적군수산업과 소위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산업이라고 하는 《중화학공업의 육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힘을 돌리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전례없이 팽창시키고 그의 대부분을 직접적군수부문과 간접적군수부문에 돌리였다.

남조선호전분자들은 1972년에 전해비하여 16%나 늘어난 6천 47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그의 30.1%인 1천 950억원을 군사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투융자에 돌렸으며 직접적군사비로는 예산총액의 26.4%나 되는 1천 711억원을 투하하였다.

이것은 전해에 비하여 투융자에서는 8%, 직접적군사비에서는 26.9%나 늘어난 금액이다.

이것도 부족하여 5월에는 135억원의 추가예산까지 꾸미여 그중 《국방비》에 70억원을, 《수도권》 및 《서부전선방어공사》에 10억원을 쏟아부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해에 직접적군수산업육성을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전쟁준비를 위한 《산업》육성에 힘을 집중한다고 떠들면서 소위 《방위산업촉진법안》조작놀음까지 벌렸다.

또한 전해 3월에 착공한 엠—16소총공장건설을 더욱 다그쳤고 이해 3월에는 엠—16소총탄약의 생산을 위한 탄약창확장공사에 착수하였다.

10월 16일에는 남조선《국군》이 가지고있는 일체 장비와 포탄, 폭약, 차량 등 6개 병기에 대한 기술자료를 미국방성으로부터 제공받기로 하는 《협정》까지 체결하였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침략전쟁의 전초기지, 직접적군사행동지대로서 적합한 교통운수, 통신시설 등 여러가지 군사시설들의 신설확장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이에 큰 힘을 넣었다.

그들은 방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의 신속한 투입을 필요로 하는 현대전의 특성을 운운하면서 유생력량과 전투기술기재의 신속한 투입과 기동을 보장하기 위한 해상수송 및 공수작전체계의 《완비》책동을 강화하였다.

이해 남조선호전분자들은 부산, 포항, 울산, 군산, 삼척, 목포, 마산, 삼천포, 제주, 려수, 장항, 인천 등 모두 13개의 항구를 전쟁준비를 위한 해상수송능력을 높인다고 떠벌이면서 소위 항만개발 《5개년계획》(1972년—1976년)을 조작하고 이해부터 추진하기 위해 579억 5천여만원을 5년동안 투입하기로 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해에도 해공군기지건설을 다그쳤을뿐아니라 군용도로건설과 전략도로건설을 적극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종래부터 있던 철도의 기본간선을 중심으로 군사전략적요충지들을 련결하는 지선들이 부설되고있다. 또한 서울—부산간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전방과 후방, 동서해안 등을 련결하는 《전략도로》들이 신설확장되였다.

경제를 군사적목적에 복종시키기 위해 연료동력공업, 화학공업, 세멘트공업 등에 주력한 결과 경제의 전반적파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업부문들이 기형적으로 자라났다.

또한 그들의 새 전쟁 준비책동이 강화되는데 따라 갖가지 물자의 징발량이 계속 늘어났다. 실례로 석탄은 해마다 생산량의 50%, 유류는 40%가 군사적소비에 돌려지고있으며 전략도로건설에 투입되는 세멘트만도 년생산량의 20%를 차지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국군》의 무기수요를 현지에서 조달하려고 저격무기 및 갖가지 탄약과 무기부속품공장건설에 달라붙고있으며 일부 공장들의 생산구조를 무기생산에 맞게 더욱 개편하였다. 또한 그들은 남조선《국군》각 병종별로 가지고있는 수리기지들을 확대하여 탄약, 수류탄 생산기지들과 박격포를 비롯한 각종 포의 부속품생산공장들을 새로 꾸리였다.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은 경제의 군사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경제의 《전시체제화》의 한고리로서 공업의 지방분산화를 다그치고있다. 군사적의의가 큰 기업체들을 신설하거나 이전시키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해안지역에 가장 큰 《림해공업단지》를 만들고 여기에 군사적의의를 가지는 중화학공업을 배치하여 남조선공업제품의 약 절반을 생산하는 공업지구를 꾸리려 하고있다. 또한 그들은 령남, 호남 중간지역에 《내륙공업단지》를 만들고 여기에서 공업제품의 약 30%를 생산하려 하고있다.

이 밖에 남조선중부지역에도 《공업단지》를 만들며 한강이남지역에는 한강이북에 있는 공장들을 옮겨 배치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새 전쟁 준비책동에 맞게 남조선공업을 재배치하고 군사경제적잠재력을 늘이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는것이다.

미제와 남조선위정자들은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위한 자금을 외국자본도입으로 충당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내자조달》을 꾀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그들은 외국자본도입에 따르는 《내자조달》을 운운하면서 빈번한 《세제개혁》으로 세률을 높이고 과세대상을 늘이고있다.

미제와 남조선위정자들이 다그치고있는 경제의 군사화 《전시체제화》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와 략탈, 파쑈적폭압, 민족공업의 희생을 떠나서는 실현될수 없다. 따라서 남조선경제의 가일층의 군사화는 결국 남조선경제의 식민지적예속성과 기형성을 보다 심화시키고 경제를 전면적파산에로 이끌어갔으며 남조선인민들을 혹심한 빈궁과 기아속에 몰아넣었다.

【외국자본도입책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인민의 의사를 거역하고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데서 나갈 길을 찾으려 하고있습니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것은 예속의 길이며 망국의 길입니다. 그것은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며 남조선을 제국주의의 예속에로 더욱더 깊이 밀어넣을뿐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405~406페지)

남조선위정자들은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남북교류에 의하여 유무상통하여 파탄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하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마련하여 조국통일을 하루속히 이룩하려는 우리의 정당한 제의에 외면하면서 의연 외세에 매여달려 《실력배양》을 한답시고 이해에도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에 열을 올렸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외국자본구걸을 위해 미국, 일본과 《국제금융기구》들에 분주히 싸다녔다.

1972년 1월 2일 정일권이란놈이 도꾜에 찾아가 소위 《3차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 외국자본의 적극적지원을 애걸한데 뒤이어 3월 31일에는 《경제기획원차관》을 두목으로 14명의 《경제사절단》이 미국에 찾아갔고 4월 20일에는 오지리에서 열린 《제5차아세아개발은행총회》에 재무부장관이란자가 떠났고 4월 20일에는 《유엔무역및개발기구 제3차총회》에, 9월 26일에는 세계은행년차총회》에, 9월 27일에는 미《국제개발처》에, 10월 1일에는 또다시 《세계은행》에 외국자본구걸《대표단》을 보냈다. 12월 12일 프랑스에서 열렸던 남조선《국제경제협의체 6차총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란놈이 찾아가 《회원국》들에 14억 4천 400만딸라의 외국자본을 구걸하였다.

특히 남조선당국자들은 이해에 일본독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편으로는 일본독점자본의 《조사단》과 《시찰단》, 《대표단》들을 부단히 끌어들이였으며 다른편으로는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그 무슨 《회의》들을 빈번히 벌렸다.

1월 24일 소위 《제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전반사업과 주요투자사업을 조사하기 위한 다까시마 전경제기획청차관을 두목으로 한 10여명의 일본《경제조사단》을 끌어들인데 뒤이어 3월 5일에는 《미쯔비시상사》의 《대한구매사절단》, 3월 14일에는 《농업조사단》, 4월 19일에는 《기술조사단》, 6월 27일에는 《한일경제협회조사단》, 9월 19일에는 《특별경제조사단》, 10월 18일에는 《미쯔비시상사 대표단》, 11월 21일에는 《대한투자촉진일본시찰단》, 12월 12일에는 《통상진흥조사단》을 비롯하여 무려 20여개의 《조사단》과 《대표단》을 끌어들이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3월 2일 《제4차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를 벌려놓고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투자를 애걸한데 뒤이어 7월 4일에는 《제9차한일무역회담》, 7월 28일에는 《한일협력위원회 제8차총회》, 9월 5일에는 《제6차한일정기각료회의》, 11월 30일에는 《제5차한일경제간담회》를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회의》들을 가지고 이른바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 소요 외자의 30% (《새마을사업》비 10억딸라와 원자재차관 3억딸라)를 일본이 보장해줄것을 애걸하였다.

심지어 남조선당국자들은 종전까지 보류적태도를 취해오던 《대륙붕》석유개발권과 《공업소유권》협정의 체결까지도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양보하면서 자금을 구걸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적극적인 외국자본도입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의 강화로 3월에 3천여만딸라, 4월에는 8천여만딸라, 5월에는 3천여만딸라, 9월에는 5천여만딸라를 포함하여 이해에 차관의 형태로 남조선에 침투하기로 확정된것만도 무려 2억딸라가 넘는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해에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마구 끌어들이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이미 전해에도 《외국인투자유치법》에 의하여 투자조건을 백방으로 보장해온 남조선당국자들은 더많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특혜》조치를 취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제의 군사화책동에 외국자본을 더많이 끌어들이려고 《투자조건》과 투자환경조성에 더욱 열을 올리였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나라의 경우 외국자본의 투자비률은 주식회사자본의 50%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통제권》을 《고수》하려고 한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외래독점자본에게 주식의 100%까지도 허용해주며 임의의 부문에 자유로이 침입하여 최대한의 략탈을 감행할수 있도록 해주고있다. 또한 그들은 외래독점자본가들이 물어야할 세금을 감면해주고 부대시설들을 헐값으로 제공해주고있다.

심지어 그들은 외래독점자본기업체에 고용된 로동자들이 아무리 착취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파업을 하거나 쟁의를 일으킬수 없도록 그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이해부터 매월 1차씩 남조선에 와있는 외국독점자본가들과의 소위 《간담회》를 열어놓고 그들이 제기하는 요구들을 무조건 풀어주는 제도를 수립하였으며 세무조사도 완화해주었고 외국인투자인가절차도 훨씬 간소화해주었다.

특히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3일만인 10월 20일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란자가 남조선에 와있는 150여명의 외국독점자본가들을 모아놓고 《계엄령선포》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투자분위기가 유리하게 되였으니 적극적인 투자를 해달라고 애걸하였다.

또한 남조선당국자들은 경제의 군사화에 복무하는 매판자본가들에 대한 《특혜》조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남조선위정자들은 매판자본가들이 외국자본을 도입할 때 그에 대한 《지불보증》을 해주며 도입액의 15~20%에 달하는 계약금과 착수금도 《정부》보유외화로 지출해주고있다. 그리고 그들은 외국자본도입에 알맞는 규모의

내자를 인민들로부터 빼앗은 돈으로 메워주고있으며 일단 공장건설이 시작되면 이와 관련한 모든 수입물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있다.

그뿐아니라 매판자본가들의 기업운영자금을 은행을 통하여 낮은 리자로 내주고있다. 심지어 매판자본가들이 차관의 원리금을 물지못하면 이것까지 《정부》가 대신 물어주고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이와 같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갖은 《특혜》와 조건을 보장하면서 외국자본도입을 백방으로 서둘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외국자본을 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발악한데는 대외부채의 증대와 관련하여 상환부담이 전혀없는 직접투자를 통하여 이른바 《경제적실력배양》을 위한 군사경제적잠재력을 늘이자는데도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외국독점체들의 침투는 유사시 해당나라가 자국독점자본의 리권보호를 위해 남조선당국자들과 군사적으로 협력할것을 노린데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외국자본도입에 계속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1972년의 외국독점자본도입액은 6억 5천만딸라로 1959년 외국자본도입이 시작된 이래 최고액에 달하였다. 1972년말 현재 외국자본도입액은 총 566건에 32억 2천 200만딸라에 달하고있다.

현재 남조선이 걸머지고있는 빚은 40억딸라에 달하며 갚아야 할 원금과 리자는 1972년에 이미 6억 7천만딸라, 1973~1981년동안에는 다시 66억 3천여만딸라로 늘어날것이 예견된다.

남조선에서 군사잠재력을 강화하면서 군사적기동을 쉽게 실현하기 위한 부문들이 확대되는 과정에 집중적으로 외국자본을 투입하고있는 전력, 정유, 비료, 화학부문이나 또는 철도, 운수부문들에서는 례외없이 미제의 유류에 의존된 동력체계를 이루고있으며 미제의 원유공급이 하루만 중단되여도 그 대부분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형편이다.

이것이 바로 외국자본의존의 후과이다.

민족산업의 혹심한 파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경제의 명맥을 틀어쥐고 그것을 자기들의 군사적부속물로 만들었으며 남조선의 민족경제를 송두리채 마사버렸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400~401페지)

남조선경제의 명맥을 거머쥐고 그것을 저들의 군사적부속물로 만든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의 악랄한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전쟁준비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민족공업은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그의 파산과 몰락이 한층 격화되였다.

1972년에 남조선민족공업의 파산은 《비상사태》우에 또다시 덮씌운 《비상계엄령》의 삼엄한 파쑈폭압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다그쳐진 경제의 군사화와 그에 따른 기업의 혹심한 몰락으로 특징지어진다.

미제의 지시에 따라 남조선당국자들은 이해에 전쟁준비를 위한 방위산업에 힘을 《집중》하겠다고 떠들면서 군수산업의 강화와 경제의 군사화에 피눈이 되여 날치였으며 여기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마련해보려고 이른바 《긴축》을 떠들면서 온갖 인적, 물적 자원을 모조리 긁어냈다.

결과 경제위기는 이해에 들어서면서 더욱 격화되여 기업체들이 자금과 원료를 얻어쓸수 없어 무리로 쓰러지고 공업생산이 걷잡을수 없이 줄어들고 물건값이 마구 뛰여오르는 등 극심한 경제적 혼란과 파탄이 빚어졌다.

경제의 이러한 파산과 혼란은 결국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쳐보려던 그 목적자체에 큰 위협으로 되였으며 이에 급해맞은 남조선당국자들은 저들의 범죄적행위로 조성된 경제위기를 막고 한층 더 군사화책동을 강화해보려고 소위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과 《산업합리화》라는것을 조작공포하고 그를 강압적으로 실시하였다.

이것은 군사적잠재력강화의 직접적 담당자인 매판자본가들만을 비호조장하는것으로서 남조선전체제조업체의 97.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파산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년평균 3~4%였던 기업파산률이 20%로 불어나 그것이 최고기록이였다면 1971년보다 26%(10월말현재)나 더 많은 기업이 파산되였으며 도처에서 중소공장들이 련이어 문을 닫았다.

1972년 1월에 벌써 경기도 인천에서는 중소기업체의 20%가 조업을 중단하였으며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이에는 남조선 강원도 강릉과 명주에서 75개, 부산에서는 100여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 이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9월말에는 전체중소기업체의 21%가, 12월중순에 이르러서는 경상남도내 중소공장의 무려 85%가 원료와 자금이 없어 문을 닫았으며 전라남도에서는 간신히 남은 50%의 중소섬유공장들마저도 2~3일간씩 돌아가다가 멎어버리는 막다른 처지에 빠졌다.

기업파산이 그 어떤 《계절적인 분위기》나 일부지역에만 한한 현상으로가 아니라 이처럼 년중을 통해 계속되고 전반적지역을 포괄하였을뿐아니라 어느 부문이나 할것없이 파산의 위협에 짓눌리며 불안한 조업을 하였다.

특히 이해에《60년래 처음보는 불경기》속에서 석탄의 중요생산지라고 하는 남조선 강원도 함백일대의 탄광들이 경영해나갈 자금이 없어 생산을 크게 줄이거나 조업을 중단하였으며 충청남도 보령의 탄광갱들은 60%가 탄캐기작업을 중지하였다.

광산의 실정도 마찬가지였는데 경상남도 안동지방에 널려있는 중소광산갱의 95%, 충청북도내 광산갱의 86% 이상이 휴광 혹은 폐광하여 상반년사이에 전체 중소광산업체의 85%가 쇠돌생산을 중단하였다.

그중 중석과 철광석채굴공장들의 폐광이 특히 심하여 광석생산량이 보잘것없다면 지난해의 생산수준을 넘지 못하는 형편에 머물렀으며 그밖의 품종들도 15~20%가 줄어들었다.

산업의 선행공정들과 함께 중소기업의 파산이 극히 심하게 나타난것은 섬유부문이며 이는 남조선 전체제조업체수의 35%와 종업원수의 42%를 차지하고있는 조건에서 그의 쇠퇴몰락은 산업파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소위 《대미수출제한협정》이라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리익보호》책동으로 최소한 8억딸라의 식민지예속경제로서의 피해를 받고있는 남조선섬유업자들은 이 엄청난 손해를 견디여낼수 없어 경상북도 대구와 같은 곳에서는 편직물공장의 《거의 모두가 문을 닫》고 겨우 남았다는 공장들도 가동률은 20%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밖의 천공장들도 거듭 파산당하여 중소섬유공장들의 혹심한 파산사태가 조성되였다.

중소섬유공장의 51.6%가 문을 닫았던 1971년보다 더 많은 섬유부문공장이 이해 경영난으로 기계를 돌리지 못하였다.

제지와 철강, 제분 부문공장들의 가동형편도 20~70%에 지나지 않아 전체중소기업체들의 불안정한 조업상태를 반영하였다.

남조선산업의 파산은 중소기업의 몰

락과 함께 대기업들도 거듭 쓰러지고 있는데서 그 특징적면모를 드러내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제국주의자들에게 빚을 지면서 지은 기업소들은 외래독점자본가들의 략탈적인 요구에 의하여 40%의 리자를 내야할뿐만아니라 돈바꿈비례가 올라 824억 1천만원의 빚까지 더 걸머진다.

따라서 외국자본으로 지은 공장들은 수지가 맞지않아 그의 85%가 제구실을 못하는 공장으로 되였으며 그중 130개는 이미 상반년사이에 《정리대상》으로 되였으며 독자적인 경영권을 잃어버려 은행관리에 넘어간것만도 60개나 되고있다.

외래독점자본의 략탈적압력에 옥죄인 대기업들은 경영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중소기업의 생산령역에까지 침습하여 이해에 중소기업체들의 파산을 심하게 한 요인으로도 되였다.

이해에 더욱 악화된 남조선산업의 파산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에 따른 남조선당국자들의 범죄적전쟁준비책동과 외세의존의 매국적죄행이 가져온 참혹한 후과이다.

이해에 어떻게 하나 남조선에다 군수산업의 기초를 마련해보려고 미쳐날뛴 남조선당국자들은 1971년보다 16%나 더 불어난 예산의 많은 부분과 형식상 중소기업가들에게 주기로 되여있던 자금까지 잘라냄으로써 중소기업자금은 재정투융자금의 1.4%도 되나마나 하였다. 게다가 중소기업가들에게 들씌우는 세금을 형편없이 불군 동시에 이들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들도 군수부문을 맡아나선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악랄한 민족산업말살책동을 감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충청북도 청주에서 《취득세》는 60%, 전라북도 리리에서 《영업세》는 51.4% 등 중소기업가들이 걸머지는 세금은 엄청나게 늘어난 반면에 경영자금은 구할길이 막혔다.

이해에 파산몰락한 중소기업체의 근 40%가 기업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문을 닫았다는 사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들씌운 재난이 얼마나 심하였는가를 똑똑히 말해주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중산층과 근로대중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고 매판자본가들의 자본축적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8월 3일 강압적으로 조작공포한 《긴급재정명령》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였다.

이 《긴급명령》으로 그렇지않아도 자본의 80%를 남에게 의존하고있는 기업체들은 개인간의 빚돈마저 얻어쓸수 없게 되여 한층 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고 파산과 예속의 올가미에 걸려들었다.

이와 함께 당국자들의 매국적인 외국자본도입책동으로 남조선에 기여든 외래독점자본가들은 남조선에서 독점적지위를 차지하고 면사와 공업용기름 등 각종 원자재의 값을 고의적으로 끌어올려 령세한 중소기업가들에게 추가적부담을 들씌우는가 하면 자본을 들이밀었다는것을 구실로 제놈들에게 리윤을 우선적으로 섬겨바치게 하고 빚독촉을 기화로 기업의 경영권까지 빼앗는 만행까지 일삼았다.

여기에 자본주의세계에서의 심한 인플레로 인한 경제적혼란이 식민지 남조선에 파국적영향을 미쳐 예속경제로서의 피치못할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 파산을 촉진시켰다.

이것은 경제위기의 근본요인인 남조선경제의 심각한 식민지적예속성과 기형성의 참담한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인것이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매국반역적책동으로 조성된 기업체들의 련이은 휴업과 페업, 조업시간의 단축 등으로 이해에 남조선의 공업생산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월별 또는 개별적부문으로 나누어볼 때 1월말현재 공업생산지수는 그 전해에 비하여 6.7%, 2월에는 1월보다 또다시 5.9%, 그중 광업부문에서는 13.9%, 전력부문에서는 8.5%가 각각 줄어들어 상반년사이에 1971년의 같은 시기보다 무려 9.4%나 감소되였다.

남조선공업생산장성률이 1969년에는 1968년에 비하여 13%, 1970년에는 1969년보다 4.8%나 떨어졌었다는것을 놓고볼때 이해의 공업생산량이 얼마나 볼품없는 수준이였는가를 충분히 짐작케 하고있다.

산업부문기업체의 파산으로 수많은 로동자들이 그나마의 일자리마저 빼앗겼다.

실례로 남조선 강원도내 탄광지대 채굴장들의 페광으로 5천여명의 로동자들이 거의 동시에 일터에서 쫓겨났으며 경상남도 합천지방에서 도자기공장들이 무리로 문을 닫는바람에 거기에 고용되여 생활을 이어오던 1천 300여명의 로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겨 한데에 나앉았다. 겨우 일자리에 붙어있는 로동자들도 기업체들의 경영위기로 몇달씩 임금을 받지 못하고 심한 주림과 고통속에서 신음하였다.

로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암담한 실업과 주림의 불행속에 쫓기우는 참상은 기업체들이 쇠퇴몰락하는 곳마다에서 빚어져 이해만도 그 수는 18만 4천여명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한편으로하고 피착취근로대중과 수공업자,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량자간의 대립이 일층 심화되여 로동자들과 인민들을 삶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이와 함께 남조선의 사회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입만 벌리면 떠들어대는 《경제성장》나발에 대해 《모든 기업은 파산상태에 있고 인민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8.15이후 4반세기동안 류례없는 불경기》를 겪고있다고 하면서 그의 허황성을 폭로규탄하였으며 경제가 전면적으로 파탄되여 파멸직전의 위기에 있다고 개탄하고있다.

1972년에 남조선에서 빚어진 산업기업체들의 심각한 파산으로 경제 각 부문간의 불균형은 더욱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경기의 침체와 몰락에서 벗어나보려는 일방적인 투자경쟁으로 남조선의 경제위기는 좀처럼 가시여질 전망이 보이지 않고 보다 암담한 파국의 구렁텅이에로 빠져들었다.

이 모든것은 식민지예속경제의 필연적후과로서 남조선에서 미제의 악독한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매국반역적죄행이 그대로 계속되는 한 이러한 사태를 결코 면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농업의 혹심한 파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농촌경리도 여지없이 파괴되였습니다. 광범한 농민대중은 의연히 봉건적지주제도밑에서 가혹한 착취를 받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지주들의 략탈과 착취로 말미암아 남조선농업은 몹시 쇠퇴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401페지)

지난날 쌀고장이던 남조선에서는 10만의 지주가 총경지면적의 40%를 거머쥐고 30만명의 머슴군들과 140만호의 소작군들을 착취하는 봉건적인 지주제도가 유지되고있다.

1972년 농업생산은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반인민적인 농업정책의 후과로 하여 평년작보다 150만톤의 알곡감수를 빚어내여 1968년 생산수준의 6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것을 1971년도생산량과 비해보면 벼는 90만톤, 밀은 10만톤, 감자류는 14만톤, 옥수수는 2만 5천톤, 기타는 14만톤씩 각각 줄었다.

결과 알곡부족량은 1968년의 240만톤수준을 훨씬 뛰여넘어 최악의 상태

인 329만 6천톤으로 늘어났다.

이해에 알곡수확이 대폭 떨어진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이 침략과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부침땅을 계통적으로 줄여온데 있다.

일본군국주의독점자본을 비롯한 침략적외국독점자본을 많이 끌어들임으로써 수만정보의 부침땅이 없어졌다. 1972년에 경기도지방에서만도 논면적이 1969년보다 1만 5천여정보, 발면적이 2만정보나 각각 줄었다.

농경지는 이해에 경기도에서만이 아니라 경상북도, 전라남북도를 비롯한 전반적지역에서 거의 같은 면적이 줄었다. 뿐만아니라 수해로 많은 땅이 모래속에 잠기거나 물에 씻기웠다.

또한 전쟁준비에 미친 나머지 산과 물을 다스리지 않아 농사에 큰 피해를 입힌 결과 알곡수확이 떨어졌다.

이미 80만정보의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어놓아 해마다 농토를 물바다로 만들던 남조선당국자들은 얼마안되는 수리시설마저 정비하지 않아 내린 비를 전부 바다에 흘려보내놓고는 이해에 물이 말라 논면적의 50%에 모를 제철에 내지 못하였다.

그나마도 8월에는 물주머니와 개천의 70%이상이 말라들어 거북등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한편 외국독점자본의 침투가 강화됨에 따라 공해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최근년간 부쩍 늘어가고있다.

경상남도 울산과 마산 지방에서만도 미제독점자본인 《칼프》회사가 경영하는 울산정유공장과 《스이프트》, 《스켈리오일》회사가 경영하는 령남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유해물의 퇴수물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해를 입고있다.

특히 이러한 해독성있는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한 때로부터 과수원피해는 극심하여 1972년까지 16만 5천평이 완전히 폐경되였고 나머지 140여만평도 종래에 비하여 생산량이 50%로 떨어져 과수원에 명줄을 걸고있던 농민들은 하는수 없이 땅을 버리고 떠나고있다.

특히 《농업근대화》요 《농촌개발》이요 하는 따위의 간판밑에 남조선기후풍토에 맞지 않는 미제의 잉여비료를 국제시장가격의 1.6배나 되는 비싼 값으로 끌어다 도입함으로써 농경지의 85%를 산성화시킨 농업시책의 파탄상을 감추어보려고 이해에는 이른바《새품종》을 내려먹였다.

그러나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다짐으로 20만정보의 논에 심은 이 벼의 수확은 재래종의 벼에 비하여 평균 60%, 그중 10만여정보에서는 80%의 감수를 가져와 《농업근대화》란 《농업파괴화》시책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해가 바뀔수록 농업생산은 감소되고 식량부족은 계속 증대되여 1968년에 1억 2천만딸라, 1969년에는 2억 3천만딸라, 1970년에는 2억 6천만딸라, 1971년에는 3억2천만딸라 어치의 미잉여농산물을 끌어들였다.

력사상 최대의 《식량위기》를 가져오게 한 남조선당국자들은 농민들속에서《매상선풍》을 일으켜 부족한 알곡을 메꾸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치였다.

《매상》이 시작되는 초기에 매 시, 군에 《징계위원회》들을 만들어놓고 시장, 군수, 면장들로부터 미리 사표를 받아놓았으며 《매상》실적을 올리지 못했을 때에는 갈아치우는 《인사선풍》을 일으켰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이해에 《매상》의 이름밑에 헐값으로 농민들로부터 빼앗아낸 여름곡식만도 265만석으로서 1968년의 3배, 가을곡식은 368만석으로서 1968년의 2.8배씩 각각 된다.

남조선의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농촌근대화〉요, 〈농민소득증대〉요 뭐요하는 이른바 〈중농정책〉이란 농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농민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것이다.

바로 이 땅에서 력대위정자들은 농민들로부터 10여만정보의 옥답을 강탈하여 군용지화하였고 26년이상이 넘도록 농촌에 수리시설을 전혀 해주지 않아 해마다 농민들은 극심한 수한재를 겪고있다.

뿐만아니라 끌끌한 농촌청장년들은 군대에 끌려가고 나머지는 향토예비군에 얽매여 두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그들이 피눈물을 뿌려 지은 량곡을 매상이란 미명으로 헐값으로 걷어들여 군량미를 확보하고있다》

농업의 파탄은 농업과 공업간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더욱 심하게하였으며 남조선의 경제와 사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원래 공업용 알곡원료와 목화의 부족으로 볼품없던 식료품공업과 면방직공업이 돌아가지 못하는가 하면 계절적으로 보아 쌀값이 대폭 내려가던 년말년초에 10~27%씩 치달아 올라가는 소동이 일어났다.

또한 농촌에서는 농량이 부족하여 소를 팔아 식량을 보충하느라고 소거래가 4배(경북도)로 늘어났는가 하면 농촌출신자녀들의 학교진학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막다른 골목에 빠진 남조선당국자들은 인민들속에서 쌀을 먹지 않는 날(무미일)을 일주일에 5일로 늘여 소비를 억제하는 살인정책을 총칼로 실시하면서 농촌에서 먹지못해 쓰러진 농민들을 보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소리치고 학교에서는 쌀을 먹지 않고 공부하라고 학생들의 점심곽을 뒤지는 미제강점하의 파쑈분자들만이 《발명》해 낼수 있는 살인적인 사회상을 빚어냈다.

쇠퇴몰락하는 수산업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에 의하여 더욱 미친듯이 감행되고있는 새 전쟁도발소동과 파쑈탄압책동,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한 어장강탈과 해적행위 등으로 인하여 남조선의 수산업은 날을 따라 더욱 쇠퇴몰락하고있다.

남조선수산업의 쇠퇴몰락상은 무엇보다도 어로활동의 기본수단인 배의 갖춤새에서부터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에는 고기잡이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어선수는 필요한 량의 6분의 1도 되나마나하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의 경우만 보더라도 1천400명의 어민이 있어 200여척의 배가 필요하나 불과 27척밖에 되지않는다.

남조선에 있다는 배들은 낡고 시설이 불충분하여 바다에 나가 마음놓고 고기잡이를 못하는 형편이다.

남조선어민들이 사용하고있는 배는 바람에 의지하여 겨우 움직이는 나무로 만든 돛배들이 대부분이고 그의 98.7%가 만든지 20년이 넘어 물이 새여드는 등 언제 깨여질지 모르는 《위험선》들이다. 그리고 68.8%에 달하는 배들이 2톤급미만의 보잘것없는 작은 배들이라고 한다.

경상북도 울진군내의 어선들은 90% 이상이 평상시의 파도높이를 좀 넘을가 말가한 2메터의 파도에도 출어를 할수없는 《무동력어선》들이며 남조선 강원도내 돛배의 97%(전부 5톤급미만임)는 20년전에 무은것으로서 언제 깨여질지 모르는 《위험선》으로 되여 대부분의 어민들이 노를 잡고 먼 바다만 쳐다보고있는 형편이다. 전라북도 같은데서는 20년이 넘는 《폐선조치대상》배가 무려 1천 177척이나 되는데 이해 남조선 《수산청》이 낡은 배를 바꿀 자금은 겨우 6척분, 동력개량비는 필요한 돈의 0.3%밖에 대주지 못한 형편이다.

남조선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

다.

《30년에서 40년이 넘은 낡은 목선이 대부분인데 어민들에겐 그나마도 80%이상이 자기배가 아니고 선주가 따로 있어 평생을 두고 고기잡이를 해도 배 한척을 마련할길이 없다.》

원시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배의 이러한 락후성은 어로장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1970년에 667척의 소형안강망어선중 무전기를 놓은 배는 14척에 불과하고 어군탐지기를 가진 어선은 한척도 없으며 대소형을 망라한 조기유망어선 2천 216척가운데서 무전기를 갖춘 배가 155척, 어군 탐지기를 가진 배는 31척으로 장비가 없는 어선이 92%이상이다. 때문에 어민들은 장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도 돈이 없어 못갖춘다고 한탄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까지도 《낡을대로 낡은 작은 배에 무전기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하고 완전히 경험과 인력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어로작업이야말로 생명을 거는 투기가 아닐수 없다.》고 쓰고 있는것이다.

남조선수산업이 쇠퇴몰락하고있는 사정들 가운데서 어장이 줄어들고 황폐화되여가고있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다.

이해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침략과 전쟁정책에 미쳐날뛰면서 동서남해안의 중요어항들과 어장들을 군사련병장으로 전변시켜놓고 매일과 같이 수많은 함선들을 끌어내여 전쟁연습소동을 벌렸으며 전쟁준비를 위한 시설물공사들을 해안지방들에 벌려놓았다. 그리하여 수많은 어장들이 고기잡이에 리용못되였거나 파괴되고 황폐화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발전하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적 영향력이 남조선어민들속에 미치는것을 막아보려고 군사분계선 근방에《어로저지선》을 쳐놓고 어민들로부터 방대한 규모의 어장을 빼앗아냈을뿐만아니라 《월선》이니 뭐니하는 구실로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에 걸어 어민들을 닥치는대로 붙잡아다가 가두고 《면허》를 취소하거나 《어선몰수》 등의 처벌을 가하고있다. 이해 4월부터 10월까지에 만도 《어로저지선》을 넘었다는 죄명을 씌워 42척의 배에 탔던 320여명의 어민들을 체포구금하고 박해를 가하였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끊임없는 군사연습소동과 매일 물밀듯이 무리를 지어 쓸어들어 남조선의 연안어족들까지 모조리 긁어가고있는 일본해적무리들의 략탈행위로 말미암아 남조선어장의 수산자원은 더욱더 말라가고있다.

남조선출판물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종전에 60여만톤의 어획가능량을 가지고있던 명태와 년간 80만톤이상의 자원을 가지고있던 고등어는 그 자원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기타 일부 어족들은 《멸종상태》에 들어갔다. 남조선의 이른바 《수산진흥원》이 조사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서남해안에 많이 있던 참도미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고 도미는 그 자원이 해마다 25%씩 줄어들고있으며 정어리와 청어 그리고 년간 수십만톤의 어획가능량을 가지고있던 전광어는 이미 3~4년전에 멸종되였다. 또한 이름난 어장이였던 남해의 거문도 연안일대에는 5~6년전만 해도 해마다 5~6월이면 삼치를 비롯한 갈치, 멸치 등 갖가지 고기들로 차넘칠정도이던것이 거의 멸종되여 그전의 1%도 잡히지 않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외래독점자본가들과 예속자본가놈들의 배만 불리는데 골몰함으로써 심한 공해가 남조선전지역을 휩쓸어 바다물까지 더럽혀 연해어장의 고기떼들은 자취를 감추고있다. 심한 공해로 서해와 남해의 12개 어장의 조개들은 몽땅 떼죽음 당하고 말았으며 경상남도 울산앞바다에는 물고기는 고사하고 바다풀까지 자라지 못하고있다. 침략적이며 매국적인《한일어업협정》체결후 《공동규제수역》에서 남조선 고기배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침몰시키거나 쳐놓은 그물을 찢어버리는 등의 일본해적선들의 행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우심해지고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남조선어민들은 고기잡이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막대한 물질적피해를 입고있다.

일본해적무리들은 1966~1968년 4월까지 706척의 남조선어선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2천 360여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1970년 한해동안에는 5천만원의 피해를 남조선어민들에게 들씌웠다. 이리하여 1965년에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한일어업협정》이 조작된후 7년동안 일본해적무리들이 입힌 피해액은 1억 1천 29만여원에 달하고있다.

일본해적무리들은 《공동규제수역》에서뿐아니라 남조선의 《전관수역》에까지 침입하여 연안의 어족을 훑어가고있다.

남조선출판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본해적선들의 남조선수역침범은 해마다 늘었는데 1966년에 비하여 1969년에 3.3배, 1971년에는 8.3배로 늘어났다.

매국적이며 침략적인 《한일어업협정》체결후 《공동어로규제수역》에서 일본어선들의 어획고는 10배로 늘어났는데 남조선의 어획고는 2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오징어 어획고만 보더라도 1970년에 8만 4천톤, 1971년에 3만 8천톤, 1972년에는 8월까지 2만톤을 잡는데 불과하였다.

그러기에 남조선통신보도들도 남조선어획고가 해마다 줄어들고있는것은 《일본어선 1천척이상이 근해에 출어할수 있》도록 규정한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일본해적선들이 남조선근해에 《많이 진출하기 때문》이라고 까밝히였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에 의하여 발광적으로 감행된 전쟁도발소동과 파쑈폭압책동, 일본해적선들의 해적행위와 그로 인한 어장의 황폐화 등으로 남조선어획고는 더욱 줄어들었다. 동해의 명태잡이만 보더라도 1972년 1월현재 속초, 주문진, 아야진 일대에서 어획고가 1970년 1월에 비해 3분의 1, 1971년 1월에 비해서는 2분의 1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형편임에도 남조선당국자들은 어민들이 잡은 물고기의 많은 부분을 《군납》이요, 《위탁판매》 등의 구실을 붙여 빼앗아내는가 하면 《면허세》, 《영업세》 등 수십가지의 세금을 어민들에게 들씌우고있다.

그리하여 어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여 그들은 참을수 없는 생활고에 허덕이고있다.

전쟁예산, 재정금융의 혼란과 위기의 심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정권은 해마다 예산의 70% 이상을 군사비의 지출에 돌리고있으며 그것을 짜내기 위하여 조세수탈을 더욱 강화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40페지)

미제의 《새아세아정책》에 따른 전쟁준비책동과 민족분렬정책에 적극 추종하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은 1972년도에 지난해보다 22.5%—1천 191억원이 불어난 총규모 6천 473억원의 방대한 예산을 꾸며놓고 《국방비의 대폭적인 증가》가 이해 《예산의 특징》이라고 떠벌였다. 1972년도의 직접적 군사비인 《국방비》로는 총규모의 26.4%인 1천 711억원이 돌려졌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433억원, 1961년에 비해서는 무려 10배이상으로 늘어난것으로서 철두철미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집행에 복종되도록 째여진 남조선예산의 반동적반인민적성격을 드러내보이고있다.

그들은 또한 예산총규모의 30.1%를 넘는 1천 950억원을 《재정투융자》의 명목밑에 군수산업 등에 밀어넣었으며 미일독점자본가놈들로부터 구걸해들인 576억원의 이른바 《재정차관예탁금》을 《세입》항목에 포함시켜놓고 그것을 군사적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문들에 쓸어넣고있다. 하반년에 들어와서는 남북회담에 대비하여 《국방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1961년도의 본예산보다 20%이상이나 더많은 620억원의 방대한 추가예산까지 조작하고 그의 대부분을 《국방비》와 군사잠재력을 강화하는데 돌리였다.

이밖에 본예산가운데서 《일반경비》, 《행정제비》, 《교부금》, 《봉급 및 년금》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군사부분과 관련되는 비용을 합치면 이해예산에서 사실상의 군사비는 70%이상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전례없이 방대한 규모로 꾸며진 본예산과 추가예산의 많은 부분을 직접적군사비와 이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밀어넣은 남조선당국자들은 1972년도 예산이 《건축과 국방력강화에 력점》을 둔것이기 때문에 《경제건설에 압력을 주는 일이 있더라도 방위산업육성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줴치면서 남조선《국군》무력의 강화와 장비의 현대화, 군수산업 육성과 군사시설의 확장 등에 미쳐 날뛰였다.

년초부터 이른바 《방위산업육성촉진법안》의 조작놀음까지 벌린 그들은 방대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소총공장건설을 다그치고 탄약창확장공사를 벌리는 등 군수산업의 기초를 마련하려고 책동하였으며 서울시내의 3개 《수도권방위도로》를 만드는데 7억여원의 자금을 각각 넣었다. 그리고 군사적기동력을 보장하기 위한 통신부문에 178억 3천여만원, 《수도권》 및 서부전선방어공사에 10억원을 각각 투입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재정자금을 탕진하면서 군사장비의 현대화와 군사시설의 확장, 고속도로의 건설과 군용항구의 정비확장 등을 미친듯이 다그쳐댔다.

이밖에 예산총규모의 43.5%에 달하는 2천 812억원의 방대한 금액을 파쑈통치기구의 유지비를 기본으로 하는 《일반경비》(866억원), 《교부금》(1,092억원), 《행정제비》(5억원), 《봉급 및 년금》(849억원) 등으로 정해놓고 저들의 일인독재에 의한 장기집권체제를 확립하려고 악랄하게 날뛰였다. 특히 추가예산에서 25억원의 이른바 《국가배상금》이라는 항목까지 설정해놓고 탄압력량을 대대적으로 정비확장하면서 제놈들의 장기집권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탄압하기에 미쳐날뛰였다.

제반사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예산자금의 대부분을 식민지파쑈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조선에서의 새 전쟁도발준비를 다그치며 남북대화에서의 《힘을 뒤받침》하고 《승공통일》을 위한 《실력을 배양》하는데 탕진하였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1972년 남조선의 예산수립과 집행에서 찾아볼수 있는 다른 하나의 특징은 방대한 규모로 불구어놓은 예산자금을 거의 전적으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수탈에 의거하여충당해왔다는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본예산자금에서만도 지난해보다 400여억원, 1961년에 비해서는 무려 27배로 불어난 5천여억원을 조세항목으로 정해놓았다. 여기에 본예산과 추가예산에 반영된 본질상 인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것과 다름이 없는 《은행차입금》, 《외채상환》 등을 합친다면 그것은 실로 엄청난 금액에 달한다.

남조선의 예산세입항목에서 조세가 엄청나게 불어난 반면에 미제의 이른바 물자 판매대금인 《대충자금》은 1971년의 65억원으로부터 24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것은 그만한 부담이 남조선인민들에게 더 들씌워졌다는것을 의미한다.

한편 남조선당국자들은 방대한 액의 세금을 긁어 들이기 위해 세금수탈기구와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동시에 년초부터《업무정비기간》, 《밀린세금일소주간》 등 세금수탈기간을 련이어 설정하고 《세무관리》들의 《비상근무령》까지 내려가면서 인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고 보잘것없는 세간살이에까지 차압딱지를 붙이는 등 인민수탈에 눈알이 뒤집혀 날뛰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세금수탈에 미쳐날뛰는 한편 각종 료금과 《납입금》을 끌어올리고 《저축》을 증대하며 《채권》을 대대적으로 찍어내는 등 여러가지 공간과 수단을 통한 추가적인 수탈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그들은 년초에 서울시내의 수도료금을 100%나 한꺼번에 올린것을 비롯하여 전기료금, 뻐스료금, 철도료금 등을 15～100%나 각각 인상하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평균 25%, 대학들의 공납금은 20%, 각급 학교입학금은 지난해의 50%, 각종 교과서값은 평균 17%, 대학의 기성회비는 128%까지 각각 끌어올렸는바 철도료금의 인상을 통해서만도 무려 28억여원의 금액을 인민들에게서 추가적으로 빼앗아냈던것이다.

이와 함께 그들은 1971년도보다 300억원이나 더 많은 2천 300억원의 《저축목표》를 세워놓고《저축증강기간》이니 뭐니하면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은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저축》할것을 강요하였는가 하면 《도로국채》, 《주택채권》, 《전력채권》의 각종 명목밑에 748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마구 찍어내여 인민들에 대한 추가적수탈을 감행하였다.

아무러한 담보능력도 없이 잔뜩 불구어놓은 전쟁예산의 강압적인 집행과정에서는 필연코 인민들의 강력한 반항과 재정금융의 심한 혼란과 위기를 조성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올해 남조선당국자들의 반동적인 재정금융정책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이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전례없이 불어난 세금수탈계획을 짜놓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발광하였으나 세입의 중요원천을 이루는 《내국세》수입실적만 보더라도 7월말 현재 겨우 38%밖에 안되여 228억원의 적자가 났으며 그후 다섯달동안에는 그의 근 4배로 급속히 늘어나 897억원에 이르렀다. 그들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담보없는 지페를 마구 찍어낸결과 통화량은 이전보다 21.1%나 불어나 년말현재 5천 93억원에 달하였다. 각종 료금을 끌어올림에 따라 여러가지 물건값이 또한 급격히 뛰여올랐다. 상반년간에만도 도매물가 상승률은 7.2%,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에 비하여 근 2배가 되는 8.3%로 뛰여올라 남조선당국자들이 설정한 년말 《물가억제선》에 접근했던것이다.

이밖에도 남조선당국자들의 무모한 외국자본도입책동으로 인한 외화위기의 심화, 극심한 자금난에 기인되는 민족공업의 전면적인 파산, 이로 인한 실업자의 증대와 인민생활의 급격한 령락 등 남조선경제의 전반을 휩쓴 심각한 위기는 그들로 하여금 이른바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재정긴급명령》을 발동케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남조선의 중산층과 근로대중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여 그것으로 일부 대기업가들과 매판자본가들의 배를 불려준 반면에 절대다수 령세기업가들과 소상인, 수공업자들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재정금융부문을 더욱 심한 혼란속에 몰아넣었으며 절대다수 근로대중에게는 참을수 없는 재난만을 가져다주었던것이다.

참담한 인민생활

【로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시기 로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회상한다면 지금 남조선로동자들의 처지를 가히 알수 있을것입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일제때보다도 오히려 더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있습니다. 자유와 권리는 고사하고 생명을 보전하기도 어려운 정도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2권, 89페지)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새 전쟁 도발준비에 따르는 가혹한 수탈과 매판자본가, 외래독점재벌들의 2중, 3중으로 되는 착취와 압박으로 말미암아 남조선로동자들은 가장 비참한 처지에서 신음하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있는 기업체의 파산과 몰락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빼앗기고있다.

1972년 6월말현재 경기도 시흥군 일대 중소공장들이 무리로 문을 닫아 4천여명의 로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9월에는 전라남도 화순광업소에서 일하던 1천 700여명의 로동자들이 일자리를 떼웠다. 이해 남조선에서 광산광구의 85%가 문을 닫거나 휴업함으로써 수많은 로동자들이 일터를 빼앗기였다.

남조선《한국은행》이 조사한 극히 불충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2년 3월말현재 실업자수가 전해에 비하여 18만 4천여명이나 더 늘어났다고 한다.

그러기에 남조선의 신문, 방송들까지도 《작년말부터 계속된 경제불황으로 올해 들어 실업률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은 세계에서 실업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며 실업자들이 가장 빨리 늘어나는 곳이다.

남조선에서는 700만명의 실업자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고있으며 그들속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무참히 죽는 참상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썼으나 구할길이 없다고 하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한쪽눈을 팔겠습니다. 눈이 아니라 코건, 살이건 사가십시오》라고 생계를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낸 사실은 일자리를 잃은 남조선로동자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일자리를 가지고있다는 로동자들이라해도 그들의 처지는 나은것이 없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로동조건이 극히 불리한데서 일할것을 강요당하고있다.

그들은 로동보호시설이란 전혀 되여있지 않고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먼지와 가스 그리고 폭발위험성이 있는 악조건에서 힘든 일을 강요당하고있기때문에 각종 직업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실례로 화학공업부문로동자들과 제사공장들에서 일하는 녀성로동자들은 그 80~90%가 유해물질에 중독되여있으며 고무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10년이상 일한 로동자들은 거의 전체가 공장내의 소음과 유해물질로 인해 귀가 멀어 잘 듣지 못하고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출판물은 《작업장의 환경에서 소음은 섬유공업과 고무제품업소가 가장 높아 이러한 소음속에서 하루 12시간 로동한다면 귀머거리의 위험을 예상해야 하며 소음과 진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소화기와 장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쓰면서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운 기업주들은 공장건설당초부터 로동자들의 로동보호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다.

그리하여 허리도 펼수 없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먼지와 소음이 가득찬 악취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장시간의 로동을 하고있다.》고 쓰고있다.

로동안전시설이 전혀 되여 있지 않는 남조선의 공장과 작업장들에서는 로동재해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남조선의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눈을 뜰수 없을만큼 흩날리는 채탄이나 굴진막장의 탄가루만은 어쩔수 없다. …깜깜한 갱내에서는 항상 천정에 머리를 부딪치지 않도록 잔뜩 고개를 숙여야 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원인으로 암벽이 무너지고 돌발가스가 발생할는지 알수 없다.》광부들은 《작업중 동발우에 모래나 흙밥을 얹어놓고 그것이 떨어지는것을 보고 위험을 예감》하고있다.

이해 1월부터 6월까지 남조선의 광업부문에서 굴이 무너지는 통에 일어난 사고만도 2,071건으로서 이것은 전해 같은 기간에 일어난 로동재해건수의 114%의 증가로 된다.

경상남도 한개도에서 9월까지 빚어진 로동재해로 피해를 입은 로동자들의 수는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나 늘었다. 경기도 인천의 부두는 위험한 장소를 알리는 초보적인 표식판조차 하나도 없어 로동재해가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이해에는 전해에 비해 그것이 배로 늘어났다.

하기에 《국제로동기구》까지도 남조선의 《로동실태》를 돌아보고나서 《남조선의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전혀 무관심할뿐만아니라 화재, 폭발 등 각종 위험을 그대로 내버려두고있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또한 긴 로동시간과 강화되는 로동강도에 의한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로동자들을 16시간까지 일을 시킬수 있는 《근로기준법중 개정법》이라는 악법까지 만들어놓고 로동자들의 피땀을 악착하게 짜내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어느부문할것없이 보통 하루에 12~18시간씩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고있으며 지어는 20시간까지 혹사되고있다.

남조선 《로동청》이 로동자들의 로동시간을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하루평균 19시간씩 일하》고있다고 한다.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을 2중 3중의 감시밑에서 장시간의 고된 로동을 강요하고있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밤에는 잠오지 않는 약까지 먹여가며 점심시간과 변소가는 시간마저 제한하면서 부려먹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로동자들에게는 최저생활비의 4분의 1~5분의 1도 안되는 기아임금이 차례지고있으며 그것마저도 몇달씩 받지못하고있다.

특히 녀성로동자들과 소년로동자들은 남자들과 꼭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남성로동자임금의 절반 지어는 4분의 1에 해당한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있다.

실례로 채취공업부문에서 녀성로동자들의 임금은 남성로동자의 48%, 소년로동자들은 30%의 낮은 임금을 받고있으며 제조업에서 녀성로동자들은 55%, 소년로동자들은 25%를 받고 있다.

이해 남조선당국의 이른바 건설부문 기관과 회사들에서 로동자들에게 주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있는 금액만도 37억 9천여만원이나 된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조일견직회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해부터 임금을 주지 않고

밀려오고있는데 이해말에도 주지 않아 또 해를 넘기는 형편이였다.

남조선의 한 신문이 임금을 주지 않는 문제가 《년중 행사처럼 되풀이되고 로동자들의 격분을 일으키고있는것을 보면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수 없다.》고하면서 《기업주들은 근로자들의 로동의 대가인 임금을 제때에 지불해야 한다.》고 쓰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임금은 동남아세아의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낮은편》이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임금은 일본로동자들의 임금보다 65%가 낮으며 홍콩,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세아국가로동자들의 임금보다 80%나 낮다. 거기에 물가가 계속 뛰여오르고있어 그들의 실질임금은 그야말로 보잘것 없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썼다.

《날이 갈수록 물가는 하늘보다 더 높이 치솟아 오르고 일하면 일할수록 땅속보다 더 밑으로 실질임금은 내려만 간다.》

초보적인 안전시설마저 갖추지 않은 최악의 로동조건에서 로동의 강요, 기업체와 작업장에 비밀경찰과 정보원을 배겨넣는것과 같은 관권에 의한 폭력의 적용, 이른바 《생산성》임금제와 같은 식민지기아임금제도 그리고 《합리화》와 같은 각종 《고한제도》의 수립 등은 오직 남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로동계급에 대한 가혹한 착취의 악랄한 수법들이다. 남조선은 《무제한한 착취의 가장 풍부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표본》으로 되고있다.

1960~1970년기간에 남조선 공업에서 창조된 국민소득에서 로동계급에게 차례진 몫은 31.4%에서 24.8%로 줄어든 반면에 자본가들이 차지한 몫은 68.6%에서 75.2%로 증가되였다. 이것은 로동자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재부가 극소수 착취자들에게 더욱더 집중되고 이와는 반대로 로동자들의 생활은 더욱더 빈궁해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신문은 벌어들이는 보잘것 없는 수입으로는 도저히 살아갈수 없어 허약해진 몸에서 피까지 팔고있는 남조선로동자들의 생활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가난과 무지의 불법에서 울고있는 서울의 근로자들을 수없이 볼수 있다. 가난에 몰리고 삶의 어둠속에 빠져있어야만 하는 억울한 사정, 도탄에 빠진 민생…생계를 위한 량식을 마련할길 없어 피를 팔아야 한다. 그래야 세식구를 굶기지 않는다. 오죽하면 피를 팔아야 하겠는가》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한달에 2만원이하의 수입을 가진 로동자들중 자기 집을 못가지고있는 세대가 93.1%로서 거의 전세대가 제집없이 생활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로동자의 절대다수가 자기 집을 가지고있지 못하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출판물은 《서울의 로동자들은 제집 짓고 살 생각은 엄두도 못내는 처지》라고 쓰고있다.

【농민들의 생활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민들의 처지는 개선되기는 고사하고 그들은 더욱 혹심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있습니다.》(《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142페지)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반인민적인 농업시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농촌은 흉년과 재난으로 아우성치는 20세기의 농촌지옥으로, 항시적인 기근지대로 전락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러한 남조선농촌을 략탈의 기본대상으로 삼고 계속 가혹한 수탈로 엄청난 전쟁예산의 대부분을 메꾸고있다.

이해 남조선당국은 농업생산이 평년작보다 150만톤이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도에 농촌수탈본부를 조직하고 수탈 《독려반》을 각 시, 군에 내몰아 《농지세》와 《주민세》를 비롯한 각종 명목의 세금과 100여종에 달하는 잡부금으로 농민들의 빈주머니를 깡그리 털어냈으며 《량곡매상》으로 농민들의 식량마저 모조리 긁어갔다.

실례로 남조선당국자들은 이해 여름곡식만도 68년도의 3배에 달하는 265만석을 《매상》의 이름밑에 생산비도 안되는 헐값으로 빼앗아갔으며 가을곡식은 1973년 1월말현재 368만석이나 긁어갔다.

농민들로부터 더많은 알곡을 빼앗아내기 위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은 《량곡매상》기간을 1~2개월씩 연장하고 수분함유량을 높이는 등 《매상》방법에서 온갖 략탈적인 수법을 다 적용하였다.

전라북도 정읍군같은데서는《군청》이 이른바 《매상》을 위해 《총동원령》이란것까지 내리고 수탈실적이 낮은 군내 13개읍 《면장》들을 처벌하고 위협까지 해가면서 농민들의 량곡을 빼앗아들이기에 날뛰였다.

또한 이해 《소작제》로 수확량의 50~60%를 뜯어가고 《고지》와 《고리채》에 얽어매여 농민들의 피땀을 빨아 먹는 지주놈들의 살인적착취 역시 전례없이 더욱 악착하였다.

남조선의 신문, 방송들이 《립도선매》를 통한 지주놈들과 고리대금업자들의 착취행위가 《올해에 례년보다 몇갑절 더 심하다》고 전한것은 농민들에 대한 지주놈들의 가혹한 착취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미제와 남조선위정자들의 농촌수탈책동과 가혹한 착취로 말미암아 남조선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남조선농민들은 쌀생산자이면서도 그 누구보다 더 혹심하게 굶주리고있다.

남조선에서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고있는 절량은 반드시 있어야 할 년중행사처럼 매해 닥쳐오고 있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있다.

남조선에서 절량농가수는 전체 농호수의 90%에 달하고있으며 빈고농뿐아니라 중농층까지도 절량되여 기아에 신음하고있다.

남조선농촌에서 절량의 심각성은 그 기간이 끊임없이 길어지고있는데서 표시되고있다. 많은 농가들이 추수직후인 초가을부터 시래기에 보리가루를 탄 죽으로 겨우 연명해오던 끝에 종자곡식마저 없애버리고 년말년시에 이르러서는 나무껍질과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는 형편에 놓여있다.

남조선의 신문들이 《지난 2월 15일은 구정(음력 1월 1일)이였지만 떡방아치는 소리는 들을수 없고 엄마 쌀밥 좀 줘, 나 배고파 라고 어린것들의 애절한 부르짖음만이 빈촌에서 유일하게 들을수 있는 소리였다.》《며칠전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절량이 되여 시래기와 칡뿌리로 목숨을 부지해오던 리모녀인이 산에서 칡뿌리를 움켜쥔채 허기져 숨지고 말았다》라고 쓴 사실은 가을에 낟알털기가 바쁘게 절량되는 남조선농민들의 생활의 비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는 그들의 부채액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농촌의 부채총액은 1960년에 184억원으로부터 1970년에는 근 800억원으로 늘어났다.

남조선에서 조사되여 일본에서 발행되고있는 한 신문에 발표된 전라남도 라주군 공산면 화성리의 이른바 한 《부유한 농촌》의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곳에서조차 채무액은 령세농층과 소농층이 각각 100만원, 자작농층에서 약 200만원으로 즉 령세농층, 소농층, 자작농층의 총호수 36호

중 83%의 농가가 근 400만원의 빚을 지고있다.

남조선의 출판물까지 《농가의 부채는 또다시 부채를 낳고 날로 증가할뿐이지 감소될것은 지금의 상황으로 불가능할것이다》라고 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남조선농가호당 실질소득은 1960년에 비하여 1970년에 0.5정보미만의 소작농의 경우에는 65.4%로, 0.5~1정보의 소작농의 경우에는 70.5%로 각각 떨어졌다.

그러므로 남조선출판물까지도 《이렇게 농가소득이 낮아지고있는 리유는 현 《정부의 중농정책이요, 농공병진정책이요 뭐요 하는것이 기만적인 정치구호로 끝나버리는데 있다》고 쓰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비호밑에 감행되는 지주놈들의 가혹한 착취로 말미암아 해마다 엄청난 빚을 걸머진 남조선농민들이 채무노예로 전락되고 있다. 남조선에는 30여만의 머슴군들이 노예와 같은 인간이하의 멸시와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은 가난과 굶주림을 참을수 없어 헝여나 살길을 찾아 《무서운 비틀》로 농촌을 떠나고있다.

극히 불완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0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에 남조선에서 리농한 수는 해마다 평균 4만 7천호였는데 1967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에는 평균 5만 4천호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남조선에서 리농가의 수가 최근년간에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남조선에서 리농현상의 증대는 소농, 령세농은 물론 중농층까지를 포괄하여 끊임없는 파산몰락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농민들의 비길데 없는 처참한 처지를 반영하고있다.

소농이 령세농으로, 령세농이 품팔이군으로 되고 중농마저도 소농, 령세농으로 되는 등 남조선농촌에서의 계급분화과정은 해가 바뀔수록 더욱 촉진되고있다.

농민들의 살림집사정도 말이 아니며 그들은 전기불조차 없는 불결한 방에서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남조선관계당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경상남도내 농어촌의 집가운데서 83%가 당장 살수 없는 집들이라고 한다.

실로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이 부르짖고있는 이른바 《중농정책》과 《농촌근대화》가 남조선농촌에 가져다준것이란 괴나리보짐을 지고 고향마을을 떠나는 리농민들의 힘없이 흘러가는 행렬과 부황병으로 누렇게 띵띵 부은 아낙네들이 야산과 들판에서 풀뿌리를 찾아 헤매는 모습들이며 길가에 쓰러져가는 원시적인 초가집들과 움막들, 몇되박의 쌀을 위해 눈알을 팔겠다는 광고와 더는 살수 없어 온가족이 자살하는 처참상뿐이다.

【남조선 어민들의 생활처지】 미제와 남조선위정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가혹한 착취와 수탈로 말미암아 남조선어민들의 어로활동은 극도로 악화되고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생활은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비참해지고있다.

남조선어민들은 생명선인 어장을 빼앗겼기때문에 고기를 잡을수가 없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는 구실밑에 크고작은 어장에 모조리 군사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이해에도 화약내 풍기는 전쟁연습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리였다. 결과 어민들은 어장을 빼앗겼고 어촌마다에는 수많은 배들이 묶이운채 고기잡으러 나가지 못하였다.

일본배들의 해적행위와 독판치기도 어민들로부터 어장을 략탈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결을 계기로 일본어선이 남조선어장에로의 진출은 날을 따라 더욱 본격화되여 일본어선들은 이른바 《공동규제구역》에서 남조선고기배들의 고기잡이를 방해하는 한편 고기새끼들까지 모조리 잡아갔다.

남조선의 이른바 《국립수산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울릉도근해에 있는 오징어의 《황금어장》에는 일본어선이 매일 평균 1천여척이나 몰려와서 오징어잡이를 하고있는데 고기새끼들까지 모조리 잡아감으로써 남조선의 어장은 지금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만들어낸 이른바 《어로저지선》과 《해안경찰대》의 탄압행위는 남조선에서 어장을 축소시키고 어민들의 어로 활동을 심하게 방해하고 있다.

1970년 11월부터 1971년 1월까지의 석달동안에만도 남조선당국자들은 저들이 처놓은 《어로저지선》을 넘어섰다는 구실로 107척의 배를 《단속》하고 685명의 어민들을 구속하였다. 이해 4월 인천해양경찰대는 서해 백령도앞바다에서 고기잡이하던 남조선어민 35명을 붙들어 《어로저지선》을 넘었다는 구실밑에 악랄하게 탄압하였다.

남조선어민들은 어장을 빼앗겼기 때문에 고기잡이를 못할뿐아니라 심각한 어선부족, 어구와 시설의 불비, 어업자금난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고기를 잡지못하고있다.

남조선의 관계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남조선의 어선수는 필요한 량의 약 6분의 1에 불과하다. 지어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같은데서는 적어도 200여척의 배가 있어야 하는데 겨우 27척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형편이다.

이리하여 어민들은 고기떼를 보고도 배가 없어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있다.

쓸만한 어구장비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쪽배에 의지하여 고기잡이를 하고있는 남조선어민들의 고생이란 이루다 말할수 없다.

1970년 8월현재 남조선어선총수의 98.7%가 나무로 만든 배이며 10년이상 사용한 낡은 선박은 31.5%나 된다.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와 남조선 강원도의 어민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80~90%의 어민들은 배에 그물을 내리고 걸어 올리는 기계가 없어 매일 아침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물과 씨름하고있다. 그리하여 하루종일 그물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들의 손끝에서는 피가 마를새 없다고한다.

어민들은 출어비부족과 생활난때문에 부득이 배를 팔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데 그 수는 군산항에서만도 1972년 7월이후 100여척이나 된다. 이배의 어민들치고 200~500만원이상의 빚을 걸머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지어 한 어민은 800만원이상의 빚을 지고있다.

남조선어민들은 고기잡이도 마음대로 못할뿐아니라 얼마 잡지못한 고기마저도 여러가지 형태로 빼앗기고 있다.

남조선의 령세어민들은 목숨을 걸고 잡아온 고기를 봉건적인 《분익제》에 의하여 70%이상을 선주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어민들은 또한 남조선위정자들이 강요하는 《군납품》의 명목밑에 생산비도 안되는 헐값으로 얼마잡지 못한 고기를 빼앗기고있다.

어민들은 《어업조합》을 통해서도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있다.

《어업조합》에 물고기를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보다 20~30%나 눅은 값으로 넘길것을 강요당하고있으며 그 외에 《조합비》, 《부과세》, 《소득세》, 《영업세》, 《수수료》 등 각종 세금으로 다시 5~12%를 략탈당하고있다.

남조선출판물이 발표한데 의하면 1967년에 비하여 이해 어구와 쌀값은 2배이상으로 오른 반면에 《어업조합》을 통해 《위탁판매》되는 고기값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례를 들면 7월말현재 곰소어항같은데서는 고등어가 지난해에 비해 10분

의 1의 값으로 《위탁판매》되였다.

그러기에 남조선어민들은 이러한 상태가 앞으로 2년만 계속된다고 해도 근해어민은 한 사람도 남지않고 다 굶어죽게 될것이라고 한탄하고 있다고 한다.

객주업자, 상인들에게 파는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팔게 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보다 엄청나게 낮은 값으로 팔것을 강요당하고있을뿐아니라 성어기에는 《객주업자》 및 기타 고리대금업자들로부터 어로준비자금과 필요한 어구와 식량을 선대받고 월 7~20%의 비싼리자를 물어야 하는 형편에 있다.

그리하여 어민들은 죽도록 고기를 잡아도 수입이란 보잘것없다.

남조선의 한 잡지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어민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숨이고 해가 갈수록 자꾸 어려워진다고 탄식이다. 고기가 없다는 얘기, 있어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 잡아보아야 도로 빈털털이라는 얘기뿐이다.》

어민들의 수입은 놈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6분의 1~10분의 1밖에 안되는것으로서 그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비참해지고있다.

이해초 남조선 강원도 속초시내 1천 500여세대에 해당하는 7천 800여명의 어민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어촌들에 절량이 휩쓸었다.

1만 2천 156명이 살고있는 흑산도에는 《굶주림에서 오는 영양실조》로 《섬사람 거의 전부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한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이 어민의 생활상태를 가리켜 《개밥정도의것도 먹지 못하는》 정도라고 지적하고있는것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어민들의 생활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고기잡이를 제대로 못하고 항시적인 가난과 굶주림 속에 시달리여 막대한 빚까지 걸머지고도 갚을길없는 남조선의 수많은 어민들은 할수없이 어촌을 떠나고있는데 그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늘어가고있다.

서해안의 백령도, 연평도, 대소청도, 덕적도 등 섬에 사는 어민들은 살길을 찾아 1966년이후 매년 400~500명씩 고향땅을 떠나고있다.

남조선의 출판물들이 《어민이 어촌을 떠나고있다. 어항에는 어선후매선풍이 불어 출어할수 없는 어선이 수다히 얽매여있다.》《남조선어민 150만이라고 하는데 비참한 어촌을 등지고 류랑해나가는 어민이 해마다 붙어나 오늘은 110만으로 되였다》고 쓰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도시빈민들의 참혹한 생활처지】 남조선에서 도시빈민의 절대다수가 일자리가 없이 거리를 헤매고있다.

남조선출판물들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하나의 거대한 빈민굴, 빈민가이라고하는 서울은 말할것도 없고 부산시의 경우에도 빈민의 83%가 실업자로 알려지고있다.

도시빈민들은 고정된 직업이 없으므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구두닦기, 넝마주이, 지게군, 리야까군, 삯바느질, 삯빨래 등 날품팔이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의 일거리도 늘 차례지지 않아 새벽부터 늙은이, 어린이 할것없이 온가족이 떨쳐나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기에 도시빈민들이 먹는것이란 보리밥도 구경하기 어렵고 도토리죽이나 산나물죽이 고작인데 그것마저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다.

남조선출판물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도시빈민들중 3일에 하루 굶는 수는 21.8%, 두끼를 굶는수는 37%, 한끼도 굶지 않는 사람은 거의나 없다고 한다.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리와 동명동에 사는 빈민들의 생활을 보면 거의가 다 지게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고있는데 쌀밥은 구경도 못하고있는 형편이며 김장때에 모아두었던 시래기를 보리가루에 섞어 만든 멀건 죽이나 비지죽으로 매식을 이으며 사시장철을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남조선도시들에서 심한 굶주림과 추위에 신음하다 못해 거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는 참사가 늘어나고있다. 실례로 이해 한해동안 서울시 한개도시에서만도 무려 3천 540여명, 매일 9~10명이 길가에서 숨졌다.

도시빈민들은 쓰고 살집이 없어 혹심한 고통을 겪고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 무너져가는 토벽집과 몇개의 판자조각으로 된 판자집은 그래도 나은편이고 이러한 집도 마련할수 없는 수많은 빈민들은 한데나 다리밑 등에서 거적과 천막을 치고 살고있다.

남조선출판물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의 주택부족률은 서울 59%, 부산 59.1%, 대구 55.8%로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도시미화》니, 《무허가건물》이니 하면서 도시빈민들의 보잘것없는 집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제로 마구 헐어버리고있다.

남조선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산허리에 게딱지같이 늘어붙은 무허가 판자집, 지옥같은 생활환경, 일자리없는 처지, 도대체 사는것이 아니라 황무지에 내동댕이쳐진 존재다. 서울은 하나의 거대한 빈민굴, 빈민가이다.》

서울에 있는 한 외국통신이 가난한 사람들의 판자집거리들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골치를 앓고있는 남조선의 괴뢰당국자가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이 《곧 사람이 살수 없는 죽음의 도시로 될것》이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강권을 발동하여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한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도시빈민들은 물마저도 마음대로 쓸수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도시빈민들의 대부분이 수도시설이 없는곳에 살고있다. 서울의 경우 100만명의 주민이 아무러한 위생시설도 없는 우물에 매달려 살아가고있는데 한개 우물에 평균 2천여세대가 의지하여 살고있는 빈민구역도 있다.

의정부에서는 주민의 81%, 강릉시에서는 71.8%, 삼천포시에서는 63%에 달하는 주민들이 수도물을 먹지 못하고 불결한 우물을 사용하고 있다.

수도가 겨우 있는 경우에도 시설이 다 낡아서 주민들의 물수요량의 절반도 대주지 못하고있으며 수도물에 장티브스, 적리 등 병균이 섞여있어 질병의 위협을 면치 못하고있다. 부산에서는 150만명을 대상으로 3일에 2시간씩 물을 보내고있다한다.

그리하여 물을 동냥하여 얻어먹는 사람까지 있으며 일부지대의 주민들은 물한통에 300원씩 내고 사먹지 않을수 없는 기막힌 처지에 있다.

빈민구역에 사는 한 어린이가 물이 너무도 먹고싶던 나머지 집에서 5리나 떨어진 저수지에 물을 길러갔다가 빠져죽은 일까지 있은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의 한 신문까지도 《…먹을물이 없는것이 또하나의 고통거리…다섯살난 꼬마까지 바가지를 들고 물한모금 얻으려고 가파로운 산길을 오르내리야 한다》고 썼다.

도시빈민들은 혹심한 연료난을 겪고 있으며 전기불은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빈민들이 살고있는 80여개의 주변지역에는 전기불이 전혀 없다.

원주시같은데서는 주민의 70%가 전기불을 구경도 못하고있으며 설사 일부 전기불을 본다해도 켜나마나한 형편이다.

도시빈민들은 병이 나도 돈이 없어 치료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무참히 죽어가고있다.

서울에 있는 한 외국통신이 전하는데 의하면 서울의 공기는 안전계선의 3배에 달하는 일산화탄소로 혹심하게 오염되여있으므로 3명의 서울시민들중 1명이 만성호흡기질환과 심장질환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외국의 한 연구소로부터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공해가 심한 도시라는 창피스러운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학생 및 교원 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 인민들과 소년들은 이중삼중의 착취와 억압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있으며 수많은 소년들이 배움의 길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있습니다.》

남조선의 청소년학생들은 반인민적인 교육제도,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군사비수탈을 위한 학원모리화책동, 날을 따라 올라만 가는 학비때문에 배움의 길을 잃고있다.

남조선에는 돈이 없어 학교문앞에도 가보지못하는 학령아동들이 300여만명이나 된다.

또한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70년 5월현재 14세이상～19세미만 로동자가 113만 7천여명이나 된다.

한창 배워야할 나이의 어린이들과 소년들은 깡통과 구두닦기통을 메고 거리를 헤매고있으며 자본가놈들의 고역장에서 소나 말처럼 혹사당하고 있다.

남조선출판물들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구두닦기소년을 비롯하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음식점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껌팔이, 담배장사를 하는 어린이들, 깡통을 차고 떠돌아다니는 고아들, 목갈린소리로 구걸하는 이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이루 형언할수 없다.》

남조선에서는 학교에 가는 경우에도 올라만 가는 학비를 담당할수 없어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상급학교진학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국민학교》를 졸업하자해도 53만여원, 중학교를 졸업하자면 48만여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면 83만여원, 대학을 졸업하자면 210만원이 들며 《국민학교》로부터 대학까지 졸업하자면 무려 390여만원이나 든다.

이 막대한 금액들은 최저생활비의 4분의 1도 벌지못하는 대다수의 근로층에게 있어서는 감당해낼수 없는 부담이다.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아들딸들은 설사 학교에 입학한다고 해도 학비를 물지 못해 도중에서 쫓겨나고있다.

1971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열달동안에만도 《국민학교》들에서는 8만 8천 300여명, 중학교들에서는 3만 1천 200여명, 고등학교들에서는 2만 3천여명, 대학교들에서는 1만 9천여명, 도합 16만 1천 500여명의 학생들이 늘어나는 학비를 담당하지 못하여 학교에서 쫓겨났다.

1972년상반년기간에 경상북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만도 1만 2천여명의 학생들이 학비난으로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비난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수는 무려 95만여명에 달했다.

남조선학생들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른새벽부터 신문배달, 구두닦기 등을 하고있으며 하루의 수업을 마치고 또다시 품을 팔기 위해 거리로 헤매고있다. 그들속에서는 학비를 부담할수가 없어 피를 팔고 자살까지 하는 참상이 수없이 빚어지고있다.

이해 9월 동국대학교에 다니던 한 대학생은 학비를 마련할수 없어 방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했다.

남조선청소년들은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할뿐아니라 교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교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4부제, 5부제 수업을 하고있으며 《로천수업》까지 하고있다.

남조선교실의 50%이상이 지은지 40～50년이 지난 목조건물이다. 《국민학교》의 경우 그 비중은 더 커서 교실전체수의 90%가 목조건물이며 그중 대부분이 당장 무너질수 있는 위험한 건물이다.

남조선의 한 신문은 경상북도 금릉군의 《국민학교》실태에 대하여 교실의 80%가 당장 무너질 위험에 처해있어 학생들은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교실에서 불안에 떨고있다고 전하였다.

남조선의 대부분학교들에서는 비가 오면 교실안에 물이 가득차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있으며 겨울이면 뚫어진 벽과 유리없는 문창으로 찬바람이 들이치는데다가 난방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수많은 학생들이 동상을 입어 《동태》교실이라고까지 하는 형편이다.

이해 2월 9일 남조선 강원도 고성《국민학교》가 얼마 내리지 않은 눈에 다 무너져 한데에 쫓겨난 학생들의 손발이 얼었고 충청북도 제천군 청풍면 양평《국민학교》 목조건물 10개가 장마철에 다 무너져 개학을 연기하였다.

남조선학교들은 학생들의 학습과 육체발육을 위한 교구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그나마 부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학교들의 시설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남조선의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학급당 70명이상의 콩나물교실은 이제 만성이 된 상태, 특히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을 위한 교과별교실, 실험실, 자료실 등 특별교실은 국민학교의 경우 부족률이 95%나 되는것으로 나타나고있다. 학생들의 보건 및 체능향상을 위한 운동장이나 경기장시설, 정서함양을 위한 온실, 화단, 휴식처 등의 시설이 일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은 물론 심지어는 전국 국민학교의 변소가 소요의 21%밖에 안되며 상수도의 경우는 부족률이 87%나 되여 위생관리에 맹점을 드러내고있다.》

남조선에는 학습에 필요한 기본도구들인 책상, 걸상, 교과서, 학용품이 없어 수업시간에 쓰지도 읽지도 못하고 교실바닥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학생들이 수없이 많다.

학생들은 또한 교원의 절대부족으로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바 1971년 현재 각급학교들에서의 교원부족률은 대학교 44%, 중학교 52.6%, 고등학교 67.8%, 4～5부제를 하고있는《국민학교》의 경우는 말할것도 없다.

교원들의 생활처지 역시 비참하다.

교원들은 하루에 4부제, 5부제 수업을 강요당하고있을뿐아니라 수업이 끝난뒤에도 여러가지 잡무에 끌려 혹사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교원들은《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여 진종일 고된수업에 지치고 또 과중한 잡무까지 마치고 나면 퇴근할 때에는 다리가 떨리고 현기증이 나며 목이 아프고 피곤함을 헤아릴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교원들은 생계비의 3분의 1도 못되는 낮은 임금을 받고있다. 그것마저 온갖 가렴잡세와 학원모리배들의 중간착취로 뜯기우며 몇달씩 밀리우고 있다.

남조선신문들도 《봉급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공제액이 많다》고 쓰고있다.

교원들은 할수없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가정교사나 신문팔이 등 부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교원들 가운데 62%가 다른 학교에 출강하거나 외부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남조선의 출판물은 《현재 교원들의 92%가 생계비의 심한 부족으로 어려운 생활형편에 빠져있다》고 쓰고 있다.

교원들속에서는 살길을 찾아 교단을 떠나는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1966년에 3천 100여명, 1967년에 4천 790여명, 1968년에 7천여명, 1969년에 7천 800여명, 1970년에는 8월말까지에만도 7천 449명, 1971년에는 초, 중등교원들만도 6천 270명이 교단을 떠났다.

【《이민》, 《인력수출》로 팔려간 남조선인민들의 비참한 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족매매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의 수백만 실업자들을 북조선에 받아들여 취업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우리의 제의를 거부하고 동족을 구미 각국에 상품과 같이 팔아넘기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93페지)

1972년에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민정책의 과감한 추진》을 떠벌이면서 《이민》대상지역을 확대하며 《이민대상기준제》를 없애며 《이민》업무를 다루는 기구를 확대할것 등을 구상하면서 동족매매를 위한 범죄적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리하여 1972년에 《이민》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구로서 지난기간 단일한 존재였던 《해외개발공사》외에 《범홍공사》를 새로 내왔으며 계속하여 《민간급》의 《이민》회사를 내오기 위한 책동을 벌렸다. 한편 1976년까지에 《인력수출》을 제외한 《이민》만도 11만여명을 팔아먹으려는 《대량적인 이민계획》을 마련하기에 돌아쳤다.

1972년현재 남조선당국자들의 동족매매지역은 무려 42개나라에 달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2년말을 현재로 지난 10년간에 매매된 《이민》자 수는 9만 4천 898명으로 매년평균 근 1만명을 헤아리고 있으며 《인력수출》수는 6만 7천 472명, 도합 16만 2천 370여명이 해외로 내몰리였다.

《이민》, 《인력수출》동태

구분 \ 년도	1962~1965	1966~1968	1969~1972
《이민》	9,880	20,126	64892
《인력수출》	7,618	25,084	34770
합 계	17,498	45,210	96962
증가비률(배)	1.0	2.54	5.70

《이민》, 《인력수출》이란 명목을 붙여 해외에 팔아먹은 주민수는 매 3~4년을 주기로하여 2.5배씩 늘어나고있다.

특히 1972년에 《이민》의 이름밑에 팔려간 남조선주민수는 1971년의 1만 8천 620명보다 38% 증가한 2만 5천 650여명, 《인력수출》로 팔려간 수는 12%가 늘어난 1만 1천 150여명에 달하여 그 증가속도는 더욱 높다.

지역별 동족매매동태는 지난 10년간 《이민》자수의 73.5%에 해당하는 6만 9천 47명이 미국에 팔리워가 첫째가는 《인신구매국》으로 되여있다.

한편 서독을 비롯한 구라파지역 특히는 일본에로의 《인력수출》이 최근년간 급속하게 늘어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아직 세상물정을 모르는 철부지들까지도 《양육》이니 《양자》니 하는 간판밑에 해외로 팔려가고 있는데 미국의 《홀트양자알선회사》를 통하여 팔려간 어린이들만도 7천 500여명이나 된다. 이해 8월에는 생후 6개월밖에 안되는 155명의 젖먹이들이 미국노예상인들에게 팔려갔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을 《인력수출》한 그 값으로만도 1963~1972년까지 기간에 4억 7천 400만 딸라를 받아 새 전쟁도발준비를 위한 군비확장과 저들의 부귀향락에 탕진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범죄적인 인신매매책동에 의하여 외국에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의 처지는 실로 참혹한 형편에 놓여있다.

《이민》이나 《인력수출》책동에 걸려 외국에 팔려간 남조선주민들은 우선 흡혈귀와 같은 그곳 자본가놈들에게 피땀을 빨리우면서 무서운 고역에 시달리고있다.

브라질, 빠라과이를 비롯한 남미주에 농업《이민》으로 팔려간 사람들은 집도 없는 들, 산이나 습지 또는 사람들을 해치는 벌레들이 우굴우굴한 밀림오지에서 감독놈들의 채찍을 맞아가며 황무지를 개간하는 노예로동을 하고있다.

농장주들은 그들이 강제로동에 시달려 일하러 나가지 못하면 창고에 가두어 놓으며 병에서 인차 회복되지 못하면 수풀이 무성한 무인지경에 내다버리군 하는데 그렇게 버린 사람들의 생사는 알길 없다고 한다.

그들은 하루 15시간이상의 고된 로동에 시달리면서도 저녁에는 부엌 한구석 북데기속이나 찬 이슬내리는 나무밑에서 자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다.

외국의 한 현지목격자는 농업로동에 종사하는 《이민》들의 비참한 생활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 이민 들의 집이란 말뚝 네개를 박고 나무가지로 벽을 드리웠으며 짚으로 겨우 하늘을 가리운 그러한 집아닌 집들이다. 때문에 그 집들은 비도 추위도 막지 못하며 사람들은 밤이면 짚멍석우에서 자야 한다.》

하와이에 《이민》으로 끌려간 남조선주민 8천여명중 살아남은 사람은 단지 108명뿐이다.

《인력수출》에 의하여 팔려간 동포들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서부독일독점자본가놈들에게 탄부로 끌려간 남조선주민들은 독일로동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위험한 지하막장에서 동발을 세우거나 석탄버럭을 쳐내는 등의 일을 강요당하고 있다.

서부독일에 끌려간 남조선광부들의 비참한 생활을 현지에서 목격한 남조선의 기자는 그들의 기막힌 생활을 이렇게 썼다.

《지하 800메터란 절대적인 조건에서 언제나 위험속에서 로동하는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4개지구에서의 한국인 부상자를 본다면 이곳에 도착이후 매지구마다 평균 수십명이나 된다.… 언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는지 예측하기 어려운것이 갱내작업이다. 이러한 불안속에서 로동해야하는것이 광부의 생활이다.》

서부독일에 끌려가 고역을 치르고있는 남조선의 한 로동자는 《서독의 탄광에서 일하는 남조선사람들의 대부분은 한번이상 뼈가 부서진 경험이 있고 그들 가운데는 눈을 못보게 된 사람들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처지를 개탄했고 다른 한 청년로동자는 《잔뼈가 굵은 고국을 등지고 남의 땅, 남의 살림을 위하여 젊음을 팔아야 하는 현실… 서민층의 외국행이란… 석탄과 돌가루를 땀과 피와 눈물로 반죽하여 빵을 만들었다는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면서 인력매매의 희생물로 된 자기들의 뒤를 그 누구도 따르지 말것을 호소하였다.

서부독일독점자본가놈들에게 간호원으로 팔려간 남조선녀성들은 하루종일 시달리며 일하고도 저녁에는 자본가놈들의 손발을 씻어주고 손발톱을 깎아주며 목욕탕에 들어가 때를 밀어주며 잔등을 두드려주어야 하며 지어는 술심부름까지 해야 하면서도 그 어디에 호소할길조차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

《군수지원》이요, 《용역단》이요 하는 따위의 간판밑에 남부윁남에 팔려간 남조선주민들은 다낭, 추라이, 푸갓 등지의 해안도시들과 사이공을 비롯한 저들의 주요작전구역에서 군수물자나르기, 항만, 비행장, 연유창 건설공사 등에 동원되여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전투정황에 따라 고용자는 24시간로동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살인적인 계약에 얽매여있

다. 또한 그들은 군수물자를 지고 전투가 가렬하게 벌어지는 미제침략군의 작전지역에까지 내몰려 무리죽음을 당하고있다.

외국에 팔려간 동포들은 또한 임금과 주택조건 그리고 식생활에서 혹심한 민족적차별대우를 받고있다.

미국에 팔려간 로동자들은 대부분이 시카고, 데트로이트, 밀워키 등 공업지대들에서 하루에 16~18시간의 장시간의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면서도 피부색이 다르고 《렬등한 민족》이라는 부당한 리유로 미국로동자가 받는 액수의 절반도 못되는 임금을 받고있다.

이른바 《연수생》의 이름밑에 일본으로 끌려간 남조선녀직공들은 새벽일찍 일어나 식사를 할때까지 일하며 낮에 이어 밤에는 일본 녀직공들이 일을 마친후에 《남은 일을 해》제끼면서도 일본 녀직공의 4분의 1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고있다.

【늘어나는 미제침략자들의 범죄적 만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강도들의 만행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수많은 애국적인민들과 죄없는 겨레들의 피가 흐르고있으며 우리의 자매들이 모욕당하며 짓밟히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41페지)

남조선을 27년동안이나 비법적으로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과 전쟁 책동에 더욱 미쳐날뛰면서 살인과 방화, 략탈과 폭행, 부녀자릉욕 등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적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의 만행은 날을 따라 더욱더 늘어나고있으며 그 잔인성과 악랄성에 있어서도 인류력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이다.

1966년 7월 미제침략자들의 치외법권적특권을 재확인한 《한미행정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1년동안에만 하더라도 미제침략군이 저지른 만행건수는 그 전에 비하여 6배, 1963년에 비하여 9배로 늘어났으며 《협정》체결후 3년간 놈들이 감행한 만행건수는 무려 7천여건, 하루평균 6~7건을 헤아리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한미행정협정》조인이후 신경을 날카롭게 하면서 미제침략군의 만행에 대한 남조선출판물의 보도들을 엄중하게 단속하고있다.

그러나 표면화된 몇개의 만행사건만으로도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이며 침략의 아성인 미제야말로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극도의 배타주의와 인간증오사상에 물젖은 미제침략군은 사람을 죽이는것을 하나의 도락으로 삼으면서 남조선의 이르는곳마다에서 포탄을 마구 쏴대고 총질을 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살해하고있으며 주민집에 마구 불을 질러 사람들을 태워죽이고 자동차로 깔아죽이고있다. 또한 놈들은 폭발물을 터쳐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길가는 사람들을 때려죽이고 군견을 풀어놓아 물어뜯어죽이게 하며 목을 졸라 죽이는 등 온갖 야수적인 방법으로 남조선인민들을 수없이 살해하고있다.

1972년 6월 6일 전쟁연습소동에 미쳐날뛰던 미제침략자들이 경기도 련천군 련천면 옥산리 뒤산에서 나무하던 엄아무개주민을 포사격의 과녁으로 삼아 무참히 쏘아죽이였으며 6월 9일에는 부산시 초량동 앞길에서 미제침략군놈들이 무고한 주민을 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2월 12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앞길에서 미제침략군야수놈이 길가던 김창복주민을, 10월 4일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의 큰길에서 미제침략군 8군 수송부의 로간이라는 살인귀놈이 길가던 정군식주민을 군용자동차로 무참히 깔아죽이였다.

6월 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상공을 돌아치며 전쟁연습을 감행하던 미제침략군비행기는 주민지대에 우정 휘발유통을 떨어뜨려 김아무개주민의 살림집을 비롯한 근처의 주민가옥을 몽땅 불태워버렸다.

또한 7월 17일 미제침략군승냥이놈이 경상북도 대구시 대봉동 앞길에서 길가는 김아무개주민을 몽둥이로 때려죽이였으며 8월 4일 10시 30분경 세놈의 미제침략군야수놈들이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하패리에서 타고가던 영업용승용차 운전수 정아무개를 돌로 까죽이였다.

미제침략군놈들은 남조선에서 치외법권적특권을 행사하면서 문화재를 도적질하고 인민들의 살림집과 상점을 습격하며 총칼의 위협과 날치기로 금품을 털어내며 이에 항거하는 주민들을 마구 때리고 살상하며 집에 불을 지르는 극악한 만행을 감행하고있다.

1월 18일 서울에 둥지를 틀고있던 미제침략군 쓰엘 웰드란놈이 남조선에 있는 귀중한 문화유물 30여점을 훔쳐 미국으로 가져가다 부산에서 덜미를 잡히였다. 6월 20일 미제침략군 네놈이 인천시 북구 부평동 홍아무개집에 뛰여들어 늙은이를 때려 실신시키고 농짝을 뒤져갔으며 미제침략군 10명이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의 한 시계점에 뛰여들어 손목시계 8개를 강탈하였고 8월 24일 미제침략군 알렉산드 쟈니크와 린슨이라는 두 야수놈은 밤 9시경 손님으로 가장하고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안흥리에서 영업용승용차를 잡아타고 가다가 회천면 덕계리에 이르러 불의에 운전수 현춘국의 목을 졸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가 가지고있던 돈을 몽땅 털어가지고 도망친 날강도행위 등은 그 몇개의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침략군놈들은 남조선인민들을 일상적으로 멸시하고 모욕하며 그들에 대한 폭행을 태연하게 감행하고있다.

2월 15일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에 도사리고있는 미제침략군 병기대대 헌병중대소속 스미스 다비드라는 인간백정놈은 엄창섭자동차운전수를 쇠뭉치로 때려 중태에 빠뜨리고 자동차까지 빼앗아타고 달아나는 흉악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3월 26일 경상남도 창원군 창원면에서 미제침략군살인악당 세놈은 달리는 렬차에 돌을 던져 기관사 김아무개에게 중상을 입히였다.

7월 20일 미제침략군 8군 제4통신대대의 미제승냥이 다섯놈이 서울시 영등포구 외본산동 거리에서 길가는 권아무개 등 2명에게 다짜고짜로 달려들어 몽둥이로 때려 쓰러뜨린뒤 병영에 끌어다 가두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녀성들에 대하여 참을수 없는 모욕과 온갖 치떨리는 만행을 례사로 감행하고있다.

놈들은 살림집에 무시로 뛰여들어 부녀자를 겁탈하려 하며 길가는 녀인들을 랍치하여 병실과 창고에 가두어넣고 륜간하며 녀자들의 머리태를 자르고 옷을 벗겨 알몸뚱이채로 길가에 내모는 등 갖은 행패를 다하면서 제놈들의 요구를 순순히 듣지 않으면 칼질과 매질을 하여 야수적으로 살해하는 흉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이해 3월 13일 미제침략군 2사단소속 크레이란놈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에 살고있는 장아무개녀성의 방에 뛰여들어 제놈의 더러운 수욕을 채우려다 항거에 부닥치자 집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7월 8일 미제침략군 공병대소속 젬피라는 야수놈은 경기도 평성면 안정리에 사는 김아무개녀성의 집에 뛰여들어 제놈의 더러운 수욕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칼을 빼들고 위협공갈하다 그 녀성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꽁무니를 빼였다.

또한 미군 유도탄사령부소속 맥타레이란놈은 남조선강원도 춘천시 소양로의 한 주민집에 불시로 뛰여들어 김아

무개녀성에게 달려들어 야욕을 채우려다 항거하는 김녀성을 구두발로 마구 차고 때리는 등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남조선보건의 한심한 실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착취와 억압밑에서 허덕이고있을뿐아니라 온 사회를 휩쓸고있는 여러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그들은 시시각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병에 걸려도 치료의 혜택은커녕 진찰 한번 변변히 받을수 없는 기막힌 처지에 놓여있습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56페지)

남조선당국자들은 인구의 증가, 사회적질환과 각종 전염병의 만연에도 불구하고 전쟁준비를 위한 재정 투자 및 융자와 직접적군사비, 파쑈통치기구강화를 위한 일반경비 등은 해마다 늘여온 반면에 《보건비》는 계속 줄여왔다.

남조선 재정예산가운데서 보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

	(보건비의 비중)	(%)
1964	1.28	100
1965	0.94	73.4
1968	0.9	70.3
1969	0.89	69.5
1970	0.87	67.9

남조선재정예산에서 《보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4—1970년간에 0.41%가 줄어 1970년의 그것은1964년의 비중에 비해 67.9%로 낮아졌다.

남조선당국자들은 1972년에 새 전쟁도발준비에 따르는 군사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투융자와 직접적군사비에 예산총액의 56.5%를 돌리였다.

1972년 9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1973년도 《전염병예방비》는 인구 1인당 2원도 못되는것으로서 일본뇌염예방주사 한대를 맞는데 500원—1,000원이 드는 남조선에서 결국 《전염병예방비》란 인민들을 속여넘기기 위한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다. 지어 《기생충예방비》라는것은 인구 1인당 2전씩밖에 안된다.

남조선당국이 《모범보건도》로 꾸린다고 떠들어대고있는 충청남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1972년 《방역예산》에서 《의료비》라는것이 도내인구 1인당 1원정도밖에 안되고있는 형편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얼마되지 않는 이 자금마저 《보건기구》유지비 등 여러가지 이름을 걸고 뜯어내고있어 사실상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는 거의 한푼도 돌려지지 않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일군들이 도시에 집중되여있으며 반면에 의사없는 면이 해마다 늘어가고있다.

의사 없는 면의 증가

1961	462	(1.0)
1965	648	
1966	687	
1968	793	
1969	800	
1970	860	(1.9)

1970년말현재 의사조차 없는 면수는 860여개면으로 현 남조선통치층이 집권한 년간에 1.9배로 증가하였다. 현 남조선통치층은 1962년에 《의료균점》, 《무의면일소》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의사들이 도시에 집중하는 병페를 없애고 의사가 없는 면을 일소하여 주민들이 고르롭게 의료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떠벌였다. 그러나 의사없는 면은 집권년간에 매해 평균 근 40개면씩 증가하였으며 의사의 도시집중은 더욱 심해졌다. 남조선에서 《종합병원》의 75%가 서울과 부산에, 의사의 90.2%와 간호원의 88%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 집중되여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인력수출》책동을 해마다 더욱 다그쳐 의사의 26.3% 간호원의 37.5%를 미국, 서독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내다 팖으로써 《무의면》의 증가를 더욱 촉진시켰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한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더라도 환자의 80%가 치료에서 완전히 제외되여있다.

얼마안되는 의료기관들도 의료기구, 의약품들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는 극히 락후한 형편에 있다. 남조선의 병원침대수는 인구 1,000명당 0.3대로서 해방전수준에 있다.

남조선에서는 치료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

1972년에 작년보다 치료비는 50%, 약값은 40%가 더 올랐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은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갈 엄두도 못내고있으며 설사 겨우 입원한다고 하여도 치료비와 입원비를 물지 못해 도중에 쫓겨나고있으며 지어 입원비를 못물어 《인질》로 잡혀있거나 환자의 시체이동까지 거부당하고 있다.

이해 8월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에 사는 장아무개가 화상당한 아들을 업고 8개의 병원을 찾아다녔으나 치료비가 없다는 리유로 치료를 거절당한채 아들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겼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아무개로인이 치료비를 물지못하여 1971년 10월부터 1년이 넘도록 수원기독교병원에 인질로 잡혀있었다.

남조선에는 가짜의사, 가짜간호원, 가짜약이 판을 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한달에 10~20만원씩 돈을 받고 남에게 의사자격을 빌려주거나 의사면허장을 팔아먹는 일이 허다하며 가짜의사들이 청진기 한번 대지 않고 가짜진단서를 떼는데 5천원~1만원씩 받아 먹는것쯤은 보통일로 되고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버젓이 《개업》하고있는 한 가짜의사는 보건연구원관계 공무원에게 1968년~1971년까지 해마다 70만원까지의 뢰물을 주고 의사활동을 계속하고있다 한다.

가짜가 판을 치는 부정의료행위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의 수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전라남도에서만도 매해 100명이상의 환자들이 약물중독, 주사부작용 등으로 억울하게 생목숨을 잃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의 출판물들까지 《의술은 영리위주로 타락하고 가짜 및 엉터리 의료행위》가 판을 치고있으며 《멀쩡한 사람을 중환자》로 만드는것이 남조선보건의 현상태이며 《병이 걸려도 약을 믿고 살수 없고 그 약을 먹고도 마음을 놓을수 없는것이 남조선사회》라고 개탄하고있는 형편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범죄적무관심은 남조선을 《질병의 왕국》, 《병마의 소굴》로 전변시켜 각종 환자와 사망자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남조선에는 인구의 70%가 결핵에 걸려있으며 해마다 새로 생겨나는 결핵환자수만도 13만명에 달하고있다.

또한 830만명이상에 달하는 지스토마환자, 120만명의 성병환자, 30만명의 문둥병환자, 10만명의 암환자, 300만명의 정신병환자들이 있으며 인구의 95%가 갖가지 기생충을 가지고있다.

해마다 결핵으로 10만명, 암으로 5만명이 숨져가고있다.

여러가지 만성질병과 함께 무서운 전염병이 해마다 걷잡을수 없이 퍼져 수많은 인민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1971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4천600여명의 장티브스환자가 발생하였으며 1972년에 그것은 3~4배로 더 늘어났다.

이해 3월말경 남조선에서 독감이 퍼져 앓아 누워 학교에 나오지 못한 학생만도 하루 평균 13만 2천명에 달하였다.

남조선은 산모사망률에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식민지노예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원은 모리화되고 파쑈화되였으며 청년학생들은 괴뢰군에 끌려나가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의 야수적인 탄압밑에 자기 동포들과 형제자매들을 반대하여 총부리를 겨눌것을 강요당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116폐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세차게 일어나는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조국통일기운을 억압말살하려고 미제의 추동밑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남조선집권층은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을 떠들면서 《방공훈련》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학생들을 이에 빈번히 내몰았으며 나아가서는 1972년을 《안보위주교육의 해》로 전환시킬것을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은 반동적 《반공도의 교육》의 이해의 정책적방향을 《비상체계에 기여할수 있는 산 교육》에 두고 눈에 피발을 돋우면서 《안보》, 《반공》, 《교련》을 위주로 하는 《준전시체제하의 비상교육》의 실시에 미쳐 날뛰였다. 한편 1월 17일 남조선 《문교부》는 학생들을 《유사시에 전투력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조직화》할 방침밑에 《국방부》와 어용교수들로서 《추진위원회》라는것을 구성하여 《학생지도체제》를 세웠다. 그리하여 이 《지도체제》밑에 학생들속에서 반인민적 《시국관》을 확립하며 파쑈적 《집단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법죄적 조치를 취하였다.

군사교육의 강화: 남조선당국자들은 학원의 군사화를 《국방의 3대요소》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군사훈련지휘체계와 군사교육내용을 전면적으로 저들의 전쟁도발준비에 맞게 바꾸었다.

남조선 《문교부》는 1월 4일 《교련교육지도지침》을 꾸며가지고 모든 학교들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사격훈련》, 《화학훈련》, 《세균훈련》 등 군사훈련을 본격적으로 실시할것을 지시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종래 포함되여있지 않았던 녀자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전쟁훈련을 실시할것을 내세우고 2월 14일에는 《녀자고등학교 교련교육세부지침》을 만들어 그 실천을 위한 《교련교사질서훈련교육강습회》라는것까지 벌리였다.

아울러 남조선당국자들은 녀자고등학교학생들까지 전쟁훈련에 내모는 조건하에서 녀교원들까지 《교련교사》로 내세우려고 획책하는 한편 《학생교련교육의 효률적인 운영》을 떠들면서 남녀고등학교 교원들을 괴뢰군병영에 강제로 끌어넣어 화학, 세균, 원자전쟁훈련에 내몰았다.

새 학년도에 들어선 3월 9일 남조선당국은 전체 고등학교와 대학들에 또다시 《교련교육세부지침》이라는것을 내려먹여 청년학생들에 대한 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하며 특히 《사격숙련마》에 《중점》을 두고 《사격훈련》시간을 대폭 늘일것을 강요하고 《사격훈련》에 대한 《시험》만도 10여종목이나 설정해놓았다.

한편 남조선 《국방부》는 8월에 《학생군사교육실시시행규칙》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 또다시 《학도군사훈련》의 폭을 대폭 넓히는 동시에 《입영훈련》을 확대강화하고 종전에 학교단위에서 하던 일반군사훈련도 《국군》병영내에서 진행할데 대하여 모의하였다.

학생들의 《전투력화》와 《전력증강》을 위해 날치은 남조선당국자들은 6월 22일 군사분계선접경지대인 남조선 강원도 춘천시내의 고등학교학생 1천 390여명을 끌어내여 대규모적인 실탄사격훈련을 벌렸으며 7. 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틀후인 6일에는 서울시내 각 고등학교《교련교사》들을 동원한 가운데 《교련교육시범대회》를 벌려놓고 서울 무학녀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례없이 《교련복》까지 입혀 화학전쟁에 따르는 특수훈련을 강행하는 등 발광적인 전쟁소동을 피웠다.

또한 여름방학때에는 대학생들과 고등학교학생들을 《국군》병영에 강제로 몰아넣고 《공수락하훈련》, 《유격훈련》 등 전쟁연습에 내몰았다.

남조선당국자들은 학생들의 체력단련과 《단결심》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준전시체제하의 비상교육》책동에 맞추어 《무장경기》, 《교련실기대회》 등 군사훈련을 내려먹여지어 《국민학교》의 나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군사훈련을 강요하였다.

《반공교육》의 강화: 7.4남북공동성명이 있은 직후인 7월 7일 남조선 《국무회의》는 《반공교육은 전과 변함없이 계속 강화》한다는 반동적방침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문교부》당국은 7월 10일 《시, 도 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학생들속에서 《반공교육》을 일층 강화하기 위한 모의를 하였다. 계속하여 8월 24일~25일에는 대학생들에 대한 《승공교육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륜리담당교수쎄미날》을, 10월 12일에는 《중고등학교교사반공도덕연구발표회》를 조직하였다.

모임들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은 학생들에게 《반공》사상을 더욱 강하게 불어넣기 위한 술책으로서 고등학교입학시험채점에서 《반공》과목 점수를 종래의 17점으로부터 20점으로 올리게 하였으며 《반공시범학교》 (국민—고등학교)를 20개로부터 이해중으로 250여개로 늘이기로 하였다. 대학들에서 실시하는 반동적《국민륜리》강의를 개별교수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원로급교수》들이 담당하도록 하고 학교와 남조선 문교당국이 반동《국민륜리》교원들의 활동을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남조선문교당국은 이해에 《승공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10월에는 단일교과서였던 중학교의 《반공교과서》를 학년별로 되는 단행본으로 편찬하는 한편 고등학교들의 《반공교과서》도 《보충완성》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반공교육》시간을 대폭 늘이였다.

현 남조선통치자들은 이해에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을 철저히 보장할 목적밑에 일어교육을 공공연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다. 남조선통치자들은 1972년 새해벽두부터 대학생들의 일본류학을 허가하고 그 류학범위를 고등학교학생까지로 확대하였다. 7월 5일에는 일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한 그들은 1973년부터는 대학, 고등, 전문 학교들의 《교육과정》에 일어교육을 첨가할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각지에 설립되고있는 일본어학원을 《승인》하는 등 갖가지 매국적조치를 취하였다.

강화된 학원의 파쑈화: 남조선통치자들은 《대화있는 대결》을 떠벌이면서 청년학생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첩보사찰을 강화하여 애국적이며 량심적인 학생들을 대량적으로 축출하는 소동을 벌렸다.

남조선당국은 학생자치단체였던《학생회》를 관제화하고 각종 학생써클활동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한 《담당교수제》를 내오고 학생들의 일체 활동을 《지도교원》의 통제밑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새학기 개학을 앞둔 8월 23일 남조선당국은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감상적론의를 하지 말도록》 엄격히 통제할데 대하여 모든 대학 총학장들에게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문교부》당국에서는 《대학생지도지침》을 내두르면서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적십자 본회담개최에 따른 대학생

들의 통일에 대한 무책임한 현실참여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위협해나섰다.

한편 서울시내 각 대학들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모든 학교들을 《중앙정보부》와 경찰당국의 삼엄한 감시와 경계 속에 잠가놓고 남북적십자회담 공화국북반부적십자회대표단을 환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감행하였다.

특히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7월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1차 회의를 앞둔 9월 서울대학교에서만도 이른바 《학풍을 마련》한다는 황당한 구실밑에 900여명, 경상북도에서는 1만 2천 740여명의 학생들을 각각 퇴학 및 정학 처분하였다. 10월에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평화통일을 《뒤받침》한다는 간판밑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풀어 모든 대학들을 폐쇄하였다.

학원의 모리장화: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학원을 침략적인 새 전쟁 도발 준비를 위한 군사비를 짜내는 수탈의 마당으로, 제놈들의 더러운 배속을 채우기 위한 모리장으로 만들어놓고 학부형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업료만 하더라도 1969년부터 매해 평균 25%씩 올렸고 대학들의 《공납금》도 1966년이래 매년평균 20%씩이나 올렸다.

1972년에는 각급 학교 입학금은 지난해보다 50%, 교과서값은 평균 17% 더 올렸으며 지어 대학의 《기성회비》는 128%까지 올리면서 종래의 《공납금분납제》를 페지하고 단꺼번에 낼것을 강요하였다.

더우기 남조선당국자들은 《사립대학》의 《공납금》을 학교당국이 제멋대로 규정할수 있도록 허용해준 결과로 학원모리배들의 략탈행위는 어느해보다 우심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해 270억원에 달하는 《공납금》을 비롯하여 60여종에 달하는 《잡부금》 등 총 500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내려고 학부형들의 주머니를 털어냈다.

남조선출판물들은 남조선당국의 학원수탈책동에 대하여 《학부형들의 부담능력을 훨씬 릉가한 폭거》라고 지적하면서 《학비》를 가리켜 《자살비》라고 쓰고있다.

짓밟힌 민족문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있으며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8폐지)

미일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한편으로는 민족문화를 짓밟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놈들의 반동문화의 침투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사상문화침투에서 노리는 중요한 목적은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을 합리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켜 그들을 제놈들의 온순한 노예로 만듦으로써 식민지예속화정책의 사상적지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여기로부터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침략정책의 기본방향은 남조선인민들속에 반공사상과 숭미사대주의사상을 주입시키며 남조선에서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썩어빠진 미국문화와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며 남조선인민들을 우매화하는데 돌려지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미국과 남조선에 방대한 사상문화침략기구들을 조작하고 그를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침투를 감행하고있다.

미국에 있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침략기구로서는 미국무성《교육문화사무국》을 중추로 하는 하나의 기구체계가 있고 그와는 별도로 《미국무장관》의 직속기구인 《미평화봉사단》(미평화군)과 미국무성의 직속기구인 종교기구체계가 있으며 《대통령》의 직속기구인 《미중앙공보원》과 《해외정보국》체계 등이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침략기구로서는 미국에 설치되여있는 기구들과 함께 남조선주재 현지기구들인 《주한미대사관》의 《문정과》를 중심으로 하여 《주한미공보원》, 《주한미교육위원단》 등이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이러한 사상문화침략기구들을 조작하고 출판물, 방송, 영화, 종교, 《인사교류》, 《연구발표회》 등의 각종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제놈들의 반동적출판물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침투시키는 한편 남조선출판물들을 어용화하고 남조선에서 발간되는 출판물들을 통해 양키문학와 미국식생활양식을 부식시키고 있다.

미제는 1959년에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1966년에 《공간행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등을 맺고 남조선에 미국출판물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남조선의 출판부문에 대한 장악통제를 합법화하였다.

미제는 《미합중국해외정보국》에서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방송과 《유엔군 총사령부》에서 운영하는 《자유의 소리》방송, 남조선강점《미군사령부》에서 운영하는 방송들을 통하여 숭미사대주의사상과 미국식생활양식을 광범히 류포시키는 방송을 직접 하는 한편 남조선의 방송국들로 하여금 저들의 사상문화침략에 복무하도록 장악통제하고있다.

미제는 또한 남조선위정자들로 하여금 미국영화를 수입번역하도록 통제하는 한편 남조선에 《성남영화제작소》를 두고 양키문화와 미국식생활양식의 부식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도록 하고있다. 미제는 1956년에 남조선당국자들로 하여금 《영화공연허가사무취급요강》을 조작공포케하여 미국영화를 먼저 상영하도록 하였으며 1959년에는 그것을 개악하여 미국영화에 대한 면세조치까지 취하도록 하였다.

남조선주재 미제의 사상문화침략기구의 하나인 《미평화봉사단 한국지단》은 이른바 《미평화봉사단원》들을 발동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높아지고있는 반미감정을 무마시키고 그들에게 《반공》숭미사상과 미국식생활양식을 주입시키는 한편 정탐, 정보수집 등 비밀활동을 일삼고있다.

종교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침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남조선주재 선교부》가 직접 장악통제하고있는 출판 및 방송 기관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 종교교리를 부식시키고있으며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미화분식하고있다.

미제는 우선 남조선에서 기독교계통에 대한 《대한기독교서회》, 《대한성서공회》와 같은 종교계통의 출판기관들을 장악하고 《기독교신문》, 《교회련합신문》을 비롯한 여러개의 신문과 《기독교사상》, 《새벗》, 《새가정》 등 40종의 잡지를 발간하고있으며 그를 통하여 미제의 종교정책을 선전하고 미국식생활양식을 널리 퍼뜨리고있다.

미제는 또한 1954년부터 기독교전문방송국을 내오고 《기독교중앙방송국》과 부산, 대구, 광주, 리리에 있는 기독교방송 등 종교전문방송국들을 통해서도 종교교리를 선전하며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침략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 뿌리 깊이 박힌 반일감정을 무마시키고 남조선재침의 정신적지반을 마련하며 제놈들의 침략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상문화적침투에 더욱 매달리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인사교류》의 간판밑에 《관광객》, 《문화, 체육인》, 《취재기자》, 《방문시찰인》, 《종교인》, 《상인》 등의 탈을 쓰고 기여들어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반동적인 문화를 합법적으로 퍼뜨릴것을 내용으로 한 반동적인 《협정》들과 《합의》들을 맺고 남조선의 출판물, 방송, 영화, 종교 등의 각종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68년 1월 남조선당국자들과 《상호문화교류 및 협조》 문제와 《대일문화개방》문제를 모의한데 련이어 그해 5월 일본에서 열린 《제3차한일무역회담》에서 영화, 배우의 《교환교류》와 영화합작문제까지 론의하였고 1969년 4월 《제2차한일협력위원회 총회》에서는 《문학작품상호번역보급》과 《문화교류》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에 《합의》를 보았다. 1971년초에는 남조선에 《일본문화쎈터》를 설립하고 과학, 교육, 출판, 문화, 영화 등을 관할하도록 하였으며 1972년 7월 5일 《한일무역회담》에서는 이해중으로 100편이상의 일본영화를 남조선측이 수입할것을 《합의》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서울에만 하여도 일본서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아세아서점》, 《해외서적무역상사》, 《해외출판물주식회사》 등 20여개의 상사, 회사를 만들어놓았으며 이를 통하여 일본출판물을 남조선에 대량 침투시키고있다.

놈들은 종전에 대마도에 방송중계소와 텔레비죤방송중계소를 설치하고 아침저녁으로 남조선에 대고 방송했다면 현재 남조선방송부문에 깊이 침투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송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텔레비죤방송을 통하여 일본 영화, 극, 가요 등을 대대적으로 내보내고있으며 《서울중앙방송》을 비롯한 남조선방송수단을 통하여서는 일본인 《가수》를 출현시켜 퇴폐적인 일본류행가를 부르게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종전까지만 하여도 일본영화를 은밀한 방법으로 조금씩 침투시켰으나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지어 합작이라는 간판밑에 일본영화문학원작에다 일본배우를 등장시키는 등 친일사상과 군국주의사상을 고취하는 반동영화를 대대적으로 만들어들이밀고있다.

놈들은 저들의 전통적인 종교인 《천리교》, 《창가학회》를 사상문화침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일본반동종교단체인 《창가학회》의 정체에 대하여 《일본천황과 황실을 숭배하고 〈동방요배〉를 하는 등 일본의 국수주의적경향이 짙으며 정치사상적으로 명백히 침략성을 띤것》이라고 하면서 종교를 통한 놈들의 반동문화침략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로 말미암아 남조선에는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문예물들과 출판물들이 수많이 들어와 판을 치고있다.

남조선당국의 공식발표에 의하더라도 1970년 남조선에는 224만 4천여권의 외국 도서와 잡지가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115만 1천 387권, 미국과 서구라파에서 106만 3천 650권이 각각 들어왔다.

1970년 10월~1971년 9월까지의 1년간에 남조선에서 상영된 영화중에서 80%가 외국영화였다. 1970년에 남조선에 수입된 외국영화중 60%가 색정, 전쟁, 깽을 내용으로 한것이였다. 1971년도 남조선의 극장무대에서 공연된 연극의 3분의 1이 미국과 일본의 작품이였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극장과 영화관들에는 모두 깽영화 등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는 민족어를 비롯한 고유한 민족문화와 미풍량속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고유한 조선어의 리해가 힘들다고 떠벌이면서 한자어를 적극 장려하고있으며 중학교들에서 한자교육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책동까지 벌리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일본어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있는바 서울과 부산에 있는 일본어강습소만도 440개가 넘는다.

1972년 6월 16일 남조선당국의 지시밑에 《서울시교육위원회》는 학교들에서 일본어과의 신설을 《인정》하며 일본어강습을 적극 장려한다는것을 공개하였다.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과 외래어도입책동에 의하여 우리 말은 잡탕말로 변해가고있으며 거리의 간판들과 사람들의 이름까지 외국식으로 변해가고있다.

일부 사람들은 《영어 몇마디쯤 지껄이지 못하면 유식층에 들지 못하는것으로》, 《수치》로 생각하고있으며 또한 《일본어를 알아야 출세의 지름길을 달릴수 있고 돈벌이를 할수 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있다.

남조선출판물들이 일부 친일사대주의자들은 《공식적인 모임에서 통역관을 제쳐두고 일본말로 연설》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국회의사당》에서까지 《외래어를 람용》하고있다고 하면서 바로 이러한자들 때문에 남조선이 급속히 《문화적이방지대》로 굴러떨어지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출판물들은 《약품의 98%가 외국식이름》이라고 보도하였다.

남조선에서는 민족어와 함께 민족문화와 미풍량속도 유린말살되여 조선춤대신 서양춤이, 조선노래대신에 《양곡》과 《왜곡》이 류행되고있으며 문학예술작품은 그 대부분이 색정과 깽을 주제로 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예술》의 《현대화》란 간판밑에 《민족무용》을 한다고 하면서 광란적인 미국의 《쟈즈》음악에 맞추어 조선치마를 입고 상반신을 벌거숭이로 드리내놓은채 온 몸과 팔다리를 뒤흔들며 궁뎅이춤을 추고 있다.

남조선에서 불리우고있는 노래라는 것은 그 90%이상이 일본곡이거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한것들이다.

남조선특권층들은 고급료정에서 왜놈들과 술을 마시면서 일제가 침략전쟁을 감행할 때 부르던 《군가》를 부르고있는판이다.

오늘 남조선음악예술의 부패타락상에 대하여 출판물들은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있다.

《 우리민요 라고 이름 붙여 부르는 민요조의 노래가 우리의 고유한 민속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외국의 선률을 모방하여 민요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현실은 우리의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나 민요라고 그릇되게 가르쳐주는 과오를 낳는것이 분명하며 문화사에 씻을수 없는 오점을 찍어주는것이 될것이다.》

《오늘날 사회 깊숙이 침투되고있는 것은 대지를 진동시키는 〈색정적〉인 노래, 퇴폐적인 노래, 애상적인 노래, 경박한 노래들이다.

이러한 노래가 방송을 통해 마치 전염병모양 퍼지고만 있다. 좀 더 건전한 노래, 명랑한 노래, 민족적인 노래가 불리워져야 할것이다.》

남조선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이 무참히 짓밟히고 극도의 부패와 타락, 범죄가 모든 령역을 휩쓸고있으며 의복, 몸단장에 이르기까지 양풍과 왜풍이 물젖어있다.

한 외국기자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문화정치적식민지로 된 서울의 인

상을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여기가 분명 조선땅인지 뉴욕의 뒤골목인지, 도꾜의 옆골목인지 분간할수 없다.》

심화되는 사회적혼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생활은 참을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갔으며 부패와 사회적무질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졌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37페지)

【부정부패】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의 이른바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정권〉의 이른바 〈정책〉은 모두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안일과 향락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인민들을 략탈하고 착취하는데 돌려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193페지)

남조선당국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이야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고 강권을 발동하여 인민의 재산을 착취략탈하며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국고금》을 탕쳐먹는데만 피눈이 되고있다.

최근 1~2년사이에만도 《농어촌개발공사부정사건》, 《군납부정사건》, 《고급승용차 대량밀수사건》, 《농협중앙회경리부정사건》, 《남강댐수몰지구보상부정사건》 등 부정사건이 꼬리를 물고 드러났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줄여서 발표한 이른바 《감사결과》에 의하더라도 부정사건은 1963년에 2천 601건에 1억 4천 42만원이였다면 1970년에는 1만 505건에 60억원으로 8년간에 건수에서 4배, 액수는무려 42배로 불고있다. 1971년 6월부터 1972년 7월까지 기간에 193개의 《정부》기관과 일부 지방단체 및 보조단체들에서 드러난《비위사실》만 해도 3천 258건에 4억 328만원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사회는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으로 되였다.

남조선 현 당국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부정부패행위는 그 규모와 수법 그리고 그 포괄범위와 내용으로 보아 력대통치배들이 감행한 부정부패행위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을 정도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리권을 파는 대가로 미제상전이 던져주는 딸라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판 돈으로 저들의 부패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이른바 《정권》을 가로타고 앉기가 바쁘게 일본군국주의자들과 《한일회담》을 벌려놓고 그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일본은행에 예금까지 하였으며 《한일협정》조인을 계기로 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로부터 1억 3천만 딸라를 받아 사리사욕을 채웠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또한 강권을 발동하여 사기협잡을 일삼으며 졸개들을 내몰아 부정행위를 감행케 하고 거기에서 막대한 자금을 뜯어내고있다.

부정축재자들을 《숙청》하는것처럼 하면서 재벌들을 고급호텔의 뒤고방에 가두어놓고 그들에게 《벌과금》을 마련케 한다는 구실밑에 각종《리권》을 나누어 주어 치부케 한다음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먹는 음흉한 방법, 심복들을 기관기업체의 요직에 들여앉혀놓고 그들을 통해서 돈을 긁어모으는 음모적방법, 매판자본가들을 끼거나 혹은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거액의 자금을 받아먹는 방법, 《대지사용증명》이니, 《건축대지증명》이니 하는 갖가지 증명서를 날조하여 《국유지》를 《불하》하여 《개인소유》로 만들게 하고 그것을 다시 팔아서 나누어먹는 《합법적방법》등 남조선당국자들이 꾸며내는 부정부패행위의 수법은 이루다 말할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고 악랄하다.

한때 남조선인민들의 증오와 저주의 눈총이 쏠렸던 《4대의옥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삼성》, 《개풍》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로부터 10억원의 자금을 빼낸 《3분폭리사건》, 《장관》, 《국회의원》 등 상층관리들이 관계하여 부정축재한 금액이 250억원에 이르는 《국공유지불하사건》, 남조선의 57개역에서 횡령한 금액만도 100억원이 넘는 《철도청철도탁송화물운임부정사건》, 2억원의 뢰물이 오가며 온갖 사기협잡으로 뒤엉켰던 《지리산도벌사건》그리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위조지폐사건》,《세무행정부정사건》, 《교포재산반입사건》, 《로동청부정사건》, 《전매청부정사건》, 《메사돈사건》, 《테트론밀수사건》, 《사카린밀수사건》 등 남조선에서 수없이 벌어지고있는 가지가지의 부정사건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남조선고위당국자나 그를 따르는자들과 관련되지 않은것이 없다.

최근년간 《청와대》에서 《국정감사》라하여 2억원이상 350억원까지의 부정축재자들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에서 《공화당정치인》이 300여명이나 나왔다. 그리하여 남조선고위당국자는 《공화당이 머리에서부터 꽁지까지 결단이 날것이기때문에》 공개도 못하고 있다는것이다.

《부정축재의 표본》으로 알려진 《5.16장학회》는 약 50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있는데 그의 《실제적소유자》는 다름아닌 남조선고위당국자란것도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국고금》을 도적질하고 한강백사장까지 팔아먹고도 부족하여 이미 수천점에 달하는 귀중한 문화재까지 외국에 팔아먹었으며 지어는 《이민》과 《인력수출》, 《파병》, 《양자》 등의 딱지를 붙여 동족의 피까지 팔아먹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피땀을 짜내는 《혈세》, 각급학교학생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학생저축금》과 각종 잡부금, 수만명의 청장년들을 남부웰남전쟁터에 미제의 대포밥으로 밀어넣고 벌어들이는 《청부전쟁리익금》, 10여만의 동포들을 해외에 팔아넘기고 벌어들이는 《동포매매금》등이 바로 남조선위정자들의 부정부패행위와 부귀영화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서울 룡산구 동빙고동에는 보통주민의 주택 100여채나 지을수 있는 넓은 부지를 각각 차지하고 남조선시가로 최하 3천만원으로부터 3억원까지에 이르는 110여채의 고급호화주택이 들어앉아있다. 여기에는 200억원~500억원을 부정축재한 《장차관》들, 고위당국자의 《보좌관》과 《비서관》들, 일부 《국회의원들》, 매판자본가놈들이 들어앉아 하루저녁 료정놀음에만도 10만원이상을 뿌려던지며 사치와 향락으로 날을 보내고있다.

남조선에는 동빙고동외에 성북동, 약수동, 장충동, 수유동 등에 고급호화주택이 있는데 《제2동빙고동》으로 불리우고 있는 서대문구연희동에는 불과1~2년사이에 시가 2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에 이르는 고급호화주택이 60여채나 새로 생겼다.

서울시민들은 동빙고동을 가리켜 《도둑촌》이라고 부르고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도둑촌이란 도둑질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가 5천만~6천만원짜리 고급주택을 짓고 살수있느냐 해서 동네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남조선의 한 야당인사는 《지금 장관들 한달봉급이 10만원이나 이를 먹지도 입지도 않고 고스란히 1000년을 모아야 1억원이 되고 2000년을 모아야 2억원이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장관이나 공화당국회의원 2—3년만하면 그같은 재산을 모아 세기적인 기적을 이루고 있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남조선에서 부패부정행위는 그 규모와 포괄범위, 내용 등에서 그 어떤

《법적체제》나 《강권발동》으로써도 도저히 뿌리뽑을수 없을 정도로 조직화되고 있으며 권력구조의 상층부와 사회심층부에 뿌리깊이 퍼져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출판물들은 《사회의 온 구석이 거짓과 부패, 부정과 협잡, 안일과 퇴폐로 검은 멍이 들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여기는 부정부패는 그 발생원인이 지도층에 있고 그 퇴폐의 내용과 규모로 보아서도 거의 대부분이 지도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퇴폐풍조에 대한 책임도 자연히 지도층이 져야 한다.》고 쓰고 있다.

【각종범죄】 미일반동들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부식시키는 썩어빠진 미국식 생활양식과 왜색왜풍의 후과로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범죄자가 증대되고 있다.

1960년~1969년까지의 10년간에 남조선에서는 총 755만 3천 79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후반 5년간(1965~1969)의 범죄건수는 446만 1천 159건으로 전반 5년간(1960~1964)의 범죄건수 309만 2천 639건의 1.4배가 넘는다. 남조선 《치안국》이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해마다 90여만건의 살인, 강도, 절도, 방화, 강간 등 각종 범죄가 《취급》되고 있다. 범죄자들에 의하여 사망되는 수는 해마다 근 5만명, 부상당하는 수는 10만명에 가깝다.

이와 같은 범죄의 증가는 최근년간 더욱 급격해가고있다. 1972년 1월~8월까지에 일어난 범죄건수는 99만 8천여건을 헤아렸다. 이것은 하루 평균 4천 100여건, 한 시간에 평균 171~172건의 범죄가 발생한것으로 된다.

남조선 극장과 영화관들에서 돌려대는 강간, 살인, 색정, 렵기심을 설교하는 미국의 《깽》영화, 그리고 책방들에 범람하는 만화, 소설들의 악영향을 받아 특히 청소년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있다.

남조선신문들에 실린 자료들에 의하면 1971년에 발생한 소년범죄만도 9만 4천 278건으로서 전해에 비해 11.2%, 1967년보다 34.3%가 증대하였다.

범죄 류형별로 보면 1962년에 비해 살인, 강도, 릉욕 등 흉악범은 3배, 공갈, 협박, 폭력 등의 범죄는 4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남조선을 두고 어느한 외국기자는 《으뜸가는 청소년범죄왕국》이라고 말하였으며 남조선의 한 방송은 《소년범죄가 량적으로 증가하고있으며 점차 집단화되고 란폭해져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남조선에서는 《폭력단》을 비롯한 조직된 범죄단이 많아지고 그 범죄수법이 날을 따라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여러가지 명칭을 붙인 《폭력단》을 직접 조종하고 비호하면서 인민탄압에 내몰거나 경찰과 합작시켜 남조선애국자들을 테로, 암살, 학살하는데 리용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인민들은 항시 불안과 공포속에서 재물을 략탈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다.

남조선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강력범, 도범, 타기할 사범들이 해마다 몇십전씩 저질러지고있다. 하긴 자손만대까지 풍성히 살 밑천을 마련해놓고있는 사람들이 한술 더 떠서 범죄를 밥먹듯 저지르고있다.

어쨌든 서울의 지붕밑은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범죄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각종 사고와 재해】 남조선에서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새 전쟁 도발준비를 위한 책동과 극도에 달한 사회적 무질서로 말미암아 각종 사고와 재해들이 무시로 발생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헤아릴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주고있다.

교통사고는 1960년에 비해 1971년에 1.4배로 늘어났다.

교통사고의 증가

년도	사고발생건수	증가률(%)	사상자총수
1960	3,371	100	11,377
1966	15,804	469	21,772
1969	32,092	952	41,265
1970	37,243	1,105	45,899
1971	47,060	1,396	56,396

※ 사상자수는 사고현장에 한함

남조선당국자들이 새 전쟁 도발준비를 위해 주민들의 집과 논밭들을 마구 짓뭉개버리고 닦아놓은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만도 1972년에 1천 305건으로서 그 전해보다 사고건수에서는 37%, 사망자수에서는 13%가 늘어났다. 남조선인민들은 이 길을 두고 《죽음의 도로》, 《원한의 도로》라고 부르고 있다.

이해 상반년동안에 남조선 강원도 춘천철도국관내에서 발생한 철도사고는 전해 같은기간보다 49%나 늘어났다.

이해 남조선에서는 교통사고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고로 1만 510여명, 하루에 평균 28~29명의 어린이들이 재난을 당하였다. 서울시내에서만도 3천 120여명의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빼앗기거나 심한 상처를 입었다.

남조선에서 교통사고는 차량당 사고률에서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있다.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미리 유언을 남기지 않고서는 차를 탈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고있다.

남조선사회에서는 길가는 사람을 깔아 놓고도 숨져가는 사람보다 차체의 손상이 더 중요시되고있으며 악질기업주놈들은 피해자에게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금》까지 강요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출판물까지도 《근본적인 문제는 인명을 무겁게 여길줄 아는 인간존중사상의 결여》라고 폭로하면서 이 고질적인 병폐의 근원은 제도상의 변혁밖에는 딴 도리가 없다고 쓰고있다.》

화재사고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집권한 10년동안에 2.5배로 늘어났다.

화재사고의 증가

년도별	발생건수	증가률(%)
1960	1,946	100
1966	3,077	158
1969	4,181	216
1970	4,969	255

1971년에는 서울시내에서만도 1천 793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것은 1962년도의 5배이다.

최근년간 급격하게 늘어가는 화재사고는 1976년에 가서 10만건을 돌파할것이라고 남조선당국자들은 비명을 지르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방화대책도 세우지 않고있으며 근대산업의 발전에서 화재가 늘어나는것은 필연적이라고까지 떠벌이고있다.

해상사고는 1972년에 고기잡이 나갔다가 배가 파손되여 재난당한 어민들만도 11월말 현재 6천 887명에 달하였다. 그중 생목숨을 빼앗긴 200여명의 어민들에 대해서는 그 시체조차 건지지 못하였다.

로동재해는 1966년~1970년에 2배로 늘었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새 전쟁 준비책동, 기업주들의 가혹한 착취, 상상을 초월하는 로동강도와 로동조건의 불비 등으로 로동재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다.

로동재해의 증가

년도별	발생건수	증가률(%)
1966	45133	100
1967	62939	146
1968	64567	184
1970	86803	201

1971년에 로동재해로 발생한 사상자는 4만여명, 탄광지대의 하나인 남조선 강원도 녕월지구에서는 1천 385명

을 냈다.

1972년 상반년간에 남조선 광업부문에서 굴이 무너지는 등 커다란 사고만도 2천 71건으로서 전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로동재해건수의 114%로 증가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산림조성과 하천정리에는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 않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풍수해로 입는 피해가 막대하며 수많은 리재민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풍수해 피해정형

(년도)	(피해액)
1961	17억 4611만 1천원
1964	33억 9346만원
1970	203억 9432만 1천원

1972년 8월중순에 내린 비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에서만도 1천 183명의 사상자와 59만여명의 리재민을 냈고 264억 7천여만원의 피해를 보았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남조선의 방송, 신문들도 이런 비극을 하늘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납득이 안간다 라고 보도하였다.

이해 또한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전쟁연습소동으로 말미암은 폭발물사고도 더욱 늘었다.

이해 5월 25일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서는 돈이 없어 학교에도 못가고 매일과 같이 넝마주이를 해가며 살아가고있던 박승훈소년을 비롯한 9명의 어린이들이 파철을 줏다가 미제침략군놈들이 내버린 폭발물이 터져 일시에 무참히 목숨을 빼앗겼다. 또한 10월 13일 경기도 가평군 상면 련화리에서는 로케트포탄이 터지는 바람에 남조선《국군》에 강제로 끌려나간 병사들과 마을주민들 7명이 생명을 빼앗기고 16명이 중상을 당하였다. 이것은 미제침략자들의 범죄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 남조선주민들이 당하는 재난의 한두가지 실례들이다.

이 밖에도 남조선에서는 익사사고, 가스중독사고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있다.

1954～1971년까지 가스중독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만 5천여명에 달한다.

1972년에 경상북도에서만도 전해보다 40%나 더 많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연탄가스때문에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다.

남조선에서는 또한 전기사고가 《매년 20%씩 증가》하여 주민들이 생목숨을 잃거나 불구자로 되고있다.

수령님 만수무강하옵소서

암흑 천지 남녘땅에서 모대 기는 인민들우에
민족영웅 4월의 태양 밝고 밝은 빛을 뿌리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 충성으로 축하합니다
김일성원수님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미제놈과 앞잡이들의 파쑈광풍 불어치는데
우리 앞길 밝혀주시고 승리에로 령도하시네
남녘의 땅 청년학도의 경애하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조국통일 달성을 위해 조선혁명 완수를 위해
주체사상 높이 받들고 목숨으로 빛내여가리
수령님께 충성다지는 무명전사 돌봐주시는
김일성원수님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노래는 남조선의 한 청년혁명가가 우리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실것을 축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담아 작사, 작곡한것으로 여기에는 그 가사만을 싣는다.

음악전문가도 아닌 그가 충성의 노래를 짓게 된것은 일편단심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할 한마음에서 출발한것이다.

그는 이노래를 짓기 위하여 원쑤들이 득실거리는 환경속에서도 남몰래 조국의 노래들과 악보들을 손에 넣어 연구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이 학대와 주림에 지쳐 혼곤히 잠든 야반삼경에도 쉼없이 붓을 달리여 마침내 자기를 어엿한 남조선혁명가로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를 완성하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꾸준한 투쟁에 의하여 지난해 7월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으며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였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남북적십자회담도 성과적으로 진척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족앞에는 새로운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주는것입니다.》 (1973년 《신년사》, 단행본, 5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립장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특히 그이께서 1971년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은 조국통일위업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8월 6일 연설이후 조국통일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는 정세추이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1972년에 여러차례에 걸쳐 하신 외국기자들과의 담화에서와 여러 기회에 하신 연설들에서 남북협상제안을 더욱 구체화하시였으며 평화협정의 체결, 무력축소, 련방제의 실시 등 나라의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주동적인 방침들을 거듭 제시하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탁월한 조국통일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온갖 난관과 장애를 이겨내면서 확고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우리의 위업앞에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이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증시하는것이다.

통일문제해결의 강령적지침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의 초청에 의하여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중앙정보부장을 만나신 석상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3대원칙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하며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를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3대원칙은 통일문제해결의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또한 남북간의 제도상 차이는 있지만 호상 신뢰하고 호상 존중하는 조건에서 전민족적단합을 이룩할것을 주장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한 담화》, 단행본, 14페지)

그이께서 제시하신 3대원칙은 통일문제해결에서 초석으로 되는 근본원칙이며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립장이다.

그이께서 천명하신 자주성의 원칙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통일문제해결에 구현한것으로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조국통일원칙 가운데서도 기본 핵을 이루고있다.

통일문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조선인민자신이 주인이 되여 처리하는 자주적원칙에 튼튼히 의거하지 않는 한 그의 해결을 기대할수 없다.

자주성의 원칙에서 벗어나 외부세력에 의존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게 되여 민족의 자주독립을 잃게 할 따름이라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자주적조국통일원칙은 민족문제는 오직 그 나라 민족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들 자신의 손으로 해결되여야 한다는 민족자결원칙에 완전히 맞는다.

자주성의 원칙은 민족자결권과 그 요구에 맞을뿐만아니라 또한 그것이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전제조건으로 된다.

조국통일의 자주적원칙의 정당성은 또한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우리 인민의 실제적능력, 민족주체적힘에 의거하고있다는데 있다.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이 하나로 단합한다면 우리는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을 능히 자주적으로 통일할수 있다.

때문에 자주적원칙은 조국통일의 지침의 하나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의 다른 하나인 사상, 리념, 제도의 차이를 넘어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자주적통일의 중요한 전제의 하나이다.

인공적인 국토량단상태를 끝장내고 갈라진 민족의 뉴대를 다시 회복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전민족의 애국력량을 단합함으로써만 해결될수 있다.

통일문제를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배척하는 방법으로써는 풀수 없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안들은 나라의 남북반부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존재하는 현실적조건에서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주체적힘으로 남북이

사상, 리념, 제도의 차이를 넘어 갈라진 민족의 단합과 두 지역의 합작이 실현되여야 한다는데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그것은 민족적리익의 견지에 철저히 기초하고있다.

남북이 힘을 합쳐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면 우리의 힘을 몇배로 강화할수 있으며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능히 물리치고 통일을 위한 민족의 지상과업을 성과있게 수행해 나갈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의 또다른 하나인 조국의 평화적통일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통일문제해결에서 시종일관하게 견지하여온 기본원칙이다.

무력적방법으로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것으로서 그것은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는 길이 아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도하고 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나라이며 우리 인민은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국가사회제도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시종일관 평화를 주장하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왔다.

우리 나라에서 정세가 첨예화되여온것은 오로지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인민을 반대하여 끊임없이 침략과 전쟁 정책을 실시하여 왔기때문이며 국내외 반동들이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떠받들고 충실히 집행해왔기때문이다.

남조선측이 조국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이룩할데 대한 원칙에 동의한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평화통일원칙이 가져온 귀중한 열매이다.

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남북회담은 새로운 한 세대가 자라도록 지속되여 오던 남북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길을 열어 놓았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념원과 리익에 전적으로 맞는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민족최대의 숙원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나갈수 있는 귀중한 밑천을 마련하여 놓았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동시에 오래동안 끊어졌던 민족적련계를 회복하고 민족화해의 분위기를 소생시키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각방으로 앞당겨 나갈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공동성명에서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지적한것은 통일위업의 실현에서 근본의 근본으로 되는 문제를 해결한것으로 된다.

또한 쌍방이 조국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이룩할데 대하여 합의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우에서 달성한 또 하나의 커다란 승리로 된다.

남북공동성명에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지적한것은 역시 통일문제해결에서 지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

쌍방련락대표들의 예비적접촉이 있은후 마련된 평양회담과 서울회담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남북조절위원회구성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쌍방은 이와 같은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진것과 관련하여 이를 확인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남북공동성명에 조인하고 7월 4일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동시에 발표하였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작은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않으며 불의의 군사적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련계를 회복하며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부합된다고 확신

나라의 북반부와 남반부사이의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 그것은 민족의 인공적분렬로 말미암아 생긴것이다.

우리가 자기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한다면 능히 단결할수 있는것이다.

공동성명은 이밖에도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과 사고를 막기 위한 적극적조치를 취할데 대해서와 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할데 대하여 밝혔다.

이 모든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가 그의 실현을 시종일관 주장해온것으로서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끊어졌던 민족적련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리해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조치로 된다.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도 경제, 문화 교류와 인사왕래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통일의 길을 넓혀가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할것이다.

또한 남북적십자회담은 쌍방이 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데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분렬로 말미암은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줄데 대한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받게 되였다.

특히 이 모든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남북대표들로써 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한것은 남북회담이 이룩한 중요한 성과이다.

이것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실제적으로 풀어나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으로서 통일위업의 실현에서 또 한걸음의 진전으로 됨은 더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을 달가와하지않는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반동들은 입으로는조선의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지지하는척 하면서 사실에 있어서는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계속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들은 비록 겉으로 평화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에도 현상이나 유지하고 분렬을 영구화하며 자기의 권력을 보존하는 량면전술에 집요하게 매여달리였다. 그것은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하여온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의 시종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열리게 된 북과 남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국면은 이해에 견지되여 나아갔다.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반향

남조선의 각계층인민들의 반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모든 방안과 제안들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뿐아니라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과 각계층인사들속에서도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1972년 《신년사》, 단행본, 21페지)

남북고위급회담과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27년동안이나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면서 온갖 고통을 다 겪어온 남조선인민들을 한없이 격동시켰으며 온 남녘땅을 조국통일에 대한 환희와 열정으로 들끓게 하였다.

서울에 사는 한아무개 주민은 방송에서 울려나오는 공동성명을 듣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말하였다.

공동성명의 여러가지 내용은 《정말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앞을 가리울만큼 반가운 소식들이다.

이 기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조선의 한 방송은 《오늘의 감격에 찬 기쁨의 함성은 일제통치하에서 해방되던 지난 8.15조국광복의 감격을 재현하는듯 했다.》라고 전하였다.

남조선신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남조선당국대표를 접견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 감격의 함성을 올렸다고 쓰고 《공동성명이 나붙은 게시판에는 길가던 사람들뿐아니라 공사장인부들, 행상 등이 몰려들어 내비는 보슬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다 충격적인 발표라고 환희에 휩싸였다.》라고 보도하였다.

남북공동성명을 실은 신문에 정중히 모셔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영상 앞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분렬로 하여 겪고있는 자신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면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실제적가능성과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신 어버이 수령님께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겨워 눈물을 머금었으며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그이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되고야만다는 굳은 신념이 넘쳐흘렀다.

서울에 사는 한 로동자는 수령님의 영상을 처음으로 뵈옵고 언제나 부르고싶었던 《김일성원수 만세!》를 목청껏 부르면서 그이의 따뜻한 손길이 남녘땅에도 미칠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오래전부터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읽고 또 읽어온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을 이웃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주기도 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특히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그리고 북과 남의 우리 인민들끼리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이룩하기로 합의한데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였다.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악랄화되는 범죄적책동을 폭로하면서 충청남도에 사는 한 주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동안의 정세로 보아 우리 생애에는 통일의 기쁨을 못볼것만 같아서 암담하고 마음이 무거웠었다. 그런데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듣고 통일이 가까와져서 기쁘기 한이 없다.》고 말하였다.

감격과 흥분속에서 7월 4일을 맞이한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어민, 도시빈민들도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전국이래 최대의 뉴―스》로, 《수천년의 우리 나라 력사에 영원히 기록될 빛나는 청사》로 《남북통일의 밝은 서광이 비친것》으로, 《남북이 마음대로 오고갈수 있는 계기》로 환영하면서 《평양과 모란봉, 금강산을 볼 날도 멀지 않았다.》고 환희로 들끓었다.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원쑤들에 의하여 남조선에 끌려가 갖은 고생을 겪어온 북반부출신주민들에게 더없는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북반부에 고향을 둔 한 주민은 《헤여진 가족들의 생사를 알지 못해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다 말할수 없다.》고 하면서 《정말로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남북으로 갈라져있는 가족들이 다 만날 길이 되여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다른 주민은 《고향을 이북에 둔 우리로서는 가슴이 막힌것이 확 터지는 것같은 감격과 환희를 느낀다.》고 말하였다.

남조선의 사회계와 각종 단체들 그리고 각지 대학생들, 언론계에서도 공동성명을 열렬히 지지환영하였다.

남조선의 한 체육단체관계자는 《남북간교류의 신호탄을 던지는데도 역시 스포츠》가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각지 대학생들 역시 《통일이 한발작 다가섰다.》고 하면서 공동성명의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어느 대학생은 수많은 학생들앞에서 《상당히 충격적이고 감격적이다. 김일성원수님께서 남조선당국의 대표를 만난 그 자체로서도 큰 정치적의의가 있다. 이 성명은 그야말로 민족사적이며 세계적인 송가》이다라고 말하였다.

남조선의 한 언론단체는 성명에서 《이 감격적인 남북공동성명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달성함에 있어서 내외정세와 온 국민의 요망에 부합한 력사적인 결단임을 확신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인정하고 4분의 1세기이상이나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한 영화인단체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북공동성명은 우리 영화인에게 뿌듯한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겨레의 얼굴에 서려있던 주름살을 펴주었다.》

남조선의 한 종교단체는 남북고위회담이 진행되고 거기에서 이룩한 주요한 합의에 기초하여 공동성명이 발표된것은 27년동안이나 《민족과 국토를 분단하고있던 민족적질식상태에 끝장낼 성실한 노력의 표현이며 평화통일을 향하여 한걸음 내디딘것》이라고 지

적하였다.

남조선각계에서는 평화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이 새로운 진전에 기초하여 민족적련계를 회복하고 서로 리해를 전진시키기 위하여 북과 남사이에 제반교류를 활발히 실시할데 대한 념원을 표시하였다.

남조선의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이것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며 깊은 감명을 자아내는 사건이다. 이제까지 상상으로만 가능하던 세계의 일단이 생생한 현실로써 우리앞에 나타난것이다》신문은 북과 남의 고위급대표들이 서로 오고가면서 접촉한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 다음 《그것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야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어쩔수 없는 시대의 추세를 즉감한다.…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연한 현실정황이다. 여기서 되돌아갈수는 없는 일이며 되돌아가서도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우리 민족은 《아세아대륙의 일각에서 수천년동안 고유의 말과 글과 풍속과 문화, 예술을 지켜온 세계에도 드문 단일민족》이며 《우리 민족을 갈라놓은 책임이 결코 우리 민족자체에 있지 않다는 점을 민족적긍지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민족자신의 힘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한 신문은 사설에서 우리는 분명히 중대 변화와 새로운 견해와 립장을 개척할 력사적시점에 서있다. 급기야 국토량단의 장벽을 기어이 뚫고 정치적접촉의 높은 수준에서 남북간에 직접 대화의 길이 설정된것이다.

이 새로운 사태발전은 남과 북을 막론한 온 겨레의 일치한 념원을 반영했음은 틀림없다 라고 썼다.

또한 사설은 우리 민족은 비록 외세에 의하여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살아왔지만 《결코 적이 될수 없는 한줄기의 동포》라고 쓰고 《모든것은 우리자신에게 달려있으며 우리의 운명을 이러저러한 외세에 내맡길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서해안 일대의 10만 어민들은 남북바다를 자유로이 오가면서 마음껏 고기잡이를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나섰다.

남조선인민들의 가슴마다에서 힘차게 맥박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경모의 정과 통일의 불같은 념원은 그이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조국통일을 이룩함으로써만 남녘의 겨레들도 수령님을 모시고 다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부터 울려나온것이다.

그러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대한 합의 및 발표는 우리 겨레의 자랑일뿐아니라 그 민족적긍지를 세계에 그대로 보여준 것》이며 《합의된 3대원칙은 김일성원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주장하여오신것》이며 《3대원칙합의는 민족의 큰 경사》라고 하면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며 흠모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진 첫 시기부터 시종일관하게 조국통일을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남북공동성명의 기본내용을 이루고있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제시하심으로써 남북조선인민들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한결같이 《이번 공동성명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시종일관 천명하여오신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이것은 바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방침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말하여주는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남북고위급회담과 여기에서 합의된 남북공동성명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내놓으신 구체적인 조국통일방침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공동성명에 담긴 모든 조항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적방침이 그대로 구현되여있다.

오직 이 길만이 분렬된 우리 강토와 민족을 통일하고 미제국주의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남녘동포들을 구원할수 있는 길이라는것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된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해외동포들속에서의 반향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해외동포들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높이 받들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조국통일의 영광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를 가다듬고 있다.

《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엔 꿈인지 생시인지 내귀를 의심하였다. 나는 그저 두손을 모아 수령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몇번이고 외우기만 하였다.》이렇게 흥분된 어조로 말하면서 총련 가나가와현 요꼬하마지부 나까무라 제1분회 박분회장은 다음과 같이 계속했다.

《이번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불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나온것으로서 이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방침의 위대한 승리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로 그대로 조국통일이 되여간다는것을 온 몸으로 느꼈다. 통일된 조국강산이 환히 내다보이는것만 같다. 새로운 신심과 힘이 용솟음친다.》

녀맹 효고현 니시고베지부관하에 있는 윤동포녀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가셔주시려고 심려하고계시기에 오늘 이처럼 남북협상의 첫 열매가 맺어진것이다.

우리 인민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조국의 통일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시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오신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생각할 때 감격의 눈물을 금할수 없다. 수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총련 후가이도 하꼬다떼지부관하에 있는 리동포상공인은 《이번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밝혀오신 조국통일문제해결의 가장 정당한 지도적지침이며 우리 겨레를 민족적대단결에로 고무하는 애국의 기치이며 조국통일의 서광을 비쳐주는 휘황한 등대이다. 참으로 남북공동성명은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고무적힘으로 된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또한 조청 아이찌현 나고야지부산하에 있는 김동포청년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달성한 이 커다란 성과는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옳바르게 이끌어주고계심으로 하여 이루어진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격동된 시각에 우리 조선청년들의 피가 어찌 끓지 않을수 있겠는가.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몸바침으로써 수령님께 충성다할것이다.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은 없다.》

고 결의를 다지였다.

《남북조선의 고관들이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회담을 가졌다니 이것은 남북을 가로막고있는 두터운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총련 효고현 히가시고베지부 시노노메분회의 박동포는 《이것은 해방후 27년동안 영킨 호상간의 박해와 불신임이 풀려나가는 실머리를 찾는것이며 앞으로 무슨 문제든지 협상의 방법에 의해서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말해주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교또부의 어느《민단》산하동포는 《김일성원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남북사이에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민족이 단결하여 통일하자는 천만번 정당한 방침을 그 누가 반대하겠는가, 옳은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법칙이다》라고 말하였다.

미에현의 한 《민단》간부는 《어떤 자리에서라도 총련간부들과 한자리에 모여앉아 서로의 신뢰와 존중관계를 확립하고 건설적이고 허심하게 조국통일에 이바지할 방도를 론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단중앙은 총련파의 접촉과 대화에 외면하는 습성을 시정하고 재일교포들속에 있는 벽을 허물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것이 조국통일에 기여하는 길이다. 나는 또한 민단중앙이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총련과 함께 지지행동을 벌릴것을 주장한다》고 말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총련산하 동포들과 함께 《민단》산하 동포들 역시 조국통일의 새 아침이 밝아올 래일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결의에 차넘치고 있다.

세계인민들속에서의 반향

평화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공정한 사회여론은 한결같이 남북공동성명을 열렬히 지지환영하면서 이러한 성과는 오직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당과 인민을 힘있게 이끌어주심으로써만 이룩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보내온 축전에서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는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 즉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데 대한 방침은 조선인민의 통일을 위한 튼튼하고도 확고한 기초입니다.

특히 이 3대원칙에 기초한 공동성명의 발표는 김일성동지의 예리하고도 세련된 사상의 승리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보내온 축전에서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북조선사이에 회담이 진행된것은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됩니다.

우리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합의를 본것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내놓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로선과 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는 김일성원수님께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마음속으로부터 경의를 표한다. 바로 원수님의 숭고한 념원과 불면불휴의 노력이 오늘 이와 같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 김일성원수님께서 거듭 밝히신 조국통일방침에 기초한 북과 남사이의 회담과 이번 공동성명은 조선인민자신의 힘에 의한 자주적평화통일의 력사적진전으로서 나는 이를 열렬히 환영한다.》

세계민주청년련맹 서기장 알뻬떼 루즈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보내온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커다란 사변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당신께서 거듭 제시하신 정당한 방안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기울인 일관한 노력이 가져다준 결과입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안을 접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사실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침이 옳으며 생활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회장 구노 쥬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남북공동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환영한다. 이 력사적이고도 획기적인 사변은 무엇보다도 분렬로 인한 온 민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구상을 내놓으시고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심혈을 기울여오신 김일성원수님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이다.》

일조협회 리사장 하다나까 마사하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의 사태발전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에 튼튼히 의거한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이 얼마나 정당한것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북공동성명은 바로 이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외교정책위원장 대리 마쯔모도 젠메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북조선통일을 외부세력에 의존하거나 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또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않고 자주적이며 평화적으로 실현하며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는 남북공동성명이 7월 4일에 발표되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념원이며 그 누구도 방해할수 없는 그들의 응당한 권리이다.》

그는 미제국주의가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것이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로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그만두며 《일한조약》을 폐기할것을 요구하였다.

총평의장 이찌가와 마꼬도는 자기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실로 력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 계시는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결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때까지 조선인민에게 수많은 재난을 들씌워왔다.

이제는 남조선에 눌러붙어 있을 아무러한 《근거》도 없어진것만큼 미제는 모든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 또한 남조선 당국자는 외국세력에 의존하는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조국통일을 원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목소리에 허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합의된 공동성명의 내용을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

우리 일본의 로동계급은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보다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것이며 일본정부가 이때까지 지속해온 조선의 내정문제에 간섭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시정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다.》

꾸바에 있는 브라질사회활동가 싼마리노 에메니오는 자기의 담화에서 남북공동성명을 열렬히 지지하면서 《27년간이나 남북을 가로막았던 장벽은

허물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민족단결의 길이 열리였다. 이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위대한 승리이다.》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보내온 축전에서 모리따니인민당 전국 정치국 성원이며 모리따니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바 알라싼느는 다음과 같이 썼다.

《…공동성명이 발표된것은 당신께서 제시하신 남북조선의 접촉과 협상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하여줍니다.

전체 조선인민의 운명과 귀국의 번영을 한몸에 지니신 당신께서 시종일관하게 천명하여오신 조국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정당한 방침이 반영되고있는 이 공동성명의 발표는 당신께서 해방후 27년동안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기울여오신 불면불휴의 노력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이 력사적인 사변은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가장 빛나는 승리이며 당신의 진실하고 세련된 현명한 령도의 결과입니다.》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서기장 유세프 엘 세바이는 남북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환영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달성한 이러한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미국 《가디언》지 편집국장 재크 에이스미스는 남북공동성명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의 진보적기자들은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관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이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인민일보》는 사설에서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3대원칙은 조선인민에게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가리켜주었다. 이번 조선의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거둔 적극적성과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로선의 거대한 승리이다.》라고 썼다.

로므니아신문 《쓰끈떼아》는 로므니아인민들이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도달된 합의를 조선인민의 운명과 그리고 아세아와 전세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위업을 위하여 특별히 중요한 조치로 인정하고있다고 썼다.

신문은 분렬된 조선에서 4분의 1 세기이상이나 조선인민의 의사에 어긋나게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속되여온 사실을 상기시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신문은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해 언급하고 바로 력사적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원칙들은 통일문제의 건설적인 해결과 통일성취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안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은 이처럼 국제적으로 광범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성원이 날을 따라 더욱더 커갔다.

남북조절위원회 사업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후 북과 남사이에는 접촉과 협상이 거듭되였다.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리행하고 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회의가 영광스러운 수도 평양에서와 그리고 서울과 판문점 등지에서 련이어 열렸다. 여기에서는 북과 남사이에 각 분야에 걸쳐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할데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상설적인 민족의 공동기구로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확정하는 등 일련의 합의를 보았다.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회의와 남북조절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합의들은 쌍방공동성명의 정신을 구현하고 그 합의사항을 리행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전진도상에서 이룩된 또하나의 성과였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오로지 시종일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노력해온 결과이다.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1차회의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1차회의는 1972년 10월 12일 판문점 남조선지역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남북공동성명발표이후의 정세를 분석하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문제들에 대하여 쌍방이 솔직하고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첫 회의의 소집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그이께서 시종일관 천명하여오신 북과 남사이의 폭넓은 접촉과 협상을 마련할데 대한 구상의 귀중한 열매이다.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하루속히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에 의하여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1차회의가 마련되게 되였다.

회의에서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의 북과 남의 제문제를 합의하고 이미 쌍방이 합의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남북조절위원회를 앞으로 구성운영할것을 합의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회의 조선인민들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광스러운 수도 평양에서 1972년 11월 2일~4일까지 사이에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2차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 끊어졌던 민족적련계를 회복하며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북과 남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는 문제, 북과 남사이의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북과 남사이에 제반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협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할데대한 문제 등 중대한 문제들을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리행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2차회의의 4일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쌍방간에 교환하였다.

1.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7월 4일부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발전시키며 각 분야에서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남북조절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ㄱ.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ㄴ.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 사이의 광범한 정치적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ㄷ. 북과 남사이의 경제, 문화적 및 사회적교류와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의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ㄹ.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ㅁ. 대외활동에서 북과 남이 공동보조를 취하며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적긍지를 선양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3. 남북조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ㄱ. 남북조절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간사위원 1명,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수는 필요에 따라 증가시킬수 있다.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및 위원은 상(장관)또는 부상(차관)급으로 하되 사전협의를 거쳐 각각 쌍방 공동위원장이 임명한다.

ㄴ. 남북조절위원회안에 간사회의를 둔다.

간사회의는 쌍방 공동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협의, 결정하고 그의 집행을 보장한다. 간사회의는 쌍방 간사위원과 각각 간사 2명으로 구성한다.

ㄷ. 남북조절위원회안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조절위원회사업이 진척되는데 따라 설치하며 그 기능과 구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따로 규정한다.

ㄹ,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사무국을 판문점에 둔다.

공동사무국장은 쌍방이 각각 1명씩 임명하며 그 밑에 필요한 수의 인원을 둔다.

4. 남북조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ㄱ. 남북조절위원회는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진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판문점에서도 할수 있다.

ㄴ.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는 2~3개월에 1차, 간사회의는 1개월에 1차 진행하며 이밖에 쌍방의 합의에 따라 림시회의를 개최할수 있다.

ㄷ. 남북조절위원회는 공개회의 또는 비공개회의로 한다.

ㄹ.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와 간사회의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수의 전문일군들과 공동사무국 성원들을 참가시킬수 있다.

ㅁ. 남북조절위원회 최종합의는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합의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동 사무국을 통하여 동시에 발표한다.

ㅂ.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세칙은 따로 규정한다.

5.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수 있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조절위원회를 내올것과 그의 운영에 관한 이상 합의서에 서명교환하였으며 서로 비방중상을 하지말데 대한 남북공동성명의 조항에 따라 1972년 11월 10일 평시를 기하여 대북, 대남방송과 군사분계선상에서의 고성기에 의한 대북, 대남방송, 상대방지역에 대한 삐라살포를 그만두기로 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2차회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과 기대에 맞게 자기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마침으로써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촉진시키는데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3차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광스러운 수도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2차회의의 합의에 의하여 1972년 11월 30일~12월 1일까지 사이에 서울에서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3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제2차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고 그것을 발족시킬것을 합의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회의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3차회의에서 정식으로 발족하기로 결정된 남북조절위원회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제1차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남북공동성명정신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2차회의의 합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에 걸쳐 교류하며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할데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쌍방은 남북조절위원회가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속히 간사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사무국을 내오며 남북조절위원회 운영 세칙을 만들데 대해 합의하였다.

조절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고 자기 사업에 착수하게 된것은 북과 남의 호상관계발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진으로 되며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된다.

조절위원회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말그대로의 민족의 공동기구로서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기대에 부합되게 자기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우리측은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우리측은 북과 남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각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으로 합작할것을 거듭 주장하였다.

경제분야에서는 우선 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즉 북반부에 풍부히 매장되여 있는 질좋은 철광석을 공동으로 개발리용하며 남조선에 있는 지하자원을 답사하고 개발하는데서도 기술, 설비, 로력을 합쳐 함께 사업하며 북과 남이 서로 어장을 개방하고 어민들이 동서남해의 그 어디에서나 마음대로 고기를 잡을수 있는 조치도 취할수 있다.

또 남조선에서 관개공사를 하는것도 서로 협력할수 있으며 북과 남이 힘을 합친다면 남조선에서 수리화도 할수 있다.

문학분야에서도 우리의 민족어를 통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에서와 우리 나라의 력사를 연구하는 사업에서 그리고 문학, 예술, 과학, 교육, 보건, 체육분야에서 쌍방이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할수 있다. 즉 무대예술의 교환공연, 영화의 공동제작, 필림의 교환, 공동전람회의 개최 등 여러가지 사업을 조직진행할수 있으며 단일한 민족예술단과 체육팀을 구성하여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할수 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북과 남사이의 정치적합작이 실현된다면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각 분야에서의 합작을 추진시킬수 있으며 특히 련방제 같은것을 실시하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결정적국면을 열어놓을수 있다는것을 겸하여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회의에서 군비경쟁을 그만두고 군비를 축소하고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할데 대해서도 제기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측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접수하지 않았다.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실현

하는데 어느 분야는 먼저 할수있고 어느분야는 뒤로 미루어야 한다거나 어느분야는 할수있고 어느분야는 할수없다는 문제가 설수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측은 경제와 문화, 정치, 군사와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합작을 실현하는것을 늦추어야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남북합작을 적극 추진시킬것을 주장한것이다.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남조선적십자사 사이의 제1차 본회담이 1972년 8월 30일～9월 2일에 걸쳐 영광스러운 수도 평양에서 열렸다.

1971년 9월부터 근 1년동안에 걸쳐 진행되여 온 예비회담이 성과적으로 끝나게 됨으로써 마침내 제1차 본회담이 열리게 된것이다.

25차의 예비회담과 16차의 실무자회의를 거쳐 쌍방간의 합의된 사항을 기초로하여 본회담이 진행되게 된것이다.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에서 이룩된 성과와 그 결과에 마련된 본회담의 개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이며 그의 실현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옳바르게 이끄시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본회담이 열리게 됨으로써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대표단과 정계, 사회계 인사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 수원과 기자단 등이 남북의 장벽을 허물고 평양과 서울을 서로 오갈수 있게 되였다.

남북적십자 회담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분렬로 인한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의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그 숭고한 사명이 있다.

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예비회담에서 합의확정된 본회담의 의정을 그대로 본회담의 의정으로 채택하며 조국통일의 3대원칙이 천명된 남북공동성명정신에 따라 본회담을 하루빨리 성사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쌍방적십자단체의 확고한 결의가 담긴 다음과 같은 공동합의서가 채택되였다.

1. 남북적십자회담 쌍방대표단은 1972년 6월 1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20차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에서 채택한 다음과 같은 남북적십자회담의제를 1972년 8월 30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확인하고 이를 남북적십자회담 의제로 한다.

1)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3)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4)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문제

5)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2. 쌍방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이 천명된 남북공동성명과 그리고 적십자인도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남북적십자회담 의제로 설정된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토의해결함으로써 남북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하루속히 풀어주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의 디딤돌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2차회의 남북적십자단체들의 본회담을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진행함에 대한 예비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8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광스러운 수도 평양에서 남북 온 겨레들과 인민들의 열렬한 축하속에 그 개막을 선포한데 이어 1972년 9월 13일～15일까지사이에 걸쳐 제2차회의가 서울에서 열리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단장, 남조선적십자사 대표단 수석대표의 연설이 있은 다음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대표단단장은 숭고한 인도주의정신이 쌍방적십자단체들의 공동사업의 모든 고리들에서 철저히 구현되게 하기위하여서는 매개 의정토의에서 자유로운 원칙, 민주주의원칙이 관철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남조선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은 남북으로 흩어져 고통받고있는 수많은 겨레들의 운명과 직결되여왔으며 민족최대의 과업인 조국통일문제와도 잇닿아있다고 하면서 이 중대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해나가자면 쌍방대표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각계각층 인민들의 거족적인 협조와 지원도 그에 못지 않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남조선에서도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줄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였다.

회의에서 남조선적십자사대표단 수석대표의 연설이 있은 다음 우리측 자문위원들이 축하연설을 하였으며 남조선측에서도 남조선적십자회 회장과 자문위원들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쌍방간에 토의합의된 사항에 대한 합의서가 9월 14일 서울에서 발표되였다.

이 합의서는 13일에 발표하기로 이미 합의되여 있었으나 남조선측이 끌어왔기 때문에 이날에야 발표된것이다.

합의서에서 지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쌍방은 온 겨레의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의제로 설정된 모든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민주주의적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남북공동성명의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적십자인도주의정신을 철저히 구현한다.

2. 쌍방은 제1차 및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하여 더욱 다져진 쌍방간의 리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하여 제3차남북적십자회담부터는 의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 제3차남북적십자회담을 1972년 10월 24일 평양에서, 제4차남북적십자회담은 1972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제3차회의 남북적십자회담 제3차회의가 1972년 10월 24일～26일까지사이에 영광스러운 수도 평양에서 열렸다.

우리측은 회의에서 다섯가지 의제를 토의해결하는데서 반드시 구현하여야 할 5개원칙과 첫 의제에 대한 네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의 주동적인 발기에 의하여 합의확정된 의제토의의 원칙들에 기초하여 회담앞에 상정된 5개항목 의제에 대한 실제적인 토의를 시작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본회담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에 대한 립장과 구체적제안들을 내놓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단장은 쌍방이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다섯가지 의제를 토의해결하는데서 반드시 구현하여야 할 원칙들을 제기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회담사업에서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이며, 둘째로 제기된 모든 문제에서 민주주의원칙과 자유로운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며, 셋째로 회담사업을 통하여 남북간의 호상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민족의 화목과 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을 견지하는것이며, 넷째로 모든 문제들의 토의에서 적십자의 인도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며, 다섯째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업이 응당한 결실을 맺도록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거족적인 전인민적사업으로 추진시켜나가는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표단이 제기한 이러한 원칙들은 회담을 통하여 겨레들의 고통을 가장 빨리 폭넓게 덜어주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촉진함으로써 민족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사명을 다하려는데로부터 출발한 가장 정당한것이다.

우리측 단장은 다음으로 본회담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남조선의 현정황하에서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이 로출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를 품고 있음을 고려하면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모든 법률적사회적 장애를 제거하며 당사자들과 협조자들이 민주주의적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활동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것.

둘째,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을 원만히 보장하며 남북사이에 호상 리해와 신뢰, 민족적대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쌍방이 적당한 수의 적십자료해해설인원을 각각 상대방 현지에 파견할것.

셋째,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의 범위는 본인의 호소에 따라 정하며 그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방도는 본인의 민주주의적요구와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라 정하게 할것.

넷째, 이상의문제에 대한 합의 사항들을 성과적으로 실행보장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공동위원회를 내오며 필요한곳에는 적십자대표부들을 각각 설치할것.

남조선적십자측에서도 의제 제1항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으나 그것이 의제 제1항과 관련한 부분적인 문제를 좁게 제기한것이였다.

그들은 가족, 친척의 주소와 생사여부를 알아내며 통보하여주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할데 대해서도 가족, 친척의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것인가에 대해서도 말하지않았다.

따라서 우리측과 남조선측 제안간에는 간격이 먼것을 볼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측은 회의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간격을 좁히기 위해 계속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제4차회의 적십자본회담 제4차회의가 1972년 11월 22일~2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0월 24일 영광스러운 수도 평양에서 있은 본회담 제3차회의에서 표명된 의제토의의 기본원칙과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와 관련한 제안들에 대한 실무적토의가 계속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 대표단은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모든 법률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며 당사자들과 협조자들이 민주주의적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활동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사이에 호상리해와 신뢰, 민족적대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쌍방이 적당한 수의 적십자료해인원을 각각 상대방지역에 파견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의 범위는 본인의 호소에 따라 정하며 그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방도는 본인의 민주주의적요구와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라 정할데 대한 문제, 이상 문제들에 대한 합의사항들을 성과적으로 실행보장하기 위하여 적십자공동위원회를 내오며 필요한 곳에 적십자대표부를 설치할데 대한 문제 등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의제 제1항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표단의 제안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이 밝혀진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정신과 적십자의 인도주의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공명정대한 제안이며 분렬된 우리 나라의 현조건하에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폭넓게 덜어주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원칙적문제들을 밝힌 가장 현실적이며 동포애적인 제안이다.

남조선적십자대표단도 제3차회의에서 제기한 일련의 제의를 그대로 주장하여왔으나 차이점을 좁히기 위하여 솔직하고 허심한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를 보았다.

1.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되는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판문점공동사업소를 설치한다.

2. 남북적십자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판문점공동사업소의 기능과 운영절차 및 구성은 따로 토의결정한다.

3.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사항실행을 위하여 그밖에 기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으로 토의결정한다.

× × ×

△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제1차회의

1972년 10월 12일 판문점남조선지역에서

• 남북공동성명정신을 재확인

• 남북공동성명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집행함으로써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

제2차회의

1972년 11월 2일~4일 평양에서

•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할데 대한 문제토의

•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운영문제합의

제3차회의

1972년 11월 30~12월 1일 서울에서

•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회의

1972년 11월 30일~12월 1일 서울에서

• 각분야에 걸쳐 교류하며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할데 대한 의견교환

• 조절위원회가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사회를 구성하고 공동사무국을 내오며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세칙에 대하여 합의

× × ×

△ 남북적십자본회담

제1차회의

1972년 8월 30일~9월 2일 평양에서

• 예비회담에서 합의확정한 의정을 본회담의 의정으로 채택

• 남북공동성명정신에 따라 본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데 대한 합의서 채택

제2차회의

1972년 9월 13일~15일 서울에서

• 제3차회의부터 이미 합의확정된 의정을 본격적으로 토의할데 대해 합의

제3차회의

1972년 10월 24일~26일까지 평양에서

• 본회담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토의

제4차회의

1972년 11월 22일~24일 서울에서

• 의제 제1항에 대한 토의계속

• 합의사항실현을 위하여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판문점공동사업소를 설치할데 대해 합의

합의사항에 대한 남조선 당국자들의 위반행위

남북공동성명에 지적된 쌍방의 합의사항과 그것을 더 구체화한 조절위원회에서의 합의사항들은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전체 인민들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것으로서 그것의 실현은 곧 조국통일을 촉진하는 초석으로 되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그것을 열렬히 지지환영하였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들은 공동성명에 지적된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하지 않을뿐더러 그것을 위반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돌아앉아서 량면전술을 쓰고있으며 공동성명에 지적된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리행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주앉아 회담할 때에는 좋은 말을 하고 뒤에 돌아가서는 우리를 비방중상하며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발언과 활동들을 일삼고있습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25페지)

남조선 일부 당국자들은 공동성명에 서명한 잉크도 마르기전에 그것을 헐뜯는 발언들을 함부로 되뇌이였다. 그들은 공동성명발표후 남조선 《국회》를 비롯한 이러저러한 장소에서 한 발언들에서 《이 몇장의 성명에 우리 운명을 걸수 없으며 또 믿을수도 없다》느니, 《국민은 남북성명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말라》느니, 《공산주의자들은 약속을 헌 신짝처럼 팽개쳐버리는 습성이 있는터이므로 설사 보장을 받았다손치더라도 이 단계에선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공동성명반대를 위한 원외운동을 막지 않겠다》고 하면서 은연중 공동성명을 반대하는 기운을 조성하는 발언들까지 하였다.

이것은 완전히 남북공동성명에 위반됨은 더 말할것도 없다.

공동성명에서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밝히면서 첫째로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지적하고있다. 이 원칙을 구현하자면 외세의존에서 응당 벗어나야 하며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자주성을 고수하는데로 나아가야 할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유엔을 외세로 보지 않는다. 또한 한국에 있는 유엔군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도 외세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것이므로 이북에서 무엇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를 배격할것이다》, 《한국통일은 유엔감시하의 선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유엔은 외세가 아니므로 한국에 유엔군이 계속 주둔하고있는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유엔》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과 미제의 조선침략의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까지도 외세가 아니라고하면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과 유엔군사령부의 폐기는 절대로 반대한다》, 《우리로서는 가급적 더 오래 미군이 이곳에 남아있어 이북의 무력도발을 억제해줄것을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전적으로 어긋나는 불순한 목적에서 출발된 궤변인것이다.

남조선의 일부 당국자들은 조국통일의 두번째 원칙과도 심히 어긋나는 말을 일삼았다.

공동성명에는 호상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함이 없이 평화적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이 원칙을 준수하자면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정세를 칩예화시킬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하고 서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힘써야 할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이 미수복지구라는것은 당연하다》, 《대화의 대결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힘의 뒤받침이 필요하며 그것은 바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장벽을 두텁게 하고 분렬을 조장하며 문제를 협상의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힘》에 의거하여 해결하려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남조선의 일부당국자들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조국통일의 세번째 원칙에 배치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한것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없는 대결에서 대화있는 대결로 넘어갔다.》고하면서 북과남사이의 접촉과 협상을 그 어떤 대결로 묘사하였으며 이 《대결》에서 자기들의 《리념》과 《제도》가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그들은 《우리의 통일정책은 불변하다》고 하면서 그것은 《이질적인 남북고착상태를 자유롭게 살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동질하는것이다》, 《남북통일은 우리의 헌법정신을 리행하는 원칙밑에 이룩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악명높은 《승공통일》론을 그대로 되풀이하는것이다.

공동성명에 지적된 기본원칙들에 배치되는 일부 당국자들의 일련의 발언들과 함께 남조선에서는 괴이한 소동들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공동성명이 발표되던 바로 그날부터 군사분계선 남쪽일대에서는 산악지대비상훈련, 유격훈련, 수색작전훈련과 정전후 최대규모의 군사연습이라고 하는 도하작전훈련이 련이어 벌어지고 미국에서 새로운 전투기자재와 군함들이 계속 남조선에 들어오며 도처에서 《방공》훈련이 거듭되였다.

심지어 그들은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와서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의로운 구국투쟁을 벌려온 김규남, 김질락, 박로수, 정태묵 등 애국자들에 대한 사형을 련이어 집행하였고 북과 남의 접촉과 교류, 조국통일을 주장하여 나선 수많은 남조선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반공법》에 걸어 검거투옥하고 재판에 넘겼다.

그들은 남조선애국자들뿐만아니라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야당세력에 대하여서도 정치적압력을 가하였다. 그들은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 동의하고서도 북과 남의 접촉과 협상을 요구하는 야당인사들을 《반공법》으로 위협하면서 우리와의 접촉을 가로막으려 하였다. 일부특정인의 우리와의 접촉은 《통치권의 행사》이지만 기타 사람들의 접촉은 《법에 저촉》된다는 주장도 바로 이러한 목적을 노린것이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성명을 계기로 류언비어나 무책임하고 무정견한 통일론의는 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이 있으므로 단속할것》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이리하여 숱한 사람들을 처형하였다.

또 어용선전수단들을 동원하여 남조선인민들을 위협하고 쌍방회담을 계기로하여 우리를 중상비방하는 선전깜빠니아를 더욱 소란스럽게 벌리였다.

적십자회담제3차회의를 앞둔 10월 22일부 남조선 신문은 사설에서 남조선측은 《흩어진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문제와 통일문제, 정치문제를 분리해야한다》는 《자세》와 《립장》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측은 《여전히 통일문제의 하나로서 흩어진 가족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립장을 지키고 있다》고 쓰고는 《통일문제와 흩어진 가족의 문제를 구별하여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어떤 신문은 《지난날 회담에서 흔히 목격하던 정치적발언이나 분위기조성은 없애는것이 좋겠다》느니 《정치회담화한다는것은 너무 조급하다》느니 하였으며 어떤 신문은 우리측의 제의가 《막연하고 너무 광범》하고 《장애》

가 조성된다느니 《공론만 일삼는다면 성공》할수 없다느니 하였다.

이런투로 우리측 제안을 시비하는 론조는 23일에도 계속 나왔다.

남조선신문들이 분렬로 인한 겨레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폭넓게 덜어주며 그것을 통하여 북과 남사이의 신뢰와 화목의 정을 두터이하고 조국통일의 디딤돌을 마련하려는 우리측의 공명정대한 립장과 노력을 그 무슨 《정치화》요 《공담》이요 《인도주의에서 벗어나는것이요》하고 선전하여왔다.

《경향신문》은 10월 22일부 남조선에서의 《국민투표》와 관련한 사설에서 《북한파의 대화있는 대결에서 체제적 우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썼다. 특히 이 신문은 같은 날 《대화시대의 우리의 새로운 자세》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측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악랄한 중상비방을 늘어놓았다. 신문은 이 글에서 우리가 기울이고있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을 헐뜯으면서 그 무슨 체제상의 《모순》과 《경제개혁계획》의 《실패》가 《북한이 대화의 길을 이끄는데 간접적인 원인》이 되였다고 썼다. 뿐만아니라 더나아가서 그 무슨 《복지경쟁》에서의 저들의 《승리》는 《조만간에 사회주의의 소멸》을 가져올것이라는 얼빠진 소리를 하였으며 북반부인민들의 《의식구조》의 개변에 대하여 불어대였다.

이와 같은 론조들이 모든 언론이 《계엄령》하에서 《검열》을 받고 나오는 조건을 고려할때 그들의 진의도를 알만하다. 더우기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승리》와 사회주의 《소멸》을 운운하는 것은 《승공통일》의 변형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11월 22일부 《서울신문》은 회담을 위해 서울에 갔던 우리측 성원들에게 남조선에서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결과》를 보게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사회주의제도를 《비교》해보게 할것이라고 썼다. 또 《경향신문》의 사설은 《서울신문》보다 한술 더뗘서 《북한파의 대화있는 대결에서 체제적우월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썼다.

12월 25일 《중앙방송》은 《남북대화가 활기띠기 시작했다고해서 평화통일이 이룩되였다고 성급해서는 안된다.》고 피상한 소리를 한데 뒤이어 26일에는 《공산주의와의 평화는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만 유지》될수 있고 따라서 《국력배양이 계속 요망》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27일에는 《국회를 길러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우월한 립장에 서야 한다》고 불어댔다.

이 밖에도 방송과 통신들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거듭 주장하면서 대화에서 《타결점을 모색하는데만 급급》해 한다면 《천추에 한을 남기게 될 것》이라느니 뭐니하고 떠들어댔다.

뿐만 아니라 로골적인 도발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11월 22일 남조선적십자측은 적십자본회담 제4차회의에 참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대표단을 위한다는 명목밑에 《팔도강산》이란 영화를 돌리였다. 이 영화는 공산주의를 비방중상하기 위해 《승공》이니 《반공》이니 《대결》이니 하면서 《실력배양》과 《승공통일》을 선동하는것을 목적으로 만든것이다. 그런데 남조선측 수석대표와 대표, 자문위원 등 인원들이 다 참가한 가운데 공식행사로서 진행되였다.

12월 8일에 《부산지방검찰청장》이란 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자유》와 《인권》이 억눌리고있다느니 뭐니하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고나서 《한국식민주주의가 북한땅으로 넘쳐 흐르도록 모든 부문에서 력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1973년 새해에 들어서면서부터도 자주적평화통일과는 백해무익한 잡소리를 줴치고있다.

1월 1일 남조선의 《중앙방송》은 《승공통일》을 위한 《노력》이 《북한땅에 메아리쳐 울려 퍼질때 조국통일의 비결》을 《더욱 가깝게 내다볼수있게 될 것》이라고 불어댔으며 1월 2일 사회교육방송은 《북한》과의 《경쟁과 대결》에서 《기필코 승리하도록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떠들어대였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이른바 《신년메쎄지》라는것에서 《대화있는 대결》을 고창하면서 《정신무장의 강화》요, 《방위태세의 강화》요, 《방위군의 육성과 예비군동원체제의 강화》요 뭐요하고 떠들었다. 《국방부장관》의 온당치 못한 발언에 발맞추어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도 그와 비슷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남조선당국자들과 선전기관들에서 쉴새없이 울려나오는 그 무슨 《대결》이요, 《실력배양》이요, 《경쟁에서의 승리》요 뭐요하는것들이 무엇을 노리는것인가는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그것은 민족적단합을 도모하려는것이아니라 남북의 대립을 고취하자는것이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가시려는 것이아니라 그것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이아니라 《승공통일》의 야망을 이루어보겠다는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정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려 한다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더럽히는 언행을 그만두어야 한다.

재 일 조 선 공 민

1972년에 총련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조국과 인민앞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

이해에 총련은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150일간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수령님탄생 예순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사업성과로 가장 열렬히 경축하였으며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대내외에 더욱 빛내였다.

총련은 일군들과 동포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총련 한덕수의장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총련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려놓았다.

총련은 앞을 막아나서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조선사람찾는 운동을 벌려 학생대렬을 더 늘이는 등 민족교육사업을 더 한층 발전시킨것을 비롯하여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존엄과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응당한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견결히 지켜냈다.

총련은 각계각층동포들속에서 민족적단결을 강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힘있게 추진하며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의 진보적력량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시는 육친적배려

60만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조선공민들을 보호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해외조선공민들의 리익과 민족적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부당한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것이며 해외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할것입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단행본, 53페지)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72년에도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새로운 승리와 보람찬 투쟁의 길로 끊임없이 이끌어주시였으며 온갖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신년사와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에게 보내신 새해축전을 통하여 조국인민들과 더불어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1972년에 나아갈 승리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령님탄생예순돐재일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각계각층 대표단을 만나시여 간곡한 교시를 주심으로써 총련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사상리론실천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수령님탄생예순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조국땅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그들을 넓은 품에 따뜻히 안으시고 축하단성원들이 조국에 머무르는 동안 31 일간이나 함께 계시였으며 45차례에 걸쳐 자리를 같이 해주시고 다섯차례나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축하단성원들을 만나실때마다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달성한 성과를 높이 치하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그들의 생활과 건강에 이르기까지 따뜻히 보살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세상에 태여나 아직 조국땅을 한번도 밟아보지 못한 재일청소년들의 절절한 소원을 풀어주시려고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축구소조와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들이 조국을 방문할수 있도록 하여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두차례(8월 18일과 9월 2일)나 조국의 품에 안긴 재일조선어린이들을 만나주시고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을 하여주시였으며 그들의 학습과 생활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교시를 주시는 더 없는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될 무렵인 9월 2일, 재일조선청소년들이 수령님의 곁에서 발길이 떨어지지않아 흐느끼고있는것을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그들을 하나하나 자애롭고 넓은 품에 껴안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수령님탄생예순돐재일조선인축하단 (3월 29일)과 수령님께 드리는 재일동포편지전달이어달리기 대표단(4월 26일), 조국방문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축구소조와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음악무용소조(8월 18일), 남북적십자본회담에 참가한 자문위원과 재일조선인기자단 (8월 26일), 제6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4월 29일), 제7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11월 15일) 등 조국에 돌아온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과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더없는 영예를 안겨주시였으며 귀중한 선물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여 국가적표창의 영예를 안겨주시였으며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조국인민들과 똑같이 자기 대표들을 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에 참가시킬수 있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님탄생예순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에서 최고훈장으로 되는 《김일성훈장》을 한덕수의장을 비롯하여 6명의 총련간부들에게 수여하여주시였으며 이해 2월 7일 수령님을 끝없이 경모하면서 일편단심 그이께 충실하였으며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총련사업과 재일조선인운동에 구현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앞에 크나큰 공헌을 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에게 공화국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높은 배

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리고 재일조선청소년들에게도 《김일성청년영예상》과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하여주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이해 조선대학교 제14회졸업식에 즈음하여 9명의 졸업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주신것을 비롯하여 6명의 재일조선인과학자들에게 박사 및 교수, 부교수증을 수여하여주시는 등 재일동포들에게 표창과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7명의 총련간부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는(12월 12일에 진행된 선거)크나큰 영예를 안겨주심으로써 재일동포들이 해외에 살면서도 나라의 정사에 참가할수 있도록 하여주시였다.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도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 일수록 더 못잊어하시는 친어버이심정 그대로 재일동포들을 한날한시도 잊지않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 멀리 떨어진 이국땅에서 1972년 새해를 맞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조국의 향기그윽한 가지가지의 선물을 보내주시였으며 특히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총련간부들에게 그리고 이해 10월 총련중앙간부들과 각 단일단체, 사업체 책임간부들, 총련 각 현본부위원장들, 공화국의 박사, 교수 부교수, 공훈교원, 공훈예술가, 공훈배우, 공훈체육인의 영예를 지닌 일군들에게, 11월 도꾜조선중고급학교와 요꼬하마초급학교에 어버이사랑이 차넘치는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신것을 비롯하여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선물들을 보내주시였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해에만하여도 다섯번에 걸쳐 16억 7천 580만 5천 800원의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1957년부터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총액은 이해말까지 마흔일곱번에 걸쳐 일본돈으로 무려 128억 9천 214만 6천 233원의 막대한 금액에 달하게 된다.

수령님께서는 이해 4월부터 총련의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주시고 가정생활이 곤난한 학생들에게 취학장려금을 보내주시며 일본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조선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시는 크나큰 혜택까지 베풀어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수많은 교구비품들과 민족악기들을 보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조국왕래의 길을 더욱 넓혀주시고 조국대표단을 련이어 일본에 보내주시였으며 이해에만해도 네번에 걸쳐 귀국선과 여섯번에 걸쳐 무역선을 보내주심으로써 재일동포들이 조국의 따사로운 손길을 몸가까이 느낄수 있도록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이해 여름 일본각지를 휩쓴 큰 물에 의해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접하시자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위로하시여 7월 23일 친히 전보 전문까지 보내주시였으며 30일에는 903만 8천 113원의 막대한 구원금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이렇듯 이해 어버이수령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배려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끝없는 힘과 용기와 신심의 원천으로 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밑에 주체조선,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의 민족적존엄과 당당한 민족적권리를 견결히 지키며 살며 싸우는 재일 동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해외공민이다.

수령님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는 해인 1972년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는 자기들에게 온갖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더욱 끓어번졌으며 그이께 일편단심 충성다할 굳은 결의를 다지면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총련애국과업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총련은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앞두고 수령님께 영원토록 충직하려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한 애국적혁신운동인 《150일간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려 그이의 탄생 예순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이 되는 영광의 날인 4월 15일,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밝아오는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으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수령님을 모시고 그이께 영원토록 충성다할 열화같은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님탄생예순돐경축행사들을 수령님께 영원토록 충성다하려는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심정이 끓어번지는 비둥된 분위기속에서 성대히 조직진행하였다.

총련은 중앙과 각 현본부들에서 경축대회와 축하연회를, 지부와 분회들에서 축하모임을 가지였으며 청년학생들의 충성의 선서모임, 녀성들의 축하대회를 비롯하여 각 단일단체, 사업체, 학교들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조직진행하여 일본의 방방곡곡 동포들이 사는 모든곳에서 수령님께 드리는 송가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끓어넘치는 충성심은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와 선물을 마련하는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편지와 선물을 마련하는 과정은 그이에 대한 60만재일동포들의 뜨거운 충성의 마음으로 수놓아진 영광의 나날이였다.

한달 남짓한 사이에 연 7천 200여명의 재일동포녀성들은 옷차림도 단정히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에 모여앉아 학습하고는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담아, 자신의 모든 정성과 지혜를 담아 한 바늘씩 수를 놓아《충성의 기》를 마련하였다. 15만 각계각층동포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북은 홋가이도 삿뽀로, 남은 규수 나가사끼에서부터 7천 500여리를 달려 도꾜에 도착한 2만여명의 재일조선청소년들은 지난날 부모들이 피눈물 뿌리며 건너갔던 만경창파 동해를 넘어와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60만의 절절한 소원과 충성심을 담은 편지와 축기들을 그이께 삼가 드리였다.

특히 수령님께 충성의 선물을 드리기 위한 사업은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청년학생들, 동포상공인들, 문예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참가밑에 전례없는 커다란 규모에서 진행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떤 동포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60만개의 유리구슬로

꽃바구니를 만들었으며 어떤 분회동포들은 산속깊이 찾아다니면서 질좋은 나무와 돌을 구하고 그것을 수개월에 걸쳐 깎고 다듬었으며 어떤 분회에서는 관하 모든 동포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 충성의 선물을 드리자》라는 구호를 기계앞에 붙여 놓고 힘을 합쳐 축하문을 만들 직물을 두달동안에 걸쳐 정성껏 짜내는 등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여, 60만재일동포들의 최대의 충성심을 담아 6천 500여점의 선물을 마련하여 수령님께 올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경축한 영광스러운 이해에 수령님께서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전체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과 함께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휩싸여 동포들이 사는 곳마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만세!》 소리가 하늘높이 울려퍼졌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모시는것, 이는 수령님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심의 표현이며 수령님을 영원히 따라가려는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뜨거운 념원의 표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나아갈때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차례진다는것을 생활을 통하여 알고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사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신 긍지 드높이 총련애국사업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킬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수령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를 읽고 총련 도꾜도 아다찌지부의 한 일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령님의 력사적연설을 접한 저는 지금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일하는 영예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승리의 신심이 온몸에서 솟구쳐오릅니다.

저는 우선 수령님의 연설을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하여 더 깊이 학습하겠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주체사상의 빛발로 조선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며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기치인 혁명정권을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며 60만재일동포들에게 참된 행복을 안겨주시였으며 그들에게 국내인민들과 똑같이 자기 대표들을 최고주권기관에 참가시킬수 있는 영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힘있게 싸울 굳은 결의를 다음과 같이 다지였다.

《참으로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덕분으로 살아났습니다.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참다운 인민정권이 있기에 조국인민들뿐아니라 우리 재일동포들도 얼마나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게 되였습니까

더구나 어버이수령님의 배려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우리 재일동포들도 공화국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경사스러운 날에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남조선인민들의 처지입니다.

그들도 하루속히 그처럼 흠모하여마지않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우리와 같은 행복을 누리도록 되여야 할것입니다.

조국통일의 그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있는 력사적인 이때에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을 굳게 결의다지게 됩니다.》

재일청소년들은 해마다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1972년 새학기부터 교과서를 무상으로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면서 충성의 결의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돌려주신 이 크나큰 사랑과 배려는 세계의 해외교포교육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일이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사는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이 지닐수 있는 커다란 행복이며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슴은 재일조선청소년 학생들을 한품에 안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으로 한없이 설레이고있습니다.》

이것은 도꾜조선중고급학교교직원, 학생, 학부형들만 가질수 있는 심정이 아니라 일본땅 어디를 가나 세워진 158개의 조선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형들의 한결같은 심정인것이다.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은 이국땅에서 나서 자라 사회주의조국의 품을 그리워하는 자기들의 절절한 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축구소조와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원들을 어머니조국에 불러주시고 최대의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앞에서 눈물을 머금고 말하였다.

《아버지 원수님, 참으로 참으로 고맙습니다. 정말 원수님의 해빛보다 따사로운 사랑속에서 마음껏 배우고 또 배우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학생들입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동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며 그 자애로운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넘친 말씀까지 해주시고 우리들의 공연을 보시고는 크게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원수님께서 우리 동무들의 손을 잡아주신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손을 잡아 주신것이며 원수님께서 우리 동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신것도, 동무들에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것도 다 우리들 모두에게 해주신것이라는것을 저는 알고있습니다.

저는 원수님의 이 사랑을 가슴깊이 아로 새기고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소년단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 동무들이 수령님을 직접 만나뵈옵고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열렬히 축하드리였으며 수령님께 감사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였으니 꿈만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조국에 간 동무들의 영광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영광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

저는 수령님의 이 사랑, 이 은덕에 어김없이 보답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한덕수의장선생님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해 나갈것이며 언제나 학습과 조청조직생활에서 앞장서 나갈것입니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기 위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72년 새해를 맞이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총련이 새해에도 모든 간부들과 재일동포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주위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한덕수동지를 중심으로 총련조직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믿음직하게 꾸리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1972년에 총련은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동포들속에 불멸의 주체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켰다.

총련은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 등을 보다 정중하게 꾸리고 실속있게 운영하는 한편 1천 900여개의 강연구와 성인교육기관, 집중학습 및 단기강습 등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교양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76만여부에 달하는 로작과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출판하여 보급함으로써 일군들과 동포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였다.

총련 각급 기관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가 제시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를 일군들과 동포들에게 신속정확히 전달하는 한편 동포들로하여금 교시가 나오게 된 환경과 진수, 전반사상과 기본내용, 수행방도, 리론실천적의의 등을 완전히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군들과 동포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토요학습과 2시간학습, 집중학습과 단기강습에 어김없이 참가하는 등 학습규률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였다.

이해에 총련은 신년사와 새해축전, 조선로동당제5차대회보고와 《혁명과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교시》,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등 수령님의 교시와 로작학습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총련은 년초에 각현본부들과 각단일단체, 사업체들마다에서 일제히 1972년 신년사와 새해축전에 대한 집중강습을 조직하였으며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앞두고 10여만명의 각계각층 동포들을 망라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은 우리 인민의 태양이시며 인류의 영재이시다》에 대한 집중학습과 대중강연사업을 조직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총련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학습을 위한 단기강습에만 하여도 1968년 공화국창건스무돐을 맞이하여 힘차게 벌린 《100일간혁신운동》때의 4배, 1970년 당 5차대회를 맞이하여 벌린 《150일간 혁신운동》때의 2.2배에 달하는 일군들과 동포들을 참가시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을 앞두고 동포들속에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 당제5차대회보고를 비롯한 그이의 천재적로작들과 교시에 대한 100번읽기, 전문옮겨쓰기운동이 힘차게 벌어지는 가운데 그를 완전히 통달하는 등 지난시기 볼수 없었던 새로운 모범이 창조되였다.

《150일간혁신운동》기간에 하루도 쉬지않고 매일아침 분회사무소에 들려앉아 당 제5차대회문헌을 집체적으로 연구한 사실이나 온가족이 모여앉아 강령적보고를 학습한 사실은 2천개소의 어느 총련분회나 어느 총련가정에서도 흔히 찾아볼수 있는 현상으로 되였다.

이와 같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속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로작학습이 그 어느때보다 생활화되였으며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총련은 이해에 동포들을 수령님께서 몸소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를 철저히 옹호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였다.

총련은 모든 단위에서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을 일상적으로 잘 운영하며 반세기에 걸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따라배우는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등을 자체의 실정과 준비정도에 맞게 집체학습과 개별학습, 연구발표모임, 토론회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총련은 또한 일군들과 동포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강화하였다.

총련은 일군들과 동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사는 민족적자부심과 민족적자주의식을 더욱 높여주며 자주, 자립, 자위의 공업국가로 전변된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였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예순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조국방문대표단들의 귀환보고 모임, 귀국선《만경봉》호 환송사업, 여러가지 기념강연회, 가무단공연, 조국영화상영사업, 조국방송청취모임 등을 통하여 수많은 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을 더 잘 알고 총련애국사업수행에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총련은 동포들속에서 우리 나라 력사와 지리, 우리 나라 말과 글, 문화에 대한 교양사업을 대상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어디서나 조선사람으로서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떳떳이 나아가도록 하였다.

일군들과 동포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동포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경모의 정과 충성심이 날로 높아갔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총련애국사업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총련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2년에 총련은 간부들과 동포대중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이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놓았다.

총련의 주체적력량이 강화되고 그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으며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모든 조직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철저히 세워지고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을 중심으로 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이 더 확고히 보장되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총련대렬의 통일단결은 그 어떤 힘으로도 허물수 없는 공고한것으로 되였으며 공화국의 존엄있는 해외공민단체로서의 총련조직은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다져졌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총련대렬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은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로서 총련조직의 위력과 그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가장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조선동포들은 미일반동들과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과 온갖 파괴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고 대오를 더욱 튼튼히 결속하며 모두다 총련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입니다.》(1972년《신년사》, 단행본, 23페지)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2년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미일반동들과 결탁한 리영근일파와 김영근, 하수도, 김종형, 성덕영 등 종파분자들과 변절자들을 반대하는 원칙적인 투쟁을 전기관적, 전군중적운동으로 강력히 벌리였다.

총련은 미일반동들과 종파분자들의 분렬파괴책동에 대처하여 간부들과 동포들속에서 주체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키는 한편 종파의 본질과 해독성, 그의 교활한 수법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변절자들과 종파의 주동분자들을 대중적으로 철저히 고립배격시켰다.

한편 종파분자들의 영향을 받은 일부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인내성있게 교양개조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을 뉘우치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총련의 지도밑에 애국사업에서 높은 열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총련대렬은 이 투쟁을 통하여 더 한층 반석같이 통일단결되였다.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로력영웅칭호를 받은것을 축하하는 모임을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으로 불타는 격동된 분위기속에서 총련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일대 조직정치사업으로 수많은 일군들과 동포들의 참가밑에 총련중앙을 비롯한 간또 등 각지방들에서 성대히 진행하였다.

이해에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고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인 통일을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 총련중앙한덕수의장의 유일적지도밑에 총련애국사업수행에 한사람같이 움직여 나갔다.

총련은 이해 9월 6일 오끼나와에 새로 현본부를 내옴으로써 오끼나와에 있는 재일동포들에게도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기 조직을 더욱 확대하였다.

총련의 각급 기관들과 산하 단체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한 간부들로 튼튼히 꾸려지고 그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높아졌다.

총련은 이해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맞이하기 위한 《150일간혁신운동》과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에 기초한 총련중앙위원회 제9기 제3차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투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시게 된 민족적경사를 축하하는 전군중적인 정치사업, 조선사람찾기 위한 운동 등을 통하여 분회일군들과 열성자대렬을 1.5배나 확대하였으며 수많은 전임일군들을 키워냈다.

또한 7～8월에 진행된 지부정기대회들을 통하여 총련의 말단지도기관인 지부기관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전임일군들로 튼튼히 꾸리였다.

총련대렬이 공고확대됨으로써 총련분회조직이 수령님의 교시와 그의 구현인 총련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움직이는 산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총련조직의 위력은 더한층 강화되였다.

총련의 지도밑에 이해 조청, 녀맹을 비롯한 산하 단일단체들이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간부열성자들로 튼튼히 꾸려지고 그의 자립적인 활동이 한층 강화되였다.

총련은 자기 조직을 공고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조직, 단위에서 혁명적 조직규률을 확립하고 총련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고 모든 사업을 사람과의 창조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사람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나아갔다.

총련의 각급 기관들은 사람과의 사업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며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을 철칙으로 삼고 먼저 간부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 주목을 돌렸다.

총련 각급기관은 집체학습, 자학습과 함께 간부일군들을 위한 매 분기 10일간의 집중강습과 간부강연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 동시에 개별교양체계에 기초하여 웃기관일군들이 아래일군들을 자주 만나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실제 사업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양단련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간부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며 정치리론적으로 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총련애국사업을 주인다운립장에서 철저히 끝까지 관철하는 유능한 일군이 되도록 하였다.

총련은 이해 각계각층군중을 교양하여 전취할데 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미일반동들의 민족분렬책동이 더욱 로골화된 조건에서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사업을 그 어느때보다 강력히 벌렸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속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에 주되는 힘을 돌리고 열성적인 상공인들의 역할을 계속 높이는 한편 지역상공회조직을 계속 확대하며 젊은 상공인을 체계적으로 교양하여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더 훌륭히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총련은 《영주권신청》을 강요당한 동포들과의 사업, 전호방문운동을 통하여 미조직동포들을 찾아내고 일상적으로 교양하여 총련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강력히 벌렸다.

총련은 각계각층동포들과의 사업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일군들을 교양하는 한편 총련교또부본부 등 지방조직들에 대한 조직실습을 통하여 새로운 모범을 창조하고 그를 적극 일반화하였다.

총련의 현본부와 특히 지부에서는 사업에서 깜빠니아적, 형식주의적 경향과 주관주의, 관료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없애고 모든 분회에 전체 동포들을 망라한 5호담당제를 실속있게 꾸리고 언제나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준비정도와 과거생활체험, 현재의 처지, 성격과 취미 등 대상에 맞게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동시에 걸린문제를 풀어주고 그들을 총련애국과업수행에로 더욱 불러일으켰다.

총련은 이해에 조국인민들의 천리마대진군에 발맞추어 수령님에 대한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애국적열의를 반영한 대중적애국운동인 모범창조운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렸다.

1961년부터 시작된 모범창조운동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앞두고 류례없는 큰 규모로 벌어진《150일간혁신운동》을 통하여 그 망라수에 있어서 총련제8차전체대회 당시의 520%

로, 1970년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전동포적으로 벌어진 《120일간혁신운동》 당시의 170%에 달하였다.

이해에 총련의 모범창조운동은 1970년보다 1천여개나 늘어난 5천200개의 기층단위들과 지부들에서 힘차게 벌어졌으며 그중 총련분회의 70%가 2중모범 또는 모범분회수준에, 조청반, 녀맹분회의 50%가 모범집단수준에 이르게 하였다.

총련은 총련중앙위원회 제9기 2차회의가 있은때로부터 9기 3차회의가 있기까지 기간(1971년 6월 11일~1972년 6월 27일)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일군들과 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불타는 가운데 총련 후꾸이, 미에, 쯔시마본부회관과 지부, 분회 등 200여개의 사무소를 방대한 예산으로 일떠세워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을 중심으로 통일단결된 총련의 위력을 내외에 파시하였다.

민주주의적민족권리 옹호를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72년 새해를 맞이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또한 총련이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민족적 박해와 멸시를 반대하고 재일동포들의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키는것과 함께 조국에로의 자유래왕의 실현을 위하여 계속 투쟁하며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백방으로 촉진하고 각계각층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전세계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애국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거대한 성과가 이루어지리라는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1972년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60만재일동포들의 민족적존엄과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응당한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견결히 지켜냈다.

1972년에 총련이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가장 큰 성과는 조국에로의 래왕과 제3국에로의 려행의 길을 넓힌것이다.

총련은 이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의 일본재입국허가를 쟁취함으로써 60만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안고 조국을 방문하여 수령님께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였다.

또한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한 재일본조선인과학자대표단,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축구소조와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 남북적십자회담에 참가하는 자문위원과 취재기자들, 과학원창립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한 재일본조선인과학자대표단, 두 차례에 걸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일본재입국허가를 받아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을 방문하고 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였다. 그리고 12월 18일에는 조일수출입상사 간부들이 조국을 방문하기 위한 일본재입국허가를 받았다.

총련은 이해 8.15후 처음으로 제3국에로의 려행의 권리를 쟁취함으로써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이 쉥그리아에서 열린 청년교원문제에 관한 국제직맹회의에,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이 몽골에서 열린 제2차아세아, 아프리카녀성대회에 각각 참가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해에 재일동포들의 귀국사업도 새로운 방도에 의하여 네차례에 걸쳐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배려로 첫 귀국선이 청진항에 와닿은 1959년 12월 16일부터 이해말까지 166차에 걸쳐 9만 700여명의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

이해에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공화국공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전동포적으로 계속 힘차게 벌리였다.

총련은 동포들속에서 내외반동들의 《일반영주권신청》놀음과 《귀화》강요책동을 반대배격하며 공화국국적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연 8천 800여명의 동포들이 공화국국적을 되찾았으며 수많은 동포들이 《영주권신청》을 거부하였다.

또한 일본당국이 악랄하게 벌린 악명높은 《출입국법안》을 비롯하여 《외국인학교법의 일부 개정안》, 《풍속영업 등 취체법의 일부 개정안》 등 각종 악법의 조작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동포적으로 완강히 벌리였다.

1969년이래 매년 파쑈적인 《출입국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립법화를 서둘렀으나 그때마다 재일조선공민들과 내외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자기의 부당한 기도를 꺾이운 일본당국은 1972년에는 이 악법에 《출입국법안》이라는 외피를 바꾸어씌워 3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으며 5월에는 중의원법무위원회 심의에 회부하고 정기국회의 회기를 대폭 연장까지 하면서 기어이 조작하려고 책동하였다. 재일동포들은 5월 11일 파쑈적인 《출입국법안》을 기어이 조작하려는 일본당국의 범죄적책동을 반대배격하며 민족적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총련은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를 가진것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군중대회, 시위행진, 선전물배포, 간담회, 항의요청투쟁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일본반동정부의 파쑈적인 《출입국법안》을 폐안에로 몰아넣었다.

이해에 총련은 일본당국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 책동을 반대하고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광범히 벌리였다.

일본반동들은 6월 5일 기후현에 사는 리동포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으며 6월 28일에는 총련 야마구찌현 시모노세끼지부관하 김동포상공인을 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9월 8일에는 도꾜 쥬조역에서 떼이꾜고등학교 불량학생 200여명이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들을 둘러싸고 련이어 집단폭행을 가하는 용서못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일본불량학생들의 집단적폭행사건은 이해 4월부터 6월중순까지의 사이에만도 무려 33건이나 된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기본인권을 횡포하게 짓밟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와 살상만행을 반대하여 그때마다 완강한 투쟁을 벌리였다.

이해 총련은 도꾜도를 비롯한 1천100여개의 일본의 지방자치체들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재일동포들에게 적용시키게 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둠으로써 동포들의 생활권을 극력 옹호하였다.

이해에 총련은 동포상공인들의 기업권과 영업활동의 자유를 옹호하며 동포신용조합을 한층 발전시켜 예금액을 더욱 장성시키였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1952년 창립당시에는 불과 세군데밖에 없었던 신용조합이 34개조합으로, 점포수는 119개로 늘어났으며 일군수는 140배로, 조합원수는 130배로, 예금액은 1천7백15억4천만원으로 불어났다.

이해에 총련은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의 경제교류를 정상화하고 그를 확대하기 위한 운동을 강력히 벌려

공화국의 무역대표부적기능을 담당수행하는 조일수출입상사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해방후 처음으로 조국무역대표단의 일본입국이 실현되였으며 우리 나라 무역선이 당당히 오갈수 있게 되였다.

이해에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총련의 각급 학교들에서는 교육사업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워 김일성원수혁명활동에 대한 교수를 비롯한 교수교양사업의 질을 한층 더 높이였으며 모든 교수를 당정책화하고 학생들의 실력을 더욱 높이였다.

특히 이해에 각급 학교들에서 국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심화발전시켰다.

총련의 각급학교들에서는 국어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교원들 자신이 우리 말 발음을 정확히 하도록 지도,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직관교육, 록음기를 통한 교육, 조국방송듣기, 글짓기운동, 웅변대회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말과 글을 똑똑히 배우며 쓰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가정에서 우리 말을 생활화하도록 하는데 많은 힘을 돌리였다.

우리 말을 배우고 옳바르게 쓰기 위한 운동은 성인학교, 청년학교들에서도 활발히 벌어졌다.

총련은 전임강사대렬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 분회에 한 성인학교, 한 반에 한 청년학교》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더 많은 수강생들을 받아 들여 우리 말과 글을 배우도록 하였다. 특히 총련의 분회들에서는 한명의 수강생이 2명이상의 문맹동포를 성인학교에 망라시키는 운동을 벌려 더 많은 동포들이 우리 말 배우기에 나서도록 하였다.

총련은 이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일본에 있는 조선청소년들을 모두 조선학교에 보내여 다 조선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선사람을 찾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10월부터 조선사람 찾는 운동을 전기관적, 전동포적으로 힘차게 벌려 학생대렬을 더욱 늘이였다.

총련은 10월을 조선사람 찾는 운동을 벌려 학생대렬을 확대하기 위한 월간으로 정하고 동포들속에서 이국땅에서 나서 자란 재일동포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친부모도 미치지 못하는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개화발전하는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널리 해설선전하였다.

총련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은 오후야간학교와 하기학교에 망라된 동포자녀들을 교양하는 등 각계각층 동포들의 집을 빠짐없이 방문하여 대상의 준비정도에 맞게 그리고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모두 조선학교에 받아들이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각계각층동포들의 민족적의식과 긍지감, 애국적열성이 날로 높아갔으며 수많은 조선청소년들이 각급조선학교에 들어왔다.

총련 사이다마현 중부지부에서는 월간사업이 시작된지 닷새동안에 학생대렬확대목표를 100％로 수행하였으며 월간사업기간에 총련 가나가와현 요꼬하마지부에서는 이해 학생대렬확대목표를 4월에 받아들인 학생수의 3배나 넘쳐 수행하였는바 이는 대표적인 실례에 불과하다.

총련은 학생들속에서 조청 조직생활과 집단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조국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는 사상과 도덕, 풍부한 지식과 기능, 건장한 체력을 가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아들딸로 더 잘 키워냈다.

총련은 교원들속에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강화함으로써 교원대렬을 수령님의 위대한 교육사상을 구현해 나가는 믿음직한 대오로 꾸렸으며 후대교육사업에서 그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재일본조선교육일군들의 모임(1월 15일), 재일본조선교육일군들의 강습회(12월 8일)를 비롯한 각종 모임들과 강습회, 방식상학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교원들의 재교육사업과 양성체계를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교원들의 과학리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교원대렬이 질적으로 튼튼히 다져졌다.

총련은 내외반동들의 탄압과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총련중앙위원회 9기 2차회의가 있은때로부터 9기 3차회의가 있기까지(1971년 6월 11일—1972년 6월 27일)기간에 9개학교의 설치인가를 획득함으로써 모두 158개의 설치인가를 받아내였다. 그리고 1971년에 법인인가를 받은 현교육회가 27개였다면 이해에는 28개로서 28개의 모든 현교육회의 법인인가를 쟁취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1972년 4월에 야마구찌지방에 고급학교를 새로 내오고 1971년 6월～1972년 6월까지 사이에 초중급학교에 10개의 유치반을 새로 병설하였다. 결과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체계는 더욱 확대강화되였다. 총련은 이해 수십억원의 방대한 예산으로 군마조선초중급학교, 사까이조선초급학교,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새교사와 나가노조선초중급학교와 니이가다조선초중급학교들의 체육관을 비롯하여 11개의 학교들에서 새교사와 체육관을 일떠세웠으며 10개의 학교들에서 계속 건설사업을 다그침으로써 학교운영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꾸리였다. 158개의 자주학교와 오후야간학교들에서는 재일조선동포자녀들이 우리 나라 말과 글로써 배우고 있으며 수령님께 충직한 일군으로, 나라의 믿음직한 기둥감으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촉진을 위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조선동포들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여야 하며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일본의 광범한 민주세력과 굳게 단결하여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적대시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1972년《신년사》, 단행본, 23페지)

1972년에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밝히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각계각층동포들속에서 민족적단결을 강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전민족적 위업을 힘있게 추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해에 총련의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은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을

위한 원칙과 방침들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각계각층 재일동포들속에 광범히 해설선전하였으며 재일동포들의 애국력량을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기치밑에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민단》산하 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을 더욱 폭넓게 진행하였다.

총련은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탄생예순돐을 앞두고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민단》산하 동포들속에 널리 알리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을 꾸준히 벌렸다.

또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조국통일의 돌파구가 열린 새로운 정세에 맞게 대중강연, 간담회, 각종 출판물 등 모든 선전체계와 수단을 다 발동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연설, 1월 10일 일본《요미우리신붕》기자들과 5월 26일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 등에서 밝히신 조국통일을 위한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한 방안들과 그 정당성을 널리 해설선전하는 일대 정치선전사업을 벌렸다.

한편 《민단》산하 동포들과의 끊임없는 접촉과 교류를 줄기차게 진행하여 호상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를 높이고 생활문제 등 공동적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가지고 좌담회, 공동모임을 광범히 진행하였으며 나아가서 《민단》과의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광범히 벌려나갔다.

특히는 사상과 리념, 단체소속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환영하며 전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촉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정치협상의 실현과 남북조선적십자 단체들의 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민단》산하 동포들과 다양한 형태로 공동행동을 수없이 벌렸다.

실례로 7월 23일 해방후 처음으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쌓아놓은 민족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총련과《민단》의 공동주최로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도꾜도지역동포들의 대회가 2천 300여명의 참가밑에 열리였으며 7월 26일에는 교또에서 1만 7천여명의 재일동포들의 참가하에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긴끼지방대회, 8월 3일에는 시나가와지역에서 1천여명, 4일에는 가쯔시까지역에서 1천 500여명이 참가한 공동대회가 열렸다. 또한 8월 7일에는 총련산하의 단체인 조청과 《민단》산하의 청년단체가 공동으로 중앙대회를 가지고 대회선언을 채택하였다. 8월 15일에는 총련 도꾜도본부와《민단》도꾜도본부가 각각 공동으로 지지대회를 가진것 등 일본의 많은 지방들에서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총련과 《민단》의 각급 기관과 계층별단체들의 공동모임이 수많이 조직진행되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민족단합을 위하여 총련이 진지하게 노력한결과 각계각층 동포들속에서 수령님을 끝없이 경모하며 《단체소속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하여야 할때는 왔다》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총련은 이해 재일동포들의 단합된 힘을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더욱 불러일으켰다.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을 떠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범죄행위를 견결히 규탄하여 힘차게 싸웠다. 또한《민단》산하 동포들속에서까지 이른바 《비상사태》를 실시한다고 떠벌이면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재일동포들속에 반목과 대립을 조성하고 인위적인 장벽을 쌓으려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책동을 폭로분쇄하였다.

총련은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이 5월을 《방첩 및 승공의 달》로 정하고 남조선각지에서 《북진》을 가상한 군사연습과 대대적인 《반공》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대원칙에 기초한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새 전쟁 도발준비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폭로분쇄하는 대중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열흘이 되나마나한 사이에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김규남, 김질락, 백로수, 정태묵 등 애국자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공화국북반부를 찬양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에 마구 걸어 체포, 투옥처형하는 등 남조선당국자들의 범죄적책동을 모든 선전체계와 각종 출판물 등을 통해 폭로규탄하며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 위반되는 인민탄압을 당장 그만둘데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각종 대회와 시위행진, 삐라살포 등 대중투쟁을 진행한것과 함께 일본의 광범한 민주세력과 단결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침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미일침략자들을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였다.

총련은 4.19인민봉기 열두돐기념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재일본조선청년학생대회를 가진것을 비롯하여 일본 각지에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애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각종 대중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또한 내외반동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폭로규탄하면서 남조선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동포들을 애국애족의 심정으로 따뜻이 맞이하였으며 그들에게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그이께서 밝히신 조국통일방침을 널리 해설선전함으로써 그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이 총련은 수령님께서 밝히신 3대원칙에 기초한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진행된 유리한 정세에 맞게 조국인민들과 함께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에 모든 힘을 다해나갔다.

문학예술, 체육 및 출판보도사업

총련은 1972년에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내외반동들이 부식하는 부패타락한 사상문화가 휩쓰는 환경속에서도 《세계최고봉의 예술》로 명성을 떨치고있는 사회주의조국의 민족문화예술을 활짝 꽃피워 동포대중속에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이였으며 주체조선의 슬기를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재일조선작가, 예술인들은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온갖 부르죠아

문예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면서 총련의 애국사업수행을 위한 동포들의 벅찬투쟁과 생활을 옳게 반영하여 주체가 서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종류의 문학예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이해에 수령님의 탄생예순돐을 맞이하여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은 송가 《60만이 드리는 충성의 노래》를 지어 삼가 수령님께 드리였으며 재일조선작가, 예술인들은 헌시 《영광의 한길우에서》를 비롯하여 노래 《60만은 수령님의 만수무강축원합니다》, 《영광차다 우리의 총련》, 《만경봉호 타고서 조국으로 돌아가리》,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자》, 연극 《붉은 정성》 등 537편의 문학예술작품들을 내놓았다.

재일조선예술인들은 수령님의 탄생예순돐을 축하하여 인민상계관작품인 대음악무용서사시 《조국의 해빛아래》 (전11경 34장)를 또다시 무대에 올려 재일동포들과 수천명의 일본의 광범한 사회계인사들과 세계27개국의 인사들앞에서 공연함으로써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는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널리 시위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1971년 11월 민족악기들을 수많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에 접하여 한없이 격동된 재일조선중앙예술단에서는 군무 《사령부를 찾아가는 길에서》, 기악중주 《눈이 내린다》, 혁명가극 《피바다》중에서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등 수많은 예술종목을 무대에 올려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민들에게 주체조선의 예술성과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널리 알리였으며 동포대중을 총련의 애국사업수행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재일조선중앙예술단, 재일조선연극단과 총련의 11개지방가무단들은 훌륭한 예술종목으로 900여회의 공연을 진행하여 연 70여만명의 관중들에게 관람시켰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1972년도 총련의 지방가무단 예술경연대회가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총련의 지방가무단들은 노래, 춤, 재담, 노래이야기 등 342편의 작품을 창조하여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열렬히 축하하는 공연사업을 훌륭히 진행하였는데 이 기간에만도 도합 580여회의 공연에 35만 6천여명의 관객들을 관람시켜 그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웠다.

총련은 이해 4월한달을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기념 영화상영월간》으로 정하고 각계층동포들속에서 《만경대》, 《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 《우리의 어머니 강반석녀사》 등 조국기록영화들과 《피바다》, 《꽃파는 처녀》, 《로동가정》 등 조국예술영화들을 1천 300여회에 걸쳐 상영하였으며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그이는 인민의 태양》, 《혁명투사 김형직선생》, 《주체사상 빛내이자》 등의 조국노래들을 동포대중속에 광범히 보급하였다.

이해 총련은 동포들속에서 문학예술을 대중화함으로써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켰다.

총련은 1천여개의 각종 예술소조에 많은 군중을 참가시키고 이해에도 예술경연대회, 문학예술작품현상모집을 광범히 조직하여 그들의 예술적재능을 더욱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공화국창건 스물네돐을 기념하여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도꾜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재일조선인중앙예술축전에는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기간에 일본각지의 7개지방들에서 진행된 예선대회에서 뽑힌 2천 400여명의 예술소조원들이 출연하였다.

지방예선대회들에서는 7천 630여명의 소조원들이 799개의 연예종목을 가지고 참가하였다.

공화국창건스물네돐기념 재일조선학생미술전람회를 앞두고 진행된 지방예선에서는 1천 53점의 미술작품들이 당선되였다.

총련은 또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체육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체육을 총련의 애국사업수행에 복무하는 애국적이며 대중적인 체육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체육사업에서 거둔 성과의 하나는 무엇보다먼저 체육인들속에서 수령님의 주체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게 되었으며 체육인대렬이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진것이다.

총련은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 1만여명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서막과 4장, 종막으로 구성)를 창조하여 14만여명의 내외관객들에게 보여주었다.

대집단체조는 1965년 총련결성열돐을 경축하여 진행한 《조국에 드리는 노래》와 그해 11월 공화국창건 열일곱돐을 경축하여 진행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에 이어 이로써 세번째로 된다.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도꾜에서 진행된 재일조선인 축구 및 배구 경기대회에는 18개의 축구팀과 남녀 17개의 배구팀 도합 440여명이 참가하여 일상적으로 닦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자기들의 백전불굴의 투지와 높은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주체적인 체육훈련을 통하여 발전된 재일조선체육인들의 높은 체육 기량은 이해 3월 21일부터 1주일간 도까이, 간사이 지방에서 진행된 일본의 강팀들과의 경기들에서 거둔 성과들이 잘 보여 주고있다.

재일조선축구단은 이해에 진행된 나고야선발팀과의 경기에서 5대0으로 승리하였으며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중급부축구팀은 전나고야중학교선발팀과의 경기에서 5대0으로, 아이찌조선축구단은 아사이 축구구락부와의 경기에서 5대1로 각각 이겼다.

재일조선축구단은 자기조직이 무어진 이래 이해 4월까지 348전하여 325승(17무승부)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총련은 이해에 1천여개의 체육소조활동과 각종 체육경기대회들을 통하여 군중 체육을 더욱 대중화하였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도꾜 고마자와경기장에서 진행된 공화국창건 스물네돐기념 재일조선인중앙체육축전에는 7개지방예선경기들에서 뽑힌 11개 조선고급학교들과 조선대학교 그리고 26개의 총련 각현본부들과 1개단체에서 남녀선수 3천여명이 참가하여 주체체육의 위대한 생활력을 잘 보여주었다.

과학연구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이해 4월에 조선대학교에서 진행된 재일조선과학자학술보고회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독창성을 리론적으로 론증하기 위한 학술보고회와 연구토론회가 계획적으로 조직진행되였으며 주체가 서고 과학적수준이 높은 많은 연구론문들이 발표되였다. 4월에 진행된 사회과학부문학술보고회에서는 20여편, 자연과학부문보고회에서는 76편, 의학과학부문에서는 23편의 연구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출판보도사업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총련은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과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수백만부나 출판보급하였으며 《조선신보》를 비롯하여 35종에 이르는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널리 선전함으로써 일군들과 동포대중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교양하였다.

총련에서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

게 주신 김일성원수의 교시》를 출판하였으며 《만경대》, 《민족의 태양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 《친어버이 사랑》, 《만경대를 우러러》, 《불멸의 서사시》를 비롯한 수령님의 혁명적가게와 혁명활동을 수록한 책들을 출판하였다. 또한 35종의 정기간행물들이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기념 특집호를 발간하였다.

총련은 《조선신보》, 《조선청년》, 《조선상공신문》, 《조선녀성》을 비롯한 출판물들의 정치사상성을 더욱 높이고 독자들의 실정과 요구에 맞게 편집내용을 부단히 개선하였으며 배포체계를 잘 세우고 출판기관들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았다.

1950년 8월 2일 미일반동들에 의하여 횡포하게도 강제페쇄당한 《해방신문》이 1952년 5월 20일 《조선신보》로 복간되여 주간으로 발행되였으며 1961년부터 일간으로 발전하여 복간당시에 비해 20배에 달하는 일군들과 10배나 되는 독자를 가지고 있으며 동포들의 정치사상교양사업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조선신보사는 5개나라말로 된 9가지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있다.

《조선통신》은 조국에서 발신하는 《조선중앙통신》을 받아 우리 말로된 《조선통신》과 함께 일어, 영어, 프랑스어로된《조선통신》을 발간하고 있으며 전송사진에 대한 수신사업도 진행하고있다.

대 외 사 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72년 새해를 맞이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또한 총련이 …각계각층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전세계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애국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거대한 성과가 이루어지리라는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총련은 1972년에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높이 받들고 일본의 각 당, 각 파와 각계각층 진보적인사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전세계 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힘차게 벌리였다.

총련은 무엇보다 먼저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속에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줄기차게 진행하였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총련은 대외출판물을 통하여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힘있게 소개하는 한편 《김일성저작집》을 비롯한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들과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 그리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등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담겨져있는 수많은 책들을 5개나라 말로서 세계 150여개 나라와 지역들에 보급하였다.

한편 수령님께서 1971년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과 일본《요미우리신붕》기자들과 미국《뉴욕타임스》지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들에서 천명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과 그 정당성을 일본 인민들속에 알기쉽게 구체적으로 소개선전하였다.

총련은 또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통성발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자주, 자립, 자위의 공업국가로 전변된 조국의 눈부신 발전모습을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인민들속에 계속 널리 해석선전함으로써 공화국의 국제적위신을 더욱 높이였다.

총련의 적극적인 대외선전활동으로 일본인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정이 더욱 두터워졌으며 그이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열의가 날을 따라 높아갔다.

일본인민들속에서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배울것을 목적으로《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가 무어지고 모임과 강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대한 연구사업이 진행되였다.

이해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총련의 정당한 투쟁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해 6월 웽그리아의 부다뻬슈뜨에서 진행된 국제교직원조합회의에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이, 그에 뒤이어 8월 몽골에서 진행된 제2차 아세아, 아프리카녀성대회에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이 해방후 처음으로 국제회의에 참가하였다.

총련은 이러한 국제회의와 외국대표들이 참가한 여러 모임들에서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세계진보적인민들로부터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재일조선공민들의 투쟁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받게 되였다.

오늘 재일동포들은 일본과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속에서 총련결성 이건시기에는 생각할수 없었던 광범한 지지를 받고있으며 사회주의조국의 국제적위신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4월 19일 일본로동조합총평의회는 《출입국법안》의 즉시 철회를 요구하는 제의서를 일본법무성에 들이댔으며 일본의 광범한 사회계는 일본반동정부의 《학교교육법일부개정안》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3대륙인민단결기구집행서기국과 세계민주청년련맹서기국, 국제기자동맹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각국단체들에서는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와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적인 사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면서 일본반동당국의 각종파쑈악법조작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였다.

총련은 일본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활동도 더욱 적극 벌리였다.

총련은 일본의 《국제선린구락부》에 속해있는 인사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 앞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조일 두 나라의 경제교류에 대하여》,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등의 제목으로 계획적인 강연을 조직하는 한편 일본텔레비죤방송, 일본교육텔레비죤, 호꾸리꾸방송, 규수아사이방송 등을 통하여 조선의 통일문제와 조일 두 나라 사이의 제반교류촉진문제에 대한 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은 2월 19일 조일수출입상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내외기자들과 회견을 가지였으며 담화를 발표하여 시대의 추세와 조일 두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우리 나라의 무역대표부와 기술자들의 일본입국실현 등의 리행을 위해 해당한 조치를 취할것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하

였다.

총련은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대시정책을 반대하고 호상성의 원칙에서 경제, 문화교류와 인사교류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조일량국간의 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일본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였다.

총련이 우리 당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의 경제 교류를 정상화하고 그를 확대하기 위한 운동을 강력히 벌림으로써 해방후 처음으로 조국무역대표단의 일본입국이 실현되였으며 우리 나라 무역선이 당당히 오갈수 있게 되였다.

1971년말에는 초당파적인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이 결성되였으며 1972년에 처음으로 그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 공화국무역촉진위원회와의 공동성명과 무역합의서를 맺게 되였다.

총련은 아세아인민들을 비롯한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총련에서는 민주웰남에 대한 무차별폭격을 감행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책동을 규탄하여 5월 20일 전쟁두목 닉슨놈에게 항의문을 들이댔으며《웰남인민, 캄보쟈인민, 라오스인민의 반미투쟁지지주간》에 즈음하여 민주웰남에 편지를 보내여 그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원칙적이며 자주적인 대외활동을 통하여 총련은 일군들과 동포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위에 하나의 력량으로 통일단결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있는 해외공민단체로, 60만재일동포들의 민족적리익과 민주주의적권리를 견결히 지키고 조국통일위업에 기여하고 있는 위력있는 민족적조직체로,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는 권위있는 애국적조직체로 장성강화되였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앙보할수 없는 권익을 대표하는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은 비로소 주체를 철저히 확립할수 있었으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원칙적인 통일단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로부터 재일동포들은 진정으로 자기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믿음직한 조직을 가지게 되였으며 명확한 투쟁강령과 과학적인 사업방법을 소유하게 되였습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1955년 5월 25일에 결성되였다.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은 비로소 수령님의 유일적인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해외공민운동으로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60만재일동포들은 이국땅에 살면서도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 힘을 다바쳐 싸우게 되였다.

총련은 전체 재일동포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재일동포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공화국정부두리에 결속시키는 유일한 민주주의적조직체이며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화국의 믿음직한 해외공민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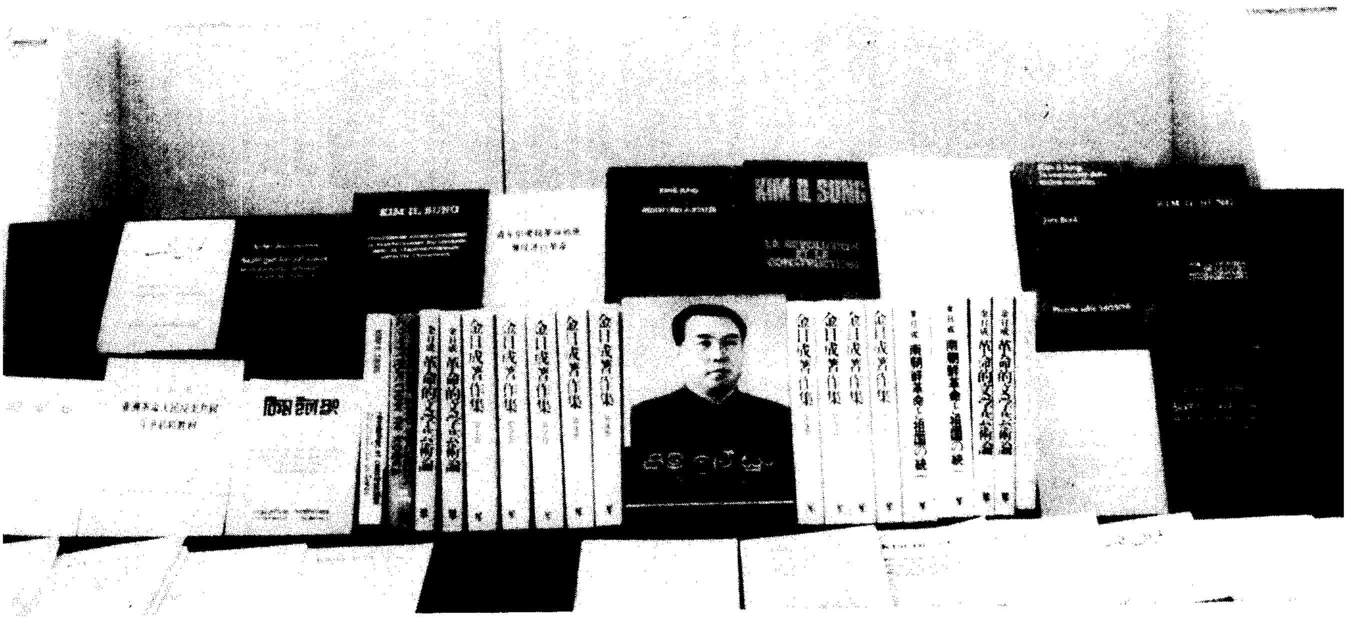
총련은 정견, 신앙 및 사회적지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총련의 강령과 규약을 지지찬동하는 재일동포들의 각 단체와 인사들로 구성되여있다.

총련은 49개의 현본부와 300여개의 지부, 2천여개의 분회 그리고 13개의 단일단체와 14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한덕수

각 단체, 사업체, 조직 및 창립기념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1955. 8. 1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1947. 10. 12
재일본조선인상공련합회	1946. 2. 26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1947. 8. 28
재일본조선인중앙교육회	1955. 7. 2
재일본조선인과학자협회	1959. 6. 29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1959. 6. 7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	1954. 10. 14
재일본조선인신용조합협회	1953. 11. 23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1954. 7. 30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1945. 9. 14
재일본조선인통일동지회	1948. 10. 25
재일본조선인불교도련맹	1948. 8. 1
재일본조선인통신교육협회	1963. 4. 20
조선신보사	1945. 10. 10
조선통신사	1948. 10. 1
구월서방	1954. 4. 1
학우서방	1949. 5. 5
조선문제연구소	1952. 10. 15
조선화보사	1962. 4. 15
시대사	1963. 4. 15
재일조선중앙예술단	1955. 6. 6
재일조선연극단	1965. 1. 15
조선총련중앙학원	1955. 8. 16
조일수출입상사	1972. 1. 16
동해상사주식회사	1961. 8. 7
조선대학교	1956. 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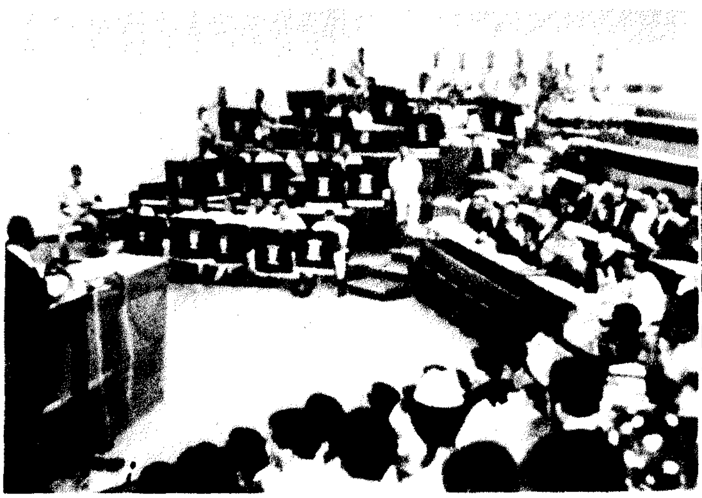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불후의 로작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계속 출판되고있다

국제서술





시에라 레온의 수도 프리타운에서 열린 《전아프리카 김일성동지 주체사상토론회》의
주석단과 《김일성동지 만세!》를 부르는 참가자들





《전아프리카 김일성동지 주체사상토론회》 회의장





바이루트에서 있은 중근동지역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주체사상연구토론회》 회의장과 로작전시실을 돌아보는 참가자들



THE TIMES

CHOLLIMA KORE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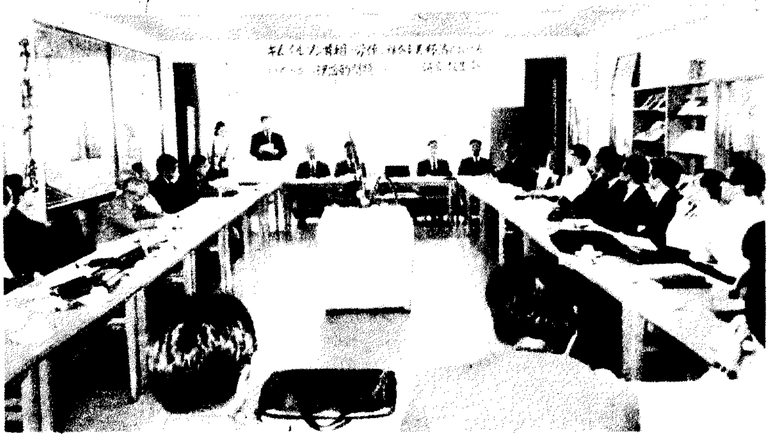
A Powerful Independent National Industry

A Socialist Industrial 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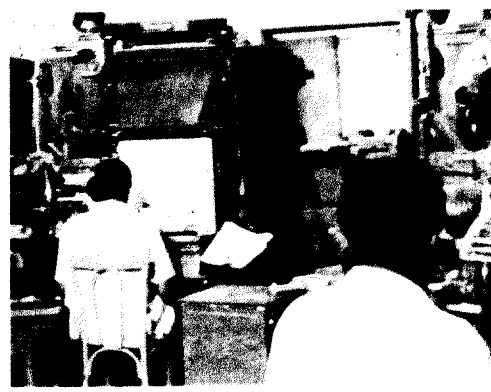
The Great Juche Idea, Prosperous New Korea

The Thriving Socialist Modern Countryside

우리 나라의 눈부신 발전모습을 소개한 영국신문 《타임스》 특간호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의 연구보고회를 진행하고있는 일본의 대학교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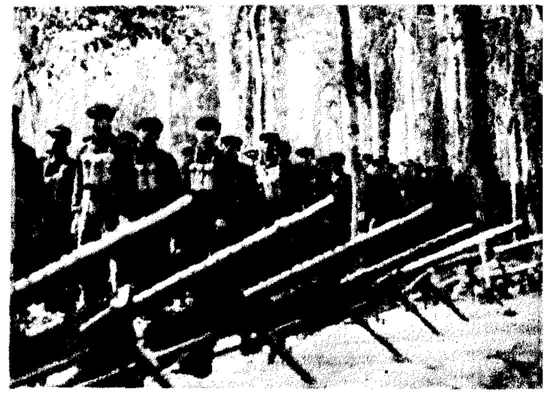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을 출판하는 외국의 벗들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을 연구하는 외국의 벗들



시하누크친왕의 지도하에 해방지역에서 열린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제1차 내각회의



적들의 자동무기를 빼앗은 캄보쟈민족해방군



《미제는 조선에서 물러가라!》고 웨치면서 반미시위에 떨쳐나선
스웨리예인민들

미제의 침략정책을 반대하여 미국놈기발을 불태우고있는 칠레청년들 →





미제침략군기지를 철거시키며 미제의 항공모함 《미드웨이》 호의
요꼬스까항리용을 반대하여 시위투쟁을 벌리고있는 일본청년들



기발을 올리면서 원쑤들과 끝까지 싸울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는 나미비아애국자들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정확하게 이끄시고계실뿐아니라 현시대가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는 세계혁명의 제반원칙적문제들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며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세계혁명운동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신다.

하기에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인민들과 벗들은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가장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 《력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지도자》, 《붉은 태양》, 《만고의 영웅》으로 높이 칭송하고 우러르고있으며 끝없이 흠모하고있다.

1972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뜻깊게 맞이하였으며 그이께서 공화국주석으로 추대되신 이해에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과 벗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경사스러운 해였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뜨거운 존경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천대만대를 두고 길이길이 빛날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온누리에 주체의 빛발 찬란히 뿌리고있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에 대하여 소리높이 칭송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였다. 세계 여러나라들과 혁명조직들, 사회단체들에서는 수령님께 수천을 헤아리는 축하편지, 축전을 드리였으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성대한 연회와 기념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사진전람회와 영화감상모임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조직 진행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1971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중근동 여러 나라의 사회과학자들과 정치활동가들, 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들과 로작출판일군 등 수많은 대표들이 레바논 바이루트에서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주체사상연구토론회》를 가진것을 비롯하여 1972년 4월 12일 일본 도꾜에서 《김일성주석 로작연구소조들의 합동연구회》를 가지였다. 또한 알제리에 있는 여러나라 투쟁단체대표성원들의 련합모임 등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따라배우는 모임들이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였다.

1972년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시에라 레온 프리타운에서 16개 나라의 당과 정부의 책임적인 인사들, 정치활동가들과 사회활동가들, 박사, 교수들, 출판기관 사장, 주필들,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들이 《전아프리카 김일성동지 주체사상토론회》를 가지였다.

또한 세계 여러나라 신문, 방송, 텔레비죤, 출판사들, 통신보도기관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과 그이께서 주석으로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그이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소개선전하는 특집을 조직진행하였으며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수많이 번역출판하였다.

중국의 인민출판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비롯한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주체사상의 승리》라는 책을 번역출판하였다.

일본 미라이샤출판사는 《인민들속에서》를, 아바나에 있는 3대륙인민단결기구 출판사는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묶은 문헌집 《반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를 출판한것들은 그의 몇가지 실례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출판하였으며 련일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연구토론회들을 가지였다.

그리고 세계 수많은 시인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여 그이께 드리는 수많은 송시들을 창작발표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합니다》

1972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수령님을 우러러 보며 끝없이 흠모하고있는 세계혁명적인 벗들과 진보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영광을 드리였으며 《인류의 영원한 봄을 위하여 길이길이 찬란한 빛을 뿌려주실것》을 충심으로 념원하면서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축원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각하께서 반제반미투쟁로선과 명철한 방향을 제시하여주심으로 하여 우리는 당신을 세계혁명의 태양으로, 20세기의 탁월한 영웅으로 무한히 흠모하고있으며 당신께서 이 세상에 계심으로 하여 오늘 우리는 그렇게 뜻깊은 명절날을 조선인민의 민족적번영과 행복의 명절로, 우리가 배우는 명절로 기념하고있습니다.

(수단집단체조 대표단성원들로부터 보내온 축전에서)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힘있고 독창적인 리론실천적활동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식

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참으로 커다란 기여를 하고계십니다.

그러므로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사변인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는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십니다.

(말리《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으로부터 보내여온 편지에서)

당신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을 위하여 세우신 위대한 공적으로 하여 조선인민뿐만아니라 세계 수억만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무한한 흠모와 존경을 받고계십니다.

…세계인민들과 번영을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세계에 유일무이한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존경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모리따니 주재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상설대표부 대표 아부 이쌈로부터 보내여온 편지에서)

존경하는 김일성동지

오늘 세계진보적 인민들과 청년들은 당신의 탄생 예순돐을 커다란 흥분속에서 기념하고있습니다.

이 경사스러운 기회에 세계진보적청년들은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당신께 가장 열렬한 혁명적인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조선혁명과 전반적인 국제혁명운동발전을 위하여 세우신 위대한 공적으로 하여 조선인민과 청년들은 물론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청년들의 끝없는 흠모와 깊은 존경을 받고계십니다.

존경하는 김일성동지

세계진보적청년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국제혁명운동의 공인된 령도자이신 당신께서 만수무강하실것과 아울러 조선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령도하시는 당신의 사업에서 계속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민주청년동맹 위원장 로베르또 비에찌로부터 보내온 축전에서)

당신은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조선인민의 세련된 위대한 수령이십니다. 당신은 지난 수십년간 극히 곤난하고 복잡한 투쟁환경속에서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를 조선혁명의 구체적현실에 적용하시여 조선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였습니다.

당신의 령도밑에 영웅적조선인민은 반제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오랜기간의 무장투쟁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고 보위하였습니다. 당신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방침을 관철하여 락후한 식민지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였으며 반제투쟁의 동방초소에 굳건히 서서 전세계 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에 중대한 기여를 하시였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모택동동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동지로부터 보내여온 축전에서)

친애하는 김일성동지

우리는 당신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내각과 로므니아인민과 우리들자신의 이름으로 당과 조선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이신 당신께 뜨거운 동지적인사와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일성동지, 우리는 귀국의 번영과 진보를 이룩하며 조선인민의 민족적숙망인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자주적으로 실현하여 사회주의와 전세계 평화위업을 고수하기 위한 당신의 활동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을것과 아울러 당신의 만수무강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와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내각 총리 이온 게오르기 마우레르동지로부터 보내여온 축전에서)

당신께서는 제삼세계의 모든 인민들, 사회주의나라인민들,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그리고 진보적이며 반제적인 인민들의 2중영웅이십니다.

당신께서 귀국인민들에게 마련해주신 위대한 승리, 그것은 역시 조선인민의 전우로 되고있는 모든 인민들에게 가져다주신 승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전우로 된 무한한 행복과 보기드문 특전을 지니고있는 크메르인민과 그 국가수반은 각하께서 2중영웅칭호를 수여받으신데 대하여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드리는 송시

천구백칠이년 사월 십오일
력사는 이날로부터 기쁨에 넘쳐 자기의 페지우에
붓과 조각칼을 들어 불멸의 이야기를 찬란히도 아로새겨왔나니
글자마다 춤을 추고 룽소소리도 즐거이 울리라
위대한 태양의 빛발은 어둠의 장막을 헤쳐 누리에 찬란하니
하늘에 흐르는 은하수는 열계수되여 빛나고
나일강의 물결도 기쁨에 넘쳐 넘실 넘실 춤추며 흐르네
아 혁명의 선구자이신 세기의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동지
온세계 인민들 우러러 흠모하여 부르는 그 이름 김일성동지
온 우주가 그이를 맞이하는 환호로 끓어넘치네

× ×

자애로우시고 탁월하신 그이의 탄생일을 맞는 온 세상의 기쁨이여
온세계가 우러르는 영웅이신 그이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슬픔도 기쁨으로 되게 하시며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시네
영명하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끄시고
압제받던 사람들에게 권리를 되찾아주시고 명절의 기쁨 마련해주시네
하기에 그이는 온 우주를 휘황히 밝혀주는 위대한 태양
그이는 온 세계혁명가들의 수령,
그이는 모든 압제자들을 타승하는 힘,
그이는 제국주의아성을 짓부시는 불패의 위력,
그이께서는 60성상 불굴의 의지로 싸워오셨나니
그이의 영광과 업적은 천만년 길이 빛나리라.
온 세계인민들은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과 행복을 삼가 축원하노라.

수단 하르툼주 옴두르만시 중앙전기및물관리소 사무원 무함마드 아브 알리 까타리

조선인민과 함께 환호하게 되는 끝없는 긍지를 가지게 되며 전체 조선인민과 함께 〈김일성원수님께 만수무강과 영원한 영광을 축원합니다〉라고 소리높이 웨치는바입니다.

(캄보쟈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수령님께 드린 친서중에서)

당신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나는 까나리아섬자결독립운동과 까나리아섬의 진보적인민들의 이름으로 당신께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가장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전쟁시기나 평화시기나 할것없이 조선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당신께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반세기에 걸쳐 조선인민의 존엄,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당신께 인사를 드립니다.

(까나리아섬자결독립운동 총비서 안또니오 꾸빌로로부터 보내여온 축전에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쏘련내각은 당신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저명한 활동가이신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형제적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들은 조선인민의 복리와 쏘조협조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그리고 사회주의 협동체와 세계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당신의 활동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과 아울러 당신의 건강을 축원합니다.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엘. 브레쥬네브,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엔. 뽀드고르느이,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내각 총리 아. 꼬씌긴동지들로부터 보내여온 축전에서)

인류의 걸출한 영재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이시여!

조선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스승이신 당신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혁명력사및 로작연구소조》 성원들은 열렬한 축하를 드리는바입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당신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활동과정에서 실로 인류와 세계공산주의및 로동운동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습니다.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 류학생들의《김일성동지혁명력사 및 로작연구소조》성원들로부터 보내여온 축전에서)

각하께서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실뿐만아니라 민족적독립과 해방, 자유와 사회적진보를 위해 싸우고있는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스승이시며 희망의 등대이십니다.…

우리는 조선인민과 세계피압박인민들의 정의로운 위업에 끊임없는 령도를 주시기 위하여 주석각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파키스탄 《김일성주석로작번역위원회》 성원일동)

김일성주석님께서 만년장수하시여 조선의 평화적통일과 조선인민의 행복뿐만아니라 아세아의 평화와 세계혁명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령도하여주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호세이대학 총장)

온 조선인민이여, 환호하라!
세계의 투사들이여, 환성을 올리라!
몇백몇천리 지나왔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건만
원수님의 행군은 아직도 계속된다
그이의 등불은 영원히 우리를 비치리라.
위대한 김일성원수님 만수무강하십시오!
만대에 길이 빛날 영광을 축복합니다
당신께서는 금문자로
당신의 나라의 페지우에 자유에로의 길을 밝히셨으며
세계력사의 페지우에 자유에로의 길을
밝히셨습니다.

(오스트랄리아 평화인사이며 작가 스탠리 무어)

당신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합니다.

당신의 위대한 령도가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희망의 등대로 오래오래 비치기를 바랍니다.

(미국기자 라이오넬 마르틴의 축하편지에서)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발전을 위하여 세계피압박인민들의 구원자이시며 인류의 진보와 행복의 상징이신 당신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합니다.

(중근동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학생위원회》에서 보내여온 편지중에서)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혁명리론과 방침들을 창조하시여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위력한 투쟁의 무기를 안겨주시였으며 세계혁명승리에 위대한 공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우리들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세계적범위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인류의 영재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합니다.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일동으로부터 보내여온 편지에서)

《만경봉에 태양이 솟은 이날은 현대력사의 년대기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다》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벗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보내온 축전에서 수령님의 탄생을 《인류의 봄의 탄생》으로 노래하면서 60성상의 하루하루가 청사에 길이 빛날 위훈과 업적으로 아로새겨진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높이 찬양하였다.

만경봉에 인류의 태양이 솟은 이 날은 김일성주석각하를 위대한 수령으로, 불패의 명장으로 모시고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정당하게 투쟁하고있는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인민들과 압박받고 천대받는 인민들을 매우 기쁘게 하여주며 현대력사의 년대기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는 날입니다.

각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는 인류력사에서 매우 짧은 기간이였으나 그것은 각하께서 20세기의 맑스-레닌주의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현실에 구현하신 영광찬란한 혁명의 력사였습니다.

(라호르파키스탄조선친선청년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위원회》 위원장 무샤히드 후쎄인 싸이드로부터 보내여온 축전에서)

력사에는 전진을 규정하는 중요한 전환점과 결정적인 출발점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이시여!

60년전 당신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중요한 전환점의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탄생은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였으며 새로운 희망의 등대였기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혁명적이며 력사적인 탁월한 령도자이십니다.

(아랍기자동맹 서기장 위피크 티이비)

지금으로부터 60년전인 1912년 4월 15일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위대한 태양이시며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각하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새 조선의 혁명이 밝아오고 조선인민의 력사에 새 기원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말리 아세아, 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 아브둘라이에 쏘우)

인류의 영재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심으로써 검은 구름이 드리웠던 지구상의 모든곳에서 혁명의 새 아침이 밝아왔으며 제국주의의 억압밑에서 신음하던 모든 인민들은 자기들의 자유와 해방의 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내다볼수 있게 되였습니다.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류학생일동)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간의 당신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는 민족의 독립과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세계피압박인민들의 투쟁력사에 금자탑으로 빛나는 영생불멸의 혁명력사이며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나아갈 투쟁의 앞길을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며 인류에게 해방과 광명을 안겨주는 성스러운 력사입니다.

(이라크정치과학협회 위원장 따하야씨날 하디씨로부터 보내온 축전에서)

각하께서는 독창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습니다. 각하께서는 인류력사에서 한세대동안에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를 때려부신 20세기의 영웅이십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각하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아래 재더미우에 《사회주의모범의 나라》, 《천리마조선》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가장 곧바른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신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붉은 태양이십니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성원들로부터 보내여온 축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의 혁명투쟁력사는 세계인류의 해방을 위한 투쟁력사이며 전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완전승리와 종국적승리의 휘황한 대로를 펼치시고 이 대로에로 령도하시는 위대한 업적으로 수놓아진 영광스러운 투쟁력사입니다.

각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완전승리와 종국적승리에 관한 완벽한 해명을 주심으로써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반드시 지침으로 삼아야 할 투쟁리론과 강령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오늘 세계는 주석각하께서 쌓아올리신 투쟁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수령님을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20세기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의 밝은 등대로 우러러모시고있으며 김일성주석각하의 현명한 령도아래 날로 번영하는 조선을 한없이 부러워하고있습니다.

(파키스탄신문 《뉴타임스》 주필 자미를 라호만으로부터 보내여온 축전에서)

김일성동지의 60성상에 걸치는 지난 력사를 아는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아직 미제의 통치밑에서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세계인민들은 조선인민의 수령님의 60평생에서 영구불멸의 모범을 찾고있습니다.

(에꽈도르혁명가 레오나르도 로빼스 몬쌀베의 편지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성과적으로 구현하심으로써 인류력사에 주체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력사에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처럼 독창적인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리론을 창시하시고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며 자기 나라 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시는 그러한 민족적영웅과 걸출한 수령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아프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일동으로부터 보내온 축전에서)

당신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연구체득하는것은 전세계 혁명가들의 안목을 넓혀주는 요인으로 되고있습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나는 최근년간에 쌀바도르혁명가들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독자들에게 당신의 간고하고 모범적인 혁명투쟁력사와 혁명사상을 널리 소개선전하는것을 나의 가장 귀중한 혁명과업으로 삼아왔습니다.

(쌀바도르혁명가 로께 달똔이 보내여온 편지에서)

참으로 위대한 수령이신 당신의 위대한 혁명력사는 전체 조선인민들과 그리고 자기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위하여 싸우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불패의 힘과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며 혁명적정열과 지혜를 주는 원천으로, 승리의 길을 밝혀주는 혁명의 교과서로 되고있습니다.

실로 당신께서는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실뿐만아니라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전세계인민들에게 해빛을 비쳐주는 위대한 붉은 태양이시며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십니다.

(말리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일동)

김일성장군님

당신께서는 아름다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혁명적과학의 원천이시며 천재적지식의 소유자이십니다.

김일성장군님, 당신께서는 우리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시는분이시며 포악한 원쑤들에 의하여 버림받고 유린당한 인민들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과학 그것은 심장의 과학, 찬연한 빛을 뿌리는 과학입니다. 가증스러운자들을 증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시는 당신께서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랑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인

민의 락원을 펼쳐주시였습니다.

자유조선의 어버이 김일성장군님, 혁명에 일떠선 빙사들의 둘도 없는 전우, 당신께서는 진리와 용맹을 지니시고 적들을 격파하는 불타는 필승불패의 신념을 창조하시였습니다.

당신께서는 일제와 미제 그리고 많은 적들을 반대하는 전투들에서 승리의 신심과 용감성을 불러 일으키시였고 찬연한 태양빛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불태우며 휴식도 보수도 모르며 전력을 다바쳐 일하는 로동자들을 사랑하시고계십니다. 당신께서는 고통당하는 로동자들을 무장투쟁에로 부르셨습니다.

외국고용주들에 의하여 고역에 시달리고있는 로동자들의 충실한 벗이신 김일성장군님, 당신께서는 압박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식민지예속에서 자기 조국을 해방하기 위하여 싸우는 피압박인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계십니다.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피로를 모르시는 김일성장군님, 당신께서는 백절불굴의 혁명적정열로 조선과 전세계 해방을 촉진시키고계십니다.

당신께서는 농촌에서 버림받은 농민들을 사랑하시였고 제국주의자들의 포악한 명에밑에서 신음하던 농민들을 굶주림과 버림, 불행으로부터 구원하시고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산과 골짜기 그리고 바다에서 살길을 찾아헤매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계십니다.

(잠비아공화국에 있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김일성동지 로작및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를 대표하여 존 하이론다로부터 보내여온 편지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과 독립, 진보를 지향하는 수억만 사람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고계시며 수억만 사람들의 심장은 그이를 우러러 흠모하고있으며 그이께 충성다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수단신문《알싸하파》 4월 16일호)

존경하는 당신께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되신것은 영웅적조선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승리의 강력한 담보로 되며 세계혁명가들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또한 당신께서 공화국주석으로 추대되신것은 제국주의와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승리로, 커다란 사변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주석으로 추대되심으로써 수령님에 대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존경과 흠모의 정은 더욱 두터워지게 되였고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공화국의 영예와 자랑은 온 세상에 떨치게 되였습니다.

(팔레스티나해방조직바그다드지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반세기동안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및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전세계 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시였다.

하기에 오늘 세계인민들은 그이를 무한히 경모하며 신뢰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하고계실뿐만아니라 세계혁명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우리 시대 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한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계속 령도하여주시기 바란다.

(꾸바에 있는 꼴롬비아혁명조직성원 벨라스 께스 리까르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주석으로 추대되신것은 제국주의와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승리로, 커다란 사변으로 됩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주석으로 추대되신데 대하여 세계 수많은 나라의 벗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면서 그이께 열렬한 축하와 영광을 드리고있습니다.

친선적인 조선인민이 당신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지지를 표시한것은 당신께서 조선인민을 위하여 수십년간 싸우시면서 견지하여오신 헌신성과 독창성, 자력갱생의 원칙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의 싸우는 모든 인민들의 승리로 됩니다.》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대통령으로부터 보내여온 축전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국가주석으로 추대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조선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며 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모시는것은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영원토록 충성다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견결한 념원이며 한결같은 지향일뿐만아니라 수령님을 우러러 존경하고있는 예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기대이며 희망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류학생일동)

각하께서 주석으로 추대되신데 대하여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열렬히 축하하고 있으며 이 소식은 착취받고 억압당하는 인민들과 민족적독립과 자결권을 수호하며 강력한 반제국가를 건설하려는 인민들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습니다.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당신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우리 학생위원회는 당신께 충심으로 전투적인 인사를 드리면서 당신께서 싸우는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되시였다는 소식을 커다란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혁명사상에 대하여 다시금 표시한 조선인민의 신뢰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기쁨을 그 어떤 말과 글로도 다 표현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혁명적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유일한 수령이시며 위대한 령도자이시기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위대한 사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흠모의 정을 다시금 표합니다.

(중근동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학생위원회》에서 보내온 편지)

백절불굴의 탁월한 수령이시며 수많은 전투를 조직전개하시고 투쟁의 불길속에서 세련되시였으며 일제와 미제를 타승하시고 그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짓부셔버리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로 힘과 위대성의 상징으로 되게 하신 탁월한 수령이신 당신께서 인민들의 재부를 략탈하고 착취하는자들을 반대하는 세계 로동자, 농민, 혁명적인테리들을 세계혁명수행에로 령도하시는 시기에 당신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되신것은 실로 의의 깊은 일입니다.

당신의 령도밑에 전세계 인민들은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투사들은 당신의 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를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위대한 사상에서 고무를 받고있으며 당신의 위대한 사상을 식민주의가 남겨놓은 모든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희망의 등대이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단결의 상징입니다.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한 교원으로부터 보내온 축전에서)

우리는 반세기에 걸쳐 오직 혁명투쟁에 헌신하여오신 각하께서 주석으로 추대되신데 대하여 최대의 흠모의 정을 담아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진보와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고있는 파키스탄인민은 각하의 혁명적인 주체사상과 풍부한 투쟁경험을 따라배울것입니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성원들의 편지에서)

조선인민은 혁명의 태양이신 각하의 현명한 령도를 받음으로 하여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일치한 념원으로 각하를 자기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있습니다.

전세계 인민들은 또한 각하께서 세계혁명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하고계시는것으로 하여 주석각하를 세계혁명의 가장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있으며 우러러 존경하고있습니다.

주석각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 쌓아올리신 탁월한 업적은 세계혁명력사에서 영원히 빛날것이며 각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영생불멸할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김일성주석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으로부터)

광휘로운 빛발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문헌이라고 생각한다.

김일성동지의 로작은 모든 인민들을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의 기치, 승리의 기치이다.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활동가 아부달라 무르쉬드의 담화에서)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연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게 하는 강령적문헌으로 된다.…

실로 이번 그이께서 하신 연설은 사회주의제도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영향력을 더욱 높일수 있게한 위대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꾸바《보헤보도서관》관장 에두아르도 오도노싸의 담화에서)

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 력사적인 연설을 통하여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은 전세계에 더욱 뚜렷이 시위될것이다.

(일본 리쯔메이깡대학 명예총장)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각하께서 하신 이 연설은 오늘 나라의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캄보쟈인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고있다.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캄보쟈민족련합정부 경제 및 재정부장)

우리들 일본의 교원들과 로동계급은 일본사회의 변혁과 로동계급의 해방을 자기 손으로 쟁취하기 위해서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력사적인 연설에서 많은것을 배워야 한다.

(일본 교직원조합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마끼에다 모또후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는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 문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력사적인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를 발표하시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로작이 발표되자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 사회계는 련일 담화발표, 연구토론들을 진행하여 이 로작에 최대의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세계진보적출판계는 이 로작을 대서 특필로 게재하고 높이 찬양하는 글을 싣고있다.

그이의 이 로작이야말로 력사의 전행정에서 수행하여야 할 로동계급의 임무를 전면적으로 천명한 과학적공산주의의 전서이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현시대뿐만아니라 세기를 두고 영원히 빛날 《공산당선언》이다.…

우리의 념원과 지향이 구현되여있으며 우리들이 나아갈 앞길이 환히 밝혀져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력사적연설과 공화국사회주의헌법에

대한 학습을 잘하여 그이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해 누구나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야 한다.

(전인도민주당 위원장 피. 엘 라칸팔로부터 보내여온 편지에서)

김일성주석님의 력사적연설은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길을 휘황히 밝혀준 교과서이다.

김일성주석님의 력사적연설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나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우월한것인가를 잘 알았다.

(일본 학자이며 의사인 시미즈 히로유끼—로작학습모임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로작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풍부화시킨 또 하나의 특출한 모범이다.…

사회주의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사회주의를 옳게 건설하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되며 피착취 피압박인민들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1도 크레이타 초급중학교 교원 아브둘 아지즈의 담화에서)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룩된 풍부한 성과와 경험의 자랑찬 총화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일정에 오르고있는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요구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심오한 사상과 리론이 집대성화된 위대한 강령적문헌이다.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까히라 및 중근동 상주부대표 레지날드엠 카템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새 사회건설을 위한 사회주의헌법의 진정한 본보기》, 《가장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적법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마련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높이 찬양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 헌법은 1960년 이후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볼수 없는 특징과 독창성을 가진 매우 훌륭한 전형으로 된다.

(일본법률잡지 《법률시보》에서)

조선의 새 헌법은 정말 훌륭하다. 이 헌법이야말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반영한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문헌이다.

(꾸바에 있는 아랍인련맹 위원장 니꼴라스 꼬씨오의 담화에서)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부르죠아헌법처럼 일반적인 개념을 라렬한것이 아니라 조선인민이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혁명발전의 새 요구에 맞게 국가의 성격과 임무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활동원칙을 제시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헌법이다.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 구로끼 사부로)

이 새 헌법이야말로 진정한 근로인민을 위한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적헌법이다. 헌법에서 공화국공민의 권리와 의무가 착취와 압박이 없고 개인의 리익과 사회의 리익이 근본적으로 일치되고있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서 통일되고있는것은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부러운 일이다. 근로인민의 제반 권리가 전면적으로 완전히 보장된다고 하면서도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허위적이며 기만적인 자본주의헌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의 하나를 보여주고있다.

(일본 가꾸게이대학 교수 호시노 야스사부로)

이 새 헌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철저히 고수하며 사회주의전취물을 보위하는 가장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적법전이다.

(말리방송)

새 사회건설을 위한 사회주의헌법의 진정한 본보기이며 전세계 로동계급의 법전…

나는 이 헌법이야 말로 로동계급의 참다운 옹호자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사명을 다 할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나라들에서 절실하게 나서고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한 해답을 주는 불후의 고전이라고 생각한다.…

김일성주석동지께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실뿐만아니라 국제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제3세계인민들에게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계시는 우리 모두의 수령이시다.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바바오노좋라)

정치, 경제, 문화, 사상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백과전서적인 대법전이며 혁명의 위대한 교과서이며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에로의 발전을 내다볼수 있게 하는, 세계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는 헌법

(일본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연구토론회에서)

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은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된다. 바로 이 헌법은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활동할수 있도록 작성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주체의 헌법이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해주는 모범적인 헌법이다.

(일본센슈대학 교수)

《우리는 위대한 수령이신 주석 각하를 따라 배우고있습니다》

세계각국의 혁명가들과 진보적사회활동가들, 수많은 나라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 혁명적청년들, 지식인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세계혁명승리의 횃불이며 등대》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바 앞길을 내다보고있으며 주체사상을 배우고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구현할 결의를 다지고있다.

존경하는 주석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은 준엄한 난국을 헤치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온 불멸의 위대한 사상일뿐만아니라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싸우는 전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불패의 힘과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며 혁명적정열과 지혜를 주는 원천, 풍부한 재부로서 19세기에 《공산당선언》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선고한것처럼 20세기에 제국주의의 종말을 선고하는 위대한 사상입니다.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위원회 《김일성동지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일동으로부터 보내여온 편지에서)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당신의 특출한 공헌은 조선땅에서 두제국주의강국을 타승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력사적인 기적을 창조하신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전세계 인류에게 우리 시대의 가장 혁명적이며 가장 선진적인 사상을 안겨주시고 반제반미투쟁전략과 방침들을 제시하신데 있습니다.

당신께서 내놓으신 탁월한 불후의 천재적강령적로작들과 문헌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으로서 전세계 인류로 하여금 자기앞에 나선 절박한 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게 하여주시였습니다.

때문에 당신의 혁명사상이 집대성된 불후의 로작들과 문헌들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강령이며 교과서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아프리카에서 공부하고있는 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소조》성원들이 보내여온 축하문에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제시하신 제반 독창적인 혁명리론과 방침들은 세계혁명리론발전에 대한 탁월한 기여로 되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끝없이 귀중한 사상리론적 재부로 됩니다.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일동으로부터 보내여온 편지에서)

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세계의 모든 나라 특히 신생독립국가들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위대한 지도로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혁명조직의 축전에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어찌 조선인민의 수령으로, 조선의 붉은 태양으로만 모시겠는가 붉은 태양의 그 찬연한 빛이 어찌 조선반도만을 비친다고 하랴!

나는 인식상착오, 시대적착오를 범하였다.

나는 좁은 개념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로작들을 《20세기의 공산당선언》이라고 말하였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현시대뿐만아니라 세기를 두고 영원히 빛날 《공산당선언》으로 될것이다.

(인도의 저명한 한 사회활동가)

주석각하께서는 실로 인류가 낳은 20세기 영웅이시며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천재적인 과학적리론과 탁월한 령도력, 숭고한 덕성을 겸비하신 걸출한 사상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수령이신 주석각하를 따라 배우고있습니다.

(말리 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 아부둘라이에 쏘우)

…당신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깊이 체득하며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것을 우리들의 첫째가는 의무로 간주하고있습니다.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일동으로부터 보내여온 편지에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주석각하를 그처럼 경모하는 우리들은 정성들여 만든 선물을 마련하여가지고 귀국에 오는 영광을 지니였습니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각하의 명함은 주석각하께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그리고 제인민들간의 우호와 친선을 위하여 바치시는 빛나는 공헌으로 하여 오늘 일본인민들은 물론 전세계인민들로부터 가장 높으신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 계십니다.

《김일성주석로작애독회》를 무은 우리 회원들과 전체 성원들은 자유와 행복의 기치인 주석각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하며 깨달은 그 진리를 일본인민들속에 해설선전하는 활동을 넓히는 동시에 최근 주석각하께서 일본 《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주신 가르치심을 지침으로 하여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국교정상화와 인민들의 우호와 친선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일본정기선박 《고후꾸마루》의 《김일성주석로작애독회》회원들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이즈미 시게요시로부터 보내여온 편지에서)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풍부한 경험, 탁월한 령도력과 높은 덕성의 소유자이시며 그리고 오랜 기간 혁명적폭풍속에서 조선인민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고계시는 혁명의 천재적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우는것—이것은 우리 《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성원들의 의무입니다.

(말리 《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을 따라배워야 한다.

조선은 우리 나라와 거의 같은 시기에 해방되였다. 조선은 비록 산이 많

은 나라이지만 오늘 바늘에서 땅크에 이르기까지 즉 인민생활과 국방에 필요한 모든것을 다 자체로 만들고있다.

이것은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체로 풀어나갈데 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조선로동당의 기본사상으로 되고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탄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김일성주석님을 한번 뵙고나면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매한 덕성과 풍모에 누구나 완전히 감화된다.

김일성주석님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 인민적사업작풍을 본받아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여야 한다.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시는 인민적사업작풍을 배워야 한다.

(파키스탄 판잡주정부 책임상이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를 보고)

《전아프리카 김일성동지주체사상토론회》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에 면해있는 시에라 레온공화국 수도 프리타운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리론가이시며 천재적인 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관한 전아프리카적인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1972년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된 《전아프리카 김일성동지주체사상토론회》에는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심오히 연구 학습하고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고있는 시에라 레온, 수단, 기네, 말리, 탄자니아, 콩고, 소말리아, 적도기네, 알제리, 모리셔스, 나이제리아, 또고, 다오메 등 아프리카 16개 나라의 당과 정부의 책임적인 인사들, 정치활동가들과 사회활동가들, 박사, 교수들, 출판기관 사장, 주필들,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대표들과 투쟁단체대표 등 50여명의 대표들과 수많은 방청자들이 참가하였다.

여기에는 또한 시에라 레온 전인민대회당 총비서이며 시에라 레온공화국 재정부장 씨. 에이. 카마라—테일러와 토지및광업부장 에쓰. 비. 키우수 콘테, 프리타운시장 아끼보 베쯔가 참석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개회사와 축하연설, 보고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였다.

토론회는 시종일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토론회참가자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두터운 신뢰의 정 그리고 그이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아프리카혁명을 빛나게 수행하려는 드높은 결의로 충만된 가운데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전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과 아프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에 관한 결의》와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전아프리카김일성동지주체사상토론회》의 개회사에서 이 토론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수단대표 아지즈 쥬베리 박사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인민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행복한 새 사회의 건설을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환경속에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이 토론회를 가지게되는것은 민족적독립과 자유, 번영을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기본사조로서 혁명하는 모든 인민들이 반드시 따라 배워야 할 혁명사상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주체사상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견인력을 가지고 세계의 모든 인민들속에 급속히 전파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존경을 받고계시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은 이미 조선의 현실에서 빛나게 구현되였다고 하면서 조선의 훌륭한 현실은 사상리론적으로뿐만아니라 실천적으로 주체사상의 정당성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시에라 레온전인민대회당 총비서이며 시에라 레온공화국 재정부장인 씨. 에이. 카마라—테일러는 축하연설에서 《조선을 가장 위대한 번영에로 령도하신 분이시며 빛나는 사상가이시며 현명한 령도자이시며 백전백승의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로작이 가지는 불패의 생활력과 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모든 근로인민들을 해방시키며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에 기여한다는데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사회주의의 빛나는 진리를 이루는 그이의 로작들을 연구하는것은 거대한 기쁨으로 되며 고무로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적들에게 최후의 심대한 패배를 주기 위하여 사회주의의 훌륭한 진리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연구하며 실천하는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토론회 준비위원회 위원이며 다오메대표인 세계직련 다오메로총상주대표 까씨엔 하진 그바기디는 자기 보고에서 《전아프리카 김일성동지주체사상토론회》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지적한 다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그이의 교시를 인용하고 설명하면서 조선에서 그것이 훌륭히 구현되여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과 정당성이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력사적으로 확증되였다고 힘있게 말하였다.

그는 《조선의 경험은 식민지기반으로부터 갓 해방된 청소한 우리 아프리카민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귀중한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부 아프리카나라들이 달성한 아주 유망한 성과들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는데 이러한 실례를 기네, 수단, 소말리아, 탄자니아, 콩고 등에서 찾아볼수 있으며 또한 이 대륙의 민족해방운동을 실례로 들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모든 나라에 구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더 잘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반세기에 걸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필하신 혁명적인 로작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책과 현실을 깊이 연구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또한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 시대의 기본사조로 되였으며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위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세계인민들속에 더욱 널리 전파되고있다.》고 하면서 《모든 대륙의 매개 나라의 조건들에 완전히 적

용되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신성한 원칙들을 관철함으로써 인민들이 압박과 착취 세력을 타승하리라는것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마감으로 보고자는 《우리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자본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축원하며 그이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많은 나라 대표들이 격동된 심정으로 열렬히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위력한 생활력에 대하여 말하면서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며 혁명과 건설에 구현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토론에서 강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사상은 의심할바없이 인간의 해방과 나라의 독립, 자주의 보물고에 귀중한 기여를 하였다.

주체사상은 나라의 혁명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혁명적으로 실천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된다.

현명하신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국제적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운동발전에 공헌하고있다. 이 사상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이 사상은 민족리기주의와 민족배타주의를 배격하고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 혁명력량을 단결시키는 기초로된다.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은 우리 시대의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들을 반영하고있다.

맑스-레닌주의주체철학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찬동을 받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께 나는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드린다. 지금 세계혁명적인민들과 투사들은 조선을 〈주체의 조국〉으로 인정하고있다.

우리는 기네(비싸우), 모잠비끄, 앙골라, 나미비아, 산토메 프린시페, 남아프리카의 전투적인 형제들에게 자기의 대오를 더욱 굳게 결속하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숨쉬며 자기의 완전한 해방을 이룩하기 위해 아프리카혁명의 영광스러운 투쟁의 기치를 높이들것을 호소한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새 아프리카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떠선 아프리카인민들의 심장속에서 계속 고동칠것이다.

주체사상의 창시는 맑스-레닌주의철학사상의 발전에 대한 력사적공헌으로 된다.》

(말리평화옹호위원회 조직비서이며 말리 교육부 부국장인 보꿈의 토론에서)

《우리는 미제국주의군대를 남조선에서 무조건 몰아내며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인민대중과 운명을 같이하며 아프리카혁명의 성스러운 싸움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는 진위적인 전투원으로 될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영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프리카인민들의 자유와 혁명을 위해서만 투쟁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아프리카대륙의 혁명전사들이다.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것이며 우리는 혁명의 길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혁명에 충실할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반드시 완수할것이다.》

《전아프리카 김일성동지주체사상토론회의 정중한 연단에서 우리 대표단은 태양이시며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위대한 혁명가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철학을 연구하는 아프리카대학생소조의 모든 성원들의 한결같은 열렬한 념원을 담아 조선혁명의 승리와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통일된 조선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들의 국제적련대성을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 인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그이께서 만년장수하실것을 삼가 축원합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철학 연구 아프리카대학생소조》다니엘 므바 은데메즈의 토론에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세계에 널리 퍼져가고있다. 그 사상은 현시기 혁명하는 인민들과 나라들의 혁명을 위한 정책수립에서 핵을 이루고있다.》

《주체사상은 빛나는 불멸의 사상이며 착취와 압박, 부정의를 반대하는 우리 모두의 지도적인 사상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본 립장과 태도를 가르쳐주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은 보편적의의를 가지고있으며 그것은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고있는 창조적인것이다.》

《주체사상은 모든 혁명가들과 진보적인사들의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아프리카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아프리카의 전반적해방을 위한 기본 담보로 된다.

아프리카는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확립해야 하며 난관을 극복하고 희생을 무릅쓰면서 자주, 자립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

《아프리카는 진보를 위한 실천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의 투쟁을 구체화하고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학설을 필요로 한다.

이 혁명적학설은 바로 주체사상이다. 때문에 아프리카는 주체사상을 필요로 한다.》

(시에라 레온신문 《위훈》 주필 아리까 아우따 끄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세계에 널리 퍼지고있다. 그 사상은 현시기 혁명하는 인민들과 나라들의 혁명을 위한 정책수립에서 핵을 이루고있다.》

(수단대표 법률가 하심 모하메드 아브돌 가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민족해방운동에 가장 의의깊은 영향을 주고있다. 나미비아인민들은 나미비아혁명이 반드시 나미비아인민들에 의하여 수행되여야 한다는 혁명적인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혁명을 진행하고있다.》

《우리는 우리의 무장투쟁으로 반혁명세력을 짓부실수 있다고 확신하고있다》.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김일성동지의 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책임자 사카리아 쉬콤바)

《오늘 소말리아인민은 〈에스까와 우갑소〉(자력갱생)의 기치아래 나라의 건설에 일떠서고있다. 이것은 소말리아에서의 과학적사회주의건설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상적구호이다.

〈에스까와 우갑소〉의 정신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신심은 우리가 조선동지들의 경험에서 배운 모든것들에 의해 그 정당성이 실증되고있다.

1970년이후 소말리아의 수많은 대표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이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달성한 빛나는 성과들과 경험을 배우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하였다.

지금 소말리아에서는 〈에스까와 우갑소〉에 관한 학설이 우리 인민의 모

든 생활의 필수적구성부문으로 되고있다.》

(소말리아대표단 단장이며 이나라 교육부 국장 이브라힘 모하메드 아비안)

《조선을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이끌고있는 주체사상은 우리의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뿐만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탄자니아에서는 이미 자력갱생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원칙을 우리의 발전의 기본원칙으로 삼기로 하였다. 주체사상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다. 조선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은 주체사상만이 진정한 독립을 보장해준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당으로 하여금 주체의 길을 따라 나가게 하여주었다.》

(탄자니아국회 의원이며 다르 에스 살람종합대학 학부장 대리인 탄자니아대표 에이. 제이 테무박사)

《자주, 자립, 자위의 주체사상이 갖는 의의는 그것이 외래통치의 모든 후과를 가시고 완전한 자유를 촉진시킬수 있는 책으로 되며 빛으로 된다는데 있다. 위대한 사상가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광신적이고 반혁명적인 부르죠아자유주의학설에 물젖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아프리카는 자기의 부와 생명을 제국주의, 식민주의 제물로 제공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구국의 유일한 길은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사상, 주체사상을 빨리 구현하는데 있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하여 해방에 대한 혁명정신이 심장속에 타오르고있다.》

(시에라 레온 전인민대회 당산하 청년동맹 집행성원 방괴 루이아이)

《아프리카의 젊은 대학생들인 우리들은 존경하는 수령님의 로작들과 그이의 전기를 심오히 학습하고있다. 우리들은 존경하는 수령님의 백전백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우리의 뼈와 살로 만들어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며 그 사상대로 살며 투쟁하고있다.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아프리카의 청년들과 대학생들인 우리들은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을 심장으로 깊이 연구하고있으며 그이의 위대한 사상을 목숨을 걸고라도 끝까지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그것은 세계혁명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고있는 주체사상이 아프리카대륙의 완전한 독립과 완전한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아프리카의 해방투사들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끌어 갈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라는것을 확신하고있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철학연구아프리카대학생소조》 대표단 단장 다니엘 모바은데메즈)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현대인류의 가장 완벽한 진보적사상이며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전백승의 사상이다.》, 《공산주의지도자들은 혁명의 횃불을 지피고 그것을 높이 추켜들었다. 그들중에서도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첫자리를 차지하고계신다.》,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로작들은 인류사회발전에 대한 인식에 준 가장 큰 공헌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자!》,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관철하자!》

(《전아프리카 김일성동지 주체사상토론회》의 토론자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을 발표한 여러 나라 출판물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혁명투쟁과 공산주의운동앞에 자주적발전의 새로운 휘황한 진로를 열어놓으시였을뿐아니라 전일적인 사상리론체계를 갖춘 주체의 혁명적학설을 완성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그러기에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이 구현되고있는 불후의 로작들을 연구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으며 그이의 혁명적로작들은 날이 갈수록 강력한 견인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각종 언어로 번역출판되고있다.

그중 1972년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소개한 수령님의 로작과 그를 출판한 주요신문, 잡지, 출판사만을 아래에 소개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2년에 하신 《신년사》

잠비아신문 《데일리 메일》(1월 29일호), 콩고신문 《브라자빌》(2월 3일호), 탄자니아신문 《느구루모》(2월 12일호),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2월 4일부터 3일간 련재), 네팔주간지 《마뜨라 푸미》(2월 15일호), 이라크신문 《알라싸드》(3월 10일 중앙통신),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기관지 《마잠베리》(2월 29일호), 싱가포르신문 《명보》(4월 11일호), 싱가포르신문 《신명일보》(4월 27일 중앙통신), 《인도공산당(맑스주의)마두라에》 출판사(타밀어), 인도 《로끄레하르》출판사(편잡어, 우르두어), 핀란드 땀뻬레에 있는 《사난떠에》 출판사, 네팔진보출판사에서는 단행본으로 출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 《요미우리신문》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일본 《요미우리신문》(1월 14일호), 로므니아신문 《쓰끈떼아》(1월 16일호), 쏘련 《쁘라우다》지(1월 18일호), 일본영자신문 《데일리 요미우리》(1월 20일호), 뽈스까신문 《뜨리뷰나 루두》(2월 5일호), 인도신문 《이브닝뉴스》(2월 6일호), 이라크신문 《바그다드 옵써버》(2월 7일호), 쿠웨이트신문《알라이 알암》(2월 7일호), 콩고신문 《브라자빌》(2월 9일호), 소말리아신문 《스뗄라 도또브레》(2월 11일호), 민주웰남 《인민》지 (2월 17일 중앙통신), 스웨리예신문 《아프톤 블라데트》(2월 17일호),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2월 19일~23일 련재), 인도신문 《샤베라》(2월 28일호), 인도잡지 《쏘셜리스트 파노라마》(2월호), 시에라 레온신문 《데일리 메일》(3월 1일호), 수단신문 《나일미러》(3월 2일부터 련재), 버마잡지 《푸니빠》(3월호), 가나신문 《데

일리 그래피크》(3월 28일호), 인도신문 《파틀라멘터리 타임스》(3월 13일~29일 련재), 이라크신문 《알라써드》(3월 18일호), 수단신문 《나일미러》(3월 16일~련재), 칠레신문 《라 나씨온》(3월 22일 중앙통신), 이라크신문 《바그다드 옵써버》(3월 24일), 인도신문 《지제라운》, 《데쉬드프》, 《마프리푸미》(3월 25일 중앙통신), 인도잡지 《콘템퍼러리》(3월호), 민주예멘신문 《싸우틀 움말》(4월 2일호), 파키스탄신문 《아화크》(4월 10일 중앙통신), 파키스탄신문 《타미르》(4월 11일 통신), 인도신문 《북며타라》(4월 11일호), 노르웨이신문 《다그블라데트》(4월 12일호), 세네갈신문 《모니떼르 아프리깽》(4월 14일 중앙통신), 세네갈신문 《아프리크 누벨》(4월 15일 중앙통신), 콩고신문 《브라자빌》(4월 17일호, 20일호), 단마르크신문 《폴리티켄》(4월 20일호), 뿌에르또 리꼬신문 《클라리다드》(4월 28일 중앙통신), 인도네시아신문 《안까딴 베르센쟈따》(4월 29일호), 탄자니아신문 《느구루모》(5월 15일호), 꾸바신문 《반구아르디아》(7월 22~23일호), 이라크의 《알이라크》인쇄소, 인도의 《모자이크》출판사, 《인도공산당(맑스주의)마두라에》 출판사, 《로끄레하르》출판사, 《진보출판사》, 레바논《다르알탈리아》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한 담화

미국 《뉴욕타임스》(5월 31일호), 일본 《아사히신봉》(5월 31일호),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6월 1일호), 버마신문 《가디언》(6월 2일호), 체스꼬슬로벤스꼬 《스워보드네 슬로보》(6월 3일호), 로므니아신문 《쓰끈떼아》(6월 3일호), 쏘련 《쁘라우다》(6월 3일호), 웽그리아신문 《마쟈르 히믈라쁘》(6월 3일호), 레바논신문 《리 싸르》(6월 3일호), 레바논신문 《알 무하리르》, 《알 리와우》, 《알 바이라끄》, 《알 요겸》(6월 12일, 13일호), 네팔신문 《코먼뷰》(6월 15일호), 레바논신문 《알 안바》(6월 16일호), 파키스탄신문 《돈》(6월 17일호), 레바논신문《싸우트 알 우르바》(6월 19일호), 파키스탄신문 《마싸와트》(6월 20일호), 쿠웨이트신문 《데일리뉴스》(6월 21일호), 네팔신문 《코머너》(6월 25일호), 스웨리예신문 《엑스프레쎈》(7월 4일, 5일 련재), 레바논신문 《알 바와르》(7월 3일호), 이라크신문 《알 무즈타마》(7월 6일호), 예멘아랍공화국신문 《알 싸아브》(6월 8일호), 칠레잡지 《뿐또피날》(7월 10일 중앙통신), 수리아신문 《알 바아스》(7월 12일호, 13일호 련재), 소말리아신문 《선봉》(7월 14일호), 인도신문 《파틀라멘터리 스타더스》, 잡지 《샤벨라》, 잡지 《노던 인디아 파트리카》(7월 23일 중앙통신), 꾸바신문 《반구아르디아》(7월 22일, 23일호 련재), 말리신문 《에쏘르》(7월 26일호), 수단신문 《알 싸하파》(7월 25일호), 인도잡지 《콘템퍼러리》(7월호), 부룬디신문 《마잠베띠》(7월 30일호), 인도잡지 《대학생의 목소리》(7월호), 탄자니아신문 《느구루모》(9월 12일호), 말따신문 《말따뉴스》(10월 24일 중앙통신), 버마랑군대학잡지 《떠베시블》(11월 12일 중앙통신), 시에라 레온신문 《위욘》(12월 6일 중앙통신》, 3대륙인민단결기구 보도잡지 《뜨리꼰띠넨딸》(12월 4일 중앙통신), 파키스탄 《아호마드》국제출판사, 버마 《메따모》출판사, 전인도조선친선협회, 레바논 《다르 탈리아》출판사, 인도 《모자이크》출판사(힌디어), 네팔진보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과 한 담화》

파키스탄신문 《모닝뉴스》(6월 19일호), 네팔신문 《자나두트》(6월 30일~7월 1일 련재), 소말리아신문 《선봉》(7월 28일호),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8월 5일호), 탄자니아신문 《느구루모》(8월 14일호), 잠비아신문 《데일리 메일》(8월 19일호), 인도 《번자브 북크 센터》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 《마이니찌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일본신문 《마이니찌 데일리 뉴스》(9월 20일호), 일본《마이니찌신붕》(9월 20일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인민일보》와 《해방군보》, 《광명일보》(9월 21일), 벌가리아신문 《뜨루드》와 《제메젤쓰꼬 즈나미》(9월 20일호), 애급신문 《알 아호바르》(9월 20일호), 이라크신문 《알 줌후리아》(9월 20일호), 버마신문 《가디언》(9월 20일호), 쿠웨이트신문 《쿠웨이트 타임스》(9월 19일호), 인도신문 《패트리오트》(9월 20일호), 수단신문 《알 싸하파》(9월 20일호), 웽그리아신문 《네프 싸바드샤그》(9월 21일호), 칠레신문 《라 나씨온》(9월 23일호), 인도신문 《샤베라》(10월 3일 중앙통신), 칠레신문 《엘 클라린》(10월 3일 중앙통신), 유고슬라비아신문 《뽈리찌까》(10월 13일호), 파키스탄신문 《네싸와트》(10월 16일호), 로므니아신문 《쓰끈떼아》, 《로므니아 리베러》, 《문까》, 《쓰끈떼아 띠네레뜰루이》(10월 4일 중앙통신), 소말리아신문 《선봉》(10월 20일호), 레바논신문 《알 무하리르》(10월 21일~26일 6차 련재), 스웨리예신문 《다겐스 뉴헤테르》(10월 23일호), 레바논신문 《알읍》(10월 24일~29일까지 6차련재), 이라크신문 《데일리뉴스》, 《라 알아숟》(10월 25일호), 쿠웨이트신문 《라이 알 아암》(10월 25일호),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10월 27일호), 잠비아신문 《데일리 메일》(10월 28일호), 이라크신문 《알 무즈타마》(10월 30일호와 2월 5일호), 탄자니아신문 《느구루모》(10월 30일호), 이라크신문 《알라쉬드》(10월 29~12월 3일까지 4차련재), 세네갈신문 《모니떼르 아프리깽》(11월 2일호), 레바논잡지 《알 발랴그》(11월 6일호), 수단신문 《나일미러》(11월 11일 중앙통신》, 수리아신문 《알 아호부 알 리야티》(11월 18일호), 콜롬비아잡지 《엘쏠》(12월 17일 중앙통신), 애급신문 《알 줌후리아》(12월 17일호),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잡지 《알 푸눈》(12월호), 부룬디신문 《우봄웨》(12월 22일호), 인도공산당(맑스주의) 마두라에 출판사에서 타밀어로 출판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민주예멘신문 《싸우틀 움말》(1월 6일 중앙통신), 유고슬라비아 《국제로동운동연구소》기관잡지 《국제로동운동》(1월 27일호), 인도신문 《블리쯔》(2월 18일호), 파키스탄주간지 《파키스탄 모니터》(1월 25일호), 인도신문 《파이오니어》(3월 15일호), 잠비아신문 《데일리 메일》(11월 11일호), 이라크신문 《알 무즈타마》(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6회 련재), 프랑스 《진 아프리끄》출판사, 《인도공산당(맑스주의)마드라에》 출판사(타밀어), 인도 《네쇼널부끄에젠시》출판사(벵갈어), 인도 《데샤버마니》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미국신문 《가디언》(4월 19일호), 이라크신문 《알 무즈타마》(8월 24일호,

31일호, 9월 4일호 련재), 이라크신문 《알라쉬드》(9월 9일호), 수단잡지 《아호드아싸울티》(6월 28일 중앙통신), 나이제리아 《오로도》출판사, 스위스조선공보위원회, 프랑스의 《전 아프리끄》출판사(아랍어),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서부베를린의 붉은기출판사, 우루파이조선친선문화협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수리아신문 《알 우쑤부우 알 리야뒤》(12월 19일~1월 3일 3차 련재), 싱가포르신문 《성주일보》(12월 10일호), 나이제리아신문 《뉴스》(2월 3일호), 페루의 《20세기》출판사(2월 15일호), 이라크신문 《알 무즈타마》(2월 21일 중앙통신), 중국인민출판사, 우르파이조선문화협회,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이딸리아의 《깔렌다리오 델 뽀뽈로》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페루잡지 《오이가》(1월 22일 중앙통신), 칠레신문 《엘 끌라린》(1월 27일호), 프랑스잡지 《아프리끄 아지아》(2월호), 이라크신문 《알라씨드》(3월 5일, 12일호 련재), 이라크신문 《알무즈타마》(7월 14일호), 쿠웨이트신문 《쿠웨이트 타임스》(7월 27일호), 레바논신문 《알욤》(8월 6일호), 탄자니아신문 《느구루모》(8월 7일호), 레바논신문 《싸우틀 오루바》(8월 10일, 11일호련재), 민주예멘잡지 《알 푸눈》(8월 15일~9월 1일호련재),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김일성동지로작출판위원회》(문헌집), 베네수엘라 팝스주의국제출판사, 파키스탄 《아호마드》국제출판사, 버마 《메따모》출판사,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조선인민파의 련대성위원회, 중국인민출판사, 우루파이조선친선문화협회, 파키스탄 《아호마드》국제출판사, 네팔, 핀란드 《사난며에》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민주예멘잡지 《알 푸눈》(8월 14일 중앙통신), 이딸리아 《깔렌다리아 델 뽀뽈로》출판사, 노르웨이공산당출판사, 프랑스의 《프랑스 누벨 프레스 빠리지앤느》출판사,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조선인민파의 련대성위원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리비아신문 《알 호르리예》(1월 11일, 14일호련재), 세네갈신문 《아프리끄 누벨》(2월 14일 중앙통신), 인도신문 《파이오니어》(4월 11일호), 꼴롬비아의 《보치까》출판사, 우루파이조선문화협회,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프레제돈》인쇄협동출판사,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베네수엘라팝스주의국제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인도신문 《샤벨라》(8월 12일호), 인도신문 《너브 져마나》(9월 2일호), 레바논신문 《알욤》(1월 9일호), 노르웨이공산당출판사,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프랑스의 《프랑스 누벨프레스 빠리지앤느》출판사, 칠레의 싼띠아고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리비아신문 《알 호르리예》(2월 7일 통신), 이라크신문 《알라쉬드》(9월 13일호), 레바논신문 《알 샤아브》(9월 20일호), 민주예멘잡지 《알 푸눈》(10월 10일), 스위스공보위원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

이딸리아 《깔렌다리오 델 뽀뽈로》출판사와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쿠웨이트신문 《알 씨아사》(9월 11일호), 이라크신문 《알라쉬드》(12월 17일호), 꼴롬비아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토지개혁의 총결과 금후과업》

이라크신문 《알 무라마》(1월 5일까지 련재), 파키스탄신문 《마싸와르》(1월 11일호)와 《뉴타임스》(1월 14~15일 련재), 수리아신문 《니달 알 팔라힌》(2월 14일 중앙통신), 칠레신문 《라 나씨온》(12월 15~16일 련재)

탄자니아 《아루샤》인쇄공장, 인도 《네쇼널 부끄에젠시》출판사(벵갈어)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현계단에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파키스탄신문 《뉴타임스》(2월 1일호), 수단신문 《알 싸하파》(2월 1일부터 6회련재), 싱가포르신문 《신명일보》(2월 5일호), 이라크신문 《알 라씨드》(2월 6일, 12일호), 싱가포르신문 《명보》(2월 11일호), 소말리아신문 《선봉》(2월 25일호)

《사회주의혁명의 현계단에 있어서 당 및 국가 사업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레바논 《다르 알 딸리아》, 파키스탄 《아호마드》국제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새 조선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소말리아신문 《선봉》(5월 19일호), 버마신문 《랑군네씽드덩사》(5월 13일호), 꼴롬비아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관료주의를 퇴치할데 대하여》

파키스탄신문 《뉴타임스》(2월 28일, 29일련재), 소말리아신문 《선봉》(3월 10일호), 버마 《메따모》출판사, 파키스탄 《아호마드》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인도공산당 나두주위원회와 레바논 《다르 알 딸리아》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

민주예멘신문 《싸우틀 움말》(3월 12일호),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잡지 《알 준디》(11월 12일호), 버마의 《메따모》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당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민주예멘신문 《싸우틀 움말》(2월 13일호), 소말리아신문 《선봉》(10월 6일호), 파키스탄 《아호마드》국제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세네갈신문 《아프리크 누벨》(6월

15일호), 세네갈신문 《모니떼르 아프리껜》(8월 24일호),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프레제론》 인쇄협동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수단신문 《나일미러》(1월 30일 중앙통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꼴롬비아 《보치까》, 칠레의 《싼띠아고》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우루과이조선문화친선협회, 인도공산당 타밀나드주위원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꼴롬비아 《보치까》, 칠레의 《싼띠아고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사회주의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싱가포르신문 《민보》(11월 8일호)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네팔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모든 힘을 민주기지의 강화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소말리아신문 《선봉》(6월 23일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네팔진보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의 총화에 관하여》
파키스탄 《아흐마드》국제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이라크신문 《알 무즈타마》(3월 2일호), 칠레신문 《엘 끌라린》(12월 31일부터 2일간련재)

《조선인민군창건에 즈음하여》
콩고신문 《브라자빌》(2월 7일호)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콩고신문 《브라자빌》(6월 3일호)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수리아신문 《알 바아스》(2월 21일 중앙통신), 꾸바신문 《에스빠냐 레뿌블리까나》(2월 24일 중앙통신), 쿠웨이트신문 《데일리 뉴스》(3월 17일호)

《기술혁명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
싱가포르신문 《남양일보》(6월 10일호)

《경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도신문 《구지라트 쎄마짜르》(4월 15일호)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
네팔진보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국영공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며 기업소를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소말리아신문 《선봉》(8월 18일호)

《건설사업에서의 혁신을 위하여》
레바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싱가포르신문 《명보》(6월 30일호)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수리아신문 《알 오르바》(2월 29일 중앙통신), 버마잡지 《빠라워웅》(6월호), 소말리아신문 《선봉》(12월 6일 중앙통신), 칠레의 쁘렌싸 라띠노 아메리카나 에쓰. 아.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민청단체들의 기본임무》
네팔진보출판사, 버마 《메따모》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민주예멘잡지 《알 준디》(9월 20일호)

《조국광복회10대강령》
네팔신문 《카르톤 안리 빌》(5월 15일 중앙통신), 파키스탄신문 《뉴타임스》(5월 5일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
파키스탄 《아흐마드》국제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우리는 이 해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일할것인가?》
수리아 주간지 《알 우쑤부우 알 리야뒤》(2월 6일호)

《목전조선정치정세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수단신문 《알 싸하파》(11월 11일호)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기초》
인도공산당 타밀 나두주위원회, 버마의 《메따모》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
싱가포르신문 《성주일보》(4월 26일호), 소말리아신문 《선봉》(12월 15일호)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버마신문 《보더타웅》(1월 6일호), 싱가포르 신문 《신명일보》(4월 25일호)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인도신문 《아모뜨리 바자르파트리카》(4월 13일호)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네팔신문 《마더랜드》(11월 29일, 30일호련재), 파키스탄 《아흐마드》국제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핀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칸산 우우티세트〉를 위하여 핀란드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수리아신문 《알피다》(1월 18일호)

문헌집 《혁명적문학예술에 대하여》
영국 런던에 있는 《아프리카》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문헌집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이딸리아 《깔렌다리오 델 뽀뽈로》출판사, 희랍(희랍어),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로동법령초안에 대하여》
파키스탄신문 《뉴타임스》(1월 21~22일호)

1972년 국제정세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국제정세발전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국제정세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는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들에게는 불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몇개의 렬강들이 세계를 지배하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정의와 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이 세계를 틀어쥐고나가는 시대입니다.》(《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과 한 담화》, 단행본, 4폐지)

1972년에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 로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 력량은 급속히 장성강화되고 이 혁명력량앞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세계반동세력은 빠른속도로 쇠퇴몰락하였다. 이해 일어난 국제적사변들과 혁명정세의 발전은 그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필승불패의 생활력을 실증해주었다.

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있으며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자주성을 절실히 요구하여 투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늘 세계인민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요구하며 반제자주의 길로 나가는 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 있다.

특히 이해에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온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 온세상에 넘치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위신은 날을 따라 높아져 우리의 국제혁명력량은 더욱 급속히 확대강화되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이해 우리 인민들과 함께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한없는 감격과 기쁨속에서 뜻깊게 기념하였다.

이해에 지구상의 모든곳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강화발전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거대한 리론실천적공헌을 하고계시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열렬한 흠모의 정이 세계 인민들의 심장속에 더욱더 높이 고동치고있는 환경속에서 그이의 탄생 예순돐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1972년 4월 15일, 이 영광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 각국의 당 및 정부지도자들, 혁명조직들, 사회단체들, 국제기구들, 수령님의 로작연구소조들, 사회활동가들과 개별적인사들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이께 끓어넘치는 경모의 정을 담아 축전들과 축하친서 및 축하편지를 보내왔으며 수많은 축하시와 충성의 노래를 지어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이 영광의 날을 《인류의 봄의 탄생》의 날로 그이를 따라배우는 《배움의 날로 기념》하였다.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나라의 수반들을 비롯하여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귀중한 선물을 드리며 수령님께 최대의 존경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파키스탄의 한 《김일성동지로작연구위원회》성원들은 히말라야산맥의 험한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4천 500리나 되는 먼곳에 가서 6톤에 달하는 희귀한 천연대리석을 가져다가 거기에 3천 500여리나 떨어진 카라치앞바다에서 진주알들을 하나하나 따다가 그것으로 시 《충성의 노래》를 한자 한자 정성들여 새겨넣은 충성의 선물을 그이께 드리였다.

또한 구라파의 한 할머니는 대를 이어 물려온 가보를 수령님께 삼가 선물로 올리였다.

이 뿐만아니라 한 녀성사회활동가는 50여일간에 걸쳐 한뜸 한뜸 수를 놓아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수예선물 《인민의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마련하였다. 수령님께 드린 수천수만의 귀중한 선물의 하나 하나에는 이와 같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과 최대의 존경의 마음이 깃들어있으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그들의 충심으로부터의 념원이 반영되고있다.

세계 각국의 신문, 통신, 방송, 텔레비죤 등 출판보도기관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는 특간호와 특별편집을 조직하였으며 기념사론설들과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세계 여러나라 출판사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그이의 탄생 예순돐 기념도서로서 수많이 출판하였다.

또한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바이루트에서 진행된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주체사상연구토론회》, 《도쿄지방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들의 합동연구회》등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따라배우는 《연구토론회》와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기념모임들,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을 소개하는 사진전람회, 도서전람회, 기념영화감상회 등 여러가지 다채로운 기념경축행사들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조직진행되였다.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벗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세계혁명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력사를 창조하시는 걸출한 지도자》,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의 붉은 태양》으로 우러러 끝없이 흠모하면서 그이께 최대의 영예와 영광을 드리였으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면서 《인류의 영원한 봄을 위하여 길이 길이 찬란한 빛을 뿌려주실것을 충심으로부터 축원》하였다.

　　캄캄한 하늘아래 짓눌린 사람들
　　절망에 가슴안고 헤매였습니다.
　　조선의 만경봉에 태양이 솟아
　　이 세상에 빛발이 비치여왔습니다.
　　　(후렴)
　　　인민의 태양 김일성원수님
　　　인민 위해 탄생하신
　　　김일성원수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이 노래는 모리따니 누악쇼뜨시 《김일성주석혁명력사연구소조》의 집체작시 작곡한 《김일성원수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일절이다. 이 소조는 또한 《김일성사상연구소조의 노래》를 작시 작곡하여 부르고있다.

이렇듯 전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최대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로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 세계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와 우리 혁명의 국제적혁명력량은 날을 따라 비할바없이 강화되고있다.

오늘 세계의 그 어디를 가나 우리를 적극 지지하며 동정하는 혁명적동지들과 벗들이 있으며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지지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이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네돐 그리고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세계 도처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행사들을 벌리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면서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확고부동한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고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놈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강력히 규탄해나선것은 우리 인민의 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의 강력한 시위로 된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날로 높아가는 국제적지지 이것은 세계혁명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최대의 경모의 정의 표시이며 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념원하는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요구의 반영으로 된다.

아프리카에 있는 《김일성동지주석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이 수령님께 드리는 장편시의 맺는 시를 다음과같이 마감지었다.

　　《조선인민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온세계가 사회주의의 기발로 뒤덮일 그날을 위하여,
　　전체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세세대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세계혁명의 태양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혁명의 위대한 영재
　　모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원수각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체사상은 온누리에 빛난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서 온 누리를 찬연히 비쳐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2년에《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많이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고전적로작들에서 주체사상의 력사적필연성과 그 기초에 대하여 더욱 심오하게 밝히시고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요구 특히 인간의 자주성, 민족의 자주성문제를 기본으로 인간해방, 민족해방의 길,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의 참다운 행복을 누릴수 있는 실천으로 검증된 확고한 앞길을 천명하시였으며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혁명의 진리, 투쟁의 진로를 더욱 새롭게 환히 밝혀주시였다.

하여 날을따라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대한 공명과 반향이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혁명하는 나라, 싸우는 인민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 일떠선 세계의 모든 혁명가들과 수억만 대중의 힘의 원천, 참된 교과서》, 《진보와 번영, 민족적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며 그들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지도사상》, 《맑스-레닌주의를 오늘의 세계혁명발전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가장 높은 단계의 사상》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또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은 동트는 혁명의 밤의 어둠을 가셔내듯이 인류의 흉악한 원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 간악한 착취자들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고 전 인류의 봄을 가져올것이다》, 《현시대는 우리 시대의 최고봉의 맑스-레닌주의혁명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제국주의를 종국적멸망에로 쓸어넣는 장엄한 혁명적폭풍의 시대입니다.

때문에 우리 혁명가들은 그 어디에서 투쟁하던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연구하고 그를 자기 혁명투쟁에 구현하는것을 필수불가결의 의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라고 다짐해 나서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과 벗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따라 배울뿐만아니라 그것을 널리 출판해내여 선전보급하고있다.

1972년에 세계 여러곳에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비롯한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소조들과 단체들이 더욱더

수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 등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청년들과 학생들, 박사, 교수 등 사회계인사들과 정치활동가들이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려는 불같은 념원을 안고 소조들과 단체들에 망라되였다.

1972년 12월 시에라 레온 수도에서는 16개나라의 당 및 정부의 책임적인사들, 정치사회활동가들, 박사, 교수들,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들과 투쟁단체대표 등 50여명의 대표들과 수많은 방청자들의 참가하에 《전아프리카 김일성동지주체사상로론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이해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과 그 진수를 더욱 깊이 체득하기 위한 강연회, 연구모임, 토론회, 로작전시회들이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진행되였다.

《전아프리카 김일성동지 주체사상토론회》에서 시에라 레온전인민대회당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사회주의의 빛나는 진리를 이루는 김일성동지로작들을 연구하는것은 거대한 기쁨으로 되며 고무로된다.》

그리고 《김일성동지의 혁명철학연구아프리카대학생소조》의 다니엘 므바은메베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철학연구아프리카대학생소조는 세계혁명의 백전백승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적인 철학사상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심오히 연구하고있는 진보적인 아프리카대학생들로 구성되였다.

아프리카의 젊은 대학생들인 우리들은 존경하는 수령님의 로작들과 그이의 전기를 심오히 학습하고 있다. 우리들은 존경하는 수령님의 백전백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우리의 뼈와 살로 만들어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며 그의 사상대로 살며 투쟁하고있다.》

1972년 11월 18일 일본 도꾜에서는 일본의 여러대학 학장 교수들, 대학생들의 참가하에 주체사상의 본질과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연구토론회에서 호세이대학 교수 야스이 가오루는 자신이 국제법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옳게 리해하고 더 깊이 연구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였다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주체사상의 본질과 그것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말하면서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야말로 맑스의 시대로부터 한세기, 레닌의 시대로부터 반세기가 지나가고 제2차 세계대전을 겪어온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로서 맑스-레닌주의 리론발전력사에 금자탑을 높이 쌓아올렸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또한 일본의 요꼬스까시와 시오가마시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경축모임을 가지였으며 도꾜지방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들은 합동연구회를 진행하였다.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드린 축하시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실천에 옮기신 주체사상,
혁명의 앞길을 그처럼 환히 밝혀주어
조선사람들을 위대한 승리에로 인도하며
그 찬란한 빛발 온 세상에 뿌리고있나니
세계인민들은 싸우고있다.
승리의 기치—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세계혁명승리의 그날은 더욱 다가오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 시대의 기본사조로 되고있으며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위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세계인민들속에 더욱 널리 파급되고있다.

《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 《김일성동지로작출판위원회》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출판단체들과 여러 나라 출판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널리 보급하고 있다. 1972년에 일본의 미라이샤출판사를 비롯하여 수십개 나라 출판기관들에서만도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과 그이의 영생불멸의 전기 《김일성전》과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중어, 일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에스빠냐어, 아랍어, 힌두어 등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 민족어로 출판하였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봉은 《수령과 인민, 령도의 예술가 김일성주석》이라는 제목밑에 이해 4월부터 6월까지 연 32회에 걸쳐 글을 실었다. 또한 9월에 《슈깡요미우리》는 《주체의 나라 조선》이라는 제목으로 특별별책을 발간하였다. 표지에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154페지의 기사내용에 57매의 사진을 받쳐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성과를 소개하고 열렬히 환영하였다. 이 책은 발간된지 일주일도 되지않는 동안에 10만부가 팔렸다고 일본의 신문들은 전하였다.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 회원인 모하메드 에스 코로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위도와 경도를 넘고 대양과 대륙을 지나 혁명하는 인민, 싸우는 인민,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참된 투쟁의 길을 가르쳐 주고있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해살과 같이 온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이 휘황한 빛발아래 1972년에 세계진보적인민들은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리였으며 자주, 자립을 지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반제자주의 기치따라 세계는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의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신생독립국가들도 다른 나라의 간섭과 구속을 반대하고있으며 자주, 자립의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심지어 자본주의나라들까지도 더는 큰 나라들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독자적으로 행동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 세계인민들이 주체사상을 요구하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습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8페지)

1972년에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

대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지향하여 억세게 투쟁하였으며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는 아세아에서 사회주의력량이 급속히 장성강화되였으며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영광의 승리의 길을 따라 위대한 전진을 계속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관철하여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의 민족분렬책동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함으로써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형제적중국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자랑찬 투쟁을 통하여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한층 강화함으로써 아세아에 거연히 서있는 강대한 반제력량으로 장성하였으며 그의 국제적지위는 전례없이 높아졌다.

영웅적민주웰남인민들은 남부를 해방하고 사회주의북부를 수호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야말 불같은 결의를 안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한편 미제의 야만적인 파괴전쟁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여 4천여대의 적기를 박산내고 수많은 적함선을 바다에 처넣음으로써 이른바 《공중우세》와 날강도적인 《해상봉쇄》를 승리적으로 짓부셨다.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은 전 전선에 걸쳐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대대적인 공세를 련속 들이댐으로써 놈들의 《웰남화계획》과 《평정계획》을 짓부시고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으며 남부웰남지역에서 혁명정권을 도처에 세우고 그의 대렬을 부단히 확대강화하였다.

라오스애국전선군대는 이해에 루앙프라방주를 중심으로한 북부라오스에서 맹렬한 공격을 들이대여 해방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중부라오스와 전략적으로 중요한 볼로벤스고원을 중심으로한 남부라오스의 광활한 지역에서도 공세를 강화하여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겨주었다.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이해 4월까지의 가물철공세에서 근 5만 7천여명의 적을 살상포로하는 빛나는 전과를 거둔데 뒤이어 5월과 10월초에는 프놈펜을 불의에 들이쳐 괴뢰《정부청사》, 《국방성》, 《방송국》, 괴뢰 《수상》사무실 등을 까부시고 사경에 처한 론놀괴뢰도당을 극도의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이미 전국 령토의 근 90%와 500만의 인구를 완전히 해방한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지금 승리의 신심 드높이 전국 해방의 결정적단계에 들어서고있으며 프놈펜에까지 작전범위를 확대하면서 원쑤들의 마지막 숨통을 더욱 조이고있다.

일본의 각계각층 광범한 인민들은 일본의 대미예속과 미일의 침략적결탁, 군국주의재생을 반대하고 일본의 진정한 독립과 자주성, 근로자들의 생존의 권리와 평화를 요구하여 파업, 시위 등 각종형태의 적극적인 투쟁을 벌렸다. 미일 《안보》조약의 폐기, 일본에 있는 미제침략군기지의 철폐, 오끼나와의 완전한 반환과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의 중지 그리고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세아 이웃나라들과의 일본의 관계정상화를 요구하는 일본인민의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앙양되였으며 타이,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에서도 미제와 친미반동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이 세차게 앙양되였다.

1972년에 중근동에서도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반미반이스라엘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팔레스티나인민들과 유격대들은 자기 대오를 더욱 결속하고 팔레스티나혁명위업을 말살하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흉악한 책동을 성과적으로 분쇄하면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소굴인 텔아비브에까지 진출하여 군수공장을 파괴하고 비행장을 기습하는 등 도처에서 대담무쌍한 군사작전을 벌려 원쑤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애급, 수리아, 리비아를 비롯한 아랍나라들이 반이스라엘공동행동을 지향하면서 아랍나라들을 각개 격파하려는 미제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제때에 짓부시면서 강점당한 아랍땅을 해방하며 원쑤들을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기 위한 전쟁준비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특히 수리아, 레바논 인민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새로운 무력침공을 성과적으로 물리쳤다.

이해 아프리카에서도 미제를 괴수로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무장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앙골라유격대들은 전국 도처에서 군사작전을 강화하여 뽀르뚜갈침략자들을 제압하였다. 앙골라인민해방운동의 호소에 따라 앙골라남부지역인민들이 손에 무장을 잡고 떨쳐나섰으며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도사리고있는 서부연해지구에서도 무장투쟁의 불길이 타올랐다. 앙골라유격대들은 나라의 15개주 중에서 10개주를 장악통제하고 있다.

모잠비끄유격대들은 다양한 전법으로써 적들의 《기술적우세》를 분쇄하면서 떼떼주, 까보 델가도주, 니아싸주를 비롯한 나라의 거의 모든 지역들에서 대담한 전투를 벌려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이해 11월 9일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군사 경제적 요충지인 떼떼시와 비행장에 대한 공격작전은 유격대의 위력을 과시하고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하였다. 7월에 마니까쏘팔주에 새로운 투쟁전선이 형성됨으로써 모잠비끄의 전역이 유격대의 활동지역으로 되였다.

기네비싸우의 애국적무장력도 이해에 뽀르뚜갈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족치였다. 8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적군 670여명을 살상하고 군용자동차 30대를 까부셨으며 적들의 각종 함선 12척을 물속에 처박았다. 기네비싸우의 땅과 하늘, 바다의 모든곳이 뽀르뚜갈침략자들을 매장하는 무덤으로 되고있다. 기네비싸우 령토의 80%이상이 해방지역으로 되였으며 그곳에서는 인민주권이 서고 새생활이 창조되고있다.

북구라파나라들에서도 정치적자주성과 경제적리권을 침해하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이 벌어졌다. 스웨리예, 노르웨이, 이슬란드, 핀란드 등 북구라파나라들에서 반미시위를 널리 벌려 미제의 웰남과 인도지나 침략전쟁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이해 5월에 북구라파 4개국의 웰남지지단체들이 모임을 가지고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인도지나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 결의를 다지였다. 스웨리예를 비롯한 북구라파나라들은 웰남과 라오스애국전선에 원조를 주고있다. 핀란드에서는 《구라파경제공동체를 반대하는 인민전선》을 결성하였다.

라틴아메리카대륙에서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죽음을 주라》는 반미구호밑에 힘찬 투쟁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칠레를 비롯하여 반제자주적인 길로 나아가려는 이 대륙나라들을 반제전선에서 떼내여 우경에로 돌려세움으로써 라틴아메리카에서 약화되여가는 제놈들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미제의 발악적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였으며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겼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민족해방투쟁의 세찬 불길은 이 지역들에서 저주로운 제국주의 식민주의 압박과 착취의 마지막생명선을 끊어버리고있다.

1972년에 미제의 간섭과 예속을 반대하며 자주, 자립을 위한 3대륙인민들의 투쟁이 또한 그 어느때보다도 거세차게 전개되였다.

소말리아, 꽁고, 기네, 알제리,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대륙의 대다수 나라들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리아, 이라크, 버마, 네팔 등 아세아 수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은 미제침략과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책동을 분쇄하면서 정치적자주성을 지키고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리권들을 수탈하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알제리인민들은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자!》는 혁명적구호밑에 지난날의 식민지공업의 흔적을 가시고 새로운 민족공업을 건설하는데서 크게 전진하였으며 《농업혁명》과 교육의 《알제리화》를 밀고나갔다.

이라크와 수리아, 리비아 인민들은 서방제국주의독점체들의 소유인 《이라크석유회사》를 국유화하고 지중해연안의 두 항구에 대한 송유를 중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략탈행위에 종지부를 찍었다.

꽁고, 민주예멘, 기네, 부룬디, 끼쁘로스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과 미제의 부추김에 의한 국내반동세력들의 정부전복음모를 성과적으로 분쇄하고 나라의 독립을 영예롭게 고수하였다.

식민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없애고 정치,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식민주의의 후과를 가시기 위한 우간다와 기타 아프리카신생독립국가 인민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의 예속하에 있거나 그와 종속적동맹관계에 있는 나라 인민들속에서도 강하게 나타났다.

미제의 《고요한 뒤동산》으로서 《안전한 후방》으로 간주하여 오던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반미, 자주, 민족적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1971년 1월 9일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뻬루의 수도 리마에서 200마일 령해권을 수호하기 위한 회의를 가진후거의 모든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합세하여 미제의 수산자원략탈을 반대하는 통일행동을 취하고있으며 1972년에 뻬루, 에꽈도르, 메히꼬 나라들은 자기나라 령해에서 물고기를 마구 잡아가는 오만한 미제의 어선들을 보는족족 붙잡아 징벌하였다. 에꽈도르정부는 자기의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의 하나가 200마일령해권을 지키는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뻬루대통령은 군중집회에서 《200마일령해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뻬루는 이 투쟁에서 그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것이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살바도르와 메히꼬 그리고 까리브해의 많은 나라들이 200마일령해권수호를 위한 투쟁대렬에 합세하였다. 뻬루, 가이아나, 에꽈도르, 베네수엘라, 메히꼬에서 외래제국주의략탈자들의 침해로부터 민족적리익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 날을 따라 강화되였다.

자주성에 대한 요구는 미제의 준세습령지처럼 되여온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 등 대양주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미국, 영국, 에스빠냐, 이딸리아, 프랑스 등 나라들에서도 반동지배층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평화, 진보를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지향하며 민족과 인민의 자주성과 존엄을 지키며 온갖 형태의 착취와 억압, 인종적 차별을 반대하는 장엄한 투쟁속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은 더 큰 견인력을 가지고 지구상 수억만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았으며 국제무대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변혁과정에 더욱더 큰 영향력을 미치였다.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1972년에 세계 수억만인민들은 반제, 자주의 길로 힘찬 전진을 하였다. 이 위대한 전진앞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반동세력은 세계 도처에서 명줄을 하나 하나 끊기우며 멸망을 촉진하고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는 세계 도처에서 얻어맞고 녹아나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실은 우리 시대에 제국주의의 붕괴과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10페지)

1972년에 미제는 《닉슨주의》침략교리를 휘두르면서 《평화》의 간판밑에 량면전술에 매여달려 제놈들의 멸망하여가는 운명을 건져보려고 발악하였다. 특히 이해 미제는 큰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작은 나라들을 각개 격파함으로써 제놈들의 식민지체계를 유지하려고 흉악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은 아세아에서 《평화》와 《협상》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뿐만아니라 중근동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계급적 및 민족적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억누르고 신식민주의적 지배를 부지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강도적이며 교활한 침략과 전쟁 책동은 세계의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쳐 이르는 곳마다에서 파산되고말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침략정책은 이 지역 인민들의 완강한 반항에 부딪쳐 전면적으로 파산되고있으며 그들은 아세아의 여러곳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 단행본, 10페지)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며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조선에서 《닉슨주의》를 실현하려고 흉악한 책동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이해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구현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강도적침략교리인 《닉슨주의》는 조선에서 맥을 추지 못하게 되였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의 구실과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며 나아가서는 일본군국주의침략자들까지 끌어들여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는 흉악한 책동, 큰 나라와는 관계를 개선하고 작은 나라들 특히 분렬된 나라들을 하나씩 침략하려는 미제의 각개격파전술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이 온누리에 빛발치고 그이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3대원칙은 국제적으로 열광적인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켰으며 혁명하는 나라 싸우는 인민들이 한결같이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미제의 조선침략의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조선은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통일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해 유엔총회에서는 알제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추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라는 결의안을 내놓았으며 이 결의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찬성하였다.

또한 미제의 조선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이해에 파키스탄이 탈퇴하였다.

이해에 미제의 악랄한 책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시기 이미 남조선과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일련의 나라들이 남조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것을 무시하고 주동적으로 우리 공화국과 국가관계를 련이어 맺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고립화 정책이 전면적인 파산에 들어섰으며 유엔의 탈을 쓰고 어느때까지나 남조선에 눌러 붙어있을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해에 미제는 윁남 및 인도지나 침략전쟁에서 패배하였으며 《닉슨주의》는 수치스러운 파산에 이르렀다.

미제는 윁남 및 인도지나 침략전쟁을 강화하고 이른바 전쟁의 《윁남화》, 《크메르화》, 《라오스화》의 간판밑에 이 지역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하는 교활한 수법에 매달려 발악하였다. 반미구국항전에 떨쳐나선 윁남, 캄보쟈, 라오스 인민들의 강력한 타격을 받고 남부윁남에서 쫓겨나고있다.

미제는 또한 일본인민들의 강력한 규탄배격을 받고 궁지에 빠져 갈팡질팡하면서 일본인민들의 반미기세를 무마하려고 일본에 있는 제놈들의 침략적군사기지의 형식적인 《축소》놀음과 기만적인 오끼나와 《반환》놀음을 벌리였으나 그것은 도리여 일본인민의 반미기운을 더욱 세차게 불러일으켰을뿐이다.

미제는 흰기를 들고 중화인민공화국앞에 굴복하였다. 미제의 우두머리 닉슨이 흰기를 들고 중국에 구걸행각을 하였다. 20년간이나 긴 세월에 걸쳐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봉쇄 및 고립화정책을 집요하게 감행하여오던 미제침략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 령토의 불가분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였다.

이것은 미제침략자들의 아세아전략 전반이 총파산에 다달았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미제의 세계전략 특히 사회주의나라들과 반제민족해방력량을 반대하여 세계적으로 펼쳐놓았던 포위망과 봉쇄정책은 도처에서 터져나가고 있다.

아프리카 중근동에서 신생독립국가들을 우경에로 돌려세우며 이 지역의 반제전선, 특히 아랍인민들의 반미반이스라엘전선을 파괴하려는 미제의 교활한 책동은 이 지역인민들의 견결한 배격을 받았다.

반제자주의 길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꾸바에 대한 미제의 봉쇄 및 고립화 정책이 파탄되고있다.

1972년에 뻬루는 미제의 압력을 박차고 꾸바와 외교관계를 재개하였으며 가이아나, 바베이도즈, 트리니대드 토바고, 쟈메이카가 꾸바와의 외교관계를 설정한다는것을 일제히 공식선포하였다. 또한 라틴아메리카통일기구 제1차대회를 비롯하여 부문별로 되는 대륙나라들의 회의들에서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독립과 인민들의 존엄을 침해하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자들을 단호히 규탄하고 대륙나라들의 자연부원을 수호하며 정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 싸울것을 결의해 나섰으며 매개 나라들에서 미제와 외래침략자들의 경제적리권을 박탈하고 놈들을 내쫓고있다.

1972년에 미제는 세계인민들의 거세찬 반제반미투쟁과 미국인민들의 반전투쟁, 반정부투쟁에 의하여 안팎으로 얻어맞고 더욱더 심각한 곤경에 빠져들어갔다. 특히 이해 《워터케이트》사건으로 불리우는 민주당본부도청사건으로 하여 정세의 혼란과 사회적불안이 날로 심화되고있으며 지배층내에서 서로 물고 뜯는 더러운 개싸움이 계속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죽어가고있는 미제국주의의 부패상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에 겹쳐 미제의 경제위기는 더욱 심각화되였다. 미국의 공업생산은 1972년에 침체와 감퇴의 길을 걸었다. 침략과 전쟁 정책으로 해마다 230억딸라의 예산적자를 내고있으며 국가채무는 4천 300억딸라를 롱가하고있다. 이해 대외무역적자는 1971년의 3배로, 국제수지적자는 100억딸라로 계속 늘어났으며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진 딸라는 더는 《국제통화》의 구실을 할수 없게 되였다. 결과 미국에서의 부패와 내부모순이 강화되고 미제의 정치, 경제적 위기는 한층 더 심각화되였다.

미제의 《통수력》과 《지휘봉》은 더는 맥을 출수 없게 되였다.

어제날의 충실했던 《동맹국》과 추종국들이 미제에 등을 대기 시작하였다. 프랑스는 《구라파인에 의한 구라파》라는 구호를 내걸고 미제에 반기를 들고 나오고있으며 카나다는 구라파주둔 카나다군의 철수선언으로서 미제의 《명령》에 공공연히 도전해 나섰으며 미군의 구라파진출을 아니꼽게 생각해온 그밖의 성원국들도 미제에게 순종하기를 꺼려하면서 로골적으로 등을 돌려대고있다.

미제의 《지휘명령체계》는 놈들의 군사동맹체계내에서도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나토》에서는 구라파《동맹국》들이 더는 많은 군사비부담을 거부해 나섰으며 《세아토》에서는 파키스탄이 탈퇴하고 뒤이어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가 이 기구에서 탈퇴할것을 표명해 나섰다. 그리하여 《세아토》는 실제상 유명무실한 존재로 《나토》는 금이 가고 《아스파크》가 맥없는 존재로 되여가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세계 제패를 위한 미제의 군사뻘릭정책이 파산되고 미제가 제멋대로 호령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손아래 동맹국들과 추종국들에게 강도적요구를 마구 내려먹이던 놈들의 지배체계가 실제적으로 무너지고있다는것을 실증하는것이다.

딸라에 명줄을 걸고 미제상전의 심부름을 들어 먹고 살아가던 20세기 력사의 오물들인 대만의 장개석도당, 사이공의 티우매국괴뢰들, 프놈뻰괴뢰 등을 비롯한 매국역적들이 속속 멸망하고있다.

1972년의 국제정세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해빛따라 반제자주의 기치 높이 들고 세계를 떠메고 나아가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위대한 력사적 전진앞에서 세계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이 빨리 멸망하고있으며 이것은 인민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제국주의가 종국적으로 멸망하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를 뚜렷이 실증하였다.

아 세 아 주

중 국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 나라와 잇닿아있다. 아세아의 동부 및 중앙부의 넓은 대륙부분과 다이완섬(대만)과 하이난섬(해남도)을 비롯한 약 3천 400개의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서북지방은 높은 산악지대이며 벌은 대부분 동부 및 동북지방에 있다. 이밖에 남동부의 바다가일대에 넓은 벌이 있는데 중국 농경지의 90%이상이 여기에 집중되여있다. 산지와 고원은 전 령토의 5분의 3을 차지한다.

기후는 지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 대체로 친링산줄기이북지방은 대륙성기후의 특징을 가지며 이남지방은 아열대 및 열대기후의 특징을 가진다. 동부지역은 누지고 따뜻한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지만 서부지역은 춥고 마른 대륙성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있다.

기온은 여름에 남북사이의 차가 비교적 적고 겨울에는 심한 차가 있다.

강수량은 철에 따라 차가 크며 지역에 따라서도 차가 심하다.

【넓이】 959만 7,000km²(그중 다이완 면적은 3만 5,759km²)

【인구】 7억이상 (1972년)그중 다이완 인구 1,600만명

60여개의 민족과 종족이 살고있는데 그중 한족이 인구의 94%를 차지한다. 소수민족들중 100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민족은 몽골족, 장족, 위이얼족, 마오족, 이족, 좡족, 뿌이족, 훼이족, 만주족 등이다.

조선사람은 주로 지린성남동쪽, 조중국경지대를 차지하는 연변지방에 살고있다.

언어는 여러개 있으나 한어 (중국어)가 통용되고있다.

【수도】 베이징(주민 633만명)

【전국인민대표대회】 최고주권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군대, 화교대표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현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3기로서 1964년에 선거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는 상무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상무위원회 위원장 주 덕

【주석】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되며 임기는 4년이다. 주석은 대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며 국가무력을 통솔하며 대사령과 전쟁상태를 선포한다.

주석대리 동필무

【국무원(정부)】 최고집행기관이다.

총리 주은래

외교부장 희봉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7월 1일 상하이에서 창건.

최고지도기관은 전국대표대회이며 임기는 5년이다.

주석 모택동

인민정치협상회의 인민민주주의 통일단체로서 1949년 9월에 창립.

국민당, 전국총공회, 공산주의청년단, 부녀련합회, 중조우호협회 1958년 9월 30일 결성.

정치 중국은 4천년에 달하는 오랜 력사를 가진 나라이다.

19세기 40년대의 아편전쟁으로부터 20세기 40년대말의 인민해방전쟁이 승리할때까지 중국은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국내봉건통치배들의 반동통치로 말미암아 뒤떨어진 반봉건반식민지국가로 남아있었다.

영제국주의자들이 아편전쟁(1839—1842)을 일으켜 샹강(홍콩)을 강점한 후 프랑스, 독일, 짜리로씨야,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렬강들이 중국 침략에 날뛰였다.

제1차세계대전후 일제가 동북중국을 강점하고 그후 중국을 독점하는 침략세력으로 나섰으며 미국, 영국 등 제국주의세력들도 매판자본가와 봉건지주들을 지반으로 삼아 중국에 대한 략탈을 강화하였다.

중국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벌렸다.

1912년에 폭발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청나라통치가 전복되고 2천여년간의 봉건제도가 무너졌으며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

중국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밑에 더욱 앙양되였다.

1919년에 반제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든 5.4운동이 있었으며 그후 중국에서 맑스-레닌주의사상이 급속히 보급되였다. 1921년 7월에는 중국공산당이 창건되였다.

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은 제1차(1924—1927), 제2차(1927—1936) 국내혁명전쟁을 진행하였으며 그후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전쟁(1937—1945)을 전개하였다.

1945년 8월 일제는 패망하고 중국인민은 항일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항일전쟁승리후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장개석도당은 해방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제3차 국내혁명전쟁(1946—1949)이 진행되였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은 장개석반동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중국대륙을 해방하였으며 1949년 10월 1일 중국인민의 력사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국혁명의 승리는 그 의의로 보아 위대한 10월혁명의 다음가는 큰 국제적사변이였다. 세계인구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인민이 제국주의멍에를 벗어던지고 사회주의길에 들어선것은 제국주의식민지체계에 또 하나의 커다란 돌파구를 낸것이였으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력량관계를 사회주의편에 결정적으로 리롭게 전변시켰다.》(《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 단행본, 7페지)

중국에서 인민혁명이 승리하자 미제는 처음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지않고 적대시하며 모든 반동세력을 동원하여 중국을 봉쇄하고 고립시키려고 책동하였다.

1950년 6월 미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의 신성한 령토인 다이완을 강점하고 중국인민에 대한 군사적침략위협과 적대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봉쇄 및 고립정책에도 불구하고 날로 그 위력을 강화하였으며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후 중국인민은 3년간의 복구기(1949—1952)를 거쳐 제1차5개년계획(1953—1957)을 수행하였다.

제1차5개년계획기간에 개인상공업과 수공업 및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진행하면서 사회주의공업화의 초보적인 토대를 축성하였다.

1954년 9월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기 제1차회의에서 헌법을 채택하였다.

1958년 5월에 소집된 중국공산당대표자회의에서는 《열의를 고도로 높여 앞장서기에 힘쓰며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절약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로선을 받들고 중국인민은 인민경제발전 제2차5개년계획(1958—1962)과 제3차5개년계획(1965—1970)을 수행하고 1971년부터 제4차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1966년 8월 중국공산당 제8기 11차 전원회의에서 프로레타리아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9년 4월 중국공산당 제9차대회는 프로레타리아문화대혁명을 총화하고 당규약을 채택하였으며 새로운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중국은 1964년 10월 첫 핵폭발을 진행한 이래 1972년까지 13회의 핵시험을 진행함으로써 나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1971년 10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은 미제의 이른바 《두개중국》음모책동을 짓부시고 세계 많은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유엔에서의 합법적지위를 회복하였으며 장개석도당은 유엔의 모든 기구들에서 쫓겨났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한후 1972년말까지만도 20여개 나라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승인하고 그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주요사건】 1972년 1월 7일 새로운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한 보도에서 중국정부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핵무기를 완전히 금지하며 완전히 철폐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전세계적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위한 첫조치로서 모든 핵보유국이 언제 어떤 정황하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엄숙한 합의를 볼것을 주장하였다.

중국정부는 2월 4일 미제의 웰남에 관한 《8개항목평화안》을 규탄하여, 5월 11일에는 미제의 광란적인 웰남전쟁확대행위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30일에는 성명을 발표하여 웰남문제에관한 협상진행과 관련한 웰남정부의 10월 26일부 성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중국정부는 5월 6일, 7월 8일, 8월 22일 미군함과 비행기들이 웰남 느게안주의 혼 느구섬해안에 정박하고있던 중국상선 《홍기 152》호, 《홍기 160》호, 《홍기 151》호의 구조선을 공격하여 선원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선체를 파괴한 도발행위에 대하여 미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1972년에 중국의 국제적위신은 더욱 높아졌다.

1972년 2월 스무해이상이나 중국에 대한 봉쇄고립정책을 실시하여오던 미제침략자들이 흰기를 들고 중국에 찾아왔다.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미국대통령 닉슨의 방문기간 중국지도자들과 닉슨사이에 진행된 회담에서는 두 나라간의 관계를 정상화할데 대한 문제와 쌍방의 관심사로되는 기타 국제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그 결과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콤뮤니케에서 쌍방은 호상 립장과 태도에서 원칙적인 차이가 있으나 《국가들이 다른나라들의 주권 및 령토 완정에 대한 존중, 타국불가침, 타국내정불간섭, 평등및 호혜, 평화적공존의 원칙들에 기초하여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두나라사이에 과학, 기술, 문화, 체육 및 출판보도분야에서 접촉과 교류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무역을 점차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미제는 중국을 반대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여 오던 <두개중국>에 대한 주장에서도 물러나 콤뮤니케에서 《다이완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고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며 《다이완에서 자기군대와 군사시설들을 점차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밝히지 않을수 없었다.

공동콤뮤니케에서 중국과 미국은 각기 전반적인 국제문제에 대한 서로 원칙적으로 다른 자기 립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우리 나라 문제, 인도지나문제,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문제 등 많은 국제문제들에서 일관하게 혁명적원칙을 견지하고 그것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우리 나라문제에 대하여 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1971년 4월 12일에 제기한 조선의 평화통일에 관한 8개항목의 방안과 그리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주장을 견결히 지지>하였다.

미국측은 공동콤뮤니케의 대외정책에 대한 자기의 립장을 표명하는 부분에서 종래의 침략정책을 계속할것을 드러내놓았다.

결국 닉슨은 중국행각에서 얻은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위력앞에 굴복한 패배자의 행각으로 끝났다.

1973년 2월 미국대통령보좌관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2월 22일에는 두나라 수도에 련락사무소를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1972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일본총리 다나까가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9월 29일 중일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공동성명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인정하고 두나라 정부는 1972년 9월 29일부터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공동성명에서 중국정부는 다이완이 중화인민공화국 령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는것을 확언하였으며 일본정부는 중국정부의 이 립장을 충분히 리해하고 존중한다고 하였다.

공동성명은 또한 중일량국정부가 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호상존중, 호상불가침, 호상내정불간섭, 평등 및 호혜, 평화공존원칙에 기초하여 친선관계를 수립하며 두 나라가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에서 평도권을 추구하지 않고 이러한 평도권을 추구하는 어느 다른 나라 또는 나라들의 집단의 노력을 반대할것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중일간에 오래동안 존속되여온 적대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종결되고 관계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공동성명에 따라 1973년 1월 11일과 2월 1일에 중국과 일본에 각각 대사관이 설치되였다.

영국은 3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란것을 인정하고 3월 13일부터 다이완에 있는 공식대표부를 페쇄하고 중국과 대사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종전까지 대리대사를 두고있었다)

또한 가나 (2월 29일), 다오메 등과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1972년 중국정부는 중국이 웰남에 군사장비와 경제물자를 무상으로 추가 공급할데 대한 의정서(1월 22일), 캄보쟈왕국정부와 1972년도 경제 군사원조에 관한 협정(2월 11일), 중국이 말리에 장기무리자차관을 제공할데 관한 협정(4월 8일), 중국이 1972년도에 웰남에 경제 및 군사분야에서 추가적인 물질적원조를 제공할데 대한 협정(6월 28일), 남부예멘간의 경제 및 기

술협조에 관한 협정(7월 12일), 예멘 아랍공화국과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7월 21일), 가이아나정부와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 1973년에 중국이 웰남에 경제군사원조물자를 무상으로 줄데 관한 협정과 1973년에 중국이 웰남에 군사장비와 물자를 무상으로 줄데 대한 의정서(11월 26일) 등을 조인하였다.

이해 파키스탄대통령 부토(1월), 스리랑카총리 반다라나이케(6월), 예멘아랍공화국총리 알 아이니(7월), 남부예멘민족전선 총비서 이스마일, 칠레사회당 총비서 알따미라노(3월), 일본공명당 위원장 다께이리(7월) 등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중국은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 있다. 자연부원들 중에서도 수력자원, 석탄(매장량에서 세계 제2위), 쇠돌, 석유, 중석, 몰리브덴, 안티몬, 망간, 주석, 연, 아연 등이 많으며 그밖에 천연가스, 금, 은, 동, 알루미니움 원광, 니켈, 류황, 린 등의 매장량도 많다.

공업에서는 연료및동력공업, 흑색금속공업, 기계공업 등 중공업이 주도적부문으로 되여있다.

주민의 80%이상이 농사하고있다.

농업의 기본은 농산업이다. 부침땅은 약 1억ha이며 그중 알곡작물(감자포함)은 씨붙임땅의 약 90%를 차지한다.

알곡생산지는 주로 동부에 집중되였으며 주요한 알곡작물은 벼, 밀, 강냉이, 수수 등이다.

공예작물로는 콩, 목화, 땅콩, 유채, 차, 담배, 사탕수수, 사탕무우, 황마, 아마 등이 있다. 목화와 콩을 비롯한 유지작물은 공예작물씨붙임땅의 약 90%를 차지한다.

목화는 주로 황하중하류의 벌방지대에서 생산되는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화는 전국총목화생산량의 약 3분2를 차지한다.

콩은 동북지구의 북부와 황하중하류의 허난성, 산둥성에서 많이 생산된다.

1972년에 중국인민들은《농업을 기초로 하고 공업을 위주로 하는》인민경제발전 총방침에 따라 열의를 높여 앞장서기에 힘쓰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침으로써 인민경제 각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농업에서 대채(농업생산대대)를 따라배우고 공업에서는 대경(대경유전)을 따라배우는 대중적운동이 전개되였다. 이리하여 제4차 5개년계획의 두번째해인 1972년에 공업생산량은 높아지고 품종이 늘어났다.

야금공업부문에서 강철, 선철, 강재 등 주요제품생산량은 이 나라 력사상 최고수준에 달하였다.

중국의 주요한 야금공업기지의 하나인 안산철강공사에서는 강철과 선철생산계획을 1개월이나 앞당겨 끝냈으며 상하이, 베이징, 천진, 무한에 있는 수많은 제강소들에서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냈다. 중소형야금공업기업소들에서는 전년보다 강철은 16%, 선철은 19%나 더 많이 생산하였다.

1972년에 전국적으로 강철생산량은 1971년에 비하여 9.5%나 늘어나 2천 300만t에 달하였다.

같은 기간에 압연강재는 10%, 선철생산량은 12% 늘어났다.

또한 각지의 야금공장들에서는 고성능기계와 정밀기계 및 기타제품을 생산하는데 쓰는 여러가지 강재를 새로 시험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중소형탄광을 새로 개발하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려 수백개소의 중소형탄광을 건설함으로써 례년에 드문 많은 석탄을 캐냈다.

대석탄기지의 하나인 무순광무국산하에 있는 4개 탄광에서 기록을 냈는데 그중 무순로천탄광생산량은 1.3배나 늘어났다.

기계제작공업도 현저히 발전하였다.

기계제작공업총생산량은 1971년에 1957년에 비하여 13배 늘어났다. 채취, 야금, 석유, 화학, 동력 공업들의 설비와 공작기계, 차량 생산량은 3.4∼19.5배 장성하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후난성에서 4개의 발전소가 건설 및 확장된것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서 크고 작은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들이 건설확장되였다.

1972년에 새로 조업한 발전설비의 능력은 1971년에 비하여 약 50% 늘어났다.

1972년말까지 소형수력발전소의 능력은 1969년말의 2배이상 장성하였다.

석유공업부문에서는 새로운 유전과 가스매장지들이 발견되였으며 새 유전과 원유가공설비들이 조업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원유생산량과 원유가공량은 전해보다 각각 15∼16%나 늘어났으며 휘발유, 석유, 중유, 윤활유의 생산량도 늘어났다.

세멘트생산량도 늘어났다.

1972년에 소형세멘트공장만도 600개 건설되여 그 총수는 2천 400개에 달하였으며 1969년이래 그 생산량은 년평균 31% 늘어났다.

화학비료생산량은 18.1%, 질소비료는 23.4%, 린산비료는 10.9% 늘어났다.

방직공업부문에서는 면사, 면직, 합성직물이 많이 생산되였다.

목재생산량은 8% 늘어났다.

농업부문에서는 심한 자연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2년 알곡생산량은 2억 4천만t에 달하였다.

중국의 알곡생산량은 1948년의 1억 1천만t으로부터 매해평균 4% 늘어났으며 1972년까지의 10년동안에는 평균 5%씩 늘어났다.

1972년 산서성 석양현에서 300여일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나 대채생산대대에서는 알곡무당(1무는 200평) 470kg을 수확하였으며 총수입액은 그전해에 비하여 10%나 늘어났다.

1972년에 목화는 20%, 유채는 7%, 사탕수수, 담배, 과일은 10∼40%나 그 생산량이 늘어났다.

이해 중국인민들은 가물을 극복하고 농업생산을 올리기 위한 투쟁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심한 가물피해를 입은 북부와 남부의 일부 지방에서는 21만개의 우물을 팠으며 복건성의 산메저수지, 강소성의 수로공사등 대규모관개공사들이 완공되여 전국적으로 1972년에 관개면적은 333만ha로 늘어났다.

축산업은 먹이풀자원이 많은 서부고원지대에서 많이 하는데 주로 염소, 양들을 기른다.

동부벌방지대에서는 돼지, 소, 말 등 집짐승을 많이 기른다.

교통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운수이다. 연해운수와 하천운수는 창강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고있다.

1972년 철도화물수송량은 전년에 비하여 6.8%, 해상화물수송량은 8.4% 늘어났다.

대외무역도 늘어나 1972년에는 130여개 나라 및 지역들과 무역관계를 가지였다.

물건값이 안정되고 인민생활은 개선되였다.

교육혁명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보건위생에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대중적인 문학예술의 창작 및 체육활동이 광범히 벌어졌다.

【출판보도】 **통신** 신화통신

신문 인민일보(공산당기관지), 광명일보, 해방군보, 베이징일보, 문회보.

잡지 홍기(중국공산당기관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조중 두나라인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전투적인 친선단결이 맺어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 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의 광복과 해방을 위하여 싸웠을뿐아니라 중국인민의 혁명위업을 피로써 도와주었으며 조선인민의 수많은 우수한 아들딸들이 중국혁명의 승리를 위한 영웅적인 성전에서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은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를 들고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로 지원군을 조직하여 1950년 10월 25일 조선전선에 파견하여 조선인민을 피로써 도와주었다. (1958년 10월까지 철거)

중국은 1949년 10월 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53년 11월에 조중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1957년 12월에는 조중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1년 7월 11일에는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1971년 9월 6일 중국이 우리나라에 군사원조를 무상으로 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72년 4월 1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중국인민들은 열렬히 경축하였다.

중국의 모든 신문, 통신, 방송, 텔레비죤들은 그이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특별편집을 하였다. 인민출판사에서는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에서는 《김일성동지의 로작 및 혁명활동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1972년에 신문 인민일보, 광명일보, 해방군보는 김일성동지께서 일본《마이니찌 신붕》과 《요미우리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과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의 상세한 요지들을 실었다.

1972년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천연색예술영화가 중국각지에서 상영되였다.

중국정부와 인민들은 1972년에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1972년 5월 23일 평양에서는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의 《연안문예좌담회에서 한 연설》발표 서른돐을 기념하는 조중 두 나라 문학예술인들의 련환대회를 진행하였다.

1972년에 중국과 우리 나라간에는 어업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협정(4월 5일), 과학원 사이의 1973~1974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11월 14일), 1973년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12월 13일), 수풍호에서 물고기자원을 공동으로 보호증식시키고 리용할데 관한 협정(12월 19일), 지질분야에서의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10월 9일) 등이 조인되였다.

이해에 중국정부군사대표단(4월), 외교부장 희붕비(12월), 당사업일군휴가단(9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들은 방문기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그밖에 화학공업대표단(6월), 청년대표단(9월), 농업과학원대표단(9월), 인민은행대표단(11월), 중앙기상국대표단(11월), 친선참관단(6월과 11월), 텔레비죤방송기술대표단(12월), 롱구, 탁구, 축구, 정구 선수단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상해무용극단이 5월부터 6월에 걸쳐 우리 나라에서 공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통상대표단(12월), 사로청대표단(6월), 녀맹대표단(9월), 기계공업대표단(1월), 영화기술대표단(7월), 조선선박검사협조대표단(7월), 중앙은행및무역은행대표단(7월), 기상수문대표단(9월), 농업과학자대표단(9월), 문화대표단(9월), 지질대표단(10월), 담수양어대표단(11월), 인쇄공업견학단(1월), 체육대표단(1월), 친선견학단(9월, 10월, 11월), 남새견학단(11월) 등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탁구, 혹케이 선수단이 중국에서 친선경기들을 진행하였다.

샹강(홍콩)

중국령토의 일부인 샹강은 중국의 광저우(광주)시에서 동남쪽으로 1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샹강(홍콩) 섬($82km^2$)과 쥬룽(구룡)반도($7km^2$), 그 부근에 널려있는 235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구라파, 아세아, 아프리카, 동남아세아와 중국본토를 련결하는 국제적인 해상 및 항공로의 중계지점이다.

열대성기후로서 샹강의 평균기온은 1월에 15.6°C, 7월에 27.9°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천 500mm이다.

【넓이】 1,013km^2

【인구】 409만명 (1971년)

주민의 98%이상은 중국인이며 영국인과 기타 구라파인들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중어와 영어

【행정중심지】 샹 강

【총독】 미레이 매클호소(영국인, 1971년 10월), 《총독》을 보좌하는 《행정리사회》와 《립법리사회》가 있다. 샹강에 있는 영침략무력은 《총독》이 직접 틀어쥐고있다.

1839—1842년기간에 영식민주의자들은 중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제1차 《아편전쟁》을 통하여 주강어구밖에 있는 샹강섬을 강점한후 1842년 10월에는 중국에 불평등조약인 《남경조약》을 강요하여 이 섬을 완전히 강점하였다.

샹강섬을 중국침략의 근거지로 삼은 영식민주의자들은《베이징조약》에 의하여 1860년 10월 샹강섬과 마주하고있는 쥬룽반도의 남부지역을 강점하였으며 1898년에는 쥬룽반도의 북부와 샹강일대의 섬들을 99년간의 《조차지》라는 명목밑에 강점하였다. 이리하여 영제국주의자들은 오래동안 샹강을 발판으로 하여 중국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여왔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는 3년 8개월동안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샹강을 무력으로 강점하고있었다.

일제가 패망한후 다시 이곳을 차지한 영제국주의자들은 중국인민의 불가분리의 령토인 샹강을 소위 《직할식민지》로 선포하고 총독통치를 실시하고있다.

샹강은 영제국주의침략자들의 항공모함과 해병대기지로 리용되고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극동군사령부》휘하에 있는 2개 려단의 침략무력을 샹강에 상시적으로 주둔시켜놓고 이곳 인민들의 반영투쟁을 탄압하고있다.

1967년 5월부터 삶의 권리를 위하여 들고일어난 중국인파업로동자들에 대하여 샹강당국이 잔인하게 탄압한 사건을 계기로 그후 샹강에서는 반영투쟁이 일층 고조되였다. 이로 인하여 샹강의 정치정세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하는수 없이 체포하였던 파업투쟁참가자들을 석방하지 않을수 없었다.

샹강의 로동자들은 영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고 삶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계속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경제는 영국과 미제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다. 외래독점체들의 3대은행이 경제전반을 거머쥐고있다.

경제에서 샹강의 자유무역항을 통한 중계무역과 중계가공무역(헐값으로 략탈한 원료를 가공하여 다시 파는것)이 큰몫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중계가공무역의 비중이 높다. 샹강시장에서는 술, 담배, 약품을 제외한 상품들에는 관세를 붙이지 않으므로 세계 여러곳에서 많은 상품이 밀려든다.

주로 비금속광물, 직물 및 그 제품, 의약품, 남새, 과실, 커피, 홍차, 기계류, 염료, 시계, 반도체라지오, 인삼 등이 재수출되는데 이것은 총무역액의 20~30%를 차지한다.

1950년이후부터 외래독점자본에 의한 현지산업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954년에 2천 600개의 수공업적인 작은 가공공장들이 있었는데 1970년대에 와서 그 수는 1만 5천여개로 늘어났다.

방적, 편직물, 직물 등 섬유공업을 위주로 하는 경공업이 공업총생산액의 92%를 이루는데 경공업에서도 방직공업이 12.9%를 차지한다. 최근시기 섬유제품의 수출은 일본 및 미제 독점체들과의 경쟁에서 심한 타격을 받고있다.

공업총생산액에서 8%는 무역부문에 종사하는 조선업과 선박수리공업 그리고 세멘트공업과 약간의 제철공업, 소형기계공업에서 얻어진다.

인구의 약 8.5%가 농업부문에서 일하며 부침땅(농업을 주로 하는 쥬룽반도의 1만 2천100ha의 부침땅 가운데서 벼를 심는 땅은 7천 700ha)이 적으므로 주작물인 벼생산량은 수요의 10%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각종 천, 기성복, 부인용가방, 가발, 놀이감, 신발, 전기기구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료품과 섬유원료, 식량, 남새, 고기, 운수기재, 전기설비, 기계, 물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일본, 영국, 미국, 서독 등이다. 식료품과 섬유원료의 60%를 중국에서 사들인다. 천연자원이 거의 없으므로 주로 원료와 반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끌어들여다가 다시 파는데 이것은 수출의 70%이상 차지한다.

우리 나라는 인삼 및 그 제품, 약초류 등 해마다 상당한 량의 상품들을 샹강시장에 팔고있는데 그 품종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샹강은 영국의 《파운드지역》에 속하여있지만 무역지대에서는 자유외화로 통용되는 샹강딸라를 쓴다.

1년에 약 100만명의 관광객을 받아들인다.

【출판보도】 신문 문회보, 대공보, 성도만보, 샹강상보, 홍콩 스탠다드, 스타, 차이나메일.

방송 샹강방송, 샹강상업방송, 텔레비죤방송.

아오먼(마카오)

중국 령토인 아오먼은 중국의 남해기슭, 샹강(홍콩)에서 서쪽으로 60~70km되는 곳에 자리잡고있다. 아오먼은 좁은 갑에 의하여 중국본토의 광둥성에 잇닿은 아오먼반도와 한쩌도와 쮸도 등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낮은 산지대로 되여있으며 평탄한 벌은 거의 없다.

아오먼주변의 바다물깊이는 매우 얕아서 큰 배들은 드나들수 없고 샹강으로부터 수백톤급의 작은 기선이 정기적으로 오가는 정도이다.

기후는 온화한 편이며 강수량이 매우 적다. 특히 겨울철에는 몹시 건조하다.

【넓이】 16km²

【인구】 31만명(1971년)

주민의 약 98%는 중국인이다.

공용어는 중국어

【행정중심지】 아오먼(마카오)

아오먼은 중국의 령토이다. 1516년부터 중국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1533년에 중국의 명(1368년에 수립된 정권) 통치계급에 압력을 가하여 얼마의 돈을 주고 아오먼에서 무역할수 있는 권한을 앗아냈다.

1557년에는 제놈들 자신이 중국의 해적토벌에 《원조》를 주었다는것을 구실로 거주권을 얻어내고 이곳을 《조차지》로 만들었다. 1887년 12월에는 《조차료》지불을 거부하면서 중국의 청국정부에 강요하여 아오먼을 강점하였다. 그후 놈들은 중국의 불가분리의 령토인 대만섬에 쫓겨난 장개석도당을 승인하고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여왔다.

중국정부는 1955년 10월 아오먼이 중국의 령토이며 이에 대하여 중국이 반환할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성명하였다.

이렇게 되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파괴활동의 근거지로 리용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1965년 3월에는 아오먼에 있는 장개석도당의 사무권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66년말 대방섬의 중국인학교건설을 둘러싸고 중국인들과 강점자들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220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광둥성과 아오먼에 거주하는 중국인 대표가 이 충돌을 일으킨 장본인들을 처벌할것을 요구하여 나서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1967년 1월 아오먼에 있는 장개석도당의 각 기관에 장개석도당의 기발을 내거는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않을수 없었으며 이를 거부하는 놈들의 기관을 폐쇄하였다.

1967년 1월 29일 아오먼에 사는 중국인대표와 뽀르뚜갈《총독》사이에 분쟁종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후 중국인들의 영향력은 더욱더 강화되여 아오먼의 실권은 사실상 중국사람들의 통제하에 있게 되였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아오먼에 뽀르뚜갈《총독》을 두고있다. 《총독》은 명목상 아오먼의 통치자로 되여있다. 또한 《총독》을 보좌하는 《전문위원회》가 있다.

아오먼은 하나의 상업도시였으나 샹강이 개항된 후부터는 쇠퇴되였다.

경제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는 것은 어업이며 년산 약 500만딸라에 이르는 물고기를 잡아 가공하여 팔고있다.

이밖에 직물과 성냥, 애자 등을 만드는 가내공업과 금세공이 있으나 보잘것 없다.

알곡생산이 많지못하기때문에 식량은 사들인다.

또한 아오먼은 국제적도박장을 통한 세금수입과 관광수입으로 재정을 유지하고있다.

아오먼은 샹강(홍콩)을 통한 중계무역을 주로 하고있다.

대외무역액은 년간 6천500만—7천만딸라이며 수입은 수출의 2배를 넘는다.

주요수출품은 다른나라에서 가져다 다시 세공한 금세공품을 비롯하여 각종 수공업제품, 식료품, 섬유제품이며 수입품은 금, 식량, 음료수 등이다. 최근년간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중국인학교들이 여러개 건설되였다.

몽골

(몽골인민공화국)

아세아주의 중앙부, 중국과 쏘련사이에 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평균 해발 1천 580m높이의 고원이다. 북부 및 서부지대는 산악지대이며 산줄기들사이에 넓은 하곡과 분지들이 있다. 북쪽은 수원이 많고 산림이 무성하다. 남부는 자갈이 많이 섞인 사막으로 이름난 고

비사막의 일부가 있다. 대륙성기후로서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매우 심하다. 년평균기온은 1월에 북부지역은 —34°C, 고비사막지역은 —19°C이며 7월의 북부지역은15°C, 고비사막지역은 23°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200~220mm이다.

【넓이】 156만 5,000km²

【인구】 130만 1,300명(1972년초)

주민은 90%이상이 몽골인이며 그밖에 까자흐인, 중국인 등 소수민족이 있다.

공용어는 몽골어

【수도】 울란 바따르 (주민 26만 8,800명)

【대인민후랄】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3년, 현재의 대인민후랄은 제7기로서 1969년 6월 22일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잠쓰란긴 쌈부(1972년 5월 21일 서거)

【정부】 총리 윰좌긴 쩨덴발(1966년 7월—), 외교부장 론돈긴 린친, 보위부장 바면 도르쥬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당 1921년 3월 1일에 창건된 인민당을 1924년 8월에 있은 제3차당대회에서 인민혁명당으로 고쳤다.

제1비서 윰좌긴 쩨덴발

직업동맹, 혁명청년동맹, 근로녀성동맹, 몽골조선친선협회 1960년 8월 12일 창건, 위원장 므. 르함쑤렌

정치

몽골은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거치지않고 직접 사회주의 사회에로 넘어간 나라이다.

1206년 진기스한에 의하여 통일적봉건국가로 되였다. 그후 몽골은 오랜기간에 걸쳐 외래침략자들의 예속과 봉건통치배들의 지배하에 있는 락후한 국가였다.

사회주의 10월혁명승리후 몽골인민들은 인민당의 령도밑에 혁명적폭력으로써 외래침략자들과 그와 결탁한 봉건통치배들을 물리치고 1921년 7월 11일 인민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혁명승리후 일정한 기간 립헌군주제가 실시되였다.

1924년 11월 8일 제1차 대인민후랄회의에서 몽골력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적헌법을 채택하고 11월 26일 몽골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때로부터 혁명의 제1단계과업수행에 착수하였다. 1924년에 소집된 인민혁명당 제3차대회는 비자본주의적발전로선을 당의 총로선으로 규정하였으며 1925년에 있은 인민혁명당 제4차대회에서는 당의 총로선관철을 위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당의 기본과업을 규정한 강령을 채택하였다. 1940년까지 일체 반혁명세력들을 분쇄하고 봉건령주들을 계급으로서 완전히 청산하였으며 경제구조와 계급구성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리하여 제4차대회가 제시한 민주주의혁명과업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였다.

1940년 인민혁명당 제10차대회에서는 4차대회강령의 수행정형을 총화하고 사회주의기초축성을 위한 주요과업을 규정한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이해 6월 제8차 대인민후랄회의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였다.

이리하여 몽골은 혁명의 제2단계과업수행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 과업은 2차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전후에 들어와서야 해결되였다. 제1차 5개년계획(1948—1952)과 제2차5개년계획(1953—1957), 3개년계획(1958—1960)이 수행되고 1959년에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수됨으로써 몽골은 락후한 목축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농업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1961년 7월에 소집된 인민혁명당 제14차대회는 농촌경리의 협동화를 비롯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과업수행정형을 총화하고 3차 5개년계획(1961—1965)의 과업을 제시하였다.

1966년 6월 인민혁명당 제15차대회에서는 10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당강령을 개정하였다. 새강령은 나라의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축성을 완성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1971년 6월 16차당대회에서는 인민경제및문화 발전 제5차 5개년계획(1971~1975)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5개년계획기간의 기본과업은 농업, 공업 기타 경제부문을 발전시켜 국민총생산액을 늘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요사건】 6월 7일부터 10일까지 혁명청년동맹 제16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16차대회 결정서를 채택하였으며 인도지나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관련한 성명, 중근동에 대한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과 관련한 성명을 채택하였다.

6월 18일 지방인민후랄대표선거가 진행되였다. 유권자의 99.99%가 선거에 참가하였으며 그중 99.99%가 찬성투표하였다.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인민후랄 제7기 6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산림자원과 수렵동물의 보호 및 리용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대인민후랄 자연보호상설위원회를 창설할데 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10월 20일에 진행된 인민혁명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집짐승기르기와 그 겨울나이대책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8월 16일 울란바따르에서 1952년에 중국과 몽골간에 체결된 경제 및 문화협조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문건교환식이 진행되였다.

1972년 1월 아랍추장국, 바레인, 까타르, 방글라데슈를 승인하였다. 2월에는 일본, 3월에는 화란, 6월에는 방글라데슈, 9월에는 오스트랄리아와 각각 외교관계를 맺었다. 8월 6일에는 파키스탄과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이다. 인구1인당 집짐승마리수에 있어서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말, 소, 락타 등이다. 그중 양은 전체 집짐승마리수의 약 60%, 염소는 17%, 소는 10%, 말은 9%, 락타는 4%를 각각 차지한다.

1971년초 집짐승마리수는 2천 242만마리였으며 1972년에 집짐승마리수는 1971년에 비하여 2.3% 늘어났다.

농업은 혁명후 새롭게 발전한 부문이다. 주요농업지대는 쎌렝가강을 비롯한 강이 많고 습한 북부산록지대이다. 1972년에 씨붙임면은 50만ha로써 1955년의 3배로 늘어났다. 주요농산물은 밀, 귀밀, 보리 등이다. 1970년에 32만6천여t의 알곡을 생산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원유, 쇠돌, 금, 은, 구리, 망간, 중석 등이다.

주요공업부문은 축산물가공을 주로 하는 식료공업, 가죽공업, 모방직공업, 채굴업, 목재가공업 등이다.

울란 바따르에는 축산물가공공장을 비롯하여 자동차수리공장, 목재가공공장, 건재공장, 화력발전소 등이 있으며 쵸이발싼과 쑤헤바따르에는 화력발전소들이 있다. 1972년 1월 쵸이발싼에 식료종합공장이 새로 조업하였다.

석탄생산의 중심지는 날라이흐이며 싸인샤드지방은 원유기지로 발전하고 있다.

운수의 기본은 남북으로 뻗은 철도간선이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 털, 가죽, 고기 등 축산물이고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화학제품, 일용필수품 등이다.

7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1971년말에 초급학교수는 503개, 학생수는 23만명이였으며 20개의 기술전문학교를 비롯한 대학에서는 2만명이 공부하였다.

1971년에 200개의 병원, 600여개의 진료소와 산원이 있었다. 혁명후 50년 남짓한 기간에 인민들의 사망률은 3분의 1로 줄었다.

【출판보도】 통신 몬짜메(몽골통신)
신문 우넨(당 및 정부기관지), 허덜머르(직맹기관지) 잘로쵸딘 우넨(혁명청년동맹기관지).
잡지 나민 아미드랄(인민혁명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56년 5월 13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1월 2일에는 경제 및 문화협정을 맺었다. 1969년 6월 17일에는 령사협약을 맺었다.

1972년 5월 29일 울란 바따르에서 우리 나라와 몽골간에 1972—1973년도 문화협조에 관한 계획서가 조인되였다.

1972년 <우넨> 1월 19일호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일본 <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실었다.

5월 몽골미술가동맹회관에서 우리 나라 조형예술 및 공예미술작품 전람회가 열렸다.

1972년에 몽골정부군사대표단(4월), 의회그루빠대표단(8월), 몽조친선협회대표단(9월), 무역대표단(12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로부터는 정부대표단(3월), 사로청대표단(6월), 평양교예단(9월)이 몽골을 방문하였다.

웰 남

(웰남민주공화국)

동남아세아에 있는 인도지나반도의 동쪽에 자리잡고있다.

북부, 서북부 및 중부는 고원지대이며 동북부와 서남부는 평야지대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무더운 열대성기후에 속하며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 하노이의 년평균기온은 23.6°C.

【넓이】 15만 8,800km²

【인구】 2,100만명, 1971년말
주민의 87%는 경족(웰남족)이며 그밖에 소수민족인 태족, 묘족 등 여러 종족이 있다. 공용어는 웰남어

【수도】 하노이(주민 110만명)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이다.
1971년 4월 11일 제4기 인민회의대의원선거에서 420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였다.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 정

【주석】 손 덕 승 (1969년 9월—)

【정부】 1971년 6월에 새 내각을 조직.
총리 범 문 동(1964년 7월—)
외교부장 원 유정, 국방부장 무 원 갑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30년 2월 3일에 창건된 인도지나공산당이 1951년 2월 3일 제2차전국대표자회에서 당이름을 로동당으로 고쳤다.
제1비서 려 순
민주당, 사회당, 조국전선, 직업동맹, 호지명로동청년동맹, 청년련맹, 녀성동맹, 웰남조선친선협회 1965년 8월 12일 창설, 위원장 하 휘 갑.

정치 1858년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기시작하여 1885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00년에 웰남은 인도지나련방에 편입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영향하에 웰남인민들은 프랑스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1930년 2월 호지명동지의 령도하에 인도지나공산당이 창건됨으로써 웰남인민들의 투쟁은 새로운 민족적인 민주혁명단계에 들어섰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인 1940년에 일제가 웰남을 강점하였다. 인도지나공산당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인민봉기와 파업들을 조직하였으며 1944년말까지 북부 6개성에서 해방지구들을 창설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였다.

1945년 8월 19일 웰남인민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총봉기를 일으켜 외래침략자들과 바오다이반동정권을 타도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였다.

1945년 9월 2일 독립을 선포하고 동남아세아에서 첫인민민주주의국가인 웰남민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1946년 12월 프랑스침략자들이 미영제국주의의 비호밑에 또다시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프랑스침략자들은 1949년 6월 바오다이(전황제)반동도당들을 사촉하여 이른바《웰남국》을 조작하였다. 그후 웰남은 남북으로 갈라졌다.

웰남인민들은 호지명동지의 령도밑에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는 8년간의 항전에서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1954년 7월 20일 웰남인민의 독립, 자주권, 통일, 령토완정을 인정하는 제네바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림시적으로 갈라졌다. 제네바협정에는 1956년 7월 전국적인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웰남의 통일을 이룩하도록 규정되여있었다.

그러나 1956년 6월 미제는 남부웰남에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남부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1964년 8월 5일에는 《바크보만사건》을 날조하고 1965년 2월 북부웰남에 대한 폭격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은 북부웰남에로 확대되였다.

1965년 1월 정부는 미제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전시체제를 선포하고 전체 인민들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였다.

이해 4월 7일 인민회의는 웰남문제의 해결을 위한 4개항목의 립장—미제는 남부웰남에서 철수하고 북부웰남에 대한 전쟁행동을 중지하여야 하며, 남북 두지대는 외국의 군사동맹에 가담하지말며 남부웰남문제는 외국의 간섭없이 남부웰남인민들 자신이 해결하며, 웰남의 평화적통일의 실현은 외국의 간섭없이 두지대인민들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였다.

반미구국투쟁에 일떠선 웰남인민들은 1968년 11월 1일까지만도 미제침략군 비행기 3천 343대를 쏴떨구고 143척의 적함선을 부셔버렸다. 남부웰남인민들은 총공세와 전면적인 봉기를 일으켜 령토의 5분의4, 주민의 3분의2 이상을 해방하였다. 수세에 빠진 미제는 전쟁을 확대하면서 3월 31일 《제한된 폭격》과 민주웰남과의 《조속한 회담》을 떠들었다. 4월 3일 정부는 웰남에 대한 미제의 폭격과 기타 모든 전쟁행위를 무조건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확정하기 위하여 미제와 접촉할 용의를 표명하고 5월에 회담할것을 제의하였다.

5월 13일 빠리에서 미제와 민주웰남간에 대화가 시작되였으나 웰남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웰남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의 책동으로 대화는 5개월간이나 정돈상태에 빠졌다.

그후 미제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지게 되자 하는수 없이 1968년 10월 북부웰남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중지하고 웰남에 관한 《4자회의》(웰남민주공화국, 남부웰남공화, 미국, 사이공괴뢰)에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미제는 《평화회담》의 연막뒤에서 침략전쟁을 계속 확대하면서 회담의 전진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주요사건】 1972년 1월 25일 미제의 두목 닉슨은 기만적인 《8개항목 평화안》을 들고나오면서 한편으로는 북부웰남에 대한 새로운 계단식전쟁확대책동에 매달렸다.

1972년에 미제는 1천 400여대의 전술비행기와 200대의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수많은 비행기들과 60척의 해적선들을 상시적으로 내몰아 주민밀집지대와 학교, 병원, 관개시설 등을 야수적으로 폭격 및 포격하였으며 항구들

과 강하구들에 기뢰를 부설하였다.

5월 8일 닉슨이 북부윁남공격을 강화할데 대한 명령을 내린후 폭격은 더욱 심하여졌다. 4월초부터 7월중순까지만도 공습은 연 2만여회에 달하였으며 12월 18일부터는 하노이와 하이퐁을 비롯한 광범한 지역들에 무차별폭격을 감행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계단식 전쟁확대책동을 규탄하여 윁남정부는 4월 11일, 5월 10일, 12월 21일에 성명을 발표하고 윁남인민을 반대하는 모든 전쟁행위를 즉시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4월 16일 윁남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윁남정부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전체인민을 반미구국투쟁의 최후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1972년 2월 5일 정부성명에서와 3월 20일 인민회의 제4기 제2차회의에서는 1월 25일 닉슨이 들고나온 기만적인 《8개항목평화안》을 단호히 배격하고 윁남문제는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7개항목의 해결책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9월 14일에는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7개항목의 두개의 관건적문제를 천명한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9월 11일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 줄것을 호소하였다.

10월 8일 윁남정부는 윁남인민의 기본적인 민족권리와 남부윁남인민의 자결권을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윁남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윁남에서 전쟁을 끝내며 평화를 회복할데 관한 협정》초안을 내놓고 이 협정에 즉시 합의하고 1972년 10월중순에 조인할것을 미국측에 제의하였다.

협정초안에서 윁남정부는 윁남문제는 두단계로 해결될것인바 첫단계는 윁남에서의 전쟁중지, 남부윁남에서의 정화, 남부윁남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개입의 중지, 남부윁남인민들의 자결권행사의 원칙들에 관한 합의를 포함할것이며 둘째단계에서는 남부윁남의 두 유관측이 남부윁남의 내부문제들을 함께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10월 22일 미제는 이《협정》전문과 10월 31일 협정의 정식조인을 위해 준수해야 할 일정에 윁남측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10월 23일 남부윁남괴뢰들의 《난관》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합의사항을 짓밟고 그의 리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였으나 저들의 패배를 만회할수 없었다.

미제는 윁남에서 당한 정치 군사적 패배와 세계인민들의 압력에 의하여 하는수 없이 12월 30일 북부윁남에 대한 폭격을 중지하고 1973년 1월 8일부터 윁남민주공화국과의 비밀회담에 들어갔다. 회담에서 미제는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윁남의 영구분렬을 획책하다가 1973년 1월 27일 《윁남에서 전쟁을 끝내며 평화를 회복할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1973년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미국대통령 특별보좌관 키신저가 윁남을 방문하고 정화협정의 리행과 민주윁남과 미국간의 전후관계,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 등을 토의하고 일부 조치들에 합의하였다.

1972년에 윁남인민들은 적비행기 732대를 쏴떨구고 비행사 및 승무원 1천여명을 살상포로하였다. 1964년 10월이래 1972년말까지에는 4천 159대를 쏴떨구었다.

1972년에 윁남은 인도(1월), 칠레(6월), 적도기네(9월), 잠비아(9월), 파키스탄(11월), 오지리(12월), 뀌니지(12월)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3월 17일 윁남과 로므니아간에 1972년에 로므니아가 윁남에 경제 및 군사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1월 26일 윁남과 중국간에 1973년에 중국이 윁남에 경제군사물자원조를 무상으로 줄데 관한 협정과 1973년에 중국이 윁남에 군사장비와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할데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경제, 사회

윁남에는 석탄, 쇠돌, 주석, 망간, 탕그스텐, 금, 연, 린산염 등 지하자원이 많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이며 고무, 사탕수수, 바나나, 야자, 카싸바(수박의 일종), 커피 등도 생산된다.

산림면적은 국토의 60%를 차지하며 질좋은 원목이 생산된다.

윁남인민들은 미제의 계속되는 폭격속에서도 기계설비들을 보위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로력투쟁을 전개하였다.

공업 및 수공업분야에서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였으며 중앙공업에서도 장성을 이룩하였다.

1971년에 석탄, 전력, 세멘트, 화학비료, 방직, 종이 등 주요공업제품생산량은 1970년에 비하여 17.5~50% 늘어났다.

1972년에 당과류, 차, 담배, 기성복, 도자기, 가죽제품 등이 계획보다 더 생산되였다.

지방공업부문에서는 1972년 3.4분기계획을 6.7% 초과 완수하였다. 느게안주의 공장들에서는 특히 화학비료와 살충제 생산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미제의 폭격이 가장 심한 빈 린지역에서 1972년 상반년동안에 공업생산액은 1971년 같은시기에 비하여 46% 더 늘어났다.

지방공장들에서는 특히 농기구들이 많이 생산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파괴된 수리관개시설들을 건설하고 복구하며 관개면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하이퐁시와 느게 안주들을 비롯한 일련의 주들에서 수리관개시설의 복구 및 건설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냈다.

미제의 폭격이 가장 심한 지역의 하나인 느게안주에서는 조합원들이 수백개의 양수장들을 새로 건설하고 150개의 크고작은 못을 팠다.

탄 호아주의 주요 쌀재배지에 있는 200여개의 협동조합들은 관개시설들을 복구하여 6만여ha의 논에 물을 댔으며 60개의 수문을 고쳐세우고 100여개의 운하를 팠다. 이리하여 농업생산은 현저히 늘어났다.

1972년에 농업협동조합들에서는 12년래의 가장 높은 수확을 거두었다. 돼지마리수는 2%이상 늘어났으며 사탕수수는 13%, 황마는 38%, 담배는 10% 늘어났다.

식료품생산이 늘어나고 그 분배체계가 개선됨으로써 전반적인 물건값이 1971년에 비하여 6% 내려갔다.

윁남로동당은 미제의 폭격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인민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교외지대들에 파괴지역들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작업반들을 조직하였으며 리재민들에게 방조를 주며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였다. 공습시에 피해를 입은 협동조합들에는 기계, 종자, 부림소들을 보내주었다.

1969—1970학년도에 학교수는 1만 1천 660여개였으며 교원수는 11만 1천 750명, 학생수는 460만명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윁남통신

신문 인민(로동당기관지), 구국(조국전선기관지), 인민군(인민군기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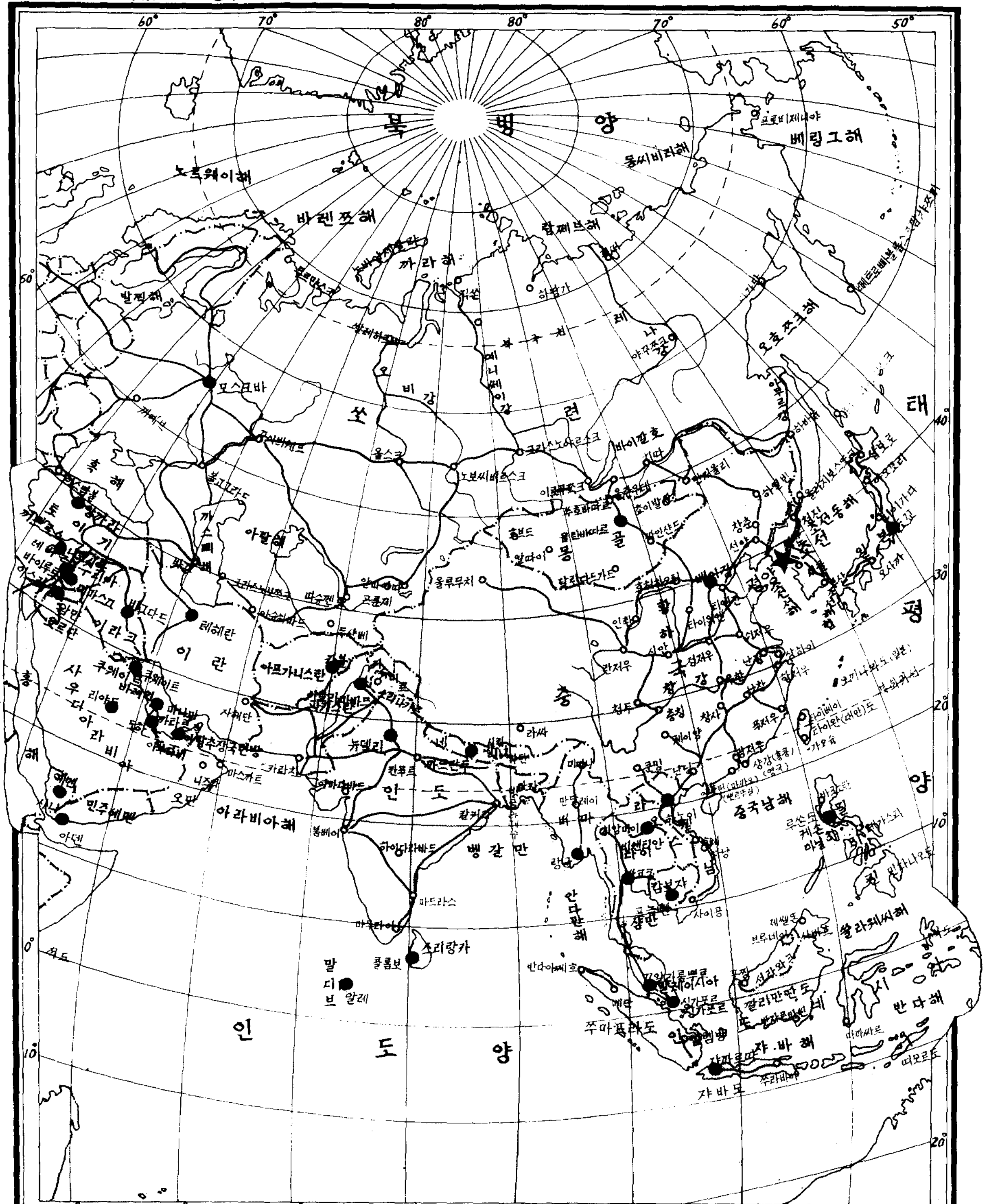
잡지 학습(로동당리론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0년 1월 31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7년 11월 20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윁남어로 출판하였다. 1972년 윁남로동당기관지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를

아 세 아



북 빙 양
노르웨이해
바렌쯔해
까라해
랍쩨브해
동씨비리해
베링그해
오호쯔크해
모스크바
쏘 련
비 강
예니쎄이강
노보씨비르스크
끄라스노야르스크
바이깔호
야꾸쯔크
하바롭스크
흑 해
아랄해
이라크
이 란
바그다드
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프가니스탄
뉴델리
카라치
봄베이
하이데라바드
마드라스
인 도
아라비아해
벵 갈 만
스리랑카
콜롬보
말디브
말레
인 도 양
몽 골
울란바따르
알마아따
울루무치
라싸
중 국
베이징
평양
조선
조선동해
도꾜
태 평 양
중국남해
랑군
안다만해
방꼭
캄보쟈
사이공
마닐라
싱가포르
깔리만딴도
술라웨씨해
반다해
자바해
자바도
쟈까르따



중국의 대경석유정제공장의 전경



학습에 열중하고있는 캄보쟈해방지역 어린이들



현대적무기로 장비된 민주예멘 무장력



벼를 걷어들이고있는 라오스해방지역인민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반동적 《제4차 5개년 방위력정비계획》을 반대하여 시위에 떨쳐나선 일본로동자들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팔레스티나 유격대원들

싫었다.

1972년 3월 19일 웰남외교부대변인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을 규탄하는 우리 나라 외교부대변인의 3월 19일부성명을 지지하면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 그리고 남조선당국자들이 조선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음모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8월 8일 웰남외교부는 유엔총회 제27차회의에서 알제리를 비롯한 많은 평화애호국가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의정《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를 전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이 의정을 유엔총회에 상정시킬것을 주장하여 발표한 우리 나라 정부의 7월 31일부 성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2일에는 유엔총회 제27차회의에서 조선문제토의를 연기할데 대한 부당한 결정을 통과시킨것을 규탄하고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철수,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 조선의 내정에 대한 간섭의 종식과 조선문제에 대한 온갖 부당한 결정들을 취소할것을 요구하였다.

7월 15일 웰남에서 우리 나라 조국해방전쟁승리 19돐기념 사진전람회가 시작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을 규탄하여 4월 18일과 5월 11일 정부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외교부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29일에는 웰남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협상의 상태에 관한 웰남민주공화국의 10월 26일부 성명에서 천명한 웰남정부의 립장과 요구를 지지하였다.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지지주간으로 설정하고 군중집회를 비롯한 각종 련대성행사들을 광범히 진행하였다. 7월 20일에는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평양시군중집회를 진행하였다.

10월 18일 우리 나라 정부와 웰남정부사이의 1972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1972년에 웰남으로부터 정부군사대표단(4월)과 영화대표단(7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1월 우리 나라 기자대표단이 웰남을 방문하였다.

남부웰남

(남부웰남공화)

【넓이】 17만 1,700km²

【인구】 1,900만명(1971년말)

【공화림시혁명정부】 1969년 6월 6일에 수립되였다.

주석 휘 떤 팔, 외교부장 웬 티 빙, 국방부장 쩐남쭝

【공화림시혁명정부자문리사회】 1969년 6월에 설치되였다.

위원장 원우수

【정당, 사회단체】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1960년 12월 20일에 창건되였다. 남부웰남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묶어세운 반미구국통일전선체이다. 전선은 남부웰남인민의 진정한 대표로서 남부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의 조직자이며 령도자이다.

상무위원회 위원장 원우수

인민혁명당 1962년 1월 1일에 창건, 로동계급의 혁명적전위부대로서 남부웰남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웰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 1968년 4월 20일 남부웰남의 적강점지역내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과 정당, 대중단체들을 망라하여 창건된 반미구국통일전선이다. 해방지역에는 **해방로동련맹, 해방청년동맹, 해방녀성동맹** 등이 있다.

정치 1954년 7월 20일 제네바협정에 의하여 북위 17도선을 림시경계선으로하여 남북으로 갈라졌다. 이것을 좋은 기회로 남부웰남에 기여든 미제는 제네바협정을 파괴유린하고 1956년 3월에 제놈들의 졸개들을 부추겨《단독선거》를 날조하고 6월 3일에는 괴뢰정권을 조작하였다.

남부웰남인민들은 미제와 그 괴뢰들을 반대하여 오래동안 영웅적항전을 전개하였다.

1960년 12월 20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이 창건됨으로써 남부웰남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해방전선은 1961년 2월 15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남부웰남 각지에서 싸우고있던 유격대와 자위대들을 남부웰남인민의 진정한 무장력으로 통합하여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남부웰남해방투쟁에 모든 애국력량을 조직동원하였다.

미제는 남부웰남에서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1962년에 사이공에 《군사원조사령부》를 설치하고《특수전쟁》을 시작하였으며 이 전략이 실패하자 1965년부터는 《국부전쟁》으로 넘어갔다. 미제는 《계단식확대》전략, 남부웰남에 대한 《파괴전쟁》전략을 련속 벌렸으며 다음에는 전쟁의《웰남화》를 꾸며냈다.

이러한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을 위하여 미제는 일부 정예부대를 포함한 54만명의 침략군과 추종군들을 끌어들였으며 1천만톤이상의 폭탄과 포탄을 퍼부었으며 4천억딸라를 탕진하였다.

남부웰남인민들은 민족해방전선의 령도밑에 미제의 《특수전쟁》을 격파시켰으며 미제의 두차례에 걸친 대규모적인《건조기공세》(1965—1966, 1966—1967)를 짓부심으로써《국부전쟁》전략을 파탄시켰다.

1968년초에는 남부웰남전역에서 총공세와 전면적인 봉기를 일으켜 전쟁국면에 새로운 전환점을 조성하였다.

1969년 6월 남부웰남인민의 합법적 대표인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가 수립되였다.

혁명정부 수립후 1969년 7월부터 1970년 7월까지만도 인민무장력은 34만 5천명의 미제침략군을 포함한 106만명을 소멸하였다. 1971년에는 대규모의 《람손 720》작전을 짓부시고 미제의 《웰남화》정책전반에 타격을 주었다.

【주요사건】 1972년 3월 30일부터 남부웰남인민무장력은 총공세와 일제 봉기를 일으켜 미제의《전쟁의 웰남화》의 두개 주되는 기둥 즉 주력인 괴뢰군과 《평정》계획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그들은 모든 전선에서 적들의 강력한 방어선들과 요새들을 분쇄하고 괴뢰유생력량을 소멸하였다. 특히 괴뢰군의 많은 주요사단들과 군단들을 파괴하고 무기와 장비들을 로획하였다. 인민무장력의 군사적공세와 긴밀히 협동하여 강점지역인민들은 미제의 《평정》계획을 좌절시켰다. 이리하여 꽝트리주전체와 빈딘, 꼰뚬, 빈 롱주들의 250만명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다.

인민무장력은 1972년 한해동안에만도 적군 48만명을 살상포로하고 비행기 2천 500대, 2천 850대의 땅크와 장갑차를 비롯한 1만 1천대의 군용차, 포 1천 500문과 기타 여러가지 무기 4만 5천자루를 빼앗거나 까부셨다.

군사적공세와 함께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는 웰남문제해결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1972년 2월 2일 공화림시혁명정부는 1월 25일 닉슨이 내놓은 이른바《8개항목제안》의 기만성을 까밝히고 공화림시혁명정부의 1971년 7월 1일의 7개항목해결책과 웰남민주공화국의 1971년 6월 26일의 9개항목제안이 웰남문제해결의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도라고 강조하면서 미제가 웰남침략전쟁을 계속하는 한 남부웰남인민은 북부웰남형제들과 함께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때까지 싸워나갈데 대한 굳은 결의를 표시하였다.

9월 11일에는 2개의 관건적문제를 기본으로하는 7개항목의 해결책을 또다시 요약하고 구체화한《윁남에서 미국의 침략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회복할데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첫째 미제국주의자들이 윁남인민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권리와 남부윁남인민의 자결의 권리를 존중하고 윁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완전히 끝장내며 남부윁남에서 자기의 모든 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군대를 철수하고 사이공괴뢰군에 대한 지지를 그만둘것,

둘째 남부윁남의 내부문제의 해결은 남부윁남에 2개의 행정부, 2개의 군대 및 기타 정치세력이 존재한다는 현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공화림시혁명정부, 사이공괴뢰정부 그리고 정치적리유로 해외에 사는 세력들을 포함하여 남부윁남에 있는 기타 정치세력들의 대표들로 평등하게 구성되는 림시적인 3파민족화해정부를 수립할것을 주장하였다.

10월 28일 정부성명에서는 윁남민주공화국과 미국이 10월 22일에 합의한 《협정》이 남부윁남의 현실과 부합되며 윁남인민의 기본민족권리와 남부윁남인민의 자결권을 보장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조인할것을 미국측에 요구하였다.

12월 16일에는《협정》조인을 지연시키고있는것을 규탄하면서 《협정》에 지체없이 조인할것을 다시금 미국정부에 요구하였다.

남부윁남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수세에 빠진 미제는 하는수없이 1973년 1월 27일 윁남침략전쟁을 끝내고 윁남땅에서 물러갈데 대한 정화협정에 조인하였다.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는 1972년 말까지 31개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64개의 쁠럭불가담국가들과 평화애호국가들로부터 남부윁남인민의 진정한 대표로 인정받았다.

경제, 사회 해방지역인민들은 미제와 그 괴뢰들의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섰다.

민족해방전선의 령도하에 토지개혁이 실시되였다. 키엔 투옹주에서만도 2천ha의 땅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농민들은 미제의 침략책동을 물리치면서 호상협조반과 공동작업반 등을 무어 파괴된 농촌경리를 복구하며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1972년에 키엔 퐁주에서는 4천 830ha나 더 많은 땅을 일구었으며 전해보다 3천 800여ha 더많은 6만ha의 논에 모를 냈다.

가장 치렬한 전투가 벌어진 꽝트리주에서는 800정보의 논에 늦벼를 심었으며 미토주에서는 미제의 폭격속에서도 500여정보의 논을 개간하고 운하를 83km로 늘였다.

이리하여 알곡생산은 해마다 8~11%씩 높아지고있다.

목재가공, 방직, 제탕 등 수공업도 급속히 발전하여 일용품, 의복, 식료품 등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있다.

해방지역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들이 설치되여 100만명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으며 교원양성과 교과서출판도 자체로 하고있다.

1972년에 빈딘주에서만도 8개의 성인학교, 795개의 초등학교들에서 2만 6천 700명이 공부하였으며 남보중부의 해방된 58개면에는 145개의 학교가 일떠서 수만명의 학생이 공부하였다.

보건망도 늘어나 매주들에 병원, 군들에 진료소, 마을들에는 의료초소들이 설치되였으며 기동의료대들이 조직되여 산간지대에 들어가 치료사업을 하고있다. 벤 트레주의 해방지역에서는 15개의 주 및 군 병원, 49개의 약국, 85개의 의료대가 생겨났다. 1972년에 꽝 트리주의 해방지역에서는 3만 8천여명의 주민들에게 전염병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중앙영화촬영소만도 5개이며 각주에 촬영소가 있다. 해방영화촬영소와 인민해방무장력영화촬영소에서는 1969년 6월~1971년 6월까지만도 20편의 기록 및 시보 영화를 제작하였다.

5개의 중앙가무단과 각주의 가무단들이 전선과 인민들속에서 공연활동을 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해방통신(해방지역통신)

신문 기애퐁(민족해방전선기관지), 기애퐁꽝(인민해방무장력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6년 5월에 외교대표부급의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 상설대표부가 우리 나라에 설치되였다.

1969년 6월 12일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는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 6월 9일 우리 나라 정부와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사이에 외교 및 공무려권소지자들의 사증제도를 페지할데 대한 협약이 체결되였다.

1972년 8월 10일 남부윁남공화 외교부는 알제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한 문제를 유엔 제27차총회의정으로 넣을것을 제기한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우리 나라 정부의 7월 31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월 24일에는 외교부대변인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에 무기를 끌어들이고 있는 미제를 규탄하였다.

우리 나라 정부는 2월 5일 닉슨의 《8개항목제안》을 규탄한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2월 2일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9월 16일에는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9월 11일부 성명에서 천명된 윁남문제의 해결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우리 나라 정부와 인민은 미제가 윁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그만두지 않는한 윁남인민이 반미구국투쟁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때까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원할것이라고 성명하였다.

남부윁남인민해방무장력통합 열한돐을 기념하여 각지에서 집회를 열고 싸우는 윁남인민들에게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2월 19일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 창건 12돐에 즈음하여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모임이 있었다.

1972년 4월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군사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윁남에서 전쟁을 끝내며 평화를 회복할데 대한 협정》과 그 리행 정형 (1973년 3월말까지)

1969년 1월 25일부터 윁남민주공화국정부,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 미국정부, 남부윁남괴뢰정권사이에 174차례에 걸쳐 윁남문제에 관한 《4자회의》가 진행되였다.

그리고 윁남민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1969년 8월이래 여러차례의 비밀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끝에 1973년 1월 27일 빠리에서 《윁남에서 전쟁을 끝내며 평화를 회복할데 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지적되였다.

—미제와 기타 모든 나라들은 윁남인민의 기본적인 민족적권리인 윁남의 독립, 주권, 통일 및 령토완정과 남부윁남인민의 자결권을 존중한다.

—협정조인 60일내에 미국침략군대와 괴뢰 및 추종국가 고용병들과 그리고 그것들의 모든 전쟁수단들과 살인무기들을 철수하며 모든 군사기지들을 해체한다.

미제는 남부윁남의 내부문제에 대한 군사적개입이나 간섭을 하지 않는다.

—윁남은 하나이며 윁남인민도 하나

라는것을 인정하며 남부웰남에 두개의 행정부, 두개의 무장력, 두개의 통제지역과 3파의 력량이 존재한다는것을 인정한다.

—남부웰남인민은 총선거를 실시하여 남부웰남의 정치적장래를 자신이 결정한다.

—웰남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웰남인민자신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17도선에서의 두지대사이의 군사분계선은 림시적인것이며 정치적 또는 령토적경계가 아니다.

—정화, 외국군대와 그 장비의 철수, 미군사기지들의 철폐, 포로귀환 등에 관한 조항들의 리행을 보장하는 4자공동군사위원회(웰남에 관한 빠리회의에 참가한 당사측들), 남부웰남의 《두당사측》의 공동행동을 보장하는 과업을 지닌 량자공동군사위원회, 남부웰남에서의 선거와 협정의 각종 군사조항들의 리행을 감시하는 국제감시 및 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한다.

—캄보쟈와 라오스의 내부문제는 외부의 간섭없이 이 나라인민들에 의하여 해결되며 인도지나 나라들사이에 존재하는 문제들은 독립, 주권, 령토완정에 대한 호상존중과 내정에 대한 호상불간섭에 기초하여 인도지나당사측들에 의해 해결될것이다.

협정에 따라 1973년 1월 27일 웰남전선에서 정화가 실시되였다.

3월 27일까지 미제침략군과 추종군이 웰남을 떠났다.

협정에 의하여 1973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빠리에서 진행된 웰남에 관한 국제회의(웰남민주공화국정부,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중국, 쏘련, 뽈스까, 웽그리아, 미국, 영국, 프랑스, 카나다, 인도네시아 정부대표단과 사이공괴뢰정권대표단, 유엔사무총장이 참가)에서는 웰남정화협정과 4개의 협정 부속의정서들을 인정하였다.

협정조인후 60일동안에 웰남민주공화국정부는 북부웰남에서 포로된 도합 459명의 미국군사인원과 외국민간인들을 네번에 걸쳐 미국정부에 돌려보냈다. 북부웰남에서 포로된 비행사 한명을 남부웰남괴뢰정부에 돌려보냈다.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는 127명의 미국군사인원과 외국민간인들을 미국정부에, 5천 433명의 군사인원포로를 남부웰남괴뢰정부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미제와 남부웰남괴뢰들은 협정조항들을 계통적으로 위반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비록 그 힘이 약화되여도 결코 변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옛진지에서 스스로 물러가려 하지 않습니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12페지)

미제침략군은 무기와 전쟁수단들을 가지지않고 남부웰남을 떠났으며 1만명의 군사고문들을 민간인으로 가장시켜 남겨두었으며 무기와 탄약, 전쟁물자들을 계속 남부웰남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였으며 북부웰남의 해상, 항구, 수로에서 기뢰해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

정화후 남부웰남괴뢰들은 미제의 지지밑에 남부웰남전지역에서 《땅뻬앗기작전에 전체무력을 동원하였다. 놈들은 1973년 1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만도 해방지역을 반대하는 1만 9천 770건의 《땅뻬앗기》작전을 포함하여 6만 7천 762건의 위반행위와 2만 3천 542차의 포격, 3천 375차의 폭격을 감행하였다. 또한 민경, 경찰 및 정규군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2만 1천 75건의 공격을 벌려 인민들을 탄압학살하고 강제수용소와《전략촌》들에 몰아넣으면서 저들의 《평정》계획을 추진시켰다.

전쟁시기 포로된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군사인원들과 남부웰남괴뢰정부가 억류하고있는 민간인들은 한명도 돌려보내지 않고 투옥하고있다.

협정위반행위를 규탄하여 1973년 3월 30일 웰남민주공화국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협정을 파괴하는 온갖 음모책동을 짓부실 만단의 준비를 갖출것을 호소하였으며 4월 1일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는 사이공행정부가 협정위반행위를 계속한다면 그에 응당한 징벌을 안길것이라고 성명하였다.

라 오 스

(라오스왕국)

인도지나반도 북쪽에 있는 내륙국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와 고원으로 되여있으므로 《인도지나반도의 지붕》이라고 부르고있다.

북라오스는 비엔티안부근의 벌과 중앙부의 자르벌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과 고원으로 되여있다. 령토의 70%는 울창한 산림으로 덮여있다.

기후는 열대계절풍기후이다.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나 장마철(5~10월)과 가물철(11~4월)로 나누어진다. 평균기온은 1월에 15~23°C이며 7월에 26~28°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3천mm이다.

【넓이】 23만 6,800km²

【인구】 약 303만명(1971년)

30여개의 종족이 살고있는데 주민의 3분의 2는 라오족이며 그밖에 카족, 묘족, 인니족이 있으며 중국인, 웰남인도 있다. 인구밀도는 동남아세아나라들중 가장 낮다.

국어는 라오스어

【수도】 비엔티안 (주민 14만명)

【국왕】 사방바타나 (1959년 11월—)

【정부】 1962년 6월 23일 라오스의 3파(애국전선, 중립파, 우파)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총리 수반나 푸마, 부총리 수파누봉

【정당, 사회단체】 **애국전선** 파테트라오전투부대(라오스인민해방군의 전신)내의 진정한 애국자들을 골간으로 한《라오스자유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하여 1956년 1월 6일에 창건,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과 그 주구들의 매국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해방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라오스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운 반미구국통일전선체이다. 위원장 수파누봉, 총비서 푸미 봉비치트. **중립당, 평화중립민족적화목및 통일옹호위원회, 청년련맹, 애국청년조직, 녀성동맹.**

정치 1893년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되였으며 《인도지나련방》에 포함되였다.

라오스인민은 1901년, 1911년, 1919년에 무장봉기를 일으켜 프랑스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제2차세계대전기간에는 이 나라를 강점한 일제를 반대하여 싸웠다.

일제가 패망하자 라오스인민들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기도를 짓부시고 1945년 10월 12일 비엔티안에서 림시항쟁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1946년 3월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또다시 라오스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고 괴뢰정부를 조작하였다.

라오스인민들은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1949년 1월 20일 라오스인민의 진정한 무장력인 인민해방군 (1965년까지 파테트라오전투부대로 부름)을 창건하고 1954년초까지 전국령토의 절반과 주민의 3분의 1을 해방시켰다.

1954년 7월 20일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라오스의 독립, 주권, 령토완정을 인정하는 제네바협정에 조인하고 이 나라에서 물러갔다.

이리하여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라오스인민의 항쟁은 승리적으로 끝났다.

1956년 1월 6일 파테트라오전투부대성원들을 핵심으로 한 라오스 애국전선이 창건됨으로써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애국력량과 인민들의 통일단결은 일층 강화되고 투쟁력량은 확대되였으며 반제민족해방혁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1957년 11월 3과 련립정부(애국전선, 중립파, 우파)가 수립되여 라오스의 통일이 실현되였다.

1958년 5월 전국선거에서 애국전선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미제는 7월 우파도당을 사촉하여 련립정부를 전복하고 친미정부를 조작하였으며 1959년부터는 애국력량을 반대하는 국내전쟁을 일으켰다.

1961년 6월 쮸리히에서, 10월에는 힌호프에서, 1962년 6월에는 자르평원에서 진행된 세판계측 회담에서 림시련립정부의 구성과 일치가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6월 24일 전국에 정화가 선포되였다.

1962년 라오스의 각계층을 대표하는 애국력량 중립파세력, 우파세력 등을 망라한 민족련립정부의 수립과 그를 존중할데 대한 제2차제네바협정이 성립되였다. 이에 따라 미제침략군은 1962년 10월 7일까지 철거하기로 되였다.

그러나 미제는 우파세력을 동원하여 1964년 4월 군사정변을 일으켜 련립정부를 파괴하고 친미괴뢰정권을 조작하였다. 1964년 5월에는 애국전선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야수적으로 폭격함으로써 라오스에 대한 《특수전쟁》을 시작하였다.

한편 미제는 1965년 7월 친미괴뢰정부를 합법화하기 위한 제한된 《선거》를 실시하였다.

1967년 1월에는 국회조작을 위한 비법적인《선거》를 실시하였다.

애국전선은 진정한 중립파와 함께 이를 비법적인것으로 인정하고 무효로 선포하였다.

1968년 10월 애국전선 제3차전국대회에서는 12개항목의 정치강령을 발표하였다.

강령에서는 모든 민족들의 리익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민주민족련립정부를 수립하고 독립되고 자주적인 라오스를 건설할것을 천명하고 라오스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때까지 계속 견결히 싸워나갈것을 선언하였다.

미제는 1969년 7월이래 라오스에서 제놈들의 공군 및 후방의 지원하에 《라오스인민들끼리 싸우게하는》 가장 반동적인 《닉슨주의》를 집행하면서 《특수전쟁》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제는 라오스에서 《닉슨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1969년말과 1970년초에 자르평원—히엥 쾅지역에서 《쿠 키에트》작전, 1971년초에는 남부라오스의 9호도로에서 《람 손 719》 작전을 벌렸다.

미제는 이러한 살륙전쟁을 위하여 라오스에 1만 4천명 (대부분이 미중앙정보원인 공군 및 륙군장교)의 침략군을 투입하고 20개대대의 타이고용병과 4만 5천명의 남부웰남괴뢰군, 장개석잔당까지 끌어들였으며 1971년에는 《특공대》를 3만명으로 증가하여 전략군으로 리용하였다. 미제는 《특공대》에만도 매해 2억 5천만딸라를 탕진하고 있으며 1971—1972년도에 라오스괴뢰들에게 주는 《군사원조》는 4억딸라에 달하였다.

라오스인민해방군은 라오스애국적중립파세력과 함께 1972년에만도 타이추종군 4천 600여명과 라오스우파 《특수부대》1만 3천 300여명을 포함하여 2만 3천 700여명의 적을 살상포로하였으며 각종무기 5천 400점을 로획파괴하고 비행기 165대를 쏴떨구고 10만명의 주민들을 해방하였다.

1954년 미제를 반대하는 구국투쟁에 일떠선이래 1972년까지에는 25만명의 적을 살상포로하고 비행기 2천 500대를 쏴떨구었으며 군용차 2천여대를 까부시고 해적선 269척을 불태워버렸다.

이리하여 전평토의 4분의 3과 인구의 절반이상을 해방하였다.

해방지역에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이 조직되고 제반민주주의적개혁들이 실시되였으며 경제 및 문화 건설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라오스문제 해결을 위한 애국전선의 투쟁: 애국전선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1964년 9~12월 빠리에서 라오스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한 세판계측회담이 마련되였다.

회담에서는 라오스에서의 정화문제, 자르평원관리문제, 련립정부회복문제가 의제로 되였다.

미제는 회담 첫시작부터 《중립파》와 우파대표들로 하여금 애국전선이 라오스문제해결을 위한 정당한 제의를 무조건 반대케하면서 해방지역과 히엥쾅시를 비롯한 자르평원의 중요전략지점들을 점령하려고 발광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회담을 고의적으로 파괴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애국전선과 진정한 애국적중립파세력은 라오스문제해결의 원칙을 다시금 밝히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1965년 10월 라오스정치협상회의에서 4개항목의 립장과 5개항목의 방도를 채택하였다. 이에 준하여 1970년 3월 6일 라오스애국전선중앙위원회는 라오스문제의 정치적해결에 관한 5개항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5개항목의 제안에서는 ① 라오스문제는 제네바협정과 라오스의 현상태를 토대로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② 미국은 라오스에 대한 간섭을 중지하고 라오스령토에 대한 폭격을 끝장내며 ③ 미군사인원을 철수시키고 ④ 타이기지를 라오스침략에 리용하지 말것 ⑤ 민주주의적인 총선거를 통해 국내의 모든 세력을 대표할 중립적인 민주주의정부를 구성하며 평화공존의 5개원칙에 근거하여 인도지나 각국과 친선우호관계를 수립할것을 주장하였다.

라오스애국전선은 1971년 4월 27일과 6월 22일 두차례에 걸쳐 라오스왕국《총리》푸마에게 서한을 보내여 회담할것을 제의하였으며 1972년 9월에 또다시 라오스문제해결을 모색하기위하여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공식회담을 비엔티안에서 시작할것을 제의하였다.

푸마는 애국전선의 제안을 반대하여 오다가 1972년 10월에야 5개항목의 해결책을 인정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회담하는데 동의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애국력량대표단(애국전선대표와 애국적중립파세력동맹대표포함)과 비엔티안대표단간에 예비회담을 거쳐 10여차의 회담을 진행하고 1973년 2월 21일《라오스에서의 평화를 회복하며 민족적화목을 이룩할데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라오스에서 평화협정이 조인된것과 관련하여 라오스애국전선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친왕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라오스에서 평화를 회복하며 민족적화목을 이룩할데 관한 협정〉의 조인은 미제침략자들과 국내반동들을 반대하는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에서 이룩한 애국적라오스인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아세아와 세계의 반제평화애호력량의 공동의 승리로 됩니다.》

애국전선의 제안을 기초로한 평화협정이 조인됨으로써 라오스전역에서 정화가 실현되고 18년동안이나 라오스에서 횡포한 내정간섭과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하던 미제는 라오스에서

침략의 손을 떼지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리하여 라오스의 내부문제는 라오스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될수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라오스에서 평화를 회복하며 민족적화목을 이룩할데 관한 협정》과 그 리행(1973년 3월말까지): 1973년 2월 21일 비엔티안에서 《라오스에서 평화를 회복하며 민족적화목을 이룩할데 관한 협정》이 라오스애국력량측과 《비엔티안정부측》간에 조인되였다.

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였다.

—1973년 2월 22일 12시(비엔티안시간)부터 전반적인 동시적 현지정화가 라오스전령토에서 준수된다.

—라오스관계측과 미제는 라오스에 관한 1962년 제네바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리행하여야한다.

—라오스의 내부문제는 외부의 간섭이 없이 라오스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한다.

—미제는 라오스의 독립과 자주권, 통일과 령토완정을 존중하고 라오스전령토에서 폭격을 완전히 영원히 그만두며 라오스에 대한 온갖 간섭과 침략행위와 군사적개입을 그만둔다. 미제는 라오스 침략전쟁에 끌어들였던 침략군과 괴뢰들의 군사인원과 정규군및 비정규군을 라오스로부터 완전히 끌어내가고 군사 및 준군사조직과 《특수부대》와 그 기지를 해체하여야 한다.

—협정조인후 30일내에 새로운 림시민족련합정부구성과 협정조항들을 리행하여 국가사업을 처리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의 구성을 끝낸다.

—림시민족련합정부와 정치협상회의 수립후 60일 이내에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호상 포로를 교환한다.

—림시민족련합정부와 정치협상회의는 3파의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되며 총리는 어느파의 수에도 속하지 않는다.

—루앙 프라방과 비엔티안을 중립화한다.

—협정리행을 위하여 쌍방대표들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인도, 뽈스까, 카나다로 구성된 국제감시 및 관리위원회가 제네바협정의 규정에 따라 활동을 계속한다.

라오스에 관한 협정이 조인된 이래 라오스애국력량은 자기측의 여러 무장력에 라오스전역에서 완전한 현지정화를 동시에 실시할것을 명령하였으며 비엔티안에서의 회담을 적극추진시킴으로써 협정의정서를 빨리 체결하며 합의된 기한내에 새 림시민족련합정부와 정치협상회의 창설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1973년 3월 28일 미국측에 전쟁시기 라오스에 포로된 미국의 군사인원과 비군사인원을 돌려보냈다.

미제와 비엔티안측이 197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라오스전역에서 일으킨 정화협정위반사건은 미국비행기의 폭격 및 정찰비행과 비엔티안측의 침식공격을 포함하여 하루평균 근 100건씩 도합 3천여건에 달하였다. 특히 이 기간에 비엔티안측 군대 10여개 대대가 미제의 지원하에 애국력량관할하의 반통과 하 케모 지역을 공격하였으며 사반나 케트주 13호도로연선 부나캉 동카센, 타케트의 기타 많은 해방지역을 공격하였다.

애국전선 중앙위원회는 3월 29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러한 협정위반행위는 앞으로 협정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온갖 음모를 분쇄할 준비가 어느때나 되여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제, 사회

인구의 95%가 농사를 하며 벼재배가 기본으로 되고있다. 벼는 주로 메콩강기슭에 있는 벌방지대에서 재배된다. 벼수확고는 년 55만t이다. 그밖에 주요 농산물은 강냉이, 땅콩, 담배, 목화, 커피, 아편, 고무 등이다. 열대공예작물의 대부분은 볼로반고원에서 재배된다.

관개시설이 적기때문에 장마철외에는 뿌릴수 없다.

축산업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소, 돼지, 말 등을 기른다. 라오스에는 목재자원이 많다.

공업에는 인구의 2%가 일한다.

해방지역에는 중소규모의 방직공장, 피복공장, 종이공장, 기계공장, 인쇄공장, 자동차수리공장, 제약공장 등이 건설되였으며 농기계, 전투기재들을 자체로 만들고있다.

강점지역의 경제는 프랑스, 미국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는데 주요한것은 주석채굴이다.

공업에서는 수공업이 대부분이며 도자기, 가죽제품, 바구니, 돛자리 등을 만들고있다.

라오스에는 철길이 없으며 교통운수는 물길과 도로에 의존하고있다. 경제가 락후하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외무역발전에 제한을 받고있다.

주석, 찌크새, 커피, 목화, 짐짐승, 담배 등을 수출하고 식량, 직물, 원유제품을 수입한다.

해방지역에서는 봉건적생산관계가 청산되고 산지의 소수민족들도 원시적인 생활처지에서 벗어났다.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이 실시되였고 외국자본의 지배적세력이 청산되였다.

1972년에 해방지역에서는 씨붙임땅이 전해보다 15%나 늘어났다.

삼 누아, 루앙 프라방, 캄 몬, 사반나케트주들을 비롯한 7개주에서만도 1천 100여ha의 새땅을 얻어냈다. 관개수리공사도 추진되여 근 2만ha의 논밭에 물을 댈수있게 되였다.

삼 누아주와 루앙 프라방주 등 4개주에서만도 늦벼 씨붙임땅을 650여ha 나 늘였다.

새로운 영농법이 도입되여 농업생산은 계속 올라가고있다.

1972년에 사반나 케트, 우돔사이, 시야부리 등 주들에서는 그 전해보다 10～15%, 참파싸크주에서는 25%, 삼 누아 히엥쾅주에서는 15% 더 많은 낟알을 거두었다.

축산업도 발전하였다.

퐁살리, 루앙 프라방, 보리칸사이, 사반나 케트주들의 해방지역들에서는 1970년에 비하여 암소는 35.7% 황소는 6%, 돼지는 22.4% 더 늘어났다.

파괴된 공장이 복구되고 새 공장들이 도처에 일떠섰다.

공업생산도 늘어나고있다. 사반나케트주해방지역의 방직부문로동자들은 1972년 상반년에 그 전해 같은기간보다 2배나 더 많은 천을 짰다.

해방지역에는 2천여개의 소학교와 30여개의 중학교가 있다. 1973년 4월 11일 해방지역의 첫 대학인 교원대학이 개교하였다.

해방지역의 매주와 일부 군들에는 초등사범학교도 있다. 학생수는 8만 2천 500명에 달하고있다. 또한 농업, 교통, 상업 부문간부들과 교원들을 키우는 양성소들이 운영되고있다.

1972년말까지 1천여개의 마을과 60여개의 면에서 문맹을 완전히 퇴치하였다.

삼누아주에서는 학교에 갈 나이가 된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글을 배우고있으며 25개의 면과 500개의 마을들에서 문맹을 완전히 퇴치하였다.

보건사업도 발전하고있는데 매개군에 병원이 있고 매개 면에 위생초소와 약방이 있다.

1972년 루앙 프라방주에서는 연 500km의 도로를 복구정비하였으며 새로 700km의 도로를 닦았다.

【출판보도】 **통신** 파테트 라오통신(라오스애국전선의 통신)

신문 라오 하크사르 (애국전선 기관지)

방송 파테트 라오방송(해방지역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6월에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이, 1971년 6월에는 라오스애국청년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 3월 26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친왕이 보내는 선물이 라오스를 방문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에게 전달되였다.

1972년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우리 나라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하였다.

3월 26일 발표된 공동콤뮤니케에서 라오스측은 김일성주석동지께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외세의 간섭없이 조선사람자신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하여 천명하신 공명정대한 합리적인 제안들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라오스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때까지 계속 모든 힘을 다하여 지지성원할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천명하였다.

1972년 7월 23일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협정 체결 열돐에 즈음하여 평양시에서는 라오스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군중집회를 진행하였다.

캄 보 쟈

(캄보쟈왕국)

인도지나반도의 서남쪽 메콩강하류지대에 자리잡은 평원국가이다. 북부는 고원지대이고 중남부는 평원지대이다. 서북쪽에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담수양어장으로 알려지고있는 톤레샤프호가 있다. 이 호수는 물이 적을 때 보통 2천 700km²의 넓이와 깊이 2m의 호수이나 메콩강물이 흘러들 때는 넓이 1만km²의 대호수로 변하며 깊이도 10m나 된다. 이와 같이 톤레샤프호는 메콩강하류의 수량을 조절하는 자연적인 저수지로 되고있다.

기후는 열대철바람기후이며 장마철(5~10월)과 가물철(11월~4월)로 나뉘어진다.

년평균기온은 26°C, 평균강수량은 2천mm이다.

수도 프놈펜의 1월 평균기온은 25.9°C, 3월은 29°C이다.

【넓이】 18만 1,035km²

【인구】 700만명(1970년)

주민의 약 87%는 크메르족이며 그밖에 타이족, 라오족, 카족, 프논족 등 20여개의 종족들이 있으며 50만명의 웰남인민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캄보쟈어이다. 프랑스어도 많이 쓰고있다.

【수도】 프놈펜(주민 약 150만명)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1960년 6월—)

【민족련합정부】 1970년 5월 5일 수립, 총리 펜 누트(1970년 5월—), 외교부장 사린 챠크, 국방부장 키에우 삼판(민족해방인민무장력 총사령관, 부총리를 겸한다)

【정당,사회단체】 **민족통일전선** 1970년 3월 23일 창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캄보쟈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체이다.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로동자련합회, 애국농민동맹, 민주녀성협회, 민주청년동맹, 애국인테리협회, 애국승려협회.**

정치 동남아세아의 고대국가들중의 하나이다. 1863년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보호국》으로 되였으며 1887년에는 《인도지나련방》에 편입됨으로써 거의 90년동안 프랑스의 식민지통치하에 있었다. 제2차세계대전기간인 1940년 9월에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

1945년 8월에 일제가 패망하자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다시 캄보쟈를 침략하였다. 캄보쟈인민들은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행정에서 1946년 크메르인민해방군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벌렸다.

1947년 5월 캄보쟈는 프랑스 《보호》하의 립헌군주국으로 되였으며 1949년 11월에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1953년 11월 9일 캄보쟈는 완전독립을 선포하였다.

1954년 7월 인도지나문제에 관한 제네바협정에 따라 캄보쟈의 독립, 자주 및 중립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1955년 9월 프랑스련방에서 탈퇴하였으며 1957년 9월에는 영구중립법을 채택하였다.

1958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였으며 1963년 11월에는 미제의 군사, 경제, 기술, 문화 기타 《원조》를 거부하고 1965년 5월에는 미제와의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3년부터 1969년까지 캄보쟈왕국은 미제를 반대하는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에 사심없는 원조를 주었다.

1966년 1월 미제의 침략도구인 《아세아기금》프놈펜사무소를 폐쇄하였다.

이해 12월에 미제의 주구인 남조선괴뢰도당과 관계를 끊고 남조선《총령사》놈을 내쫓았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평화와 중립정책을 실시하는 캄보쟈정부를 극도로 미워한 미제는 1970년 3월 18일 론놀—시리크 마타크매국도당을 부추겨 반동적인 정변을 조작하고 이해 4월 30일에는 11만명의 미제침략군과 남부웰남괴뢰군들을 들이밀어 캄보쟈에 대한 대규모침략을 시작하였다.

론놀도당에 대한 미제의 《군사원조》는 해마다 4천 100만딸라에 달하였다.

1970년 3월 23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미제가 조작한 반동적인 정변을 폭로규탄하고 조성된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출하기 위한 《5개항목의 선언》을 발표하고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였다.

5월 5일에는 민족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이 발표되고 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와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을 조직하였다.

캄보쟈공산주의자들은 민족통일전선에 가입하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캄보쟈의 유일한 합법적국가원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우수한 간부들을 민족련합정부와 민족해방인민무장력에 보냈다. 이리하여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유격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광범한 민족해방운동을 벌렸다.

캄보쟈인민과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1972년 4월까지 2년동안에 적들의 《첸라 2호작전》을 반대하는 6호도로전투에서 또한 콤퐁참, 시엠레아프, 콤퐁츠낭, 프레이벵, 스바이리엥, 깜뽀트, 프놈펜과 그 주변 등 캄보쟈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타격을 주고 전령토의 80%와 인구의 70%를 해방하였다.

해방지역에서는 괴뢰통치기구들이 무너지고 주, 군, 리, 촌에 이르기까지 인민선거에 의하여 조직된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이 수립되였으며 해방지역은 반미구국투쟁의 강력한 근거지로, 전국해방의 믿음직한 기지로 전변되였다.

괴뢰정권에 복무하던 정객들, 외교관들, 괴뢰군장교들, 지식인들을 비롯하여 적강점지역의 각계층 인민들이 련이어 민족통일전선에 망라되였다.

【주요사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온갖 난관을 용감히 물리치면서 해방전쟁을 승리적으로 진행하고있으며 론놀매국도당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1972년에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민족통일전선의 령도밑에 전선에서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들이대여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가물철(1971년 11—1972년 4월)기간에 적들의 전략적공격을 짓부시고 5만 6천명의 적을 소멸함으로써 적아간의 력량대비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장마철 (5—10월)에 들어서면서 이들은 공격을 끊임없이 들이대여 적을 제압하고 전략적인 해상 및 륙상 교통선을 완전히 통제하였으며 특히 적들이 둥지를 틀고있는 프놈펜과 몇개 남지않은 일부 도시들에 적들을 몰아넣었다.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6월 5일 대낮에 프놈펜에 있는 괴뢰국방부에 포사격을 들씌우고 론 놀놈의 《별장》을 들이쳤으며 7월 22일과 27일에는 프놈펜비행장과 부근의 괴뢰군훈련소, 국제전신소를 포격하여 놈들의 전신련락을 끊어버렸다. 10월 7일에는 프놈펜에서 맹렬한 시가전을 벌려 넓은 지역을 점령하였다.

캄보쟈인민과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이 1972년 한해동안에 거둔 전과는 다음과 같다.

10만 3천여명의 적을 살상포로(그중 고위급장교 120명 포함)하고 1만 7천 300점의 각종 무기와 1천여톤의 군수물자를 빼앗고 415대의 군용차 및 200대의 장갑차와 땅크를 마사버렸으며 총 6만톤에 이르는 35척의 함선들과 80여척의 상륙정을 격침시키고 100여대의 비행기를 쏴 떨구었다. 520개의 적초소와 병영을 그리고 150개의 《전략촌》을 점령하였다.

또한 75만의 주민들이 반역자의 기반에서 벗어나 해방지역으로 넘어왔으며 1천 500명의 괴뢰군병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민족해방인민무장력에 합류하였다. 이리하여 해방지역은

—서남부에서 남부웰남과 접한 《앵무새부리》지역 일대와 프놈펜서남쪽에 걸치는 넓은 지역(주소재지 제외)

—동북부에서는 남부웰남과 접한 몬돌키리주를 비롯한 모든주들(주소재지들과 주요도시들 제외)

—프놈펜서북부에서는 몇개 주소재지들과 대도로연선도시들 그리고 타이와 접한 국경지역들을 제외한 넓은 지대로 확대되였다.

프놈펜의 외부와의 련계는 사이공으로 뻗은 1호도로를 비롯하여 모든 도로들이 차단되여 고립되였으며 특히 쌀생산지인 바탐방주(타이와의 린접주)6호도로와 바다로 뻗은 4호도로의 차단으로 프놈펜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다.

1973년 2월 25일 민족련합정부공보에 의하면 총인구 700만명중 550만명의 인구를 망라한 전령토의 90%를 해방하였다.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의 강력한 공세로 수세에 빠진 미제는 7월에 《군사원조》의 일부로서 함선, 비행기, 장갑차, 포 등의 전투장비들을 캄보쟈괴뢰군들에게 주었으며 8월 12일에는 200만딸라를 들여 캄보쟈에 3개의 비행장을 건설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8월 15일 태평양지역 미총사령관놈이 기여든것을 비롯하여 전쟁우두머리들이 여러차례 캄보쟈에 드나들며 론 놀도당과 전쟁모의를 가지면서 전쟁확대에 미쳐날뛰였다.

9월 27일 미제침략자들은 《비 52》전략폭격기들을 내몰아 콤퐁참주의 여러지역을 야수적으로 폭격하였다.

론 놀—손 느곡 탄 괴뢰도당은 미제의 사촉밑에 4월 30일 기만적인 《국민투표》놀음을 벌려 이른바 《헌법》을 조작하고 제놈들의 독재정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9월 3일에는 《국회선거》놀음까지 꾸며냈다. 군사적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론 놀도당은 지어 10살의 어린이와 60살의 늙은이까지 강제로 입대시켜 전투장에 내몰았으나 정세를 조금도 변동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미제는 민족통일전선과 론 놀도당간의 《타협협상》, 《현지정화》등을 들고나왔다.

10월 5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펜누트친왕은 적강점지역인민들에게 반미구국항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으며 10월 24일 민족련합정부는 미제의 《현지정화》제의를 배격하고 캄보쟈문제는 그 어떤 《회담》을 통하여 해결될수 없으며 매국역적들과의 《타협》으로써는 더욱 해결될수 없다고 성명하였다.

10월 29일 시하누크친왕은 미제침략자들과의 타협을 영원히 접수하지않을것이라고 천명하였다.

11월 2일 민족련합정부 국내지도자들, 민족해방인민무장력지휘관들 및 대중단체책임자들이 《정화》협잡은 미제와 론 놀도당의 정치적기만책동이라고 규탄하고 이에 대처하여 캄보쟈인민은 민족통일전선의 유일한 기치밑에 완전승리를 거둘 때까지 투쟁할것이라고 성명하였다.

11월 9일 민족련합정부 성명에서는 1970년 4월 25일의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공동선언의 원칙에 따라 웰남과 미국간의 정화 및 평화협정의 권위가 캄보쟈령토에까지 미치는것을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고 전세계에 선포하였다.

1973년 1월 16일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총리 펜 누트친왕, 국방부장 키에우 삼판은 웰남평화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여 캄보쟈문제는 시하누크친왕의 1970년 3월 23일 《5개항목 성명》에 따라 해결되여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의 국제적지위는 더욱 높아졌다.

민족련합정부 수립이래 1973년 3월까지 3년동안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36개나라와 민족해방조직들이 민족련합정부를 캄보쟈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인정하고 싸우는 캄보쟈인민에게 굳은 련대성을 보냈다.

8월 58개나라의 참가하에 가이아나의 수도 죠지타운에서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외상회의에서는 론 놀괴뢰도당의 《대표》들을 내쫓고 민족련합정부대표단을 캄보쟈의 유일한 합법적대표로 회의에 참가시킬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1972년에 시하누크친왕은 로므니아(6월), 알바니아(6월), 알제리(6월), 모리따니(7월), 유고(7월), 민주웰남(10월) 등을 방문하였다. 또한 외교부장이 아세아, 아프리카의 일련의 나라들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농민이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 고무, 목화, 야자, 커피 등이다.

벼재배면적은 241만 4천정보이다.

산림면적은 약 7만 8천여km^2이며 매해 목재는 30만m^3 생산된다.

수산업은 담수어업이 기본이다.

공업으로는 방직, 세멘트, 종이 공업 등이 있으며 질좋은 마대들이 나온다.

1970년 3월 정변후 미제의 침략으로 경제발전은 억제당하고있다. 적강점지역에서는 부침땅의 절반이상이 묵고있으며 농산물생산은 전쟁전수준의 3분의 1밖에 되지않는다.

공업생산과 수출은 5%로 줄었다.

통화도 팽창되고 쌀값은 2배이상으로 올랐다. 론 놀도당은 미제의 원조에 의거하여 목숨을 부지하고있다.

해방지역에서는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이 수립되였으며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들이 실시되였다. 농촌에서는 힘을 모아 일하는 품앗이반, 호조반, 공급판매협동조합이 조직되였으며 종자와 농기구, 집짐승들을 대주었다. 이리하여 식량은 자급자족하고있다.

민병들이 적들의 공격과 략탈로부터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사업을 책임지며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인민들은 인민정권하에서 창조적로동으로 약동하고있으며 해방지역은 반미구국성전의 믿음직한 기지로 굳건히 다져지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 케이. 아이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의 통신, 1970년 8월에 창건)

방송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소리.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3월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1963년 11월에는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1964년 4월에는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4년 12월 20일에는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우리 나라 정부는 1970년 3월 18일 미제가 캄보쟈에서 반동적인 국가정변을 조작한 직후에 미제의 주구 론 놀괴뢰도당을 철저히 배격하고 그와 어떠한 관계도 가지지 않았으며 프놈펜에 가있던 우리 나라 대사관을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취를 취한데 뒤이어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 민족련합정부가 구성된 즉시로 그를 캄보쟈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승인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8월 6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고 캄보쟈인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가 요구할 때에는 캄보쟈인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조치라도 다 취할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또다시 엄숙히 천명합니다.》

1972년 4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5월 6일 우리 나라와 캄보쟈왕국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4월 29일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4기 6차회의에 참석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자기의 연설에서 《조선인민이 미제를 반대하는 캄보쟈인민의 력사적투쟁에 표시하고있는 전적인 지지와 각종 형태의 원조들은 캄보쟈인민의 투쟁을 최후승리에로 이끎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기여로 되고있다.》고 말하였다.

8월 14일 민족련합정부 외교부대변인은 알제리를 비롯한 많은 평화애호국가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의정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를 전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이 새로운 의정을 1972년 유엔총회에 상정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발표한 7월 31일부 우리 나라 정부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28일에는 남조선에 무기와 기타 전쟁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미제의 새로운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휴식차로 우리 나라를 다시 방문하였으며 11월에는 민족통일전선 및 민족련합정부 친선대표단, 왕국최고왕실회의 총서기부부가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일 본

일본은 아세아대륙의 동부,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이다. 우리 나라와는 조선동해, 조선남해를 사이에 두고 린접하고있으며 가장 가까운 부산—시모노세끼사이의 거리는 약 200km, 가장 먼 청진—니이가다사이는 882km이다.

혹가이도, 혼슈, 시고꾸, 큐슈 등 4개의 큰 섬과 그 주변의 1천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령토의 5분의 4는 험한 산지로 되여있으며 벌이 적다. 168개의 화산(그중 50여개는 활화산)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강한 지진이 일어나는데 도꾜지방에서는 3일에 한번씩 사람이 감촉할수 있을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다.

기후는 해양성기후가 우세하면서도 대륙성기후와 결합되여있다. 기후는 우리 나라와 비슷하다.

1월평균기온은 혼슈의 남쪽에서는 6°C, 혹가이도에서는 —10°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대부분지역에서 1천~2천mm이다.

【넓이】 37만 9,873km²

【인구】 1억 820만 2,038명 (1973년 3월)

주민의 절대다수는 일본사람이고 혹가이도의 변강에 원주민인 아이누족이 약간 남아있다. 일본에는 60만명이상의 조선공민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일본어

【수도】 도꾜(주민 1,145만 7,000명)

【천황】 히로히도

실권은 없고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의 정치사상적지배의 도구로 되고있다.

【국회】 참의원과 중의원의 량원제, 참의원은 252석, 임기는 6년, 3년에 한번씩 절반을 선거한다. 중의원은 491석이며 임기는 4년이다.

1972년 12월 10일 제33차 중의원선거결과 공산당이 38석, 사회당이 118석, 공명당이 29석, 민주사회당이 19석, 자유민주당이 271석, 기타 2석, 무소속이 14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1972년 7월 7일 제1차 다나까내각이 구성되였다.

총리 다나까 가꾸에이, 외교부장 오히라, 방위청장관 마스하라 게이기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7월 15일 창건,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비법화되였고 1945년 12월 1일에 재건, 의장 노사까 산조, 간부회위원장 미야모도 겐지, **사회당** 1945년 11월에 창건,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 **자유민주당**(집권당) 1955년 11월 반동적부르죠아정당인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성립. **공명당** 1964년 11월 창건. **민주사회당** 1960년 1월 창건. **로동조합총평의회**(총평) 420만명의 근로자들을 망라하고있는 최대의 로조. **전일본로동총동맹**, **중립로동조합련락회의**, **민주청년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신일본부인회**, **일조협회** 1951년 6월 결성, 회장 나가노 구니스께. **일조무역협회** 1956년 3월 결성.

정치 일본은 1867—1868년 신흥부르죠아세력이 일으킨 개혁인 《명치유신》이후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며 19세기말—20세기초에 걸쳐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는 력사적으로 큰 제국주의세력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버릇되여온 아세아인민들의 철천지원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97페지)

《명치유신》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0여차의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1870년대에 미영제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875년에 미제로부터 받은 군함과 무기로 무장한 후 강화도에 침입하여 1876년에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였다. 1894년에는 조선에 있는 일본거류민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조선에 기여 들었다. 이때로부터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

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02년 《영일동맹》과 1905년 7월에 《가쯔라—타프트비밀협정》을 통하여 미영제국주의자들로부터 조선강점을 승인받은 후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1907년에는 《정미7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을 완전히 강점하였다.

1894—1895년에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지지밑에 청일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배상금과 대만, 팽호렬도 등을 빼앗았고 1904—1905년에는 로일전쟁을 일으켜 남부싸하린과 짜리로씨야의 조차지였던 중국의 료동반도를 략탈하였다.

1914—1918년의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태평양의 여러지역을 강점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동북지방을 완전히 강점하고 괴뢰 《만주국》을 조작하였다. 1937년 7월에는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하였다. 이리하여 광대한 중국령토를 강점하였다.

1936—1937년에 파쑈독일 및 이딸리아와 《방공협정》을 맺고 1940년에 침략적인 3개국《군사동맹》을 조작한후 1941년에는 태평양지역에서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일제는 《대동아공영권》의 구호밑에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고 날뛰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와의 최후결전에서 쏘련군대와 련합전선을 실현하여 놈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주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45년 8월 15일 패망하고 9월 2일 무조건 항복서에 도장을 찍었다.

패망한 일제는 자기의 모든 식민지, 위임통치령, 점령국가들을 잃고 19세기 70년대의 령토로 돌아갔다.

전후 일본을 강점한 미제는 제반 국제협정들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일본을 군국화하고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길러내는데 광분하였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비호밑에 또다시 침략과 략탈의 길에 들어섰다.

미제는 1951년 9월 일방적으로 일본반동지배층과 단독 《강화조약》 및 《안전보장조약》을 맺음으로써 미제침략군의 일본강점과 군사기지화를 합법화하였으며 일본의 재무장과 침략적군사동맹에 가담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일본군국주의는 1950년 6월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하여 전령토를 공격기지, 보급기지로 제공하고 직접 일본군사인원들과 선박들을 조선전선에 동원시켰다. 악명높은 일본의 세균전문가들이 조선에서의 미제의 세균전에 가담하였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새아세아정책》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망상하면서 해외침략의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미일반동들은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1962년 8월에 《한일군사협력안》을 조작하여 《자위대》의 조선출동의 길을 《개척》한 뒤를 이어 1963년 6월에는 악명높은 침략계획인 《새개화살작전》, 1964년에는 《날아가는 룡작전》, 1966년 9월에는 《달리는 황소작전》들을 짰으며 1971년에 일본 《방위권》이 《도꾜를 중심으로 반경 1천해리》에 이른다고 떠들면서 조선의 전지역을 제놈들의 첫번째 작전지역으로 선포하고 조선전선에 일본침략무력을 투입할데 대한 모략을 공공연히 추진시키고 있다.

특히 1965년에는 《한일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에 침투하고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 동족상쟁의 전쟁을 일으키려는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을 부추겨대고있다.

1969년 11월 일본총리였던 사또놈은 미제의 우두머리인 닉슨과의 회담끝에 발표한 일미공동콤뮤니케에서 일본이 미제의 조선침략의 대리인으로 남조선에 기여들어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벌였다.

1970년 6월 22일에는 일미간의 종속적동맹관계를 규정지은 미일 《안보조약》을 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는 더욱 확대된 침략적군사동맹조약으로 개악연장하였다.

1971년 6월 17일 일본반동들은 일본인민들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기만적인 오끼나와《반환협정》에 조인하고 6월 29일에는 《자위대》침략무력을 오끼나와에 집중배치하려는 이른바 《오끼나와방위협정》을 조작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령토를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을 위한 군사기지, 보급기지, 수리기지로 내맡김으로써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원조》, 《공동개발》, 《경제협력》의 간판밑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침투하여 자기들의 팽창야망을 이루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주요사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반동들이 아직 해외에 파병은 하지않고있지만 앞으로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있습니다. 이런데서 일본군국주의재생의 위험성이 나타나고있습니다.》(《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35페지)

1972년에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적극적으로 복무하면서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들의 침략무력을 강화하였다.

1월 일본총리 사또놈은 미제두목 닉슨과의 회담결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평화》와 《안정》의 간판밑에 악명높은 《미일안보조약》을 다시 확인하고 아세아침략에서 미제와《긴밀히 협력》할것을 다짐하였다.

3월 15일 도꾜에서는 미제의 오끼나와강점을 합법화하기 위한 기만적인 오끼나와 《시정권반환협정》비준서를 교환하고 5월 15일에는 미제가 일본에 《시정권》을 《반환》한다는 의식을 벌렸다.

오끼나와 《반환》후에도 미제는 아세아침략의 중요한 교두보로서 오끼나와에 100개의 륙해공군의 각종 군사시설들과 연습장, 《심리작전기지》, 간첩쎈터와 9만 5천명의 침략군을 남겨두었다(반환전에는 150개기지에 15만명의 침략군이 있었다).

《자주방위》의 간판밑에 오끼나와 《반환》놀음을 벌린 일본반동들은 5월 22일에는 《제1차 오끼나와 배비요원》 수십명을 들이민데 이어 10월부터는 일본본토로부터 주력전투기와 수많은 병력과 해적선들을 련속 집중시켰다. 이리하여 미제와의 공동작전범위를 서태평양일대의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6월 자유민주당의 헌법조사회는 《천황의 〈국민대표〉의 지위를 명백히 하며》, 《자위력의 유지를 명문화할것》등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으로 하는 《헌법개정대강》에 관한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리하여 천황을 《국가원수》로 법제화하고 명목상으로나마 《전쟁포기》를 규정한 현행헌법을 개악하여 침략무력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려고 날뛰였다.

10월 9일에는 일본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4차방위력정비계획》(1972—1976)을 끝내 국회에서 강압통과시키고 그 실현을 다그쳤다. 이 기간에 일본자위대침략무력은 그 기동력과 화력에서 2차대전시기의 몇십배를 릉가하며 직접적군사비지출은 3차방위력정비계획의 2배나 되는 4조 6천 300억엔(154억딸라)에 달하며 거기에 《자위대》의 년봉급액까지 합하면 5조 3천억엔(172억딸라)에 달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 계획을 통하여 극동과 아세아에서 《제공권》과 《제

해권》을 틀어쥐고 이 지역의 혁명력량을 반대하는 《국부전쟁》과 《전면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미일군사협력체제》를 더한층 정비보강하는 방향에서 무력증강을 발광적으로 추진시키고있으며 《일미혼합군사체제》를 형성하며 미제7함대의 《극동방위》임무를 일본이 담당수행할 흉계로 추진시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4차방위계획》기간의 첫해인 1972년예산에서 직접적군사비만도 전년보다 19.7%나 늘어나 8천 30억엔을 배당하고 이 예산안을 중의원에서 날치기로 강압통과시켰다.

일본반동들은 이러한 방대한 군비확장계획에 의하여 미제로부터 로케트를 비롯한 최신살륙무기들을 대대적으로 사들이고 한편으로 《무기의 국산화》를 다그쳤다.

또한 자위대병력을 《예비지휘관》까지 합하여 무려 30만으로 늘였으며 760만에 달하는 징병대상자까지 장악하고 100만의 《향토방위군》을 무장시키는데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일본본토의 미침략군기지들에 《자위대》침략무력을 배치하여 미제침략군과의 공동행동을 강화하는 한편 혹가이도에서 큐슈에 이르는 일본령토의 도처에 유도무기를 비롯한 살인무기를 밀어넣을 군사기지들을 확장정비하였으며 11월에는 항공자위대연습, 해상연습 등 대규모의 전쟁연습소동을 벌렸다.

10월 17일 각의에서 일본에서 수리된 미제침략군 땅크들과 장갑차들의 남부웰남에로의 자유로운 수송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일정한 중량이 넘는 차량들의 도로통과를 제한하던 《차량제한령》마저 개악하여 미제의 차량까지도 《제한령의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선포하였다.

11월 6일에는 《일미합동위원회 차량통행소위원회》에서 미제의 《엠 48》대형땅크까지 추가로 통행을 허가함으로써 일본에서의 미제침략군의 활동을 제한없이 만들어놓았다.

11월에는 요꼬스까를 미제7함대 항공모함들의 모항—핵기지로 리용할수 있게 해줄데 대한 미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나까의 중국방문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과 중국봉쇄정책이 파산되고 특히 중일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일본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가운데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일본총리 다나까가 중국을 방문하였다.

공동성명에 의하면 다나까는 중국측이 제시한 《복교3원칙》—즉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며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한부분이다. 《일한조약》(일본—대만조약)은 폐기되여야 한다—는것을 시인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대사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공동성명 발표후 일본은 《9월 29일부터 대만과의 외교관계가 소멸》되였다는것을 성명하고 1973년 1월 11일 중국에 일본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일본인민들의 투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인민들은 지금 군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고 민주, 중립, 평화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습니다. 이 투쟁은 일본반동지배층에 큰 압력을 가하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35페지)

1972년 일본인민들은 미일반동들의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5월 15일 미일반동들의 《오끼나와반환》놀음을 반대하여 오끼나와와 일본각지의 511개소에서 26만 7천명의 각계층인민들이 《미군은 오끼나와에서 물러가라, 일미안보조약은 폐기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강력한 항의시위와 집회를 가졌다.

급해맞은 일본반동들이 수많은 경찰들을 풀어 시위군중들을 탄압하려고 미쳐날뛰였으나 인민들은 폭발물, 돌멩이, 화염병 등으로 밀려드는 경찰놈들과 맞받아싸웠다.

각 야당들과 총평, 로동총동맹 등 혁신계 정당, 사회단체들은 각기 오끼나와 《반환》의 기만성을 규탄하고 투쟁결의를 다지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였다.

8월 5일부터 가나가와현내인민들은 련일 강력한 투쟁을 벌려 사가미 한나시에 있는 미제침략군 최대의 군수품보급기지로부터 남부웰남전쟁터로 가는 미제땅크수송을 끝내 저지시켰다.

9월 5일 요꼬하마시에서는 강력한 반미군중집회가 진행되였으며 9월 10일에는 일본사회당과 총평의 주최로 항의집회와 시위를 벌렸다. 10월 17일 정부가 《차 제한령》을 개악하자 이날 일미《안보조약》폐기제요구 관철중앙실행위원회와 일본부인단체련합회, 민주청년동맹 등은 일본 총리에게 항의문을 들이대였다. 10월 21일《국제반전의 날》에는 전국의 560개소에서 130여만의 로동자, 학생, 인민들이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여 대규모적인 집회와 반미시위를 진행하였다.

또한 침략적인《제4차방위력정비계획》이 국회에서 강압통과되자 일본인민들은 이를 일제히 규탄하였다.

이해에 일본인민들속에서는 파쑈적인《출입국법안》조작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더욱 확대되였다.

4월 26일 도꾜지방 로조평의회 민간부회 산하 30여개로조단체대표들이 정부에 몰려가 《출입국법안》을 당장 없애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한것을 비롯하여 니이가다현내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 전국 각지에서 각계인사들이 도꾜에 몰려가 정부당국과 자유민주당에 대한 항의 투쟁을 벌렸다. 5월 10일에는 전국의 1만명의 변호사를 망라하고있는 일본변호사련합회가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으며 각정당, 사회단체들이 《출입국법안》철회를 요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정부당국에 몰려가 요청투쟁을 벌렸다. 일본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3월 17일 국회에 제출되여 5월에 중의원법무위원회 회의에 회부되였던 《출입국법안》은 결국 심의조차 하지못하고 회기를 연장한 정기국회도 6월 16일에 끝내버림으로써 정부의 《출입국법안》조작 책동은 분쇄되고 또다시 폐안으로 되여버렸다.

정부의 반인민적정책과 독점자본의 착취를 반대하는 로동계급들의 투쟁도 힘차게 벌어졌다.

총평과 중립로조산하 로조에 뭉친 820만의 로동자들은 4월중순부터 독점자본의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며 임금을 올려받기 위하여 강력한 공동투쟁에 떨쳐나섰다.

4월 27일 일본전국의 교통운수부문 55개로조 및 기업소산하 160여만로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로동자들의 단합된 파업으로 도꾜와 오사까 등에서는 철도운행이 완전히 마비되였다.

한편 4월 14일 총파업에 들어선 해원로조에 뭉친 16만해원들은 80일이상이나 파업을 계속하였으며 5.1절에는 전국 887개에서 700만의 인민들이 《사또반동정부를 타도하라》, 《물가폭등을 반대한다》는 구호밑에 강력한 투쟁을 벌렸다.

5월 20일에는 전국각지에서 120만 로동자, 사무원들이 전국적인 공동투쟁을 벌림으로써 미일반동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경제, 사회

일본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독점재벌들에게 장악되여있다. 전체 회사수의 0.2%도 못되는 약 700여개의 대독점회사들이

일본전체기업자본금총액의 7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강철, 동, 알루미니움 등 주요공업제품생산의 70~80%와 군수생산의 80%는 5개의 대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일본경제는 미제독점자본의 지배밑에 있으며 《일미경제협력체제》를 이루고있다. 외자도입중 미국독점자본의 몫은 90%이상 차지하며 석유, 철강, 전력, 자동차, 전기기계, 전자공업 등 기간산업부문이 자본, 원료, 기술면에서 미제독점자본에 의존하고있으며 무역에서도 미국이 근 30%를 차지하고있다. 국민소득에서 공업, 건설 및 운수 부문이 약 50%를 차지하며 공업생산에서는 가공공업부문이 75%를 차지한다.

일본경제는 부문별구조에서 불균형이 심하다. 주요군수생산과 관련된 중화학공업에 치우치고있으며 공업과 농업간에도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있다. 공업에서 군수공업과 관련되는 중화학공업의 몫은 1971년에 62%에 달하였다.

그러나 일본공업에 소요되는 철광의 96%, 원유의 99%, 석의 87%, 콕스탄의 80% 그리고 목화, 보크사이트, 생고무, 니켈, 린회석 등은 100%까지 수입한다.

일본반동들은 모든 장비를 《국산화》한다는 구실밑에 방대한 방위예산총액의 95%이상을 비행기, 땅크, 함선, 유도무기 등 대량살륙무기들을 생산하는 군수독점체에 돌리고있으며 특히 현대적인 무기와 장비의 연구 및 제조주문을 해마다 늘이고있다. 이리하여 중화학공업은 물론 기계제작공업, 조선업, 자동차공업 등 중요기간공업의 대부분과 비행기제작공업의 70%이상이 군사적수요에 복무하고있다.

최근년간 국내시장의 축소, 수출파 웰남침략전쟁으로인한 주문의 감소 등으로 주요공업제품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있다. 1971—1972회계년도에 국민총생산액장성속도는 1970회계년도에 비하여 3.8%나 떨어졌다. 1971년에 그 주문이 1970년보다 11.2%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체화량이 3.9% 늘어난 반면에 조업률은 3% 내려갔다. 특히 공작기계생산량은 32%나 줄었다. 강철공업은 1970년부터 침체를 계속하여 1971년에 강괴와 압연강재는 5%, 특수강판은 6.5%나 생산량이 줄고 조업률은 12.5% 낮아졌으며 체화량은 33%나 늘어났다.

이리하여 일부 공장, 탄광, 광산들이 문을 닫게 되었으며 중소기업의 파산과 몰락은 더욱 촉진되였다. 1971년 4월부터 1972년 3월까지 파산당한 기업소수는 8천 594개에 달하였다. 1972년 5월에는 660개의 소규모 기업체들이 파산당하였다.

농업에는 주민의 18%가 일하고있으며 국민소득의 약 10%를 차지한다. 부칠땅은 전령토의 16.4%에 지나지않는다. 농업은 봉건적토지소유제가 지배적이며 또한 경지의 균용지화로 말미암아 더욱 령세화되고있다. 농가호수의 70%가 1ha미만의 땅을 가지고있으며 그중 38%가 0.5ha미만의 땅을 부치고있다.

농업의 기본은 농산업이며 주되는 농작물은 벼인데 그 재배면적은 부침땅의 58%를 차지한다. 그밖에 밀, 감자, 콩, 남새, 차, 담배, 사탕무우 등을 심는다.

일본은 해마다 300~400만t의 밀을 미국, 카나다로부터 수입하고있으며 미국의 잉여농산물판매시장으로되고있다. 이리하여 일본의 감자, 밀, 콩 수확은 줄어들고있는데 1970년에 일본의 콩자급률은 4%밖에 안되였다. 1971년에 농업생산은 전해보다 4.6% 줄었다.

일본농업의 전문화부문의 하나인 양잠업도 견직물생산의 위기가 계속되고 명주실판로가 줄어들어 계속 쇠퇴일로를 걷고있다.

농업은 쇠퇴하여 파산당하는 농가수는 해마다 평균 8만 5천호에 이르고있으며 겸업농가(각종부업, 도시계절로동을 겸하는 농가)는 총농가호수의 80%에 달하고있다.

이리하여 일본의 농업은 삼짱농업(할머니, 어머니, 언니 등 주로 녀성로동으로 유지해가는 농업)으로 불리우고있다.

무역에서는 수출의 28%, 수입의 25%는 미국을 대상으로하고있는데 1972년에 대미수출은 1971년보다 19.5%늘어났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재무장과 해외팽창에 미쳐날뛰면서 다른나라에 대한 경제문화침투를 강화하고있다.

1972년 한해동안에 세계 여러나라에 대한 투자총액은 1971년보다 19.3%나 늘어나 301억 5,900만딸라에 달하였으며 이에서 얻은 국제수지실적은 47억 4천만딸라에 달하였다.

아세아에서 일본자본이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고있는 회사들은 3만 5천여개에 달하고있으며 일본이 1971년에 아세아나라로부터 얻은 외화는 22억딸라에 달하였다. 일본당국자들은 1972년에 남조선과 《공업소유권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남조선경제를 예속시키기 위한 로골적인 침략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1972년 하반년부터 구라파에 대한 침투가 강화되였는데 12월 한달동안에만도 서구라파에 대한 수출은 전해 같은기간에 비하여 84%나 늘어났다. 이해 일본의 《민간》해외직접투자의 25%를 차지하는 15억 9천 200만딸라가 구라파에 들어갔다.

1972년 4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 대한 직접적투자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63.6% 늘어났다.

1972년에 일본에서는 1일평균 근 2천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근 30만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였다. 도꾜에서의 년 교통사고발생건수는 65만 9천 283건이였으며 사망자는 1만 5천 918명, 부상자는 88만 9천 198명이였다.

1972년 1월에 완전실업자는 70만명이였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있는데 1972년 상반년에 식료품과 일용품값이 5% 올라갔으며 11월에 도매물가는 2.3% 올라갔다.

일본에서는 유해가스와 오염물질에 대한 제해대책을 세우지 않음으로하여 공기오염이 엄중한 단계에 달하고있으며 공해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하루에도 사이다마현에서는 1천 800명, 도꾜에서는 930여명의 질병환자들이 나오고있다. 지어 공기를 사고 파는 현상까지 나타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교도통신, 지지통신, 재팬 프레스, 니홍뎀빠, 기간시통신.

신문 아까하다(일본공산당기관지), 아사히신붕, 마이니찌신붕, 요미우리신붕, 쥬니찌신붕, 산께이신붕, 도꾜신붕, 니홍게이자이신붕, 샤까이신뽀(주간사회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인민들과 진보적인 계층들속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선린관계를 맺기 위한 운동이 광범히 벌어지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42페지)

일본에는 우리 나라와 친선관계를 맺으며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며 우리 나라와의 제반교류의 촉진과 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조직들이 무어져있다.

1951년에 일조협회, 1956년에 일조무역회가 결성된데 이어 일조자유래왕실현련락회의, 재일조선인귀국협력회,

재일조선인인권옹호회, 일조학술교류촉진회, 재일조선인의 귀국과 민족교육을 지키는 중앙련락회의, 재일조선인민족교육문제간담회, 조선연구소 등이 조직되여있다.

일조간의 친선과 국교정상화와 친선을 요구하여 도꾜도를 비롯한 각현의 회들에서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이 무어졌다.

1972년 2월 8일 도꾜에서 각 로조단체 대표들이 《일조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를 결성하였다. 12월에는 일조로동자교류련대오사까련락회가 결성되였다.

또한 이해에 일조체육교류촉진련맹(12월 3일),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9월 6일), 일조문화교류협회(9월 5일), 홋까이도일조무역회(7월 30일), 일조경제문제시마네현교류회(2월)가 무어졌다.

6월 3일과 4일에 일본의 83개시장들의 참가하에 진행된 일본전국혁신시장회의에서는 조일간의 국교정상화와 경제, 문학, 기술 등의 교류를 촉진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평양을 비롯한 우리 나라 도시들과 일본의 혁신시장들이 사업하고있는 도시들 사이에 형제도시의 관계를 맺을데 대하여 결의하였다.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은 3월에 우리 나라와의 경제문화적련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활동방침을 채택하고 9월 18일에는 일조관계개선을 위한 시책을 시급히 세울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제의서를 일본정부에 보냈다. 또한 많은 지방의회들에서 우리 나라와 국가관계를 맺을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각각 채택하여 정부당국에 들이댔다.

9월 4일부터 일조협회는 전국에서 일본과 조선간의 교류촉진과 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10만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19일 전국리사회에서 일본정부당국에 대한 요청행동을 조직하였다.

4월 13일 도꾜에서 일본로동조합총평의회, 중립로동조합련락회의, 도꾜지방평의회 등 로조단체들의 공동주최로 일조로동계급간의 교류와 련대성을 확대강화하고 사또반동정부의 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하여 일조로동자련대성모임이 진행되였다.

9월 11일 도꾜에서는 각정당, 사회단체대표, 학자, 문화인들, 로동자, 청년학생 등 광범한 인민들 1천 100여명이 참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4돐 축하 일조우호촉진국민집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여 도꾜도민대표들의 모임, 가나가와현, 후꾸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효고현 등에서는 현민대회들이 진행되였으며 도꾜지방로동조합평의회 24차대회, 전홋까이도로동조합협의회 24차대회, 고찌현지방로동조합평의회 20차대회, 나라현의회본회의 등에서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9월 21일부터 28일까지에는 이바라기현내의 5개시를 비롯하여 3개정, 1개촌 의회들에서 결의를 채택하여 총리, 외교부장, 법무부장, 중의원, 참의원 량의장들에게 각각 보냈다.

일조협회는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일한조약》의 페기,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요구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학자들, 학생들, 선원들을 비롯한 광범한 계층 인민들속에서는 《김일성저작연구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회》, 《김일성저작학습회》, 《김일성주석로작애독회》 등을 뭇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광범히 연구하고있다.

1972년 4월 15일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서는 요꼬스까시와 시오가마시에서 경축모임을 가졌으며 도꾜지방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들은 합동연구회를 진행하였다.

11월 18일 도꾜에서는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모여 《주체사상의 본질과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가졌다.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깊이 학습하고 연구하려는 일본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하여 일본의 여러 출판사들에서는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과 그리고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보여주는 책들과 그이의 령도하에 날로 륭성발전해가는 우리 나라를 찬양하는 수많은 책들이 광범히 출판되였다.

1970년에 일본력사서적출판사《미라이샤》와 《유잔가꾸》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에찬 투쟁력사를 수록한 《김일성전》을 출판하였다.

《미라이샤》출판사는 1970년 10월부터 1971년 4월사이에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을 번역편집한 《김일성저작집》제5권을 출판하였으며 1971년에는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13편을 묶은 《혁명적문학예술론》과 《조선인민의 자유와 해방—1930년대의 항일무장투쟁기록》을, 1972년에는 회상실기《인민들속에서》를 출판하였다. 《유잔가꾸》출판사에서는 1972년에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신니홍》출판사에서는 《사회주의조선》이라는 책을 발표하였다.

1972년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서술한《령도의 예술가 김일성》(300페지 일조교류협회 리사장 다까기 다께오가 쓴책)을 요미우리신붕에 4월부터 6월까지 32회 련재하고 수령님의 탄생 61돐을 기념하여서 이 책을 발간하였다.

1972년 4월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사회당활동가대표단은 《천리마의 나라, 주체사상의 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천리마, 주체, 조선》이라고 제목한 소책자를 출판하였다.

또한 1972년 10월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일본사회당부인활동가대표단성원들은 《조선의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출판하였다.

요미우리신붕 1월 14일호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월 10일 이 신문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내용을 《주체사상으로 관통한다》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다.

1월 20일 영자신문《데일리 요미우리》는 수령님께서 주신 이 대답전문을 실었다.

5월 31일 아사히신붕은 수령님께서 미국《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내용을 실었다.

9월 4일 요미우리신붕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슈깡요미우리》는 《주체의 나라 조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154페지의 특집별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의 표지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연색초상화를 정중히 모셨다. 그리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성과를 보여주는 여러장의 천연색사진을 받쳐 《사회주의모범의 나라》, 《천리마조선》의 약동하는 현실을 생동하게 소개하고 열렬히 찬양하였다.

《마이니찌신붕》조간지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9월 17일 이 신문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내용을 대서특필하여 보도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요미우리신붕》기자들(1월 10일), 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5월 14일), 《마이니찌신붕》기자들(9월 17일), 잡지《세까이》편집국장(10월 6일)등을 만나시고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주시였다.

1972년 1월에 일본사회당국제국장과 그일행,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대표단,

《요미우리신붕》론설위원회 고문일행, 3월에 사회과학자대표단, 문화인대표단, 4월에 일본방송협회 방송총국 부국장겸보도국장과 그일행, 일본교도통신사 론설위원회위원장, 아사히신붕사론설주간과 그일행, 일본사회당활동가대표단, 5월에는 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 일본고등학교축구선수단, 일본전국교육텔레비죤방송국기자들, 일본사회당중앙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아까마쯔 이사무의 부인과 그의 딸, 일본공명당대표단, 6월에는 일본도꾜로동자대표단, 7월에는 일본사회당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대표단, 일본니이가다시장과 그일행, 8월에는 마이니찌신붕론설위원과 기자, 아사히신붕편집위원부부와 기자, 요미우리신붕기자, 교도통신기자, 일본방송협회기자들, 니홍텔레비죤기자들, 9월에는 사회당참의원의원대표단, 마이니찌신붕기자대표단, 오사까부의회대표단, 일본과 조선의 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대표단, 일조우호친선청년실업계대표단, 잡지《세까이》편집국장, 10월에는 일본사회당부인활동가대표단, 일본요미우리신붕특별취재단, 11월에는 일본교직원조합대표단, 일조체육교류촉진련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본기계학회 제2차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할 조선대외과학기술교류협회대표단(9월), 국제무역촉진위원회대표단(10월), 사회과학자대표단(10월)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필 리 핀

(필리핀공화국)

동남아세아, 태평양의 서부에 있는 7천 10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그중 사람이 사는 섬은 740여개에 달한다. 가장 큰 섬이 루손도이다. 년평균기온은 27°C이며 강우량은 600~1천mm이다.

【넓이】 30만 km^2

【인구】 3,950만명(1973년 6월)

주민은 대부분이 필리핀인이며 그밖에 필리핀인과 에스빠냐인과의 혼혈인등이 있다.

국어는 타갈로그어이나 영어와 에스빠냐어도 통용된다.

【수도】 케손(주민 97만 1,637명, 1970년)1948년에 케손을 수도로 결정하였으나 정부기관은 아직 마닐라(주민 131만명)에 있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수는 24명, 임기는 6년(2년마다 3분의 1을 개선), 하원의원수 104명, 임기는 4년이다.

【정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1965년 11월—), 외교부장 로물로, 국방부장 폰수 엔리레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11월 7일 창건, 현재비법화, 총비서 헤수스 라바, **자유당** 1946년에 결성, **국민당**(집권당), 1907년에 결성된 친미부르죠아지의 정당, **사회당, 진보당, 민족주의공민당, 사회민주주의전선, 로동조합협회, 자유로동조합회.**

정치 1571년부터 약 330년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다. 1898년 미국—에스빠냐전쟁결과 필리핀은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2년 5월 일제에 강점되였다. 2차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자 다시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6년 7월 4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미제는 이 나라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구실밑에 필리핀헌법에 《평등권법안》(미국인이 자연부원개발, 공공사업분야에서 필리핀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을 첨가시켰으며 《무역협정》, 《군사원조협정》, 《호상방위조약》 등 일련의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협정》을 통하여 미제는 필리핀에 30여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아세아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있다.

필리핀은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제의 침략도구인 《세아토》, 《아스파크》, 《아세안》 성원국이다.

필리핀반동정부는 1950년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하였으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성원국으로서 조선인민의 자주적통일을 방해하고있다.

1966년에는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2천명의 고용병을 파견하였다.

1970년 5월 미제는 캄보쟈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이후 이나라에 있는 군사기지들을 확장하였으며 클라크공군기지(미국본토밖에 있는 가장 큰 미군사기지의 하나이며 여기에는 2만명의 침략군이 주둔)에는 공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공수능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였다.

필리핀인민들은 정부의 대미추종정책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1969년 3월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요구하는 무장력인《새인민군》이 창건되였다. 이들은 1971년부터는 전국의 10개주에서 무장투쟁을 벌리고있으며 산악에서부터 점차 도시에로 투쟁무대를 넓히고있다. 1971년 한해동안에만도 600여명의 적을 죽이고 230여명의 반동통치배들을 처단하였으며 적비행기 6대를 격추 또는 격상하였으며 많은 무기를 빼앗고 군수기재들을 파괴하였다.

1972년 9월 23일 마르코스대통령이 계엄령선포와 관련하여 전국에 보내는 라지오, 텔레비죤방송연설에서 밝힌바에 의하면 《새인민군》은 1만명의 정규군으로서 10만명의 동정자를 가지고있으며 전국도처에서 무장투쟁을 벌리고있다.

【주요사건】 1972년에 필리핀에서는 《새인민군》의 무장투쟁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반미반정부투쟁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나라의 정치경제적위기가 더욱 심각화되였다.

6월중순 《새인민군》은 코타바로주의 카르맨읍근처에서 반동정부군 20여명을 죽이고 이지역을 장악하였다. 이에 당황한 마르코스대통령은 7월 10일 북동부에서 활동하는 무장부대들을 《소탕》하려고 비행대까지 출동시켰다. 1월 13일 마닐라에서 약 5천명의 운전수들과 로동자, 농민, 녀성들은 미제의 석유독점회사들이 석유제품값을 대폭 끌어올린것을 항의규탄하여 강력한 시위를 벌렸다. 18일에는 마닐라를 비롯한 6개도시들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집회를 가지고 필리핀인민들의 피땀을 빨아먹는 미제독점자본을 모조리 국유화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4월 9일 마닐라학생들은 일본군국주의의 교활하고 악랄한 재침책동을 규탄하여 침략의 소굴인 일본공보원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단행하였다. 5월 1일에도 마닐라에서는 1만 2천명의 로동자, 농민, 학생들이《미제국주의와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가 필리핀괴뢰정부와《결탁》하고있다고 폭로규탄하면서 시위투쟁을 벌렸다.

5월 20일 5천명의 인민들이 미제의 웰남침략전쟁확대를 규탄하여 대통령마르코스의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마르코스—반티우는 미국의 괴뢰들이다》등의 프랑카드를 들고 폭탄을 던지면서 약 1천명의 괴뢰경찰대와 맞서싸웠다. 6월 12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약 6천명의 청년들이 미제대사관주변에서 미제를 절규하면서 항의시위를 벌렸다.

마르코스도당의 대미추종정책에 대한 불만과 미제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집권층내에서도 높아갔다.

7월 25일 《필리핀제헌회의》 한대표는 《파괴활동의 중심지》가 《새인민군》의 주요기지인 이사벨라주에 있다는 마르코스도당의 주장을 배격하고

그것은 바로 미제대사관이라고 폭로하였다.

7월 2주일간의 홍수피해로 200여명의 사망자가 나고 200만명이 집을 잃었으며 4억 4천 500만딸라로 추산되는 재산과 농작물피해를 입었다.

마르코스도당은 이러한 정치, 경제적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찾기위해 9월 23일 국방부장 암살음모가 있었다는 구실밑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닥치는대로 인민들을 체포투옥하였다. 계엄령선포와 동시에 9명의 상하의원과 3명의 주《지사》, 4명의 《시장》 등 100여명을 체포 구금하였다. 《계엄령》에 의하여 모든 출판보도기관과 방송국들이 폐쇄되였으며 야간외출금지령이 공포되였다.

9월 24일에는 《일반명령》으로 군대를 제외한 모든 인원들의 무기휴대를 금지했으며 10월 2일에는 《총기단속법》위반자에게는 총살형이나 전기사형에 처하는 최고형의 《법령》을 발포하였다.

9월 28일에는 모든 고등학교와 대학들을 무기한 폐쇄하였으며 《계엄령》위반행위들과 기타 사건들을 《재판하며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군사재판소》를 설치하였다.

마르코스도당은 자기의 매국적이며 반인민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9월 26일에는 《농지개혁령》을 선포하고 빈농민들에게 토지와 농기구들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줄것이라고 하였다.

3월 11일에는 사회주의국가선박들의 필리핀입항허용, 무역을 위한 필리핀인들의 사회주의국가방문허가, 무역사절단교환과 무역련락을 허용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3월 26일에는 《일상적인 경계》하에 따쓰통신사를 마닐라에 개설하는것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7월 1일에는 이때까지 국내에서 금지했던 《공산당선언》등 약 600종의 사회주의나라 서적들을 공개하도록 명령하였다.

12월 20일 대통령은 1973년 1월 15일까지 기한부로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3월에는 국회의원과 대통령부인을 각각 중국과 쏘련에 파견하였다.

3월 10일 로므니아, 유고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인구의 약 75%가 농사를 한다. 부침땅은 약 678만ha에 달한다.

땅의 90%이상을 지주들과 외국독점체, 자본가, 교회 등이 독차지하고 있다.

주요농산물은 담배, 사탕수수, 코프라, 마닐라삼, 벼, 강냉이, 고무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쇠돌, 석유, 구리, 망간, 크롬, 금 등이다.

경제명맥은 미일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필리핀에 대한 미제의 투자는 동남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투자총액의 약 60%를 차지하며 일본의 투자는 이 나라에 대한 외국투자총액의 약 60%를 차지한다. 불평등조약에 의하여 미제의 상품이 관세없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적인 무역으로 해마다 2억~3억딸라의 무역적자를 내고있다.

1971년 현재 실업자만도 300만명에 달했다.

대학졸업생의 3분의 1이상이 반실업자이다.

아세아에서 기독교도(인구의 93%)가 제일 많은 나라이다.

【출판보도】 **통신** 필리핀보도(국내보도사)

신문 앙그 바얀(공산당기관지), 마닐라 타임스, 마닐라 크로니클, 데일리 스타.

브루네이

(브루네이추장국)

깔리만딴섬의 북쪽, 중국남해기슭에 있다. 령토는 해안지대의 넓은 벌방지대와 구릉지대로 되여있으며 75%가 열대림으로 덮여있다. 열대해양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5~26°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천 500~3천mm이다.

【넓이】 5,765km²

【인구】 13만명(1971년)

주민의 절반이상이 말라이족이며 그외 다야크족, 무르트족, 화교 등이다.

공용어는 말라이어.

【행정중심지】 반다르 세리베가완(주민 6만명)

【추장】 하싸날 볼키아호(1967년 10월—)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1956년 8월에 창건, 북부깔리만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위원장 아자하리, **브루네이련맹**(집권당), **민족통일혁명전선**.

정치 원래 오늘의 북부깔리만딴전지역이 브루네이였다. 1613년부터 이 지역에 침입하기 시작한 영식민주의자들은 1846년에 사라와크를, 1877년에는 사바호를 떼내여 《보호령》으로 만들었으며 1888년에는 다시 브루네이를 《보호령》으로 만들어 3개지역으로 분할통치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일제에게 강점되였다가 일제가 패망하자 다시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59년 9월부터 새헌법에 의하여 외교, 국방, 치안 문제를 제외한 자치를 실시하여오다가 1971년 11월 23일부터 대내적으로 독립을 얻었다. 최고통치자로서 추장이 있으나 권력은 영국고등판무관이 쥐고있다.

1963년 8월 《말레이시아련방》조작당시 석유수익분배에서의 의견이 맞지않아 련방에 가입하지 않았다.

브루네이인민들은 영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완강히 벌려였다. 1963년 1월 1일 아자하리를 총리로하는 북부깔리만딴혁명정부가 수립되였으며 민족해방군이 조직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이다. 주민의 75%가 이 부문에서 일하고있으며 미영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석유는 매년 약 500만t 생산되였는데 그의 95%는 수출한다.

부침땅의 절반은 고무재배원이며 영국독점체들이 가지고있다. 주요농산물은 고무, 야자, 벼 등이다. 식량의 3분의 2는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가공공업으로는 일용품을 생산하는 가내수공업과 제재소 및 목재가공공장이 있다.

철도가 없다.

주요수출품은 원유(90~95%), 고무, 목재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건재와 채광설비, 운수수단, 직물, 식량 등이다.

주민은 회교를 믿는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1만 3천 677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6천여개이다. 섬에는 산이 많으며 대부분이 화산이다. 중부지방으로 적도선이 지나가므로 거의 전지역이 열대성기후의 특징을 나타낸다. 년평균기온은 25~27°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약 2천 400mm정도이다.

【넓이】 190만 4,345km²

【인구】 1억 2,424만명(1971년)

다민족국가로서 인구의 60%는 쟈바섬에 집중되여있다. 쟈바족(7천 600여만명), 순다족, 마둘라족 등 100여개의 종족이 있다.

각 민족마다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있으나 독립후 공용어를 인도네시아어로 통일하였다.

【수도】 쟈까르따 (주민 577만 6,000명)

【국회】 1971년 7월 3일 총선거결과 이해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총의석 460석중 100석(그중 75석은 군인, 25명은 골까르)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360석은 선거한다. 1971년 7월 3일 선거결과 정부의 정치조직인 골까르(직능그루빠)가 236석, 회교승려협회 58석, 인도네시아회교당 24석, 민족당 20석, 회교련맹당 10석, 카톨릭당 3석, 기독교당 7석, 뻬르띠회교당 2석을 차지하고있다.

【인민협상회의】 1969년 11월에 채택된 선거법에 근거하여 1972년 10월 1일에 창설된 최고권력기관이다. 5년에 한번씩 열리며 대통령선거, 헌법제정, 정강결정 등을 한다.

협조국회의원 460명을 포함하여 920명으로 구성한다. 그중 정부의 정치단체인 골까르 458명, 장교 277명, 정당대표 185명이 망라되여있다.

【정부】 대통령 수하르또(1968년 3월—,1973년 3월 재선, 국방 및 안전부장겸임). 대통령임기는 5년, 외교부장 아담 말리끄

【정당,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5월 23일 창건, 1965년《9월 30일운동》후 비법화, **회교승려협회, 인도네시아회교당, 회교련합당, 민족당, 기독교당, 카톨릭당, 뻬르띠회교당, 무르바당, 독립옹호자련맹, 회교로동자련맹, 인도네시아조선쟈까르따친선협회** 1958년 9월 결성.

정치

1596년부터 화란의 침략을 받았다. 1602년 화란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에 《동인도회사》를 창설하고 인도네시아 전지역을 지배하다가 1800년에 정식 식민지정부를 세웠다.

1942년 3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일제의 강점하에 있었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화란과는 련방관계에 있었다.

1946년 11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은 화란식민주의자들이 다시 인도네시아에 침입함으로써 4년간의 류혈전쟁이 있었다. 1949년 11월 《헤그협정》에 의하여 주권이 인도네시아에 넘어왔다.

1950년 인도네시아련방 림시국회는 《단일국가헌법초안》을 채택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4년 8월에는 《화란—인도네시아련방》에서 떨어져나왔다. 1963년 5월 1일 이리안 쟈야(번영하는 이리안 이라는뜻)에 대한 화란의 행정권이 인도네시아에 넘어왔으며 1969년 8월 16일 정식으로 인도네시아령토로 선포되였다.

1965년 9월 30일에 《9월 30일운동》이 일어났다가 10월 1일에 진압되였다. 《9월 30일운동》후 우익반동세력은 미제의 사촉하에 공산당과 진보적사회단체들을 비법화하고 수많은 공산당원들과 진보적인사들을 검거투옥, 학살하였다.

1966년 3월 수카르노대통령의 정부가 해산되였으며 치안을 주로 한 대통령권한이 수하르또에게 넘어갔다.(1968년 3월 정식대통령으로 승격)

1966년 9월 인도네시아는 1965년에 탈퇴한 유엔에 다시 들어갔다. 이해 중국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7년 1월에는 《외자도입법》을 채택하였다. 이해 8월에는 타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동남아세아국가련합》(아세안)을 결성하였다.

1969년 11월 국회에서는 공산당원, 《9월 30일 운동》에 관련된 사람들, 금지된 조직의 성원들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총선거법안》을 채택하였다.

1971년 7월 3일 16년만에 처음으로 협조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군부와 련결되여있는 정부의 정치단체인 직능그루빠(세끄베르 골까르)가 236석, 7개의 정당이 124석을 얻었다.

【주요사건】 1972년 4월 정부는 외국통신사가 국내통신사를 거치지않고 국내신문사에 보도를 직접 제공하는것을 금지하는 언론법을 제정하였다.

10월 1일 독립 27년만에 선거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창설된 새인민협상회의가 개막되였다.

1973년 3월 2일 1천 500여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모들의 월수입의 12%에 달하는 수업료를 바쳐야하는 정부의 수업료정책을 반대하여 시위를 진행하였다.

12월 1일 인도네시아청년들이 쌀부족을 극복하며 일반인민들속에서의 《기아》를 없앨것을 수하르또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비망록을 발표하였으며 12월 5일에는 약 1천명의 학생들이 서부쟈바의 반둥에서 쌀값을 올린데 항의하여 시위를 벌렸다.

12월 민주독일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9월에는 로므니아와 석유 탐사, 개발 및 품질조사사업에 관한 경제협조를 확대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수하르또대통령이 2월에는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5월에는 일본, 11월에는 프랑스, 오지리, 스위스, 벨지끄, 이딸리아, 바띠까노 등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민의 72%가 농사를 하며 국민소득에서 농업이 40%를 차지한다. 경지면적은 약 1천 700만ha이다.

주요농산물은 벼, 고무, 차, 종려, 커피, 코코아, 키니네, 야자, 사탕수수, 담배, 쌀, 콩, 감자 등이다.

생고무년생산량은 약 70만t으로서 세계적인 생산국으로 알려지고있다. 고무는 이 나라의 중요한 재정수입원천이다. 쌀은 년산 800~900만t정도 생산되며 매해 약 100만t씩 수입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주석, 석유, 석탄, 보크사이트, 니켈, 망간, 금, 은, 구리, 크롬, 아연 등이다.

공업에서는 채취공업(공업의 60%차지)과 농산물가공공업이 위주로되고있다.

1970년에 석유는 4천 208만 4천t, 주석정광은 1만 9천t, 보크사이트는 122만 8천 800t 생산되였다.

독립후 제지,방적,비료 등 공장건설을 추진시켜왔으나 경제사정의 악화로 완공하지못하였으며 또한 원료부족 등으로 그 조업률은 매우 낮다.

전체 공업의 조업률은 약 20%밖에 안된다.

정부는 1969년에 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부흥에 착수하였다.

이 기간에 정부는 농업에 력량을 집중하여 계획말에는 쌀 1천 540만t을 생산하기 위하여 48만ha의 새땅을 얻어내고 90만ha의 논을 수리화할것을 예견하고있으며 공업에서는 농업건설과 농업을 위한 공업부문에 힘을 넣고 그 다음에 섬유, 종이, 다이야, 건재 생산을 늘일것을 예견하고있다.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미일독점자본의 침투가 급속히 강화되고있다. 1967년에 미일독점체들은 쟈바, 수마트라, 깔리만딴연해의 해저유전개발계약에 조인하였다. 일본독점체들은 석유, 보크사이트, 니켈, 목재 탐사권과 채취권을 얻었으며 압연강가공기업체를 비롯한 각종기업체들을 쟈까르따를 중심으로하여 여러곳에 세우고있다. 석유수출량의 30~50%는 일본이 독점하고있다.

1971년 8월 루피아를 10%평가인하

하였다.

1972년 가물로인한 흉작으로 쌀값이 2배로 뛰여 올랐다.

비타민부족과 불충분한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100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있다. 2천 200여만명이 실업자, 반실업자이며 3천 200만명이 글모르는 사람이다.

주민의 90%가 회교도이며 기타 기독교도, 힌두교도 등이 있다.

【출판보도】 통신 안따라통신(정부계통), 빠쁘통신(군대계통), 끄니통신(국내통신사)

신문 베리따 유다(륙군신문), 안뻬라 레뷰, 자까르따 타임스, 메르데까(무소속신문), 와르따 하리안, 와르따 베리따.

방송 국영방송,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1년 6월 17일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1963년 11월 15일에는 무역협정, 과학기술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4년 4월 1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 4월 24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정부군사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이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2년 2월 우리 나라정부친선대표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싱가포르

(싱가포르공화국)

말라이반도의 남쪽끝에 있는 싱가포르섬을 비롯한 몇개의 섬들과 인도양에 있는 로쥐제호트보섬으로 이루어졌다. 섬의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된 50m 안팎의 언덕으로 되여있다. 가장 높은곳이 170m이다. 열대성기후로서 장마철과 가물철로 나눈다. 년평균기온은 26.3°C, 년평균강수량은 2천 500mm안팎이다. 구라파, 아세아, 대양주로 통하는 항로상에 위치하며 태평양과 인도양의 련결지점으로 되여있다.

【넓이】 581.5km²

【인구】 214만명(1972년)

주민은 75%이상이 중국인이며 기타 말라이인, 인도인, 파키스탄인, 구라파인 등이다.

공용어는 중국어, 영어, 말라이어

【수도】 싱가포르(주민 154만 9,000명)

【국회】 일원제, 1972년 9월 3일 총선거실시, 총의석 65석을 인민행동당이 차지.

【대통령】 벤쟈민 헨리 새어즈(1971년 1월—)

【정부】 1972년 9월 15일 구성, 총리 리꽌유, 외교부장 예쓰. 라쟈라트남, 국방부장 고 켕스웨

【정당, 사회단체】 인민행동당(집권당)1954년 11월 회교도, 부르죠아지와 지식분자들로 조직. **사회주의전선** 1961년 9월 인민행동당에서 떨어져나와 조직됨, 강령에서는 식민주의 철폐와 통일독립된 말라이국가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로동당**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영군사기지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인민련맹, 통일인민당, 전국로동조합회의**

정치 19세기초부터 영국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67년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2년 2월부터 3년 6개월간은 일제의 강점밑에 있었다. 1946년 4월 말라이에서 분리되여 영국의 직할식민지로 되였다.

1959년 6월 3일 외교권과 국방권이 없는 영련방내의 《자치국》으로 독립하였다.

1963년 9월 16일 영식민주의자들이 조작한 말레이시아련방의 한개주로 편입되였다. 그후 평로권문제, 민족문제 등에서 말라이와 리해관계가 맞지않아 1965년 8월 9일 《련방》에서 떨어져나왔다. 련방에서 떨어져나오면서 말레이시아와 《대외방위 및 호상원조조약》을 맺고 《합동방위위원회》를 창설하며 경제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싱가포르에 있는 군사기지를 계속 리용할수 있는 권리를 말레이시아에 주었다.

1965년 12월 22일 독립법안을 가결하고 1966년 8월 9일 공포하였다. 영련방성원국이다.

1971년 9월 1일 싱가포르는 영국, 오스트랄리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와 함께 통합방공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5개국의 공군기를 통합방공사령부의 지휘하에 두기로 하였다.

1971년 10월 30일 영침략군의 철거가 끝나고 싱가포르의 영국기지는 싱가포르정부에 이관되였다. 11월 1일 5개국《호상방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였다.

1972년 9월 3일 진행된 국회선거에서 인민행동당이 총의석 65석을 차지하였다.

1972년 2월 16일 방글라데슈를 승인하였으며 1973년 1월 31일에는 민주독일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중계무역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국민소득의 80%이상이 무역과 관련된 경제부문으로부터 얻어진다. 공업과 농업으로부터는 10%정도의 소득을 얻고있다. 말레이시아, 브루네이, 인도네시아, 타이, 버마 등 동남아세아 각지로부터 고무, 석, 코프라, 향료, 기타 각종 특산물이 모여들며 초보적인 가공을 거쳐 반제품 또는 원료 그대로 세계 각지에 재수출된다.

독립후 남서부에 《쥬롱공업지구》가 새로 창설되였는데 여기에는 년간 10만t 능력의 강철 공장과 1만t급이상의 배를 수리할수있는 조선소, 세멘트공장, 석냥공장, 직물공장 등이 건설되였다.

고무, 코코야자, 담배, 과일 등을 심으며 식량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최근년간 일본독점체들의 침투가 강화되고 있다. 일본독점체들이 석유채취권을 장악하였으며 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있다.

1970—1971년도 예산중 국방치안비가 31.7%, 사회사업비가 30.7%, 기타가 37.6%였다. 대학으로는 싱가포르대학, 남양대학이 있다. 1966년 학교총수는 701, 학생수는 53만명이였다.

【출판보도】 신문 바리산(사회주의전선기관지), 명보, 심명일보, 남양상보, 신평일보, 성주일보, 인터내슈널 뉴스, 민파오아레나, 스트레이츠 타임스.

방송 싱가포르 방송(국영).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5월 13일 우리 나라와 싱가포르간에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평양과 싱가포르에 각각 무역대표부를 설치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1969년 11월 28일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다.

1972년에 《성주일보》, 《신평일보》, 《명보》, 《심명일보》, 《남양상보》,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여러신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인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동지께서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 등을 광범히 실었다.

1968년 9월 싱가포르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11월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972년 3월에는 정부친선대표단이 싱가포르를 방문하였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련방)

아세아의 동남부, 말라이반도의 남쪽에 있는 말라이와 깔리만딴섬의 북부에 있는 사라와크, 사바호로 이루어졌다.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대양항로의 중요한 지점이다. 말라이는 동서해안을 제외하고는 전령토가 산림이다. 전형적인 적도기후로서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철의 변화가 거의 없고 무더우며 비가 많이 내린다. 철바람의 영향을 받아 서해안은 여름에, 동해안은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린다. 년평균기온은 동해안에서 21°C, 서해안에서 26°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천 500~3천mm이다.

【넓이】 33만 1,321km²(말라이 13만 1,313km², 사라와크 12만 3,025km², 사바호 7만 6,115km²)

【인구】 1,080만명(1971년 12월), 그중 사라와크 95만명, 사바호 64만명.

주민은 말라이족(50%), 화교(40%), 인도인(10%)등이다.

공용어는 말라이어이며 중어, 영어, 타밀어 등도 쓴다.

【수도】 꾸알라 룸뿌르(주민 50만명)

【국왕】 아브둘 할림 샤호(1970년 9월)각 주 추장의 합동회의에서 선출, 임기 5년.

【련방의회】 상하량원제, 상원 58석중 32석은 국왕이 임명, 26석은 주의회에서 선출, 하원 144석중 말라이 104석, 사라와크 24석, 사바호 16석을 차지.

【중앙정부】 총리 뚠 아브둘 라자크(1970년 9월—), 외교, 국방부장 겸임.

【정당, 사회단체】 **말라이공산당** 1930년 4월에 창건, 1948년에 비법화, 총비서 진평, **련합당**(집권당).

정치 1819년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1년 일제에 강점되였다가 2차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자 다시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5년 9월 다시 침입한 영제국주의자들은 말라이인민이 항일투쟁을 통하여 창설한 해방지구 인민위원회를 강제해산시키고 1948년 2월 2일 《말라이련방헌법》을 조작하여 말라이를 말라이련방과 싱가포르직할식민지로 갈라놓았다.

말라이는 1957년 8월 31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1957년 10월 영국과 《대외방위 및 호상원조협정》을 맺고 영국군대의 말라이 무기한 주둔권과 군사기지를 영국에 넘겨주었다.

1963년 9월 16일 말라이 11개주, 싱가포르, 사바호, 사라와크를 각각 1개주로하여 도합 14개주로《말레이시아련방》을 만들었다. 싱가포르는 심각한 정치적, 민족적, 경제적 모순으로하여 1965년 8월 련방에서 떨어져나갔다.

1969년 5월 13일 말라이인과 중국인간의 인종대립으로 폭동이 일어나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국회가 해산되였다. 1971년 2월부터 련방의회를 재개하였다.

1970년 9월 라자크는 정책연설에서 말레이시아의 대외정책은 《중립》과 동남아세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동남아세아의 중립화》의 《보장》이라고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말라카해협을 《국제화》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1971년 11월 16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함께 말라카해협과 싱가포르해협의 공동관리를 선포하였으며 해협에서의 항행의 안전문제를 책임질 협조기구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

1969년 말레이시아는 령해를 12마일로 확대하였다.

【주요사건】 1972년 5월 12일 국회에서 라자크는 모든 외국군함들이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통고해야한다고하였다.

6월 24일 통일말라이국민조직 23차총회에서 라자크는 말레이시아가 12마일의 령해권을 포기하지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어류를 멸족시키며 량국해안을 파괴하는 유조선의 기름으로 말라카해협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 해협을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주장하였다.

7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간에 말라카해협의 항행을 제한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8월 30일 독립 15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연설에서 라자크는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세아에서 《평화, 자유 및 중립 지대를 설치할 구상》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것이라고하였다.

9월말부터 10월초에 걸쳐 라자크는 스위스, 오지리, 뽈스까, 쏘련을 공식방문하였다. 쏘련방문기간 쏘련과 상무관계의 강화와 국제문제들, 말레이시아의 개발가능성문제 등을 토의하고 10월 4일 두 나라간에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과 문화 및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뽈스까와도 경제 및 기술협조협정을 맺었으며 서로 대사들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1971년에 외교관계를 맺음).

6월 방글라데슈와 고등판무관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3월 12일 외교부는 미제의 악명높은 침략도구인 아스파크(《아세아태평양지역각료리사회》)에서 탈퇴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는 고무생산과 주석채굴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고무와 주석의 세계적인 생산국으로서 자본주의 세계 천연고무생산량의 40%, 주석채굴량의 3분의 1을 생산한다. 고무는 주로 서해안의 배수조건이 좋은 벌방지대와 언덕들에서 재배된다.

부침땅 250만ha중 3분의 2는 고무재배원이며 벼는 부침땅의 15%정도 심는다. 식량수요의 3분의 2는 수입한다. 이외에 농산물로는 코프라, 코코아, 후추, 담배, 커피, 파인애플, 사탕수수 등이 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다음가는 코프라생산국이다.

공업은 채광업과 농산물의 초보적가공이 기본으로 되여있다.

주요지하자원은 주석, 쇠돌, 보크사이트, 석탄 등이다. 주석은 서해안의 이뽀곡지 따이삥부근과 꾸알라 룸뿌르부근에서 많이 채굴된다. 삐낭과 꾸알라 룸뿌르부근에는 영국자본에 의하여 운영되는 주석제련소가 있다.

독립후 영국자본이 약화되였으나 아직도 영국독점자본은 고무생산의 40%이상, 주석채굴의 60%이상을 틀어쥐고있으며 주석제련업을 독점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의 침투가 강화되고있다. 일본은 이나라 철광석수출량의 99%, 목재수출량의 3분의 2를 독점하고있다.

말라이에는 2천여km에 달하는 철길과 약 1만km에 달하는 자동차길이 있다. 철길의 대부분은 항구도시와 원료산지를 련결하고있으므로 서해안에 집중되여있다. 동서해안을 횡단하는 철길은 없다. 철길은 1m너비의 협궤이다.

주요항구는 삐낭과 꾸알라 룸뿌르이다.

주로 원료를 수출하고 제품을 수입한다. 주요수출품은 고무, 주석, 쇠돌, 목재, 종려기름 등이다.

그중 고무와 주석은 수출액의 80%를 차지한다. 수입품은 식량, 원유제품, 기계설비, 직물 등이다.

무역총액의 약 15%는 인도네시아, 타이, 라오스, 버마 등에서 들여온 주석, 고무 등의 재수출이 차지한다.

학교교육에서는 말라이어, 영어, 중어, 타밀어를 쓰고있다.

말라이인은 회교, 중국인은 불교, 기독교, 인도인은 힌두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베르남(1968년 시작)

신문 웃산 말라유

타 이

인도지나반도의 중부에 있다. 북부와 서부는 산지이고 동부는 고원이며 중부는 평원이다. 령토의 60%가 산림이다.

열대철바람기후로서 더운철(3~5월), 장마철(6~10월)과 가물철(11~2월)로 나뉜다.

그러나 남부는 더운철과 장마철 밖에 없다.

년평균기온은 27°C이며 평균강수량은 1천 400mm이다.

【넓이】 51만 4,000km²

【인구】 3,700만명(1971년 12월)

주민의 대부분이 타이족이며 그 밖에 화교, 말라이족, 크메르족 등 20여개 민족이 있다.

공용어는 타이어

【수도】 방코크(주민 320만명, 1971년 12월)

【국왕】 푸미폰 아둘랴데르(1950년 5월—), 국왕이 국회와 내각을 임명한다.

【국회】 1972년 12월 15일 발표된 림시헌법에 의하여 1971년 11월정변후 생겼던 국가행정리사회가 해산되고 국회가 나왔다. 국왕이 29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를 임명한다.

【정부】 1972년 12월 19일 27명으로 구성, 총리 타놈 키티카초른(국방, 외교부장겸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2년 12월 2일창건, 제2차세계대전기간 항일투쟁을 하였으며 전후 반정부무장투쟁을 전개, 1941년부터 비법화, **애국전선** 1965년 1월 1일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로 조직된 반미반정부조직, 타이무장투쟁을 령도, **국민련합당**(집권당)관료배, 경찰, 군대 등을 골간으로 만들어진 친미반동정당, **민주당** 가장 큰 야당, 친서방적인 야당, **자유당**, **애국로동자련맹**, **애국청년조직**, **민족해방전선** 1970년 10월 19일 타이애국적무장력의 영향을 받는 회교도 세력이 중심이 되여 결성.

정치 14세기에 샴이라는 봉건국가가 형성되였다.

1932년 6월 24일 군사정변으로 립헌군주국으로 되였다. 1939년 5월 20일 나라이름을 타이라고 고쳤다.

1941년 12월 일제와 《군사동맹》을 맺고 일제의 아세아침략에 적극 가담하였다.

1950년 9월 미제와 《군사원조협정》, 《경제기술협정》을 맺었으며 1954년 9월에는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제의 침략도구인 세아토에 가담(방코크에는 세아토본부가 있다)하였다. 미제는 타이에 수많은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를 설치하고 있다.

타이 령토에 배치되여있는 8개의 미공군기지에는 22개의 분사식전투폭격기비행중대가 기지를 두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1972년 5월까지 미제침략군 3만여명이 있었다. 미제는 1972년 12월 북부웰남에 대한 폭격을 확대하면서 그 수를 5만 5천명으로 늘였다. 그 밖에 미제는 타이에 각종 사절단의 간판으로 2만명의 침략군을 주둔시키고있다. 1966—1971년간에 타이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지출은 15억딸라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타이는 사실상 미제의 식민지군사작전기지로, 인도지나와 기타 아세아나라 침략의 발판으로 전변되였다.

타이는 1954년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협정조인후 미제와 한패가되여 미국무기와 군수품의 라오스에로의 반입을 위한 교두보로 전변시켰으며 1960년에는 공개적으로 타이군을 라오스에 파병하여 라오스반동들의 비엔티안 공격에 가담하였다. 1966년부터는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직접 고용병을 파견하였다.

타이반동들은 1950년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하였으며 《유엔군》의 미명하에 침략군을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방해하고있다.

1971년 11월 17일 타놈도당은 군사정변을 일으켜 국회와 내각을 해산하고 헌법을 페기하였으며 제놈의 주구들로 새내각을 꾸렸다.

타이인민들은 1965년 8월 7일 애국전선의 지도밑에 나콤 파논주의 타르 파놈군에서 미제와 타이반동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다.

1968년까지는 31개현을 해방하고 1969년 1월에는 타이인민해방군을 결성하였다. 그후 무장투쟁은 타이반동들의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1971년에 전국각지의 무장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최고사령부가 설치되였다.

【주요사건】 1972년 1월 19일 타이반동들과 캄보쟈괴뢰군들간에 이른바《국경안전협정》을 맺고 타이고용병들이 공개적으로 캄보쟈에 침입할수있게 《합법화》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 웰남, 라오스애국전선,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러한 책동은 타이와 캄보쟈괴뢰들간의 악랄한 군사적결탁이며 캄보쟈에 대한 침략전쟁확대음모라고 신랄히 규탄하였다.

3월 중순 비엔티안에서 타이반동들과 라오스우파괴뢰도당이 이른바《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라오스—타이 위원회 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타이가 보다 많은 무기와 기타 군수물자 그리고 반동군을 라오스에 끌어들여 미제의 라오스침략에 적극 복무할데 대하여 모의하였다.

5월 타이반동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타클리공군기지를 다시 《사용》하도록 승인하였으며 7월 5일에는 미제가 타이에 기술 및 경제원조로서 3천 70만딸라의 증여와 차관을 제공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6월 22일 타이반동군과 남부웰남괴뢰군간에 반항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할데 관한 협정을 맺었다.

타놈도당은 5월 10일 북부웰남항구들에 기뢰를 부설하기로 한 닉슨놈의 결정을 《필요한 조치》라고 떠벌이면서 미제의 주구로서의 정체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1972년에 타이인민들은 타놈도당의 친미반동정책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을 벌렸다.

애국적무장력은 1월 우다빠오 미제침략군기지를 습격하여 《비52폭격기》 2대를 비롯한 기타 시설들을 마사버렸으며 2월에는 적들의 대규모적인 《소탕작전》을 짓부시면서 도처에서 타이반동군과 반동경찰을 련속공격하여 500여명을 소멸하고 비행기 24대를 와해시켰다.

2월말 애국적무장력은 북부타이의 창 라이주에 있는 적들의 주요전략적지역인 디오 파에 라에 산지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 지역에 행정기관을 창설하였다.

3월 애국적무장력은 비행기와 포의 엄호밑에 달려드는 미제와 타놈—프라파스반동무리들의 발악적인 《평정작전》을 짓부시고 330여명의 적을 소멸했으며 직승비행기 8대를 쏴떨구고 장갑차를 비롯한 군용차 22대를 까부셨다.

6월 3일 애국적무장력은 타이에 있는 미제의 가장 큰 공군기지인 우본공군기지를 공격했으며 10월 3일에는 우돈 타니공군기지를 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1972년에는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경제문화적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적극화되였다.

9개의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학생 10여만명이 망라된《국립대학생쎈터》는 11월 10일 일본실업가들은 《달콤한 말》로 타이를 착취하는 짐승들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전국의 학생들과 인민들에게 일본독점자본의 경제적침략을 반대하여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본상품배척운동을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일본상품배척운동은 방코크를 비롯한 큰 도시로부터 동북부지대에로 확대되였으며 반정부투쟁과 결부되면서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11월 30일밤 약 2천명의 타이학생들은 《일본상품구입을 중지하라》는 기발을 들고 시위를 벌렸으며 500여명의 경찰과 군대의 폭압을 뚫고 반동통치배들이 둥지를 틀고있는 《국가행정리사회본부》로 밀려가 친미친일주구인 타놈과 만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타놈은 학생들의 투쟁기세에 겁을 먹고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12월 22일 타이학생들은 방코크에 있는 다이마루백화점입구에 일본상품구입 제지선을 치고 일본인소유의 일본독점자본의 악랄한 경제적침략을 반대하여 싸웠다.

12월 8일 500명의 방코크대학생들이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기술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타이기술자들을 일자리에서 내쫓고있는 반동정부당국의 처사를 준렬히 규탄하였다.

12월 15일 림시헌법이 발표되고 국가행정리사회가 해산되였다. 12월 18일 타놈이 총리로 되였다.

2월에 방글라데슈와, 11월에는 뽈스까와 각각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주민의 약 85%가 농사를 한다. 국민소득에서 농업이 약 80%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약 620만ha인데 대부분이 논이다.

주요농산물은 벼와 고무이며 그밖에 강냉이,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타이경제에서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쌀은 매해 1천 120만~1천 150만t정도 생산된다. 산림은 국토의 60%를 차지한다. 북부에서는 찌크재등 목재가 많이 생산되며 남부에서는 고무재배를 많이 한다.

지하자원으로는 주석, 중석, 연, 안티몬, 금, 은, 쇠돌, 망간 등이 있는데 특히 주석은 주요한 수출품의 하나이다.

공업부문에서는 취업인구의 3%가 일하고있다.

주요공업은 세멘트, 방적, 마대, 제지공업 등이다.

타이경제는 미일독점자본에 예속되여있으며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원료공급지로, 상품판매시장으로 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62년 《산업투자장려법》을 조작하고 《공동개발》, 《투자》의 간판밑에 《원조자》의 탈을 쓰고 본격적으로 기여들기 시작하였다. 일본독점자본은 타이에 대한 외국투자총액의 40%로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타이에는 500여개의 일본상공업기업소들이 개설되여 민족상공업을 말살하고있다. 또한 50여개의 일본독점자본은 화학섬유, 기계, 금속, 다이야, 식료공업 등에 침투하여 타이 매판자본가놈과 《합병회사》를 만들어 민족자본을 억누르고 시장을 독점하고있다. 일본놈들은 방코크에 《일본인구역》까지 만들어놓고 《치외법권》을 행사하고있다.

1969년에 타이수입품중 철판의 97%, 화물차의 89%, 섬유의 83%가 일본상품이였다.

1971년에 타이에 대한 일본의 수출액은 5억 500만 딸라였다.

예산지출의 절반이상이 군사경찰비로 지출되며 재정수입의 90%이상은 인민들로부터 수탈하는 세금으로 보장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산 세, 방코크 포스트(영어), 삼라트(타이어), 싱 타이 원파오, 데일리 뉴스.

버 마

(버마련방)

인도지나반도의 서북쪽에 있다. 령토의 80%이상이 산지와 고원으로 되여있다. 열대철바람기후로서 사철 기온의 변화가 매우 적고 장마철(5~10월)과 가물철로 나뉜다. 년평균기온은 26°C이상, 년평균강수량은 1천mm이상이다.

【넓이】 67만 8,033km²

【인구】 2,887만명(1972년 10월)

주민의 65%가 버마족(맘마족)이며 그외 카렌족(8%), 산족(12%), 카친족(2.1%), 카야족, 친족, 아리칸족 등 약 50여개 종족들이 있다.

공용어는 버마어이나 영어도 많이 쓴다.

【수도】 랑군(주민 185만 4,897명)

【혁명리사회】 1962년 군사정변후 국회를 해산하고 군인들로 조직된 립법, 행정, 사법 등의 일체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기관이다. 1970년 7월 사회주의로선당의 결정에 따라 위원 15명중 처음으로 민간인 4명이 포함되였다. 버마족 및 소수민족대표 30명으로 혁명리사회 자문기관이 구성되였다.

의장 네윈(1962년 3월 9일—)

【정부】 총리 네윈, 외교부장 조 쇼, 국방부장 산 유

【정당, 사회단체】 1964년 3월 28일 네윈이 사회주의로선당 이외의 모든 정당들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포, **공산당** 1939년 8월 창건, 1946년 2월 적기공산당, 백기공산당으로 갈라졌다. 1948년에 비법화, **사회주의로선당** 1962년 7월 4일에 창건, 집권당이며 유일당, 당원수 7만 3천명, 후보당원 27만명(1971년), 위원장 네윈, **인민로동자리사회** 유일한 로조단체, **농민리사회**, **버마조선친선협회** 1963년 8월 13일 결성, 위원장 우웅 루윈,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지지위원회.**

정치 1824년부터 영국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85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886년 영령인도의 한개주로 편입되였다. 1937년 인도에서 떨어져나와 자치정부를 수립하였다.

1942년초 일제에 강점되였다. 2차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자 다시 영국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대전후 영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이 앙양되였으며 버마인민들은 1948년 1월 4일 독립을 쟁취하였다. 1955년에 영국과 1947년에 맺었던《방위협정》을 페기하였으며 제국주의적관세특혜제도로부터 탈퇴하였다.

1962년 2월 버마군총사령관이던 네윈이 우누정권을 뒤집어엎고 헌법을 정지하였으며 군인들로 혁명리사회와 내각을 조직하였다. 이해 4월 30일 혁명리사회는 《사회주의에로 가는 버마의 길》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7월 4일에는 《사회주의로선당》을 조직하였다.

1963년에는 미제의 침략도구인《포드기금》과 《아세아기금》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였다.

이해 2월에는 림업의 국유화를 선포하였으며 1966년에는 파운드지역에서 탈퇴하였다.

1971년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사회주의로선당 제1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사회주의적민주국가건설과 《엄정중립정책》을 선포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당지도기관들인 중앙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선거하였는데 중앙위원회 위원 150명중 120명은 군인들이다.

1972년 3월에 진행된 사회주의로선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서 새 헌법초안을 토의하고 4월 22일 이를 발표하였다.

헌법초안에서는 버마를《사회주의련방공화국》이라고 지적하였다.

1972년 방글라데슈(3월 20일), 수리아(6월 15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주민의 약 80%가 농사하는 농업국이다. 세계적인 벼생산국이다. 벼농사는 한해에 세번 할수 있는 에라와디강삼각주농벌과 바다가 저지에서 주로 한다. 부침땅은 약 880만정보인데 그중 3분의 2는 논이다. 1971년에 벼는 약 800만t 생산되였다.

그 밖에 고무, 황마, 목화, 콩, 사탕수수, 밀, 담배 등을 재배하는데 공예작물중 큰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고무이다.

목축업도 발전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소(680만마리), 물소(약 300만마리), 돼지, 양, 코끼리(3천마리) 등인데 물소는 농업에, 코끼리는 목재운반에 많이 리용된다.

주요지하자원은 중석, 연, 아연, 주석, 석유 등이다. 령토의 60%는 산림지대이며 여기에는 찌크, 고무, 종려 등 290여종의 각종 나무들이 있다. 선박 및 가구용재료로 쓰이는 찌크나무(수출총액의 20%)의 생산과 수출에서 세계 제1위를 차지한다.

공업은 수출을 위한 광업, 정미업, 제재, 방직 공업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원유는 주로 에라와디강중류골짜기에서 많이 나며 여기서 랑군까지 송유관이 부설되여있다. 1971년에 700개의 유정이 가동했으며 석유생산은 년산 75만t에 달하고있다. 정미업은 이 나라 공장수의 4분의 3과 전국공업로동자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정미업의 대부분은 랑군, 몰먀잉, 아캬브 등 쌀수출에 편리한 항구도시에 배치되여있다. 독립후 강철, 제당, 방직, 세멘트공장과 발전소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4개년계획(1967~1970)기간에는 동남아세아에서 제일큰 쌀겨기름공장과 농기계공장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전력은 1971년에 2억 2천 390만KWh로 늘어났다.

철도의 총길이는 4천300km이며 전부 협궤이다. 에라와디강의 하천운수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랑군에서 만달레이까지는 1천t급 배가 다닐수 있다.

1970—1971년에 국영부문에서 가공공업제품의 42%, 목재제품의 44%이상, 채광업의 77%이상이 생산되였다.

버마의 1만 7천 600개의 기업소중 1만 1천개는 10명미만의 로동자를 가진 공장이다.

주요수출품은 쌀, 원유, 찌크나무, 목화, 고무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기계, 화학제품 등이다. 농산물수출이 외화수입의 80~85%를 차지하는데 그중 쌀이 약 70% 차지한다.

모든 교육기관들이 국유화되고 전문기술지식을 배워주는 고등교육체계를 수립하여 민족간부들을 양성하고있다.

1971년에 대학은 2개, 대학생수는 5만명이였다. 1964년부터 농촌지역들에서 글모르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주민의 90%가 불교도이다. 1961년 8월 국회에서 불교를 국교로 선포하였으며 헌법에서도 불교의 특권적지위를 인정하고있다. 문화와 인민들의 생활은 불교와 밀접히 관련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버마통신

신문 워킹 피플즈 데일리(혁명러사회기관지), 톡따버뚜네씽(정부기관지), 가디언, 한사워디, 제몽, 만마아링, 메따모, 랑군 데일리, 슈따웅, 보더타웅.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7년 10월 2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58년 3월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랑군에 개설되였다.

1961년 5월 15일 우리 나라와 령사관계를 맺었다.

1963년 8월 버마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버마인민들은 《김일성동지로작학술연구소조》,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하고있다. 또한 《김일성동지로작출판인쇄소》를 비롯한 여러 출판사들에서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많이 출판하고있다.

1972년에 《메따모》출판사에서는 그이의 로작들인《새조선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기초》, 《관료주의를 퇴치할데 대하여》, 《이라크 기자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국《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 등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이 나라 신문들인 《톡따버뚜네씽》, 《제몽》, 《한사워디》, 《보더타웅》, 《만마아링》, 《가디언》등은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인 1972년《신년사》, 일본《요미우리신붕》, 《마이니찌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미국《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 등을 실었다.

1972년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2월), 정부친선대표단(11월), 기자대표단(7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부 탄

(부탄 왕국)

히말라야산줄기의 동남부고원지대에 있는 작은 산악국가이다. 령토의 절반은 3천m이상의 높은지대이다. 령토의 70%가 산림이다. 기후는 산지열대철바람기후이다.

【넓이】 4만 6,600km²

【인구】 85만명

주민은 보티아족이 80%, 네팔족이 20%이다.

공용어는 티베트어

【수도】 푸나카(겨울수도), 팀부(여름수도)

【국왕】 지그므 싱기 왕추크(1972년 7월 24일—), 외교부장 팀포 다바 차야링

정치 1810년부터 영국의《보호령》으로 있다가 1947년 8월 인도의 독립과 함께 영제국주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1949년 8월 조약으로 인도로부터 데완기리지방의 반환과 해년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국방 및 외교권을 인도에 넘겨주었다.

왕의 자문기관으로서 협의위원회가 있으며 그외 국가회의가 있다. 정당은 없다.

1971년 5월 부탄은 인도에 넘겨주었던 외교권을 되찾고 인도에 첫 외교대표부를 개설하였다.

1971년 9월 유엔에 가입하였다.

1972년 7월 20일 국왕 지그므 도르지 왕츄크가 죽고 왕자 지그므 싱기 왕츄크가 왕으로 되였다. 11월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부탄은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제, 사회 뒤떨어진 농업국이며 봉건적생산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벼, 밀, 보리, 강냉이, 수수 등이다. 남쪽에서는 목화와 감귤류를 비롯한 아열대성과일이 생산된다. 또한 고무, 사향도 난다.

목축업을 많이하는데 야크(소의 일종), 양, 당나귀 등을 기른다. 식량은 자급자족한다.

공업은 매우 미약하다. 양털을 원료로 하는 수공업적모직물생산과 목재가공품이 생산되고있다.

주요자원은 목재, 동, 석탄, 석고, 운모 등이다.

주요운수수단은 물소, 당나귀, 말 등이다.

주민들은 불교를 믿는다.

시 킴

(시킴 왕국)

히말라야산줄기의 동쪽, 중국과 인도사이에 있다. 네팔과의 국경지역에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은 캉첸장가봉(해발 8,585m)이 있다. 기후는 아열대, 온대, 한대 등으로 구분되며 년 강수량은 3천~4천mm에 달한다.

【넓이】 7,298km²

【인구】 20만명(1971년)

주민은 네팔족(75%), 보티아족, 라프챠족 등이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강토크(주민 1만 2,000명)

【국왕】 쿠마루 팔덴 톤다프 남갈(1963년 12월—) 국왕이 립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있으며 국왕의 자문기관으로서 24명으로 구성된 국가평의회가 있다.

【정당】 **국민당** 왕제의 유지를 주장, **국가대회당** 보티아족을 대표, **국민대회당** 인도와의 합병을 주장.

정치 1817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50년 12월 조약으로 인도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인도가 외교, 국방, 교통 부문을 쥐고있다.

인도가 파견한 행정회의 의장이 실제상의 총리로 되고있다.

경제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이며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 밀, 보리, 과일 등이다.

소, 야크, 양 등을 기른다.

주요자원은 목재, 동, 연, 아연 등이다.

수공업적공장들에서 양털을 원료로 직물, 융단 등을 생산한다.

인도와 중국의 서장지방을 련결하는 히말라야의 령마루를 넘는 도로가 시킴을 통과한다.

털, 가축, 과일을 수출하며 일용공업품을 수입한다.

국교는 불교이나 주민의 60%가 인도교를 믿고있다.

네 팔

(네팔 왕국)

아세아의 남쪽, 중국과 인도사이에 있다. 령토의 절반이상이 해발 1천m 이상되는 지대이다. 북쪽에는 해발 8천m를 넘는 높은 봉우리들이 10여개나 있다. 중국과의 국경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무랑마봉(8,882m)과 세번째로 높은 캉첸장가봉(8,535m)이 있다.

대체로 아열대, 온대, 한대 지역으로 구분된다. 해발 4천m이상되는 지역은 한대기후이며 해발 4천 500m 높이에 눈선이 있다.

수직고도에 따라 열대로부터 한대에 이르는 각양한 기후식물대를 가지고있다. 령토의 60%가 산림으로 덮여있다.

【넓이】 14만 797km²

【인구】 1,128만 9,000명(1971년 9월)

주민구성이 매우 복잡하다. 크게는 인도계통과 티베트계통의 종족으로 이루어졌는데 쿠르카족, 네와르족, 라나족 등이 있다.

공용어는 네팔어이며 힌두어, 영어도 쓴다.

【수도】 까뜨만두(주민 33만 3,000명)

【국왕】 비렌드라 비르 비크람 샤흐 데바(1972년 1월—), 국왕은 전국참사회와 정부를 통하여 립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한다.

【전국참사회】(판챠야트)1963년 4월 14일 선거로 성립된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 의원수는 125명, 그중 30명은 국왕이 임명하며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한다. 부락, 구역, 지구, 전국의 4단계의 참사회가 있는데 주민들은 부락참사회를 선거하고 부락참사회가 구역을, 구역이 지구를, 지구가 전국참사회를 선거한다. 전국참사회에서 채택된 일체 법령은 왕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의장 라제스와라 데브코타

【국가리사회】 국왕의 최고자문기관으로서 1963년 4월 2일에 성립, 국왕이 임명하는 69명의 의원으로 구성, 국가리사회는 국왕이 소집하며 집행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랑가 나트 샤르마

【정부】 내각성원은 국왕이 전국참사회성원중에서 임명한다. 1972년 4월 16일 구성, 총리 키르티니디 비스타(국방부장겸임), 외교부장 갸넨드라 바하두르 까르끼

【정당, 사회단체】 1961년 1월 일체 정당활동은 금지되였다. **공산당** 1949년 9월 15일 창건(비법화), **청년단체**, **네팔조선친선협회** 1957년 9월 19일 창립, 위원장 프렘 바하두르 칸사카르.

정치 1816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846년 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라나가 정변을 일으켜 라나일가의 독재정권을 세웠다. 형식상 국왕은 있었으나 실권은 라나일가가 장악하였다. 1923년 영국과 《영구평화 및 우호조약》을 맺고 독립을 이룩하였으나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있는 기간 네팔도 사실상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1951년 2월 18일 왕은 대회당과 합세하여 105년간에 걸치는 라나일가의 독재정권을 전복하고 립헌군주제를 선포하였다.

1959년 2월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선거를 실시하여 대회당내각이 구성되였다. 1960년 12월 대회당은 국왕을 제거하기 위한 정변음모를 꾸몄다.

이러한 기회를 리용하여 미제는 쿠르카당에 많은 무기와 선거자금을 대주면서 국왕과 대회당내각을 전복하려고 수차 반정부무장반란을 꾸몄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1960년 12월 15일 마헨드라왕은 국회를 해산하고 1961년 1월 5일에는 모든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권한을 자기에게 집중시켰다.

1962년 12월 16일 의회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참사회(《당이 없는 참사회의 민주주의적체계》)제도를 규정한 새헌

법을 채택하였다.

이리하여 네팔에서는 전통적으로 농촌들에 존재한《부락장로회의》또는《촌락회의》를 네팔의 현실조건에 적용발전시킨《판챠야트》(참사회)제도가 나왔다.

1963년 2월부터 4월중순에 걸쳐 전국참사회와 지방참사회 등 각급 정권기관선거가 있었다.

1963년 4월 국왕은 실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리사회를 조직하였다.

그후 네팔에서는 공업과 상업의 70%이상 틀어쥐고있던 외국독점자본을 몰아내고 네팔사람들로 기업소들을 운영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또한 외국화페를 써오던 제도를 폐지하고 네팔화페가 유일한 법적화페로 제정되였다.

1972년 1월 30일 마헨드라왕이 심장마비로 죽고 왕자 비렌드라가 국왕으로 되였다. 그는 6월에 진행된 전국참사회 제20차회의에 보낸 서신에서 정부가 계획에 따라 현대적인 농업과 공업을 발전시키며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일것이며 대외적으로는 평등, 독립, 자주권, 평토완정에 기초하여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지적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이상이 농사를 하며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65%정도 차지한다. 부침땅은 약 180여만ha(그중 55%가 논)인데 남부지방에 집중되여있다. 농사는 2~3모작한다. 관개면적은 12만 5천ha이다. 논은 모두 해발 1천 800m까지의 높이에 있는 다락논이다. 다락논이 끝나면 해발 2천 500m의 높은 곳까지 밀, 강냉이, 보리 등을 심는 다락밭이 잇닿아있는데 다락논과 다락밭은 1천계단에 이르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알곡작물과 목화, 황마, 사탕수수, 담배, 바나나 등이다. 1969—70년에 알곡생산량은 369만t, 기본알곡작물인 벼는 매해 약 220만t정도 생산된다. 1970—71년에 황마는 5만 5천t, 담배는 6천 905t, 사탕수수는 23만 5천 611t 생산하였다.

1963년에《토지개혁법》이 발표되였으나 대지주들의 반항으로 완전히 실시하지 못하고 1976년에 끝낼것이라 한다. 대지주들이 부침땅의 절반이상을 가지고있다.

산지대의 자연방목지대들을 리용하여 목축업을 발전시키고있다.

소, 털소, 양, 염소, 당나귀 등을 기르는데 소는 약 800만마리, 염소 및 양은 약 400만마리있다.

평토의 50%가 산림으로 뒤덮여있으므로 목재도 많이 난다.

1956년부터 세차례의 5개년계획을 실시하고 1971년부터 경제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4차 5개년계획에 착수하였다.

이 기간에 가내수공업이 위주였던 공업은 현저히 발전하였다.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 세멘트, 금속가공, 방직, 편직물, 사탕, 신발, 목재, 담배 공장 등이 건설되여 소비품의 수요를 적지 않게 충족시키고있다.

1972년에 수력발전소들의 발전능력은 5만KW에 달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구리, 쇠돌, 운모, 대리석, 석탄, 아연, 금, 은, 석유 등이다. 산림자원과 수력자원도 풍부하다.

산악국이기때문에 도로와 다리건설에 큰 힘을 기울이고있다. 자동차 도로의 총길이는 4천km에 달한다. 남부벌방지대에 127km의 좁은 철길이 있을뿐이다. 소, 당나귀 등이 운수수단으로 많이 리용되고있다.

1970년말에 소학교수는 7천 258개(학생수는 44만 9천여명), 1968년에 중학교는 841개(7만 8천명), 고등학교 52개(1만 2천명)있으며 1960년에 까뜨만두에 첫 대학인 트리부반대학이 창립되였다. 학생수는 700명이였다. 1972년에 병원침대수는 약 3천대, 의료기관수는 290개있다.

국교는 힌두교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힌두교(쿠르카족), 불교(네와르족),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라스뜨리아 삼바트사미티통신

신문 구르카 파뜨라(정부기관지), 마더랜드, 마뜨리푸미, 코머너, 과샤파트리카.

방송 네팔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5월 11일 무역관계와 령사관계를 맺기로 합의하였으며 7월 10일에는 총령사급의 령사관계를 설정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57년 9월 19일 네팔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네팔인민들속에서는《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위원회》,《김일성주석로작편집부》등을 조직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연구학습하고있다.

1972년에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모든것을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이 나라 신문들인《마뜨리푸미》,《카르보알리빌》,《코머너》,《코먼뷰》등은 김일성동지께서 1972년에 하신 신년사, 미국《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 등을 실었다.

1972년 4월에 기자협회 회장과 까뜨만두 빠탄공과대학 학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3월에 정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글라데슈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남쪽으로 벵갈만을 끼고 남동부가 버마와 잇닿아있으며 동, 서, 북이 모두 인도땅으로 둘러싸여 있다. 방글라데슈는 히말라야산줄기에서 출발하여 북부인도의 넓은 벌을 지나오는 간디스강과 인도 동북부를 흐르는 부라마푸라강의 하류지역을 차지하고있다.

해안선은 동서로 400km이상에 달하며 대부분 지형이 벌과 강으로 이루어져있다.

누지며 무더운 열대성기후이다. 평균기온은 여름에 28~29°C, 12~2월에는 16~18°C이며 년강수량은 동부고지에서 5천mm, 치타공에서는 2천 700mm이다.

【넓이】 14만 1,157km²

【인구】 7,500만명(1971년)

주민의 98%가 벵갈인이며 그밖에 아라칸족, 카시야족도 산다.

국어는 벵갈어

【수도】 다카(주민 80만명, 1970년)

【국회】 1973년 3월 7일 첫 국회선거에서 집권당인 인민련맹(아와미련맹)이 총의석 300석중 281석을 차지하였다.

【대통령】 아브사이드 쵸우두리(1972년 1월—)

【정부】 총리 무지부르 라흐만(1972년 1월 12일—), 1973년 3월 16일 20명으로 된 새내각이 구성, 내각책임제정부로서 총리가 모든 실권을 쥐고있다. 현총리는 국방, 계획, 내각문제 및 시설 등 부장직을 겸하고있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8년에 창건, **인민련맹**(동부파키스탄 아와미련맹, 집권당)1967년에 조직, **민족인민련맹**(민족아와미당)1957년에 결성, **전국협상위원회** 1971년 9월에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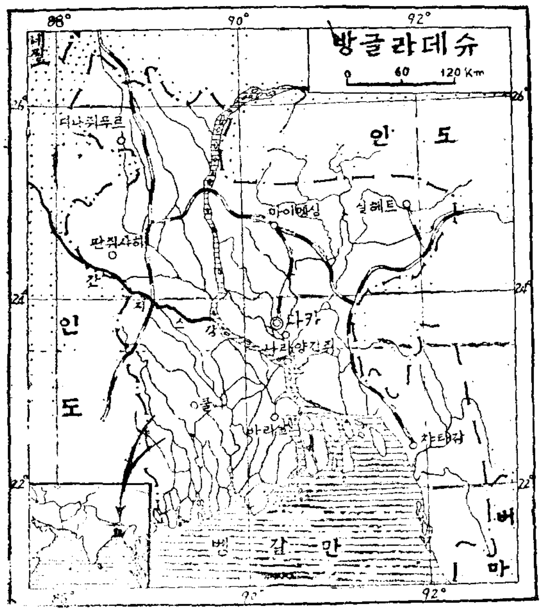
정치 인도가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을때 방글라데슈는 인도의 동부벵갈주였다. 인도가1947년 8월 독립할 때 힌두교와 회교도간의 대립을 배경으로 하여 회교도가 많은 서부가 인도에서 떨어져나와 파키스탄이라는 하나의 회교도국가를 형성하였다. 이때 회교도가 많은 인도의 동부지역이였던 벵갈이 파키스탄에 속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파키스탄은 인도를 사이에 두고 1천마일이상 떨어져있는 두지역 즉 서부파키스탄과 동부파키스탄(오늘의 방글라데슈)으로 이루어졌다.

동부 파키스탄과 서부 파키스탄은 인종, 언어, 생활양식 등의 차이가 많았으며 정치, 경제적으로도 서부 파키스탄으로부터 한급 낮게 취급되여왔다.

동부 파키스탄인민들은 오래동안 이러한데 불만을 품고있었다.

동부파키스탄이 벵갈주민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차별정책》에 큰 불만을 품고있는 가운데 동부파키스탄에 많은 세력을 두고있는 인민련맹은 1966년에 동부파키스탄의 《자치권》을 내용으로 하는 6개항목의 요구를 발표하였다. 이때로부터 동부파키스탄에서 인민련맹에 의한 민족주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 11월에 동부파키스탄을 휩쓴 대폭풍과 폭우로 말미암아 전례없는 큰 피해와 손실을 보았을때 중앙정부로부터의 충분한 원조가 없었다고 하여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반정부폭동까지 일어났다.

1970년 12월 7일 파키스탄이 독립한지 23년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직접적인 국민의회 총선거에서 과반수이상(총의석 313석중 167석)을 차지한 동부파키스탄의 인민련맹은 방위 및 외교관계만을 제외한 동부파키스탄의 완전한 자치와 동서 파키스탄의 련방을 형성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중앙및 주정부구성 권한을 획득한 인민련맹위원장 라호만은 즉시 국회를 소집할것을 주장하였다.



서부파키스탄의 인민당은 동부파키스탄이 제기하는 국회소집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동부파키스탄에서는 인민련맹의 지도하에 총파업, 시위투쟁들이 련속 일어났으며 동부파키스탄의 행정은 마비상태에 빠졌다. 국회소집 문제를 가지고 인민련맹위원장 라호만, 인민당당수 부토, 당시 대통령 야히아 한간의 3자회담이 있었으나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하였다.

정당들간의 대립과 의견상이로 정세가 더욱 복잡해지자 파키스탄대통령 야히아 한은 1971년 3월 3일에 열기로 되였던 국회소집을 무기한 연기하고 동부파키스탄에서의 반정부시위와 파업에 대처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3월 25일 동부파키스탄에 정부군을 대대적으로 파견하였다. 또한 동부파키스탄의 인민련맹위원장 라호만과 그 지지자들을 다수 체포하였다.

인민련맹과 그 지지자들은 1971년 3월 26일 파키스탄으로부터 동부파키스탄의 분리를 선포하고 인민련맹을 모체로하는 《방글라데슈》(《데슈》는 벵갈어로 《국가》라는 뜻)정부를 수립하였다.

방글라데슈정부는 같은해 4월 12일 라호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의 각료명단을 발표하고 4월17일에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의 정식수립을 선언하였으며 《방글라데슈해방군》을 편성하여 파키스탄정부군에 무력으로 대항하였다. 방글라데슈무장력은 이해 11월에 인도군의 지원밑에 동부파키스탄의 여러 거점들을 차지하였으며 12월에 들어서면서 파키스탄과 인도군대들간의 대규모적인 무장충돌로 발전하였다. 그후 인도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다카를 점령한후 방글라데슈정부는 인도 뉴델리로부터 12월 22일 다카로 옮겨왔다.

1971년 12월 방글라데슈정부는 라호만이 서부파키스탄에서 석방되여 귀국(1972년 1월 10일)함에 따라 내각을 대폭 개조하고 쵸우두리를 새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라호만은 총리로 취임하여 1월 12일에 새 내각을 구성하였다.

새 정부가 공포한 10개항목의 림시헌법은 1970년 12월의 파키스탄 총선거에서 당선되였던 국민의회, 지방의회의원들로써 제헌의회를 구성하며 대통령은 제헌의회 의원중에서 총리를 임명한다는것과 대통령의 직무는 모두 총리의 조언에 기초하며 각료들도 총리의 조언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것 등을 규정하고있다.

새 헌법은 1972년 12월 16일 제헌의회에서 채택되였다. 헌법에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및 세속주의를 국가정책의 근본원칙으로 규정하였다. 제헌의회는 16일에 해체되였다.

1971년 12월 12일에 발표된 《선언초안》에서 국내독점자본을 폐지하며 모든 황마산업을 포함한 주요산업을 국유화하며 황마수출을 국가의 통제하에 넣는다고 발표하였다. 1972년 2월 20일에는 《토지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정부의 결정이 발표되였다. 이러한 조치들에 기초하여 모든 철도, 항공 및 해상운수, 강하천운수회사들, 재정금융기관이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갔으며 땅없는 농민들에게 약 53만 3천에이커의 토지가 분여되고있다.

1972년 7월초에 인도의 심라에서 진행된 파키스탄대통령 부토와 인도총리 간디간의 회담에서는 《방글라데슈문제》토의에서 아무런 구체적인 합의도 보지 못하였다. 파키스탄은 두 당사자(파키스탄과 방글라데슈)들이 우선 만나서 파키스탄포로송환문제 등 현안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한 후에 방글라데슈를 승인하겠다는 립장을 취하고있다. 반대로 방글라데슈는 라호만과 부토회담의 전제조건으로서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슈를 승인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이와같이 서로 엇갈리는 의견대립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슈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방글라데슈는 대외정책에서 《중립과 쁠럭불가담,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을 추구하고있다.

1973년 1월 라호만은 수도 다카에서 진행된 군중대회에서 《방글라데슈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우리는 평등과 자주권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을 지향한다》고 말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약 85%가 농업에 종사한다. 전 령토의 64%가 부침땅이며 그의 넓이는 약 2천 600만아크라(33.5아크라=13.4ha)이다. 벼, 밀, 보리, 강냉이는 전체 부침땅의 약 80%를 차지하며 그중 2천 200만아크라가 논이다. 1년에 3모작을 하나 벼는 불과 1천 100~1천 200만t밖에 거두어들이지 못하므로 해마다 200만t이상의 식량을 수입하고있다.

외화수입의 주요원천으로 되고있는 황마는 전체 씨붙임땅의 8%를 차지하고있다. 황마는 세계생산의 80%를 차지하며 최대의 외화원천으로되고있다.

정부는 1972년 2월의 《토지개혁》법령에서 매세대당 토지소유규모를 100비그하(약 7ha)로 제한하였다. 이미 개인농장들은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소, 물소, 당나귀 등의 집짐승을 기르며 소는 주로 부림소로 리용된다.

공업의 주도적부문은 황마를 주원료로 하는 섬유 및 여러가지 제품생산이 기본이며 그밖에 작은 규모의 면방적공장과 면방직공장, 합성섬유공장들이 있다. 1970년에 솜실 4만 8천t, 면직물 5천 500만m가 생산되였다.

정부의 국유화조치에 따라 1970년 현재 250여개의 주요공장, 기업소들이 국유화되였으며 이것은 공업에 투자된 총투자액의 85%에 해당한다.

제1차경제개건 및 발전계획(1972—1973년)을 수행하여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기본적으로 복구개건하려 하고 있다.

주요수출품은 황마(년산 120~130만t), 차(년산 3만t), 솜실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전재품, 설비품, 기타 공업제품들이다.

주민중 회교도가 77%, 인도교도가 22%, 기독교도가 1%이다.

6개의 대학이 있으며 문맹률은 80%이상이다.

【출판보도】 신문 아와즈, 아자드, 매일.

방송 다카방송, 치타공방송, 다카델페비존방송.

인 도

(인도공화국)

아세아주의 서남쪽 인도양기슭에 있다. 북부의 히말라야산악지대, 중부의 평원지대, 남부 반도의 고원지대로 나뉜다. 기후는 매우 다양하다. 남방은 열대지대이며 히말라야산지대는 1년동안 계속 눈에 덮혀있다. 기온은 10월중순부터 다음해 3월중순까지는 선선하고 3월하순부터 6월중순까지는 무더우며 6월하순부터 10월상순까지는 계절풍이 부는것이 특징이다. 뉴델리의 최고기온은 32°C, 최저기온은 17°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700mm이다.

【넓이】 322만 9,000km²

【인구】 5억 5,396만명(1971년)

주민의 46.3%가 힌두스탄족이며 그밖에 텔구족, 말라티족, 벵갈족, 아쌈족 등이있다. 845종의 언어가 있으나 헌법에서는 전국공용어로 힌두어와 영어, 지방공용어로는 힌두어, 우루드어, 판잡어 등 14개를 인정하고있다.

【수도】 뉴델리(주민 420만명, 1970년 2월)

【대통령】 바라하 벤카타 기리(1969년 8월—)

【의회】 련방원(상원)과 인민원(하원)의 량원제이다. 1971년 3월 제5회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상원의원수는 250명이하(그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의원 12명)이며 각주 하원의원들이 선출한다.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의원수의 3분의 1을 개선한다. 의원중 국민대회당좌파가 100석, 우파가 32석을 차지한다. 상원의장은 부대통령이 겸임한다. 하원의원은 각주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500명이하의 의원과 중앙직할지에서 선출되는 25명이하의 의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 5년, 1971년 3월 총선거에서 515명이 선출되였다. 하원의원중 국민대회당좌파 350석, 우파 16석, 공산당 48석 (맑스주의공산당 25석), 잔산당 22석, 자유당 8석, 드라비다진보동맹 23석, 인민사회당 2석, 련합사회당 3석, 기타가 43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1971년 3월 제3차 내각수립, 5월에 일부 개조, 총리 인디라 간디(1967년 3월—), 외교부장 스와란 싱, 국방부장 쟈그지반 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3년 5월 28일 창건, 1964년 9월이래 피. 순다라야를 총비서로하는 공산당(맑스주의)과 당게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산당으로 분렬, 1969년 4월 맑스-레닌주의 인도공산당이 결성됨. **국민대회당**(집권당)《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1969년 10월 간디파와 극소수의 대독점체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우파로 분렬, **전인도민주당, 자유당, 통일사회당, 련합사회당, 인민사회당, 드라비다진보동맹, 잔산당, 전인도직업동맹, 인도전국녀성련맹, 전인도청년련맹, 인도조선문화협회** 1956년 12월 25일 결성, 위원장씨. 브랍 피카쉬, **전인도조선친선협회** 1969년 12월 15일 결성, 위원장 케이.더.말라비야.

정치 1600년에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인도에 창설된 이래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858년 영제국주의자들은 동인도회사를 해산하고 전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후 인민들의 반영투쟁이 앙양되자 인도를 영국녀왕이 관할하는 《직할통치령》으로 만들고 총독통치를 실시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영제국주의자들은 200만명의 인도청년들을 전쟁마당으로 끌어가고 매해 100만톤의 쌀을 군량미로 략탈하였으며 인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인도인민들의 반영투쟁은 고조되여 1939년 10월에는 10여만명의 봄베이근로자들의 투쟁을 비롯한 전국적인 대중정치파업이 일어났다. 인도인민들의 투쟁에 당황한 영제국주의자들은 1940년 1월 이른바 《자치》를 선포케하였다.

그러나 2차대전후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앙양되였다. 식민지통치를 유지할수 없게된 영식민주의자들은 분할정책에 의거하여 인도교도와 회교도간의 종교적반목을 조장시켰으며 1947년 8월 15일에는 순전한 종교적표징에 의하여 인도를 파키스탄과 인도의 두개 자치령으로 갈라놓았다. 인도는 《영련방》안의 《자치령》으로서 독립하였고 1950년 1월 26일 헌법을 제정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2년에 처음으로 총선거를 실시하였으며 련방의회를 창설하였다. 선거결과 국민대회당의 네루가 첫 총리로 되였다. 1957년 1월에 카슈미르를 인도에 통합시켰다. 1961년 12월에 뽀르뚜갈식민지였던 고아, 다만 및 디우를 귀속시키기 위한 무력행동을 개시하여 이 지역을 해방하였다.

1962년 10월에는 중인국경지대에서 중국과의 대규모적인 무장충돌을 일으

렸다.

1965년 9월에는 카슈미르문제를 둘러싸고 인도와 파키스탄간에 끌어오던 분쟁이 점차 악화되여 전면적인 무장충돌로 전변되였다. 1966년 1월 따슈껜트에서 두 나라간에 수뇌자회담을 진행하고 정화하였다. 1965년과 1966년에 전국을 휩쓴 식량폭동(기아를 반대하는 대중시위와 폭동)이 있었다.

1967년 10월 4차 총선거에서 독립이래 정권을 잡고있던 국민대회당은 국회에서 286석(선거전 375석)으로 겨우 반수이상을 확보하였다. 1969년 10월 국민대회당은 간디파와 극소수의 대독점체들의 리익을 옹호해나서는 우파로 분렬되였다. 이리하여 간디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대회당의석은 220석으로 줄어들었다. 1969년 11월 하원에서 총리불신임안이 제출(부결)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였다.

1970년 6월 간디는 내각을 개조하고 12월 27일에는 국회를 1년 앞당겨 해산하고 1971년 3월 총선거실시를 선포하였다.

1971년 3월 각 정당들간의 격렬한 대립속에서 진행된 선거결과 간디의 국민대회당이 350석으로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1971년 4월부터 인도와 파키스탄간에는 동부파키스탄(방글라데슈)에 조성된 혼란으로 인하여 긴장상태가 조성되였으며 자주 무장충돌을 일으키다가 12월 4일에는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였다. 12월 6일 인도는 《방글라데슈》를 독립국가로서 승인하였다.

파키스탄에서 내란이 발생하자 약 1천만명의 방글라데슈인민들이 인도로 피난하였다. 12월 15일 인도는 동부파키스탄의 행정중심지 다카를 함락하였다. 한편 인도는 북부카슈미르의 약 50여개초소를 포함한 1천 400평방마일의 파키스탄땅을 점령하였다. 12월 17일 14일간에 걸친 인도—파키스탄전쟁은 정화되였다.

1971년 8월 9일 쏘련과《평화, 친선, 호상협조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였다.

【주요사건】 1972년 3월 5일부터 11일까지 인도의 21개주중 16개주와 2개의 직할지역(델리, 고아)의 지방립법회의선거가 진행되였다. 2천 727명의 대의원중 국민대회당이 1천 926명, 공산당이 146명(그중 좌파공산당 34명)을 차지하였다.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칼커타에서 국민대회당 제74차 정기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윁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비인간적폭격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대외정책의 기초로서의 쁠럭불가담 및 평화공존을 강조하였다.

1972년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10월 8일), 윁남과의 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켰으며 까타르(4월), 과떼말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방글라데슈와의 관계 2월 6일과 7일 칼커타에서 인도총리 간디와 방글라데슈총리 라흐만간에 회담을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3월 25일까지 방글라데슈에 남아있는 모든 인도군을 철수할데 대한 문제, 량국대표단의 정기적인 회담, 협의 및 호상방문, 개발 및 무역분야에서의 긴밀한 협조, 인도에 남아있는 피난민을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데 대한 문제 등에 합의를 보았다.

2월 15일 인도해군이 치타공해군기지를 방글라데슈 해군대표에게 정식 넘겨주었다.

3월 15일까지 방글라데슈에서 인도군이 철수하였다.

3월 19일 다카에서 인도와 방글라데슈간에 25년을 기한으로 《친선, 협조 및 평화조약》을 맺었다.

3월 28일에는 방글라데슈와 무역 및 지불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에 의하면 1년간에 총액 10억루피아에 달하는 상품들을 서로 교환하게 된다. 또한 두 나라는 국경지대에 너비 20마일의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이지대에서 두 나라사람들이 관세없이 자유로 일용품을 거래하게 되였다.

파키스탄과의 관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간디가 파키스탄대통령과 회담을 가지고 두나라 관계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심라협정참조)

8월 2일 인도국회는 심라협정을 승인하였다.

8월 30일 국회에서 인도외교부장은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슈를 승인하기전에는 1971년 12월전쟁의 9만명의 파키스탄포로들이 송환되지 않을것이며 포로송환문제는 방글라데슈의 참여와 동의없이는 해결할수 없다는 립장을 다시 표명하였다.

9월 18일과 19일 인도는 전쟁시기 인도군이 차지한 국경지역에서 억류한 파키스탄사민 700명을 파키스탄에 넘겨주었으며 12월 1일에는 서부전선에서 포로한 540명을 인도에 넘겨주었다. 12월 20일까지 1971년 12월 전쟁때 차지한 파키스탄지역에서 철수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인구의 약 70%가 농사를 하며 농업이 총생산액에서 70%를 차지한다. 경지면적은 약 1억 5천만정보에 달하며 그의 85%를 인구의 15%밖에 안되는 지주와 부농들이 가지고있다. 농촌주민의 20~30%는 토지가 없다. 경지면적의 4분의 3이 알곡재배면적이나 관개면적은 경지면적의 20%밖에 안된다.

주요농산물은 벼, 밀, 황마, 목화, 차, 보리, 강냉이 등이다. 1971년 알곡생산량은 1억 800만t, 1972년에 밀생산량은 2천 600만t이였다.

소는 2억 2천 910만마리(1968년)로서 세계1위를 차지한다.

식량은 자급자족못하며 매해 800~900만t의 알곡을 수입하였으며 1966—1967년에 있은 혹심한 가물때에는 1천 400만t의 식량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1971년에는 205만t의 알곡을 수입하였으며 1972년에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알곡수입을 거절하였다.

공업은 독립후 3배로 급격히 장성되였다. 흑색금속공업, 화학공업, 기계제작공업, 전력공업 등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창설되여 일용품으로부터 공장의 종합설비, 비행기 등을 포함하여 각종 공업제품들이 생산되고있다.

주요공업부문들인 무기생산, 원자에네르기, 비행기생산과 또한 철도, 항공, 체신 등은 국가가 장악하고있으며 생산력배치문제, 새기업소창설, 기업소확장 등의 결정권도 국가가 틀어쥐고있다.

1969—1970년에 국영기업소들이 전체 선철생산의 62%, 강철의 55%, 공장기대의 48%, 아연의 69%, 원유의 55%, 비료의 77%를 생산하였다.

산림면적은 국토의 22%이며 찌끄재들이 많이 난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쇠돌, 망간, 운모, 보크사이트 등이다. 쇠돌매장량은 210억t이며 운모생산량은 년1만 6천t으로서 세계 제1위를 차지한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의 20%를 차지하며 이에는 인구의 약 10%가 종사한다. 9명의 대자본가들이 전체 개인공업의 약 70%를 독점하고있다. 독립후 14개의 큰 개인은행과 200개이상의 탄광이 국유화되였다.

상선대는 255척이였는데 그중 193척이 대외무역화물수송에 리용되고있다.

1971—1972년 예산적자는 37억 5천만루피였다.

미제의 경제차관이 인도가 받고있는 원조총액의 약 절반을 이루고있다.

대외무역은 독립후 2배이상으로 확대되였으며 공업상품의 수출은 1947년에 수출의 5%였다면 1972년에는 33%를 차지하였다.

1969년에 실업자는 1천만명이였다.

인구의 70%가 글모르는 사람이다. 소학교 84만 7천개, 중고등학교 8만

9천개이다. 중등학교(14—17세)의 취학률은 19%이다. 학생수는 약 8천만명이다. 평균수명은 55세이다.

힌두교도가 85%, 회교도가 10%, 기독교도가 2.3%, 불교도가 0.6%, 기타가 2.1%로 되여있다.

인도에는 1천 400만의 어린이들이 일하고있는데 그중 1천만이상이 농장에서 일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프레스 트라스트 오브 인디아(피티아이 통신).

신문 뉴 에이지(공산당계), 나브바라트(국민대회당계), 타임스 오브 인디아, 힌두스탄 타임스, 인디안 엑스프레스, 스탠다드, 이브닝뉴

방송 전인도방송(국영) 전인도라지오 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3월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뉴델리에 우리 나라 총령사관이 설치되였다.

1968년에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다.

1956년 12월에는 인도조선문화협회가, 1969년 12월에는 전인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 12월 28일 뉴델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회관이 새로 세워졌다.

1971년 2월과 3월에는 《김일성동지로작청년연구소》,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연구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2년에 《모자이크》, 《진보》, 《벤자브 북크쎈터》, 《데샤비마니》, 《로끄페하르》, 《네쇼넬부끄에탠시》, 인도공산당(맑스주의)마두라에 출판사들과 인도공산당타밀나두주위원회, 전인도조선친선협회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인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일본《요미우리신붕》, 《마이니찌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 등 많은 로작들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이 나라신문들인《스탠다드》, 《이브닝뉴》, 《블리쯔》, 《파이어니어》, 《마두리푸미》, 《파롤라멘터리 타임스》등 여러신문들이 그이의 고전적로작들을 널리 실었다.

2월 15일 뉴델리에서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전인도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정치, 사회, 문화, 로조 및 녀성단체 대표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또한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련대성편지가 채택되였다.

3월 인도국제도서시장에서 우리 나라 도서전람회가 진행되였다.

1972년 4월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마흔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인도정부군사대표단을 만나시였다. 8월에는 전인도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에 우리 나라 4.25축구선수단(10월), 탁구선수단(12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9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뉴델리에서 진행된 디씨엠축구경기대회에서 4.25축구선수단이 영예의 우승컵을 쟁취하였다.

파키스탄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인도의 서북쪽에 있다. 대부분이 산악지대이다. 동부인다스강하류는 벌을 이루고있다. 기후는 메마르고 비가 적게 온다. 가장 더울때(4～10월)에 32～50°C이며 카라치의 6～7월평균기온은 32.5°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116.8mm이다.

【넓이】 80만 6,538km²

【인구】 6,489만 2,000명(1972년말)

주민은 바르찌족, 판잡족, 토이기족, 이란족 등이다.

헌법상공용어는 우르두어, 1972년까지 영어를 공용어로 규정.

【수도】 이슬라마바드(주민 10만명)

【국회】 일원제, 의원수 313명, 임기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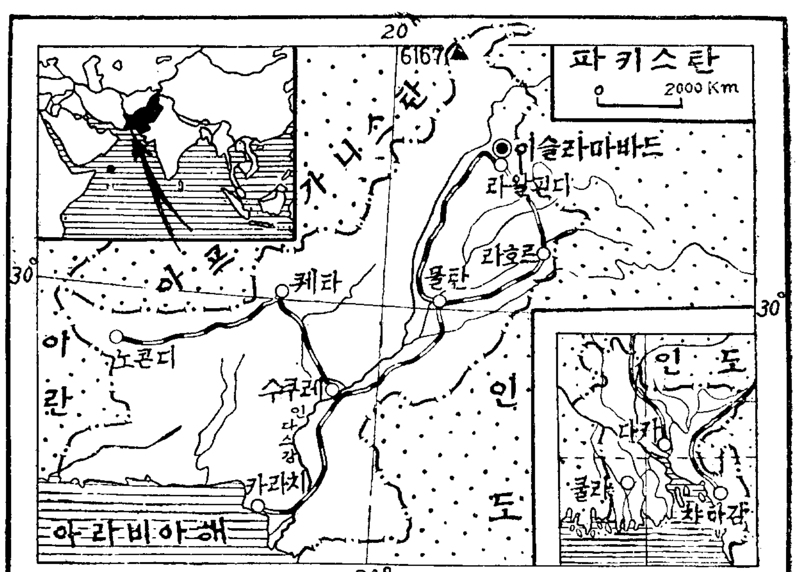
【정부】 대통령 줄피카르 알리 부토(1971년 12월—, 외교, 국방 부장 겸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8년 인도공산당에서 떨어져나와 창건, 1954년이래 비법화되였다가 1972년 8월에 합법화 됨. **인민당**(집권당), **회교도련맹당, 로조련맹, 민족청년련맹, 전파키스탄녀성협회,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1967년에 결성,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1970년 2월 결성, 위원장 무샤히드 후쎄인 싸이드.

정치 원래 인도의 일부로서 1858년에 영국의 《직할통치령》으로 되였다. 영식민주의자들은 인도를 분할통치하기 위하여 이 나라에서 회교도와 힌두교도간의 종교적반목을 조성하여 대립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이런 정세하에서 1940년 3월에 회교도련맹은 회교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인도로부터 떼내여 회교도국가를 세울것을 주장하여나섰으며 이해 8월에는 두교도간에 류혈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를 구실로 영제국주의자들은 1947년 7월 회교도가 많은 지역과 힌두교도가 많은 지역을 분리하여 각각 《독립》시키는 이른바 《인도독립법》을 조작하였다. 이리하여 1947년 8월 15일 파키스탄은 인도에서 떨어져나와 련방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으며 1956년 3월 23일에는 회교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8년 10월 아유브 한의 군사정권이 수립되였다. 1969년 3월 아유브 한



은 파키스탄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관련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권을 륙군사령관 야히아 한에게 넘겨주었다.

1969년 3월 31일 야히아 한은 민정이양, 새헌법제정을 위한 총선거실시를 발표하였으며 1970년 1월부터는 정당활동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 7월 12년간의 군사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300석(총의석은 313석)중 동부파키스탄의 아와미련맹이 166석, 인민당이 85석을 차지하였다. 선거후 헌법제정과 국회소집문제를 둘러싸고 아와미련맹과 인민당 및 군사정권간에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동부파키스탄의 아와미련맹은 방위 및 외교권만을 제외한 동부파키스탄의 완전자치와 동서파키스탄의 련방을 주장하면서 즉시적인 국회소집을 요구하였다. 인민당은 동부파키스탄의 자치를 거부하고 국회소집의 연기를 주장하였다.

정당들간의 대립으로 정세가 복잡하여지자 1971년 3월 1일 야히아 한은 3일 소집하기로되였던 국회를 무기한 연장하고 2일에는 동부파키스탄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3월 25일 야히아 한은 동부파키스탄에 정부군을 대대적으로 파견하였으며 포고령을 발표하여 모든 정당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아와미련맹위원장 라호만과 그 지지자들을 체포하였다.

정부군의 탄압에 대처하여 3월 1일부터 동부파키스탄에서는 강력한 항의시위와 총파업을 벌렸으며 3월 26일 아와미련맹은 동부파키스탄의 《독립》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방글라데슈해방군》을 편성하여 정부군에 무력으로 대항하였다. 이리하여 동부파키스탄에는 정부군과 아와미련맹을 지지하는 인민들간에 류혈전이 벌어졌다. 동부파키스탄에 조성된 이러한 혼란과 때를 같이하여 4월부터는 파키스탄—인도국경지대에서 두나라 군대들이 자주 무장충돌을 일으켰으며 12월초부터는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였다. 12월 6일 인도와 파키스탄간에는 외교관계가 끊어졌다. 전쟁에서 파키스탄은 남부카슈미르 참보지구의 50~60평방마일의 인도령토를 점령하였다.

1971년 12월 17일 14일간에 걸치는 파키스탄—인도전쟁은 정화하였다. 12월 20일 야히아 한이 사임하고 인민당 당수 줄피카르 알리 부로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주요사건】 1972년 3월 1일 대통령 부로는 토지개혁안을 발표하여 사유토지면적의 최고한계선(100에이커)을 대폭 줄이고 그 이상의 토지는 무상몰수하여 7월 1일부터 무상분배하게 하였다.

3월 15일에는 교육개혁의 실시를 발표하였다. 이 개혁안에서는 1974년 10월 1일부터는 10학년제학교 학생들의 수업료가 모두 폐지되게 되며 1972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2년동안에 사립학교들을 국유화(무상몰수)하게 된다고 하였다.

4월 17일 국회에서는 중앙정부의 대통령제와 반자치주들의 의회제를 실시할데 대한 림시헌법을 채택하고 4월 21일부터 계엄령을 폐지하였다.

8월 11일 18년간 금지되여있던 공산당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하였다.

대외적으로도 파키스탄은 일련의 반제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1월 30일 파키스탄은 영련방에서 탈퇴하였다.

11월 8일 부토정권은 1954년 9월에가담하였던 미제의 악명높은 아세아침략기구인 《세아토》에서 탈퇴하였으며 11월 21일에는 미제의 조선침략기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탈퇴하였다.

11월 7일에는 월남민주공화국, 11월 15일에는 민주독일과 각각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또한 파키스탄은 인도—파키스탄전쟁후 방글라데슈를 승인하는 나라들과 끊었던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1972년에 대통령 부로는 중국(1월)과 쏘련(3월)을 방문했으며 회교도성원국들인 리비아를 비롯한 중근동, 아프리카나라들과 이란, 토이기 등을 방문하였다.

인도와의 관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부토대통령이 인도총리와 회담하고 1971년 12월전쟁후 조성된 두나라 관계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평화조약과 국교회복을 위해 무력행사를 포기하는 등의 문제들에 합의를 보고 협정을 조인하였다(심라협정참조)

7월 14일 파키스탄국회는 심라협정을 승인하였다.

9월 16일과 17일 전쟁시기 파키스탄이 차지한 국경지역에서 억류한 인도인사민 272명을 인도에 넘겨주었으며 11월 27일 정부는 인도포로 전체(617명)를 석방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20일까지 파키스탄군은 전쟁시기 점령하였던 지역으로부터 철수하였다.

방글라데슈와의 관계 파키스탄은 방글라데슈총리 라호만과 만나서 파키스탄포로송환문제 등 현안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한후 방글라데슈를 승인하겠다는 립장을 견지하였다.

8월 부토대통령은 라호만과 회담하려고 하였으나 라호만이 회담의 전제조건으로서 파키스탄의 방글라데슈승인을 주장함으로써 회담은 성립되지못하였다. 8월 10일 부토는 또다시 라호만과의 회담에서 방글라데슈승인문제, 파키스탄인《전범자》문제, 바하르소수민족과 치타공지구의 불교도 등 문제를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글라데슈의 일관한 립장으로 하여 1972년말까지 회담은 성립되지 않았다.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하는 농업국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목화이며 그외 조, 수수, 사탕수수, 유채 등도 심는다. 부침땅의 약 절반에는 밀을 심는다. 펀잡지방등에서는 해마다 밀을 두번 거두어들인다.

목축업도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소와 물소가 기본이며 양, 염소도 많다. 락타는 펀잡지방에 많으며 주로 짐나르는데 리용되고있다.

주요 지하자원은 천연가스, 석유, 석탄, 석고, 크롬, 쇠돌, 우라니움, 류황, 돌소금 등이다.

공업으로는 채취공업, 방직, 기계제작, 화학, 식료, 석유정제, 세멘트공업 등이 있다. 가스 및 석유공업 등에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침투하고있다.

해상운수와 철도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철길의 길이는 8천 775km에 달한다. 주요항구는 카라치항이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면사, 면직물, 양모, 가죽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석유, 화하공업제품, 강철, 기계, 운수설비, 식량 등이다.

1972년 9월 정부는 해마다 10월 1일을 《문맹퇴치를 위한 투쟁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출판 보도】통신 파키스탄합동통신(에이피피), 파키스탄국제통신(피피아이)

신문 뉴 타임스, 돈, 썬, 타미르, 마싸와트, 데일리 뉴스, 리더 데일리 아자드, 타미르 콤배츠, 꽁스탄, 콤바르, 모닝 뉴스, 파키스탄 타임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6년 11월 8일 우리 나라와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으며 1967년 7월 28일에는 파키스탄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였다.

1968년 1월 14일에는 령사관계를 맺었으며 3월 6일에는 우리 나라 총령사관이 설치되였다.

1972년 11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

급외교관계를 맺었다.

파키스탄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는 《김일성주석로작연구로동자소조》, 《김일성주석로작연구녀성소조》등을 비롯하여 대학생, 선원들로 연구소조들을 묶고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연구하고있다.

1972년에 파키스탄《진보출판사》에서는 《김일성저작선집》제1권(우르두어)과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혁명을 촉진하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아호마드》국제출판사에서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미국《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 민족출판사에서는 《김일성전》(우르두어)과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출판하였다. 또한 파키스탄신문들인 《마싸와트》, 《뉴타임스》, 《파키스탄 모니터》, 《모닝 뉴스》, 《돈》, 《파키스탄 타임스》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 일본《마이니찌신붕》, 《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 미국《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 등을 광범히 실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타임스》 4월 12일호는 《김일성주석동지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마싸와트》 4월 13일호는 《김일성주석동지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다—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 탄생 예순돐》이라는 제목을 달고 각각 론설을 실었다. 라왈핀디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고매한 덕성, 그이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생활력을 보여주는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인민은 수령을 노래합니다》가 진행되였다.

1972년에 파키스탄대통령특사(3월), 정부군사대표단(4월), 교육대표단(11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대통령특사(3월 25일)와 정부군사대표단(4월 24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2년에 우리 나라 4.25축구단이 파키스탄에서 친선경기를 하였으며 평양예술단이 이 나라 각지에서 순회공연을 진행하였다.

심라협정과 그 리행정형

1972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인도총리 간디와 파키스탄대통령 부토간에 1971년 12월전쟁후 조성된 두 나라간의 관계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인도의 심라에서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 두 나라사이의 평화조약과 그리고 국교회복을 위하여 무력행사를 포기하는 등의 문제들에서 합의를 보고 두 나라 관계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협정에 의하면 1971년 12월 인도—파키스탄전쟁시기 두 나라 군대들이 점령하였던 지대로부터 각기 자기나라 국경선까지 철수할것과 잠무, 카슈미르에서는 1971년 12월 17일의 정화결과에 생긴 통제선을 존중하며 쌍방의 승인된 립장을 침해하지 않는다는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또한 두 나라간의 의견상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국교의 점차적회복과 두 나라 수뇌자들이 다시 회담하는데 합의하였다.

심라협정리행을 위하여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뉴델리에서 진행된 두 나라 공식대표급회담에서는 잠무와 카슈미르통제선을 9월 4일까지 설정하며 인도파키스탄국경선에서 9월 15일까지 호상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민들의 본국송환문제해결을 위한 권고를 자기 정부에 냈다.

이러한 협정에 의하여 12월 11일 잠무와 카슈미르지역의 통제선이 확정되였다.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두 나라군대들이 각각 점령지역으로부터 철수하였다.

또한 점령지역에서 억류되였던 사민들이 호상 교환되였다.

심라회담과 그후 두 나라간에 여러차례의 회담이 있었으나 방글라데슈문제, 포로송환문제, 카슈미르문제등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 주장으로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스리 랑카

(스리 랑카 공화국)

남부아세아의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이다. 아세아, 구라파, 대양주를 련결하는 배길의 중요한 지점에 놓여있다. 열대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6~30°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바다가평야지대에서 1천~1천 900mm이다.

【넓이】 6만 5,610km²

【인구】 1,275만명(1971년 10월)

주민은 싱할족이 약 68%, 타밀족이 약 23%, 기타 등이다.

공용어는 싱할어와 타밀어

【수도】 콜롬보(주민 56만 4,000명, 1971년 10월)

【대통령】 1972년 5월에 채택된 새헌법에 의하여 총독이였던 윌리암 고팔라와가 첫 대통령으로 되였다.

【국회】 1원제, 의원수 157석(그중 총독이 지명하는 의원 6명), 임기는 5년이다.

1971년 5월 21일 하원에서 상원의 폐지안을 가결하여 이해 9월에 상원은 폐지되였다.

1970년 5월 선거결과 국회에서 자유당 91석, 평등사회당 19석, 공산당 6석, 통일국민당 17석, 련방당 13석, 타밀련맹 3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1970년 5월 31일 자유당, 공산당, 평등사회당의 통일전선정부가 수립되였다.

총리 시리마 아르. 디 반다라나이케(1970년 5월—, 외교 및 국방부장 겸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3년 7월 3일에 창건, 1963년에 위크레마싱게를 총비서로 하는 당과 산무카타산을 총비서로하는 당으로 분렬, **자유당** 1951년에 통일국민당좌파가 떨어져나와 조직, 싱할족민족부르죠아지들의 정당, **평등사회당** 1935년에 창건, **통일국민당** 1946년에 창건, 자본가 지주들의 정당, **련방당**, **타밀련맹** 타밀족의 자치, 련방정부의 수립을 주장, **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련맹**, **자유당청년련맹**, **진보녀성협회**,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 1961년 10월 창설, 위원장 찬드라 구나쎄케라.

정치 1517년에 포르투갈, 1658년에 화란의 침략을 받았으며 1795년부터는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8년 2월 4일《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1956년 4월 총선거에서 자유당을 중심으로 한 인민련합전선이 승리함으로써 독립후 집권하고있던 통일국민당정부가 무너지고 자유당이 집권하였다.

1959년에 자유당정부총리였던 솔로몬 반다라나이케가 제국주의앞잡이들에 의하여 암살되고 1960년 3월 국민당이 집권하였으나 이해 7월의 선거결과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의 자유당정부가 수립되였다.자유당정부는 1961년에 석유법을 채택하고 1963년말까지 미영독점체들의 석유회사를 접수하였으며 그밖에 일련의 국유화조치를 취하였다.

1964년 12월 3일 국회의 신임투표에서 자유당이 패배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국회가 해산되고 1965년 3월 총선거가 실시되여 통일국민당을 제1당으로

로하는 세나나야케련립내각이 성립되였다.

1969년 9월 전력, 석유 등 기간공업부문로동자들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대파업이 일어나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였다.

1970년 5월 국회선거에서 민주력량의 통일전선(자유당, 공산당, 평등사회당)이 116석을 획득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통일국민당정부는 무너지고 5월 31일 통일전선정부가 수립되였다.

1971년 3월 16일 국내《혼란과 류혈》이 조성되였다고하면서 총리 반다라나이케의 제의에 의하여 《비상사태》가 선포되였다.

【주요사건】 1972년 5월 22일 새 헌법이 채택되고 쎄일론이라는 나라이름을 스리랑카공화국으로 고쳤다.

새 헌법에 의하여 총독제가 없어지고 첫 대통령으로 윌리암 고팔라와가 되였다.

5월 24일 옛수도 칸디에서 150여년간이나 이 나라에서 주인행세를 하던 영식민주의자들의 기발을 내리우고 스리랑카공화국기발을 올리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6월 23일 반다라나이케는 국회에서 정부의 쁠럭불가담정책과 5개년계획을 개괄한 정책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20일 스리랑카공산당 제8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사업총화보고와 지도기관선거가 진행되였으며 새규약을 채택하였다. 총비서로는 당이 창건된후 총비서로 있던 케누만대신에 위크레마싱게가 선거되였다.

11월 21일 국회에서 사법위원회를 설치하는 립법안에 반대하였다는 리유로 4월에 정직처분되였던 4명의 공산당출신국회의원들이 복직되였다.

반다라나이케총리가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을 친선방문하였다.

3월 5일 방글라데슈를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

차, 고무, 야자의 세계적인 산지이다. 주민의 65%가 농사를 한다. 경지면적은 160만ha인데 그중 3분의 2가 차, 고무, 야자 재배지이다. 이 3대작물은 농업생산액의 75%, 국민소득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1967년에 차는 22만t, 고무는 14만 940t 생산되였다. 식량은 수요의 절반이상을 수입한다. 차생산에는 이 나라 로동력의 약 5분의 1이 종사하고있다.

차재배원의 47%, 고무원의 34%, 은행의 68%가 외래자본의 지배하에 있다.

지하자원은 흑연이 가장 많으며(1966년에 9천970t수출)기타 쇠돌, 운모, 석고, 루비, 특주석 등이다. 1971년 5월에 전체 광산을 국유화하였다.

공업의 대부분은 차, 고무, 야자 등 농산물가공공업이다.

1968년에 어획고는 12만 9천t이였다.

주요수출품은 차, 고무, 야자 등인데 이것은 수출총액의 약 90%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차는 약 60%이상 차지한다.

싱할족은 대부분이 불교를 믿으며 타밀족은 힌두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프레스 트레스트 오브 스리랑카

신문 아따(공산당기관지), 자나디나(평등사회당기관지), 썬, 신할레, 스티라거, 자나사티야 랑카디파, 타임스 오브 스리랑카, 데일리 미러, 다바싸.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2월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63년 5월에는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콜롬보에 설치되였다.

1964년 1월 25일에는 두 나라간에 령사관계가, 1970년 7월 15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가 설정되였다.

1971년 4월 13일 스리랑카외교부 당국자들은 이른바《국내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구실밑에 우리 나라 대사관 전체 성원들에게 자기 나라에서 떠날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스리랑카에서 철수하였다.

말디브제도

(말디브제도공화국)

스리랑카 서남쪽으로 640km 떨어진 인도양에 있는 2천여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195개뿐이다. 제일 큰 섬이 말레섬이다. 섬들은 매우 낮고 평탄하며 평균높이는 해발 1.2m밖에 안된다. 이 나라에는 강도 호수도 없다. 적도철바람기후이다. 년평균기온은 27°C, 년평균강수량은 2천mm이다.

【넓이】 298km²

【인구】 11만명(1971년)

주민은 말디브인(스리랑카의 싱할족과 비슷하다), 인도인, 아랍인, 말라이인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말디브어이나 아랍어, 영어도 쓴다.

【수도】 말레(주민 1만 2,000명)

【정부】 대통령 아미드 이브라힘 나시르(1968년 11월—), 총리 아흐메드 자키

【국회】 54명으로 구성되여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

정치

1887년에 스리랑카의《속령》으로있던 말디브는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8년 스리랑카가 독립하자 말디브는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52년 군주제를 철폐하고 1953년 1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해 9월 정변이 일어나 1954년 2월에는 다시 군주제국가로 되였다.

1957년 12월 영제국주의자들은 말디브정부에 《군사협정》을 강요하여 스리랑카에 있던 해군기지를 철수하여 이 나라의 간섬에 설치하였다. 1958년에는 간섬주변섬들을 말디브에서 떼여낼 목적으로 이 섬들에서 제놈들의 앞잡이들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키고 소위 《련합수와디브제도》를 조작하였다.

1960년 2월 영제국주의자들은 말디브에 국방, 외교권을 제외한 《내부자치권》을 주고 년간 85만파운드를 주는 대가로 협정을 강요하여 30년간(1965년부터)간섬기지를 비롯한 군사기지의 사용권을 빼앗았다.

말디브는 1965년 7월 26일 독립하였다. 1968년 11월 11일 군주통치를 철폐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2년 10월 14일 중국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어업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과 무역을 한다.

주산물은 물고기와 그 가공품, 코프라, 야자기름 등이며 이것은 이 나라의 주요수출품이다. 물고기가 수출의 95%를 차지한다.

강도 호수도 없고 땅이 메마르기때문에 기장을 약간 심는 이외에 다른 곡식은 거의 심지 않는다. 주요수입품은 쌀, 천, 식료품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소년학교와 소녀학교가 있으며 그밖에 사립학교들이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도이며 약간의 불교도들도 있다.

【출판보도】 말디브어로 발간되는 일간신문과 방송국이 하나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6월 1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공화국)

남부아세아에 있는 내륙국이다. 령토의 75%가 산악지대이다. 기후는 대륙성기후이며 년평균강수량은 300~400mm이다.

【넓이】 64만 7,497km²

【인구】 1,750만명(1972년)

주민은 대부분이 빠단족(54%), 따쥐크족(36%), 우즈베크인, 뚜르크메니아인 등 20여개 민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페르샤어(도시)와 푸슈트어(농촌)

【수도】 카불(주민 약 50만명)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84명, 하원(국민회의)은 216명이다.

【정부】 1973년 7월 17일 정변후 사르다르 모함메드 다우드 한을 대통령으로하는 정부가 구성되였다.

정치 18세기중엽까지 부단히 외래침략을 받아오다가 1947년에 왕국을 세웠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제1차(1838년), 제2차(1879년) 아프칸전쟁을 일으키고 1880년에는 《간나마크조약》을 강요하여 영국《보호령》으로 만들었다.

제1차세계대전후 영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19년 5월 27일 독립하였다.

1973년 7월 17일 이전총리 다우드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군주제를 타도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약 90%가 농업과 축산업을 한다. 국민총생산액의 약 50%를 농업이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벼, 강냉이, 과일, 목화 등이다. 부침땅은 300여만ha인데 90%는 알곡면적이며 그중 약 70%에는 밀을 심는다. 밀은 매해 약 240만t 생산된다.보리는 36만t, 강냉이는 78만t, 벼는 40만t, 목화는 7~8만t 생산된다. 부침땅의 75%는 농가호수의 15%에 해당한 지주들이 가지고있으며 약 50만호의 농가가 땅을 못가지고있다.

국민소득의 70%는 축산업에서 얻고있다. 유목 및 반유목민은 약 250만명에 달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염소(300만마리), 면양(2천여만마리),소(370만마리),노새, 말, 락타 등이다. 매년 400만장의 양가죽과 1만 4천t의 양털을 생산한다.

공업에서는 전통적으로 옥석제품, 융단 등을 생산하는 가내수공업이 위주로 되고있었다. 제2차대전후 3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 새로운 공장들이 건설되였다.

1967—1972년의 3차5개년계획기간에 세멘트공장, 면방직공장, 기계제작공장, 자동차수리 및 조립공장, 금속가공공장, 기름공장들이 건설되였다. 1967년에 나글루수력발전소, 1970년에 마쟈리르이샤리프화력발전소들이 건설되여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전력생산량은 약 3억 2천여만kwh, 천연가스는 20억m³, 석탄은 13만여t, 소금은 3만6천여t, 면직물은 4천 500만~5천만m 생산된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은, 쇠돌, 연, 아연, 석탄, 류황, 대리석, 석유, 천연가스 등이며 수력자원도 풍부하다.

주요수출품은 융단, 양가죽, 양털, 목화, 과일 등이다. 자색가죽은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외화수입의 80%를 차지한다. 이 나라에서는 17개의 나라에 융단을 수출하고있다. 1972년 11개월동안에 46만m²의 융단을 수출하였다.

철도는 없고 자동차운수가 기본으로 되고있다.

2천500여개의 각급학교들에서 50여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카불에 종합대학과 또하나의 대학이 있다.

문맹률은 90%이다.

주민들의 치료사업을 위하여 4만~5만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쎈터가 150개 건설되였다.

【출판보도】통신 바크타르통신

신문 이슬라(정부계), 카라반 데일리, 모사바트, 아니스, 카불 타임스, 바다크샨

방송 아프가니스탄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5월 신문《카라반 데일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애급 《다르 알 타흐리르》출판사총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전문을 실었다.

1971년 11월 아프가니스탄정부친선사절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1월 12일 사절단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이 란

아세아대륙의 서남쪽에 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사막이며 북부와 남부에는 산림지대가 많다. 대륙성기후로서 더위와 추위의 차가 심하다.

【넓이】 164만 8,000km²

【인구】 2,928만 2,000명(1971년 3월)

주민의 절반이상이 페르샤인이며 그밖에 아제르바이쟌인, 토이기인, 몽골인, 쿠르드인, 아랍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페르샤어

【수도】 테헤란(주민 311만 6,000명)

【황제】 모함메드 레자 파흐라비(1941년 9월—)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60명 그중 30명은 국왕이 임명하며 15명은 테헤란에서, 15명은 기타 지방에서 선거한다. 하원은 268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1971년 7월 선거결과 신이란당이 하원의석의 214석, 마르돔당이 32석, 무소속이 22석을 차지하고있다.

【정부】 총리 아미르 아빠스 호베이다(1965년 1월—), 외교부장 아빠스 알리 할라트바리, 국방부장 레자 아지미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전신은 1941년 9월에 창건된 이란공산당, 제1비서 에스깐다리 이라주, **민족전선**, **신이란당**(집권당), **인민대회당**, **메리룬당**(국민당), 친서방적인 반동정당, 1960년까지 여당으로 있었다, **마르돔당**, 농지개혁, 로동자에 대한 리윤분배 등을 주장하였다.

정치 1906년 립헌군주제국가로 되였다. 1935년에 페르샤라고 부르던 나라 이름을 이란이라고 고쳤다. 2차대전까지 영제국주의자들의 영향력이 강했으나 전후 미제의 세력이 강화되였다.

1955년 침략적인 쎈토에 가담하였으며 1959년 3월에는 미제와 《쌍무군사조약》을 맺었다.

1960년 7월 아랍나라들의 공동의 원쑤인 이스라엘을 승인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애급이 이란대사를 내쫓았으며 그후 이란은 애급대사를 내쫓았다.

1969년 4월 이라크와의 국경지대를 흐르는 샤트알 아랍강의 항행조약(1937년)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1971년 11월 30일 이란은 아랍만에 있는 무싸섬, 대툼섬,소툼섬에 대한 령토권을 주장하면서 이 섬들을 점

령하였다.

1973년 1월 20일 국왕은 이란령토에서 활동하고있는 국제석유련합체와의 협정만료기간(1979년)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3월 21일에는 이란국영석유회사가 이《련합체》로부터 석유생산의 완전한 통제권을 인수하였다. 이와 관련한 방송연설에서 국왕은 이란이《자기의 석유공업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전취》하였으며 《자기의 석유에 대한 진실로 완전한 관리권과 소유권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1972년 10월 황제 모하메드 레자 파흐라비가 쏘련을 방문하고 15년기한으로 쏘련과 경제기술협조발전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9월에는 파흐라비왕후가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란은 린접나라들인 토이기, 파키스탄과 《지역적개발협조기구》를 형성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경제, 사회

주민의 85%가 농사를 한다. 경지면적은 국토의 10%정도(1천 200만헥타르)이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약 22%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목화, 벼, 담배, 과일, 사탕무우 등이다. 1972년에 밀은 410만t, 목화는 15만 8천t 생산하였다. 1970년에 보리는 120만t, 벼는 139만 5천t(1969년), 사탕무우는 350만t, 담배는 1만 7천 900t생산되였다. 이 나라 농업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물문제해결을 위하여 저수지를 건설하며 물웅뎅이를 파는데 많은 힘이 돌려지고있다.

식량은 자급자족 못하며 해마다 100여만t의 알곡을 수입한다.

자연방목지에 기초하여 축산업도 많이 하고있다.

소는 약 640만마리, 양은 3천 200만마리, 염소는 1천 500만마리, 당나귀는 220만마리에 이르고있다.

지하자원은 석유, 천연가스, 크롬광, 아연, 중정석, 연, 석탄, 쇠돌, 망간, 대리석 등이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약 47%차지하며 공업의 기본은 석유채취업이다. 석유매장량은 90여억t으로서 중근동에서 세번째자리를 차지하며 채취량에서는 중근동에서 첫째, 세계적으로 네번째자리를 차지한다. 1971년에 2억 6천 340만t의 석유를 생산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20억딸라의 리득을 얻었다. 그중 2억 4천50만t을 《국제석유련합체》가 차지하였다. 나머지는 이란국영석유회사가 차지하였다.

1973년 3월에 이란은 오래동안 이란석유를 략탈해가던《국제석유련합체》(미, 영, 프, 화란소유)로부터 석유생산의 완전한 통제권을 인수하였다. 이란석유공업의《이란화》정책에 따라 취해진 이 조치에 의하여 영국, 프랑스, 화란 석유회사들로 구성된 이《련합체》의 290명의 외국인 전문가를 포함한 도합 1만 7천 829명의 종업원들이 이란의 완전한 관리하에 놓이게 되였다.

1961년이래 석유소득액은 년간 3억딸라로부터 1972년에는 약 25억딸라로 늘어났으며 5차5개년계획(1973—1978)말에 가서는 77억딸라로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공업은 최근년간 일정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공업은 원유정제, 원유를 원료로 하는 화학공업이 기본이다.

1972년에 경제발전 4차 5개년계획이 완수되였다. 이 기간에 이스파한야금공장, 아라크기계제작공장을 비롯한 중공업공장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1970년에 전력은 55억kwh, 직물은 4억 5천만m, 사탕은 60만t 생산되였다. 페르샤융단이 유명하다. 융단의 수출액은 총수출의 24%를 차지한다.

1970—1971학년도에 학교수는 2만 6천 926개, 학생수는 455만 2천 776명이였다. 글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운동이 1963년부터 전국적으로 벌어지고있는데 1972년에는 글을 읽을줄 아는 사람은 1956년의 15%로부터 도시에서는 근 60~70%로, 농촌에서는 25%로 늘어났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이란국제통신, 파르즈통신

신문 매호레 이란(마르돔당기관지), 카이한 인터내슈널, 테헤란 저널.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4월 1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 5월 이란인민당 제1비서 에스깐다리 이라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란인민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5월 31일 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20차올림픽대회 아세아지역 제3조 예선경기에 참가할 축구선수단(4월)과 탁구선수단(7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라크

(이라크공화국)

아세아의 서남쪽에 있다. 령토의 절반이 사막이다. 대륙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17°C, 년평균강수량은 약 200mm이다.

【넓이】 44만 4,494km²

【인구】 1,000만명(1972년)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족이며 북부지역에 약 200만명의 쿠르드족이 있다.

국어는 아랍어

【수도】 바그다드(212만 4,300명)

【혁명리사회】 1968년 7월에 창설된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을 겸한다. 의원수 15명.

【정부】 1972년 5월 14일 정부구성, 두명의 공산당원이 정부성원으로 포함

대통령 겸 총리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1968년 7월—), 외교부장 무르타다 싸이드 아브둘 바끼, 국방부장 하마드 쉐하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4년 4월 2일 창건, 총비서 아지즈 무함메드, **아랍사회부흥당**(집권당), 1964년 7월에 창건, **쿠르드민주당** 1945년에 창건, 북부쿠르드족들을 대표하는 정당. **로동조합총련맹, 농민조합총동맹, 녀성총동맹, 이라크조선친선협회** 1969년 7월 6일 결성.

정치

17세기초 토이기에, 1914년 11월에는 영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

1920년 영제국주의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이라크에서 앙양되는 민족해방운동에 따라 1932년 《국제련맹》은 영국의 《위임통치》를 페기하였으며 이라크는 독립을 선포하였다.

1958년 7월 14일 카셈을 위시로 한 군사집단이 민주력량의 지지하에 군사정변을 일으켜 반동적인 파이살왕조를 뒤집어엎고 이라크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카셈정부는 1959년 3월 24일 미제의 침략적군사동맹인 《바그다드조약》(1955년에 가담)에서 탈퇴하고 이 해 3월 30일에는 42년간 이라크를 강점하고 있었던 영침략군을 몰아냈다.

또한 미제와 맺었던 예속적인 《협정》들을 페기하는 등 일련의 진보적인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집권 1년후부터 민주력량을 탄압하고 개인군사독재를 실시하였다. 1963년 2월 카셈정권이 전복되고 아레프정권이 수립되였다.

아레프정권은 1964년 5월 이라크—에급련합협정을 맺고 두나라간의 통합대통령리사회와 통합정치지도부를 창설하였다.

1967년 6월 5일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감행하자 이스라엘에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6일

에는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고 석유공급을 중지하였다.

1968년 7월 17일 아레프정권이 무너지고 혁명리사회가 조직되고 바크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였다. 7월 혁명후 이라크인민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계속되는 침략과 파괴책동을 짓부시면서 민족적 권익을 지키며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다.

1970년 3월 2차대전후 자치와 민족적권리를 요구하여 투쟁하여오던 쿠르드족과 정부간에 쿠르드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오래동안 이 나라 정권앞에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던 민족적통일이 이룩되였다.

평화협정에 의하여 쿠르드족이 사는 북부지역주들에서 자치를 실시하게 되였다.

1970년 7월 17일 쿠르드족의 법적지위를 규정한 림시헌법이 발표되였다.

1971년 11월에 발표된 민족헌장초안에서는 아랍사회부흥당과 쿠르드민주당간의 협조가 민족적단합의 초석이 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나라를 외국의 예속으로부터 해방하며 국영부문을 발전시키며 민족석유공업을 창설하며 토지개혁을 실시할것을 선포하였다.

1971년 5월에는 중동전쟁시기 외교관계를 끊은후 남아있던 미제의 대사관건물을 몰수하였다.

7월 18일에는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요르단반동들의 탄압만행에 대처하여 요르단과 외교관계를 끊고 국경을 폐쇄하였으며 요르단비행기의 이라크비행을 금지시켰다.

12월 1일 영제국주의자들의 비호하에 이란이 아랍만의 섬들을 강점한데 항의하여 영국, 이란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주요사건】 1972년 4월 9일 쏘련과 15년간의 《우호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 14일에는 내각을 개조하였다. 개조된 내각에는 1963년 정변이래 처음으로 공산당이 참가(두명)하였다.

이해 정부는 외래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길로 나가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1월 정부는 제국주의석유독점체 미국, 영국, 프랑스, 화란 합영인 《이라크석유회사》의 주권의 20%를 이라크에 넘기며 1964년부터 1970년까지의 채무를 시급히 청산하며 회사의 모든 재정경제활동을 이라크의 통제밑에 둘데 대한 강력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리권이 위협당하고 더는 종전처럼 제멋대로 략탈을 감행할수 없게 되자 제정된 원유세를 물지않고 고의적인 태업을 조장하는 등 이라크에 재정경제적난관을 조성하려고 발악하였다. 5월 17일 이라크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이 2주일내로 도발적인 파괴행위를 철회하고 원유생산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경고하였다.

이라크정부의 이 정당한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은 계속 악랄한 파괴책동을 감행하였다.

6월 1일 혁명리사회는 이라크의 주요경제명맥인 석유를 60년간이나 독점하고 해마다 막대한 리윤을 짜내던 《이라크석유회사》를 국유화할데 대한 력사적인 법령과 지중해연안의 바니아스항과 트리폴리항에 이르는 두 항구에 대한 송유를 중단 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송유관에 따르는 설비들도 국유화되였으며 이 《회사》의 기금과 모든 재산을 넘겨받을 새로운 국영회사가 나왔다.

정부의 이 정당한 조치를 지지하여 로동조합총련맹, 농민조합총동맹 등 18개 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군중집회들이 진행되였다. 제국주의예속을 반대하는 이라크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바그다드에서 세계평화리사회, 아세아아프리카단결회의, 이라크평화단결위원회는 공동으로 이라크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회의에서는 1973년 6월 1일을 이라크인민과의 련대성의 날로 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6월 혁명리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민족경제발전 최고위원회가 창설되였다.

1972년에 이라크와 이란간에 오래전부터 있던 국경선을 둘러싼 분쟁이 악화되여 5월에는 다시 이라크군과 이란군간에 국경지역에서 충돌이 있었다. 5월 이라크로부터 6만명의 이란인이 추방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석유공업이다. 석유공업은 이 나라 예산수입의 약 60% 차지한다. 이라크에는 100여개의 석유매장지가 있는데 매장량은 약 40억t에 달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세계 총매장량의 약 10.2%, 중근동 총매장량의 13.5%에 해당한다.

석유생산량은 중근동에서 제4위, 자본주의세계에서 제7위를 차지하며 유정당 생산(유정당 년66만 7천t생산)량에서는 세계 제2위를 차지한다.

1962—1967년기간에 석유생산량은 평균 4%씩 늘어났으며 1970년에는 7천600만t, 1971년에는 8천 370만t의 석유를 생산하였다. 북부유전지대에서만도 5천 237만 6천t의 석유를 생산하였다. 1964년에 창설된 북부루메일라석유회사에서는 초기에 생산량이 년간 500만t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2년 현재 1천 800만t 수준으로 뛰여올랐다. 키르쿠크유전지구에서도 해마다 4천만t이상의 석유를 생산하고있다.

석유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공, 저장,수송 사업도 발전하고있다. 해마다 370만여t의 석유를 가공하는 석유가공공장을 비롯한 현존석유가공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개건확장공사가 벌어지고 있으며 알 바쓰라시와 알 마우쎌을 비롯한 여러곳에 석유가공공장들이 건설되고있다. 슈에바시에는 년 350만t의 가공능력을 가진 이 나라에서 7번째의 석유가공공장이 건설되고있다. 루메일라지방에는 1만t의 용량을 가진 4개의 저장탕크가, 파오항에는 2만t의 용량을 가진 8개의 저장탕크가 건설되였다.

1972년 4월 이 나라에서 제일 큰 북부루메일라유정이 조업하였다.

1972년 6월 1일 서방제국주의 독점체들의 소유인 《이라크석유회사》를 국유화함으로써 60여년간에 걸쳐 해마다 30~50억딸라의 리윤을 짜내가던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에 종지부를 찍었다.

석유외에 연, 석탄, 동, 망간, 대리석,니켈, 붕사 등의 지하자원이 있으며 북부산악지대에서는 코발트가 나온다.

농업발전을 위하여 1972년에 750만 이라크디나르가 지출되여 황무지개간사업, 관개공사 등이 크게 진행되였으며 새로운 농업기술이 광범히 도입되였다.

《7월 17일관개공사》와 《7월 30일관개공사》를 비롯하여 여러개의 관개시설이 건설되였으며 1972년에는 유프라테스강과 타르타르호를 련결하는 운하건설을 시작하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1972년 12월현재 1천 50개의 농업협동조합에 15만명의 농민들이 망라되였으며 910만ha의 땅을 경작하고 있다.

주요농산물은 대추, 밀, 보리, 벼, 목화 등이다. 대추는 매년 30~35만t 생산되는데 생산량에서 세계제1위이며 세계대추무역에서 80%를 차지한다. 1971년에 밀은 200만t, 보리는 100만t, 벼는 30만t 생산하였다.

양털도 주요수출품으로 되고있다.

초등교육은 의무제를 실시하고있다.

1969—1970학년도에 초등 및 중등학교수만도 6천 178개에 달했다. 1971—1972학년도에 5천 912개의 소학교들에서 117만 4천 400여명의 학생들이 공

부하였으며 5만 3천 200여명의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1972년 9월 현재 3천 500개의 성인강습소에서 33만명이 글을 배우고있다.

국교는 회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이라크통신(1959년에 발족)

신문 알 사우라(정부기관지), 알 타이키(쿠르드민주당기관지), 알 줌후리아, 바그다드 옵써버, 알 아얍, 알 누르, 알 무즈타마, 싸우룹 화라바, 알 라쉬드.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9년 7월 우리 나라와 통상 및 지불협정과 문화협조협정을 맺었다.

1968년 1월 3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1년 4월 두 나라간에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정과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2년에 《알 이라크인쇄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 《요미우리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이 해에 신문《알 무즈타마》, 《바그다드옵써버》, 《알 라씨드》등 여러신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인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토지개혁의 총결과 금후 과업》, 일본《요미우리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 미국《뉴욕타임스》 기자들과 하신 담화 등을 실었다.

유엔총회 제27차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 나섰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이라크신문《알 라쉬드》8월 6일호는 알제리를 비롯한 많은 평화애호국가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의정《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를 유엔총회 제 27차회의에 상정시킬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발표한 7월 31일 우리 나라 정부성명 전문을 실었다.

신문 《알 타이키》 8월 22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지지하는 론평을 실었으며 《바그다드 옵써버》 9월 25일호는 《조선인민은 통일에로 한걸음 전진하고있다》라는 제목의 론설을 발표하였다.

1972년 정부군사대표단(4월), 신문《알 라쉬드》경영주와 이 신문 책입주필(4월), 로동조합총련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4월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라크정부군사대표단을 만나시였다.

이 해에 우리 나라로부터는 정부대표단(2월), 조선로동당대표단(4월), 녀맹대표단(5월), 기자대표단(11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수 리 아

(수리아아랍공화국)

서남아세아의 아라비아반도북서쪽 지중해기슭에 있다. 남서쪽은 고원지대이며 남동쪽은 사막이다. 지중해기슭에 별방지대가 있다. 지중해 기슭은 누기가 많은 해양성기후이며 내륙지방은 메마른 대륙성기후에 속한다. 년평균기온은 19°C이다. 겨울은 동부지방과 고원지대에서만 눈이 내린다.

【넓이】 18만 5,180km²

【인구】 629만 4,000명(1970년 11월)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족인 수리아인이며 소수민족으로서 쿠르드족, 아르메니아족, 아씨리아족, 베르원족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디마스끄(주민 63만 6,400명)

【인민회의】 1971년 2월 창설된 최고립법기관이다.

바아스당을 비롯한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 기타 애국력량을 대표하는 173명의 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1971년 3월 14일—)

【정부】 1972년 12월에 구성되였다. 총리 마흐무드 알 아유비, 외교부장 아브델 할림 하담, 국방부장 무스따파 틀라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수리아—레바논공산당으로 창건되였다가 1958년 11월에 분리, 총비서 할레드 바그다쉬, **아랍사회 부흥당**(집권당) 1947년에 창건, 아랍통일, 자유, 사회주의건설을 구호로 내놓고있다. 민족지도부 총비서 하페즈 알 아싸드, **아랍사회주의동맹, 민족진보전선** 1972년 3월 7일 공산당, 아랍사회부흥당, 아랍사회주의동맹과 기타 정당들을 망라하여 결성한 통일전선체, 대통령 겸 아랍사회부흥당 민족지도부 총비서가 민족진보전선의 위원장으로 된다. **근로자로동조합련맹, 혁명청년동맹, 녀성동맹, 수리아 아랍지역조선친선협회** 1970년 3월 28일 결성, 위원장 아브달라흐 알 아흐마드

정치 1516년 토이기에 강점되여 오토만제국에 편입되였다가 1920년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1925—1927년에 수리아인민들은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억압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민족해방폭동을 일으켰다.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프랑스침략자들은 많은 도시들을 폭격하여 2만 5천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1930년에는 단독적으로 수리아 통치에 관한 예속적인 헌법을 채택하였다. 수리아인민들은 이 예속적인 헌법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1940년 7월 프랑스가 파쑈독일에 투항하자 수리아는 파쑈독일에 강점되였다. 1941년 6월 영제국주의자들이 일부 투항하지 않고있던 프랑스침략군대와 함께 수리아에 처들어갔다. 이리하여 수리아는 독일파시스트의 기반으로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통제밑에 들어갔다.

영국,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수리아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들의 주구들로 정부를 조작하였다.

민족적독립을 위한 수리아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1946년 4월 17일까지 영국, 프랑스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독립된 주권국가로 되였다. 수리아인민들은 외래침략군대의 마지막 철수날자인 4월 17일을 민족적명절로 기념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의 책동에 의하여 여러차례의 정변과 암살사건이 있었다.

1958년 2월 애급과 통합하여 아랍련합공화국을 형성하였다. 1961년 9월 군사정변으로 수리아는 아랍련합공화국에서 떨어져나와 9월 29일 수리아아랍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3년 3월 8일 바아스당을 중심으로하는 군부세력이 혁명을 일으키고 혁명리사회를 수립하였다. 혁명후 수리아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번영하는 새 수리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진보적인 사회경제개혁을 실시하였다.

1967년 6월 5일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즉시로 이스라엘의 침략을 반대하는 군사작전을 개시했으며 6월에는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고 미제침략자들을 수리아땅에서 모두 내쫓았다.

1970년 11월 13일(독립이래 11번째 정변)국방부장이던 하페즈 아싸드를 수반으로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1971년 2월 16일 림시헌법이 발표되였다. 3월 12일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여

하페즈(단독립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971년 9월 1일 애급, 리비아와 함께 아랍공화국련방을 형성하였다.

【주요사건】 1972년 3월 7일 아랍사회부흥당, 공산당, 아랍사회주의동맹과 기타 정당들을 망라하는 민족진보전선이 결성되였다.

민족진보전선은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한 아랍령토를 해방하며 인민의 단결과 민족적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의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작성하며 경제에서 국영부문을 강화하고 협동화운동을 발전시키는것을 과업으로 선포하였다.

헌장은 민족전선이 모든 아랍국가들과 정치, 경제 및 군사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며 팔레스티나항쟁운동에 지지와 원조를 주며 미제를 두목으로하는 제국주의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민족해방운동들에 지지를 주고 그것들과의 련계를 강화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민족전선을 결성함으로써 인민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나라의 모든 정치적력량을 굳게 결속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고 강점된 아랍땅을 해방하며 나라의 륭성발전을 위한 수리아인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6월 2일 수리아정부는 자기나라를 통과하는 미영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독점체들의 소유인 《이라크석유회사》의 송유관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6월 21일 수리아외교부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레바논을 공식 방문한 수리아군사대표단성원들을 랍치한 강도행위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수리아외교부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수리아와 레바논의 주민지역들을 대대적으로 폭격하고 많은 주민들을 살상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30일 수리아군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두마, 아인아스 사호나, 호르나, 아인 아스 사히브 주민지대들을 맹폭격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살상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한데 격분하여 골란고지에 포사격을 가하여 놈들의 진지 여러개와 지상대공중로케트기지를 파괴하여버렸으며 놈들의 유생력량과 군수기재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11월 21일에도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보복타격을 가하여 놈들의 공중비적 3대를 쏘아떨구고 적땅크 14대를 파괴하였으며 골란고지에 포사격을 가하여 포진지 5개를 파괴하였다.

1월 아랍추장국, 바레인, 까타르, 오만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6월에는 버마, 우간다와 각각 외교관계를 맺었다. 7월 아싸드대통령이 쏘련을 공식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민의 75%가 농사를 한다. 국민소득에서 농업이 65%를 차지하며 수출의 85%가 농산물이다. 경지면적은 545만ha이며 그중 관개면적은 59만ha밖에 안된다. 1968년에 착공한 유프라테스강언제가 1974년에 완공되면 3만 8천ha의 땅에 새로 물을 댈수있게 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밀, 보리, 감자, 포도, 기장 등이다. 목화는 2차5개년계획(1966—1970)기간에 26만 5천ha의 땅에서 년평균 15만t 생산되였으며 3차 5개년계획말인 1975년에가서는 더 많이 생산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1972년에 밀은 이 나라 력사상 최고 기록인 195만t 생산되였으며 보리는 1971년보다 두곱이나되는 73만 5천t, 목화는 41만 9천t 생산되였다. 이리하여 주요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충당하고도 해마다 20만t의 밀을 수출할수있게 되였다.

토지개혁법령에 따라 1969년 6월까지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사업이 끝났으며 땅을 나누어주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도처에 농업협동조합들이 조직되였다. 1972년까지 3천 600개의 협동조합이 조직되였으며 1972년 5월 현재 46개의 농촌부락들에서 토지개혁이 완전히 끝났다. 각지 농촌들에 기계화작업소들이 창설되였으며 토지개량사업, 파종면적을 늘이는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공업에서는 아레포를 중심으로한 방직공업과 유리, 식료, 세멘트 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는데 이것은 공업총생산액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그중 방직공업은 민족공업총생산액의 35%를 차지한다. 면방직공장들이 국유화되였으며 새로 현대적인 면방직공장들이 건설되였다. 3차5개년계획(1971—1975)기간에 하마와 홈스에 있는 면방직공장들이 확장되고 동부의 데이르조르와 서북부의 아틀리브에는 새 방직공장들이 일떠서게된다. 이렇게되면 수리아에서는 목화를 수출하고 무명실을 사다 쓰던 방직공업의 기형성이 극복되고 목화를 원료로 자체로 무명실을 뽑아쓰게 된다. 1971년에 2만 6천 600만t의 무명실을 생산하였다.

독립후 원유가공공장, 수력발전소, 화학비료공장, 세멘트공장, 뜨락또르종합공장, 7만 5천t능력의 압연공장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되였으며 공업생산의 80%가 국가의 통제밑에 있다.

1972년현재 이 나라의 총발전능력은 23만 kW에 달한다.

1972년에는 할레브시에서 1년에 2천대의 뜨락또르를 생산할수 있는 공장건설이 진행되였다.

원유, 린회석, 쇠돌, 망간, 크롬, 천연가스 등이 채취된다. 원유매장량은 약 10억t에 달한다. 1972년에 원유생산량은 750만t이였는데 3차5개년계획(1971—1975)의 마지막해인 1975년에 가서는 1천 500만t 수준에 이르게 된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철길은 토이기에서 북아프리카로 통하는 할라브—하마—홈스—디마스끄를 련결하는 선이다.

해상운수는 대외적련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주요항구는 라타키아, 바니아스, 타르투스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밀, 보리 등의 농산물과 양털가죽등의 축산물, 과일, 원유 등이다. 주요수입품은 금속, 기계, 공업설비품과 경공업제품이다.

인구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의 869 수리아파운드로부터 1971년에는 950수리아파운드로 늘어났으며 국민소득총액은 1970년의 54억 2천 600만수리아파운드로부터 1971년에는 61억 2천 900만수리아파운드로 늘어났다.

1972년 9월 학생수는 150여만이였다. 1972년에만도 100여개의 교실들이 새로 꾸려졌고 600여만부의 교과서들이 출판되여 학생들에게 공급되였다.

주민의 85%가 회교도이다. 그밖에 12%가 기독교도로서 아랍국가들 중에서 레바논다음으로 기독교가 많은 나라이다.

【출판보도】통신 수리아 아랍통신

신문 알 바아스(바아스당기관지)알 사우라 (정부기관지), 알 오르바, 알 피다, 니달 알 팔라힌, 문화.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 10월 4일 우리 나라와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6년 7월 25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이해 8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 4월 28일 수리아아랍지역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2년 신문《알 사우라》, 《알 바아스》, 《알 피다》, 《니달 알 팔라힌》, 《알 오르바》, 《알 우쑤부우 알 리야뒤》등 여러 신문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인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토지개혁의 총결과 금후과업》, 일본《마

이너찌신붕》,《요미우리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하여 주신 대답, 미국《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 등을 광범히 실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수리아아랍공화국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수령님께 아싸드대통령이 보내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와 지성어린 선물을 전해드리였다. 이날을 기념하여 바아스당기관지《알 바아스》4월 16일호는 인민들속에 계시는 김일성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기념론설을 실었다.

조선인민군창건 마흔돐에 즈음하여 4월 23일 수리아공군 제42추격기려단에서 군인집회를 가졌으며 이날 문화 및 민족지도성의 주최로 디마스끄박물관에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를 진행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월 28일 수리아인민군사령부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가졌으며 알레포시(7월 17일), 라따끼야시(7월 5일), 홈스시(7월 25일)에서는 군중집회를 진행하고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7월 27일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수리아 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에서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외교부대변인은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환영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알레포시에서 《조선영화상영주간》이 진행되였다. 영화상영주간에는 불후의 고전적명작《피바다》를 원작 그대로 옮긴 광폭예술영화《피바다》와 《한자위단원의 운명》이 상영되였다.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수리아아랍지역조선친선협회에서 친선모임을 진행하였다.

1972년에 수리아아랍공화국친선대표단(4월), 정부군사대표단(4월), 교육대표단(7월), 경제대표단(11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수리아아랍공화국친선대표단(4월 14일), 정부군사대표단(4월 24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이해 우리 나라로부터는 조선로동당대표단(3월), 정부대표단(2월), 무역대표단(9월), 기자대표단(11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레 바 논

(레바논공화국)

지중해동쪽 기슭에 있다. 지형상 연해벌과 평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부산지의 대부분으로 구분되여있다.

기후는 지중해성기후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동부산지의 높은 봉우리들에는 년중 눈이 쌓여있다.

연해벌의 1월 평균기온은 13°C, 7월평균기온은 28°C이며 산지대들에서는 같은달 평균기온이 6°C와 23°C이다. 강수량은 서부에서는 많고 동부로 가면서 점차 적어진다.

【넓이】 1만 400km²

【인구】 264만 5,000명(1970년 8월)

주민의 대부분은 아랍인이며 아르메니야인, 희랍인, 토이기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바이루트(주민 80만명)

【국회】 일원제, 의석수는 99명, 그중 마론파기독교도 30석, 순니파회교도 20석, 시아파회교도 19석, 희랍정교 11석, 나머지의석은 그밖의 종교파들이 차지하기로 되여있다. 현국회는 1972년 4월에 선거되였다.

【대통령】 술레이만 프란쥐예(1970년 8월—). 대통령은 마론파기독교도, 총리는 시아파회교도에서 선출된다.

【정부】 1972년 5월 27일 총리 싸이브 쌀람(1952년—)에 의하여 다섯번째로 정부가 구성되였다. 총리가 내무부장을 겸한다. 외교부장 할릴 아부 하마드, 국방부장 마지드 아르스란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에 수리아레바논공산당으로 창건, 1958년 12월 레바논공산당으로 분리, 1947년에 비법화되였다가 1970년에 합법화됨. 총비서 니꼴라 샤우이, **사회주의진보당** 1949년에 창건, 위원장 카말 쥼블라트, **아랍사회주의로동당**, **국민전선** 친아랍정당, **국민자유당** 친서방적인정당, **팔랑헤당** 우익민족주의정당, **아랍사회부흥당**, **아랍로동자청년당**, **자치로조련합**, **민주청년동맹**, **레바논조선친선협회** 1969년 2월 14일 결성. 위원장 맘두흐 아브달라

정치 오토만제국의 일부로 있다가 1920년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제2차 대전기간에 앙양된 아랍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의하여 레바논은 1943년 11월 22일 독립을 쟁취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 나라를 강점하고있던 프랑스와 영제국주의 침략군대는 1946년 2월에 쫓겨났다.

그후 미제국주의자들은 레바논의 독립을 말살하고 제놈들의 지배를 실현해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51년 5월 《원조》협정을, 1954년에는 《경제원조》협정을 강요하고 이것을 미끼로 레바논내정에 간섭하였으며 정치경제적압력을 가하였다. 1957년 5월과 6월에 레바논인민들은 정부의 반동적인 대외정책을 반대하며 국회의 민주주의적 개선을 요구하여 전국적인 총파업과 시위를 진행하였다.

1958년 5월에 레바논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정책을 반대하며 민족적자주권과 독립을 위한 전국적인 인민항쟁을 시작하였다. 레바논 전지역에 조직된 인민항쟁군이 이해 6월 전령토의 4분의 3을 장악하자 미제는 이라크의 파이살왕조를 사촉하여 레바논에 군대를 파견케하였으며 위기에 빠진 샤문정부에 무기를 공급하고 제놈들의 함대를 지중해 연안에 끌어들였다.

7월에는 《레바논의 독립과 안전을 위한다》는 강도적인 구실밑에 수만명에 달하는 침략군을 상륙시켰으나 레바논인민들의 항거에 부딪쳐 이해 10월 25일 쫓겨났다.

1967년 6월 5일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6월 6일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고(9월에 회복)일체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을 금지하였다.

중동전쟁후 미제의 사촉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중동전쟁이래 레바논에 대한 도발책동을 계속 감행하였다.

1968년 12월 28일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바이루트국제비행장을 습격하여 13대의 려객기를 파괴하였으며 1970년 5월 12일에는 대규모의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주요사건】 1972년 2월 25일과 9월 16일 이스라엘침략자들은 팔레스티나유격대들의 《공격》에 대한 이른바 《보복》을 운운하면서 수많은 군용기와 땅크, 장갑차를 동원하여 남부레바논에 대한 대대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때마다 레바논인민과 팔레스티나유격대들은 강력한 반격을 가하여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였다.

1972년 4월 13일—30일까지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결과 99명의 의원들로 새 국회가 구성되였다. 5월 27일 싸이브 쌀람 총리가 16명으로 정부를

구성하였다.

6월 8일 쌀람총리가 국회에서 새 정부 정강을 발표하였다.

그는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에 커다란 주목을 돌릴것이라고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아랍나라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며 세계의 모든 친선적인 나라들과의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특히는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할것이라고 하였다.

1972년 9월 정부는 레바논에 대한 악선전을 일삼아온 미제의 어용기자놈을 내쫓았다.

11월 11일 바이루트의 《간두르》과자제조공장로동자 1천 200여명이 임금인상, 전횡적인 해고의 중지, 사회적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을 일으켰다. 이날 파업자에 대한 경찰의 발포로 희생자가 나자 이에 항의하여 로동총련맹은 전국적인 파업을 호소하였다. 이리하여 파업은 바이루트와 트리폴리, 시돈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을 휩쓸었으며 《치안유지》에 나선 군대들과의 투쟁에서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1972년 3월 30일에는 서독과 1965년에 단절하였던 외교관계를 재개하였으며 5월에는 영국이 레바논에 무기를 수출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경제, 사회 중계무역이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대외무역은 국민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바이루트항은 이라크, 요르단, 특히 수리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의 중계무역항으로되고 있으며 트리폴리항은 《이라크석유회사》송유관의 종점으로되고있다.

주요중계무역품은 직물류, 광물성원료, 기계설비 등이다. 원유통과세와 관광업으로부터도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다.

경지면적은 국토의 22% 밖에 안된다.

주요농산물은 귤, 포도, 사과, 레몬, 바나나, 양배추, 밀, 보리, 담배 등이다. 농산물생산에서 과일이 60%, 남새가 20%를 차지한다. 식량은 80%를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공업은 국민소득에서 15%를 차지하며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공업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면방직공장, 제유가공공장, 담배공장, 세멘트공장 등이 있다.

주민의 약 절반이 회교도인데 순니파, 시아파로 분리되여있다. 나머지절반은 기독교도이다.

아랍나라들중 기독교도가 제일 많은 나라다.

대학은 4개있다.

【출판보도】 신문 알 안와르, 알 무하리르, 안니다, 알 욤, 알 샤아브, 싸우뜨 알 우르바, 알 바이라끄, 앗 두니야, 앗 씨아꽈, 로리안(프랑스어)

방송 바이루트에 레바논방송, 텔레비죤방송국이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9월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68년 12월 14일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바이루트에 개설되였다.

레바논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연구하는 위원회》,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로작을 연구하는 로동자위원회》,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학생위원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연구소조》등을 뭇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광범히 연구하고있다.

1971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바이루트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는 중근동지역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주체사상연구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깊이연구학습하고있는 중근동지역의 여러나라 사회과학자들과 활동가들, 박사, 교수, 출판보도부문일군들과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소조대표들과 로작출판일군들을 비롯한 수많은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1972년에만도 《다르 알 탈리아》출판사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력사를 수록한 《김일성전》 제1부와 그이께서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를 포괄하는 기간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면서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주체적으로 발전시키신 론문, 보고, 연설 등 력사적인 문헌들이 수록되여있는 《김일성저작선집》(제1권),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인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현계단에 있어서 당 및 국가 사업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창건을 위하여》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72년에 이 나라의 신문들인《알 바이라끄》, 《알 무하리르》, 《알 욤》, 《알 샤아브》, 《말리와우》, 《알 요겸》, 《라쏴리》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인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일본 《마이니찌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 미국《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 등을 널리 실었다.

7월 24일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레바논 아, 아단결위원회가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신문, 잡지들이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9월 9일 《알 욤》지는 김일성동지께서 황해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라는 표제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성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신문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남조선에서의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1972년 5월 레바논로동자, 사무원로동조합전국련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 유엔총회 27차회의에서 레바논은 조선문제를 연기하자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결의안》을 지지하지않고 표결에서 기권하였다.

요 르 단

(하쉐미트요르단왕국)

이스라엘, 수리아,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에 둘러싸인 내륙국이다. 평토의 대부분은 고원이다. 서부는 비옥하고 요르단강 동부지대의 5분의 4는 사막이다. 년평균기온은 20°C이상이며 가장 더운 8월에는 30°C, 가장 추운 1월에는 2°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250mm안팎이다.

【넓이】 9만 7,740km²

【인구】 234만 7,900명(1971년)

주민은 아랍인이며 그중 70%가 팔레스티나인(요르단강 서쪽에서 주로 산다)이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암만(주민 45만명)

【국왕】 후쎄인 1세(1952년—)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25명(국왕이 임명), 임기는 8년(4년마다 반수씩 개선), 하원의원은 60명, 임기는 4년.

【정부】 1970년 10월 28일에 구성, 총리 및 국방부장 아흐메드 라우지(1971년 11월 텔이 암살된후 임명됨), 외교부장 아브둘라 살라흐

정치 팔레스티나의 일부로서 제1차대전전까지 오토만제국의 예속하에 있었다. 전후에는 영제국주의의 《위임통치령》으로 있다가 1946년 5월에 독립하였다. 1948년 아랍인들을 반대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일으킨 팔레스티나전쟁결과 아랍측에 남은 팔레스티나 동부지구를 합하여 1949년 6월 하쉐미트 요르단왕국으로 선포하였다. 1948년 3월 요르단은 영제국주의자들과 《동맹조약》을 맺고 요르단에서 공군기지를 가지게 되였으며 요르단군의 지휘권을 가졌다.

1956년 11월 나불시정부는 1948년 조약을 페기하고 영국침략군은 1957년 4월에 쫓겨났다. 1957년 4월 정변으로 나불시정부가 전복되고 국왕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였다.

1958년 2월 14일 이라크와 《아랍련방》을 형성하였으나 이해 7월 14일 이라크혁명으로 련방은 무너지고 말았다. 이해 8월 2일 요르단왕국은 련방의 해체를 선포하였다.

1962년 8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예멘아랍공화국에 대한 무장공격을 감행하였으며 11월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와《호상방위조약》을 맺었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요르단은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 전쟁으로 서부요르단의 5천 600km²에 달하는 땅을 이스라엘 침략자들에게 빼앗겼다.

전후문제처리에서 요르단반동들은 빼앗긴땅을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양보》를 통하여 되찾아보려는 투항주의적립장을 취하면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였다.

1968년 10월 요르단반동들은 요르단에서 활동하고있는 팔레스티나유격대의 활동을 탄압하고 이스라엘침략자들과 단독회담을 진행하려고 시도하다가 아랍나라들의 강력한 항의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1970년 2월에는 팔레스티나유격대의 무장을 해제시킬 목적으로 정규군을 제외한 기타 인원들의 《무기휴대, 폭이동, 폭발물저장의 금지》등을 규정한 《치안강화조치》를 발표하였다.

1970년에 요르단반동들은 팔레스티나문제를 영원히 매장해버리려고 미제의 소위《중근동평화안》을 수락하였을뿐만아니라 6월과 9월에는 중무기를 동원하여 팔레스티나유격대를 공격하였다. 이리하여 요르단정부군과 팔레스티나유격대간에는 류혈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그후 요르단은 수많은 팔레스티나유격대들을 요르단 밖으로 내쫓거나 투옥하였다.

1971년 3월 17일에 텔총리(1971년 11월 까히라에서 암살됨)는 요르단군으로하여금 《요르단에 머무르는 팔레스티나유격대를 엄격히 미행하고 감시하며 그들이 체류기간 진행하는 활동을 장악할수있게》하는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탄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요르단정부의 탄압에 항의하여 리비아, 쿠웨이트는 요르단에 주던 보조금을 끊어버렸으며 1971년 7월 이라크, 알제리, 수리아는 요르단과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애급은 요르단에 있던 군사대표단을 철수시키고 요르단과 국경선을 폐쇄하였다.

【주요사건】 1972년 3월 15일 요르단반동들은 미제와 이스라엘놈과 공모결탁하여 요르단강서쪽의 이스라엘강점지역에 이른바 《팔레스티나준자치국》을 세우고 이것을 요르단에 통합하여 《아랍련합왕국》을 조작할데 대한 제안을 공개하였다.

이 제안은 《팔레스티나 준자치국》의 수도는 꾸드스로하고 《요르단—준자치국》의 수도는 암만으로하며 요르단왕국이 새 《련합왕국》의 《원수》로 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장악할것을 예견하였다.

또한《팔레스티나—준자치국》에는 이스라엘촌락들을 건설하며 이스라엘침략군의 진지들을 계속 유지하며 팔레스티나해방군이 이《자치국》에서 《치안대》역할을 할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요르단반동들은 《팔레스티나—준자치국》이라는 괴뢰국가를 조작하여 팔레스티나인민을 포함한 아랍인민들의 민족적권리와 정의의 투쟁을 무마하고 세계여론을 기만해보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였다.

3월 15일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팔레스티나항쟁운동을 영원히 청산하려는 음모이며 팔레스티나인민의 자결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라고 규탄하였다.

3월 20일 팔레스티나해방조직집행위원회 위원장 아라파트는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은 팔레스티나의 리익을 훼손시키려는 어떠한 협정도 체결하지 않을것이다.》라고하면서 이 계획은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전쟁을 아랍인들끼리 싸우는 전쟁으로 전변시키려는것이라고 단죄하였다.

아랍나라들과 세계진보적나라들은 일치하게 이를 규탄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목축업이다. 인구의 85%가 농사한다. 국토의 약 10분의 1이 부침땅이고 나머지는 사막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콩, 남새, 올리브, 포도, 무화과, 바나나, 담배등이다. 봉건적토지소유관계로 농산물생산수준은 높지못하다. 주요지하자원으로는 린산염, 철, 석유, 화강암, 망간, 우라니움등이며 린산염매장량은 세계적으로 손꼽히고있다.

주요경제부문은 미제독점체들이 통제하고있다. 미제는 이 나라 3분의 2의 지역에서 원유개발권을 가지고있다. 공업은 린, 망간, 세멘트, 제분, 비누, 석유공업등이 약간있다. 1967년 전쟁에서 농경지의 80%, 남새생산지의 45%, 공업시설의 48%를 이스라엘에 강점당하였기때문에 심한 경제적난관에 부닥치고있다.

인구의 80%이상이 문맹자이다.

인구의 80%이상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아흐바르 알 우쓰브오, 알 디파아.

이스라엘

지중해의 동쪽 레바논과 애급사이에 끼워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해발 600~1천 200m의 높이에 있다. 지중해성기후로서 겨울에는 눅눅하고 여름에는 메마르다.

【넓이】 2만 700km²(1949년 아랍국가들의 정전선에 의한것, 1947년 11월 29일 팔레스티나분할에 관한 유엔결정에 의하면 1만 4천km²)

【인구】 323만명 (1973년 5월)

주민은 유태인이 절대다수이며 아랍인 등 타민족은 48만명, 1948년이래 유태인이민수 148만명

공용어는 헤브라이어

【수도】 텔 아비브 (주민 38만 5천명)

꾸드스에 국회와 정부기관의 일부가 있다.

【국회】 일원제, 의원수 120명, 임기는 4년이다.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대통령】잘만 샤자르(1963년 4월—)

【정부】1970년 1월 레이버당, 가하르당, 마팜당, 종교국가당, 독립자유당의 련립정부 구성, 총리 골다 메이르(레이버당, 1969년 3월—), 외교부장 에반, 국방부장 모쉐 다얀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21년에 창건, 총비서 메이르 빌너 겐세크, 레이버당(마파이당, 시온당, 라피당이 합당하여 1968년 1월에 결성, 당수 메이르), 마팜당, 독립자유당, 가하르당, 종교국가당, 공산주의청년동맹, 민주녀성련맹.

정치 이스라엘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반아랍감정과 침략적야욕을 리용하여 제놈들의 중근동침략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팔레스티나를 분할하여 조작한 나라이다.

원래 팔레스티나는 현재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살고있는 지역인데 1세기경에 아라비아해와 요르단강기슭에 유태인이 한 부락에서 살고있었다.

팔레스티나는 7세기부터 아랍제국에, 16세기초부터 1차대전전까지 토이기제국에 예속되여있었다. 1920년에 영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된 팔레스티나는 1920년 7월 《국제련맹》의 결정으로 영국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917년 11월 이른바 《벨푸어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하고 팔레스티나지역에 《유태인거주지》를 설정하여 세계 각곳에 분산되여살던 유태인들을 팔레스티나로 모여들게 하였다. 그리고는 유태인들로하여금 《유태복고주의운동》을 제창케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이 팔레스티나를 강점한 초기에는 유태인이 불과 5만명이였다.

유태복고주의자들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군사원조》를 받아 팔레스티나의 아랍인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2차대전후 팔레스티나인민들은 영국의 통치를 반대하며 독립을 요구하여 궐기하였다. 팔레스티나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를 교활하게 리용한 미제는 1947년 11월 제2차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티나에 대한 《영국의 위임통치》를 종식시키고 이 지역에 1만 1천 km²에 달하는 아랍국가와 1만 4천km²의 《유태국가》를 창설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란 유태인국가가 조작되였다. 5월 15일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미제의 사촉밑에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전쟁》(1948년 5월부터 1949년 7월에 이르는 기간에 이스라엘이 이라크, 요르단, 애급, 사우디 아라비아, 레바논, 수리아 등과 한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6천 700km²의 땅을 빼앗았다(요르단강 서쪽지역은 요르단이 점령). 이리하여 100여만 (1972년에 약 160만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 요르단, 수리아, 이라크, 애급, 레바논,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등에 흩어져 피난민생활을 하게 되였다.

1956년에는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애급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또다시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켜 애급의 시나이반도, 수리아의 골란고지, 요르단강서쪽지역을 포함하는 6만여km²의 땅을 강점하였다.

전후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비호하에 더욱더 오만하게 나오면서 이른바《이스라엘국가》의 합법적지위를 얻으려고 미쳐날뛰고있으며 전후처리문제를 《매개 아랍국가들과의 직접적인 회담》을 통하여 해결할것을 집요하게 주장하고있다. 이렇게함으로써 제놈들의 령토팽창야망을 아랍국가들에 강요하여 그것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며 일부 쓸모없는 땅을 돌려주는 대가로 《이스라엘국가》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책동하고있다.

또한 강점지역을 병탄하기 위한 범죄적기도밑에 이지역의 아랍인들을 추방하며 강점한 아랍지역을 《이스라엘화》하기 위한 반동적공세를 계속 감행하고있다.

1967년 6월전쟁이래 1969년 11월 까지 기간에만도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애급지역에서는 약 4천여건, 요르단지역에서는 3천여건, 수리아지역에서는 300여건의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제놈들의 중근동침략계획수행에서 커다란 장애로되고있는 혁명적팔레스티나인민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의 해방위업을 말살하기위하여 중동전쟁때 강점한 요르단서쪽지역의 일부령토를 떼내여 제놈들의 주구들로 《팔레스티나국가》를 조작하려고 발광하였다.

【주요사건】1972년에도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무장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근동정세가 계속 긴장되여있는것도 전적으로 이스라엘침략자들과 그를 조종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침략책동에 기인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121페지)

2월 25일부터 3월 1일에 걸쳐 이스라엘침략자들은 팔레스티나유격대들의 투쟁을 탄압한다는 구실밑에 60대의 비행기와 수많은 땅크의 엄호밑에 지상공격부대를 레바논령토에 침입시켜 무차별 폭격과 포격, 소총사격을 가하여 레바논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고 주민가옥들을 모조리 파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6월 5일 이스라엘침략군 70여명이 장갑차를 타고 레바논의 마르준지역에, 21일에는 수많은 비행기와 땅크를 동원하여 남부레바논의 하쓰바야지역과 라미야지역을 폭격, 포격하였으며 지상부대들을 레바논령내 70km까지 침입시켰다.

9월 16일에는 1천 500여명의 침략자들과 장갑차, 땅크, 비행기들이 레바논남부지역의 32km깊이까지 기여들어 야수적만행을 저질렀으며 9월 27에는 이스라엘공중비적들이 남부지역을 돌아보는 레바논총리 싸이브 쌀람이탄 자동차우에 낮게 떠돌며 위협하는 엄중한 강도행위를 저지르는데까지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레바논령해에 침입하여 어부들을 랍치하는 등 온갖 만행을 서슴지않았다.

애급, 수리아에 대한 도발책동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8월 16일 이스라엘공중비적들은 수에즈운하의 북부지역의 포트 푸아드시, 동쪽지역에 있는 애급군진지를 공습하였다.

9월 9일에는 수리아의 령토깊이에 있는 여러주민지역을 대대적으로 폭격하고 많은 주민들을 살상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1967년 중동전쟁이래 수리아에 대한 공격중 가장 깊숙한 공격이였다.

10월 30일 수리아의 수도 디마스끄에서 멀지 않은 두마, 아인 아스 사호나, 호르나, 아인 아스 사히브 등 주민지대를 미친듯이 폭격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살상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반아랍책동에 항거하여 5월 30일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일본 적군파 청년들이 이스라엘 국방상을 살해할목적으로 텔 아비브의 로드비행장을 습격하였다.

9월 5일 팔레스티나유격대들은 《뮨헨올림픽촌》을 습격하여 이스라엘선수 11명을 죽였다. 이 사건으로하여 올림픽경기는 력사상 처음으로 24시간 중지되였었다. 이밖에 11월 28일 이스라엘의 체신부문로동자 5천여명이 파업을 일으켰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항공회사로동자 1천 200여명이 임금인상

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1973년 1월 5일까지 기네, 우간다, 챠드, 니제르, 말리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 경제는 외국자본 특히 미제의 독점자본에 얽매여있다. 외국자본투자액중 미제의 자본이 약 70%를 차지한다.

주민의 18%가 농사를 한다. 주요 농산물은 귤(주요수출품), 밀, 보리, 강냉이, 남새 등이다. 땅이 메마르고 물이 부족하다. 관개면적은 15만ha정도이다.

지하자원은 석고, 석회, 류황 등이다.

공업은 하이파부근에 집중되여 있으며 금강석연마공장, 방직공장, 식료가공공장, 화학약품, 광학렌즈생산공장 등이 있다.

경제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군사비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위기를 겪고있다. 1965—1971년기간에 군사비는 6배나 늘어났다. 1972년에 대중소비품값은 15~16% 뛰여올랐다. 매 가정에서는 군사적목적을 위해 세금, 채권 등의 형태로 수입의 절반이상 빼앗아간다.

이 나라의 도시 끼리야뜨슈몬에서 조사한데 의하면 어린이들의 95%가 빈혈증에 걸려 신음하고있다.

대부분이 유태교를 믿으며 그외 주민들은 회교, 기독교등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이스라엘통신(아이엔에이) **신문** 콜 하암(공산당기관지), 다바르.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왕국)

아세아주의 서남부 아라비아반도의 중부에 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과 고원이다.

기후는 북부는 아열대, 남부는 열대에 속하나 대부분의 지역이 여름에 몹시 무덥고 메마르다. 년평균기온은 가장 더울때(7~8월)에 30°C, 가장 추울때(1월) 10°C이다. 비가 적게 오며 년평균강수량은 100mm내외이다.

【넓이】 214만 9,690km²

【인구】 800만명(1972년)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인이며 그밖에 페르샤인, 유태인, 인도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리야드(주민 35만명, 정부소재지), 메카(주민 25만명, 회교성지)

【국왕】 아밀 파이살 아브델 아지즈 알 사우드 알 파이살(1964년 11월—)

【각료회의(정부)】 의장(총리)은 국왕이 겸한다. 외교부장 장 오마르 사가프

정당도 국회도 없으며 로조활동도 금지되여있다.

정치 제1차대전전까지 오토만제국의 속령(헤쟈즈, 네지드)으로 있었다.

1차대전후 네지드왕 이븐 싸우드가 헤쟈즈를 강점하여 아라비아반도를 통일하고 1932년에 나라이름을 사우디 아라비아왕국으로 고쳤다. 세습군주제국가이며 국가의 모든 법률은 회교성전에 의거하고있다.

1962년에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예멘왕당파를 지원하여 예멘아랍공화국에 대한 무력간섭을 감행하였다.

1966년 10월에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이 나라에 있는 비행장들과 항구들을 임의의 시각에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미제는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작전에 이 비행장들과 항구들을 리용하고있다.

1967년 6월 미제의 사촉하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키자 이스라엘을 지지하고있는 나라들에는 일체 석유공급을 중지할것을 선포하였다.

1969년 11월 미제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남부예멘간의 국경지역에 있는 남부예멘의 일부주들을 떼내여 소위 《남 아라비아공화국》을 조작하려고 책동하였다.

1972년 4월 미제와 사우디아라비아 반동들은 남부예멘을 전복하고 이 지역에서 혁명세력의 장성을 막아보려고 남부예멘에서 쫓겨난사람들과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예멘, 오만 등지에 있는 반동들을 긁어모아 소위《지원군》이라는것을 새로 조작하고 《지원군》과 남부예멘반동들을 위한《통합사령부》라는것까지 만들어놓고 재정《원조》와 무기, 탄약까지 공급해주고있다.

경제, 사회 부침땅은 국토의 1% 밖에 안된다. 농경지 및 방목지의 90%는 왕족, 봉건령주, 사원들이 가지고있으며 관개지역의 대부분은 미제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알곡생산은 최고 15만t안팎이며 식량수요의 10% 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대추, 야자, 강냉이, 벼, 보리 등이다. 대추야자생산량은 년 20만t안팎으로서 세계에서 이라크다음가는 생산국이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락타, 말, 당나귀 등이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네번째가는 원유생산국이다. 원유매장량은 자본주의세계의 원유총매장량의 약 20%(81억t)로서 제2위를 차지한다.

석유는 국가예산수입의 80~90%를 차지한다.

원유채취량에 비하여 그의 가공공업은 아주 미약하다. 때문에 채취된 원유의 대부분은 송유관을 통하여 지중해와 페르샤만연안의 항구로 수송되여 수출된다. 페르샤만연안의 담만으로부터 레바논의 항구에 이르는 송유관은 길이가 1천 770km이며 년수송능력은 1천 500만t으로서 서남아세아에서 가장 큰 송유관이다.

원유공업은 미제의 《아라비아 미국석유회사》(1933~1999), 일제의 《아라비아 석유회사》(1957년부터 40년간), 이딸리아의 《사니회사》등이 독점하고 있다.

공업으로는 석유공업외에 세멘트, 석고, 비누, 가죽공업등이 있다.

철도는 리야드와 담맘간선(556km)뿐이며 자동차도로는 4천km에 달한다.

대외무역은 미제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수출품은 원유 및 그 제품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그밖에 금, 대추, 야자, 양털, 가죽 등이다.

주요수입품은 밀, 보리, 강냉이, 차, 사탕, 커피 등 식량과 기호품 각종 직물류이다.

회교의 발산지로 알려지고있으며 메지나에 회교대학이 있다.

【출판보도】 **신문** 타우라

쿠웨이트

(쿠웨이트 추장국)

페르샤만 서북쪽에 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이다. 기후는 메마르며 물이 바르다.

【넓이】 2만 5,500km²

【인구】 73만 3,196명(1970년 5월)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인이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쿠웨이트(주민 24만 1,000명)

【추장】 사바흐 알 살렘 알 사바흐 (1965년 11월—)

【국회】 일원제, 의원은 50명으로 구성, 임기는 4년이다. 선거권은 공무원경관을 제외한 성인남자들에게만 있

다. 1971년 1월 23일에 선거.

【정부】 1971년 2월 2일 12명으로 구성, 총리, 외교부장, 내무부장은 추장일가가 차지, 총리 자베르 알 아흐메드 알 자베르, 외교부장 사바흐 알 아흐메드 알 자베르, 국방부장 싸드 알 아브드 알라 발 사바

정치 1899년부터 영제국주의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61년 2월 25일 독립하였다.

1963년 1월 립헌군주제와 의회책임내각제를 규정한 헌법이 채택되였으며 1월 30일 이 나라 력사상 첫 국회선거를 진행하였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애급을 지원하여 자기의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미영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지하였다.

1970년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요르단반동들의 탄압책동에 항의하여 요르단에 주던 《년례보조금》을 끊었다.

1971년 1월 23일 제3기 국회선거를 진행하였다. 선거 결과 혁신세력이 20석을 차지하였다.

【주요사건】 1972년 1월 이란이 페르샤만의 3개섬을 강점한것을 반대항의하여 쿠웨이트정부는 이란으로부터 자기 대사를 소환하였다.

3월 22일 정부는 《아랍련합왕국》을 조작할데 대한 요르단 왕 후쎄인의 계책을 규탄하면서 팔레스티나인들과 아랍인민들의 승인을 받지 않는 어떠한 정치적해결책도 거부한다는것을 발표하였다.

7월과 12월에 우간다, 민주독일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원유채취업이며 주민의 20%가 여기서 일한다. 국가 수입의 90%가 석유에서 들어온다.

석유매장량은 1964년에 약 87억t으로 추산되였다. 매년 1억t이상의 석유를 생산하고있다. 쿠웨이트의 석유는 미, 영독점자본인 《쿠웨이트석유회사》(1934—2009년까지 석유개발권 탈취), 일본독점자본인 《아라비아석유회사》(1958년에 44년간의 개발권 획득)들이 독점하고있었다. 쿠웨이트정부는 이러한 외래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1960년에 국립석유회사를 창설하고 제국주의독점체들의 생산활동을 통제하고 석유채취범위를 줄이며 석유 채취와 가공, 국내에서의 원유제품의 판매및분배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또한 12개의 휘발유보급소들을 통제하게 되였다.

1970년에는 석유값과 세금을 더 올릴데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했으며 1973년 1월에는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석유회사들과 일체 련계를 끊고 서방제국주의나라들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독립후 정부는 석유채취일면에만 치우치던 경제의 편파성을 없애고 공업과 농업의 각 부문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결과 전력, 기계, 화학 공업을 비롯한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창설되였다. 독립후 새로 창설된 뇨소공장과 류산암모니아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다른 나라에까지 수출하고있다. 산업로동자는 약 1만명인데 그중 쿠웨이트인은 300~400명정도이다. 해변에 있는 주민들은 어업과 진주채취를 한다.

농업, 축산업도 있는데 주요농산물은 콩, 남새 등이다. 토지는 거의 족장들과 상인들이 독점하고있다.

1966년 10월에 쿠웨이트종합대학이 개교되였다.

【출판보도】 신문 알 라이 알암(정부계), 아흐바르 알 쿠웨이트, 데일리 뉴스, 알 칼라즈, 알 하다프, 쿠웨이트 타임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9월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68년 4월 20일 쿠웨이트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개설되였다.

1972년에 이 나라 신문들인 《알 라이 알암》, 《쿠웨이트 타임스》, 《데일리 뉴스》 등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인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와 일본 《요미우리신붕》과 《마이니찌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 등을 실었다.

1972년 7월 10일 신문 《데일리 뉴스》와 《쿠웨이트 타임스》는 7.4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1972년에 국회대표단(7월), 국회의원이며 《알아얌》지 주필(5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대표단은 7월 24일(국회대표단)과 5월 21일(국회의원)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바 레 인

(바레인 국가)

페르샤만서쪽기슭의 까타르반도 가까이에 있는 33개의 작은 섬(가장 큰 섬이 바레인섬—556km²)들로 되여있다. 주변은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다. 산림은 없고 재배식물과 사막에서 자라는 풀뿐이다.

【넓이】 598km²

【인구】 22만명(1971년)

주민의 대부분은 원주민인 쉬아파이고 지배계층은 순니파이다. 기타 이란인, 인도인, 파키스탄인 등이 있다.

【수도】 마나마(주민 약 8만명)

【추장】 이사 빈 술만 알 할리파(1942년—)

【각료회의(정부)】 1971년 8월 16일 국무회의를 각료회의로 고침, 총리 할리파 빈 술만 (추장의 동생, 1971년 8월—), 외교부장 모함메드 알 무바라크(추장의 동생), 국방부장 하마드 알 할리파(황태자)

【정당, 사회단체】 바레인민족해방전선 1956년에 결성, 바레인제도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이밖에 독립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정치조직으로서 바레인민족동맹(1953년에 조직)등이 있다.

정치 바레인은 할리파일가의 세습군주제의 추장국이다. 1892년조약에 의하여 영제국주의의 《보호령》으로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자 1945년 추장을 내세워 국무회의라는것을 조작해놓고 식민지통치를 유지하여왔다.

1971년 8월 14일 영국과의 예속적인 조약을 파기하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해 9월에 아랍련맹에 가맹하였다.

1971년 8월 16일 나라의 이름을 바레인국가로 제정하고 국무회의를 각료회의로 고쳤다.

바레인은 독립을 선포하면서 이웃추장국들과의 친선, 회교국가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의 협력, 페르샤만의 안전과 진보를 위한 노력, 빼앗긴 조국을 되찾으려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권리인정 등을 선언하였다.

1971년 8월 15일 영국과 새로운 《우호조약》을 맺었으며 1972년 1월 6일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바레인해군기지의 계속 사용을 인정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러한 협정들에 의하여 바레인에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해공군기지들이 계속 유지되고있다.

헌법과 립법기구는 없고 추장의 칙령에 의하여 립법권이 행사된다.

1971년 8월 우리 나라가 바레인을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석유생산이다. 국민소

득의 75%가 석유수출에서 얻어진다.

석유매장량은 약 4천만t에 달한다.

1967년에 360만t의 석유를 생산하였다. 1932년에 석유가 발견된 이래 제국주의자들이 기여들기 시작하였다. 미제의 독점체인 <칼리포니아>, <텍사스>, <바레인석유회사>(1940년부터 1995년까지의 채굴권을 가지고있다)등 3개의 회사가 석유채굴권을 독점하고 매년 200여만t이상의 석유를 략탈해가고있다.

바레인제도에는 년산 100만t능력의 정유소가 있으며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부근 나라들의 석유를 정제한다.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송유관으로 수송되는 석유도 정제하고있다.

진주채취가 유명하다. 일본독점체가 이것을 독점하고있다.

부침땅의 넓이는 령토의 5% 밖에 안되며 농업은 락후하다.

주요농산물은 벼이며 그외 남새, 사료작물을 생산한다.

물이 없으므로 대륙으로부터 약 150km의 수도관을 통하여 물을 공급받고있다.

수입상품의 70%를 린접나라들에 재수출하여 리윤을 얻고있다. 재수출품으로는 사탕, 차, 기타 상품들이다. 1958년 1월 마나마항을 자유항으로 만들고 재수출세를 폐지하였다.

주요수입품은 면직물, 기계류, 쌀, 가정용품등이다.

기본운수수단은 해상운수와 자동차운수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도이며 기타 기독교, 유태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상업을 위한 광고와 간단한 소식을 전하는 신문잡지들이 아랍어로 출판되고있다.

까 타 르

(까타르국가)

페르샤만서남쪽기슭에 있는 반도이다. 반사막지대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0mm이다. 지하수가 아주 적다.

【넓이】 2만 2,014km²

【인구】 14만명(1970년)

【수도】 도하(주민 약 10만명)

【추장】 할리파 빈 하마드 알 타니 (1972년 2월—)(총리, 외교부장 겸임)

정치

까타르는 타니 1가의 세습군주제 추장국이다. 1916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71년 9월 1일 영국과 맺었던 1916년의 예속적인 <조약>을 파기하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해 9월 3일 영국과 새로운 <우호조약>을 맺었다. 이해 까타르는 아랍련맹에 가맹하였다.

독립성명에서 공동의 리익의 호상존중, 호상내정불간섭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으며 아랍의 통일을 실현하며 빼앗긴 팔레스티나땅과 아랍땅을 되찾기 위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에 모든 수단을 바칠것이라고 하였다.

1970년 4월에 림시헌법이 제정되였으나 추장이 칙령으로 립법권을 행사한다.

내각성원은 10명중 8명까지 타니일가가 차지하고있다.

1971년 9월 우리 나라가 까타르를 승인하였다.

【주요사건】 1972년 2월 22일 황태자 하마드 알 타니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아호메드 알 타니추장을 내쫓고 정권을 잡았다.

22일 알 타니는 군인들과 국가공무원들의 임금을 20% 높이며 인민들에게 국가에 납부할 주택값을 면제해주며 모든 사회봉사일군들과 공무원들의 임금을 20% 높일것을 규정한 3개의 법령을 공포하였다.

1972년 4월 인도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경제에서 기본은 석유생산이다.

석유매장량은 약 4억t으로 추산되고있다.

1971년에 원유생산량은 2천만t이였다. 석유채굴에 의한 년수입은 1억 7천 400만 딸라에 달한다. 매년 1천만t의 원유를 수출하고있다.

1930년에 석유가 발견되였다. 석유채굴권은 미제의 <까타르석유 개발회사>(2010년까지의 채굴권가지고있다)와 영국의 <까타르쉘석유회사>가 독점하고있다.

주민들은 고기잡이와 진주채취도 한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하며 대부분 수입하고있다.

물이 바르기때문에 농사와 목축업에 지장을 받고있다.

아랍추장국

(아랍추장국련방)

아라비아반도의 동남쪽 페르샤만의 입구에 있는 7개의 추장국(아부 다비, 두바이, 푸쟈이라, 샤르쟈, 아즈만, 움알쿠와인, 카이마흐)으로 되여있다.

【넓이】 8만 6,300km²

【인구】 22만명(1971년)

주민의 대부분은 베트윈족(아랍인)이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아부 다비(주민 2만명)

【련방최고회의】 련방의 최고기관이다. 다수가결로 문제를 결정하는데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자문기관으로 34명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부 다비와 두바이에서 각각 8명, 샤르쟈 6명, 기타 4개국에서 각각 4명씩 참가하고있다. (라스알 카이마흐는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 (아부다비추장, 1971년 12월—)

【정부】 1971년 12월에 구성,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며 총리가 정부성원을 임명한다. 총리 마크룸 빈 라쉬드 엘 마크룸, 외교부장 아흐마드 할리타 엘 수와이디, 국방부장 모하메드 빈 라쉬드 엘 마크룸

정치

1892년에 7개추장국들은 영국의<보호령>으로 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각 추장국들에 영국이외의 그어떠한 나라와도 관계를 가질수 없게하는 배타적인 <협정>을 강요하여 식민지통치를 유지하여왔다.

1971년 12월 1일 6개추장국이 영국과의 보호조약을 폐기하고 련방을 창설하였으며 2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1972년 2월 라스 알 카이마흐추장국이 련방에 가입하였다. 련방성원국들은 추장을 원수로하는 세습군주국이다.

1971년 12월 2일 영국과 새로운 조약을 맺었다.

1971년 12월 6일과 9일에 아랍련맹과 유엔에 각각 가입하였다.

1971년 12월 우리 나라가 아랍추장국을 승인하였다.

【주요사건】 1972년 1월 24일 샤르쟈추장 쉐이크 할레드벤 모하메드 알 카세미의 사촌과 그의 지지자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켰으나 련방군에 의하여 진압되였다. 25일 살해된 추장을 대신하여 왕자인 쉐이크 사크 벤 모하메드 알 카세미가 새 추장으로 되였다.

1972년 1월 레바논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에 대통령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이 수단(2월), 리비아(3월), 수리아(3월)를 방문하였다. 3월 10일 수리아와의 공동콤뮤니케에서 쌍방은 무장투쟁이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강점된

아랍령토를 해방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인정하고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결정적인 투쟁에 아랍민족의 모든 력량을 동원하며 또한 팔레스티나유격대를 지지할것이라고 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10—15%가 유목민이다. 사막지대에서는 락타를 많이 기르고있으며 해안지대에서는 주로 진주를 채취하고있다. 두바이는 중계무역지대로 되고있다.

1960년대에 들어와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석유가 발견되였다.

1967년에 아브 다비석유생산량은 1천 80만t이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제국주의자들이 석유채굴권을 독점하고있다.

철길이 없으며 정식 도로도 없다. 사막에서는 락타와 노새를 리용하고있다.

재정은 각 추장국에서 석유수입의 10%씩 분담된다.

각추장국들은 발전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아부다비는 인구 1인당 국민소득이 6천 500딸라로서 자본주의세계에서 부유한 나라의 하나이며 푸자이라는 어업에만 종사하는 가장 빈곤한 나라중의 하나이다.

교육은 지방에서 자체로 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오 만

(오만추장국)

아라비아반도의 동남쪽에 있다. 해안을 제외한 령토의 대부분은 고원이다.

열대성기후로서 몹시 메마르고 강수량이 적다. 년평균기온은 1월에 20.7°C, 6월에 32°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30mm이다.

【넓이】 21만 2,300km²

【인구】 750만명(1971년)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인이며 해안지방에 흑인혼혈인이 많고 인도인, 흑인 등도 있다.

【수도】 마스까트(주민 1만명)

【추장】 가브스 빈 사이드

【정부】 총리 사이드 타리크 빈 타이무르 (추장의 삼촌)

【정당, 사회단체】 **오만및아랍만해방인민전선** 1971년 12월 20일 해방인민전선과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이 통합하여 결성.

중앙사령부는 중앙집행위원회, 조직위원회, 군사위원회, 재정위원회로 구성되였다. 이 나라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령도하고있다.

정치 18세기말부터 오만은 영국,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여있었다.

1839년과 1891년에 영식민주의자들은 오만에 예속적인 조약을 강요하여 점차 오만에서 프랑스세력을 몰아내고 제놈들의 지위를 강화하였다.

1913년 내륙지방인민들이 반영봉기를 일으켜 회교교주국을 세우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1920년 마스까트 주재 영국 령사와 회교교주는 조약을 맺었다. 이리하여 오만은 회교교주국과 영제국주의 괴뢰인 마스까트추장국으로 나뉘여지게 되였다.

1939년과 1951년에 마스까트오만의 추장이 영국과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과 《우호조약》을 맺음으로써 마스까트오만은 더욱더 영식민주의자들의 예속하에 들어갔다.

2차대전후 영제국주의자들은 오만을 저들의 지배하에 두기위하여 1955년에는 마스까트오만을 사촉하여 회교교주국을 반대하는 내란을 도발케 하고 직접적인 무장간섭을 감행하였다. 이때부터 오만인민은 영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길에 들어섰다.

1958년 7월 영제국주의자들은 마스까트오만과 《군사협정》을 맺고 이 지역에 제놈들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설치하고 이나라 군대의 통수권을 장악하였다.

이 나라의 민족해방투쟁이 강화되자 1965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마스까트오만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구실밑에 제놈들의 륙, 해, 공군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여 오만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였다. 1970년 7월에 타이무르추장의 아들 가브스 빈 사이드가 궁전정변을 일으켜 자기의 아버지를 내쫓고 정권을 장악하고 처음으로 내각을 조직하였다.

오만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 영제국주의자들과 그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오래동안 싸워오던 오만인민들은 1957년 7월 18일 회교교주 갈리브 빈 알리의 지도밑에 영침략자들과 그 괴뢰들을 반대하는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중근동에 배치한 제놈들의 륙해공군까지 끌어들여 대대적인 간섭을 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오만인민들은 그후 민족해방전선과 민족해방군을 조직하고 내륙산악지대를 근거지로 새로운 무장투쟁에로 넘어갔다.

1963년 민족해방군은 전국의 유격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민족해방군최고사령부》를 창설하였다.

1965년 6월 9일에는 도파르산줄기에서 영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이 시작되였으며 《도파르해방전선》이 창건되였다.

1968년 9월 《도파르해방전선》 제2차대회에서는 이 조직의 이름을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으로 고쳤다.

《도파르해방전선》은 무장투쟁을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몇해 사이에 도파르 북부산악지대의 광활한 지역을 해방하고 무장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1971년 10월부터 12월까지에만도 수많은 공격작전을 벌려 적 1천여명을 죽이고 영제국주의 전투기 2대와 직승기 1대를 쏘아떨구었으며 적들의 《추기공세》를 분쇄해 버렸다.

1971년 12월 20일 오만에서 활동하고있는 투쟁단체들은 오만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련합대회를 열고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과 오만민족해방전선을 통합하여 통일적인 중앙조직인 오만 및 아랍만해방인민전선 중앙사령부를 결성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목축업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목화, 담배, 대추, 야자 등이다.

산악지대에서는 락타를 기른다.

석유매장량이 풍부하나 채굴권은 미영제국주의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석유수입으로 충당하고있다.

철길이 없고 400km에 달하는 도로가 있다. 운수는 거의 락타를 리용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대추, 레몬, 마른물고기, 과일 등이며 수입품은 쌀, 천, 커피, 사탕등이다.

【출판보도】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기관지로서 쏘트 알 샤아브, 6월 9일(잡지)등이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반미세계기자대회에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970년 5월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6월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청년조직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민주예멘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라비아반도의 남쪽에 동서로 길게 뻗어있다. 홍해로 들어가는 관문을 지켜선 요충지로서 군사전략상 의의가 크다. 해안지대는 습기가 많고 더우며 내륙지대는 대륙성기후이다. 아덴시의 평균기온은 1월에 25°C, 7월에는 33°C이다.

【넓이】 28만 7,683km²

【인구】 180만명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인이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아덴(주민 약 25만명)

독립후 알샤아브(아덴교외)를 수도로 결정하였으나 아직 정부기관은 아덴에 있다.

【림시최고인민회의】 1971년 5월 14일에 창설된 최고주권기관이다.

로조대표 15명, 민족전선, 군대대표 등 101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

1971년 8월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총리, 정부성원을 선출하였다.

【대통령리사회】 1971년 8월 1일 쌀림 루바이아와 민족전선 총비서인 이스마일, 총리 하싸니를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정부】 1971년 8월 2일 구성, 총리 알리 나쎄르 무함마드 하싸니(국방부장겸임), 외교부장 모하메드 사르 오우라끼.

【정당, 사회단체】 **민족전선** 전신은 1963년 8월 9일에 창건된 남부예멘해방전선으로서 남부예멘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하였다. 독립후 집권당으로 된 남부예멘의 유일당, 총비서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

로동조합총련맹, 녀성련맹, 청년련맹(1973년 2월 창립), **알 쌀라피민주청년조직, 예멘조선친선협회** 1969년 5월 5일 결성, 위원장 아브둘 라자크 샤프 샤헤르.

정치

1839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아덴항을 강점하고 이를 거점으로 점차 예멘의 남쪽지역을 떼내여 아덴이란 나라를 조작하였다.

1962년 4월 회교왕국, 추장국, 교주국, 소왕국 등의 졸개들을 긁어모아 《남아라비아련방》을 조작하고(1963년 1월 아덴식민지도 이에 병합)식민지통치를 강화하였다.

남부예멘인민들은 영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1963년 8월 남부예멘민족전선이 조직되였으며 10월 14일 라드판지역에서 첫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다.

1967년 6월 20일 영국의 괴뢰군인 아랍인수비대군인들이 영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민족주의군대와 무장한 인민들의 투쟁에 합세하였다. 무장부대는 각지에서 병영, 괴뢰립법리사회, 재판소, 은행, 석유창고들을 파괴하였으며 감옥을 습격하여 정치범을 석방하였다. 이리하여 1967년 8월 《남아라비아련방》괴뢰정부가 무너지고 11월 26일까지 영침략군이 쫓겨났다.

11월 30일 남부예멘은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정부는 독립을 공고히하며 경제와 군사분야에서 식민지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1967년 12월말에 정부는 정령을 발표하여 영제국주의자들의 괴뢰고위군사관리들과 왕족출신의 군사장교들을 몰아냈다. 그리고 외국독점체들과 관료배들, 도망친 추장, 회교군주들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1968년 10월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고 봉건령주, 반동지주들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무상분배하였다.

1969년 12월 27일 일체 외국인소유의 은행, 해운회사, 보험회사, 석유판매 및 무역회사 등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남부예멘에서 반제적조치가 취해지자 미제는 남부예멘에서의 혁명세력의 장성을 막아보려고 이나라에서 쫓겨난 반동들과 사우디 아라비아, 오만 등지의 반동파들을 긁어모아 그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대주어 남부예멘을 반대하는 도발에로 내몰았다.

남부예멘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였다.

1970년 11월 30일 새 헌법을 채택하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헌법에서는 현단계에서의 혁명의 성격을 《민족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당면과업으로 내세웠으며 장차로는《과학적사회주의》를 건설할것을 규정하였다.

1971년 2월 전국국방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5월에는 최고주권기관인 림시 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였다.

대외적으로는 1969년 6월에 서독군국주의자들과 10월에는 미제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0년 1월에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지원병을 파견하였다.

【주요사건】 1972년 1월 3일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는 민주예멘 령해에 대한 외국선박들의 비법적인 침입을 금지하는 포고를 발표하였다.

2월 민주예멘 군대와 인민은 제나도 북부의 베이한지역에 침입했던 2천여명의 제국주의 고용병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쳤다. 이 전투에서 고용병우두머리들을 비롯한 65명을 죽이고 수많은 무기와 군용자동차를 빼앗았다. 2월 21일 국방리사회는 제국주의고용병들의 범죄적인 무력침공에 대처하여 군대와 인민에게 만단의 준비를 갖출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3월 2일부터 6일까지 아덴에서 민족전선 제5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민족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민족전선의 행동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였으며 민족전선중앙위원회, 정치국 기타 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대회에서는 민족전선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이 선거되였다.

3월 정부는 아라비아반도의 민족해방투쟁을 파괴하려는 아랍반동들의 음모책동을 폭로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5월 16일 외교부는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반동계층이 민주예멘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준비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5월 정부는 바디 헤브루르지역에 대한 야만적인 폭격을 감행한 영제국주의자들과 영제국주의공중비적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민주예멘령토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한 오만반동고용병들의 도발적인 무력침공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5월 16일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하였다.

6월 9일 아덴에서 도파르인민혁명 7돐을 경축하는 대군중집회와 시위를 진행하였다.

6월 림시최고인민회의 비상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나라의 대내외정책문제들, 외부의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방위태세를 확립할데 대한 문제, 일련의 경제문제들이 토의되였다.

8월 민족전선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영제국주의자들과 아랍반동들이 민주예멘의 국경근방에 군사력을 집결시켜 공격을 개시하려고 책동하고있는 사실을 폭로규탄하여 중요정치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민주예멘 정부는 식민주의자들

의 앞잡이었던 추장들과 반동들이 가지고있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법령에 따라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은 인민들을 위한 편의봉사시설로 리용되며 일부는 집이 없는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되였다.

9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고용병부대에 복무하면서 민주예멘을 반대하는 파괴암해책동을 감행하던 31명의 고용병들이 여러가지 무기를 가지고 민주예멘에 의거하여왔다. 9월말부터 북부예멘과 국경지역에서 무장충돌이 있었으나 10월 19일 정화가 실시되고 11월 28일 남북예멘의 통합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가 쏘련을 방문하였으며 림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이며 민족전선총비서인 이스마일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목축업에 종사한다.

부침땅은 12만 1천여정보에 달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이며 그밖에 담배, 밀, 보리, 기장, 수수, 커피, 참깨, 남새 등이다. 1969년에 목화는 1만 1천 700t, 기장 및 수수는 6만 1천 200t, 참깨는 3천t 생산되였다.

1968년 10월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왕족들, 추장들의 땅을 몰수하여 농업로동자, 빈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토지매매와 상속을 금지하며 고용농을 두지못하게 되였다.

1972년 10월 현재로 6만 3천 835에이커에 달하는 땅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토지개혁법령발표후 농업협동조합들이 조직되였으며 황무지개간사업과 관개공사들이 진행되었다.

1972년에만도 7천여에이커의 메마른 땅에 물을 대주게 될 알리—아라에쓰저수지와 알리—무드좌히드저수지, 3천ha의 땅에 물을 대주게 될 아호바르지역 저수지가 새로 건설되였다.

3개년계획 (1971—1973년)이 수행되면 1만 8천에이커의 땅이 새로 개간되게되며 농산물생산은 26%, 집짐승마리수는 20%나 늘어나게 된다.

1969년에 영, 프, 미, 요르단, 인도, 파키스탄계의 은행, 석유판매망 등 36개의 외국기업이 국유화되였다. 또한 8개의 외국은행이 남부예멘국립은행에 병합되였다. 개인기업들은 국유화되고 경제는 계획경제에 의하여 운영되고있다. 독립후《자력갱생하여 혁명을 수호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자》라는 구호밑에 알루미니움공장, 방직공장, 농산물가공공장 등 많은 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였다. 1972년에 우리 나라의 원조로 농기계수리공장과 제5도 메이파하자르지구에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관개공사가 완공되였다.

3개년계획이 수행되면 세멘트공장, 방직공장, 신발공장, 남새및물고기가공공장을 비롯하여 60개의 공장이 새로 건설되게 되며 총연장 325km의 길이 새로 닦아지게 된다.

아덴에는 이나라 최대의 공장인 680만t능력인 정유소가 있다. 이 정유소에서는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으로부터 오는 석유를 정제한다.

이 밖에 제염, 담배, 섬유공업 등이 있다. 아덴항은 인도양과 홍해를 련결하는 중계무역항으로되고 있다.

1970년—1971학년도에 770여개의 각급학교들에서 14만 2천명의 학생들이 공부하였다. 3개년계획기간에 59개의 학교가 새로 건설되며 인민학교의무교육제가 실시된다.

또한 식민지통치의 악독한 후과인 글모르는 사람을 없애기 위하여 각지에 40여개의 전문기관을 만들어 놓고 성인교육사업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출판보도】 **통신** 아덴통신

신문 옥토부르(정부기관지), 앗 싸우리(민족전선기관지),싸우툴 움말(로총기관지).

방송 남부예멘방송(국영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2월 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5월 5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6월에는 우리 나라가 민주예멘에 경제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71년 4월 10일 우편업무에 관한 협정,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4월 14일에는 우리 나라 중앙방송위원회와 민주예멘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국사이에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서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하여 1970년에 아덴항구로동자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4월 11일), 학생전국총동맹 아덴시 타와이지부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5월 11일), 1도 비르 아호메드지구 청년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9월 1일)등이 조직되였으며 1971년 1월 25일에는 아덴시 교원들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가 결성되였다.

1971년 2월 우리 나라는 민주예멘정부와 인민에게 분도젤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원조물자를 보내주었다. 또한 1972년에는 우리 나라의 원조로 농기계수리공장이 건설되였다.

1972년 4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마흔돐에 즈음하여 민주예멘군 제22려단에서 군인집회를 가졌다. 9월 민주예멘조신친선위원회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후 남조선에서 반동들이 애국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 학살하고 있는것을 폭로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주예멘 신문《앗 싸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환영하는 론평을 발표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1972년에 민주예멘 민족전선 및 정부대표단(7월), 정부군사대표단(4월), 제1도대표단(6월), 녀성총동맹대표단(7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민족전선 및 정부대표단(7월 20일), 정부군사대표단(4월 24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이해에 우리 나라로부터는 정부대표단(2월), 군사대표단(6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두 예멘간의 무장충돌에 대하여

1972년 9월 26일부터 남부예멘과 북부예멘사이에는 예멘사람들끼리 싸우게함으로써 아랍인민들의 통일을 와해하려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무장충돌이 벌어졌다. 이 충돌에서 량측은 호상 비행기와 땅크, 포 등 중형무기까지 동원하여 상대방의 도시와 섬을 점령하는데까지 이르렀으며 충돌은 전면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위험성에 처해있었다.

이 충돌의 결과 남부예멘은 북부예멘의 수도 사나로부터 남쪽으로 180km 떨어진 카타바시를 점령하였으며 북부예멘은 남부예멘의 수도 아덴으로부터 북쪽 80마일 떨어진 달레이주의 4개 촌락과 1천 500명의 주민이 살고있는 카마란섬을 점령하였다. 이 충돌과정에 군대와 민간인들이 수백명 희생되였다.

9월 29일 남부예멘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는 북부예멘공화리사회 위원장 알 이리야니에게 두 예멘사이의 전면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싸우지말것을 제기하였다.

9월 30일 남북예멘은 동시에 아랍련맹에 이 사실을 제소하고 두 예멘사이의 전쟁을 중재하여줄것을 요구하였다. 량측의 요구에 의하여 10월 4일 아랍련맹은 알제리, 애급, 쿠웨이트, 리비아, 수리아 등 5개국으로 《화해위원

단>을 구성하여 두 예멘에 파견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10월 3일 남부예멘군은 점령하였던 북부예멘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였다.

북부예멘도 점령한 남부예멘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정전을 하자고하면서 충돌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하여 10월 9일 남부예멘은 즉시 정화를 호소하고 남북예멘의 수뇌자회담을 열것을 제기하였다.

10월 13일 아랍련맹 <화해위원단>은 두 예멘지도자들과 따로 협의하고 남북예멘사이의 즉시적인 정화, 국경선으로부터 군대의 10km 철수, 국경지대에로의 부대집결의 금지, 선전깜빠니아의 종식 등 새 평화안을 내놓고 이를 량측이 접수할것을 요구하였다.

10월 19일 아랍련맹의 중재로 두 예멘사이에는 정화가 이룩되였다.

10월 21일부터 까히라에서 두 예멘사이에 평화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남부예멘이 내놓은 두 나라사이의 통합문제를 토의하고 10월 29일 남북예멘 총리들이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 의하면 쌍방은 국경지역으로 군대를 각각 철수하고 무장충돌이후 생긴 두 나라사이의 국경을 개통하며 모든 파괴활동을 끝장내고 호상상대방을 반대하는 적대행위를 중지하며 이주민들과 피난민들을 자기들의 희망에 따라 본국으로 각각 돌아갈수있도록 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또한 두 예멘은 1개월내에 의견차이를 해결하며 1년내에 통일적예멘국가를 세울데 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11월 26일부터 두 예멘간의 통합협정의 리행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리비아의 타라불스에서 남부예멘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와 북부예멘 공화리사회 위원장 아브둘 라호만 알 이리야니가 회담을 진행하고 28일 남북예멘의 통합에 관한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콤뮤니케에 의하면 통일후의 새 예멘국가를 <예멘공화국>으로 부르며 수도는 사나에 두고 새국기는 붉은색, 흰색, 검은색으로 하며 국교는 회교, 공용어는 아랍어로 한다.

예멘아랍공화국의 9월 26일혁명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0월 14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동시에 지난 10월 까히라에서 이루어진 두 나라의 통일에 관한 합의사항을 리행하여야 한다.

새 예멘국가의 정치체제는 민족민주주의정치체제로서 식민주의정권과 추장정권, 봉건통치의 잔재를 청산하여야 한다.

두 나라 국가수반들은 두 나라 성원들로 구성되는 헌법문제, 외교문제, 군사문제 등 8개의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들이 통일의 실현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데 동의하였다.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나에서 남북예멘간의 통합을 위한 대표자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1973년 1월 20일에 8개의 위원회가 아덴파 사나에서 각각 협의를 시작하며 이 위원회들은 남북예멘대통령들에게 제출하기 위한 보고를 1973년 6월 15일까지 내놓기로 하였다.

12월 26일 두 예멘은 4개월간에 걸친 정치적 및 군사적긴장상태를 끝장낼데 대한 합의문에 조인하고 량측의 공동국경선에서 군대를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통합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1973년 1월 20일부터 공동위원회들이 아덴파 사나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월 14일 남북이 포로교환에 합의하였다.

예　　멘

(예멘아랍공화국)

아라비아반도의 서남쪽 끝에 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산지와 고원으로 되여있다. 그러나 홍해기슭은 모래땅이며 동부지대는 반사막과 사막이다. 수도 사나는 해발 2천 300m나 되는 높은곳에 있다.

기후는 열대성기후이며 지역별 차이가 심하다.

사나의 년평균기온은 약 35~45°C 이다.

【넓이】 19만 5,000km²

【인구】 700만명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인이며 그외 페르샤인, 소말리아인, 인도인 등도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사나(주민 12만명), 제2수도는 타이즈(8만명)

【협상리사회(국회)】 1971년 4월에 공화파, 왕당파, 추장 등 각이한 정치세력을 망라하여 창설. 159명중 127명은 일반선거에 의하여 선거하며 32명은 정부가 임명한다.

【공화리사회】 1967년 11월 정변후 조직된 최고권력기관이다. 위원장 아브둘 라호만 알 이리야니와 총리를 비롯한 4명

【정부】 1972년 12월 30일 구성. 총리 아브둘라 알 하자리, 외교부장 무함머드 아흐메드 누만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동맹(집권당) 1967년 정변후 조직된 유일한 정당.

정치 예멘은 1517~1632년과 1849~1918년 2차에 걸쳐 토이기에 정복되여 장기간 그의 통치를 받았다. 20세기초엽 예멘인민들은 토이기 통치를 반대하는 대규모적폭동을 일으킨 결과 토이기는 예멘의 자주권을 승인하였다. 1차세계대전이 끝난후 1923년 토이기의 기반에서 벗어나 독립왕국으로 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839년에 예멘의 령토인 아덴을 강점하고 그후 예멘의 일부 지역을 아덴에 병합하여 예멘의 남부지역을 저들의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1934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예멘과 사우디 아라비아가 국경분쟁문제로 인하여 싸우고있는 틈을 타서 예멘과 40년을 기한으로하는 사나조약을 체결한후 계속 예멘을 강점하고 경제적침투를 강화하였다. 1947년 5월 미제는 예멘에 100만딸라의 차관을 주는 대가로 석유채취권을 탈취하고 예멘에 침투하였다. 1958년에 애급, 수리아와 함께 아랍련합공화국을 형성하였다가 1961년 12월 23일 떨어져나왔다.

1962년 9월 26일 낡은 봉건적군주제도가 전복되고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첫 대통령으로 살랄이 취임하였다. 살랄정부는 1962년 10월 미제의 석유채취를 중지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공화정부가 수립되자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예멘아랍공화국을 약해시키려고 쫓겨난 왕당파들을 사촉하여 내란을 일으켰다.

1962년 10월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예멘왕당파,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등에서 반동들을 긁어모아 이 나라에 대한 무력간섭을 감행하였다. 예멘은 1962년 12월 애급과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애급은 군대를 파견하여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예멘을 지원하였다. 1964년 11월 정화협정이 체결되였으나 그후에도 이러한 반란은 계속되였다. 1963년 4월 13일 예멘력사상 처음으로 헌법이 선포되였다. 헌법에는 모든 공민들은 평등하다는것과 회교를 국교로 규정하였다. 이해 5월 정당 및 사회단체의 조직을 금지하는 법령이 발포되였다.

1967년 11월 5일 군사정변이 일어나 살랄정권이 무너지고 알 이리야니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화리사회가 창설되

었다.

1970년 3월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다에서 예멘정부, 사우디 아라비아정부, 예멘왕당파간에 8년간에 걸친 내란을 끝장낼데 대한 타협적인 <정화협정>이 체결되였다.

1971년 4월 예멘정부는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공화파, 왕당파, 추장세력 등 각이한 정치세력을 망라하는 협상리사회를 창설하였으며 그후 정부의 요직에 왕당파와 추장계세력들이 인입되였다.

1971년 4월 프랑스, 사우디 아라비아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 7월에는 중근동전쟁때 끊었던 미제와의 외교관계를 재개하였다.

1972년 9월말에 남부예멘파의 국경지역에서 무장충돌이 있었으나 10월 19일 정화가 이룩되였으며 11월 28일에는 남북예멘의 통합에 관한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1972년 12월 30일 하쟈리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12월 31일 하쟈리총리는 취임선서를 하면서 새 정부의 가장 선차적인 2가지 과업을 남부예멘파 맺은 통일협정의 리행파 북부예멘의 행정 및 재정의 개혁이라고 규정하였다.

예멘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다.

또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해방위업을 적극 지지하며 아랍인민의 민족적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부침땅은 약 230만정보이며 2~3모작한다.

주요농산물은 수수(알곡생산의 90%를 차지) 보리, 밀, 강냉이, 목화, 커피, 야자, 종려 등이다.

공화국이 수립된후 정부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토지개량사업과 관개공사를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1969년이래 계속된 심한 가물을 이겨내면서 농업생산을 높였다. 이리하여 수수는 년평균 90~120만t, 목화는 년평균 5천t 생산된다.

동부지방과 홍해연안에서는 주로 축산업을 한다.

지하자원은 금, 은, 찌단, 망간, 석탄, 쇠돌, 류황, 석회석 등이다. 공업으로는 알루미니움공장, 방직공장, 비료공장, 제철소, 세멘트공장, 식료가공공장 등이 있다. 금, 은 장식물을 가공하는 수공업이 비교적발전하였다. 경제는 자유시장체계에 의거하고있다. 철도가 없으며 운수수단으로 락타를 많이 리용한다. 1972년에 사나로부터 산간지대를 거쳐 홍해항구 호데이다에 이르는 도로공사를 진행하였다.

주민의 90%이상이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예멘통신

신문 알 쭘후리아, 알 싸아브, 알 리싸라, 알 와하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3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4년 9월 18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 11월 10일 사나시고급중학교 학생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2년에 신문 <알 싸아브> 7월 8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국<뉴욕타임스>지 기자들파 하신 담화를 실었다.

조선인민군 창건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사나군사학교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를 가졌다.

7월 25일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사나에 있는 아랍문화회관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1972년에 이전 총리 아이니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7월), 정부군사대표단(4월), 정부공보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정부대표단(7월 28일), 정부 군사대표단(4월 24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토 이 기

(토이기공화국)

흑해와 에게해를 통하는 보스쁘라스, 다다넬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세아, 구라파 두 대륙에 걸쳐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평균해발 800~1천 200m 높이의 고원이다.

메마른 대륙성기후이며 강수량이 적다. 앙까라의 년평균강수량은 230mm이다.

【넓이】 78만 576km²

【인구】 3,437만 5,000명(1970년)

토이기족이 80%이상이고 그밖에 쿠르드족, 희랍족, 그루지아족, 아랍족 등이 있다.

공용어는 토이기어

【수도】 앙까라(주민 164만 4,300명)

【국회】 상하량원제

【대통령】 쉐보데트 수나이(1966년 3월—)

【정부】 1971년 12월 정의당, 인민공화당, 민족신임당의 련립정부구성. 1972년 5월 내각개조, 총리 메리트 멜렌, 외교부장 할루크 바윱켐, 국방부장 메호메트 이즈멘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1월 18일 창건, 1923년에 비법화. 제1비서 야쿠브 데미르, 로동당(1971년 7월 비법화), 정의당, 인민공화당, 민족신임당, 신토이기당, 공화농민민족당, 사회민주당, 로동련맹평의회, <혁명청년련맹>.

정치 토이기는 제1차 세계대전전까지 오토만제국이라는 한개 봉건국가였다. 14—16세기에 중근동파 북아프리카, 구라파의 넓은 지역에 세력을 뻗쳐 세계제1의 봉건국가를 창건하였다.

17세기부터 몰락하기 시작하여 18세기에는 구라파렬강들이 그의 령토를 나누어 가지기 시작하였다. 1차대전시기 토이기는 잃은 땅을 되찾기 위하여 독일파 동맹하여 전쟁에 참가하였으나 패전하였다.

1919년 5월 반봉건왕조혁명으로 왕제가 철페되고 1923년 10월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941년 6월 파쑈독일파 <우호호상불가침조약>을 맺고 2차세계대전시기 파쑈독일을 지지하면서 정세를 보다가 1944년 8월 독일파 외교관계를 끊고 1945년 2월 23일 대독선전을 포고하였다. 전후 미, 영제국주의자들의 졸개로서 사회주의나라들파 중근동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면서 침략적인 나토(1952년)와 쎈토(1955년)에 가담하였다. 1959년 3월에는 미제와<쌍무군사협정>을, 1962년 5월에는 서독파 <군사원조협정>을 맺었다. 이밖에도 미제는 토이기에 각종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여 100여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토이기령토를 사회주의나라들파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군사전략기지로 리용하고있다. 토이기에 대한 미제의 <군사원조>는 년평균 1억딸라에 달한다.

토이기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 침략전쟁에 고용병을 보냈으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성원국으로서 계속 조선인민의 자주적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토이기인민들은 나토에서의 탈퇴, 미군사기지의 철페, 미제와 맺은 예속적인 협정의 페기를 요구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반정부무장조직들의 활동이 강화되였다.

정부는 1971년 4월 26일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11개주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검거소동을 벌렸다.

1972년 4월 3일 수나이대통령은 모든 정치활동을 정지시키고 잠정적인 기간 포고령으로 나라를 통치한다고 선포하였다. 5월 에림총리가 사임하고 멜렌을 총리로 하는 새 내각이 구성되였다.

4월 17일 앙까라에서 쏘련과 토이기간에 평화 친선 및 선린관계에 기초하여 쌍무관계를 발전시킴데 대한 8개항목의 공동선언이 발표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약 70%이상이 농사를 한다. 경지면적은 약 2천 534만 정보이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담배, 밀, 보리, 파일등이다. 고원지대에서는 말, 락타, 면양, 산양 등을 기른다.

지하자원은 크롬, 동, 석탄, 망간, 원유, 쇠돌등이다.

주요공업부문은 채광업이다. 광업은 국민소득에서 약 15%를 차지한다. 섬유, 세멘트, 종이, 유리, 도자기 공업등이 있다.

경제명맥은 미제의 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1971년 7월에 158만 9천 500명의 실업자대군이 있었다.

해마다 실업자가 평균 4만명씩 늘어나고 있으며 10만명의 로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난다.

인구의 98%가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아나토리에통신 **신문** 우루수(인민공화당기관지), 숌후리에트, 추리에트, 예니 사바.

끼쁘로스

(끼쁘로스공화국)

지중해의 동남쪽에 있는 섬나라이며 아세아, 구라파, 아프리카의 3대륙을 련결하는 군사적요충지로 되고있다. 북부와 남부에 산맥이 놓여있으며 중앙부는 평지이다.

【면적】 9,250km²

【인구】 63만 3,000명(1970년말)

희랍계주민이 77%, 토이기계주민이 18%이다. 그 밖에 아르메니야인, 레바논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희랍어와 토이기어

【수도】 니코시아(11만명)

【국회】 일원제, 총의석 50석중 희랍계인 35석, 토이기계인 15석 차지

대통령은 희랍계인, 부대통령은 토이기계인 중에서 선출된다.

정부와 국가기관에서 희랍계인과 토이기계인 수의 비률은 7대 3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마카리오스 (1960년 8월 16일—)

1973년 2월 세번째로 재선, 임기 5년, 부대통령 라우프 뎬크타쉬 (1973년 2월—), 외교부장 죤클 크리스토피데스

【정당, 사회단체】 **근로인민진보당** 전신은 1926년에 창건된 공산당이다. 1941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침, 총비서 에제키아스 파파이오안누, **애국전선** 마카리오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 지도자 마카리오스, **토이기민족련맹** 토이기계인들의 정당, **전끼쁘로스로동련맹, 민주련맹** 마카리오스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 **통일민주청년조직, 녀성련맹, 끼쁘로스조선친선협회** 1972년 2월 결성.

정치 4세기말에 희랍제국의 령토로 되였으며 1571—1878년에는 토이기제국에 강점되였다.

1914년에 영식민주의자들이 끼쁘로스를 자기나라에 병합하고 1925년에 식민지로 만들었다.

희랍계주민들은 끼쁘로스의 희랍복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토이기는 끼쁘로스가 토이기계인과 희랍계인으로 분할통치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토이기계인과 희랍계인 간에는 반목이 계속되여왔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방해하기 위하여 두민족들간의 분쟁을 각방으로 조장시켰다. 이와같은 분쟁끝에 1959년 2월 희랍과 토이기간에 《쮸리히협정》이, 영국, 희랍, 토이기간에 《런던협정》이 체결되였다. 이협정에 의하여 영국, 희랍, 토이기는 끼쁘로스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였다. 이리하여 영식민주의자들은 99평방마일의 군사기지를 강탈하였으며 여기에 《쎈토》공군기지를 설치하고있다. 희랍과 토이기는 각각 침략군을 주둔시키게 되였다.

3개국협정에 따라 1960년에 식민주의자들이 작성한 헌법에 의하면 희랍계주민과 토이기계주민의 구성비률은 의회, 정부, 국가기관들에서 7대 3, 군대에서는 6대 4, 대통령은 희랍계인, 부대통령은 토이기계인으로 선출하며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의회에서 채택된 법령과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1963년 11월 마카리오스대통령은 비법적으로 강요된 불평등조약인 1959년 3개국협정의 수정과 소수민족인 토이기계주민들에게 많은 권리를 준 헌법의 페기를 선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영제국주의자들은 끼쁘로스반동들을 부추겨 1963년 12월 두 민족간에 류혈적인 충돌을 일으키게하고 1964년 3월 《질서유지》라는 미명하에 8개추종국가군대로 침략적인 《유엔평화유지군》(약 4천명)이란것을 조작하고 이 나라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였다. 이 《유엔평화유지군》의 주둔기간은 해마다 연기되고있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끼쁘로스를 아세아, 아프리카지역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진압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나토의 군사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책동하고있다.

1971년말에 열렸던 《나토》회의에서는 이 섬의 두민족을 그들의 《모국》에 통합시키는 방법으로 끼쁘로스를 《나토》의 군사적부속물로 전변시킬 음모를 꾸몄다.

희랍과 토이기는 끼쁘로스에 있는 자기 민족들의 리익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자기 민족거주지역에 자기 려단들을 주둔시키고있다. 희랍은 1천 500명의 분견대와 끼쁘로스 민족안전군을 훈련시킨다는 명목밑에 1천 300명의 장교들을 주둔시키고 병사들속에 희랍과의 통합, 반마카리오스사상을 주입시키고있다. 또한 반동들을 긁어모아 반정부활동에 내몰고있다.

미영제국주의자들과 희랍, 토이기 반동들의 책동으로 끼쁘로스정세는 계속 긴장되고있다.

【주요사건】 1972년 1월 6일 말따로부터 쫓겨나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캔베라비행기 4대가 끼쁘로스에 있는 영국공군의 아크로티리기지에 도착하였다.

1월 근로인민진보당은 영제국주의군대가 끼쁘로스에 기여드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2월 11일 희랍반동군사정부는 마카리오스대통령에게 외국으로부터 구입한 무기를 《유엔평화유지군》에 바칠것과 희랍에 대하여 적대적인 인물들을 제거하고 희랍과의 통합을 지지하는자들을 포함하는 이른바《거국적인 통일정부》를 형성할것을 강요하였다.

2월 13일 마카리오스대통령은 희랍반동정부의 이 요구를 거부하였다.

희랍반동정부와 토이기반동정부는 이와같은 요구를 거듭 강요하면서 마카리오스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끼쁘로스주둔 영국침략군과 희랍 및 토이기군, 《유엔평화유지군》 그리고 희랍군대의 지휘밑

에 있는 끼쁘로스경비대들은 《비상대기태세》에 들어갔다.

끼쁘로스의 반동계층은 마카리오스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반정부활동을 강화하였다.

3월 2일 희랍정교회, 장로회의를 비롯한 반동적인 친희랍단체들이 마카리오스의 사임, 희랍과의 통합을 공공연히 제창해나섰다.

3월 19일 마카리오스는 장로회의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였으며 끼쁘로스인민들은 희랍과 국내반동들의 도전에 격분하여 마카리오스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렸다.

3월 3일 니코시아에서 5천명의 희랍계끼쁘로스인들이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만을!》이라고 웨치면서 시위를 진행하였다.

3월 14일 근로인민진보당은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사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끼쁘로스사태를 토의하고 마카리오스정부를 끝까지 지지하기로 하였다.

3월 3일 끼쁘로스의회도 성명을 발표하여 마카리오스에게 대통령직에 계속 남아있을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희랍과 끼쁘로스량국간의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것을 요청하였다.

6월 8일 니코시아에서 희랍계주민과 토이기계주민 대표들사이에 관계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다시 열렸다.

6월 15일 마카리오스대통령이 내각을 개조하였다.

6월 15일 유엔안보리사회는 160명의 유엔평화유지군의 끼쁘로스주둔을 12월 15일까지 연기하였다.

끼쁘로스는 11월과 12월에 파키스탄, 민주독일과 각각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주민의 절반이상이 농사를 한다. 부침땅은 약 40만 4천 680ha에 달한다.

주요농산물은 감자, 밀, 보리, 귀밀, 포도 등이다.

경제에서 채광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쇠돌, 구리, 크롬광 등을 생산하여 수출한다.

장기간의 식민지통치와 국내정세의 불안정으로하여 인민생활은 곤난하며 해마다 수천명이 살길을 찾아 다른 나라로 떠다닌다.

희랍계주민은 희랍정교, 토이기계주민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끼쁘로스, 엘레프테로스코스모스, 하라브기, 싸로스, 필레레.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2월 끼쁘로스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를 이 나라 신문《하라브기》(1970년 3월)와 《싸로스》(1971년 7월)가 각각 실었다.

1972년 4월 우리 나라 사회과학자대회에 끼쁘로스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띠 모 르

(뽀르뚜갈식민지)

인도네시아 쟈바섬동쪽 소순다렬도안에 있다. 이 나라는 이 렬도에서 가장 큰 띠모르섬의 동부와 그 부근의 깜방섬과 쟈꾸섬, 뿔로야꼬섬으로 이루어져있다. 띠모르섬의 서부는 인도네시아땅이다. 대부분이 산지이며 띠모르섬에는 동서로 산줄기가 복잡하게 뻗어있다. 이 산줄기에는 높이가 1천 200m되는 산호초들도 있다.

철바람기후대에 속하며 장마철과 가물철(5～10월)이 명확히 구분된다. 기온은 몹시 더우며 여름에 45°C를 넘는때가 많다. 년강수량은 700～750mm 이며 비는 주로 1～3월사이에 내린다.

【넓이】 1만 4,925km²

【인구】 55만 9,000명(1971년)

주민의 대부분이 띠모르인이며 중국인, 뽀르뚜갈인, 인도인 등도 있다.

공용어는 뽀르뚜갈어

【행정중심지】 딜리(주민 1만 9,000명)

1586년 띠모르섬 전체가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되였다.

1661년 화란식민주의자들이 이섬의 서부지역에 침입하였다. 1859년 4월 화란－뽀르뚜갈조약에 의하여 서부지역을 화란이 차지하게 되였다.

1904년 식민주의자들은 제놈들이 강점한 지역들의 국경선을 확정하기 위한 회담을 벌려놓고 섬의 중부를 일직선으로 갈라 국경을 만드는데 합의하였다.

화란이 차지하고있던 이섬의 서부지역은 2차대전후 화란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가 독립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령토로 되였으나 동북지역은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남아있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띠모르를 아오먼(마카오) 행정구역에 편입시켜 총독통치를 실시하여오다가 1896년부터 총독을 따로 두고 통치하였다.

1951년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헌법》을 개정하고 띠모르를 뽀르뚜갈의 한개주로 편입시켰다.

1950년대말－1960년대초에 와서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이 나라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였다. 1962년 쟈까르따에서 《띠모르해방위원회》가 창건되였으며 다음 해에는 쟈까르따에서 《띠모르련합공화국정부》가 조직되였다.

총독이 나라를 통치하고있다. 총독의 보조기관으로 립법 및 행정위원들이 있다. 위원들의 일부는 선출하며 나머지는 임명한다. 농촌과 산지에서는 추장을 통하여 통치하고있다.

주민들은 주로 농업을 하나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년산 약 1만 4천t), 벼(약 1만 4천t), 고구마(3천 500t) 등이며 그밖에 코프라, 천연고무, 커피를 생산하고있다.

원주민은 주로 목축업을 하고있다.

소와 물소는 15만마리이상, 양과 염소는 약 30만마리, 돼지는 약 20만마리, 말은 약 30만마리 있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와 배가 기본수송수단이다. 자동차길은 약 2천 900km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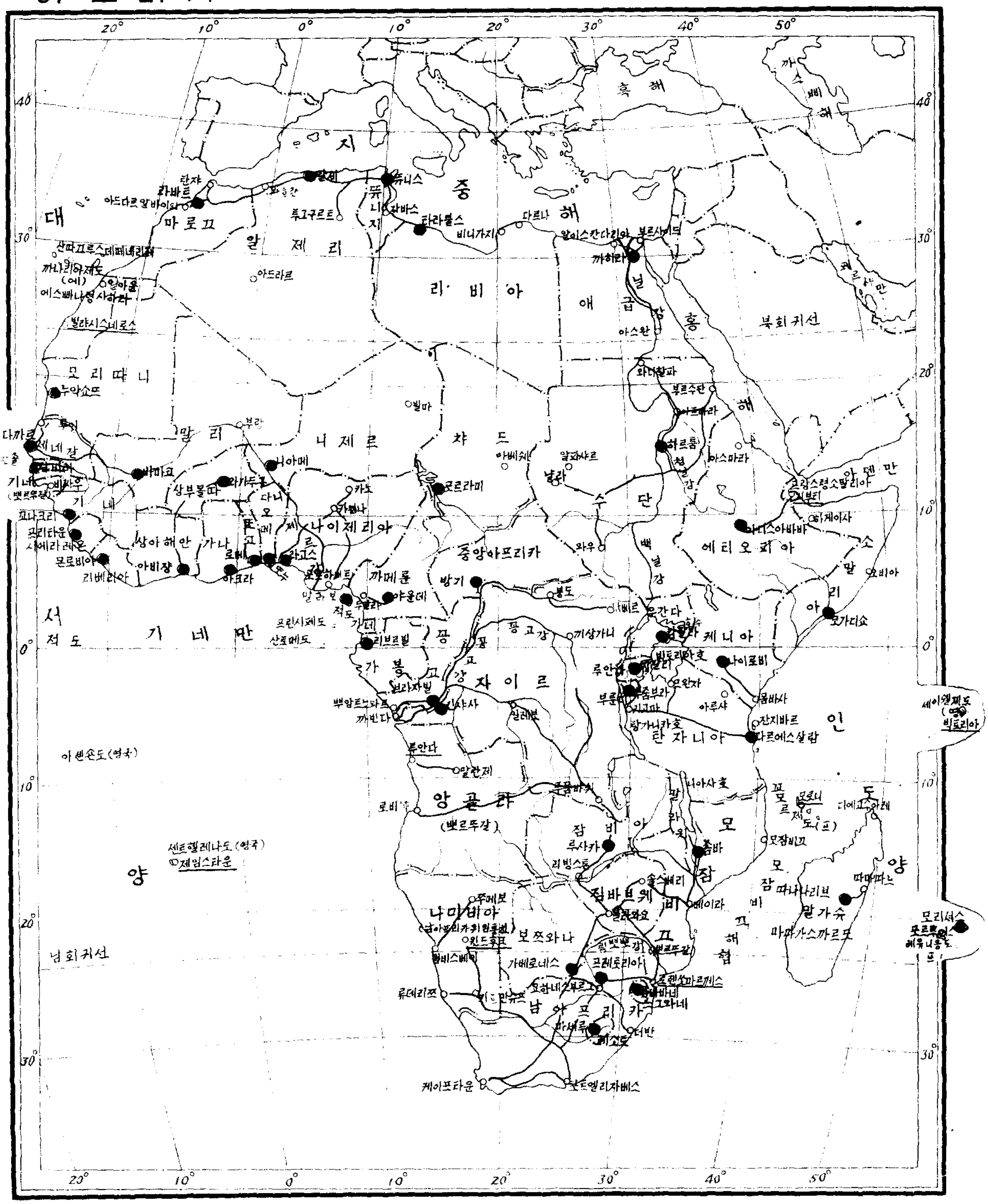
남새, 식량, 화학제품, 천, 강재, 기계, 수송기재 등을 수입하며 동물및 식물성 기름, 코프라, 커피, 천연고무 등을 수출한다.

백인들은 천주교를 믿으며 원주민들은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보스 데 띠모르

【방송】 띠모르방송

아 프 리 카



흑 해
까스삐해
지 중 해
대 서 양
인 도 양
마로끄
라바트
알 제 리
뛰니스
뛰니지
트리폴리
리 비 아
애 급
까히라
알렉산드리아
뽀르사이드
아스완
홍 해
북회귀선
모리따니
누악쇼뜨
말 리
니 제 르
챠 드
수 단
하르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소말리아
모가디쇼
아덴만
다까르
바마코
나아메
나이제리아
라고스
가나
아크라
아비쟝
시에라레온
리베리아
몬로비아
기니 만
적도
중앙아프리카
방기
까메룬
야운데
가봉
리브르빌
꽁고
브라자빌
자이르
킨샤사
께니아
나이로비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잔지바르
앙골라
루안다
잠비아
루사카
말라위
모잠비끄
잠바브웨
나미비아
보쯔와나
남아프리카
프레토리아
요하네스부르그
케이프타운
마다가스까르
안따나나리브
모잠비끄 해협
모리셔스
세이쉘제도
아쎈숀도(영국)
세트헬레나도(영국)
제임스타운
남회귀선





민족교육을 받고있는 꽁고어린이들

←새로 조업한 알제리의 엘 하쟈르제철종합공장의 일부



보무당당히 행진하는 기네 민병들



정부의 국유화조치를 지지하는 소말리아인민들



국유화된 리비아의 원유산지 《에쏘》



더많은 금강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탄자니아 근로자

아 프 리 카 주

애 급

(애급아랍공화국)

애급은 아프리카대륙의 동북쪽에 있다. 지중해와 홍해를 끼고있는 본토와 아세아대륙의 서남쪽끝에 있는 시나이반도(5만 6천 258km²)로 되여있다.

애급본토의 남부는 사막과 반사막이며 시나이반도도 대부분 사막지대이다.

애급본토와 시나이반도사이에 인도양과 지중해를 련결하는 수에즈운하(길이 173.5km, 폭 175m, 깊이는 평균 14.5~15.5m)가 있다.

세계에서 제일 긴 나일강(길이 6천 671km)이 남으로부터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데 이 류역에 애급인구의 대부분이 살고있으며 고대애급문명의 발생지이다.

기후는 아열대기후로서 여름(5월~11월)과 겨울이 길고 봄과 가을이 매우 짧다. 여름철의 평균 기온은 38~43°C이다. 내륙지방에서는 밤과 낮의 기온차이가 심하다.

4~5월에는 모래바람이 많이 불며 지중해연안을 제외하고는 비가 적게 온다.

【넓이】 100만 1,449km²

【인구】 3,500만명(1972년 9월)

대부분이 아랍인이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까히라 (주민 538만 4,000명 1972년 9월)

【인민회의】 최고립법기관으로서 1971년 11월에 선거, 의장 하페즈 바다위

【대통령】 안워르 앗 사다트 (1970년 10월 15일—)

【정부】 1972년 1월 18일 구성, 그후 일부 개조.

내각총리 아지즈 시드끼, 외교부장 모하메드 하싼 엘 자야트, 전쟁및군수생산부장 아흐메드 이스마일

【정당, 사회단체】 아랍사회주의동맹 유일당이며 집권당, 로동련맹, 사회주의청년조직, 애급조선친선협회 1969년 2월 결성.

정 치 17세기부터 오토만제국의 한 개주로 예속되여있었다. 1869년에 수에즈운하가 개통되자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이 강화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882년에 애급의 반영폭동을 구실로 까히라를 무력으로 강점하고 1899년에는 《영국—애급조약》을 강요하여 전령토를 강점하였다. 1차대전이 일어나자 1914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애급을 《보호국》으로 선포하였다. 1922년 2월 독립왕국으로 되였다.

1936년 8월 영제국주의자들이 애급왕국에 《영국—애급동맹조약》을 강요하여 수에즈운하지대에서의 20년간 군대주둔권을 빼앗았다. 이리하여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이 운하를 통제장악하고 아세아의 여러지역으로부터 많은 자원을 략탈해갔다.

2차대전후 애급인민들의 반영투쟁은 일층 강화되였다. 1946년 2월 까히라,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대규모적인 반영시위가 있었다. 인민들의 압력에 의하여 1951년 10월 15일 애급의회는 《영—애동맹조약》을 폐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1952년 7월 23일 나쎄르를 위수로 한 군부가 친영파르크왕조를 전복하고 1953년 6월 애급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7월 23일혁명 20돐에 즈음하여 애급대통령에게 보내신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애급인민은 혁명후 지난 스무해동안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침략과 파괴암해책동을 물리치면서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오늘 애급인민은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유태복고주의자들을 반대하고 빼앗긴 땅을 되찾으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를 회복하고 아랍인민의 민족적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습니다.》

1956년 7월 26일 애급은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할데 대한 력사적인 법령을 발포하였다. 이렇게 되자 오래동안 이 운하를 통제장악하고있던 영국과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방적으로 수에즈운하의 《국제관리안》을 채택하는 한편 미제는 유엔의 간판을 리용하여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애급의 견결한 립장으로 저들의 흉책이 실현되지 못하게 되자 미제의 지원을 받는 영국, 프랑스 침략군은 수에즈운하지대에 대한 무력침공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애급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참패를 당하였으며 운하지대에서 물러나지 않을수 없었다.

1958년에 수리아, 예멘과 함께 아랍련합공화국을 형성하였으나 수리아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련방은 해체되였다.

1967년 6월 5일 미제의 사촉하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애급에 대한 불의의 전쟁을 도발하여 시나이반도를 강점하였다. 6월 7일 애급은 미제와 외교관계를 끊고 미국놈들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6월 9일 애급정부는 정화에 동의하였으나 강점된 아랍땅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이 동원될것을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강점지역에 침략군을 주둔시키고 계속 도발책동을 감행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있다. 애급인민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대내대외적으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전시태세를 강화하고있다.

1971년 4월 17일 애급, 리비아, 수리아가 아랍공화국련방을 형성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4월 29일 인민회의는 이를 승인하고 나라이름을 애급아랍공화국으로 고쳤다.

【주요사건】 1972년에 애급인민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한 령토를 해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2월과 7월에 진행된 애급아랍사회주의동맹 전국대회 비상회의들에서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지원하고있으며 지중해에 침략적군사기지를 창설하려고 날뛰고있는 미제의 침략책동을 규탄하면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당면한 투쟁단계에서 민족적통일과 국내전선을 강화할데 대한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중앙과 각도들에는 전쟁준비위원회들이 조직되고 1972—1973학년도부터는 청년들에게 군사교육을 주기 위한 군사중등학교가 15개의 도에서 17개 개교되였다.

7월 23일 혁명승리 2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의 군사연습이 진행되였으며 10월에는 해, 공군반항공부대들의 대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였다.

대외적으로 애급은 이스라엘의 침략책동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5월 애급아랍사회주의동맹은 리비아아랍사회주의동맹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8월 2일에는 리비아와 《완전한 통합을 될수록 빨리 실현할것을 결정》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73년 9월 1일전으로 통합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통합되는 나라이름은 《아랍련합공화국》으로 하며 단일한 립법기관과 내각을 성립하기로 하였다.

9월 18일 두 나라는 통합을 이룩할 조치들을 검토하는 위원회 (통일적인 헌법, 국방, 정치, 립법, 사법, 경제, 교육 및 공보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7개의 위원회조직)의 사업을 관리할 통합최고정치기관을 설치하는 협정에 조인하였다.

이날 애급대통령 사다트와 리비아혁명지도리사회 의장 가다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규탄하였다. 공동성명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지지가 새로운 침략에로 이스라엘을 추동함에 있어서 결정적역할을 논 중요요인이였다.》고 폭로하였다.

애급정부는 4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아랍련합왕국》을 조작하려는 요르단반동들의 책동을 규탄하고 그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5월에는 애급에 둥지를 틀고 있는 미제외교관놈들을 내쫓았다.

7월 18일 사다트대통령은 자기 나라에서 쏘련군사인원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처하여 애급의 방위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애급에 주둔하였던 쏘련군사인원들이 철수하였다.

애급총리 시드끼가 7월 13—14일, 10월 16—18일까지 쏘련을 방문하고 두 나라와의 관계문제, 중근동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해에 또한 1967년 아랍—이스라엘전쟁후 애급을 지원하여 수에즈운하전선에 파견되였던 수단군이 철수하였다.

경제, 사회 인구의 절반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있으며 농업은 국민소득에서 약 30%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약 300만ha이며 농산물에서 기본은 목화이며 목화생산에는 농민의 약 70%가 종사하고있다. 그밖에 쌀, 강냉이, 땅콩, 밀, 과일, 옥파 등도 생산한다.

1972년에 목화는 65만 2천ha에서 42만 6천600t (아프리카에서 제1위) 생산되였으며 그의 60%가 수출되였다. 목화는 이 나라 주요수출원천의 하나이며 그의 수출량은 농산물 총수출량의 70%를 차지하고있다.

1970~1971년에 밀은 172만 5천 t, 벼 260만t, 강냉이는 239만 4천t 생산되였다. 과일생산도 늘어나 주요수출품인 귤류의 수출량은 1968년에 3만 4천 t에 이르렀다.

애급정부는 사막이 많고 부침땅이 제한되여있는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1960—1970년간에 총투자의 22%를 농업, 관개 및 아스완땜공사에 돌리면서 사막을 수리화하는 대자연개조사업을 진행하였다. 1971년에 아스완땜(길이 3천 600m, 높이 111m 저수능력 1,640억m³)이 완공됨으로써 한해에도 쓸모 없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던 1천억m³의 물이 메말랐던 사막지대를 적시게 되고 120만페단의 새땅을 얻게 되였다. 이리하여 애급의 부침땅은 30% 늘어났으며 나일강의 홍수로 인한 피해는 영영 가셔졌다. 또한 누빌리아지방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도 새로운 땅들이 개간되였다. 새땅들은 국영농업회사와 일부 농민들에게 분배되였다. 농촌전기화도 추진되고있는데 샤르끼야도에서는 94%의 농촌마을에 전기가 들어갔다.

공업부문에는 1960—1970년간에 총투자의 39%가 지출되였다. 1957년 공업발전을 위한 계획이 시작된 때부터 1970년 6월까지만도 중소규모공장들을 합하여 도합 756개의 새 공업기업소들이 건설되였으며 1971년에는 해마다 100억kWh의 전력을 생산할수 있는 아스완수력발전소가 조업하였다. 1972년에는 주요야금기지인 헬루안야금종합공장확장공사 등 중공업건설이 진행되였다.

공업기업소건설을 하는 한편 헬루안, 수보라헤이마, 아스완 등 지역에 종합적인 공업지구들이 일떠섰다.

이리하여 1971—1972년 공업생산은 1952년에 비하여 4.6배, 1971년에 비하여는 7% 장성하였다.

주요지하자원으로는 원유, 천연가스, 쇠돌, 망간, 석고, 린광 등이다. 최근년간서부사막지대와 지중해연안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산지들이 많이 발견되였는데 서부사막지대의 아라자크유전은 1972년 4월부터 생산을 시작하였다.

석유생산량은 3차 5개년계획(1971—1975)기간에 2.5배로 늘여 4천만~5천만t에 도달할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1970—1971년에 면사는 17만 1천t, 각종 천은 10만t, 사탕은 52만 3천t 생산되였다.

1971—1972회계년도에 예산총액 28억 2천만애급파운드중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6억 5천만애급파운드(전회계년도보다 7천 300만애급파운드 증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9억 7천 800만애급파운드가 돌려졌다. 운수는 완전히 국유화되여있다. 수에즈운하는 이 나라수입의 주요원천으로 되고있다. 수에즈운하에서 얻는 수입은 해마다 약 1억애급파운드이상(중동전쟁이전)에 달한다.

1972년 수출총액에서 공업제품수출액이 50%를 차지했는데 그중 실과 천이 55%를 차지하였다.

1972년초에 경제의 여러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수는 820만명에 달하였다. 국민소득은 1952년이래 약 3배로 늘어났다.

교육발전을 위하여 1972년 4월 인민회의는 교육발전 10개년계획을 작성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8천 600만애급파운드를 지출하기로 하였다.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수는 1971년에 450만명이였다. 병원수는 179개, 농촌의료봉사기관은 578개 있으며 농촌에는 2천 500개의 의료봉사대가 설치되였다.

회교가 국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멘롱신 (아프리카최대의 통신사로서 애급 문화및 공보부의 지도를 받는다.)

신문 알 굼후리아 (정부기관지), 알 아호람, 알 아호바르(무소속), 알 메싸, 에집션 가제트, 쥬르날 에집트.

방송 애급방송, 중동방송,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7년 12월 우리 나라와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1년 7월에는 령사관계를, 1963년 8월 24일에는 대리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64년 11월 23일 대사급으로 승격시켰다. 1965년 11월 조선중앙통신사와 멘롱신사간의 보도교환 및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72년에 우리 나라와 문화 및 보건협정(9월), 우리 나라 영화수출입상사

와 애급아랍공화국 영화총국간에 1972—1973년도 영화교류에 관한 의정서와 영화교류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9월 20일 신문 알 아호바르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9월 17일에 발표하신 로작《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요지를 실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나오자 애급의 주요신문들은 일제히 이 공동성명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길에서 력사적인 전환점으로 된다고 론평하였다.

10월 14일 까히라에서 조선문화주간이 개막되여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또한 이해 사진전람회, 미술전람회, 수예및공예품전람회들이 진행되였다.

1972년 4월에 정부군사대표단, 7월에 기자대표단, 10월에 멘퉁신사기자대표단과 국립무용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해에 정부대표단(2월), 평양예술단 (9월)이 애급을 방문하였다.

리 비 아

(리비아아랍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북부, 지중해기슭에 있다. 령토의 98%는 사막 및 반사막지대이다. 고정적으로 흐르는 강은 없으며 곳곳에 오아시스가 있다.

연해지역은 지중해성기후이며 기타 지역은 열대성사막기후이다.

평균기온은 가장 추운때인 1월에 북부에서 11~12°C, 남부에서 15~18°C이며 가장 더운때인 7월에 북부에서 27~29°C, 남부에서 32~35°C이다.

강수량은 북부지방에서 400~600mm, 남부 및 동부지방에서 100mm, 사막지대에서 25mm이다.

【넓이】 175만 9,540km²

【인구】 186만 9,000명 (1971년 12월)

주민의 90%는 아랍인이다. 그밖에 흑인종족들과 이딸리아인, 희랍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타라불스 (겨울수도, 주민 33만명, 1971년 4월), 비니가지(여름수도, 주민 28만명)

【혁명지도리사회】 최고지도기관이다. 의장 모아메르 엘 가다피 (국방부장겸임)

【정부】 1972년 7월 16일 구성

총리 아브둘 살람 잘루드, 외교부장 만수르 라쉬드 알 키키아

【정당, 사회단체】 아랍사회주의동맹 1971년에 조직된 유일한 대중적인 정치조직이다. 공식적인 사회단체는 없다.

정치 오토만제국의 일부로 있다가 1911—1912년의 이딸리아—토이기전쟁후 이딸리아의 식민지로 되였다. 1911년 12월 4일 리비아인민들은 이딸리아강점자들을 반대하여 첫무장폭동(알샤트전투)을 일으켰으며 그후 1932년까지 무장투쟁이 있었다.

제2차대전을 전후하여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가 1951년 12월 24일 련합왕국으로 독립하였다.

1953년 7월 왕국정부는 영제국주의자들과 《우호 및 동맹조약》을 맺고 20년간의 영침략군의 주둔과 군사기지사용을 허용하였으며 1954년 9월에는 공군기지를 미제에 제공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에 따라 미제는 리비아에 아프리카 최대의 휠러스공군기지를 건설하고 1만 2천명의 침략군을 주둔시켰다.

1963년 4월 29일 련방제를 없애고 《리비아왕국》으로 나라이름을 고쳤다.

1969년 9월 1일 청년장교들이 봉건왕조를 뒤집어엎고 리비아아랍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혁명지도리사회를 수립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리비아혁명 세돐에 즈음하여 리비아혁명지도리사회 의장 모아메르 엘 가다피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리비아인민은 리비아아랍공화국을 선포한후 지난 3년동안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군사기지를 철폐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혁명승리후 혁명지도리사회는1970년 3월 영침략군을 몽땅 몰아냈으며 6월 11일에는 16년동안 이 나라에 둥지를 틀고있던 미제의 휠러스공군기지를 철폐하고 미제침략군을 완전히 내몰았다.

8월에는 이딸리아자산가들의 마지막무리들을 쓸어버렸다.

혁명지도리사회는 식민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기 위하여 1970년 3월에 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원유가공회사를, 7월에는 이 나라에 기여들어 막대한 석유를 략탈해가던 미제독점체인 《에쏘》 석유회사를 국유화하였다.

또한 식민주의자들의 지배하에 있던 무역및상업을 《리비아화》하며 12월에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은행을 비롯한 모든 은행을 완전히 국유화할데 대한 단호한 반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971년 4월 17일 리비아는 애급, 수리아와 함께 아랍공화국련방을 창설할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9월 1일 련방창설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아랍공화국련방 성원국으로 되였다.

【주요사건】 1972년 1월 리비아는 이전 봉건왕조가 영제국주의자들과 맺었던 예속적인 《우호 및 동맹조약》과 《군사 및 재정협정》을, 2월에는 미제와 맺었던 군사기지, 군사원조, 경제원조, 기술협조 등에 관한 협정을 공식적으로 폐기함으로써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반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다.

1972년 5월 리비아아랍사회주의동맹은 애급아랍사회주의동맹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7월 16일 혁명지도리사회는 잘루드를 총리로 하는 새 내각을 구성하였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비니가지에서 애급대통령 사다트와 가다피의 장간에 회담을 진행하고 리비아와 애급의 《완전한 통합을 될수록 빨리 실현할것을 결정》하였다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에서는 완전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통합최고정치기관》을 내옴으로써 통합의 모든 기초를 마련하며 그 단계적실현을 감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통합최고정치기관》은 통합계획의 최종초안을 채택하며 그에 대한 국민투표를 두 나라에서 1973년 9월 1일까지 끝낼것이며 《통합최고정치기관》은 1973년 9월 3일 제1차회의를 가지기로 결정하였다.

새로 통합되는 나라이름은 《아랍련합공화국》이며 국교는 회교, 정치조직으로는 단일립법기관과 단일내각이 설립된다고 하였다.

8월 2일 통합의 의의에 대하여 리비아방송은 《애급과의 통합이야말로 적을 정복하고 아랍의 단결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도하였다. 9월 18일 두 나라는 통합최고정치기관설치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1972년에 가다피는 모리따니, 뛰니지를 방문하였다. 발표된 공동콤뮤니케들에서는 강점된 아랍령토를 되찾고 팔레스티나인민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무장투쟁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팔레스티나항쟁운동을 강화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72년에 가이아나(12월)와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71년에 끊어졌던 챠드 (4월)와의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1973년 2월 리비아정부는 자기 나라 령공에 대한 뽀르푸갈항로를 폐쇄하였다.

경제, 사회 원유공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원유매장량은 약 14억 1천만t으로 추산되고있으며 국민총생산액에서 원유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83%에 달하고있다.

1961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원유는 해마다 그 생산량이 늘어나 1970년에는 1억 7천만t에 이르렀으며 가까운 년간에 2억t수준으로 높일것을 예견하고있다.

혁명승리후 리비아는 원유공업발전을 위하여 이 나라 석유채취량의 90%를 독점하고있던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석유회사와 원유가공회사들을 국유화하였으며 1971년에는 석유와 천연가스자원에 대한 제국주의독점체들의 략탈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포하고 국영회사들을 창설하였다.

이러한 자주적발전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동시에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였다.

마르사 엘 브레가에는 해마다 36억m^3의 천연가스를 압축하는 첫 압축공장이 조업하였으며 1970년에는 180만t능력의 원유가공공장건설에 착수하였으며 1972년에는 7만 5천t능력의 압연강공장건설이 시작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1970년에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농장을 국유화하고 협동조합들을 조직하고있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정책으로 황폐화된 땅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과 긴장된 물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물과 기공사와 바다물을 사막지대관개에 리용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연구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1970년부터 시작된 경제발전 제2차5개년계획기간에 정부는 령락된 농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이전 5개년계획기간에 비하여 3배에 달하는 1억 5천만리비아파운드를 투자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땅콩, 올리브, 야자, 포도 등이다.

목축업에는 주민의 약 40%가 종사하고있으나 먹이와 물의 부족으로 곤난을 겪고있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으로 되고있다.

교육분야에서 식민주의후과를 가시기 위하여 영어를 폐지하고 아랍어를 쓰고 있다.

국교는 회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아랍혁명통신 (1973년 6월 리비아통신사의 이름을 아랍혁명통신사로 고침)

신문 알 사우라(정부기관지), 알 프라, 알 호르리에, 트리폴리 미러, 알 발랴그, 알 나하르(무소속신문)

방송 리비아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2월 26일 우리 나라와 무역경제관계를 발전시키며 두 나라 인민들간의 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대표부를 호상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1972년 1월 리비아신문 알 호르리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를 실었다.

1972년 9월에 진행된 제27차유엔총회에서 리비아는 조선문제토의를 1년간 연기하려는 미영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의 비법적인 《결의안》에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였다.

1971년 5월에 리비아기자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우리 나라로부터는 이해에 정부경제대표단, 기자대표단, 통상대표단 등이 이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수 단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아프리카의 동북쪽 홍해기슭에 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이다. 적도철바람기후지대로부터 열대사막기후지대로 넘어가는 기후대에 속하므로 북쪽은 열대사막기후에 가깝고 남쪽은 적도철바람기후에 가깝다. 년평균기온은 북쪽에서 23~32°C, 남쪽에서 23~30°C 이다. 홍해기슭을 비롯하여 낮기온이 50°C를 넘는 곳도 있다. 년평균강수량은 북쪽에서 100mm, 남쪽에서 1천~1천 400mm이다.

【넓이】 250만 5,813km^2

【인구】 1,630만 5,000명 (1972년)

500여개종족이 살고있는 다민족국가이다. 북부와 중부에 아랍족과 니그로의 혼혈인 누비아인(70%)이 있고 남부에는 주로 흑인이 산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하르툼(주민 25만 5,740명)

【인민회의】 1969년 5월혁명후 처음으로 조직된 립법기관이다. 1972년 10월에 총 207명의 의원으로 구성, 그중 32명의 제헌회의성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선거한다. 인민회의는 공화국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집행에서 대통령을 방조한다.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6년 대통령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1971년 10월 12일—) 독립이후 군사정변과 종족간의 분쟁으로 대통령선거를 하지 못하다가 1971년 9월 첫 선거를 진행

【정부】 1972년 10월 9일 구성, 총리겸 국방부장,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외교부장 할레드 만수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6년에 창건, 1971년 7월 정변후 비법화. **수단사회주의동맹** 1972년 1월 10일 창건된 유일한 정치적조직이다.

《사회주의수단》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수단조선친선협회 1970년 3월 16일 결성.

정 치 19세기 70년대부터 애급을 발판으로 세력범위를 확장하기 시작한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899년에 애급에 강요하여 수단에 대한 영국과 애급의 《공동관리》협정을 맺고 수단을 사실상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식민지통치의 전기간 수단인민들은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이후 민족주의정당들이 나오게 됨에 따라 투쟁은 더욱 앙양되였다.

이렇게 되자 애급은 1951년 수단에 대한 《영애공동관리》협정을 폐기하였다. 수단인민들은 1953년 1월 《자결권》을 획득하고 이해 11월에는 《자치정부》를 수립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우라니움광이 풍부한 남부수단 (3개주에 인구는 500만명)만이라도 떼내려고 북부의 아랍인들과 남부의 흑인들 사이에 반목과 리간을 조성하여 1955년에는 남부흑인들의 류혈적인 폭동을 일으켰다.

수단인민은 1955년 11월 남북을 분렬하여 통치하려던 영침략자들을 몰아내고 1955년 12월에 독립을 쟁취하였다. 1956년 1월 1일 수단공화국을 선

포하였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을 때 수단은 애급전선에 자기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9년 5월 25일 수단군장교들이 아즈하리―마흐쥬브정부를 뒤집어엎고 니메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명지도리사회를 조직하였으며 수단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독립후 10차례의 정권이 교체되였다. 1969년 5월 혁명후 니메리정부는 《수단식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공산당이외의 모든 정당들을 해산하고 새 국가기구와 국가기관을 창설하였으며 이해 6월에는 《자치》를 요구하여 1963년이래 무장반란을 일으켜온 남부수단에 자치권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회사와 공장, 토지를 국유화하였다.

1970년에는 파괴활동을 일삼던 미제 《평화군》놈들을 모두 내쫓았다.

1970년 3월 미제의 지원밑에 수천명의 수단반동들이 아바섬에서 일으킨 무장반란을 3일만에 완전히 진압하였으며 정변음모를 지휘한 미제 《외교관》놈들을 내쫓았다.

이해 4월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의 수단이였던 서독의 《괴테회관》을 페쇄하였다.

니메리정부는 1969년 5월부터 1970년 3월까지 미제와 그 주구들의 6차례의 정부전복음모와 무장반란을 분쇄하였다.

1971년 7월 19일 이전혁명지도리사회 성원들이였던 장교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켰으나 7월 23일 니메리의 지지자들에 의하여 다시 전복되였다.

정변후 수단공산당 총비서, 로조지도자 등 많은 공산당원들과 사회정치활동가들이 처형 또는 체포되고 공산당은 비법화되였다.

1971년 9월 수단에서 독립후 처음으로 되는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여 10월 12일 니메리가 초대대통령으로 되였다.

니메리는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있던 혁명지도리사회를 해산하고 수단사회주의동맹의 창건을 명령하면서 기타 모든 정당과 정치조직들의 활동을 금지하였다.

【주요사건】 1972년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이 나라에서 유일한 정치조직인 수단사회주의동맹 전국창립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 니메리는 정당들은 일정한 계급의 리익에 복무하기때문에 《수단혁명은 정당보다 정치조직으로서의 동맹을 가지기로 결정하였다》고 성명하였으며 《동맹의 목적은 인민들의 로동력을 규합하며, 혁명사업을 촉진하며 사회주의수단을 건설하며 권력을 대중에게 넘겨주는데 있다》고 규정하였다.

대회에서는 쁠럭불가담원칙을 고수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랍인민들과 아프리카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대회에서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를 위원장으로 선거하였다.

2월 27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5월혁명후 자치권을 주기로 한 남부수단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정부대표단과 남부수단대표가 회담하고 전국의 통일적인 범위안에서 남부수단이 지역적자치를 실시하는데 합의하였다. (3월 27일 아디스 아바바협정을 량측이 비준)

3월 3일 남부수단에 지역적자치를 주는 공화국법령이 발포되고 이 날을 《국가통일의 날》로 선포하였다.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민회의선거를 진행하였다. 선거결과 총 의석 207명중 175명이 선거되였다. (32명의 제헌회의성원은 대통령이 임명), 10월 12일에 진행된 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니메리는 인민회의임무는 공화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집행에서 대통령을 방조하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10월 25일에 니메리대통령은 1967년의 중근동전쟁이래 애급을 지지하여 수에즈운하전선에 주둔시켰던 자기 군대를 철수시켰다. 동시에 애급은 하르툼에 설치하였던 군사대학을 페교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농업은 이 나라 총생산액의 약 80%, 총수출의 95%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와 아라비아고무이며 그밖에 땅콩, 수수, 사탕수수, 참깨, 강냉이, 보리, 조, 콩 등이다. 목화는 섬유가 길고 부드럽고 윤택이 나는것이 특징이며 생산량에 있어서 애급다음가는 아프리카에서 제2위이다. 목화재배면적은 전체 농경지의 40%를 차지하며 농업인구의 85%가 목화재배에 종사하고있다. 목화는 외화수입의 70%, 국가재정수입의 절반을 차지한다. 1969년 목화생산량은 60만 6천t이였는데 1972년에는 게지라목화생산지에서만도 41만 8천t 생산하였다. 1972년에 대외시장에 판 목화량은 32만 8천t이였다. 1972년에 밀은 20만t 생산되였으며 해마다 수수는 40~50만t, 땅콩은 38만t 정도생산된다.

아라비아고무는 수단의 특산물로서 그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세계시장에 들어가는 고무풀의 약 90%가 수단에서 생산된다.

농업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식민주의자들과 대토지소유자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특히 목화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 목화재배중심지인 게지라삼각주에 대규모의 관개체계를 수립하였다.

아랍나라들중 축산업이 제일 발전한 나라로서 집짐승마리수는 4천만마리에 달하며 그 수는 해마다 평균 7%씩 늘어나고있다. 축산업발전에 유리한 령토의 10분의 1에 달하는 25만km^2의 넓은 방목지를 가지고있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12%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은, 철, 망간, 우라니움, 흑연 등이다.

독립후 공업부문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이 청산되고 세멘트공장, 야금공장, 원유가공공장, 방직공장, 수력발전소 등이 새로 건설되였으며 식료가공공장은 70여개로 늘어났다. 1969년에 세멘트는 14만t, 남새 및 과일 통졸임은 670만개, 면직물은 약 1억m 생산되였다.

정부는 이 나라에서 선차적문제로 나서고있는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물파기 (300~500m 파야 물이 나옴)를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고있으며 많은 자금을 지하수개발에 돌리고 있다.

철길의 길이는 약 5천km이다. 자동차도로의 길이는 1만 9천 300km인데 그중 포장도로는 약 4천km에 불과하다.

목화, 아라비아고무를 비롯한 농산물과 축산물을 수출하고 설비, 일용품, 식량 등을 수입한다. 무역은 주로 구라파공동시장성원국들과 영국, 인도, 일본을 상대로 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액은 약 20%를 차지한다.

【출판보도】 **통신** 수단통신, 하르툼통신.

신문 알 아얌(아랍어 5만부), 알 라이 알암(무소속, 아랍어), 알 싸하파(아랍어), 앗 수단 알 쟈디드(아랍어) 모닝 뉴스(영문), 알 아호바르.

방송 수단방송,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4월 23일 우리 나라와 령사관계를 맺었으며 6월 21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4월 13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1970년 하르톰에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의 사상연구소조》가 결성되였으며 애급에 있는 수단인들이 《김일성동지혁명활동및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소조》(로동자들의 조직), 《김일성동지혁명활동및로작연구소조》(지식인들의 조직)를 결성하였다.

1970년 8월 대통령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에 즈음하여 신문《알 싸하파》 4월 25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에 즈음하여》라는 표제밑에 특집하였다.

9월 수단신문들이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본회담 제1차회의 진행정형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신문 《알 싸하파》는 《민주조선의 수도에서 열리는 적십자회담》이라는 표제밑에 대표단 단장의 연설요지를 보도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수단사회주의동맹은 《수단조선친선주간》을 설정하고 기념집회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우리 나라가 달성한 성과를 소개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다. 9월 11일 수단사회주의동맹이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를 조직하였다.

9월 9일 《옴두르만》 방송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를 소개하는 특별방송을 하였으며 이날 신문《알 싸하파》는 《조선인민에게 축하를 보낸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9월 12일 하르톰에서는 공화국창건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경축보고대회를 진행하였다.

10월에 《알 싸하파》지는 사회주의경제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해설하는 글을 실었다.

1972년에 수단신문들인 《나일 미러》, 《알 싸하파》 등이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현단계에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일본 《요미우리신붕》, 《마이니찌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미국《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 등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실었다.

1972년에 집단체조대표단(3월), 수단통신사 및 작가, 시인, 문화인 대표단(3월), 정부군사대표단 (4월), 청년체육 및 사회사업성청년대표단 (4월)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인 4월 24일 정부군사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이해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2월), 최고인민회의대표단(10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뜌 니 지

(뜌니지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북쪽 지중해기슭에 있다. 나라의 약 절반이 사막이다. 기후는 메마른 아열대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7월에 25~32°C, 1월에 5~12°C이며 년평균 강수량은 북부에서 700mm, 남부에서 200mm이하이다.

【넓이】 16만 4,150km²

【인구】 540만명 (1973년 9월)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뜌니스 (주민 70만명)

【국민의회】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 의원수는 105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공화국리사회】 나라의 최고심의기관으로서 데스뜨르사회당 정치국 위원들과 정부성원들로 구성된다.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1957년 7월—)

【정부】 총리 헤디 누이라 (1970년 11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프랑스공산당지부로 조직되였다가1934년에 독자적인 정당으로 창건. 1963년에 비법화, 총비서 모함메드 엔다피. 데스뜨르사회당(집권당) 1934년에 창건, 민족부르죠아지와 지주들의 리익을 대표, 근로자총련맹, 농민련맹, 녀성련맹

정 치 1837년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81년 5월에는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1883년 6월에는 그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기간에는 파쑈독일(1942년 11월~1943년 5월), 미제(1943년~1944년)의 강점하에 있었다.

1956년 3월 30일 독립하고 1957년 7월 25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3년 10월 15일 뜌니지인민들은 독립후에도 뜌니지를 강점하고 내정에 간섭하던 프랑스침략군대를 비제르타기지에서 완전히 몰아냈다.

1964년 5월 외국인들의 토지를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고 프랑스 독점체 《코론》 회사에 속한 27만정보의 땅을 몰수하였다.

1968년 9월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승인할것을 제창함으로써 아랍나라들과의 의견대립이 조성되여 아랍련맹에서 떨어져나왔다.

미제가 《평화군》의 탈을 쓰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기관들에 기여들었으며 미제6함대가 뜌니스, 비제르타, 스팍스항 사용권을 쥐고있다.

1970년 1월 알제리와 20년을 기한으로 《우호,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1972년 1월 국영석유회사를 창설하기로 하였다.

1972년 12월 민주독일, 웰남민주공화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 목축업, 채광업이다.

주민의 75%가 농민인데 농사할수 있는 땅은 약 900만ha이다. 주요농산물은 올리브, 밀, 보리, 강냉이, 포도, 사탕수수 등이다. 세계적인 올리브기름 수출국이다.

사탕은 15만t (1970년), 올리브기름은 16만 7천t (1971—1972년도), 보리는 20만t (1972년) 생산하였다.

목축업은 이 나라 농업생산액의 약 25%를 차지한다. 주요 집짐승은 소, 양, 염소, 락타, 말, 노새 등이다.

광업이 공업총생산의 20%를 차지한다. 세계 네번째의 린광석산지이다. 그외 아연, 주석, 석유, 석탄, 철, 우라니움 등이 매장되여있다.

년평균 린광석은 200만t이상, 석유는 300만t 이상, 쇠돌은 100만t 채취되고있다.

제분공장, 올리브기름공장, 물고기, 과실 및 남새가공공장, 소규모의 세멘트공장, 화학공장, 제철소(년산 15만t정도) 등이 있다.

운수에서는 철길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으로 되고있다. 철길의 연장길이는 2천km이상에 달하는데 좁은 철길이다.

주요수출품은 올리브기름, 린광석, 쇠돌, 연, 알파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사탕, 식료품, 운수수단, 화학제품, 원유제품, 기계 등이다.

관광업이 외화수입의 중요한 원천의 하나로 되고있다.

독립후 교육발전에 적지 않은 힘을 넣은 결과 학교와 학생수가 많이 늘어났다. 1959년 뜌니스에 종합대학이 건설되였다.

회교가 국교로 되여있다.

【출판보도】 통신 뜌니지아프리카통

신(1961년 창설)

신문 아랄레아(공산당기관지), 락씨옹(데스트르사회당기관지, 프랑스어), 알 아말(데스트르사회당기관지, 아랍어), 쥬르날 오피씨엘 뛰니지엥.

방송 뛰니지방송, 뛰니지텔레비죤방송.

알 제 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북쪽 지중해를 끼고있다. 북부에 아틀라스산맥이 동서로 뻗어있으며 남에는 령토의 80%에 해당하는 사하라사막이 펼쳐져있다.

북부해안지대는 지중해성기후로서 평균기온은 1월에 12°C, 7월에 25°C이다. 남부의 사하라사막지대는 메마르고 몹시 무더우며 가장 더운 때에 모래우의 온도가 80°C까지 올라간다.

년강수량은 북부산악지대에서 1천800mm, 남부사막지대에서는 40~70mm이며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지역도 있다. 1년동안 계속 흐르는 강은 없고 다만 장마철에만 일시 강물져 흐를뿐이다.

【넓이】 238만 1,741km²

【인구】 1,357만명 (1971년 12월)

주민의 대부분은 아랍족(60%)과 베르베르족(30%)등이다. 주민의 90%가 지중해연안에서 산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알제 (주민 164만명)

【혁명리사회】 최고주권기관으로서 1965년 6월에 조직되였다. 의장 후아리 부메디엔

【정부】 내각총리 (국방부장겸임) 후아리 부메디엔 (1965년 7월—), 외교부장 아브델 아지즈 부떼플리까

【정당, 사회단체】 **민족해방전선** 1954년 8월 알제리민족해방투쟁의 향도적력량으로 창건되였으며 독립후 집권당으로 된 알제리 유일정당, **근로자총동맹, 민족해방전선청년단체, 전국녀성동맹, 농업근로자전국련맹, 알제리조선친선및련대성협회** 1970년 7월 26일 결성.

정 치 1830년부터 132년간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다. 알제리인민들은 식민지통치의 전기간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항전을 벌렸다. 1848년부터 1954년까지만도 50여차에 걸친 반프랑스봉기가 일어났다. 알제리인민들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1954년 8월 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되였으며 그의 령도하에 이해 11월 1일부터 무장투쟁이 시작되였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약 80여만의 침략군을 투입하고 83억딸라를 탕진하였으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떠선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가로 막을수 없었다.

알제리인민들은 1958년 9월에 알제리공화국 림시정부를 수립하였다. 령토의 3분의 2가 민족해방군의 통제하에 들어가고 해방지구들에 인민정권이 수립되여 무장투쟁이 더욱더 강화되자 1962년 3월 18일 프랑스침략자들은 정화에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1962년 6월 민족민주주의혁명과업수행을 규정한 《트리폴리》강령을 채택하였다.

1962년 7월 1일 자결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7월 5일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9월 25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동지께서는 알제리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독립후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선 알제리인민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외래독점체들이 가지고있던 회사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하며 공업혁명, 토지혁명, 문화혁명을 적극 밀고나가면서 자립적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습니다.》

독립후 알제리인민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반을 청산하기 위하여 국가 및 경제기관들에서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모든 기관들을 자체의 민족간부들로 꾸렸으며 1964년까지 프랑스침략군을 추방하고 침략적군사기지들을 완전히 철폐하였다.

1963년 10월에는 외국인소유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 1966년 5월에는 미제의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 1971년 2월 24일에는 제국주의독점체소유의 석유와 천연가스자원을 국유화할데 대한 결정, 이해 7월에는 대외무역을 국가가 독점할데 대한 결정 등 제국주의의 경제적침투를 막으며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혁명적조치들을 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견결한 반제적립장을 견지하였다.

1967년 6월 5일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지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알제리정부는 자기의 무력을 애급전선에 출동시켰으며 미제와 외교관계를 끊고 미영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수출과 천연가스의 공급을 중지하였다.

또한 강점된 조국땅을 되찾으려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으며 미제를 반대하는 인도지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알제리는 지중해가 《평화의 호수》로 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지역에서 모든 군사기지를 철폐시키고 연안국가들간의 관계를 발전시킬것을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다.

【주요사건】 1972년 6월 17일 부메디엔의장이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할데 대한 정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6월 18일 농민들을 착취에서 해방하기 위한 알제리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토지분배식이 알제도에 있는 케미스엘케스나농장에서 진행되고 농민들에게 토지분배증서가 수여되였다. 분배식에서 부메디엔의장은 토지혁명의 제1단계(토지조사단계)를 마감짓고 제2단계(분배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토지혁명은 리론적인 인식단계를 거쳐 이제 새로운 단계, 실천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고 하였다. 이날 분배식에는 8개 농장의 수백명의 농민들에게 토지가 분배되였다.

6월 29일 외교부장 부떼플리까는 지중해의 평화를 위해 지중해지역의 쁠럭불가담국가 안보회의를 가질것을 호소하였다.

7월 혁명리사회와 정부의 합동회의에서는 새경제발전4개년계획(1974—1977년)을 작성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유엔총회 제27차회의에서 알제리정부는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라는 제안을 상정토의할것을 발기하였다.

이 제안에서는 언커크의 활동을 정지할것, 남조선주둔 외국군대에 부여된 유엔기발도용을 폐지할것,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군비를 축소하고 이미 진행중인 정치협상을 성과적으로 계속 할것, 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할것, 세계 모든 나라들이 조선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개입이나 내정간섭도 삼가할것 등을 규정하였다.

5월 4일부터 6일까지 알제에서 알제리, 애급, 리비아간에 수뇌자회담이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의 전략을 조정하기》위한 문제를 토의하고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공동콤뮤니케에서는 강점된 아랍땅을 되찾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불가피한 전쟁을 진행하는데 모든 력량을 동원할것을 담보하고 팔레스티나항쟁운동을 강화하는것은 모든 아랍인들의 민족적의무로, 책임으로 된다고 하였다.

또한 지중해연안나라들 특히 쁠럭불가담국가들과 어느 집단에도 참가하지 않은 나라들이 외세의 간섭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 지역의 정치문제의 해결방도를 찾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2년에 부메디엔의장이 뛰니지(4월), 마로끄, 기네(6월)를 방문하였다.

12월 21일 알제에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창건 열두돐에 즈음하여 민족해방전선주최로 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를 진행하였다.

9월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41개 나라의 참가하에 알제에서 제9차국제시장이 열렸다.

경제, 사회 경제에서 채취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공업총생산액에서 채취공업은 3분의 2를 차지하며 그중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위주로 되고있다.

사하라사막에는 35억t의 원유와 1조 km^3의 가스가 매장되여있다.

독립후 알제리정부의 혁명적인 조치에 의하여 제국주의 석유 및 가스 독점회사들이 련이어 국유화되여 1971년말에 벌써 이 나라 석유생산의 80%, 천연가스생산의 100%를 국가가 장악하였다.

원유생산량은 1969년의 4천 600만t으로부터 1971년에는 4천 900만t으로 늘어났으며 4개년계획(1970~1973년)의 마지막해인 1973년에 가서는 6천 500만t으로 늘일것을 예견하고있다. 가스생산량도 해마다 늘어나고있는바 1969년에 25억m^3, 1973년에 가서는 65억m^3에 이르게 된다.

1969년에 광산들이 국유화되여 금, 수은, 중석, 우라니움, 주석 등 산지들이 새로 발견되였다.

야금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등도 발전하고있다.

1970년에 엘 하자르제철종합공장 제1계단공사가 끝났으며 현재 8만 5천t의 아연을 생산하게 될 가자우에서의 아연제련공장을 비롯하여 4개의 야금공장건설이 진행되고있다.

독립전에 이 나라에서 1년동안에 생산하던 선철은 불과 3~4일동안에 생산하고있으며 년강철생산량은 180만t수준으로 뛰여올랐다.

기계제작공업의 토대를 닦기 위하여 1972년에는 해마다 5천여대의 트락또르와 1만대의 디젤발동기를 생산하게 될 꼰스딴찐종합기계공장과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작기계공장건설이 진행되였다.

화학공업분야에서는 자체의 석유 및 가스 공업기지를 창설할데 대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1969년 3월부터 스끼끄다시에 석유 및 가스 종합공장이 건설되고있다.

1971년에 안나바에 건설된 년산 45만t능력의 류산공장이 조업하였다

농업도 다각적으로 발전하고있다. 주민의 4분의 3이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포도, 보리, 귀밀, 담배, 도마도, 남새 등이다. 포도는 농업총생산액에서 3분의 1(년산 200만t)을 차지하며 이 나라 주요수출품으로 되고있다.

알제리의 부침땅은 모두 1천만ha이며 그중 경작할수 있는 토지는 680만ha 정도로서 북부해안지방에 집중되여있다. 그중 3분의 1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좋은 토지로서 독립후 자치관리제농장에 속하게 되였으며 나머지 토지는 지주, 도시고리대금업자 등이 가지고있었다. 북부지방에는 개인토지소유자 총수(1만 6천 500명)의 3%정도되는 대지주 (50ha이상 소유)들이 전체 개인토지의 25%를, 경작자수의 50%(31만명)가 넘는 가난한 농민들은 10%정도 차지하고있었다. 개인소유토지면적의 96%가 알곡생산에 리용되고있으나 실지로 경작되고있는 토지는 350만ha를 좀 넘는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토지혁명》을 제기하고 1971년 11월 8일 《토지혁명법안》을 비준하였다.

법안에 의하면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라는 원칙에 의하여 국가자금에 의한 유상몰수 또는 무상몰수하여 무상분배한다. 몰수대상은 고용로동자를 채용하거나 소작을 준 토지, 로력당 5ha이상의 토지를 가지고있는 지주들의 토지, 공공기관들과 종교기관들의 세습적공동소유의 토지를 몰수한다.

토지분배는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 국유화대상지에서 일하던 농업로동자, 옛투사들, 혁명가자녀들에게 분배하되 리나 마을을 단위로 한 농민그루빠들에게 분배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동조합을 당장 조직할수 없는 산간지대의 땅만은 개인들에게 분배한다.

토지분배한도는 로력당 관개된 토지는 0.5ha, 관개되지 않은 토지는 5ha까지로 한다.

분배받은 토지는 자신의 로동으로 가꾸어야 하며 분배받은 사람들은 매개 콤뮨에 조직되게 될 《재정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가는 《재정통제조합》과 《기술위원회》를 통하여 농촌에 재정, 기계, 비료, 종곡을 대여해주며 토지정리, 수리화, 농촌주택과 학교, 병원 건설을 진행한다.

《토지혁명법안》에 의하여 1972년 6월 18일 알제도에 있는 케미스엘 케스나농장에서 첫 토지분배식을 진행하였다.

1972년 11월현재 알제도에서는 협동조합조직사업이 끝났다. 여기에서는 135개의 생산협동조합과 5개의 토지공동경작체와 17개의 협동공동체 등이 창설되였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철도운수가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자동차길(6만km), 철길 (4천 500km)은 주로 지중해기슭의 도시들을 련결하고있으며 뛰니지와 마로끄를 련결하는 길로 되여있다. 사막지방에서는 락타와 말이 중요운수수단으로 되여있다.

석유와 포도주(총수출의 70%차지)를 비롯하여 가스, 올리브, 철광석, 가죽 등을 수출하며 석유제품, 기계, 사탕 등을 수입한다.

1971년에 무역총액은 1970년의 99억디나르로부터 120억디나르로 늘어났다.

교육분야에서도 《알제리화》가 실현되여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알제종합대학, 꼰스딴찐종합대학, 오랑종합대학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대학과 각급 학교들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초등학교 학생수만도 1962—1963학년도로부터 1971—1972학년도까지의 기간에 77만 7천 600여명으로부터 201만 8천여명으로 늘었다. 중등학교학생수는 1970—1971학년도에 23만 6천 800여명, 대학생수는 1971—1972학년도에 2만 4천 200여명에 달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아빼에스 (알제리통신)

신문 엘 무자히드(정부기관지), 레볼류씨옹 아프리깬(민족해방전선기관지), 엘 제이쉬 (민족인민군기관지).

방송 알제리방송, 알제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8년 9월 2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4년 9월 16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0월에는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2년 11월 15일 보건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의정서를 조인하였다.

1970년 7월 26일 알제리조선친선및련대성협회가, 1971년 3월에는 조선로동자들과의 알제리련대성위원회가 조직되였다.

1972년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우리 나라 피바다가극단이 알제리인민들의 열광적인 환영과 절찬 속에서 혁명가극 《피바다》를 공연하였다.

1972년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알제에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다.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알제에서 조선영화상영주간이 진행되였다.

1972년에 정부군사대표단(4월), 정부대표단(7월), 정부무역대표단(11월), 유엔주재 알제리상임대표(6월), 뜰렘센중학교교원부부(4월), 기자대표(8월)들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정부군사대표단과 정부대표단은 방문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이 해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6월), 군사대표단 (6월), 사로청대표단(6월), 정부무역대표단(9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알제리정부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1972년 9월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27차회의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의 새 의정을 상정토의할것을 발기하였다.

마 로 끄

(마로끄왕국)

아프리카의 서북부, 지중해기슭에 있다. 대부분이 산지와 고원이고 대서양기슭에만 좁은 저지가 있다.

기후는 대부분지역이 아열대성기후에 속하나 남쪽은 사하라사막의 영향을 받아 덥고 메마르다. 북부연해지역의 7월평균기온은 24°C, 1월평균기온은 12°C이다. 남부지방은 여름평균기온이 30°C~40°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400mm이다.

【넓이】 44만 6,550km²

【인구】 1,630만명(1972년)

주민은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 대부분이며 프랑스인, 유태인 등도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라바트(주민 37만 5,000명), 탄제르 (1962년 1월부터 여름수도로 결정)

【국회】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 의원수는 240명이며 임기는 6년이다. 그중 150명은 간접선거로, 90명은 직접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국왕이 거부권을 가지고있다. 1970년 7월에 새로 채택된 헌법에 의하여 8월에 선거된 국회의석중 180석은 무소속, 60석은 인민운동당출신이 차지하고있다.

【국왕】 물라이 하싼2세(1961년—) 국가수반이며 군최고사령관이다.

1970년 헌법에 의하여 국왕은 정부성원들을 임명하거나 파면할수 있고 국회를 해산할수 있다.

【정부】 1972년 11월 2일 구성, 총리 아흐메드 오스만, 외교부장 아흐메드 타이예비 벤히마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에 프랑스공산당지부로 조직되였다가 1943년 독자적정당으로 창건, 1960년에 비법화된후 이 당에 기초해서 해방및사회주의당을 1968년에 창건하였으나 1969년에 금지되였다. 총비서 아. 야또. **립헌제도옹호전선** 1963년 3월 인민운동당, 립헌민주당, 자유당이 선거통일전선으로 결성하였다. 보수적인 왕당과,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한다. **독립당** 1943년에 조직되였으며 공업및상업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한다. **인민력량전국동맹, 민주사회당** 1959년 독립당에서 떨어져나온 급진주의적활동가들로서 조직된 좌익적민족주의정당으로서 독립당과 함께 1970년 7월 민족전선을 결성하였다. **로동총련맹, 로동청년동맹.**

정 치

11세기에 독립적인 왕국으로 형성되였다. 19세기 40년대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912년 3월 12일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이해 11월 27일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이 북부마로끄를 강점하였다.

1923년 12월 18일 영국, 프랑스, 에스빠냐 식민주의자들이 (그후 8개국)탄제르지역을 이른바 《국제관리지구》로 만듦으로써 마로끄는 세부분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1934년에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이 이프니를 완전히 강점하고 1958년에는 제놈들의 한개 《주》로 선포하였다.

1956년 3월 2일 독립하였으며 이해 북부마로끄가 귀속되였다.

1957년 6월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치외법권을 철폐하였으며 이해에 《크메리미왕제국》이라고 부르던 나라이름을 마로끄왕국으로 고쳤다.

1960년 4월에는 탄제르지역이, 1969년 6월에는 이프니가 마로끄에 귀속되였다.

1962년 국민투표로 첫 헌법을 제정하고 립헌왕국으로 되였다.

1965년 로동자, 학생들의 폭동이 있은후 국왕은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하였다.

1970년 7월 의회제를 규정한 새 헌법을 채택하고 이해 8월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1971년 7월 하싼2세의 생일잔치날을 계기로 왕궁경비대사령관의 지휘밑에 고위급장교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켰으나 6시간만에 진압되였다.

【주요사건】 1972년 8월 17일 하싼2세가 프랑스방문을 마치고 귀국도중 마로끄령공에 이르렀을 때 그를 호위하던 제트전투기들이 왕이 탄 비행기를 공격하였다. 이러한 공격전이 실패하자 5명의 공군장교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영국의 《보호령》인 지브랄타르로 탈주하였으나 영국정부는 마로끄의 요구대로 이들을 마로끄에 돌려주었다.

8월 19일 하싼왕은 국방부와 군대를 직접 자기 휘하에 두게 하고 국방부, 륙군총사령관 및 부총사령관의 지위를 폐지하겠다고 선포하였다.

1972년 6월 뽀르뚜갈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35% (1971년)를 차지한다. 토지의 대부분은 농가호수의 5%에 불과한 대지주들과 외국인들이 소유하고있다. 로력인구의 85%가 농업에 종사한다. 부침땅넓이는 약 500만ha이며 그중 관개면적은 15~20만ha이다. 농경지의 85%에 알곡작물을 심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벼, 목화, 포도, 감류 등이다.

1970—1971농업년도에 밀은 221만t, 보리는 232만t, 강냉이는 39만t 생산하였다. 1971—1972농업년도에 목화는 약 8천t 생산하였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25% 차지하며 그중 채광업이 80%를 차지한다. 린광석과 망간이 유명하며 그외 무연탄, 쇠돌(년산 80~90만t), 연(년산 10만t), 아연 (년산 70만t), 석유, 우라니움, 코발트 등을 채굴한다. 린광석은 이 나라 채광공업생산액의 70%(년산 1천 200만t)를 차지하며 자본주의세계에서 2~3위를 차지한다.

수산업이 비교적발전하였다. 정어

리가 많이 잡히고있으며 이것은 이 나라의 명산물로 되고있다. 물고기생산량은 해마다 약 22만 5천t정도에 달한다. 물고기가공공업이 발전하였으며 통졸임과 어분을 많이 수출하고있다.

나라의 동부와 서부 그리고 광산지역들을 련결하는 1천 700여km의 철길과 2만 4천여km의 도로가 있다.

1971년 관광수입이 총외화수입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였다.

외국독점체들이 26개의 은행중 17개를 통제하고있으며 가공공업능력의 50%이상과 대외무역의 약 80%를 독점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린광석, 망간 등 광물류와 물고기가공품, 어분 등이다.

마로끄는 당면하게 경제의 《마로끄화》를 추진시켜 우선 모든 합영회사들에서 민족자본이 51%정도 되게 하며 회사관리일군의 3분의2를 자체의 민족간부로 꾸리기 위해 투쟁하고있다.

국교는 회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마그레브아랍통신 **신문** 알 알람 (독립당기관지, 아랍어), 오삐니옹(독립당기관지, 프랑스어), 알끼파호 알 와따니, 알 마그레브 알 아라비, 팔랴스뀐.

방송 마로끄방송, 마로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신문 《오삐니옹》 1972년 4월 16일호는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실었다.

에스빠냐령사하라

아프리카의 서북부 마로끄의 서남쪽에 있다. 세기에트 엘 함라(8만 3천km²)와 리오 데 오로(19만km²)의 두 지역으로 이루어졌다.

【넓이】 27만 3,000km²

【인구】 8만 7,000명

주민의 대부분이 베드윈족과 베르베르족이다.

언어는 아랍어와 베르베르어

【행정중심지】 엘 아윤(주민 5,300명)

1916년부터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이 마로끄령토였던 사하라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다.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이다. 인구의 약 절반이 유목민이다. 주요집짐승은 락타, 염소, 면양 등이다.

오아시스주변에서는 보리, 밀, 올리브를 재배한다.

주요지하자원은 린회석, 쇠돌, 카리염, 동, 석유 등이다.

모리따니

(모리따니회교공화국)

아프리카의 서쪽 대서양기슭에 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과 반사막지대이다. 기후는 열대성기후이다. 년평균기온은 25°C, 년평균강수량은 200~600mm이다.

【넓이】 103만 700km²

【인구】 120만명(1971년)

주민의 75%가 베르베르족이며 나머지는 흑인이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누악쇼뜨(주민 4만명)

【민족회의】 일원제립법기관이다. 인민당이 전의석을 차지하고있다. 의석수 40석, 임기는 5년

【정부】 1971년 8월 18일 구성,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호(1961년 8월), 외교부장 함디 울드 무크나쓰, 국방부장 씨디 모하메드 디아가나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61년 12월 4개의 정당이 통합되여 성립, **근로자동맹, 인민당청년치고리사회, 인민당녀성치고리사회,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1968년 4월 11일 결성, 위원장 바 알라싼느.

정 치 1920년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8년 11월 28일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다. 1960년 11월 28일 독립하고 회교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모리따니인민은 《자주적발전》, 《모리따니화》, 《민족경제건설》 등의 구호를 내걸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터전을 닦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정책을 내놓고있으며 아프리카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아프리카통일을 주장하고있다.

1965년 2월 유일당제법안을 채택하였다.

1965년 7월 아프리카말가슈공동기구에서 탈퇴하였으며 이해 12월에는 남로데시아인종주의정권을 반대하여 영제국주의자들과, 1967년 6월에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부추기고있는 미제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8년 10월에는 유태복고주의자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과의 그 어떤 무역도 금지하는 법령을 발포하였다.

1972년에는 새로운 민족화폐를 만들었다.

1972년 6월 9일 민족적독립과 령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국의 령해를 30해리로 확정하였다.

경제, 사회 광업, 축산업, 수산업이 3대 경제부문을 이루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철, 동, 석유, 크롬, 니켈, 바나디움 등이다. 철광석 (철함유량 65%)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제2위이다. 1971년에 철광석생산량은 1천만t에 달하였다.

독립후 정부는 채취공업에만 치우쳤던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을 극복하고 가공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양털가공공장, 세멘트공장, 가죽공장, 사탕공장, 우유공장 등을 건설하였으며 1972년에는 하루에 7만갑의 성냥을 생산하는 성냥공장이 새로 조업하였다.

농업에서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로 벼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계속하여 벼의 시험재배에 성공하였으며 토지개량, 물주머니조성 등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서기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시키고있다. 부침땅은 30만ha이다.

주요농산물은 수수, 조, 보리, 콩, 기장, 대추야자, 아라비아고무 등이다.

주민의 70%가 축산업에 종사하며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의 70%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등이다.

해마다 물고기생산량은 25만~30만t에 달하고있다.

민족간부양성사업과 보건사업에서도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1972년에 국가투자총액의 20%이상을 교육부문에 돌렸다. 독립후 2개의 중학교밖에 없던 이 나라에 고등학교망도 12개나 되며 1천 360여명의 인민교원들이 일하고있다.

이 나라에는 뽀르구로—악쥬쥬트—뽀르에띠엔느를 련결하는 680km의 철길과 남북을 련결하는 도로가 있다.

주요수출품은 축산물과 대추야자, 돌소금, 철광석, 동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천, 원유제품, 운수수단 등이다.

대부분이 회교도이며 기독교도 약간 있다.

【출판보도】 **통신** 모리따니통신

신문 빠뻘(인민당기관지, 2개월에 1회 발간), 쥬르날 오피씨엘(1개월에 2회 발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1월 1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5년 9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67년 10월 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협정을 맺었다.

1968년 4월 11일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67년 10월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0년에 모리따니인민들속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모리따니청년들은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 《김일성주석혁명력사연구소조》들을 결성하였으며 또한 까히라에 있는 모리따니류학생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2년 4월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모리따니방송이 특별방송을 하였다.

1972년 7월 18일 6지구 소재지인 로쏘에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군중집회와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를 진행하였다. 영화감상회에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원작 그대로 옮긴 광폭예술영화 《피바다》를 비롯한 여러건의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8월 30일부터 9월까지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에서는 《친선영화주간》을 설정하고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비롯한 여러건의 영화들을 상영하였다.

10월 18일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를 진행하였다.

1972년 4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에 왔으며 14일 대표단은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기념행사에 정부군사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24일 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우리 나라 사회과학자대회에 모리따니통신사 사장이 참가하였다.

1972년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3월), 사로청대표단(2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말 리

(말리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북부중심에 있다. 북쪽은 사하라사막과 잇닿은 사막지대이며 그 남쪽은 반사막지대와 초원으로 되여있다. 기후는 몹시 무덥다. 년평균기온은 35°C(최고 60°C), 년평균강수량은 북부사막지대에서 100mm, 기타 지역에서 700mm이다.

【넓이】 124만km²

【인구】 502만 2,000명 (1971년 9월)

주민은 밤바라족, 프리니족, 마르카족, 송가이족, 말린케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바마코(주민 17만 5,000명)

【민족해방군사위원회】 1968년 11월에 창설된 나라의 최고기관이다. 위원장 무싸 뜨라오레

【정부】 총리 무싸 뜨라오레 (1968년 11월—), 외무및협조부장 샤르레스 쌈바 씨쏘꼬, 국방, 내무 및 안전부장 키씨마 두카라

【정당, 사회단체】 1968년 정변후 모든 정당, 사회단체는 해산되였다. **말리조선친선협회** 1972년 1월 결성, 위원장 싸무 뚜레.

정 치 1895년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04년에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통합되였다.

1956년에 《반자치제》가 실시되였다가 1958년 11월 24일 《프랑스공동체》내의 《반자치공화국》으로 되였다.

1959년 4월 세네갈과 통합하여 말리련방을 형성하였다.

1960년 6월 20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1960년 8월 20일 세네갈이 련방에서 떨어져나감으로써 련방은 해체되였다.

1960년 9월 22일 말리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말리는 프랑스식민주의자들과 맺었던 모든 협정을 페기하고 1961년 2월 11일 《프랑스공동체》에서 떨어져나왔다. 또한 식민지경제기구들을 페지하고 1961년 9월까지 말리에 있던 프랑스침략군과 프랑스관리들을 몰아냈으며 프랑스침략군의 군사기지들을 철수시키고 민족군대를 창건하였다.

1968년 11월 19일 중하층장교들이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모디보 케이타정부를 전복하고 민족해방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대내적으로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말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1972년 2월과 4월에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와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1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 주민의 95%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을 하고있다. 농업과 목축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약 70% 차지한다. 총경지면적은 약 135만 4천ha이다.

독립후 목화와 땅콩만을 심던 농업의 기형성을 점차 퇴치하고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밀, 감자, 사탕수수, 강냉이, 벼 등 여러가지 알곡작물들을 널리 재배하고있다.

1971—1972년에 목화는 8만t, 땅콩은 13만t, 벼는 12만t 생산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망간, 보크사이트, 아연, 동, 쇠돌, 주석, 석유 등이다.

민족공업발전을 위하여 독립후 여러 공업기업소들을 창설하였다. 1963년에 시카소수력발전소가 건설되였으며 1967년에는 니제르강에 5천 200kw의 능력을 가진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

1966년에는 우리 나라의 원조로 도자기공장이 건설되였으며 1968년에 세구시에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종합방직공장, 1971년에는 바마코에 해마다 35만t의 목화를 가공처리할수 있는 방직공장, 15만t의 벼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정미공장 등이 건설되였다. 기름공장, 비누공장, 육류가공공장, 통졸임공장 등 1970—1971년도에만도 15개의 공장들이 건설되였다.

대외무역은 해마다 수출액이 10%씩 늘어나고있다.

교육, 문화, 보건 분야에서도 전변이 이룩되였다.

독립후 정부는 식민주의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교재를 편찬하였으며 나라의 실지 형편에 따라 학제를 단축하였다.

1971년에 대학생수만도 1천여명에 달했으며 각급 학교학생수는 23만여명이였다.

문맹퇴치사업이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되고있는데 전국적으로 1천 500여개소에 강습소들이 설치되여 60여만명

의 성인들이 망라되였다.

병원은 10개, 진료소는 210개, 산원은 22개로 늘어났다.

회교도가 65%이며 기타는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말리국립통신

신문 에쏘르(민족해방군사위원회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10월 3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1년 7월에는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5년 10월 21일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정과 전기통신련락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6년 8월 25일 바마코에서 우리 나라의 원조로 건설된 도자기공장조업과 관련한 최종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2년 1월 말리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2년 7월 신문 《에쏘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를 실었다.

7월 26일 말리평화옹호위원회는 조국해방전쟁승리 열아홉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과의 련대성모임을 가졌다.

7월 25일 바마코에서 말리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와 말리조선친선협회의 공동주최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다.

8월 말리평화옹호위원회는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모임을 가지고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972년에 말리대표단 (3월), 정부군사대표단(4월), 외무및협조부대표단(7월), 교육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 우리 나라로부터는 정부대표단(2월)이 말리를 친선방문하였다.

세 네 갈

(세네갈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북쪽 대서양기슭에 있으며 모리따니, 말리, 감비아와 접하고 있다.

기후는 아적도기후의 특징을 나타낸다. 평균기온은 1월에 23∼24°C, 7월에 26∼28°C이다.

가물철과 장마철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데 북쪽에서는 7∼9월, 남쪽에서는 5∼11월에 비가 많이 온다. 년평균강수량은 북쪽에서 250mm, 남쪽에서 1천500m이다.

【넓이】 19만 6,192km²

【인구】 390만명(1972년 2월)

주민은 월로프족, 풀베족, 쎄레이족, 투꿀러르족으로 이루어져있다.

공용어는 월로프어와 프랑스어

월로프어는 글자가 없으나 주민의 4분의 3이 이 언어를 쓰고있다.

【수도】 다까르 (주민 66만명)

【민족회의】 일원제 립법기관이다. 80명의 의원으로 구성, 임기는 5년

【정부】 1972년 6월 내각 개조,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쎙고르 (1960년 9월—), 총리 아브두 디우프(1970년 2월—), 외교부장 쿰바 도폐네 디우프, 국방부장 마가떼 로

【정당,사회단체】 **진보련맹당** 1958년 9월 25일에 성립된 집권당, **전국근로자련맹**(진보련맹당 산하조직), **청년전국리사회**, **진보련맹당녀성동맹**.

정 치

1815년에 프랑스식민지로 되였으며 1946년에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포함되여있다가 1958년 11월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다, 1959년에 말리와 합병하여 말리련방을 형성하였다.

1960년 4월 4일 말리련방의 성원국으로 독립하였으며 8월 20일 련방에서 떨어져나와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8월 25일 첫헌법이 채택되고 쎙고르가 초대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1962년 12월 당시 총리이던 디아가 정변을 일으켜 쎙고르대통령을 내쫓았으나 프랑스군대에 의하여 진압되고 쎙고르가 다시 대통령으로 되였다.

1963년 3월 내각책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책임제를 규정한 헌법이 채택되였다. 1970년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새로 총리제를 내왔으며 1972년 6월에는 총리가 겸하고있던 국방부장직을 따로 내왔다.

대외적으로 세네갈은 일련의 반제적 조치를 취하면서 아프리카나라들 및 사회주의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맺었다.

1963년 7월 뽀르투갈, 남아프리카 식민주의자들과 일체 관계를 끊었으며 1964년 9월에는 장개석도당과 외교관계를 끊고 1971년 12월에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1년 8월에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다.

1972년 6월 16일에는 까메룬과 우호 및 협조조약을 맺었다.

세네갈의 반제적인 조치를 반대하여 뽀르투갈침략자들은 1972년 5월 26일 세네갈의 산치야바 만쟈크마을에 침입하여 주민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10월 12일에는 5대의 전차와 침략군이 침입하여 병사들을 살해하였다. 세네갈민족회의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원쑤들의 도발책동에 강한 반격을 가하였다. 이리하여 뽀르투갈침략자들을 내쫓고 나라의 독립과 령토완정을 수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농업에서는 땅콩생산이 기본으로 되고있어 이 나라 주민의 3분의 2가 이에 종사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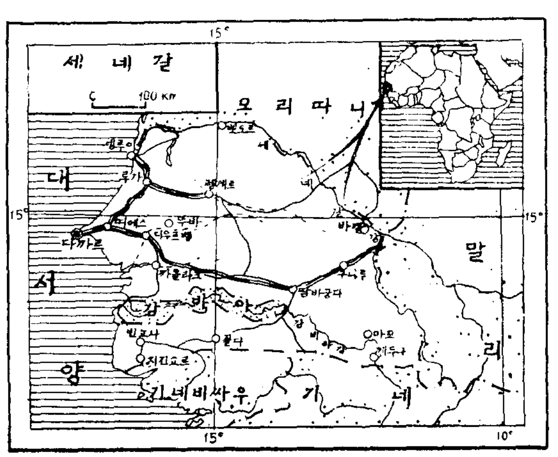
땅콩재배면적은 총경지면적의 약 절반(90만정보)을 이루고있으며 그 생산량은 세계땅콩총생산량의 10%, 이 나라 농업총생산액의 35%를 차지한다.

이외에 수수, 기장, 벼, 밀, 강냉이, 목화 등이 생산되나 식량은 자급자족 못한다.

독립후 정부는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공업농업생산물을 늘이며 주민들의 취업문제해결을 주요과업으로 규정하고 일련의 사회경제적 조치를 취하였다. 제3차4개년계획기간(1970—1973)에는 특히 농업발전에 커다란 력량이 돌려졌다.

1972년에는 동부세네갈에서 많은 새땅이 개간되고 목화, 사탕무우 재배지들이 확장되였으며 쌀,과일,남새를 심는 고장들에 관개시설망이 확장되였다.

축산업도 농촌경리에서 주요한 비중



을 차지하는데 큰 뿔난집짐승은 300만마리, 양과 염소는 250만마리에 달하고있다.

1972년에 기본작물인 땅콩은 1971년보다 33만t 더 늘어나 91만 7천t, 목화는 약 2배로 늘어나 2만 1천t, 수수와 기장은 60만 2천t 생산되였다.

민족공업도 창설되였다. 1971년에 합성섬유, 가루비누, 금속제품 공장, 솜타는 공장, 화장품공장, 해초가공기업소들이 조업하였다.

1972년 상반년에 공업총생산액은 1971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28.5% 늘어났다. 이해 화학공장과 사탕공장, 정유공장이 조업하였으며 야금, 자동차다이야, 축전지, 제약 공장들의 건설이 진행되였다. 공업총생산액은 국민소득의 20%를 차지하며 그중 경공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1972년에 어획고는 이 나라 력사상 최고기록인 25만t에 달하였다. 린회석, 알루미니움과 기타 희유금속도 약간 생산된다.

대외무역의 50%는 프랑스와 진행되고있다. 정부는 《간부들의 세네갈화》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계속 견지하면서 총예산의 4분의 1을 교육사업에 돌리고있다. 어린이의 80%가 학교에 다니고있으며 자기 나라 말로 교육을 받고있다. 1971년에 인민학교 학생수는 30만명이였다.

원주민들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세네갈통신

신문 유니떼 아프리깬(진보련맹당기관지) 앵포르마씨옹 아프리깬(정부신문)다까르 마땡, 모니떼르 아프리깬, 러 쏠레이, 아프리끄 누벨.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9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세네갈출판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을 광범히 소개하고있는데 1972년에 신문 아프리끄 누벨, 모니떼르 아프리깬 등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인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를 실었다.

1972년 9월 제27차유엔총회에서 세네갈은 조선문제에 관한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결의안》에 반대투표함으로써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였다.

감 비 아

(감비아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북쪽 대서양기슭에 있다.

열대성기후이다. 이 나라 수도 반줄의 평균기온은 7월에는 27°C, 2월에는 24°C이다. 비는 6~10월에 많이 내리는데 년평균강수량은 750~1천500mm이다. 열대산림초원의 나라로 알려지고있다.

【넓이】 1만 1,295km²

【인구】 37만명(1971년)

주민은 말린케족, 풀베족, 월로프족으로 이루어져있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반줄(주민 3만8,000명) 1973년 4월 25일 국회에서 바더스트를 반줄로 고치기로 결정.

【국회】 1972년 3월 32명의 국회의원을 선거

【정부】 대통령 다우다 크웨씨 쟈와라(1970년 4월—), 외교부장 에이 더 카마라

【정당,사회단체】 **인민진보당** 1959년에 성립되였으며 1962년에 집권당으로 되였다. **통일당, 련합당, 민주대회련맹, 무수리만교대회당, 감비아조선친선협회** 1968년 6월에 결성, 위원장 엠.비 존스.

정 치 1455년에 뽀르뚜갈의 침략을 받았고 1783년에 영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 1843년에 영식민지(쎈트마리섬)와 보호령(감비아강류역)으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영국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투쟁한 결과 내부자치를 실시하게 되였으며 1965년 2월 18일에는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쟁취하였다. 1970년 4월 24일 공화국을 선포하고 1972년 3월에는 처음으로 총선거를 진행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영식민지통치시기에 감비아경제는 수출을 위한 땅콩재배에 의거하고있었으며 그밖에 조, 수수, 강냉이, 기장 등을 생산하는 락후한 농업국이였다. 독립후 감비아는 이러한 단작경제의 락후성을 없애기 위하여 <5개년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기본주식물인 벼의 경작지를 확대하며 수산업과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감비아강 상류지대에 있는 이전의 황무지들에서 벼, 목화, 과일, 남새들이 재배되고있다.

땅콩은 년 8만t 생산되며 매해 약 6만t 수출한다.

공업으로는 기름, 천, 가죽 공장 등이 있다.

철길은 없으며 감비아강이 주요교통운수로로 리용되고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6월에 감비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3년 3월 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행사에 감비아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973년 2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감비아를 방문하였다.

기네비싸우

(뽀르뚜갈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연안에 있다. 대륙부분과 비싸고스제도 등 60여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대륙부분령토의 거의 전부는 해발 200m이하의 싸임벌이며 곳곳에 습지들이 있다. 바다가는 열대상록수림으로 덮여있으며 내륙지방은 열대산림초원이 펼쳐져있다.

섬들의 대부분은 화산섬으로 되여있다. 가장 큰 화산은 활화산인 포구산(2,829m)이다. 섬들에는 열대상록수림이 덮여있다. 기후는 열대천바람기후이다.

대륙지방의 동부는 덥고 메마르며 그 밖의 지방은 비가 많이 온다.

1월 평균기온은 24°C, 7월 평균기온은 26°C이다.

【넓이】 3만 6,125km²

【인구】 56만 8,000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은 반투족이며 이 밖에 물라트(혼혈인)와 약 3천명의 뽀르뚜갈인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뽀르뚜갈어

【행정중심지】 비싸우 (주민 2만 7,000명)

【정당, 사회단체】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1956년 9월 19일 아밀카르 카브랄을 비롯한 기네비싸우애국자들이 창건한 민족주의

정당, 이 나라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1960년 1월 당본부를 꼬나크리로 옮김, 총비서 아리스띠데스 뻬레이라 (1973년 7월 제2차당대회에서 선거) 근로자전국동맹.

정 치 17—18세기에 기네비싸우는 뽀르뚜갈의 주되는 노예매매시장으로서 뽀르뚜갈령베르데갑제도에 속해있었다. 1879년에 기네비싸우는 뽀르뚜갈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951년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이 지역을 《해외주》로 만들고 총독통치를 실시하였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에서 사람을 몇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잔인한 인종차별정책을 실시하였다. 구라파인은 《문명인》으로서 특권을 가졌고 아프리카인은 《토착인》으로서 보수가 없거나 매우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중로동을 강요당했으며 인신의 자유도 없고 생활의 담보도 없었다. 놈들의 파쑈통치에 의해서 수많은 인민들이 체포구금되고 학살되였다.

민족해방투쟁 인민들은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오랜기간 영웅적인 투쟁을 벌렸다. 1956년 9월 19일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이 창건된후 투쟁은 더욱 앙양되였다.

1959년 8월 3일 비싸우항부두로동자들이 식민주의자들의 가혹한 착취와 전횡을 반대하고 로조결성의 자유와 8시간로동제의 실시 등을 요구하여 대중적인 첫 파업을 일으켰다. 이 투쟁에서 50명의 로동자들이 식민주의자들의 류혈적인 탄압으로 살해되였다.

그후 당은 민족해방을 위한 주체적혁명력량을 꾸리는 한편 뽀르뚜갈침략군대의 철거, 모든 정치범들의 즉시적인 석방, 자결권의 부여 등 요구조건을 내걸고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과 대결하여 평화적인 정치투쟁을 벌리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은 인민들을 령도하여 무장투쟁의 길로 나갈것을 결심하고 이해 9월 당정치국확대회의에서는 《무장투쟁이 민족해방의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기네비싸우혁명가들과 인민들은 《폭력에는 폭력으로》라는 정치적구호를 제기하고 비싸우부두로동자들의 총파업 두돐이 되는 날인 1961년 8월 3일을 계기로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첫 총성을 울렸다.

이때부터 인민들은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의 령도밑에 손에 무장을 들고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을 벌려 원쑤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고 빛나는 승리를 거둡하였다.

1968년부터 애국적무장력은 전 전선에 걸쳐 대규모적인 총공격전에로 넘어갈데 대한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의 방침에 따라 농촌을 근거지로 하여 무장투쟁은 도시에 대한 집중공격에로 넘어갔다.

1972년 6월 9일 애국적무장력은 수도 비싸우시에, 6월 26일에는 군사요충지이며 이 나라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바파타시에 쳐들어가 비행장과 공공건물들을 습격하는 대담한 작전을 벌렸다.

이해 1월부터 8월까지에만도 여러 도시들에서 369차나 적 수비대들을 공격하는 습격전투를 벌리고 131차에 걸쳐 뽀르뚜갈침략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큰 전투를 벌렸다. 이 전투들에서 적 700여명을 소멸하고 적군용차 90대를 까부셨으며 적들의 각종 함선 90척을 물속에 처박고 적비행기 5대를 쏴떨구고 많은 무기를 빼앗았다.

동시에 애국적무장력은 광활한 지역에서 대부대기동전을 벌려 적들의 《집단부락》정책을 파탄시켰다. 그리하여 1972년현재 전국령토의 4분의 3에 달하는 농촌지역을 해방하였다.

해방지역에서는 혁명정권형태로서 《농촌위원회》들이 조직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시책들이 실시되고있다.

1972년 8—10월에는 이 나라 반제민족해방운동력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되는 민주주의적인 총선거가 실시되였다. 치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진행된 선거에는 등록된 유권자의 93%에 달하는 7만 7천500명이 참가하였다. 결과 120명의 대의원이 선거되여 독립국가를 선포하고 정부를 구성하며 헌법을 작성하기 위한 주권기관인 전국인민회의가 선거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더욱 필사적으로 발악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123페지)

기네비싸우인민들이 거둔 거대한 승리에 겁을 집어먹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1973년 1월 20일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의 총비서인 아밀카르 카브랄동지를 살해함으로써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으려고 책동하였다.

2월 2일 당은 이당 공동비서인 뻬레이라를 당의 최고투쟁리사회가 소집될때까지 당을 지도하도록 임명하고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산물은 땅콩, 벼, 코코아, 종려, 담배, 사탕수수, 목화 등이다.

농산물과 목재 가공을 위한 몇개의 공장이 있다.

철도는 없고 제바강을 비롯한 하천운수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 해상운수의 주요항구는 비싸우, 프라야 등이다.

해방지역에서는 혁명정권의 지도하에 농업생산이 급속히 늘어나고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식료품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취해지고있다.

1만 5천여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있다. 해방전에 비하여 학교수는 7배로 늘어났다.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사회경제활동 및 문화의 각 분야에서 일하고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3월 26일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기네비싸우학생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및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2년 8월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이며 전쟁리사회 위원장인 아밀카르 카브랄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8월 17일 대표단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베르데갑제도

(뽀르뚜갈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연안에 있는 다까르(세네갈수도)로부터 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대서양에 있는 15개섬들(큰 섬은 산티아고섬, 산투안탄섬, 보아비스타섬, 포구섬, 산비쎈티섬)로 이루어져있다.

모두 화산섬들이다.

섬들에는 나무가 적고 주로 반사막

이며 사막식물이 자란다.

기후는 메마른 열대무역풍기후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50~300mm이다.

【넓이】 4,033km²

【인구】 28만명(1970년)

주민은 물라트 (혼혈종)와 아프리카 흑인들이다.

【행정중심지】 쁘라야(주민 약 3,500명. 산띠아고섬에 있다.)

1495년에 뽀르뚜갈식민지로 되였다.

1951년에 뽀르뚜갈은 이 섬을 《해외주》로 선포하고 총독통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 나라 인민들은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과 베르데갑제도해방전선의 지도밑에 민족해방투쟁을 벌리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외래식민주의자들이 경영하는 재배농장들에서 커피, 사탕수수, 야자, 바나나 등을 재배하고 있다. 또한 피마주, 강냉이, 감자, 마니오크, 귤 등도 재배하고있으며 염소, 돼지 기르기, 산호캐기도 한다.

기 네

(기네공화국)

아프리카의 서쪽 대서양기슭에 있다. 크게 바다가의 저지대, 기네산지지대, 니제르강상류의 고원지대, 남동쪽의 산림지대로 나뉘여진다.

기후는 열대철바람기후이다. 년평균기온은 26~28°C, 년평균강수량은 북부와 중부에서 700~2천mm에 달하며 해안지대에서는 3천~4천mm이다.

【넓이】 24만 5,857km²

【인구】 524만3,284명(1972년 12월)

주민은 풀베족(40%), 말린케족, 만딩그족, 수수족 등 20여개 종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꼬나크리 (주민 35만명)

【민족회의】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 임기는 5년, 총의석 75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있다.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무장력의 최고사령관이다. 임기는 7년, 대통령 아호메트 세쿠 투레(1968년에 재선)

【정부】 1972년 6월 처음으로 총리직제를 내오고 내각을 구성하였다. 총리 란사나 베아보기, 외교부장 필리 씨쏘코, 인민군담당국무부장 후마니 싼가레나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 1947년 5월 17일 《아프리카민주련맹》의 지부로 조직되였다가 1958년 11월 19일 독립적인 정당으로 되였다. 집권당이며 유일당 **근로자전국련맹, 아프리카민주혁명청년전국리사회, 전국녀성리사회.**

정 치 18세기 풀베족의 국가였던 기네는 1860년에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1895년에는 프랑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957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기네인민의 투쟁을 무마하기 위하여 해외령지 《기본법》을 조작하여 기네에 《반자치제공화국》의 지위를 주고 《의회》와《행정회의》를 만들었다.

1957년 《의회》선거에서 세쿠 투레가 지도하는 민주당이 총의석 60석중 58석을 차지하여 정부를 조직하였다. 1958년 9월에 있은 투표에서는 94.5%로써 절대다수 기네인민들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강요한 헌법을 반대하였다. 이리하여 기네인민들은 1958년 10월 2일 독립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첫 총리로 세쿠 투레가 취임하였다.

독립후 기네인민은 반제반식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렸다.

1960년 민족군대를 창건하고 민족화폐를 발행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이 소유하고있던 광산, 전기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다.

1970년 5월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하여 의무병역제를 실시하였다.

1970년 11월 22일 미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부추김밑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기네공화국을 반대하는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자 기네인민들은 세쿠 투레대통령의 호소에 호응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하게 떨쳐나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단숨에 격파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으며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한 세계 모든 피압박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1963년 아프리카나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전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기금》의 설립을 제의하였으며 이해 8월 남아프리카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다. 1965년 11월에는 프랑스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주요사건】 1972년 4월 기네민주당 제9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나라의 발전문제를 토의하고 기네민주당의 전국지도부를 새로 선거하였다.

당대회 정치보고에서는 기네를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로 전변시켜야 할 새로운 단계가 다가왔다고 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을 조직적로동에 참가시키고 로동시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대외정책분야에서는 아프리카의 통일을 지지하며 기네비싸우, 앙골라, 모잠비끄, 짐바브웨, 나미비아의 즉시적인 완전한 해방과 남아프리카에서의 인종격리 및 파쑈정권의 청산을 주장하였다. 미제를 반대하는 윁남, 라오스 및 캄보쟈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강점된 모든 령토들의 즉시 반환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랍인민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5월 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당의 직속으로 경제, 사회적립법, 교육 및 문화 그리고 당의 조직적구조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제안들을 작성하기 위한 4개의 위원회들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5월 꼬나크리의 인민궁전에서 이전 가나대통령 크와메 느크루마의 장례식이 진행되였다.

11월 기네민주당은 윁남문제해결을 위한 윁남민주공화국의 립장을 지지하면서 10월에 윁남민주공화국과 미국간에 합의된 협정이 즉시 조인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민의 80%가 농사하고있다.

바나나, 커피, 파인애플 등의 작물만 심던 식민지적편파성을 퇴치하고 농업의 다각적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진 결과 벼, 강냉이, 기장, 수수 등의 알곡과 마니오크, 고구마, 목화를 대대적으로 재배하고있다. 매해 벼는 30여만t, 마니오크는 40여만t, 고구마는 10만t, 기장과 수수는 15만t, 강냉이는 6만여t씩 생산되고있다. 2대 수출작물인 바나나는 년산 80만t, 파인애플은 1만 5천t 정도 생산되고있다.

1971—1972농업년도에 41만 5천ha의 땅에 벼를 심어 37만 5천t의 벼를 생산하였다,

정부는 농촌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농기계, 연료, 씨앗, 비료 등 농촌에 대한 물질적 및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농업에서 축산업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로 내륙초원지대에서 소, 양, 염소 등을 기른다.

식민지통치시기에 공업은 거의 없었다. 독립후 서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방

직공장 (년 2천 200만m 생산), 3천 200kw의 출력을 가진 미니콘수력발전소를 비롯하여 원유가공공장, 철근공장, 세멘트공장, 유리공장, 합성수지공장, 제지공장, 육류가공공장, 통졸임공장, 담배공장 등 현대적공업기업소들이 건설되였다.

1971년부터 착수한 마또또도자기공장이 건설되였다.

공업에서 채광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가진 보크사이트와 품위가 높은 쇠돌이 유명하다. 1970년에 쇠돌생산량은 220만t에 달하였다.

정부는 채광공업과 그 가공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경제전반에서 이 부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광산개발을 다그치고있다.

철도망과 도로망이 비교적 발전되여 있다. 꼬나크리와 나라의 동부지방에 있는 장깐시사이의 간선철도를 포함하여 총 800여km의 철길이 있는데 정부는 새로운 보크사이트광산을 개발하는 보께계획에 따라 137km의 철길을 새로 건설하고있다. 자동차길은 총 1만 2천 700km에 달한다.

1972년 10월 민족화페로서 프랑대신 실리를 새로 제정하였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파인애플, 커피, 쇠돌, 보크사이트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공업제품과 식량, 운수수단 등이다.

민족간부양성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교육분야에서 개혁이 실시되여 교육체계가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편되고 교육망도 대대적으로 늘어났다. 1964년 10월 27개 문자로 된 새로운 기네글자를 만들고 학교교과서도 기네글로 출판하고있다.

독립전에는 학교가 10개 정도였고 고등교육기관은 하나도 없던 이 나라에 2개의 공업대학과 9개의 전문학교들을 비롯한 2천여개의 각급 학교들이 일며섰다.

1972년현재 학생수는 독립전인 1958년에 비하여 20만 8천명이나 더 많은 25만명으로 늘어났다. 초등학교에서는 민족어로 교육하고있다.

민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네인교원들을 양성하는데 큰 힘을 넣고 있다. 1972년현재 6개의 사범전문학교들이 있으며 1971년에 교원수는 7천 551명이였다.

글모르는 사람을 없애기 위하여 문맹퇴치전국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 각지에 문맹퇴치기관을 조직하여 이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고있다.

1971년 전국의 모든 촌락에 진료소를 건설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으며 병원과 진료소들이 신설확장되고있다.

대부분이 회교도이며 그외 원시종교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기네통신

신문 호로야(민주당기관지, 주 3회) 쥬르날 오피씨엘 드 기네 (정부기관지, 2주 1회), 뜨라바예르 드 기네(근로자전국련맹기관지).

방송 기네국립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8년 10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1년 6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68년 4월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2년 8월 14일과 15일 2일간에 걸쳐 인민궁전에서 기네민주당의 주최로 우리 나라 예술영화 <피바다>에 대한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1972년 유엔총회 제27차회의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으로 나섰으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1965년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기네대통령 부인 앙드레 뚜레녀사가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1972년 12월 기네당및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8일 대표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2년 우리 나라로부터는 2월과 11월에 정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시에라 레온

(시에라 레온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을 끼고 있다.

갑과 반도, 섬들이 많고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이 많다. 강들의 상류와 중류에는 폭포와 여울이 많다.

기후는 열대철바람기후로서 장마철(4—11월)과 가물철(12—3월)로 나뉘여진다. 기온은 가장 낮은 때인 8월에 24°C, 가장 높은 때인 4월에 27°C이다. 강수량은 바다가에서 4천~5천mm, 내륙산지에서 2천~2천 500mm이다.

【넓이】 7만 1,740km²

【인구】 260만(1971년)

주민은 멘데족, 쩽네족, 림바족, 크레오족 등 13개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프리타운(주민 15만명)

【국회】 일원제이다. 총의석 74석중 60석을 인민대회당이 차지하고있다.

【정부】 1971년 4월에 수정된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 되며 부대통령이 총리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통령 (국방부장겸임) 시아카 프로빈 스티븐스(1971년 4월 21일), 부대통령겸 총리 에쓰. 아이. 코로마, 외교부장 솔로몬 에이. 제이. 프래트

【정당, 사회단체】 **전인민대회당** 1960년에 창건, 1963년 4월부터 집권당 총비서 씨. 에이. 카마라—테일러, **인민당** 1951년에 창건, 자본가와 봉건귀족들의 리익을 대표, **전국청년동맹** (전인민대회당 산하조직), **녀성조직전국련맹**,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 1968년 9월 9일 결성, 전국위원회 위원장 몬티코울

정 치

180년동안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하에 있다가 1961년 4월 27일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1962년 5월 첫 총선거가 실시되여 인민당이 집권하였다.

1967년 3월 총선거에서 전인민대회당이 승리하여 스티븐스가 총리로 임명되였으나 제국주의자들의 사촉에 의한 군사정변으로 몇시간후에 다시 정권은 반동들에게 장악되였었다.

1968년 4월 17일 륙군병사들이 일으킨 군사정변으로 인민당정권이 전복되고 스티븐스를 총리로 하는 전인민대회당정부가 다시 구성되였다.

1969년 10월 스티븐스정부는 이 나라 경제의 60~70%를 쥐고있던 영국금강석회사 두목놈을 내쫓고 12월에는 외국광업회사들의 리권을 빼앗아내고 제국주의자들의 토지소유를 금지하였다.

1970년 10월과 1971년 3월에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조종밑에 감행된 국내반동들의 반정부음모책동을 짓부시고 이와 관련된 총독놈을 해임시켰다.

1971년 4월 19일 공화국을 선포하고 영국녀왕이 시에라 레온의 녀왕으로 된다는 법령을 페지하였다. 그리고 국가수반으로 되는 첫 대통령으로 시아카 프로빈 스티븐스가 취임하였다.

1972년 6월 20일 국회정기회의에서 스티븐스는 공화국선포후 국내정책분야에서 정부의 기본노력이 민족적통일을 공고히 하며 경제에서 외국독점체들이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고 국가적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조치를 취하였다고 말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아프리카통일을 강화하는 로선을 계속 견지할것이며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인종차별을 반대하여 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72년 4월에 꾸바와, 12월에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금강석, 쇠돌, 보크사이트채취공업이다. 금강석생산량은 세계금강석생산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해마다 국가재정수입의 15%이상, 광물수출총액의 60%를 차지한다. 쇠돌매장량은 약 4억t에 달하며 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제3위를 차지한다. 보크사이트매장량은 1천만~2천만t으로 추산된다.

1969년에 금강석은 193만 6천 카라트, 쇠돌은 264만t, 보크사이트는 45만 1천t 생산되였다.

공화국선포후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나 민족공업을 창설하기 위하여 채굴공업을 국유화하고 새로운 공업회사들을 창설하였다. 기름공장, 신발공장, 정미공장들을 비롯한 30여개의 식료품 및 일용품 공장들을 일떠세우고 1972년에는 강철압연공장, 방직공장들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또한 국가상업회사가 주요상품들의 수출과 판매를 통제하고있다.

농촌경리분야에서는 단작경리의 후과를 가시고 농촌경리를 다각적인 경리로 전변시키며 식량을 자급자족하는것을 농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1970년에 경지면적은 독립직후의 거의 2배로 확장되였다.

주요농산물의 하나인 코코아열매의 생산량은 1971년에 6천t으로 늘어났으며 1970년에 커피는 9천t 생산되였다.

1961—1969년간에 소학교학생수는 약 6만명 늘어났으며 중학생수는 2만 5천명에 달하였다.

진료소는 100개이상에 달하였으며 간호원, 약제사들의 수도 독립전에 비하여 2배로 늘어났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9월 9일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10월 14일에는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을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시에라 레온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명예위원장은 전인민대회당 총비서)가 조직되여있으며 이 나라 신문들은 김일성동지의 고전적인 로작들을 광범히 소개하고있다.

1972년 12월 18—20일까지 시에라 레온 수도 프리타운에서는 아프리카의 16개국대표들이 참가한 《전아프리카 김일성동지주체사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시에라 레온공화국 대통령과 전인민대회당을 대표하여 전인민대회당 총비서가 축하연설을 하였으며 프리타운시장 아끼보 베쯔와 전인민대회당 산하 청년동맹 집행성원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1971년 7월에 전인민대회당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 4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 8월에 프리타운시대표단, 9월에 유엔상주대표 부부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 우리 나라에서는 2월에 정부친선대표단이 시에라 레온을 방문하였다. 5월에는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이 시에라 레온 전국녀성대회 제3차대회에 참가하였다.

리 베 리 아

(리베리아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기슭에 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벌과 언덕진 산지로 되여있으며 열대상록수림이 널리 분포되여있다.

열대기후로서 가장 더울때(3월)에 27°C, 가장 추울때(8월)에 23°C, 년평균강수량은 2천~4천mm이다.

【넓이】 11만 1,369km²

【인구】 140만명 (1970년)

20개의 아프리카인종족들이 살고있다. 가장 많은 종족은 쿠르족(50만명)이며 그밖에 크펠레족, 말린케족이 있다. 또한 미국에서 이주해온 흑인후손인 아메리카—리베리아인(약 2만명)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몬로비아(주민 18만명)

【국회】 상하량원제

【정부】 대통령 윌리암 리챠드 톨버트(1972년 1월 3일—), 국방부장 알렌 윌리암스

【정당】 진정독립당 집권당이며 유일당이다. 미국으로부터 이주해온 《해방노예》의 후손들의 정당으로서 예속자본가와 농장주들의 리익을 대표, 1955년부터 진정독립당 이외 정당들의 활동은 금지되였다.

정 치 1822년 《미국식민지협회》가 보낸 소위 해방노예들이 국가를 형성하여 미국놈총독의 통치를 받았다.

1847년 7월 26일 독립을 선포하고 공화국을 창건하였다. 그러나 모든 실권은 전체 인구의 1%밖에 안되는 친미분자들인 《해방노예》의 후손들이 틀어쥐고있다.

아프리카인들의 투쟁에 못이겨 1855년에 비로소 정부는 토착아프리카인들도 국가의 정치, 경제 생활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할수 있는 《통일정책》을 공포하였다.

1878년부터 진정독립당이 독재정치를 실시하고있다.

미제와는 1955년에 예속적인 《방위협정》을 맺었다. 몬로비아항과 로버쯔공군기지는 미제가 장악하고있다.

1972년에 쏘련(6월)과 외교대표교환에 합의하였으며 11월에는 체스꼬슬로벤스꼬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이상이 농사를 한다.

이 나라의 경제는 원시적소농경리와 외국자본 특히 미국자본의 지배하에 있는 대농장경리가 결합되여있다.

주요농산물은 고무, 커피, 종려, 쌀, 바나나, 땅콩, 코코아 등이다. 고무생산량은 아프리카 제2위를 차지하는데 그 대부분은 미제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또한 쇠돌생산도 하나 미국독점체들이 쥐고있다.

주요항구인 몬로비아항도 미국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상선대의 규모는 자본주의세계에서 제3위를 차지하나 그것은 미국, 영국, 희랍 등 외국해운업자들의 소유로 되고있다.

주민들은 회교와 천주교를 믿는다.

어린이들의 취학률은 10%이며 세계에서 학질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이다.

상 아 해 안

(상아해안공화국)

아프리카의 서쪽 기네만기슭에 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벌로 되여있다. 적도기후로서 년중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년평균기온은 23~25°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북부에서 820mm, 남부에서 4천mm이다.

【넓이】 32만 2,463km²

【인구】 490만명 (1970년)

주민은 바울레족, 쿠르족, 말린케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민족어는 있으

나 문자가 없다.

【수도】 아비쟝(주민 50만명)

【민족회의】 일원제, 임기는 5년, 민주당이 총의석(100명)을 독차지하고 있다.

【정부】 대통령겸 총리 펠릭스 후푸에 브와니 (1960—1970년에 3선), 외교부장 아르센 우쉐르 아쑤앙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 (집권당) 1946년에 창건, 민족부르죠아지들과 관리들의 리익을 대변, **민족해방위원회** 1958년 9월 창건,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주장, **근로자총련맹.**

정 치 1889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04년에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편입되였다.

1960년 8월 7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으며 1961년 2월에는 《프랑스공동체》에서 떨어져나왔다.

1961년 4월 24일 프랑스와 예속적인 《협조협정》을 맺었다.

1970년 민주당 제5차대회에서 국가자본과 함께 개인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일련의 결정들을 채택하였으며 대내정책으로서 《자유경제》정책을 재확인하였다.

1970년 1월 이 나라 경제사절단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쌍방간에 1970—1975년도 교류계획을 작성하였다.

유엔총회 26차회의에서 남아프리카의 인종격리정책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와의 《대화》만이 아프리카에서 《인종주의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80%가 농사를 하는 농업국이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코코아, 바나나, 종려, 벼, 강냉이, 목화, 마니오크 등이다. 커피생산(년산 24~27만t)은 세계 3위를 차지한다. 코코아도 해마다 18~22만t 생산되는데 세계적으로 3, 4위를 다투고있다.

공업에서는 목재가공공업이 크며 크지않은 원유가공공장, 방직공장, 세멘트공장 등이 있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이다.

목재생산은 400여만m^3에 달하고있다. 외국독점체들의 람벌로 산림지대는 거의 벌거숭이로 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금강석, 망간, 석유, 쇠돌 등이다.

해마다 금강석은 약 21만카라트이상 망간은 11~12만t 채굴되고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프랑스자본에 의하여 운영되며 채취공업부문에 미제독점체의 침투가 강화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코코아, 목재, 바나나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기계류 등이다.

주민의 80%가 문맹자이며 30만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철길은 아비쟝에서 북쪽으로 뻗어 상부볼따와 련결하는 한개의 선밖에 없다.

인구의 65%가 원시종교를 믿으며 회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상아해안통신

신문 프라떼르니떼 마땡 (정부신문) 앙땅뜨 아프리깬, 르 쥬르날

방송 아비쟝방송.

상 부 볼 따

(상부볼따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에 있는 내륙국이다.

기후는 적도철바람기후이다. 계절은 두번의 서늘한 철(11—2월, 6—9월)과 두번의 더운철로 나뉘여지며 비는 6—10월 사이에 온다. 12월과 1월의 평균기온은 가장 낮은 때(12—1월)에 24~26°C이며 가장 높은 때(4~5월)에 30~35°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500~1,000mm이다.

【넓이】 27만 4,200km^2

【인구】 515만 5,000명(1970년)

주민의 80%는 구르계의 흑인종족들이다. 그중 많은 종족이 모시족(200만명), 로비족, 보보족, 그룬시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와가두구 (주민 15만명)

【민족회의】 일원제, 1970년 12월 선거로 선출된 57명의 대의원으로 구성.

【대통령】 상구레 라미자나 (1966년 1월—)

【정부】 1970년 12월 군인들과 정당대표들이 참가한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총리 제라르 깡고 우에드라오고 (1971년 2월—), 외교부장 죠제프 꼬늠보

【정당, 사회단체】 **민주동맹, 볼따재편운동, 볼따민족동맹, 상부볼따제인민간의친선협회** 위원장 다우다 디알로.

정 치 1909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43년에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강압편입되였다.

1958년 12월 11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자치공화국을 선포하였고 1960년 8월 5일에는 독립을 쟁취하였다.

1961년 4월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떨어져나왔으며 동시에 프랑스와 《협조협정》을 맺었다.

1966년 1월 3일 상부볼따군 총참모장 상구레 라미자나가 정변을 일으켜 새정부를 수립하였다.

1969년 6월 새 헌법을 채택하고 정변당시 금지하였던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다시 허용하였다.

1970년 12월 민족회의선거를 진행하고 군인들과 정당대표들로 정부를 구성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강냉이, 기장, 벼, 땅콩, 조, 수수 등이다. 1970년에 3만 2천t의 목화가 생산되였다. 자연유지작물인 까리떼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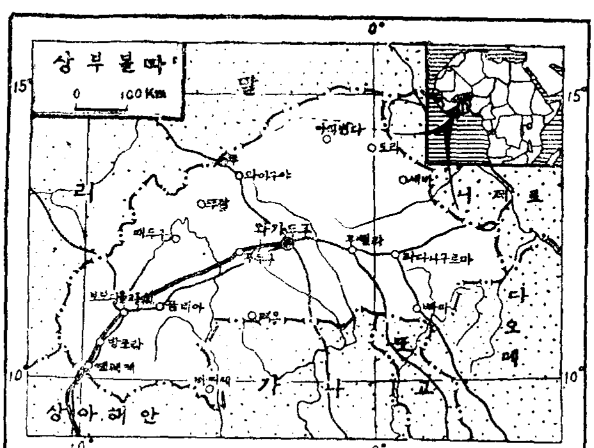
넓은 초원에 의거하고있는 목축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70년에 집짐승은 500여만마리 있었는데 그중 면양과 염소는 160여만마리였다. 축산물수출액은 이 나라 수출총액의 50%를 차지한다.

공업은 농산물가공공업과 채굴업이다. 농산물가공공업에서 기본은 땅콩기름을 생산하는 식료공업이다. 그밖에 신발공장, 육류공장, 솜타는 공장 등이 있다.

채굴공업은 금강석생산이 위주로 되고있다.

와가두구와 보보디울라쏘에 화력발전소가 있다.

상아해안의 아비쟝과 와가두구를 련



결하는 철길이 있을 뿐이며 국내에서는 락타, 당나귀, 말 등을 운수수단으로 많이 리용한다.

1972—1973년 국가예산에서 교육부문에 돌려진 몫은 16%였다.

【출판보도】 신문 까레프르 아프리깬 (정부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0월 1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을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0월 12일에는 우리 나라가 상부볼따공화국에 무상으로 경제및기술적원조를 제공할데 대한 우리 나라 정부와 상부볼따공화국 정부사이의 협정이 조인되였다.

1972년 8월에 상부볼따제인민간의 친선협회대표단이, 10월에는 상부볼따공화국 정부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공식방문하였다.

10월 11일 상부볼따공화국 정부친선대표단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가 나

(가나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을 끼고 있다.

열대성기후이다.

년평균기온은 해안과 중부산림지대에서 22~23°C, 년평균강수량은 1천~2천mm이다.

【넓이】 23만 8,537km²

【인구】 886만명 (1971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산티족, 에웨족이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아크라 (주민 63만3,900명)

【구국리사회(정부)】 1972년 1월 13일 군사정변후 7명으로 구성된 군사정권이다.

위원장 아이. 케이. 아참퐁(국방부, 재정부, 경제부 담당), 외교부장 크와메 바흐

【정당, 사회단체】 1972년 1월 정변후 모든 정치조직의 활동은 금지되였다. 로조대회 1971년에 비법화되였다가 1972년 1월 정변후 복구

정 치 1844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7년 3월 6일 영련방성원국으로서 독립을 쟁취하고 황금해안이라고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가나로 고쳤다.

동시에 영국《후견령》이던 서부또고가 가나에 편입되였다.

1960년 4월 헌법을 채택하고 7월 1일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느크루마가 초대대통령으로 되였다.

1966년 2월 친미주구 안크라를 우두머리로 하는 일부군대와 경찰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군사정권을 세웠으나 1969년 4월 반대파에 의하여 정권에서 쫓겨났다.

1970년 8월 선거로 아쿠포 아도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그후 가나지배층내의 혼란은 계속되였으며 반인민적정책으로 인하여 인민생활은 령락되고 대외부채는 해마다 늘어났다.

【주요사건】 1972년 1월 13일 가나제1보병려단 지휘관인 아참퐁대좌를 비롯한 장교집단이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부시아정부를 전복하였다.

새 정권은 대통령과 당시 런던에 가 있던 부시아총리를 내쫓고 나라의 통치를 위한 구국리사회를 조직하였다.

구국리사회는 헌법페지, 국회해산, 로조대회복구, 정당금지 등을 공포하였다.

1월 17일 구국리사회 위원장 아참퐁은 《구국리사회는 쁠럭불가담 및 적극적인 중립정책을 실시》할것이며 《아프리카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할것이라고 하면서 가나가 영련방성원국으로 계속 남아있을것이라고 하였다.

2월 구국리사회는 축출된 총리와 정부성원들, 주 행정관들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아참퐁은 2월에 진행된 재정경제계획부 일군들의 회의에서 식민주의자들의 경제적략탈로 가나가 진 대외부채의 상환과 그 부채로부터 생긴 리자의 지불을 거절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참퐁은 1973년 1월 정부의 대내외정책 강령인 《부흥헌장》을 발표하였다.

헌장에서는 가나의 대내정책이 인민의 리익을 보장하며 민족적통일을 강화하고 온갖 형태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일소하고 규탄하는것이라고 하였다.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은 적극적인 중립과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제국주의, 신구식민주의 및 인종주의의 온갖 형태와 표현을 폭로하고 견결히 규탄하며 아프리카의 통일을 적극 강화하며 아프리카와 세계의 기타 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며 모든 나라들과 협조하는것이라고 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코코아가 기본작물이며 인구의 3분의 1이상이 이에 종사한다.

가나인민들은 1980년에 가서 70만t의 코코아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수확성이 높은 종류의 코코아나무를 기르기 위한 운동들을 벌리고 있다. 코코아생산량은 1970—1971년도에 42만t, 1971—1972년도에는 45만t에 달하였다.

그외 바나나, 땅콩, 수수, 강냉이, 커피, 야자, 생고무 등도 생산한다.

농업생산이 위주로 되고있으나 1970년에 8천만딸라어치의 식량을 수입하였다. 이것은 이해 수입총액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강과 호수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있는데 1972년에 볼따호수에서만도 2만 5천t의 물고기를 잡았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금강석, 망간, 보크사이트 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가나통신

신문 가나 타임스 (정부기관지), 이브닝 스탠다드, 데일리 그래피크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2월 2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가나신문 데일리 그래피크는 1972년 3월 28일호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들에 대하여》를 실었다.

또 고

(또고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을 끼고 있다.

계절의 변화가 없고 가물철(3—6월, 9—11월)과 장마철로 나뉜다. 가물철 평균기온은 30°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천500mm이다.

【넓이】 5만 6,600km²

【인구】 191만명(1971년)

주민은 에웨족, 마나족, 까뜨시족, 까부레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로메(주민 14만3,000명)

【정부】 대통령 에떼엔느 에야데마(1967년 1월—), 외교부장 조아심 훈데

【정당, 사회단체】 인민련합 유일당이며 집권당, 1969년 11월 29일 창건.
또고조선친선협회 1969년 11월 4일 결성, 위원장 존손 뿔리까르쁘

정 치 1884년에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

1914년 8월 프랑스와 영국이 동부와 서부를 각각 강점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였던 서부또고는 가나에 통합되고 동부또고가 1960년 4월 27일 독립하였다.

1967년 1월 13일 또고군총참모장이던 에야데마가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군사정권을 수립하였다.

군사정권은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사회단체들을 비법화하였다.

1969년 11월 29일 유일당인 또고인민련합을 창건하였다.

1972년 1월 군사정권을 승인하는 국민투표가 진행되여 에야데마가 대통령으로 재선되였다.

또고는 1972년에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이상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야자, 종려, 목화, 강냉이, 땅콩 등이다. 코코아, 커피가 수출총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북부지역주민들은 목축업을 하는데 집짐승들중 소가 제일 많다.

주요지하자원은 린, 크롬, 쇠돌, 보크사이트 등이다.

1971년에 린은 340만t 생산되였다.

1962년에 파리메에 또고에서 처음으로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였고 로메에 현대적인 항구가 건설되였다.

【출판보도】 신문 또고프레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11월 또고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 6월 또고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3월 12일 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또고류학생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2년 12월 5일 또고집권당인 인민련합중앙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인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1973년 1월 3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 9월 또고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다 오 메

(다오메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기슭에 있다.

기후는 적도철바람기후로서 평균기온이 1월은 24°C, 7월은 30°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북부에서 1천mm, 남부에서 1천500~2천mm이다.

【넓이】 11만 2,622km²

【인구】 269만명 (1970년)

주민은 폰족, 아자족, 요르바족, 바리바족, 펠족 등 종족이 대부분을 이루고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뽀르또노보(주민 8만5,000명)
꼬또누 (정부소재지, 주민 12만명)

【군사혁명정부】 1972년 10월 26일 정변후 12명의 장교들로 구성, 대통령 마띠우 께레꾸, 외교부장 미쉘 알라다이에

【정당, 사회단체】 1972년 10월 26일 정변후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은 금지되였다. 다오메조선친선협회 1968년 9월 6일 결성, 위원장 빠도누 장마리.

정 치 17세기말부터 뽀르뚜갈, 화란, 영국, 프랑스 등 구라파식민주의자들의 노예무역의 중심으로 되였다.

1894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게 나라의 북부지역이 강점되였고 1900년에는 프랑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프랑스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다오메인민들은 6년간 영웅적인 무장투쟁을 진행하였다.

1958년 12월 《프랑스공동체》내의 한개 《자치공화국》으로 되였고 1960년 8월 1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1년 2월 11일에는 《프랑스공동체》에서 떨어져나왔다.

1964년 9월 다오메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동북부의 빠라꾸에 있던 프랑스침략군의 군사기지가 철폐되였으며 다오메를 강점하고있던 프랑스침략군대의 마지막부대가 쫓겨났다.

독립후 나라의 정치적불안정과 경제적난관이 지속되였으며 1972년까지만도 6차례의 군사정변과 10차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1970년 5월에 수립된 민간인정부는 3명으로 되는 대통령리사회를 구성하고 2년씩 륜번제로 대통령을 하기로 되여 위베르 마가가 첫 대통령으로 되였다.

마가정부는 1971년 9월에 프랑스, 12월에 미국 등 서방제국주의자들과 경제《원조》 협정을 맺음으로써 다오메를 서방제국주의자들에게 더욱 예속시켰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령락되였다.

【주요사건】 1971년말부터 시작된 다오메부두 및 항공운수 부문 로동자들과 학생들의 생활처지개선을 요구하는 파업과 동맹휴학은 주요도시들을 휩쓸었으며 정부를 일대 혼란에 빠뜨렸다. 대통령리사회의 탄압조치로 하여 인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1972년 10월 26일 다오메군 락하산부대 사령관 께레꾸소좌가 지휘한 군사정변이 일어나 1970년 5월에 성립된 민간정부가 전복되였다.

정변결과 대통령리사회, 정부, 정당 사회단체들이 해산되고 마띠우 께레꾸소좌를 대통령으로 하는 12명의 장교들로 구성된 새 군사혁명정부가 구성되였다.

11월 30일 께레꾸대통령은 정부정강을 발표하면서 《민족적독립을 고수하는 정책이 다오메정부정책의 기초이며 국가와 인민이 나라의 부원을 책임지게 될것이다.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는 뻘러불가담, 평등,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호혜 및 민족적존엄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12월 다오메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산물은 종려(부침땅의 절반이상 차지), 기장, 강냉이, 조, 마니오크, 땅콩, 수수, 커피, 목화, 바나나 등이다.

종려씨와 종려기름이 가장 중요한 재부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년수출액의 약 90%를 차지한다.

쇠돌, 석유, 크롬 등도 채취된다.

공업으로는 기름공장, 솜공장, 농산물가공공장 등이 있다.

경제명맥은 프랑스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으며 미제의 경제적침투도 강화되고있다. 미제는 원유개발권을 독점하고 채굴탑을 건설하였다.

소규모의 경공업공장들이 있는데 이는 주로 아랍인과 인도인들이 독점하고있다.

1972년 10월 혁명후 식민주의자들이 강요하던 단작경리를 없애고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리하여 알곡생산이 급속히 늘어났다. 또한

종려생산도 늘어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있다.

교육문화도 발전하고 학생수도 늘어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다오메통신

신문 다오 프레스 (정부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9월 다오메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 7월 29일 다오메조선친선협회 청년회원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김일성수상의 로작및혁명활동략력연구소조》를 조직하였다.

1971년 6월 다오메전국청년운동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1973년 1월 30일—2월 6일까지 다오메공화국 외교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2월 5일 평양에서 두나라 사이에 외교관계를 설정하며 대사급외교대표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 나라 정부와 다오메정부사이의 경제및기술적 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나이제리아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아프리카의 서쪽 기네만기슭에 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400~600m되는 고원이다. 기후는 열대철바람기후로서 년중기온이 높고 매우 습하며 장마철과 가물철로 나누어진다. 라고스의 년평균기온은 27°C, 년평균강수량은 1천 800mm이다.

【넓이】 92만 3,768km²

【인구】 6,500만 명(1973년 1월 1일)

주민은 하우사족(북부), 이보족(동부), 요루바족(서부) 등 300여종족이 산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라고스(주민 약 100만명)

【련방군사정부】 최고군사리사회와 련방집행리사회로서 구성된 최고기관이다. 정부수반이 군총사령관을 겸한다. 수반 야쿠부 고원(1966년 8월—)

【최고군사리사회】 최고군사기관으로서 정부수반과 총참모장, 륙군참모장, 해군 및 공군 사령관들, 주의 군정관들, 경찰총검열관과 부검열관으로 구성된다. 의장 야쿠부 고원

【련방집행리사회 (내각)】 1971년 10월 14일 내각 개조, 의장과 15명의 각료로 구성, 의장 야쿠부 고원, 외교부장 오코이 아리크포

【정당, 사회단체】 1966년 5월 정당활동은 금지되였다.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베닌에서 1967년 2월 결성, 위원장 이제아이에 오모레지에), **나이제리아조선인민친선협회** (라고스에서 1970년 12월 결성, 위원장 쭈르티스 죠세프).

정 치 1861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의 《보호국》으로 되였다. 그후 100년간 영식민지통치밑에 있었다.

1960년 10월 1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고 1963년 10월 1일 련방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에도 나이제리아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분렬정책》의 악독한 후과로 종족들간의 분쟁이 계속되여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자치권을 가진 4개주인 북부와 남부의 3개주 (동부, 서부, 중부)가 련방을 형성하고있었다. 정당들도 전국적인 범위에서 자기 지반을 가지고있지 못하고 부족과 지역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으로 존재하고있었다.

련방정부는 남부출신의 대통령과 북부출신의 총리가 타협정책을 실시하였다.

1966년 1월 나이제리아에서 있은 국회선거를 둘러싸고 일어난 종족들간의 싸움을 리용하여 동부 이보족출신의 이론시륙군사령관이 발레와 (북부의 하우사족)의 민간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론시는 북부의 하우사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면서 이해 5월에 련방제를 철폐하고 나라 이름을 공화국으로 고쳤다. 이리하여 련방을 형성하고있던 각 자치주는 해체되여 공화국정부에 통합되였다. 이론시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를 금지하였다.

이론시정권이 실시한 단일통치제도를 반대하여 1966년 8월 나이제리아 륙군총참모장이며 북부의 하우사족출신인 고원을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들이 정변을 일으켜 새 군사정권을 세웠다. 미제는 나이제리아에서의 종족간의 반목과 지배층내의 모순으로 조성된 복잡한 정세를 리용하여 저들의 경제적리권이 가장 많은 동부주만이라도 떼여내려고 책동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동부주 군정장관인 오쥬쿠는 고원정권이 수립되자 인차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1967년 5월 30일에는 미제의 지지하에 동부주를 련방으로부터 떼내여 일방적으로 《비아프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고원련방군사정부는 《비아프라공화국》의 선포를 반란행위로 규탄하고 1967년 7월 7일 련방군을 동원하여 동부주에 대한 무력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정치위기는 마침내 국내전쟁으로 확대되였다.

1967년 8월 31일 군사정부는 이론시정권이 철폐한 련방제를 다시 회복하여 종전의 4개주 대신에 12개주로 구성되는 련방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전쟁기간 《비아프라》에 미제는 군사 및 재정적《원조》를 주었으며 프랑스, 서독, 뽀르뚜갈, 남아프리카 인종주의자들은 고용병과 무기 및 탄약을 비롯한 군사재정적《원조》를 주면서 나이제리아의 통일을 방해하였다.

1970년 1월 12일 3년간의 내란은 100만명의 피해자를 내고 련방군의 승리로 끝났다.

내란후 련방정부는 전쟁피해를 가시고 종족들간의 화목을 이룩하며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동시에 전쟁피해를 기회로 기여든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과 파괴책동에 대하여 단호한 립장을 취하였다.

정부는 동부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1970—1974년간에 3억파운드의 자금을 돌렸다.

1970년 1—2월까지만도 비아프라 분렬주의자들과 공모하여 정부전복음모를 꾸민 영국 《고등판무관》, 미륙군 대좌놈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을 내쫓았다.

1971년 4월에는 국영석유회사를 창설하였으며 1972년 2월에는 외국석유회사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11월 12일에는 외국은행들을 통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반제적인 아프리카나라 및 주변나라들과의 련계를 밀접히 하면서 일부 사회주의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또한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한 기네비싸우, 모잠비끄, 앙골라, 나미비아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1970년 11월 미제의 사촉밑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기네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자 기네의 요청에 따라 군사인원을 파견하였으며 재정적원조를 주었다.

1972년 3월 1일부터 5일까지 고원이 기네를 방문하였다. 공동콤뮤니케에서는 아프리카해방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경제, 사회 주민의 70%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동부와 서부에서 주로 생산되는 종려, 서부에서 많이 재배되는 코코아, 북부에서 나는 땅콩과 목화, 고무(동부) 등이다. 종려, 코코아,

땅콩은 그 생산량과 수출량에 있어서 자본주의세계에서 제3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물은 영국독점자본에 장악되여 수출되고있다.

1971년 코코아는 30만 5천t 생산되였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취공업과 원유가공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콜롬바이트, 석탄, 주석, 중석, 탄타르, 우라니움, 금, 쇠돌 등이다.

콜롬바이트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첫자리(자본주의세계총생산량의 85% 차지)를 차지하며 주석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제2위이다.

세계 10대석유생산국의 하나이며 그 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리비아다음가는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매해 석유에서 얻는 수입은 10억딸라이상에 달하는데 이것으로 련방예산의 절반이상을 충당시키고있으며 그중 약 60%는 동부주가 차지한다.

1971년에 석유는 7만t 생산되였다.

나이제리아의 경제는 70%가 미, 영, 프랑스제국주의자들과 서독, 이딸리아, 일본독점자본에 예속되여있으며 3년간의 내전으로 경제는 혹심하게 파괴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전쟁후 정부는 전쟁의 후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개건하고 민족공업을 창설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렸다. 1970년에 착수한 4개년경제발전계획기간에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개시설과 파종면적을 늘이며 공업에서는 야금종합공장, 석유가공공장, 방직공장 건설 등을 예견하고 관개공사와 공장건설을 추진시키고있다. 1971년에 2개의 방직공장이 건설되여 750만m^2의 천을 짰으며 수력발전소의 생산능력을 늘여 150만kw에 달하게 하였다.

한편 정부는 1971년에 국영석유회사를 창설하고 미제와 이딸리아, 프랑스 등 석유독점체들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부 리권을 국가가 장악하였다.

독립후 10년동안에만도 1천여개의 크고작은 공업기업소들이 새로 건설되였으며 1차산품생산에 치중하던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이 점차 극복되고 가공공업의 토대가 쌓아졌다. 특히 석유채취공업을 비롯하여 전력, 방직, 제지, 식료품 공업에서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경제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외화보유량이 늘어나고있으며 대외무역이 발전하고있다.

1971년 9월 외화보유량은 1억 1천 260만나이제리아파운드에 달하였으며 1971년 3월현재로 2천 150만파운드에 달하였던 단기채무를 완전히 청산하였다.

대외무역은 1971년에 1억 1천만나이제리아파운드로서 이 나라 력사상 최고였다.

주요수출품은 석유 (총수출액의 4분의 3), 코코아, 종려씨, 종려기름, 땅콩, 목화, 콜롬바이트, 주석, 목재, 가죽 등이다.

철도의 총길이는 3천 500km이며 니제르강과 그 지류를 따라 약 6천km의 배길이 있다.

이 나라에서 교육은 련방정부가 수도 라고스의 교육과 그리고 이바단(제일 큰 도시)과 라고스에 있는 대학들만을 맡아보고있으며 주정부들이 자기주의 교육을 각각 책임지고있다. 따라서 주마다 교육제도도 다르다.

북부주는 다른 주와는 달리 초등교육 7년, 중등교육 5년이다.

약 1만 5천개의 소학교에서 310여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대학은 수도와 각 주들에 각각 한개씩 도합 5개가 있다.

보건사업도 각 주정부들이 제가끔 맡아보고있으며 발전수준도 각이하다.

근반수가 회교(주로 북부와 서부)이며 기독교(동부)와 원시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모닝 포스트(련방정부기관지, 영어), 데일리 엑스프레스, 데일리 스케취 (서부주신문, 영어), 뉴 나이제리언, 나이제리언 옵써버, 썬데이 스타, 뉴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2월 베닌에서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가, 1970년 12월 라고스에서 나이제리아조선인민친선협회가 조직되였다.

1971년 5월 나이제리아에 《김일성서점》이 개관되였다.

나이제리아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나이제리아《김일성동지로작학술연구소조》가 조직되여있으며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나이제리아류학생들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오로로출판사》에서 그이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이에 앞서 민족어로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73년에 신문 《뉴스》는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를 실었다.

1972년 4월 우리 나라 사회과학자대회에 나이제리아경제학자가 참가하였다.

니 제 르

(니제르공화국)

서아프리카 사하라사막남부에 있는 내륙국이다. 령토의 3분의 2가 사하라사막지대에 놓여있다. 기후는 열대사막기후이다. 1월평균기온은 북부에서 15°C, 남부에서 25°C이며 7월평균기온은 북부에서 30°C, 남부에서 25°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남부에서 250~300mm이며 북부에서 100mm정도인데 이것도 6~9월까지에만 있을뿐이다.

【넓이】 126만 7,000km^2

【인구】 401만 6,000명(1971년 9월)

하우사, 제르마, 송가이족이 4분의 3을 차지하며 그밖에 아랍인이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니아메(주민 8만 6,000명)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정부수반이다. 임기는 5년, 대통령 아마니 디오리(1960년 11월—, 1970년 11월 8일 세번째로 선거됨)

【국민회의】 최고립법기관, 5년기한으로 선거, 50명으로 구성, 진보당이 전의석을 독차지하고있다.

【정부】 1970년 11월 2일 구성, 총리 아마니 디오리, 외교부장 마이다호 마무두

【정당, 사회단체】 진보당 1946년 아프리카민주련맹의 지부로 창건, 지주, 자본가, 관리들의 리익을 대변하며 프랑스와의 협조를 주장, 국민회의에서 전의석을 독차지하고있으며 정부에서 부장급자리도 독차지하고있다. 1958년부터 집권당으로 됨. **사와바당** 1951년에 진보당의 좌익력량에 기초하여 창건, 나라의 완전한 정치, 경제적 독립을 주장, 1959년에 비법화, **민주주의적조국전선** 1964년에 사와바당과 이를 지지하는 로조, 청년, 녀성 단체들이 망라되여 창건, **전국로동자련맹** 진보당의 통제하에 있다. 이외 진보당산하에 청년, 녀성 조직이 있다.

정 치 1908년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편입되였다.

50여년간의 식민지통치기간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단 1m의 철길도, 공업기업소 하나도 건설하지 않고 원시적방법으로 이 나라 인민들을 착취하였다.

1916년 니제르인민들은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대중적폭동을 일으켰다.

1958년 12월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60년 8월 3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1961년 2월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나왔다.

1970년 9월 루사카에서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회의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과 《대화》를 개시할데 대한 상아해안의 제안을 규탄하지 않았다.

이 나라에는 100여명의 미제《평화군》놈들이 있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국민소득의 거의 80%를 농업이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땅콩, 목화, 조, 마니오크, 사탕수수 등이다. 땅콩은 년 20~25만t, 목화는 1만t, 기장과 수수는 130여만t, 벼는 4만t, 마니오크는 약 20만t정도 생산된다.

주요집짐승은 소, 말, 양, 염소, 락타 등이다. 소는 400만마리, 양과 염소는 700만마리, 락타는 36만마리 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인 조건에서 물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농촌경리발전의 기본문제로 나서고있다.

경제전반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가내공업과 수공업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철, 주석, 동, 우라니움, 석유, 돌숨, 소금 등인데 아직 개발되지 않고있다.

일부 개발된것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독점체들에 장악되여있다. 1966년 아가데스시서북쪽에 있는 아이라의 사막지대에서 우라니움이 발견된후 프랑스, 미국, 일본 독점자본가놈들의 합영회사가 창설되였으며 1971년에만도 750t의 우라니움을 략탈해갔다. 이 나라의 자원을 탐내여 서독, 이딸리아, 카나다 등 독점자본이 기여들고있다.

철길도 없고 도로망도 발달되지 못하였다. 운수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니제르강에서의 수상운수이다.

주요수출품은 땅콩과 땅콩기름, 축산물인데 이것들이 수출총액의 75%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직물, 자동차, 금속, 기계, 전기설비, 원유제품 등이다.

주민의 90%가 글모르는 사람이다. 대학은 없으며 학교수는 모두 650여개에 달한다. 학령아동의 10.8%만이 학교에 다니고있다.

주민의 85%가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신문 레 뗌쁘스 듀 니제르(일간, 1,000부),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쀼블리끄 듀 니제르(월간), 레 니제르(주간, 800부).

방송 니제르방송.

챠 드

(챠드공화국)

아프리카의 중앙에 있는 내륙국이다. 령토의 대부분이 300~500m 높이의 평원으로 되여있다. 북부지역은 사막, 남부지역은 산림, 초원으로 되여있고 서쪽 챠드호가 있는 지대는 저지대이다.

기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남부의 산림초원지대는 누기가 많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6~7개월간 1천mm이상의 비가 내리며 기온이 45°C까지 올라 몹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 그러나 북부의 사막지방은 대륙성기후로서 매우 메마르며 낮에 기온이 50°C까지 오르다가도 밤에는 5°C로 떨어진다.

【넓이】 128만 4,000km²

【인구】 400만명(1970년)

주민은 북부에 아랍족, 하우사족, 투부족과 남부에 사라족 등이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느쟈메나(주민 15만명)

【민족회의】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이다. 임기 5년, 105명으로 구성

【대통령】 국가및정부수반이며 임기는 7년이다. 프랑수와 똠발바예(1960년—)

【정부】 1971년 5월 구성, 총리 겸 무력부장 프랑수와 똠발바예, 외교부장 바바 하싼느

【정당, 사회단체】 진보당 1947년에 조직, 독립이래 집권당이며 유일당, 민족부르죠아지와 인테리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민족주의정당이다. 총비서 프랑수와 똠발바예. **전국근로자동맹**(유일한 로조단체), **진보당청년동맹**, **전국녀성동맹**.

정 치 19세기 중엽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았으며 1908년에는 프랑스령적도아프리카에 강압편입되였다.

1911년 프랑스령적도아프리카가 독일의 관할하에 넘어감에 따라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게 되자 다시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챠드인민들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오래동안 투쟁하였다. 1921년에 탈로니지역에서 봉기가 있었으며 1935년에는 10명의 프랑스관리놈을 처단하는 완강한 투쟁이 있었다.

1957년 프랑스령해외령지《기본법》에 의하여 《반자치공화국》으로, 1958년에는 프랑스공동체내에서 《자치공화국》으로 되였다.

1960년 8월 11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기후상관계로 1월 11일을 국경절로 기념)

1962년 3월 새헌법을 채택하고 1963년 1월에는 유일당제를 확립하였다.

1968년 4월 프랑스의 영향하에 있는 《중앙아프리카경제및관세동맹》에서 탈퇴하고 《중앙아프리카국가동맹》에 가입하였다.

독립후 챠드정부는 군대와 국가기관내에 잠입하여있던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내쫓고 민족경제와 민족문화건설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식민주의자들의 장기간의 민족리간책동의 후과로 남북에 사는 종족들간에는 대립과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고있다. 1968년 8월과 9월에 북부지역 종족들이 폭동을 일으켰으며 1970년 9월과 10월에는 동북부지역에 사는 종족들이 폭동을 일으켜 정부군과 충돌하였다.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프랑스군이 챠드에 들어갔다.

프랑스와 호상《방위협정》을 맺고있다.

대외정책은 《쁠럭불가담》 정책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과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 원칙에 기초하고있다.

1972년 10월과 11월 헝그리아, 중국과 각각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1월 이스라엘침략자들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4월에는 1971년 8월 군사정변후 단절되였던 리비아와의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벼, 땅콩, 수수, 기장, 사탕수수 등이다. 목화는 년산 11~15만t정도 생산되는데 국민총생산액의 20%, 이 나라 수출총액의 약 82% 이상을 차지한다. 수수와 기장의 년생산량은 약 71만t, 땅콩은 11만t, 벼는 3만t이상에 달한다.

농업발전을 위하여 가장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는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챠드호의 수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키고있다.

축산업은 적도아프리카나라들 가운

데서 가장 발전되였으며 인구 1인당 집짐승마리수는 아프리카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약 450만마리), 양, 말, 락타 등 모두 1천만마리이상에 달한다. 인구 1인당 거의 3마리의 집짐승이 차례지고있다.

경제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0% 미만이다. 농산물을 초보적으로 가공하는 솜타는 공장, 기름공장, 가죽공장, 가루공장, 원유가공공장, 화력발전소 등이 있다. 챠드정부는 경제의 《아프리카화》를 위하여 일부제국주의독점회사들의 리권을 박탈하고 제한하면서 경제기관들을 아프리카사람들로 꾸리고있다.

1972년현재 약 2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고있다.

철길이 없으며 자동차길도 년중 계속 쓸수 있는것이 거의 없다.

주민의 약 절반이 회교를 믿으며 그외는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챠드통신

신문 앵포챠드(일간), 앵포르마씨옹 에꼬노미끄(주간),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쀠블리끄 듀 챠드.

방송 챠드국립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5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까 메 룬

(까메룬련합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에 면해있다. 남부와 중남부는 1천~2천m의 높이에 있다.

하천망이 조밀하며 흘러내리는 강물이 많다. 남부에는 열대림이 무성하고 북부에는 열대산림초원들이 많다.

남부의 평균기온은 3월에 28°C, 8월에는 22°C, 년평균강수량은 4천mm이다. 기타 지역의 년평균기온은 25°C, 년평균강우량은 1천 500mm이다.

【넓이】 47만 5,400km²

【인구】 580만명 (1970년 1월 1일)

주민은 반투족, 세미반투족, 풀족, 함족 등 130여 종족

공용어는 영어(주로 서부에서 사용)와 프랑스어 (주로 동부에서 사용), 원주민들은 반투어, 수단어를 많이 쓴다.

【수도】 야운데 (주민 11만명)

【련방의회】 일원제, 총의석 50석중 동부까메룬 40석, 서부까메룬 10석

【정부】 1972년 7월 3일 내각을 구성, 대통령 엘하지 아호마두 아히죠 (총리겸임), 외교부장 뱅쌍 에퐁

【정당, 사회단체】 민족동맹 집권당이며 유일당. **민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정 치

1916년에 영국과 프랑스 침략자들이 까메룬을 강점하였다. 1919년 7월에는 프랑스와 영국제국주의자들이 까메룬을 동부와 서부로 분할하여 각각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1960년 1월 1일에 동부까메룬이, 1961년 2월에 서부까메룬이 독립하였다. 1961년 10월 1일에 이 두 지역이 련방공화국을 이루었으며 1972년 5월에는 련합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주요사건】 1972년 5월 20일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련방공화국을 이루고있던 동부까메룬과 서부까메룬이 단일한 국가체계인 까메룬련합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5월 24일 엘하지 아호마두 아히죠대통령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까메룬련합공화국의 선포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악독한 후과를 가시고 민족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까메룬인민이 거둔 커다란 승리로 됩니다.》

6월 2일 민족동맹 제1차비상대회에서 아히죠 대통령은 까메룬이 령토완정과 자주권의 호상존중, 호상불가침과 내정불간섭, 평등, 호혜 및 평화적공존의 원칙에서 쁠럭불가담대외정책을 실시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1972년에 까메룬은 웰남민주공화국(9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10월), 탄자니아(8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에 아히죠대통령이 가봉 (3월), 기네 (5월), 세네갈(6월), 알제리(9월) 등을 방문하였다.

기네방문과 관련한 공동콤뮤니케에서 두 나라는 앙골라, 모잠비끄, 기네비싸우, 나미비아, 짐바브웨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민족적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에 대한 원조를 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해에 세네갈과 우호및협조조약(6월), 알제리와 경제, 문화, 과학 협조를 지도할 합동위원회창설에 관한 협정을 조인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코코아, 바나나, 종려, 목화, 땅콩 등이다. 국민총생산액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42%이다.

1971~1972농업년도에 코코아는 13만t, 목화는 4만 4천t, 커피는 5만 4천t (1969—1970)생산되였다. 1972년에 200—300만리터의 목화씨기름공장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년간목화씨기름생산량은 500만리터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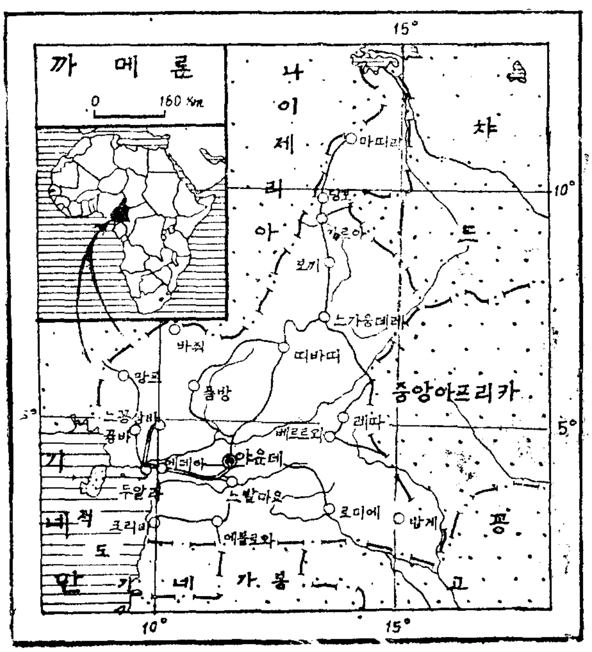
보크사이트가 풍부하며 알루미니움도 생산된다.

정부는 《까메룬화》의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개혁을 계속 추진시키고있다.

제3차5개년계획(1971—1976) 기간에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총액은 2차 5개년계획의 교육투자총액의 2배로 늘어나 216억프랑에 달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교육에 대한 투자총액은 같은기간에 2배이상으로 늘어났다.

1971년부터는 까메룬교과서를 사용하였으며 식민지통치시기의 낡은 교수요강을 철폐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하였다.

독립후 1천개의 인민학교, 130개의 중학교, 30여개의 기술학교가 건설되



1972년 7월 민족유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느게마를 종신대통령으로 임명.

【정당, 사회단체】 **민족유일로동당** 1970년 7월 7일 창건, 유일당이며 집권당, 1972년 7월 2차당대회에서 민족통일로동당을 민족유일로동당으로 고침. 위원장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 당산하에 《마시아스와 함께 전진하는》 청년조직, 녀성조직 등이 있다.

정 치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이 1777년에 마시아스 느게마섬을, 1886년에 리오 무니를 강점하고 총독정치를 실시하여오다가 1963년 12월에는 저들의 주구들로 《자치정부》를 조작하였다.

적도기네인민들은 괴뢰정부를 반대하고 나라의 완전독립을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렸다.

이리하여 1968년 9월 민족해방운동당, 인민사상당, 인민운동동맹, 페르난도 뽀자결독립당의 련립정부를 구성하였으며 이해 10월 12일에는 독립을 선포하고 느게마가 초대대통령으로 되였다.

독립후 적도기네정부는 민족적리익에 맞게 국가기구를 개편하고 《경제적자립》의 구호밑에 제국주의독점회사들을 국유화하는 등 반제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1969년에 에스빠냐침략군과 그 군사기지를 철수시켰으며 1970년에는 미제의 군사기지 설치제의를 거부하고 놈들의 독점석유회사와 《국제적십자사》의 간판밑에 이 나라에 둥지를 틀고있던 미제놈들을 내쫓았다.

1970년 7월 느게마대통령은 모든 정당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유일당인 민족통일당을 창건하였다.

민족통일당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인간의 진정한 해방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국가건설을 선포하였다.

【주요사건】 11월 적도기네와 가봉은 1971년 8월이래 두 나라간에 분쟁대상으로 되고있던 꼬리쓰꼬만(두 나라사이에 있음)을 중립지대로 선포하였으며 이 만에서의 두 나라의 평해를 규정하기 위하여 아프리카통일기구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였다.

1972년에 적도기네는 꽁고와 우호조약, 경제과학문화협조협정을 맺었으며 로므니아(3월), 웰남민주공화국(9월), 알바니아(12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코코아(세계생산량의 약 27%), 커피와 주식물인 마니오크, 바나나 등이다.

커피는 주로 리오 무니에서 생산(총생산량의 80%)되는데 년생산량은 약 8천t이다. 코코아는 마시아스 느게마섬(총생산량의 90%)에서 생산되며 년산 약 3만t에 이르고있다.

주요수출품인 목재(흑단나무)는 매해 35만t정도 생산되고있다.

공업으로는 세멘트공장, 제재공장, 제분공장 등을 비롯한 소규모의 가공공장들이 있다.

독립후 민족경제창설을 위하여 외국인들이 하던 경제관리를 적도기네인들이 하게 하였으며 화폐개혁을 실시하고 공화국은행을 창설하였다.

물고기생산량은 약 1천t정도이다.

철길은 없으며 해상운수가 기본으로 되고있다. 독립후 간부의 《적도기네화》방침에 따라 많은 민족간부들이 양성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디아리오 벨라 기네아 에꾸아또리알(정부기관지)

말라보에 방송국이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1월 3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0년 11월 적도기네정부대표단이, 1972년 4월에는 우리 나라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할 적도기네공화국대표단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가 봉

(가봉공화국)

중부아프리카의 서쪽 기네만을 끼고 있다.

열대성기후이며 년평균기온은 25~28°C, 년평균강수량은 1천 500~2천 500mm이다.

【넓이】 26만 7,667km²

【인구】 64만명(1971년)

주민은 피그미족, 판족 등 50여종족이 산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리브르빌(주민 7만 5,000명)

【국회】 일원제, 1973년 2월 70명의 의원들이 선거되였는데 그들은 모두 가봉민주당원이였다.

【정부】 대통령 알베르 베르나르 봉고(1967년 11월—), 외교부장 조르쥐 라위리

【정당】 **민주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정 치

1862년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910년에 프랑스령 적도아프리카의 한 평지로 되였다.

1960년 8월 17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가봉에 예속적인 《협조협정》을 강요하여 군대주둔권, 군사기지설치권, 프랑스회사의 면세권까지 탈취하였다.

1972년에 가봉은 로므니아와 대사급외교관계(9월)를 맺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10월)하였다.

12월 대통령 봉고가 프랑스를 방문하였다.

1973년 2월 대통령 및 국회 선거가 진행되였다. 봉고가 99.6%의 찬성을 받아 다시 대통령으로 되였다.

경 제

경제의 기본은 림업, 목재가공업, 광업이다.

목재의 80%는 합판가공에 적합한 흑단이며 이 나라 수출액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코코아, 커피, 나무감자, 사탕수수, 땅콩 등을 재배한다.

망간, 원유, 금, 금강석, 쇠돌, 우라니움 등이 매장되여있다.

경제의 명맥은 프랑스독점체들이 쥐고있으며 미제독점체들도 해마다 투자를 강화하고있다.

꽁 고

(꽁고인민공화국)

중부아프리카에 있으며 서남부는 대서양에 면해 있다. 적도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2~27°C, 년평균강수량은 1천~1천 600mm이다.

【넓이】 34만 2,000km²

【인구】 91만 5,000명 (1971년 9월)

주민은 반투족을 비롯하여 여러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브라자빌 (주민 20만명)

【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1968년 12월—)

【국가리사회(정부)】 나라의 최고행정기관이다.

1973년 1월 8일 구성, 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국방및안전문제담당부장겸임), 외교부장 다비드 샤를레 가나오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69년 12월 31일에 창건, 집권당이며 유일당, 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가 당활동의 리론적기초》로 되며《사회주의사회》건

설을 주요목적으로 한다고 공포하였다. **로동조합총련맹**(1964년 11월에 4개의 로조를 통합하여 결성한 유일한 로조단체), **농업근로자직업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혁명녀성동맹**, **꽁고조선친선협회** 1968년 7월 결성.

정 치 1886년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10년 프랑스령적도아프리카에 편입되여 《중앙꽁고》라고 불리였다.

1911년부터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차대전후 다시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꽁고의 민족적영웅 마조카의 지도하에 1934년부터 9년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이 벌어졌다.

1958년 11월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60년 8월 15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독립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풀베르 율루 괴뢰정권을 조작하여 꽁고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식민주의정책을 계속 실시하였다.

1963년 8월 13—15일 애국적인민들은 대중적인 파업과 폭동을 일으켜 율루반동정부를 타도하고 8월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날을 민족적명절로 기념)

8월혁명후 꽁고정부는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맺었던 예속적인 군사경제협정들을 폐기하고 외국군사기지와 병영들을 철폐하였으며 외국독점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1966년 6월 22일 민족인민군을 창건하였다.

1968년 8월 군총사령관이였던 마리엔 느구아비대위가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나라의 최고주권기관인 전국혁명리사회를 창설하였으며 헌법을 폐기하고 국회와 집권당이였던 민족혁명운동당의 정치국을 해산하였다.

1968년 12월 31일 전국혁명리사회를 다시 구성하고 자신이 혁명리사회 의장과 대통령을 겸하였다.

1969년 12월 31일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로동당이 유일한 집권당으로 창건되였다.

창립대회에서는 꽁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새 국기와 국가를 제정하였다.

1970년 1월 5일 전국혁명리사회 대신에 국가리사회 (정부)를 창설하였으며 국가리사회 위원장이 정부 및 국가수반으로 되였다.

꽁고정부와 인민은 《민주주의민족혁명》수행을 과업으로 제기하고 이 과업수행에로 전체 인민을 동원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반제기치를 들고 사회주의나라들, 린접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주요사건】 1972년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꽁고로동당과 그 산하 대중단체들의 제1차전국대표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국대표자회의는 비자본주의적로선을 확정하고있는 강령초안을 찬성하고 로동당의 모든 기층조직들에서 강령초안을 광범히 토의할것을 결정하였다.

5월 15일 느구아비대통령은 민족인민군 정치국을 폐지하고 그의 모든 기능을 꽁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설군사위원회에 넘길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정령에 의하면 상설군사위원회는 혁명의 전반적안전을 보장하는 사업을 지도하며 군대의 조직원칙과 안전사업을 개선하며 민족인민군내에 당조직을 창설하고 그의 활동을 지도하는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한다.

5월 로동당정치국과 국가리사회는 꽁고사람들만이 국내에서 상업을 할수 있게 하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8월 애국적민주력량 전국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나라의 앞으로의 발전방도에 관한 문제, 국내에서의 새로운 지방인민자치기관창설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결정에는 《꽁고에서의 현단계의 기본과업은 민족민주주의혁명을 실현하는것이며 나라의 정권기관들은 로동자, 농민의 정권으로 되여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9월에 진행된 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대회준비문제를 검토하였다.

12월 27일부터 진행된 로동당비상대회에서는 당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였으며 국회를 창설하며 총리직제를 내올데 관한 새 헌법초안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40명의 중앙위원회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정치국을 선거하였다.

9월 12일 자이르와 외교관계를 재개(8월에 단절)하였다. 9월 22일 아프리카—말가슈공동기구에서 탈퇴하고 12월 31일 이스라엘침략자들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림업이다. 로동인구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농산물은 나무감자, 종려, 기장, 수수, 땅콩 등이며 과거에는 도저히 심을수 없다던 벼, 커피, 사탕수수 등도 재배하고있다.

농업발전을 위하여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농업회사를 국유화하고 국영농업회사를 창설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을 무어 집단경리를 발전시키고있다. 1964—1965년에 프랑스독점회사인 《쏘씨에떼 프랑쎄즈 듀오에듀바꽁고》를, 1970년 9월에는 프랑스독점체들의 경제략탈도구인 《니아리공업 및 농업회사》를 국유화하였다.

그리고 《레쥐 나씨오날 드 빨므리》회사, 전국 《농산물상업사무소》 등을 창설하였으며 1971년에는 6천t의 나무감자를 생산하는 새국영농장을 창설하였다.

꽁고에서는 전기회사, 물공급회사, 철도, 항공, 항구들이 국유화되였다. 국영부문은 제품생산의 약 13%를 차지하고있으며 여기에는 3만명의 로동자, 사무원들이 일하고있다.

민족공업도 창설되였다.

1967년 3개의 화력발전소와 1개의 수력발전소를 망라하는 국영전력회사인 《쏘씨에떼 나씨오날 데 네르쥐》가 창설되였으며 1968년에는 10만t능력의 루떼뜨세멘트공장, 1969년에는 낀순디에 매년 340만m의 면직물과 15만점의 편직물을 생산하는 방직종합공장이 건설되였다. 1970년 9월에 우리 나라의 원조로 뻬뚜에 성냥공장이 건설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북부지역에서 1억t이상의 매장량을 가진 원유산지가 개발됨으로써 1971년말부터 첫원유가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민족교육도 발전하여 1972년 현재로 23만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 1971년 브라자빌에 첫 종합대학이 건설되였다.

인구의 약 절반이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꽁고통신

신문 에뚬바(로동당기관지), 브라자빌, 라 부아아프리껜, 꽁고생활

방송 꽁고 《혁명의 소리》 방송, 브라자빌방송,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2월 2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5년 과학기술협조협정과 무역 및 지불협정 그리고 우리 나라가 꽁고에 경제 및 기술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66년 12월에는 문화협정, 1967년 3월에는 통신 및 방송협정, 9월에는 우편물교환협정을 맺었다. 꽁고인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1970년에 《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김일성동지 위대한 혁명사상연구소조》 등을 조직하였다.

1972년 4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사회

주의청년동맹은 브라자빌 제5구역에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진전람회를 진행하였다.

1972년에 신문《브라자빌》은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인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등을 실었다.

4월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기념하여 꽁고민족인민군 총참모부 소속부대 장병들이 집회를 진행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우리 나라의 원조로 건설된 뻬뚜성냥공장이 1970년 9월 26일조업하였다. 1972년 8월 11일 브라자빌에서 우리 나라 정부가 꽁고정부에 보내는 선물인 뜨락또르전달식이 진행되였다.

1972년 4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 기념행사에 꽁고정부군사대표단이 참가하였다. 4월 24일 대표단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까 빈 다

(뽀르뚜갈식민지)

꽁고와 자이르의 접경지대인 대서양기슭에 있다.

【넓이】 7,770km²

【인구】 5만 8,000명

주민은 대부분이 반투족이다.

언어는 반투어

【행정중심지】 까빈다

정 치

1886년에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되였다.

1960년 9월과 1961년 7월 이 나라 인민들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대중적폭동을 일으켰다.

1963년부터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진행하고있다.

현재 행정적으로는 앙골라에 귀속되여 뽀르뚜갈 침략자들의 착취와 압박을 당하고있다.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한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종려, 땅콩 등이다.

비옥한 땅의 대부분을 식민주의자들이 독차지하고있다.

주민들은 원시종교를 믿고있다.

자 이 르

(자이르공화국)

중부아프리카의 서쪽 꽁고강류역에 있다. 탄자니아, 수단, 중앙아프리카, 꽁고, 앙골라 등에 둘러싸여있으며 대서양에 면한 해안선의 길이는 불과 35km밖에 안된다.

동남부는 고원산악지대이며 중부 및 서부는 지대가 낮다. 꽁고강하계에는 하천들이 많고 하천들에는 폭포와 여울이 많다. 동부에는 큰 호수들이 적지 않다.

나라의 절반땅이 원시림으로 덮여있다.

기온은 높고 폭풍우가 심하다.

꽁고강하류지방에서는 평균기온이 26~27°C, 상류의 카탕가지방에서는 20~25°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1천500—2,000mm이다.

【넓이】 234만 5,409km²

【인구】 2,248만명(1971년)

200여종족이 있는데 그중 반투족이 약 84%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나 38종의 언어가 있다.

【수도】 킨샤사(주민 150만명)

【국회】 일원제

【대통령】 대통령이 국가원수로 된다. 대통령 모부투 쎄쎄 쎄꼬(국방부장겸임, 1965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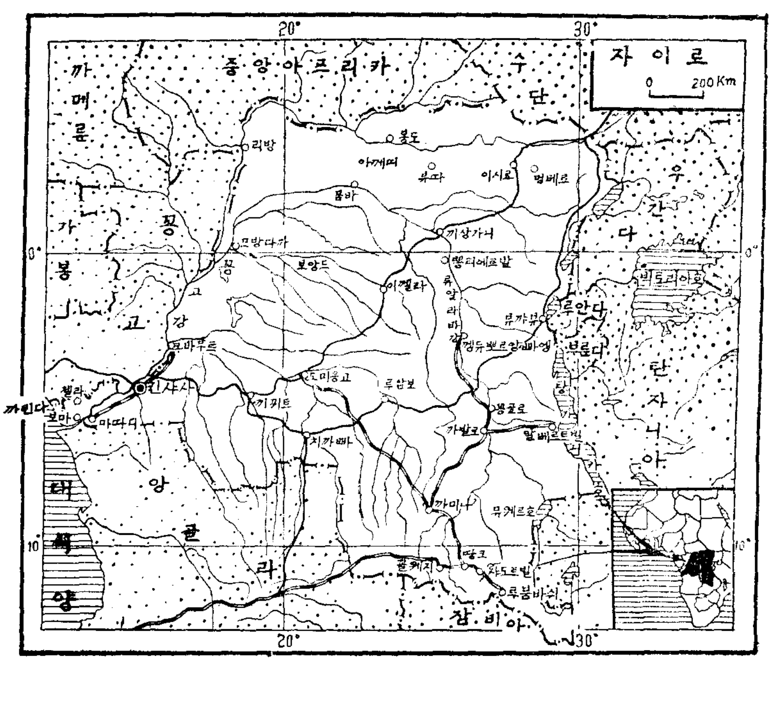
【전국집행리사회(정부)】 1972년10월 18일 6명의 위원들로 구성, 외교및 국제협조담당국무위원 느구자 칼리 본드

【정당】 꽁고(레)혁명최고리사회 1965년 4월에 꽁고인민해방운동에 참가하고있던 각이한 군사 및 정치세력들이 민족해방투쟁의 통일을 위하여 조직한 투쟁조직,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위원장 가스톤 수미알로, 인민혁명운동당 (집권당) 1967년 5월에 창건된 유일한 합법적정당.

정 치

1908년 11월부터 벨지끄직할식민지로있었다. 1960년 6월 30일 독립하고 공화국 (꽁고(킨)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초대총리로 루뭄바가 취임하였다. 독립후 루뭄바는 식민주의자들을 규탄하고 평화와 중립정책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되자 벨지끄식민주의자들과 미제를 비롯한 식민주의렬강들은 저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이르의 진정한 독립을 압살하는 집단적인 음모를 꾸미였다. 식민주의자들은 합법적정부대신에 괴뢰정부를 조작하며 전략자원이 풍부한 일부 지역을 분할하려고 꾀하였다.

1960년 7월 8일 벨지끄식민주의자들은 벨지끄침략군장교들을 반대하는 정부군병사들의 폭동(7월 6일)을 구실로 이 나라에 대한 무장간섭을 하는 한편 저들의 앞잡이인 쫌베로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지하자원이 가장 많은 카탕가주를 떼내여 《공화국》



을 선포케 하였다.

이 기회를 리용하여 미제는 《유엔군》을 파견하여 애국력량을 탄압하며 앞잡이들의 빈번한 《정권》교체를 통하여 제놈들의 침략전쟁수행에 유리한 지반을 닦으려고 미쳐 날뛰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1960년 9월 합법적정부의 루뭄바총리를 해임하고 1961년 1월 17일에는 루뭄바를 살해하였다. 1960년 12월 부총리이던 기젱가가 합법적정부를 계승하였다. 애국적군대들과 인민들은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유엔군 및 그 괴뢰들과 싸웠으나 진압되고말았다. 꽁고전역을 장악한 미제는 침략의 길잡이로 《평화군》과 《선교사》놈들, 군사고문들을 끌어들이고 도처에 군사기지와 비행장들을 건설하였다.

1965년 11월 자이르군사령관이던 모부투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대통령으로 되였다. 1971년 10월 꽁고(킨)민주주의공화국으로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자이르공화국으로 고쳤다.

자이르공화국이 선포된후 최근년간에 정부는 식민주의후과를 청산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측면들을 나타내고있다.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중립》을 강조하며 아프리카나라들의 통일단결과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사람들의 아프리카라는것을 주장하면서 아프리카의 민족적독립운동을 지지하고 백인인종주의자들의 인종격리정책을 규탄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싸우던 애국적무장력은 꽁고(레)혁명최고리사회의 령도하에 각종 형태의 투쟁을 진행하고있다.

【주요사건】 1972년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민혁명운동당 년차회의가 7명의 아프리카국가수반들을 포함한 46개의 외국대표단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정치결의안에서는 적극적인 중립을 주장하였으며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아프리카의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를 규탄하였다. 재정경제문제들에 관한 결의에는 일련의 인민경제분야에서 외국기업가들의 활동을 금지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대회에서 모부투대통령은 일부다처제를 페기하며 사회생활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높일것을 주장한 사회사업강령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의들에 따라 정부는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되던 거리들의 이름을 민족어로 고치고 그 놈들의 동상을 까부셨다.

12월 25일에는 중소상업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1973년 2월에는 벨지끄독점자본이 통제하고있던 전력공급회사인 《폴렉뜨리끄》를 국유화하였다.

11월 24일에는 장개석도당파의 관계를 끊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1월 29일에는 동서독일, 남북윁남을 승인하였다.

12월 1일 정부는 자이르내정에 간섭한 남조선 《대사》를 내쫓고 12월 15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2월 18일에는 민주독일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3월에 로므니아총리가 자이르를 방문하였다

아프리카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도 강화되였다.

5월 가봉과 협조조약을 맺었으며 6월에는 기네와 경제적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9월에는 꽁고와 관계를 정상화할데 대한 합의를 보고 호상 대사를 교환하였다. 10월 모부투대통령이 탄자니아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채광업과 공예작물생산이다.

자이르에는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자원이 많다. 매장량에서 세계 제1위인 우라니움, 동, 석, 금강석을 비롯하여 망간, 월프람, 은, 탄탈, 라디움, 코발트, 연, 아연, 게르마니움, 철 등이 있다. 지하자원의 80%는 카탕가주에 매장되여있다.

1971년에 조동은 40만 6천 900t생산되였다.

그러나 100여개의 미제독점회사들이 우라니움광의 90%, 코발트광의 전부 망간, 라디움, 탕그스텐 등 군수원료의 절반이상을 통제하고있다. 1971년 5월 일본독점체들이 《자이르—일본협회》를 조작하고 이 나라에 기여들었다.

가공공업으로는 정유공업외 소규모의 경공업공장이 대부분이다.

령토의 절반이상이 산림이며 목재가 많이 난다.

주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종려, 야자, 목화, 담배, 고무이며 이 밖에 차, 삼, 옥수수, 나무감자, 벼 등이 있다.

【출판보도】 통신 자이르통신

신문 레볼루씨옹(혁명최고리사회 기관지), 르 쁘로그레, 살롱고.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2월 1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할데 대한 공동콤뮤니케가 브라자빌에서 조인되였다.

꽁고(레) 혁명최고리사회 위원장인 가스론 수미알로가 1968년 9월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부 룬 디

(부룬디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중부에 있으며 자이르와 탄자니아 사이에 있는 내륙국이다.

령토의 대부분은 해발 1천400—2천500m되는 고원국가이다. 다만 탄가니카호기슭에 해발 800—1천m의 싸입별이 있다.

기후는 아적도기후로서 저지대는 몹시 덥고 고원지대는 년중 봄과 같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된다.

고원지대에서 년평균기온은 16—20°C이며 대부분지역에서 년평균강수량은 1천~1천 300mm이다.

1년에 두번의 장마철 (3—5월, 10—12월)과 두번의 가물철(6—9월, 1—2월)이 있다.

여울과 폭포가 많은것이 특징이다.

【넓이】 2만 7,834km²

【인구】 362만명 (1971년)

주민은 바후투족(86.4%), 와투치족(집권종족이며 12%를 차지.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민족, 평균 2m), 피그미족(세계에서 키가 가장 작은 민족, 평균 1.3m)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부줌부라(주민 9만명)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1972년 7월 14일 새로 총리제를 내오고 정부를 구성하였다. 대통령 미쉘 미꼼베로(1966년 11월—), 총리 니야모야 알빈, 외교부장 아르떼몽 씸바나니예

【정당, 사회단체】 민족통일진보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총비서 미꼼베로, **근로자동맹, 르와가쏘레혁명청년동맹.**

정 치

부룬디는 원래 16세기에 세습적인 봉건왕국으로 형성되여 《므와미》라고 불리였다. 1890년에 부룬디는 루안다와 함께 독일의 식민지로 되여 루안다부룬디로 불리였다.

제1차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자 1922년에는 벨지끄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1946년 12월에는 미제의 책동으로 《유엔후견령》으로 되였다.

1957년에 《루안다부룬디민족동맹》이 창설되고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1962년 7월 1일 루안다와 분리되여 독립을 쟁취하였으나 봉건왕국으로 남

아있었다. 부룬디 인민들은 당시 총리이던 미촘베로의 지도하에 1966년 11월 28일 세습적인 왕정을 뒤집어 엎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 선포후 부룬디는 국가행정기관에 남아있던 백인식민주의자들을 내쫓고 외국자본가놈들의 기업체를 국유화하고 그 관리자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되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간섭과 종족간의 리간책동을 강화하였다. 결과 종족간의 분쟁과 각이한 정치세력들 호상간의 투쟁이 계속되여왔으며 1969년에는 바후투족들의 반정부음모가 있었다.

정부는 인민들에게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해 《통일, 로동, 진보》의 구호를 제기하면서 《쁠럭불가담,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불간섭 및 국제적협조》를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선포하였다.

【주요사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독립을 달성한 인민들앞에는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의 파괴책동을 반대하고 민족해방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32페지)

1972년 3월 추방된 이전왕 느타레(1966년 11월 전복되여 서독에 망명)가 제국주의 백인고용병들의 도움으로 부룬디에 들어와 군주제도를 되살려보려다가 실패하였다. 3월30일 반정부음모자들은 체포되였다.

4월 1일 부룬디 수도 부춤부라와 기타 도시들에서는 미촘베로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를 가졌다.

4월 29일 바후투족과 왕권지지파세력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사촉으로 연금중에 있던 이전 왕 느타레를 석방하려고 시도하다가 부룬디안전군과 충돌한 것을 계기로 무장반란이 일어나 옛왕도 기테가주를 중심으로 수도 부춤부라와 남부부룬디의 냔자라크, 탄자니아국경 근처인 루몬게와 부루리주의 몬자시 등에서 동시에 일어나 전국적범위를 포괄하였다. 미촘베로의 요청에 의하여 자이르폭격기들과 자이르군대들이 부룬디에 파견되였다.

이 기간에 8만여명의 피해자와 1만여명의 피난민을 내고 무장반란은 진압되였다.

미촘베로대통령은 국내에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5월 1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각을 해산하였으며 반란시도에 책임있는자들을 처단하였다.

미촘베로대통령은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지원을 받는 국내반동세력들이 부룬디에 있는 대학들을 없애버리고 종족들간에 반목을 조성하여 부룬디인민을 분렬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내반동세력들의 책동에 맞서기 위하여 국내각지에 모든 종족대표들을 망라한민간자위대들이 조직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부룬디정부는 평화, 통일 및 진보를 보장하는 로선을 견지할것이라고 하였다.

7월 14일 대통령명령으로 새 정부를 구성하고 총리제를 새로 내왔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축산업이다.

주요농산물은 아라비카종의 커피이며 목화, 차, 수수, 쌀, 강냉이, 밀, 등을 재배한다. 1971년에 커피는 2만 4천t, 쌀은 1만2천t 생산되였다.

자연목장을 리용하여 목축업을 발전시키고있는데 고원에서는 소를 많이 기른다. 이밖에 양, 염소, 돼지 등이 있다. 탄가니카호에서는 해마다 1만 5천t의 민물고기를 잡고있다.

주요공업부문은 세멘트, 식료, 방직공업이다. 금, 주석 등을 캐내는 채굴공업도 있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바후투족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와투치족은 주로 목축업을 한다.

주민의 약 절반이 카톨릭교도이다.

【출판보도】 **신문** 마잠베리(민족통일진보당기관지), 유니옹 에 라 레볼류시옹, 미긴베.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3월 1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1년에 부룬디종합대학생들의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 기네에서 공부하고있는 부룬디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가 결성되였다.

1972년에 정부기관지 마잠베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신년사와 그이께서 미국《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내용을 실었다.

부룬디는 9월 20일 유엔총회 제27차회의 의정에 제출한 의제《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으로 나섬으로써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나라의 립장을 지지하였다.

1972년 4월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특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수령님께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미셸 미촘베로가 보내는 가장 열렬한 축하인사를 담은 친서와 지성어린 선물을 전해드리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대표단(3월)이 부룬디를 방문하였다.

1973년 2월 23일 부춤부라에서 우리 나라가 부룬디에 농기구공장을 건설해줄데 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루 안 다

(루안다공화국)

동부아프리카의 중부에있으며 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 자이르 등과 국경을 같이 하고있는 내륙국이다. 열대초원이 많고 다양한 동물자원을 가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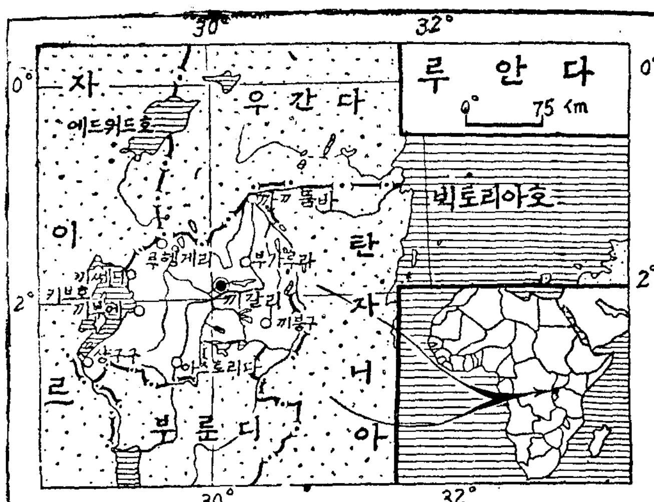
아열대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5°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천—2천500mm이다.

【넓이】 2만 6,338km²

【인구】 340만6,000명(1970년)

주민은 바후투족(약 84%), 와투치족(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민족, 평균2m), 피그미족(세계에서 키가 가장작은 민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끼갈리 (주민 1만명)

【국회】 일원제

【정부】 1972년 2월 21일 개조. 대통령 정부수반 그레고와르 까이방다(1969년 10월—), 국제협조담당부장 아우구스틴 문야네자

【정당, 사회단체】 파르메후투당 (집권당), 바후투족을 대표한다. 민족동맹 와투치족을 대표한다. 아프르소마 (사회진보협회), 전국청년동맹.

정치 17세기에 봉건국가로 형성되여 세습적으로 《므와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였다.

1889년에 독일이 루안다를 강점하고 독일령동아프리카에 편입시켰다. 1922년에는 부룬디와 함께 벨지끄식민지로 되였다. 1946년 12월부터 《유엔후견령》으로서 벨지끄식민지였던 자이르에 속해있었다.

루안다에서는 원래 소수민족인 와투치족이 군주제를 실시하면서 다수의 바후투족을 지배하여왔다.

1959년 11월 벨지끄식민주의자들은 바후투족을 대표하는 파르메후트당을 부추겨 와투치족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리하여 1961년 1월에 정권을 잡은 바후투족은 국왕을 내쫓고 공화제를 선포하였다.

1962년 7월 1일 루안다는 부룬디와 갈라져 독립하였다.

독립후 루안다는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2년 8월 루안다는 웽그리아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0월에는 자이르와 우호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조인하였다.

경제, 사회 축산업이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면양 등이다.

주요농작물은 원주민들의 소농경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강냉이, 콩, 고구마, 기장과 재배원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커피, 목화, 차, 담배 등이다.

주식물은 강냉이, 고구마 등인데 식량은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독립후 정부는 경제에서 기본을 이루는 농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농업공동경리인 《빼이자나뜨》를 창설하였으며 이에 재정, 기술적인 지원을 주고있다. 여기에는 1970년 현재 5만여명이 망라되여 차, 목화, 벼, 아라히스 등을 재배하고있다. 가공공업으로는 규모가 작은 비누, 식료, 가죽, 건재공장이 있을뿐이다.

채굴업이 큰 몫을 차지하나 벨지끄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채굴업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중부와 서부지방에서 캐내는 주석, 탄타르광이다. 철도는 없으며 기본교통수단은 자동차도로이다. 끼갈리와 아스트리드에 비행장이 있다.

1972년말현재 루안다에는 2천여개의 소학교와 20여개의 중학교, 4개의 대학이 있었다. 이해에 소학교 학생수만 하여도 10년전에 비하여 거의 2배나 되는 42만 5천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교원대렬을 루안다인으로 꾸리기 위하여 교육학원을 새로 세웠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4월 2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1년 5월 6일 부룬디에 있는 루안다인들이 《김일성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또한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루안다학생들이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1년 6월 전국청년동맹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우 간 다

(우간다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동쪽에 자리잡고있으며 수단, 케니아, 탄자니아, 자이르와 국경을 같이하고있는 내륙고원국이다. 고원국이므로 열대의 동물자원이 많다. 적도가 이 나라를 지나가고있으나 고원지대이므로 기온이 높을 때는 약 23.4°C, 낮을 때는 20°C이다. 년강수량은 900—1천500mm이다.

【넓이】 23만 6,036km²

【인구】 1,013만명 (1971년)

주민의 99%가 아프리카인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나 스와힐리어도 쓴다.

【수도】 캄팔라(주민 8만명)

【정부】 대통령 이디 아민(총리, 국방부장 겸임), 외교부장 와누메 키베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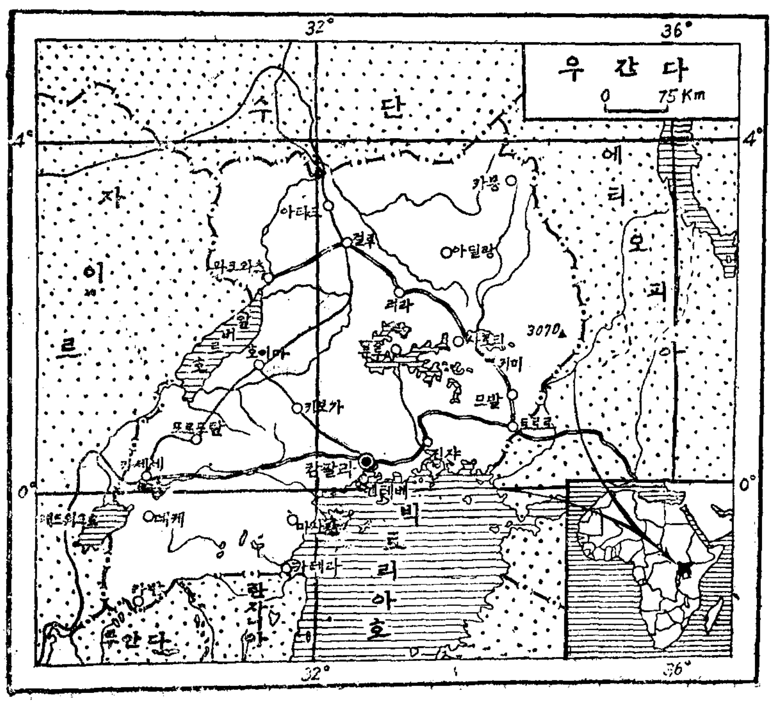
【정당, 사회단체】 1971년 10월에 모든 정치조직들의 활동은 금지되였다.

정치 1894년부터 영식민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다가 1962년 3월 1일 《자치정부》가 수립되였고 이해 10월 9일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부간다, 분요로, 앙콜레, 토로의 4개왕국이 련방을 이루고있었다. 1966년 4월에 채택된 새 헌법에 따라 련방제가 폐지되고 단일한 국가로 되였다. 1967년 9월에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우간다정부는 영제국주의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길로 나가기 위하여 1963년 9월에 영국총독을 내쫓고 국가기관을 비롯한 각 부문에서 영국인들을 제거하는 《아프리카인화》정책을 실시하였다.

1971년 1월 25일 륙군사령관 이디 아민이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군사정권을 세웠다.



아민정부는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나라의 독립을 튼튼히 하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주요사건】 1972년에 우간다는 반제자주의 구호밑에 반미반이스라엘 투쟁을 광범히 벌리면서 아랍나라들과의 관계를 급속히 발전시켰다.

3월아민대통령은 캄팔라에서 진행된 제10차아프리카통일기구 성원국 로동부장회의개막연설에서 우간다는 앞으로 《아프리카대륙으로부터 식민주의의 완전한 청산을 확고히 지지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면서 《완전한 독립과 인간의 권리를 위해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및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나미비아, 모잠비끄, 앙골라, 기네비싸우 및 짐바브웨인민들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3월 24일에는 우간다에서 파괴암해행위를 감행하고있던 이스라엘 《외교관》, 《군사고문》들을 내쫓고 이스라엘과의 모든 무역거래를 끊었으며 우간다에 있는 이스라엘회사에서 우간다인들이 일하는것을 중지시켰다. 4월 1일에는 이스라엘대사관을 페쇄하였다.

8월 5일 아민은 전국방송을 통하여 우간다에 있는 8만명의 영국공민(영국국적을 가진 아세아인)들이 우간다경제를 《고의적으로 파괴》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3개월내로 우간다에서 떠날것을 명령하였다.

9월 25일에는 우간다에서 적대행동을 감행하고있던 영국령사놈을, 10월 12일에는 우간다주재 영국고등판무관놈의 출국을 명령하였다. 그후 경제 및 교육분야에 기여들었던 영국인 460여명을 내쫓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11월 2일 아민은 외국인 항공회사 《카스페어》와 《말티 애비에이순》의 경영을 중지할것을 명령하고 그를 국립항공회사로 바꾸었으며 11월 20일에는 영국공민들이 경영하던 은행은 《제국주의도구》라고 규탄하고 대외무역 및 개발을 위한 《리비아아랍우간다은행》(리비아 51%, 우간다 49%의 주권을 소유)을 새로 창설하였다.

12월 1일에는 영국인 소유의 신문 《우간다아규스》를 국유화하고 《우간다소리》로 고쳤으며 영어로 된 명승지, 거리 및 광장들의 이름을 우간다말로 고쳤다.

12월 17일 정부는 9개 영국회사들과 차재배농장을 국유화할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해 9월 우간다와 탄자니아국경지대에서 무장충돌이 발생하여 두 나라간의 관계가 악화되였으나 10월 4일 모가디쇼에서 호상관계조정을 위한 두 나라간의 회담이 진행되여 10월 5일 공동협정이 조인되였다.

협정에는 1972년 10월 19일전으로 공동국경으로부터 10km밖으로 모든 군대를 철거시킬것, 적대적인 선전을 즉시 중지할것, 호상 파괴세력에 피난처를 제공하지 말며 그들이 적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것이 포함되였다.

1972년에 아민대통령은 리비아(2월), 수리아(6월), 소말리아(7월) 등 일련의 아랍나라들을 방문하였다. 발표된 공동콤뮤니케에 의하면 아민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제국주의앞잡이라고 단죄하고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팔레스티나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이해 우간다는 쿠웨이트, 수단, 리비아 등 10개 아랍나라들과 외교관계를 회복하였으며 수단과 《호상방위협정》을 맺었다.

경제, 사회

농업생산이 총생산의 60%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커피, 차, 바나나, 기장, 옥수수, 콩, 땅콩, 강냉이, 벼, 감자 등이다.

목화는 년 21만t, 커피는 약 14만t생산되였다. 1970년에는 커피 19만 1천t, 목화 7만 8천t, 차 1만 6천t 수출하였다. 축산업은 북부의 반유목 및 유목 종족들이 주로 한다.

독립후 정부는 경제적자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식민주의자들의 기업소들을 국유화하고 외국인들의 차농장을 국가의 통제하에 넣었으며 커피, 목화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의 편파성을 극복하고 다각화하는데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하자원으로는 동, 탕그스텐, 주석, 금, 은, 린회석, 망간, 코발트 등이 있다.

1970년 10월에 캄팔라에 첫 국립종합대학이 창설되였다. 종교로는 카톨릭교, 회교 등이 있으나 원시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다.

【출판보도】 **신문** 피플, 우간다 네이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8월 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인 쏘련주재 우리 나라 대사가, 10월에는 정부및군사대표단이 우간다를 방문하였다.

11월에는 우간다대통령특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1월 23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왕국)

아프리카대륙의 동북쪽, 홍해를 끼고 있는 화산국이다. 령토의 3분의 2는 고원지대이며 28%가 사막 및 반사막지대이다.

적도에 가깝지만 땅생김이 높기 때문에 기후는 비교적선선하다. 그러나 지대에 따라 기후의 차가 심하다.

아디스 아바바의 가장 더운때인 5월의 평균기온은 22°C, 12월은 16°C이다. 매년 10월—6월은 가물철, 7월—9월은 장마철이다.

년평균강수량은 1천 300mm이다.

【넓이】 122만 2,000km²(그중 에리트레아넓이 12만 4,320km²)

【인구】 2,476만명 (1970년 7월), 그중 에리트레아인 약 300만명

주민의 대부분은 사미테족, 하미테족 및 아프리카혼혈족이다.

공용어는 암하리크어이나 대부분이 영어, 이딸리아어, 프랑스어를 쓴다.

【수도】 아디스 아바바 (주민 80만명)

아프리카통일기구의 본부가 있다.

【황제】 황제는 부계세습제이다. 국가원수이며 행정, 립법, 군사, 외교분야의 최고결정권을 가진다.

황제 하일레 셀라씨에 1세(1930년 1월—)

【국회】 상하량원제. 하원(250명)은 선거하며 임기는 4년, 상원(105명)은 황제가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정부】 1971년 8월에 구성, 총리 아끄리오우 하프터 웨울드, 외교부장 미나쎄 하일레, 국방부장 께베데 하보데

【정당, 사회단체】 **민족애국련합회** 황제정권을 옹호하는 유일한 합법적정치조직. **에리트레아해방전선** 에리트레아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애급, 알제리, 이라크, 수리아, 수단, 이딸리아 등에 대표부를 두고있다. **전국로총, 전국학생동맹위원회.**

정 치

19세기초에 여러개나라로 분렬되였다가 1889년에 메네그 2세국왕에 의하여 통일되였다. 19세기중엽에 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았으며 19세기말에는 이딸리아에

강점당하였다. 1890년 2월 이딸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저들의 《보호령》으로 선포하였다. 1935년에는 이딸리아의 재침을 받았으며 에티오피아인민들은 이를 반대하여 오래동안 유격투쟁을 진행하였다. 1940년에 영식민주의자들은 에티오피아유격대와 함께 이딸리아를 물리치고 1942년 1월에 에티오피아에 《주권》을 준다는 협정을 맺었다. 1941년 5월 5일 셀라씨에 1세가 왕위에 복귀하였다.

1958년 9월 15일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에 편입되여 련방을 형성하였으며 1962년에는 에티오피아의 한개주로 만들었다.

에티오피아는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하였다.

미제는 아디스 아바바, 곤다르 디레다와 마사와 등 도시와 항구들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였으며 미제의 《고문》및 《전문가》들이 행정, 경제기관들에 들어가있으며 군사고문들이 이 나라 군대를 훈련지도하고있다.

에리트레아인민들은 에리트레아해방전선의 지도밑에 에리트레아에서 미제침략군을 내쫓으며 에티오피아의 예속에서 전령토를 해방하기 위하여 1961년부터 무장투쟁을 하고있다.

경제, 사회 인구의 95%가 농목축업을 한다. 부침땅은 약 800만ha이며 토지의 대부분은 국가와 대지주, 교회가 가지고있다. 농민중 30%만이 토지를 가지고있으며 그외는 모두 소작농이다.

주요농산물인 커피재배에는 인구의 4분의 1이 일하고있다. 1971년에 커피는 9만t 생산되였으며 수출총액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강냉이, 보리, 밀, 유지작물,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도 난다. 강냉이는 년 140만t 생산된다.

축산업이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4천 718만ha의 풀밭과 1억 1천 500만 마리의 집짐승이 있다.

공업은 국민소득에서 약 3% 차지한다. 편직물공장, 가죽공장, 목재공장, 도자기공장 등 160여개의 기업소들이 있으며 수공업, 가내수공업도 있다.

지하자원으로는 금, 은, 망간, 석, 동, 류황, 운모, 소금, 니켈, 철, 갈탄, 우라니움 등이 많다.

최근년간 채굴공업과 전력공업, 기계공업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제3차 5개년계획(1968—1972) 기간에 외국의 《원조》로 수력발전소, 원유가공공장건설이 추진되였다. 1967년에 전력생산량은 2억 2천 783만 5천 kwh였다.

철길은 프랑스와 공동으로 경영하는 아디스 아바바—지부티(프령소말리아), 미국놈들이 경영하는 아스마라—마스야시랑의 두선이 있다.

1962년부터 전국적으로 문맹퇴치사업을 벌리고있으나 학령아동의 70%가 학교에 못가고있다.

학생수는 1968년에 53만 5천 760명, 대학생수는 3천 860명이였다.

주민의 절반이상이 기독교를 믿으며 그 밖에는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정부공보국의 통제밑에 있는 신문으로는 에티오피엔 헤랄드(영어), 보이스 오브 에티오피아(영어, 아랍어), 아디스 제멘 (아랍어), 기오르나르—데르에리트레아(이딸리아어)가 있으며 에리트레아해방전선기관지로서 《혁명》이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애급, 수단, 알제리, 이라크, 수리아 등에서 활동하고있는 에리트레아해방전선 성원들과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있는 에리트레아학생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등을 묶고있으며 에리트레아해방전선기관지 《혁명》은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광범히 싣고있다.

1969년에 기자대표단, 1972년 8월에 수단주재 우리 나라 대사가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였다.

1971년 6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사로청제6차대회에 애급에 있는 에리트레아해방전선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단, 디마스크에 있는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배우기 위한 에리트레아소조》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소 말 리 아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동쪽, 홍해의 남쪽 입구에 있다. 땅생김은 일반적으로 고지대에 속하며 해안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넓은 파도형고원을 이루고있다. 긴해안선을 끼고있으나 가파로운 벼랑과 산호초들로 이루어져 자연항으로서는 리용되지 못하고 있다.

기후는 몹시 덥고 비가 적게 온다. 년평균기온은 1—2월에 25°C, 7월에는 30°C (이때에는 낮기온이 최고 50°C를 넘을 때도 있다)를 넘는다. 년강수량은 바다가에서 300~500mm, 내륙지방에서는 200~300mm밖에 안된다. 1~3월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넓이】 63만 7,657km²

【인구】 450만명(1972년)

주민은 사마르족과 사브족으로 이루어졌다.

소말리아혁명 세돐에 즈음하여 전체 인민들에게 영어, 이딸리아어, 아랍어 대신 소말리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도록 선포

【수도】 모가디쇼 (주민 25만명)

【최고혁명리사회】 25명으로 구성, 최고립법기관,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1969년 10월—) 최고혁명리사회직속으로 선전문제와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맡아보는 전국지도위원회가 있다.

【정부】 1971년 7월에 구성, 총리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외무담당국무비서 오마르 아르테흐 갈리브, 민족군사령관 겸 국방담당국무비서 모하메드 알리 사마테르

【정당, 사회단체】 1969년 10월 21일 혁명후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일시 금지되였다.

정 치 1880년대에 영국, 이딸리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3개지역으로 분할강점하였다. (1882년에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지부티지대를, 1886년에는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아덴만에 면한 소말리아땅을 《보호령》으로 만들었으며 1889년에는 이딸리아침략자들이 영국이 차지한 그 이남 연해지대를 강점하였다.)

소말리아인민들은 식민지통치의 전기간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굴함없는 투쟁을 벌렸다.

19세기말 20세기초에 민족적영웅 마호메드 아뷸라 하싼의 지도하에 20여년간 영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제2차대전후 투쟁은 점차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무장투쟁에로 발전하였다.

1960년 6월 영령소말리아와 이딸리아령소말리아가 각각 독립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일 70년간 갈라져있던 두 지역이 통합하여 소말리아공화국을 창건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령소말리아는 아직도 식민지통치밑에 있다.

1969년 10월 21일 진보적인 륙군들이 혁명을 일으켜 친미반동적인 예갈정권을 타도하고 최고혁명리사회를 조직하였다. 최고혁명리사회는 헌법, 국회, 정당들을 해산하고 소말리아민주

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해 12월 소말리아는 자기 나라에 둥지를 틀고있는 침략의 길잡이인 미제의 《평화군》을 몽땅 내쫓기로 결정하고 1970년 2월까지 200명의 《평화군》을 몽땅 내몰았다.

1970년 5월 외국인소유의 모든 은행과 회사들을 국유화하였으며 《사회적정의와 평등, 진보와 단결》의 구호밑에 자력갱생깜빠니아를 벌려 학교와 병원, 우물과 도로, 운하 등을 건설하였다.

1970년 4월 국내반동들의 정변음모를 조종한 미제대사관서기관놈을 내쫓았으며 1970년 6월에는 미제침략자들이 소말리아국기를 단 선박들이 윁남민주공화국 항구들에 정박하고있는것을 구실로 삼아 이른바 《원조》를 끊자 미제의 공갈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였다.

공화국선포후 소말리아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인민민주주의혁명로선을, 대외적으로는 《진정한 중립로선》을 내놓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주요사건】 2월 최고혁명리사회와 정부는 운수업과 일련의 소비품에 대한 수입과 공급을 정부가 장악할것과 집세를 낮출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사상을 선전하는 전국적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최고조정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각주들에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 군인들 및 여러 사회단체대표들로 지방위원회들을 조직하였다.

최고혁명리사회와 국무비서리사회 합동회의에서는 일부 식료품, 일용품, 영화필림의 수입과 공급을 국가가 직접 장악통제하며 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회사들을 해산하고 국영자동차협동조합을 내오며 국영석유회사가 연유공급을 직접 관리하며 주민들의 주택사용료를 낮출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0월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는 혁명 3돐에 즈음하여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영어, 이딸리아어, 아랍어 대신 공용어로 소말리아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선포하였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들과 재산들을 모두 국유화하겠다고 하였다.

5월 14일 모가디쇼에서 미제의 윁남침략전쟁확대책동을 규탄하는 시위와 집회를 열고 윁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2월에는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와 7월에는 꾸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축산업이다. 인구의 약 90%가 농업과 축산업을 하고있다. 그중 3분의 2가 유목 또는 반유목생활을 하며 순수 농민은 10%밖에 안된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강냉이, 목화, 땅콩, 사탕수수, 밀 등이다. 기본작물은 해마다 10만t씩 수출되는 바나나인데 이것은 이 나라 수출총액의 45%를 차지한다. 또한 알곡생산량은 해마다 약 15만t정도 된다. 향료생산이 유명한데 세계 총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부침땅은 약 95만ha이나 관개면적은 약 16만ha이다. 2~3모작을 하고있으나 물부족으로 생산성이 낮으며 식량은 자급자족 못한다.

정부는 식량문제해결을 위하여 황무지를 개간하여 알곡생산을 높이며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있다. 또한 정부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를 농촌에 공급하는 등 혁명적조치를 취하고있다.

축산업도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데 주요집짐승은 락타와 소이며 닭, 염소, 양도 많이 기른다. 물이 부족한 이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락타의 젖은 주요한 음료수로 되고있으며 락타와 양가죽 및 양털은 주요 수출품으로 되고 있다. 큰 뿔난집짐승은 280만마리, 락타는 250만마리, 양은 390만마리, 염소는 470만마리 있다. 농업과 축산업발전에 저애를 주고있는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물을 파고 관개수로를 건설하며 목장을 확장하고 먹이풀밭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취해지고있으며 여러 지구들에 수의소들이 설치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우라니움, 석유, 쇠돌, 망간, 동, 주석, 연 등이다. 공업은 축산물을 가공하는 식료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혁명후 소말리아인민은 석유회사, 보험회사, 은행을 국유화하였으며 한편 《자력갱생하여 나라를 진정한 독립에로 이끌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수력발전소들과 세멘트공장, 석유가공공장, 금속가공공장 등 중공업공장들과 방직공장, 육류가공공장, 목재가공공장 등 수많은 경공업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국영부문의 비중은 훨씬 늘어나고있다.

철길이 없고 자동차운수가 기본으로 되고있다. 자동차도로 총길이는 1만 3천km이며 그중 850km가 포장되여 있다.

민족교육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1970년에 초등학교 학생수는 1965년에 비하여 1만 1천여명이나 늘어나 4만여명에 달하였다. 1972년 3월에 근로자들에게 휴가와 년금, 기타 사회적혜택을 주며 낮은 임금을 받는 로동자들에게 주택사용료를 40% 낮춰주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수도에만도 100여개의 크고 작은 회교사원이 있다.

【출판보도】 **통신** 소나통신

1973년 1월 21일부터 일체 출판물을 소말리아어로 발간

신문 히지그타 옥토바르(정부기관지), 코리에레 델라 소말리아, 소말리 뉴스, 라트리부나, 선봉, 알리와.

방송 모가디쇼방송, 소말리아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우리 나라와 무역대표부교환에 관한 협정을, 1967년 4월 12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0년 11월 모가디쇼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김일성도서관》이 개관되였다.

1972년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위원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5월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아드 바레위원장과 회담하시였다.

23일 우리 나라와 소말리아간에 경제 및 기술적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0월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아드 바레위원장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선물, 우리나라 천연색기록영화 《형제적소말리아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우리 나라 정부및군사대표단이 전달하였다.

1972년에 우리 나라 집단체조창작일군들이 파견되여 소말리아에서의 집단체조 《에스까와 우갑소》 (주체라는 뜻) 창작을 도와 주었다.

1972년에 소말리아 사회과학자대표단(4월), 국립종합대학대표단(6월), 군사대표단(7월), 모가디쇼방송국론평원(3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사회과학자대표단 (4월 9일), 국립종합대학대표단(6월 26일), 군사대표단 (7월 25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이해에 우리 나라로부터는 정부대표단(2월), 김일성종합대학대표단(3월), 정부 및 군사 대표단(10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프랑스령소말리아

(아파르—이싸)

아프리카의 동북쪽 아덴만기슭에 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해발 500m이하의 반사막지대이다. 기후는 몹시 더우며 년평균 30°C에 달한다.

【넓이】 약 2만 2,000km²

【인구】 12만 5,000명

주민의 대부분이 소말리아족과 다나크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행정중심지】 지부티 (주민 6만 4,800명)

【의회】 32석중 민주통일당 26석, 아프리카인민동맹 6석 차지, 프랑스국회의 상하량원에서 각각 1석 차지한다.

【행정평의회】 의회에서 선출하는 9명의 성원으로 구성된 괴뢰통치기구

【정당, 사회단체】 **프랑스령소말리아해방전선** 1963년에 창건, 당의 투쟁목적은 중립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는것이라고 선포하고 민족해방투쟁을 지도하고있다. 본부는 모가디쇼에 있다. 총비서 아브달라히 아르데에. **민주통일당** (집권당), **아프리카인민동맹**, **민주련합당** 망명중에 있는 아프리카인의 정당으로서 아디스 아바바에 본부를 두고있다. **지부티해방운동** 본부는 에티오피아의 디레 다와에 있다. **민주청년**

정 치

원래 소말리아령토였던 이 지역을 1880년에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강점하고 1882년에 《보호령》으로, 1958년에는 식민지로 만들었다.

1967년 6월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이 지역을 《아파르—이싸》로 고치고 《프랑스공동체》내의 《해외령토》로 선포하였다.

프랑스고등판무관이 대외, 국방, 재정 및 사법권을 틀어쥐고 통치하고있다. 고등판무관의 관할하에 형식상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평의회》와 그리고 《해외평의회》가 있다. 《해외평의회》는 32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여있으며 프랑스국회의 상하량원에 각각 1명의 의원들을 두고있다. 《행정평의회》는 《해외평의회》가 선출하는 6~12명(현재는 9명)의 성원으로 구성되였다.

1963년 이 나라 인민들은 《프랑스령소말리아해방전선》을 조직하고 이 전선의 지도밑에 민족해방투쟁을 벌리고 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축산업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유목 및 반유목민이며 해안지대 주민들은 어업과 제염업에 종사한다.

주요집짐승은 소(1만 3천마리), 양(8만마리), 염소(60만마리) 등이다.

농업은 발전하지 못하였다. 관개시설이 되여있는 지부티와 기타 일부지역에서 주로 과일나무와 남새를 약간 심고있으며 종려와 커피(년산 1천t)도 재배하고있다.

공업에서 주요생산물은 소금이다. 년산 6천~7천t 생산된다. 아쌀호에 20억t가량의 소금이 매장되여있다.

기타 석유, 운모, 석고, 류황 등이 채취되고있다. 조선소및선박수리공장, 가스압축공장, 가죽공장, 식료가공공장 등과 기타 소규모의 기계공장이 약간 있다. 전력생산량은 년평균 3천 300만kwh이다.

공업제품과 식량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68년현재 초등학교학생수는 4천 778명이였다. 그중 원주민의 비중은 대단히 낮다.

의료시설은 지부티이외에는 없으며 원주민들에게는 차례지지 않는다.

물이 나빠 마실수 없어 《비텔》이라는 프랑스의 가공한 물을 가져다 마시는데 값이 비싸 원주민들은 마실수 없다. 이런데로부터 결핵 등 질병이 많다.

주민들은 회교를 믿는다.

지부티항은 자유항으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져있다.

지부티와 아디스 아바바를 련결하는 긴 철길이 있다.

【출판보도】 **신문** 알라이드 (프랑스령소말리아해방전선기관지), 쥬르날 오피씨엘, 레 레베일 데 지부티.

방송 지부티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소말리아인민들은 1970년에 《강점된 서부소말리아해방전선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바그다드에서 7월 26일 결성), 강점된 서부소말리아해방전선돌격대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소조》 (아덴에서 8월 23일 결성), 아덴에 있는 소말리아 민주청년조직성원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아덴에서 8월 24일 결성), 강점된 서부소말리아해방전선돌격대《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1년에 신문 《알라이드》는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실었다.

케 니 아

(케니아공화국)

동부아프리카의 중부에 있으며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과 국경을 같이하고있다.

적도가 나라의 한복판을 지나가고있으나 기후는 무덥지 않는것이 특징이다. 적도선상에 있는 케니아산(5,199m) 꼭대기에는 년중 눈이 깔려있다.

케니아산을 중심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고원지대는 적당한 강우량과 맑은 공기, 농사에 유리한 기후로 하여 동부아프리카의 《보물고》로 알려지고있다.

년평균기온은 20°C, 년평균강수량은 750~1천mm이다.

【넓이】 58만 2,644km²

【인구】 1,250만명 (1973년 10월)

키쿠이아족(220만명), 루오족(150만명)을 비롯한 42개의 소수민족과 종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스와힐리어와 영어, 1973년 2월 21일 정부는 스와힐리어를 국어로 선포

【수도】 나이로비 (주민 50만 9,000명)

【민족회의】 일원제립법기관이다. 의원수 170명중 158명은 선거하며 12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 대통령 겸 총리 죠모 케니아타 (1963년 6월—), 외교부장 느조르게 뭉가이

【정당, 사회단체】 **아프리카인민족동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60년 3월에 창건, 《아프리카사회—민주주의적인 케니아》의 창설을 목표로 하고있다. **로조중앙조직** (28개의 부문별로조 포함).

정 치

1895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1920년에는 그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영침략자들은 《특별거주지》를 설정하고 아프리카인들을 척박한 지대에 강제 이주시키고 가혹하게 탄압하였으며 인구의 1%도 못되는 백인들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였다.

케니아인민들은 1922년 키쿠유중앙협회가 설립된 후부터 빼앗긴 땅을 다시 찾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특히 1952년 《마우마우》의 지도하에 케니아농민들이 일으킨 대규모의 무장투쟁이 있은후 더욱 대중적으로 전개되였다. 토지반환을 요구하여 일떠선 농민들의 투쟁은 1953—1956년에 걸쳐 약 3년간 전개되였다.

1960년 3월 아프리카인민족동맹이 결성되자 케니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은 더욱 앙양되여 1963년 6월에는 자치정부가 수립되였으며 이해 12월 12일에는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쟁취하였다.

1964년 11월 3일 새 헌법을 채택하고 12월 12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초대 대통령으로 자치정부총리이던 케니아타가 취임하였다.

공화국선포후 케니아는 영침략군을 내쫓고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는 등 일련의 반제자주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1969년 7월 루오족들의 반정부폭동' 이해 10월에는 인민동맹을 지지하는 반정부시위들이 있었다.

1969년 10월 30일 인민동맹을 비법화하고 아프리카인민족동맹단독내각을 구성하였다.

에티오피아와 호상 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1972년 8월 정부는 우간다에서 추방당한 영국인들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을 페쇄하였다.

경제, 사회 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약 34%, 공업이 약 17%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사이잘삼, 차, 밀, 보리, 담배, 목화 등이다.

해마다 커피는 5만t, 사이잘삼은 4만 8천t, 목화는 1만 6천여t, 쌀은 2만 6천여t, 밀은 23만t정도 생산된다. 1972년에 4천 800ha의 논에 벼를 심었다.

독립후 정부는 《차혁명》이라는 구호하에 주요외화원천인 차재배를 대대적으로 장려하였다.

차재배면적은 10만에이커로 늘어났고 그 생산량은 1962년의 1만 6천t으로부터 1970년에는 4만 3천t 이상으로 늘어났다.

내륙고원지방의 방목지들에서 양, 소, 말들을 기르고있는데 그 수는 아프리카대륙에서 많은 나라들중에 속하고 있다.

농업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독립후 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땅을 유상몰수하여 3만 4천세대의 농민들에게 50만ha를 유상으로 분배하였다. 또한 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협동조합을 조직하고있는데 이에는 약 50만명이 망라되였다.

공업부문에서는 750여개의 외국회사들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아프리카인들의 관리밑에 넘기고 세멘트공장, 농산물가공공장, 다이야, 비누, 유리공장 등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반제자주적인 조치들에 기초하여 독립후 6개년계획을 수행하고 1970년부터는 새 5개년계획에 들어섰다.

지하자원으로는 동, 아연, 망간, 천연소다, 돌소금이 있으며 공업은 경공업이 위주로 되고있으며 10명내외의 로동자를 가진 소규모공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업부문에는 로동인구의 17～18%에 해당하는 11만명이 종사하고있다.

이 나라 외화수입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관광수입은 해마다 약 2천만케니아파운드에 달하고있다.

정부는 문화분야에서 식민지통치후과를 가시기 위하여 민족어인 스와힐리어로 신문, 잡지들을 발간하고 학교들에서 스와힐리어로 교수를 진행하고 있다. 1970년에 학교수는 750개, 학생수는 13만명이였다.

주민들은 배물교, 기독교(25%), 회교(6%)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케니아통신

신문 이스트아프리칸 스탠다드(영어), 데일리 네이숀, 타이파 레오(스와힐리어), 썬데이 네이숀(영어), 타이파 케니아(스와힐리어).

탄 자 니 아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동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1천～1천500m 높이의 넓고 평탄한 고원으로 되여있으며 해안지대에 약간한 벌이 있다. 북부에는 아프리카에서 제일높은 킬리만자로산(높이 5천 895m)과 유명한 활화산인 메루화산이 있다. 킬리만자로산은 바로 적도 아래에 자리잡고있으나 산마루는 령하 34°C로서 사시장철 흰눈을 머리에 이고있고 산밑은 매우 더워 59°C까지 올라간다.

또한 이 나라에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빅토리아호 (넓이 6만 9천 400km², 이 호수에 있는 빅토리아폭포락차는 108m)와 세계에서 두번째로 깊은 탄가니카호(깊이 1,435m)를 비롯하여 총 5만여km²에 달하는 많은 호수들이 있다.

또한 40만마리이상의 각종 진귀한 동물들이 살고있는 사면이 절벽으로 된 유명한 자연동물원도 있다.

【넓이】 93만 9,703km²

【인구】 1,363만명(1971년)

주민은 대부분이 아프리카인이며 기타 아랍인, 인도인, 파키스탄인, 구라파인이 있다.

공용어는 스와힐리어와 영어

【수도】 다르 에스 살람(주민 35만 3,000명)

【민족회의】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 총의석 204석, 임기 5년, 1970년 11월 5일에 민족회의 선거 진행, 잔지바르혁명리사회 의원 전원이 민족회의에 망라된다.

【정부】 1972년 2월 17일 내각개조에서 총리직제와 새로 외무, 국방, 보건부를 내오고 대통령이 직접 틀어쥐고 있던 외교 및 국방부를 담당할 부장들을 임명하였다.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 레레 (1964년 4월—), 제1부대통령 아보우드 줌베 무이니 (1972년 4월—), 제2부대통령겸 총리 쉐이크 라쉬디 므파우메 카와와 (1972년 2월—), 외교부장 시귀예미시 사무엘존 말레셀라, 국방보위및 민족복무부장 에드와드 엠. 소코이네

【정당, 사회단체】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 1954년에 창건된 탄가니카집권당, 《착취없는 사회주의건설》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위원장 쥴리어스 케이.니에레레 **아프리카쉬라지당** 1957년 2월에 창건된 잔지바르집권당, 잔지바르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독립후 1964년 2월에 《움마당》과 합당, 위원장 아보우드 줌베. **탄가니카로동자전국동맹, 잔지바르혁명로조련맹, 청년동맹**(탄가니카와 잔지바르에 각각 있다), **전국녀성동맹, 탄자니아조선친선협회** 1970년 4월 결성, 위원장 아담 사피 모크와와.

정 치 탄자니아는 탄가니카와 잔지바르가 련합하여 형성된 나라이다.

탄가니카는 1884년부터 독일의 식민지로 있었다. 탄가니카인민은 1903—1905년에 독일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마지마지(물) 봉기》를 비롯하여 식민지통치의 전기간 압제자를 반대하는 줄기찬 투쟁을 진행하였다. 1차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자 1919년에 영국의 《위임통치령》으로, 1946년에는 유엔《후견령》으로 되였다. 장기간에 걸친 인민대중의 투쟁으로 1961년 12월 9일 탄가니카는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962년 12월 9일에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잔지바르는 16세기부터 뽀르뚜갈(1508년)을 비롯한 서방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90년에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장기간에 걸친 인민들의 투쟁으로 1961년 1월 자치정부가 수립되였으며 1963년 12월 10일 잔지바르는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쟁취하였으나 대외, 국방, 경제 등 중요한 부문의 실권을 봉건군주제도를 통하여 영식민주의자들이 계속 틀어쥐고 있었다.

1964년 11월 12일 잔지바르인민은 무장폭동을 일으켜 군주제도를 전복하고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4년 4월 22일 탄가니카와 잔지바르가 련합할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4월 26일 협정비준문건교환의식을 진행하고 나라이름을 탄자니아련합공화국으로 선포하였다.

탄자니아헌법에 의하여 외교, 치안문제는 민족회의와 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며 잔지바르는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며 국방, 경제, 문화분야에서 독자적권한을 행사하며 지역적립법기관(혁명리사회)과 행정기관을 가지고 자치를 실시한다.

1967년 2월 5일 《사회주의와 자력갱생에 관한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의 정책》(아루샤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에서는 탄자니아가 《사회주의나라를 건설》할것이라고 하면서 경제의 중요 생산수단들을 로동자, 농민이 통제하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나라 인민과 부원에 의거하여 경제를 건설하며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현상을 근절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선언에 따라 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토지, 공장, 기업소, 광산, 은행 및 회사들을 모두 국유화하고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전복음모와 파괴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1966년이래 이 나라에서 정탐활동을 감행하던 미제 《평화군》을 모두 내몰았다. 또한 정부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복음모책동에 대처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1971년 2월 13일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타누당) 전국 집행위원회 비상회의에서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할 정부방침을 토의하고 《타누선언》을 채택하였으며 당중앙에 국방위원회를 조직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기로 하였다. 그후 각 지방에 민병을 광범히 조직하였다.

3월 5일 발표한 1971~1972년 발전계획초안에는 《탄자니아는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할것이다.》라고 지적하였으며 니에레레대통령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을 준렬히 폭로규탄하였다.

대외적으로 탄자니아정부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고있으며 아프리카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주요사건】 1972년 2월 정부에서 총리직제와 국방, 외교, 보건부를 새로 내오고 대통령이 직접 틀어쥐고있던 국방 및 외교부문을 담당할 부장을 새로 임명하였다. 비아프리카인(영국인)으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농업부장을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제거하였다.

3월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지도일군들과 일반당원들의 정치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당원들의 정치교육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4월 8일 제1부대통령이며 잔지바르혁명리사회위원장 쉐이크 아베이드 아마니 카루메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던중 원쑤들의 흉책에 의하여 피살되였다.

5월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 전국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농업을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농업의 집단경리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또한 집행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수준을 높일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6월 나라의 전망적인 경제발전을 조정하기 위한 전국과학리사회를 새로 창설하였다.

9월(18일부터)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 제15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지난 10년간 나라의 자립적 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총화하고 앞으로의 전망계획을 토의하였으며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대회에서 니에레레대통령은 탄자니아가 국제문제에서 자주적인 립장을 고수하고있다고하면서 쁠럭불가담정책과 남아프리카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지지를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탄가니카에서는 사이잘삼(세계생산량의 3분의 1), 커피, 목화, 잔지바르에서는 정향(세계생산량의 80% 차지), 야자, 사탕수수생산이 위주로 되고있다. 경지면적은 약 4천만에이커이며 해마다 사이잘삼은 25—30만t, 정향은 1만5천~2만t, 야자는 1만 5천t 생산된다. 1970년에 목화는 9만 9천t, 커피는 5만 5천t, 사탕은 9만t 생산되였으며 이해 공예작물총생산량은 67만t에 이르렀다.

축산업도 농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소, 양, 염소 등 집짐승마리수는 아프리카에서 제1위를 차지한다.

독립후 탄자니아인민은 《아루샤선언》에서 제시된 《자력갱생하는 사회주의국가건설》로선에 따라 제국주의 독점체들의 회사들과 토지를 국유화하고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을 창설개건하는 사업을 추진시켰다. 정부투자에 의하여 1972년까지 몇해사이에 해마다 60만t의 원유를 정제할수 있는 정유공장, 1만t의 강재를 압연할수 있는 압연강재공장, 10만t의 화학비료를 생산할수 있는 화학비료공장, 년산 43만개의 다이야를 생산할수 있는 다이야공장과 그 밖에 강관공장, 세멘트공장 등이 건설되였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립당시 3.4%로부터 1971년에는 10.3% 늘어났다. 특히 기계제작공업은 1960년에 비하여 1970년에는 120배이상 늘어났으며 1971년에는 1970년보다 14.3% 늘어났다.

민족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일용품의 대부분과 일부경공업제품들을 자체로 생산하고있다. 전국적으로 7개의 방직공장이 있는데 면직물생산량은 1968년의 3천 500만m로부터 1971년에는 8천 453만여m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면직물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지하자원으로는 탄가니카에서 채굴되는 금강석(년산 약 83만카라트), 금(년산 3t), 동, 주석 등이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다각화》가 추진되고있으며 농업협동화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고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지원이 더욱 강화되였다. 1972년 5월 현재 《우자마아마을》(집단로동촌)이 4천 500개에 달했으며 여기에 150만명의 농민들이 망라되였다.

독립후 각급 학교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였으며 글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성인교육운동을 활발히 벌렸다.

1970년 6월 다르 에스 살람에 첫 국립종합대학이 창설되였으며 1972년 5월부터는 대학이 없는 먼 지방의 주민들도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게 하기 위하여 통신대학을 새로 내왔다.

1953년의 탄가니카, 케니아, 우간다 3국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다르 에스 살람에 동아프리카종합대학의 일부가 있다.

1971년말에 이 나라에는 독립전의

5배에 달하는 122개의 병원과 90개의 농촌진료소가 있었다. 의사수는 12명으로부터 1970년에 123명으로 늘어났다.

탄가니카에는 기독교도가 많고 잔지바르에는 회교도가 많다.

【출판보도】 신문 정부기관지로는 쎈데이뉴스, 데일리뉴스,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기관지로는 우후르, 욤잘렌도가 있다. 느구루모(개인경영)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 1월 1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5년 6월에는 무역협정, 11월에는 과학기술협조협정, 1966년 7월에는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8년 6월 니에레레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8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니에레레대통령에게 타보라혁명학원 교육설비를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1972년 8월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견하신 우리 나라 교원들에 의하여 꾸려진 다르 에스 살람민족교육대학 타누(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 혁명력사연구실이 개관되였다.

1972년 신문《느구루모》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8월 6일 연설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 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비롯하여 그이께서 일본《요미우리신붕》, 《마이니찌신붕》 기자들과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 등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을 실었다.

유엔총회제27차회의에서 탄자니아는 알제리가 제기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함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으로 나섬으로써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지지하였다.

1972년 1월에 타보라혁명학원친선대표단, 4월에 정부대표단, 다르 에스 살람종합대학 력사교원부부, 다르 에스 살람종합대학 예술 및 사회과학부학부장, 5월과 7월에는 당학교(키브코니대학)대표단, 8월에는 탄가니카근로자전국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5월 31일 당학교(키브코니대학)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2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탄자니아를 방문하였다.

모 잠 비 끄

(뽀르뚜갈식민지)

아프리카의 동남부 인도양기슭에 있다.

잠베지강 북부는 대지, 남부는 벌방으로 되여있다.

기후는 열대계절풍기후로서 사철 덥고 비는 1월—3월사이에(장마철) 많이 내린다. 7월평균기온은 남부에서 15°C, 북부에서 20°C, 1월평균기온은 남부에서 26°C, 북부에서 30°C이다.

강우량은 바다가에서 1,000—1,500mm, 내륙지대에서 500~700mm이다.

【넓이】 78만 3,030km²

【인구】 800만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은 반투족이다.

공용어는 뽀르뚜갈어이나 원주민은 스와힐리어를 쓴다.

【행정중심지】 로렌쏘 마르께스(주민 25만명)

【정당, 사회단체】 **모잠비끄해방전선** 1965년 5월에 창건, 모잠비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위원장 모이세스 마셀, **아프리카인민족동맹, 민족민주당, 해방전선청년동맹.**

정 치 16세기초에 모잠비끄에 기여든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1700년에는 전 령토를 강점하고 저들의 《보호령》으로 선포하였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의 자원을 략탈하였을뿐아니라 인도양항로의 요소를 장악하였다.

1899년에는 《로동법》을 선포하고 원주민들에게 강제로동을 강요하였으며 1909년에는 남아프리카, 그후에는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과 《모잠비끄협정》을 맺고 해마다 10만명의 아프리카인들을 《수출》하였다.

1950년 후반기부터 아프리카인들을 내쫓고 잠베지저지에 100명의 백인을 이주시키기 위한 책동을 감행하고있다. 또한 놈들은 해방운동과의 련계를 끊기 위하여 이른바 《전략촌》들을 만들어놓고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있으며 미제의 지원하에 비행기를 동원하여 농경지를 파괴하며 주민들을 학살하는 야만적인 식민주의전쟁을 감행하고있다.

민족해방투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피압박인민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하다. 제국주의가 폭력으로써 약소민족들을 탄압하고 압박하는 이상 피압박민족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침략자들에 항거하여 투쟁하는것은 빼앗을수 없는 그들의 권리이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21폐지)

모잠비끄인민들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1930년말의 로렌쏘마르께스항만로동자들의 항의운동, 1948년 이 지구인민들의 봉기, 1963년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부두로동자들의 파업 등이 있었으며 1962년 2월에는 로렌쏘마르께스에서 첫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이해 5월에 모잠비끄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하는 반제해방전선이 결성되여 1964년까지 지하투쟁을 전개하였다.

해방전선은 1963년 9월 무장투쟁로선을 채택하고 1964년 9월 25일에 전인민적폭동을 일으켰다.

전인민적폭동은 무장투쟁으로 전환되여 초기 250명의 유격대원으로 민족해방을 위한 무장투쟁이 시작되였다.

무장투쟁과정에 애국적무장력은 1만 5천여명의 정규무력과 6만명이상의 자위대를 가진 강력한 력량으로 자라나 1971년까지의 7년동안에 1만여명의 뽀르뚜갈침략군을 살상하고 1천여대의 각종 자동차를 파괴하고 수백개의 적진지를 습격하였다.

1972년에 무장투쟁은 식민주의자들이 까보라바싸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떼떼주와 까보델가도주, 니아싸주 등에서 가장 세차게 타올랐다. 떼떼주에서 활동하고있는 유격대는 3월부터 5월까지에만도 280여명의 침략군을 소멸하고 30대의 적군용차와 3척의 배를 까부셨다.

또한 이해 7월에는 저들의 《비교적 안전한 후방》으로 되여있던 마니까쏘팔주에서 새로운 투쟁전선을 폄으로써 무장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1972년현재 까보델가도주, 니아싸주, 떼떼주의 거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 전령토의 3분의 1과 100만여명의 인민들이 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되였다.

해방지역에는 인민정권이 수립되였으며 자본주의적경리형태가 없어지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근절되고 있다.

경제, 사회 농업이 경제의 기본으로 되고있다.

기름진 땅은 뽀르뚜갈, 영국 농장주들이 독점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식민주의자들이 빼앗아가는 사탕수수, 목화, 야자, 바나나, 사이잘삼과 아프리카인들의 주식작물인 강냉이, 조, 콩, 마니오크 등이다.

식민주의자들은 매 아프리카인 성인들에는 1ha, 로인과 녀성들, 아이들에게는 0.5ha에 목화를 의무적으로 재배케 하고 헐값으로 빼앗아간다.

축산업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석유, 주석, 보크사이트, 우라니움 등 자원이 많으나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미제독점체들은 12만km^2에 달하는 지역에서 석유와 기타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권을 틀어쥐고있으며 항만, 비행장, 군사도로 건설 등을 통하여 이 나라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고있다.

가공공업으로는 소규모의 사탕, 기름, 비누, 세멘트 공장들이 있는 정도이다.

해방지역에서는 농업이 집단화되고 식량은 자급자족하고있다. 160개의 인민학교에서 2만여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있다. 해방지역인 까보델가도주에서만도 2개의 중앙병원을 비롯하여 11개의 지역병원과 58개의 구급소들이 설치되였다.

【출판보도】 신문 모잠비칸 페블루손(해방전선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모잠비끄해방전선청년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으며 9월에는 모잠비끄해방전선 위원장이며 모잠비끄 해방군총사령관인 사모라 모이세스 마셸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말 라 위

(말라위공화국)

중부아프리카에 있으며 탄자니아, 모잠비끄, 잠비아, 짐바브웨 등에 둘러싸여있는 내륙국이다.

동부에는 이 나라 령토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니아사호가 있어 탄자니아, 모잠비끄와 경계를 이루고있다.

전령토에 걸쳐 남북으로 깊고좁은 지구대가 뻗어있으며 그의 높이는 200~500m이다.

기후는 적도무역풍기후이다. 기온이 가장 낮을 때(7월)의 평균기온이 17~19°C, 가장 높을 때인 11월에는 평지에서 27°C, 산지에서 20~23°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저지대에서 750~1천mm, 고원지대에서는 1천~2천 500mm이다.

【넓이】 11만 8,484km^2

【인구】 455만명(1971년)

주민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인이며 혼혈인, 구라파인, 아세아인들도 산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좀바(주민 2만명)

【국회】 일원제립법기관이다. 의원수 55명중 5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50명은 선거한다.

【정부】 대통령 헤스팅그스 카무주 반다(총리겸임, 1964년 7월—)

【정당, 사회단체】 말라위대회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59년 9월 창건, 영제국주의자들과의 협조를 주장, 1970년 9월 당대회에서 반다를 종신위원장으로 결정. 전국로동련맹, 로조대회.

정 치 1891년 5월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1953년 10월에는 《중앙아프리카련방》(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로 형성)에 강압편입되였다.

《련방》의 해체와 독립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63년 2월 말라위에서는 내부자치제가 실시되여 말라위대회당 위원장인 반다를 총리로 하는 자치정부가 수립되였다. 이해 12월 《련방》에서 탈퇴하였다.

1964년 7월 6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고 1966년 7월 6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말라위는 남아프리카,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면서 이 《정권》과의 일체 관계를 끊을데 대한 세계인민들과 아프리카인민들의 공동행동에 참가하지 않고있으며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을 규탄하는 1972년 11월 1일 유엔총회 특별정치위원회 결의안 표결시에는 기권하였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말라위의 군사기지를 리용하여 이 지역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고있다.

경제, 사회 주로 담배, 목화, 차, 땅콩, 커피를 재배하여 수출하며 쌀과 식료품을 수입한다. 해마다 차는 약 1만 6천t, 담배는 1만 1천t, 목화는 2만t 생산된다. 비옥한 땅은 백인들이 차지하고있다.

지하자원으로는 돌솜, 보크사이트, 동, 석탄, 금, 쇠돌, 망간, 금강석, 석유 등이 있으나 완전히 개발되지 못하고 수공업적으로 채굴한다.

공업으로는 차, 담배 등을 가공하는 공장과 목재, 합판공장들이 있을뿐이다.

철길은 쌀리마에서 모잠비끄로 통하는 한개 선이 있으며 수도에는 철길이 없다.

주민의 대부분이 문맹자이며 어린이들의 취학률은 50%미만이다.

주민들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고있으나 기독교와 회교도가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있다.

잠 비 아

(잠비아공화국)

중부아프리카에 있는 내륙국이다.

평균기온은 가장 높을 때(10월)에 20~25°C, 가장 낮을 때(7월)에 15~20°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750~1천mm이다.

【넓이】 75만 2,614km^2

【인구】 420만 8,000명(1970년)

카프에르족, 벰바족, 비르트세족, 룬다족 등 73개의 종족이 있다.

공용어는 스와힐리어

【수도】 루사카(주민 25만명)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1964년 8월—), 외교부장 이. 에취. 케이. 무덴다, 국방부장 알렉싼드르 그레이 줄루가

【정당, 사회단체】 1972년 12월 모든 야당들을 금지하고 단일당제를 수립하였다. 민족통일독립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로조대회, 잠비아조선친선협회 1971년 4월 결성.

정 치 1891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1953년에는 중앙아프리카련방에 강압편입되였다.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며 《련방》 해체를 위한 이 지역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1963년 12월 《중앙아프리카련방》은 해체되고 1964년 10월 24일 《영련방》내의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독립후 잠비아는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군대내에서 식민주의자들을 내쫓고 1969년 6월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헌법을 개정하여 백인들의 선거권과 참정권, 토지와 일부 기업소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아내고 모든 부문을 《잠비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아프리카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주요사건】 잠비아정부의 단호한 반

제적조치에 당황한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과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1972년에도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잠비아에 대한 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하였다.

4월 뽀르뚜갈침략자들은 칼라보근방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있던 잠비아인들을 랍치하여 앙골라로 끌고갔으며 10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쎄쉐크와 카티마무릴로지역의 농촌들을 폭격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972년 10월 8일 카운다대통령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규탄하면서 전국에서 정규군을 돕기 위한 민간군사조직을 창설할것이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하여 마지막 한사람까지 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2월 13일 카운다대통령은 모든 야당을 금지하고 단일당 국가로 전변시키는 헌법수정안에 서명하였다.

1972년에 잠비아는 꾸바(7월), 윁남민주공화국(9월)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세계적인 동생산국이며 채광업이 국민소득의 80%를 차지한다. 동은 이 나라 총생산액의 40~50%, 수출액의 90~95%를 차지한다.

1972년에 동수출량은 그 전해의 63만 5천t으로부터 71만 6천t으로 늘어났다. 1970년에 연은 2만 7천 300t, 아연은 5만4천 200t 생산하였다.

독립후 정부는 외국회사들의 동광채취에만 의존하던 경제적기형성을 퇴치하고 공업과 농업을 확대하면서 경제를 다각화하고있다.

전력, 사탕, 세멘트, 직물, 폭약, 비료, 금속제품 기타 소비제품공업이 창설되였다.

1971년에는 로바쉬아시에 첫 동제품공장이, 1972년에는 카두에강에 60만 kw능력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였다.

1972년현재 동광산의 51%가 정부의 통제밑에 있다.

주요농작물인 강냉이생산체계가 확립되였으며 목화, 담배, 땅콩 등 생산도 늘어났다.

이리하여 1966—1970년의 제1차 민족개발계획기간에 총생산액은 12% 늘어났다.

제2차민족개발계획 (1972—1976년)에는 《식량 특히 강냉이를 자급자족하는것》을 주요한 목표의 하나로 내세우고 농촌경리발전에 큰 힘을 넣고있다.

1971년에 강냉이는 40만t, 목화는 1만 9천t, 담배는 5천 900t 생산되였다.

무료교육제실시를 지향하고 중등수준까지의 교육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수 있게되였다.

1971년에 초등학교들에서는 영국교과서들을 폐기하고 잠비아인들이 만든 새로운 교과서에 의하여 교육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이해 초등학교 학생수는 70만명에 달하였다. 대학졸업생은 1964년에 100명이였는데 1972년에 300명에 달하였다.

평균로임은 131%로 장성하였다.

보건위생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망을 늘이고있는데 1972년에 농촌지역들에는 400개의 진료소들이 꾸려졌다.

또한 하나의 종합대학병원이 있으며 루사카와 느돌라에는 두개의 병원과 3개의 전문병원이 있다.

【출판보도】 신문 잠비아 메일(정부기관지), 데일리 메일.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4월 1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1년 4월 18일 루사카에서 《잠비아조선청년친선협회》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2년 12월 12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잠비아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잠비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등이 조직되였다.

수령님의 로작들은 잠비아인민들속에서 광범히 보급되고있는데 1972년에만도 신문 데일리 메일은 그이께서 1972년에 발표하신 력사적인 로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과 하신 담화 등을 비롯하여 고전적인 로작들을 실었다.

1972년 9월 잠비아부대통령 마인자 마티아스 쵸나를 단장으로 하는 잠비아정부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9월 26일 대표단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이해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대표단(3월)이 잠비아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우리 나라 집단체조창작일군들이 잠비아에 파견되여 사업함으로써 두 나라간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짐 바 브 웨

(남로데시아)

남아프리카의 중앙부에 있는 내륙의 고원에 있는 국가이다.

잠비아와의 국경지역에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잠베지강이 있는데 이로부터 많은 지류들이 뻗고있다.

기후는 몹시 무더우며 최고 38°C까지 오를 때가 있다. 가장 더울 때(10월)의 평균기온은 21~27°C, 가장 낮을 때(7월)에는 10~17°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762mm이다.

비는 주로 10월~3월까지 내린다.

【넓이】 39만 9,400km²

【인구】 550만명(1971년)

주민은 대부분이 반투어계통의 흑인이며 백인(24만명)과 흑인의 혼혈인 등이 있다.

【수도】 솔스베리(주민 42만 3,000명)

【의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23명, 그중 백인이 10명, 부족장회의에서 선출하는 아프리카인 10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원 3명으로 구성된다.

하원은 66명중 백인이 50명, 부족장회의에서 선출하는 아프리카인이 8명, 지역별대표 8명이 차지한다. 부족장회의의 임명권은 백인이 장악하고 있다. 하원에서 로데시아전선이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 크리포드워터 듀폰(1970년 4월—)

【정부】 1971년 11월에 정부가 조직되였다. 총리 이완 스미스

【정당, 사회단체】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 1961년 12월에 창건,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1962년 9월에 비법화. 본부는 잠비아에 있다. **아프리카민족동맹** 아프리카인민동맹에서 분리되여 1963년에 결성된 민족해방투쟁단체, 본부는 탄자니아에 있다. **로데시아전선**(집권당), **중앙당**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한다. **범아프리카사회동맹, 아프리카로조대회.**

정 치 1895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3년 영식민주의자들은 짐바브웨인민들의 반식민지투쟁을 말살하고 식민지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잠비아, 말라위, 짐바브웨를 통합하여 《중앙아프리카련방》을 조작하였다.

1963년에 이 지역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련방》은 해체되고 잠비아와

말라위는 독립하였으나 짐바브웨에서는 영식민지통치가 계속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부딪쳐 더는 제놈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할수 없게 되자 스미스를 우두머리로하는 백인인종주의정권을 조작하고 1965년 11월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케하였다.

백인인종주의정권은 전령토의 절반을 백인전용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법, 주민등록법, 치안유지법, 립헌정부유지법 등 각종 악법을 조작하여 로골적인 인종차별정책과 인종탄압정책을 실시하였다.

1962년 9월에는 독립을 요구하여 싸우는 아프리카인민동맹을 비법화하고 이 동맹 위원장을 체포구금하였다.

1966년에는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3개월이상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50여개소의 강제수용소를 만들어 5만 5천여명의 애국자들을 투옥하였다.

짐바브웨인민들은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스미스인종주의도당의 야수적인 탄압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1966년 4월 28일 솔스베리북서쪽에 있는 시노이아에서 스미스인종주의도당군대에 대한 첫 공격을 불이댐으로써 짐바브웨에서 무장투쟁의 봉화를 추켜들었다.

그후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의 령도밑에 짐바브웨인민의 무장투쟁은 확대되였으며 스미스정권의 악랄한 통치는 세계 광범한 나라들과 인민들의 항의와 규탄을 받았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여 1969년 6월 스미스도당은 인종주의정권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이른바 《헌법》을 채택하고 1970년 3월 2일 《남로데시아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1년 11월 24일에는 영제국주의자들과 스미스도당은 민족적독립을 위한 짐바브웨인민의 투쟁이 반전하는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른바 《헌법개정》이라는 기만술책으로 로데시아에서의 《다수인의 통치》를 실현하는데 영국이 동의한다는 《협정》을 맺는 모략을 꾸몄다.

이 헌법에서는 로데시아에서 소수외국인에 의한 무기한 통치를 규정하고있으며 독립을 연기하는 대가로 영국이 5년동안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교육비로 1천만파운드를 주기로 하였다.

이《협정》이 짐바브웨인민과 아프리카여론의 강력한 규탄과 반대를 받자 영제국주의자들은 《피어스위원회》를 짐바브웨에 보내여 이 《합의》가 짐바브웨인민에게 《접수》되고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이른바 《인민들의 의사를 묻는》 기만적인 광대놀음을 벌렸다.

그러나 이것은 짐바브웨인민들의 더욱 큰 분노를 일으켰다.

【주요사건】 1972년에 인종주의정권을 반대하며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짐바브웨인민들의 투쟁은 영제국주의자들과 스미스인종주의정권이 조작한 이른바 《피어스위원회》가 1월 11일 솔스베리에 기여들자 더욱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짐바브웨인민들은 《정권은 대다수 아프리카인들에게로》라는 구호를 웨치고 《피어스위원회》가 뿌린 《합의》조항이 적혀있는 소책자를 찢으면서 항의시위와 집회, 파업을 광범히 진행하였다.

사반에 있는 3천명의 광산로동자들은 일제히 파업을 일으켰으며 스미스식민지통치중심인 솔스베리를 비롯한 주요도시들에서 항의시위가 단행되였다. 1월 18일에는 그웰로에서만도 8천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짐바브웨인민의 견결한 투쟁에 의하여 《피어스위원회》는 이 지역 활동계획을 취소하지 않을수 없었다. 당황망조한 스미스파쑈정권은 수많은 무장한 군대와 경찰들을 풀어 아프리카인들을 류혈적으로 탄압하였으며 수많이 체포하였다. 그러나 짐바브웨인민들은 굴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하였다.

한편 무장투쟁을 진행하고있는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은 혁명적무장력인 짐바브웨인민혁명군을 창건하였다.

3월 23일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자푸)과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자누)의 대표들이 남부탄자니아 므베야에서 합동군사령부를 조직할데 대한 협정을 조인하였다.

스미스인종주의정권을 반대하는 아프리카나라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쳐 8월 22일 뮌헨에서 진행된 제73차국제올림픽위원회총회 본회의에서는 남로데시아의 올림픽대회참가초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1973년 1월 9일 남로데시아백인인종주의자들은 두명의 남아프리카경찰이 죽은것을 구실로 잠비아와의 국경을 봉쇄하고 잠비아와 남로데시아사이의 모든 교통을 차단하는 도발행동을 감행하였다.

아프리카통일기구는 남로데시아백인인종주의자들의 잠비아국경봉쇄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제, 사회 전형적인 식민지적기형성을 띠고있는 농업국이다. 경제명맥은 영국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이 나라의 인구의 5.7%밖에 안되는 백인인종주의자들이 부침땅의 70%를 차지하고 아프리카인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담배(농업생산액의 50~80%), 사탕수수, 강냉이, 목화, 땅콩 등이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굴업이며 가공공업은 농산물 가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크롬광, 라디움광을 비롯한 전략물자들과 철, 동, 니켈 등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질좋은 돌솜을 생산하고있다. 그러나 이 모든 재부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크롬은 미영합자광업회사, 라디움은 미제의 자본을 위주로 하는 광업회사가 채취하고있다. 영국은 로데시아에 2억파운드를 투자하고있다. 매해 크롬광은 37~40만t, 동은 2만t, 석탄은 300만t, 금은 15t정도 생산된다.

운수의 기본은 철도운수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의 자원을 략탈하기 위하여 여러 갈래의 철길을 부설하였다. 철길의 길이는 2천 152km이다.

백인인종주의자들은 60여종의 인종차별을 위한 각종 악법으로 아프리카인들을 착취하고있다. 아프리카인들은 척박한 땅으로 쫓겨나 농사를 하거나 혹은 광산, 백인농장들에서 고용로동을 하고있다. 아프리카인들의 임금은 백인로동자의 임금의 20분의 1밖에 안된다.

1971년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백인학생수가 2만 3천명이였는데 백인보다 20배이상의 인구를 가진 흑인학생수는 2만 6천명밖에 안되였다. 문맹률은 75~80%이다.

아프리카인들은 원시종교를, 백인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짐바브웨레부(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기관지).

앙 골 라

(뽀르뚜갈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서남부, 대서양기슭에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해발 1천m이상되는 고원으로 되여있다.

기후는 내륙지방에서 적도철바람기후이고 해안지대는 열대무역풍기후이다.

가장 더울 때의 평균기온은 17～28°C이며 가장 서늘한 때의 기온은 13～23°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남부에서 750～1,000mm, 북부에서 1,500mm이다.

【면적】 124만 6,700km²

【인구】 510만명(1972년)

주민의 97%가 반투족이다.

언어는 반투어

【행정중심지】 루안다(주민 29만명)

【정당, 사회단체】 **인민해방운동** 1956년 12월 9일 창건,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위원장 아고스띠노 네또, 꽁고, 알제리, 애급, 탄자니아, 잠비아 등에 대표부를 두고있으며 본부는 브라자빌에 있다. **인민련맹** 1954년에 북부앙골라인민련맹으로 조직되였다가 1958년에 인민련맹으로 고침, 한때 인민해방운동과 공동으로 무장투쟁을 하다가 갈라져 1962년 자이르의 킨샤사에 《망명정부》를 수립하였다. 위원장 홀덴 로베르트.

1972년 12월 12일 인민해방운동과 인민련맹이 《앙골라해방최고리사회》란 새 기구로 통합, 위원장 홀덴로베르트, 부위원장 아고스띠노 네또. **전국근로자동맹, 녀성조직.**

정 치 1885년에 뽀르뚜갈식민지로 되였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1951년에 앙골라를 제놈들의 《해외주》로 선포하였다. 놈들은 1957년에 파쑈기구인 《국가정보 및 치안경찰》을 설치하고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남아프리카와 남로데시아 고용병까지 끌어들여 10만에 달하는 침략군대로서 앙골라인민들을 반대하는 식민주의전쟁을 감행하고있다.

민족해방투쟁 뽀르뚜갈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앙골라인민들의 투쟁은 인민해방운동이 조직된후 더욱 앙양되여 1961년 2월 4일에는 루안다에서 무장투쟁의 첫 봉화를 올렸다. 이해 3월 24일 24명의 애국자들이 20자루의 보총을 가지고 시에라다 감바산악지대에서 첫 무장대오를 조직하고 북부산림지대에서 유격투쟁을 시작하였다.

1962년 12월 인민해방운동 제1차대회에서 민족해방군창건을 결정하였다. 그후 민족해방군은 최신식 각종 포와 자동무기로 장비된 5만명의 강력한 대오로 자라났다.

앙골라유격대들은 동북부와 중부지대에 광범한 전선을 형성하고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등지를 틀고있는 서부연해지구에로 무장투쟁의 불길을 계속 확대해가고 있다.

1972년에는 남부지역인민들도 쿠네네강지역에 새로운 무장투쟁전선을 폄으로써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더욱 수세에 몰아넣었다.

앙골라유격대들은 1971년 12월부터 1972년 3월까지만도 뽀르뚜갈식민주의군대를 140여차나 공격하여 적 440여명을 소멸하고 적의 수많은 군수기재들을 까부시거나 빼앗았다. 무장투쟁은 앙골라의 15개주중 11개주에서 전개되였으며 령토의 3분의1이상에 달하는 지역과 100만의 인구가 해방되였다.

해방지역들에는 행동위원회라고 불리우는 인민정권이 조직되였다. 행동위원회는 인민자위대를 통하여 자위의 임무를 수행하고있을뿐아니라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와 주민들에 대한 통제사업도 담당수행하고있다. 이리하여 해방지역에서는 식민주의가 남겨놓은 착취와 빈궁을 가시고 자주적인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1972년 12월 13일 앙골라의 무장투쟁을 각각 지도하고있던 앙골라인민해방운동과 인민련맹은 아프리카통일기구대표들의 참가하에 회담을 진행하고 통일적인 중앙인 《앙골라해방최고리사회》를 창설할데 대한 협정을 조인하였다.

협정에는 최고리사회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앙골라애국자들의 무장투쟁과 정치활동을 지도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량측대표들은 련합군사위원회(위원장 아고스띠노 네또)와 정치위원회(위원장 홀덴로베르트)를 구성하였다.

경제, 사회 농업과 광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150만정보의 기름진 땅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사이잘삼, 종려, 사탕수수, 땅콩, 강냉이, 바나나, 나무감자 등이다.

금강석, 석유, 동, 망간, 갈탄, 운모, 연, 아연, 쇠돌, 우라니움, 월프람 등이 많이 매장되여있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앙골라인민탄압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대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자들과 서독,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앙골라자연부원에 대한 략탈에 참가시키고있다.

해방지역에서는 행동위원회의 지도밑에 착취없는 새 생활이 창조되고있다. 농업생산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전선지대들에서는 병원들과 야전진료소, 특별이동의료봉사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승리냐 죽음이냐(인민해방운동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앙골라인민해방운동투사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그이의 주체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뭇고있으며 인민해방운동기관지 《승리냐 죽음이냐》는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들을 광범히 싣고있다.

1971년 8월에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위원장 아고스띠노 네또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 6월에 인민해방운동청년대표단, 잠비아에 있는 인민해방운동 《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로청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나 미 비 아

(서남아프리카)

아프리카대륙의 서남쪽, 대서양기슭에 있으며 남아프리카, 앙골라, 잠비아와 잇닿아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고원으로 되여있으며 서부에 사막이 있다.

기후는 메마른 열대성기후이다. 가장 높은 1월 평균기온은 바다가에서 18～20°C, 내륙지역에서 25～27°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250～500mm이다.

【면적】 82만 4,292km²

【인구】 67만 100명(1970년말)

주민의 5분의4는 오밤보족을 비롯한 반투어계통의 종족들로 이루어져있다. 그외 보아인 (화란식민주의자들의 후손), 독일인, 영국인 등이다.

인구밀도는 1km²당 1명미만으로서 아프리카에서 밀도가 가장 낮다.

통일적인 언어는 없다.

【행정중심지】 윈드후크(주민 4만 3,000명)

【립법회의】 1968년 10월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이 민족적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립법기구》로서 백인들로 구성되고있다.

【행정평의회】 백인통치기구, 남아프리카당국이 파견하는 행정장관이 있다.

【정당, 사회단체】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1958년에 조직,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탄자니아, 잠비아, 애급, 알제리, 꾸바에 대표부를 두고있다. 위원장 삼 느조마, 이밖에 민족

적독립을 요구하는 투쟁조직으로서 **민족대회민족동맹**, **서남아프리카해방전선** 등이 있으며 남아프리카 반동정당들의 지부인 **국민당**, **통일당** 등이 있다.

정 치 15~16세기부터 뽀르뚜갈, 화란, 영국, 독일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915년 7월 남아련방(현재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강점되였고 1920년 12월부터는 남아련방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1949년 4월 남아련방은 《서남아프리카사무수정법안》을 조작하고 서남아프리카를 자기 령토에 포함시켰다. 1969년 3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나미비아에 대한 저들의 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을 조작하여 이 나라의 행정 및 재정권을 장악하였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은 저들의 침략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나라 인민들을 강제수용소에 몰아넣으면서 그들을 멸종하기 위한 학살만행을 감행하고있다. 또한 놈들은 각종 악법을 조작하여 극단한 인종격리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비호하에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고있다.

1972년에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은 나미비아의 북부주인 오왐보랜드에서 아프리카인주민 5명이상이 한자리에 모이는것을 금지시키는 파쑈악법을 조작하였다.

나미비아인민들은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의 지도밑에 1966년 5월부터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다.

1968년 11월 동북부지역의 므파챠 군사거지에 대한 공격이 있은 후 무장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무장투쟁을 통하여 수천명의 무장대오로 자라난 유격대들은 1972년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기간에 남아프리카식민주의강점군을 맹렬히 공격하여 50여명을 소멸하였다.

10월 5일 유격대는 카프리비지역에서 적군용차대렬을 매복습격하여 적화물자동차 3대를 폭파하였다.

나미비아로동자들은 인종차별과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1971년 12월 13일부터 1972년 3월에 걸쳐 이 나라 력사상 가장 큰 파업을 일으켰다. 파업은 경제의 여러 부문을 휩쓸어 수만명이 참가한 전국적인 파업으로 확대되였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군대와 경찰을 풀어 탄압에 날뛰였으나 이 투쟁에는 광범한 인민들이 합류하여 인종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부문은 채광업과 목축업이며 해안지대에서는 어업도 한다. 토지의 90%는 백인인종주의자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이며 밀, 공예작물도 난다. 축산업은 소, 면양 기르기가 기본인데 해마다 300만매의 양가죽을 수출한다.

지하자원으로는 금강석(세계생산량의 3%), 바나디움(세계생산량의 10%) 동, 망간, 우라니움 등이 많으나 이것들은 영국(외국자본 총투자액의 80% 차지), 미국, 남아프리카, 서독 등 100여개의 외국독점회사들에 장악되여있다.

미영자본의 《통일금강석회사》는 금강석채굴의 99.6%를 독점하고있으며 해마다 7천만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남아프리카는 1971년에 1억 5천만딸라의 리윤을 얻었다.

1971년에 165만카라트의 금강석이 생산되였다.

가공공업으로는 수산물가공공장, 식료공장, 구리제련공장 등이 있다.

철길은 항구들과 광산업지대를 련결시키고있으며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자원략탈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광산로동자들의 임금은 백인로동자임금의 20분의 1밖에 안되며 계약로동자들의 임금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어린이사망률은 40%에 달한다. 아프리카인들은 《흑인거주지》에서만 살도록 강요당하고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3월 20일 잠비아에 있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성원들이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력사를 연구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선봉소조》를 결성하고 투쟁대오내에 《김일성부대》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1971년 6월 나미비아청년동맹대표와 잠비아에 있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력사를 연구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선봉소조》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1972년 4월에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동아프리카책임대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보 쯔 와 나

(보쯔와나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남쪽에 있는 내륙국이다. 대부분이 열대초원지대이다.

【넓이】 60만 372km²

【인구】 64만 8,000명(1971년 9월)
주민의 절대다수가 아프리카인이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가베로네스 (주민 2만 7,065명)

【민족회의】 일원제의 립법기관, 임기는 5년, 총의석 36석중 31석은 주민들이 선거하며 4석은 민족회의 의원들이 선거한다. 1969년의 선거 결과 민주당이 24석, 인민당이 3석, 민족전선이 3석, 독립당이 1석을 각각 차지하고있다.

【대통령】 국가 및 정부수반으로서 행정 및 립법권을 가지고있다. 세레즈 크하마 (1965년 9월—)

【정부】 총리 세레즈 크하마, 외교부장 마시시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1960년에 창건,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프리카인들의 민족주의정당, **민주당** (집권당) 1962년에 창건, 영식민주의자들을 지지하며 추장들의 리익을 대표, **독립당** 1964년 인민당에서 갈라져 나와 창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적발전을 요구하여 투쟁, **민족전선**, **로조대회**.

정 치 1885년에 영국식민지로 되였다. 1910년 《남아련방》에 편입되여 케이프타운주로 되였다.

1965년 3월부터 《내부자치제》를 실시하였다.

1966년 9월 30일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고 베추아날랜드로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보쯔와나공화국으로 고쳤다.

인종격리정책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있으며 남로데시아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는것을 단호히 거절하고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축산업이다. 축산물은 국민소득의 75%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140여만마리), 양(33만여마리), 염소(86만마리) 등인데 대부분 외국독점체들과 추장들이 가지고있다.

부침땅은 약 800만정보에 달하나 거의 농사를 지을수 없고 북부지방과 동부지방의 약간의 땅에서만 농사를 짓는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수수, 콩 등이다. 식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지하자원은 돌솜, 망간, 동, 금강석, 니켈, 연, 철, 금 등이 있는데 전부 제국주의독점체들의 손아귀에 들어있다.

1971—1975년도 5개년발전계획기간에 균형적인 국가예산을 이룩하며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며 취업률을 높일것을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금강석, 동 및 니켈광산지의 개발과 관련한 광업발전에 큰 힘을 넣고있다.

로동력의 4분의 1은 남아프리카에서 노예로동을 하고있다.

철도는 남아프리카와 짐바브웨를 련결하는 철길의 일부가 이 나라의 동북부국경선을 통과 (650km)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 가죽, 고기가공제품, 돌솜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직물, 기계류, 원유제품 등이다.

초급학교 280개(8만 2천명), 중학교 10개(3천명), 교원대학 2개가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마사(인민당기관지), 데일리뉴스, 쿠툴와노 푸오 파(민족전선기관지), 테리사니오(민주당기관지).

느 그 와 네

(느그와네왕국)

남아프리카공화국령토안의 북동쪽에 있다. 지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계단식으로 낮아지고있다. 서부는 1천~2천m의 울창한 산림과 초원으로 뒤덮여있으며 동부로 가면서 300m까지 낮아진다. 기후는 메마른 아열대기후에 속한다. 년평균기온은 2월에 23°C, 7월에 12~15°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500~1천 400mm이다.

【넓이】 1만 7,363km²

【인구】 42만명(1971년)

주민의 85%가 스워지족이며 그외 줄루족(14%), 구라파인(1%)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와 스와힐리어

【수도】 음바바네 (주민 1만 4,000명)

【국왕】 국왕이 국가원수이며 국왕이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왕모가 대신한다. 국왕 사브후자 2세

【립법의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12명중 왕이 6명을 임명하고 하원에서 6명을 선거한다. 하원은 24명중 왕이 6명을 임명한다. 인보코드워민족운동당이 상하량원의석을 독차지하고있다.

【정부】 총리 마코쉬니 들라미니(1970년 5월—)

【정당, 사회단체】 인보코드워민족운동당(집권당) 1964년에 창건, 당수 사브후자 2세, 진보당, 해방운동당, 통일전선, 범아프리카단결대회.

정 치 1834년부터 영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았으며 1906년에는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62년 2월 음바바네에서 영국의 세 《보호령》(느그와네, 레소토, 보쯔와나)의 민족주의정당들이 통일전선인 범아프리카대회(느그와네진보당, 바수톨랜드대회당, 보쯔와나인민당이 망라)를 결성하고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한 공동투쟁을 벌렸다.

1967년 4월 《내부자치권》을 쟁취하였으며 1968년 9월 6일에는 영련방내의 립헌왕국으로 독립하였다. 그리고 스워질랜드라고 부르던 나라이름을 느그와네로 고쳤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부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경제명맥은 영국과 남아프리카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경지면적의 절반이상에 달하는 비옥한 땅과 집짐승의 대부분은 인구의 1.5%밖에 안되는 백인농장주들과 남아프리카독점체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 사탕수수 오렌지, 땅콩, 감자 등이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돌솜, 철, 금, 은 등이다. 자본주의세계에서 4대돌솜산지의 하나로서 해마다 3만톤의 돌솜을 캐내고있다.

농산물 및 수산물가공공장과 몇개의 합판공장이 있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길이 운수의 기본으로 되고 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제재소를 건설하고 이 나라목재를 략탈해가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돌솜(총수출액의 3분의 2)과 사탕수수이며 그밖에 집짐승, 털가죽, 가죽, 목재, 담배, 목화 등이다.

원주민들의 20%가 백인들의 농장에서 힘겨운 삯일을 하고있으며 로동자들도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흑인광부들의 로임은 백인광부들의 로임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살길을 찾아 남아프리카의 금광으로 품팔이를 떠난다.

약 350여개의 소학교가 있는데 그중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는 38개, 나머지는 백인의 소유로 되고있다.

글모르는 사람이 주민의 80%나 된다.

원주민들의 40%는 원시종교를 믿으며 나머지는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음비키(정부기관지), 타임스오브 스워질랜드.

방송 느그와네방송.

남 아 프 리 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남쪽끝에 있다.

세면이 높은 산줄기로 둘러싸여있고 내륙은 분지와 고원으로 되여있다.

기후는 대부분지역이 건조한 열대기후이며 남위 30° 이남지역은 아열대기후, 동부해안지대는 누기찬 열대해양성기후이다.

7월평균기온은 서부지방에서 12°C, 동부지방에서는 18°C이고 1월평균기온은 같은 지방들에서 각각 15°~21°C, 24°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내륙지방이 600mm, 서해안지방은 60~70mm이다.

【넓이】 122만 3,409km²

【인구】 2,128만 2,000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은 원주민인 반투족이며 백인이 약 378만명있는데 주로 영국인, 화란인, 독일인, 유태인 등이다. 그밖에 200만명의 혼혈인과 61만명의 아세아인(그 대부분은 인도인)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나 원주민은 반투어를 쓴다.

【수도】 프레토리아(주민 55만명, 1970년)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54명(그중 11명은 대통령이 임명), 하원은 166명으로 구성되는데 백인만이 참가할수 있다. 1970년 하원선거결과 국민당이 118석, 통일당이 47석, 진보당이 1석을 차지하였다.

【대통령】 푸체(1968년—)

【정부】 총리 존 보스터(1966년—), 외교부장 퓰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7월에 창건, 1950년에 《공산주의진압법》에 의하여 해산되였다가 1960년에 다시 조직되여 지하에서 활동, 아프리카민족대회 1912년 1월에 결성,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꾸바, 알제리, 아련, 잠비아, 탄자니아 등에 대표부를 두고있다. 위원장 올리베르 탐보, 민족주의자대회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는 백인정당, 국민당 (집권당) 화란계백인들의 리익을 대표하여 1913년에 조직된 가장 반동적이며 인종주의적정당이다. 통일당 영국계백인들의 리익을 대표, 진보당, 자유당, 남아프리카인도인대

회, 유색인주민대회, 로조대회 인종주의정권을 반대하는 유일한 로조련합체.

정 치 1652년에 화란의 식민지로 되였다.

1814년에 케이프타운과 케프주를 강점한 영식민주의자들이 1820년부터 이 나라에 백인들을 대대적으로 이주시켜 화란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였다.

1910년 5월에 케프주와 다른 수개의 강점지역을 병합하여 《남아련방》을 조작하고 그를 영국의 한개 《자치령》으로 만들었다.

제2차세계대전후 영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 인민들의 앙양된 민족해방투쟁에 부딪쳐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더는 유지할수 없게 되자 1948년에 식민지통치의 변종인 백인인종주의정권을 조작하였다. 1960년 10월 《국민투표》를 날조하여 1961년 5월에 남아련방을 공화국으로 선포하였다.

1955년에는 영제국주의자들과 《방위조약》을 맺었다.

보스터도당은 침략적인 나토국가들에 군사기지를 제공하였으며 모잠비끄와 앙골라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이 나라 인민들을 반대하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침략전쟁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아프리카 침략을 위한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교두보로 전락되였다.

백인인종주의정권은 제놈들의 반동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행증법》, 《파괴활동금지법》 등 100여종의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하고 파쑈폭압기구들을 대대적으로 늘여 온 나라를 테로와 폭압이 살판치는 《인종주의감옥》으로 전변시켰다.

또한 원주민흑인들을 사람이 살지못할 불모의 땅에로 추방하고 그들의 초보적권리도 빼앗고있으며 삶의 권리와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1950년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학살만행에 참가하였다.

1973년 1월 9일 남로데시아 스미스도당이 잠비아와의 국경을 봉쇄하는 도발행동을 감행하여 나섰을 때에도 보스터인종주의도당은 즉시 남로데시아에 수많은 자기 침략군대를 파견하여 그에 적극 가담하였다.

남아프리카인민들은 백인정권의 인종차별정책과 인종격리정책을 반대하며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1959년 6월부터 수개월간 두루반시에서 수만명 로동자들과 학생들이 시위투쟁을 벌렸으며 1960년 3월 21일에는 트란스발의 샤프빌에서 1만 2천명의 근로자들이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강력한 시위투쟁을 벌렸다.

인종주의자들은 시위자들을 류혈적으로 탄압하여 순식간에 피바다를 이루었다(이것을 샤프빌사건이라 한다). 이러한 학살만행을 계기로 아프리카인들의 투쟁은 더욱 세차게 일어났다. 3월 28일 요한네스부르그근방에서만도 도합 35만명이 폭동에 참가하였으며 케이프타운과 그 주변일대의 공업도시에서는 로동자들의 95%가 작업을 중지하였다. 샤프빌사건후 1961년 2월까지만도 놈들은 1만 1천 200여명의 아프리카인들을 체포투옥하였다. 1961년 5월에는 요한네스부르그, 엘리자베스항 등 주요도시들과 각 지방들에서 이 나라 력사상 류례없는 대파업을 일으켰다. 그후 각곳에서 인종주의정권을 반대하는 애국적인민들의 무장투쟁이 벌어졌다.

1972년 6월에는 케이프타운, 요한네스부르그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인종격리정책, 반동적교육정책 등을 반대한 강력한 시위와 파업 등을 벌려 인종주의정권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을 없애치울데 대한 아프리카인민들과 전세계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1972년 11월 1일 유엔총회특별정치위원회에서는 남아프리카에 대한 유엔의 무기판매금지령을 전세계적으로 준수하며 모든 분야에서 남아프리카와의 관계를 끊을데 대한 국제적깜빠니야를 벌릴것을 호소하는 결의가 채택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채광업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원료공급지로서 주로 채광업에 치우치고있다.

소수백인들이 토지면적의 87.5%, 국민소득의 73.3%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밀, 목화, 담배, 사탕수수 등이다. 농업생산액은 국민소득의 약 15%를 차지한다. 해마다 강냉이는 약 470만t, 밀은 120만t정도 생산된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주요지하자원으로는 금, 백금, 금강석, 우라니움, 바나디움, 돌솜, 망간, 크롬, 석탄, 쇠돌, 동, 등이다.

금, 백금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 총생산량의 약 50%를, 금강석생산량은 60~70%를 차지한다. 돌솜과 바나디움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2위, 우라니움은 제3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자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292개의 미제독점회사들과 490여개의 영국독점회사, 300개의 서독회사들이 남아프리카에 자기의 지부들과 자매회사들을 설치하고 이 나라의 경제의 대부분을 틀어쥐고있다.

이 나라에 대한 투자액은 미제가 10억딸라, 영국이 15억파운드(영국의 직접적해외투자의 9~10%)에 달하며 미제독점회사들의 순리윤은 투자액의 19%에 달하고있다. 금은 약 960, 금강석은 700만카라트, 망간광은 290만t정도 생산된다. 1970년 공업총생산액은 아프리카대륙총공업생산의 5분의 2를 차지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도 이 나라의 전략원료를 수입하고 각종 군수물자들을 제공하고있다.

보스터도당의 인종격리정책에 의하여 나라의 주인인 아프리카인들은 공민권도 없는 무권리상태에 있으며 아프리카인 거주지역에서 살며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특히 광업부문에서 일하는 흑인로동자들의 임금은 백인로동자들의 임금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아프리카인들은 백인과의 결혼, 국제체육경기의 참가 등이 금지되고있으며 일체 사회정치생활에서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고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프리카인 학생들의 수는 전체중학생수의 1%도 못되며 아프리카인대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0.05%밖에 안된다. 겨우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도 학교에서 혹심한 인종차별을 당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남아프리카통신.

신문 인꿀루레끄(공산당기관지), 트란스바러 (정부계), 아거스(무소속), 케이프 타임스(무소속).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9월 남아프리카민족대회 총비서 알프레드 느조를 단장으로하는 민족대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6월에 진행된 사로청제6차대회에 남아프리카전국대회청년대표가 참가하였다.

레 소 토

(레소토왕국)

아프리카의 남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둘러싸여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고원이다. 평균기온은 1월에 25~26°C,

7월에 15°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750~1천mm이다.

【넓이】 3만 355km²

【인구】 93만명(1971년 9월)

주민은 바수로족(80%)과 줄루족(20%)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며 반투어와 줄루어도 쓴다.

【수도】 마세루(주민 1만 4,000명)

【국왕】 모쉐슈 2세, 헌법에 의하여 국가수반으로 되고있다. 국왕과 국회가 립법권을 가지고있다. 현국왕은 1970년 국회선거에서 야당의 편에 섰다고하여 탄압받아 4월에 해외로 떠났다가 1970년 12월에 귀국하여 다시 왕의 자리에 앉았다.

【국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22명의 추장들과 왕이 임명하는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하원(국민총회)은 5년기한으로 선거되는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총리 레부아 죠나탄 (1965년 4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62년 5월 5일 창건, 1970년 1월 27일 국회선거에 처음으로 참가, 그후 비상사태 선포로 비법화, 총비서 케나. **대회당** 1952년에 창건, 《아프리카인화》를 주장하며 종족차별반대, 토지개혁의 실시를 요구하고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의 정치, 경제적 해방을 주장하고있다. 위원장 모크헬레 플리난드. **민족당**(집권당) 관리들과 부르죠아지들, 기독교도의 리익을 대변. **마레마틀로우자유당** 국왕 모쉐슈2세의 지지자들의 정당, **로조대회**.

정 치

레소토는 19세기전반기 남아프리카나라들에 침입한 구라파 식민주의자들의 예속과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레소토 고원으로 피난하여온 피난민들이 세운 나라이다.

1843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바수톨랜드의 최고추장 모쉐슈를 강박하여 《보호통치》를 접수케하고 1868년에는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1878—1881년에 바수톨랜드인민들은 영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인민봉기를 벌렸으며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위한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1959년 9월에 《내부자치》를 얻었다. 1965년 4월 선거에서 민족당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다수표를 얻어 집권당으로 되였다.

1966년 5월 《영련방》내에서 독립하고 10월 4일 바수톨랜드라고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레소로왕국으로 고쳤다.

독립후 미영제국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부추김을 받은 죠나탄도당은 1966년 12월 28일 무고한 애국자 170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967년 1월 3일 무장한 인민들이 정부의 탄압책동을 반대하여 북부레소토에 있는 레리베시 경찰서를 공격하였다.

1970년 1월 27일 독립후 처음으로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총의석 60석중 대회당이 36석을 차지함으로써 집권당인 민족당을 타승하였다.

이렇게 되자 죠나탄은 미영제국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사촉밑에 1월 30일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비상사태》와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선거를 《무효》로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또한 바수톨랜드대회당 지도자들을 체포구금하였다.

1967년 5월 죠나탄도당은 레소토에 피신해오는 남아프리카애국자들을 체포하여 보스터도당에게 넘겨줄데 대한 《인도협정》을 맺었으며 70여명의 남아프리카애국자들을 보스터도당에게 넘겨주었다.

경제, 사회

경제는 양털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목축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양(150만마리), 염소(80여만마리), 소(37만마리) 등을 기르고있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하며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경지면적은 령토의 10%에 불과하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수수, 밀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쇠돌, 돌솜, 석탄, 금강석 등이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있다. 가공공업은 거의 없다.

화물은 산악의 오솔길을 따라 등짐으로 운반된다.

유일한 철길은 남아프리카의 브룸폰테인—두르만간선으로부터 마세루로 통하는 지선이다.

해마다 20여만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웃나라로 떠난다.

주요수출품은 양털, 가죽, 집짐승, 밀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직물, 농기구, 금속제품 등이다.

대외무역에서 수입초과로 계속 적자를 내고있다.

국가예산에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2배나 된다.

문맹률이 대단히 높고 보건시설도 적다.

【출판보도】 **신문** 레소로 타임스(관영, 레소토어와 영어로 발간), 느케루(바수톨랜드민족당기관지), 모예레트시 오아 바소토모할라바니.
방송 레소로방송.

말 가 슈

(말가슈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동남쪽 인도양에 있는 말가슈섬과 그 주변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말가슈섬의 중부와 동부는 높은 고원(1,000~1,500m)지대이며 서쪽과 남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져 벌을 이룬다. 섬의 대부분은 열대에 놓여있으며 다만 남쪽끝이 온대에 놓여있다.

따나나리브의 년평균기온은 2월에 20°C, 7월에 13°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천 400mm이다.

【넓이】 59만 6,000km²

【인구】 750만명(1972년)

주민구성이 복잡하며 메룬족(말라이인종)이 제일 많다.

공용어는 말가슈어와 프랑스어

【수도】 따나나리브 (주민 34만 2,400명)

【의회】 상하량원제

【대통령】 가브리엘 라마난로소아 (1972년 10월—)

【정부】 1972년 5월 27일 구성, 정부수반 가브리엘 라마난르소아(국방부장 겸임), 외교부장 디디에 라찌라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제1비서 앙드레 앙자 러네 앙셀므, **사회민주당** 프랑스와의 《협조》를 주장하여 창건된 정당, **독립대회당** 1958년에 독립을 요구하여 투쟁한 5개의 진보적정당을 망라하여 창건, 위원장 리샤르 안드리아만자뚜, **사회주의동맹** 1972년 10월에 창건, 현정권을 지지, **민족당, 통일당, 근로자로조련맹, 민주청년동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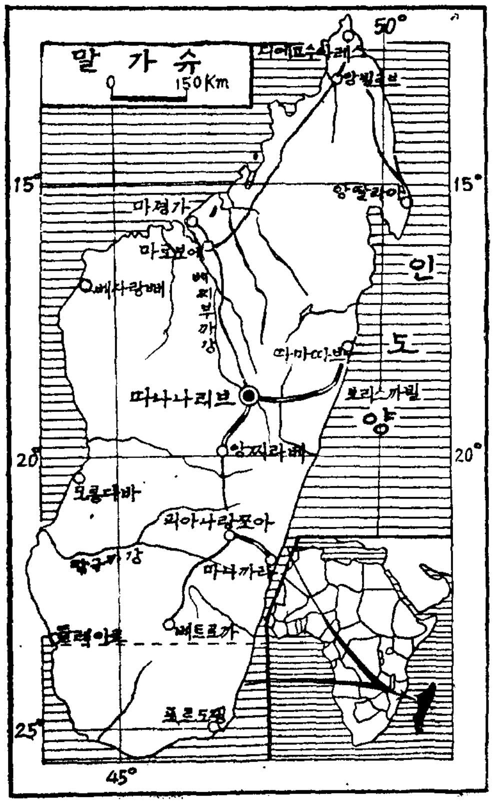
정 치

1896년 8월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말가슈인민들은 식민지통치의 전기간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제2차세계대전후 민족해방투쟁이 더욱 앙양되였으며 1946년 첫 진보적대중정치조직인 《말가슈부흥민주운동》이 창건되였다.

1947년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통치를 반대하여 일어난 무장폭동을 계기로 말가슈—프랑스전쟁(1947—1948)이 일어났다.

1958년 10월 14일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60년 6월 26일《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독립후 총선거를 날조하여 대통령자리에 틀어앉은 치라나나는 프랑스와 국방, 외교, 재정,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예속적인 협정을 맺고 4만명의 프랑스 침략군을 주둔시켰다. 또한 아프리카나라들의 일치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백인인종주의자들에 대한 영제국주의자들의 살인무기 공급을 지지하여 나섰으며 1970년 11월에는 남아프리카와 처음으로되는 《경제협정》을 맺었다.

【주요사건】 1972년 4월 21일 청년학생들이 식민지통치시기로부터 내려오던 반동적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것을 요구하여 동맹휴학을 시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반동당국은 일부교육기관을 페쇄하고 대학생협회를 해산하였으며 5월 13일 새벽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약 400명의 대학생 열성자들을 체포투옥하였다.

이에 격분한 청년학생들은 대대적인 반정부폭동으로 넘어갔다. 투쟁에는 로동자, 사무원, 시민들이 시위, 파업 등으로 합세하였다.

15일 폭동자들은 치라나나의 사임을 요구하는 프랑카드를 들고 대통령관저로 밀려가 체포된 대학생들의 즉시 석방과 청년학생들에 대한 경찰들의 탄압을 중지하며 교육체계를 개편할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날 시위투쟁에는 로조의 호소에 따라 수도의 모든 기관, 기업소 로동자, 사무원들과 주변시민들까지 망라됨으로써 근 10만에 달하는 인민들이 참가하였다.

16일 치라나나정부는 체포된 학생들을 석방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18일에는 정부를 해산하고 나라의 모든 권력을 새정부를 구성하게 될 군참모총장 라마난트소아장군에게 넘긴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정권을 넘겨받은 라마난트소아는 생활필수품의 가격한계를 규정하며 외환통제 및 정부관리들이 누리던 특전을 제한하는 등 인민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비상긴축조치들을 발표하였으며 로조지도자들이 제기한 군사정부는 일시적인것으로 되며 로동자, 학생들이 참가하는 국회 혹은 제헌의회의 소집과 일체 정치범들을 석방할것 등의 6개항목의 요구조건을 수락하였다. 또한 라마난트소아는 프랑스가 1년에 문화및기술적 원조로 2천만 딸라를 제공할것을 규정하고있는 협정은 페기되여야한다고 하였다.

9월 4일부터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야당인 독립대회당은 치라나나의 사임과 말가슈주재 모든 외교대표부들의 페쇄를 요구하였으며 공화국의 안전군을 해산하고 프랑스와 맺은 모든 협정들을 수정할것을 호소하였다.

이와 같이 인민들과 야당의 강력한 투쟁으로 치라나나는 대통령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라마난트소아장군이 유일한 민족통일정부 수반으로 되였다.

10월 8일 국민투표에서 라마난트소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그는 취임연설에서 《나라의 경제를 복구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민족적통일을 강화하며 아프리카통일기구성원국들인 아프리카국가들과의 전면적협조를 실현하며 그리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이 정부의 기본과업이라고 말하였다.

10월 13일 새 정부는 4월말부터 페쇄했던·각급 학교들의 개교날자를 10월 23일로 결정하였다.

라마난트소아는 집권후 이해 10월 2일에 쏘련, 11월 6일에 중국, 12월 18일에 월남, 12월 26일에 기네와 각각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라마난트소아는 집권후 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며 남아프리카백인인종주의정권과의 래왕을 끊었으며 월남인민의 투쟁과 아랍인민의 투쟁에 동정을 표시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다.

부침땅은 약 300만ha로서 령토의 약 5%에 해당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와닐라(향료의 일종), 담배, 사이잘삼, 벼, 마니오크, 감자, 바나나, 사탕수수 등이다. 와닐라생산은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커피는 이 나라 수출총액의 40%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흑연, 돌비늘, 린회석, 금, 베릴리움, 크롬등이다. 흑연채굴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4위를 차지한다.

철길의 연장길이는 864km이다.

주요항구는 따마따브, 마쥼가 등이다.

원시종교와 기독교를 믿는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1월 1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 11월 외교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말가슈정부대표단이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공식 방문하였다. 11월15일 대표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2년 9월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27차회의에서 유엔의 간판을 리용하여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의 음흉한 책동을 물리치고 조선문제토의를 연기하자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결의안에 반대함으로써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였다.

까 나 리 아

(에스빠냐식민지)

아프리카의 서북쪽(마로끄의 서남부)에서 115km 떨어진 대서양에 있는 1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대서양교통의 요충지이다.

기후는 네계절이 구분된다.

【넓이】 7,273km²

【인구】 100만명

주민은 대부분이 베르베르족태생인 까나리아족이고 그외에 에스빠냐인, 인도인, 독일인 등이 있다.

언어는 에스빠냐어

【행정중심지】 산따 끄루스 데 떼네리페(주민 13만 5,000명)

【정당, 사회단체】 까나리아섬민족자

결독립운동 1960년에 조직된 까나리아자치운동에 기초하여 1964년 10월 22일에 결성된 투쟁조직, 알제에 대표부를 두고있다. 총비서 안또니오 꾸빌로, **까나리아조선친선협회** 1971년 4월 26일 결성.

정 치 1516년에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

까나리아섬민족자결독립운동의 지도밑에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경 제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다. 밀, 보리, 바나나, 옥파, 사탕수수, 포도, 감자, 귤 등을 심는다.

공업으로는 원유정제공장, 세멘트공장, 화학공장, 수산물가공공장이 있다.

미제의 석유독점회사가 급유탕크를 건설하고 많은 리윤을 짜내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물고기통졸임, 남새, 담배 등이며 수입품은 연료와 직물 등이다.

쎈트 헬레나

(영국식민지)

아프리카의 앙골라 서해안으로부터 서쪽으로 1천 920km 떨어진 대서양에 있는 화산섬이다.

열대에 속하나 산이 많고 천바람이 더위를 약화시켜줌으로써 기후는 비교적 서늘하다. 년평균기온은 최고 29°C, 최저 14°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고원지대에서 825.5mm, 해안지대에서 203.2mm이다.

이 섬은 남아프리카로부터 서아프리카 앞바다를 거쳐서 구라파에 이르는 항로의 기항지, 중계지로 되고있다.

【넓이】 122km²

【인구】 4,760명

대부분이 영어를 쓴다.

【행정중심지】 제임스타운(주민 1,700명)

정 치 1673년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대전후 침략적군사기지를 설치하고 해군함대의 기지로 리용하고있다.

1956년 6월 1일부터 《내부자치제》가 실시되고있다. 영국총독이 형식상 《내부자치제》에 기초하여 수립된 《립법회의》와 《행정평의회》를 통하여 통치하고 있다. 《립법회의》와 《행정평의회》 의장직은 총독이 겸하고있다.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 그리고 이 섬에 정박하는 선박들의 봉사사업에 종사한다.

경제의 기본은 아마재배이며 기타 남새, 파실 등도 심는다.

주요집짐승은 소와 양이다.

공업으로는 몇개의 아마가공공장과 레스공장이있다.

아마(총수출의 85% 차지)를 수출하고 식량과 공업제품을 수입한다. 무역에서 수출입은 영국이 독점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소학교 8개와 중학교 4개가 있다.

【출판보도】 신문 뉴스레뷰(주간지). **방송** 쎈트 헬레나방송.

산토메 프린시페

(뽀르뚜갈식민지)

아프리카의 서부 기네만에 있는 화산섬이다. 강수량이 많고 따뜻하다.

【넓이】 964km²(산토메섬 836km²)

【인구】 6만 6,000명(1970년)

주민은 반투족(90%), 메티스족(8%)이다. 인구의 88%는 산토메섬에서 산다.

【행정중심지】 산토메(주민 8,000명)

【정당】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위원회 민족적독립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 현재 비법화, 총비서 토마스 메데이로스, **민족인민행동** (집권당).

정 치 1485년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51년에는 《해외주》로 되였다.

산토메섬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정치범》의 류형지로 되고있다.

산토메에는 뽀르뚜갈의 공군기지와 해군기지가 있다.

이 나라 인민들은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위원회의 령도밑에 민족해방투쟁을 진행하고있다.

뽀르뚜갈총독이 형식상의 립법 및 행정기구를 두고 통치하고있다.

경제, 사회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코프라 등이다. 코프라는 1년에 1천 300~1천 500t 생산된다.

땅의 대부분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차지하고있다.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부침땅은 1인당 0.17ha에 불과하다.

수산업도 하고있다. 년간어획고는 770t정도이다.

집짐승으로서는 말, 노새, 당나귀(320마리), 소(3천 100마리), 양(2천 300마리), 염소(1천마리) 등이 있다.

이 나라에는 2개의 작은 제분소가 있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수출총액의 70%), 커피, 코프라, 종려유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과 섬유제품 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문맹자이다. 소학교 43개, 중학교 1개, 기술학교 1개가 있는데 가난한 원주민자녀들은 거의 나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볼레팀 오피시알(주간지), 아 보즈 데 산토메 (주간지).

방송 산토메 프린시페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위원회 성원들로 조직된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로청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세 이 쉘

(영국식민지)

인도양남서부에 있는 92개섬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64개이며 가장 큰 마에섬(145km²)에 총 인구의 80%가 살고있다. 큰섬들은 결정암석으로 구성되였으며 작은 섬들 가운데는 산호섬들도 있다.

해양성아적도기후이다. 년평균기온은 약 26°C, 년평균강수량은 2천 402mm이다.

【넓이】 404km²

【인구】 5만 5,000명(1971년)

주민은 반투족, 인도인, 구라파인 등이다.

【행정중심지】 빅토리아(주민 1만 4,200명)

【정당】 세이쉘제도인민통일당, 민족적독립을 주장한다. 위원장 레네.

1794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70년 3월부터 새 《헌법》에 따라 《내부자치제》가 수립되였다. 형식상 《립법회의》와 《행정평의회》라는것이 있기는 하나 영국총독이 실권을 쥐고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과 농업을 한다.

주요 농산물은 야자, 커피, 향료, 겨자, 목화, 담배등이다.

모리셔스

(모리셔스공화국)

아프리카의 동남쪽 인도양에 있는 말가슈로부터 동쪽으로 800km 떨어져 있는 화산섬이다. 모리셔스, 로드리게스, 까르가도스—까라호스, 아갈레그, 아르히뻴라그 챠고스섬으로 이루어졌다.

아열대성기후이다. 열대태풍이 심하다. 가장 더운 2월평균기온은 26°C, 가장 추운 때는 평균 20°C이다. 12월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린다. 년평균강수량은 중부고원지대에서 3천 500mm, 기타 지역에서는 1천 500～2천 500mm이다.

【넓이】 2,045km²

【인구】 82만명(1971년 9월)

주민은 인도인과 파키스탄인이 67% 크레올(혼혈인), 구라파인이 30%, 중국인이 3%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

【수도】 포트루이스(주민 15만명)

【국민회의】 최고립법기관, 70명의 의원들로 구성, 레이버당이 32석, 사회민주당 14석, 회교행동위원회 6석, 민주동맹이 10석 차지.

【정부】 1969년 11월 헌법을 수정하고 이해 12월에 민족통일정부 (레이버당, 사회민주당, 회교행동위원회의 련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총리 시우사구르 람굴람(1967년—), 외무, 관광 및 이민부장 챨스 개탄 두발.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위원장 엘챤드라문, **레이버당**(집권당) 1936년에 창건, 이른바《자유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주장, 인도인출신의 사람들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사회민주당**(집권당) 남아프리카와 아프리카나라들 사이의 《대화》를 지지, **회교행동위원회** 파키스탄인출신의 회교도들에 의거하는 종교단체, **민주동맹** 1970년 11월 사회민주당에서 갈라져나와 조직, **해방전선**, **공산주의청년동맹**,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 1968년 9월 9일 결성, 위원장 엘. 챤드라문.

정 치

1715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이 섬을 강점하고 아프리카원주민들을 노예로 실어왔으며 인도인, 파키스탄인, 중국인들을 끌어왔다.

1810년 영—프전쟁에서 프랑스가 패전한 후 160여년간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다.

1967년 8월 12일 내부자치제가 실시되였으며 1968년 3월 12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인종적대립이 심하여 1965년, 1968년에 류혈적인 인종폭동이 일어났다.

대외정책에서는 《사회제도와 사상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과의 공존과 협조》의 원칙을 견지한다고 선포하였다.

1972년 11월 16일 48대 11로 의회에서 비상사태를 6개월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경제적불안때문에 1월에 선포하였던 비상사태를 6월에 이미 6개월간 연장하였는데 12월 20일 그 기한이 만료된다.

1972년 4월 모리셔스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였다.

1972년 4월 15일 중국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사탕수수 생산이다. 사탕수수 재배면적은 전체 경작지의 90%를 차지하고있으며 화폐수입의 대부분이 사탕수출에서 나온다. 1971—1972년도에 65만t이상의 사탕을 생산하여 아프리카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하였다. 22개의 프랑스—모리셔스합영회사가 사탕생산의 60%를 장악하고있다.

식량은 수요의 10분의 1도 생산못하며 매년 오스트랄리아 등에서 10여만t의 쌀을 수입한다.

담배, 차, 커피, 향료도 약간 재배한다. 차는 년산 3천t정도 생산된다.

공업은 거의 없고 《레노》회사에 속한 4대의 사탕공장과 목재가공공장, 선박건조및수리공장이 있다. 석유탐사가 진행되고있다.

자동차운수가 기본으로 되고있다. 1천 323km의 자동차도로와 총연장 43km의 철길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사탕과 차이며 수입품은 식량과 운수수단 기타 공업제품이다. 사탕생산량의 80%이상을 영국과 카나다에 특혜관세로 수출하고있다.

100여개의 초등및중등학교와 1개의 대학이 있다.

구라파인과 크레올은 기독교, 인도인은 주로 힌두교, 나머지는 회교, 불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액숀(영어, 프랑스어), 어드반스 (영어, 프랑스어로 발간), 로브.

【방송】 모리셔스방송, 모리셔스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9월 9일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으며 1971년 1월에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모리셔스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10월 4일 우리 나라와 령사관계를, 1973년 3월 16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하여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 성원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으며 로므니아에서 공부하는 모리셔스학생들이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1년 모리셔스에 《김일성동지도서관》이 개관되였다. 이도서관에는 각국어로 된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수많이 전시되여있다.

1971년 1월 포트루이스에서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성과를 축하하는 사진전람회를 가졌다.

신문《로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라는 표제밑에 화첩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전체 내용을 30회에 걸쳐 련재하였으며 그이의 혁명투쟁력사를 수록한 《김일성전》을 소개하였다.

레유니옹

(프랑스식민지)

아프리카의 남동쪽 인도양에 있는 말가슈로부터 동쪽으로 780km떨어진 마스카렌제도에 있는 원추형의 화산섬이다. 열대해양성기후이며 장마철(11～4월)과 가물철(5～10월)로 나누어진다. 년평균 기온은 20°C, 년평균강수량은 약 4천mm이다.

【넓이】 2,510km²

【인구】 45만명(1970년)

주민의 4분의 3이 구라파계인이며 그밖에 인도인, 말가슈인들이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행정중심지】 쌍드니 (주민 8만 9,000명)

【의회】 해외령의회로서 1971년 3월 선거에 의하여 36명으로 구성되여있으나 실권은 없다. 프랑스국민의회에서 3석을, 참의원에서 2석을 차지하고있다.

【정당】 **공산당** 프랑스공산당 지부로 있다가 1959년 5월부터 독자적인 정당으로 되였다. 의회에서 2석을 차지하고있다. 총비서 뽈 베르제스.

정 치 1643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793년부터 레유니옹(이전에는 부르봉이라고 부름)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1810년부터 영국식민지로, 1815년에는 다시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46년 3월 19일에는 프랑스의 《해외주》로 되였다.

프랑스정부가 보내는 지사가 통치하며 지사는 레유니옹의 최고집권자이다. 형식상 의회는 있으나 실권은 없다.

이 나라는 프랑스의 국민의회에서 3석을, 참의원에서 2석을 차지한다.

경제, 사회 사탕생산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마니오크, 커피, 담배, 벼, 감자, 콩, 땅콩 등이다.

공업으로는 사탕생산을 주로 하는 소규모적인 농산물가공공장이 있다.

프랑스독점체들이 경제전반을 틀어쥐고있다.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섬둘레를 따라 고리처럼 놓여져있으며 내륙지방과 몇군데 련결되여있을뿐이다.

사탕과 알곡이 수출총액의 90%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쌀, 비료, 방직제품, 사탕공업설비, 연료 등이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매우 낮다. 60%가 문맹자이다. 사탕수수가을이 끝나면 년중 7~8개월동안은 계절적인 실업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인구의 20%가 결핵환자이다.

주민은 85%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떼무아나쥐(공산당기관지), 쥬르날 느 질 드 라 레유니옹, 라 데모끄라씨, 레 꾸리에 듀 뻬뿔.

방송 레유니옹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기간에 공산당 총비서 뽈 베르제스를 단장으로 하는 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꼬 모 르

(프랑스식민지)

아프리카와 말가슈 사이의 인도양에 있는 6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습도가 높고 년평균기온은 23°C이다.

【넓이】 2,171km²

【인구】 29만명(1970년)

주민은 안딸라우또라족, 말가슈족, 인도족 등이다.

아랍어를 쓴다.

【행정중심지】 모로니(주민 1만 1,500명)

【정부】 1973년 1월 7일 민주동맹과 인민민주회의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총리 아흐메드 아브달라흐

【정당】 **민주동맹**(집권당), **인민민주회의**(집권당), **꼬모르민족해방운동**

1963년에 창건된 진보적정당으로서 이 나라에서의 반식민주의투쟁을 지도하고있다. 1964년부터 비법화.

1912년 프랑스식민지로 되였다.

1957년에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이 섬을 제놈들의 《해외령》으로 선포하였다.

1961년 12월 민족적 독립을 위한 이 나라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내부자치권을 얻었다.

1972년 12월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이나라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못이겨 《자치정부》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프랑스국회 상원의 꼬모르대표로 파견되여있은 아흐메드 아브달라흐가 《자치정부》총리로 선거되였다.

프랑스고등판무관이 재정, 국방, 외교 등의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있다.

주민들은 주로 양을 기르며 야자, 와닐라(향료의 일종), 코코아, 바나나 등을 재배한다.

회교를 믿는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꼬모르민족해방운동청년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구 라 파 주

쏘 련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구라파의 동부와 아세아의 중부 및 북부에 있다. 동서간의 거리는 1만km, 남북간의 거리는 4천500km로서 지구륙지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한다. 12개 나라와 접해있는데 그중 7개는 사회주의나라이다. 벌이 전령토의 60%, 산지가 20%이며 나머지는 사막 및 반사막, 진펄로 되여있다.

기후는 매우 다양하다. 북부는 한대(16%), 중부는 온대(80%), 남부는 아열대(4%)에 속한다.

까스삐해는 세계에서 가장 큰(넓이 37만 1,000km²)함수호이며 바이깔호(깊이 1,741m)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구조호이다.

【넓이】 2,240만 2,200km²

【인구】 2억 4,860만명(1973년 1월 1일)

로씨야족(53%), 우크라이나족(20%), 백로씨야족 등 100여개의 민족과 소수민족이 있다.

국어는 로어

【수도】 모스크바(주민 706만 1,000명, 1971년)

【최고쏘베트】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련맹쏘베트와 민족쏘베트로 구성되여있다. 임기는 각각 4년, 련맹쏘베트는 전련맹적으로 쏘련인민의 공동의 리익을 대표하며 민족쏘베트는 각 민족의 리익을 대표한다.

최고쏘베트는 제8기로서 1970년 7월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엔. 웨. 뽀드고르느이(1966년 8월—)

【정부】 총리 아. 엔. 꼬씌긴(1966년 8월—), 외교부장 아. 아. 그로믜꼬, 국방부장 아. 아. 그레치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03년 7월 30일에 창건.

총비서 엘. 이. 브레쥬네브.

직업동맹, **전련맹레닌공산청년동맹**, **녀성위원회**, **쏘조친선협회** 1958년 7월 6일결성, 위원장 엔. 엔. 따라쏘브

정치 10월혁명전 로씨야는 군사봉건적농노적제관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자본주의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락후한 제국주의국가였다.

1917년 11월 7일 레닌의 령도밑에 로씨야로동계급은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을 수행함으로써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로운 형태의 쏘베트사회주의국가를 창건하였다.

쏘련인민은 1918—1921년에 청소한 쏘베트국가를 압살하려던 14개 제국주의무력간섭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준동을 승리적으로 물리치고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였다.

1922년 12월 30일 제1차전련맹쏘베트대회에서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이 형성되였다.

1925년 12월 제14차당대회에서는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제시하였다.

1927년 12월 제15차당대회에서는 농촌의 집단화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방침은 1929—1934년기간에 성과적으로 완수되였다.

1936년 12월 5일 전련맹쏘베트 제8차비상대회에서 쏘련헌법이 채택되였다.

1941—1945년의 제2차세계대전에서 쏘련인민은 파쑈독일과 일제를 격파하고 쏘베트조국을 수호하였다.

혁명후부터 1970년까지 8차에 걸치는 5개년인민경제계획(1959—1965년간의 7개년계획포함)을 수행함으로써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주요사건】 1972년 2월 22일 공산당중앙위원회는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창건 선돐준비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결정서는 다민족국가인 쏘베트련맹을 창건함에 있어서 웨. 이. 레닌이 논 위대한 공헌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련맹창건 선돐기념일을 보람있게 맞이하며 1972년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경쟁을 광범히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3월 10일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은 벌목로동자들의 주택조건과 그들에 대한 상업 및 생활편의봉사를 더욱 개선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5월 19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는데 전원회의에서는 《국제정세에 대하여》를 청취로의하고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5월 31일과 6월 13일에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는 쏘련과 서독간의 조약, 쏘련과 이라크사이의 우호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각각 비준하였다. 6월과 7월 30일에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은 청년들의 전반적중등교육제에로의 이행을 완성하며 일반교육사업을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한 결정과 고등교육사업을 더 한층 완성시킬것을 예견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8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각 및 직업동맹 중앙평의회는 9월 1일부터 교원들과 의사들 및 교양원들의 로임을 높일데 대한 결정, 농업생산에 과학성과를 도입하기 위한 결정을 각각 채택하였다.

11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은 배합사료공업부문의 사업을 개선할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2월 18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쏘베트에서 심의될 1973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초안과 1973년도 국가예산안을 토의하고 토의된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2월 21일과 22일에 걸쳐 쏘련형성 선돐을 기념하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최고쏘베트 및 로련최고쏘베트의 합동경축회의가 진행되였다.

1972년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미국대통령 닉슨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엘. 이. 브레쥬네브,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엔. 웨. 뽀드고르느이, 내각총리 아. 엔. 꼬씌긴과 미국대통령 닉슨이 쏘미관계의 기본문제들 및 현국제정세에 관한 회담들을 진행하고 29일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공동콤뮤니케에 의하면 쌍방간에 《쏘련과 미국간의 호상관계의 기본원칙들》이라는 문건이 채택되였으며 반로케트방위체계의 제안에 관한 조약, 전략적공격무기의 제안과 관련된 일정한 조치들에 관한 잠정협정, 쏘련과 미국의 함선 및 비행기들간의 공해에서와 그 상공에서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에 관한 협정, 과학및기술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보건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또한 인간의 환경을 개선하는데서 협조할데 관한 계획에 착수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1972년에 아랍추장국(1월), 나제르(2월), 리베리아(6월)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발전된 공업국가이다. 세계공업생산의 20%를 차지한다.

1972년에 공업총생산액은 6.5%늘어났으며 국민소득은 4%, 대외무역은 9% 늘어났다.

공업의 70%이상을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연료동력공업 등 중공업이 차지한다.

연료동력공업의 주요원천은 석탄, 원유, 천연가스, 유모혈암, 니탄, 수력자원 등이다.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석탄이다. 주요탄전은 도네쯔탄전(매장량 2천 400억t), 꾸즈네쯔탄전(8천억t), 까라간다탄전(600억t) 모스크바탄전, 뻬쵸라탄전 등이다. 원유는 바꾸를 비롯하여 자깝까즈지역의 유전들과 우랄 및 볼가강 지역에서 많이 난다.

동력구성에서 수력의 비중이 높아지고있다. 드네쁘르발전소, 레닌명칭볼가발전소, 브라쯔크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이 건설되였다. 1954년 6월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5천kw능력의 원자력발전소가 조업하였다. 1972년에 전력은 8천 500억kwH, 석탄은 6억 5천만t, 원유는 4억 400만t 생산하였다

금속공업은 공업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발전하였다.

주요흑색공업지구는 도네쯔탄전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구, 우랄지구(꾸즈네쯔탄전, 동씨비리) 등이다. 주요유색금속공업지구는 우랄(구리, 알루미니움, 니켈 기타), 레닌그라드주, 우크라이나남부지대 등이다. 1972년에 1억 2천 600만t의 강철을 생산하였다.

기계공업은 동력기계, 운수기계, 농기계, 공작기계 및 각종설비 등을 생산하고있다. 동력기계공업의 중심지는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하리꼬브, 리가 등이며 운수기계제작중심지는 모스크바, 뜨빌리씨, 하리꼬브 등이다. 자동차공업의 중심지는 모스크바, 야로슬라블리, 고리끼, 민스크 등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최신식로케트, 초음속비행기, 원자쇄빙선을 제조하였다.

화학공업은 린회석, 돌소금, 칼리움, 망초, 류황, 류화철, 크롬,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화학공업원료들과 부산물에 기초하고있다. 화학공업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비료, 합성고무, 각종수지, 인조섬유 생산이다. 질소비료, 카리비료, 린비료 생산은 세계적지위를 차지하고있다. 1972년에 광물질비료는 9천 610만t 생산되였다.

경공업에서는 섬유공업과 식료품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섬유공업은 목화, 아마, 삼, 양털, 고치와 돌솜 등 자연섬유와 화학섬유에 기초하고있다. 방직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면직물생산의 중심지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공업지구와 레닌그라드, 자깝까즈, 서부씨비리 일대이다.

식료공업에서는 제분과 기름제조, 빵, 사탕, 술, 통졸임, 고기와 물고기가공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쏘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토지자원을 가지고있다. 농업용토지는 전령토의 3분의 1(15억ha)이며 그 가운데서 36%가 부침땅이고 기타는 목초재배지, 방목지이다. 순 열대작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작물이 다 재배된다. 농업에서는 알곡생산이 기본이며 부침땅의 절반이상에 밀을 심는다. 주요알곡작물은 밀, 강냉이, 보리, 호밀, 귀밀 등이다. 밀총생산량의 4분의 3은 동부지역이 담당하고있다. 1972년에 알곡은 1억 6천 800만t 생산하였다. 주요공예작물은 목화, 아마, 삼, 사탕무우, 해바라기, 담배, 차 등이다. 목화는 중앙아세아, 까자흐쓰딴남부지방에서 대부분 생산되는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량은 쏘련목화총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한다. 1972년에 목화는 730만t 생산되였다.

주요집짐승은 소, 돼지, 양, 염소 등이다.

어업도 중요한 경제부문의 하나이다. 물고기생산량은 세계에서 세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세계에서 산림자원이 가장 많다. 산림면적은 7억 4천 700만ha이며 년목재생산량은 3억 7천 420만m^3(1971년)에 달한다.

교통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운수이며 그 총연장길이는 13만 4천 600km이다. 하천운수도 많이 하고있다. 하천운수의 50%는 볼가강이 담당한다. 항공운수도 국내 및 국제 교통수단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72년에 220여만세대의 주택이 새로 건설되였다.

1972년에 800여개의 대학과 4천여개의 중등기술학교, 19만여개의 초등학교에서 8천 100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였다.

1972년에 우주공간의 연구를 위해 《꼬쓰모쓰—471》호로부터 《꼬쓰모쓰—539》호, 《루나—20》호, 행성간자동정류소 《웨네라—8호》 등을 쏴올렸으며 태평양상으로 운반로케트를 발사하였다. 2월 26일 4시 12분(조선시간으로)에 《루나—2》호의 귀환기구가 달암석표본을 가지고 지구로 돌아왔으며 7월 22일 18시 29분에 《웨네라—8》호가 금성표면에 도착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따쓰, 아. 뻬. 엔 **신문** 쁘라우다(공산당기관지), 이즈베쓰찌야(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꼼쏘몰쓰까야 쁘라우다(레닌공청기관지), 뜨루드(직맹기관지), 크라쓰나야 즈베즈다(국방부기관지), **잡지** 꼼무니스트(공산당리론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2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49년 3월 17일 경제 및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1955년 2월 5일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60년에는 상업 및 항해 조약, 1961년 7월 6일에는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70년 9월 15일에는 경제 및 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1년 4월 11일에는 두 나라 과학원사이에 1971—1973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계획서가 조인되였다.

1972년 6월 평양에서 조쏘정부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8차회의가 진행되였다.

1972년 4월 14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수령님께 레닌훈장을 수여함에 관한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였다.

1972년에 《쁘라우다》 1월 18일호와 6월 3일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요미우리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과 미국《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를 실었으며 《크라스노예 즈나먀》 1월 19일호도 일본《요미우리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실었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7월 20일 모스크바의 쁘레쓰웰쓰끼기계제작공장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가지고 련대성결의문을 채택하였다. 7월 24일 모스크바의 다이야공장에서는 친선야회를 진행하였다.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까자흐쓰딴의 알마아따시와 유리 가가린명칭 피복공장에서 련대성집회를 가졌다. 또한 쏘련국가미술박물관에서는 우리 나라 미술전람회를 진행하였다.

1972년에 쏘련정부군사대표단(4월), 공산당대표단(9월), 조쏘정부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8차회의에 참가할 쏘련측대표단(6월), 외교부 제1극동부 부장과 국제기구부 부부장(6월), 직맹대표단(9, 11월), 농업로동자및사무원직맹대표단, 지식협회대표단, 쏘조친선농장대표단(10월), 쏘조친선협회 회원들(8월), 영화인동맹대표단(12월), 작가대표단, 따쓰통신사대표단(6월), 과학원경제학자대표단(1월), 조쏘어업공동위원회 제3차회의에 참가할 쏘련측대표단(10월), 림업대표단(11월), 국립모스크바합창단(6월), 조선방문 쏘련《친선》가무단(12월), 라뜨비야 리가시 라지오쩨호니크 남자배구선수단(5월), 모스크바활쏘기선수단(6월), 까자흐쓰딴 까이라트 축구선수단(9월), 군대체조선수단(11월), 군대배구선수단, 청년종합권투선수단(12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정부군사대표단(4월 24일), 조쏘정부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8차회의에 참가할 쏘련측대표단(6월 23일), 공산당대표단(9월 5일)은 방문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이해에 우리 나라로부터는 당 및 국가대표단, 직맹대표단, 녀맹대표단, 조쏘친선협회대표단(12월), 유술선수단(1월), 기자대표단, 직맹대표단 (3월), 남자체조선수단(4월), 건축가동맹대표단, 조선소년지도일군대표단, 활공기선수단(5월), 공업기술총련맹대표단, 영화인동맹대표단(6월), 전기설비전람회전학대표단(7월), 조쏘친선공장대표단, 직맹대표단, 미술전람회대표단(8월), 조쏘친선협회대표단, 은행대표단(9월), 사로청출판사기자대표단, 김책공업대학자동화공학교원대표단(10월), 음악가동맹대표단, 평양시인민위원회대표단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뽈 스 까

(뽈스까인민공화국)

구라파의 동북쪽에 있다.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민주독일과 접하고있으며 북쪽은 발찍해에 면하고있다. 령토의 92%는 평지대(평균높이 173m)이고 남쪽에 까르빠찌야산맥과 쑤데트산맥이 있다.

기후는 동구라파대륙성기후와 서구라파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아 변화가 심하나 대체로 따뜻하다. 년평균기온은 4~9°C, 년평균강우량은 500~700mm이다.

【넓이】 31만 2,677km²

【인구】 3,320만명(1973년 1월 1일)

주민은 서슬라브족의 뽈스까인이다.

국어는 서슬라브어에 속하는 뽈스까어

【수도】 와르샤와(주민 130만명, 1973년 1월)

【쎄임】 최고주권기관, 대의원수는 460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쎄임은 제6기로서 1972년 3월 19일에 선거되였다. 쎄임휴회기간의 최고주권기관은 국가쏘베트이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헨리끄 야브원쓰끼(1972년 3월 28일—)

【정부】 총리 뾰뜨르 야로쉐비치(1970년 12월 —), 외교부장 스떼판 올숍쓰끼, 민족보위부장 보이쩨흐 야루젤스끼

【정당, 사회단체】 **통일로동당** 전신은 1918년 12월 16일에 창건된 공산당이다. 1942년 1월 4일에 창건된 로동당이 1948년 12월 15일 사회당과 합당하여 통일로동당으로 되였다.

제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

통일농민당, 민주당, 인민통일전선, 직업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농촌청년동맹, 녀성동맹

정치 10세기말에 봉건왕국을 형성하였다. 12세기에 개별적공국으로 분렬되였으나 14세기경에 통일이 회복되였다. 18세기말엽에는 짜리로씨야, 프로씨야, 오지리 등에 분할되여 약 130년간 이 나라들의 예속하에 있었다.

1918년 11월 7일 부르죠아민족국가로 독립하였다.

1939년 9월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

쏘련군대와 뽈스까 제1군의 진격으로 나라의 일부가 해방되자 1944년 7월 21일 루블린에서 첫 인민정권의 집행기관으로서 《뽈스까민족해방위원회》가 창설되였다. 이 위원회는 7월 22일 《7월선언》을 발표하였다(뽈스까인민들은 이날을 재생의 날로 기념한다.)

1944년 12월 31일 《뽈스까민족해방위원회》는 림시정부로 개편되였다.

1947년 1월 19일 총선거에 의하여 공산당과 사회당(좌익)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정권이 수립되였다. 1952년 7월 헌법을 발표하였다.

인민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 토지개혁(1944년 9월), 산업국유화(1946년 1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들을 실시하였다.

인민경제복구 3개년계획(1947—1949)과 6개년계획(1950—1955년)의 수행결과 락후한 농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였다.

1970년 12월 7일 서독과 오데르—나이쎄국경을 확정하는 협정에 조인하였다.

1970년 12월 12일 정부에서 식료품과 일련의 일용필수품소매가격을 올릴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데 뒤이어 12월 14일부터 여러 도시들에서 로동자, 학생들의 파업과 시위가 벌어져 나라에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이러한 사태는 사회주의원쑤들의 준동에 의하여 더욱 복잡하여졌다. 12월 7일 뽈스까 내각은 포고문을 발표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1971년 2월 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12월사변에 대한 평가와 당의 당면과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조직문제를 토의하고 통일로동당 제1비서를 비롯한 정치국위원들을 교체하였다.

【주요사건】 1972년 3월 19일 제16기 쎄임선거가 진행되였다. 등록된 유권자의 97.94%가 선거에 참가하였으며 그중 99.53%가 찬성투표하였다.

3월 28일 쎄임 제6기 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국가쏘베트위원장으로 헨리끄 야브원쓰끼가 선거되였으며 내각총리로 뾰뜨르 야로쉐비치가 다시 임명되였다.

4월 27일 쎄임 제6기 3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971—1975년도 사회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관한 법안과 기타 일련의 문제를 토의하였다.

5월 26일 국가쏘베트는 1970년 12월 7일 와르샤와에서 조인된 호상관계정상화의 기초에 관한 뽈스까—서독간의 조약을 비준하였다.

6월 7일부터 2일간 진행된 쎄임회의에서는 1971—1975년 사회경제발전 5개년계획초안을 토의하고 이 법안을 채택하였다.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청년사업문제를 토의하고 이 문제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쎄임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973년도 인민경제계획초안과 예산안을 토의하고 이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뽈스까의 서남지역에서 보병, 땅크, 포 및 로케트들의 전투사격과 작전비행활동과 관련한 뽈스까와 쏘련 군부대들의 합동전술훈련이 진행되였다.

1972년에 까메룬(3월 20일), 가이아

나(7월 16일), 서독(9월 14일), 타이(11월 17일), 광고(12월 22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은 석탄(력청탄), 갈탄, 니탄, 천연가스, 동, 류황, 돌소금, 아연 등이다.

공업에서는 연료동력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 금속공업, 건재공업 등 중공업이 발전하고있다.

연료동력공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석탄채굴업이다. 석탄채굴은 세계에서 제5위를 차지한다. 가장 큰 석탄생산기지는 이 나라 석탄총생산량의 91%를 생산하는 상부실레지아탄전과 하부실레지아의 발브쥐호탄전이다.

전력공업은 대부분이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에 의거하고있기때문에 많은 발전소들이 실레지아탄전지역에 배치되여있다.

흑색금속공업의 배치도 석탄생산지에 거의 집중되여있다.

화학공업에서는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암모니아, 질소비료, 합성섬유생산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자동차, 뜨락또르, 중형공작기계, 선박, 야금설비, 정밀공학기구를 비롯한 각종기계들과 설비들을 생산하고있다. 중심지는 상부실레지아지구와 브로쯜라브, 와르샤와, 뽀즈난 등이다.

방직공업부문에서는 면직, 모직, 아마직 생산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중심지는 로지시인데 여기에는 이 나라 방직 및 섬유 공업의 약 절반이 배치되여있다. 1972년에 로지시에서 해마다 200만m의 천을 생산할수 있는 새방직공장이 건설되였으며 벨로쓰또건재종합공장이 새로 조업하였다.

1971년에 석탄(콕스탄)은 1천 680만t, 전력은 699억kwh, 원유는 1천만t 생산하였다. 1972년에 78척의 배가 건조되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기계화, 토지개량 및 집약화에 큰 힘을 넣고있다. 부침땅은 1천 500만ha이상으로서 전령토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쌀보리, 보리, 귀밀, 감자, 사탕무우 등인데 쌀보리는 감자와 함께 이 나라의 2대작물의 하나로서 부침땅의 넓이와 수확량에 있어서 구라파에서도 손꼽힌다.

축산업에서는 소(60여만마리이상)를 많이 기른다.

1972년에 농업생산액은 8.1% 늘어났는데 그중 농산은 7%, 축산업은 9.5% 늘었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철도운수, 해상운수, 하천운수가 큰 의의를 가진다. 철길은 남부지방에 조밀하게 뻗어있다. 철길의 6분의 1이 전기화되였다.

1967년부터 8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다.

1971—1972학년도에 88개의 대학에서 34만 6천여명이 공부하였다.

1971년말 의사수는 5만 1천 186명, 침대수는 20만대이상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빠쁘

신문 뜨리부나 류드(통일로동당기관지), 그워스 뻐라쯰(직맹기관지), 발까 므워드흐 (사회주의청년동맹기관지) 조우네즈 볼노스찌(인민군기관지), 즤제 와르샤븨, 젠니크 류도븨, 뜨이고드니크 꿀뚜라르느이

잡지 노웨드로기(통일로동당잡지), 즤제 빠르띠(통일로동당생활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6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2년 6월 2일에는 무역협정을, 1956년 5월 11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1957년 4월 17일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1년 3월 26일 우리 나라 정부와 뽈스까정부사이의 1971—1975년 장기무역협정을 맺었다.

1972년 12월 14일 와르샤와에서 두 나라정부사이의 1973년도 상품교류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2년 10월 4일 두 나라정부사이에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를 창설할데 대한 협정이, 10월 9일에는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1차회의 의정서와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과학기술협조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의정서가 각각 조인되였다.

1971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잡지《제쉬뜨이떼오레띠츠노—뽈리띠츠네》 제6호는《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실었다. 신문《뽈리찌까》1972년 2월 5일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실었다.

1972년 2월 16일 오뜨보쯔크군에서 청년학생들이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기념집회를 가졌다.

7월 28일 조국해방전쟁승리 열아홉돐에 즈음하여 류블린도에 있는 뽈스까인민군의 한부대지휘부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군인집회를 진행하였다.

9월 13일 와르샤와에서 공화국창건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문화예술부와 중앙영화관리국 및 중앙영화보급사의 주최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를 진행하였다.

10월 12일 고스떠니꼬군에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조선의 날》을 설정하고 친선모임을 가졌다.

1972년에 뽈스까정부군사대표단(4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4월 24일 대표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이외 철도체육협회 탁구선수단(8월), 오뜨뽀쯔크군친선대표단(9월), 조선친선모델농업협동조합대표단(11월), 력사교원대표단(12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로부터는 정부대표단(2월, 9월), 최고인민회의대표단(7월), 정부통상대표단(11월), 뽈스까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청소년유술경기대회에 참가할 청소년유술선수단(11월), 뽈스까에서 열리는 국제광업대회 조직위원회 제31차회의에 참가할 조선공업기술총련맹 광업협회대표단(12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체스꼬와 슬로벤스꼬의 두지역으로 이루어졌으며 구라파의 중심부에 있다. 국토의 60%가 해발 300～700m의 대지와 낮은 산지대로 되여있다. 땅생김새로 보아 체스꼬고원(서부)과 까르빠띠산지(동부), 남부슬로벤스꼬평원으로 나눈다.

기후는 대서양의 영향을 받는 대륙성기후이다.

평균기온은 여름에 17°C, 겨울에 령하 3°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450～1천 500mm이다.

【넓이】 12만 7,870km²

【인구】 1,454만명(1973년 3월)

주민의 대부분은 체스꼬인(65%)과 슬로벤스꼬인(29%)이며 그외 웽그리아인, 독일인, 뽈스까인, 우크라이나인 등이 있다.

국어는 체스꼬어와 슬로벤스꼬어

【수도】 쁘라하(주민 107만 8,000명)

【련방회의】 인민의원과 민족의원의 량원제, 임기는 4년, 의장 알로이스 인드라

【대통령】 루드위끄 스워보다(1968년

3월—)

【련방정부】 총리 루보미르 슈뜨로우갈(1970년 1월—). 외교부장 보후슬라브 호노베끄, 민족보위부장 마르띤 드주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5월 14일에 창건, 1948년 6월 사회민주당과 합당하였다.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

인민당, 사회당, 슬로벤스끄부흥당, 민족전선, 혁명직맹운동, 사회주의청년동맹, 녀성리사회.

정치 기원 7세기에 첫 왕국이 건립되였다.

11세기전반기에 오늘의 슬로벤스끄지역이 웽그리아에 병합되고 체스꼬는 1620년에 오지리에 병합되였다.

1918년 10월 28일 독립하여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정권은 부르죠아지들이 장악하고있었다. 1938년 9월 30일 반동정부가 《뮨헨협정》의 참가국들앞에 굴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중요한 서부국경지대의 쑤제트지방이 독일에 병합당하였다.

1939년 3월 파쑈독일의 침공을 받았다.

히틀러도배들은 체스꼬와 모라비아지역을 강점하고《보호통치》제도를 세우는 한편 슬로벤스꼬지역을 떼내여 이른바《슬로벤스꼬국가》라는것을 만들어냈다.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들은 국내외에서 반파쑈민족해방투쟁을 치렬히 벌렸다. 1944년 8월 29일 슬로벤스꼬인민들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전국적인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1945년 5월 9일 히틀러 파시즘의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1945년 7월 민족전선정부가 수립되였다. 1946년 5월에는 제1차민족회의 선거를 실시하고 새련합정부를 수립하였다.

1948년 2월 25일 공산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은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전복하려고 시도한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반혁명적음모를 짓부셔버렸다. 2월사변후 정부는 산업, 은행, 상업 부문의 국유화를 실시하였으며 토지개혁을 완수하였다.

1960년 7월 11일 민족회의는 새헌법을 채택하고 나라이름을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으로 고쳤다.

1968년에 체스꼬슬로벤스꼬의 반당반혁명분자들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공모결탁하여 당의 령도적역할과 중앙집권제를 거부하며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부인하면서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8월 21일 이 나라 당 및 국가활동가들의 요청을 받고 와르샤와조약참가국(쏘련, 벌가리아, 웽그리아, 민주독일, 뽈스까)군대들이 들어가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고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1969년 1월 련방정부가 구성되였으며 또한 체스꼬와 슬로벤스꼬 정부가 각각 구성되였다.

1971년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14차당대회가 진행되였다.

【주요사건】 1972년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경제분야에서 14차당대회결정을 가일층 구현할데 대한 문제, 직맹운동에 관한 일련의 문제들과 직맹의 기본과업 등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14차당대회이후시기에 있어서 농업과 식료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한 공산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보고를 청취하고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혁명직맹운동 제8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중앙평의회보고를 토의하고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련방회의 량원합동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971년도 국가예산집행을 승인하였으며 기타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사회주의청년동맹 제1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사회주의청년동맹과 이 동맹 소년단조직의 활동과 금후과업에 관한 동맹중앙위원회의 보고, 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검사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토의하고 이 보고를 찬동하였으며 일련의 문건들을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새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10월 련방회의 합동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련방회의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결과를 토의하고 그에 찬동을 표시하였다.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4차당대회이후 당사업의 주요과업들에 대하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당사상사업에 관한 공산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의 보고를 승인하였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련방회의 량원합동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이후 기간에 련방회의 상임위원회가 한 사업과 나라의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을 토의하고 승인하였으며 일련의 법안들을 토의하고 채택하였다.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련방회의 량원합동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정부의 정강, 성명 실행에 관한 보고와 1973년도 국가예산에 관한 법령 등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2년에 감비아(2월), 리베리아(10월)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사회주의공업국가이다. 공업 및 농업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거의 90%에 달하며 전체 로동인구의 43%이상이 공업부문에서 일하고있다.

공업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부문은 기계, 흑색금속, 연료동력 공업이다.

기계공업은 이 나라 경제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금속절삭기계, 기관차, 자동차, 뜨락또르, 발동기와 각종기계설비들을 생산하고있다.

연료동력공업은 석탄자원에 기초하고있다. 동력자원가운데서 석탄이 85~90% 차지한다.

이 나라의 갈탄은 열량(5천카로리내외)이 높기때문에 화력발전과 화학공업원료로 리용된다.

화학공업에서는 유기화학공업이 기본이다. 인조섬유, 인조고무, 소다, 류산, 화학비료 생산이 위주이다.

경공업에서는 방직공업과 구두생산이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구두는 년간 1억컬레이상 생산되는데 구두공업의 70%이상은 고트왈도브시에 집중되여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사탕무우, 강냉이, 호프, 아마 등이다. 1970년에 밀은 317만 8천t 생산되였다.

부침땅의 넓이는 약 530만ha로서 전령토의 42%에 달한다.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주로 젖소), 말, 양, 돼지, 가금류 등이다.

1971년에 비하여 1972년에 공업총생산은 6.4%, 국민소득은 약 5.9% 늘어났다.

1972년 한해동안에 11만 4천 500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였다.

수출총액에서 약 50%는 기계 및 설비가 차지하며 수입총액의 약 50%는 원료수입이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기계 및 설비, 도자기,

유리제품, 사탕, 경공업제품(직물, 구두) 등이다.

주요수입품은 씨물, 유색금속광물, 화학공업원료, 원유제품, 목화 등이다.

1966년 7월부터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1972년말현재 슬로벤스꼬에서만도 5만여명의 보건일군들이 일하고있었다.

【출판보도】 통신 체떼까

신문 루데 쁘라보(공산당기관지), 쁘라쩨(혁명직맹운동기관지), 쁠라다 프론따(사회주의청년동맹기관지)

잡지 노바 믜쓸(공산당리론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21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4년 12월 21일에는 경제 및 기술 협조를 위한 협정, 1956년 6월 23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2년 11월 24일 두 나라사이에 1973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요미우리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공산당기관지《루데 쁘라보》 1972년 1월 18일호가 실었으며 《스워보드네 슬로보》 6월 3일호는 미국《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를 실었다.

공화국창건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공산당기관지《루데 쁘라보》 9월 8일호는 《조선인민의 명절》이라는 제목의 기념론설을 실었다. 이날 《쁘라쩨》도 기념론설을 실었다.

또한 이날에 즈음하여 쁘라하에서는 불멸의 기념비적명작 천연색광폭예술영화《꽃파는 처녀》에 대한 감상모임을 진행하였다.

1972년에 체스꼬슬로벤스꼬정부군사대표단(4월), 외교부유엔담당부장(6월), 련방회의대표단(9월), 녀성리사회대표단(10월), 방송대표단(12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체스꼬슬로벤스꼬 정부군사대표단(4월 24일), 련방의회대표단(9월 15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정부대표단(4월), 직총대표단(6월), 사로청대표단(9월), 공업기술총련맹대표단(6월), 로동자신문사대표단(10월), 정부통상대표단(11월), 까를로비 바리에서 진행되는 제18차국제영화축전에 참가할 영화대표단(7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웽그리아

(웽그리아인민공화국)

구라파동쪽에 있는 내륙국가로서 체스꼬슬로벤스꼬, 오지리, 유고슬라비아, 로므니아, 쏘련 등과 잇닿아있다. 두나이강의 중류에 위치하고있으며 땅생김은 비교적 단순하다. 평토의 5분의 4이상이 벌과 높지 않은 언덕으로 되여있으며 나머지는 낮은 산들로 이루어지고있다.

기후는 비교적 따뜻하고 메마른 대륙성기후이다. 년평균기온은 10∼11°C이다. 가장 추운때인 1월평균기온은 −1.7∼−3.8°C, 가장 더운 7월평균기온은 20∼23.5°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600mm이다.

【넓이】 9만 3,030km²

【인구】 1,041만 5,000명(1973년 1월 1일)

주민의 절대다수가 웽그리아인(마쟈르족)이고 기타 로므니아인, 슬로벤스꼬인, 쎄르비아인, 독일인 등이 살고있다.

국어는 웽그리아어

【수도】 부다뻬슈트(주민 201만명)

【국가회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이다. 현국가회의는 1971년 4월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로숀찌 빨

【정부】 총리 포크 예네(1967년 4월—), 외교부장 뻬떼르 야노쉬, 국방부장 찌네게 라이요쉬

【정당, 사회단체】 사회로동당 1918년 11월 20일에 창건, 전신은 1948년 6월에 공산당(1918년 11월 20일창건)과 사회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된 근로자당이다. 1956년 11월에 당이름을 사회로동당으로 고쳤다.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

애국인민전선, 직업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녀성리사회.

정치 9세기말에 아세아로부터 이주한 마쟈르족이 1001년에 웽그리아국가를 세웠다. 그 후 몽골과 토이기의 침략을 받아 그 예속하에 있다가 1867년에는 오지리에 병합되였다.

제1차세계대전에서 오지리—웽그리아제국이 패망한후 웽그리아는 1918년에 부르죠아공화국으로 선포되였다.

위대한 10월혁명의 영향을 받은 웽그리아의 로동계급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1919년 3월 21일 무장봉기를 일으켜 로동계급의 정권인 쏘베트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음모책동으로 쏘베트공화국은 전복되고 1919년 8월 또다시 파쑈군사독재정권이 수립되였다.

파시스트 호르찌독재정권은 파쑈독일과 야합하여 1939년 3월 체스꼬슬로벤스꼬에 대한 파쑈독일의 강점을 지지하는 한편 쟈까르빠트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였으며 1941년 4월에는 파쑈독일과 함께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하고 일부 지역을 차지했으며 6월에는 쏘련을 침공하는 독일의 침략전쟁에 가담하였다.

1944년 히틀러독일이 웽그리아를 강점하자 웽그리아인민들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이해 3월에 독립민족전선을 형성하고 반쏘전쟁을 하고있는 호르찌파쑈도당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1944년 12월에는 해방된 데브레쩬에서 독립민족전선에 기초한 림시민족정부를 수립하고 대독선전을 포고하였다.

1945년 4월 4일 웽그리아인민들은 히틀러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웽그리아정부는 1946년 3월에 토지개혁을, 1946—1949년간에는 산업국유화를 실시하였다.

1949년 8월 18일 헌법을 채택하고 웽그리아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웽그리아인민들은 1956년 10월 미제의 사촉하에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이 일으킨 반혁명도발책동을 분쇄하고 이해 11월에 로농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1970년 11월에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제10차대회가 진행되였으며 1971년 4월에는 국가회의 및 지방쏘베트대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주요사건】 1972년 3월 15일 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국제문제들에 대한 보고를 토의하였다. 또한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헌법개정의 기본원칙을 심의하였다.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국제문제에 대한 통보를 토의하였으며 인민교육의 현상태와 그 발전에 대한 과업을 토의하였다.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당 제10차대회 결정수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토의하였으며 1973년도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에 대한 지시문을 토의하였다.

최고주권기관인 국가회의도 여러차례 열렸는데 4월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개정된 헌법과 보건사업에 관한 법령

을 채택하였으며 6월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1971년 국가예산집행에 관한 법령과 재판소 및 검찰기관에 관한 법령들을 채택하였다. 또한 10월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농업, 식료공업 및 림업발전에 대한 문제를 토의함과 함께 공화국 최고주권기관의 사업규범을 변경할데 대한 제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12월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1973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법령과 인민경제계획에 관한 법령을 토의하고 채택하였다.

이해 이 나라 인민들은 웽그리아쏘베트공화국 선포 쉰세돐 및 웽그리아공산주의청년동맹 창립 열다섯돐을 기념하여 3월 21일 부다페슈트에서 경축모임을 가진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1972년에 사회로동당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가 쏘련(2월), 체스꼬슬로벤스꼬(7월), 정부총리 포크 예네가 민주웰남(2월), 몽골(7월) 등을 각각 방문하였다.

1972년에 루안다, 챠드 등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으로는 보크사이트, 석탄, 망간, 쇠돌, 천연가스, 원유, 갈탄, 우라니움 등이 있다.

4차 5개년계획의 두번째 해인 1972년에 국민소득은 전해보다 5%, 공업총생산액은 5.6% 늘어났다. 특히 화학공업이 빨리 발전했는데 그것은 12% 늘어났다.

이해 근로자들의 로력투쟁에 의하여 40만t을 생산할수 있는 새로운 보크사이트광산이 개발되였으며 년 100만t의 능력을 가진 베레멘트세멘트공장이 생산을 시작하였다. 또한 국경지대로부터 싸즈할롬바드에 있는 원유가공종합공장을 련결하는 수백키로메터구간의 송유관부설공사가 완성되였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사탕무우, 감자 등이다. 국토의 90%이상이 부침땅, 목장, 과수원, 초원이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57%에 달한다.(1971년현재). 그중 관개면적은 45만ha, 과수면적은 17만 2천ha이다.

1972년에 농업생산은 4% 늘어났다. 이해 밀은 410만t으로서 기록적인 수확을 거두었으며 돼지치기와 기타 농업부문에서 성과들이 있었다.

1972년에 대외무역류통액은 8% 늘어났으며 수입은 3% 줄고 수출은 21% 늘어났다.

근로자들의 1인당실질수입은 3.5% 늘어났다.

1972년에 9만세대의 주택이 건설되였다.

1970년에 의사수는 해방전의 2배로 늘어나 2만 3천명에 달했으며 병원침대수는 8만 4천대였다. 1972년에 부다페슈트시 로동자구역들을 비롯하여 기타 도시들에 현대적인 병원들과 종합진료소들이 많이 일떠섰다. 5개년계획기간에 병원침대수 7천대가 더 늘어날것이 예견되고있다.

1971년에 74개의 대학에서 8만명이, 인민학교, 중학교에서는 200만명이 공부하고있었다.

【출판보도】 **통신** 므띠

신문 네프싸바드 샤그(사회로동당기관지), 네프싸바(직맹기관지), 마쟈르 넴제뜨(애국인민전선기관지).

잡지 따르샤달미 쎄믈레(사회로동당정치리론잡지), 빠르뜨엘레뜨(사회로동당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우리 나라와 1948년 11월 11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56년 6월 20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1년 9월에는 조선—웽그리아정부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가 창설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웽그리아어로 출판하였다.

1972년 4월에 웽그리아정부군사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4월 24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이밖에 1972년에 웽그리아정부통상대표단(11월), 애국전선대표단(10월), 기자대표단(8, 10월), 문화대표단(11월), 작가대표단(7월), 탁구선수단(12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 우리 나라로부터는 정부대표단(2, 9월), 정부통상대표단(8, 11월), 조국전선대표단(4월), 녀맹대표단(9월), 문화대표단(12월), 농업과학원대표단(10월), 조선웽그리아친선협동농장대표단(9월), 남자롱구선수단(3월), 모형항공선수단(6월)이 각각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또한 웽그리아에서 진행된 국제항만 및 어업로동자직맹행정위원회(5월)와 청년교원문제에 관한 국제직맹회의(6월)에 참가하는 직맹대표단, 제38차국제도서관협회 련맹총회에 참가하는 도서관협회대표단(8월), 제36차국제문헌련맹회의에 참가하는 과학기술통보대표단(8월), 사회주의나라 청소년권투경기와 륙상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단들(8월)이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로므니아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구라파의 동남부에 있다. 산지와 언덕지대가 총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기후는 동구라파의 대륙성기후와 중구라파의 해양성기후가 결합되여있는것이 특징이다. 년평균기온은 10°C이나 45°C로부터 령하 35°C까지의 심한 변화를 일으킨다. 년평균강수량은 635mm이다.

【넓이】 23만 7,500km²

【인구】 2,080만명(1973년 1월 1일)

주민의 대부분은 로므니아인(88%)이며 웽그리아인, 독일인 기타 소수민족이 있다.

국어는 로므니아어

【수도】 부꾸레슈띠(주민 152만 6,000명)

【대민족회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4년, 현대민족회의는 제6기로서 1969년 3월에 선거되였다. 대민족회의 상임기관은 국가쏘베트이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니꼴라에 챠우쉐쓰꾸(1969년 3월—)

【정부】 총리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1969년 3월 재선), 외교부장 제오르제 마꼬베쓰꾸, 무력부장 이온 이오니짜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5월 8일에 창건되였으며 1948년 2월 사회민주당과 합당하여 로동당으로 되였고 1965년 7월 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당명칭을 다시 공산당으로 고쳤다.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사회주의통일전선, 직업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녀성리사회,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 1973년 4월 3일 결성, 위원장 니꼴라에 아가끼

정치 19세기초까지 오토만제국의 지배하에 있은 왈라키아와 몰도바의 두 봉건공국으로 나누어져있었다. 1859년 1월에 두 공국을 통합하여 민족국가를 형성하고 나라이름을 로므니아라고 하였다.

1878년 로씨야—토이기전쟁에서 토이기가 패망한후 1881년에 왕국을 선포하였다.

1938년에 군주독재가, 1940년에는 파쑈독재가 수립되였다. 1940년말 히

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

1941년 6월에는 히틀러의 편에 서서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에 참가하였다.

1944년 8월 23일 로므니아인민들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무장봉기를 일으켜 군사파쑈정권을 뒤집어엎고 쏘련군대와 함께 파쑈독일강점자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해방하였다.

1945년 3월 6일 인민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하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였다.

1947년 12월 30일 군주제를 철폐하고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토지개혁(1945년 3월 20일), 산업국유화(1948년 6월 11일)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1948년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섰다.

1948년 2월 공산당은 사회민주당과 합당하여 로동당을 창건하였다. 1950년 12월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경제의 기초건설을 위한 제1차5개년계획(1951—1955)을 승인하였다.

1955년 12월 로동당 제2차대회에서는 사회주의공업의 부단한 발전과 농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과업으로 하는 제2차5개년계획(1956—1960)을 승인하였다. 두 차례의 5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였다.

1960년 6월 로동당 제3차대회에서는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생산관계의 확립을 끝낼것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6개년계획 (1960—1965)을 제시하였다(1962년 3월 전국적으로 농촌경리의 협동화가 완성되였다).

1965년 7월 로동당 제4차대회에서는 당의 이름을 공산당으로 고치고 그대회를 로므니아공산당 제9차대회(해방전 5차대회, 해방후 4차대회)로 부르기로 하였다.

1965년 8월 21일 새헌법을 채택하고 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9년 8월 공산당 제10차대회에서는 5개년계획(1971—1975)과 관련된 지시문과 1976—1980년기간의 인민경제발전방향 등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주요사건】 1972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농업생산협동조합동맹 제2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협동화가 완성된후 지난 10년동안에 농촌경리부문에서 거둔 성과들을 총화하고 금후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을 토의하였다.

4월 12일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1971년도 인민경제발전총화와 1972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토의하였다. 또한 챠우쉐쓰꾸동지의 아프리카 나라 방문결과를 찬동하였으며 일련의 조직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대민족회의 제6기 8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헌법조항들의 개정과 관련한 법안과 대민족회의와 인민쏘베트들의 현임기를 연장할데 관한 법안을 토의하고 이 법안들을 채택하였다. 또한 내각개조문제를 토의하고 내각구성에서의 변경을 승인하였다.

5월 27일에 진행된 국가쏘베트회의에서는 로므니아와 웽그리아사이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 비준되였다.

6월 9일에 진행된 공청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농업현대화정책과 농촌의 전반적발전을 위한 정책집행에 농촌청년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공청이 그들속에서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기타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공산당전국대표자회가 열렸다. 대표자회에서는 《가장 가까운 년간과 전망적기간의 사회경제발전, 사회의 계획적관리의 완성과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발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의 제고, 당 및 국가의 국제활동에 대하여》라는 보고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보고와 공산당 1967년 전국대표자회와 제10차대회결정 집행을 위한 당중앙위원회의 활동을 찬동하는 결정서, 1971—1975년 5개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할데 대한 결정서, 당과 정부의 국제활동과 정책에 대한 결정서, 당의 조직, 정치, 사상 활동을 개선할데 관한 결정서 등 일련의 문건들이 채택되였다. 대표자회는 공산당의 규약개정에 관한 제안을 찬동하였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수를 늘일데 대한 제안을 찬동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였다.

9월 7일부터 8일까지 량일간에 걸쳐 진행된 당 및 경제 지도일군들의 회의에서는 공산당 제10차대회와 전국대표자회에서 채택된 경제, 정치 사업 및 근로자들의 복리증진과 관련한 결정관철에서의 군당위원회들의 활동문제를 심의하였다.

10월 11일 국가쏘베트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일부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며 사업을 조절할데 대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1973년도 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초안과 1974년도 국가예산초안을 토의하고 찬동하였으며 공산당 주당위원회들의 활동과 주인민쏘베트들의 활동을 개선하며 당적 및 국가적 통제를 개선할데 대한 제안과 기타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대민족회의에서는 로동법과 1973년 경제사회발전계획 및 국가예산을 토의채택하였다.

12월 28일 대민족회의에서는 무력부의 기구에 관한 법안과 경제 및 사회활동 중앙검열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에 관한 법안을 심의 채택하였다.

경제, 사회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이다.

주요자원은 원유, 천연가스, 금, 은, 석탄, 소금, 망간, 동, 몰리브덴, 보크사이트, 쇠돌 등이다.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은 구라파에서 제2위이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밀, 보리, 감자, 해바라기, 사탕무우, 포도, 남새 등이다.

공업에서 중요한 부문은 원유채취업과 원유가공업이며 이것은 이 나라 공업의 기초적인 부문으로 되고있다. 원유는 해마다 1천 300만t이상 생산된다. 원유생산중심지는 쁠로예슈띠인데 여기로부터 부꾸레슈띠와 흑해 연안의 꼰스딴짜항까지 송유관이 설치되여있다. 원유가공능력의 약 80%는 쁠로예슈띠와 삐떼쉬띠에 집중되여있다.

천연가스채취를 위주로 하는 연료동력공업이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70년에 250억m³의 가스를 생산하였다. 전력생산의 약 95%는 화력발전에 의거하고있다. 화력발전소들의 35%는 천연가스, 약 4%는 석유, 약 20%는 석탄을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1972년 5월 두나이강 강철문수력발전소가 조업하였다.

화학공업은 공업총생산액중에서 11.6%(1970년)차지한다.

기계제작공업은 국민소득에서 25%(1970년)를 차지하고있으며 기계설비에 대한 수요의 70%를 자체로 충족시키고있다.

흑색금속공업도 발전하고있으나 쇠돌이 적으므로 필요되는 량의 많은 부분을 수입하고있다.

1972년에 공업총생산액은 1971년에 비하여 11.7% 장성하였다. 이해 전력은 433억 8천 700kwH, 석탄은 2천 527만 1천t, 원유는 1천 412만 8천t, 각종 화물자동차 3만 6천 100대, 화학비료 120만t, 합성고무 7만 3천t, 사탕 52만t 생산하였다.

1972년에 336개의 새 공업 및 농업 기

술대상들이 조업하였으며 13만 5천세대의 주택이 건설되였다.

농업에서 기본은 알곡재배를 위주로 하는 농산업이다. 부침땅은 900만ha(1971년)인데 그중 70%가 알곡재배지이다. 관개면적은 1972년말현재 114만 4천ha에 달했다. 씨붙임땅의 34%에는 강냉이, 30%에는 밀을 심는다.

1972년에 알곡총생산량은 1천 670만t, 집짐승마리수는 570만마리이상에 달하였다.

1972년에 국민소득은 전해보다 10%, 주민들의 실질소득은 6.5% 늘어났다. 또한 국가예산에 의한 사회문화사업비 지출은 9.5% 늘어났다.

1972년에 대외무역은 1971년에 비하여 14% 장성하였으며 수출액은 143억 베이로서 13.7% 늘어났다. 수출품은 석유제품, 석유가공설비를 비롯하여 뜨락또르, 기관차, 차량, 화학제품, 선박, 농기계, 전기기계 등이며 수입품은 기계설비, 각종 공업원료, 반제품, 연료, 식료품, 생활필수품 등이다. 110여개 나라와 무역하고있다.

인구의 5분의 1이 각급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 8~9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보건분야에서는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아제르 쁘레쓰

신문 쓰곤떼아(공산당기관지), 로므니아 리베러(국가쏘베트 및 내각기관지), 문까(직맹기관지), 쓰끈떼아 띠네레뚤루이(공청기관지)

잡지 룸따 데 클라써(공산당리론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1월 3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3년 10월 23일에는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1956년 5월 12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 8월 1일에는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971년 11월 2일 민사,가족 및 형사사건들에서 법률상 방조를 서로 줄데대한 조약과 령사협약이 체결되였으며 1972년 9월 21일에는 비준서교환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2년 3월 8일 두 나라정부사이에 1972—1973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5월 30일에는 1972—1975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추가의정서가, 11월 17일에는 1973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7월 15일 두 나라사이에 보건 및 의학과학 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72년에 공산당기관지《쓰끈떼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요미우리신붕》,《마이니찌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실었으며 신문《문까》도 김일성동지께서 《마이니찌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실었다.

공화국창건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공산당기관지《쓰끈떼아》9월 8일호는《인민조선의 큰 명절》이라는 제목의 편집국론설을 실었으며 《로므니아리베러》 9월 9일호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후 24년》이라는 제목의 기념론설을 발표하였다. 신문《문까》, 《아그리꿀뚜라 쏘씨알리쓰뜨》와 잡지《루메아》도 편집국론설을 실었다.

1972년 1월 14일부터 부꾸레슈띠에서《주체의 길을 걸어온 천리마의 나라, 사회주의조선의 농촌》이라는 제목의 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다.

4월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에 즈음하여 중앙군사박물관에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다.

10월 11일부터 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조선청년들의 생활과 활동모습》이라는 제목의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였다.

1971년 6월 9일—15일까지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당및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대표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하고 6월 15일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1972년에 로므니아정부군사대표단(4월), 유엔로므니아상임대표(7월), 전국녀성리사회대표단(7월), 농업과학자대표단(7월), 농업생산협동조합전국련맹대표단(8월), 농업식료공업및수러로동자직맹대표단(9월), 문화대표단(9월), 력사교원대표단(11월), 《쓰끈떼아》기자대표단(10월), 공청기자대표단(6월), 문까신문사대표단(10월), 아제르 쁘레쓰통신사기자(4월), 남북적십자본회담을 취재보도하기 위한 아제르 쁘레쓰통신사 및《쓰끈떼아》베이징주재특파기자, 로므니아군대《쓰떼아와》 청년축구선수단 (11월), 띠미쏘아라《바나뚤》가무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정부군사대표단(4월 24일)과 문화대표단(10월 2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정부대표단(2월) 당국제부대표단(5월), 빙상호케이선수단(10월), 정부통상대표단(11월), 국제리론발표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김일성고급당학교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벌가리아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벌가리아는 발칸반도의 동남부에 있으며 로므니아, 유고슬라비아, 희랍, 토이기 등과 잇닿아있다.

령토의 3분의 2이상이 500m를 넘는 산지이고 나머지는 500m미만의 낮은 언덕과 벌로 되여있으며 전반적으로 보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진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지역은 마리짜강류역저지와 뚠쟈강류역저지로 되여있다.

이 나라 대부분 지역은 따뜻한 대륙성기후이나 남부는 아열대성기후이다. 년평균기온은 12~13°C이며 1월평균기온은 −1~1°C, 7월평균기온은 23~25°C이다. 년강수량은 650mm이다.

【넓이】 11만 912km²

【인구】 860만 3,000명(1973년 1월 1일)

주민의 대부분은 남슬라브족에 속하는 벌가리아인이다. 이밖에 토이기인 마케도니아인 등도 있다. 주민의 3분 1은 도시에서 살고있다. 인구밀도가 가장 조밀한 중앙부의 쏘피아분지, 지미트로브스크분지의 평균밀도는 1km²에 200명이다.

국어는 벌가리아어

【수도】 쏘피아(주민 약 92만 3,800명)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인민회의는 1971년 6월에 선거되였다. 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상설적인 최고주권기관은 인민회의가 선거하는 국가쏘베트이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또도르 쥡꼬브

【정부】 총리 쓰딴꼬 또도로브(1971년 7월—), 외교부장 뻬떠르 믈라데노브, 인민보위부장 도브리 드쥬로브

【정당,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5월 25일에 창건, 전신은 1903년에 창건된 사회민주로동당이다.

제1비서 토도르 쥡꼬브

인민농민동맹, 조국전선, 직업동맹, 지미뜨로브공산주의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정치 벌가리아는 14세기말부터 약 500년동안 토이기봉건왕조의 통치밑에 있었다. 로씨야—토이기전쟁(1877—1878년)에서 토이기가 패배한 후 벌가리아는 토이기기반에서 독립하였다. 그러나 1878년 6월 영국, 독일, 오지리—웽그리아제국 등 침략자들의 간섭으로 세개 지역으로 갈라졌다가 1908년 9월 22일 다시 독립국가로 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과 벌가리아공산당의 지도밑에 1919년에 인민농민동맹 정부가 수립되여 진보적인 개혁들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23년 6월 9일 군사정변에 의하여 립헌군주국이 수립되였다.

1923년부터 제2차세계대전까지 벌가리아는 형식상으로는 립헌군주국이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독일파시스트와 련계된 파쑈독재정권밑에 있었다.

1941년 3월 벌가리아는 히틀러독일의 강점을 허용하였다.

벌가리아공산당은 반파시스트력량을 단합하여 1942년에 조국전선을 창설하고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44년 9월 8일 쏘련군대가 독일침략군을 공격하여 벌가리아에 진출하였을 때 공산당의 령도밑에 조국전선에 단합된 국내민주력량은 인민유격대와 함께 전인민적무장봉기를 일으켜 파쑈군주정부를 뒤집어 엎고 9월 9일 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하였다.

1946년 9월 8일에는 군주제도를 청산할데 대한 전인민적투표를 진행하였으며 9월 15일에는 벌가리아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해방후 벌가리아에서는 1946년 3월에 토지개혁법령을, 1947년 12월에는 산업국유화법령 등을 발포하고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였다.

당제5차대회(1948년)에서는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 사회주의개조, 농촌경리의 협동화와 기계화를 실시하기 위한 첫5개년인민경제계획을 채택하였으며 당 제6차대회(1954년)에서는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2차5개년계획을 채택하였다.

당 제8차대회 (1962년)에서는 벌가리아에서 20개년전망계획을 채택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가일층 완성하는 제4차5개년계획을 채택하였다. 1971년 4월에 진행된 당 제10차대회에서는 당 강령을 새로 채택함과 함께 1971～1975년간의 사회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지시문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1971년 11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6차5개년(1971～1975)계획을 토의하고 12월에 진행된 인민회의에서 채택하였다.

【주요사건】 1972년 2월 20일부터 24일에 열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직맹조직들의 기본활동방향에 대한 문제와 발전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직맹앞에 나서는 과업을 토의하였으며 7월 14일에 소집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비서국에 대한 사업을 토의하고 조직문제(간부들을 해임 및 선거)를 취급하였다.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관한 벌가리아공산당 제10차대회결정을 철저히 집행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이 분야의 구체적인 조치가 밝혀진 결정을 채택하였다.

최고주권기관인 인민회의 회의가 여러차례 열렸는데 4월 26일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부의 활동에 관한 일련의 법안들을 토의하였으며 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을 새로 선거하였다. 12월 18일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1977년도 사회경제발전유일계획과 국가예산에 관한 법안을 토의하였다.

이해 4월에 조국전선 제7차대회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에서의 조직의 역할과 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으며 5월에 진행된 지미뜨로브공산주의청년동맹 제12차대회에서는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테제와 당 제10차대회결정 실행을 위한 동맹의 활동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벌가리아에서는 1972년 6월 지미뜨로브탄생 아흔돐을 의의깊게 기념하였다.

1972년도 벌가리아공산당 총비서이며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토도르 쥡꼬브가 뽈스까(2월), 체스꼬슬로벤스꼬(3월), 로므니아(8월), 쏘련(11월) 등을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으로는 석탄, 쇠돌, 연, 아연, 동, 망간, 은, 금, 원유, 천연가스, 크롬 등이 있다.

벌가리아는 5차에 걸친 5개년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였다. 이 기간에 기계제작공업, 전자공업,화학공업, 전기공업, 금속공업, 원유공업 등 공업부문들이 새로 창설되였다. 1969년에 인민경제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76%이상에 달하였다. 6차 5개년계획의 두번째해인 1972년에 공업총생산액은 전해에 비하여 8.3% 늘었다. 전력은 220억kwh, 석탄은 2천 940만t 생산되였다. 전력생산은 석탄에 의한 화력발전이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이 해 2월 로도프산맥에 건설된 《떼헬》수력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비챠강에 일떠선 《도스빠뜨—떼헬》종합 수력발전시설이 조업하였다. 이러하여 앞으로 이 강류역에 7개의 수력발전소와 6개의 저수지가 건설될것이 예견되고있다. 또한 3만t의 종이생산능력을 가진 새 종이공장이 일떠서 조업하였다.

경공업에서는 방직공업과 식료공업이 기본으로 되고있는데 식료공업은 공업총생산액중에서 27%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벼, 감자, 해바라기, 사탕무우, 목화, 담배, 포도, 과일, 남새 등이다.

특히 벌가리아는 이름난 담배산지이며 향수의 원료로 되는 장미꽃재배가 유명하다.

축산업에서는 가금과 소, 양, 말, 돼지 등을 많이 기른다. 벌가리아에는 10개의 큰 닭공장이 있는데 6차 5개년계획말에 가서는 그것을 1천 817개에 이르게 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부침땅은 약 586만정보이며 관개면적은 그의 21%에 달한다. 산림면적은 약 360만정보로서 령토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1972년 동북부에 《떼챠》라고 불리우는 큰 저수지가 새로 건설되였으며 농산물생산은 1971년에 비하여 4.8% 더 높아졌다.

1972년에 철도 주요간선의 하나인 부르가쓰—까르노바뜨구간의 철도전기화가 진행되였다.

이해 대외무역류통액은 10%, 국민소득은 7% 늘어났다.

1970년에 학생총수는 약 170만명인데 그중 보통교육부문 학생이 29만명, 대학생수는 8만 7천명이였다.

인민정권이 수립된 이래 약 13만명의 교원들과 교수들이 양성되였다.

보건부문도 발전하였다. 1972년도 수도 쏘피아에 전염병연구소, 미생물연구소 등을 비롯한 5개의 보건부문 연구소들이 새로 일떠서 여기에서 1천 500명의 전문가들이 과학연구사업을 하게 된다.

【출판보도】 **통신** 브따

신문 라보뜨니체스꼬젤로(공산당기관지), 오떼체스트벤 프론트 (인민회의 및 조국전선기관지), 뜨루드(직맹기관지), 나로드나 믈라제쥬(공청기관지),나로드나 아르미아(인민군기관지)

잡지 노브 브레메(공산당리론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1월 2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5년 7월 25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1956년에는 무역협정을, 1969년 12월에는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조직에 관한 협정을, 1970년 12월 29일에는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1971년 7월 30일에는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2년 11월초에는 두 나라 정부들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4차회의 의정서와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평양에서 조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벌가리아정부군사대표단(4월 24일), 벌가리아정부대표단(11월 6일)을 만나시였다.

9월에 과학원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직맹대표단(3월) 조국전선대표단(4월), 사로청대표단, 축구선수단(5월), 조선로동당대표단(6월)이 각각 벌가리아를 방문하였다.

알바니아

(알바니아인민공화국)

알바니아는 발칸반도의 서쪽 아드리아해에 면하고있으며 유고슬라비아, 희랍과 잇닿아 있다.

령토의 3분의 1이 해발 1천메터이상되는 높이에 있으며 호수가 150개이상이나 있다. 해안선은 단조로우며 연해가 깊지 않아 큰 배들은 일정한 곳으로만 들어올수 있다.

기후는 지중해성기후에 속한다. 여름은 매우 무덥고 겨울에는 따뜻하면서도 비가 많이 내리며 높은 산지대에는 대륙성기후의 영향으로 눈도 내리며 추위도 심하다. 여름에는 비가 적게 오지만 소낙비가 오는것이 특징이다.

7월 평균기온은 25~26°C이고 1월 평균기온은 6~8°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서남부에서 1천~1천 200mm, 북부에서 2천~2천500mm이다.

【넓이】 2만 8,748km²

【인구】 227만명 (1972년말)

주민의 대부분은 알바니아인이며 그밖에 희랍인, 토이기인, 벌가리아인 등이 산다.

국어는 알바니아어

【수도】 티라나 (주민 24만명)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 인민회의는 제7기로서 1970년 11월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하지 레쉬(1970년 11월에 재선)

【정부】 총리 메흐메트 쉐후, 외교부장 네스띠 나쎄, 인민보위부장 베키르 발루크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41년 11월 8일 공산당으로 창건되였으며 1948년 11월 제1차당대표대회에서 로동당으로 고쳤다.

제1비서 엔베르 호쟈

직업동맹, 로동청년동맹, 녀성동맹, 민주주의전선

정치 알바니아는 발칸반도에서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진 나라이나 15세기부터 5세기동안 토이기지배하에 있다가 1912년 11월 28일에 독립하였다. 그후에도 알바니아는 구라파, 여러나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았다.

1922년에 이딸리아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1939년 4월에는 이딸리아에 완전히 강점당하였다.

1943년 7월 파쑈이딸리아가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이해 9월에는 히틀러독일에 다시 강점당하였다.

알바니아인민들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강점자들과 국내반역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려 1944년 11월 29일 히틀러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1946년 1월 11일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3월 14일에는 헌법을 채택하였다.

해방후 알바니아는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고 1949~1950년의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을 거쳐 1951년부터 1970년까지 4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하였으며 1971년부터 5차 5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섰다.

1972년 6월 30일에 있은 제7기 인민회의 제4차회의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을 위한 년금법초안을 토의하고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상업 및 보건을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12월 25일부터 26일까지에 진행된 인민회의 제5차회의에서는 1973년도 경제문화발전에 관한 국가계획과 국가예산을 토의하였으며 경공업 및 식료공업부 창설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해 5월에는 알바니아직업동맹 제7차대회, 10월에는 알바니아로동청년동맹제6차대회가 각각 있었다. 대회들에서는 지난기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거둔 성과를 총화하고 동맹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과업을 내세웠으며 직맹대회에서는 웰남인민들의 반미투쟁을 지지할데 대한 결의도 채택하였다. 1972년에 룩셈부르그(2월), 네팔(5월) 등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주요지하자원으로는 피치, 원유, 천연가스, 크롬광, 동, 석탄, 쇠돌, 니켈, 보크사이트 등이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벼, 해바라기, 사탕무우, 담배, 포도, 과일, 남새 등이다.

1972년에 알바니아인민들은 223개의 직장과 생산선을 건설하였으며 수많은 합리화안을 창안하여 생산에 도입하였다. 1972년에 전력은 1933년의 133배인 12억 4천만kwh 생산되였으며 기타 공업제품생산이 현저히 늘어났다.

첫 9개월간에는 전해 같은기간에 비하여 석탄은 12.3%, 크롬광은 2.3%, 전력은 11.1%, 옷은 2.1% 더 생산되였다.

1972년에 전국 농촌수의 절반에 달하는 1천여개소에 전화가 들어갔다.

관개면적은 총경지면적의 60%에 해당한 30만ha이며 1972년에 농업생산은 그 전해에 비하여 12% 올라갔다. 전국적으로 550개의 축산농장이 있는데 그루야주에 있는 축산농장에서는 1969년에 40만개의 닭알을 생산하였다면 1972년 8개월간에 91만개를 생산하였다. 이 나라에 과일나무는 1970년에 1천 150만그루가 있었는데 1971~1972년에 230여만 그루를 더 심었다.

1972년에 1천 500개의 진료소와 189개의 병원과 료양소, 132개의 산원, 1만명의 보건일군들이 있었다.

1972년 9월 새 학년도에 72만 5천명의 학생과 2만 9천명의 교원이 있었다. 이 나라에 중학교는 277개, 대학은 7개가 있는데 그중 3개는 1971년에 건설한것이다.

【출판보도】 **통신** 아따아

신문 제리 이 포풀리트(로동당기관지), 바슈키미(민주주의전선 및 내각기관지), 제리 이 리니스(로동청년동맹기관지)

잡지 루가 에 빠르띠쎄(로동당리론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우리 나라와 알바니아간에는 1949년 5월 17일에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55

년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1956년 7월 1일에는 기술 및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2년 12월 27일에는 우리 나라와 알바니아정부간에 1973년도 통상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조인하였다.

알바니아인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네돐을 기념하여 기념모임들과 함께 사진전람회, 영화감상회 등을 가지였으며 로동당기관지 《제리 이 포풀리트》는 《조선인민에 대한 형제적축하》라는 론설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이 신문은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은 적들의 침략계획을 분쇄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라는 론설도 발표하여 우리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972년 알바니아정부통상대표단(1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우리 나라로부터는 사로청대표단(10월), 정부무역대표단(12월)이 알바니아를 방문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독일은 구라파중심부의 9개 나라사이에 있다. 땅은 남쪽(알프스산줄기)에서 북쪽(북해, 발찍해)으로 경사져있어 일반적으로 북부에는 벌이, 남부에는 산이 많다.

전반적으로 대륙성기후이지만 또한 해양성기후의 영향도 받아 서풍이 강할 때에는 비가 많이 오고 약할 때에는 오래 가문다.

베를린의 평균기온은 1월에—0.3°C, 7월에 18.8°C이고 년평균강수량이 560mm이다.

긴 강으로서 라인강, 엘바강, 두나이강이 있고 운하로 이어져 있지만 동서독일의 분렬로 말미암아 합리적으로 리용되지 못하고있다.

【넓이】 10만 8,174km²

【인구】 1,705만 6,983명(1971년 1월) 주민의 대부분은 게르만족이다.

국어는 독일어이다.

【인민의원】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인데 현재의 인민의원은 1971년 11월에 선거되였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발테르 울브리히트

【정부】 총리 윌리 슈토프(1971년 11월 재선), 외교부장 오토 윈쩨르, 민족보위부장 하인쯔 호프만

【정당, 사회단체】 독일사회통일당

1946년 4월 21일 독일공산당(1918년 12월 30일 창건)과 독일사회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되였다.

위원장 발테르 울브리히트(1973년 8월 1일 서거), 제1비서 에리히 호네케르, **민주농민당, 기독교민주동맹, 자유민주당, 민주주의독일민족전선, 자유독일직업총동맹, 자유독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정치 독일은 1870년에 농노제도를 페지하고 1871년에 나라의 정치적통일을 완성한데 뒤이어 독일제국을 세웠다.

보불전쟁(1870—1871)에서 승리한 독일은 프랑스에서 알사스와 로렝지방을 빼앗고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낸 후부터 식민지략탈을 시작하였다.

독일은 아프리카의 까메룬, 또고, 서남아프리카, 탄가니카와 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들을 강점하였다.

포악해진 독일은 식민지재분할을 목적으로 제1차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결국 모든 식민지들을 영국, 프랑스, 벨지끄, 일본 침략자들에게 뜯기웠다.

1918년 11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은 대중적폭동을 일으켜 반동적군주제도를 전복하고 로동자병사대의원쏘베트를 창설하였지만 혁명적당과 로동계급의 수령을 가지지 못한데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지 못하였다.

칼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그는 11월혁명시기에 감옥에서 나오자 곧 《스파르타쿠스동맹》(독립사회민주당좌파)에 기초하여 1918년 12월 30일에 독일로동계급의 전위대인 공산당을 창건하였다.

미제는 제1차세계대전후 독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재생시켰다. 군수공업의 부활, 독점체의 형성과정을 거쳐서 또다시 영국과 프랑스의 적수로 나타났다.

1933년에 집권한 히틀러도당은 우선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고 그 《범죄》를 공산당에 뒤집어 씌우면서 그를 구실로 텔만을 비롯한 공산당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투옥하였으며 공산당을 지하에 몰아넣었다.

히틀러도당은 또한 전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준비하였다. 1939년에 군수공업에 복무하는 전력, 석탄, 강철 생산이 자본주의세계에서 제2위로, 인조섬유, 인조고무 생산은 제1위에 이르렀으며 땅크, 비행기, 잠수함 생산에서도 침략의 괴수 미제를 따라 앞섰다.

일본, 이딸리아와 1936—1937년에 《방공협정》을 맺은 파쑈독일은 미, 영,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아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키고 1938—1941년 초까지 200만km²의 령토와 1억 4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10여개의 나라를 강점하였다.

파쑈독일은 그후 쏘련에 불의의 침공을 하였으나 쏘련군대의 결정적타격을 받아 1945년 5월 9일에 패망하였다.

전후 쏘, 미, 영, 프랑스에 의해 점령된 독일의 최고주권은 4개국대표로 구성된 대독관리리사회에 속하게 되였다.

그러나 미, 영,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파쑈분자들과 군국주의자들을 청산하고 독일을 민주화하며 경제적, 정치적 통일을 보장하며 강화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1945년의 포츠담협정을 무시하고 1949년 9월 서부독일에 반인민적인 단독국가인 《독일련방공화국》을 조작하고 군국화의 길로 내몰았다.

동부독일에서는 1949년 5월 30일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 헌법이 채택되였으며 10월 7일에는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독일사회통일당의 령도하에 1946—1949년에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였으며 1949—1960년까지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였다.

1968년 4월 9일에 새헌법이 채택되였다.

1971년 5월에 소집된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발테르 울브리히트가 제1비서직에서 해임되고 에리히 호네케르가 선거되였으며 6월 24일에 열린 인민의원회의에서 에리히 호네케르가 전국국방리사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였다.

1972년에 당 전원회의(10월과 12월)와 인민의원회의들이 각각 두차례씩 열리였다. 회의들에서는 1973년도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에 관한 법령들이 토의결정되였다.

1972년 8월 16일부터 시작된 동서독일회담은 11월 8일에 독일련방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사이의 관계의 기본원칙에 관한 조약을 가조인하고 21일에 정식으로 조인하였다. 조약에서는 《호상 평등권에 기초하여 정상적인 선린관계를 발전》시킬것과 현존 국경의 신성불가침, 상대방의 자주권, 령토완정, 자결권을 존중할것 등을 지적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으로는 갈탄, 카리염, 우라니움이 많지만 철광석, 콕스, 원유 등은 적다. 그나마도 제2차세계대전후 나라가 갈

라진 결과 전국력청탄생산의 3%, 선철생산의 2%, 강철생산의 6.6%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락후한 공업을 물려받았다.

전후 다섯차례의 5개년계획과 7개년계획을 수행하여 공업생산구조와 공업배치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였다.

이 기간에 금속공업과 기계공업(공업생산액의 30%)이 급속히 발전하였고 오데르강기슭과 발찍해기슭에 새 공업중심지들이 생기였다.

5개년(1971—1975)계획의 두번째해인 1972년 공업총생산액은 6.3%(1971년에는 5.5%), 로동생산능률은 5%(1971년에는 4.5%), 국민소득은 5.4%(1971년에는 4.5%)씩 각각 늘어났다.

상품생산에서 14% 차지하는 화학공업부문에서는 1972년에 1천 300만t의 원유를 가공하였다. 이것은 1971년보다 150만t 늘어난것이다. 원유와 함께 갈탄, 카리염, 석회석을 원료로 하여 여러가지 기초약품, 화학약품, 합성섬유, 화학비료, 합성수지, 의약품을 생산하였다. 민주독일은 1인당 화학제품 생산량이 세계에서 제2위이다. 갈탄생산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도 2억 5천만t의 석탄(주로 로천채굴)을 캐였는데 그 3분의 2를 화력발전과 화학공업부문에 돌렸다.

조선공업도 발전하였다. 5만명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종사하는 20개의 조선소에서는 1970년까지 도합 3천 260여척의 선박을 건조하였다.

지금 180여척으로 무어진 독일상선대는 20개의 정기항로를 따라 70여개의 나라와 거래하고있다.

독일근로자들은 이해에도 파지수집운동을 벌리여 종이공업원료의 40%에 해당하는 15만t의 헌종이들을 모아 제지공장들에 보냈다.

민주독일은 자연기후조건과 토양관계로 주로 호밀, 밀, 감자, 사탕무우 등을 심고있는데 호밀과 감자는 엘바강동부에서, 밀과 사탕무우는 남서부에서, 귀밀은 북부에서 많이 난다.

민주독일에는 1만개의 농업협동조합과 500개의 인민농장들이 있다. 여기에는 농촌인구의 98%가 망라되고있다.

최근년간에 새로 170만ha(1972년에는 16만ha)의 부침땅을 얻어냈으며 도합 15만대의 뜨락또르와 수확기, 정당 310kg씩 돌아가는 화학비료를 농사에 돌리였다. 1972년에 한 헥터당 평균 3.67t(밀은 3.98t)의 알곡을 거두어 도합 850만톤을 수확하였다.

남서부와 북부 지대에서는 소와 돼지를, 남부산지대에서는 양을 많이 기른다. 1971년에는 뿔난집짐승은 10만마리, 돼지는 30만마리 더 늘어났다.

5개년계획기간에 국민소득이 27%, 로동자, 사무원들의 수입을 매해 4.3%씩 올릴것을 계획하고있다. 1971년에 도시와 농촌에 6만 4천세대, 1972년에 7만세대의 살림집을 지었다.

1972년에 탁아소어린이는 21만 1천명, 1970년에 각급학교 학생수는 250만명, 1971년에 새로 입학한 어린이는 24만 8천명이였다. 지금 8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다. 대학은 55개가 있다.

【출판보도】 **통신** 아데엔

신문 노이에스 도이췰란트(사회통일당기관지), 쏘씨알리스티쎄 데모크라티(국가쏘베트 및 내각 기관지), 트리뷰네(직맹기관지)

잡지 아인하인트(사회통일당리론잡지), 노이에르웨고(사회통일당생활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9년 11월 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5년 1월 27일에 두 나라간에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 6월 12일에 경제 및 문화협정, 1971년 2월 5일에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1971년 3월 9일에 1971—1975년기간의 장기통상협정, 1971년 9월 28일에는 서로 법률상 방조를 줄데 대한 조약을 맺었다.

또한 같은해 2월 19일에 1971—1972년 보건분야의 협조계획서, 3월 8일에 1971—1972년 문화 및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실행 사업계획서, 10월 22일에 1972년도 상품호상공급의정서, 1972년 6월 10일에 두 나라 사이에 민사, 가족, 형사 사건들에서 서로 법률상 방조를 줄데 대한 조약비준서가 조인되였으며 교환되였다

베를린에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가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민주독일에서는《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민주독일로부터는 정부군사대표단(4월), 칼 맑스시공업대학대표단(6월), 농업식료공업및림업로동자직맹대표단(7월), 과학기술협조위원회대표단(10월), 과학원대표단(11월), 의학대표단(11월), 문화대표단(11월), 자유독일청년동맹대표단(11월)들이 우리 나라에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대표단(2월), 자유독일직업동맹 제8차대회에 참가할 직맹대표단(6월), 최고인민회의대표단(7월), 사로청대표단(10월), 김일성종합대학교원대표단(10월)이 민주독일을 방문하였다.

또한 라이프찌히봄철국제시장과 가을철국제시장에 참가할 정부대표단(3월)과 기자대표단(9월), 사회주의나라 군대 속도권총선수권대회, 국제권투선수권대회,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배구경기대회에 각각 참가할 조선인민군선수단(5월), 권투선수단(5월), 청소년남자배구선수단(8월)이 민주독일을 방문하였다.

독일련방공화국

【넓이】 24만 7,978km²

【인구】 5,955만명(1971년 10월)

주민의 대부분이 게르만족이다.

국어는 독일어이다.

【수도】 본(주민 30만명)

【국회】 련방참의원(상원)과 련방의회(하원)로 구성되여있다.

실권은 련방의회 (494명)에 있고 련방참의원 (각주정부대표로구성)은 협의기관이다.

【정부】 총리 윌리 브란트(1969년 10월—). 외교부장 발데르 쉘, 국방부장 게오르그 레베르

【정당, 사회단체】 **독일공산당** 1918년 12월 창건, 1956년 8월 비법화, **독일의 공산당** 1968년 9월 창건, 위원장 쿠르트 바호만, 명예위원장 막스 라이만, **사회민주당**(집권당), **자유민주당**(집권당), **기독교민주동맹**, **전독일당**, **국가민주당**, **독일평화동맹**, **독일로조총련맹**, **서독사회주의청년동맹**

정치 독일련방공화국은 미, 영,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이 재군국화를 목적으로 파쑈분자들과 군국주의자들을 청산하고 독일을 민주화하며 정치경제적 통일을 보장하며 강화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포츠담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1949년 9월에 서독에서 조작한 단독국가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일본과 서부독일에서는 인류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군국주의세력이 빨리 되살아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는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자라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186페지)

서부독일군국주의는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재생재무장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54년 10월에 제놈들의 충실한 졸개들로 열린 14개국의 외교부장회의에서 합법적으로 서독을 재생무장시킬데 대한 《파리협정》을 조작하였으며 1955년에는 서독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끌어들였다. 이에 따라 서부독일에는 200여개의 미군사기지와 20여만명의 미침략군이 들어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히틀러에게 복무한 파쑈무리들, 히틀러장군들과 장교들, 군수독점자본가들을 되살리는 한편 이놈들에게 1945—1966년 동안에 56억딸라의 군사원조를 비롯한 각종 《원조》를 주었다.

미제의 입김을 받아 다시 살아난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파쑈적인 통치체제를 세우는데 미쳐날뛰였다.

1967년에 임의의 시각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무로동》에 동원하며 《비상국회》를 만들고 군사파쑈체계로 넘어갈수 있는 5개의 《비상법》을 조작하였다.

이 파쑈체제속에서 지금 독가민주당을 비롯한 120여개의 파쑈적인 정당들과 단체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7천여명의 전범자들이 날치고있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또한 1956년에 꾸며낸 《훈련부대》를 바탕으로 하여 《련방군》과 《방위군》을 만들었으며 핵무장으로 장비하는데 피눈이되였다.

1956년에 지원병제를 《징병제》로 고치고 징병년령을 20살로부터 18살로 넓힘으로써 50만명의 련방군을 편성하였다. 련방군에는 104명의 히틀러시기 장군과 3천명의 히틀러장교들이 있다.

련방군은 1959년 3월 서독하원의 결정과 1959년 11월 서독상원의 결정에 따라 서독자체로 생산하고있는 원자무기로 장비하고있다.

1972년에도 서독군국주의자들은 59억딸라를 쏟아부어 군사시설을 증강하고 군사장비를 현대화하였으며 핵장비로 무장하는데 미쳐 날뛰였다.

이미 1971년에 2억 2천만마르크분의 원자원료와 175대의 군용비행기를 사들인 서독군국주의자들은 1972년에는 미국으로부터 100개의 반땅크미싸일을 구입하였다.

서독인민들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복무하고있는 복수주의적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렸다.

1972년 6월에 바바리아주와 올덴부르그 주민들이, 7월에는 삭소니아주와 브레멘시 주민들이, 8월에는 노르트호른시와 올덴부르그 시민들이 군사기지 확장과 전쟁련습소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서독인민들은 또한 이해에 파쑈분자들의 민주력량을 반대하는 준동과 파쑈교육을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972년 7월 프르쯔하임시민들이, 10월에는 프랑크푸르트 진보적청년들이 민주력량을 누르려는 파쑈분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9월에는 서부베를린 교육일군들이 파쑈적인 《고등교육법안》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시위를 벌리였다.

로동계급은 경제의 군사화와 반동적인 경제정책을 반대하여 년중 투쟁하였다. 그중에서도 임금인상과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한 금속공업부문과 화학공업부문로동자들의 투쟁이 가장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이고 견결한것이였다.

11월 10일 북뷰르템베르그, 북바덴지역에서 시작한 5천 500명의 야금로동자들의 투쟁은 반동경찰이 탄압함에 따라 그 투쟁대렬을 6만명으로, 12만명으로 나날이(12월 15일)늘임으로써 브란트도당의 경제의 군사화정책의 반동성과 략탈성을 남김없이 발가놓았다.

서독의 400여명의 진보적사학계는 1월 29일 희랍반동들에게 살인무기를 대준 브란트도당의 반동적대외정책을 폭로규탄하면서 군사적지원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여 항의문을 들이댔다.

이해에 서독근로자들은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고있는 인도지나와 에스빠냐 인민들의 투쟁도 적극 지원하였다.

7월에는 류베크시, 10월에는 프랑크푸르트시, 서부베를린, 11월에는 본, 함부르그, 브레멘, 뮨헨을 비롯한 거의 전국각지에서 시위와 집회, 성명과 항의문을 내고 투쟁하였다.

9월에는 에스빠냐 수도 마드리드에서 파업투쟁에 참가한 건설로동자들을 야수적으로 살해한 프랑코도당을 단죄하여, 11월에는 프랑코도당의 파쑈적탄압을 반대하여 싸우는 에스빠냐근로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련대성시위와 군중집회를 열었으며 물질적지원도 주었다.

경제, 사회 서독경제는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의 비호하에 되살아난 독점재벌들에게 장악되였다.

미제의 부추김에 따라 파시스트군수공업의 왕이였던 크루프를 비롯하여 히틀러시기의 군수경제의 《명수》400여명이 옛지위를 차지하고 되살아났다.

이놈들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 브란트도당의 군사주문에 매달려 자르와 루르의 풍부한 석탄과 광석에 기초하여 군수공업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자본의 집중과 집적을 촉진하였다.

독점자본가들은 기업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품생산비가 낮아지는 반면에 리윤과 경쟁능력이 높아지는 제국주의적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1972년에 269개의 기업체들을 병합하였다.

기업체의 병합과 대독점의 형성은 1972년초에 중공업부문에서 더많이 일어났다.

6개의 대독점체들은 서독주권의 13%를 장악하고있으며 서독상품총거래액중에서 대독점체들의 몫은 1972년에 71%에 이르렀다.

최근년간에 국가독점자본이 증대되고있다.

국가독점자본은 전체 주식자본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알루미니움, 쇠돌, 자동차, 선박건조 부문을 거머쥐고있다.

그러나 기업체의 병합과 대독점의 형성은 중소기업의 대대적인 파산몰락과 생산의 무정부성에 의한 생산의 감소를 야기시켰다. 특히 미독점체의 침투는 중소기업의 파산몰락과 생산감소를 더욱 촉진하고있다.

미독점체들은 특히 화학, 금속, 기계, 자동차 등 기간공업에 많이 침투하였다. 미독점체들의 투자액은 1957년의 57억마르크로부터 1970년에 92억마르크에 달하였다. 서독에 투자한 외국자본투자액중에서 미독점체들의 비중은 42.7%에 달하였다.

대독점체의 형성과 미독점자본의 침투로 말미암아 중소규모의 기업은 파산몰락되며 생산저하는 더욱 가속화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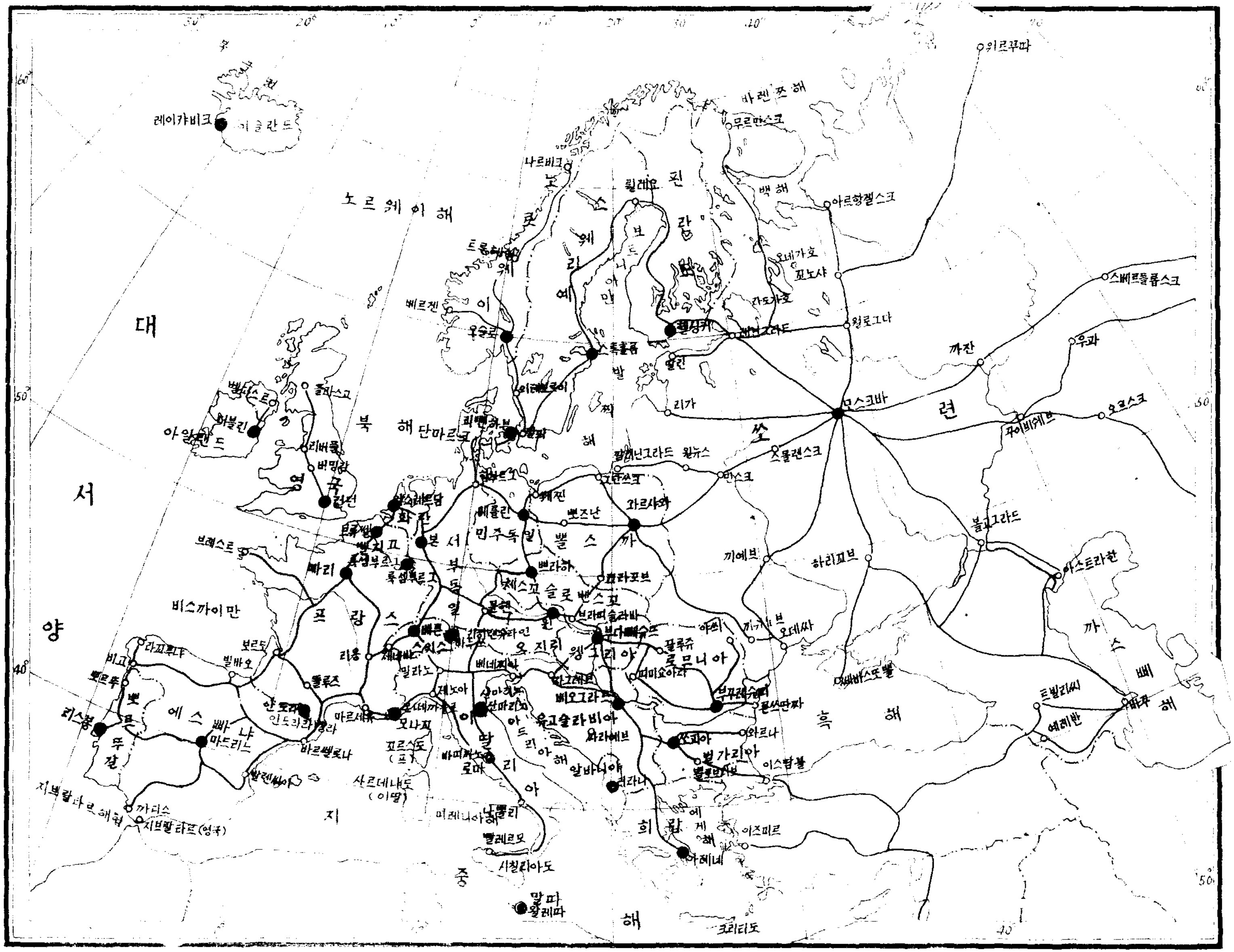
우선 1970년에 1천 400여개의 중소기업이 파산되였다면 1972년 상반년동안에만 하여도 그 수가 2천 300여개에 달하였다.

또한 1972년에 석탄생산량이 7.5%, 1972년 9개월동안의 콕스생산량이 11.8%, 자동차생산량이 8%줄어들었으며 알곡생산량은 3%(1971년)가 줄었다.

특히 반동적인 경제군사화정책에 따라 해마다 알곡생산량이 떨어짐으로써 농업생산비중이 국민총생산액에서 1960년의 5.7%로부터 1971년에는 1.8%로 낮아지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다.

서부독일은 경제침체의 출로를 경제군사화와 함께 안정된 대외시장과 새로운 원료원천지에서 찾고 해외에 적극 진출하고있는데 그 중심은 구라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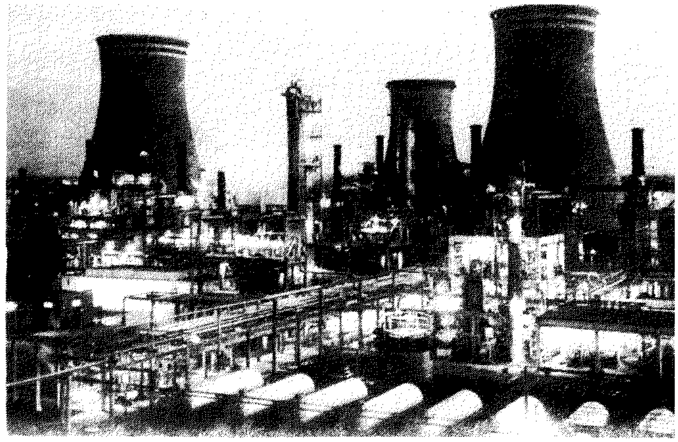
구 라 파



위르꾸따
바렌쯔해
무르만스크
레이캬비크
나르비크
노르웨이해
백해
아르항겔스크
오네가호
꼬노샤
라도가호
스웨르들롭스크
베르겐
헬싱키
레닌그라드
볼로그다
오슬로
스톡홀름
딸린
까잔
우파
대서양
벨파스트
글라스고
더블린
아일랜드
리버풀
버밍감
영국
런던
북해
단마르크
리가
모스크바
쏘련
꾸이비세브
스몰렌스크
깔리닌그라드
윌뉴스
민스크
그단스크
쉐찐
화란
베를린
민주독일
뽀즈난
뽈스까
와르샤와
벨지크
본
서부독일
룩셈부르그
빠리
브레스트
쁘라하
체스꼬슬로벤스꼬
끄라꼬브
끼예브
하리꼬브
볼고그라드
아스트라한
비스까이만
프랑스
윈
브라찌슬라바
부다페스트
오데싸
까스삐해
비고
빌바오
보르도
리옹
베른
스위스
오지리
웽그리아
로므니아
밀라노
베네찌아
포르투
뚤루즈
안도라
마르세이유
모나꼬
제노아
산마리노
베오그라드
꼰쓰딴짜
흑해
뜨빌리씨
바꾸
예레반
리스봉
뽀르뚜갈
에스빠냐
마드리드
바르쎌로나
꼬르스도
아드리아해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브
쏘피아
와르나
불가리아
이스딴불
발렌씨아
사르데냐도
(이딸)
로마
알바니아
띠라나
까디스
지브랄따르(영국)
나뽈리
빨레르모
시칠리아도
희랍
에게해
이즈미르
아테네
지중해
말따
왈레따
크리띠도



미제대사관 앞에서 반미시위를 벌리고 있는
스웨리예인민들



로므니아 삐떼슈띠원유화학공장의 밤전경



에스빠냐애국자들에 대한 프랑코도당의 파쑈탄압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리고있는 서부베를린시민들



정부의 반동적시책을 반대하여 시위에 떨쳐나선 빠리 근로자들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을 반대하여 떨쳐나선 단마르크 인민들



신나치스도당이 뿌린 반동적인 문건을 불태워버리는 서독인민들

이다.

해외에 투자한 130억마르크중에서 프랑스에 28억마르크, 스위스에 27억마르크, 화란에 13억마르크, 벨지끄와 룩셈부르그에 도합 27억마르크를 투자하고있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투의 마수는 남조선에도 뻗고있다. 독점자본가들의 야수적인 략탈로 말미암아 1972년에 무려 300여만건의 로동재해가 일어났는데 재해자들중에서 6천 600명이 생명을 잃었다.

1972년초에 10만명의 완전실업자가 새로 생김으로써 실업자수는 도합 37만 6천여명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1971년 1월말에 비하여 44% 늘어난것으로 된다.

1972년에 전반적 농산물가격이 8%, 교통운임이 20~30% 뛰여올랐다.

종교는 기독교가 기본이며 독일복음교(신교)가 51%, 천주교가 45%이다.

【출판보도】 통신 데페아

신문 프라이에스 폴크(독일공산당기관지), 케르니쉐르 룬트샤우(기독교민주동맹계), 도이르 폴크스 짜이퉁, 디 벨트(정부계), 프랑크푸르테르 알게마이네 짜이퉁, 데르 쿠리에르, 프랑크푸르테르 룬트샤우(사회민주당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에 신문《프랑크푸르테르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조선은 20세기의 영웅을 낳았다. 김일성전 제1부》라는 표제밑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 《김일성전》 제1부를 소개하였다.

1971년에 《붉은별》출판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을 비롯한 4개의 로작을 묶은 문헌집 1권을 출판하였다.

1971년 4월에 서부독일에서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가, 서부 베를린에서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가 각각 결성되였다.

1969년 4월 서부독일공산주의자그루빠가, 1970년 9월에는 서부독일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6월에 서부독일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 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1972년 4월 서부독일텔레비죤방송 자유기자가 우리 나라 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오 지 리

(오지리공화국)

구라파대륙의 중앙에 동서로 길게 가로놓인 험준한 산악국이다. 비가 많이 내리는 누기찬 온대성기후대에 속하여 있지만 내륙국이기때문에 겨울에 매우 춥다. 북부산악지대의 년평균기온은 7~8°C이다. 비는 7~8월에 많이 오며 강수량은 동부로 가면서 점차 적어진다.

【넓이】 8만 3,849km²

【인구】 744만 3,800명(1971년 5월) 대부분이 독일인이고 그외 슬라브인, 마쟈르인, 이딸리아인이 있다.

공용어는 독일어

【수도】 윈(주민 165만 6,100명)

【국회】 련방의회(상원)와 국민의회(하원)의 량원제이다. 1971년 10월 10일 선거결과 사회당 90석, 인민당 80석, 자유당 10석 차지

【대통령】 프란쯔 요나스(1965년 5월—)

【정부】 총리 부르노 크라이스키(1970년 4월—), 외교부장 루돌프 키르히슐레게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11월에 창건, 위원장 프란쯔 무리. **사회당**(집권당), **인민당**, **자유당**, **국가민주당**, **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 **공산주의대학생동맹** 1972년 11월조직, **민주녀성동맹**.

정치 1867년에 형성된 오토만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여 무너지고 1918년에 오지리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919년 윈조약에 의하여 오지리 국경선이 확정되였다. 1938년 3월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여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였다가 1945년 4월 23일 해방되였다.

히틀러독일의 패망후 쏘련, 미국, 영국, 프랑스의 4개국가 공동관리하에 들어갔다. 1945년 4월 27일에는 공산당, 사회당, 인민당의 련립정부가 형성되였다. 1947년말 공산당은 정부의 반인민적정책을 규탄하고 정부에서 탈퇴하였다. 1955년 5월 15일 대오국가조약이 조인되고 오지리의 주권이 회복되였다. 10월 26일 국회는 오지리의 《영구중립》을 선포하였다. 1955년 4월 4개국군대가 모두 철수하였으며 12월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오지리는 1956년 미제와 예속적인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을 맺었으며 이해 4월에는 침략적인 《나토》와 련결된 《구라파리사회》에 가담하였다.

1971년 10월 10일 비상국회선거에서 사회당이 다수표를 획득함으로써 사회당위원장 크라이스키의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1972년 12월 1일 민주웰남과, 12월 7일에는 민주독일과 각각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오지리인민들속에서 반미감정은 높아지고있다.

1972년 5월 20일 살쯔부르그에서 로동자들과 학생들 7천여명이 미제의 우두머리 닉슨놈이 쏘련방문도중 오지리에 기여들자 《닉슨은 인간백정이다!》, 《웰남은 웰남인민에게!》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비행장울타리를 넘어 활주로로 밀려들었으며 다음날 닉슨도당이 들고있는 려관 앞 기발게양대에 걸린 미국기발을 끌어내리고 북부웰남에 대한 미제의 기뢰부설과 야만적인 폭격만행을 규탄하였다. 이에 앞서 5월 1일 윈에서는 1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인도지나에서의 미제의 범죄적전쟁을 준렬히 규탄하는 구호를 내걸고 반미시위를 벌리였다. 5월 26일—6월 9일에 걸쳐 윈의 목재가공로동자들이 기업주놈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며 임금을 올리고 생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을 벌리였다.

경제, 사회 지하자원으로는 갈탄, 쇠돌, 마그네사이트, 흑연, 석유 등이 있다.

공업에서는 흑색금속, 기계제작, 화학, 원유채취 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공업기업소의 절반이상이 윈지역에 몰려있다. 공업은 수입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제품을 대외시장에서 실현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지탱해 나가고 있다. 오지리의 주요무역대상국들인 《구라파공동시장》 성원국들의 관세장벽으로 인하여 상품실현에서 난관을 겪고있다. 1972년 1월 무역적자는 1971년 12월 보다 5억 쉴링이 더 많은 28억 6천 900만 쉴링에 달하였다.

농업에는 인구의 약 20%가 일하고 있다. 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목축업인데 소, 돼지, 양, 염소 등을 기른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호밀, 귀밀,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오지리에서는 선철, 강철, 기계류, 목재, 코르크, 팔프, 종이, 화학제품을 수출하고 식료품(강냉이, 커피, 차, 코코아, 향료, 담배), 연료, 기계류, 공업원료를 수입한다.

1972년현재 살림집의 약 40%는 녀

무 밝아 살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빈민굴에 사는 주민들은 100만명에 달하고있으며 이들은 음료수도 공급받지 못하고있다. 1972년 3월말현재 실업자수는 6만 4천명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피에이

신문 폴크스 슈팀메(공산당기관지), 윈 짜이퉁(정부기관지), 디 프레쎄

잡지 외그 운트젤(공산당월간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11월 23일 오지리는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오지리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였다.

1970년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오지리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3월 윈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인민예술전람회가 있었다.

1971년 6월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 대회에 오지리공산주의청년대표가 참가하였으며 10월에 《안톤 투쉬》출판사 사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오지리녀맹위원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는 9월 16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유고슬라비아는 발칸반도의 서부 아드리아해안에 자리잡고있다.

아드리아해안지대는 지중해성기후에 속하며 내륙지방은 대륙성기후이다. 년평균강우량은 내륙지방에서 600~700mm이며 지나르 알프스산줄기 남부경사면에서는 2천mm이상에 달한다.

【넓이】 25만 5,804km^2

【인구】 2,066만명(1970년 12월)

주민은 주로 쎄르비아, 크로아찌아, 슬로베니아 등 남부슬라브족들이며 기타 10여개의 소수 민족들이 있다.

언어는 쎄르비아어, 크로아찌아어가 대표적이며 슬로베니아어, 마케도니아어도 공용어로 쓴다.

【수도】 베오그라드(주민 99만 2,000명)

【련방회의】 (국회)련방리사회와 경제리사회, 문화교육리사회, 사회정치 및 보건리사회, 사회리사회 등으로 구성되였으며 이밖에 민족리사회(70명)가 있다.

민족리사회는 헌법을 개정하며 민족문제들을 심의결정한다.

련방리사회는 외교, 국방, 내정전반 문제들을 심의하고 법안을 채택한다. 기타 문제에 대한 심의 및 법안채택은 4개의 실무의원과 련방리사회와의 합동회의에서 한다.

대통령은 련방리사회 합동회의에서 선출하며 군최고사령관을 겸임한다. 대통령의 3선은 금지되였다.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1945년 11월—)

【국가상무위원회】 1971년 7월 29일 구성, 련방공화국내의 6개의 가맹공화국과 2개의 자치주(매 가맹공화국에서 각각 3명, 두 자치주에서 각각 2명)들의 대표 22명으로 구성된 국가의 최고 지도기관(집체적대통령제)으로서 나라의 전반적정책을 협의하고 작성한다. 위원장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1971년 7월 29일—)

【련방집행리사회(내각)】 1971년 7월 30일 22명으로 구성되였다. 위원장(총리)제말 비에디치(1971년 7월 30일—), 외무담당련방비서 밀로쓰 미니츠, 국방담당련방비서 니꼴라 류비치치.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동맹** 1919년 4월에 창건된 공산당을 1952년 11월 제6차 당대회에서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위원장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사회주의근로인민동맹**(제2차대전시기에 결성된 민족전선을 1953년 2월에 지금 이름으로 고침). **직업동맹**, **인민청년동맹**.

정치 유고슬라비아는 위대한 10월 사회주의혁명의 영향하에 앙양된 민족해방투쟁과 1차대전에서의 오토만제국의 패망의 결과 1918년 12월에 자립적국가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쎄르비아, 호르바찌아, 슬로베니아왕국》(1929년 10월에 유고슬라비아로 고침) 지배층은 1920년에 군사정변을 일으켜 유고슬라비아를 군사군주독재국가로 전변시켰다.

1941년 4월 6일 파쑈독일에 강점당했다. 유고슬라비아인민들은 공산당의 지도밑에 반파쑈무장투쟁을 벌렸으며 이 과정에 인민해방군이 편성되고 그 활동범위에서 인민해방위원회(인민정권)를 창설하였다. 인민해방군은 쏘련군대와 함께 1944년 10월 베오그라드를 해방하고 1945년 5월에는 나라의 전지역에서 파쑈독일강점자들을 몰아냈다.

1945년 11월 29일 유고슬라비아련방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1963년 4월 7일에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나라이름을 사회주의련방공화국으로 고쳤다.

유고슬라비아는 대내적으로 《독자적인 사회주의》를,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평화공존》과 《쁠럭불가담》을 내세우고있다. 이런 정책으로부터 사회주의나라들과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서 협정을 맺고있으며 미제를 비롯한 서방자본주의나라들과도 관계를 맺고있다. 1970년 10월 공산주의자동맹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찌또가 제기한 《국가상무위원회》(집체적대통령제)를 내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1년 6월 30일 련방의회민족리사회에서 헌법을 수정하여 새로 국가상무위원회를 내오고 련방공화국의 전반을 가맹공화국들에 대폭《분권화》하였다. 그러나 대외정책과 무력은 련방이 장악하며 중요한 모든 문제는 전체 가맹공화국들의 일치가결의 원칙에 의하여 채택된다.

1971년 12월 29일 공산주의자동맹 상무위원회는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의 발전과 당면한 과업》이라는 문건을 발표하였다. 문건에서는 《분립주의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세력》이 조직적인 반혁명활동의 발원지를 만들어놓기시작한것은 《공산주의자동맹이 계급적원쑤의 활동을 과소평가하였다.》는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를 극복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이 문건은 1972년 1월 25~27일까지 진행된 공산주의자동맹 제2차대표자회의에서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중앙집권화의 강화를 위한 동맹상무위원회 집행위원회를 개편하여 종래 집행위원수 14명으로부터 8명으로 줄이였으며(매 가맹공화국과 매 변강주에서 1명씩 줄임)공산주의자동맹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사회의 경제형편과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의 과업》을 토의하였다.

12월 6~7일까지 진행한 공산주의자동맹 제3차대표자회의에서는 《자치제에 기초한 사회주의건설에서 젊은 세대들의 참가를 확대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동맹의 과업》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1972년에 찌또대통령이 로므니아(5월), 쏘련과 뽈스까(6월)를 각각 방문하였다. 이 해 유고슬라비아는 필리핀, 니제르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갈탄, 석유, 천연가스 쇠돌, 보크사이트, 몰리브덴, 크롬,

동, 아연, 은, 안티몬, 연, 수은 등이 있다. 공업에서는 기계공업, 섬유, 담배, 제재, 강철, 화학, 전력, 선박 공업 등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연료동력공업은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전력은 수력에 치우치고있다. 기계공업은 공업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선철은 해마다 130만t정도 생산된다.

1972년에 공업총생산액은 첫 9개월간에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8.1% 올라갔으며 전력 9%, 이외 조선, 화학, 유색금속, 신발, 방직 공업부문에서도 생산량이 늘어났다.

주요농산물은 밀, 옥수수, 사탕무우, 감자, 담배, 과일 등이다.

부침땅은 약 1천 470만 7천ha이다. 1969년에 1천만 7천ha의 부침땅이 263만 4천호의 개인농에 속하고있었다. 국가 및 협동적 소유의 부침땅은 약 14% 밖에 안된다.

부침땅의 약 75%에는 알곡을 심는다.

1972년에 농업생산은 전해보다 1% 늘어났다. 이해 486만t의 밀을 비롯하여 많은 알곡을 생산하였다.

산림면적은 868만 8천 ha인데 3분의 1은 개인소유이다. 1969년에 목재는 1천 88만 6천m³생산되였다.

유고는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한 국가적통제가 아니라 《로동자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분권화》하고있다.

국가기업소들의 운영권이 기업소의 《근로단체》에 있으며 매 기업소자체가 생산활동의 조직으로부터 생산량과 품종, 가격의 제정, 리윤의 분배, 기업의 분리와 통합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자체로《결정》하고있다. 따라서 기업소의 경영활동은 리윤추구가 기본목적으로 되고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개인기업도 허용되고있는데 1969년말에 15만개의 개인작업장이 있었다. 1960년에 제정된 《농지사용법》에 따라 토지의 매매, 소작제, 고용농의 채용까지 허용되고있다.

무역과 재정면에 있어서도 국가적통제를 폐지하고 《무역의 자유화》를 실시하고있다.

1972년 10월 11일부터 기름, 사탕, 빵 등의 값을 평균 10~12% 올렸다. 이것은 제탕업자들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인위적인 사탕부족을 조성한 탓으로부터 취해진것이라 한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약 300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주민들은 쎄르비아정교(41%), 카톨릭교(32%), 회교(12%)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따뉴그통신

신문 볼리찌까(정부기관지), 보르바(공산주의자동맹기관지)

잡지 꼼무니스트(공산주의자동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30일에 우리 나라와 유고슬라비아 정부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1971년 9월 우리 나라 정부와 유고정부사이에는 외교관계를 설정할데 대한 이전 합의에 기초하여 그리고 두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사급외교대표를 서로 파견할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5월에는 두나라 정부사이에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신문《보르바》 4월 15일호와 《노비싸프》 4월 8일호는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략력을 소개하였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9월 7일 유고의 자그레브국제시장에서 열린 우리 나라 전람관개막식에 찌또대통령이 참가하였다.

1972년 4월 유고 정부군사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대표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또한 정부경제대표단(4월)도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대표단(2월), 정부경제대표단(9월)이 유고를 방문하였다.

희 랍

(희랍공화국)

발칸반도의 남부와 에게해, 지중해연안의 100여개섬들로 이루어져있다. 령토의 75%가 산지이고 25%가 벌을 이루고있다.

기후는 바다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따뜻하다.

수도 아테네의 년평균기온은17.6°C 이고 겨울에도 9°C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년평균강수량은 동부지방에서 400~700mm, 서부지방에서는 900~1천 200mm이다. 강수량의 절반이상이 겨울에 내린다.

【넓이】 13만 1,944km²

【인구】 896만명(1971년)

희랍인이 절대다수이며 토이기인, 유태인 등도 있다.

국어는 희랍어

【수도】 아테네(주민 86만 2,000명)

【대통령】 게오르게 파파도풀로스 (1973년 7월—)

【정부】 총리 겸 국방부장 게오르게 파파도풀로스(1968년 6월—), 외교부장을 겸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11월에 창건된 사회주의로동당이 1924년에 공산당으로 개칭, 위원장 아포스톨로스 그로조스. 민족급진당, 중앙동맹, 통일민주좌익동맹, 국민재생운동, 진보당, 농민당, 《람브라끼스》 민주청년

정치 1830년에 왕국으로 독립하였다.

1924년에는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희랍반동지배층은 1935년에 다시 전제제도를 복귀하고 1936년에 파쑈독재정부를 세웠다.

제2차세계대전초기(1940년 10월)에는 이딸리아에, 그후 1941년 4월에는 파쑈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4년 10월 15일 해방되였다.

해방후 공산당을 포함한 민족전선의 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그후 영제국주의자들의 무장간섭으로 민족전선력량은 정부에서 배제되였다.

희랍왕당파세력을 비롯한 반동세력은 1946년 3월 립헌군주제를 복구하고 민족전선력량에 대한 로골적인 탄압정책을 실시하였다.

1946년 3월부터 희랍인민은 영국간섭자들과 희랍반동정부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1947년 12월에는 해방구에 림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희랍반동정권에 대한 미, 영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원조로 무장투쟁은 1949년 8월에 압살당하고 희랍에는 파쑈통치가 지배하게 되였다.

희랍은 1952년에 《나토》에 들었으며 1953년에는 미제와 《군사기지협정》을 맺고 미제의 군사기지 설치를 허용하였다.

1963년말~1964년초에 걸친 선거결과 친미 왕당파정권인 카라만리스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파판드레우정부가 수립되였으나 1965년 7월 미제의 배후조종밑에 국왕을 비롯한 극우익분자들에 의하여 전복되였다.

1967년 4월 20일 미제의 사촉하에 군사정변이 일어나 파쑈군사독재정부가 수립되였다.

군사정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일체시위를 금지시켰으며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을 수용소와 감옥에 감금하고 《군사재판》을 강행하였다.

미제는 파쑈군사도당을 적극 무장시키기위하여 1971회계년도에 5천 330만딸라, 1972회계년도에 다시 1억 1천

700만딸라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주었다.

희랍정부는 1972년 2월 12일 제일큰 항구인 피레우스항을 미제6함대의 《항공모함분함대》기지로 내맡겼다.

1972년 1월 1일부터 1967년 4월 군사정변이래 실시되여온 계엄령이 아테네와 기타 2개 주요도시를 제외하고 해제되였다.

1972년 6월 5일에는 중국과, 1월 8일에는 세네갈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50%가 농업에 종사한다. 농업은 총생산액의 28%, 국민소득의 30%이상을 차지한다.

부침땅은 국토의 25%이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담배, 포도, 올리브, 사탕무우, 곡류 등이다.

공업은 반가내수공업적인 기업소들에 많이 의존하고있다.

공업에서는 채취, 식료, 방직, 목재가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년평균 석탄 약 700만t, 보크사이트 200만t, 쇠돌 40여만t, 강철 80여만t, 솜실 4만t, 세멘트 500여만t 정도 생산하고있다.

해상운수가 비교적 발전된 나라다.

농산물(올리브기름, 포도주, 담배)과 광물류 등을 수출하고 여러가지 공업제품과 연료, 식량을 수입한다.

1970년 한해동안에 16만 3천명의 주민들이 살길을 찾아 해외로 떠났다.

【출판보도】 통신 아테네 통신
잡지 자유희랍(공산당리론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에 희랍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집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희랍어)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희랍선박《네오리스》, 《뻘류크스》, 《안또니》, 《크소리스》, 《아이스타이오스》호 선원들이 그이께 축전을 보내여왔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네돐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또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환영하여 희랍공산당중앙위원회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축전을 보내여 왔다.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으로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희랍선박 《프로토마쵸스》호 항해사들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마쓰프로울리스, 《디모스할코우씨스》호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메테니티스 디미뜨리오스는 1972년 12월 28일과 31일에 각각 그이께 축전을 보내여왔다.

핀 란 드

(핀란드공화국)

북부구라파의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동쪽에 있다. 북쪽은 스웨리예, 노르웨이와 국경을 같이하고있으며 동쪽은 쏘련과 잇닿아있다. 그리고 남쪽과 서쪽은 발찍해로 둘러싸여있다. 기후는 대서양과 발찍해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따뜻하다. 가장 추운 2월의 기온은 북부에서 령하 11~18°C이며 남부에서 령하 4~8°C이다. 7~8월에는 낮이 계속된다. 년강수량은 300~600mm이다.

【넓이】 33만 7,009km²

【인구】 469만 7,000명(1970년)

핀란드인이 90%, 스웨리예인이 9%이며 그밖에 로씨야인, 독일인들이 있다.

공용어는 핀란드어와 스웨리예어

【수도】 헬싱키(주민 53만 5,200명)

【국회】 일원제, 임기는 4년이다. 1972년 1월 선거결과 200석중 사회민주당이 55석, 공산당의 통일전선체인 인민민주주의전선이 37석, 중앙당이 35석, 민족련합당이 34석 차지

【대통령】 우르호 케코넨(1968년에 3선, 1973년 1월 국회에서 대통령의 임기—원래 6년—연장에 관한 법안이 압도적다수표로 통과됨)

【정부】 총리 칼레비 소르사(1972년 9월—), 외교부장 아흐티 까리알라이넨, 국방부장 크리스찌안 게스트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9월 28일 창건, 위원장 아아르네 사아리넨, 총비서 아르보 아알토, **사회민주당, 중앙당, 민족련합당, 자유인민당, 스웨리예인민당, 농민당, 인민민주련맹, 로동자소농사회민주련맹**(1959년에 조직되였다가 1972년 12월 4일 사회민주당과 합당), **기독교련맹, 로조중앙련맹, 민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핀란드조선협회**(1967년 결성).

정치 1809년부터 짜리로씨야의 예속밑에 있다가 사회주의10월혁명의 결과 1917년 12월 6일 독립하였다.

핀란드는 파쑈독일의 사촉을 받아 1939년 11월, 1941년 6월 쏘련을 침공하였다가 패배하였다. 1947년 2월에 쏘련과《강화조약》을 맺었다. 1970년에는 이 조약을 25년간 연장하였다.

1970년 3월 국회선거결과 인민민주주의전선(공산당의 통일전선조직), 중앙당, 사회민주당, 스웨리예인민당의 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1971년 3월 17일 핀란드련립정부는 가격통제문제에 관한 의견상이로 총사직하고 3월 26일 새 내각이 구성되였다. 이 내각은 10월 29일 농업및식량정책에서의 의견충돌로 다시 총사직하고 림시내각이 수립되였다.

1972년 1월 2~3일에 있은 국회선거에서 200석중 55석을 차지한 사회민주당이 단독내각을 구성하였다.

1972년 9월에는 사회민주당, 중앙당, 스웨리예인민당의 3개 당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새 정부는 자기의 대외정책강령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국제적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한《빠아씨끼비—케코넨의 로선》에 부합되는 자기의 정책을 실시할것이라고하면서 북구라파나라들과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을 정부의 기본 대외정책목표의 하나라고하였다.

1972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된 핀란드공산당 제16차대회에서는 《핀란드공산당의 통일을 강화하며 그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할데 관하여》 토의하였다.

3월 20일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이 나라의 로조, 대학생, 및 청년단체 대표들이 모임을 가지고 《구라파경제공동체를 반대하는 인민전선》을 결성하였다.

경제, 사회 목재가공공업 및 제지공업이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목재가공공업은 공업총생산량의 3분의 1, 국민소득의 70%, 수출의 85%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신문용지생산은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가운데서 첫자리에, 팔프생산은 두번째자리에 놓여있다. 종이는 년평균 290만t, 합판은 약 70만t 생산한다.

기계제작공업(주로 대형기계)과 금속공업, 선박건조공업이 일정한 수준에 올랐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식료가공공업(축산물가공), 섬유공업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농업에서 축산업이 위주로 되고있으며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부침땅의 4분의 3이 먹이작물재배지 또는 방목지로 리용되고있다. 농산물의 비중

은 국민총생산액에서 8.2%(1969년)를 차지한다. 남부지방에서는 젖소를 많이 기르고있으며 북극지방에서는 북극사슴을 방목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목재가공제품, 팔프, 선박 등이다.

이 나라 경제의 기본부문들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이른바 《스무가정》의 기업체(련합체)들인데 이들이 전체 산업자본, 은행자본, 대외무역의 90%를 통제하고있다.

17개의 대학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3만 2천 600여명의 대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에스티티—에프엔비

신문 칸산 우우티세트(공산당기관지), 콤무니스티(공산당월간지), 쏘시알 데모크라티(사회민주당기관지), 루툰 패이베흐티(사회민주당소속), 에텔레—사이마(중앙당기관지), 매드보르가르볼라데트(인민당기관지), 폴또 피스티(자유인민당기관지), 우우시 수오미(민족련합당기관지).

방송 핀란드(대내, 대외)방송, 핀란드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7월 우리 나라와 핀란드간에 무역대표부교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1970년 9월 15일 헬싱키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였다. 1967년에 핀란드조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3년 6월 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1년에 핀란드조선협회와 핀란드 땀뻬레종합대학에서는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가 각각 결성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1972년에 신문《칸산 우우티세트》, 《소시알 데모크라티》, 《온닥뚤》과 잡지《뜨리꼰트》(4호)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소개하였다.

1971년 유엔총회 제26차회의에서 핀란드대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것을 주장하였으며 1972년 유엔총회 제27차회의에서는 《조선문제》에 관한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결의안》에 반대투표하였다.

1972년 10월 29일부터 일주일간에 걸쳐 헬싱키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상영주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 기간에 불후의 기념비적명작들인 《꽃파는 처녀》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그밖에 여러편의 영화가 상영되여 이 나라 인민들속에서 전례없는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여 핀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아아르네 사아리넨은《칸산 우우티세트》지 1972년 8월 3일호에 담화를 발표하였다.

1972년에 핀란드의 부끄르시에서는 핀란드조선협회의 주최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진전람회》(8월)가, 오울루시에서는《천리마조선》 사진전람회(11월),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헬싱키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지지하는 사진전람회가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와 핀란드사이에는 친선의 왕래가 더욱 늘어나고있다.

1972년 6월 20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핀란드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2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이 해에 핀란드공화국의회그루빠대표단(9월)과 핀란드공화국인민민주주의련맹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두 대표단은 각각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핀란드공화국의회그루빠대표단은 9월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2년 4월 핀란드 땀뻬레《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대표와 핀란드조선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10월에 핀란드조선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회그루빠대표단(3월), 영화대표단(10월)이 핀란드를 방문하였다.

스웨리예

(스웨리예왕국)

북구라파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동쪽에 있는 스웨리예는 서남쪽에서 동북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다. 산림, 하천, 호수가 많다. 스톡홀름의 1월 평균기온은 령하 2.5°C, 7월 평균기온은 17°C이며 년평균 강수량은 542mm이다.

【넓이】 44만 9,750km²

【인구】 804만명(1970년)

주민의 95%이상이 스웨드족이고 기타 덴족, 고드족, 핀족들이 있다.

공용어는 스웨리예어

【수도】 스톡홀름(주민 74만 7,490명)

【국왕】 까를 구스타브 (1973년 9월—)

【의회】 일원제, 최고립법기관으로서 임기는 3년이다. 1970년 9월 선거결과 총의석 350석중 공산주의자좌익당이 17석, 사회민주당이 163석, 중앙당이 71석, 인민당이 58석, 보수당이 41석 차지

【정부】 총리 올로프 팔메(1969년 10월—), 외교부장 위크만, 국방부장 스벤 안데르쏜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좌익당** 1917년 5월에 창건, 위원장 칼 헨리크 헤르만쏜. **사회민주당**(집권당) 당수 올로프 팔메. **중앙당**, **인민당**, **온건련립당**(전신은 보수당), **로조중앙련맹**, **사무원로조중앙조직**, **공산주의청년**, **사회민주청년동맹** (사회민주당소속), **좌익녀성동맹**,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1959년 결성.

정치 스웨리예는 1906년 노르웨이와의 련합왕국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한 립헌군주제국가이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다. 조선정전중립국감독위원회에 참가하고있다. 스웨리예정부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추종하는것을 거부하고 《중립》을 내세우면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1967년 4월에 남부웰남괴뢰정권과의 외교관계를 끊고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공보부 설치에 동의하였다. 1969년 1월 10일에는 민주웰남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그후 스웨리예는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을 규탄하고 놈들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미제는 스웨리예의 이러한 립장이 다른 스칸디나비아나라들에까지 《련쇄반응》이 일어나는것이 두려워 정치경제적압력을 가하였다. 미제는 스웨리예주재대사를 소환하고 자본투자를 동결시키겠다고 떠들었다.

현사회민주당정부는 자국대사를 소환하고 국내우익정당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경제적압력에 경제적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하면서 맞서나섰다.

1972년 10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스웨리예에서는 웰남인민과의 련대성주간을 설정하고 180여개 도시와 주민지역들에서 미제의 웰남침략을 규탄하고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는 시위와 군중집회를 벌리였다.

스톡홀름에서는 4월 15일에 1만 5000명, 6월 15일에는 6000명의 각계층 시민들이 《미제는 인도지나에서 물러가라!》는 구호판을 들고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확대책동을 반대하여 대규모적인 시위를 벌렸다.

스웨리예정부는 《인도주의적인 원조》라고 하면서 민주웰남, 라오스애국전선에 각각 원조를 주었으며 1972년에 이르러 칠레, 꾸바 등에 대한 원조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스웨리예는 스칸디나비아나라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면서 《북구라파리사회》(1952년 12월 스웨리예, 핀란드, 단마르크, 노르웨이, 이슬란드 나라들로 조직)성원국들과의 정치, 경제 및 문화적 협조를 두터이하고있다.

1972년 5월 북구라파의 4개 국의 웰남지지단체(스웨리예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련합그루빠, 노르웨이웰남단결위원회, 단마르크웰남위원회, 핀란드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그루빠)대표들이 스톡홀름에서 모임을 가지고 공동결의를 채택하였다. 대표들은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인도지나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자기들의 굳은 결의를 표시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야만적인 폭격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제, 사회 제지, 목재가공, 야금, 조선공업과 해운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40%를 차지하고있다. 목재가공공업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년평균 종이, 팔프는 약 840만t, 합판은 약 90만t, 목재는 약 1,160만m^3 생산된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 농업에서 기본은 목축업인데 이것은 농업총생산액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주요농작물은 감자, 밀, 보리, 사탕무우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쇠돌, 배, 목재, 팔프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석탄, 원유 및 원유제품, 유색금속, 방직제품, 알곡 등이다.

2개의 대학이 있다.

【출판보도】 **통신** 스웨리예통신

신문 뉴다그(공산당기관지), 아프톤블라데트(사회민주당 및 정부 기관지), 다겐스 뉴헤테르(자유당기관지), 익스르 웨쎈, 조선통보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기관지), 엑스프레쎈, 스벤스 다그블라데트

방송 스웨리예방송, 스웨리예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스웨리예정부는 1973년 4월 7일에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59년 12월 1일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으며 1970년 6월 스웨리예에 우리 나라 공보부가 설치되였다.

1971년에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성원들은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4월 6일), 《김일성주석로작출판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또한 이해에 웁쌀라종합대학 《김일성원수반제혁명사상연구소조》(4월 8일), 스톡홀름종합대학 동방어문학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가 결성되였다.

스웨리예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1972년 4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스톡홀름로동자회관에서는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경축모임을 가지였다.

《조선통보》, 《아프톤 블라데트》, 《엑스 프레쎈》, 《뉴다그》, 《다겐스 뉴헤테르》를 비롯한 스웨리예의 여러 중앙신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특집기사들을 실었다.

특히 이 나라의 정부기관지 《아프톤블라데트》 4월 13일호는 《김일성동지는 혁명의 영웅, 인민의 수령》이라는 표제로 기념론설을 실었고 《엑스 프레쎈》 4월 15일호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김일성주석로작출판위원회》는 1972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와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그리고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 혁명적 인민들의 공동투쟁은 승리할것이다》의 표제를 단 문헌집을 출판보급하였다. 또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출판하였다.

신문《아프톤 블라데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엑스 프레쎈》은 수령님께서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 《다겐스 뉴헤테르》는 그이께서 일본 《마이니찌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각각 실었다.

스웨리예는 1972년 유엔총회 제27차 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미제의 부당한《제안》을 반대투표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였다.

1972년 10월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는 수도 스톡홀름에서 조선영화상영주간을 설정하고 불멸의 기념비적명작인 우리 나라 천연색광폭예술영화《꽃파는 처녀》를 대성황리에 상영하였다. 또한 이해 1월 스톡홀름에 있는 에따할렌회관에서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사진 및 공예품전람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와 스웨리예사이에는 친선의 왕래가 더욱 늘어나고있다.

1972년 10월 스웨리예사회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0월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2년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스웨리예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책임자이며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서기, 스웨리예《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이며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집행위원, 중국주재 스웨리예대사, 스웨리예 진보적작가가 각각 우리 나라에 왔다갔다.

1973년 2월에는 스웨리예외교부장 특별고문을 단장으로하는 외교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회그루빠대표단이 스웨리예를 방문하였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왕국)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서쪽에 있는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산줄기를 국경으로 스웨리예와 린접하고있으며 서북과 남쪽으로는 바다를 끼고있다. 온대해양성기후에 속하는 이 나라는 1월 평균기온이 북부에서 령하3°C, 남부에서는 2°C정도이다. 해안지역의 강수량은 2천~3천mm인데 내륙지역은

350mm밖에 안된다.

【넓이】 32만 4,219km²

【인구】 390만명(1971년 1월)

주민의 대부분이 노르웨이인이며 그밖에 싸미인, 크베인, 스웨리예인 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노르웨이어

【수도】 오슬로(주민 48만 7,363명, 1970년)

【국왕】 올라프 5세(1957년—)

【국회】 상하량원제, 최고립법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다. 총의원 150명중 38명을 선출하여 상원을 구성한다. 하원의석은 112명이다. 1969년 9월 선거결과 레이버당이 74석, 보수당이 29석, 중앙당이 20석, 기독교인민당이 14석, 자유당이 13석을 차지

【정부】 1972년 10월 기독교인민당, 중앙당, 자유당의 련립정부 구성

총리 타르스 코르발트(1972년 10월 16일—), 외교부장 다그핀 바아르비크, 국방부장 요한 클레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3년 11월 4일에 창건, 위원장 레이다르 테라르센. **사회인민당, 레이버당, 호이레당**(보수당), **기독교인민당, 중앙당, 자유당, 로조중앙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동맹,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 1968년 10월 결성.

정치 노르웨이는 1814년에 스웨리예와 련맹을 이루고있었으며 1905년에 이 련맹의 해산과 함께 독립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 5월에 해방되였다.

노르웨이는 침략적인 나토성원국이며 오슬로에는 《나토북부군사령부》가 있다.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전까지의 기간에 국회에서 다수파를 차지하고있던 레이버당이 1935년부터 28년간 계속 정권을 장악하고있다가 1963년 8월 스삐쯔베르겐제도에 있는 탄광에서 큰 재해가 발생된것과 관련하여 물러나고 《보수련립정부》(보수당, 중앙당, 자유당, 기독교인민당)가 수립되였다. 그러나 4주일만에 레이버당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1965년의 총선거에서 레이버당이 패배한후 정권은 보수적인 4당련합의 수중에 들어갔으나 1971년 3월 구라파 《공동시장》가입을 둘러싼 내부 분쟁과 분렬로 하여 이 내각은 해체되고 레이버당 당수가 소수파내각을 꾸렸다.

1972년 10월 레이버당정부는 구라파 《공동시장》가입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총사직하고 《공동시장》가입반대파인 기독교인민당, 중앙당, 자유당들의 소수파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노르웨이는 1964년 10월 미제의 《다각적핵무력》창설안을 반대하였으며 1957년말의 《나토리사회》에서 미제에 원자기지를 제공하는것을 반대하였다.

또한 노르웨이정부는 1968년 6월의 《나토각료리사회》에서 나토의 지중해무력을 강화할데 대한 미제의 제의를 거부하였으며 그리고 남부웰남에 고용병을 파견해 달라는 놈들의 파렴치한 요구를 거절하였다.

한편 이 나라는 일련의 사회주의나라들과 국가 및 경제적관계를 맺고 이를 발전시키려하고있다.

경제, 사회 경제에서 주요한 부문은 해운업, 수산업, 림업 및 목재가공업, 알루미니움, 야금공업이다.

공업생산이 국민소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년평균 전력생산은 572억kwH에 달한다.

팔프 및 제지공업이 발전하였는데 이것은 수출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식량은 자체수요의 10%를 보장함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농촌경리에서 주요한 부문은 소젖 및 고기 생산을 위한 축산업이다. 집짐승은 소(약 90만마리), 양(190만마리)과 돼지(7만마리) 등이다.

노르웨이상선대는 외국의 화물과 려객을 날라주고 많은 수입을 얻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목재, 팔프 및 종이, 수산물, 쇠돌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직물, 연료, 금속제품, 기계설비 등이다.

【출판보도】 **통신** 엔티비(노르웨이통신)

신문 프리 헤렌(공산당기관지), 아르바이데르, 다그블라데르(자유당기관지), 아르바이데르 블라데르(레이버당기관지), 쏘시알리스티스크 폴케파르티(사회인민당기관지), 오리엔떼링(사회인민당주간지), 폴케쯔 프람티드(기독교인민당기관지), 아프텐 포스텐(보수당기관지), 나티오넨(중앙당기관지).

방송 노르웨이방송, 노르웨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6월 22일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 9월에 노르웨이주재 우리 나라 공보부가 오슬로에 개설되였다.

1968년 10월 10일에는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고 1972년 2월 28일에는 오슬로에서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노르웨이 조선련대성위원회 결성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지지로 됩니다.》

이 단체는 우리 인민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행사들을 조직하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1972년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노르웨이영화협회와 오슬로시 영화국의 주최로 우리 나라 영화상영주간이 노르웨이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영화상영주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불후의 기념비적명작들인 《꽃파는 처녀》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예술영화들과 기록영화들이 상영되여 이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72년 12월 10일과 11일 이틀동안에 걸쳐 단마르크의 수도 꾀뻰하븐에서 북구라파나라들에 있는 조선과의 친선협회들의 첫 련합회의가 진행되였는데 이 회의에 참가한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 대표는 우리 나라와의 친선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인민의 모든 빛나는 성과를 자기 나라 인민대중속에 널리 선전할것을 결의하였다.

1972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노르웨이공산당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노르웨이의 《뉴 다그》출판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등 여러 로작들을 계속 출판하고 있으며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수록한《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노르웨이자유당기관지《다그 블라데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실었다.

1969년 11월에 노르웨이공산당위원장 레이다르 테 라르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 4월 노르웨이대외관계연구소 공보국장과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대표가 우리 나라 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8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노르웨이 외교부대표단이 우리 나라에 왔다갔다.

이해 우리 나라로부터는 의회그루빠 대표단과 영화대표단이 각각 노르웨이를 방문하였다.

이슬란드

(이슬란드공화국)

북대서양의 섬나라이다. 북쪽끝은 북극권에 속하여 여름에는 밤에도 어두워지지않는 백야가 계속된다.

화산과 온천이 많으며 기후는 난류의 영향으로 춥지 않다.

【넓이】 10만 2,846km²

【인구】 21만명(1970년)

주민은 노르드족과 켈족으로 이루어져있다.

공용어는 이슬란드어이며 단마르크어도 쓴다.

【수도】 레이캬비크(주민 8만, 1,476명)

【의회】 상하량원제, 1971년 6월 12일 선거에서 총의석 60석중 련립정부가 32석(인민동맹 10석, 진보당 17석, 자유좌익당 5석), 독립당 22석, 사회민주당 6석 차지.

【대통령】 크리스챤 엘자른(1968년 7월—)

【정부】 1971년 7월 13일 인민동맹(통일사회당통일전선체), 진보당, 자유좌익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총리 올라푸르 요한네쏜(진보당), 외교부장 아이나르 아구스트쏜

【정당, 사회단체】 통일사회당 1938년에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좌파가 련합하여 조직, 위원장 에이나르 올게이르쏜, **인민동맹, 진보당, 자유좌익당, 독립당**(가장 큰 우익정당), **사회민주당, 로조련맹, 전투적사회주의조직.**

정치 이슬란드는 1944년에 단마르크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하였으며 같은해 6월 17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9년에 침략적인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1951년 5월에는 미제와 《방위조약》을 맺었다. 케플라비크에는 나토군사기지가 있으며 여기에는 3천~4천명의 미제침략군이 둥지를 틀고있다.

1971년 6월 13일 국회선거가 진행되였으며 7월 13일 요한네쏜을 총리로 하는 인민동맹(통일사회당 통일전선체), 진보당, 자유좌익당을 망라한 새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새 정부는 7월 14일 이슬란드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의 철수, 예속적인 군사조약의 폐기, 케플라비크 군사기지폐쇄를 요구하였다.

1972년 9월에는 이슬란드연해에서 대구를 마구 잡아간 영제국주의자들의 략탈로부터 자기 나라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50마일령해권을 선포하였다. 1973년초부터는 경비정을 동원하여 이 수역에서 영국어선들이 함부로 고기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단속하였다.

이렇게 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무장함선들을 파견하여 로골적인 군사적압력을 가하면서 이슬란드가 자기의 어장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려고 책동하였다.

1973년 5월 20일 이슬란드정부는 영국의 군사적간섭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영국군용비행기들이 케플라비크에 있는 나토기지를 포함하여 모든 비행장들에 내리는것을 일체 금지시켰으며 5월 21일에는 영국주재 이슬란드대사를 소환하였다.

경제, 사회 어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룬다. 이슬란드는 세계어장의 하나인 북해어장을 통하여 청어와 대구를 잡았다. 어획고의 70%는 대구이다.

지하자원은 이슬란드장석, 갈탄, 류황 등이다. 공업은 물고기잡이와 그 가공에 기초하고 있다. 공업부문에는 주민의 3분의 1이상이 종사한다.

농촌경리의 기본은 면양기르기와 젖생산이다. 부침땅의 대부분은 방목지 또는 먹이작물 재배지로 리용되고 있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주요수출품은 물고기와 물고기가공제품, 육류 등이다. 물고기와 그 가공품은 이나라 대외수출의 80—90%를 차지한다.

1970년에 물고기생산량은 73만 3천 800t이였다.

【출판보도】 신문 알리두 블라디드(사회민주당기관지), 모르군 블라디드(독립당기관지), 티민(진보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5월 22일 이슬란드정부는 우리 나라를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1971년 6월에 이슬란드전투적사회주의조직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단마르크

(단마르크왕국)

서부독일의 북쪽에서 남북으로 길게 뻗은 유틀란드반도와 주변의 500여개 섬들로 이루어졌다. 서쪽으로는 북해를 끼고있으며 북쪽과 동쪽은 발찍해를 사이에 두고 노르웨이, 스웨리예와 마주하고있다.

년평균기온은 6~8°C이다. 해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그리 춥지 않으며(0°C) 여름에는 서늘하다(16°C정도). 년평균강수량은 600mm이다.

【넓이】 4만 3,069km²

【인구】 492만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은 덴족이며 그밖에 약간의 독일인과 프랑스인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단마르크어

【수도】 쾨벤하븐(주민 81만 9,105명)

【국왕】 마르가레테 녀왕 2세(1972년 1월—)

【의회】 일원제, 임기는 4년이다. 의원은 모두 183명, 1971년 9월 선거결과 사회민주당 70석, 보수인민당 31석, 벤스트레당 30석, 급진 자유당 27석, 사회주의인민당 17석, 좌익사회주의당 2석, 공산당 1석, 기타 5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총리 안케르 예르겐센(1972년 10월—), 외교부장 안데르센, 국방부장 겔드 올레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11월 19일 창건, 위원장 크누트 에스페르센. **사회민주당**(집권당), **보수인민당, 급진자유당, 벤스트레당**(자유당), **사회주의인민당, 좌익사회주의당, 로조중앙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단마르크조선친선문화협회** 1968년 10월 결성.

정치 14세기말에 단마르크는 노르웨이, 스웨리예, 이슬란드와 함께 하나의 왕국으로 있었다.

1523년에는 스웨리예와 1815년에는 노르웨이 및 이슬란드와 각각 분리하였다.

1940년 4월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 5월 해방되였다.

단마르크는 침략적인 나토성원국이며 미제와 《그린렌드공동방위조약》을 맺었다. 1961년 12월에 서독군국주의자들과 함께 《발찍해합동사령부》를 조작하였다.

1971년 9월 21일 총선거결과 10월 11일 사회민주당정부가 새로 구성되였다.

단마르크정부는 최근년간 외국군대의 주둔, 핵무기반입, 원자력잠수함의 기항을 반대하는 립장을 밝히였고 나토로부터 군대를 축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회주의국가들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단마르크는 또한 북구라파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설된 《북구라파리사회》의 성원국이며 1962년에 북구라파 4개국과 함께 《북구라파협력조약》을 체결하였다.

단마르크인민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정책과 독점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생활조건의 개선,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경제, 사회 공업의 주요부문은 축산물 및 수산물 가공, 기계제작과 조선업이며 공업원료와 설비의 대부분을 수입하고있다. 금속공업에서 주되는것은 내연기관(특히 선박내연기관), 세멘트생산설비, 랭동기, 뻐터제조기, 자전거 생산이다.

주요공업제품들가운데서 년평균 석유제품은 860만t, 강철은 47만t, 세멘트는 235만t, 린비료는 9~11만t, 질소비료는 7만 5천t 생산된다.

해상운수가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농업은 축산업을 위한 먹이작물재배에 치중되고있으며 식량은 외국에 의존하고있다. 축산물(뻐터, 돼지고기, 닭알)생산이 농업총생산량의 90%, 수출의 60%를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고기, 뻐터, 선박, 화학제품, 사탕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석탄, 원유제품, 알곡 등이다.

【출판보도】 **통신** 아르비(단마르크통신)

신문 란드 오그 폴크(공산당기관지), 아크 투엘트(사회민주당기관지), 베를링스케 티덴데(보수당기관지), 블라데트(사회인민당주간지), 펀스 티덴데(온건자유당기관지), 폴리티겐(급진자유당기관지).

방송 단마르크방송, 단마르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에 단마르크주재 우리 나라 공보부가 개설되였으며 1968년 10월 10일에는 단마르크조선친선문화협회가 결성되였다.

1973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된 단마르크공산당 제24차대회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할것을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단마르크에서는 우리 나라를 승인할데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단마르크좌익사회주의당은 1972년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3대원칙이 담겨진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2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동안에 코펜하븐에서 단마르크조선친선문화협회를 포함한 북구라파나라들에 있는 조선과의 친선협회들은 첫 련합회의를 가지고 우리 나라와의 친선을 더욱 강화하며 특히 자기 나라 정부들에 우리 나라와 완전한 외교관계를 수립할것을 요구하는 일치한 활동을 전개하며 조선인민의 모든 빛나는 성과들을 자기 나라 인민들속에 널리 소개선전할것을 결의하였다.

단마르크의 40개 청년단체들이 망라되여있는 단마르크청년조직위원회는 우리 나라와 단마르크사이에 외교관계를 수립할것을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코펜하븐에서는 두 나라간의 관계를 확대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삼는 위원회가 창설되였다.

1972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에는 조선영화상영주간을 가지고 이 나라의 수도 코펜하븐과 지방도시에서 9차에 걸쳐 우리 나라 영화가 상영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문예사상을 구현하고있는 불후의 기념비적명작들인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포함한 3편의 예술영화, 2편의 기록영화가 상영되여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으며 우리 나라와 단마르크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72년에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와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를 단마르크조선친선문화협회가 단마르크어로 출판하였다.

단마르크《크레스티안 데일리 뉴스》출판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비롯한 그이의 로작들을 계속 출판보급하고있다.

1972년에 신문《폴리티겐》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실었다.

1972년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단마르크외교부 정치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외교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단마르크외교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뒤 1973년 3월 7일 이나라 외교부장 안데르센은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수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하였다.

1971년 8월에 우리 나라에 왔다간 단마르크조선친선문화협회대표단은 1972년 4월에 또다시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평양에서 진행된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1972년 8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단마르크국회의원그루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1월에는 2명의 단마르크외교관이 우리 나라에 왔다갔다.

1972년에 우리 나라로부터는 의회그루빠대표단이 단마르크를 방문하였다.

영 국

(대브리텐 및 북아일랜드련합왕국)

구라파대륙의 서북쪽에 있는 섬나라이다. 대브리텐섬과 그밖의 섬들 그리고 아일랜드섬의 북부 6개주로 이루어져있다.

기온은 겨울에 4~7°C, 여름에 13~14°C, 년평균강우량은 북부에서 2천~3천mm이다.

【넓이】 24만 4,030km²

【인구】 5,553만 4,000명

대부분이 앵글로삭손족, 일부 켈트족이 스코틀랜드에 산다.

언어는 영어

【수도】 런던(주민 761만 2,280명, 1970년추정)

【국왕】 녀왕 엘리자베스 2세(1970년—)

【의회】 상하량원제, 1911년 《의원법》에 의해서 하원이 심의에서 우위에 있으며 1949년에는 상원의 심의연기권을 1년으로 단축하였다.

상원은 왕족, 귀족, 대주교와 주교 등으로 구성되였으며 의원수에는 정원이 없다. 현 의원수는 1,060명, 그중 세습귀족이 대다수를 차지, 하원은 총선거에 의해 선출되는데 정원은 630명, 총회기는 5년간이다. 의장은 취임중 소속 당적을 떠나며 찬부 동수인 경우에만 표결에 참가할수있다. 현 하원은 1970년 6월 18일 총선거에 의해 구성되였는데 보수당 327, 레이버당 287, 자유당 6, 기타 6, 결원 3, 의장1.

【정부】 현내각은 1970년 6월 총선거후에 구성, 총리 에드워드 히스, 외교부장 알레크 더글러스 흄, 국방부장 캐링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7월에 창건, 총비서 존 골랜,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위원장 레그 버치, **보수당**(집권당), **레이버당**, **자유당**, **로동조합콩그레스**, **공산주의청년동맹**, **청년행동리사회**, **영국조선무역회** 1971년 9월 결성, **영국조선친선협회** 1972년 1월 결성.

정치 1세기 중엽부터 로마에 의한 군사적점령이 시작되였으며 5세기중엽 이후 앵글로삭손왕국 형성과정에 봉건화과정이 시작되여 7세기초에 7개왕국들이 통일적인 왕국으로 련합되였다. 1066년에 노르만왕조가 세워져 봉건관계가 발전하고 중앙집권력이 강화되였다. 1265년 당시 왕과 바론 (세습적귀족)들은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타협하였다. 이것이 곧 영국에서 의회의 발생으로 되였다.

13세기부터 화폐지대에로 넘어갔으며 백년전쟁(1337—1453년)과 그후 계속되는 봉건들의 개싸움을 거쳐 절대군주적튜더르왕조가 세워졌다. 15세기말—16세기부터 자본의 시초축적이 시작되고 그 대변자인 부르죠아지와 신귀족들이 형성되였다. 1640년대에 영국부르죠아혁명이 일어나 두차례의 혁명전쟁(1642—1646년, 1648—1649년)의 결과 영국은 부르죠아지의 공화국으로 선포되였다.

영국에서의 자본주의발전은 식민지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략탈에 의하여 진행되였다. 영국은 이미 12세기에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17—18세기에 영식민주의자들은 해외통상과 식민지쟁탈을 위한 싸움에서 인도와 북아메리카의 넓은 땅을 강점하였으며 카나다를 빼앗아내고 흑인노예무역을 독점하였다.

18세기후반기—19세기초에 산업혁명이 수행되고 공장, 제조소 생산체계가 세워졌다.

19세기 30—40년대에 로동자들의 첫 대중적인 투쟁인 《챠드스트운동》이 벌어졌다.

제국주의단계로 들어선후 영국에서 금융과두정치가 형성되였으며 영국침략자들은 식민지략탈에 더욱 미쳐날뛰였다.

영제국주의는 제1차세계대전도발에 적극 참가하였다. 영국반동지배층은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국가들과 함께 쏘베트로씨야를 반대하는 무력간섭에 적극 참가하였다.

1920년에 창건된 공산당의 지도밑에 쏘베트공화국에 대한 영제국주의의 무력간섭을 반대하는 대중적운동이 벌어졌다.

1925년, 1927년에는 중국에 대한 무력간섭을 감행. 1930년후반기 일본제국주의의 중국동북침략, 에티오피아에 대한 파쑈이딸리아의 침략(1935—1936년), 에스빠냐공화국에 대한 독일, 이딸리아의 무력간섭에 《불간섭정책》을 실시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938년에 악명높은 《뮨헨협정》에 참가하여 히틀러도당에 의한 제2차세계대전의 도발을 촉진시켰다. 영제국주의는 파쑈독일의 침공의 창끝이 제놈들에게 돌려지자 1939년 9월 3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식민지 및 예속국가들에서 반제민족해방투쟁이 앙양되여 영제국주의의 식민지체계는 재빨리 무너지고 그 지위는 날로 약화되였다.

전후 미제와 함께 침략적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동남아세아조약기구》(세아토)를 만들어냈으며 서독군국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빠리협정》에 조인하였다. 1956년에는 미제와 프랑스 및 이스라엘과 함께 애급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또한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정책에 추종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 영제국주의자들은 조선침략에 있어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직접 지지하였다.**》(《김일성선집》, 4권, 1954년판, 395페지)

영국침략자들은 1883년 우리 나라에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강요, 1885년 4월부터 1887년 4월까지 우리 나라의 거문도를 강점하였다가 쫓겨났으며 1902년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영일동맹》을 맺고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을 적극 부추겼다. 또한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1950—1953년)에 침략군을 파견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972년 27차 유엔총회에서 조선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미제가 꾸며낸 조선문제토의 연기안에 찬성투표하였다.

【주요사건】 서구라파와 《공동시장》 성원국들간에 영국의 《공동시장》 가입을 접수하는 조약을 체결(1972년 1월 22일)하는데까지 밀어온 히스 보수당정부는 런던금융계가 서구라파공동체경제쎈터로서의 역할을 놀게 할 야심밑에 1972년에 《구라파인의 구라파》건설에 더욱 열을 올렸다. 그리하여 히스는 5~6월어간에 프랑스, 서독, 벨지크, 단마르크, 이딸리아 수뇌자들과 각각 만나 확대구라파 《공동체》 수뇌자회담준비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에 돌아쳤다. 한편 영국보수당정부는 2월 16일에 발표한 《국방백서》와 10월에 열린 보수당년차대회에서 미제에 추종하여 나토를 강화하며, 페르샤만과 인도양에서 《군사적영향력》을 유지하며, 동남아세아에서 침략책동을 강화할데 대한 야욕을 드러내였다.

국제정세발전의 불리성에 당황한 보수당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1950년 1월 6일)한지 22년만에 3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대만을 중국의 한개 성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대리대사급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켰으며 10월에는 흄외교부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희붕비중국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다. 히스는 일본과 《새로운 관계의 설정》을 위해 9월에 직접 일본을 방문하였다. 또한 히스정부는 흄의 텔아비브방문(3월 21일—23일)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판매 금지조치의 실제적인 취소, 영함대의 예멘령해침범(4월 15일), 레바논에 무기를 수출할데 대한 협정체결(5월 15일), 흄의 쎈토년차회의 및 세아토각료리사회 참가 등을 통해 군사정치적침략책동에 미쳐날뛰였다. 한편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증가(1970년의 1억 8,850만 파운드보다 23%—4,340만파운드 증가)하고 2—7월간에 흄의 인도, 타이, 남조선, 파키스탄, 방글라데슈,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동남아세아에서의 정치, 경제적 침투에 돌아쳤다.

영국은 1973년 1월 1일 《구라파공동체》의 정식 성원으로 되였으나 히스정권의 위기는 더욱 첨예해졌다. 1972년 7월 보수당계 신문인 《대일리 텔레그라프》의 캘럽여론조사에 의하면 히스정권에 대해 《만족》을 표시한 수는 겨우 35%밖에 안되였다.

이해에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영국로동계급의 혁명적진출은 그 어느해보다 강렬하였는데 히스정부는

2차에 걸쳐 《비상사태》를 선포(2월 9일, 8월 3일)하고 류혈적인 탄압을 들이댐으로써 그 반동성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민주주의적권리와 영제국주의자들의 압박을 반대하는 북아일랜드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또한 맹렬하였다.

3월에 진행한 히스—퐁피듀회담에서는 확대구라파 《공동시장》의 정치적통합을 추진시킬 사무국설치장소문제에서 주도권과 관련시켜 로골적으로 대립되였다.

히스—브란트회담(4월 20일—21일)에서는 구라파 《공동체》의 장래문제를 모의하였다.

히스—다나까회담(9월 18일—19일)에서 일본은 영일무역에서의 영국의 결손을 시정할 목적으로 히스가 관세를 낮출데 대한 요구를 무조건 거부해나섰다.

인민투쟁 1972년에 영국로동계급의 혁명적진출은 투쟁건수의 장성에서나 투쟁의식의 완강성에 있어서 전례에 드물게 강렬했다. 영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해 1—10월기간에 전개된 로동자들의 파업건수는 1,795건, 참가인원수는 1,473만명, 상실로동일수는 2,300만일로서 1971년 같은 기간보다 참가인원수는 43만명, 상실로동일수는 거의 2배로 늘었다.

로동자들의 투쟁은 조선, 자동차공업을 비롯한 건설, 철도, 항만, 항공 등 산업전반부문을 포괄하였다. 전국 289개의 탄광 로동자 30만명의 파업으로 시작되여 1—2월에 걸쳐 42일간 계속된 탄광로동자파업, 6—8월에 걸쳐 약 30만이 망라된 부두로동자파업은 영국산업을 마비시키고 히스반동정권을 궁지에 빠뜨렸다. 히스도당은 이 파업들에 매번 《비상사태》선포로써 탄압해나섰으나 그때마다 항만, 철도, 전력, 금속 등 전국로동자 총파업의 완강한 투쟁으로 대답하였으며 지어 프랑스, 이딸리아, 화란 등 여러 나라 부두로동자들도 합세하여 영국배들에서 짐을 싣고부리는 일을 일체 거부해나섰다.

히스반동정부는 두차례나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나 끝내 굴복하고야 말았다.

경제, 사회 1972년에 영국경제는 공업생산의 침체, 물가의 높은 올음세, 끝없는 통화팽창과 파운드화의 위기로 말미암아 《최근 100년래의 가장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반면에 자본의 집적과 집중화 과정은 더욱 촉진되여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경제적모순을 더욱 날카롭게 했다.

히스반동정부는 이해에 통화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물가인상, 임금동결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파운드화를 위기에서 건져보려고 변동시세제를 받아들이고 공정리률을 크게 올렸다. 따라서 공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줄었으며 일련의 공업분야에서 파국적인 사태가 조성되고 로동자들의 대량해고가 빚어졌다.

한편 공업생산의 침체는 외국공업제품들이 국내시장에서까지도 영국상품을 밀어제끼고 대외무역에서 만성적인 결손을 더욱 심화시켰다.

가공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1—9월 기간에만도 1971년의 같은 기간보다 11%가 줄었다. 그중에서도 기간공업부문들인 조선, 기계, 금속, 화학 공업부문들에서의 투자의 감소는 급격했다.

1972년에 선박공업부문에 대한 주문액은 1971년보다 18%, 1968년보다 3분의 1이나 줄었다. 특히 이해 3.4분기에는 선박건조주문액이 최근 30년래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위기를 빚어냈는데 영국의 주요기간공업부문의 하나인 선박공업부문에서 계속된 위기는 이 나라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해 1.4분기기간 공업생산지수는 지난해 4.4분기보다 2.7%, 공업생산액은 3억 1천 200만파운드나 줄었다.

영국은 1972년에 무역수지에서 14억 파운드의 적자를 냈다. 특히 무역에서의 결손은 최근년간 평균 8천 500만파운드에 이르고있다.

1971년에 일본상품수입이 1.5배로늘어난 반면에 대일수출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1971년의 대일무역의 실태를 보면 수출 4억 1천700만딸라에 대해 수입은 5억 7천 400만딸라로 1억 5천 700만딸라의 결손을 냈다. 이와 같은 무역적자는 1972년에 더욱 확대될것이 예상되는데 9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같은 달의 2.5배로 불고있다. 이러한 증대는 주로 영국회사들이 판매경쟁전쟁에서 밀려나고있는 상품들인 선박, 자동차, 상용전기기구의 납입이 확대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이해 첫 4개월동안에 자동차의 수입은 6배로 늘었다.

금보유량은 경제의 계속되는 쇠퇴, 통화팽창의 격화와 만성적인 대외무역의 결손으로 말미암아 1972년에 전년보다 거의 10억딸라나 줄어들었다. (1971년말 금보유량은 65억 6천 700만딸라) 6월말 현재 실질적인 금 및 외화준비의 감소액은 25억딸라가 넘을것으로 추산되였다.

이해에 파운드화페는 히스도당이 집권(1970년 6월)한 이래 그 구매력이 18%나 폭락하였다. 1972년 10월말현재 서구라파시장들에서 파운드시세는 2.35딸라로 떨어져 제2차세계대전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떨어졌으며 파운드시세의 폭락으로 영국주식시장들에서는 주권방매소동을 빚어냈다.

히스정부는 파운드위기의 모면책으로서 6월 23일 파운드의 변동시세제이행을 발표하는 한편 변동시세실시에 따르는 자본도피를 막기 위해 25일에는 파운드지역이외의 나라들에 대한 외환관리를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파운드지역내 나라들에 대한 새로운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변동시세제실시에 하루 앞선 22일에는 공정리률을 5%로부터 6%로, 12월 22일에는 9%까지 끌어올렸다. 이해의 공정리률인상은 1967년 11월 23일의 8%를 릉가하여 1941년 8월초의 10%의 최고기록을 반이래 50년래의 최고수준이다.

영국에서 자본의 집중화는 최근년간 더욱 촉진되여 1972년에 기업체들의 병합은 1971년보다 366건이 더많은 1천210건이라는 전례에 없는 기록을 냈다. 그러하여 전체 주민의 5%밖에 안되는 재벌들이 영국전체 회사주권의 90%를 장악하고있다. 이와 같은 집중화과정에 수많은 중소기업체들이 파산당하고있는데 1971년에 그것은 4천367건이였다.

최근자료에 의하면 영국에서 미국독점체들의 투자액은 140억—160억딸라로 추산되고있으며 미국회사들은 영국경제의 12%이상을 틀어잡고있다.

영국 생산 및 고용부 발표에 의하면 1972년 1월 현재 완전실업자수는 102만 4천명이였으나 2월에 들어와 그것은 161만 7천900명으로 한달동안에 59만 4천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자동차공업부문에서 실업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웨스트미들랜드지역에서만도 20만명의 실업자가 불었다. 이달 월간실업률은 13%로 1947년이래의 최고기록이다.

1965년에 700만명이였던 극빈자수는 1973년초 현재 900여만명으로 불었다.

최근 2년동안에 소매가격은 17.3%가 올라갔으며 특히 1972년말부터 식료품값이 많이 올라 근로자들을 위협하고있다. 집값은 1972년에 47%, 일부지역들에서는 70%가 뛰여올랐다. 이해 3월 히스반동정부는 집세와 각종 연료값을 2배로 올려 치달리기만하는 물가에 더욱 부채질을 하였다.

히스도당이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40여만명의 가난한 주민들이 전기세와 가스사용료를 물지 못해 불도 땔것도 없이 한겨울을 났다. 영국에서는 겨울철이면 6만명의 늙은이들이 길가에서 얼어죽거나 병들어죽는다.

영국에서 범죄건수는 1971년에 무려 164만여건, 1970년보다 5.8%가 늘었다. 그중 살인, 강도와 같은 엄중한 범죄건수는 14.5%가 증가하고있다. 1972년에 범죄는 더욱 늘어 런던시에서만도 전년보다 7%나 되는 증가를 보였다. 영제국주의침략군속에서 마약중독자는 최근 2년동안에 2배로 증가되였다. 《마약중독방지》를 위한 특별기구까지 만들어놓는 형편에 이르렀다.

【출판보도】 **통신** 로이터, 프레스 아소시에이슌, 엑스췌인지 텔레그라프 **신문** 모닝스타(공산당기관지), 데일리 텔레그라프(보수당계), 데일리 미러(레이버당계), 가디언(자유당계), 타임스.

우리 나라와의 관계

런던에서 1971년 9월 영국조선무역회가, 1972년 1월 영국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11월 22일 평양에서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영국조선무역회사이에 무역협정이 조인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묶은 문헌집 《혁명적문학예술에 대하여》를 1972년에 런던에 있는 《아프리카》사에서, 그이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의 승리》를 《아프리카 매가진》출판사에서 각각 영문판으로 출판하였다.

1972년 4월 런던 《레드 모올》지 주필 타리크 알리가 평양에서 진행된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 4월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3년 3월 15—24일에 걸쳐 평양만수대예술단이 쌔들러즈 웰즈극장에서 런던시민들의 열광적인 절찬을 받으면서 공연, 《세계최고봉의 주체예술》의 위력을 시위하였다.

북아일랜드 문제

영제국주의자들은 12세기에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제1차세계대전중 아일랜드에서 반영투쟁이 세차게 일어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1921년 12월에 분리하여 통치하는 수법으로 아일랜드 32개주가운데 남부아일랜드(26개주)와 북아일랜드(6개주)를 분리시켜 형식상《자치권》을 부여하고 식민지통치를 계속하여왔다(현재의 아일랜드인 남부아일랜드는 1949년 영련방에서 떨어져나와 독립). 영제국주의자들은 북아일랜드에서 소수파 카톨릭교계통의 주민(인구의 35%)과 다수파 프로테스탄트교계통의 주민간에 민족리간책동을 악랄하게 벌려 대립을 첨예화시키고 두 교파들간에 충돌을 야기시킴으로써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려고 책동하였다.

1968년 10월에 있은 두 교파들간의 충돌은 1969년 7—10월에 걸쳐 또다시 빚어졌으나 이 시기부터 북아일랜드인민들은 강력한 반영투쟁을 전개하여 그곳을 혁명의 폭풍지대로 전변시켰다.

1971년에는 새해벽두부터 년중을 통해 맹렬한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렸는데 8월 9일 영국 보수당정권은 강도적 《비상권력법》을 적용하여 1천여명의 주민을 체포 투옥하고 침략군을 년초의 9천명으로부터 1만 5천명으로 늘여 군사폭압통치를 강화했다.

1972년 1월 30일에는 런던데리에서 2만여명의 주민들이 시위투쟁에 나섰는데 영제국주의자들은 군경 1만 5천 200명과 락하산부대까지 내몰아 주민들을 학살함으로써 《피의 날》을 기록했다. 3월 24일 제놈들이 조작해낸 북아일랜드 《국회》와 《정부》마저 해산하고 영국정부의 《1년간 직접통치》를 선포하였다. 3월 27, 28일에는 투쟁이 더욱 치렬해져 10만명의 광범한 계층이 참가한 북아일랜드력사상 《최대규모》의 반영시위와 30만명으로 확대된 파업투쟁은 북아일랜드 전지역을 불도가니로 타번지게 했다.

북아일랜드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전률한 영제국주의자들은 침략무력을 계속 들이밀어 벨파스트, 런던데리, 아마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악랄한 《군사작전》을 벌려 애국적인민들을 수색, 체포,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7월 7일에는 아일랜드공화국 립시본부대표와 영국북아일랜드국무부장간에 회담이 열리여 아일랜드공화국대표는 아일랜드에 대한 아일랜드인민들의 자결권의 정식인정, 1975년까지 아일랜드강점 영침략군의 완전철수, 영국 및 아일랜드 지역내에 감금하고있는 정치범의 전면석방과 수사망의 해제 등 4개항목의 최후통첩을 들이댔다.

10월 30일 히스반동정부는 《북아일랜드의 장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1973년초 남북아일랜드의 통합에 관한 북아일랜드 주민투표를 실시하며 1년간의 《직접적통치》기간이 마감되는 1973년 3월까지에 북아일랜드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것을 《희망》한다고 늘어놓고나서는 《만일 필요하다면 직접적통치권한이 연장될것》이라고 제놈들의 더러운 욕심을 드러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공화국)

아일랜드는 북해에 있는 아일랜드섬의 중부와 남부 및 서북부를 차지하고 있다. 동해안은 아이리쉬해 및 센트 조지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마주서있다. 동북부는 영국의 령토인 북아일랜드와 린접하고있으며 다른곳들은 대서양에 잇닿아있다. 화산과 온천이 많다. 흐린날이 많고 짙은 안개가 자주 끼며 가을과 겨울에는 찬비가 내린다.

【넓이】 7만 8,233km²

【인구】 297만명(1971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일랜드인이다.

공용어는 아일랜드어(제1국어)와 영어(제2국어)

【수도】 더블린(주민 66만 3,000명)

【의회】 상하량원제, 60명의 상원의원중 11명은 총리가 임명하며 6명은 대학에서 선출한다. 나머지 43명은 직업별대표, 하원의원수는 144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1973년 3월 하원의원선거결과 공화당이 69석, 통일당이 54석, 레이버당이 19석, 기타가 2석을 차지.

【대통령】 에이몬 데 발레라(1966년 6월—)

【정부】 총리 리암 코스그라베(1973년 3월—), 외교부장 힐러리, 국방부장 크로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3년에 창건(1970년 3월 15일 아일랜드로동당과 북아일랜드 공산당이 통일적인 공산당으로 합당), 총비서 마이클 오리오르단. **피안나 파일당**(공화당) 1926년에 창건, **피네 가엘당**(통일당, 집권당) 지도자 리암 코스그라베, **레이버당**, **신페인당**, **새아일랜드통일공화당**(1971년 9월 창건, 북아일랜드와의 통합을 주장), **로동련맹**.

정치 12세기이래 영식민주의자들의 예속하에 있다가 1921년 12월에 아일랜드의 32개주중 26개주가

아일랜드 자치령으로 되였다. 1937년에 영련방내에서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1948년에는 이 련방에서 떨어져나와 완전한 독립국으로 되였다.

북부지역(6개주)은 영국에 병합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공화국선포이래 공화당이 집권하고있다.

1973년 3월 총선거가 실시되였으며 3월 14일에는 통일당과 레이버당 련립내각이 구성되였다.

1971년 10월에 진행된 아일랜드공산당 제15차대회에서는 절박한 민족경제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일랜드공산주의자들의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공화당출신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아일랜드의 재통합문제와 그리고 파쑈적인 탄압정책을 실시하고있는 북아일랜드정부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영제국주의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강경한 태도로 맞서기를 주장하고있다.

경제, 사회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농업 특히 목축업이다. 농산물은 대부분 집짐승먹이작물과 사탕무우, 아마 등이며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집짐승은 소(뿔이 없는 검은 소), 양, 말 등인데 1972년현재 소는 약 600만마리, 양은 400여만마리, 말은 12만 4천마리였다.

공업부문에서는 축산물, 식료품, 가죽 가공업이 기본이며 이것은 이 나라 가공공업총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

주요품목으로는 뻐터, 소젖, 고기, 맥주와 술, 담배, 가죽, 직물등이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과 그 가공품(고기, 뻐터, 양털, 가죽)이며 수입품은 석탄, 자동차, 비료, 전기기구 등이다.

1972년초 현재 미제는 7천만파운드, 서독군국주의자들은 1천 100만파운드, 화란은 500만파운드, 영제국주의자들은 2천 800만파운드(1970년)를 이 나라에 각각 투자하고있다.

1972년현재 이 나라에 건설된 500개의 새로운 기업소들가운데서 350여개는 외래독점자본의 소유로 되여있으며 외래자본총액은 약 1억파운드에 달하였다.

1966~1967년현재 중학교는 588개, 대학은 2개였다. 주민의 88%는 카톨릭교도이다.

【출판보도】신문 아이리쉬 프레스(무소속), 글레아스(피안나 파일당기관지), 유나이티드 아이리쉬맨(신페인당기관지), 이브닝 헤랄드(무소속), 아이리쉬 타임스, 이브닝 프레스.

방송 아일랜드방송, 아일랜드텔레비존방송.

화 란

(화란왕국)

구라파대륙의 북서부에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100m이하의 낮은 지대이며 령토의 4분의 1은 바다물표면보다도 낮은 지대다. 기후는 해양성기후이며 강수량은 650~700mm이다.

【넓이】 3만 3,162km²

【인구】 1,310만명(1970년 12월)

주민의 대부분은 화란인이다.

국어는 화란어

【수도】 암스테르담(주민 104만명), 왕궁과 정부소재지는 헤그(주민 71만 9,000명)에 있다.

【국왕】 율리아나 녀왕(1948년 9월—)

【국회】 상하량원제, 1971년 4월 국회선거

【정부】 1971년 4월 카톨릭인민당, 반혁명당, 기독교력사동맹, 자유민주인민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됨, 총리 피에르 드용(1971년 4월—), 국방부장 뎀 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4월에 창건, 명예위원장 파울 데 그로트, 위원장 헹그 후크스트라, **레이버당, 카톨릭인민당, 자유민주인민당, 반혁명당, 기독교력사동맹.**

정치 방대한 식민지소유국가였던 화란은 1810년에 프랑스에 병합되였다가 1813년에 독립하였다. 1830년에는 화란령토에서 벨지끄가 독립하여 떨어져나갔다.

1945년 8월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가 독립하자 화란은 미, 영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인민을 반대하는 식민지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하였다.

화란은 미제의 침략도구인 나토성원국이며 기타 제국주의 경제, 군사기구들에 가담하였다.

1950년에는 미제의 주구로서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하였다.

1972년에 정부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는 쓰히담시에 있는 《규스또》조선소 로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1월 18일),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각지 금속공업부문로동자들의 처지개선을 위한 파업(2월 7일) 등이 일어났으며 5월 19일에는 헤그에서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수업료를 끌어올리는 반인민적시책에 항의하여 반정부시위를 단행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44%가 공업에 종사한다. 주요공업은 선박건조, 전기기계, 동력기계, 방직, 식료(치즈, 뻐터)공업 등이다. 가공공업의 대부분은 대외시장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대외무역과 해상운수가 발전하였다.

농촌경리에서는 축산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것은 농업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전체 농경지의 절반이상이 방목지와 사료재배지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해마다 밀은 약 60만t, 보리는 약 33만t, 감자는 560만t 생산된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지주들이 전농경지의 70%를 차지하고있다.

1972년 상반년에 물건값은 4.4% 올랐다. 실업자는 11만 7천명이나 된다.

【출판보도】통신 에이엔피

신문 드 바아르 하이트(공산당기관지), 헤드브라이에 볼크 (레이버당기관지), 텔레그라프(중립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2월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화란공산당 중앙위원회 초청으로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벨 지 끄

(벨지끄왕국)

구라파대륙의 서북부, 북해기슭에 있는 나라다. 령토의 대부분은 경사가 느린 언덕과 벌로 되여있다. 기후는 온대해양성기후이다. 1월평균기온은 1~3°C이며 7월평균기온은 14~19°C다. 년평균강우량은 700~900mm이다.

【넓이】 3만 513km²

【인구】 973만명(1971년)

화란계의 프라망인이 약 55%, 프랑스계의 왈룽인이 45%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프라망어이나 독일어도 쓴다.

【수도】 브류쎌(주민 145만 3,500명)

【국왕】 보도앙 1세(1951년—)

【국회】 상하량원제, 1971년 11월 7일 선거결과 공산당 5석, 기독교사회

당 68석, 사회당 59석, 자유진보당 34석을 차지

【정부】 1971년 11월 기독교사회당파 사회당련립정부구성, 총리 가스톤 에이스켄스(1968년 6월—), 외교부장 삐에르 아르멜, 국방부장 반뎀부이난르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9월 4일에 창건, 위원장 마르크 드류모. 기독교사회당(집권당), 사회당(집권당), 왈룽근로자당, 자유진보당, 공산주의청년동맹, 로동총련맹.

정치 벨지끄는 16세기초부터 에스빠냐, 오지리, 프랑스의 지배밑에 있었고 19세기초에는 화란에 통합되여있었다. 1930년에 독립을 쟁취하고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1880년부터는 꽁고를, 1919년에는 루안다와 부룬디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1940년 5월 벨지끄는 히틀러군대에 강점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벨지끄는 《마샬안》을 접수하였고 미제의 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하고있다.

1949년 4월에 침략적인 나토에 가담하였고 1950년에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였다. 브류쎌에는 나토군총사령부를 두고있다. 《구라파공동시장》, 《유라톰》 등을 비롯한 제국주의의 군사, 경제기구에 가담하였다.

1972년에 벨지끄근로자들은 임금을 올릴것과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광범히 투쟁하였다.

1월 19일과 2월 22일 샤를레루아에 있는 야금공들과 《아세크》회사산하 전기기계 로동자 약 1만명이 파업을 일으켰다. 3월 1일에는 벨지끄의 석유화학공업부문로동자들이, 8월 17일에는 《수뻬리아》기계공장로동자들이 파업과 시위투쟁을 벌리였으며 6월 14일에는 은행일군 4만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여기에 5천명의 국영재정금융기관일군들이 합류하였다.

5월 1일 이 나라의 수도 브류쎌에서는 근로자들이《벨지끄는 나토에서 탈퇴하라!》, 《나라의 모든 진보적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반미시위를 벌렸다.

경제, 사회 공업은 주로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나라에 투자된 외국투자액중 70~80%는 미제독점자본이 차지한다.

군수공업이 일면적으로발전하고있으며 따라서 경제의 불균형성이 심하다. 주로 흑색금속공업, 유색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등 중공업에 치우치고있다. 흑색금속공업은 자체의 목스탄과 수입 철광에 기초하고있다. 기계제작공업은 무기, 배, 기관차, 공작기계, 전기기계생산을 주로 한다.

농업은 경제에서 부차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농업총생산의 3분의 2는 축산물이 차지한다. 주요알곡작물은 밀, 귀밀, 호밀, 감자 등이다. 그 생산량은 극히 적어 국내알곡수요량의 절반은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벨지끄는 해상운수를 통한 중계무역에서 적지 않은 리윤을 얻고있다.

주요수출품은 금속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방직제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원유와 그의 가공품, 철광석, 방직원료, 목재, 식량 등이다.

1972년 상반년에 벨지끄에서 물건값은 2.7% 비싸졌다.

1972년 10월 현재 실업자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하여 2만명이 더 많은 9만명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벨지끄통신
신문 드라포 루쥬(공산당기관지), 가제트반 앙트베르뼁, 불크스 가제트.

룩셈부르그

(룩셈부르그대공국)

구라파대륙의 서북부에 있는 내륙국이다. 독일, 프랑스, 벨지끄사이에 끼여있는 작은 나라이다.

국토의 대부분은 아르덴느고원(해발 300~400m)의 산림으로 덮여있고 남부에 평원이있다. 대륙성이 강한 해양성기후이다. 대체로 흐린 날씨이며 낮에도 어둡다.

7월평균기온은 전반적지방에서 17.3°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750~800mm이다.

【넓이】 2,586km²

【인구】 33만 5,000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은 룩셈부르그인이며 독일인, 프랑스인도 많다.

공용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수도】 룩셈부르그(주민 7만 7,463명, 1970년)

【대공】 쟌(1964년 11월—), 국가원수로 된다.

【국회】 일원제, 의원수 56명, 임기 5년, 그중 절반은 3년에 한번씩재선한다. 1971년 12월 선거에서 공산당 6석, 기독교사회당 18석, 사회로동당 21석, 민주당이 11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1969년 2월에 민주당과 기독교사회당 련립내각구성, 총리 피에르 베르네르, 외교부장 가스톤 토른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1월 2일 창건, 1973년 2월 제21차 당대회에서 총비서로 도미니크 우르바니가 재선되였다. 기독교사회당(집권당), 민주당(집권당), 사회로동당, 인민독립운동당.

정치 1842년부터 1866년까지 독일의 예속하에 있다가 1867년의 런던조약에서 비무장《영구중립국》을 선포하였다. 1890년에 대공국으로 되였다.

1차대전시 독일침략군에게 강점당하였으나 그후 다시 독립을 회복하였다.

전후 1921년에 벨지끄와 《경제 및 관세동맹》을 맺고 관세장벽을 철폐하였다. 2차세계대전시기에는 독일침략군의 침입을 받았다.

1948년에 룩셈부르그는 《영구중립》을 그만두고 침략적 《서구동맹》(1948년)과 《나토》(1949년), 《구라파공동시장》 등 제국주의의 정치, 경제, 군사기구에 가담하였으며 자기 나라 전체 병력을 《나토》에 밀어넣었다. 린접국가들과 《관세동맹》을 맺고있다.

1950년에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하였다.

경제, 사회 쇠돌이 많이 매장되여있다. 중요한 공업부문은 쇠돌채굴업과 흑색금속공업이며 이 부문에서 전체 공업로동자의 절반이상이 일한다. 쇠돌채굴업과 흑색금속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약 80%를 차지하며 특히 강철생산량은 그의 70%를 차지한다.

강철과 압연제품의 95%이상이 수출된다.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경공업공장들이 몇개있으나 매우 미약하다.

부침땅은 약 7만 5천ha이며 중요농산물은 밀, 감자, 포도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농업총생산액의 80%는 축산업이다.

주요수출품은 강철(수출의 85%), 금속제품이며 주요수입품은 석탄, 기계, 직물, 알곡 등이다.

국교는 로마카톨릭교이며 화폐는 벨지끄프랑을 쓴다.

【출판보도】 신문 짜이룽 품 레쩨부르게르 폴레크(공산당기관지), 룩셈부르게르 보르트(천주교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룩셈부르그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김일성동지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연구소조》가 조직되여있다. 1972년 8월 이 연구소조책임자 샤를 도에르네르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12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룩셈부르그공산당의 초청으로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프 랑 스

(프랑스공화국)

서구라파에 있는 나라이다. 기후는 대체로 따뜻한 해양성기후이나 산악지방은 추위와 더위의 차가 심하며 남부지중해연안은 아열대성기후이다. 년평균기온은 11°C, 년평균강수량은 500~750mm이다.

【넓이】 55만 1,208km²

【인구】 5,150만명(1972년 1월 1일 현재)

주민의 대부분이 켈트족과 프랑크부르군드족으로 구성된 프랑스인이다. 언어는 프랑스어

【수도】 빠리 (주민 260만 7,625명, 교외의 주민까지 합하면 925만 647명)

【국회】 국민의회(하원)와 참의원(상원)의 량원제이다. 국민의회 임기는 5년, 참의원의원은 간접 선거제로서 임기는 9년, 3년마다 의석수의 3분의 1을 개선한다.

현 국민의회는 1973년 3월 4일, 11일에 있은 총선거에 의해 구성되였는데 드 골파련합 273(드골파 184, 독립공화당 54, 중도민주파 21, 보수각파 14), 좌익련합 181(공산당 73, 사회당 89, 급진사회당 16, 통일사회당3), 중도파 28, 기타 8 (우익각파 5, 미계산 3)로 되여있다.

【대통령】 조르쥬 퐁피듀(1969년 6월—)

【정부】 현 내각은 1973년 4월 5일에 구성되였다. 총리 삐에르 메스메르, 외교부장 미쉘 죠베르, 국방부장 로베르 갈레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2월 창건, 1972년 7월 9—10일에 전국대표자회와 12월 13—17일에 제20차대회를 가졌다. 총비서 죠르즈 마르쉐, 명예위원장 발데크 로쉐 (제20차대회에서 선거), 《제5공화국옹호민주주의자동맹》(드 골파련합—집권당), 민주주의및사회주의좌익련맹(사회당, 급진사회당, 공화결사회 등의 련합), 프랑스로동총련맹, 공산주의청년운동, 녀성동맹, 프랑스조선친선협회 1969년 12월 8일 결성.

정치 843년의 베르당조약에 의하여 서프랑크왕국이 형성되였으며 이 시기부터 프랑스는 독립적인 국가로 발전하였다.

18세기말 프랑스부르죠아혁명(1789—1794년)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철폐되고 1791년 프랑스제1공화국이 수립되고 자본주의제도가 섰다.

1871년 3월 18일 빠리의 선진적로동계급은 세계력사상 첫프로레타리아혁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로동계급의 정권인 빠리꼼뮨을 선포하였으나 반동적부르죠아지의 류혈적탄압으로 72일간 존재하고 진압되였다.

19세기 60—90년대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선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1881년에 뛰니지를, 1883년에 인도지나 나라들을 강점하였다. 프랑스에서는 공업보다 은행업이 발전하여 고리대금업적제국주의의 특성을 띠게 되였다. 19세기말—20세기초에 영국 및 짜리로씨야와 함께 제국주의침략쁠럭의 하나인 앙땅뜨(협상국)를 형성하였고 제1차세계대전(1914—1918년)에 참가하였으며 쏘베트로씨야를 반대하는 무장간섭에 참가하였다.

프랑스지배층은 침략적뮨헨협정(1938년)에 참가하였다. 1940년 5월 프랑스는 파쑈독일군대의 침략을 받고 6월 14일 빠리를 강점당하였으며 6월 22일 파쑈독일에 항복하였다. 프랑스는 1944년 파쑈독일의 강점에서 벗어났다. 전후 프랑스에는 제4공화국(1945—1958년)이 수립되였다.

제2차대전후 프랑스반동적지배층은 미제의 《마샬안》을 접수하고 침략적군사쁠럭인 나토와 세아토에 가담하였다.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전후 웰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가 8년간에 걸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항전에 의하여 참패를 당하였다. 1954년에 프랑스반동지배층은 알제리인민을 반대하는 새로운 식민지전쟁을 도발했으며 서독군국주의를 부활시키기 위한 《빠리협정》에 조인하였다. 1957년에는 서독군국주의자들과 함께 배타적인 구라파 《공동시장》을 조작하였다.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1958년에 제5공화국을 수립하고 프랑스와 그 식민지나라를 망라한 《프랑스련방》을 《프랑스공동체》로 바꾸었다. 프랑스지배층은 대외정책의 기본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구라파인에 의한 구라파건설》에 두고 서구라파에서 《령도권》을 틀어쥐기 위한 이른바《독자적인 로선》을 추구하여 나토문제, 자본주의세계에서의 국제통화문제 등 일련의 국제문제들에서 미제에 맞서고있다.

프랑스침략자들은 1866년 선교사사건을 구실로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으나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앞에 참패를 당했다. 1950—1953년에는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제놈들의 침략군을 파견하여 가담하였다. 1972년 27차 유엔총회에서 미제가 꾸며낸 조선문제토의를 1년간 연기할데 대한 안의 표결에 기권하였다.

【주요사건】 퐁피듀정부는 구라파에서 패권을 쥐려는 드골의 야심을 이어 국제정치생활에서 프랑스의 《발언권》을 세우기 위한 침략책동을 적극 벌렸다.

우선 퐁피듀는 1972년초에 영국의 구라파《공동시장》가입에 대한 거부권을 포기하고 《초대국과 대항》하는 련결된 고리로서의 《구라파의 독립과 정치통합》이라는 간판을 들고 확대구라파《공동시장》의 형성과 안전보장을 위한 전구라파회의의 소집을 지지해나섰다. 한편 극동에서의 2대수출시장으로 되는 중국 및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의 설정, 프랑지역국가들에 대한 통제력의 유지강화 그리고 중근동과 아세아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를 꾀하여 외교활동을 벌렸다.

퐁피듀는 3월 18—19일 영국총리 히스와 회담을 가졌으나 구라파《공동체》내에서의 《주도권》장악과 관련하여 《공동체》의 정치사무국의 형태와 설치장소문제에서 대립을 로출시켰다.

전구라파안전보장 및 협조문제에 대하여 외교부장은 1972년 1월 4일 전구라파회의 소집을 지지한다고 성명하였다. 그러나 외교부장은 6월 21일 상원외교위원회에서 《프랑스는 구라파에서의 호상 균형잡힌 군대축소에 관한 동서협정의 체결을 반대》하며 군비경쟁을 동반하는 전구라파안전보장이라는 자기 모순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이해에 프랑스는 핵무장과 군사력강화에 박차를 가해 1—6월에 걸쳐 인도양에서의 《힘의 시위》, 1980년까지에 핵잠수함 6척을 보유할것을 목적한 프랑스해군의 15년계획발표, 5월 24일에는 중거리미싸일 8개를 더 저장하는 한편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항의를 배격하면서 태평양에서 핵시험을 계속 감행하였다.

1월에는 외교부장이 일본을 방문하고 제9차 프랑스—일본정기협의회를 가졌다. 여기에서는 구라파《공동시장》과 일본간의 통상문제가 취급되였으며 외교부장은 두나라 공동으로 농축우라니움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는 프랑스로부터 플루토니움을 얻게 될 프랑스—일본원자력협정 (유효기간 10년)이 도꾜에서 조인되였다.

퐁피듀는 프랑지역국가들에 대한 통제의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1월

파 11월의 두차례에 걸쳐 아프리카를 방문하였다. 그는 또고방문중 프랑지역국가들의 부채 10억프랑의 회수를 프랑스정부가 포기한다고 성명하고 아프리카공동체프랑의 평가인상을 요구하는 이 지역 나라들의 요구를 억제하였다.

퐁피듀정부는 1972년 2월 5일 까타르, 바레인, 오만 등과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하는 한편 이란, 이라크, 레바논, 애급, 수리아, 리비아 등 나라들에 대한 해외투자 및 <원조>의 증대, 경제, 문화적 협조 또는 정치적지지를 약속하고있다. 아세아지역에 대해서는 2월 12일 방글라데슈를 재빨리 승인하고 인도에 1억 8,500만 프랑의 <경제개발원조>를 제공하는 한편 동남아세아에서의 <프랑스의 정치경제적존재>를 시위하기 위한 지반을 닦기 위하여 3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대한 외교공세를 벌렸다.

인도지나문제 특히는 웰남문제에 대해 퐁피듀정부는 닉슨의 <전쟁의 웰남화>정책을 비난하면서 <평화의 웰남화>를 주장하고 1월에 국민의회대표단을 웰남민주공화국에 보내여 웰남평화문제를 토의케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의회선거가 1973년 3월 4일과 11일에 실시되였는바 선거결과는 공산당이 33석에서 73석을 그밖에 사회당을 비롯한 좌익련합 각당파들은 5석을 더 쟁취하였으며 드 골파련합은 103석을 잃은 대참패를 보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1,100만명이상의 유권자들이 <인민전선련합>의 공동강령을 지지하여 투표에 참가, 로동과 생활조건을 개선하려는 프랑스인민들의 의지를 시위하였다.

인민투쟁 퐁피듀정부의 반인민적인 시책을 반대하는 프랑스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은 1972년에 더한층 앙양되였다. 1971년에 전년보다 1,400건이 증가한 4,350건의 파업투쟁을 벌려온 프랑스로동계급은 1972년에도 로동의 권리보장과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렸다. 배움에 대한 민주주의적권리의 보장과 교육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이 2월 28일 각계층인민 6만명이 참가하여 빠리에서 힘차게 벌어졌으며 2월 1일부터 시작된 출판물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모든 권리를 요구하는 출판부문일군들의 파업투쟁은 빠리시내 인쇄, 건설, 야금, 운수부문 로동자들과 각급학교 교원들, 의료부문일군들, 청년학생들 2만여명이 궐기한 반정부시위투쟁으로 번져졌다.

프랑스근로자들의 취업보장과 로동조건개선을 요구하는 시위투쟁은 크레이시, 류무시, 상부가론느현고당시를 비롯한 각 도시들에서 줄기차게 계속되였으며 3월 21일에는 노르현과 빠르갈래현에서 2만여명의 방직로동자들이 강력한 파업투쟁을 벌렸다.

4월 14일에는 빠리를 비롯한 전국각 도시들에서 수십만명의 건설부문로동자들이 들고일어났으며 5월 28일 빠리에서는 연 5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실업자를 없애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웨치면서 퐁피듀정부를 규탄하여 시위를 벌렸다.

6월에 들어와 프랑스로동계급은 1968년 5월—6월에 있은 강력한 투쟁이래 처음으로 되는 총파업을 전개했다. 6일 또다시 일떠선 인쇄부문로동자파업에 이어 7일에는 철도, 뻐스, 항공 일군들이 파업에 들어가 전국의 교통운수가 마비되였으며 화학, 방직, 비행기제작, 탄광, 항만 등 산업부문 모든 로동자들이 떨쳐나서 총파업에 들어가 퐁피듀정부에 타격을 주었다. 이날 빠리에서는 20만명의 근로자들이 대규모적인 반정부시위를 벌렸다.

23일 <전국적인 공동행동의 날>에는 전력, 금속, 조선, 화학, 건설을 비롯한 산업부문과 세관, 우편, 재정금융등 공공기관 로동자, 사무원들의 파업공세와 아울러 빠리, 마르세이유, 보르도, 툴루즈, 리옹, 루앙, 낭뜨, 아브르 등 전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정부를 공격하는 대군중시위들이 전개되였다.

10월에는 루아르현의 건설로동자들과 알사스탄광로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으며 11월에 들어와 프랑스로동계급의 투쟁은 더욱 앙양되여 <크레조—루아르>회사의 3만 6천명 금속로동자파업, 프랑스서부지역 철도로동자파업을 신호로 전국철도로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또한 25만여명의 체신, 보건부문과 국가공무원들도 물가인하와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시위, 항의집회 등 각종 형태의 투쟁을 벌렸다. 11월 20일 <에르 엔떼르>항공회사로동자파업, 21일 <베를리에>자동차공장로동자 파업으로 투쟁은 고조의 기세를 견지했는데 14—16일 3일간에만도 연 60만명의 로동자와 공무원들이 참가한 큰 투쟁공세로서 퐁피듀정부에 타격을 주었다.

경제, 사회 프랑스경제는 1966년이래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경제장성률은 1970년에 6.1%, 1971년에는 5.7%, 1972년에는 5.2%(예견수치)로 부단히 하강선을 긋고있다. 이것은 이른바 <제6차산업근대화5개년계획> (1971—1975년)에서 예견한 5.9%의 년평균경제장성률 보다 훨씬 떨어져있다.

프랑스는 석유공업의 40%, 고무공업의 50%, 농업원자재와 관련된 산업의 65%, 장거리전신기관의 70%가 미제의 통제하에 있다.

농촌경리는 알곡작물재배(밀, 귀밀, 호밀, 강냉이), 포도재배(밭면적은 국토의 2.2%)와 사료작물에 기초하는 축산업, 사탕무우, 과일, 남새 등 다양한 부문을 망라한다. 1969년현재 밀은 1,446만t, 감자 854만t, 강냉이 572만t, 포도주 5천130만헥터리터를 생산하고있으며 프랑스는 자본주의세계 밀, 사탕무우, 감자, 포도 등 생산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대외무역에서는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을 휩쓴 불경기의 영향을 받아 1966년부터 1969년까지 수지가 계속 악화되여 1970년에는 58억 6천 500만프랑에 머물러있었으나 1972년에는 1.4분기기간에만도 25억 8천 500만프랑으로 또다시 확대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과의 무역에서는 1970년에 2억 800만프랑(19.6%)의 결손을 보았다.

1972년 8월 3일 프랑스는 쏘련에 밀, 보리 각각 50만t씩 총100만t(3억프랑)을 팔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프랑스는 1969년 8월 8일 프랑화의 가치를 11.1%나 대폭 떨구었고 미제의 <신경제정책>발표에 따르는 국제통화위기의 심화와 관련하여 1971년 8월 25일에는 2중환률세를 실시하는 등 프랑화 구원에 무진 애를 써왔다. 그러나 억제할수 없는 통화팽창으로 말미암아 인플레비률은 구라파에서 가장 높았으며 따라서 소비품값의 상승률은 1970년의 5.4%로부터 1971년에는 6%로 뛰여 새로운 기록을 내였다.

1972년 4월에 프랑스로동총련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실업자는 55만명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에프피

신문 유마니떼(공산당기관지), 아방가르드(공청기관지), 뽀쀨레르(사회당기관지), 꽁바, 몽드, 피가로(인민공화당기관지), 오로르(급진사회당기관지), 쥬르날 오피시엘(정부공식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4월 12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체결, 1968년 4월 5일 프랑스에 우리 나라 국제무역촉진회 대표부

가 설치되였다.

1969년 12월 8일 프랑스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그이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프랑스공산당 총비서 죠르즈 마르쉐, 프랑스중앙녀맹위원회 부위원장 마리예끌로드 바이양 이본 듀뭉,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쟝 슈레 까날, 모리스 토레스연구소 소장 쟝 브르레쏘가 각각 축하문 또는 축전을 드리였다. 또한 수령님께 조선로동당창건 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성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아프리끄 아지아》잡지사 총사장 씨몽 말레이가 각각 축전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죠르즈 마르쉐동지가 프랑스공산당 총비서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12월 2일 축전을 보내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예순돐에 즈음하여 프랑스공산당기관지 《유마니떼》가 기념론설을 실었으며 또한 빠리에서는 《김일성전》제1부와 기념출판물《주체사상의 승리》가 각각 프랑스어로 발간되였다.

1972년에 프랑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로작묶음 《김일성저작집》과 《조선에서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프랑스 누벨프레스》, 《빠리지앤느》출판사들에서 각각 출판되였다.

1972년에 프랑스북구라파상업은행대표단(5월 2일), 에이에프피통신사 베이징주재특파기자(8월 29일), 국제자동조절련맹 프랑스학자(9월 12일), 국민의회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원들(11월 7일)이 우리 나라를 방문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프랑스공산당 제20차대회에 참가, 직업총동맹대표단이 프랑스로동총련맹의 초청으로 이 나라를 방문(11월)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평양만수대예술단이 2월 17일~3월 5일에 걸쳐 《샹제리제극장》에서 빠리시민들의 열광적인 절찬을 받으면서 공연, 혁명적주체예술을 통해 두 나라 인민들간의 친선의 정을 두텁게 했다.

스 위 스

(스위스련방)

중앙구라파에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오지리, 이딸리아에 둘러싸여있는 내륙국이다. 령토의 69%는 산지이고 31%는 고원이다.

기후는 따뜻하다. 제네바의 1월평균기온은 0.6°C, 7월평균기온은 19.3°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800~1천mm이다.

【넓이】 4만 1,288km²

【인구】 811만 5,000명(1969년말)

주민의 절반이상이 독일인이며 그외 프랑스인, 이딸리아인이 있다.

공용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딸리아어

【수도】 베른(주민 16만 8,000명)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1971년 10월 30일 선거결과 련립여당들인 급진당, 사회당, 기독교민주당, 농민당이 총 200석중 160석을 차지하였다.

【련방회의(정부)】 국회량원합동회의에서 선출되는 정무원성원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정무원성원중에서 매년 륜번제로 하며 대통령의 임기는 1년이다.

1972년 12월 6일 국회는 1967년에 대통령으로 된 일이 있는 운수부장인 기독교인민당출신인 로저 본빈을 1973년의 대통령으로 선거하였다.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21년에 창건된 공산당과 좌익사회주의그루빠들이 합동하여 1944년 10월에 조직, 전국비서 야꼬브 레호라이떠르, **급진당,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농민당, 민주행동당, 로조련맹, 자유청년.**

정치 1648년에 로마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1798년에 프랑스에 강점당하였다가 1803년에 다시 독립하여 련방으로 되였다.

1815년 윈회의에서 《영구중립국》으로 선포되였다. 스위스는 유엔이나 미제의 정치, 군사 블럭들에 직접 참가하고있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후 《마샬안》을 접수하였고 《구라파자유무역지대》, 《구라파경제협조기구》등 배타적인 경제블럭들에 참가하였으며 1956년 6월에는 미제와 《원자협정》을, 1971년 3월에는 남조선괴뢰도당과 《투자보호협정》을 맺었다.

스위스는 조선정전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이다.

1972년 제네바에서 수천명의 시민들이 교통운임을 20%나 대폭 끌어올리는 당국의 부당한 조치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쮸리히에서는 2천여명의 각계층인민들이 웰남에 대한 미제의 폭격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여 군중집회를 가지고 미제의 《령사관》앞에서 반미시위를 하였다.

경제, 사회 지하자원은 적으나 수력자원은 풍부하다.

스위스에서는 값싼 전력에 의하여 알루미니움, 고급 강철을 생산하며 화학섬유와 각종 합성수지제품들이 생산된다.

세계적인 시계생산국이다. 시계부분품은 주로 가내수공업에 의하여 생산된다.

생산의 집중화과정이 촉진되고 중소기업체들이 계속 몰락되고있는데 1971년 5월부터 1972년 5월사이에 188개의 중소기업체들이 파산몰락되였다.

농업은 주민의 식량과 경공업원료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다. 부침땅은 전 령토의 6.7%밖에 안되며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전체 농업생산에서 축산업이 70%이상을 차지한다.

관광업이 국가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시계, 계기류, 합성수지제품, 직물 등이다.

【출판보도】 **통신** 스위스통신

신문 포르베르츠(로동당기관지), 레뷰 크리엘, 라 부아 우브리에르, 노이에 취 짜이퉁(급진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9월 14일 우리 나라와 무역관계를 맺었다.

1973년 7월 14일 두 나라간에 정부급 무역대표부를 교환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스위스에서는《천리마》라는 보도잡지를 매달 발간하고있는데 이 잡지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소식들을 싣고있다. 1972년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프레—제롬인쇄협동출판사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

원회 사업총화보고>,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를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72년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스위스조선공보위원회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표단은 4월 9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2년 3월 우리 나라 평양만수대예술단이 스위스에서 공연하였다.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공국)

오지리와 스위스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작은 나라이다. 남북의 길이는 24km, 동서의 너비는 9km에 지나지 않는다.

라인강골짜기의 평지대는 겨울에도 그다지 춥지않고 여름에는 서늘하다. 6~7월평균기온은 골짜기에서 18°C, 산지에서 12°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700~1천 200mm이며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다.

【넓이】 157km²

【인구】 2만 1,230명(1969년)

주민은 게르만족

공용어는 독일어

【수도】 바두쯔(주민 4,000명)

【국회】 일원제, 의원수는 15명, 임기는 4년, 1970년 2월 선거결과 조국동맹이 8석, 시민진보당이 7석을 차지하고있다.

【국왕】 프란쯔 요제프 2세(1938년—), 국가수반이며 모든 실권을 가지고있다.

【정부】 총리(임기 6년)와 2명의 보좌관(부장, 임기 2년)이 있으나 정치적실권은 없다. 총리 알 프레드 힐베

【정당, 사회단체】 **조국동맹**(집권당), **시민진보당**, **기독교사회당**, **리히텐슈타인로동자동맹**.

정치 1719년에 공국으로 되였으며 1806년 <신성로마제국>에 속해있다가 1866년에 독립하였고 1867년에는 <영구중립>을 선포하였다.

제1차세계대전후 실제상 스위스의 보호하에 있었으며 제1차, 제2차세계대전당시에는 파쑈독일에 강점되였다가 해방되였다.

1921년부터 립헌군주제도를 실시하고있는데 이 나라의 군사, 외교, 재정은 스위스가 틀어쥐고있다.

1970년 2월 국회선거에서 42년간 집권하여 온 시민진보당이 패배하고 조국동맹이 승리하였다.

이 나라에는 군대가 없고 오지리와의 국경에서 세관일을 맡아보는 26명의 경찰이 있을뿐이다.

경제, 사회 인구의 60%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한다. 주식물인 밀은 수입한다.

농산물은 강냉이, 밀, 포도, 과일등이다. 목축업에서는 주로 소를 많이 기른다.

공업으로는 주요수입원천의 하나인 석탄채굴 이외에 금속가공, 방직, 축산물가공, 소형정밀기계공업(현미경, 쌍안경, 시계, 계산기 등)이 있다.

나라의 주요재정수입원천은 우표판매(국고수입의 3분의 1을 차지)와 관광업(년 6만 5,500명)이다.

전통적으로 의치(이발)를 만드는 나라로 알려져있다.

이 나라에는 국민학교 14개, 중학교는 5개가 있을뿐이다.

외국인에게 국적을 10만프랑으로 팔며 현재 약 4천개의 외국회사들이 수도에 본부와 지점을 두고있다.

사회적으로 녀성들에게는 정치에 참가할 권한이 없고 년령적인 계층제가 실시된다.

국교는 천주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리히텐슈타인 통신 **신문** <리히텐슈타이네르 파테르란트>(조국동맹기관지), <리히텐슈타이네르 폴크스블란트>(시민진보당기관지), <데르 리히텐슈타이네르>(기독교사회당주간지).

이딸리아

(이딸리아공화국)

구라파대륙의 남쪽 지중해연안에 남북으로 길게 놓여있는 본토 아뻬닌반도와 그 남쪽의 씨실리섬, 서쪽의 사르디니아섬을 비롯한 7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국토의 80%가 산악지대다. 북부국경에 험준한 알프스산줄기가 가로놓여있으며 여기에 구라파에서 제일 높은 몽블랑산(4,810m)을 비롯한 해발 400m이상의 산들이 있다. 서북부국경에는 아뻬닌산줄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화산이 많고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기후는 대체로 따뜻한 아열대성기후이나 땅생김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넓이】 30만 1,250km²

【인구】 5,450만명(1970년 8월)

주민의 대부분이 이딸리아인이고 독일인, 프랑스인 등 소수민족들이 산다.

공용어는 이딸리아어

【수도】 로마(주민 340만명, 교외인구포함, 1970년)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315석, 임기 5년, 하원은 630석, 임기 5년, 1972년 5월 7일과 8일에 있은 총선거결과 하원의석은 기독교민주당 267석, 공산당 179석, 사회당 61석, 사회민주당 29석, 공화당 14석, 자유당 21석, 신파쑈적인 <이딸리아사회운동>이 56석을 차지하였다.

【대통령】 죠반니 레오네(1971년 12월—)

【정부】 1972년 5월 기독교민주당(16명), 사회민주당(5명), 공화당(4명)의 3당련립정부가 구성됨. 총리 안드레오티, 외교부장 쥬제페 메디치, 부총리 겸 국방부장 마리오 따나씨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1월에 창건, 위원장 루이지 롱고, 총비서 엔리꼬 베를링게르, 당원수 158만 1천 629명(1972년 10월), **프로레타리아통일사회당** 1964년 1월 사회당내의 좌파가 떨어져나와 결성, 1972년 7월 공산당에 합류. **사회당**, **기독교민주당**, **공화당**, **사회민주당**, **자유당**, **<이딸리아사회운동>**(자유당내에서 분파로 떨어져나와 1972년에 결성), **로동총련맹**, **공산주의청년련맹**, **녀성련맹**, **이딸리아조선친선협회** 1968년 1월 18일 결성, **남조선인민과의련대성위원회** 1971년 10월 8일 결성.

정치 1870년에 이딸리아의 통일이 이룩되였다. 제1차세계대전시기 3국동맹(독일, 오지리, 이딸리아)에 가담하였다. 1921년에 이딸리아공산당이 창건됨으로써 로동운동은 더욱 거세차게 벌어졌다. 이에 겁을 먹은 파쑈무리들이 1922년 무쏘리니의 파쑈독재정권을 세웠다.

1935~1936년에 에티오피아를 강점하였으며 1936년에는 히틀러독일과 함께 에스빠냐에 대한 무장간섭을 감행하였다. 1937년에 일, 독<방공>협정에 가담하였다.

1939년 4월에 알바니아를 강점하였으며 1940년 6월 파쑈독일과 함께 쏘련을 침공하였다. 쏘련군대의 섬멸적타격과 이딸리아공산당의 령도밑에 무장을 들고 반파쑈인민항쟁에 참가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43년 7월 무쏘리니의 독재정권은 멸망하였다.

1946년 6월 이딸리아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딸리아정부는 1949년에 침략적인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미제에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전초기지로 령토를 제공해주었다.

1959년에는 이딸리아지역에 미국의 핵무력기지를 설치할데 대한 《이딸리아—미국협정》이 체결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이딸리아는 반동적인 정치세력간의 호상 알륵과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으로 말미암아 수십차의 정권교체가 있었으나 력대로 이 정권들은 반인민적인 친미반동정책을 실시하였다.

1970년만하여도 2월과 7월 두 차례나 정치정세의 혼란으로 정부가 총사직하고 8월에야 겨우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사회민주당, 공화당의 4개정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1971년 12월에는 3주일간에 걸친 반동정치세력들간의 치렬한 경쟁끝에 12월 24일 기독교민주당출신 죠반니 레오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주요사건】 1971년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련립정부내의 4개정당간의 대립과 알륵이 더욱 격화되였다. 그로 인하여 1972년 1월 15일 련립정부가 총사직하고 2월 17일 안드레 오티를 총리로하는 기독교민주당의 단독 내각이 구성되였다. 그러나 2월 26일 상원에서 기독교민주당 내각에 대한 신임결의안이 부결되였다. 대통령은 국회량원을 임기만료전에 해산하고 1년 일찍 총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총선거가 있을때까지는 기독교민주당단독내각이 지속되였다. 1972년 5월 7일과 8일에 총선거가 실시되여 기독교민주당, 사회민주당 및 공화당의 련립정부가 새로 구성되였다.

7월에 프로레타리아통일사회당 전원회의에서는 공산당에 자기당을 합류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으며 7월 20일 로마에서 열린 공산당중앙위원회와 중앙검열위원회의 합동전원회의에서는 공산당대렬에 자기 당원들을 넘겨줄데 대한 프로레타리아통일사회당대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1972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에 걸쳐 진행된 공산당 제13차대회에서는 《민주주의정부의 창설과 사회주의길에서의 이딸리아의 갱신을 위한 투쟁에서의 로동자 및 인민대중의 통일》을 토의하고 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위원장으로 루이지 롱고가, 총비서로 엔리꼬 베를링게르가 선거되였다.

정부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투쟁은 1972년에도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특히 생활조건과 로동조건의 개선,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은 전국을 휩쓸었다. 2월 1일 각지의 건설로동자 150만명과 농촌근로자 70만명이 생활상권리를 위해 일제히 파업을 일으켰으며 화학 및 방직, 식료 공업부문 등 700만명의 근로자들이 투쟁에 합류하였다. 6월 14일에는 170만의 농업로동자들과 고용농들이 생활처지개선을 요구하여 공동투쟁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각지 로조들의 호소에 따라 《투쟁주간》을 정하고 6월 16일부터 농업중심지들에서 항의집회와 시위를 벌리였으며 23일과 24일에는 적극적인 48시간파업을 단행하였다. 이밖에도 30만명의 화학공업부문로동자들의 총파업, 140만의 건설로동자들의 총파업 등 적극적인 투쟁이 있었다.

또한 반미투쟁도 강력히 진행되였는데 5월 12일 로마시민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규탄하면서 미제대사관으로 밀려가 미제의 기발을 불태워버렸다. 7월 20일 밀라노에서도 약 1만명의 로동자, 대학생, 시민들이 강력한 반미시위를 진행하였다.

경제, 사회 지하자원으로는 아연, 연, 망간, 보크사이트, 수은 등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빈약하다. 대리석과 석재가 많아 세계적인 수출국으로 되고있다. 쇠돌, 석탄, 연유 등은 수입에 의존한다. 최근년간에 북부지역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되였다.

공업에서는 중공업이 우세하며 그중에서 기계제작공업이 첫자리를 차지한다. 기계제작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여기에서는 공업로동자의 5분의 1이 일하고있다.

이외에 자동차, 선박, 계산기, 전기제품 생산부문이 비교적 발전되여있다. 화학공업에서는 류산, 초산, 가성소다, 류산동, 광물질비료, 인조 및 합성 섬유제품 등을 생산하고있다.

식료공업에서는 포도주, 치즈, 올리브유 등이 많이 생산되는데 포도주는 1969년에 720만t 생산되였다. 주요공업부문은 북부지방에 집중되여있다. 때문에 남부지방은 국민총생산의 4분의 1밖에 차지하지 못하며 1인당소득은 북부의 절반밖에 안된다.

주요농산물은 밀, 쌀, 감자, 포도, 올리브, 강냉이, 아마 등이다. 1969년에 밀은 959만t, 강냉이 450만t, 감자 387만t 생산되였다.

주요수출품은 자동차, 직물, 과실, 포도주, 올리브유 등이고 주요수입품은 석탄, 원유, 철광석, 각종 금속, 목화, 목재, 밀 등이다.

정부의 반인민적경제정책으로 국제수지적자는 1972년 1.4분기에만도 무려 1천 29억리라에 이르렀으며 1972년 상반년에 물건값은 2.8%나 올라갔다. 교과서값은 이전 학년도에 비해 10~20% 더 올랐다.

실업자는 1972년 7월까지 1년동안 36만 7천명이 늘어나 142만명에 이르렀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스위스, 서독, 미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등으로 떠난다.

【출판보도】 **통신** 안사통신, 아기트통신

신문 우니타(공산당기관지), 아반티(사회당계), 코리에레 델라 쎄라, 메싸젤로.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1월 18일 이딸리아조선문화협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10월 8일 남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가 로마에서 결성되였다.

1972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 《김일성전》 제2권, 제3권을 《갈렌다리오 델 뽀뽈로》 출판사가 이딸리아어로 출판하였다. (제1부는 1971년에 출판)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김일성동지의 로작 연구 및 출판 주체소조》 책임자이며 밀라노고등학교 법률 및 경제교원인 쎄드지오 쓰파잘이와 이 소조성원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4월 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국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9월 23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이밖에도 이딸리아 농업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련맹대표단(9월), 이딸리아 조선친선협회대표단(10월), 이딸리아영화축전위원회 위원장(10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한편 이딸리아공산당 제13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조선로동당대표단이 3월 11—28일까지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딸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관계협회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이딸리아공산당 총비서 엔리꼬 베를링게르는 국회하원에 제출한 질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인할것을 이딸리아정부에 요구하였다.

바띠까노

이딸리아의 수도 로마시의 서북쪽 언덕에 있다.

바띠까노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있다.

【넓이】 0.44km²

【인구】 1,000명

주민은 이딸리아인 85%, 에스빠냐인 12%, 기타 3%로 구성

【법왕】 파울로6세(제263대, 이딸리아인으로서 본명은 지오반니 바띠스따 몬띠니, 1963년 6월 21일 선출), 립법, 사법, 행정 등의 일체 권한을 소유하고있다. 임기는 종신제이다.

법왕아래에 법왕청이 있고 이 기관의 국무장관(총리겸 외교부장과 같은 직제)이 법왕의 정무를 보좌하고있다. 이딸리아로부터의 보조금과 신자들의 기부금으로 재정을 유지하고있다.

정치 바띠까노는 1929년 2월 11일 이딸리아정부와 법왕청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라떼라노》조약에 따라 무솔리니란놈이 만들어냈다.

바띠까노의 모든 권력은 법왕에게 집중되여있으며 자체의 군대와 대학, 화폐를 가지고있다.

바띠까노는 세계천주교의 우두머리인 로마법왕의 본거지이며 국제반동들의 소굴의 하나이다. 바띠까노는 세계각지에 교회들을 두고 30만명이상의 목사와 100만명을 넘는 수도승을 가지고있다.

바띠까노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나라 독점체들과 긴밀히 련결되여있으며 이딸리아에서 46만 5천헥터의 토지를 독점하고있다.

바띠까노의 세력밑에 자본주의나라들에 널려있는 승려당들이 있는데 이 당들은 독점자본의 의사를 집행하면서 그 나라 정치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 또한 기독교로조를 비롯한 여러 조직들과 출판물, 방송, 통신 등을 통하여 반동적천주교를 전파하고있다. 특히 신문 《오쎄르바또레 로마노》(법왕청기관지)는 세계에서 가장 반동적인 신문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바띠까노는 위선자들의 소굴이며 도덕적타락과 음탕, 사기와 살인, 암흑과 무법이 지배하는 곳이다.

바띠까노는 미제의 침략정책을 적극 지지옹호하고 있으며 세계의 수많은 나라(90여개)들에 《성사》(대사), 《대리성사》(공사)들을 파견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파괴, 암해, 정탐 행위에 복무하고있다.

1950년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조선인민의 원쑤로 되였다.

싼 마리노

(싼 마리노공화국)

이딸리아의 중심부에서 동쪽 아뻬닌산줄기의 몬떼 띠따노산우에 자리잡고 있는 작은 나라이다.

이딸리아와 국경을 같이하고있으며 국경에는 경비초소도, 세관도 없다.

【넓이】 60.57km²

【인구】 2만명(1971년)

주민의 대부분이 이딸리아인이다.

공용어는 이딸리아어

【수도】 싼 마리노(주민 4,500명)

【국회】(대평의회) 5년 임기로 된 6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였다. 1969년 9월 선거결과 공산당 14석, 기독교민주당 27석, 사회민주당 11석, 사회당이 7석을 차지하고있다.

【정부】 대평의회가 임명하는 국무부장 2명(임기 6개월)과 행정회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 총리직은 없고 외무담당국무부장(지안까를로 기론지)이 실권자이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 위원장 에르메네질도 가스뻬로니, 총비서 움베르또 바를리, 그밖에 보수적인 집권당들인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있고 좌익적인 **사회당**이 있다. **공산주의청년동맹**(1971년 6월 이 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 대회에 참가), **민주로동총련맹**, **로동총련맹**

정치 301년에 성립된 세계에서 제일 작은 공화국이다.

중세기에 싼 마리노는 로마법왕청의 《보호》밑에 있다가 1631년에 독립하였으며 1862년에는 이딸리아의 《보호령》으로, 제2차세계대전시기에는 파쑈이딸리아에 강점되였다가 1943년에 독립하였다.

1945년부터 공산당과 좌익사회당 련립정부가 집권하였으나 1957년에 이 나라 반동집단에 의하여 전복되고 우익정당인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의 보수적인 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이 정부는 집권후 여러차례 협잡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반인민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경제, 사회 축산업을 위주로 소, 양을 기르며 농산물로서 포도, 올리브, 밀, 강냉이 등을 재배한다.

모직, 가구, 도자기, 석재, 포도주, 기념선물을 만드는 작은 공장들이 있다.

이 나라의 주요수입원천은 우표발행(년간 수입의 3분의 1, 4억리라)과 관광업(년간 200만명이상)이다.

해마다 200만명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기때문에 주민들은 이들을 위한 봉사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자체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이딸리아의 리라화폐를 쓰면서 이딸리아로부터 해마다 6억리라의 《원조금》을 받고있다.

수출품은 모직제품, 포도주, 가구, 도자기, 석재, 우표 등이다. 대외무역은 이딸리아의 항구인 리미니항구를 통하여 진행한다.

이 나라에서는 주로 천주교를 믿고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4월 18일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싼 마리노를 방문하였다.

1971년 6월에 싼 마리노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 대회에 참가하였다.

모 나 꼬

(모나꼬왕국)

프랑스의 동남부(이딸리아국경근처) 지중해연안에 자리잡고있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작은 립헌군주국이다. 모나꼬는 전령토가 건물로 들어차있는것이 특징이다.

인구밀도는 1km²당 1만 5천 600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 나라는 경치가 좋으며 사시장철 날씨가 맑고 따뜻하며 열대식물이 많이 자라고있다.

【넓이】 1.4km²

【인구】 2만 3,000명(1969년)

주민은 모나꼬인, 프랑스인 및 이딸리아인들로 이루어져있는데 그중 모나꼬인은 약 3천명정도이다.

언어는 프랑스어와 모나꼬어(프랑스어와 이딸리아어가 뒤섞인 언어)를 쓴다.

【수도】 몬떼 까를로(주민 9,948명)

【국회】 일원제이며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4년, 국왕과 함께 립법권을 가진다.

국회를 방조하는 <경제자문리사회>가 있다.

【국왕】 레니에 3세(1949년—), 국가수반으로서 립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정부】 총리 챠르르 발레리오, 정부는 총리 이외에 4명의 각료들로 구성되여있다. 각료들은 국왕이 직접 임명한다.

정치 모나꼬의 첫거주자들은 페니끼아사람들이였으나 13세기말에 제노아의 봉건령주인 그리말디가문의 령지로 되였다.

1524년부터 에스빠냐에, 1641년부터는 프랑스에 속해있었다. 18세기말 프랑스부르죠아혁명시기에 그리말디가문의 통치가 끝장나고 1793년에 프랑스에 병합되였다.

1861년 이후 모나꼬는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있다가 1918년 프랑스와의 조약에 의하여 <독립국>으로 되였으나 실제상 프랑스제국주의의 이른바 <보호>밑에 있는 나라이다.

1958년 국회선거에서 승리한 민족민주동맹이 국회 권한의 대표적인 확대를 요구하자 1959년 1월 국왕은 헌법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1961년 2월 국회를 회복하고 1962년 12월 국회의 권한을 대폭 인정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다.

모나꼬는 현재 20여개의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다.

경제, 사회 주요생산물은 향수, 화장품, 전기기계 및 약품인데 주로 향수와 화장품을 수출한다.

올리브나무와 귤을 약간 재배하고있을뿐 농사는 거의 하지 않고 식량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그리고 자그마한 식료가공공장과 기념품생산공장들, 선박수리소가 있다.

모나꼬는 자본주의세계에서 손꼽히는 유람지이며 이름난 도박장이다. 유람객수는 년평균 65만명에 이룬다.

국가수입의 주요원천은 유람지와<공설도박장>운영, 우표생산이다.

<도박장>은 국가가 운영하고있으며 모나꼬농민들에게는 도박이 엄격히 금지되여있다.

모나꼬의 주민들은 모두 이 나라의 국교인 천주교를 믿고있다.

이 나라에서 공민권은 모나꼬인들에게만 부여되여있으며 외국인이 모나꼬의 공민으로 되려면 특출한 공로를 세워야 한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티

출판물 <쥬르날 드 모나꼬>(정부공식기관지).

방송 몬떼 까를로방송, 몬떼 까를로텔레비죤방송.

안 도 라

(안도라공화국)

프랑스와 에스빠냐국경사이의 동부삐레네이산줄기에 있다. 이 나라는 해발 3천메터인 험준한 산속의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잡은 6개의 부락으로 되여있다.

날씨는 춥고 1년치고 절반은 깊은 눈에 덮여있다.

【넓이】 465km²

【인구】 1만 9,600명

기본언어는 까따로니아어이나 프랑스어와 에스빠냐어도 쓴다.

【수도】 안도라 라 벨라(주민 6,900명)

【총평의회】 24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립법기관, 임기는 4년, 2년마다 절반씩 개선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프랑스와 에스빠냐정부의 공동합의에 따라 임명된다.

【정부】 장관(대통령) 프란세쓰끄 에스꾸데 페레르

정치 안도라는 1278년부터 프랑스와 에스빠냐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갔다.

1933년 정변에 의하여 선거권의 범위가 확대되였으나 1940년에 제한되여 선거권은 세대주들에게만 부여되고있다. 프랑스와 관세동맹관계를 맺고있으며 밀수입이 심한 나라이다.

경제, 사회 안도라의 주민들은 축산업을 위주로 하면서 담배, 보리, 감자, 남새, 포도 등을 재배한다.

쇠돌, 연, 은,대리석과 같은 지하자원이 있으나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있으며 쇠돌과 연이 약간 나는 정도이다.

축산업이 경제에서 기본으로 되여있다. 양 2만 5천마리, 소 3천마리, 말 1천마리 정도 있다.

공업으로는 식료, 담배, 도자기, 알루미니움, 대리석 공장들과 작은 수력발전소가 하나 있을뿐이다.

철도는 없다.

나라의 재정수입원천은 주로 관광수입(년간 200만명)과 삐레네이산줄기의 <국제선전방송>에서 얻는다.

안도라는 주민의 90%이상이 천주교를 믿는다.

문화면에서는 에스빠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있다.

에스빠냐

구라파대륙의 서남쪽 이베리아반도의 대부분과 주변섬들로 이루어졌다. 령토의 3분의 2이상이 해발 500m 이상되는 고원의 나라다.

동북부국경에 3천m가량되는 험준한 산들이 군데군데 서있는 삐레네이산줄기가 놓여있다.

기후는 아열대지중해성기후에 속하나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곳에서는 대륙성기후의 특징이 나타나고있다. 북서부지방은 온대해양성기후에 가깝다.

년평균강수량은 중부지대에서 500mm 정도, 대서양연안에서는 1천 200~1천 600mm이며 사철 따뜻하다.

【넓이】 50만 4,750km²(발레아르, 까나리아군도포함)

【인구】 3,457만 2,000명(1972년 12월)

주민의 대다수가 에스빠냐인이며 약 100만명의 바스께족이 있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마드리드(주민 303만 700명, 1968년)

【국회】 일원제이다. 의원 564명중 460명은 총통이 임명하고 나머지 104명만 선거한다.

【정부】 총통 겸 총리 프란시스꼬 프랑꼬 바하몬데(1939년—), 외교부장 그레고리오 로뻬스 브라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4월 15일 창건,총비서 싼띠아고 까릴요. 국민운동(집권당), 로동자위원회.

정치 16세기에 방대한 식민지소유국가였던 에스빠냐는 17세기 이래 식민지전쟁에서 일부 식민지들을 빼앗기고 식민지였던 중남미나라들이 독립함에 따라 쇠퇴하였다.

에스빠냐인민들은 1931년 4월 군주제도를 뒤엎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36년 2월 국회선거에서 공산당을 중심으로한 인민전선이 승리하여 인민전선정부가 수립되였다.

소수민족인 바스께족들은 자치주를 선포하였다.

이렇게되자 프랑꼬도당은 이해 7월 파쑈독일과 이딸리아무력간섭자들의 도움을 받아 반혁명내란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1936년 7월부터 1939년 3월까지 공민전쟁이 있었다. 에스빠냐공산당은 무장부대를 조직하고 광범한 반파쑈민주력량을 집결하여 독일, 이딸리아 등 외국무력간섭자들과 국내파쑈도당을

반대하는 적극적인무장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세계 모든 제국주의의 공모와 간섭으로 실패하였다. 이리하여 인민전선정부는 1939년 3월 자기의 존재를 마치게 되였고 프랑꼬도당이 독재정권을 수립하게 되였다.

프랑꼬도당은 집권후 첫 2년동안에만도 30만명의 혁명가들과 민주주의자들을 투옥학살하였으며 바스께족의 자치를 폐지하였다.

1949년까지 에스빠냐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9년동안의 유격투쟁을 벌려 히틀러파쑈도당과 프랑꼬독재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프랑꼬도당은 1953년 9월에 미제와 《방위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 의하여 미제는 에스빠냐에 4개의 해공군기지를 설치하고 1만 5천명의 침략군을 주둔시켰다.

1964년에는 영제국주의자들과 1970년 6월 21일에는 프랑스제국주의자들과 각각 《군사협정》을 맺었으며 1970년 5월 22일에는 뽀르뚜갈과 《친선조약》을 회복하고 군비확장에 미쳐날뛰였다.

1970년 8월에 에스빠냐반동정권은 미제와 맺은 《방위조약》의 유효기간(1968년 9월로 만료)을 5년간 더 연장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또한 에스빠냐는 미제로부터 5억딸라의 《원조》를 받는 대가로 미제와 함께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과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공동방위위원회》를 조작하였다.

1972년에 프랑꼬파쑈독재정권을 때려부시기 위한 에스빠냐로동자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1월 14일 마드리주의 15만건설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투쟁한 결과 승리를 이룩하였다. 1월말에는 18만명의 금융부문로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일으킨 결과 에스빠냐의 금융기관이 모두 마비상태에 들어갔다. 2월 8일에는 20만명의 금속부문로동자들이 파업을 벌렸다. 3월 중순 엘페롤시의 《바싼》조선소로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프랑꼬도당의 류혈적탄압을 반대하여 버고시내 7개기업소 8천여명의 로동자들을 비롯하여 마드리드 빌바오 발라돌리드를 비롯한 여러도시들에서 대파업들을 일으켰다.

로동계급의 대중적인 진출에 고무되여 농민들, 지식인들, 청년학생들도 반정부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1월 17일 프랑꼬도당의 반동적교육제도를 반대하여 일어난 마드리드종합대학 의과대학과 4천명 학생들의 시위투쟁을 발단으로 빌바오, 바르쎌로나, 싼다끄루스, 그라나라, 오비에드, 살라망카 등 여러도시들에서 대학 및 고등기술학교 학생 17만명이 시위, 집회, 동맹휴학 등 격렬한 투쟁을 벌리였다. 많은 대학과 학교들에서 수업이 중지되였다.

에스빠냐인민들은 또한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기지 철폐, 미제침략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반미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경제, 사회 로동인구의 약 절반이 농사한다. 부침땅은 1천 50만ha(전 령토의 40%)이며 주요농산물은 밀, 강냉이, 올리브, 포도 등이다. 농산물생산액중에서 알곡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올리브생산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지하자원은 쇠돌, 석탄, 동, 수은, 연 등이다. 공업으로는 방직, 식료, 담배, 조선, 자동차, 전기, 세멘트 공업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농산물과 광물원료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 화학 제품 및 원유 등이다.

경제의 주요부문은 외국자본에 장악되여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해마다 커다란 손실을 보고있다. 대외무역적자는 1971년에 20억 2천 500만 딸라였다면 1972년 첫 10개월동안에는 24억 6천 300만딸라에 이르렀다. 1972년 첫 9개월동안에 《구라파공동시장》성원국들과의 무역에서만도 458억 9천 380만 폐소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1972년 1월현재 실업자수는 27만 6천 500명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이에프에

신문 문도 오브레로(공산당기관지), 아리바(국민운동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1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에 싼띠아고 까릴요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에스빠냐공산당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11월 7일과 8일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단장으로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싼띠아고 까릴요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에스빠냐공산당간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11월 20일에는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었다.

에스빠냐공산당은 콤뮤니케에서 주체사상에 전적인 지지를 다시금 표명하였으며 주체의 원칙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맑스-레닌주의적지도지침으로, 행동규범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환영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뽀르뚜갈

(뽀르뚜갈공화국)

구라파대륙의 서남부 이베리아반도의 서쪽에 있다. 온화한 아열대지중해성 기후이다. 북부는 평균 1천~1천 200m높이의 산지로 되여있다. 년평균기온은 중부지방에서 12°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북부지방에서 1천~1천 500mm, 남부지방에서 700~1천mm이다.

【넓이】 9만 2,200km²(아조레스, 마데이라군도 포함)

【인구】 963만명(1970년)

절대다수의 주민이 뽀르뚜갈인이다. 국어는 뽀르뚜갈어

【수도】 리스봉(주민 82만 9,000명)

【대통령】 아메리코 데우스 토마스(1965년 7월—)

【국회】 일원제이다. 의석수는 130명, 임기는 4년이다. 국회내에 협의기관인 협동의회가 있다.

【정부】 총리 마르쎌로 까에타노(1968년 7월—), 외교부장 마누엘 빠뜨리씨오, 국방부장 오라씨오 레베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3월에 창건, 1926년 파쑈독재정권수립후 비법화됨, 총비서 알바로 쿤할. **전국인민행동**(집권당), **민족해방애국전선**(지도부는 알제리에 있다)

정치 13세기중엽에 뽀르뚜갈국가가 형성되였다. 15세기후반기부터 해외침략의 길에 올라 16세기초 남아메리카의 브라질을 식민지로 만들고 이어 앙골라, 모잠비끄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후 영국과 프랑스의 세력에 눌리여 약화되였다.

1910년 공화파에 의해 립헌군주제가 폐지되고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926년 군사정변으로 군사파쑈독재가 수립되였다. 2차세계대전시에는 《중립》을 표방하면서 이딸리아와 히틀러독일을 도와주었다. 전후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1949년 《마샬안》을 접수하고 침략적군사쁠럭인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1951년에는 미제와 《친선 및 호상원조협정》을 맺고 본토와 식민지들에 미제의 군사기지건설을

허용하였다. 1971년 12월에 아조레스군도를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로 떠맡기는 범죄적인 《라헤스군사기지협정》의 기한을 1974년 2월 3일까지 연장하였다. 1965년 8월에는 베자에 서독군국주의자들의 공군기지를 건설할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1966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로데시아 인종주의자들과 비밀군사조약을 맺었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미제를 비롯한 나토성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앙골라, 기네비싸우, 모잠비끄에 13만명의 침략군을 투입하여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식민지전쟁을 벌리고있다. 1970년 11월에는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기네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또한 이 해에 세네갈, 잠비아 등에 도발책동을 벌렸다.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국내인민들의 강력한 투쟁기세와 압력에 못이겨 까에따노독재정권은 1971년 8월에 사전검열을 폐지하는 《새출판법》을 제정하며 식민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헌법개정을 발표하였다. 1972년 12월 23일에는 해외령토들에 보다 큰 행정적 및 경제적자치를 부여한다는 회유적인 법안을 발표하였다.

경제, 사회 서구라파에서 경제가 가장 뒤떨어진 농업국이다. 영국의 지배를 받고있다. 반동정부는 매해 예산의 43~44%를 군사비로 탕진하고있다.

경제의 주도적부문은 농업이며 여기에서는 로동력의 30%이상이 일하고있다. 전국의 근 40%가 부침땅이지만 알곡보다 포도, 과일 등의 수출용 작물재배에 많이 돌려지고있다. 알곡작물로서는 밀, 보리, 호밀, 귀밀, 강냉이, 벼 등이다. 식량은 외국에서 사들인다. 포도주와 올리브생산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포도원은 전국각지에 있다.

공업은 중석, 주석, 동, 쇠돌,망간, 석탄 등 채광업에 기초하고있다. 전반적으로 생산량은 낮으나 중석생산량과 그 수출량은 세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전력공업은 주로 수력에 의존하고있다. 기계공업은 간단한 설비품과 디젤기관, 자전차, 재봉기 등을 생산하는 정도이며 조선소와 선박수리소, 원유가공공장과 류산 및 질안비료 공장들이 몇개 있다.

뽀르뚜갈경제에서 코르크생산(세계생산량의 약 절반)과 그의 가공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의 수출량은 세계 제1위이다.

주요수출품은 코르크, 물고기, 통졸임, 포도주, 광물(중석, 황철광, 우라니움), 면사 및 면직물이며 주요수입품은 설비품과 기계, 원유, 원유제품, 흑색금속제품 등이다.

서구라파 자본주의나라들중에서 인민생활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1971년 현재 실업자는 16만명 이상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엔아이 **신문** 아반떼(공산당기관지), 디아리오 다 만하(전국인민행동기관지),디아리오 데 노띠씨아스, 디아리오 뽀뿔라르.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6월 6일—13일까지 뽀르뚜갈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6월 1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말 따

(말따국가)

지중해에 있는 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이다.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3개뿐이며 그중 말따섬(넓이 246km²)이 제일 크다. 말따섬은 높이 240m이하의 석회암지대로 되여있다.

기후는 지중해성기후로서 년중 따뜻하며 년평균강수량은 530mm정도이다.

말따는 구라파, 아세아, 아프리카를 련결하는 교통의 중계지이며 군사전략상 요충지이다.

【넓이】 316km²

【인구】 33만명(1971년)

주민의 95%는 말따인이고 그밖에 영국인, 이딸리아인이 산다. 공용어는 말따어와 영어이다.

【수도】 왈레따(주민 1만 8,350명)

【국회】 최고립법기관이다. 의원수 55명, 임기는 5년, 1971년 6월 12일 선거결과 레이버당 28석, 국민당이 27석 차지하였다.

【총독】 안토니오 죠세프 마모 (1971년 8월)

【정부】 총리 도미니크 민토프(1971년 6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70년에 창건, **레이버당**(집권당)1920년 창건, 당수 도미니크 민토프, 로동자, 소자산계급, 지식인들로 구성. **국민당** 1924년 창건, 자본가와 천주교상층부의 리익을 대변하며 영국과의 밀접한 련계를 주장. **반제전선**(좌익조직), **로조련맹** 1958년 창립, **청년련맹** 레이버당소속.

정치 1814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1947년부터 《내부자치》를 실시하였다. 1955년 2월에 있은 립법회의 선거에서 인민들의 지지를 받은 레이버당이 국민당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으며 도미니크 민토프가 레이버당 《자치정부》의 총리로 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958년 말따에서 인민들의 반영폭동이 일어나자 말따의 《내부자치》마저 폐지하고 직접 통치를 실시하여오다가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자 1961년 11월 《내부자치》를 다시 승인하였다. 그후 1967년 2월에는 총선거에서 국민당이 정권을 잡았다. 1964년 7월 21일 영제국주의자들은 국민당 반동정부에 《말따의 방위, 재정협조에 관한 협정》을 강요하여 10년간의 영국군대주둔권과 어느때든지 말따를 강점할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러한 예속적인 테두리안에서 말따는 1964년 9월 21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후 말따에는 《영국지중해함대사령부》와 여러개의 영공군기지들이 설치되였다.

한편 미제는 영제국주의자들과 공모결탁하여 1953년에 나토의 《남구라파해군사령부》를 말따에 설치하였다. 1967년 6월 중근동전쟁이후에는 말따를 아랍나라들을 침략하려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뒤받침을 해주는 주요기지로 리용하였다.

1971년 6월 12일에 있은 국회선거결과 국민당반동정부가 전복되고 진보적인 레이버당정부가 수립되였으며 민토프가 총리로 되였다.

레이버당정부는 반제적이며 자주적인 중립정책을 지향하면서 미영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레이버당정부는 식민주의상징인 총독을 말따인으로 교체하고 영국놈총독을 내쫓았다. 그리고 악질 경시총감과 해외대사들을 교체하였다.

1971년 6월 말따정부는 영제국주의자들과 맺은 침략적인 《국방, 재정협정》을 재검토할것을 요구하였다. 1972년 3월 26일 영국과 말따간에 말따기지 사용에 관한 새《방위협정》이 조인되였다. 협정에 의하여 영제국주의자들과 《나토》가 공동으로 말따에 있는 군사기지들의 《사용료》로 해마다 1천

400만파운드를 말따에 주기로 되였으며 영침략군이 말따기지에 7년간 더 머물러 있게 되였다.

그러나 말따정부는 5월 3일 지중해에 있는 미제침략군 6함대 함선들의 말따기항을 금지시켰으며 6월 24일에는 횡포하게 내정간섭하던 나토의 <남구라파해군사령부> 사령관놈을 내쫓고 11월 26일 이 사령부를 완전히 철수시켰다.

또한 왈레따지역에 있는 영국해군기지의 일부를 자기의 통제하에 넣었다. 또한 영제국주의자들이 설치했던 <비비씨방송>지국을 페쇄시켰다.

12월 19일 말따 총리 도미니크 민토프는 로조단체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말따의 자주적발전을 저애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경제형편의 개선을 위한 근로자들의 노력에 배치되는 기업주놈들의 파괴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로동자들에게 이에 대항해나설 권한을 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대부분이 영국독점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부침땅은 1만 4천 500정보이며 주산물은 밀, 보리, 목화, 감자, 올리브, 포도 등이다. 농산물생산량은 국민총생산액의 약 8%로서 자기 나라인구의 한달수요를 보장할정도이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에서 약 45%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로동인구의 62%가 일하고있다.

1971년에 이 나라에서 제일 큰 영국독점체의 공업기업소인 <아르쎄날>에 대한 관리권을 국가가 장악하였다. 주요공업은 방직, 신발, 합성수지, 전기설비생산, 선박수리 및 조선소, 고무, 기계, 식료(파실 및 남새통졸임, 담배, 맥주)공업이다.

이외 봉사료가 국민총생산액의 22%를 차지한다. 1969년부터 경제발전 제3차 5개년계획(1969~1974년)을 수행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천(수출의 60%), 신발, 남새, 포도주를 수출하고 공업품, 화학제품, 연료, 원료, 기계, 운수설비, 식량, 건재, 강재들을 수입한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말따뉴스, 일헬시엔 (레이버당기관지), 일뻬쁠루 (국민당 기관지), 엘 오리존트 (로조련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2월 2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에 이 나라 신문<말따뉴스>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의 상세한 내용을 실었다. 또한 이 신문은 <주체와 자력갱생>이라는 표제밑에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자랑찬 투쟁모습을 소개하는 글을 옹근 한면에 실었다.

유엔총회 제27차회의에서는 알제리가 제기한 새로운 제안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있다.

1973년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말따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2월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그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말씀을 전달하였다.

트리에스떼

(이딸리아, 유고슬라비아령)

이딸리아의 동북부와 유고슬라비아와의 국경지역, 아드리아해기슭에 있는 항구도시이다.

북부지역과 트리에스떼항은 이딸리아령, 남부지역은 유고슬라비아령이다.

【넓이】 773Km² (그중 이딸리아령 222Km², 유고슬라비아령 551Km²)

【인구】 38만명 (이딸리아령 29만 6,000명, 유고슬라비아령 8만 4,000명)

주민의 대부분은 이딸리아인이며 유고슬라비아령에서도 이딸리아인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있다.

1387년후부터 오지리에, 제1차 세계대전후에는 이딸리아에 속해있었다. 2차대전후 북부는 미제와 영침략군에, 남부는 유고슬라비아에 점령되였다.

1947년에 이 나라들과 이딸리아와의 《평화협정》에 의하여 트리에스떼는 유엔관할하의 《자유시》로 되였다.

그후 트리에스떼의 령유권문제로 이딸리아와 유고슬라비아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다가 1954년 10월 《런던협정》으로 항구를 포함한 북부지역은 이딸리아에, 남부는 유고에 속하게 되였다.

트리에스떼는 구라파남부 내륙지방과 지중해연안항구들을 련결하는 해상 및 철도운수의 중요한 지점으로 되고있다.

지브랄타르

(영국식민지)

구라파의 남부에 있는 이베리아반도의 남쪽끝, 지브랄타르해협기슭에 있다.

지중해의 서쪽문어구에 있는 영국의 해군기지이다.

평균기온은 1월에 12.8°C, 8월에는 23°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900mm이다.

【넓이】 6.5Km²

【인구】 2만 9,000명(1970년)

이딸리아, 뽀르뚜갈, 에스빠냐사람들이 산다.

공용어는 영어

8세기부터 아랍인들의 성새로 되여왔다.

1462년에 에스빠냐에, 1704년에 영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 그후 영국과 에스빠냐사이에는 지브랄타르 령유권문제를 둘러싸고 오래동안 분쟁이 계속되여왔으나 해결되지않고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지중해 일대에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기에 해군기지를 설치하고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암석으로된 좁은갑과 바위를 파고 만든 지하실들에 항구시설, 원유창고, 무기고 등을 만들고있다. 최근년간 미제의 해군기지로 리용되고있다.

행정은 총독겸군사령관이 통치하고있으며 보조기관으로서 행정위원회와 지브랄타르하원이 있다.

주민들은 바다기슭에서 어업을 한다.

주민의 88%는 기독교도이며 나머지는 유태교를 믿는다.

미 주

꾸 바

(꾸바공화국)

까리브해에 있는 서인도제도가운데서 제일 큰 섬인 꾸바섬과 그 주변의 1천 60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전국토의 4분의 3이 벌이며 동남부에 씨에라 마에스뜨라산줄기에 제일 높은 뚜르끼노산(높이 약 2,000m)이 있다. 꾸바에는 1천여개의 동굴이 있는데 그중 또마스동굴은 길이가 15km로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제일 크다.

기후는 열대해양성기후로서 7월의 평균기온은 28°C, 1월의 평균기온은 21°C로서 년중 20°C이상의 날씨가 계속된다. 가장 더운곳은 중부지방으로서 기온이 35~42°C까지 올라간다.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가물철이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장마철이다. 주로 7~10월사이에 강한 태풍이 밀려온다.

【넓이】 11만 4,524km²

【인구】 855만 3,395명(1970년)

주민은 에스빠냐계통의 백인(72.8%), 물라트(14.5%), 흑인(12.3%)으로 이루어졌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아바나(주민 175만 5,360명, 1970년)

【대통령】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1959년 7월 17일—)

【혁명정부】 혁명정부는 립법권과 집행권을 가진다. 총리 피델 까스뜨로 루쓰(1959년 2월 16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62년 3월에 《7월 26일운동》, 인민사회당(공산당), 《3월 13일혁명지도부》를 통합하여 《통일혁명조직》을 창건하였다. 그후 1963년초 사회주의혁명통일당으로 고쳤다. 1965년 10월 2일 사회주의혁명통일당 중앙위원회 제1차대회에서 당의 이름을 공산당으로 고쳤다. 제1비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 **근로자로조중앙**(맹원 180만명, 1970년현재), **공산주의청년동맹**(맹원 13만 5천명, 1970년현재), **녀성련맹**(맹원 약 130만명), **전국소농협회**(맹원 22만 7천명), **혁명수호위원회** 1960년에 반혁명파의 투쟁을 목적으로 조직된 대중적인 단체이다. 현재는 사회질서유지에 참가하고있으며 교육, 보건위생사업과 각종 대중적인 운동을 벌릴때 정권기관들을 협조한다. 370여만의 성원들을 망라하고있다.

정치 16세기초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된 후 침략자들에 의하여 원주민은 거의나 전멸되였다.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모자라는 로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끌어왔다. 1533, 1537, 1548년에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노예봉기들이 있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라틴아메리카전역을 휩쓴 독립전쟁의 영향하에서 1823년, 1826년, 1844년에 큰 규모의 노예폭동이 련이어 일어났다.

1868—1878년까지의 10년동안에 안또니오 마쎄오를 비롯한 애국자들의 지도밑에 일어난 제1차 독립전쟁으로 하여 타격을 받은 식민주의자들은 1886년 형식상이나마 《노예제》를 철폐하지 않을수 없었다.

민족적독립을 쟁취하려는 꾸바인민은 1895년 애국적시인이며 민족적영웅인 호쎄 마르띠와 기타 애국자들의 지도밑에 제2차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1898년 미제가 일으킨 미국—에스빠냐전쟁의 결과 꾸바는 명목상 《독립국가》로 되였다. 1899년에 미제는 침략군을 파견하여 꾸바를 강점함으로써 이 나라는 실제상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1903년에 이 나라의 한 부분인 관따나모를 빼앗아 해군기지로 만든 미제는 1906~1909년까지 꾸바에서 식민지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미제는 1912년과 1917년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꾸바인민의 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꾸바인민의 투쟁이 가일층 앙양되자 미제는 괴뢰정권을 련방 교체하다가 1952년 6월 철저한 친미주구인 바띠스따군사정권을 조작하였다. 미제와 바띠스따군사폭압통치에 항거하는 꾸바인민의 투쟁은 1953년부터 무장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오래전부터 무장투쟁을 준비하여온 165명의 봉기군(혁명군)은 1953년 7월 26일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지휘밑에 당시 바띠스따독재정권의 두번째로 큰 군사요새였던 《몬까다》병영을 습격함으로써 무장투쟁의 첫봉화를 올렸다. 이 전투는 비록 실패하여 많은 봉기자들이 체포되였으나 봉기자들의 완강한 법정투쟁과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투쟁에 의하여 피델 까스뜨로와 그 전우들은 석방되였다. 메히꼬에서 새로운 무장투쟁을 준비하여온 봉기자들은 1956년 12월 2일에 범선《그란마》호를 타고 오리엔떼주에 상륙하였다. 상륙전에서 살아남은 12명은 일곱자루의 총을 가지고 씨에라 마에스뜨라산정에 올라 유격근거지를 꾸리고 무장대오를 확대강화하였다. 봉기군은 1959년 1월 1일 수도 아바나를 진격하여 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였다.

1959년 2월 16일 꾸바력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정권인 혁명정부가 수립되였다.

혁명승리후 혁명정부는 낡은 통치기구를 청산하고 1959년 5월, 1963년 10월 두차례에 걸쳐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전국토지의 75%를 무상몰수하여 땅없는 농민들에게 분배하거나 국영농장을 꾸렸다. 1960년 8월과 10월에 공포된 《국유화법》에 따라 산업국유화를 실시하여 800여개의 미제독점기업체들과 그 주구들의 공장, 기업소, 은행들을 몰수하였다.

미제와 라틴아메리카의 반동들은 꾸바혁명을 교살하기 위하여 《경제봉쇄》, 《외교관계단절》 등으로 꾸바인민을 위협하던 나머지 1960년 8월 16일 이른바 악명높은 《싼 호세선언》을 꾸며냈다. 이에 대처하여 꾸바인민은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킬데 대한 견결한 립장을 표명한 《제1아바나선언》(1960년 9월 2일)을 발표하였다.

1961년 4월 19일 미제는 제놈들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약 2천명의 고용병들을 긁어모아 쁠라야 히론에 들이밀었으나 놈들은 단 72시간내에 격멸소탕되였다. 반꾸바책동에서 련속 실패한 미제는 1962년 1월 《미주국가기구》외교부장회의를 벌려놓고 또다시 반꾸바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1962년 2월 4일 제2차꾸바전국인민대회는 영웅적꾸바인민과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밝힌 《제2아바나선언》을 채택하였다.

미제와 맞서 견결히 싸우려는 꾸바인민은 1962년 10월 미제에 의하여 조성된 《까리브해위기》때에도 놈들의 《해상봉쇄》책동을 반대하여 영웅적으

로 투쟁함으로써 꾸바인민의 자주권과 존엄을 목숨으로 수호하였다.

1972년 1월 18일 까스뜨로총리는 꾸바혁명군창건 15돐에 즈음한 군사연습 참가자들앞에서 연설하면서 꾸바혁명군은 제국주의의 임의의 침략에 대해서도 단호한 반격을 가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말하였으며 7월 26일 무장봉기 19돐기념군중집회에서는 미제의 반꾸바책동을 규탄하고 꾸바는 반미투쟁의 혁명적립장을 고수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1972년에 까스뜨로총리는 5월—7월 6일까지 기네, 알제리, 벌가리아, 로므니아, 웽그리아, 민주독일, 뽈스까,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고 호상협조를 확대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발표된 콤뮤니께에서는 나라의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통일에 대한 우리 나라 정부의 제안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우리 인민의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1972년 꾸바는 가이아나, 자메이카, 트리니대드 토바고, 바베이도즈, 시에라 레온, 뻬루 등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혁명승리후 미제의 무장간섭과 파괴음모책동을 짓부시고 제반사회경제개혁들을 실시한데 이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난날 뒤떨어진 농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적농업—공업국가로 되였다. 사회주의경리에 공업부문은 100%, 농촌경리는 70%를 망라하고있다.

농업에서 주되는 작물은 사탕수수이다. 꾸바는 세계에서 사탕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이다. 사탕은 세계 사탕수출量의 3분의 1, 이 나라 국민소득의 33%를 차지한다. 혁명정부는 기계화방침을 제기하고 전체 부침땅의 5분의 1(150만ha)을 차지하는 사탕수수농장들에 현대적농기계들을 우선 공급하였다. 그리하여 2천800대의 사탕수수수확기와 1만여대의 사탕수수 적재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이 근로자들의 힘든 일을 대신해주고있다. 오리엔떼주, 까마구에이주, 라스 빌라스주들은 사탕수수재배 중심지들이다.

혁명정부는 식량에 대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벼, 강냉이, 콩, 땅콩, 마니오크, 감자 등 여러가지 작물들을 심는 조치들도 취하고있다. 그리하여 벼씨붙임땅은 1971년에 벌써 1만 7천까발레리아(약 23만정보)에 달하였다. 혁명전 최고수확년도인 1956년에 벼는 15만t정도수확하였다면 1971년에는 약 50만t 생산하였다. 모든 주들에서 다 벼를 생산하지만 특히 오리엔떼주와 라스 빌라스주는 벼생산중심지역이다.

그밖에 열대농산물인 귤, 커피, 레몬, 코코아, 파인애플의 부침땅과 담배와 목화 밭도 계속 늘고있다. 과거에 버림받던 삐노스섬은 지금 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1971년에 총 20만t의 귤이 생산되였다. 저수지들을 계속 건설함으로써 1970년에 물량은 17억 6천 200만m^3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약 80%의 논밭에 물을 댈수 있게 되였다.

혁명정부는 주식물의 하나인 고기생산량을 늘이기 위하여 소, 닭, 돼지를 위주로 하는 축산업발전에 큰 주목을 돌렸다. 결과 1972년 현재 규격방목지만 하여도 3천 800여개에 달했다. 1971년에 소는 730만 2천여마리(그중 젖소 466만 7천마리)였다.

혁명정부는 공업의 기본을 이루는 사탕공업부문을 정비확장하며 생산을 부단히 늘이고있다. 동시에 그것을 밑천으로 하여 새로운 기간공업기업소들도 계속 건설하고있다. 그리하여 건재, 기계, 제철, 화학, 광산, 탄광 등 기간공업부문들과 함께 방직, 식료가공, 가죽, 여러가지 일용필수품을 생산하는 경공업부문들이 새로 일며섰다.

사탕공업부문에는 해마다 1천만t 생산능력의 152개 사탕공장들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20%이상의 공업로동자들이 일한다. 까마구에이, 아바나, 싼따 끌라라, 싼띠아고 데 꾸바는 사탕공업중심지들이다.

1971년에 전력은 40여억kwH에 달하였고 싼띠아고 데 꾸바, 누에비따스, 씨엔푸에고스 등지에는 큰 화력발전소들이 있다. 혁명후 씨엔푸에고스, 마딴사스, 누에비따스와 기타 지역에 야금기업소들이 신설 확장됨으로써 강철생산량도 현저히 늘었다. 특히 《호쎄 마르띠》 강철공장만 하여도 1970년에 혁명전에 비하여 17.5배인 14만t의 강철을 뽑고있다. 그외에도 세멘트, 화학비료 공장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확장되여 1971년에 세멘트는 300만t, 화학비료는 120만t을 생산하였다. 석유가공공장, 니켈공장들에서의 생산량도 해마다 늘고있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원유, 니켈, 망간, 크롬, 코발트, 쇠돌, 동 등 지하자원의 개발이 활발하다. 니켈매장량은 세계에서 첫번째, 그 채취량은 세계에서 세번째자리를 차지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방직, 고기랭동 및 가공, 소젖가공, 빠터, 담배가공, 통졸임, 식료가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잎으로 만든 담배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운수에서는 철길과 배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철길의 총연장은 1만 4천 490km이나 약 5천km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탕공장들과 사탕수수밭을 위한 철길로 리용한다. 해상상선대는 혁명전인 1958년의 14척으로부터 1971년에 50여척으로 늘었다.

주요수출품은 사탕, 담배, 커피, 광물류, 열대과일 등이다. 석유와 그 가공제품, 철강재, 기계, 설비, 쌀 등을 수입한다.

꾸바에는 540여개의 국가탁아소들이 있으며 1971학년도에 중등학교에서는 30만명, 초등학교들에서는 170여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로동학교는 1천 329개였고 20만명이상의 학생들이 기술학교와 대학에서 공부하였다.

혁명후 보건부문에서의 근본적인 조치에 의하여 병원침대수는 2배로 늘었고 의사수는 5천500명이 새로 자라났다.

【출판보도】 통신 쁘렌싸 라띠나 **신문** 그란마(공산당기관지), 후벤뚜드 레벨데(공청기관지), 아델란떼(까마구에이주신문), 씨에라 마에스뜨라(오리엔떼주신문).

잡지 베르데올리보 (혁명군주간잡지).

방송 꾸바독립방송, 국립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8월 2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8월 6일 경제 및 과학기술협정을 맺었다.

삐나르 델 리오시에 《영웅조선》도서관이 있으며 1972년 6월 9일에 꾸바혁명수호위원회 아바나시 10월 10일지구 라우똔구역위원회가 혁명전적지 보천보의 이름을 단 《보천보도서관》을 개관하였다.

그밖에도 꾸바에는 꾸바조선친선협동농장, 《천리마》조선소, 꾸바조선친선가금원종장, 호쎄 안또니오 싸꼬중학교(친선학교)가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꾸바공산당기관지 《그란마》는 수령님의 령도하에 우리 인민이 달성한 성과를 찬양하는 론설을 실었다. 4월 24일에는 《인민의 수령을 노래합니다》의 사진전람회를 열었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

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는 꾸바 각지에서 여러가지 련대성행사들이 진행되였다. 6월 29일 꾸바공산당 아바나시 드라고네스구역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과 미제를 타승한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이라는 연구발표모임을 가졌다.

카 나 다

카나다는 북미대륙의 북부에 있으며 대륙부와 북빙양연안에 널려져있는 많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령토의 4분의 3이 평원과 대지로 되여있으며 땅생김은 크게 동부산지, 중부평원, 서부고원지역으로 나뉜다.

령토의 많은 부분이 북극권내에 속하므로 기후는 같은 위도상에 있는 구라파나라들보다 차다. 카나다의 북빙양연안지방과 북극군도일대는 북미대륙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서 년평균기온이 −10°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00~200mm정도이다. 동부산지도 한류의 영향으로 매우 추우며 서부고원지역은 해발높이는 높으나 난류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기온이 비교적 높고 강수량도 많은 편이다.

【넓이】 996만 547km²

【인구】 2,200만명(1973년 2월)

주민은 영국인이 약 44%, 프랑스인이 약 33%, 슬라브계인이 6%, 인디안과 에스키모스인이 2%미만, 기타 등이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

【수도】 오타와(주민 53만 6,000명, 1971년 2월)

【국회】 상하량원제, 1972년 10월 30일 선거결과 하원의석 264석중 자유당 109석, 진보보수당 107석, 신민주당 31석, 사회신용당 15석, 기타가 2석을 차지하였다.

【총독】 롤랜드 미체너

【정부】 1972년 11월 27일 정부가 구성되였다. 총리 피엘 엘리오트 트루도(1968년 4월—), 외교부장 미첼 샤프, 국방부장 제임스 리챠드슨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2월에 창건, 총비서 윌리암 카슈탄, **자유당**(집권당), **진보보수당**, **사회신용당**, **신민주당**, **로동회의**, **카나다조선친선협회** 1972년에 결성.

정치 카나다는 1497년부터 영국,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763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8세기말부터 19세기초에 이르는 기간 이 나라 인민들의 독립운동이 세차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1867년 7월에 카나다는 《영련방》에 속하는 자치령으로 되였으며 1931년에야 완전한 외교적자주권을 찾았다. 1951년 12월에 나라이름을 카나다자치령으로부터 카나다로 고쳤다.

제2차대전후 미제의 침투가 강화됨에 따라 카나다는 영제국주의세력으로부터 점차 미제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였다.

1949년에 침략적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가담하였으며 1950년에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자기나라 군대를 미제의 고용병으로 파견하였다.

【주요사건】 카나다정부는 미제의 경제적침략과 략탈을 막기 위한 일부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1971년 3월에 파산에 직면한 카나다의 제일 큰 석유회사를 사려는 미제의 시도를 막아버렸으며 7월에는 외래독점체들이 카나다회사들과 통합한것을 금지 또는 취소할 권한을 가진 재판소를 설치할데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11월에는 기업에 대한 카나다인의 통제와 관리를 장려하기 위한 카나다개발회사를 창설하는 한편 자국내 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제도의 개혁법안》을 심의하였으며 외국자본투자의 심사를 진행할 전문기구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미제가 서둘러 성사시키려던 《북미대륙의 동력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할데 대한 회담》을 무기한 중지하였다.

1972년에 생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1월 17일 임금을 올려받기 위한 116개의 비행장을 포괄하는 전국항공관제일군들이 10일간의 총파업을 벌려 승리하였으며 키체네르시에 있는 《데르》식료회사산하 공장로동자들은 년중 계속 완강한 파업투쟁을 벌려 자본가놈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근로자들의 파업투쟁으로 이해에 독점자본가놈들은 787만 8천로동일을 잃었다.

경제, 사회 공업에서는 지하자원과 산림자원을 가공수출하기 위한 유색금속공업과 팔프제지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니켈, 백금 생산량은 세계 제1위이며 그밖에 지하자원으로서 우라니움광, 석탄, 금, 은, 아연, 동, 원유, 쇠돌, 연, 주석 등이 있다. 그중 개발된 공업원료들은 미제에게 략탈당하고있으며 공업기업소 자체가 미제독점체에 장악되여있다.

카나다의 자연부원개발부문의 약 80%가 미제의 독점회사들에 속해있다. 석유채취 및 석유가공 공업의 90%이상, 광업과 야금공업의 65% 그리고 고무공업과 화학제품공업이 각각 80%, 전기공업의 66%, 기계제작공업의 60%가 미제독점자본의 손아귀에 장악되여있다.

민족공업은 더욱 더 파산몰락되고 있으며 1973년 1월 현재 실업자는 68만 8천명에 이르렀다.

이 나라 경제에서 농업은 공업생산에 비하여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농업에는 인구의 약 10%가 종사한다. 부침땅은 령토의 7.7%밖에 안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담배 등인데 밀생산량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제2위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밀과 기타 사료작물의 주요수출국으로 되고 있다.

이 나라의 태평양연안은 세계 3대어장의 하나로서 수산발전에 유리하다. 여기에서는 대구, 청어, 연어, 가재미, 새우, 게 등이 많이 잡힌다.

1972년에 일용품값과 식료품값은 전해에 비하여 8%나 올라갔다.

【출판보도】 **통신** 카나디안프레스 **신문** 카나디안 트리뷴(공산당기관지), 글로브 앤드 메일(보수당계), 토론토 스타, 토론토 데일리 뉴스(자유당계), 썬데이 썬.

미 국

(아메리카합중국)

북미대륙의 한복판에 있다. 지형상 특징에 따라 동부, 중부, 서부의 세 지역으로 나뉜다. 동부는 평균 높이가 800~1천m에 달하는 산지대이며 중부는 벌방과 미씨씨피벌로 되여있으며 서부는 높고 험한 코르딜레라산계로 되여있다.

기후는 북극권한대로부터 남부의 아열대성기후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심하지만 대체로 온대에 속한다.

년평균강수량은 1천 100mm이나 지역별 차이가 심하다.

【넓이】 936만 3,353km²

【인구】 2억 1,019만 4,312명(1973년 1월)

주민의 90%는 구라파에서 옮겨온

식인종들의 후손이다. 인디안 75만명, 흑인 약 3천만명이 있다.

【수도】 워싱톤(주민 80만 8,000명)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100명이며 매개주에서 2명씩 6년임기로 선거된다. 매 2년마다 의원수의 3분의 1은 새로 선거한다. 하원의원수는 435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정부】 대통령 리챠드 닉슨(1969년 1월 20일 취임, 1972년 11월 재선), 국무장관 윌리암 로저스, 국방장관 엘리오트 리챠드슨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9월 창건, 위원장 헨리 윈스톤, 총비서 거스 홀 **흑인펜서당** 1966년에 창건, **청년로동자해방동맹, 공화당**(집권당), **민주당, 사회민주당**(1972년 3월 사회당과 사회민주주의련맹이 합당하고 12월 31일 당이름을 고침), **에이에프엘—씨아이오합동로조, 전국유색인종지위향상위원회, 미국조선친선공보쎈터** 1970년 8월 결성,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 1971년 6월 24일 캘리포니아에서 결성.

정치 미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이며 전세계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이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93페지)

미국은 해적의 무리들이 감행한 원주민인인디안에 대한 살륙과 식민지략탈전쟁의 피바다속에서 1787년에 생겨났다.

이때로부터 20세기중엽에 이르는동안에 미제침략자들은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제외하고도 110여차례의 침략전쟁과 8천 900여차의 군사적간섭을 통하여 령토를 10배이상 넓히였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막대한 리윤을 그러모은 미제는 국제반동의 원흉으로, 세계제국주의 두목으로 등장하여 《세계제패》의 야망을 추구하면서 전세계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였다.

미제는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와 대양주의 90여개 나라와 지역에 2천개이상의 군사기지를 늘어놓고 150여만명의 미제침략군을 상시적으로 주둔시키고있다.

또한 추종국가들을 긁어모아 침략적인 나토(1949년), 세아토(1954년), 쎈토(1955년) 등의 군사동맹을 연거퍼 조작하였다. 미제는 세계의 모든 반동세력을 제놈들의 진쟁정책수행에 끌어들이면서 특히 아세아에서는 일본군국주의를, 구라파에서는 서부독일군국주의를 재생시켰다. 미제는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과 파괴활동을 일삼고있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후 오늘까지 세계에서 20여차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는 모두 미제에 의하여 직접 조작되고 도발된것이였다.

미제는 1961년에 쁘라야 히론침입, 1962년에 까리브해위기를 조성하였으며 1965년에는 도미니까인민들의 애국적무장봉기를 류혈적으로 탄압하였다.

1961년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라오스에 대한 무장간섭을 하였으며 1970년 5월에는 캄보쟈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1967년 6월에는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1969년 1월 미제의 새로운 두목으로 들어앉은 닉슨놈은 선행자들의 침략정책을 답습하면서 패배에 직면한 제놈들의 처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보다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1969년 여름 닉슨놈은 《닉슨주의》라는 새로운 침략수법을 들고나왔다. 미제는 《닉슨주의》의 기본화살을 세계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는 아세아지역에 돌리고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들을 무력으로 각개격파하려하였다. 미제는 해외에 널어놓은 병력가운데서 절반에 달하는 70여만명을 아세아와 태평양지역에 배치하고있으며 근 1천여개의 군사기지를 아세아에 두고있다. 그러나 《닉슨주의》는 반제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는 아세아에서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으며 미제국주의는 지금 아세아에서 자기 생명의 마지막시기를 살고있다.

《닉슨주의》는 중근동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파탄되고 있다.

파탄되는 《닉슨주의》: 1972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악랄한 《힘》의 정책과 그것을 뒤집어놓은 교활한 《평화전략》에 집요하게 매여 달리여 세계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발광적으로 감행하였으며 특히 《닉슨주의》의 창끝을 아세아에 돌리고 이 지역의 혁명력량을 파괴하려고 미쳐날뛰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궁지에 빠질수록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는 〈량면전술〉에 집요하게 매여 달리며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 법입니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12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침략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심각한 재정경제적위기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3회계년도 대외군사 《원조》의 60%를 동남아세아괴뢰들에게 쏟아부었으며 1971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2억3천500만딸라의 《무상군사원조》를 남조선괴뢰도당에게 던져주었다. 이렇게하여 죽어가는 괴뢰정권들을 부지하며 이것들을 내세워 침략전쟁에서 이른바 《군사적승리》를 이룩해보려고 망상하면서 인도지나에서는 전쟁의 《웰남화》, 《크메르화》의 간판밑에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미친듯이 확대강화하였다. 또한 남조선에서는 《미군감축》의 연막뒤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교활하게 감행하였다.

3월 10일 미제는 숱한 비행기, 장갑차, 포들의 지원밑에 4만여명의 남부웰남괴뢰군을 더 들이밀어 캄보쟈에서 침략전쟁을 새로이 확대하였다.

4월 1일과 그 이후 닉슨놈은 웰남에 미해공군무력의 대대적인 증파를 명령하였으며 공중비적들을 내몰아 웰남민주공화국의 여러지역에 대한 야수적인 폭격과 포격을 감행하였다.

5월 8일 닉슨놈은 저들의 웰남침략전쟁이 전면적파탄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북부웰남의 앞바다에 기뢰를 부설하여 하이퐁항을 비롯한 모든 항구들을 봉쇄하며 일체 보급로를 차단하고 북부웰남의 전지역에 대한 공군과 해군의 공격을 강화할데 대한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북부웰남의 항구들에서 모든 외국선박들이 떠날것을 파렴치하게 요구하여 나섰다.

10월에는 웰남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회복할데 관한 협정에 대하여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와 합의하고 서명할 날자까지 약속해놓고서도 이 협정에 조인하기를 거부하고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계속 강화하였다.

12월 18일 전쟁두목 닉슨놈은 북부웰남폭격《재개》를 또다시 명령하였으며 웰남인민을 《힘》으로 굴복시켜보려고 획책하였다. 《비52》 전략폭격기들을 포함한 수백대의 공중비적들과 군함들을 동원하여 하노이와 하이퐁을 비롯한 북부웰남의 전지역에 폭격과 포격을 련속 들이대고 하이퐁항 부근에 새로운 기뢰를 대대적으로 부설하였으며 원자핵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웰남앞바다까지 끌어들이였

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캄보쟈와 라오스에서도 제놈들의 침략군과 남부웰남, 타이, 캄보쟈, 라오스 괴뢰군을 동원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야수적인 살륙전을 벌리면서 해방지역에 대한 폭격을 미친듯이 감행하여 인도지나전역을 전쟁의 불길속에 휩싸이게 하였다.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2년 한해 동안에 미제공중비적들은 웰남과 라오스, 캄보쟈땅에 108만 4천 359톤에 달하는 폭탄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미제의 그 어떤 발광적인 책동도 인도지나인민들의 드센 반격에 부딪쳐 실패를 거듭하였다. 1년동안에 인도지나 3개 나라에서 박산난 미제침략군 비행기수만도 도합 3천 506대에 달한다.

미제는 조선에서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조선사람들끼리 싸우게》하려던 미제의 책동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또한 일본군국주의를 아세아침략정책수행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던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도 일본인민들의 항거로 난관에 부딪쳤다. 일본인민들의 증오와 규탄이 날이 갈수록 커감에 따라 궁지에 빠진 미제는 일본에 있는 제놈들의 침략적군사기지들의 형식적인 《축소》놀음과 오끼나와의 기만적인 《반환》놀음을 벌렸다. 오끼나와가 《반환》된 날인 5월 15일 오끼나와와 일본 각지의 511군데에서 26만 7천여명이 오끼나와 《반환》에 항의하여 시위와 집회를 벌렸다.

미제의 군사쁠럭도 거덜이 났다.

동남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기 위한 미제의 침략적군사쁠럭인 《세아토》가 파키스탄의 탈퇴와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의 탈퇴방침선포로 최후붕괴의 위기에 처하였으며 《아스파크》가 더욱 더 맥없는 존재로 되였다.

아세아에서 자기의 지배가 빨리 약화되고 20여년간에 걸친 중국에 대한 봉쇄고립정책이 무너지게 되자 닉슨놈은 흰기를 들고 패배자의 행각에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닉슨놈은 공식성원들과 기술집단과 보도진을 끌고 중국을 행각하였다. 2월 28일 발표된 콤뮤니케에서 미제는 《다이완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고있는것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며 《이 지역에서의 긴장상태가 완화되는데 따라 다이완에서 자기군대와 군사시설을 점차적으로 철수》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스무해 이상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며 중국인민을 반대하는 악랄한 도발책동을 일삼아 온 미제국주의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인정하게 되였다.

이제와서 미제침략자들이 그 어떤 침략정책의 패쪽을 들고 나온다해도 멸망과정을 역전시킬수는 없다.

심화되는 정치위기; 1972년에 미제는 안팎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미제의 범죄적인 침략전쟁정책을 반대하는 전세계인민들의 항거만이 아니라 미국인민들의 반전운동,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미국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대중적진출, 저주로운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미국흑인들의 투쟁이 더욱 세차게 전개되였으며 이것들은 하나의 흐름에 결합되여 미제를 헤여날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위기에 몰아넣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미제는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미국안에서 인민들의 반전운동이 세차게 일어나고있으며 지배층내부의 모순도 심하여지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32페지)

미제의 전쟁정책은 미국인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있으며 미국인민들을 닉슨도당을 반대하는 반정부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미국에는 이미 《전국평화행동련합》, 《로동자, 학생투쟁동맹》 등을 비롯한 100여개의 반전투쟁단체들이 조직되여 있으며 미국인민들의 반전투쟁은 더욱 조직화되고 치렬해지고있다.

1월 1일부터 미국근로자들은 인도지나에 대한 미제의 침략중지를 요구하여 치렬한 반정부시위를 벌렸다. 워싱톤에서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백악관》에 밀려가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을 걷어치우라!》, 《폭격을 중지하라!》등의 반전구호를 들고 시위를 벌렸다.

5월 닉슨놈이 북부웰남의 모든 항구들을 봉쇄하며 북부웰남의 전지역에 대한 공군과 해군의 공격을 강화할것을 명령한후 뉴욕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강력한 반정부시위들이 벌어졌다. 22개의 로조단체대표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웰남에서 침략전쟁을 당장 중지할것을 닉슨도당에게 강력히 요구하였다.

6월 22일 워싱톤에서는 미국의 30여개주에서 모여온 수천명의 녀성반전단체성원들과 대표들, 웰남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갔던 이전미제침략군병사들과 각계층근로자들이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렸다.

10월 18일 남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항구도시 찰스톤에서는 여기에 정박하고 있던 구축함 《버젤톤》호가 웰남침략전쟁터로 떠나게 된데 항의하여 뽀트와 배들을 타고 바다에 나가 해상반전시위를 벌려 이 해적선의 앞길을 봉쇄하였다. 반전시위자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나선 《버젤톤》호 해병들도 《우리는 웰남전쟁에 참가하는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쓴 커다란 구호판을 처들고 군함갑판에서 반전시위를 벌렸다.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미국로동계급의 투쟁도 전국의 모든 부문을 휩쓸면서 장성강화되였다. 1972년 한해동안에 총 5천 100건에 달하는 파업투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는 170만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이해에 일어난 파업투쟁들은 건수에 있어서뿐만아니라 그 규모와 지속성, 치렬성에 있어서 이전의 파업투쟁들보다 더욱 격렬하였으며 단순한 경제투쟁의 울타리를 벗어나 정치적성격을 강하게 띠고 전개되였다.

1월 17일부터 미국의 태평양연안일대의 1만 5천명의 부두로동자들은 임금을 올리며 로동조건을 개선할데 대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또다시 총파업에 일떠섰다. 파업으로 인하여 태평양연안의 24개 주요항구들이 모두 완전히 마비상태에 빠져들어갔으며 이로 인하여 미제는 인도지나침략을 위한 군수물자수송에서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이에 바빠맞은 닉슨도당은 파쑈악법인 《타프트—하틀리법》을 발동하였으나 날로 강화되는 로동자들의 이 파업투쟁을 억누를수 없었다.

3월부터 《제네랄 모터스》회사산하자동차공장 로동자들이 172일동안이나 장기적인 파업투쟁을 벌려 로동조건의 개선과 임금인상을 위한 요구조건을 관철하였으며 7월 《포드》자동차회사산하 2천 900명의 로동자들도 24일간의 파업투쟁끝에 승리하였다.

6월 30일 미국항공회사 《노루에스르에일란스》산하 1천 600명의 비행사들이 회사기업주놈이 임금 인상과 로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요구를 들고 일어나 씨애틀과 기타 도시의 비행장들을 마비시켰다.

7월 2일부터 뉴욕에서 6만 5천명의 건설로동자들이 로동조건의 개선과 새로운 단체계약체결을 요구하여 100여

일간에 걸치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건설부문에서는 300건에 달하는 파업이 련이어 일어났다.

9월 닉슨도당의 반인민적교육정책을 반대하며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워싱톤, 뉴욕을 비롯한 도시들에서 10여만명의 교원들이 줄기찬 투쟁을 벌렸다.

파업투쟁은 년중 줄기차게 전개되였는데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미국흑인들의 투쟁도 흑인단체들의 지도하에 조직적이며 과감한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5월 21일 뉴욕에서는 미국흑인단체들의 제1차전국대회에서 채택된 《흑인들의 정치강령》이 발표되였다.

10월 11일부터 미국 각지의 원주민들은 미제의 인종차별정책에 항의하여 《전국적항의시위행진》을 벌렸다. 각지에서 떠난 원주민들은 워싱톤에 모여 인공적박해정책에 항의하였다. 11월 3일 원주민의 한시위대렬은 반동기관인 《인디안담당관리국》건물을 점령하고 원주민들에 대한 미제인종주의자들의 잔인한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항의문을 반동당국에 들이댔다.

미국반동지배층내에서도 모순과 대립이 더욱 격화되였다. 미국반동지배층내부의 각이한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리익과 자기 세력의 확대를 위하여 서로 물고뜯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치렬한 대통령감투싸움이 벌어졌다. 닉슨놈은 자기의 패거리들로 《닉슨재선운동위원회》라는것까지 만들어 놓고 막대한 선거자금을 탕진하였으며 제놈이 대통령자리에 들어앉기 위한 별의별 모략을 다 꾸몄다. 6월 닉슨놈은 《워터게이트호텔》에 자리잡고있던 민주당본부에 제놈들의 심복들과 정탐군들을 시켜 도청장치를 설치케하고 민주당의 선거활동내막에 대한 정보를 내탐하는 더러운 행위까지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더우기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닉슨놈은 제놈의 심복으로 활약한 《백악관》의 몇몇 보좌관들과 사법장관을 제손으로 철직시키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워터게이트도청사건》은 서로 물고뜯는 미국지배층내의 부패상과 추악상을 낱낱이 드러내놓았다.

경제 경제의 주요 특징은 군사화이다.

중공업부문총생산에서 군수생산이 40%이상을 차지하며 국민총생산액의 4분의 1이 군사적수요에 돌려지고있다. 또한 미제의 과학기술자의 4분의 3이 군사공업부문에 집중되여있다.

미국경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생산과 자본의 고도의 집중이다. 경제명맥은 록펠러, 모르간, 듀폰, 멜론 등을 비롯한 8대재벌의 손아귀에 들어있다.

공업은 군수생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련결된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등의 중공업이 큰 몫을 차지하며 경공업은 2차대전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

농업은 자본주의적농장경영이 지배적형태로 되여있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밀, 귀밀, 수수 등이며 그중 강냉이가 알곡총생산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농업에서 상품생산액적으로 보아 축산업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돼지, 가금류 등이다.

미국에서의 생산과 자본의 고도의 집중, 경제의 군사화는 미국경제를 심각한 파국적위기에 몰아넣고있다.

1969년 8월부터 시작된 다섯번째 경제위기는 재정분야에서도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여 산업분야에서의 위기와 겹치면서 경제전반을 휩쓰는 만성적성격을 띠고 지속되고있다. 전후 일어난 1차경제위기(1948—1949)는 16개월, 2차위기는(1953—1954)는 7개월, 3차위기(1957—1958)는 14개월, 4차위기(1960—1961)는 12개월이였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30개월이상이나 지속되고있으며 계속 심각화되고있다.

공업생산은 1969년 8월부터 계속 하강선을 긋기 시작하여 1971년말에는 1969년 7월에 비하여 6%나 떨어졌다. 생산의 감퇴와 침체현상은 미국경제의 《3대기둥》이라고 불리우는 강철, 자동차, 건설공업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고있다. 1971년의 강철생산은 25년이래 최저수준으로 내려갔으며 자동차생산은 1970년에 비해 5.7%나 줄어들었다. 1971년에 공장평균조업률은 75.4%에 이르렀으며 강철공업에서의 조업률은 4.4분기에 50%까지 줄어들었다.

농업에서의 위기도 만성적으로 지속되고있다. 농촌주민의 2.7%에 불과한 대토지소유자들이 전국 농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있다. 매년 약 11만명의 농업로동자들이 직업을 잃고 도시로 밀려들고있다. 최근 10년동안에만도 중소농장경영자들의 4분의 1이 파산몰락하였다.

재정금융분야에서의 위기는 국가재정형편의 급격한 악화와 통화팽창의 격화, 국제수지적자의 부단한 증대로 딸라위기의 심화를 빚어내였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230억딸라이상의 예산적자를 내고있으며 미제가 걸머진 국가채무는 4천 300억 딸라를 훨씬 릉가하며 국가채무에 대한 리자를 물기 위해서만도 해마다 근 200억딸라를 국고에서 털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로 인하여 통화람발은 계속되고 통화류통량은 해마다 7~9%수준에서 부단히 불어나고있다. 1972년에 화폐공급량은 전해에 비하여 11% 늘어났다.

대외무역분야에서의 적자는 딸라의 위기를 보다 위태롭게 만들었다. 1972년에 대외무역적자는 1971년에 비하여 3배에 달하는 64억 4천만딸라로서 《력사상 최고기록》을 냈다.

1972년에 국제수지적자는 1971년보다 6억 딸라나 더많은 100억딸라에 달했다.

이것은 금보유량의 부단한 감소를 가져왔으며 딸라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미제의 금보유량은 전후 최고였던 1949년의 246억딸라로부터 1972년 2월에 95억 8천 800만딸라로 줄어들었으며 반면에 미제가 걸머진 해외단기채무액은 80억딸라로부터 650억딸라로 8배이상이나 늘어났다. 현재 미제가 가지고있는 금보유량은 미제가 물어주어야 할 해외단기채무액의 7분의 1밖에 안된다. 딸라가 금교환담보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자 서방세계금융시장들에서는 《열띤 딸라판매소동》, 《금구입소동》을 일으키였다.

미제는 딸라의 가치를 금1온스당 35딸라로 고정시켰는데 1973년 2월초에는 금1온스당 70.6딸라로서 2배이상 뛰여오른것으로 된다. 딸라가치의 폭락으로 딸라를 평가인하할것을 요구하는 서방세계각국의 강한 압력에 더는 버티여 낼수 없게 된 미제는 1971년 12월 딸라가치를 7.89%로 평가인하한데 뒤이어 1973년 2월 12일 또다시 10% 평가인하하였다.

그러나 딸라 환률을 약간 변동시키는것과 같은 간단한 수술로써는 결코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는 미국경제와 골병이든 딸라를 구출할수 없다.

악화되는 인민생활, 썩고 병든 사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는 극소수의 착취자와 압박자들에게는 〈천당〉이지만 절대다수의 피착취, 피압박 근로자들에게는 〈지옥〉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2권, 258페지)

황금만능의 미국사회에서는 몇명 안되는 독점자본가놈들이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국민소득의 60~70%를 독차지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있는 반면에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헐벗고 굶주리고있다.

근로자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는 그들

의 취업상태에서 나타나고있다. 1972년에 실업률은 1971년에 비해 6.2% 늘어났다. 550여만의 완전실업자를 포함하여 무려 2천만명의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있다. 실업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하는것은 로동자들만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 네거리에서 헤메는 박사, 과학자, 기사들이 보스톤교외에만도 1만명이나 된다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또한 실업현상은 농촌에서도 심하다. 매년 평균 11만에 달하는 농업로동자들이 쫓겨나고있는데 그 수는 무려 200만을 헤아린다. 특히 흑인들의 실업률이 매우 높다. 흑인청년들의 실업률은 39.1%에 달한다.

근로자들의 실수입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세금부담액과 상품가격은 해마다 뛰여오르고있다. 1948년부터 1972년에 이르기까지 세금부담액은 무려 4배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수입의 40%를 세금으로 내놓는 형편에 있다.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비률은 1970년에 41%였다. 대중소비품값은 평균 5~6%씩 계통적으로 뛰여오르고있다. 1972년 2월에 각종 식료품값은 1971년에 비해 1.7% 또다시 뛰여올랐다.

미국에서는 전체 주택의 4분의 1이 오막살이거나 빈민굴이며 미국인구의 3분의 1이 이런곳에서 산다. 미국에는 빈민굴이 35만개소나 되는데 빈민굴에서 살고있는 세대가 뉴욕에만도 최소한 50만세대나 된다. 아무런 시설도 없는 단간방 하나를 얻는데도 1개월에 보통 로동자들의 한달임금의 근 절반에 해당한 집세를 물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매해 52만명이 병원 문앞에도 못가보고 죽고있다. 환자들이 한번 진찰을 받으려해도 100만딸라가 있어야 하며 맹장염과 같은 간단한 수술을 받자고해도 250만딸라가 있어야 한다. 여러가지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1천만명이나 되며 정신병에 걸린 사람만도 100만명에 달한다. 농촌에서는 인구 50만명당 의사 1명이 차례지나마나한 형편이다.

미국에서는 600만의 청소년들이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못하며 1천 400만의 학령아동들이 학교문앞에도 못가고 있다. 25살이상되는 성인들의 절반이상이 글을 모른다. 년평균 학비가 전문학교에서는 3천딸라, 대학에서는 2천 600~6천 500딸라인데 이것은 보통로동자가 1년내내 번돈을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몽땅 학비로 바쳐도 모자란다. 매년 중학교 학생의 30~40%, 고등학교학생의 약 40%가 엄청난 학비를 감당할수 없어 학교를 그만둔다.

세계에서 으뜸가는 《범죄의 왕국》, 《악마의 소굴》인 미국에서는 평균 36분마다 1건의 살인사건, 25분마다 1건의 강탈사건, 15분마다 1건의 강간사건, 20초에 1건의 절도사건이 일어난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톤에서만도 매일 평균 한건이상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고있다. 미국의 도시와 교외지구에서는 범죄건수가 매년 평균 6~11%, 농촌에서는 10%씩 늘어난다.

썩고 병든 미국사회에서는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2천 400만이 마약사용자이며(마약중독자는 830만명)800만에 달하는 알콜중독자가 있다. 알콜중독의 비극으로 울고있는 사람은 2천만명이나 된다. 미하원군사위원회가 극력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2년 10월) 미제침략군의 50~60%가 마약을 사용한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피, 유피아이, 유에스아이에스.

신문 워커(공산당기관지), 데일리 월드, 블랙크 펜서(흑인펜서당기관지), 가디언, 뉴욕타임스, 워싱톤 포스트, 헤랄드 트리뷴, 크리스챤 싸이언스 모니터, 월 스트리트 저널.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8월 미국조선친선공보쎈터가 결성되였으며 1971년 6월 24일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가 창설되였다.

1970년까지 뉴욕에 있는 출판사 《가디언》사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전기《김일성전》(영문판 1, 2, 3부)을 수만부 출판하였다. 《뉴욕타임스》지 1969년 10월 27일호는 《조선은 20세기의 영웅을 낳았다. 김일성전 제1부》라는 제목으로 옹근 한면에 걸쳐 《김일성전》제1부를 소개하는 글과 새로 출판될 2부와 3부의 내용을 알리는 글을 실었다.

뉴욕의 이름난 출판사 《인터내슈널 파블리셔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포함한 1955~1970년 사이에 발표한 9편의 로작들을 편집수록한 문헌집 《조선에서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출판하였다.

1972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신문 《가디언》 4월 19일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실었다.

1970년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미국공산당전국위원회 위원장 헨리 윈스톤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대표단은 10월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2년 5월에 미국 《뉴욕 타임스》지 부주필과 그 일행, 《워싱톤 포스트》지 극동총국장과 7월에 미국하바드종합대학교수와 그 가족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뉴욕 타임스》지 부주필과 《워싱톤 포스트》지 극동총국장은 5월 26일과 6월 21일에 각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메 히 꼬

(메히꼬합중국)

메히꼬는 북미대륙의 남쪽끝에 있으며 미국과 접하고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메히꼬고원으로 되여있으며 동쪽과 서쪽 바다가에는 좁은 벌들이 있다. 해발 1천m이하의 낮은 지대는 열대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이 27°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천 500mm 정도이다. 해발 1천~2천m되는 산지대는 아열대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이 24°C이며 해발 2천m이상의 고원지대는 온대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이 18°C이다. 이 고원지대에는 선인장과 룡설란 등의 식물이 숲을 이루고있다.

【넓이】 197만 2,546km²

【인구】 5,083만명 (1971년)

주민의 60%가 메티스(인디안과 에스빠냐인의 혼혈인)이며 이밖에 인디안 30%, 백인 10%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메히꼬(주민 760만 6,000명)

【의회】 상하량원제,

상하량원의석 (상원 60석, 하원 213석)의 대부분은 립헌혁명당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 대통령 루이스 에체베리아 알바레스(1970년 12월—), 외교부장 에밀리오 라바싸, 국방부장 에르메네힐도 꾸엔까 디아스

대통령임기는 6년이며 재선될수 없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9월 15일에 창건, 제1비서 아르놀도 마르띠네스 베르두고, **립헌혁명당**(집권당), **국민행동당**, **인민사회당**, **혁명정의당**, **민족해방운동**, **로동자농민총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녀성련맹**, **메히꼬조선친선협회** 1970년 10월

결성.

정치 메히꼬는 1521년부터 300년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6일에 독립하였으나 그후에도 계속 미국, 영국, 프랑스, 에스빠냐 등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당하였다. 1798년부터 1942년까지의 기간에 22차에 걸쳐 미제의 무력침략을 받았으며 240만km²의 령토를 놈들에게 강탈당하였다.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메히꼬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34년부터 1940년까지에 집권한 정부는 미영독점체들의 원유기업소를 국유화하였으며 《토지개혁》도 실시하였다.

1941년부터 반동들이 집권하면서 미제의 경제적침투가 급속히 강화되였다.

다른 한편 메히꼬인민들의 반미투쟁은 강화되였다. 메히꼬정부는 1961년 4월 꾸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확고한 불간섭원칙을 견지하였으며 꾸바와의 관계를 끊을데 대한 《미주국가기구》의 결정을 거부하고 꾸바와 외교관계를 견지하였다.

1971년 10월 유엔총회 제26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권리를 회복하며 장개석도당을 즉시 내쫓을데 대한 결의안표결에 찬성투표하였다.

【주요사건】 1972년에 메히꼬정부는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길로 나가기 위하여 일련의 반미적조치를 취하였다.

메히꼬정부는 령해권을 200마일로 선포하고 1972년 3월 하순부터 4월초까지 15일간에 메히꼬의 령해권내에 침입한 미제해적선 4척을 붙잡았으며 그후 법령을 채택하여 1973년 1월 1일부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배들이 나라의 령해권내에 들어오는것을 금지시킴으로써 1969년에 미제와 체결했던 불평등《협정》을 폐기하였다.

11월에 정부는 자동차공업에 대한 외래독점체들의 투자를 금지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1973년 3월에는 외래독점자본의 투자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을 발포하였다.

메히꼬 동생산총량의 60%를 차지하던 카나다동광회사와 류황생산의 75%를 차지하는 범아메리카류황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정부는 9월 24일 《교원》이라는 간판밑에 메히꼬에 기여들어 정탐파괴활동을 일삼던 미국놈을 내쫓았으며 1973년 4월에는 미제의 문화적침투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사람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며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미제영화상영을 금지할것과 《미국식생활양식》을 설교하는 미제의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을 금지시키는 2건의 법령을 발포하였다.

1972년에 메히꼬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생활상 처지개선을 위한 투쟁도 힘차게 벌어졌다.

1월 13일에 있은 메히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정치범들의 석방과 인민들의 탄압을 반대하는 대중운동, 로조활동의 자유,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강화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활동강령을 채택하였다.

이해 인민들의 투쟁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6월 27일에 있은 4만 5천명의 방직공들이 임금을 올리며 로동조건개선을 요구하여 일으킨 파업을 비롯하여 10월 꿀리까네시의 뻐스운전수들의 파업, 7월 며악스 깔라시의 농민들과 학생들의 투쟁, 8월에 쏘노라주 농민들의 투쟁 등 민주주의와 생활처지개선을 요구하는 각종 투쟁이 벌어진것이였다.

특히 《싼끄리쓰또발》사탕공장로동자들은 임금을 높여줄것과 로동조건, 생활처지개선 등을 요구하여 11월부터 50일간이나 투쟁을 계속함으로써 요구조건의 일부를 관철시켰다.

1972년에 메히꼬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대통령 루이스 에체베리아 알바레스는 이해에 칠레와 일본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광업이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15%(3천만ha)밖에 안되며 주요농산물은 밀, 강냉이, 사이잘삼, 목화, 커피, 사탕수수, 담배 등이다. 부침땅의 53%에 강냉이를 심는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취공업이다. 은생산량이 세계에서 제1위를 차지한다. 그밖에 금, 아연, 연, 동, 철, 류황, 석유 등 지하자원이 있다.

그러나 채취공업의 대부분과 기계제작공업의 31%, 식료공업의 75%, 제약공업의 90%, 상업회사의 90%가 미제독점체들의 손아귀에 들어있다.

미제의 경제적침투로 1972년에 이 나라의 가장 큰 방직공장 10개가 파산몰락되였다.

방직공업의 중심지인 뿌에블라시에서만도 최근년간 크고 작은 40개의 방직공장이 문을 닫았다.

1972년 11월과 1973년 3월 법령에 의하여 자동차공업에 대한 외래독점자본의 투자가 금지되였으며 석유 및 석유화학공업, 전력공업, 철도, 전신전화는 국가의 통제밑에 놓이게 되였으며 방송, 항공, 해상운수, 산림개발, 가스공업 등은 메히꼬사람들에게 장악되였다.

1972년도 이 나라의 대외채무액은 38억 4천만딸라였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반기아상태에 있으며 1천 200만명이 만성적영양부족으로 고통을 겪고있다. 로동인구의 4분의 3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다. 1950년에 태여난 사람가운데 일자리를 가지고있는 사람은 불과 20%이다.

370만명의 학령아동이 학교에 못가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오뻐씨시온(공산당기관지), 오바씨오네스, 엘 뻐뿔라르, 엘 나씨오날, 울띠마스 노띠시아스 데 엑쎌시오르, 엘 디아.

잡지 씨엠뿌레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10월에 메히꼬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2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그이의 영광찬란한 전기《김일성전》제1부를 메히꼬의 이름난 출판사인 《인민문화사》가 에스빠냐어로 출판하였다.

메히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아르놀도 마르띠네스 베르두고가 1972년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과 떼 말 라

(과떼말라공화국)

중미대륙의 서부 메히꼬의 남쪽에 있다. 령토의 3분의 2가 산악지대이다.

적도계절풍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5~30°C, 강수량은 2천~3천mm이다.

【넓이】 10만 8,889km²

【인구】 535만명(1971년)

주민은 인디안(54%), 혼혈인(35%) 기타 백인과 흑인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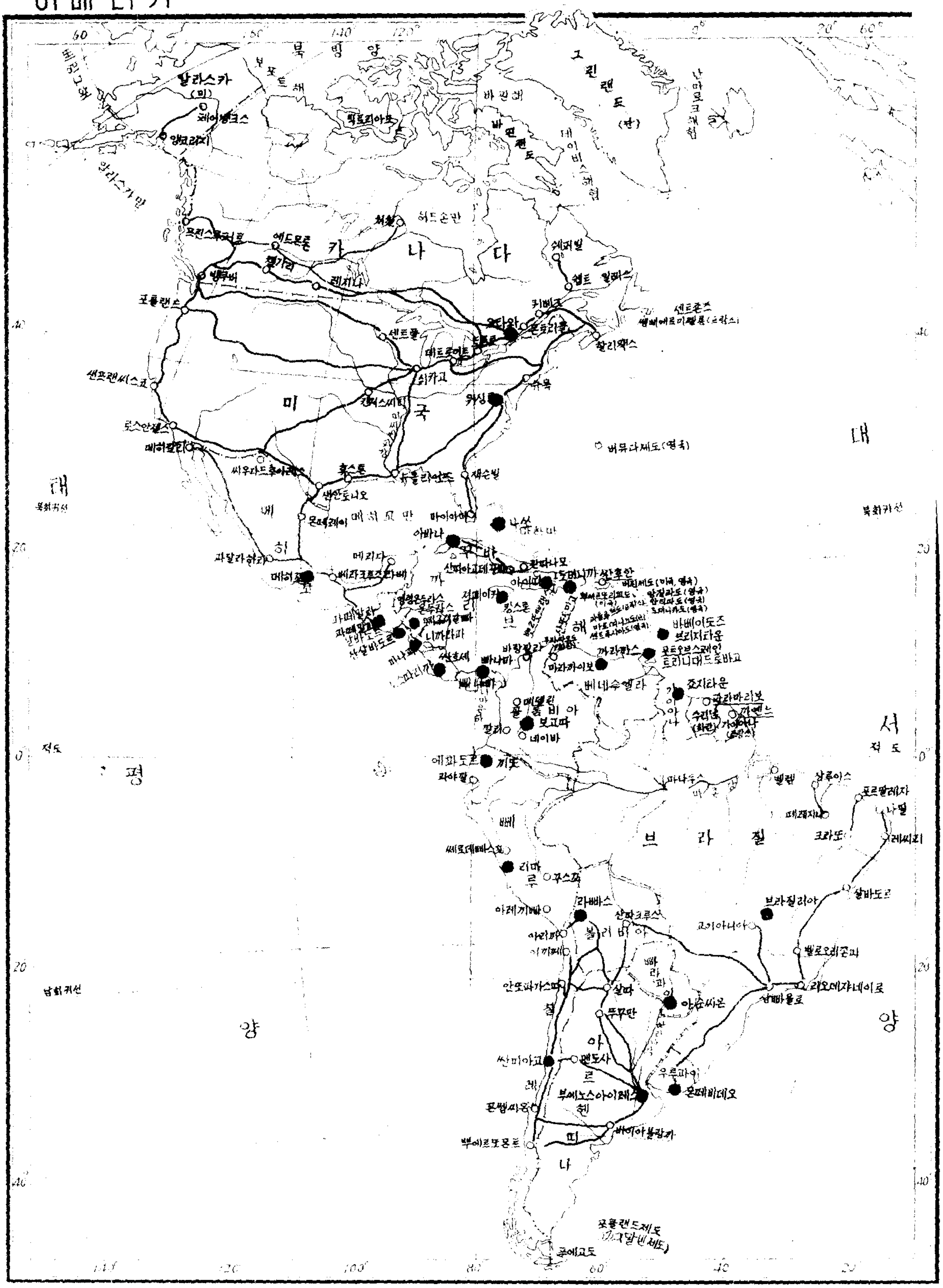
【수도】 과떼말라(주민 약 77만명 1970년)

【국민의회】 일원제, 의원수 55명

【정부】 대통령 까를로스 마누엘 아라나 오소리오(1970년 7월—), 외교부장 로베또 이바르겐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49년 9월 28일 창건된 공산당을 1952년에

아메리카


북 빙 양
알라스카 (미)
그 린 랜 드 (단)
카 나 다
미 국
브 라 질
배파 라 과이
볼 리 비 아
베네수엘라
콜 롬 비 아
아 르 헨 티 나
칠 레
뻬 루
대 서 양
태 평 양
적도
북회귀선
남회귀선
멕 시 코 만
허드슨만
오타와
워싱톤
뉴욕
쉬카고
샌프란씨스코
로스안젤스
아바나
리마
보고따
라빠스
브라질리아
리오데자네이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몬떼비데오
아순씨온
싼띠아고
버뮤다제도(영국)



인민통일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칠레수도 싼띠아고 인민들



《미제는 칠레에서 손을 떼라!》고 웨치면서 칠레인민통일정부를 지지하는 미국인민들



반미시위에 떨쳐나선 뻬루인민들



꾸바의 혁명무력



아르헨띠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로동당으로 고침. 총비서 베르나르도 알바라도 몬손(1972년 9월 피살). **혁명당, 국민해방운동**(집권당), **립헌민주당**(집권당), **민족혁신당, 기독교민주당, 자치로조련맹, 애국로동청년.**

정치 1524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에 독립하고 1839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1년 민주력량의 지지밑에 수립된 아르벤스정부가 민주주의적인 일련의 법령을 채택하자 미제는 반동들을 사촉하여 1954년 6월 친미독재정권을 조작하였다.

1960년 4월 반동정부는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고 자국령토를 미제의 반꾸바책동의 근거지로 내맡겼다.

1970년 7월에 집권한 오소리오친미독재정권은 이해 《계엄령》, 《통행금지령》을 선포하고 반미반독재투쟁에 궐기한 진보적력량을 탄압하고있는데 1970년 7월부터 1년동안에 2천여명의 애국자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1971년에는 반동국회를 발동하여 《평정계획》을 꾸며내여 미제 《고문》놈들의 직접적지휘밑에 반동군경놈들과 테로단체들을 내몰아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였다.

파떼말라의 애국자들은 1962년부터 《파떼말라를 위한 승리냐, 죽음이냐》라는 구호밑에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진행하고있다.

1970년부터는 도시유격투쟁이 강화되였다. 1970년 3월 유격대들은 서독대사를 사로잡고 교환조건으로 애국자들의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측이 이를 거부하자 그놈을 살해하였다.

1972년 7월 파떼말라유격대의 한 소조는 수도 파떼말라시의 한 식당에 처들어가 그곳에 있던 친미반동독재정권의 국회부의장놈을 쐬죽였다.

11월 9일 파떼말라종합대학 학생협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친미독재정권을 규탄하고 무고하게 감금된 애국자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목화, 사탕수수, 강냉이, 벼 등이다. 커피는 해마다 20만 t이상 생산되며 수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

커피농장은 1만 2천개이나 수확의 80%는 1천 500개의 대농장이 독차지하고있다.

연, 아연, 은, 안티몬, 크롬 등의 지하자원이 있으며 림산자원이 많다.

주요경제명맥은 미제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미제의 《유나이테드》 과실회사는 바나나와 커피를 독점하고있으며 모든 항구 그리고 수출의 4분의 3을 틀어쥐고있다. 미제는 해마다 파떼말라에서 1억딸라이상의 리윤을 짜낸다.

10세이상의 문맹률은 63%이다.

주민들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베르다드(로동당기관지), 쁘렌싸 리브레, 라 오라.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파떼말라애국로동청년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살 바 도 르

(살바도르공화국)

중미의 태평양연안에 있는 나라이다. 이 나라는 중미나라들중 제일 작은 나라로서 령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되여있으며 화산이 많고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기후는 열대기후로서 12월평균기온은 22°C, 4월 평균기온은 24.6°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천 500~1천 800mm이다.

【넓이】 2만 1,393km²

【인구】 353만명(1971년)

주민의 대부분이 인디안—구라파 혼혈인이며 이밖에 백인, 인디안이 있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산 살바도르(주민 47만 1,860명, 1968년)

【의회】 일원제, 1972년 3월선거에서 국민화해당이 37석, 기독교민주당이 15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대통령 아르뚜로 아르몬도 몰리나(총리겸임, 1972년 7월 1일 취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에 창건, 지도자 호르헤시피끄 한달리, **국민화해당**(집권당), **민족민주당, 기독교민주당, 4월및5월혁명당, 청년동맹.**

정치 살바도르는 1524년 에스빠냐에 정복되여 그의 식민지로, 300여년간 파떼말라의 한개주로 되여있다가 1839년 9월에 독립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걸쳐 미제의 침략이 강화되고 놈들의 조작으로 내란과 정변이 많아 정권교체가 잦았다. 력대로 집권자들은 친미독재정책을 실시하여왔다.

살바도르의 친미독재정권은 1946년 미제가 조작한 《유엔조선위원단》에 참가하였고 1950년에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이 친미반동정부는 1962년에 《반공법》을 조작하고 인민탄압에 미쳐날뛰고있으며 1965년에는 미제의 침략도구인 《중미통합군》에 가담하였다. 이 나라에는 중미국가기구본부가 있다.

1972년 2월 20일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었는데 국민화해당의 아르뚜로 아르몬도 몰리나가 협잡으로 당선되여 7월 1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해 3월 25일 정변이 있었으나 이는 곧 분쇄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무기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경제, 사회 살바도르는 주민의 75%가 농사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이다. 14명의 대토지소유자들이 부침땅의 3분의 2를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인데 이것이 수출총액의 70%를 차지한다. 이밖에 목화, 강냉이, 사탕수수, 벼, 콩 등도 생산한다.

농업지역은 중앙의 화산지역과 고원지역이다.

공업은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커피가공공장을 비롯하여 식료공장과 방직공장이 약간 있을 따름이다.

주요수출품은 커피와 목화이며 수입품은 식량과 연유, 세멘트, 비료 등이다.

이 나라 총인구의 50%이상이 굶주림에서 허덕이고있다. 주민의 평균수명은 30세이며 80%가 문맹자이다. 주민의 대다수가 기독교를 믿는다.

온 두 라 스

(온두라스공화국)

중앙아메리카대륙의 한복판에 자리잡고있다. 북쪽은 까리브해, 남쪽은 태평양에 면하고있다. 중앙아메리카대륙에서 산이 제일 많으며 나라의 복판에 중앙아메리카산줄기가 있다. 여기에 2천~2천 500m높이의 산들과 해발 1천m안팎의 넓은 고원이 있다.

기후에서 특징은 네절기의 변화가 없이 5월부터 11월까지의 장마철과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가물철이 엇바뀌고있는것이다. 북부와 동북부 해안지대의 1월평균기온은 22°C, 7월의 평균기온은 25°C, 년평균강수량은 5천mm에 달한다. 내륙의 고원지대는 비도 적게 오고 기후도 온화하고 기온은 16~20°C이다. 그러므로 인구의 대부분이 이 고원지대에서 산다.

【넓이】 11만 2,088km²

【인구】 278만 1,000명(1973년 6월)

주민구성은 인디안과 에스빠냐인의 혼혈인(메티스)이 91%, 인디안이 6%, 흑인이 2%, 백인이 1%로 되여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떼구시갈빠(주민 21만 8,510명)

【국회】 일원제이며 64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였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오스왈도 로뻬스 아렐라노(1972년 12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7년에 창건되여 1933년에 비법화되면서 해산되였다가 1954년에 재건, 1956년에 다시 비법화. 국민당(일명 보수당, 집권당) 친미정당, 자유당, 혁신통일당 1972년군사정변후 창건, 근로자총동맹 1964년 창립

정 치 온두라스는 1502년에 구라파식민주의자들에게 알려진후 1520년에 에스빠냐식민지로 되였다. 1539년에 과떼말라의 일부로 된 온두라스는 에스빠냐총독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았다. 1570년에 은광이 발견되면서 수도 떼구시갈빠를 중심으로 백인이주민들과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흑인들의 수가 급격히 늘었다.

1811년에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봉기가 일어났으나 진압되였다. 그러나 인민들의 굴함없는 투쟁에 의하여 이 나라는 1821년 9월 15일 거의 300년간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났다.

1822년에 온두라스는 중앙아메리카의 다른 4개 나라(과떼말라, 살바도르, 니까라과, 꼬스따리까)와 함께 메히꼬의 한개 주로 되였다가 그 이듬해 온두라스를 포함한 5개 나라들이 《중미련방》을 형성하였다. 그후 《련방》(1938년)이 해체됨에 따라 1839년 온두라스는 독립적인 공화국으로 되였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걸쳐 미제독점회사들이 침투하여 경제생활의 전반을 틀어쥐였다.

1905~1933년사이에 온두라스인민들의 반미반정부폭동(1924년)과 농민봉기(1931년)를 비롯한 대중적인 투쟁이 끊임없이 전개되였다. 미제는 이에 대처하여 《질서유지》라는 구실밑에 로골적인 무력간섭과 경제적 예속과 통제를 일층 강화하였다.

미제의 비호밑에 독립후 온두라스에서는 빈번한 군사정변과 기만적인 선거놀음을 통하여 반동적인 두 정당인 국민당과 자유당이 100여년간 독재정치를 실시하였다. 1933년부터 1953년까지의 사이에 대체로 미제의 《유나이테드 프루트》회사의 조종밑에 국민당정권이 계속 집권하였다. 그후 수차례의 군사정변이 일어났으며 1963년 10월 3일 정변에 의하여 로뻬스 아렐라노군사령관이 정권을 잡고 파쑈테로통치를 실시하였다.

파쑈독재정권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자유와 생활상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은 1965년에 이르러 유격투쟁으로까지 발전하였으며 같은해 7월 떼구시갈빠에서 로동자들의 총파업이 일어났다.

한편 온두라스는 이웃 나라인 살바도르와 축구경기를 계기로 벌어진 충돌이 악화되여 1969년 6월 26일 두 나라간에 외교관계가 단절되였으며 같은해 7월 14일~8월 3일까지 사실상의 《전쟁상태》에 들어갔었다.

1971년 3월 28일 《선거》에서 반동적인 국민당의 에르네스뜨 꾸르스가 대통령으로 되였으나 로뻬스 아렐라노의 군사정변으로 1972년 12월에 거꾸러졌다.

경제, 사회 인구의 3분의 2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미제의 독점회사들인 《유나이테드 프루트》, 《스탠다드 프루트》와 전체 인구의 약 5%에 불과한 지주놈들이 부침땅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농민들을 억압착취하고있다. 미제독점회사들은 이 나라에 철도, 은행까지 두고 이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고있다. 수출작물인 바나나와 커피 생산은 거의 전부 이 회사들에 장악되여있으며 많은 농업로동자들을 혹심하게 부려먹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년산 110만t), 커피(2만 8천t), 목화(3천t), 강냉이(37만 5천t), 강남콩(5만여 t), 사탕수수(약 7만t), 벼(3만여 t)이다. 그밖에 콩, 마니오크, 담배, 남새도 가꾼다. 과거 온두라스는 세계 최대의 바나나생산국의 하나였다. 바나나재배원들은 까리브해연안의 낮은 지대에 집중되여있다.

이 나라의 동부지역에서는 소(약 175만마리), 돼지(92만마리), 말(28만여마리) 등을 기른다. 금, 은 광산들이 있으나 그것은 전부 미제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자체 민족공업으로서는 작은 규모의 석유가공, 사탕, 목재가공 공장 등이 있다. 1969년에 석유 3천만t, 사탕 5만여t이 생산되였다. 1972년말현재 대외빚은 도합 4억렘삐라에 달하였다. 그런데 금보유액은 1971년말현재 3천 650만딸라였다.

철길은 모두 1천 300km인데 바나나농장들과 까리브해항구들사이에 련결되여있다. 도로의 길이는 3천 600km이다.

수출품은 바나나(총수출액의 3분의 2), 커피, 은, 목재 등이며 대외무역에서 수출의 3분의 2와 수입의 4분의 3은 미제의 독점하에 있다.

이 나라는 로동인구의 25%가 실업상태에 있으며 10살이상 주민의 63%가 문맹자이다. 학령아동의 60%가 학교에 못가고있다.

주민의 대다수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라 가쎄따(정부기관지), 엘 뿌에블로, 꼬르레오 델 노르떼(무소속).

방송 온두라스방송, 온두라스텔레비죤방송.

영령온두라스

중앙아메리카의 유까딴반도 남쪽에 위치하면서 메히꼬, 과떼말라와 국경을 같이하고있으며 동쪽은 까리브해에 면하고있다. 땅생김새는 일반적으로 낮고 평탄하며 진펄이 많다.

기후는 열대성기후에 속하나 까리브해로부터 무역풍이 계속 불어오기때문에 그다지 덥지 않다. 년평균기온은 24~27°C이며 한해평균강수량은 북부지방에서 1천 200mm, 중부지방에서 1천 550mm, 남부지방에서는 4천 300mm나 된다. 령토의 대부분이 열대림으로 뒤덮여있는데 마호가니(가구용재)를 비롯한 질좋은 나무가 많다.

【넓이】 2만 2,965km²

【인구】 12만명(1971년)

주민의 75%이상이 흑인과 물라트이며 인디안은 주민의 17%이다.

공용어는 영어

【행정중심지】 벨리제(주민 4만 2,000명, 1971년)

【정당, 사회단체】 인민통일당 1950년에 조직되였고 1964년부터 집권당이다. 국회에서 17석을 차지하고있다.

당수 죠지 프라이스, **민족독립당** 1958년에 창건된 야당이며 국회에서 1석을 차지하고있다. **인민민주운동** 1969년에 조직, **영령온두라스로동자진흥총동맹**

정치 이 나라는 16세기초에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에스빠냐와 맺은 1786년의 《런던조약》에 의하여 이 나라의 산림경영권을 빼앗아냈다. 그후 1798년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이 지역의 인디안들을 매수하여 영제국주의세력을 쫓아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821년에 과떼말라는 헌법에서 이 나라를 자기의 령토로 선포하였다.

1859년 영국식민주의자들과 과떼말라는 온두라스를 과떼말라로부터 영국에 이관할데 대한 조약을 맺었다. 이리하여 온두라스는 1862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쟈메이카에 있는 영국총독놈의 통치를 받았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제자본의 침투가 강화되였다.

전후 민족적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1964년 1월 1일부터 국방, 외교 등을 제외한 제한된 《내부자치제》를 인정하였다. 영령온두라스는 영제국주의자들과 과떼말라, 메히꼬사이의 령토분쟁대상으로 남아있다.

경제, 사회 농업과 림업, 수산업이 국민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며 로동인구의 39%가 농업부문에 종사한다. 씨뿌림땅은 약 20만ha이며 주요농산물은 사탕(년산 5만t), 귤(4만 4천여t), 쌀(7천 400t), 야자, 바나나, 고무 등이다. 식량은 부족하여 해마다 수입한다.

축산업으로는 소(4만 2천마리), 돼지(1만 3천마리), 말, 노새, 당나귀를 기른다.

경제에서 림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마호가니채벌은 껌의 원료인 티크르의 채취와 함께 주요 산업의 하나이다. 공업기업소로서는 몇개의 사탕공장, 과일가공공장들이 있을뿐이다.

철길은 40km(좁은 철길), 자동차길은 850마일밖에 안되며 교통은 매우 불편하다. 수송의 대부분은 해상운수에 의존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사탕(50%), 귤, 과일즙(약 20%), 목재(5%)이다. 식량과 기계류, 생활필수품을 수입한다. 대외무역은 영국(수출의 39%, 수입의 33%)과 미국(36%와 29%)이 독차지하고있다.

원주민들의 대부분이 글을 모른다. 소학교외에 중학교와 전문 및 기술 학교들이 몇개 있다. 아동사망률이 매우 높다.

니 까 라 과

(니까라과공화국)

중미주에 위치하며 북쪽은 온두라스, 남쪽은 꼬스따 리까와 잇닿아 있다. 국토의 절반은 열대밀림으로 덮여있고 화산들이 많으며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산줄기들사이에는 큰 호수들인 니까라과호, 마나과호를 비롯한 이름난 호수들이 여러개 있다. 심한 더위로 하여 주민의 80%가 해발 500~900m에 이르는 고원지대와 호수주변들에서 산다.

열대성기후이고 년평균기온은 25~28°C이다.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가물철이고 5월~10월까지 장마철이다. 동부의 까리브해기슭의 년평균강수량은 2천~4천mm, 서부의 태평양기슭에서는 년평균 1천mm의 비가 내린다.

【넓이】 13만km^2

【인구】 198만명(1970년)

주민은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의 혼혈인인 메티스가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밖에 10만명정도의 흑인들, 약 3만명의 인디안이 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마나과(주민 39만 8,000명, 1970년)

【국회】 상하량원제이며 상원은 임기 6년인 16명의 의원과 종신의원인 이전 대통령 2명으로 구성된다. 하원은 임기 6년인 42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였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아나스따시오 소모사 데바일레(1967년 5월—)

【정당, 사회단체】 사회당 1925년에 창건되였던 공산당에 기초하여 1944년에 창건, 1945년에 비법화. **국민자유당**(집권당) 친미부르조아지와 대농장주들의 리익을 대변. **정통보수당** 지주들과 상업부르죠아지들 및 교권주의자들의 리익을 대변. **보수당** 1957년에 정통보수당이 분렬되여 조직. **독립자유당** 소모사의 독재를 반대. **기독교사회당** 1957년에 창건. **공화동원당** 1958년에 조직된 당으로서 소부르조아지와 인테리들의 리익을 대변한다. **싼디노민족해방전선** 니까라과에서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유격투쟁을 지도, 제1비서 까를로스 쏜세라, **로동총련맹** 1949년에 조직된 독재정권당국의 어용로조.

정치 1522년부터 300년간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의 독립전쟁시기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821년에 독립하였다. 1822년에 메히꼬에 병합되였다가 1823~1838년까지에는 《중미련방》의 성원국으로 있었다. 1838년 《련방》의 해체와 함께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세기후반기부터 이 나라에 대한 미제독점자본의 침투가 강화되였으며 20세기초에 와서는 사실상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1909년 미제는 반동들을 부추겨 니까라과에서 정변을 조작하고 이 나라의 재정 및 관세권을 빼앗았다. 놈들은 1914년 8월 5일 반동정부를 강박하여 《브라이언—차모로운하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을 구실로 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을 련결하는 운하굴설권과 해군기지설치권(폰세까만) 및 꼬른제도의 《조차권》을 강탈하였다. 이리하여 미제침략군이 이 나라를 강점하였다. 1926년 10월 19일 니까라과군대의 평범한 농민출신장군이였던 아우그스또 쎄싸로 싼디노를 중심으로 한 애국자들이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봉화를 추켜들었다. 그때부터 2천여명의 애국적인민들은 1만 2천여명의 미제침략군과 1933년까지 7년이상 싸웠다. (오늘 이 나라에서 반미반정부 무장투쟁을 지도하고있는 싼디노민족해방전선은 이 애국자의 이름을 단것이다.)

1936년에 미제의 지지밑에 니까라과 군사령관이던 소모사가 파쑈독재를 수립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소모사정부는 미제에 더욱더 추종하는 길로 나가면서 1954년에 놈들과 《군사조약》을 맺었으며 1965년 5월에는 미제의 침략도구인 《중미통합군》에 가담하여 도미니까의 애국적 군인들과 인민들의 무장봉기를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1966년에는 미제의 반꾸바책동에 호응하여 자기나라 령토를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와 꾸바반혁명분자들의 군사훈련중심지로 내맡겼다. 1967년에 30년간(소모사의 가족과 그 일당) 파쑈독재를 실시하여 온 소모사도당은 1950년에 채택된 《헌법》을 또다시 뜯어고치고 계속 친미독재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니까라과인민들은 1959년 5월부터 싼디노민족해방전선의 지도밑에 마다갈빠주와 히노떼가주를 중심으로 유격전선을 펴고 친미독재정권을 때려부시

기 위한 유격투쟁을 전개하였다. 유격투쟁과 함께 반동당국의 탄압정책과 략탈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도 해마다 강화되였다. 인민대중의 강력한 압력에 부딪친 친미독재당국은 미제와 체결하였던 예속적인 《브라이언—차모로조약》을 1970년 7월에 폐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소모사는 자기의 독재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반동적인 야당과 결탁하여 1972년에 실시하기로 되여있는 대통령《선거》를 1974년까지 연기하였다. 놈들은 이른바 《제헌회의》라는것을 만들어놓고 《헌법》에서 대통령재선을 금지하고있는 조항을 없애려고 책동하고있다.

경제, 사회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로동력의 57%가 농사하고있다. 부침땅의 50%이상을 외래독점체들과 국내대토지소유자놈들이 차지하고 몇가지 수출작물만을 재배하고있다. 농촌에서는 봉건적인 토지소작제도가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며 대부분의 농민들은 지주놈들의 토지에 얽매여 산다.

주요농산물은 목화와 커피, 사탕수수, 강냉이, 벼, 참깨, 남새 등이다. 동부지방은 수출작물인 목화를 많이 심고있는데 년간 7만여t 생산된다. 서북부지방에서는 커피(년산 3만t이상)와 기타 작물들을 가꾼다. 수출작물의 대부분은 미제독점자본가놈들이 헐값으로 빼앗아간다. 18만여t의 강냉이와 4만t가량의 당콩, 5만여t의 벼가 생산된다. 식량은 해마다 모자란다.

공업은 사탕수수가공공업과 채굴공업외에 화학, 석유, 금속가공, 종이공업이 있으나 그 규모는 작다. 공업총생산액에서 화학, 석유, 금속가공, 종이가 차지하는 몫은 25%정도이다. 한해동안에 5억 6천여만kwh의 전력과 11만t정도의 사탕이 생산된다. 이 나라에 대한 외래자본투자총액의 3분의 2는 미제독점자본이 차지한다.

대외빚은 1970년 현재 2억 1천 300만딸라이며 해마다 적자가 늘고있다.

교통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수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약 400km인데 그나마 좁은 철길이며 동부지방인 태평양연안에만 치우쳐있다.

주요수출품은 목화와 목화씨, 커피, 사탕, 목재이며 수입품은 기계, 화학제품, 운수수단, 설비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서독, 일본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도이다. 전체인구의 10%이상이 실업자이다. 농촌주민의 대다수는 빈농들이다. 국민의 65%이상이 문맹자이며 학령아동의 40%가 학교에 못가고있다. 대학은 2개 있다.

【출판보도】 신문 노베다데스(국민자유당계), 라 노띠씨아(독립자유당계), 라 쁘렌싸 그라피까(국민자유당계), 라 나씨온(보수당계), 라 쁘렌싸(무소속).

꼬스따 리까

(꼬스따 리까공화국)

중미국가로서 북쪽은 니까라과, 남쪽은 빠나마, 동북쪽은 까리브해, 서남쪽은 태평양과 잇닿아있다. 국토의 75%가 무성한 열대림으로 덮여있다. 중앙산줄기의 중간지대에는 3천 432m의 높이를 가진 이라쑤화산을 비롯한 여러개의 큰 화산들이 있다. 중앙고원지대는 열대에 속하나 해발고가 높기때문에 기후는 온화하다. 전체인구의 75%이상이 고원지대에서 산다.

고원의 중부지대의 기온은 제일 추운 때에 평균 19°C, 더운 때에 20.5°C이다. 까리브해기슭의 벌방지대는 평균기온이 25~27°C, 년평균강수량은 2천 500mm, 지역에 따라서는 3천 500mm되는곳도 있다.

【넓이】 5만 700km²

【인구】 179만명(1971년)

이 나라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중에서 에스빠냐인의 후손들인 크레올의 비률이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이다. 크레올과 메티스(인디안과 에스빠냐인의 혼혈인)가 주민의 97.6%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산 호세(주민 20만 3,000명, 1970년)

【립법회의】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 의원수는 57명, 임기는 4년이다. 총의석에서 민족해방당이 32석, 민족통일당련합이 22석, 사회행동당이 2석, 기독교민주당이 1석을 차지한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을 겸하며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호쎄 피게레스 페레르(1970년 5월 8일—)

【정당, 사회단체】 **꼬스따 리까인민전위당** 전신은 1931년에 창건된 공산당이며 1943년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1948년에 비법화되였다가 1950년부터 합법적으로 활동, 총비서 마누엘 모라 발베르데. **민족해방당**(집권당) 1945년에 성립. 부르죠아지들과 커피농장주들 및 지주들의 리익을 대변한다. **민족동맹당** 1947년에 조직, 대부르죠아지들과 미제독점자본과 련결된 대농장주들의 정당, **민주공화당, 공민혁명동맹당, 기독교민주당** 반동적부르죠아정당, **사회행동당** 1969년에 창건된 진보적정당, **민족통일당련합** 1966년에 친미반동정당들의 련합체로 결성. **근로자총련맹**(1952년에 조직되고 세계직련에 가맹), **민주근로자련맹, 혁명청년동맹.**

정 치 16세기초부터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5일 독립하였다. 1824년에 《중미련방》에 들어갔다가 이것이 해산되자 1839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20세기초부터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대신하여 미, 영제국주의자들의 침투가 일층 강화되였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기간에 미제가 영제국주의세력을 내몰고 이 나라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

꼬스따 리까인민들은 오랜기간 미제의 략탈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1948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미제와 그 괴뢰들을 반대하여 큰 규모의 봉기가 일어났다. 인민들의 반미투쟁의 압력에 눌리여 정부도 할수 없이 미제의 략탈정책을 반대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1955년 니까라과반동들을 부추겨 꼬스따 리까에 대한 무력침공까지 감행케 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시도는 분쇄되고 1956년 1월 꼬스따 리까와 니까라과간에는 《무장충돌을 방지할데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965년 1월에는 중미에 새로 운하를 건설하기 위하여 미국무차관보놈이 기여든것을 반대하여 강력한 대중적시위투쟁이 벌어졌으며 이해 3월말에는 미제대사놈이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쫓겨났다. 1966년 4월에는 나라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령해를 200해리로 정하였다.

1970년 2월에 진행된 국회선거에 인민전위당이 22년만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선거결과 이해 5월에 집권한 피게레스정부는 미제의 로골적인 간섭과 전복음모를 물리치면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민족적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정부는 대부르죠아지들에 대한 세금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소생산자들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데 대한 법안을 내놓았으며 82년간 이 나라에서 돈벌이를

하여온 영국독점체의 철도회사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미중앙정보국이 파쑈단체인 《자유꼬스따 리까운동》을 사촉하여 현정부를 전복하려던 책동이 밝혀지자 1972년 3월에 미제대사놈과 중앙정보국 간첩놈들을 내쫓았다.

1971년 2월에는 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미제의 침략적군사기구인 《중미방위리사회》에서 나왔다. 또한 미제가 중미나라들과 까리브해지역에서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할 목적으로 새로 조작하려는 침략적군사블럭인 《중미련방》에 들어가는것을 거부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많은 부분이 미제독점체들에 예속되여있다. 로동인구의 48%가 농사한다. 농업은 수출용농산물생산에만 치우치고있기때문에 알곡은 해마다 수입에 의존한다. 까리브해 기슭의 낮은 지대에는 《유나이테드 푸르트》회사를 비롯한 미제독점체들의 바나나, 커피, 사탕수수, 코코아 농장들이 집중되여있다. 해마다 100~120만t의 바나나, 80만t이상의 커피, 5천t가량의 코코아가 생산되는데 그 대부분은 미제독점회사들이 략탈해가고있다.

공업은 제국주의독점체들의 통제밑에 있는 식료가공공업과 방직, 신발공업이 있을뿐이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약 17%에 불과하다. 전력은 년간 92만kwh 생산된다. 그밖에 30만t 능력의 석유가공공장이 있다.

철길의 총연장은 1천 400km에 불과하며 그의 65%가 미제독점회사의 소유이다.

수출품에서 바나나, 커피, 코코아가 60%이상 차지하며 기계, 화학제품, 식량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거의 절반 차지)과 서독이다.

문맹자의 비률은 중미나라들 가운데서 비교적 낮은 나라에 속하나 15세이상주민중 16%가 글을 모른다. 중학교는 99개이고 대학은 하나밖에 없다. 50%이상의 주민은 집아닌 집에서 산다. 천주교가 국교로 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리베르따드(인민전위당기관지), 라 레뿌블리까(민족해방당기관지).

방송 꼬스따 리까방송, 꼬스따 리까텔레비존방송.

빠 나 마

(빠나마공화국)

중미주의 남쪽에 있다. 동쪽은 꼴롬비아, 서쪽은 꼬스따 리까와 잇닿아있다. 나라의 중부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련결하는 빠나마운하가 가로 놓여있다. 서쪽의 따라만까산줄기에는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찌리끼산(일명 바루산, 3천 478m)이 있다. 국토의 70%가 무성한 열대림으로 덮여있다.

아열대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5~28°C이다. 6~12월까지는 장마철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천 500~3천 700mm에 달한다.

【넓이】 7만 5,650km²(운하지대는 제외)

【인구】 157만명(1973년, 운하지대는 제외)

주민은 물라트(흑인과 백인사이의 혼혈인) 72%, 흑인 15%, 백인 13%이다. 물라트와 흑인은 운하건설당시 강제로 끌려온 흑인들의 후손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빠나마(주민 41만 2,000명, 1970년)

【국민회의】 최고립법기관으로서 임기 3년인 505명의 의원들로서 구성되였다. 의원들은 505개의 《자치체》들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된다. 1972년 8월에 선거되였다.

【대통령】 데메뜨리오 바실리오 라까스 1968년 10월 군사정변후 군사평의회에서 림시대통령으로 지명되였으며 1972년 9월 19일 국민회의에서 임기 6년의 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대통령과 부대통령이 집행권을 가진다.

【정부】 수반 오마르 또르리호스 에르레라(1972년 10월 11일—), 국가보안군 총사령관 및 총참모장겸임), 외교부장 후안 안또니오 딱크

【정당, 사회단체】 **빠나마인민당** 1930년에 조직된 공산당에 기초하여 1943년에 창건되였다. 총비서 루벤 다리오 쏘우사, **민족자유당**, **기독교민주당**, **민족동맹** 1960년에 우익정당들의 련합체로 조직된 당이다. **빠나마당**, **공화당**, **《제4세력》**, **로동조합총동맹**(세계직련에 가맹), **공산주의청년**.

정치 빠나마는 1501년에 꼴롬부스에 의하여 발견된후 16세기초부터 300여년간 에스빠냐식민지로 있었다. 1821년 11월에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대꼴롬비아련방공화국의 일부로 되였다. 20세기초 태평양과 대서양을 련결하는 운하를 파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자 미제는 1903년 8월 부당한 운하건설조건을 꼴롬비아에 강요하였다. 이 나라가 이를 거부하자 미제는 빠나마지역에서 이른바 《혁명》을 조작하고 1903년 11월에 빠나마를 대꼴롬비아련방공화국으로부터 떼내여 《독립》을 선포케 하였다. 미제는 이해에 빠나마괴뢰정부와 예속적인 《미국—빠나마조약》을 체결하고 운하굴설권과 그 량안지대의 《영구조차권》을 강탈하였다.

그후 미제는 1904~1914년기간에 빠나마운하를 건설하고 이 지대를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36개의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침략군을 주둔시켰다. 이때로부터 빠나마인민들은 예속적인 조약을 페기하며 운하지대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였다.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부딪친 미제는 1936년 《미국—빠나마조약》을 일부 수정하여 운하사용료를 올리고 저들이 쓰던 운하지구이외의 모든 토지를 내놓게 되였고 1947년에는 일부지역의 군사기지에서 쫓겨났다.

빠나마인민의 반미애국투쟁은 꾸바혁명의 승리와 수에즈운하가 국유화된 이후 더욱 줄기차게 벌어졌다. 1959년 11월 빠나마인민들은 운하의 국유화를 요구하는 반미시위를 벌리는 동시에 미국놈의 대사관을 습격하였다. 이에 바빠맞은 미제는 1960년 9월 운하지대에 대한 명목상의 주권을 인정하고 1963년 1월에는 운하지대에서 량국국기를 동시에 게양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이를 위반하고 1964년 1월 9일 운하지대안의 미국인학교에 미국놈의 기발만 매달았다. 이에 격분한 인민들은 력사적인 반미폭동을 일으켰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폭동은 삽시에 놈들의 대사관, 수도에 있는 미국놈들의 기업체의 80%와 기타 각종 침략 및 략탈 기관들과 많은 자동차들을 습격파괴하였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였다. 빠나마인민들은 1월 9일을 희생된 폭동자들의 《추모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예속적인 조약의 페기와 운하지대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투쟁하고있다. 이 때로부터 빠나마당국과 미제사이에는 《운하조약》을 재검토하는 회담을 벌려왔다. 미제는 회담을 통하여 운하와 운하지대를 계속 강점

하며 새 운하를 건설할수 있는 특권을 강탈해 내려고 책동하였으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빠나마인민의 확고한 립장에 부딪치자 놈들은 1967년말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한편 미제는 제놈들에게 충실한 주구들을 부단히 갈아대는 방법으로 이 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공고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빠나마에서는 독립이래 1947년까지에 무려 54차례의 정변과 반란이 일어났다.

1968년 10월 11일 보안군 총사령관 또르리호스가 친미반동정권을 뒤집어엎고 정권을 장악한후 군사평의회를 조직하였다. 군사평의회는 종전의 헌법을 페지하고 반동적인 국회를 해산하였다. 새 정권은 200마일령해를 침범하는 미제해적선들에 대하여 단호한 징벌을 가하는 한편 1970년 8월에 리오 아또에 있는 미공군기지를 철페한데 이어 그 이듬해 2월에는 간첩 및 파괴책동을 일삼아온 《평화군》놈들을 몽땅 내쫓았다. 1971년 6월 29일 미제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1967년에 중단된 《운하조약》의 재검토를 위한 협상이 다시 열리였다. 빠나마당국은 놈들의 예속적인 절충안을 단호히 배격하고 운하지역에 대한 자주권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해 10월 11일 15만 수도시민들의 군중집회에서 보안군사령관 또르리호스는 빠나마사람들은 희생을 아끼지 않고 미제에 강점된 운하지대를 되찾을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주요사건】 1972년에 또르리호스정부는 국내과두세력들과 그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반동정당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한편 진보적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하며 토지개혁, 교육체계의 민주화, 빈궁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미국독점체들과 국내자본가들의 리윤을 제한하는 일련의 사회정치적조치들을 취하였다.

정부는 로동자들의 단체계약체결권을 법적으로 옹호하고 파업을 기업주들과의 투쟁의 합법적수단으로 인정하며 기업주들이 로조단체의 동의없이 로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할수 없게 하는 등 로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로동법규를 작성하고 1972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8월 6일 또르리호스정권이 수립된이래 처음으로 국민회의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는 과두세력을 제외한 광범한 계층의 인민들이 참가하여 또르리호스정권을 지지찬동하였다. 국민회의는 3가지악(빈궁, 몽매 및 신식민주의)의 청산을 투쟁목표로 하는 새 헌법을 채택하였다. 새 헌법은 예속적인 《운하조약》을 합법화하였던 지난시기 헌법과는 달리 나라의 령토를 일시적이건 부분적이건간에 외국에 절대로 제공할수 없다는것을 강조하였다. 9월 11일에 진행된 국민회의 제1차회의에 참가한 의원들은 미제의 비법적인 운하강점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일치하게 채택하였다.

빠나마정부 수반 또르리호스는 《조약》의 재검토를 위한 회담을 무한정 지연시키려는 놈들을 규탄하면서 《우리가 여러해 동안 끌지 않으려는 현회담의 특징은 우리가 조약의 재검토가 아니라 그 철페를 위해 투쟁하고있는것이다.》라고 하면서 만약 미국과의 합의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인민적인 폭발은 불가피하다고 미제에 경고하였다.

1973년 1월 8일 빠나마의 대학생들은 미국대사관에 몰려가 놈들의 더러운 기발을 불태워버리면서 강력한 반미시위를 벌리였다.

2월에 여러 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반제통일전선을 이룩하고 운하지대를 되찾으며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떨쳐나설것을 결의하였다. 이어 여러 진보적정당들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3월 15~21일까지 빠나마시에서는 이 나라와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의 주장에 의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특별회의가 열렸다. 40개 나라들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미제가 빠나마에 강요한 불평등조약을 페기하고 운하지대를 빠나마에 귀속시키며 운하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것 등을 내용으로 한 빠나마와 뻬루의 공동결의안이 제출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부문이 미제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다. 미제독점회사들은 바나나와 사탕수수 등 수출작물재배에 국한시키고 그의 대부분을 헐값으로 빼앗아갔다. 그러므로 주민의 약 70%가 농사하면서도 해마다 식량수요량의 60%를 수입에 의존하고있었다. 토지없는 농민은 전체 농민의 70%에 달하였다.

1968년 정변후 정부는 3년동안에 23만ha에 달하는 미독점체들과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5만 2천여명의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고 일부로는 100여개의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합들에 대한 물질기술적 방조와 자금을 제공하면서 조합의 토대를 공고히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사탕수수, 커피, 파인애플, 벼, 강냉이, 코코아, 콩 등인데 1969년에 바나나는 70만t, 커피는 5천 300t, 벼는 16만 5천t, 강냉이는 8만 7천t, 콩은 5천t이 생산되였다. 소는 약 120만마리 가지고있다.

공업에서 주요부문을 이루는것은 채굴공업(보크사이트와 원유)이고 그밖에 약간의 농산물가공공장들과 운하지대에 대한 상품공급과 관련한 식료가공공장들, 석유가공공장, 신발, 사탕, 방직 공장들이 있다.

정부는 개인자본가놈들로부터 보다 많은 세금(리윤의 40%)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고있으며 살림집건설, 운수 및 전력공업 발전에 힘을 넣는 동시에 지하자원탐사사업도 벌리고있다. 매해 전력은 6억kwh, 사탕은 8만t 정도 생산한다.

수산업은 새우(총 어획고의 3분의 2)잡이가 기본을 이룬다.

철길은 운하지대에서 미제의 빠나마운하회사가 경영하는 철길과 다비드시를 중심으로 주요농업지대를 련결하는 철길이 있을뿐이다. 철길의 총연장은 497km이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수출총액의 약 60%), 석유제품(20%), 새우(약 8%), 사탕이며 주요수입품은 석유, 식량, 피복, 자동차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수출의 78%차지), 베네수엘라(수입의 20%차지), 일본, 서독 등이다.

정부는 《교육개혁》을 위한 《특별정부위원회》를 조직하고 교육의 《빠나마화》를 위해 투쟁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많은 학교들을 새로 짓고있다. 현정부는 집권후 3년간에 독립한 해인 1903년부터 1967년까지의 전기간보다 더 많은 각급학교망을 늘이였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상인 근 40만명의 학생들이 각급학교에서 공부한다. 대학은 2개로부터 4개로 늘어났고 대학생은 6천명으로부터 1971~1972학년도에는 1만 3천명으로 늘어났다. 20만명의 문맹자들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도 광범히 벌리고있으며 병원, 진료소들을 새로 건설하고있다.

미제의 빠나마운하회사에 고용된 2만 3천여명의 빠나마근로자들은 부당한 《외국인》 취급을 받으면서 미국놈들의 5분의 1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모멘또(인민당기관지), 엘 디아(친정부계), 라 쁘렌싸(친정부계), 엘 빠나마 아메리까(무소속), 엘 빠이스(무소속).

방송 빠나마방송, 빠나마텔레비죤방송.

빠나마운하지대 빠나마운하의 두기슭의 8km에 해당한 지대를 말한다. (빠나마시와 꼴론시는 제외)

【넓이】 1,676.3km² 그중 땅넓이는 952km²

【인구】 5만 1,400명(그중 미국인 3만 9,084명, 1970년)

【행정중심지】 발보아 하이쯔

1903년에 불평등한 《미국—빠나마조약》에 의하여 1904~1914년기간에 운하를 건설하였다. 미제는 운하지대에 총독과 침략군(까리브해 통합사령부를 두고있다)을 보내여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빠나마인들의 운하지대에로의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하고 운하지대를 《나라안의 나라》로 전변시켰다. 미제는 운하에서 해마다 1억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운하의 넓이는 90~300m, 길이는 약 80km이며 매해 1만 4천척의 배가 드나든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0월에 빠나마인민당 총비서 루벤 다리오 쏘우사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빠나마인민당 대표단이, 6월에는 빠나마공산주의청년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져 메 이 커

꾸바에서 남쪽으로 145km 떨어진 까리브해상의 대안띨제도에 있는 섬나라이다. 져메이커섬과 그 변두리에 있는 여러섬들로 구성되였다. 열대림과 개천이 많다. 동부에 제일 높은 블루마운틴산(해발 2,256m)이 있다.

열대성기후이고 년평균기온은 26~29°C이나 산지대는 5~7°C이다. 5~8월까지, 10~11월까지 장마철이 두번 계속된다. 년평균강수량은 1천 800~2천mm인데 북부지방에서 비가 많이 온다.

【넓이】 1만 1,500km²

【인구】 200만명(1970년)

주민의 80%가 흑인이며 그밖에 혼혈인, 인디안이 있고 구라파인은 1%이다. 원주민 인디안은 16세기에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거의 전멸되고 지금의 기본주민은 그후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노예》의 후손들이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킹스톤(주민 19만 2,000명, 1970년)

【총독】 국가수반인 영국녀왕이 임명한다. 총독 클리포드 캠벨(1962년—)

【국회】 상하량원제로서 상원의원은 21명인데 총리가 13명, 야당지도자가 8명을 각각 추천하여 총독이 임명한다. 하원의원은 53명, 임기는 5년이다. 1972년 2월 총선거에서 인민국가당이 34석, 레이버당이 17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정부】 총리 마이클 멘리(1972년—)

【정당, 사회단체】 **인민국가당**(집권당) 1938년에 결성, 도시와 농촌의 소부르죠아지, 인테리, 농업로동자들과 공업로동자들의 일부를 망라하고있다. **레이버당** 1943년에 조직된 부르죠아야당으로서 상업, 공업 및 농업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한다. 경제에 대한 외국독점자본의 침투를 장려할것과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정치, 군사적동맹을 주장한다. **자유인민운동** 제국주의자들의 군사기지철폐, 평화와 중립정책실시를 요구, **인민정치당** 흑인들의 정당.

정치

1492년에 꼴롬부스가 이 섬을 발견한후 150년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655년에 다시 영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 1670년 《마드리드조약》에 의해 영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958년 1월 영제국주의자들은 져메이커와 까리브해에 있는 저들의 식민지섬들로써 《서인도련방》을 조작하였다. 1961년 9월에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인민들은 《서인도련방》으로부터의 탈퇴와 독립을 단호히 요구하였다. 그해 10월 《서인도련방》에서 탈퇴하여 1962년 4월에 국회선거를 진행하고 8월 6일에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1963년 6월 6일 미제는 져메이커와 《방위협정》을 맺고 이 나라의 롱 베이만 동부에 제놈들의 여러개의 해군기지를 설치하였다.

1967년 2월 21일 국회선거에서 사기와 협잡으로 레이버당이 다수의 의석(53석중 33석)을 차지하고 친미반동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72년 2월 29일 총선거에서는 레이버당이 패배하고 야당이였던 인민국가당이 승리하여 집권하게 되였다.

새 정권은 민족경제와 나라의 자주권을 강화하는데로 나아갈 의향을 표시하였다. 정부수반은 《나라의 경제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에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세금특혜와 값눅은 로동력으로 많은것을 짜내고있는 자본가놈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1972년 10월에 져메이커는 미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인 사회주의꾸바와 외교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였었다.

경제, 사회

농업국가이며 경제는 미영독점자본을 포함한 외래독점체들에 예속되여 있다. 전체 농호의 0.7%에 불과한 대토지소유자들이 외국독점체들과 결탁하여 부침땅의 76%를 거머쥐고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있다. 농업은 사탕수수, 바나나, 담배, 커피등 수출작물 일면에 치우치고있다. 40만t의 사탕과 28만t정도의 바나나가 생산되나 그 대부분을 미영독점자본가놈들이 헐값으로 앗아간다. 최근년간 국제시장에서 사탕값이 떨어진 관계로 타격을 받고있다.

공업에서 기본인 채광공업은 미제와 카나다의 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이 나라에서 채굴되는 보크사이트는 해마다 약 1천만t으로서 자본주의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 전부가 원광 그대로 《알코아》, 《아나콘다》, 《카이저》, 《레이버》 등 미제독점체들이 략탈하고있다. 그밖에 년산 약 100만t에 달하는 알루미나와 철광석, 석고 등의 생산을 카나다와 기타 외래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돌소금, 린회석, 연, 아연 등의 지하자원도 있다.

교통운수는 철도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인데 킹스톤으로부터 북쪽해안의 항구인 몬테고 베이항을 련결하는 철길이 있다.

주요수입품은 식량, 화학제품, 설비, 연료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영국, 카나다이다.

문맹자수는 50만명 이상이며 대학은 1개이다. 근로자들의 자제들은 거의나 학교에 못간다. 로동인구의 15~25%는 실업자이다. 주민들의 대부분이 영국교회도들이다.

【출판보도】 **신문** 트란베트(인민국가당기관지), 보이스 오브 져메이커(레이버당기관지), 파블리크, 오피니언(인민국가당계), 데일리 글리너(무소속), 스타.

방송 져메이커방송, 져메이커텔레비존방송

아 이 띠

(아이띠공화국)

아이띠는 중앙아메리카의 까리브해에 있는 아이띠섬 서쪽부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있다.

이 나라는 산지가 많은 나라이다. 산지대는 열대림으로 덮여있으며 기후는 열대기후로서 1월평균기온이 24°C이며 7월평균기온은 28°C이다.

【넓이】 2만 7,750km²

【인구】 500만명(1971년)

주민의 90%가 흑인이며 그외는 물라트(혼혈인)와 백인이다. 원주민인 인디안은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이 나라는 중미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뽀르또 쁘랭스(주민 25만명)

【립법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쟝 끌로드 듀발리에(총리겸임, 1971년 4월—), 외교부장 라이몬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통일당 1969년 3월 인민통일당과 민족해방인민당이 합당하여 창립(1948년 2월부터 비법화). **혁명행동통일당**(집권당), **사회민주당, 민주련맹당, 혁명해방전선, 전국해방운동, 전국로동총련맹, 통일공산주의청년동맹.**

정치 아이띠는 1492년부터 에스빠냐식민지로, 1697년부터 프랑스식민지로 있다가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으로 1804년에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806년에는 첫 흑인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844년에는 이 섬의 동부가 분리되여 도미니까공화국을 형성하였다. 아이띠에서는 독립이래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물라트가 정권을 잡고있다.

1847년부터 1915년까지 근 70년동안에 82차의 대통령교체가 있었다.

1915년 7월 반정부폭동이 일어나자 미제는 이른바 《자국민보호》라는 구실밑에 침략군을 파견하여 아이띠를 강점하였으나 1934년에 쫓겨났다.

1957년에 정권을 탈취한 프랑수와 듀발리에놈이 1971년 4월에 죽고 다음 그의 아들 쟝 끌로드 듀발리에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듀발리에는 미제의 직접적인 지원하에 반미반정부투사들의 혁명적진출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그러나 인민들의 투쟁은 멈출수 없었다. 1973년 1월 24일 아이띠의 애국적무장인원들은 정탐파괴활동을 일삼고있던 미제의 대사놈과 총령사놈을 사로잡는 대담한 조치를 취했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3분의 1이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사이잘삼, 바나나, 코코아,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며 강냉이, 벼, 콩 등도 심는다.

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아연광, 망간, 석탄, 석유 등이나 채굴량은 적다.

경제명맥은 미제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공업, 농업, 상업의 총투자액의 70%는 미제독점자본이 차지하고있다. 미제의 《하이네회사》하나만도 이 나라의 철도, 조선소, 사탕공장, 2만 3천ha의 사탕수수농장을 차지하고있다.

식량이 부족하여 해마다 미제의 잉여농산물을 비싼값으로 수입하고있다.

이 나라는 미주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이다. 주민의 80%이상이 문맹자이다.

로마 카톨릭교가 국교로 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아이띠 저널, 레나띠오날, 부칸(공산주의자통일당 월간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아이띠통일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도 미 니 까

(도미니까공화국)

꾸바의 동쪽 아이띠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있다. 중앙산줄기에는 서인도제도에서 가장 높은 해발 3천 175m의 뜨루힐로산(일명 루셀리아산)이 있다.

기후는 열대무역풍기후이나 산간지대가 많기때문에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가 심하다. 년평균기온은 25~27°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북부지역에서 2천mm, 중부지역에서 1천mm이다. 비는 4월부터 11월사이에 많이 내리며 때때로 심한 태풍이 분다.

【넓이】 4만 8,734km²

【인구】 434만 8,000명(1970년)

주민은 인디안과 물라트가 70%, 흑인과 백인이 각각 15%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나 프랑스어와 영어도 쓴다.

【수도】 산또 도밍고(주민 67만 2,000명, 1970년)

【민족회의】 상하량원제이다. 상원은 27석, 하원은 74석이며 임기는 각각 4년이다. 1970년 5월 국회선거결과 개혁당(집권당)이 상원에서 26석, 하원에서 60석을 차지하고있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호아낀 발라게르(1966년 7월 1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4년에 창건되여 1965년까지 인민사회당으로 불리오다가 그후 이름을 공산당으로 고쳤다. 1947년에 비법화, 총비서 나르시소 이싸곤데, **개혁당**(집권당) 1964년에 민족부르죠아지, 지주 및 승려층을 망라하여 조직된 반동적정당, **도미니까혁명당** 1939년에 창건되였으며 소부르죠아지, 일부 농민들과 인테리들을 망라한 진보적정당이다. **《6월 14일혁명운동》** 혁명적 인테리, 대학생, 소자산계급, 그리고 로동자, 농민들로 구성된 진보적정당이다. 현재 미제와 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지하에서 투쟁한다. **도미니까인민운동** 베네수엘라에 있는 《도미니까애국동맹》, 꾸바에 있는 《도미니까통일민주주의전선》, 《도미니까통일전선》 등 이 나라의 애국적 력량이 1959년 3월 아바나에서 조직한 정당으로서 현재 지하에서 투쟁한다. **민족화해운동, 민족통합운동, 전국공민동맹, 기독교사회혁명당, 사회민주동맹, 기독교사회당, 자유진화당, 도미니까민주당, 도미니까근로자련맹, 공산청년동맹, 녀성련맹.**

정치 1492년 콜롬부스의 첫 탐험에 의하여 아이띠섬(오늘의 아이띠와 도미니까)이 구라파식민주의자들에게 알려진후 1500년에 이 섬은 에스빠냐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 그후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20년동안에 이 섬의 원주민을 모조리 학살하고 모자라는 로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끌어왔다. 1679년 에스빠냐와 프랑스 식민주의자들간의 쟁탈전끝에 《라이스와이크조약》에 의하여 이 섬의 일부(아이띠)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게 넘어갔다. 1795년에는 도미니까마저 놈들에게 넘어갔다.

18세기말부터 이 섬에서는 반식민주의투쟁이 앙양되여 1804년에 아이띠섬 인민들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1808년 에스빠냐침략자들에게 다시 강점당하였다. 그후 19세기 2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 독립전쟁의 결과 놈들의 통치에서 벗어나 아이띠와 결합하였다. 1844년 아이띠에서 떨어져 나와 도미니까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세기중엽부터 이 나라에 대한 경제침투를 강화하여온 미제는 1916년에 이 나라를 강점하였다. 놈들은 저들의 침략군을 주둔시키고 정치, 경제적실권을 장악하였으나 1924년 이 나라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쳐 쫓겨났다.

1930년 친미주구인 라파엘 뜨루힐로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친미독재정권을 세운후 30년간 뜨루힐로 일가의 테로독재가 계속되였다. 1961년 친미독재자

뜨루힐로가 암살되고 1962년 12월 처음으로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 혁명당출신 후안 보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여 1963년 2월부터 집권하였다. 보슈정권은 진보적개혁을 예견한 헌법을 제정하고 대내적으로 일련의 긍정적조치를 취했다. 이에 당황한 미제는 1963년 9월 저들의 괴뢰들을 부추겨 반동적군사정변을 일으켜 보슈정권을 전복하고 까브랄군사독재정권을 다시 세웠다. 친미독재정권은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하고 파쑈독재를 실시하였다.

놈들은 도미니까내정에 미제가 마음대로 간섭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미제침략군을 끌어들일 매국적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런 환경속에서 이미 1960년부터 반미반독재무장투쟁을 전개하여온 애국적인민들은 또다시 유격투쟁에 일떠섰다.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도 반동적인 까브랄군사독재정권을 반대하고 립헌제도의 복귀를 요구하여 1965년 4월 전국적무장봉기를 일으켰다. 봉기자들에 의하여 까브랄군사독재정권은 전복되고 봉기군사령관 프란시스꼬 까아마니오를 림시대통령으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이에 질겁한 미제는 8천여명의 침략군과 근 40척의 함선들로 무어진 이른바 《미주통합군》을 조직하여 이 나라에 대한 로골적인 무장간섭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까마니오정부는 전복되고 발라게르 정부가 조작되였다.

발라게르도당은 1970년 5월 테로와 폭압속에서 대통령 및 국회 《선거》놀음을 벌려 대통령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국회의석을 독점하였다. 《선거》이후 발라게르도당은 1년되나마나한 사이에 800여명의 공산당원, 혁명당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 투옥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명맥은 미제독점자본가놈들이 틀어쥐고있다.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수출용 농산물생산이 아직도 기본으로 되고있으며 이부문에 주민의 3분의 2이상이 일하고있다. 농촌로력인구의 50%에 해당하는 약 60만명의 계절로동자들이 지주놈들의 농장에서 고된 로동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수출을 위한 사탕수수, 커피, 코코아, 담배 등인데 사탕생산은 1972년에 110여만t에 달하였다. 그밖에 3만 5천~4만t의 커피, 3만~4만t의 코코아, 1만t이상의 담배가 해마다 생산된다. 그리고 해마다 벼는 19만t정도, 강냉이는 4만t이상, 감자와 고구마는 약 10만t, 마니오크 16만t, 땅콩 6만t가량 생산된다.

산간지대에서는 축산업도 약간 하고있다. 소, 돼지, 양을 주로 기르는데 100여만마리의 소가 있다.

공업으로는 사탕가공공업을 비롯한 약간의 가공공업과 채광공업이 있을뿐 기타 부문은 미약하다. 공업부문의 대부분은 미제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가공공업중에서 식료 및 담배 가공공업은 공업제품생산액의 70%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금, 은, 동, 쇠돌인데 미제와 카나다의 합영회사인 《알 꼬아》가 보크사이트채굴(년산 약 130만t)을 독점하고있다. 이 회사는 1961년부터 1970년까지 수출세(약 5천만딸라)도 물지 않고 보크사이트를 마구 략탈하고있다. 민족경제는 파산당하고 외국에 진 빚은 1969년에는 2억딸라를 넘었다.

교통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대부분 동북부지역에 집중되여있고 수도가 있는 남부지역에는 없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1천 800km인데 그 대부분이 사탕수수농장의 인입선이고 개인들의 소유이다.

주요수출품은 사탕(50%이상), 커피(11~12%), 코코아(10%이상), 보크사이트(8%), 담배(5%) 등이며 수입품은 식량, 기계설비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이다.

농촌에서 40만명의 사람들이 완전실업자이며 약 60만명의 고용농민들은 계절적인 실업자이다.

학령아동의 절반이상이 학교에 못가고있으며 15살이상 주민의 36%가 문맹자이다. 대학은 3개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천주교도이며 종교적관습이 일상생활에서 뿌리박혀있다. 주민의 4분의 1이 도시에 모여 살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엘 뽀뿔라르(공산당기관지), 리베르따드, 엘•이•헤 14(6월 14일 혁명운동기관지), 디아리오 데라 따르데(인민운동당기관지), 엘 까리베, 리스띤 디아리오, 쁘렌싸 리브레, 라 인포르마씨온.

방송 도미니까방송, 도미니까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9월 26일 벌가리아에서 공부하고있는 도미니까류학생들은 쏘피아에서 《김일성동지혁명력사와 로작연구소조》를, 1971년 웽그리아에서 공부하고있는 류학생들은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2년 10월 24~31일까지 나르시쏘 이싸꼰데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도미니까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뿌에르또 리꼬

(미국식민지)

까리브해의 대안틸제도에 있는 이 나라는 뿌에르또 리꼬섬과 비에께스섬, 꿀레브라섬, 모나섬으로 이루어졌다.

아열대성기후인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하며 년평균기온은 바다 기슭에서 27°C, 내륙고산지대에서 20°C이다. 강수량은 동북지역에서 5천mm이나 서남지역은 750mm에 불과하다. 바다로부터 자주 폭풍우가 불려온다.

【넓이】 8,897km²

【인구】 284만명(1970년)

주민은 에스빠냐인계통의 후손들인 크레올이 80%이며 나머지는 흑인과 혼혈인들이다. 원주민인 인디안은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에게 거의 전멸되였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와 영어

【행정중심지】 싼 후안(주민 80만 4,700명, 1970년)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27석, 하원 51석이다. 임기는 4년이다. 미국회에 상주하는 대표를 보내고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지사】 집행권을 행사하며 협상리사회를 책임지고있다. 임기는 4년이다. 지사 에르난데스 꼴론

【협상리사회】 지사가 리사회를 지도하며 그가 임명하는 9명의 각료로 구성된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4년에 창건되였다가 1944년에 해산되였다. 1946년에 재건되였으나 비법화되였다. **인민민주당**(집권당) 1938년에 조직, 미제독점체들과 련결된 자본가들의 정당, **신진보당** 1968년에 국가공화당이 분렬되여 조직, 뿌에르또 리꼬를 미국의 한개주로 만들것을 요구하고있다. **인민당** 1968년에 인민민주당에서 떨어져나온 분파, **국가공화당** 1898년에 조직, 자기 나라를 미국의 주로 편입시킬것을 주장. **뿌에르또 리꼬독립당** 소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하며 의회적 방법으로 독립할것을 주장. **사회당** 1971년 11월에 창건된 애국적정당이다. 미제의 전쟁정책과 식민지략탈정

책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유와 해방,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총비서 후안 마리. **독립운동** 1959년에 독립당에서 갈라져나온 좌익적인 당으로서 폭력적방법으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달성할것을 주장. **근로자련맹**(1957년 결성, 맹원 약 20만명), **자유근로자련맹**.

정치 1493년에 발견된 섬나라인 뿌에르또 리꼬는 1509년부터 에스빠냐식민지로 되였다. 1898년에 미국—에스빠냐간의 식민지략탈전쟁결과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뿌에르또 리꼬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이 날로 앙양되자 이에 질겁한 미제는 1952년 7월 25일 이 나라에 이른바 미국의 《자유련합국》의 지위를 가지는 《내부자치》를 준다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식민지통치는 실제상 계속되였다. 미제는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실권을 장악하고있다.

미제는 이 나라 령토의 13%이상에 달하는 땅을 군사기지, 정탐기지로 만들고 여기에 상시적으로 수만명의 륙해공군무력을 주둔시키고있다.

놈들은 여기에 21개의 해군 및 공군기지와 핵무기까지 배치하고 위협과 공갈을 일삼고있다. 미제는 조선침략전쟁때에도 4만여명의 뿌에르또 리꼬 청장년들을 강제징모하여 조선전선에 대포밥으로 내몰았다. 미제의 이와 같은 식민지예속화정책은 이 나라 인민들의 반미감정을 세차게 불러일으켰다. 뿌에르또 리꼬인민들은 1960년에 조직된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의 지도밑에 미제의 전쟁정책과 식민지략탈정책을 반대하여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리고있다. 1967년 9월에는 도시유격대인 《해방무장대》를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개시하였다.

미제는 제놈들의 괴뢰들을 동원하여 수많은 민족해방투사들을 잡아가두고 이 나라 인민들의 반미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1968년 11월부터 미제의 부추김밑에 지사로 당선된 신진보당정권은 자기나라를 미국의 쉰한번째 주로 만들것을 주장하면서 굴욕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왔다. 이러한 매국배족적정책으로 하여 1972년 11월초에 진행된 지사선거에서 신진보당이 인민들의 반대로 패배하고 야당이던 인민민주당이 승리하여 에르난데스 꼴론이 지사로 되였다. 인민민주당은 선거강령에서 자기 나라가 미국의 한개 주로 되는것은 반대하면서도 미국과의 현존관계를 그대로 유지할것을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당수 에르난데스 꼴론은 미국이 뿌에르또 리꼬에 대한 행정적 및 법적 통제를 약간 완화시킬것을 바라면서 자기 나라에 《보다 많은 자치권》을 줄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가이다. 농업에서 기본은 전문화된 사탕수수 재배와 담배, 바나나, 커피 등 수출작물재배이다. 부침땅의 80%를 미제독점회사들이 가지고있으며 대부분 사탕수수재배에 돌려지고있다. 그러나 미제의 략탈과 작물전환책동으로 인하여 1961년의 100만t 수준에서 1971년이후부터는 매해 28만여t정도에 머물러있다.

그밖에 담배는 년간 1만 4천여t, 커피는 1만여t, 바나나는 11만t정도 생산된다.

알곡작물은 거의 심지 않기때문에 해마다 수입에 의존한다. 축산업은 산간지대에서 약간 한다.

이나라에는 50여만마리의 소, 19만마리의 돼지가 있다. 공업은 농산물가공공업, 사탕공업과 채굴공업이 좀 있을뿐인데 그나라 공업기업소의 84%는 미제독점회사들에 장악되여있다. 특히 망간과 동 채굴은 미국회사들이 전부 독점하고있다. 1970년현재 이 나라에 대한 미제독점자본가놈들의 투자액은 16억딸라에 달하였는데 놈들은 해마다 3억~4억딸라의 순리윤을 짜내고있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철길이 없기때문에 해상운수와 자동차운수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대외무역에서는 사탕과 그 제품 수출이 수출총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미제독점회사들이 이 나라 수출의 95%, 수입의 75%를 장악하고있다. 주민의 4분의 1이 빈민굴에서 살고있다. 뿌에르또 리꼬인 로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미국인 로동자들의 낮은 임금의 3분의 1도 안된다. 동시에 생계비는 미국에서 보다 15%나 더 높다. 미제는 신문, 방송을 비롯한 모든 보도수단을 독점하고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면서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끌라리다드, 엘 임빠르씨알(무소속), 엘 문도(무소속), 싼 후안스타(무소속), 엘 디아.

방송 뿌에르또 리꼬방송, 뿌에르또 리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에 신문 《끌라리다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공산주의운동에 기여한 빛나는 모범》이라는 표제밑에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략력을 소개하였다. 이 신문은 그이께서 일본 《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도 실었다.

1972년 1월 후안 마리 브라스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뿌에르또 리꼬사회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트리니대드 토바고

이 나라는 까리브해의 서인도제도의 남안에 있는 두개의 섬인 트리니대드와 토바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벌로 되여있다. 기후는 열대기후로서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다. 6월부터 12월까지가 장마철이다.

【넓이】 5,128km²(트리니대드섬만 4,829km²)

【인구】 107만명(1970년)

주민은 흑인이 약 47%, 인도인이 약 35%, 혼혈인이 약 16%, 백인 등이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포트 오브 스페인(주민 10만명)

【국회】 량원제, 1971년 5월 24일 선거에서 인민민족당이 총의석 36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총리 에리크 윌리암스

【정당, 사회단체】 **민주로동당, 인민민족당**(집권당, 인도인들의 정당), **《평민들의 정권운동》, 석유로동자로조, 전국통일행동위원회.**

정치 이 나라는 1498년부터 1797년까지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1802년부터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었다. 그리고 1958년부터는 영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서인도련방》에 병합되였으며 1962년 8월 31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1971년 5월 24일 국회총선거에서 인민민족당이 또 국회의석을 독차지하였다.

인민민족당정부는 1971년 10월 정부의 정책과 외래독점자본가놈들의 가혹한 착취행위를 반대하여 싸우는 진보적인민들을 체포구금하였으며 그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 사람

들까지 가혹하게 탄압하는 한편 전국에 《비상사태》까지 선포하였다.

다른 한편 이 나라는 1973년초 국내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소유인 곡물회사와 2개의 큰 집짐승먹이공장을 몰수하였으며 그리고 사료공장들과 공업의 원료로 공급되는 모든 곡물을 직접 통제관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경제, 사회 뒤떨어진 농업국가로서 미영제국주의 독점자본에 의한 수출용작물을 재배한다. 식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코코아, 커피, 귤, 야자 등이다. 이 나라는 세계적인 코코아생산국으로 알려져있다.

지하자원은 원유와 피치이다. 따라서 공업에서 기본은 원유채취와 원유가공, 피치생산이다. 원유채취와 원유가공은 거의 미영제국주의자들이 독점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문맹자이며 기독교를 믿는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공화국)

남아메리카대륙의 북쪽에 자리잡고있다. 북쪽은 까리브해, 동북쪽은 대서양에 면하여있고 동쪽은 가이아나, 동남쪽은 브라질, 서쪽은 콜롬비아와 국경을 같이한다. 3천 200km의 해안선과 4천 800km의 긴 국경선을 가진 나라이며 북부지역이 정치, 경제의 중심지이다. 고원지대가 국토의 약 45%이고 4천m이상의 산이 약 130개나 된다. 1천 59개나 되는 강들은 거의 대부분이 물이 많고 수상운수에 편리하다. 호수와 늪은 약 208개나 되는데 마라까이보호(넓이 18만km^2)는 남아메리카에서 제일 크며 이 나라에 있는 안헬폭포(높이 1,054m)는 세계에서 제일 크다.

기후는 열대권에 속하나 해발 500~1천 800m에 해당하는 지역은 평균기온이 18~25°C, 그 이상의 지역은 평균기온이 2~3°C밖에 되지 않는다. 5월부터 10월까지 장마철(여름)이고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가물철(겨울)이다. 년평균강수량은 2천~3천mm이고 고원이 막혀있는 중부지방은 1천mm이다.

【넓이】 91만 2,050km^2

【인구】 1,100만명(1973년 6월)

주민은 혼혈인 65%, 백인 20%, 흑인 8%, 인디안 7%로 되여있다. 주요산업지구에는 근 20만명의 외국인(미국, 에스빠냐, 뽀르뚜갈, 이딸리아 등)들이 와서 살고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나 원주민인 인디안과 일부 흑인들은 자기들의 고유한 언어를 쓴다.

【수도】 까라까스(주민 217만명, 1971년)

【국회】 상하량원제이며 상원은 56석(종신의원 4명 포함), 하원은 216석이다. 임기는 각각 5년이다. 1969년 선거결과 민주행동당(상원 19석, 하원 66석), 기독교사회당(상원 16석, 하원 59석), 인민선거운동(상원 5석, 하원 26석), 공화민주련맹당(상원 3석, 하원 20석) 등이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수반이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라파엘 깔데라(1969년 3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1년 2월 공산주의그루빠가 조직되였다가 1937년 8월에 정식 창건되였다. 위원장 구스따보 마챠도, 총비서 헤쑤스 파리아. **좌익혁명운동** 1960년 4월에 민주행동당내의 좌익적인 사람들로 조직되였으며 1962년 5월이후부터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하고있다. 이 당은 석유공업의 국유화, 대토지소유제의 폐지, 식민주의의 청산을 주장하고있다. **기독교사회당**(일명 꼬뻬이당) 1946년에 조직되였으며 대금융계, 지주, 천주교 상층의 리익을 대변하는 반동정당이며 집권당이다. **민주행동당, 인민선거운동** 1967년 민주행동당이 분렬되여 조직된 당이다. **공화민주련맹당, 민족민주전선, 인민민주력량, 민족혁명당** 1969년에 민족주의적인 인테리들에 토대하여 무어졌다. **《새력량》** 공산당, 공화민주련맹당, 인민선거운동을 비롯한 좌익정당들과 많은 사회단체들, 로조들, 정치 및 사회 활동가들을 망라한 선거운동통일전선체이다. **근로자통일중앙**(진보적로조), **로조총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민족해방전선**(무장투쟁조직).

정치 1550년에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19세기초부터 에스빠냐강점자들을 반대하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독립전쟁시기 베네수엘라인민들은 도처에서 놈들에게 타격을 주었으며 1811년 6월 5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 이듬해 인민들의 투쟁은 무참히 진압당하였다. 1819년 콜롬비아가 해방된후 베네수엘라는 《대콜롬비아련방》의 일부로 되였다. 1821년에 나라의 전지역이 강점자들로부터 해방되였으며 1830년에 《련방》에서 떨어져나와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9세기초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이, 19세기말부터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강화하였다. 20세기초에 들어서면서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석유자원에 눈독을 들인 영국, 독일, 이딸리아 등 제국주의 렬강들의 이 나라에 대한 팽창정책과 석유자원을 독점하려는 미제의 봉쇄책동으로 말미암아 《베네수엘라위기》(1902~1903년)가 발생하였다. 이 위기를 계기로 이 시기 미제의 정치, 경제적 침투는 일층 강화되였다. 친미주구 고메스의 통치시기(1909~1935년)에 미제는 이 나라의 석유공업을 비롯한 주요공업부문들을 틀어쥐였다.

2차대전후 집권한 친미독재정권은 미제와 각종 군사협정들을 맺었으며 일체 진보적요소들에 대한 파쑈테로행위에 매달리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친미추종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정세에 대처하여 1962년 6월 진보적정당들을 망라한 민족해방전선이 창건되였으며 그 산하에 민족해방군이 조직되였다. 민족해방전선이 조직된후 유격대는 팔꼰주를 비롯한 여러지역에 근거지를 창설하고 반미반정부무장투쟁에 나섰다.

1969년 3월에 집권한 깔데라정부는 광범한 사회계의 압력밑에 미제에 의한 경제적예속으로 조성된 나라의 위기를 막기 위하여 1971년 3월 외래석유독점체들의 석유수출값을 33%(년간 5억딸라) 올렸으며 1971년 7월 30일에는 모든 외국석유회사들의 전체재산을 리권기간이 만료(대부분 1983년까지)되는 차제로 보상없이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 그해 8월 31일에는 천연가스의 채취 및 개발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정부는 미제를 포함한 외래석유독점체들에 대한 통제와 제재조치들을 취하였다.

이에 당황한 미제는 석유생산설비들을 빼돌리는 한편 생산을 떨구고 석유세를 물지않는 등 교활한 책동에 매달렸다.

【주요사건】 베네수엘라정부는 미제가 1939년에 자기 나라에 강요한 예속적인 《통상조약》이 1972년 6월에 기한이 끝나자 더 연장하지 않고 폐기하였다. 이 예속적인 《조약》에 의하여 지난 40여년동안 베네수엘라는 미제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나라들과 마음대로 무역거래도 가질수 없었으며 그

로 팔미암아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큰 장애를 받아왔다.

1972년에 베네수엘라에서는 1973년 7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산당을 포함한 좌익정당들의 전국인민전선인 《새 력량》과 우익정당들간의 날카로운 투쟁이 벌어졌다.

경제, 사회 베네수엘라의 경제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석유공업과 광업이다. 그러나 석유생산의 거의 80%, 쇠돌생산의 70%이상이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게 장악되여있다. 이 나라는 국가예산의 70%, 외화수입의 90%이상을 석유에서 얻고있는 세계적인 석유수출국의 하나이다. 석유의 년생산량은 1억 9천 400만t(그중 매해 1억 2천만~1억 3천만t을 수출)으로서 자본주의세계에서 세번째자리를 차지한다. 마라까이보호주변은 이 나라 석유매장량의 3분의 2가 묻혀있는 《석유의 보고》로 알려져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자원은 미제의 《크레올 페트롤레움 코퍼레이숀》회사를 포함한 3개의 외래독점체들이 그 생산량의 78%를 장악하고 모조리 략탈하여가고있다. 1970년에 이 나라에서 채취된 석유총생산량은 1억 9천 400만t이였는데 미제를 비롯한 외래석유독점체들의 몫이 1억 9천 100만t이였고 베네수엘라석유회사들은 250만t밖에 차례지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남쪽 가이아나고원에는 석유자원 다음가는 자원인 큰 쇠돌매장지가 있는데 그 년생산량은 2천 200만t 가량 된다. 미제는 5만 7천ha에 달하는 품위높은 쇠돌매장지를 장악하고 해마다 그 총생산량의 70%를 빼앗아간다.

1969년 현재 이 나라에 대한 외래독점자본의 투자총액은 265억볼리바르(1딸라 =4.5볼리바르)였는데 그중 미제는 71.4%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총자본투자액의 60%를 차지하였다. 미제는 1969년까지 10년간 이 나라에 평균 1딸라를 투자하고 3딸라의 리윤을 짜냈으며 이 기간 무려 66억딸라를 긁어갔다.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은 석유공업, 광업뿐아니라 가공공업, 상업, 농업 등 각 분야에 침투하였다. 일본독점재벌들도 아연, 동, 연 등 전략물자에 손을 뻗치고 종합탐사에 달라붙고있다.

석유정제, 흑색금속, 식료, 축산물가공, 방직, 건재공업 등의 보잘것 없는 민족산업은 외래독점자본에 눌리여 파산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그리하여 공업품, 식료품,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1971년 현재 외국에 진 빚은 무려 52억 1천 100만볼리바르에 달하였다.

1천 700만ha의 방목지와 목장, 160만ha의 부침땅이 있지만 방목지와 목장은 물론 부침땅의 80%는 농촌인구의 1.5%에 불과한 대토지소유자들과 미제자본가놈들이 틀어쥐고있다. 농산물은 코코아, 바나나, 커피, 담배, 목화, 사탕수수 등이며 식량을 비롯한 많은 식료품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석유(65.6%)와 그 가공제품(26.6%), 쇠돌(5.5%), 커피, 코코아 등이다. 마라까이보, 아무아이는 이 나라의 주요석유수출항구들이다.

이 나라에는 1만 2천 599개의 소학교, 669개의 중학교, 8개의 대학이 있으나 100만명(1971년 현재)에 달하는 학령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있다. 1971년 현재 완전실업자수는 50만에 달하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뜨리부나 뽀뿔라르(공산당기관지), 이스끼에르다(좌익혁명운동기관지), 뿌에블로 이 레볼루씨온(민족해방전선기관지), 라 레뿌블리까(정부기관지), 엘 나씨오날(무소속), 엘 문도(무소속), 울띠마스 노띠씨아스(무소속).

방송 베네수엘라국립방송, 국립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베네수엘라근로자통일중앙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가 이 아 나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남아메리카대륙의 동북부에 있다. 북쪽은 대서양과 잇닿아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그리 높지 않은 고원지대이며 국토의 84%에 울창한 열대림이 차있다. 파카라이마산줄기에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로라이마산(2,772m) 이 있다. 대서양기슭의 16~64km의 폭을 가진 긴 벌(령토의 5%)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되고있으며 여기에서 주민의 90%가 산다.

기후는 년중 적도기후로서 바다가의 벌방지대의 년평균기온은 26~28°C이나 바다바람이 불어와 심한 더위는 오지 않는다. 4월부터 8월,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가 장마철이나 특히 6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비가 많이 내린다. 년평균강수량은 3천 659mm이고 수도지방은 2천mm안팎이다.

【넓이】 21만 4,969km²

【인구】 76만 3,000명(1970년)

주민은 원주민인 인디안이 2만명정도이고 인도인이 약 절반을 차지한다. 그밖에 흑인 31%, 메티스와 물라트가 약 12% 있고 나머지는 백인이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죠지타운(주민 19만 5,250명, 1970년)

【민족회의】 일원제 최고립법기관이다. 의원은 53명, 임기는 4년이다. 1968년 선거결과 인민진보당이 19석, 인민민족대회당이 30석, 통일력량당이 4석을 각각 차지하고있다.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민족회의에서 선거한다. 대통령 아더 충(인민민족대회당출신, 1970년 3월—)

【정부】 총리 린든 포브스 샘프슨 부른함(인민민족대회당출신, 1964년 12월—)

【정당, 사회단체】 인민진보당 1950년에 창건. 로동자, 농민, 인도인출신을 기본으로 한다. 민족부르죠아지들을 망라하고있는 진보적인 당이다. 1972년 9월에 제17차 당대회가 진행되였다. 총비서 체디 쟈간, **인민민족대회당**(집권당) 1955년에 인민진보당에서 갈라져나와 조직한 당이다. 주로 흑인들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통일력량당** 주로 백인들로 구성, **로조대회**, **인민진보청년동맹**.

정치 구라파식민주의자들이 침입하기 이전까지 이 나라는 서북쪽으로는 오리노꼬강, 동쪽으로는 아마존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강물에 둘러싸인 나라라고 하여 《가이아나》(원주민들의 고대어로 물이라는 뜻)라고하였다.

1498년 콜롬부스의 세차례의 탐험에 이어 구라파식민주의자들이 기여들기 시작하여 16세기말에는 에스빠냐, 뽀르뚜갈, 화란, 영국, 프랑스 등 여러 침략자들의 격렬한 식민지쟁탈전의 무대로 되였다. 1814~1817년기간에 이 나라는 3개의 식민지(영령, 프랑스령, 화란령)로 나뉘여졌다. 이미 1803년에 오늘의 가이아나땅을 점령한 영국침략자들은 런던협약(1814년)과 빠리강화조약(1815년)을 조작하여 이 나라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가이아나인민들은 영국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1823년에 큰 규모의 노예폭동을 일으켰고 19세기 80년대에 이르러 농업로동자들을 비롯한 여러부문에서 투쟁이 앙양되였다. 1940년에 미제는 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일부령토를 군사기지를 위한 조차지로 강탈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자유와 독립을 위한 가이아나 인민의 강력한 투쟁에 부딪쳐 영제국주의자들은 1953년에 형식상 《내부자치》를 인정하였다. 첫 의회선거에서 승리한 인민진보당의 쟈간정부가 일련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자 그해 10월 영제국주의자들은 무력으로 이 정부를 전복하였다. 그러나 1957년 8월 인민진보당이 선거에서 다시 승리하고 식민지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인민들의 투쟁기세가 높아지자 1960년에 놈들은 치안권을 인정하는 《내부자치》제 실시에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1961년 8월 선거를 통하여 인민진보당자치정부가 수립되였다. 쟈간정부는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면서 민족경제의 발전, 민주주의적개혁의 실시를 제기하고 대외적으로는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주장하였다. 쟈간정부의 이러한 진보적정책에 불안을 느낀 미영제국주의자들은 국내반동세력들을 긁어모아 1962년 2월에는 반정부폭동을, 1963년에는 반동적로조단체를 부추겨 《총파업》을 일으키는 한편 이 나라에 대한 《경제봉쇄》를 실시하였다. 1964년 2월에 놈들은 인도인과 흑인들사이에 반목을 조성하여 종족충돌을 일으키게 하고 이를 《진압》한다는 구실밑에 영국침략군을 끌어들였다. 그해 7월에는 립법회의를 해산시키고 12월에는 립법회의선거를 감행하였다. 선거에서 인민진보당은 놈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또다시 승리하였으나 영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과 결탁된 인민민족대회당과 통일력량당의 련립정부를 비법적으로 만들어냈다.

1966년 5월 26일 가이아나는 영련방성원국으로서 영국총독놈과 영국침략군이 그대로 남아있는 조건부로 독립하였다. 그후 식민지통치기구를 청산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인민들의 계속되는 투쟁에 의하여 이 나라는 1970년 2월 23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리하여 식민지통치의 유물인 《총독》제가 페지되고 이해 3월 17일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가이아나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는 선거가 실시되였다.

새 정부는 《협동화》운동을 장려하는 로선을 취하는 한편 외국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는 보크사이트채굴에 대한 국가적통제를 실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며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여러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 꾸바인민들을 고립시키려고 책동하고있는 미제의 봉쇄정책을 물리치고 1972년 10월 14일에는 꾸바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사회 농업과 광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로동인구의 37%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있으며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23%에 달한다. 식민지경제의 후과로 말미암아 사탕수수재배농장이 부침땅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사탕수수재배와 그 수송 및 가공부문에서 총 로동자수의 3분의 1이 일하고있다. 1969년 사탕생산량은 36만 4천t이였다. 그러나 사탕수수농장과 그 가공공장의 거의 전부를 영국독점자본의 2대회사가 틀어쥐고있다. 주식물은 쌀과 강냉이인데 분산적인 소농경리에 의해 생산되고있기때문에 그량은 적다. 1969년에 11만 3천t의 쌀이 생산되였다. 해마다 많은 량의 식량을 수입한다. 그밖에 열대농산물인 귤(년간 2만t이상), 파인애플, 커피, 코코아, 야자 등도 생산된다.

가이아나정부는 1973년 2월에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사탕회사들에 속하는 부침땅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고 땅없는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기로 하였다.

소, 양, 염소, 돼지도 기르나 그 수는 적다.

바다가에서는 물고기잡이도 한다.

예로부터 질좋은 목재들을 해외에 수출하고있다.

공업부문에서 기본은 보크사이트채굴인데 1969년에 280만t(자본주의세계에서 제3위)이 생산되였다. 보크사이트채굴과 가공은 모두 미제와 카나다 독점회사들이 틀어쥐고있다. 미제는 이 공업부문의 80%의 몫을 거머쥐고있다. 1971년 7월 정부의 국유화조치에 따라 카나다의 독점회사인 《데메라라》 보크사이트회사가 몰수되였다.

그밖에 금과 금강석(년산 4만 5천~5만카라트), 알루미나(30여만t), 동, 망간, 니켈, 연 등이 채굴된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광업부문의 몫은 약 20%를 차지한다.

가공공업으로서는 작은 규모의 사탕공장, 방직공장, 담배공장, 열대농산물가공공장들이 있다. 식료공업에서 사탕을 주원료로 하는 럼주(년산 590만t)생산이 유명하다.

국내운수에서는 강하천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철길은 바다가와 내륙광산지대들을 련결하고있는데 그 총길이는 278km에 불과하다.

가이아나는 사탕과 보크사이트, 금강석, 목재 등을 수출하는데 수출총액에서 사탕은 36%, 보크사이트는 약 50%정도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및 운수수단(수입의 25%), 여러가지 완제품(25%), 식량(16%), 연료(8%), 화학제품(10%)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 미국, 카나다이다.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생활 및 문화수준이 아직 낮다. 15살이상 주민의 13%가 문맹자이며 많은 학령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다. 중학교는 약 100개, 대학은 하나밖에 없다.

【출판보도】 신문 선더(인민진보당기관지), 뉴 네이숀(인민민족대회당기관지), 썬(통일력량당기관지), 이브닝 포스트, 미러, 가이아나 그라픽

방송 가이아나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1월 10~14일까지 경제개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가이아나정부경제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두 나라사이의 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협정(11월 13일)이 조인되였다.

가이아나정부는 1972년 9월 유엔총회 제27차회의에서 조선문제에 대한 미제의 부당한 《결의안》의 표결시에 기권으로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1972년에 가이아나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가 단행본(영문판)으로 출판되였다.

1972년 8월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가이아나를 친선방문하였다.

수 리 남

(화란식민지)

남아메리카대륙의 북부에 「자리잡고있다. 동쪽은 프랑스령가이아나, 서쪽은 가이아나, 남쪽은 브라질과 린접하

고있으며 북쪽은 대서양에 면하고있다.

수리남은 화란식민지이나 종주국인 화란보다 4.5배나 더 넓다.

땅생김새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점차 높아진다. 중앙고원지대와 남쪽산지대에는 열대원시림이 울창하다. 령토의 90%는 전혀 개발되지 못했거나 사람이 살지 않으며 인구의 근 40%가 행정중심지인 파라마리보와 그 주변에서 산다.

열대성기후로서 무덥고 습기가 많다. 낮과 밤의 기온의 차이가 심하며 년중 무역풍이 불어 비가 많이 온다.

파라마리보에서 년평균기온은 26~28°C, 년평균강수량은 2천 300mm이며 산지대에서는 3천mm 이상이다.

【넓이】 16만 3,265km²

【인구】 41만명(1971년)

주민구성에서 아세아인이 많은것이 특징이다. 크레올이 36%, 인도인이 35%, 인도네시아인이 15%, 흑인이 9%, 인디안이 2%, 기타 인종이 3% 살고있다.

공용어는 화란어

【행정중심지】 파라마리보(주민 15만명)

【국회】 일원제의회이며 의석은 39석이고 임기는 4년이다. 1969년 10월 선거결과 통일힌두스탄당이 18석, 수리남국민당이 12석, 국민진보당이 8석, 민족공화당이 1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총독】 화란총독이 9명으로된 《내각》과 임명제로 되여있는 《자문회의》 그리고 39명으로 구성되는 임기 4년의 《의회》를 두고 집행권을 행사한다.

【정당, 사회단체】 **수리남국민당** 1946년에 조직, **통일힌두스탄당** 1949년에 조직, **국민진보당, 수리남민주당, 민족공화당, 진보로동자조직, 광업로동자동맹.**

정치 15세기말부터 수리남지역에 대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이 시작되였다. 그후 1613년에 이 나라는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667년 영국—화란사이의 《브레다조약》에 의하여 화란식민주의자들은 자기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의 뉴암스테르담(지금의 뉴욕)을 영국에 내주고 그대신 수리남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화란식민주의자들은 1954년부터 수리남을 《자치령》으로 만들고 식민지총독정치를 실시하고있다. 이 나라에는 현재 화란의 전차대, 포병대, 보병대가 주둔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이 나라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강화한 미제는 1962년 4월 화란과 협정을 맺고 수리남을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최근년간 수리남에서는 화란식민주의자들과 반동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로동운동이 급속히 앙양되고있다.

1973년 1월 17일 행정중심지 파라마리보시 세관일군들이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을 일으켰다. 이 파업은 채취공업과 목재가공공업 부문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부문 근로자들까지 합류함으로써 2월 11일에는 전국적인 파업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파라마리보시 파업자들은 거리에 바리케트를 쌓고 최루탄과 총탄을 쏘아대며 날뛰는 경찰놈들과 맞서 용감히 싸웠다. 여러날째 계속된 총파업투쟁은 이 나라 자연부원을 마음대로 략탈해가는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반동당국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경제, 사회 수리남은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로력인구의 3분의 1은 농업부문에 종사하며 농산물은 벼(년산 10만t), 강냉이(1천 380t), 사탕수수(15만 3천 500t), 감자, 남새, 바나나, 커피, 코코아 등이다. 식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소(4만 7천마리)를 위주로 하는 축산업도 한다. 바다가에서는 물고기잡이(년산 5천t)와 새우잡이(3천t)를 한다.

공업에서는 보크사이트와 금 채굴이 기본이다. 보크사이트채굴은 미국—카나다의 자매회사인 《알코아 수랄코》와 화란회사인 《빌리톤》에 장악되여있다. 보크사이트생산은 제2차세계대전후 급격히 늘어났는데 미제는 자국의 보크사이트소비량의 65%를 이 나라에서 략탈해가고있다. 1969년에 624만t을 캐내여 자본주의세계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하였다. 금생산량은 년평균 160kg정도이다. 가공공업으로는 소규모의 알루미니움가공공장과 목재 및 식료가공공장들이 있고 반수공업적으로 사탕, 람술도 생산한다. 속대가 굳은 질좋은 나무가 많은데 이것들은 대부분 수출된다. 파라마리보항구근처에는 화란계 목재회사의 합판공장이 있다.

철길은 담과 파라마리보까지를 련결하는 한줄기뿐인데 170km밖에 안된다. 국내수송에서는 몇개의 강줄기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

수출품은 보크사이트, 알루미나, 알루미니움, 사탕, 귤, 커피, 목재 등이다. 학교는 중등학교까지 밖에 없다. 인종의 다양성으로 하여 종교도 각이하다.

【출판보도】 **신문** 데와레티즈드, 메웨스르, 수리남.

방송 수리남방송, 수리남텔레비죤방송.

프랑스령가이아나

남아메리카대륙의 북부에 있으며 서쪽은 수리남, 동쪽과 남쪽은 브라질과 국경을 같이하고 북쪽으로는 대서양을 끼고있다. 북부해안은 낮으며 크고 작은 20여개의 강이 있고 남쪽의 내륙은 열대림으로 뒤덮인 고원 및 사막지대이다. 이 지대에 100여종이 넘는 질좋은 열대림이 국토의 97%를 덮고있으나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기후는 열대성기후로서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린다. 년평균기온은 28°C이다. 대서양으로부터 무역풍이 불어와 아침과 저녁은 선선하다.

【넓이】 9만 1,000km²

【인구】 5만 1,000명(1970년)

주민은 인디안, 흑인, 프랑스인 등으로 이루어졌다. 인구밀도는 1km²당 0.5명정도이다. 주민의 절반이상이 행정중심지 까옌느시에 모여살고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행정중심지】 까옌느(주민 2만 4,580명)

【식민지통치기구】 프랑스의 지사가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통치한다. 지사밑에 15명으로 구성된 총무회의가 있는데 프랑스국회 상하량원에 각각 1명씩의 의원을 보내고있다.

【정당, 사회단체】 **가이아나사회당** 1956년에 창건, **사회당** 1951년에 창건, **인민동맹당** 1958년에 창건, 나라의 자치를 요구한다.

정치 이 나라는 17세기초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기시작하여 1674년에 프랑스의 속령으로 되였다. 18세기말 프랑스부르죠아혁명시기에는 이 나라를 류형지로 정하고 수많은 《정치범》들을 이곳에 이주시켰다. 프랑스침략자들은 1815년에 이 나라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고 1870년부터 총독통치를 실시하였다. 그후 놈들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흑인노예》들을 끌어들여 식민지 《개척》에 미쳐날뛰였다. 1850년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인구는 더욱 늘어났다.

제2차세계대전후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여 식

민지통치에 위협이 조성되자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1946년에 이 나라를 프랑스의 《해외현》으로 만들고 식민지통치를 계속하고있다.

경제, 사회 경제명맥의 대부분은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틀어쥐고있다. 경제의 기본은 림업과 금채취업이다. 질좋은 목재가 많이 채벌된다.

농산물로서는 사탕수수, 마니오크, 바나나, 파인애플, 코코아 등 열대농산물과 벼, 강냉이 같은 알곡도 생산한다. 년간 6천t의 마니오크, 85t의 강냉이, 3천t의 사탕, 80t의 파인애플, 1천t의 바나나가 난다.

집짐승으로서는 주로 소(2천 300마리)와 돼지(6천마리)를 기른다.

공업으로는 사탕공장, 랍술공장, 목재가공공장 등 약간의 기업소들이 있을뿐이다.

철길은 행정중심지부근에 있고 350km의 자동차길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목재와 랍술과 기타 열대농산물이며 식량, 기계류, 석유제품, 세멘트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과 프랑스이다.

원주민인 인디안들은 아직도 밀림지대에서 원시적인 생활을 한다. 주민의 80%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드 쁘레스 가이아나.

방송 가이아나방송 및 텔레비존방송.

브 라 질

(브라질합중국)

남아메리카대륙의 동북부에 자리잡고있는데 이 대륙의 거의 절반(약 48%)을 차지하고있다. 령토가 넓기때문에 열대, 아열대, 온대권안에 들어있고 아마존강, 빠라파이강, 빠라나강, 싼 프란씨스꼬강 등 큰 강들이 이 나라를 흐른다. 아마존강은 6천 480km로서 세계에서 두번째로 길고 그 류역의 넓이와 흐르는 물량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다. 국토의 약 40%를 차지하는 북부의 아마존강저지는 습지와 늪이 많고 브라질고원 남부의 해안지대가 비교적 발전된 곳이다. 4만종에 달하는 식물들과 특이한 동물들이 있다. 보기드문 식물만도 1만 2천종이며 그 가운데는 우유나무, 쵸콜레트나무, 빵나무 등도 있다.

브라질고원지대의 년평균강수량은 1천 400~2천mm, 브라질고원남부의 해안지대는 온대성기후로서 년강수량은 2천mm이상이다.

【넓이】 851만 1,965km²

【인구】 1억명(1973년 1월)

주민은 백인이 61.7%, 흑인이 11%, 혼혈인이 26.5%, 기타 0.8%이다. 독립이후 1957년까지의 기간에 뽀르뚜갈, 이딸리아, 에스빠냐, 서부독일, 일본 등지로부터 이 나라로 무려 523만명이 이주하였다. 백인의 대다수는 뽀르뚜갈인들이며 원주민인 인디안은 점차 줄어들어 아마존강류역에 약 15만명정도 산다.

공용어는 뽀르뚜갈어

【수도】 브라질리아(주민 54만 5,000명, 1970년)

【국민회의】 상하량원제이며 임기는 하원은 4년, 상원은 8년이며 상원의원들은 매개 주에서 3명씩 선거된다. 하원은 310석, 상원은 66석이다. 1970년 11월 15일 선거결과 하원에서 집권당인 국가혁신동맹이 219석, 브라질민주운동이 91석을 차지하였고 상원에서는 국가혁신동맹이 59석, 브라질민주운동이 7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대통령 에밀리오 가라스따주 메디씨(1969년 10월 30일—)가 국가 및 정부수반이다. 현정부는 국가혁신동맹의 단독정부이다. 정부기관으로서 국가안전리사회가 있다. 대통령, 부대통령, 각료들, 대통령직속 군사 및 민간관계 판방장관들, 군참모총장, 각 병종참모장들, 대외정책의 주요전권을 위임받은 자들로 구성되여있다.

【정당, 사회단체】 1965년 10월 발포된 법령에 따라 모든 정당이 해산되였다. 1966년에 두개의 정당만의 창건을 승인하였다. **공산당** 1922년에 창건, 1965년 10월이후 비법화. **국가혁신동맹** 1966년에 조직된 집권당. **브라질민주운동** 합법적활동을 하는 유일한 야당.

현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단체들로서는 **인민혁명전위대**, **민족해방행동**, **10월 8일 혁명동맹**, **7월26일혁명운동**, **혁명무장전위대** 등이 있다.

정치 브라질은 1500년에 뽀르뚜갈인에 의하여 처음 발견된후 16세기초에 뽀르뚜갈침략자들이 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17세기부터 19세기초엽에 이르기까지 인민들은 부단히 봉기를 일으켰다. 1817년부터 도민고 호쎄 마르띤스의 지도밑에 강력한 독립운동이 전개되여 1822년 9월에 독립하였다. 독립과 함께 슨 베뜨로왕국이 선포되였으나 의연히 외래식민주의자들의 지배를 받았다. 그후 1889년 11월 농장주들의 정변에 의하여 군주제는 철폐되고 《련방공화국》이 수립되였으며 1891년에는 나라이름을 《브라질합중국》으로 고쳤다.

1924년 10월부터 1927년 2월까지 리오그란데 도 술에서 봉기한 병사들이 공산당의 령도밑에 나라의 끝에서 행군하여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34년 군사정변에 의하여 반동적바르가스독재정권이 수립된후 20여년간 모든 민주주의적운동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 계속되였다. 모든 정당들이 해산되고 비법화되였으며 극심한 정치적위기가 지배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이 나라에 대한 미제의 정치경제적침투가 급속히 강화됨에 따라 놈들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도 더욱 높아갔다. 이로 인하여 1954년에 바르가스독재정권은 붕괴되고 1955년에 민족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한 꾸비체끄정부가 수립되였다. 이 정부는 인민들의 강력한 압력밑에 1956년 8월에 미국에 우라니움수출을 금지하고 우라니움공동개발에 대한 미제와의 협정을 폐기하였다.

1960년 10월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된 꽈드로스는 일련의 진보적개혁들을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내정불간섭, 민족자결 등 진보적정책을 실시하였다.

인민들의 반미투쟁기세에 겁을 먹은 미제는 브라질친미반동들을 부추겨 1961년 8월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하고 꽈드로스를 강제사임시켰다. 그러나 인민들의 강력한 지지에 의하여 1961년 9월에 대통령으로 된 굴라르뜨는 나라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1962년에 외국자본의 리윤반출제한법을 공포하였으며 1963년에는 미제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던 11개의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다. 1964년 2월에는 최저임금을 100% 올릴데 대한 법령에 서명하였으며 국회에 보낸 서신에서 공산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의 합법화를 제기하였다.

진보적정책에 불안을 느낀 미제는 1964년 3월 또다시 군사정변을 일으켜 브랑꼬군사독재정권을 세웠다. 이때로부터 브라질에서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친미반공정책을 실시하였다.

한편 인민들의 반정부기운이 높아갔다. 1965년 3월 리오그란데 도 술주 남부의 2개도시에서 무장투쟁이 일어났으며 청년학생들의 반정부투쟁이 세차게 일어났다. 애국적인민들은 1968

년부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길에 나섰다. 반동당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여도 1970년 첫 8개월동안에만도 유격대원들은 대소규모의 기습작전을 벌렸다. 브라질유격대는 싼 빠울로, 리오데 쟈네이로를 비롯한 대도시들과 뻬루남부꼬주, 빠라나주 등 광활한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브라질은 자기 나라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1971년 6월 1일부터 자기 나라 령해를 200마일로 선포하였다.

경제, 사회 브라질은 외래독점체들에 예속된 농업—공업국가이다.

로동인구의 50%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대외무역총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몫은 약 80%이다. 농업의 기계화수준은 매우 뒤떨어져있으며 부침땅의 80%이상을 주민의 2%에 불과한 대토지소유자들이 독차지하고있다. 파일회사를 포함한 외래독점회사들이 틀어쥐고있는 땅만도 600만정보에 달한다. 농촌로력인구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농민들은 전혀 땅을 못가지고있다.

농산물은 커피, 코코아,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 수출용작물이 태반을 이룬다. 커피생산량은 최근년간 떨어졌으나 아직도 세계에서 제1위로서 110만~140만t정도, 코코아는 3위로서 20만t이상 생산한다. 알곡작물로서는 강냉이(년산 1천 260만~1천 280만t)와 벼(년산 600여만t), 밀 등을 생산하고있으나 식량은 모자라 수입하고있다.

농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목축업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독점체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집짐승들로서 소, 돼지, 양, 말, 노새 및 당나귀 등이 있으나 주로 소(9천여만마리)와 양(2천여만마리)을 많이 기른다.

공업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 가운데서 비교적 발전한 편이다. 브라질고원의 북부와 동부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쇠돌, 망간, 중석, 석유, 우라니움 등의 광업 외에 섬유, 식료, 금속, 화학, 기계 공업이 새로 창설되였으나 자체의 민족공업은 거의 없고 모두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체들에 장악되여있다. 약 500개의 외래독점회사들과 36개의 외국은행지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공업의 70%, 운수의 약 68%를 틀어쥐고있다. 브라질에 대한 미제의 직접투자는 1970년에 18억 4,300만딸라로 늘어났다. 미제 다음가는 서독독점자본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총투자총액중에서 절반이상을 이 나라에 쏟아붓고있다. 일본 독점자본도 1971년말현재 그 투자액은 벌써 2억 4천만딸라선을 넘었다. 놈들은 3개의 큰 전기 및 전자설비제작회사와 1개의 기계제작회사를 두고있으며 광업부문에 대한 략탈을 강화하고있다. 외래독점자본의 이러한 침투의 결과 민족경제는 더욱더 파산몰락하고있다. 공업생산의 5분의 4가 리오 데 쟈네이로부터 싼 빠울로에 이르는 동남부바다가지대에 집중되여있다. 대외무역적자는 1971년에 3억 2천 500만딸라였고 같은 해에 국가채무액은 19억딸라, 대외빚은 무려 57억딸라였다.

주요수출품은 커피(수출총액의 36%이상), 목화(8.5%), 코코아(6%), 사탕(5%)과 집짐승들이며 기계, 설비, 운수수단, 화학제품, 식량 등을 수입한다. 미국, 일본, 서독 등과 주로 무역한다.

농업에서 실업자대군이 해마다 늘어남으로써 총인구의 약 37%가 도시에 집중되여있다. 실업자의 비률은 인구의 30%를 차지한다.

15살이상의 주민들 가운데서 39%가 문맹자이다. 주민 2만 8천명에 겨우 한 사람의 의사가 차례진다. 어린이 1천명중 평균 105명이 한살도 되기전에 죽는다. 농촌에는 진료소도 없는 마을이 대부분이다. 주민의 93%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아헨씨아 나씨오날(정부통신)

신문 오 에스따도 데 싼 빠울로(무소속), 폴랴 데 싼 빠울로, 디아리오 데 노띠씨아스, 울띠마 오라, 끄레요 다 만하(보수계).

방송 브라질교육문화부방송, 브라질전국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8월 1일 브라질조선문화협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4월 알제리에 있는 브라질루쟁단체대표부 성원들은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와 《김일성동지혁명활동및로작연구소조》를 조직하여 주체사상을 연구하고있다.

꼴 롬 비 아

(꼴롬비아공화국)

남아메리카대륙의 서북부에 자리잡고있다. 동북쪽은 베네수엘라, 동쪽은 브라질, 남쪽은 에꽈도르 및 뻬루, 서북쪽은 빠나마와 국경을 이루면서 북쪽은 까리브해, 서쪽은 태평양을 끼고있다. 가장 높은 중앙 안데스산줄기의 평균 높이는 3천m에 달하며 5천m이상의 활화산과 사화산들이 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강인 마그달레나강(길이 1천 530km)은 중요한 배길로 리용된다.

기후는 열대권에 속하나 해발 높이에 따라 다르다. 해발 1천 500m이하는 열대, 2천500m까지는 아열대, 3천m까지는 온대, 그 이상은 한대지방의 기후이다. 열대 및 아열대권의 지역의 년평균기온은 22~23°C이며 온대지역은 10~22°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태평양기슭에서 3천mm, 고산지대에서 1만mm, 동북부지역에서 150~200mm이다. 7천종에 달하는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있다.

【넓이】 113만 8,914km².

【인구】 2,200만명(1973년 5월)

주민구성은 인디안과 에스빠냐인 사이의 혼혈인인 메티스가 68%, 그리고 백인 20%, 인디안 7%, 흑인 5%정도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보고따(주민 251만 5,000명, 1970년)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118석(임기 4년), 하원은 210석(임기 2년)이다. 1958년 헌법수정에 의하여 자유당과 보수당이 국회에서 지도적지위를 절반씩 차지하고있다 (1974년까지). 1970년 4월 국회선거결과 자유당은 상원에서 46석, 하원에서 72석, 보수당의 《우니오니스뜨》파는 상원에서 18석, 하원에서 30석, 《알바리스뜨》파는 상원에서 15석, 하원에서 32석, 인민자유혁명운동은 상원에서 1석, 하원에서 3석, 전국인민동맹은 상원에서 38석, 하원에서 71석을 각각 차지하고있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수반이며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직은 1958년 헌법수정에 의하여 자유당과 보수당이 교대로 차지한다. 각료직도 자유당과 보수당이 절반씩 차지한다.

대통령 미싸엘 빠스뜨라나 보레로(보

수당출신, 1970년 8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7월에 창건되여 1948년부터 비법화되였다가 1958년에 합법화되였다. 총비서 힐베르또 비에이라, **《민족전선》** 집권당들인 자유당과 보수당의 련합체이다. **자유당** 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변한다. **보수당** 지주, 교회,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한다. 두파로 분렬되여있다. **인민자유혁명운동** 1960년에 창건되였다가 1967년에 다시 조직되였으며 중소부르죠아지, 일부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을 망라하고있다. **전국인민동맹, 기독교민주당, 근로자로조련맹**(1964년 창립, 진보적로조), **근로자련맹, 전국농업로동자련맹, 공산주의청년, 민주녀성동맹.**

정치 16세기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통하여 이 나라는 1819년 7월 20일 독립하였다. 같은해 에꽈도르, 베네수엘라와 통합하여 《대꼴롬비아런방》을 형성하였으며 1830년에 련방은 잉글랜드, 베네수엘라 및 에꽈도르의 3개 독립국가로 분리되였다. (1863년에 잉글랜드는 꼴롬비아로 나라이름을 고침). 영제국주의자들은 19세기중엽부터 꼴롬비아로부터 빠나마지역을 떼내여 운하를 건설할데 대한 《협정》을 꾸며왔다.

미제는 1903년에 꼴롬비아령토의 일부인 빠나마지역을 강탈하였다.

독립이래 반동적인 두 정당인 자유당과 보수당간의 추악한 정치적쟁탈전으로 하여 정치적불안정이 오래 계속되였다. 그리하여 독립한 때로부터 이 나라는 70년동안에 무려 27차례의 《동란》을 겪지않으면 안되였고 경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였다.

꼴롬비아의 력대반동정권은 가혹한 파쑈테로통치를 실시하면서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인민들은 독재정권의 전횡을 반대하여 1948년부터 마르께딸리아상류에서 유격투쟁을 개시하였다. 미제는 이 나라에서 반미반독재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자 1952년 반동당국과 《군사원조협정》을 맺고 유격대《소탕작전》에 가입하였다.

한편 반동국회는 1962년 11월 인민혁명운동을 탄압할데 대한 《특별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악법을 채택하고 유격대에 대한 발악적인 《공세》를 취했다.

1966년 유격대는 10여개의 주들에서 활동하였다. 1970년부터 꼴롬비아인민무장력은 나라의 북쪽과 동쪽 그리고 서남쪽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에 유격전선을 형성하고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에 호된 타격을 주었다.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반동지배층내부에서 알륵이 일층 악화되였다. 1957년 12월에 두 반동정당은 《헌법》을 수정하여 앞으로 12년간(1958년에 16년간으로 수정) 두당이 대통령자리는 4년간씩 륜번제로 차지하며 국회의석과 각료직은 절반씩 나누어가지기로 하였다. 이때로부터 이 나라의 반동계층은 자유당과 보수당간의 량당지배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하여놓고 기타 좌익야당세력들과 인민대중의 진출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인민대중과 광범한 사회계의 압력밑에 반동정권은 1974년 4월 지방자치기관선거에 야당세력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을수 없었다.

1972년에 꼴롬비아의 정치무대에는 새로운 민족적애국전선인 《민족야당동맹》이 출현하였다. 이 단체는 9월말에 총회를 가지고 식민주의와 외국자본의 예속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강령을 채택하였다.

경제, 사회 농업과 채굴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룬다. 주민의 70%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있다. 주민의 3% 남짓한 지주들이 전체 부침땅의 약 65%를 차지하고있는 반면에 근 85%에 달하는 농민들은 부침땅의 15%밖에 못가지고있다. 농촌에서는 세습적인 대토지소유제가 지배하고있으며 약 82만호의 농가가 한뙈기의 땅도 없이 지주놈들의 농장에서 고용로동을 하거나 략탈적인 소작제에 얽매여있다. 농업이 국민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몫은 30%에 불과하지만 외화벌이에서는 큰 자리를 차지한다.

식민지통치가 남긴 후과로 하여 땅이 비옥한 큰 농장들에서는 주로 커피재배가 전문화되여있다. 꼴롬비아는 세계적으로 두번째(브라질다음)가는 커피생산국이며 그 품질에서는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한해동안에 커피는 47만~48만t 생산되나 그 대부분을 수출한다. 알곡작물로서 강냉이(년산 90만t), 벼(7만여t), 감자(90만t), 콩류(7만t)가 나며 그밖에 담배(4만여t), 바나나, 코코아, 사탕수수, 목화도 생산된다. 바나나와 코코아 생산은 미제독점회사인 《유나이테드 프루트》가 대부분 독점하고있다.

주요농업지대는 마그달레나강류역이다.

동북부의 산간지대에서는 젖소, 양을 위주로 하는 집짐승을 기른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의 20%를 차지하는데 공업생산의 3분의 2는 안데오끼아주, 꾼디나마르까주, 발리예주들에 집중되여있다. 특히 공업로동자의 80%는 보고따, 메델린, 깔리, 바르란낄랴시들에 있다.

공업에서 주되는 부문은 채굴업이나 땅생김이 험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개발이 활발하지는 못하다. 채굴업의 중심지는 마그달레나지역이다. 광물자원의 4분의 1, 특히 석유채취의 80%는 미제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가공공업분야에는 약 40만명의 로동자들이 고용되여있는데 그 절반이상이 식료, 피복, 신발, 가죽가공부문에서 일한다. 야금, 석유가공, 세멘트, 화학 부문은 대부분 외래독점자본이 장악하고있다.

미제는 이 나라에 250개의 기업체를 두고 있으며 1딸라를 투자하고 평균 4딸라이상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1970년 현재 이 나라에 투자된 외래자본의 투자총액은 12억딸라에 달하는데 미제독점자본의 직접 투자총액이 8억딸라였다.

재정경제의 악화와 통화팽창으로 1970년에 돈의 가치는 6%나 떨어졌다.

철길 총연장길이는 3천 500km이다. 마그달레나강을 비롯한 큰 강들이 배길(8천 900km)로 리용된다.

주요수출품은 60%의 몫을 차지하는 커피, 약 10%를 차지하는 석유와 그 가공제품이다.

학교와 교원 부족으로 학령아동의 4분의 1이 배우지 못하며 문맹자의 비률은 인구의 42%나 된다. 1971년에 실업자는 300만명이였다. 70만세대가 빈민촌에서 산다. 주민의 90%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보스 쁘로레따리아(공산당기관지), 에헤르씨또 뽀뿔라르 데 리베라씨온(인민해방군기관지), 뿌에르사스 아르마다스(유격대신문), 디아리오 오피씨알(정부기관지), 엘 에쓰빽따도르(자유당계), 엘 씨글로(보수당계), 엘 띠엠뽀(자유당계).

방송 꼴롬비아국립방송, 꼴롬비아국립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0월 꼴롬비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2년에 보치까출판사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

에 관한 테제》,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71년에 공산당대표단, 국회대표단, 공산주의청년대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에 파 도 르

(에꽈도르공화국)

남미대륙의 서북부에 자리잡고있다. 북쪽은 콜롬비아, 동쪽과 남쪽은 뻬루와 국경을 같이하며 서쪽으로는 태평양을 끼고있다. 태평양상에 있는 갈라빠고스군도가 이 나라에 속한다. 적도선이 이 나라의 북부지방을 지나고있다고하여 나라이름을 에꽈도르(적도)라고 부르게 되였다.

전령토의 75%가 산림으로 뒤덮여있다. 안데스산 지대에는 화산이 많으며 해발 4천 200~6천m이상의 높은 산들만 하여도 30개나 있다.

기후는 적도선에 놓인 나라이지만 동부지방을 제외하고는 한류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선선하다.

바다가지방은 가장 더운때인 3월에 최고 34°C, 최저 18°C, 가장 선선한 때인 9월에 최고 33°C, 최저 15°C이다. 인구의 75%가 안데스산지의 고원지대에서 산다.

【넓이】 28만 3,561km²(갈라빠고스군도 포함)

【인구】 1,412만 2,000명(1973년8월)

주민구성에서 메티스와 인디안이 80%를 차지하며 그밖에 백인 10%, 흑인 5%, 기타 5%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끼또(주민 65만명, 1970년)

【국회】 상하량원제이며 상원은 32석, 임기는 4년이다. 하원은 71석, 임기는 2년이다. 1970년 6월에 국회는 해산되였다.

【정부리사회】 륙군사령관(대통령), 해군, 공군 사령관들로서 구성된 나라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길레르모 로드리게스 라라(1972년 2월 15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전신은 1926년 5월 23일에 창건된 사회당인데 1930년에 공산당으로 고쳤다. 총비서 뻬드로 사아드, **벨라스꼬주의자민족련맹** 1952년에 창건되였으며 1972년 2월까지 집권한 대통령 벨라스꼬를 옹호하는 자들로 조직된 반동적정당이다. **보수당** 미제독점자본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는 반동적인 부르죠아, 지주들의 당이다. **자유급진당** 주요상공업자들의 리익을 대변한다. **기독교사회운동**, **인민력량통일**, **립헌민주련합** 1965년에 창건, **에꽈도르민족혁명행동**, 사회당계렬은 **사회혁명당**, **사회통일당**, **에꽈도르사회당**으로 분렬되여있다. **인민민주동맹** 공산당의 참가하에 1968년에 창건되였으며 제국주의독점체들과 국내반동들을 반대하며 근로자들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한다. **근로자총련맹**(1944년에 창립, 세계직련에 속한 진보적로조), **공산주의청년**.

정치

에꽈도르는 1532년에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당한후 거의 300년동안 놈들의 통치하에 있었다. 1809년 9월 10일 끼또에서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첫 애국위원회가 창설된 후부터 각지에서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폭동이 련이어 일어났다. 1822년 5월 폭동군은 에스빠냐침략자들을 격파하고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였다. 독립후 에꽈도르는 《대콜롬비아련방》의 일부로 있다가 1830년 5월 30일 떨어져나와 독립적인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공화국이 선포된후 정권은 반동적인 군사독재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였다. 독재정권의 폭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정부투쟁과 반동지배층내부의 호상알륵과 모순으로 인하여 제2차세계대전전까지만 하여도 《헌법》이 열번이상 고쳐지고 44회나 대통령이 바뀌였다.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침투한 미제는 1952년에 친미괴뢰정권과 《군사협정》 및 《농업협정》을 맺고 수많은 《군사고문》과 《기술자》의 탈을 쓴 정탐배들을 밀어넣고 이나라에서 사실상 《주인》행세를 하였다.

1968년 8월 대통령으로 들어앉은 벨라스꼬 이바라는 그의 집권기간에 미제의 압력에 의하여 자국화페를 평가인하함으로써 재정형편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이로부터의 부담을 근로자들에게 들씌우기 위한 《세금도입법안》을 포함한 일련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서 《법안》이 반대에 부딪치자 벨라스꼬놈은 국회마저 해산하였고 1967년의 헌법을 페지하고 파쑈적인 1946년의 《헌법》을 복귀하였다. 동시에 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일떠선 공산당을 포함한 진보적정당, 로조, 학생 지도자들을 잡아가두고 인민들의 초보적인 인권마저 유린하는 길로 나갔다. 1970년 6월에는 광대한 석유매장지를 45년간 미제석유독점체들에 팔아넘겼다.

【주요사건】 1972년에 에꽈도르에서는 미제와 벨라스꼬독재정권을 반대하는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았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2월 15일 륙군사령관이였던 길레르모 로드리게스 라라가 일으킨 군사정변으로 말미암아 벨라스꼬 이바라독재정권이 전복되였다. 정변후 정부리사회가 구성되고 길레르모 로드리게스 라라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길레르모정부는 집권후 1945년에 좌익세력의 통제하에 있던 국회가 초안한 헌법(이 나라 력사상 가장 진보적 헌법으로서 당시 공포되지 못함)을 회복하고 이전 《헌법》을 페지하였으며 일련의 진보적조치들을 취하였다. 정부는 이전 정부가 탄압하여온 진보적 정당, 로조 및 기타 근로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였다. 동시에 보수적경향이 강한 공군지도부를 정리하고 권력기관들에서 비교적 애국적경향이 강한 륙해군의 비중을 높였다. 또한 좌익적인 견해를 가진 민간인들도 정부에 인입하였다.

길레르모정부는 《혁명적민족주의계획》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포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소수의 파두정치세력에 의한 국가자원의 착취와 외국독점체들에 의한 경제의 예속을 끝장낼 의향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계획의 일부로서 진보적계획들의 추진을 연구할 《최고민족연구소》를 새로 내왔으며 외래석유독점체들의 특전을 제한하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이어 11월에 미제의 석유독점회사가 에꽈도르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를 탐사하고 채취하는것을 금지할데 대한 법령을 공포하고 국영석유회사를 창설하였다.

대외적으로도 정부는 자주적인 정책에 기초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배격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관계를 발전시킬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동시에 공동의 리익을 위한 라틴아메리카나라 인민들의 투쟁에서 련대성을 강화할것이라고 하였다.

5월에 진행된 《미주국가기구》 상설리사회 회의에서 에꽈도르대표는 빠나마, 쟈메이카 등 여러 나라들과 같이 사회주의꾸바와 관계를 개선할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해에 미제가 조작한 강도적《어업법》을 규탄하고 200마일령해권을 수호할데 대한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으며 령해를 침범하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국가들의 해적선들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민족적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에꽈도

르정부의 정책에 불안을 느낀 미제는 이 나라에 정치, 경제적압력을 가하면서 이전친미독재정권과 맺은 《차관협정》의 리행을 중지하겠다고 을러댔다. 그러나 에꽈도르정부는 4월 6일 먼저 주동적으로 이 《협정》을 폐기하였다. 이해에 에꽈도르공산당을 비롯한 이 나라의 진보적이고 애국적인 력량은 정부의 긍정적조치들을 적극 지지하면서 반동세력을 더욱 고립시키고 혁명을 계속 밀고나가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경제, 사회 에꽈도르는 농업국가이다.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한 극소수에 달하는 부유한자들이 국민총생산액의 약 60%를 틀어쥐고있다. 농촌주민의 1%에 해당하는 지주놈들은 부침땅의 4분의 3을 틀어쥐고있다. 경제의 기본을 이루는 농업부문에서는 주민의 절반이상이 일하고있다. 농촌에서는 세습적인 반봉건적토지소유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있고 외국독점체들 특히 미제독점체들의 략탈로 농업발전이 저해를 받고있다. 농업은 바나나, 코코아, 커피 등 수출용농산물생산에 치우쳐있다. 특히 바나나수출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나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적인 가격정책으로 수입은 답보상태에 있다. 3대수출작물인 바나나는 100만t이상, 코코아는 5만여t, 커피는 6만t정도 생산된다. 이 작물들은 수출총액의 5분의 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물의 수매, 부분적인 생산과 수출은 미제의 《유나이테드 푸르트》회사의 자매회사들이 완전히 틀어쥐고 있다.

알곡작물로서는 23만t정도의 벼, 20여만t 정도의 강냉이, 7만t의 밀 그리고 보리와 마니오크 등이 생산되나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축산업에서는 소(약 240만마리), 양(180여만마리), 돼지(약 130만마리)를 기른다.

공업으로는 채취 및 약간의 가공공업이 있을뿐이다. 석탄, 쇠돌, 동, 금, 아연 등 지하자원이 많지만 개발상태가 완만하다. 1960년대말에 이 나라의 동부지대인 안데스산맥과 아마존강상류의 밀림지대에서 큰 석유매장지가 발견되였다. 미제의 석유회사인 《텍사코 갈프》회사가 이것을 개발하여 1972년 여름부터 석유채취를 시작하였으며 놈들은 석유를 실어가기 위하여 태평양연안의 벨라오항구까지 500km에 달하는 송유관을 늘여놓았다. 그러나 에꽈도르정부는 미제독점체들의 활동을 금지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고 《텍사코 갈프》회사에 빼앗겼던 350만ha의 유전을 국가의 통제하에 넣고 놈들의 《보상금》지불을 거부하였다. 또한 송유관의 종점인 벨라오항구에서 통제를 실시하면서 놈들의 석유략탈을 제한하고있다.

그밖에 중소규모의 세멘트, 방직, 식료가공 공장들이 있다. 년간 45만여t의 세멘트, 약 21만t의 사탕, 600만ℓ의 식물성기름, 8억 5천만kwh의 전력이 생산된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코코아, 커피와 목화 등 농산물이며 여러가지 기계류, 차량, 화학제품, 식량을 수입한다. 대외무역의 절반은 미국이 차지한다.

이 나라에는 아직 로동인구의 근 40%가 항시적인 실업상태에 있으며 15살이상의 주민들중에서 32%는 문맹자이다. 7개의 대학이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엘 뿌에블로(공산당기관지), 엘 메리꾸리오(보수당기관지), 엘 꼬메르씨오(무소속), 레히스뜨로 오피씨알, 엘 띠엠뽀, 울띠마스 노띠씨아스.

방송 에꽈도르방송, 끼또방송, 에꽈도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8월 13일 에꽈도르의 혁명적 청년들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연구하고있다.

뻬 루

(뻬루공화국)

남아메리카대륙의 서쪽, 태평양기슭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다. 해안선을 따라 남북으로 뻗은 안데스산줄기로 하여 서쪽의 해안지대, 안데스고원지대, 동쪽의 낮은 산림지대로 크게 나뉘여져있다. 해안지대는 전령토의 12.5%에 불과하지만 국민소득의 3분의 2가 조성되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서 인구의 45%가 이 지역에서 살고있다. 뻬루의 동남쪽과 볼리비아의 북쪽국경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호수인 띠띠까까호(해발 3,800m)가 있다. 태평양연안에는 약 30개의 섬들이 있다. 뻬루의 연안 바다는 세계어장의 하나로 되고있다.

기후는 일반적으로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여름철(장마철), 6월부터 11월까지는 겨울철(가물철)이다. 해안지대의 평균기온은 22°C이나 한류의 영향으로 덥지 않다. 안데스고원지대에서 평균기온은 13°C로서 비교적 춥고 건조하나 동쪽의 낮은 지대는 무덥고 강수량이 많다.

【넓이】 128만 5,215km²

【인구】 1,410만명(1971년)

주민은 원주민인 인디안 46%, 메띠스 40%, 백인 13%, 기타 1%이다. 인디안의 아이마라계통의 후손들은 동남부의 산악지대에 살고있을뿐 께츄아계통의 후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리마(주민 351만 5,800명, 1971년)

【혁명리사회】 나라의 최고지도기관이며 대통령과 륙군, 해군, 공군 대표들로 구성되였다.

【국회】 1968년 10월 군사정변후 해산.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6년이다. 대통령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1968년 10월—)

【정부】 혁명리사회의 자문기관역할을 한다. 총리 에르가르도 메르까도 하린(1973년 1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8년 10월 17일 창건된 이래 38년동안 지하에서 활동하였다. 1968년 10월 군사정변후 합법화되였다. 1969년에 진행된 제5차당대회에서는 현 《정부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정치로선을 채택하였다. 총비서 호르헤 델 쁘라도, **《좌익혁명운동》** 1959년 인민당에서 좌익청년집단이 떨어져나와 조직. 1965년 6월부터 1968년 10월 군사정변이전까지 무장유격투쟁을 전개하였다. **사회당** 1928년 공산당에서 떨어져나와 조직, **사회진보당** 1956년에 진보적인테리들로서 조직. **인민당** 1924년에 창건.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한다. **《인민행동당》** 1956년에 창건되여 1968년까지 집권당으로 있은 친미정당. **기독교민주당** 민족부르죠아지와 소지주들의 리익을 대변한다. **기독교인민당** 1966년 기독교민주당에서 극우익분자들이 떨어져나와서 조직, **근로자총련맹**(약 50만명을 망라한 진보적로조), **공산주의청년동맹**, **인민녀성동맹**(1972년 11월 창립),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1970년 8월 13일 결성).

정치 뻬루는 인까제국의 일부로 있다가 1531년에 에스빠냐식민지로 되였다. 1571년, 1780년에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원

주민들의 강력한 봉기들이 일어났다. 181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라틴아메리카독립전쟁시기 이 나라 인민들도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하였으며 1820년 7월 28일 싼 마르띤의 군대에 의하여 첫민족적독립을 쟁취하였다. 독립후 뻬루는 1879~1883년기간에 칠레와 초석산지문제를 둘러싸고 《태평양전쟁》을 벌렸으나 전쟁에서 패배하여 초석산지들인 아리까, 따라빠까지역을 빼앗겼다. 19세기말부터 이 나라에 경제적침투를 강화한 미제는 광업, 석유채취, 사탕생산분야에 침투하였다. 독립후 정권쟁탈을 위한 독재자들의 개싸움이 빈번히 계속되였다. 특히 미제가 침투한 이래 친미적인 군사정변이 수십차례나 일어났다.

제2차세계대전후 공산당이 참가한 《전국민족전선》정부(1945년)가 수립되였으나 1948년 미제에 의한 우익군사정변에 의하여 이 정부는 전복되고 공산당을 포함한 진보적정당들은 비법화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뻬루에서는 로동운동과 농민들의 투쟁이 급격히 앙양되였다. 1963년부터는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이 개시되여 1965년에는 9개주들에서 유격전선이 형성되였다. 1968년 10월 3일 국방부장 겸 군사령관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친미반동정권을 전복하고 혁명리사회를 구성하였다.

새 정권은 우선 비법화되였던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합법화하였다.

벨라스꼬정부는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일련의 사회경제적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미제와 국내반동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969년에 미제의 《인터내슈널》석유회사와 맺은 비법적인 협정을 무효로 선포하고 이 석유회사를 국유화하였으며 이 날을 《민족존엄의 날》로 선포하였다.

같은해 6월 24일에는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고 미국놈들과 대지주놈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절대다수가 인디안들인것을 고려하여 이 날을 《인디안의 날》(혹은 농민의 날)로 정하였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민족적자주권을 옹호하고 반제반미적인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뻬루정부는 나라의 령해권을 200마일로 선포하고 령해를 침범하는 미제해적선들에 단호한 징벌을 가하였다. 1969년 5월 23일에는 이 나라에 기여들어 내정간섭을 일삼아온 미제의 《군사사절단》(무관부)을 내쫓았다.

1968년 12월에는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려행금지령》을 페지하였으며 칠레인민통일정부를 라틴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승인하고 1972년 7월 8일에는 이전반동정부가 끊었던 꾸바와의 외교관계를 다시 회복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대외수출을 위한 채광공업과 농업이다. 비스무트, 쇠돌, 석유, 유색 및 희유금속이 많은 나라로서 비스무트생산량(년산 약 700t)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1위, 은생산은 2~3위를 차지하고있다. 광산의 대부분은 4천m의 높은 지대에 있는것이 특징이다.

지난시기 미제는 채취공업(광업의 85%, 석유공업의 90%)과 사탕공업의 70%, 그리고 가공공업(인견팔프, 고무), 자동차조립, 방직, 화학, 식료공업 등을 장악하고있었다. 또한 수산업(물고기가공제품의 약 40%)과 농업(주로 사탕수수농장)부문에도 침투하였다.

벨라스꼬정부는 미제독점자본가놈들과 그와 결탁된 국내 자본가, 지주놈들의 회사, 은행, 농장, 목장들을 국유화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미제의 석유회사를 비롯하여 많은 광산, 공장, 기업소, 은행, 전신전화회사들과 철도운수가 국유화되였다. 동시에 흑색 및 유색금속, 석유, 화학, 세멘트, 인견팔프 공업부문에 대한 외국독점자본의 투자를 금지하고 그를 제한통제하고있다.

흑색금속, 석유가공 공업의 거의 100%, 석유채취의 65%는 국영부문에 속하고있다. 특히 광업분야에서 외래독점체들로부터 3천 140여개의 광산소유권을 박탈하였다. 국영석유회사는 아마존강류역에서 자체로 큰 석유매장지를 발견하여 이미 2개의 유정에서는 석유를 뽑고있다.

정부는 농촌에서 《토지개혁》을 적극 밀고나가고있는 동시에 1972년 6월 이 개혁을 방해하고있는 《전국농업협회》와 《뻬루축산련맹》(대지주놈들의 단체)을 해산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농민들은 진보적개혁을 수호하기 위하여 《토지개혁수호위원회》, 《혁명수호위원회》를 뭇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장려하고있다. 1972년 6월현재 미제와 대지주놈들의 땅 400만ha를 몰수하여 10여만의 농가에 나누어주었다. 농민들은 협동조합을 뭇고 국가로부터는 물질기술적방조도 받고있다. 결과 목화, 사탕, 커피, 과일 등 수출용 농산물뿐아니라 주식알곡작물인 강냉이, 밀, 벼 생산량도 늘고있다. 사탕만하여도 1972년에 그 전해에 비하여 6천 700t이나 더 많은 92만t을 생산하였다.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의 약 20%를 차지하며 농촌주민의 약 20%가 이 부문에서 일하고있다. 고기는 이 나라 인민들의 주식물의 하나로 되고있다. 소, 말, 라마, 알빠까(뻬루고원지대에서 기르는 라마의 변종)는 주로 안데스고원지대에서, 돼지는 농산지대인 바다가지방에서 기른다. 정부는 1972년 10월까지 크고 작은 1천 785개(넓이는 350만ha)의 방목지를 몰수하였다. 여기에 꾸려진 목장들에서는 약 150만마리의 집짐승들을 기르고있다.

이 나라의 연해는 세계어장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수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이 크다. 1970년에 1천 260만t의 물고기를 잡아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해마다 200만t의 물고기가루, 20만t이상의 간유를 생산한다. 수산업부문에서도 국영경리가 창설되였다.

뻬루는 경제발전 5개년계획(1971~1975년)을 수행하고있는데 이 기간에 토지개혁을 완성하며 주요경제부문들을 발전시킬것을 예견하고있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약 5천km인데 모두 국유화되였다. 주요항구들로서는 깔랴오, 딸라라, 침보떼 등이다.

대외무역도 대부분 국가의 통제하에 있다. 물고기와 그 가공품(물고기가루와 간유), 원유, 석유제품, 광석(동, 쇠돌, 은, 아연, 연), 커피, 사탕, 목화, 털 등을 수출하고 원료와 반제품(수입의 50%), 기계, 설비, 건재와 식량, 고기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수출의 약 35%, 수입의 약 30%차지)을 비롯하여 일본, 서독 등 자본주의나라들이며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도 점차 확대하고있다.

정부는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는 미국영화의 상영과 숭미사상을 고취하는 미제의 잡지배포를 금지시키고 놈들의 보도기관들을 내쫓았다. 반면에 민족영화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법과 모든 대중보도수단을 국가가 장악할데 대한 법, 새로운 민주주의적교육법을 발포하였다. 중학교는 977개, 대학은 15개가 있다. 주민들은 주로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우니다드(공산당기관지), 반데라 로하 라 쁘렌싸(무소속), 엑스쁘레소, 울띠마 오라(무소속).

방송 뻬루국립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8월 13일 뻬루의 수도 리마에서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가 결성되였다.

이 협회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단행본으로 계속 출판보급하고있다. 또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성대히 기념하였으며 불레찐, 영화를 통하여 우리 나라를 뻬루인민들속에 널리 소개하고있다.

이 협회 서기장 헤나로 까르네로 체까는 1972년 10월 11일 조선뻬루친선협회 결성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뻬루와 라틴아메리카 전체 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김일성원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적인 주체사상입니다. 뻬루인민과 모든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이 위대한 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지난기간 조선인민이 튼튼히 단결하여 승리를 달성하였다는것을 잘알고있습니다…

주체란 바로 전진하는 인민, 투쟁하는 인민을 의미하며 주체는 곧 승리를 상징한다는것을 뻬루인민은 잘 알고있습니다.

김일성원수님은 이 빛나는 력사를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이십니다.》

1972년 11월 7~12일기간에 뻬루공산당대표단을 비롯하여 10월에 뻬루근로자총련맹대표단과 광업대표단,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서기장(그는 세번째 방문)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볼 리 비 아

(볼리비아공화국)

남미대륙 중부에 있는 내륙국가이다. 고원지대의 기후는 따뜻하나 낮은 지대는 매우 덥다.

【넓이】 109만 8,581km²

【인구】 510만명(1971년)

주민은 인디안(50%)과 인디안—에스빠냐혼혈인(28%), 백인(13%)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라 빠스(정부소재지, 주민 56만 3,000명, 법적수도는 수끄레)

【국회】 상하량원제

【정부】 대통령 유고 반세르 쑤아레스(1971년 8월 23일—) 총리 겸 외교부장 마리오 구띠에레스, 국방부장 하이메 플로렌띠노 멘디에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에 창건, 1950년 1월에 재건되였다. 제1비서 호르헤 콜레 꾸에또, **민족혁명운동당**(집권당), **사회주의팔랑헤당**(집권당), **좌익혁명당**, **로동자중앙련맹**, **볼리비아조선친선협회** 1971년 6월 29일 결성.

정치 볼리비아는 1531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5년 8월 6일에 독립하였다. 볼리비아는 독립후에도 계속 매우 불안정상태에 있었다. 미제의 책동과 지배층내의 정권쟁탈전으로 하여 1971년까지 180여회의 정변과 14차의 헌법개정이 있었다.

미제는 제1차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부터 이 나라에 침투하기 시작하였으며 제2차세계대전시기에는 이 나라를 완전히 제놈들의 지배하에 넣었다. 그리하여 이 나라 인민들은 반미반정부투쟁에 일떠섰다.

인민들의 반미반정부투쟁에 질겁한 미제는 1964년 11월 3일 친미반동군벌들을 부추겨 이 나라 력사에서 180번째의 정변을 일으켜 독재정권을 수립케하였으나 이 정권은 1970년 10월에 전복되고말았다.

이후 수립된 또레스정부는 미제독점회사들을 국유화하며 미제침략군의 척후병인 《평화군》의 철수, 미제공군기지철폐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사회개혁》을 단행할데 대한 집권초기의 약속을 리행하지 않고 우유부단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인민들은 정부에 새로운 진보적인 정책을 실시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정부의 반미적조치에 불안을 느끼고 있던 미제는 인민들의 불만을 교묘하게 리용하며 우익반동들을 사촉하여 1971년 8월 군대들이 무장반란을 일으키게하여 또레스정부를 전복하고 반세르를 대통령으로 하는 반동적인 민족혁명운동당, 사회주의팔랑헤당의 련립정부를 조작하였다.

친미반세르반동정권은 이미 1967년에 철폐되였던 반미반독재투쟁을 탄압할것을 목적으로 한 《사형법》을 다시 내왔으며 1972년 6월에는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감옥이나 수용소에 가둘수 있는 악법을 또 조작하고는 애국적민주력량을 잔인하게 체포, 투옥, 학살하였다.

1972년 10월에는 볼리비아의 화폐 《페소》의 가치를 미국딸라 1:12로부터 20으로(66.6%평가인하) 떨어뜨리였으며 11월에는 공업품과 식료품 가격을 25%나 올리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인민들의 투쟁은 보다 치렬하였다.

파업과 시위투쟁에 일떠선 로동자들은 《굶주리기보다는 차라리 총탄에 맞아 죽는것이 낫을것》이라고 하면서 시내 거리들에 바리케트를 쌓고 항의시위와 집회들을 벌렸으며 최루가스와 총탄을 쏘며 땅크를 몰며 달려드는 군대, 경찰들과 맞받아 싸웠다.

1월에 독점자본의 착취를 반대하고 생활상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주석광산과 신발공장로동자들이 큰 파업을 일으킨것을 비롯해서 년중 계속적인 파업과 시위투쟁이 벌어졌다.

이와 같이 인민들의 투쟁과 많은 사람들이 체포구금되고 학살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16명의 내각성원들이 사임함으로써 대통령 반세르는 1973년 4월 제놈의 집권후 세번째로 내각을 개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경제, 사회 볼리비아는 뒤떨어진 농업국이며 주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농촌인구의 8~10%밖에 안되는 지주들이 토지의 약 70~80%를 독점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밀, 보리, 감자, 사탕수수, 목화, 담배, 고무(수출량이 남미에서 제2위) 등이다. 이 나라는 해마다 식량이 모자라서 식량수요의 70%이상을 다른 나라들에서 사들이고있다.

공업은 빈약하며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이 주석인데 이 나라 수출총액의 75%를 차지한다. 이외 중석, 안티몬, 탕그스텐 생산도 세계에서 손꼽히며 석유매장량도 많다.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광물은 대부분 미제가 략탈해가고있다.

가공공업으로는 규모가 작은 방직공장, 세멘트공장 등이 있으며 최근년간 원유가공공장도 건설되였다. 철길은 남부지역에만 약간 있고 넓은 북부지역은 전혀 없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문맹자이며 어린이의 4분의 1은 1년도 되기전에 죽는다.

【출판보도】 신문 우니다드(공산당기관지), 리베라씨온, 쁘레쎈시아, 엘 뿌에블로(공산당기관잡지), 엘 디아리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29일 볼리비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으며 1971년 4월 15일 벌가리아에서 공부하고있는 볼리비아류학생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빠 라 과 이

(빠라파이공화국)

남아메리카대륙의 한 가운데 자리잡고있는 빠라파이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띠나에 둘러싸여있다. 땅생김새에서 해안과 산악지대가 없는것이 특징이다. 령토의 한복판에 빠라파이강이 남북으로 흐른다. 이 강을 계선으로 하여 서부지역(일명 챠꼬지방)과 동부지역으로 나뉘여지는데 령토의 약 60%를 차지하는 서부지역은 초원지대이나 동부지대는 구릉지대이다.

동부지역의 3분의 2는 온대에 속하나 그 기후는 아열대성기후에 가까우며 서부지역은 열대성기후에 속한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동부지역의 중부에서 가장 더울때의 기온은 27~28°C이며 가장 추울때의 기온은 15~16°C이다. 서부의 대부분의 지역은 강수량이 적다. 대체로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장마철이고 4월부터 9월까지는 가물철이다. 인구밀도는 1km²당 5.9명(1970년)으로서 남아메리카나라들중에서 가장 낮다.

【넓이】 40만 6,752km²

【인구】 239만명(1970년)

주민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에스빠냐인계통의 혈통이 적고 원주민인 뚜삐—과라니족의 비률이 높다. 기본주민은 뚜삐—과라니족의 후손들과 메티스(에스빠냐인과 원주민의 혼혈인)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나 뚜삐—과라니어도 널리 쓴다.

【수도】 아순씨온(주민 43만 7,136명, 1970년)

【국회】 최고립법기관이며 상하량원으로 구성되였다. 상원의원수는 30명, 하원의원수는 60명이며 임기는 각각 5년이다. 1968년 국회선거결과 꼴로라도당이 상원에서 20석, 하원에서 40석, 급진자유당이 상원에서 9석, 하원에서 16석, 자유당이 상원에서 1석, 하원에서 3석을 각각 차지하고있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알프레도 스뜨로에쓰네르(1954년 7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3년에 창건. 1947년부터 비법화. 1971년 4월 지하에서 제3차당대회가 진행되였다. 위원장 안또니오 마이다나(현재 감금되여 있음), 총비서 오스깔 끄레떼, **민족공화련맹**(꼴로라도당) 1881년에 조직되였다. 현재 집권당이다. 대부르죠아지, 대농장주, 반동군부상층의 리익을 대변하며 미제독점체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있다. **《민족해방통일전선》** 자유당, 2월혁명당의 좌익적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산당 등이 망라. 해외(우루과이)와 국내에서 독재정권을 반대하여 투쟁. **자유당, 급진자유당, 2월혁명당, 기독교민주당, 기독교근로자총련맹**(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한다), **근로자총련맹**(정부의 어용로조)

정치

1535년에 에스빠냐식민지로 되였으며 1811년 5월 14일에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후 1844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독재자 프란씨아가 정권을 잡고 26년간 쇄국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뒤를 이은 새로운 독재자 로뻬스란자는 이웃 나라들인 브라질, 아르헨띠나 및 우루과이를 상대로 하는 침략적인 《3국동맹전쟁》(1864—1870년)을 일으켰다가 패배하여 령토의 거의 절반과 인구의 대부분을 잃었다. 전쟁초기에 약 133만 7천명이던 주민이 전쟁후 살아남은 사람은 22만명(그중 남자는 2만 8천명)에 불과하였다. 그후에도 빠라파이는 볼리비아와 응근 한세기동안 그란 챠꼬지역을 둘러싸고 령토분쟁을 벌렸다. 이 분쟁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간섭으로 인하여 더욱 날카롭게 되였다. 《그란 챠꼬전쟁》(1928—1935년)에서 빠라파이는 《승리》하여 그란 챠꼬지역의 대부분을 얻기는 하였으나 막대한 인적 및 물적손실을 당하였다. 전쟁이 끝난후 군부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민간지배층과의 권력다툼은 계속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이 나라에 침투한 미제는 제놈들의 경제적리권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괴뢰정권을 빈번히 교체하였다.

1954년에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알프레도 스뜨로에쓰네르는 대농장주들과 매판자본가들을 비롯한 친미반동계층들을 기본바탕으로 하는 독재체계를 확립하고 전국을 테로와 폭압의 생지옥으로 전변시켰다. 그리하여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언론출판기관들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파쑈통치의 희생물로 되였다. 그러나 빠라파이인민들은 굴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 강화하였다.

이 나라의 반정부 야당인사들과 민족주의자들은 1959년 4월 민족해방통일전선을 결성하고 독재정권을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포함한 여러가지 투쟁을 조직전개하였다.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기세에 불안을 느낀 스뜨로에쓰네르놈은 독재정권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1968년의 선거놀음에서는 대통령이 세번이상 재선되는것을 금지한 《헌법》까지 개악하고 폭력과 사기협잡으로 대통령으로 들어앉았다. 1970년에 반동당국은 이른바 《사회적평온》, 《개인의 자유》 등을 표방하는 악법들을 조작하여 현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 6년으로부터 종신징역에 이르는 무서운 형벌을 들씌우고있다. 그리하여 스뜨로에쓰네르놈의 근 20년간에 걸친 통치기간에 이 나라 수천명의 애국자들이 무참히 학살되였으며 빠라파이공산당 위원장과 기타 수많은 애국자들이 재판도 없이 따굼주와 챠꼬사막에 있는 감옥과 수용소들에 무기한 갇혀있다.

그러나 친미반동정권의 반인민적정책과 탄압책동에 항거하는 목소리는 《국회》내에서까지 흘러나오고있다. 빠라파이 인민들과 진보적사회계는 외국독점체들의 국유화, 정치범들의 석방, 민주주의적자유를 부르짖고있다.

경제, 사회

경제적으로 미제와 기타 외래독점자본에 얽매인 반식민지농업국가이다. 미제와 외국독점자본은 이 나라에서 비교적 큰 15개의 생산기업소들중에서 12개를 장악하고있으며 은행자본의 90%와 수출의 80%를 통제하고있다.

주민의 75%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과 림업이 2대경제부문을 이루고있다. 농촌에서는 대토지소유제가 지배하고있다. 한줌도 못되는 지주와 목장주놈들이 토지를 독차지하고있는데 그중에서 3분의 1에 불과한 대토지소유자들이 전체 부침땅의 4분의 3을 장악하고있다. 남아메리카의 대초원을 끼고있는 이 나라에서 목축업은 오랜 옛날부터 경제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다. 방목지들에는 소(약 560만마리), 양(약 50만마리), 당나귀 및 노새(3만마리)를 기르고있다. 해마다 많은 고기(10여만t)와 양털이 생산되나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전부 헐값으로 빼앗아간다.

부침땅의 대부분은 먹이작물재배지로 리용된다. 그러므로 해마다 막대한 식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주식물은 마니오크(일명 카사바)인데 년산 150여만t 생산된다. 그밖에 쌀(년산 1만 8천여t), 강남콩(2만여t), 콩(1만 8천여t), 단감자(8만 5천여t), 밀(2만 7천여t)을 비롯한 알곡작물을 심는다. 또한 사탕수수(년산 97만여

t), 목화(3만여t), 담배(2만t), 커피(4천t), 빠라파이차(1만 7천여t), 당오동나무열매 (4만여t)와 같은 식료 및 공예작물도 재배한다. 빠라파이차(일명 마떼차)는 이 나라의 특산물이다.

령토의 54%가 열대림으로 덮여있는데 염료원료로 쓰이는 게푸라나무와 건축 및 가구 용재들이 많다.

공업의 기본은 가공공업이다. 고기가공, 솜타기 및 방직, 염료, 기름, 석유정제, 세멘트, 야금, 담배, 맥주공장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식료가공공업이 우세한데 공업총생산액의 약 50%를 차지하고있다. 주요공업제품들인 먹는 기름은 년간 약 2만 3천t, 섬유는 8천t, 천은 1천 650만m, 맥주는 1천만ℓ, 전력은 약 2억kwh, 세멘트는 1만여t 생산된다.

빠라파이경제는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쇠퇴몰락의 위기에 처해있다. 1971년현재 대외빚은 2억 4천만딸라에 달하고있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1천 300km이며 빠라파이강은 국내의 주요하천운수로 리용된다.

주요수출품은 주로 고기와 그 가공제품, 목재, 목화, 가죽용염료, 당오동나무기름 등이며 기계및설비, 운수수단, 식량, 흑색금속, 연료, 직물, 화학제품 등을 수입한다. 대외무역은 주로 미국, 영국, 서독, 아르헨띠나와 한다.

주민의 절반이상이 문맹자이며 대학은 2개밖에 없다. 주민의 5%에 불과한 부유한자들이 국민총생산액의 50%를 독차지하고있으며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에게는 겨우 20%가 차례지고있다. 일반 주민들의 한사람당 년간수입은 겨우 40딸라정도이다. 근로자들의 약 75%가 초라한 움막집에서 산다. 친미반동당국의 학정밑에서 더는 살수 없어 다른 나라로 떠나간 사람들의 수는 50여만명에 달한다. 남조선반동들에 의하여 《이민》으로 이 나라에 팔려온 남조선사람수는 1962년부터 10년어간에만도 1천 820명에 달한다.

천주교가 국교이며 주민의 89%가 천주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빠라파이통신 **신문** 아뗄란떼(공산당기관지), 빠뜨리아(콜로라도당기관지), 라 리베르따드(자유당계), 라 뜨리부나(중립계), 엘 뿌에블로(2월혁명당기관지).

방송 빠라파이국립방송, 빠라파이텔레비죤방송.

우 루 파 이

(우루파이동방공화국)

남아메리카대륙의 동남부에 위치한다. 전 령토의 3분의 2가 초원이며 늪과 호수가 많다. 기후는 대체로 온화한편인데 가장 더운달인 2월의 기온은 23°C, 가장 추운달인 10월의 기온은 10°C정도이다. 수도 몬떼비데오지방에서 년평균강수량은 1,000mm이다.

【넓이】 18만 6,929km²

【인구】 292만명(1971년)

주민은 구라파인계통의 백인후손들인 크레올이 90%이며 인디안과 구라파인의 혼혈인 메티스가 약 10%이다. 메티스들은 주로 내륙의 벽지에서 살고있다. 인구의 70%가 도시에서 살고있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몬떼비데오(주민 135만명, 1970년)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수는 30명, 하원의원수는 99명이고 임기는 모두 5년이다.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직접 선거에 의해 임기 5년으로 선거된다. 대통령 후안 마리아 보르다베리(콜로라도당출신, 1972년 3월 1일—)

【정부】 1972년 3월 1일 구성, 1973년 2월 13일 개조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9월 20일 창건, 제1비서 로드네이 아리스멘디, **사회당** 1911년에 창건된 진보적인 정당으로서 1967년 이후 비법화되었다가 1971년 1월부터 합법화되였다. 총비서 라몬 마르떼네스, **콜로라도당**(집권당)1835년에 창건된 당으로서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한다. 여러개의 분파로 현재 갈라져있다. **《인민정부를 위한》운동** 1970년 콜로라도당에서 갈라져나온 분자들로써 조직되였다. **블란꼬당**(일명 민족당) 대목장주, 대지주, 대은행가 및 천주교세력의 리익을 대변하며 미제독점체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다. 3개파로 갈라져있다. **블란꼬인민진보운동** 1970년 블란꼬당에서 갈라져나온 그루빠로 조직. **혁명로동당** 1969년이후 비법화되였다가 1971년 1월부터 합법화되였다. **기독교민주당** 1962년에 창건. **좌익해방전선** 1962년에 공산당을 포함한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로 조직. **《광범한 전선》** 1971년 2월 공산당, 사회당, 혁명로동당, 블란꼬인민진보운동, 기독교민주당, 《인민정부를 위한》 운동, 블란꼬당의 일부대표들을 비롯하여 여러 그루빠들이 망라되여 조직, **우루파이근로자중앙**(1964년 창립, 세계직련에 가입) 총비서 엔리께 빠스또리노 (세계직련 위원장이며 우루파이 공산당 비서). **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동맹**, **우루파이조선친선문화협회** 1967년 10월 결성.

정치 1516년에 구라파에 알려진 이후 에스빠냐, 뽀르뚜갈, 영국 등 침략자들의 교체되는 식민지통치를 받아오다가 1800년에 에스빠냐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811년에 우루파이인민들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려 1815년에는 나라의 거의 전지역을 해방하였다. 이 시기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다시 브라질로부터 침입하여 이 나라를 강점한다음 1821년에 제놈들의 식민지인 브라질의 한개주로 만들었다. 1825년 4월 우루파이인민의 무장봉기에 의하여 이 나라는 뽀르뚜갈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1830년 11월 6일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이 나라를 다시 침략하기 위한 식민주의자들의 《우루파이전쟁》(1839—1851년)과 그 후과로 말미암아 인민들은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게다가 독립후 70여년동안 정권쟁탈을 위한 군사독재자들의 개싸움이 계속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우루파이에 대한 미제의 경제적침투가 급속히 강화되였으며 1952년에는 《군사협정》을 강요하여 이 나라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예속시켰다.

1953년 국회선거에서 90여년간 1당독재를 실시하여온 콜로라도당이 참패하고 블란꼬당이 처음으로 승리하였다. 블란꼬당정부는 그의 집권기간에 외국상품에 대한 통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족경제를 더욱 파멸에로 이끌어갔으며 대외적으로는 꾸바에 대한 미제의 《봉쇄》책동에 합류하여 외교, 무역관계를 끊는 등 대미추종정책에 매달렸다. 결과 우루파이는 심각한 경제위기와 더불어 생활상 권리와 민족주의적 자유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투쟁이 앙양되였다. 이로 인하여 국가회의(최고행정기관) 내부에서까지 알륵이 격화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1966년 11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대통령 및 국회 선거가 진행되였으며 이른바 집체적통치체제인 《국가회의책임제》(최고행정기관)를 폐지하였다. 동시에 개

인독재체제인 《대통령책임제》를 15년만에 다시 복귀하였다.

1971년 11월에 진행된 대통령 및 국회(상하원) 선거에서는 이미 반동력량은 심히 고립되였다. 반동적인 꼴로라도당, 블란꼬당을 한편으로 하고 광범한 좌익민주력량을 망라한 《광범한 전선》을 다른편으로 하는 치렬한 선거투쟁이 벌어졌다. 꼴로라도당은 미제의 부추김을 받으면서 기만과 협잡의 방법으로 또다시 정권에 들어앉았다.

꼴로라도당반동정부는 집권한 첫날부터 날로 높아가는 반정부무장투쟁과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막아보려고 항시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폭압통치를 실시하고있다.

우루과이인민은 미제와 친미반동정권의 그 어떤 파쑈적인 전횡과 탄압책동에도 굴함없이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1963년 7월 국내의 한 《사격구락부》를 불의에 습격하여 많은 무기를 획득한 때로부터 과감한 무장투쟁을 벌리고있는 《뚜빠마로스》(일명《민족해방운동》)의 활동은 나라의 도처에서 적들을 전률케 하고있다.

1972년 첫 8개월동안에만도 62차의 습격전을 벌려 독점자본가들에게 1억 8천 600만 페소의 손실을 주었다. 4월 12일에는 감금되였던 민족해방운동성원들이 지하굴을 리용하여 집단탈옥하였다.

경제, 사회 축산물의 생산과 수출에 주로 의거하는 자본주의적농업—공업국가이다. 부침땅으로 리용할수 있는 거의 모든 곳이 방목지 혹은 먹이작물재배지로 되고있기때문에 식량은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 고기와 양털 생산량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 가운데서 두번째자리(아르헨띠나 다음)를 차지한다. 부침땅의 절반이상은 600명의 대농목장주들이 독차지하고 략탈적인 소작제를 실시한다.

목축업에서 기본인 소는 약 840만마리, 양은 2천 170만마리인데 그 총마리수의 80%는 대농장주놈들이 차지하고있다. 년평균고기는 약 24만t, 양털은 7만 5천t 생산되나 그 대부분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농업은 목축업에 비하여 부차적인것으로 되여있다. 부침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이에 밀을 심고 그밖에는 강냉이, 아마, 해바라기를 심으며 남쪽과 서쪽에는 포도원들이 있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 가운데서 비교적 공업이 발전한 나라에 속한다. 공업에서 기본을 이루는 고기가공의 45%를 미제독점회사가, 21%를 영국독점회사가 각각 틀어쥐고있다. 보험부분은 미제독점체의 금융회사가 100% 독점하고있다. 공업부문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로동자들이 고기가공공업, 식료공업, 방직공업과 소젖가공(뻐터, 치즈), 제분, 사탕, 양털가공, 포도주 생산부문에서 일한다. 이밖에 전기, 금속가공, 고무, 종이, 자동차조립, 화학부문 기업소들이 있으나 외래독점체들의 통제하에 있다. 공업배치는 고르롭지 못하며 전체 공업기업소의 절반이상이 수도 몬떼비데오를 중심으로 집중되여있다.

1970년현재 이 나라에 대한 외국자본투자총액은 무려 1억딸라에 달하였으며 그의 60%이상인 6천 500만딸라를 미제가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다른 나라에 진 빚은 5억 3천 100만딸라(8월현재)에 달하였다.

철길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조밀한 나라의 하나이며 그의 총연장길이는 4천km이다. 철길은 국내의 주요농업지역들과 대외무역항인 몬떼비데오와 련결되여있다.

이 나라는 랭동한 고기와 그 가공품, 양털, 천, 가축 그리고 각종 집짐승털, 공업용농산물원료, 광물, 산짐짐승 등을 수출하며 기계, 설비, 운수기재, 화학제품, 의약품, 건재품, 식량, 연료, 생활필수품 등을 수입한다. 특히 양털수출은 세계에서 네번째자리를 차지한다. 미제를 비롯한 영국, 서독, 이딸리아 등 제국주의자들이 이 나라 대외무역을 독점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문화수준이 비교적으로 높다고 하나 중학교는 249개, 사범학교는 43개, 예술학교와 대학은 각각 하나밖에 없다. 주민의 대다수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엔아이(우루과이통신)

신문 엘 뽀뿔라르(공산당기관지), 악씨온(꼴로라도당계), 엘 데바떼(블란꼬당계), 엘 디아(꼴로라도당계), 엘 디아리오(꼴로라도당의 중간파신문), 엘 빠이스(블란꼬당의 중간파신문), 울띠마 오라(《광범한 전선》기관지).

방송 우루과이방송, 우루과이텔레비죤방송, 몬떼 까를로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5월 17일 우리 나라와 우루과이정부간의 무역대표부를 호상 설치할데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7년 10월 우루과이조선친선문화협회가 결성되였다. 이 협회는 1970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와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또한 그이께서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묶은 문헌집 《국제정세와 조선혁명에 관한 네가지 대답》을 출판하였다.

1972년 2월 우루과이사회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0월에는 우루과이 사회당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국회대표단과 세계직련위원장이며 우루과이공산당 비서이며 우루과이 근로자중앙 총비서인 엔리께 빠스또리노가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방문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2월에 진행된 우루과이사회당 제37차대회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특히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에서는 미제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것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이 철거할것을 주장하면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할것을 우루과이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아르헨띠나

(아르헨띠나공화국)

남아메리카의 맨 남쪽에 있다. 서쪽에는 칠레, 동쪽에는 대서양이 있다.

땅생김은 서쪽의 안데스산줄기를 제외하고는 령토의 대부분이 평탄한 고원과 벌판이다. 특히 라 쁠라따강을 중심으로 하는 라 쁠라따평원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기름진 벌이다.

전반적으로 볼때 국토의 40%는 목축지대이고 약 3분의 1은 산림지대이다.

나라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어 기후의 차이가 심하다. 1월 평균기온은 북부에서 28°C, 남부에서 10°C, 7월의 평균기온은 북부에서 20°C, 남부에서 2°C이다. 수도의 1월의 평균기온은 23.1°C, 7월의 평균기온은 9.4°C이고 한해동안의 강수량은

945mm이다.

인구밀도는 평균 1km²당 9명으로서 매우 적다.

【넓이】 277만 6,889km²

【인구】 2,435만명(1970년)

주민구성에서 구라파이주민들의 후손들인 크레올이 97%이다. 그중 약 80%는 이딸리아와 에스빠냐에서, 나머지 20%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구라파나라 이주민들이다. 원주민인 인디안은 36만명(1970년)정도인데 께추아족과 뚜삐—과라니족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주민 350만명), 교외인구를 포함하면 약 800만명, 1970년)

【국회】 상하량원제였는데 1966년 군사정변이후 헌법과 함께 페지되였다가 1973년 3월 11일 새로선거

【정부】 대통령 후안도밍고뻬론(1973년 10월 12일—),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6년이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에 사회당좌파가 조직한 국제사회주의당을 1920년에 공산당으로 고쳤다. 총비서 헤르니모 아르네도 알바레스, **인민급진공민동맹** 1957년에 조직되였고 대부르죠아지, 지주들의 리익을 대변, **정의운동당** 뻬론대통령의 지지자들로 1958년에 조직. **비타협급진공민동맹** 중소부르죠아지와 인테리들의 리익을 대변, **통일발전운동**, **아르헨띠나사회당**, **사회주의아르헨띠나당**, **로동총련맹**(1930년에 창립, 세계직련에 가입), **로조활동통일및조절운동**, **공산주의청년동맹**

정치 아르헨띠나는 1516년 에스빠냐람험대에 의하여 발견된 이래 거의 300년동안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다. 식민지통치기간에 원주민은 전멸되다싶이하였다. 1776년에 강점자들은 아르헨띠나, 우루과이, 빠라과이 및 볼리비아를 포괄하는 라 쁠라따식민지부왕국을 형성하고 가혹한 노예제도를 세워놓았다.

1810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식민지제도를 뒤엎기 위한 투쟁단체가 조직되여 1816년 7월 9일 독립을 선포하고 1826년에는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독립후 아르헨띠나에서는 군사독재자들을 중심으로 한 파벌싸움으로 인하여 정치적불안상태가 오래 계속되였고 이 과정에 수많은 희생자들이 났다.

19세기후반기부터는 군사독재자들대신 《민주주의》가면을 쓴 새로운 독재자들이 출현하였으며 놈들은 제국주의의 새 상전을 끼고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정치정세를 리용하여 영제국주의자들이 이 나라에 침투하였으며 20세기초부터는 미제의 경제적침투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말—20세기초 아르헨띠나에서 자본주의적발전과 함께 로동계급의 진출도 강화되였다. 19세기중엽부터 로조들의 지도밑에 로동계급의 투쟁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1919년 1월(《피의 주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로동자들은 외래제국주의와 반동정부의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여 대중적인 시위를 벌렸다. 이 시위에서 1,500명이 희생되였으나 투쟁을 통하여 로동계급은 자기의 억센 투지를 시위하였다.

제2차세계대전 이전시기 이 나라 반동지배층들은 나라를 파쑈화하고 히틀러, 무쏠리니 도당과 결탁하여 자기 나라를 라틴아메리카를 정복하기 위하여 날뛰고있던 파쑈렬강들의 중요기지로 내맡겼다.

1943년 군사정변후 1955년 9월까지 후안 도밍고 뻬론이 대통령으로 있었다. 뻬론정부는 그의 집권시기에 미제의 우심해지는 내정간섭책동을 반대하고 일련의 《독자적정책》을 실시하였다. 1953년 5월 국회는 미제의 통신사들의 아르헨띠나에서의 활동을 제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고 놈들의 지사활동을 일시 중지시켰다. 같은 해 정부는 반정부음모에 참가한 미제독점회사의 두목놈들을 체포하였다. 또한 1954년 3월에 있은 제10차범미회의에서 미제가 제출한 《반공산주의결의안》에 반대하였다. 전후 뻬론정부의 이러한 립장에 불만을 품어온 미제는 1951년과 1953년, 1955년 6월 친미반동세력들을 규합하여 군사정변을 획책하였으며 1955년 9월에는 친미적륙해군 장교들과 반동적카톨릭교도들을 추동하여 끝내 뻬론정부를 전복하였다. 그후 미제의 조종밑에 수립된 친미독재정권들은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파쑈독재를 실시하였다.

한편 미제의 침략과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1958년이후 민주세력이 광범히 진출하게 되였으며 1960년에 들어서면서 미독점체들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투쟁이 새로운 성격을 띠고 앙양되였다. 1966년 6월 7일에는 통일적인 로조조직의 지도밑에 전국의 로동자 400만명이 일제히 24시간 총파업을 일으켰다.

1966년 6월 온가니아군사독재정권이 수립된 이후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투쟁은 더욱 앙양되였고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까지 활발히 전개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반동지배층내의 정권쟁탈전은 더욱 극심해졌으며 정권은 빈번히 교체되였다.

1971년 3월 23일 륙군사령관이였던 라누쎄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레빙스똔정권을 뒤엎고 군사위원회를 수립하였으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되였다.

라누쎄군사정부는 집권후 정책연설에서 군벌통치대신 《안정된 의회제민주주의》정치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1973년 3월에 《총선거》를 진행하며 5월에 《민정》을 복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0마일령해권을 선포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과 공동보조를 취하였다.

【주요사건】 1972년에 라누쎄정부는 나라의 정치적위기와 불안을 가시고 국내의 안정을 일시나마 유지하려 하였으나 나라에 초래된 위기와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였으며 인플레는 온 나라를 휩쓸고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계속 떨어졌다. 한편 미제의 예속과 략탈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권리와 생활처지의 개선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요구하는 각계층근로자들의 투쟁은 더욱 세차게 일어났다. 날로 심해지는 정치경제적 위기, 인민대중의 강력한 진출앞에서 군사정권은 《약속》대로 선거를 진행하지 않을수 없었다.

1973년 3월 11일 10년만에 처음으로 총선거가 진행되여 대통령, 부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새로 선거되였다. 선거결과 《정의해방전선》의 립후보자 엑또르 깜뽀라가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였으며 5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정의해방전선》은 자기의 선거강령에서 우선 대외적으로 아르헨띠나가 미제의 《경제적영향에서 벗어나며》 모든 나라들과 외교 및 무역 관계를 가지며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할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강령은 우리 나라 및 웰남민주공화국과의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꾸바와는 외교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의 평토완정을 위하여 안데스조약 성원국들과 협력할것을 주장하였으며 미제에 의하여 1972년에 브라질과 맺은 반혁명적인 《뉴욕협정》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대내적으로는 대외무역을 국유화하며 수출을 늘이고 수입을 제한하며 지하자원 특히 원유채취를 국가가 장악하며 교육부문에서 문맹을 퇴치하고 보건후생사업을 개선할것을 주장하였다.

5월 25일 깜뽀라대통령은 정책연설

에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원칙과 민족자결의 원칙을 견결히 지킬것이라고 강조하고 정치범들에 대한 대사의 실시, 이전 정권들이 취한 모든 탄압법을 폐기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5월 26일 이전 친미군사 독재정권들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정치범들이 모두 석방되였으며 5월 27일 국회는 1966년이후 실시해온 이른바 《탄압법》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공산당의 활동도 합법화되였다.

경제, 사회 아르헨띠나는 경제적으로 미제와 기타 제국주의나라들에 예속되여있었다. 이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자본투자총액은 약 25억딸라(1970년 현재)에 달하며 그중 미제독점자본이 50%를 차지한다. 그밖에 영국, 이딸리아 등 제국주의자들의 자본투자몫도 적지 않다. 미제독점자본은 가공공업, 야금공업, 석유화학공업 등 중공업뿐아니라 고기랭동, 방직, 담배, 식료 공업분야와 금융분야에 깊숙이 손을 뻗치고있다. 놈들은 이 나라에서 25개의 큰 기업소들중 15개를 장악하고 한딸라당 평균 12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외래독점체들은 이러한 강도적략탈로써 1966년부터 1971년 사이에 약 8억 3천 500만딸라의 리윤을 짜냈는데 이것은 투자의 12배에 해당한다.

농업은 소, 양, 돼지, 말을 방목하는 축산업과 밀, 강냉이, 보리, 호밀, 귀리, 감자, 아마, 해바라기, 땅콩, 목화, 사탕수수, 담배를 생산하는 농산업으로 나뉘여져있다. 라 쁠라따평원과 빠따고니아평원을 끼고있는 관계로 전령토의 70%가 평원지대이며 부침땅과 방목지가 여기에 집중되여있다. 부침땅의 75%는 대지주들과 외국회사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다.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15%에 불과하지만 축산물과 농산물의 90%이상을 수출한다.

축산업은 소고기와 양털 생산을 기본으로 한다. 양털은 해마다 약 18만t가량 생산되는데 그 수출에서 세계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소는 5천 500만마리(년 소고기 약 235만t 생산), 돼지 350만마리(약 20만t), 말 485만마리정도 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는 세계 최대의 고기랭동공장이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과 강냉이인데 집짐승을 많이 기르는 탓으로 알곡(주로 강냉이)의 적지 않는 몫이 집짐승먹이로 돌려진다. 씨붙임땅에 있어서 밀밭은 약 623만 9천ha, 강냉이밭은 466만ha이다. 밀은 년간 약 700만t, 강냉이는 약 940만t 생산된다. 그러나 알곡의 씨붙임땅과 생산량은 해마다 차이가 심하다.

공예작물중에서 아마씨는 년간 평균 64만t, 해바라기씨는 22만t, 목화는 40만t, 담배는 7만t, 빠라파이차(마떼차)는 10만t 정도 생산된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44%정도 차지하는데 야금, 기계제작, 석유가공, 화학, 세멘트, 자동차조립, 방직, 고기가공 및 랭동, 제분, 식료(뻐터, 치즈, 포도주, 사탕)공업 등이 있다. 공업기업소의 절반이상은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그 주변에, 그밖에 도싸리오, 꼬르도바, 라 쁠라따 등 큰 도시들에 집중되여있다. 한해동안에 전력은 약 152억kwh, 석탄은 50만t, 강철은 170만t, 세멘트는 430만t, 종이 및 판지는 58만t, 솜실은 9만t, 인조섬유는 3만 5천t, 해바라기기름은 28만t, 사탕 90여만t정도 생산한다. 탄닌산(가죽이김약제 및 물감)은 세계 생산량의 10분의 9(년산 약 12만t)를 차지한다. 1965년부터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으나 경제형편의 악화로 사실상 이 계획은 중단되였었다.

1972년 현재 외국에 진 빚은 62억 2천만딸라인데 외화예비는 겨우 2억 9천만딸라(1970년 7월 현재)였다. 외래독점체들의 침투와 독점으로 인하여 1972년 상반년기간에만도 250개이상의 중소규모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교통운수에서 기본은 철길이다. 철길은 빠라과이, 볼리비아, 칠레 등 나라들과 공동으로 리용하며 그 총연장길이는 4만 6천km이다. 부에노스 아이레스항을 통하여 이 나라의 주요농축산물(고기, 밀, 양털, 가죽 등)이 수출된다.

주요수출품에서 농산물(밀과 밀가루 기타)과 축산물(고기, 양털, 가죽 기타)이 90%를 차지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이딸리아, 서독, 영국 등과 주변나라들이다.

【출판보도】 **통신** 《로스 디아리오스》 통신, 멜랍통신, 중앙통신

신문 에스뜨라 빨라브라(공산당기관지), 라 쁘레싸, 라 나씨온, 부에노스 아이레스 헤랄드, 노띠시아스 그라삐까스, 클라린, 엘 문도.

방송 아르헨띠나국립방송, 아르헨띠나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5월 28일 우리 나라와 아르헨띠나 정부간에 대사급 외교관계가 맺어졌다. 1967년 6월에는 아르헨띠나 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2년 10월 14~24일까지 아르헨띠나 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칠 레

(칠레공화국)

남아메리카대륙의 서남부에 있는 나라로서 태평양기슭을 따라 길게 놓여있다. 남북의 길이는 약 4천300km, 동서너비는 70~350km이다.

칠레의 기후는 남북간의 차이가 심하다. 북부지방은 사막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이 19°C이며 중부지방은 여름에 메마르다가 겨울에 비가 내리며(년평균기온이 15°C) 남부지방은 온대해양성기후로서 6°C이며 년강수량은 2천~3천, 최고 6천mm이다.

【넓이】 75만 6,945km²

【인구】 926만 8,584명(1970년 9월)

주민은 혼혈인(65~75%)과 에스빠냐, 이딸리아 이주민의 후손인 백인, 인디안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은 중부지방에서 살고있다. 주민의 85%가 도시인구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싼띠아고(주민 188만명)

【국회】 상하량원제

【정부】 1970년 11월 공산당, 사회당, 급진당, 사회민주당, 인민통일행동운동, 독립인민행동 등 6개 정당을 망라한 인민통일련합정부를 구성하였는데 1972년 1월에는 좌익기독교당, 1972년 11월에는 근로자통일로조중앙, 군대의 대표들로 보강되였다.

대통령 살바도르 알옌데 고쌍스(사회당출신, 임기 6년), 외무부장 끌로도미로 알메이다. 국방부장 호쎄 또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1월 22일 창건. 총비서 루이스 꼬르발란, **사회당, 급진당, 사회민주당, 좌익급진당, 좌익기독교당, 기독교민주당, 인민사회당, 민족당, 인민통일행동운동, 독립인민운동, 근로자통일로조중앙, 공산주의청년, 사회주의청년련맹, 녀성동맹,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1962년 8월 13일 결성.

정치 1541년부터 에스빠냐식민지로 있었다. 칠레는 에스빠냐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1810년 9월 18일에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818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30년대에 이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친 미제는 칠레의 광업과 중요공업, 농업과 대외무역, 재정금융과 봉사부문 등 중요경제명맥을 틀어쥐고 막대한 리윤을 짜냈다.

미제의 침략과 략탈정책은 칠레의 사회발전을 저애하는 기본질곡으로, 이 나라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되였다.

1936년부터 민주세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1938년에는 공산당, 사회당, 급진당을 망라한 인민전선을 형성한데 기초하여 인민전선정부를 세우고 일련의 사회경제적개혁들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46년에 대통령으로 된 급진당출신 비델라는 미제와 결탁하여 1948년 5월에 소위 《민주주의보호법》을 채택하고 공산당을 비법화하였으며 칠레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미제에 더욱더 예속시켰다.

이에 격노한 칠레인민들은 파업, 시위, 토지점거투쟁에 그치지 않고 미제의 략탈정책과 국내독점자본의 반동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에 더 광범하게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반미반독재투쟁의 불길이 온 나라를 휩쓴 1970년 11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칠레인민들은 6개의 정당을 망라한 인민통일련합의 진보적인 정부를 수립하였다.

인민통일정부는 1970년 11월에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였으며 1971년 7월에 미제의 동광과 제국주의자들의 독점회사들을 국유화하고 그를 법적으로 공고화하였다.

인민통일정부는 1971년말까지 150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으며 1천 400여개농장의 대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많은 땅을 농민들에게 분배하였다.

【주요사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까를로스 알따미라노 오레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칠레사회당대표단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칠레의 자주권과 민족적독립을 짓밟고 옛지위를 되찾으려고 발악하고있지만 그들은 그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고있는 칠레인민의 힘찬 전진운동을 가로 막을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칠레인민들의 진보적인 사회경제적변혁에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익반동정당들을 사촉하여 제놈들의 경제적지반을 되찾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칠레반동들과 우익정당들은 1972년 2월 19일에 인민통일정부의 진보적인 사회경제적개혁의 실시를 정지시키며 이미 국유화된 공장, 기업소들을 이전 소유자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인민통일정부를 정치적으로 변질시킬 목적밑에 기만적인 《헌법개정안》을 들고나왔다.

미제는 국유화된 기업소들에 대한 보상금지불을 요구하는 칠레독점재벌놈들의 반정부소동에 발맞추어 칠레를 경제적으로 교살하려고 미국은행들에 있는 칠레동광회사의 구좌들을 동결시켰다.

특히 미제의 사촉을 받은 우익반동단체 《빠뜨리아 이 리베르따드》는 반정부음모를 꾸미기 위하여 수도에 무기와 탄약, 화염병들을 끌어들였으며 폭력적인 반정부시위를 준비하였다.

조성된 정치, 경제, 군사적정세에 대처하여 1972년 3월 칠레공산당과 칠레사회당의 전원회의들, 그리고 인민통일련합에 망라된 정당지도자들의 회의가 각각 소집되였는데 여기에서는 미제와 우익정당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통일정부의 강령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과업들이 토의되였다.

1971년의 이른바 《헌법개정안》, 구좌동결비행을 통하여 미제와 우익반동정당들의 본색을 잘 알게된 칠레근로자들은 놈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시위와 집회들을 련이어 벌리였으며 인민통일정부에 대한 지지를 선거에서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1972년 3월에 진행된 국회선거에서 인민통일련합은 1970년 대통령선거 때보다 8%의 지지표를 더 얻음으로써 국회에서 우익반동정당들이 알옌데정책을 반대하던 3분의 2의 거부권행사능력을 무질러 버렸다. 이것은 칠레선거력사에서 집권기간에 실시하는 국회선거의 지지률이 언제나 대통령선거때보다 낮아지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인민통일정부에 대한 칠레인민들의 지지가 확고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정치적지반을 튼튼히 다진 칠레인민통일정부는 1월에 경제강령을 실현할데 대한 1972년도 계획초안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년내에 모든 외국독점체들과 은행들을 국유화하며 토지개혁을 적극 추진시키는것이였다.

칠레토지개혁전국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도합 900만ha에 달하는 3천 500여개의 대지주소유농장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많은 땅을 농민들에게 주었다.

1월에 미제독점재벌이 경영하던 은행 《퍼스트 내슈널스트 뱅크 오브 뉴욕》을 국유화함으로써 칠레에 둥지를 틀고있던 제국주의자들의 은행 26개를 모두 국가통제하에 두었다.

5월에는 칠레의 전신전화회사주권의 70%를 틀어쥐고 40여년간 투자한 1딸라당 3딸라의 리윤을 짜내고도 부족하여 인민통일정부를 반대하는 악랄한 음모를 꾸몄던 미제의 국제전신전화회사를 비롯하여 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다.

특히 알옌데대통령은 5월에 로동자들을 생산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며 기업소내에서 로동자들의 활동을 잘 보장할데 대한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하원은 8월에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미제와 우익반동세력들은 칠레에서의 이 거세찬 혁명적변혁과정을 막아보려고 수도 싼띠아고에서 8월에 이른바 《야당지도자들의 회의》를 벌려놓고 9월 18일 독립절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와 파업을 벌리며 그것을 내란으로 끌고갈 범죄적인 《9월계획》을 조작하였다. 이것이 파산되자 또다시 반동적인 자동차운수업자련맹 두목들을 사촉하여 전국적인 파업을 단행케 하였다. 미제와 우익반동세력들은 이러한 책동을 통하여 나라의 사회경제생활을 마비시키고 중요공업중심지들과 도시들에서 식료품과 공업품의 부족이 일어나게 하고 그 책임을 인민통일정부에 전가시킴으로써 인민들속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과 이에 따르는 내란을 도발하려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알옌데정부는 단호하게 25개주중 21개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출동시켰으며 공산당을 비롯한 19개 정당,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립장과 조치를 지지하여 파업을 규탄하는 성명을 련이어 발표하였으며 4천여명의 자동차운전수들은 자원로동에 떨쳐나섰다. 칠레정부는 우선 10월 28일에 화물자동차소유주들의 《파업》을 조작한 전국중화물자동차업자련맹을 포고령으로 해체해버렸다.

또한 경제적파괴와 투기행위를 감행한 자들을 재판에 넘길데 대한 법안을 채택하고 전국적으로 2천여대의 자동차들을 차압하고 600여명의 반동들에게 징벌을 가하였다.

그리고 농업생산 및 식료품수송보장전국농민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태업에 참가한 상점들과 제조소들을 국유화하거나 벌금형에 처하였다.

1972년에 칠레공산당과 정부 대표단들은 중국, 월남, 쏘련, 웽그리아, 꾸바, 뻬루, 메히꼬를 방문하였으며 이 나라들로부터 형제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칠레인민들은 세계진보적

인민들의 지지성원속에서 나라를 사회경제적혼란에 몰아넣고 인민통일정부를 전복하려던 미제와 반동들의 도발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쳤다.

경제, 사회 경제는 지리적특성에 따라 북부의 광산지대, 중부의 농업지대, 남부의 산림지대로 구분된다.

주요 지하자원으로는 동, 초석, 쇠돌, 석탄, 원유, 천연가스 등이다. 동광, 초석, 탄광과 야금공업, 세멘트공업, 주요 방직공업, 은행들은 국유화되였다.

동광업은 외화소득의 83%, 정부수입의 20%를 차지하는 칠레의 경제명맥인데 동생산량은 세계 제3위이다.

1972년 첫 9개월동안에 그전 같은 시기에 비하여 공업제품생산량이 6.9% 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 금속가공제품생산이 21%, 공업설비의 생산이 22%, 가구생산이 39% 각각 장성하였다.

특히 1972년에 59만 4천여t의 동을 생산함으로써 동생산이 1971년에 비하여 4% 늘어났다. 그중에서 칠레 5대 동광의 하나인 《엘 떼니엔떼》에서는 19만 600t의 동을 생산하였다.

1972년에 직물생산이 인민통일정부가 세워진 2년전에 비하여 37% 장성하였다. 방직공업의 첫 생산물인 합성섬유와 인조섬유 생산이 21% 높아졌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페루 다음가는 수산업에서도 성과가 컸다. 1972년 물고기생산이 2년전에 비하여 22% 늘어났다. 이 해에 아라우꼬주에 큰 어항이 건설되였다.

칠레의 부침땅은 전국면적의 8%이며 로동인구의 25%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강냉이, 벼, 해바라기, 사탕무우, 포도 등이다.

포도와 포도주 생산이 농업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촌에는 국영농장, 농업협동조합, 개인농들이 있다. 정부가 이해에도 종자와 비료, 농기구를 장만할 대부금을 융자해줌으로써 알곡과 축산물 생산이 늘어났다.

인민통일정부는 40억딸라의 해외부채외에도 60여만세대의 부족한 살림집과 60여만명의 기아소년들, 수많은 실업자들을 넘겨받았다.

우선 20만명의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여러가지 형태로 인민통일정부시책기간에 실질소득을 13% 높이였다.

특히 주택건설을 강화하여 같은 기간에 7만세대의 살림집을 지었다. 농촌에도 1만 7천세대의 새집을 건설하였다.

또한 학교와 교원수도 각각 2배로 늘었다. 1972년초에 중등학교와 기술전문학교 학생수는 새 시책기간에 38%, 대학생수는 26%, 인민학교수는 2배로 급격히 불어났다. 학생수는 거의 100만명에 이른다.

【출판보도】 통신 칠레통신

신문 엘 씨글로(공산당기관지), 울띠마 오라(사회당기관지), 라 나씨온(정부기관지), 끌라린, 뿐또 피날(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8월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가 창설되였으며 1970년 11월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싼띠아고에 설치되였다.

1971년 7월 21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칠레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2년 6월 1일 우리 나라와 칠레간에 대사급 외교관계가 맺어졌다.

1971년에 신문 《울띠마 오라》(2월 2일호)와 잡지 《뿐또 피날》(3월호)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의 전문을 각각 실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칠레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로부터 그이께 공동축하편지를 보내왔으며 신문 《라 나씨온》, 《엘 씨글로》, 《엘 끌라린》은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실었다. 4월 16일에는 우리 나라 도서, 사진, 공예품의 전람회가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와 교육 및 출판국, 민족도서관의 주최로 싼띠아고에서 열리였다.

1969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상원의장이였던 쌀바도르 알옌데 고싼스(대통령)가, 1970년 5월에는 칠레공산당대표단, 1971년 6월에는 칠레사회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2년 2월에 칠레인민통일행동운동대표단이, 4월에 칠레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이며 칠레사회당 중앙위원회 재정부장 마르따 멜로가, 6월에 칠레공화국정부경제대표단과 정부기관지 《라 나씨온》 신문주필 오스까르 와이스, 그리고 칠레근로자통일로조중앙대표단이 우리 나라에 왔다.

1972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1월 칠레공산당창건 쉰돐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대표단이, 3월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단이, 8월에 칠레공청 제7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사로청대표단이, 10월에 칠레농민 및 원주민련맹 《란낄》 제4차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농근맹대표단이, 11월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칠레에 갔다왔다.

바베이도즈

까리브해의 소안틸제도 동쪽끝에 있는 섬나라이다. 섬의 한복판으로 낮은 산줄기가 지나가면서 섬을 두 지대로 갈라놓고있다.

열대기후이나 년중 서늘한 무역풍이 불어와 몹시 더운 편은 아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장마철이다. 년평균강수량은 1천 500mm이다.

【넓이】 423km²

【인구】 25만 4,000명(1970년)

주민은 흑인이 77%, 혼혈인이 18%, 백인이 5%이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브리지타운(주민 10만 5,000명)

【국회】 총독이 임명하는 립법(상원)의원 21명과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하원의원 24명으로 구성되여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하원에서 민주로동당이 15석, 국민당이 1석, 레이버당이 8석을 각각 차지하고있다.

【총독】 위스톤 스코트(1967년 5월—)

【정부】 총리 에롤 바로우, 각료들은 총독이 임명한다.

【정당, 사회단체】 **민주로동당**(집권당) 1955년에 창건, **레이버당** 1938년에 창건, **국민당**, **로동자동맹**, **공무원동맹**.

정치 1627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제2차대전후 까리브해지역 인민들의 반영투쟁이 앙양되자 1958년 바베이도즈를 비롯한 여러 섬들로 《서인도련방》을 꾸며냈다.

1961년 10월 제한된 《내부자치권》을 얻었다.

1966년 11월 3일 영제국주의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총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같은해 11월 28일 339년간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1966년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사탕수수재배이다. 이외에 파수업과 물고기잡이도 약간 한다. 경제는 영국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다. 부침땅은 2만 1천ha이다. 1년에 120만t의 사탕수수를 거두어들

이고 있으며 14만t정도의 사탕을 생산하고있다. 사탕, 당밀, 람술 등은 이 나라 외화수입의 90%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돼지(2만마리), 양(2만 3천마리), 소(10만마리), 염소(7천마리) 등이다.

물고기는 해마다 180만폰드가량 잡는다.

관광업에서도 많은 수입을 얻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사탕, 당밀, 람술이며 수입품은 식량, 기계류, 화학제품 등이다.

소학교이외에 중학교,기술학교가 몇개 있다. 대학은 1개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백인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보건시설이 모자라 원주민들은 변변히 치료도 못받고있다.

천주교가 침투하고있으나 영국교회파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출판보도】 신문 비컨(레이버당 및 로조기관지), 바베이도즈 뉴스,바베이도즈 옵써버, 트루즈.

방송 바베이도즈방송, 까리브해안텔레비죤방송.

앙 길 라

뿌에르또 리꼬에서 동쪽으로 240km 떨어진 바다가운데 있는 작은 섬나라이다.

【넓이】 90km²

【인구】 6,000명 (1969년)

주민의 대부분이 흑인이다.

언어는 영어

정치 1493년 콜롬부스에 의해발견된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다.

18세기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2차대전후 까리브해지역에서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높아지자 영제국주의자들은 1958년에 앙길라를 비롯한 이 지역의 여러섬들로 이른바 《서인도련방》이라는것을 조작하였다. 1962년 저매이커의 독립으로 이 련방은 해체되였다.

1967년 2월 영제국주의자들은 앙길라와 이웃의 두개섬(쎈트키츠와 네비스)을 합쳐 이른바 《련방》을 다시 조작하였다.

1967년 2월 앙길라인민들은 영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영국고등판무관놈을 비롯한 악질적인 영국놈들을 몰아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앙길라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1967년 3월 침략군을 파견하였으며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고있다.

경제, 사회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와 략탈로 경제는 한심한 형편에 있다. 식민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사탕수수와 약간의 열대작물을 재배하고있다. 일부 사람들은 물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아가고있다.

사탕과 과즙, 소금을 수출하고 공업제품들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전기도, 전화도, 수도시설도 없으며 의사도 없다.

그린랜드

(단마르크식민지)

북빙양과 대서양상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북극권내에 있고 80%(180km²이상)는 항상 얼음으로 덮여있다. 얼음층의 두께는 평균 2천 300m나 되는데 북쪽과 한 가운데는 그 두께가 3천m에 달하는 곳도 있다. 다만 섬둘레의 바다가를 따라 200~250m의 좁은 너비로 얼음이 덮이지 않은 땅이 있을 뿐이다. 바다기슭은 400~600m 높이의 고원과 2천m높이의 산지대로 되여있다.

기후는 대부분이 몹시 찬 북극지방의 기후이다. 바다가와 내륙지대사이의 기온의 차이는 아주 심하다. 1월평균기온은 바다가에서 령하 7~36°C, 내륙지대에서 령하 47°C이다. 7월평균기온은 바다가에서 1~3°C, 내륙지대에서 령하 11°C이다.

북부그린랜드에서는 겨울에 4개월동안이나 밤이 계속되며 여름에는 4개월동안 백야가 계속된다.

【넓이】 217만 5,600km²

【인구】 5만명(1971년)

주민의 대부분은 원주민인 에스키모인이다.

【행정중심지】 고트하브(주민 7,000명)

정치 1841년에 단마르크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1년 4월 미제는 단마르크와 《공동방위조약》을 맺고 침략적군사기지를 설치하였다.

1953년 헌법개정에 따라 단마르크의 한개 주로 되였다.

미제는 이 섬의 서북쪽에 있는 뚜레에 요격전투기기지와 전파탐지기지,탄도탄조기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였으며 노르드와 다른곳에는 전략폭격기기지를, 서남쪽바다가의 피요르드에는 원자력잠수함기지를 설치하였다. 뚜레에만도 1만여명의 미제침략군이 상시적으로 주둔하고있다.

단마르크의 그린랜드부장이 통치하고있다.

경제 1920년대이전까지 경제에서 기본은 사냥업이였으나 1930년대 이후부터는 어업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혹심한 추위가 차츰 덜해지면서부터 녕에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에 하는수 없이 물고기잡이를 기본으로 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1950년 이후부터 물고기잡이는 급속히 발전하여 수공업적인 가까운 바다물고기잡이로부터 최근에는 먼바다물고기잡이에로 넘어가고있다. 잡은 물고기는 가공하여 수출까지 한다.

금, 동, 연, 쇠돌, 석탄 등 지하자원이 많이 묻혀 있을것으로 예견되나 현재 발견되여 채굴되고있는것은 알루미니움을 만드는데 쓰는 빙정석뿐이다. 이외 석탄, 연, 아연 등도 조금씩 채굴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인 빙정석은 이 나라의 무역적자를 메우는 주요원천이다.

1960년대초부터 그린랜드어와 단마르크어로 된 반월간신문이 발간되고 있다.

쌩삐에르 미겔롱

(프랑스식민지)

카나다령 뉴 파운드랜드의 남쪽에 있다.

【넓이】 쌩삐에르군도 26km², 미겔롱군도 216km²

【인구】 5,025명

【행정중심지】 쌩 삐에르

1960년이래 프랑스식민지이다.

경제의 기본은 어업이다.

버 진

(미국식민지)

뿌에르또 리꼬와 소안렬제도사이에 있는 46개의 섬으로 되여있다. 그중 큰 섬들은 센트로마스, 센트죤, 센트크로스섬이다. 이 섬들은 기복이 심하며 열대림이 무성한 산지가 많다.

기후는 열대해양성기후로서 비가 많이 내린다.

【넓이】 344km²

【인구】 6만 2,000명 (1970년)

주민은 흑인이 69%, 혼혈인이 22%, 백인이 9%이다.

【행정중심지】 샬로트 아말리(주민 1만 5,000명)

1493년 콜롬부스에 의해 발견된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후에 단마르크의 속령으로 되였다. 1917년 3월 미제는 2천 500만딸라로 매수하여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경제의 기본은 사탕수수 및 남새 재배와 목축업이며 물고기도 잡는다. 식량과 기계, 일용필수품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있다.

신교, 천주교, 유태교를 믿는다.

버 진

(영국식민지)

미령버진군도의 동북쪽에 있는 36개의 섬으로 되여있는데 그중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12개뿐이다.

【넓이】 152km²

【인구】 9,000명

【행정중심지】 로드타운(주민 2,000명)

영국의 식민지로서 《서인도련방》에도 가입하지 않고 계속 영국의 총독통치하에 있다.

주민들은 주로 집짐승기르기(소와 양)와 물고기잡이, 과수 및 남새 재배 그리고 숯구이를 하고 있다. 식량, 피복류, 일용필수품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축산물, 물고기, 과실 등이다.

로드타운이 유일한 항구이다.

버 무 다

(영국식민지)

미국의 뉴욕동남쪽 1천 80km의 대서양상에 있는 360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이고 사람이 살수 있는 섬은 20여개이다.

기후는 습한 열대기후권에 속하여 온화하며 년평균강수량은 1,350mm이다.

【넓이】 53km²

【인구】 5만 365명(1971년)

주민의 대부분이 구라파인이며 미국인도 산다.

공영어는 영어이다.

【행정중심지】 하밀톤(주민 3,000명)

【식민지통치기구】 영국총독이 형식상의 행정평의회와 상원(11명) 및 하원(40명)을 통하여 통치하고있다.

【정당, 사회단체】 **통일당** 1964년에 조직된 당으로서 자유기업체계를 지지하고 있다. **진보레이버당** 나라의 독립을 주장하고있다. **민주당** 중간로선을 취하고있다. **산업동맹, 공무원로조.**

정치

1609년부터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이 섬에 기여들어 많은 자원을 략탈하기 시작하였으며 1684년에 이르러 놈들은 버무다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1809년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수많은 노예를 끌어다가 이 군도의 아일랜드섬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였다. 1940년에 미제는 이 군도의 3개섬을 99년간의 기한으로 빌려쓰기로 하고는 여기에 침략적인 해군 및 공군기지를 건설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산물은 감자, 바나나, 귤류, 남새 등이다. 매해 평균 감자는 227만 4천폰드, 바나나는 120만폰드, 남새는 96만 3천폰드 정도 생산한다.

이밖에 소, 돼지, 염소, 말 등도 약간 기르며 물고기잡이(주로 왕새우)도 한다.

재정수입의 원천은 주로 관세, 우편세, 교통세 등이다.

주민의 50%이상이 문맹자이며 학교는 소학교가 40여개 있을뿐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신교와 천주교를 믿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미드 오우선뉴스

바 하 마

(영국식민지)

미국 플로리다반도의 동남쪽과 꾸바와 아이띠섬 북쪽의 대서양상에 있는 700개(그중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30여개)의 섬들과 2천 400여개의 암초들로 이루어졌다.

아열대성기후에 속하여있으나 무역풍이 불어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비교적 서늘하다. 1월 평균기온은 20~22°C, 7월평균기온은 28°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섬에 따라 다르나 보통 1천 100~1천 600mm이다.

【넓이】 1만 1,405km²

【인구】 19만 5,000명(1971년)

주민의 86%가 흑인들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행정중심지】 나쏘(주민 10만명)

【식민지통치기구】 영국총독이 실권을 쥐고 이 군도를 통치하고있다. 권한이 거의 없는 의회는 상원(16명)과 하원(38명)으로 되여있다.

【정당, 사회단체】 **진보자유당** 1972년 총선거에서 승리하여 현재 자치정부의 집권당이다. 주로 흑인들의 리익을 대표하며 나라의 독립을 요구하고있다. 지도자 핀들링, **통일당, 민족민주당, 레이버당, 로조련맹.**

정치

1492년 10월에 바하마군도가 발견된후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구라파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이 시작되였다.

구라파식민주의자들이 당시 바하마군도에 살고있던 원주민들을 아이띠의 광산개발에 모두 끌어갔기때문에 약 1세기반동안 이 군도에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았다.

1647년부터 1660년사이에 버무다로부터 많은 흑인노예들을 끌고 바하마군도에 기여들기 시작한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783년에 이 군도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여러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였다.

1940년 9월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이 군도의 마야과나섬을 미제침략자들의 군사기지로 내맡기였다.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이 섬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자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1964년 1월 7일 형식상 《내부자치》를 실시하게 하였으나 실권은 의연히 놈들이 틀어쥐고있다.

1968년 4월과 1972년 9월에 진행된

의회선거에서 주로 흑인들이 리익을 대변하며 식민지제도의 철폐를 선거강령으로 내세운 진보자유당이 승리하였다.

1972년말 진보자유당의 자치정부는 바하마군도의 장래문제를 가지고 영제국주의당국자들과 담판을 진행하였다. 교활한 영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안전보장》이라는 구실밑에 바하마군도를 저들의 식민지로 계속 얽매두려고 책동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에서 관광업과 남방과실을 재배하는 농업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농업은 도마도와 바나나, 파인애플, 귤 등 수출을 목적으로 하여 생산하는 과실재배에만 치우치고있다. 알곡작물은 심지않고있기때문에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수산업도 약간 있으며 목재와 소금도 수출을 목적으로 하여 생산한다.

흑인원주민들의 생활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따로 떨어진 작은 섬들에서 아직도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오피셜 가제트(정부계), 바하미언 타임스.

파들루쁘

(프랑스식민지)

까리브해의 소안띨제도에 있다. 파들루쁘본토와 그란드떼르섬을 포함한 그 주변의 5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파들루쁘섬(일명 바스떼르섬)의대부분은 화산이 폭발하여 생긴 산지대이고 그란드떼르섬은 벌판이나 파들루쁘에서 제일 높은 산은 수프리에르화산(1,467m)이다.

기후는 열대성기후이고 강수량은 2천~3천mm이다.

【넓이】 1,779km²

【인구】 약 33만명(1969년)

주민은 흑인과 물라트가 98%, 프랑스인계통의 백인이 2%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행정중심지】 바스떼르(1만 4,000명)

【지사】 프랑스정부가 임명하는 지사가 이 식민지 나라의 통치자이다.

【국회】 지사의 통제하에 있는 해외령 의회이다.

36명의 성원들로 구성되여있으나 그 권한은 매우 제한되여있다. 파들루쁘는 형식상 프랑스국민의회에서 3석, 참의원에서 2석을 배정받고있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58년에 독자적인 정당으로 창건되였다. 1972년 11월에 제5차당대회진행. 1970년 3월 현재 의회에서 9석을 차지하고있었다. **사회당, 자치를 위한 투쟁전선** 공산당과 기타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로 구성되였다. **로동총련맹.**

정치 파들루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계속 받아오다가 1816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46년에 형식상 프랑스의 한개 《해외현》으로 되였다. 1960년부터 식민주의자들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민족해방투쟁을 벌리고있으며 최근년간 투쟁은 조직적인 성격을 띠고 점차 적극화되고있다. 1972년 11월 23—25일까지 진행된 공산당 제5차대회에서는 대중조직들인 로조, 청년 및 녀성단체들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해서와 근로자들속에서 당기관지의 보급사업을 강화할것을 제시하였다.

1971년 행정중심지 바스떼르시장선거에서 공산당 립후보자가 당선되였다.

경제 경제에서 프랑스에 예속된 사탕수수재배업이 기본을 이룬다. 놈들은 사탕수수농장의 약 70%를 장악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바나나, 커피, 와니르(향료의 일종) 등이다. 그의 대부분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헐값으로 빼앗아간다. 주요수입품은 식량과 생활필수품이며 수입의 80%를 프랑스에 의거한다.

사탕수수농장에 고용된 계절로동자들은 거의 전부가 1년에 7~8개월씩 일자리를 잃고있다. 일반근로자들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있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에뗀쎌(공산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7월 파들루쁘로동총련맹 서기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도미니카섬

(영국식민지)

까리브해의 동쪽 소안띨제도에 있다. 길이 47km, 너비 26km밖에 안되는 이 섬은 화산이 폭발하여 이루어진 산지대로서 기복이 심하다. 곳곳에 화산폭발로 생겨난 호수들과 광천들이 있다.

기후는 비교적 온화하다. 바다가는 비가 적게 오나 내륙지방은 년평균 8,380mm에 달하는 비가 온다.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많다.

【넓이】 789km²

【인구】 약 8만명

주민의 대부분은 흑인이며 순수 원주민인디안은 현재 100명정도 남아있다. 전체 주민의 5%는 백인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나 프랑스어도 쓰인다.

【행정중심지】 로조(주민 1만 5,000명)

【총독】 영국녀왕이 임명한다. 총독 루이스쿨스 라티크.

【국회】 선거되는 11명의 의원과 임명되는 4명의 의원들로 구성. 1966년 선거에서 레이버당이 10석, 통일인민당이 1석을 차지.

【정부】 총리 레블란스(1966년—)

【정당, 사회단체】 레이버당(집권당), **통일인민당, 자유당.**

정치 원래 섬에는 원주민들이 살고있었으나 1493년 콜롬부스가 발견한 후 외부세계에 알려졌다. 이 섬을 발견한 이후 콜롬부스가 아이띠섬의 도미니카와 자주 혼돈하였다하여 이 섬도 도미니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 섬이 구라파식민주의자들에게 알려진후 에스빠냐,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 식민주의자들이 달려들었으나 원주민(인디안)들의 강력한 반항에 의하여 놈들은 200년동안이나 여기에 기여들지 못하였다. 일찌부터 영국과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까리브해상의 섬들을 둘러싸고 충돌을 벌리다가 1763년의 《빠리조약》에 의하여 도미니카섬은 영국식민주의자들의 관할하에 들어갔다. 그후 1783년에 놈들은 이 섬을 제놈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1958년 영제국주의자들은 《서인도련방》을 꾸며내고 이 섬나라를 여기에 밀어넣었다. 이 섬 주민들의 반영투쟁기세가 높아가자 1967년 3월 1일 이른바 《련합국》의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놈들은 아직 대외관계와 방위문제 등을 제놈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있다.

경제 영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된 락후한 농업국가이다. 경제에서 기본은 수출용작물재배이다. 씨뿌릴수 있는 땅은 약 3만 2천ha인데 실제 리용되는 땅은 1만 3천 350ha에 불과하다. 농업은 주로 소농경리에 의거하고 있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오렌지, 코코아, 포도, 감귤류, 야자이다. 로동인구의 절반이상이

주산물인 바나나를 재배하고있다. 년간 약 6만t생산되는 바나나는 거의 전부 영제국주의자들이 헐값으로 빼앗아가는데 그나마 영국이 《공동시장》에 가입함으로써 바나나수출은 난관에 부딪치고있다.

그밖에 사탕, 과즙, 람술이 생산된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철길은 없고 바다가의 일부지역에 자동차길이 있다. 짐운반은 작은 배들을 많이 리용한다.

주민들은 주로 천주교를 믿는다. 영제국주의자들의 심한 착취로 하여 생활과 문화 수준은 매우 낮다.

【출판보도】 **신문** 도미니카 크로니클(천주교계의 반동신문), 도미니카 헤랄드(주간지), 스타(주간지).

마르띠니끄

(프랑스식민지)

까리브해의 소안띨제도의 가운데 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화산이 폭발하여 이루어진 산지대로 되여있다.

열대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4~27°C이나 무역풍이 불어와 선선하다. 년평균 강수량은 1천 500~2천mm이다.

【넓이】 1,102km²

【인구】 34만명(1971년)

주민은 흑인과 물라트(흑인과 백인의 혼혈인)인이 98%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행정중심지】 포르 드 프랑스(주민 약 10만명)

【식민지통치기구】 프랑스정부가 임명하는 지사가 통치하고 그 밑에 36명의 성원으로 되는 해외령의회가 있다. 그러나 그 권한은 극히 제한되여있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57년에 창건되였다. 총비서 니콜라. **《공화국을 위한 민주주의자동맹》** 집권당으로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게 복무한다. **진보당, 통일사회당, 자치를 위한 투쟁전선** 이 전선에는 공산당, 통일사회당, 진보당과 일련의 진보적단체들이 망라되여있다. **공산청년동맹, 녀성동맹.**

정치 1502년에 이 섬나라가 발견되였을때 원주민인 인디안들은 이 섬을 《마티이아》(꽃섬이라는 뜻)라고 불렀다.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계속 받아온 이 섬나라는 1635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02년 몽뻴레 화산의 폭발로 3만명의 주민들이 무참하게 희생되였다.

1946년 3월에 이 섬은 형식상 프랑스의 《해외령》으로 되였다.

1960년이후부터 이 섬나라인민들은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을 벌리고있다.

경제, 사회 경제는 대토지소유제에 기초한 단작경리가 기본으로 되고있는 락후한 식민지적농업국가이다.

주요농산물은 식민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사탕수수, 바나나재배에만 치우치고있다.

《베께》라고 불리우는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후손인 열세대의 가족들이 이 나라 부침땅의 80%, 은행의 50%, 10여개의 사탕공장을 틀어쥐고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해마다 사탕수수 가을철 3~4개월동안에만 품팔이를 하고 그 나머지기간에는 일자리를 잃고 헤매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물로서 르 꼼바, 르 꾸리에가 있다.

서인도제도

(화란식민지)

베네수엘라의 북부 까리브해상에 있는 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넓이】 961km²

【인구】 21만 3,000명

주민은 화란인, 영국인, 미국인, 프랑스인, 인도인, 중국인 등으로 구성되여있다.

공용어는 화란어.

【행정중심지】 윌렘스타드(주민 4만명)

17세기에 화란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서인도제도에 실어다 팔고 그 대신 람술과 담배를 사가지고 돌아가는 노예매매행위를 진행하였다.

1634년에 화란식민주의자들은 이 제도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1954년에 형식상 《내부자치권》을 부여하였다.

1965년 5월 석유정유소 로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폭동을 일으켜 식민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주요산업은 석유정유업이다.

미제의 《스텐다드 오일》회사는 쿠라사오의 섬에, 영국의 《로이얼 쉘》회사는 아루바섬에 각각 큰 정유공장을 두고 베네수엘라로부터 보내오는 원유를 정제하여 다시 수출한다.

이 섬은 비가 적게 내리기때문에 농작물가꾸기에 불리하며 주로 귤을 많이 재배하고있다.

쎈트루시아

(영국식민지)

까리브해의 동쪽 서인도제도에 있다. 화산이 분출하여 생긴 섬으로 기복이 심하고 열대림으로 덮여있다.

【넓이】 616km²

【인구】 9만 6,841명

주민은 대부분이 흑인이며 백인은 5%정도이다.

공용어는 영어

【행정중심지】 카스트리(주민 2만 5,000명)

1498년 콜롬부스에 의해 발견된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 그러나 구라파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프랑스가 이 섬을 점령하고 영국과 쟁탈전을 벌렸다.

1763년《빠리조약》에 의하여 이 섬은 영제국주의자들의 관할하에 넘어가고 1803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8년 《서인도련방》에 가입하였으나 이 섬 인민들의 장기간의 반식민주의투쟁으로 1967년 3월 1일 내부자치권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대외관계와 방위문제 등은 영제국주의자들이 계속 틀어쥐고있다.

경제에서 기본은 농업이며 주산물은 바나나, 사탕수수, 코코아 등이다.

천주교도가 많다.

안티구아

(영국식민지)

까리브해의 동쪽 소안띨제도의 동부에 있으며 영령리워드제도의 일부를 이룬다. 타원형으로 되여있는 이 섬의 남부와 서남부에는 화산성산지가 많으며 북부와 동북부는 산호질로, 평탄한 중앙부는 점토질로 되여있다. 해안은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으나 그 가운데는 쎈트 죤스항(길이 3.2km, 너비 1.2km)과 같이 리용가치가 큰 항구도 있다.

【넓이】 172km²

【인구】 5만 4,405명
【행정중심지】 쎈트 죤스

1493년 꼴롬부스에 의해 발견된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다.

1632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0년 미제는 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이 섬의 일부 지역에 해군 및 공군 기지를 설치하였다.

1958년 《서인도련방》에 가입하였다가 1967년 2월 27일 《자치권》을 쟁취하였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산물은 사탕수수, 목화, 파실, 담배 등이다.

그라나다

까리브해연안에 있는 화산섬이다. 기후는 열대성기후이다.

【넓이】 345km²
【인구】 10만 4,000명
【수도】 쎈트 죠지
【국회】 상하량원제, 1972년 2월 28일 하원선거 진행, 통일레이버당 13석, 국민당 2석 차지.
【정부】 총리 에리크 게어리(1972년 2월 재선)
【정당】 통일레이버당(집권당), 국민당.

1762년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독립을 위한 오랜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1973년 6월 4일 독립하였다.

사탕수수, 코코아, 목화 등을 심는다.

포클랜드

(영국식민지)

남미대륙의 남쪽끝 마젤란해협 동쪽 480km 해상에 있는 약 200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이 섬은 최고 700m정도의 고원으로서 해안에는 좁은 만들이 많다. 기후는 온화하다.

【넓이】 1만 2,000km²
【인구】 2,130명

주민의 대부분은 이슬란드인이며 영국계 주민이 2천명정도 있다.

【행정중심지】 스탠리(주민 약 1,000명)

1776년 프랑스의 식민지로 된후 영국, 에스빠냐 식민주의자들에게 점령되였다.

영식민주의자들은 아르헨띠나와 이 제도를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켜오다가 1833년 군함을 파견하여 이곳을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1840년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그러나 아르헨띠나는 이 제도가 이전 에스빠냐령이라고 하여 자기의 령토라고 하면서 말빈제도라고 부르고있다. 이 나라는 영국총독의 통치하에 있다.

이 제도에는 미제의 해군기지가 있다.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이다. 양은 62만마리, 소는 1만마리 있다. 목축업에 적합한 지역의 3분의 1은 영국의 한개 회사에 독점되여있다.

사우스 죠지아군도는 고래잡이기지로서 고래기름도 생산하고있다.

미제의 사촉하에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일어난 군사정변

(1945~1973년 10월)

1948. 10	뻬루	1961. 1	살바도르	1964. 11. 3	볼리비아
1948. 12	베네수엘라	1961. 8. 25	브라질	1965. 4. 24	도미니까
1948. 12	살바도르	1962. 3	아르헨띠나	1966. 6. 27	아르헨띠나
1951. 5	볼리비아	1961. 3.	뻬루	1970. 10. 4	볼리비아
1952. 6	꾸바	1962. 7	뻬루	1970. 6. 8	아르헨띠나
1954. 5	빠라과이	1963. 3. 30	과떼말라	1971. 3. 23	아르헨띠나
1954. 6	과떼말라	1963. 7. 11	에꽈도르	1971. 8. 22	볼리비아
1955. 9	아르헨띠나	1963. 9. 25	도미니까	1972. 3. 25	살바도르
1957. 6	아이띠	1963. 10. 3	온두라스	1973. 6. 27	우루과이
1958. 1	베네수엘라	1964. 3. 30	브라질	1973. 9. 11	칠레

대 양 주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랄리아련방)

남태평양상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다. 다른 대륙과는 달리 큰 화산, 큰 강, 빙하들이 없다. 오스트랄리아는 동부고원지대, 중부평원지대, 서부지대로 나뉘어진다.

동북부는 산림으로 뒤덮여있으며 중부평원지대에는 분지들과 넓은 벌이 펼쳐져있는데 여기에 이 나라 농경지들의 대부분이 집중되여있다. 이 나라 땅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부지대는 사막과 반사막이며 이 지대에는 소금호수와 광산들이 있다.

남회귀선이 대륙중앙을 지나갔으므로 북부는 열대, 남부는 아열대기후에 속한다.

년평균강우량은 250～410mm이다.

【넓이】 768만 6,810km²

【인구】 1,309만 1,300명(1971년말)

주민의 95%가 영국이주민들의 후손이며 원주민은 약 5만명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캔베라(주민 13만 7,000명, 1970년말)

【총독】 폴 해즐러크(1969년—), 국가수반은 영국녀왕이며 총독이 그를 대신한다. 국회의 소집과 해산, 법률을 승인한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60명, 임기 6년, 3년에 한번씩 의원의 절반을 개선한다.

하원은 각 주의 인구비례로 선거되며 임기는 3년이다. 1972년 12월 2일 국회선거 결과 하원의석 125석중 레이버당이 67석, 자유당이 38석, 지방당이 20석을 차지.

【정부】 1972년 12월 18일 구성, 총리 겸 외교부장 휘틀람(1972년 12월 5일—), 부총리겸 국방부장 란스 바나드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맑스-레닌주의) 1920년 10월 30일 창건, 위원장 에프 힐, 1964년 3월 15일 당은 오스트랄리아공산당과 공산당(맑스-레닌주의)으로 분렬됨, **레이버당**(집권당) 1890년에 창건된 가장 오랜 정당, 로조에 지반을 두고있다. **사회당** 1972년 10월 창립, **자유당** 금융 및 공업독점체들의 리익을 대표, **지방당** 대지주 목장주들의 리익을 대표, **흑인펜셔당**(원주민들의 조직) 1972년 1월 창건. **로농조합리사회**, **공산주의청년운동**, **부녀련맹**, **평화위원회**.

정치 1770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이 대륙을 강점하고 《이민단》을 보냈다. 그후 반세기동안 이 나라는 영국의 《죄인》들의 류배지로 되여있었다. 1851년에 금광들이 개발되자 영국이주민들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령도권을 확립하였다.

1901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이 대륙에 분산되여있던 지역적인 식민지들을 통합하여 오스트랄리아련방을 조작하고 저들의 《자치령》으로 선포하였다.

제2차대전기간에 오스트랄리아는 영국편에 서서 독점체들의 전쟁리윤을 보장하였다.

또한 2차대전기간에 미제의 군사공급기지로 전변되였으며 전후 미제의 영향력이 강화되였다.

1949년에 집권한 자유당정부는 미제에 추종하면서 1951년 9월에는 대일단독《강화조약》에 조인하고 미제와 뉴질랜드 등과 침략적인 《안쥬스동맹》을 맺은후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방해하는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성원국으로 되였다.

1954년 9월에 《세아토》, 1966년에 《아스파크》 등 미제의 아세아침략기구에 가담하였다.

1965년부터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1966년부터는 웰남침략전쟁터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1971년부터 캄보쟈괴뢰들에게 해마다 250만딸라의 군사,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군사인원들을 보냈으며 오스트랄리아에서 캄보쟈괴뢰군을 훈련시켰다.

1971년 1월 영제국주의자들과 함께 동남아세아 5개국 공동방위조약을 맺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침략군을 주둔시켜 이 지역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였다.

정부의 친미반동정책을 반대하여 오스트랄리아인민들은 해마다 대규모의 파업과 시위등으로 강력한 반미반정부투쟁을 벌렸다.

【주요사건】 1972년 12월 2일 하원선거에서 반동집권당들인 자유당과 지방당이 참패를 당하고 레이버당은 승리함으로써 레이버당이 23년만에 다시 집권하고 이당 당수 휘틀람이 총리로 되였다.

12월 5일 총리취임식에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휘틀람은 새 정부의 대외정책은 《보다 자주적이고 군사에 중점을 두지 않으며 인종주의를 지지하지 않는것》이라고 하였으며 오스트랄리아가《더는 미국의 추종자로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에 순종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12월 11일 새 정부는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들이민 군사인원들의 철수를 발표하고 12월 25일까지 모두 철수하였으며 12월 27일에는 남부웰남괴뢰들에 대한 모든 군사원조를 끊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오스트랄리아에서 캄보쟈괴뢰군의 군사인원들을 훈련시킬데 대한 계획, 오스트랄리아공민들의 웰남민주공화국에로의 래왕금지령을 취소하였다.

12월 8일 정부는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을 반대하여 시드니에 있는 남로데시아인종주의정권의 《공보부》의 페쇄, 남로데시아에 대한 밀수출의 금지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이 백인들로만 구성된 체육선수단을 오스트랄리아에 파견하는 경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레이버당정부는 12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1973년 1월 25일전으로 대만으로부터 공식대표부를 철수할것을 결정하였다.

12월 22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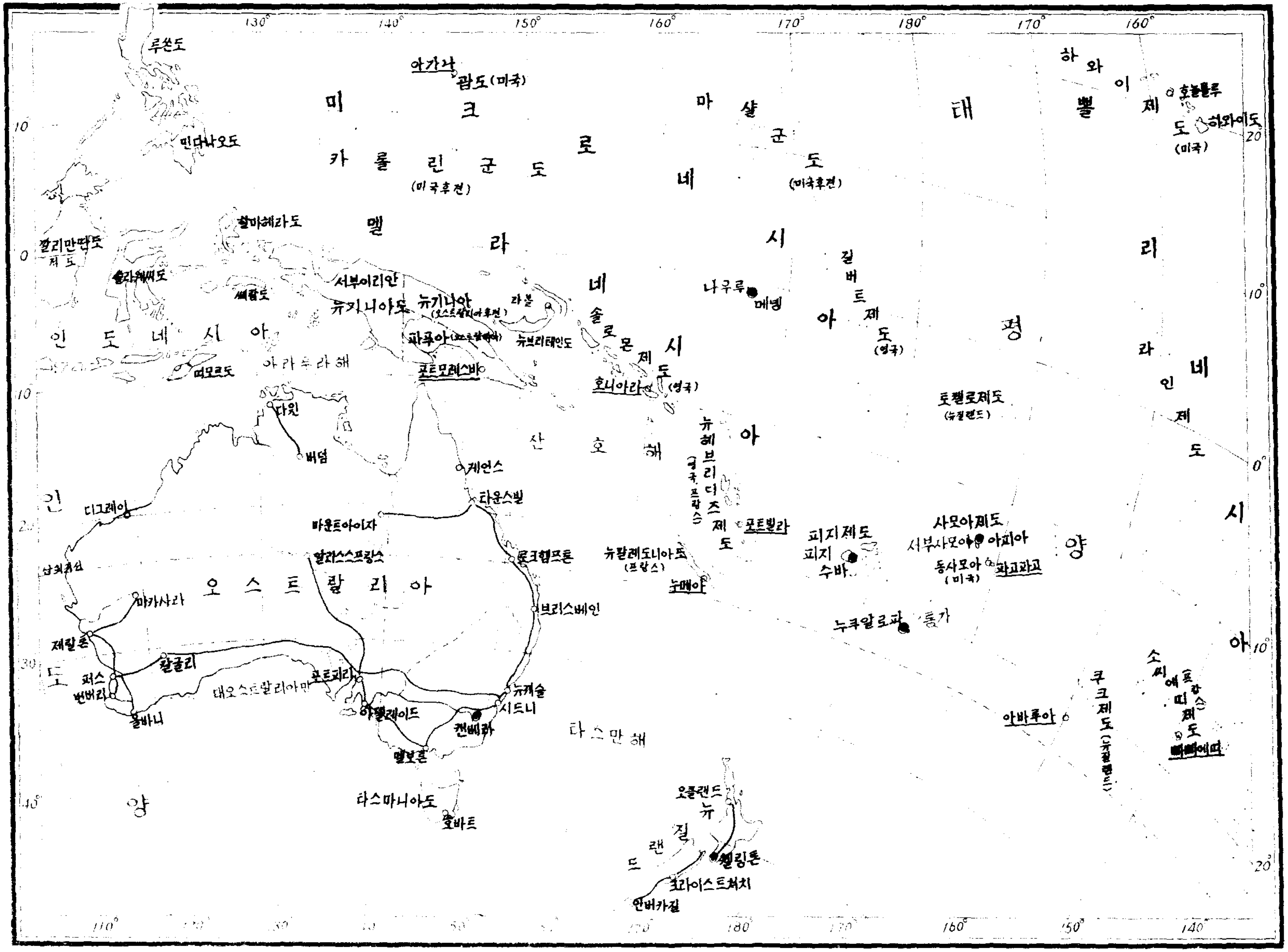
경제, 사회 경제에서 농업과 목축업, 채굴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업에 리용되는 땅은 4억 9천만ha인데 그중 78%는 목장과 초원이며 6%에 해당하는 2천 800만ha가 부침땅과 과수원으로 리용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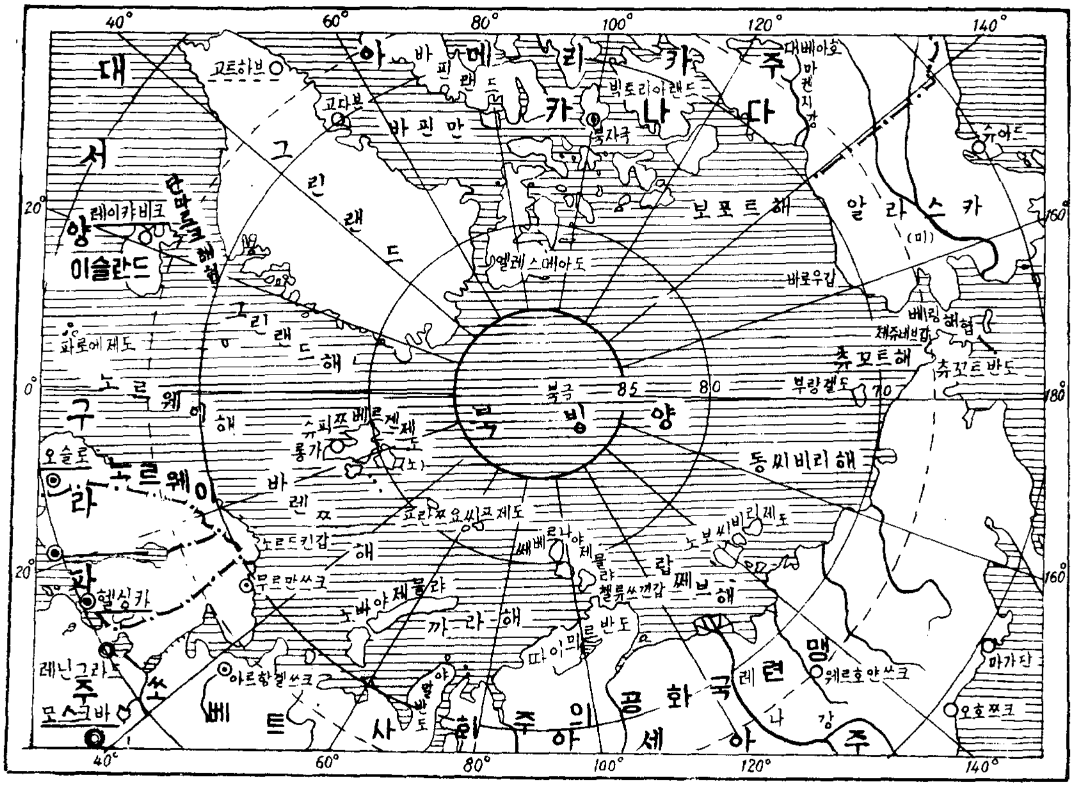
관개면적은 약 140만ha밖에 안된다.

중요농산물은 밀이며 그밖에 귀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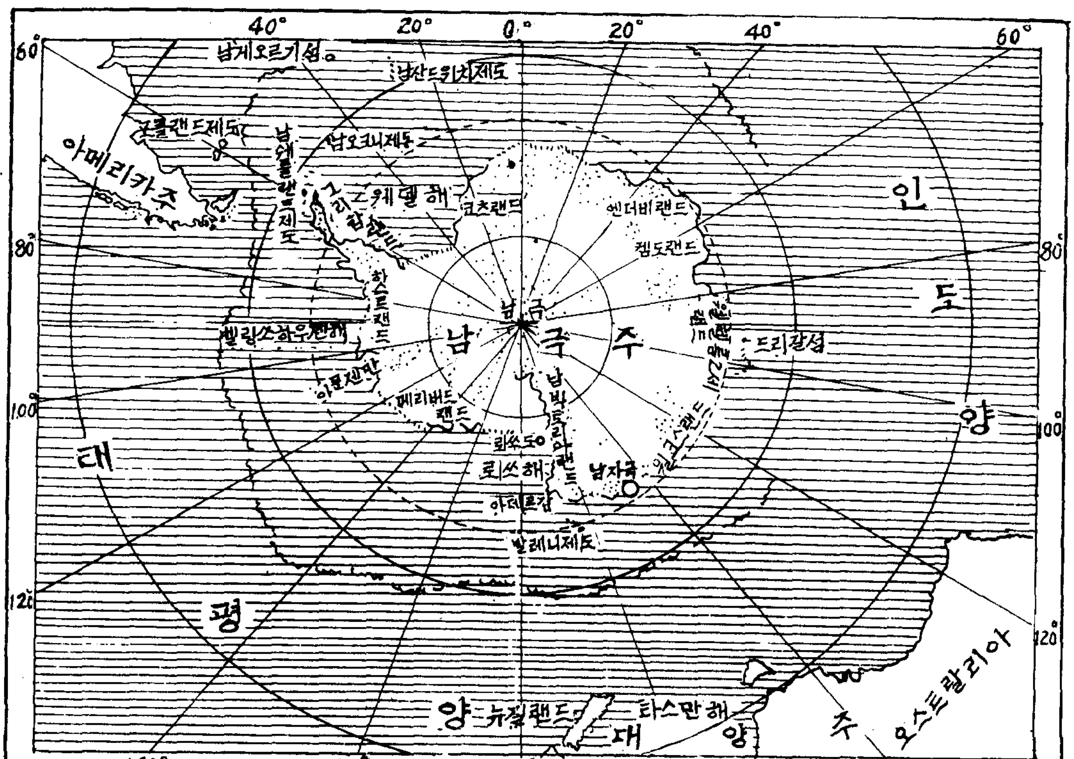
대 양 주



루손도
아가냐
괌도(미국)
미크로네시아
마샬군도
(미국후견)
카롤린군도
(미국후견)
민다나오도
할마헤라도
멜라네시아
깔리만딴도
술라웨씨도
쎄람도
서부이리안
뉴기니아도
뉴기니아
라볼
파푸아
뉴브리태인도
솔로몬제도
(영국)
호니아라
인도네시아
아라후라해
띠모르도
포트모레스바
다윈
버덤
산호해
뉴헤브리디즈제도
(영국·프랑스)
포트빌라
나우루
메넹
길버트제도
(영국)
토켈로제도
(뉴질랜드)
대평양
하와이제도
호놀룰루
하와이도
(미국)
폴리네시아
라인제도
케언스
타운스빌
디그레잉
바운트아이자
알리스스프링스
록크햄프톤
오스트랄리아
마카사라
제랄톤
퍼스
번버리
올바니
칼굴리
대오스트랄리아만
포트피리
아델레이드
멜보른
캔버라
시드니
뉴캐슬
브리스베인
타스만해
타스마니아도
호바트
인도양
뉴칼레도니아도
(프랑스)
누메아
피지제도
피지
수바
사모아제도
서부사모아
아피아
동사모아
(미국)
파고파고
누쿠알로파
통가
아바루아
쿠크제도
(뉴질랜드)
소씨에떼제도
(프랑스)
빠뻬에떼
뉴질랜드
오클랜드
웰링톤
크라이스트처치
인버카길



대서양
아메리카주
카나다
고트하브
바핀랜드
바핀만
빅토리아랜드
북자극
대베아호
마켄지강
그린랜드
레이캬비크
이슬란드
단마르크해협
보포르트해
알라스카
(미)
엘레스메아도
바로우갑
베링해협
추꼬트해
추꼬트반도
그린랜드해
파로에제도
노르웨이해
북극
북빙양
부랑겔도
구라파주
오슬로
노르웨이
슈피쯔베르겐제도
바렌쯔해
동씨비리해
프란쯔요씨프제도
노보씨비리제도
노르드킨갑
랍쩨브해
헬싱카
무르만쓰크
노바야제믈랴
까라해
따이미르반도
레닌그라드
아르항겔쓰크
모스크바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웨르호얀쓰크
레나강
마가단
오호쯔크



남게오르기섬
남산드위치제도
포클랜드제도
아메리카주
남오크니제도
웨델해
코츠랜드
엔더비랜드
켐프랜드
인도양
남극
남극주
벨링스하우젠해
메리버드랜드
드리갈섬
로쓰도
로쓰해
남자극
발레니제도
대평양
뉴질랜드
타스만해
대양주
오스트랄리아

보리, 사탕수수, 목화, 감자, 아마, 남새, 과일 등이 난다.

밀파종면적은 936만ha이며 년평균 생산량은 1천여만t, 보리는 175만t, 귀밀은 145만t에 이른다.

땅의 대부분은 농업자본가들이 가지고있으며 농업인구의 40%는 농업로동자이다.

목축업은 농업총생산액중 3분의 2를 차지한다.

주로 양을 기르는데 1970년 양 마리수는 1억 8천만마리, 양털생산량은 91만 6,400t이였다.

양털생산량의 90%는 수출되며 그것은 이 나라 수출총액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밖에 소는 2천만마리, 돼지는 230만마리정도가 있다.

지하자원으로는 쇠돌, 석탄, 연, 주석, 보크사이트 등이 있다.

공업은 제2차대전까지 영국경제의 부속물로서 광물채굴과 농산물가공공업이 위주로 되고있었으나 2차대전을 통하여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군수공업이 창설됨으로써 공업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졌다.

중요공업부문은 채굴공업, 기계공업, 금속공업 등이며 공업의 대부분은 외래독점체들에 예속되여있다.

전체 공업기업소의 3분의 1을 미국, 영국 등 100여개의 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는데 특히 자동차공업의 89%, 유색금속공업의 84%, 석유가공공업의 81.6%, 화학공업의 78%는 외래독점자본에 얽매여있다.

주요수출품은 양털, 밀, 쇠돌, 고기 등이다.

무역대상국은 일본(수출액의 25%, 수입액의 12.5%), 미국(수출액의 13.5%, 수입액의 25%), 영국(수출액의 12%, 수입액의 21%)등이다.

1972년에 실업자는 12만 570명이였다.

매해 생계비는 7%씩 뛰여오른다.

혹심한 인종차별로 말미암아 원주민 어린이의 40%는 보통 출생후 1년도 되기전에 죽는다. 북오스트랄리아에서 어린이사망률은 전국적인 사망률보다 7배나 높다. 주민의 대부분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에이피(오스트랄리아련방통신), 에이유피통신.

신문 뱅가드(공산당기관지), 시드니 모닝 헤랄드(보수계), 오스트랄리안, 멜보른 에이지(중립계).

방송 오스트랄리아방송, 오스트랄리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에 오스트랄리아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기자이며 작가인 윌프레드 버체트와 공산주의청년운동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 4월에는 오스트랄리아평화인사이며 잡지 《홰불》 주필인 작가 스텐리 무어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그이의 혁명업적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그이께 삼가 드리였다.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대륙에서 동남쪽으로 2천km 떨어진 태평양상에 있는 섬나라이다. 쿠크해협을 사이에 두고 북도와 남도의 두개섬으로 갈라져있다.

북도에는 화산과 온천이 많으며 남도에는 얼음이 덮인 높은 산들이 있다.

해양성기후로서 따뜻하며 추위와 더위의 차가 심하지 않다. 가장 추운달인 7월의 평균기온은 북도에서 12°C, 남도에서 5°C이다. 가장 더운달인 1월의 평균기온은 북도에서 19°C, 남도에서 14°C이다. 년강수량은 1천200mm이다.

【넓이】 26만 8,675km²

【인구】 297만 5,522명(1973년 5월)

주민의 대부분은 영국이주민들의 후손이며 원주민의 마오리족이 약 20만명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며 원주민은 마오리말을 쓴다.

【수도】 웰링톤(주민 30만 1,000명, 1970년 4월)

【총독】 에스피에 포리트, 총독은 국가수반인 영국녀왕을 대신한다.

【국회】 일원제, 임기는 3년, 1972년 11월 25일 국회선거결과 총의석 87석중 레이버당이 55석 차지.

【정부】 총리겸외교부장 노만 에리크 커크(1972년 12월 8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 총비서 윌콕스, **사회통일당** 전국비서 조지 잭슨, **레이버당**(집권당), **국민당** 매판자본가와 목장주, 농장주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동적인 정당, **사회신용정치동맹, 자유당, 로동련맹, 진보청년동맹, 녀성동맹.**

정치

1642년에 화란의 침입을 받았으며 1669년부터 영국의 침입을 받았다. 놈들은 이 나라에서 원주민들을 학살추방하고 1804년에는 뉴질랜드를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20세기초부터 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여 1907년 9월에는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침략세력이 침투되면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는 미제에 예속되였다.

뉴질랜드는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였으며 1951년에 《안쥬스》동맹, 1954년에는 《세아토》, 1966년에는 아세아태평양지역 각료리사회(아스파크) 등 미제가 조작한 침략적군사동맹에 가담하였다.

1960년 11월 집권한 국민당정부는 미제의 전쟁정책에 적극 추종하여왔으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있는 영국기지들과 남부웰남전쟁터에 자기의 군대를 파견하여 이 지역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는데 참가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놈들의 통치기간에 세금을 80%나 올렸다.

뉴질랜드인민들속에서는 국민당정부의 대미추종정책을 반대하며 특히 남부웰남파병을 반대하는 투쟁이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주요사건】 1972년 11월 25일 국회선거에서 레이버당이 승리함으로써 집권당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1960년 11월이래 4기에 걸쳐 련속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해온 친미반동정당인 국민당이 정권에서 물러나고 12년만에 레이버당정부가 다시 수립되였다.

레이버당 당수로서 뉴질랜드의 새 총리로 된 노만 커크는 11월 26일 정책연설에서 미제의 아세아침략도구인 《세아토》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남부웰남에 대한 군사적공약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하였다.

12월 11일 레이버당정부는 뉴질랜드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반영하여 청년들에 대한 《의무적인 군사훈련제》를 철폐하며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파병된 《군사훈련대》를 12월 25일전으로 남부웰남에서 철수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12월 22일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장개석도당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

농목축업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농업생산액은 총생산액의 50%이상, 수출액의 80%이상을 차지한다. 농업생산액의 90%는 목축업에서 연어진다. 농업에서 리용되는 915만ha의 땅중 90%는 목축업을 위한 방목지이며 씨붙임땅은 5%, 나무심는 땅이 5%를 차지한다. 양털과 고기, 소젖제품(뻐터, 치즈)의 세계적인 수출국이다.

양 마리수와 털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2~3위를 다투고있다. 양은 6천만마리, 소는 884만마리, 돼지는 580만마리가량 있으며 해마다 32만~33만t의 양털을 생산한다. 알곡작물은 적으며 식량의 대부분은 수입한다.

해마다 밀은 27만t, 보리는 17만t, 귀밀은 5만~6만t, 강냉이는 6만t정도 생산된다. 4천300만에이커(1에이커는 4,063m²)의 토지와 방목지를 포괄하는 8만 5천개의 농목장을 농목장주들이 가지고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있다.

이리하여 소농경리는 자본주의적대농장경리에 억눌려 파산당하고있다.

림산도 이 나라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목재는 년 181만m³ 생산된다.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쇠돌, 금, 은 등이 채굴된다.

공업총생산액에서 고기와 소젖제품(뻐터, 치즈)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공업이 절반을 차지한다.

제2차대전후 기계제작, 금속가공, 방직, 전력, 석유, 팔프, 종이 공업을 비롯한 일련의 공업부문들이 새로 생겼다.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약 20%를 차지한다. 종이 및 팔프생산량은 45만t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들은 미영독점자본에 얽매여있다.

자동차공업과 석유가공공업을 비롯한 기타 부문은 미제독점자본이, 식료공업, 금융, 해상운수는 주로 영국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외래독점회사들의 년간수입은 이 나라 년간 국가예산을 넘는다.

민족경제는 파산몰락하고있으며 침체상태에 빠지고있다. 1970년 9월부터 1971년말까지 공업생산은 약 1% 늘어났다.

주로 고기, 소젖제품, 양털, 팔프 및 종이를 수출하고 기계설비, 소비품, 화학제품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수출액의 35%, 수입의 30%), 미국(수출의 15%, 수입의 30%), 일본, 오스트랄리아 등이다.

혹심한 인종차별로 말미암아 마오리족들은 북쪽섬의 동북부와 동부해안에 몰려 생활하고있다.

마오리족 학령아동의 5분의 4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있으며 사망률은 백인보다 2배나 높다.

실업자의 4분의 3은 마오리족이며 그들은 취업자란 경우에도 가장 힘든 로동을 담당하고있다.

대학은 6개 있다. 유치원은 단 1개밖에 없으며 그나마 아이들은 2~2.5시간밖에 맡기지 못하며 시간당 매우 높은 대금을 물지 않으면 안된다.

【출판보도】 **통신** 남부태평양통신

신문 도미니온, 썬데이 타임스, 뱅가드.

방송 뉴질랜드방송,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6월에 뉴질랜드 크리스트처츠시 캔터브리종합대학 교수 위. 로쎈버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피 지

피지는 태평양서남부의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멜라네시아동쪽끝에 있는 35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년평균기온은 더울때 28°C, 추울때 20°C이다.

년강우량은 동부지역에서 약 3천mm이나 서부지역에서는 그 절반밖에 안된다. 장마철은 12월~6월이다.

【넓이】 1만 8,272km²

【인구】 52만 6,800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은 피지인과 인도인, 구라파인과 혼혈인들도 살고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나 멜라네시아어도 쓴다.

【수도】 수바(주민 약 6만 1,000명) 비티레부섬에 있다.

【국회】 상하량원제의 최고립법기관이다. 상원의원수는 22명,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의원수는 52명, 그중 피지인과 인도인이 각각 22석을, 구라파인이 8석을 차지하고있다. 임기는 5년이다.

【총독】 로버트 포스터, 1970년 헌법에 따라 영국녀왕을 대신하는 명목상 국가수반이다.

【정부】 총리 라트 세르 카미세세 마라

【정당, 사회단체】 **동맹당** 집권당이며 하원에서 27석을 차지, **민족련맹당** 1963년에 조직된 야당이며 하원에서 9석을 차지하고있다.

정치 1643년부터 1674년기간에 피지의 일부 섬들이 발견되였다. 피지는 오랜 왕국이였다. 19세기중엽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이 피지에 세력을 뻗치기 시작하여 1874년에는 피지를 완전히 강점하고 직할식민지로 만들었다.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을 위한 피지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70년 10월 10일 피지는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사탕수수와 야자재배를 하고 농업생산이 국민총생산액의 약 30%를 차지한다.

촌락공동체생활을 하고있는 원주민들은 감자, 고구마, 마니오크, 바나나, 코푸라(야자씨), 땅콩, 생강 등을 재배한다. 자본주의적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들이 수출용작물인 사탕수수, 야자를 주로 재배하고있다. 이외에 피지에서 가장 큰 섬인 비티레부섬의 동부지역에서는 벼도 심고있다.

사탕수수의 재배와 사탕생산은 영국과 오스트랄리아 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년평균 사탕은 약 34만t, 야자기름은 1만 7천t정도 생산된다.

작은 사탕공장, 세멘트공장(년산 약 5만t), 화력발전소(약 1억 3천kwh) 기타 농산물가공공장들이 몇개 있다.

금, 은, 동, 망간 등이 소규모적으로 채굴되고있으며 일본독점회사들이 망간과 동을 략탈해가고있다.

피지는 남태평양의 해상 및 항공로의 교차점에 놓여있으므로 관광업과 운수업이 주요외화원천으로 되고있다.

피지인은 기독교, 인도인은 힌두교를 믿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피지 타임스, 쟈아 피지, 피지 로이얼 거제트.

서부사모아

태평양의 서남쪽에 있는 폴리네시아의 사모아제도 서쪽 절반을 차지하고있다. 사바이섬파 우폴루섬을 포함하여 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섬들은 산호초로 둘러싸인 화산섬들인데 사바이섬들에는 해발 1천 858m에 달하는 화산이 있다.

열대성기후로서 3월평균기온은 26.4°C, 7월평균 기온은 25.1°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4천500~5천mm이다. 섬들은 열대밀림으로 덮여있다.

【넓이】 2,842km²(그중 우폴루섬 1,075km², 사바이섬 1,650km²)

【인구】 14만 2,000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은 사모아인이며 구라파인도 약간 있다.

공용어는 사모아어와 영어이다.

【수도】 아피아(주민 2만 8,000명

1970년)

【립법회의】 최고립법기관으로서 4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여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국가원수】 마리에토아 타누마피리 2세

【정부】 총리 투푸아 타마세세 레아로휘 4세(1970년 3월), 총리는 립법회의에서 선출한다.

정치 서부사모아는 구라파식민주의자들이 침입하기 이전까지 마타파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독립왕국이였다.

1830년부터 구라파식민주의자들이 침입하여 추장들을 강박하여 《통상조약》을 맺고 이 나라의 자원을 략탈하였다.

1885년 독일식민주의자들은 아피아를 포함한 일부지역을 강점하고 1899년에는 서부사모아 전체를, 미제는 동부사모아를 강점하였다.

제1차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게 되자 1919년 서부사모아는 뉴질랜드의 《위임통치령》으로, 1947년부터는 《유엔후견령》으로서 뉴질랜드의 관할하에 있었다. 1927년에 대중적인 반제민족해방투쟁단체인 《마우》가 발족하여 외래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1962년 1월 1일 서부사모아는 독립을 쟁취하였다. 1970년 8월 23일 영제국주의자들은 서부사모아를 영련방에 끌어들였다.

동부사모아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 있다. 이 섬 인민들은 나라의 인공적인 분렬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서부사모아는 뉴질랜드와의 《조약》에 의거하여 1962년 8월 1일부터 태양주밖의 다른 나라들과 맺는 대외관계는 뉴질랜드외교대표들을 통하여 진행하고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토지 전체가 화산질이며 농사가 잘 된다. 그러나 토지의 대부분은 영국침략자들의 코코아농장으로 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코푸라(야자씨), 바나나, 코코아이다. 주작물외에 농민들은 감자와 고구마 등을 심고있다.

농업과 함께 많은 주민들이 물고기잡이를 한다. 조개와 낙지는 일부 수출까지 한다.

공업으로는 열대농산물과 물고기를 가공하여 수출하기 위한 식료가공공장이 몇개 있다.

문자가 없고 라틴문자를 쓰는데 학교에서는 사모아어와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사모아 타임스, 아피아 애드버타이저, 사발리.

뉴기니아

(오스트랄리아후견령, 식민지)

태평양서남부, 오스트랄리아대륙의 북쪽에 있는 뉴기니아섬의 동부를 차지하고있다. 이 섬의 서쪽 절반은 인도네시아령인 이리안쟈야이다. 동쪽절반의 북쪽은 뉴기니아(오스트랄리아후견령), 그 남쪽은 파푸아(오스트랄리아식민지)이다.

섬 전체가 열대권에 속하여있다. 년평균기온은 25°C～28°C이며 년중기온의 차가 거의 없다. 년평균 강우량은 북쪽에서 4천～6천mm, 남쪽에서 1천mm이상 된다.

【넓이】 후견령(뉴기니아) 23만 8,693km², 식민지(파푸아) 23만 4,000km²

【인구】 후견령(주민 170만명)

식민지(주민 70만명)

주민의 대부분은 오스트랄리아원주민과 같은 계통의 파푸아인들이다.

【행정중심지】 포트 모레스비

정치 이 섬이 세계에 알려진것은 16세기였다. 1511년 뽀르투갈인이 섬을 발견한후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이 침입하였다.

17세기에는 화란, 영국, 프랑스, 독일 식민주의자들이 기여들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들사이에 섬을 쟁탈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졌다.

1816년 윈회의에서 당시 인도네시아의 한 회교추장이 지배하고있던 서부뉴기니아(이리안쟈야)는 화란식민지로 전락되였다. 1969년 8월에 인도네시아령토로 되였다. 한편 동부뉴기니아중에서 북부(뉴기니아)는 1884년에 독일식민지로, 그 남부(파푸아)는 1888년에 영국식민지로 되였다.

제1차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한후 뉴기니아는 1921년에 오스트랄리아《위임통치령》으로, 제2차세계대전후인 1946년에는 그의 《후견령》으로 되였다.

영국식민지였던 동쪽남부(파푸아)도 1906년에 오스트랄리아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9년에 오스트랄리아는 《파푸아와 뉴기니아법》을 조작하여 두지대에 대한 련합통치를 실시하고있다.

1972년 1월 23일 행정중심지인 포트모레스비인민들은 식민주의자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경제 뉴기니아에서는 금, 은, 동, 백금, 석탄 등 지하자원이 채굴되고있으며 특히 금은 주요수출품으로 되고있다. 남부의 파푸아에서도 금, 은, 동, 석유가 개발되고있으며 여기서도 금이 수출되고있다.

농산물로서는 코코아, 커피, 코푸라(야자씨), 고무, 바나나, 벼와 강냉이 등이 있다. 코푸라와 고무는 주요수출품으로 되고있다. 목재, 물고기 등도 생산된다.

그러나 이 모든 생산물은 식민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누벨깔레도니아

(프랑스해외령)

오스트랄리아의 동북쪽 남태평양상에 있다. (멜라네시아의 남부)누벨깔레도니아제도(일명 뉴칼레도니아제도)는 서북쪽에서부터 동남쪽으로 놓인 좁고 긴 섬들로 이루어졌다. 령토의 3분의 1은 바위산이다.

기후는 봄과 가을이 긴 아열대성기후에 속한다. 년평균기온은 약 20°C이며 강수량은 대단히 많다. 서해안에서는 비가 동해안의 절반밖에 내리지 않는다.

【넓이】 1만 9,103km²

【인구】 10만명(1969년)

주민은 백인이 많으며 쟈바인, 통킹인 원주민들인 멜라네시아인과 파푸아인도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원주민들은 멜라네시아어 또는 파푸아어를 쓴다.

【행정중심지】 누메아(주민 5만명)

【해외령의회】 형식상 협의기관으로 되여있으나 실권은 프랑스고등판무관이 틀어쥐고있다.

【정당, 사회단체】 **깔레도니아동맹당**, **누벨깔레도니아당**, 이 두 당은 섬의 자치를 요구하여 투쟁하고있다. **누벨 깔레도니아인종운동당** 1971년 1월에 누벨깔레도니아당에서 떨어져나와 조직. **누벨깔레도니아자치로동조합동맹** 1970년 6월에 이 동맹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정치 1744년에 영국인 쿠크에 의하여 발견된후 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아오다가 1853년 프랑스령에 병합되였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1860년에 이 제도를 제놈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고 1864년에는 저들의 정치범과 강제로동을 언도받은 《죄수》들의 《류형지》로 정하였다.

1905년에 《류형자》수는 약 8천명에 이르렀다.

이들의 거듭되는 항거에 의하여 1938년에 류형제도가 없어졌다.

1958년에 프랑스의 《해외령》으로 되였다.

경제, 사회 니켈, 크롬, 쇠돌, 코발트, 망간, 동, 금이 채굴되고있다. 특히 품위가 높은 니켈과 크롬 광석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다. 년평균 니켈광석은 150여만t(니켈 약 1만 7천t), 쇠돌은 약 20만t이 생산되고있다. 누메아에는 큰 니켈제련소가 있다.

커피, 코푸라, 남새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업과 소(약 10만마리) 기르기를 기본으로 하는 목축업, 림업과 수산업이 있으나 광업보다 규모가 작다.

경제는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틀어쥐고있다.

니켈, 크롬, 쇠돌을 비롯한 광물들을 수출하고 공업제품, 세멘트, 일용품과 식료품(물고기통졸임)을 수입한다.

주민들은 대체로 식민주의자들의 광산과 제련소들에서 힘든 로동에 시달리고있다.

원주민들은 천주교를 믿는다.

나 우 루

나우루는 미크로네시아의 마샬군도에 속하여있는 적도 바로 남쪽(40km)의 외딴 산호초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강수량이 비교적 적으며 열대의 태풍도 없다.

【넓이】 21km²

【인구】 7,000명(1969년)

주민의 대부분은 미크로네시아계의 사람들인데 나우루인이 3,500명, 기타 원주민들이 약 2천명정도이다. 그밖에 중국인, 구라파인 등이 있다.

언어는 미크로네시아계의 언어와 영어를 쓴다.

【수도】 메넹

【립법회의】 일원제이며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함메르 데 로바트, 국가수반으로서 임기는 3년이며 립법회의 의원들속에서 선출된다.

【정부】(국가리사회) 대통령이 총리를 겸한다.

정치 1796년부터 구라파인들이 기여들기 시작하였다. 1888년에는 독일식민지로 되였다.

제1차세계대전시기에는 오스트랄리아침략군이 이 나라를 강점하였으며 그후에는 오스트랄리아, 영국, 뉴질랜드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일제침략군이 나우루를 강점(1942~1945년)하였으며 1947년부터는 《유엔후견령》으로 되였다.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적독립을 위한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나우루는 1966년에 《자치권》을 획득한데 이어 1968년 1월에는 《특별성원국》의 지위를 가진 영련방준가맹국(영련방성원국수뇌자회의에 참가할 권리가 없다)으로 독립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에서 기본은 린광석채굴이며 전령토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지역에 린광석이 깔려있다. 영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가 린광석채굴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1970년 6월 나우루는 린광산들을 국가의 통제하에 넣었다. 매년 150여만t의 린광석을 채굴하는 세계적인 산지로 되여있다.

린광석분쇄공장에서 항구까지 광석을 운반하기 위한 철길이 있고 바다가에는 린광석출하시설이 갖추어져있다.

주민의 40%이상이 신교를 믿고있다.

출판물로서는 불레찐을 발간하는 정도이다.

통 가

(통가왕국)

태평양의 폴리네시아지역 서남부, 사모아제도의 동남쪽에 있다. 통가는 통가탄푸섬, 하아파이섬, 바바우섬을 포함한 20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30여개이다.

통가에는 강물도 실개천도 없으며 주민들은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고인 비물을 먹는다.

열대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2°C이고 바람이 세차게 분다. 1월부터 6월까지가 장마철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250mm이다.

【넓이】 697km²

【인구】 약 10만명

주민의 대부분은 폴리네시아인이다.

【수도】 누쿠알로파(통가타푸섬, 주민 1만 8,000명)

【국왕】 타우파아하우 투포우 4세 (1965년—)

국왕은 국가수반이다. 국왕직속으로 비밀리사회가 있다.

【립법회의】 협상기관이며 22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여있다. 의원들중에는 추밀원의원, 귀족의원, 평민의원들이 망라되여있다.

【정부】 총리 파타페히 투이펠레하케(국왕의 동생)

정치 통가는(친선이라는 뜻) 태평양의 여러섬들가운데서 유일한 왕국이다.

10세기에 왕국을 수립하고 14세기이후부터는 주변 섬들을 공격한 강한 해군을 가진 나라로 발전하여왔다.

18세기말부터 내란이 계속되여왔다. 1845년에 당시 대추장이었던 타우파아하우가 내란을 진압하고 통가를 통일한후 자신을 조지 투포우 1세라고 불렀다.

19세기초부터 영국선교사놈들이 기여들기 시작하였으며 1900년에는 영국침략자들이 통가에 《우호조약》을 강요하여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제2차세계대전후 민족적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여 1970년 6월 4일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들의 대부분은 농사를 한다.

주요 농산물은 코푸라(야자씨), 바나나, 파인애플, 고구마, 감자, 마니오크 등이며 특히 코푸라와 바나나는 주요 수출품이다.

통가의 토지는 모두 왕과 33명의 귀족 및 정부의 소유로 되여있으며 농민은 땅을 가지고있지 못하다. 토지는 외국인들에게 팔수 없으며 외국인들은 야자농장을 일정한 기간 빌려쓰고있다.

영농방법은 원시적이며 농기구도 락후하다.

농민들은 소작살이를 하면서 돼지와 닭을 비롯한 여러가지 집짐승을 기른다. 바다가주민들은 손으로 물고기잡이도 한다.

지하자원은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다. 1968년에 크지 않은 석유매장지가 발견되였으나 그 리권마저 미영제국주의석유회사들에게 빼앗겼다.

주민의 대부분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크로니클(정부계)

괌 섬

(미국식민지)

태평양서부 미크로네시아의 마리아나군도 남쪽에서 제일 큰 섬(북위 13° 26′, 동경 144°43′)이다. 섬의 북부와 동남부는 산호초로 된 낮은 지대이고 서남부는 화산이 분출하여 생긴 돌바위언덕으로 되여있다. 바다가는 대부분 돌벼랑으로 둘러싸여있다.

기후는 열대철바람기후에 속하며 년평균기온은 26°～27°C, 년평균강수량은 3천mm이다.

【넓이】 549km²

【인구】 약 11만명

주민의 대부분은 미크로네시아족 원주민이며 이밖에 필리핀인과 일본인의 혼혈인이 있다.

【행정중심지】 아가냐

정치 괌섬은 1521년에 발견된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 1898년에 미국—에스빠냐전쟁에서 에스빠냐가 패배하고 그해 12월 10일 《빠리강화조약》으로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일본침략군에게 일시 점령되였다가 1944년에 또다시 미제에 강점되였다.

미제는 1950년에 이 섬에서 기만적인 《민정이양》놀음을 벌리고 저들의 주구 지사들을 내세워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다. 형식상 립법기관이 있으나 그 의석은 친미정당인 민주당원들이 독차지하고있다.

미제는 이 섬에 공군 및 해군 기지들과 공급기지를 설치하고 아세아침략과 태평양에서의 지배권획득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었다.

미제와 그 괴뢰들 및 추종국가 우두머리놈들이 이곳에서 아세아침략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모략들을 꾸몄다. 1969년에 미제의 두목 닉슨이 아세아의 괴뢰들을 모아놓고 《닉슨주의》를 제창한곳도 이 섬이다.

경제, 사회 미제의 군사기지설치로 부침땅은 불과 3천 700여예이커밖에 안된다.

주작물은 코푸라(야자씨)와 파인애플, 바나나, 사탕수수이다. 알곡작물로는 강냉이와 고구마, 감자를 심고있다.

공업은 없고 미제의 군사시설과 시계조립부문이 있을뿐이다.

미제의 우매화정책으로 소학교 몇개밖에 없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미크로네시아

(유엔후견령)

필리핀동쪽에 있는 마리아나군도, 카롤린군도, 마샬군도를 포함한 2천 100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넓이】 1,813km²

【인구】 10만명

주민의 대부분은 미크로네시아족이며 필리핀인과 일본인, 혼혈인들이 산다.

【행정중심지】 사이빤(마리아나군도)

미크로네시아는 제1차세계대전후부터 일제의 《위임통치령》으로 있다가 1947년부터 유엔의 《후견령》으로 되였으나 사실상 미제의 식민지로 되고있다.

미제는 오끼나와와 필리핀인민들의 반미투쟁에 부딪쳐 이 지역의 군사기지의 지위가 날로 불안정하여져감에 따라 미크로네시아를 제놈들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책동하나 이 지역인민들의 강한 반항에 부딪치고있다.

토지전체가 화산질이며 코푸라, 코코아, 바나나 등을 재배한다. 농산물은 주로 일본에 수출한다.

솔로몬제도

(영국보호령)

남위 5～12°, 동경 155～169° 사이의 태평양상에 있다. 부겐빌섬을 비롯한 10여개의 큰 섬들과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기온은 추울 때에도 20°C이상 된다.

【넓이】 9,785km²

【인구】 14만 9,000명(1969년)

인구의 대부분(13만 8,700명)이 원주민인 멜라네시아인이다.

【행정중심지】 호니아라(과달카날섬)

정치 솔로몬제도는 1567년에 발견되였다. 1893년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이 군도의 남부를 《보호령》으로 선포한데 이어 독일식민주의자들이 북부섬들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제1차세계대전후 부겐빌섬과 부카섬을 중심으로 한 독일식민지가 오스트랄리아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일제침략군은 미국—오스트랄리아련합함대를 이 해역에서 공격(1942년 여름)하고 여러섬들을 점령하였으나 일제의 패배로 이 섬들에서 몰려났다.

솔로몬제도는 피지에 있는 영국태평양고등판무관놈의 통치하에 있다.

경제 이 제도의 주산물은 코푸라(야자씨), 코코아, 감자 등이며 목재도 생산된다.

공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없고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나무껍질천을 짜는 직기가 있으며 이 제도 주민들의 기본무기로 되여있는 창과 활이 생산된다.

섬들에는 원래 야자나무, 빵나무를 비롯한 열대식물들이 무성하였으나 식민주의자들이 마구 찍어간 탓으로 일부 섬들에는 나무가 적다.

량 극 지 방

남 극 권

【개관】 지구의 가장 남쪽끝에 있는 대륙과 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의 일부로 이루어진 남위 60°이남의 지역을 말한다.(1958년 7월 남극관계 12개나라 대표회의에서 결정)

넓이는 1천 361만km²이며 대륙해안선의 길이는 2만 4천700km이다.

1820년 1월~2월에 로씨야의 탐험대가 대륙을 처음 발견하였으며 1894년에 노르웨이탐험대가 남극대륙에 처음 들어갔다.

1911년 12월 14일에는 노르웨이의 탐험가가 남극점에 처음 도달하였다.

남극대륙은 해발 2천~3천m의 높이를 가진 고원지대로 되여있으며 도처에 4천 500~6천m의 높이를 가진 산들이 있다.

남극권은 83%가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데 이는 세계의 눈과 얼음 총량의 10분의 9를 차지한다. 얼음의 평균두께는 1천 800m, 최고 4천 480m나 된다.

1958년 1월에 관측된 바에 의하면 남극점은 해면상 275m의 암반우에 두께 2천 450m의 대륙빙이 있고 그 우에 약 30m의 눈과 얼음이 쌓여있는 해발 2천 750m 지점이다.

남극대륙은 아직까지 군도인지 단일한 섬인지는 명확지 않다.

【기후】 영구성동결기후로서 평균기온은 령하 30°C이다. 가장 따뜻한 철(11—1월)에는 령하 5°C이며 가장 추운철(6~7월)에는 령하 50°C까지 내려간다. 1960년 8월 24일 대륙동부의 쏘련 위쓰또크기지부근에서 기온이 령하 88.3°C까지 내려갔는데 이것은 지구상에서 관측된 제일 낮은 기온이다. 1년에 한번의 낮과 밤의 변화가 있는데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낮이며 4월부터 8월까지는 밤이다.

남위 50°이남의 전지역은 년중 폭풍이 일며 아데리해안에서는 풍속이 30m/초이상되는 날이 년중 300일이나 된다.

그러나 퀸메리해안의 반카힐에는 얼지않는 지대(500km²)가 있으며 최고기온은 8.3°C, 최저 령하 55°C되는 고원지대도 있다.

【자원】 금, 은, 주석, 동, 몰리브덴, 찌따니움, 우란, 망간, 석탄 등이 있으며 최근년간 방사성물질이 발견되고있다. 펭귄새가 많으며 세계고래잡이량의 4분의 3이 남극권에서 난다. 식물은 300여종이 발견되였다.

남극권은 과학연구에서 뿐만아니라 남반구대륙들을 련결하는 해상 및 항공운수로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남극조약》에 의하여 남극권은 평화적으로 리용되여야 하며 이 지대에서는 핵시험을 금지하고 과학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령유권을 론하지 않기로 되였다. 그러나 제2차대전후 미제국주의자들은 남극권에 전략기지들을 설치하고 군사연습 등을 진행하고있다.

북 극 권

【개관】 아세아, 구라파, 아메리카 3대륙의 북쪽의 일부, 그린랜드의 대부분과 북빙양이 속하는 북위 66°30′이북지역을 말한다. 넓이는 약 2천 500만km²인데 그중 약 1천 435만km²는 바다넓이이다. 대부분은 3m두께의 얼음에 덮혀있다. 북빙양의 가장 깊은 곳은 5천 219m이다.

15세기말 《지리적발견》이후 아세아에로의 최단 항로를 개척하려는 나라들에 의하여 북극권에 대한 탐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북서항로에서는 1497년에 뉴파운들랜드가 처음으로 발견되였다. 동북항로에서는 바렌쯔해와 씨비리북부연안, 노바야제믈랴 등에 대한 탐험이 진행되고 1596—1597년에 스삐쯔베르겐군도가 발견되였다. 17세기에는 카나다의 북부와 주변 섬들, 18세기 전반기에는 베링그해협이 발견되였다. 19세기 후반기부터 북극권내의 륙지에 대한 탐험이 시작되였으며 1909년 4월 6일 처음 북극점에 도달하였다.

1937년에 최초의 학술탐험이 시작되였다.

1969년 5월에 처음으로 영국탐험대가 북극권대륙횡단(걸어서 5천 800km)에 성공하였으며 같은해 9월에 북서항공로가 개설되였다.

북극권내에 령토를 가지고있는 쏘련, 노르웨이, 스웨리예, 핀란드가 과학관측소를 설치하고 기상, 해양, 지구물리, 생물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있다.

북극권은 아세아, 구라파, 아메리카 등 대륙을 련결하는 최단항로이며 군사, 경제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미제침략자들은 북극권대륙에 수많은 군사기지를 설치하고있다.

【기후】 기류와 해류의 영향을 받아 남극권보다 따뜻하다. 가장 추운철(1~3월)의 평균기온은 극 중심지대에서 령하 40°C, 대륙연안에서 령하 30°C이다. 가장 더운철(7—8월)의 평균기온은 극 중심지대에서 0°C, 대륙연안에서 5~9°C이다.

1년중 159일은 밤이 계속된다. 년평균강수량은 200~400mm인데 기온이 낮음으로 습도가 높다. 대기의 상태는 년중 불안정하여 기온의 변화를 일으킨다. 북극권의 얼음의 두께는 해마다 얇아지고 북빙양의 수위는 년간 10mm씩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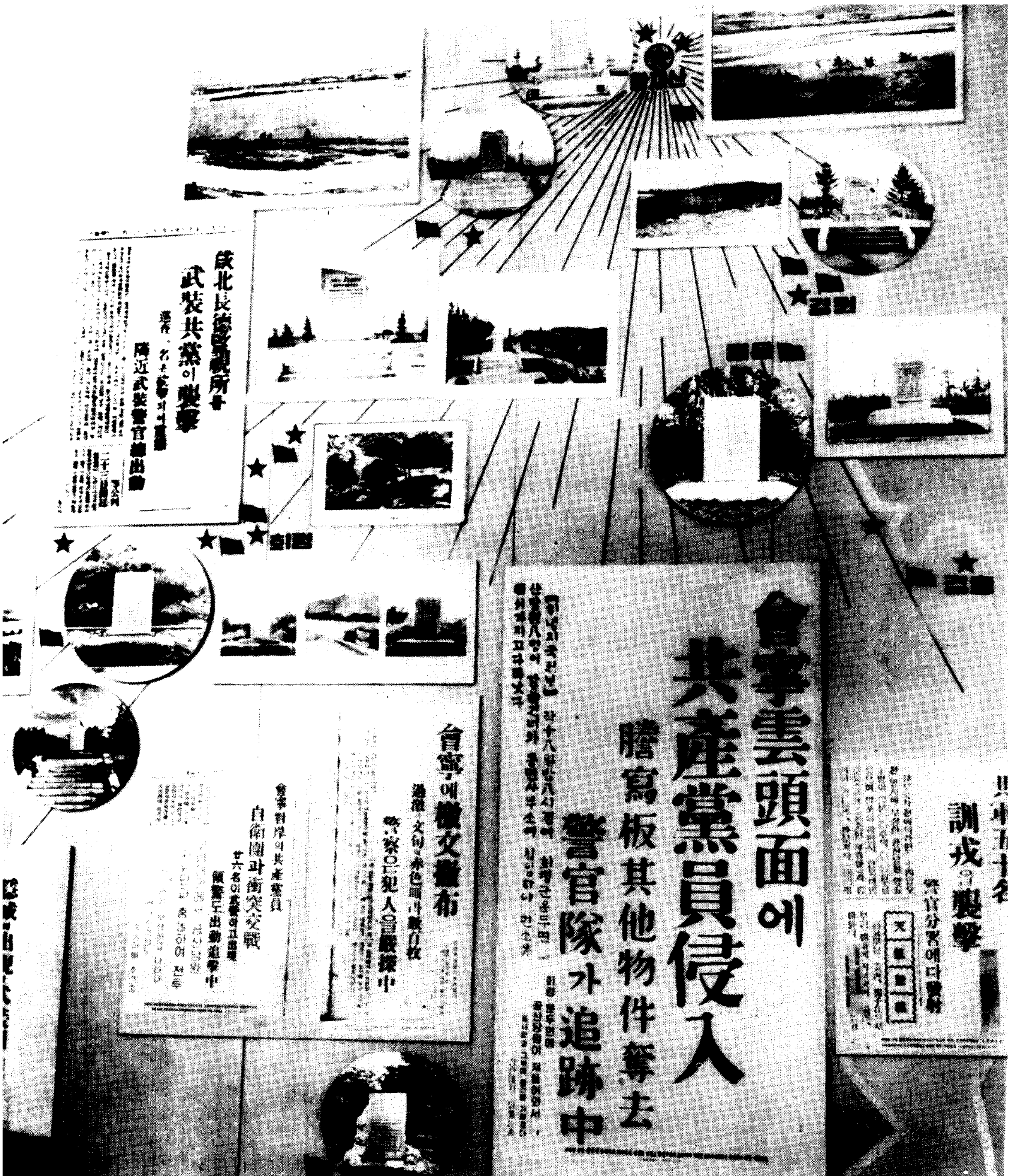
【주민】 약 12만명 있다. 동부씨비리와 알라스카로부터 카나다의 빵그바지방 및 그린랜드지방에는 에스키모족(약 4만명), 서부씨비리와 노바야제믈랴에는 싸모예드족(약 2만명), 동부씨비리에는 뚜크치족, 알라스카와 카나다 북쪽에는 아메리카인디안족, 북구라파의 북쪽에는 랍족이 산다.

【자원】 석탄, 석유 등의 자원이 많으며 쇠돌, 동, 금, 은, 백금, 주석 등도 있다.

남쪽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으며 륙지에는 백곰과 여우 등 털가진 짐승이 많이 산다.



자 료


武裝共黨이 襲擊
隣近武裝警官隊出動
會寧에 檄文撒布
警察은 犯人을 嚴探中
自衛團과 衝突交戰
會寧雲頭面에
共産黨員侵入
謄寫板其他物件奪去
警官隊가 追跡中
訓戒의 襲擊

주 요 문 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사회주의헌법기초위원회가 작성하여 제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초안)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토의하는것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을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분석총화하시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으며 새로 채택하여야 할 사회주의헌법의 본질과 특성, 기본내용을 밝히시고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과학적인 사상과 리론, 탁월한 전략전술을 집대성한것으로서 우리 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강령적지침이며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우리 인민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사상리론실천적무기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있으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 원칙들과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들이 정확히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법적으로 옹호하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 복무할 사명을 지닌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며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있으며 근로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있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헌법으로서 우리 나라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사회주의헌법기초위원회가 작성하여 제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초안)을 원안그대로 채택하고 오늘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한다.

1972년 12월 27일

남 북 공 동 성 명(요지)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이 회담들은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에서,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념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리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래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작은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

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련계를 회복하며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1972년 7월 4일

리념을 짓뭉으면서 남조선에서 파쑈통치체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계속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고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일침략세력이 또한 음으로, 양으로 조선문제의 자주적해결을 방해하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민주주의의 숭고한 리념을 구현하여 애국적인 각 당, 각 파와 각계각층 인민들의 거족적인 힘을 동원함으로써 내외반동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통일위업을 강력히 추진시켜 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조국통일의 민족적대업은 몇몇 특정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수 없다. 여기에는 집권당국자들만이 아니라 민족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로동자, 농민, 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이 모두 참가하여야 하며 남북조절위원회 사업과 적십자회담을 추진시킬뿐아니라 각계각층의 리익을 대표하는 각당, 각파가 다같이 통일위업의 성취를 위하여 각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하여 인민대중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모든 애국력량을 총동원함으로써만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장애를 타개하고 민족주체적인 힘에 의하여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는 이때에 남북의 각계각층을 망라하고있는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사명은 참으로 중대하다.

이 엄숙한 력사적시기에 즈음하여 우리는 조국통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기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치는것이 민족앞에 지닌 응당한 의무라고 간주하면서 이에 남북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를 가질것을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에 정중히 제의한다.

조성된 정세로 보아 이 회의는 될수록 빨리 열어야 할것이며 회의의 구체적인 의제와 시일 및 장소문제는 호상협의에 따라 결정할수 있을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호상 편리한 임의의 장소에서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을 가지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남북련석회의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무때나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접촉을 가질 준비가 되여있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념원하는 남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이 우리와 함께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운동의 앞장에 나서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협상제의에 긍정적인 호응이 있을것을 기대한다.

조선로동당, 조선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을 비롯하여 여러 사회단체들에서 남북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를 가질것을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에 제의하는

련 합 성 명

지난 7월 4일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우리 민족의 확고한 결의를 과시하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놓았다.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조국통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전례없이 커지고 평화통일기운은 급격히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뿐아니라 정계와 사회계에서도 남북공동성명을 하루빨리 실현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남북협상과 대화의 길을 집권당국자들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시키지 말고 각계각층, 각당, 각파들을 망라하여 폭넓게 개척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대두되고있다. 특히 일부 정객들은 남북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를 위하여 하루속히 평양을 방문하고싶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하여나서고있다.

또한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동시에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통일론의의 자유를 보장하며 광범한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통일위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우리는 이 모든 사태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과 각계 인사들의 정당한 주장과 노력을 열렬히 지지 환영한다.

우리의 민족적위업은 바야흐로 새로운 전환기에 처하여있으며 우리앞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시급한 해결을 기다리고있다.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외세의존을 종식시키며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나라의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통일을 보장하는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남북사이의 불신을 풀고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는 문제로부터 남북교류와 합작을 실현하고 서로 힘을 합쳐 실업자들을 구제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문제들은 참으로 많다.

이 모든 중대하고 절박한 문제들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합의하고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고 하여 저절로 해결되는것이 아니다.

민족적단결과 나라의 통일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친미, 친일, 민족반역자들과 반동분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의

아울러 우리는 이미 대화의 길을 터놓고 남북공동성명의 모든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 남북의 두 집권당국이 남북련석회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리라고 믿는다.

조선로동당
조선민주당
천도교청우당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불교도련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조선기자동맹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민주과학자협회
조선학생위원회

1972년 8월 19일 평양

우리 나라 각 분야의 근로자절과 공훈칭호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맡겨주시고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정확한 투쟁방향과 방도를 가리켜주시고 승리에로 고무하여주실뿐아니라 우리 근로자들이 달성한 적은 성과에도 못내 기뻐하시면서 높이 치하하시여 인민경제 각 부문 근로자들의 명절과 공훈칭호들까지 친히 제정하도록 해주시였다.

근로자들의 명절과 공훈칭호—이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신 높은 신임과 뜨거운 배려의 또하나의 표시로 된다.

기계절(2월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2월 20일 희천땅에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지펴주심으로써 우리 나라 기계공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기술혁명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으시였다. 기계절은 바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력사적인 그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72년 1월 13일 정령으로 제정한 기계공업부문근로자들의 명절이다.

농업근로자절(3월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문제해결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심으로써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념원을 풀어주시였다. 농업근로자절은 력사적인 그 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71년 3월 5일 정령으로 제정한 농업부문근로자들의 명절이다.

어부절(3월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7년 3월 22일 신포수산사업소를 찾으시고 우리 나라 수산업발전의 휘황한 전망을 밝히시는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어부절은 바로 력사적인 그 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62년 5월 23일 정령으로 제정한 수산부문근로자들의 명절이다.

식수절(4월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나라의 륭성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1947년 4월 6일 문수산에 오르시여 나무를 심으시면서 산림자원조성의 첫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식수절은 이 뜻깊은 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71년 3월 26일 정령으로 제정한 전군중적운동으로 되는 나무심기의 날이다.

철도절(5월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라고 하시면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이 부문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였으며 특히 1954년 5월 11일에는 전국철도부문 모범일군회의에서 철도운수사업발전을 위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철도절은 바로 이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63년 3월 18일 정령으로 제정한 철도부문근로자들의 명절이다.

지질탐사절(5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질탐사사업을 모든 부문에 앞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이 부문사업의 발전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였으며 특히 1961년 5월 15일에는 전국지질탐사부문일군협의회에서 지질탐사사업의 획기적발전을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교시를 주시였다. 지질탐사절은 바로 이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70년 2월 3일 정령으로 제정한 지질탐사부문근로자들의 명절이다.

건설자절(5월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무르익혀오신 조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1946년 5월 21일 몸소 보통강개수공사장을 찾으시고 그 첫삽을 뜨시였다. 건설자절은 이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71년 4월 30일 정령으로 제정한 건설부문근로자들의 명절이다.

지방산업절(6월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서와 인민경제발전에서 지방공업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1958년 6월 7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우리 나라 지방공업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지방산업절은 이 력사적인 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70년 4월 6일 정령으로 제정한 지방산업부문근로자들의 명절이다.

체신절(6월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7년 6월 28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사회주의적체신의 사명과 기능을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전신, 전화, 우편통신, 체신간부양성사업을 비롯한 체신부문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체신절은 바로 이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72년 1월 13일 정령으로 제정한 체신부문근로자들의 명절이다.

상업절(9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 9월 15일 전국상업일군대회에 친히 참석하시여 우리 나라 상업을 더욱 현대화, 문명화하고 인민에게 더 잘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상업,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상업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상업절은 바로 이 뜻깊은 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71년 11월 6일 정령으로 제정한 상업부문근로자들의 명절이다.

광부절(9월 셋째일요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채취공업은

생산의 첫 공정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앞세워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항상 광업과 석탄공업부문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광부절은 수령님의 이 부문 근로자들에 대한 두터운 신임과 기대, 그들의 로력적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반영하여 1957년 7월 5일 내각결정 제63호로 제정된 광산, 탄광 부문 근로자들의 명절이다.

전기절(9월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전기공업발전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조국에 개선하신지 며칠 되지 않는 1945년 9월 24일 몸소 전기부문일군들을 찾으시여 전력공업발전방향에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전기절은 바로 력사적인 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71년 9월 15일 정령으로 제정한 전기공업부문근로자들의 명절이다.

림업로동자절(10월 첫 일요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발전에서 림업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이 부문사업의 발전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을뿐만아니라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림업로동자절은 수령님의 이 부문 근로자들에 대한 두터운 신임과 기대, 그들의 로력적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반영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62년 10월 18일 정령으로 제정한 림업부문근로자들의 명절이다.

금속로동자절(10월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신후 고향만경대에도 들리시기전인 1945년 10월 9일 먼저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우리 나라 금속공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금속로동자절은 바로 이 력사적인 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70년 4월 17일 정령으로 제정한 금속공업부문근로자들의 명절이다.

륙해운절(11월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8년 11월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교통운수의 긴장성을 풀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륙해운절은 바로 이 력사적인 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72년 2월 26일 정령으로 제정한 륙해운수부문근로자들의 명절이다.

공군절(8월 20일);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마련하신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시여 1947년 8월 20일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첫 정규비행대를 창설하여주시였다. 공군절은 력사적인 이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72년 5월 20일 정령으로 제정한 조선인민군 공군들의 명절이다.

해군절(8월 28일);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무르익혀오신 정규적인민무력건설에 관한 사상에 기초하시여 1949년 8월 28일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어뢰정대를 몸소 조직하시고 현지에서 해군무력강화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해군절은 이 력사적인 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72년 6월 3일 정령으로 제정한 조선인민군 해군들의 명절이다.

방송절(10월 14일); 1945년 10월 14일은 조국에 개선하신 김일성동지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그이의 력사적인 연설을 해방된 새조선의 첫 전파에 담아 온 세상에 전하는것으로 우리 방송이 시작된 날이다. 방송절은 이 뜻깊은 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70년 10월 14일 정령으로 제정한 방송부문일군들의 명절이다.

출판절(11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혁명적출판보도사상과 혁명적출판물발간에서 이룩하신 풍부한 투쟁업적과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1945년 1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을 창간하여주시였다. 출판절은 뜻깊은 이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70년 12월 20일 정령으로 제정한 출판보도부문일군들의 명절이다.

학생절(10월 첫 일요일);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대들에 대한 교육교양문제는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매우 심중한 문제라고하시면서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학생절은 수령님께서 학생들에게 베풀어주신 또 하나의 크나큰 배려로서 1964년 9월 23일 내각사무국발 제319호에 의하여 제정된 학생들의 명절이다.

체육절(10월 둘째 일요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체육을 널리 발전시켜 전체 인민들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것은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체육사업을 대중화하여 체육을 생산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할수 있게끔 온갖 배려와 조건을 다 보장해주시였다. 체육절은 수령님의 체육사상을 구현하여 1949년 8월 2일 내각결정 제108호로 제정된 체육인들을 비롯한 전군중의 체육의 날이다.

공훈칭호

(공훈칭호명)	(제정날자)
공훈탄부	1954년 12월 11일
공훈광부	1957년 7월 29일
공훈어부	1962년 5월 23일
공훈류벌공	1962년 10월 18일
공훈운재공	1962년 10월 18일
공훈지질탐사원	1964년 2월 28일
공훈제염공	1964년 2월 28일
공훈용해공	1969년 12월 31일
공훈전력공	1971년 9월 15일
공훈뜨락또르운전수	1971년 1월 19일
공훈기계제작공	1972년 2월 16일
공훈자동차운전사	1972년 2월 16일
공훈선원	1972년 2월 16일
공훈기관사	1972년 4월 20일
공훈철길원	1972년 4월 20일
공훈철도수송원	1972년 4월 20일
공훈보이라공	1972년 4월 20일
공훈소성공	1972년 4월 20일
공훈사양공	1961년 1월 10일
공훈교원	1955년 3월 29일
공훈설계가	1970년 4월 28일
공훈기자	1971년 11월 29일
공훈방송원	1966년 7월 1일
공훈방송기계공	1972년 2월 7일
공훈통신공	1972년 2월 7일
공훈우편통신원	1972년 2월 7일
공훈도시관리공	1972년 4월 20일
공훈예술가	1952년 6월 4일
공훈배우	1952년 6월 4일
공훈체육인	1960년 11월 11일
공훈보육원	1962년 9월 20일
공훈의사	1961년 4월 28일
공훈약제사	1961년 4월 28일
공훈조산원	1965년 10월 22일
공훈간호원	1965년 10월 22일
공훈리발사	1971년 6월 22일
공훈료리사	1971년 6월 22일
공훈재단사	1971년 6월 22일
공훈판매원	1971년 6월 22일
공훈편의수리공	1971년 6월 22일
공훈접대원	1971년 6월 22일
공훈수매원	1972년 2월 26일
공훈량정창고원	1972년 2월 26일
공훈정미공	1972년 2월 26일
공훈식량공급원	1972년 2월 26일

우리 나라 명산물, 특산물(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좋고 물맑은 우리 조국땅우에 압박과 착취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풍만한 자원을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여 모든 인민들이 자유롭고 풍족하게 살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종국적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량과 소금마저 떨어진 처창즈에서 대원들이 거북한대로 그이께 드린 잊지못할 5.1절의 음식을 보시고 오늘의 개구리료리를 미구에 대동강의 숭어료리로 전환시키고야 말리라고 말씀하시더니 조국을 해방하신 첫 시기부터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명산물, 특산물 생산을 발전시켜 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의정으로 강계연필생산을 조직해주신 그때로부터 남으로는 개성인삼, 북으로는 혜산호프에 이르는 모든 명산물, 특산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고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풍만한 자원을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여 명산물, 특산물 생산을 몸소 조직지도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평양과 각도, 시, 군소재지마다에 지역별, 부문별 직매점들을 꾸리고 서로 경험을 나누게 하시였고 우리 인민들에게 풍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시였다.

국내외적으로 평이 좋고 명망이 높은 우리 나라 명산물, 특산물 중에서 먼저 과실, 남새, 생약, 수산물, 일부 경공업제품 30여개를 선택하여 먼저 편집하였는데 앞으로 계속하여 중공업과 경공업의것을 종합하여 주게 된다.

강계연필; 강계연필은 우리 나라 명산물의 하나다. 흑연매장량과 그 함유량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우리 나라의 연필들은 어느 지방의것이나 다 좋지만 강계연필은 그중에서도 더욱 좋다.

강계연필은 종이에 약간 대여도 잘 써지는데다가 웬만해선 부러지지(속심 강도 2배)않으며 그 품종이 다양(60여종)하며 어지간한 칼날도 잘먹어 쉬이 깎아져 언제나 사람들의 물망에 오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이 연필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연필이 나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에 배움의 열망에 불타는 어린이들을 생각하시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째의정에 연필문제를 내놓으시고 우리 나라의 첫 연필공장인 삼천리연필공장(1946. 6)을 몸소 세워주시였다.

또한 동부와 서부지방에 흑연광산들을 각각 개발하여주시였고 연필공장에 복무하는 채벌사업소도 내오라 하시면서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여 연필의 질을 높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1964년 4월에는 연필의 질을 높인 성과를 보시고 우리 손으로 좋은 연필을 만들게 되여 얼마나 좋은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수 있다고 높은 치하도 주시였다.

그리하여 해방전에는 연필공업이란 말조차 없던 우리 나라에서는 강계연필을 중심으로 각도마다 연필공장을 가지고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 대외시장에 많이 내보내고있다.

강계작약; 자강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 북쪽의 산들에는 아름다운 함박꽃이 많이 핀다.

자강도지방의 이 함박꽃을 두고 말하는 강계산작약은 우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좋은 보약재이다.

작약에는 적작약, 백작약(삼백작약, 가백자약)이 있는데 특히 강계를 중심으로 랑림 등지에서 나는 삼백작약은 우리 나라 특산물로서 약효가 대단히 높다.

작약은 주로 허약한 체질 회복, 병후 건강회복 등에 쓰이며 기타 질병전반에 쓰는 중요한 생약으로 그 가치가 아주 크다.

작약은 산에서 얻을수 있을뿐만아니라 공원과 유원지, 매 가정의 꽃밭에서까지 재배하여 꽃도 보고 생약으로도 리용할수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천연생약자원을 광범히 리용함과 동시에 인공적으로 많이 재배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리용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으며 그를 위하여 도처에 생약재배기지들을 꾸리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강계지방은 물론 황해북도 서흥, 린산을 비롯한 여러곳에 작약생산기지가 튼튼히 꾸려져 많은 작약을 생산하고있는데 실로 우리 나라는 가는곳마다 함박꽃이 피고 그것이 그대로 약재로 리용된다.

작약을 기본으로 한 여러가지 생약재로는 사물탕, 작약감초탕, 계비환, 쌍화탕, 조경정, 십전대보환, 종옥환, 익모환 등 수십종의 보약을 만들며 우황청심환과 해열제, 위장질환, 기생충병 치료약도 만들어 쓴다. 특히 백작약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 부인토니큼은 보혈강장지혈제로서 일반적으로 허약한 체질 특히 부인들의 산전산후, 몸쇠약회복과 식욕을 당기게 하는것, 신경쇠약회복, 정신병치료에 가치있게 리용하며 적작약을 기본으로하여 만든 조선고약도 종처, 림파선염치료에 효력이 크다.

구장칠색송어; 구장칠색송어는 우리 나라 명산물이다.

산 좋고 물 맑은 금수강산 어디서나 칠색송어들이 뒤넘이를 치지만 명산 묘향산이 뻗어내려 절승경개를 이룬 지하금강—동룡굴줄기에서 자라는 구장칠색송어는 천하 제일이라 일러준다.

구장칠색송어는 빨리 자라(2년생 평균 한마리 500그람) 정보당생산량이 60톤을 넘는다. 그리고 영양가가 높아 맛좋기로 으뜸가며 생산비가 적게 들어 더욱 좋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의 복잡한 나날에도 이곳을 찾으시고 구장은 칠색송어를 치는데 가장 적합한 지대이므로 양어장들을 대대적으로 늘여 인민들에게 많이 공급하라고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특히 진펄속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수렁속을 헤치시며 새끼고기와 엄지고기들을 키울 양어장터전을 잡아주시면서 사업소가 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를 을 일깨워주시였다.

그러나 갓자라난 칠색송어는 새끼를 한배도 까기전에 미제의 야수적 폭격과 만행의 시련을 겪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미제의 만행에 의하여 고기떼들이 완전히 몰살당하고

청천강열음밑에 숨어 겨우 살아남은 8마리의 칠색송어들을 살려내라고 친히 키워오신 양어기술자들을 보내주시였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수령님의 뜨거운 손길아래 8마리의 고기들을 엄지고기로, 종자고기로 자래웠으며 그후 북창, 직동, 홍원, 신창, 정주 양어장으로 새끼쳐나갔으며 오늘 우리 인민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만들고있다.

구장칠색송어와 구장양어장은 오늘 아세아칠색송어의 발원지로, 원종고기로 그 이름이 높다.

금강산백도라지; 백도라지는 우리 나라의 어디서나 자라지만 그중에서도 금강산의 백도라지는 민요에서 나오는것처럼 옛날부터 유명하다.

금강산백도라지는 우선 하도 커서 한두 뿌리만 캐여도 대바구니에 넘으며 약효가 높아 인삼의 팔촌이라 일러온다.

금강산백도라지는 가래와 기침을 삭이며 탱을 없애고 몸을 덥게 하며 원기를 돋구는 약재로서 다른 도라지에 비해 잔수염이 많고 꽃이 희며 매우 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적방법으로 황기, 백도라지, 창출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건강에 리롭게 쓰이는 약초들을 많이 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페지)

공화국정무원에서는 이 교시에 따라 금강산일대에 있는 고성군, 금강군, 창도군, 통천군에 생약관리소를 조직하였다.

생약관리소들에서는 해마다 금강산에 들어가 야생하는 백도라지들을 많이 캐면서 매해 10여정보씩의 백도라지를 심어 식용약재수요를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각지 제약공장들과 인민약국들에서는 껍질을 벗겨 해빛에 말린 백도라지(길경이라 부른다)를 리용하여 인후정, 패독산, 감길탕을 비롯한 여러가지 약을 만들어 공급함으로써 예방치료사업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곡산의 백도라지도 일러준다.

개성인삼; 오랜 옛날부터 우리 나라 개성인삼(고려인삼)은 약용식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약용으로 주요한 부분인 인삼뿌리의 형태는 일정하지 않으나 사람의 모양과 류사한것도 있다.

개성인삼에는 홍삼, 백삼, 탕삼 등 세종류가 있는데 품질이 대단히 우수하며 약효가 특별하다.

홍삼은 투명한 홍색빛을 띠는데 인삼뿌리를 그대로 한번 찐 다음에 말린것이며 백삼은 생뿌리를 직접 해빛에 말린것이며 탕삼은 생뿌리를 가마에다 삶은것이다.

개성인삼에는 0.05%내외의 향물질이 포함되여 있어 특유한 향기를 내며 수백가지의 보약제품으로 만들어져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돌려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삼, 호프와 같은것을 적지에 집중적으로 심고 그 생산량을 높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1페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성인민들을 미제와 리승만통치로부터 해방시켜주시였을뿐만아니라 지난날 착취자들이 독점하고있던 인삼을 널리 재배가공하라고 개성인삼농장과 개성인삼가공공장을 세워주시였으며 인삼보약의 품종을 대대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그대로 담은 사랑의 약초, 천년을 늙지 않고 사는 인삼을 생산하여 근로자들의 무병장수에 돌리고있다.

개성인삼으로는 인삼탕, 인삼정, 인삼주사, 인삼영양정, 인삼술속사탕, 보약사탕과 인삼술, 인삼소주, 삼로주, 삼백술 그리고 인삼크림, 인삼치약을 비롯한 수백가지의 가공제품을 만들어내고있다.

인삼꽃, 잎, 줄기들에서도 인삼성분만을 뽑아내여 인삼차, 인삼불로알약 등을 생산한다.

인삼은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케하며 보혈강장제 또는 흥분약으로 효능이 클뿐만아니라 빈혈, 로쇠, 신경쇠약 등에 특효가 있다.

원형홍삼, 원형백삼, 선려삼, 인삼탕을 비롯한 인삼가공품들과 인삼술을 비롯하여 인삼으로 만들어 낸 각종 술들은 그 모두가 품질이 높아 대외시장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 명산물인 인삼술은 국제적으로 두번에 걸쳐 높이 평가되여 금메달까지 받았다.

개성송도직; 송도직은 개성지방의 특산면직이다. 덕천항라, 웅진모시, 무산베도 좋았지만 특산면직중에서 개성송도직이 생산성이 높고 현대적미감에 맞아 제일이라 일러준다.

일명 송고직이라고도 부르는 송도직은 서로 다른 실 두 올을 꼬아 34—50번수의 실을 만들며 10센치메터당 날실 210—300올, 씨실 150—300올로 짜기때문에 매우 아름답고 탁탁하고 질기다.

검은색과 흰색, 진한 재색과 흰색실로 꼬아서 짠 송도직은 일반적으로 보기 좋고 질겨 여름학생복으로, 그밖의 다른 송도직들은 양복감으로 많이 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학정하에서 신음하던 개성인민들을 사회주의제도의 품에 안아주시였을뿐만아니라 놈들의 형무소자리에 현대적인 방직공장을 세워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현지지도의 나날 공장을 확장하고 설비를 증설하여 질좋고 아름다운 천을 더 짜서 인민들에게 공급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수공업적으로 천을 짜던 그들은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학교에서 기술을 배워 현대적인 설비로 송도직생산의 명수로 자라났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이 공장은 지난날 개성지방에서 일년동안 짜내던 송도직을 불과 반나절이면 만드는 대규모의 송도직생산기지로 발전하였다.

개성초물; 개성초물제품들은 개성지방의 특산일용품이다. 개성초물제품들은 그 모두가 탄탄하고 가벼울뿐만아니라 색갈이 곱고 꽃무늬가 실로 다종다양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

개성초물제품중에서 주단, 돗자리, 구럭, 방신, 방석, 바구니, 참빗, 부채를 일러주며 특히 목란꽃, 해금강, 인삼 등을 그린 꽃무늬가 대단히 아름다워 일용필수품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돋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원천과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근로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품들을 다종다양하게, 더 좋게 생산하여야 하며 경공업제품의 질에서 앞선 나라들의 수준을 빨리 따라잡아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17페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성시내의 어제날 개인상공업자들로 다양한 초물제품을 만들어내는 생산협동조합을 무어주시고 그들을 어엿한 로동계급으로 키워주시였으며 그후에도 참빗을 비롯한 세소일용필수품을 많이 생산하라고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미제와 리승만통치시기에는 실업자로 헤매던 그들이 오늘은

여러가지 초물제품을 만들어 기차와 자동차들에 싣어 전국각지로 보내고있다.

개성에서 생산되는 질좋고 다양한 초물제품들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공급되고있을뿐만아니라 방신, 구럭을 비롯한 수많은것들이 여러 나라들에 수출되여 개성특산품으로서의 명성을 떨치고있다.

개성화강석; 금은보화로 가득찬 우리 나라 개성에는 수백수천년을 두고도 다 캐쓸수 없는 땅속의 보물—화강석이 많다.

개성화강석은 굳고 탄탄하며 몇천년이 가도 부스러지거나 색이 변하지 않으며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유리처럼 얄른얄른 광택이 나므로 기념비적건물의 석재로 그 가치가 대단히 높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석재와 석비레를 가공할 대책을 세우며 지방자재들을 건설에 널리 쓰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16페지)

수령님께서는 미제와 리승만통치시기에 땅속에 묻힌 보물마저 썩고있던 개성땅에 정전후 새 화강석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주시였으며 1972년 9월 14일 또다시 찾으시고 화강석생산의 기계화를 적극 다그쳐 귀중한 석재를 주요건설대상에 많이 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개성화강석으로는 천연기념물의 계단돌, 판돌, 건늠길돌을 비롯한 수백가지 형의 석재연마품과 400, 500, 600각 등 수백가지 규격의 화강석건재품을 만든다. 또한 돌의자, 돌탁상을 비롯한 수많은 화강석일용품과 목란꽃화분, 갈매기화분을 비롯한 장식용조각품생산에 광범히 리용되며 뚝돌, 자갈, 잡석으로뿐만아니라 돌을 다듬는데서 나오는 돌가루는 금속제품의 연마제로도 쓰인다.

조선혁명박물관의 복도며 만수대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는 대계단돌, 옥류관, 평양역사, 체육관을 비롯한 기념비적건물의 곳곳에 개성화강석으로 된 석재연마품과 장식용조각품이 들어가지 않은데가 없다.

개성에서 나오는 석재연마품, 장식용조각품 등 수만톤의 화강석제품은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지역의 기념비적건물의 석재로 가치있게 리용될뿐만아니라 세계 여러나라들에 수출되여 높은 평을 받고있다.

개성봄무우; 개성봄무우는 개성특산남새이다.

밑둥아리가 항아리처럼 둥글고 웃부분이 잘룩하게 생긴 개성봄무우는 수확량이 높고 맛좋고 시원할뿐만아니라 질이 탄탄하여 오래동안 저장하여도 썩지 않고 본래의 맛을 그대로 낸다.

또한 자라는 기간이 짧고 장다리가 늦게 서므로 봄에 일찍 심고 5~6월에 수확하여 봄김치를 담그면 별맛(물기 93.8%, 단백질1.5%, 지방 1%, 탄수화물 2.7%)이 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부식물생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여러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하는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 472페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난날 부식물하나 변변한것을 먹지 못하며 살아온 개성사람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성지방을 봄무우를 비롯한 여러가지 채소생산기지로 튼튼히 꾸려주시였으며 남새밭에서 3~4모작까지하여 주민들에게 사철 남새를 떨구지 않고 공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개성에서는 봄무우를 비롯한 여러가지 남새가 해를 이어 풍작의 봄을 맞이하고있다.

개성지방사람들은 봄무우로 양념을 잘하여 봄김치, 깍두기 등을 담그며 그 밖에 국거리, 생채, 여러가지 료리재료를 하며 소금절임, 쌀겨절임, 말랭이를 만들어 부식물로 리용한다.

사람들이 인삼맞잡이라고 높이 이르는 개성봄무우는 오늘 개성지방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 전국 각지 특히 량강도에 해마다 몇천톤씩 공급하고있다.

남주고추; 자강도 강계지방의 남주고추는 수확이 높을뿐만아니라 가물을 이겨내는 힘이 강하여 산간지대에서도 잘 됨으로 산지대사람들의 조미료해결에서 큰의의를 가진다.

남주고추는 고유한 매운 맛을 내며 영양가(100그람당 277카로리)가 높아 고등어나 대구와 같은 물고기보다도 낫다.

마른고추에도 9.2%의 단백질, 12.1%의 지방, 30.8%의 탄수화물, 27.4%의 광물질, 그밖의 여러가지 비타민까지 들어있어 겨울김장양념감으로 많이 쓴다.

고추씨에는 기름성분이 많아 기름공장의 기본원료로 리용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고추와 같은 중요한 양념감과 다종다양한 남새를 우리 근로자들에게 떨구지 않고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산간지대협동농장 작업반마다 1정보씩의 고추를 심되 이른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겨울에는 온실에서 계단식으로 재배하여 사철공급할수 있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자강도 남주와 같은 산간지대에서도 평지대처럼 자기 지방에서 생산한 마른고추와 풋고추를 떨구지 않고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결과 어느 식료상점에서나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고추양념으로 새빨갛게 익은 김치며 맵고 좀 짭짤한 명란젓, 창란젓, 조개젓 그리고 고기고추장, 깨고추장, 오미자고추장, 들깨잎고추장, 감초고추장, 마늘고추장 등 여러가지 고추장들을 만들고있다.

녕변약산단; 녕변약산단은 우리 나라 명산직물이다.

고급비단천의 하나인 약산단은 다양하고 화려한 문양과 색갈의 조화로 하여 아름답기 그지 없다. 진달래꽃을 틀무늬로 하고 바탕을 가지각색으로 한 녕변의 약산단은 민족적정서가 흘러넘치고 빳빳한 감이 있으면서도 포근한 맛을 주는 비단으로서 처녀들의 옷감으로 이름이 높다.

이 고급비단천에는 인민들을 더 잘 입히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가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4년 6월 18일 진달래꽃무늬를 돋힌 문양천을 《약산단》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옛날부터 명주생산지로 알려진 이곳 견직공장을 확장하고 비단생산을 발전시킬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때로부터 2년후인 1956년 6월에 녕변견직공장을 또다시 몸소 찾으시여 현지지도하여주시였으며 이곳 비단전사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녕변견직공장은 견방직부문의 모체공장으로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오늘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약산단외에도 다색단, 색동단, 모본단, 법단, 금강주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고급비단천이 우리 나라 백화점과 상점들을 화려하게 장식하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의 의복단장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우리의 이 고급비단천은 국제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있다.

대동강숭어; 대동강숭어는 우리 나라 명산어족이다. 압록강숭어, 청천강숭어도 좋지만 대동강숭어는 예로부터 일러온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잊지 못할 1940년 5.1절에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들의 간고한 투쟁은 반드시 오늘의 개구리료리를 미구에 대동강의 숭어료리로 전환시키고야 말것이다. 이것은 의심할바 없는 하나의 진리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동강반에 있는 평양, 순천, 남포에 양어장들을 꾸려주시였고 유명한 대동강숭어들을 적극 보호하면서 많이 기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특히 숭어의 먹이원천이 매우 풍부할뿐만아니라 숭어새끼고기마련에 유리한 간석지양어를 대담하게 전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실로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이에 따라 숭어를 중심어족으로 삼고 이에 백년어, 화련어를 배합한 간석지양어장들이 대동강, 청천강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일대에 꾸려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한 대동강의 숭어잡이와 숭어료리를 전문하는 식당과 수산협동조합들을 내오고 인민들에게 잘 봉사하도록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숭어찜, 숭어회, 숭어국, 숭어회국수들을 대할때마다 잊지 못할 1940년 5. 1절에 하신 말씀대로 혁명적랑만에 차서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 나서고있다.

랑림만삼; 랑림만삼은 우리 나라 명산약초이다. 함경산줄기, 백두산줄기(마천령산줄기), 부전령산줄기의 만삼도 좋지만 랑림산줄기의 만삼은 예로부터 유명하다.

랑림만삼잎은 닭알모양이며 줄기는 2~3메터의 덩굴로 뻗어 7~8월에 종모양의 연한 누르푸른꽃이 핀다. 만삼은 그 뿌리가 하도 굵고 커서(길이 40~80센치메터) 한두뿌리만 캐여도 바구니에 차고 넘치며 약효가 특히 높아 보약재로, 인삼대용으로 쓰는 강장약재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서늘하고 양지바른곳을 좋아하는 만삼의 특성을 헤아리시고 강우량이 비교적 높은 랑림, 화평, 전천, 룡림 군마다에 생약관리소들을, 협동농장마다에 약초작업반(분조)들을 내오고 부대밭에 만삼을 많이 심도록 하시였다.

또한 현대적기술로 장비한 제약공장과 생약가공공장들을 세우고 만삼약품들을 통일적으로 생산공급하도록 배려해주시였다.

만삼을 주성분으로 하고 여러가지 약초로 만든 십전대보고는 자양강장제로서 기혈부족, 현기증, 병후쇠약등에 효력이 크며 또한 보혈강장제인 삼룡고는 일반허약과 병후쇠약, 심한 피로회복 등에 가치있게 쓴다.

민간에서는 엿으로 달여먹기도 하고 가루내여 꿀과 섞어서 쓰는 등 여러가지 보약으로 리용한다.

만삼술도 또한 호평을 받고있다.

문천한천; 문천한천은 우리 나라 명산물의 하나다. 한천은 공업과 과학의 발전수준에 따라 여러가지 균을 배양하는 약재집으로, 고급과자와 빵, 고급술과 청량음료를 만드는 식료품보조원료로, 고급천, 고급종이, 고급날염의 후처리원료로 쓰인다.

문천한천은 다른 한천들에 비하여 사용가치(강도 300그람 1센치메터)가 높으며 색갈(백색, 혹은 연한 회색)이 아름다와 국내외적으로 희귀한 원료이다.

문천한천역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서 세계적으로 몇 나라만이 생산하는 명산물로 발전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화가치가 높은 한천생산량을 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서해에서 굴치를 대대적으로 양식하여 한천원료를 해결하는 동시에 한천생산을 공업화하여 년중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한천원료들인 굴치(덩굴말), 싹싹이, 천초 자원이 풍부한 영흥만에 천해양식사업소를 내오시고 양식사업을 친히 조직해주시였다.

또한 한천원료산지가 가까운 문천에 대규모한천공장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한천생산을 공업화할수 있게 그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려주시였다.

그리하여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는 한천을 보지도 못하던 우리 인민들은 그것으로써 여러가지 고가약품과 고급식료품, 고급직물 등을 생산하여 리용할뿐만아니라 대외시장(한천 1톤당 1만파운드)에도 많이 내보내고있다.

부포곤포; 부포곤포(참곤포)는 우리 나라의 명산물이다. 신창곤포, 탁산곤포도 좋지만 부포곤포는 우리 나라의 참곤포중에서 으뜸간다.

부포곤포는 다른 곤포들에 비하여 비교적 크고 (너비 0.5메터, 길이 6메터) 맛이 좋아 부식물로 일러주고있을뿐만아니라 알긴산, 만니트, 요드 등의 제약원료로도 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부문일군들은 양식사업을 널리 조직하며 그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미역, 곤포, 해삼, 조개, 굴, 김 같은것을 더많이 길러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단행본, 28페지)

그이께서는 곤포생산적지인 부포에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천해양식사업소를 내오시고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보내시여 참곤포생산토대를 닦게 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양식공들과 함께 참곤포들이 찬물에서 자라는 생물학적특성을 살려 인공양식탕크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여름에 곤포씨를 받아 늦가을에 모를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이처럼 여름에 곤포씨를 받아 추운 겨울의 바다우에서 모를 내던 지난 기간의 양식방법이 개선된 결과에 양식공들이 고된 로동으로부터 해방되였으며 곤포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장성되였다.

그리하여 부식물의 수요로도 바빠 보장하던 부포곤포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하에 오늘 식료품, 제약, 대외시장의 수요도 충족시키는 우리 나라의 명산물로 발전하였다.

북청물파; 북청물파는 이른 봄철에 나는 북청지방의 특산남새로서 수확이 높을뿐만아니라 맛이 신선하고 향기로우며 땅과 습기를 가리지 않으므로 세상에 이름나고있다.

물파에는 1.5%의 단백질과 6%의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질, 칼슘, 비타민 등의 영양물질이 많다. 북청땅을 찾는 사람마다 물파를 별맛이라고 가져갔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먹일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현지지도의 나날 북청지방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북청의 물파재배경험을 적극 받아들여 전국에 일반화하며 전용 물파화차로 날라다가 각지에 공급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에 따라 그전날 풍산, 삼수 지방의 자갈밭에서 심던 산파는 북청지방의 남대천류역에서 100여년간 내려오면서 가꾸어 물파로 자라 오늘에는 논이 있는 모든 곳에서 심게 되였다.

그리하여 북청물파는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협동농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여 모든 인민들에게 풍족히 공급되고있다.

북청사과 《북청》; 북청사과 《북청》(국광)은 우리 나라 명산과일이다. 함흥사과, 안변사과, 숙천사과도 좋지만 국광중에서도 북청사과를 제일이라 일러주고있다.

사과 《북청》은 청색바탕에 붉은 줄무늬까지 있어 색갈도 곱고 수확이 높을뿐만아니라 단맛(당분 10~15%)과 신맛(0.3~0.8%)이 적절히 배합되여

있어 상쾌한 맛을 더욱 돋군다.

심은 후 5~6년이면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는 《북청》사과는 땅을 가리지 않으며 결실률이 높고 내병성, 내한성이 강하다.

그리고 열매껍질이 정도에 맞게 두터워 다음해 5~6월까지 오래동안 저장하며 인민들에게 공급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이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산을 리용하여 과수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2페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61년 4월 7일 이곳 북청군 룡전리에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우리 인민들을 전국의 야산을 일구워 과수원으로 꾸리는 투쟁에로 불러일으켜주시였다.

그리하여 정성이 갸륵하던 우리 할아버지들도 더는 어쩔수 없어 내버리던 43도의 급경사지 야산을 따라 이제는 해마다 1만톤이상씩의 《북청》을 쏟아주는 계단식과수원이 일어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북청확대회의 이후에 조성한 과수원에서 첫 사과들을 딸 무렵에는 많은 국가자금으로 지하식과 지상식 사과저장고들을 건설하도록 배려해주시였다.

또한 북청고등원예전문학교와 북청사과식료품공장을 세우게 하심으로써 북청지방을 우리 나라에서 으뜸가는 《북청》생산기지로, 과실가공기지로, 원예기술자양성기지로 꾸려주시였다.

그전날 제상에 놓을 사과를 구할길 없어 감자에 물감을 들이던 북청사람들은 오늘 사철 향기로운 《북청》을 우리 나라 각지에는 물론 대외시장에 공급하고있다.

백두산황기: 백두산황기(단너삼의 뿌리)는 우리 나라 명약초의 한가지다. 북부고산지대에서 나는 황기들이 다 좋지만 그중 백두산기슭의 개마고원에서 나는 황기를 제일이라 일러준다.

백두산황기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방의것에 비해 크고 약효(콜린, 베타인, 사탕, 포도탕)가 높아 인삼을 대신하는데 형태학적으로 볼때 뿌리가 길며 깃모양의 겹잎이 나며 노란꽃이 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적방법으로 황기, 백도라지, 창출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건강에 리롭게 쓰이는 약초를 많이 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페지)

개마고원내 산간군들에 조직된 생약분소들과 협동농장 약초분조, 작업반들에서는 야생단너삼뿌리를 많이 캐는 동시에 씨를 뿌리거나 모를 옮겨 심는 방법으로 황기를 대중적으로 재배가공하고있다.

각지 제약공장들과 인민약국들에서는 공급받은 황기를 빻아 쌍화탕, 십전대보고와 같은 보약이나 몸이 부은 임신부나 륵막염, 복막염에 걸린 사람들에게 좋은 리뇨제, 지한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약들을 만들고있다.

특히 민간에서는 앓고난 사람이나 기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황기닭고움을 해먹이는데 이때 황기는 인삼을 대신하여 보혈강장제기능을 수행한다.

사리원포도: 사리원포도는 황북도의 특산과실이다. 보통 심어서 2~3년이면 열매를 맺는 사리원포도는 어느 과일들보다 일찌기 여물어 생과로 공급하고있으며 또한 맛(당분함유량 15~30%)이 좋아 포도식료품(포도주, 포도통졸임, 포도시럽, 포도즙)원료로 쓸뿐만아니라 가물에 잘 견디고 거름독을 타지 않아 자갈밭이나 모래밭에도 심을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1년 4월 7일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처음부터 사과나무와 함께 빨리 먹을수 있는 포도, 복숭아, 살구 나무를 심고 잘 자래웠더라면 벌써 여러가지 종류의 과실들을 적지 않게 땄을수 있었을것입니다. 앞으로는 기후풍토에 알맞게 빨리 익는 과실과 늦게 익는 과실을 적절히 배합하여 재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29페지)

수령님께서는 포도를 비롯한 빨리 익는 과실과 늦게 익는 과실을 섞어 재배하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을 떨구지 않고 공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을 포도원건설에로 힘차게 불러주시였다.

사리원지방에서는 경사 15도미만에 포도원을 만들고 사과, 배, 살구 나무와 간작으로 포도를 배치하였다.

사리원지방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다량 생산되는 포도와 포도가공품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떨구지 않고 공급될뿐만아니라 수요가 높은 대외시장에도 나가고있다.

상원지황: 상원지황은 우리 나라 명약초의 하나이다. 황북도의 지황, 평남도의 지황, 평북도 지황도 약효가 좋지만 상원지황은 더욱 좋다.

상원지황의 뿌리는 굵고 길며 약효(만니트, 레마닌, 당분)가 높아 보약으로 쓰는데 형태학적으로 볼때 줄기와 꽃에 잔털이 많고 잎에 거친 주름과 둔한 톱이가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약초생산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3페지)

이 방침에 따라 상원지방에 지황재배를 전문하는 평양약초농장을 조직하는 한편 협동농장들마다 약초분조, 작업반들을 내오고 년년이 그 재배면적을 늘임으로써 국내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있다. 이른봄이나 늦가을에 캐는 상원지황의 뿌리는 생약가공공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건지황, 숙지황, 생지황으로 나눈다.

지황으로로는 쌍화탕, 십전대보고, 인삼토니큼, 록용토니큼, 보혈토니큼, 륙미고, 륙미환, 팔미환, 사물환 등의 보약을 만들어 강장제로 쓴다.

숙지황으로는 또한 각혈, 토혈, 자궁출혈의 피멎이약도 조제한다.

물에 씻지 않고 그대로 모래에 파묻어 둔 생지황으로는 기억력, 신기, 입맛이 없거나 나빠지는 사람들에게 특효가 있는 경옥고와 녀성들의 여러 가지 병에 좋은 부인토니큼을 만든다.

이처럼 예방치료약재로 들어가는 상원지황은 오늘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을뿐만아니라 중요한 외화원천으로 되고있다.

성천담배: 성천담배는 우리 나라 명산초이다. 우리 나라의 담배종류들인 조선종, 황색종, 백색종도 좋지만 성천종은 세계에서도 이름이 높은 고급담배이다.

성천담배는 정유성분이 많아 매우 향기로우며 담배색갈이 고와 평판이 좋으며 가꾸는 땅이 많아 우리 나라 담배생산량의 많은 몫을 차지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후가 담배재배에 유리하게 낮에는 더운 대신에 밤에는 서늘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조건을 타산하시고 그 재배면적을 대대적으로 늘이도록 하시였다.

또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국가자금으로 많은 건조장(담배밭1정보당 24평방메터의 건조실)과 양건장(담배 1톤당 600평방메터)들을 짓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리고 담배재각기, 담배권상기, 담

배입각기, 포장기들로 하나의 계렬을 형성한 현대적담배공장들을 꾸리도록 하심으로써 반제품생산에 불과하던 성천담배를 완제품생산으로 전환시키시였다.

일제시기에 값싼 원료략탈의 대상이던 성천담배는 오늘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재배, 건조, 가공에 이르기까지 집중화, 현대화된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국내의 대중적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대외시장에도 많이 내보내고있다.

신창송이버섯;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는 100여종의 먹는 버섯이 돋는데 그중에서도 함경남도 신창지방을 중심으로한 소나무숲의 산중턱에 돋는 송이버섯은 향기롭고 맛이 좋으며 영양가가 높으므로 예로부터 널리 알려왔다.

소나무숲에만 돋는다고하여 송이라고 부르는 이 버섯은 8~10월 소나무의 잔뿌리가 많이 퍼지는 시기에 거기에 붙어서 돋는데 버섯갓은 웃면이 밤색이고 평평하며 버섯자루는 둥근 기둥모양으로 되여있다.

신창의 송이버섯에는 단백질, 지방뿐만아니라 광물질 특히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 영양가 높은 부식물로서 가치가 크며 좋은 향미료로 되는 기름도 얻어낸다.

또한 구루병을 비롯한 여러가지 병과 항생치료에 효과가 크다.

신창과 양덕, 고성, 부령, 오로, 안변, 은률, 곡산, 녕변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협동농장들과 식료공장들에서는 버섯을 적극 채취리용하며 널리 재배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송이버섯을 많이 뜯어 맛있는 부식물을 만들뿐만아니라 인공적으로 널리 재배하여 신선한 버섯을 다량생산하고있다.

송이버섯으로 만든 각종 부식물과 통졸임은 영양가가 높아 소고기맛잡이라고 우리 근로자들속에서뿐만아니라 대외시장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끌고있다.

신창운단; 신창운단은 함남도지방의 특산물이다. 일부 지방에서 성게알젓이라고 하는 운단은 참성게알과 말성게알을 7~10%의 알콜과 소금으로 가공처리하여 담근 젓갈품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명란젓, 창난젓, 간유를 많이 만들며 또한 운단과 그 밖에 다른 조선사람들이 좋아하는 식료품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잘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431페지)

함남 신창운단은 영양가가 매우 높을뿐만아니라 자체의 고유한 색과 독특한 맛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있으므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신창운단에는 29%의 단백질과 9%의 지방, 그밖에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부식물로서의 가치가 대단히 높으며 약재로도 쓰인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보살핌속에서 신창에서는 운단으로 각이한 크기의 통졸임과 병졸임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공급하고있으며 수요가 높은 대외시장에도 내보내고있다.

신천배; 오랜 옛날부터 황해남도 신천지방을 중심으로 가꾸어 온 신천배는 우리 나라 명산과실의 하나로서 수확이 높을뿐만아니라 과실의 품질이 좋아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신천배에는 시원한 단물이 대단히 많다. 이 배에는 당분 6~15.7%, 산 0.7~0.9%, 단백질 0.3%, 그밖에 여러가지 성분이 포함되여있다.

과실살이 희고 맑아 특별한 맛을 주는 신천배는 생과로 리용될뿐만아니라 술, 시롭, 과실즙, 통졸임, 쨤을 비롯한 수십종의 가공품을 만드는데 널리 쓰인다.

또한 동약원료로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광범히 리용된다.

신천배나무는 비교적 땅을 가리지 않으므로 어떤 땅에서나 재배하여 높은 수확(정보당 최고 50톤)을 거둘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과, 포도, 복숭아와 함께 배나무도 많이 심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름없던 산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주신 이후에 곧 현대적기술로 장비한 과수농장을 세워주심으로써 신천을 이름난 배생산기지로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또한 많은 국가자금을 들여 여러가지 저장고와 파일가공공장들을 꾸리도록 이끌어주신 결과 사철 우리 근로자들에게 공급되고있을뿐만아니라 수요가 높은 대외시장에도 많이 내보내고있다.

신포명태; 신포명태는 우리 나라 명산어족이다. 길주명천명태, 고성통천명태도 별맛이지만 신포명태는 옛날부터 유명하다.

신포명태는 여름내 조선동해의 중부이북의 수역에 놀며 살다가 늦가을에 마양도어장에 모여드는 고기떼여서 어느 어장보다도 생산성(명태 총어획고의 70%)이 높으며 알을 쓴후 북으로 들어가거나 남으로 나가느라고 운동하기 전의것이여서 어느 시기 명태보다도 살과 알이 많으며 영양가(지방질, 단백질, 광물질, 비타민류)구성이 어느 고기보다도 풍부해서 종합적리용률이 높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명태의 종합적인 가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명태도 대가리와 꼬리를 자르고 나무통에 넣어서 깨끗한 소금을 치고 잘 절이면 맛이 좋습니다. 명태밸을 째서 밸젓을 담그고 알은 알젓을 담그면 이것도 모두 좋은 반찬으로 될수 있습니다. 이밖에 간, 고지같은것을 가지고도 매우 맛있는 반찬을 만들수 있습니다.》(《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단행본, 33페지)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명태를 《애국태》라고 하시며 신포지구에 많은 수산사업소들과 2개의 조선소외에도 1만톤냉동능력을 가진 물고기랭동공장, 현대적기술로 장비한 물고기통졸임공장, 신포, 양화, 륙대 수산사업소의 가공직장들, 간유정제공장, 간유식료사탕공장, 어분가공공장들을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않아 몸소 수산물가공전사들을 찾으시고 명태가공의 방향과 방도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면서 바다보다 더 깊은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리하여 생선과 얼군명태, 짝태와 고기떡, 명란젓과 창란젓, 간유와 간유째리, 간유알사탕과 비타민사탕, 인슈린과 젤라틴, 고기가루들이 쉼없이 쏟아져 나오고있다.

신포명란젓; 신포명란젓은 사람들의 구미를 끄는 우리 나라 명산물이다.

조선동해의 여러곳에서 명태가 많이 잡혀 명란이 나는곳도 그에 따라 많지만 특히 함경남도 신포지방의 명란은 고운알(미숙란)이 많고 영양가가 높아 우리 나라에서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명태는 살도 살이거니와 배속에 들어있는 명란이나 창난이 조선사람들의 구미에 더 맞는 좋은 식료품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431페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산부문일군들을 더 많은 물고기잡이에로 힘차게 불러주시였으며 신포지구를 세상에 손꼽

히는 수산물생산기지로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신포통졸임공장을 여러차례 찾으시고 해마다 많이 잡는 명태의 가공사업을 잘하여 명태내장을 모조리 리용하여 맛좋고 깨끗하고 값싼 명란젓을 비롯한 여러가지 가공품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넉넉히 공급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신포에서는 명란의 여문정도에 따라 고운알(미숙란)과 물알(완숙란)로 나누어 명란젓과 알밥을 비롯한 여러가지 가공품을 인민들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 공급하고있다.

명란에는 단백질 11~14%, 지방 2~2.5% 포함되여있으므로 수산물가공품들중에서 그 영양가가 아주 높다.

신포의 명란젓은 다른 젓갈품과는 달리 알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명란의 고유한 빛갈과 맛이 나므로 우리 나라에서뿐만아니라 대외시장에서도 평이 높다.

안변감; 안변(천삼)감은 강원도 특산감이다. 안변(천삼)감은 다른 지방의 감들에 비하여 씨가 없고 알이 굵고 맛(당분 17.6%)이 좋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감은 일반적으로 로력과 농약이 적게 들고 해거리현상이 없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과실품종이지만 열대식물이여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공화국북반부에 번창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천삼협동농장을 찾으시고 감나무를 많이 심어 앞뒤산을 붉은 감동산으로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이 교시에 따라 우선 사과나무와 함께 감나무모생산을 앞세우면서 해마다 전군중적운동으로 심어 군내 수백정보의 야산을 붉은 감동산으로 꾸리고 관리를 알뜰히 하여 한 그루에서 250키로그람, 최고 350키로그람의 감을 따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빛발아래 국가자금으로 많은 현대적양건장과 저장고를 짓고 감을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게 가공하고있다.

지난날 마당가에 한 그루의 감나무만 자래워도 지주놈이 열매를 독차지하여 감맛을 제대로 볼수 없었던이곳 인민들은 오늘 가을에는 생감, 겨울에는 홍시를, 봄, 여름에는 곶감(건시)을 만들어 먹고있으며 우리 나라 각지에는 물론 대외시장에도 내보내고있다.

그러나 한때 유명하던 남반부의 임실의 감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시책의 후과로 말미암아 그 수확량이 해마다 줄어들다가 아예 사라지고말았다.

안변우산; 안변우산은 우리 나라 특산품이다. 안변우산은 색갈과 무늬가 다양하고 선명하여 이것을 쓰는 사람들의 인품과 거리의 운치를 한층 돋구며 그 모양과 부분품이 과학적이여서 비바람을 잘 막으며 우산과 양산의 특성을 동시에 살려 어떠한 기후조건에서도 쓰기에 편리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산을 우리 나라의 기후와 계절, 우리 인민의 성별과 년령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비오는 날에도 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방공업공장으로 생산을 시작한 안변영예군인공장이 질좋은 우산을 만드는 사정을 헤아리시고 많은 국가자금을 들여 고속도재봉기와 자동사출기를 비롯한 최신설비들로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리도록 하시였다.

또한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영예군인들과 그 안해들이 만든 새 우산을 보시고 대대적으로 만들라고 고무하시면서 여러방직공장들에서 우산직생산과 후처리를 조직하여 적극 도와주게 하시였다.

하여 궂은 날씨에도 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색무늬우산이며 가정부인들에게 편리한 자동우산이며 출장과 려행에 편리한 접이우산을 비롯하여 12가지의 우산이 많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안변우산은 오늘 국내시장과 대외시장에서도 물망이 높다.

옹진김; 옹진김(참김)은 우리 나라 서해의 특산물이다. 옹진김은 영양가(카로티는 닭알의 2배)가 높고 크며(보통 너비는 15센치메터, 길이는 30센치메터) 향기롭다. 옹진김으로는 김밥, 김통졸임, 김병졸임, 김과자와 같은 여러가지 고급식료품을 만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부문일군들은 양식사업을 널리 조직하며 그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미역, 곤포, 해삼, 조개, 굴, 김 같은것을 더 많이 길러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단행본, 28페지)

수령님께서는 자연기후조건으로 말미암아 북반부에 김산지가 없는 사정을 헤아리시고 비교적 온화한 옹진반도에 김생산을 전문하는 천해양식사업소를 내오게 하시고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또한 많은 국가자금을 들여 해마다 김양식에 필요한 참대를 보장하도록 북반부에 참대재배사업소도 내오게하시여 김양식의 물질적조건을 훌륭히 마련해주시였다.

특히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자주 내려보내시여 양식공들과 손잡고 김양식과 김가공을 현대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김생산이 최근 10년간에 해마다 1.3배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그리하여 세계적인 김산지—조선에 살면서도 남북의 분렬로 말미암아 김고장이 없던 북반부인민들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여러가지 김식료품을 먹고있을뿐만아니라 대외시장에도 많이 내보내고있다.

정주왕밤; 정주왕밤은 특산밤이다. 정주왕밤은 영양가(녹말 40~60%, 당분 10~20%, 단백질 6~12%, 기름 5%)가 높고 밤알(개당중량 20그람)이 매우 크며 추위와 병해충에 잘 견디여 어떠한 기후조건하에서도 수확고가 높다.

평양밤의 일속에 속하는 정주왕밤은 영양가가 높아 암가루나 과자원료로 많이 쓰이며 나무무늬가 또한 고와 가구나 악기재료로 흔히 리용되며 나무껍질도 쓸모있어 물감이나 탄닌생산자재로 수요가 많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밤나무를 책임적으로 관리하면서 밤생산량을 높이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군에서는 왕밤이 정주행정지역을 중심으로 뻗어있는 실태조사자료에 근거하여 밤나무밭의 풀베기와 잡관목베기, 밤나무솎음을 잘하며 꿀벌을 놓아 밤나무의 수정률을 높임으로써 밤수확고를 올리였다.

결과 해방전에는 지주나 일부 특권층의 독점물이던 정주왕밤은 어버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어린이들의 젖대용암가루나 간식과자로, 관혼상제의 중요과실로, 철도상업의 주요품종으로 발전하였다.

조선대황; 조선대황(장군풀, 왕대황)은 우리 나라 명약초의 한가지다. 대황은 고산지대의 모든 군생약분소들과 협동농장 약초분조, 작업반들마다에서 다 재배하지만 생약부문에서는

크고 약효(에모딘, 크리소판산, 레인)가 높은 개마고원의 산대황을 으뜸이라 꼽아준다.

줄기의 속이 비고 보라색꽃들이 한데 엉켜 피는 산대황의 뿌리는 크게 덩이졌는데 쪼개보면 누른빛을 띤 붉은색이 나며 독특한 냄새를 풍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신환, 청심환, 패독산 같은 생약들은 위염이나 감기에 아주 잘 듣는 약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약공업이 발전하여도 이런 생약들의 생산은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페지)

일반적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을때, 체기를 받았을때, 위경련이 일어날때 잘 듣는 평신환은 바로 대황을 다른 생약들과 함께 주원료로 빚어낸 알약이다.

대황가루를 조금(0.1~0.3그람) 먹으면 위를 보하고 많이(0.3~2.5그람) 쓰면 설사하므로 건위약, 수렴약, 설사약을 만들어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쓰고있다.

개마고원내 생약분소들과 협동농장 약초분조 작업반들에서는 해마다 이른봄과 가을에 걸쳐 3~5년생 산대황뿌리를 캐여 잔뿌리를 다듬고 겉질을 벗겨 말리워 제약공장들에 보내고있다.

인공적으로 가꾼 대황뿌리도 역시 평신환, 건위약, 수렴약, 설사약의 원료일뿐만아니라 노란물감의 생산원료로 의의가 있으며 그 줄기는 먹는 나물로서 인민들의 수요가 높다.

청진조미낙지; 청진조미낙지는 우리 나라 명산물이다. 서호나 신포것도 맛좋지만 생낙지의 겉질을 벗겨 말리운다음 구워가지고 가늘게 찢어서 수요자의 구미에 맞게 맛을 붙인 청진조미낙지는 그중에서도 월등하다.

청진조미낙지는 어떤 수요자에게나 맛(20여종의 조미료를 붙임) 좋으며 크고(보통 한마리의 무게가 160그람이상만 가공) 빛갈이 고와 대외시장에도 많이 나간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낙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산물가공에서 질을 높이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맛좋고 깨끗하게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동해천리어장에 낙지떼가 한철에만 집중적으로 밀려드는 사정을 아시고 해마다 전군중적운동으로 조미낙지의 원료를 충분히 마련하게 하시였다.

또한 현대적인 랭동계통과 열풍계통을 갖춘 수산물가공공장을 청진에 꾸리게 하심으로써 낙지성어기에는 물론 겨울이나 봄철에도 질좋은 조미낙지를 정상적으로 만들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닦아주시였다.

그리하여 해방전에는 생낙지나 말린 낙지를 겨우 보던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랭동낙지나 조미낙지도 넉넉히 생산하고있을뿐만아니라 대외시장에 많이 내보내고있다.

태천옻; 태천옻은 우리 나라 명산물이다. 태천옻은 일반적으로 가구류들과 장식구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예물을 만드는데 쓰는 천연수지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는 도처에 옻나무가 자라고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평안북도 태천지방에서 자라는 옻나무에서 뽑아내는 옻은 광택도에 있어서나 그 강도에 있어서 어느 지방의것에 비하여 훨씬 높다.

이 옻으로 만든 가구류들과 장식구들은 오래 쓸수록 빛이 더 밝아지며 윤기가 더 도는데 이것이 인조수지보다 일러주는 독특한 우월성의 하나이다. 뿐만아니라 열과 습기를 잘 견디여 내며 옻그릇에 음식물을 넣어두면 그 음식물의 본맛을 돋구어준다. 이것은 쇠그릇은 물론 사기그릇에 비해서도 부식작용을 일정한 정도로 방지한다는것을 말해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태천군에는 옻나무가 많다고 하시면서 옻도 일본놈때는 다 그놈들이 뽑아갔지만 오늘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데 잘 보호하고 관리하며 옻을 리용하여 좋은 가구들과 장식구들을 만들어 인민들의 생활을 화려하게 해야 하겠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태천지방에서는 옻나무숲을 조성하며 잘 관리하는데 힘쓰고있으며 옻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내여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태천옻공예품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가구류들과 다양한 옻공예품들은 우리 인민들의 높은 사랑을 받고있으며 특히 만경봉, 금강산, 보통강, 들국화 등 무늬를 놓친 선물함과 매화, 포도, 코스모스 등 무늬의 귀중품함 등은 외국사람들의 물망이 매우 높다.

옻을 내자면 옻나무를 7~8년을 키워야 한다. 옻에는 특수한 독성이 있어 옻을 타는 사람들은 옻나무에 가까이에 가기만해도 해를 입는다.

옻은 약재로도 쓴다.

평양수예; 우리 나라의 수예는 예로부터 이름 높다. 그중에서도 청진과 원산, 해주와 개성의 수예품들이 유명한데 평양수예는 특히 평판이 좋다.

평양수예품들은 색조가 은근하고 품위가 고상할뿐만아니라 사상정서감이 매우 높으며 기법이 특출한것으로 일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적인것을 바탕으로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와 인민들의 정서에 맞게 수예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의 복잡한 나날에도 수예연구소와 수예품공장들을 꾸려주시면서 해마다 국가장학금을 주면서 수많은 연구생들과 수예공들을 양성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또한 재봉기, 수틀, 수놓이바늘을 비롯한 수예도구들과 선반을 비롯한 공무수리기지를 꾸리게 하심으로써 수예창작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건강장수를 축원하는 《송학》, 《해금강》, 《장고춤》, 《그네뛰는처녀》와 같이 예로부터 전해오는 그림들로 이불보, 책상보, 베개마구리 등의 수예품들을 만들어 우리 인민들의 일상생활을 아름답게 장식하고있다.

오늘 수예부문일군들은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할데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문예사상을 구현하여 《만경대》, 《백두산》, 《삼지연》과 같은 벽걸이, 병풍가리개 등의 다양한 회화수예를 많이 창작하고있다.

평양수예는 《남진의 길에서》, 《락동강의 할아버지》, 《남강마을의 녀성들》과 《혁명의 수도 평양》과 같은 혁명적대작까지 수놓아 근로자들의 사상정서교양에 이바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평양수예는 국내뿐만아니라 대외시장에서도 수요가 대단히 높다.

우리 나라에서 발표한 성명 및 외국과의 공동성명, 보도, 콤뮤니케일람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남조선당국자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반동적책동을 규탄하여 발표한 성명

1월 10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며 새 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1월 26일 조선학생위원회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른바 《대학생간첩단사건》과 관련시켜 체포구금한 남조선대학생들을 부당하게 처형하려고 책동하며 이를 반대항의하는 진보적학생그루빠에 대하여 횡포한 만행을 감행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2월 10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더 많은 남조선 로동자들과 인민들을 외국 독점자본가들과 농장주들에게 팔아먹으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2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우리의 무역대표단과 기술자들의 일본에로의 래왕을 허용하지 않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2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탄압만행을 준렬히 규탄하여 성명

3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남조선위정자들이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전쟁소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허위적인 기만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5월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반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5월 10일 조선중앙통신사는 공화국 북반부 령역에 들어왔던 남반부어민들을 돌려보냄과 관련하여 보도

6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일본반동들이 벌리고있는 정기국회에서 재일조선공민들의 제반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탄압말살하기 위해 《학교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한 악법을 조작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6월 20일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이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을 맞으면서 공동성명

6월 24일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평양시군중대회에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6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박해와 탄압책동이 우심해지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7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3대원칙에 기초하여 발표된 남북공동성명

7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방해하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7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총회를 앞두고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을 비롯한 많은 평화애호국가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의정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를 전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이 새로운 의정을 올해 유엔총회에 상정시킬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성명

8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표단 대변인은 본회담이 남조선측의 장애조성으로 열리지 못하게 된것과 관련하여 성명

8월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민주과학자협회는 남조선위정자들이 남북공동성명 발표후 남조선애국자들을 학살하는 엄중한 배신행위를 감행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8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측이 남북적십자단체들의 본회담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할 목적으로 이른바 《이북 5도중앙련합회 회장》이란 자를 자문위원명단에 끼워 넣은것을 항의하여 성명

8월 19일 조선로동당, 조선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을 비롯하여 여러 사회단체들에서 남북제정당사회단체련석회의를 가질것을 남조선정당, 사회단체들에 제의하는 련합성명

8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이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본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래왕, 체류하는 남조선측인원들의 신변 및 활동상 안전을 담보한다는 성명

8월 28일 평양시 녀성들과 어머니들은 남조선어린이들을 미제에 팔아먹는 남조선위정자들의 매족행위를 치솟는 민족적격분으로 규탄하여 항의문 발표

9월 7일 조선중앙통신사가 공화국 북반부 령역에 들어왔던 남반부어민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냄과 관련하여 보도

9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총회 제27차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를 토의할수 없게 하고 부당한 결의를 강압통과시킨것을 규탄하여 성명

11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범죄적책동을 더욱더 로골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12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법무성당국이 재일조선공민대표들에 대한 부당한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 지체없이 참가할수 있도록 그들의 재입국을 허가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담화발표

싸우는 나라 인민들을 지지하며 미제침략정책과 전쟁정책을 폭로규탄하여 발표한 성명

2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윁남문제의 해결에 관한 남부윁남공화 림시혁명정부의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2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윁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새로운 폭격만행을 단호히 규탄하여 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캄보쟈인민의 력사적유물인 앙코르고적들에 대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야만적파괴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3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윁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만행을 더욱더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3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제와 남부윁남괴뢰도당이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새로운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4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윁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발광적으로 확대강화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4월 10일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는 미제의 부추김에 요르단반동들이 팔레스티나인민과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새로운 책동을 꾸미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4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윁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을 대대적으로 감행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4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6차회의는 캄보쟈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5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공군 및 해군 무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윁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행위를 계속 발광적으로 감행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5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윁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크게 확대하는 발광적인 모험의 길에 들어선것을 규탄하여 성명

5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윁남민주공화국의 전역에 대한 야만적 폭격을 계속 대대적으로 감행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6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북부윁남의 모든 항구들을 봉쇄하며 윁남민주공화국 전지역에 야만적인 폭격과 포격을 더욱 미친듯이 감행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6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북부윁남의 모든 항구들을 봉쇄하고 주민지역들에 대한 련속적인 폭격과 포격을 미친듯이 감행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6월 21일 윁남에 대한 미제의 죄행반대투쟁조선위원회가 미제국주의자들이 윁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야만적인 폭격과 살륙만행을 미친듯이 감행하는 것을 규탄하여 성명

6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윁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야만적인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면서 침략전쟁을 더 확대하려고 광분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7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윁남민주공화국 전지역에 대한 야만적인 폭격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7월 8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가 윁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범죄적폭격만행을 단호히 규탄하여 성명

7월 11일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꾸바인민의 7월 26일무장봉기 열아홉돐에 즈음하여 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사촉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행위를 더욱 강화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7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윁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야만적인 폭격을 더욱 확대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8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윁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극히 야수적인 폭격을 준렬히 규탄하여 성명

8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제침략자들이 윁남민주공화국 전역에 대한 야만적인 무차별폭격을 감행하는것을 준렬히 규탄하여 성명

9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중근동지역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9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9월 11일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가 남부윁남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장내고 모든 정치적경향을 가진 세력들로 구성되는 림시적인 3파민족화해정부를 수립할것을 강경히 요구하여 발표한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10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이 윁남민주공화국의 수도 하노이에 대한 미제의 발광적인 폭격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10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캄보쟈의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미제의 야수적폭격만행을 규탄하며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외무성대변인의 10월 18일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성명

10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한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의 확고한 립장을 지지하여 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윁남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윁남민주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립장과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하여 성명

11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강도적침략책동을 규탄하며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외무성대변인의 11월 15일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성명

11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파키스탄이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으로부터 정식탈퇴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성명

11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윁남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지연시키면서 침략전쟁을 더욱 미친듯이 강화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12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제가 《평화》의 간판밑에 윁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계속 강화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12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미 합의한 《윁남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회복할데 관한 협정》에 조인하기를 거부하면서 살륙전쟁을 미친듯이 감행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우리 나라와 외국과의 사이에 발표된 공동성명, 보도 및 공동콤뮤니케

1월 25일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대표단과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대표단 사이의 공동성명

2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방문 결과에 대한 공동보도

2월 17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대표단의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

2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

2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의 구바공화국 방문에 대한 공동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2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

2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의 뽈쓰까인민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

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콤뮤니케

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쏘련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

2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의 이라크공화국 정부대표단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3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웽그리아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방문에 대한 공동보도

3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친선대표단의 시에라 레온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콤뮤니케

3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애급아랍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

3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잠비아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콤뮤니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회그루빠대표단의 핀란드방문과 관련한 공동콤뮤니케

3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몽골인민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

3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과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5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캄보쟈왕국의 공동성명

5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의 공동성명

6월 6일 이란인민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결과에 관한 공동보도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 대표단과 일본공명당 대표단사이의 공동성명

7월 27일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대표단과 일본사회당 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대표단 사이의 공동성명

7월 28일 메히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아르놀도 마르띠네스 베루두고동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대한 공동콤뮤니케

8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예멘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9월 12일 쏘련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대한 공동보도

핀란드공화국 의회그루빠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일본과 조선의 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10월 12일 조선기자동맹과 뻬루기자련맹간의 공동콤뮤니케

10월 31일 도미니까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대한 공동보도

핀란드공화국 인민민주주의련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11월 11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무역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

11월 16일 일본교직원조합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11월 20일 조선로동당과 에스빠냐공산당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11월 21일 뻬루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대한 공동보도

11월 24일 아르헨띠나공산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결과에 관한 공동보도

1972년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대표단들의 왕래일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굳게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와

명운동의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인 사회주의력량과 모든 반제력량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국제적권위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적위신은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세계 이르는곳마다 우리를 지지하며 동정하는 혁명동지들과 벗들의 대렬은 수없이 늘어나고있다.

세계 혁명동지들과 벗들은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존경을 표시하면서 그이를 만나뵈옵는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와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것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지어 서방자본주의나라들까지도 우리 나라와 접촉하고 래왕하자고 하면서 점차 관계를 개선하는 길에 들어서고있다.

이해에 우리 나라는 820개의 대표단들을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 파견하였으며 다른 한편 우리 나라 방문을 희망하는 1,450여개의 다른 나라 대표단들을 받아들였다.

전례없이 확대되고 빈번한 대표단들의 래왕관계를 통하여 우리 인민들과 세계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와 전투적련대성을 더욱 강화발전시켰다.

아래에 이해에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대표단들의 왕래의 일부를 날자별로 소개한다.

우리 나라 대표단 다른 나라 방문

칠레공산당창건 6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조선로동당대표단(1월)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제5차 대회에 참가하는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대표단(1월)

쏘련 방문 우리 나라 과학기술대표단(1월 11—27일)

중국 방문 우리 나라 기계공업대표단(1월 12일—2월 4일)

애급아랍공화국 방문 조선작가, 예술가대표단(1월)

중국 방문 우리 나라 체육대표단 (1월)

일본 삿뽀로에서 진행되는 제11차 동기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올림픽위원회대표단과 우리 나라 올림픽선수단(1월19일—2월 25일)

애급아랍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영화대표단(1월)

중국 방문 우리 나라 수산대표단 (1월)

중국 방문 조선인쇄공업기술대표단 (1월 5일—2월 11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방문 평양피바다가극단(1월 26일—2월 8일)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1월 28일—2월 22일)

중국방문 우리 나라 축구선수단 (1월 28일—3월 17일)

쏘련 방문 우리 나라유술선수단(2월 3일—22일)

꾸바 방문 우리 나라 공학과학원대표단(2월 8일—3월 8일)

꾸바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2월 11일—18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2월 10일—15일)

로므니아방문 평양피바다가극단(2월 8일—23일)

중국 방문 우리 나라 남녀배구선수단(2월 11일—3월 24일)

조선몽골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과학기술협조대표단(2월 12일—3월 3일)

프랑스방문 우리 나라 평양만수대예술단(2월 12일—3월 8일)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2월 14일—17일)

말리공화국방문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2월 15일—20일)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2월 15일—17일)

로므니아전국농업생산협동조합동맹 제2차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농근맹대표단(2월 16일—3월 2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2월 18일—22일)

이라크전국학생동맹 제9차정기대회에 참가하는 조선학생위원회대표단 (2월 18일—3월 8일)

수리아아랍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2월 18일—21일)

뽈스까인민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2월 21일—25일)

기네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2월 21일—25일)

쏘련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2월 22일—26일)

아련 까히라 제5차국제전람회개막식에 참가할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2월 23일—3월 8일)

꾸바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구선수단(2월 22일—4월 21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2월 15일—22일)

이라크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2월 22일—23일)

쏘련 방문 평양피바다가극단(2월 23일—3월 7일)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2월 22일—27일)

웽그리아인민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2월 25일—3월 1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2월 26일—3월 1일)

로므니아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 5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로동청년신문사 기자대표단(2월 29일—3월 28일)

시에라 레온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2월 25일—3월 4일)

버마 방문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2월 21일—29일)

인도네시아 방문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2월 29일—3월 9일)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2월 27일—3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의 특사 까메룬련방공화국 방문(2월 26일—3월 3일)

애급아랍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2월 28일—3월 6일)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3월 6일—10일)

부룬디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3월 3일—9일)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3월 4일—10일)

스위스 방문 평양만수대예술단(3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라이프찌히 봄철시장개막식에 참가할 우리 나라정부대표단(3월 8일—28일)

이딸리아공산당 제13차대회에 참가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3월 11일—28일)

핀란드, 스웨리예, 노르웨이, 단마르크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회그루빠대표단(3월 11일—26일)

잠비아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3월 11일—18일)

싱가포르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

부친선대표단(3월 9일—13일)
쏘련 방문 우리 나라 정부통상대표단(3월)
꾸바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통상대표단(2월)
몽골 방문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3월 14일—20일)
기네근로자전국련맹 제6차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3월 14일—4월 4일)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방문 김일성종합대학대표단(3월 14일—4월 11일)
벌가리아직맹 제7차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3월 5일—14일)
웽그리아인민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남자롱구선수단(3월)
중국 방문 우리 나라 탁구협회대표단(3월 12일—21일)
쏘련직맹 제15차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3월 19일—31일)
쏘련방문 우리 나라 기자대표단 (3월 19일—4월 4일)
제20차 뮨헨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 대회조직위원회와 련락임무를 수행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아따쉐(3월)
수리아 방문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3월 21일—4월 9일)
꾸바 공청 제2차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3월)
네팔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3월 17일—24일)
라오스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3월 22일—27일)
칠레 방문 우리 나라 무역대표단 (3월)
뻬루 방문 우리 나라 무역대표단 (3월—4월)
수리아아랍공화국 방문 조선로동당대표단(4월 3일—18일)
이라크공화국 방문 조선로동당대표단(4월 1일—18일)
사회주의나라려행사 제11차회의에 참가하는 조선국제려행사대표단(4월)
이라크녀성총동맹 제4차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4월 18일—5월 16일)
벌가리아조국전선 제7차대회와 웽그리아애국인민전선 제5차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조국전선대표단(4월 19일—5월 3일)
국제민주녀성련맹리사회회의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4월 19일—5월 8일)
근로녀성문제에 관한 세계직련 제3차회의에 참가하는 조선경공업로동자직맹대표단(4월 19일—5월 8일)
수리아전국학생동맹 제5차대회에 참가하는 조선학생위원회대표단(4월 19일—5월 16일)
쏘련 방문 우리 나라 남자체조선수단(4월 19일—5월 9일)
중국 방문 우리 나라 남자롱구선수단(4월 21일—5월 16일)
로므니아에서 진행되는 5.1절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4월 27일—5월 16일)
꾸바에서 진행되는 5.1절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4월 27일—5월 16일)
수리아에서 진행되는 5.1절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4월 27일—5월 23일)
중국에서 열리는 새아세아탁구련맹조직을 위한 준비회의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탁구협회대표단(4월 28일—5월 16일)
쏘련에서 진행되는 5.1절경축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4월 29일—5월 9일)
이라크에서 진행되는 5.1절경축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 (4월 27일—5월 16일)
알제리에서 진행되는 5.1절경축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4월 27일—5월 9일)
시에라 레온 전국녀성대회 제3차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5월)
벌가리아에서 진행되는 국제예술체조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예술체조선수단(5월 2일—16일)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열리는 제9차 세계요술축전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요술단(4월)
벌가리아에서 진행되는 제6차국제광부직맹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5월 10일—23일)
기네민주당창건 스물다섯돐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5월 10일—23일)
벌가리아 방문 우리 나라 축구선수단(5월 6일—6월 3일)
꾸바 방문 우리 나라 야구선수단(4월)
웽그리아에서 진행되는 국제운수항만 및 어업로동자직맹행정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5월 10일—23일)
쏘련삐오네르단체창립 쉰돐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조선소년지도일군대표단(5월 10일—23일)
쏘련 방문 조선건축가동맹대표단(5월 10일—6월 4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열리는 사회주의나라군대 속도권총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조선인민군선수단(5월)
로므니아 친선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대표단(5월)
벌가리아 방문 우리 나라 레스링선수단(5월 12일—6월 2일)
로므니아 방문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5월 16일—6월 6일)
로므니아 방문 우리 나라 통상대표단(5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진행되는 국제권투경기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권투선수단(5월)
뽈스까 방문 우리 나라 기관차남녀탁구선수단(5월)
벌가리아지미뜨로브공산주의청년동맹 제12차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5월 19일—6월 6일)
이란에서 진행되는 제20차 올림픽대회 아세아지역축구3조예선경기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축구선수단(5월)
중국 방문 우리 나라 운수대표단(5월)
이라크 방문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5월)
쏘련에서 진행되는 국제궁술경기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궁술선수단(5월 23일—6월 6일)
쏘련 방문 우리 나라 활공기선수단(5월 23일—6월 30일)
체스꼬슬로벤스꼬, 뽈스까 방문 우리 나라 체육선수단(5월—6월)
몽골인민공화국 대인민후랄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장의식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5월 22일—25일)
국제아랍로조련맹 제5차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5월 23일—6월 6일)
벌가리아에서 열리는 사회주의국가농업부문 과학토론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농업과학자대표단(5월)
몽골혁명청년동맹 제16차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6월)
웽그리아에서 진행되는 청년, 교원문제에 관한 국제직맹회의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6월 5일—16일)
체스꼬슬로벤스꼬 직맹 제8차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6월 6일—24일)
쏘련 방문 조선영화인동맹대표단 (6월)
체스꼬슬로벤스꼬, 쏘련 방문 조선공업기술총련맹대표단(6월 6일—7월 7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방문 조선로므니아친선삼봉협동농장대표단(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자동조절련맹 제5차대회에 참가하는 조선공업기술총련맹자동학협회대표단(6월)
벌가리아에서 진행되는 지미뜨로브탄생 아흔돐기념경축행사에 참가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6월 14일—24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정조치 세돐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6월 16일—7월 1일)

웽그리아 방문 우리 나라 모형항공선수단(6월 13일—7월 14일)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집단체조대표단(6월 13일—11월 17일)

조선체스꼬슬로벤스꼬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6차회의에 참가하는 우리측 대표단(6월 19일—7월 4일)

자유독일직업동맹 제8차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6월 20일—7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6월 23일—7월 18일)

알제리독립 열돐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6월 30일—7월 12일)

알제리독립 열돐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6월 27일—7월 20일)

국제 독일어교원과학토론회에 참가하는 김일성종합대학교원대표단(6월 27일—8월 11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대표단(7월 3일—10일)

뿔스까인민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7월 10일—18일)

스웨리예사회민주청년동맹 제20차대회에 참가하는 사로청대표단(7월)

외국석유독점회사를 반대하는 이라크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열리는 국제직맹회의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7월 11일—29일)

꾸바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7월 18일—8월 5일)

쏘련 방문 우리 나라 전기설비전람회견학단(7월 11일—26일)

탄자니아에서 열리는 전아프리카녀성대회창립 열돐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7월 14일—8월 7일)

체스꼬슬로벤스꼬의 까를로비 바리에서 진행되는 제18차국제영화축전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영화대표단(7월 18일—8월 8일)

로므니아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나라친선청소년축구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청소년축구선수단(7월)

로므니아 방문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7월)

버마 방문 조선기자대표단(7월 26일—8월 19일)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제20차올림픽경기대회아세아지역남자배구예선경기에 참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자배구선수단(7월)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나라 청소년롱구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청소년남자롱구선수단(7월)

국제건축가동맹 주택실무기관대표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건축가동맹대표단(7월)

웽그리아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권투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청소년권투선수단(8월 1일—18일)

팔레스티나교원련맹 제1차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8월 1일—9월 1일)

쏘련 방문 조쏘친선공장대표단(8월)

서독에서 진행되는 제20차 올림픽경기대회 아세아지역 남자롱구경기에 참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남자롱구선수단(8월)

웽그리아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륙상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청소년륙상선수단(8월 4일—25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배구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청소년남자배구선수단(8월 4일—9월 1일)

벌가리아에서 열리는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체조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청소년체조선수단(7월—8월 4일)

로므니아에서 열리는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녀자배구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청소년녀자배구선수단(8월 9일—9월 12일)

몽골에서 열리는 제2차 아세아, 아프리카녀성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8월 9일—25일)

가이아나 방문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8월 11일—9월 4일)

웽그리아에서 열리는 제38차 국제도서관협회련맹총회에 참가하는 조선도서관협회대표단(8월 12일—9월 29일)

제20차뮌헨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올림픽대표단(8월 14일—9월 14일)

중국에서 진행되는 제1차아세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탁구선수단(8월 19일—9월 19일)

몽골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나라 군대들사이의 제11차 군사3종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조선인민군 군사3종경기선수단(8월)

웽그리아에서 열리는 제36차 국제문화련맹회의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과학기술통보대표단(8월)

사회주의국가 농업및산림부문 파학사업조정위원회 제10차총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농업파학자대표단(8월)

소말리아 방문 우리 나라 기자대표단(8월 22일—10월 1일)

쏘련에서 열리는 제5차 국제공무원직맹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8월 22일—9월 12일)

쏘련 방문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8월 22일—9월 5일)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열리는 국제농업, 림업 및 재배로동자직맹지도위원회 제21차회의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농업근로자동맹대표단(8월)

중국에서 진행되는 제1차아세아탁구련맹총회에 참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탁구협회대표단(8월 23일—9월 19일)

체스꼬슬로벤스꼬 방문 우리 나라 녀자롱구선수단(8월)

웽그리아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카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청소년카누선수단(8월 22일—9월 8일)

쏘련 방문 조선미술전람회대표단(8월)

로므니아에서 열리는 제7차 국제광업대회에 참가하는 조선공업기술총련맹광업협회대표단(8월 26일—10월 6일)

몽골 방문 평양교예단(8월 27일—9월 21일)

알제리, 수리아,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방문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8월 29일—10월 10일)

벌가리아 방문 우리나라정부통상 대표단(8월)

칠레 공청 제7차대회에 참가하는 사로청대표단(8월)

일본기계학회 제2차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과학기술교류협회대표단(9월2일—22일)

벌가리아에서 열리는 국제건축가동맹 제12차총회와 제11차세계대회에 참가하는 조선건축가동맹대표단(9월)

파키스탄, 애급 방문 우리 나라 예술단(9월)

쏘련 방문 조쏘친선협회대표단(9월 5일—19일)

몽골 방문 조몽친선협회대표단(9월)

핀란드 방문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9월 5일—26일)

중국 방문 우리 나라 기상수문국대표단(9월 6일—29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열리는 라이프찌히가을철시장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기자대표단(9월 5일—10월 6일)

토이기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아세아아프리카보험 및 재보험련맹 제3차총회에 참가하는 조선국제보험회사대표단(9월)

로므니아 방문 우리 나라 2.8남자롱구선수단(9월)

스리랑카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9월 10일—19일)

웽그리아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9월 10일—19일)

로므니아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9월)
수리아근로자로동조합총련맹 제17차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9월)
웽그리아 방문 조선웽그리아친선협동농장대표단(9월 10일—10월 6일)
쏘련 방문 조선영화대표단(9월)
애급 방문 조선영화대표단(9월)
웽그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방문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9월 19일—10월 10일)
국제기자동맹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는 조선기자동맹대표단(9월 19일—10월 10일)
프랑스 방문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9월 19일—10월 10일)
민주독일,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방문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9월 22일—10월 24일)
일본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대표단(9월 26일—10월 20일)
유고슬라비아방문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9월)
뽈스까 방문 우리 나라 륙운및해운성대표단(9월)
중국 방문 우리 나라 농업과학자대표단(9월 27일—10월 31일)
쏘련 방문 조쏘친선협회대표단(9월)
세계평화리사회 상무위원회에 참가하는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대표단(9월)
꾸바 방문 우리 나라 건축가대표단(9월 26일—11월 10일)
체스꼬슬로벤스꼬 방문 우리 나라 로동자신문사대표단(9월 26일—10월 27일)
중국 방문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9월 29일—10월 27일)
중국, 쏘련, 로므니아 방문 우리 나라 은행대표단(8월—9월)
중국 방문 우리 나라 문화대표단(9월 29일—10월 27일)
쏘련 방문 사로청출판사기자대표단(10월)
몽골국립종합대학창립 서른돐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김일성종합대학대표단(9월 30일—10월 13일)
第10次세계청년학생축전국제준비위원회 제2차회의에 참가하는 사로청대표단(10월)
수리아, 이라크 방문 우리 나라 기자대표단(10월)
체스꼬슬로벤스꼬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9월 26일—10월 2일)
뽈스까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10월 3일—20일)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10월 9일—14일)
칠레농민및원주민련맹《란길》 제4차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농근맹대표단(10월 5일—24일)
인도지나에 대한 미국의 범죄조사국제위원회 제3차회의에 참가하는 월남에 대한 미제의 죄행반대투쟁조선위원회대표단(10월)
중국 방문 우리 나라 지질대표단(10월 6일—10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방문 김일성종합대학교원대표단(10월 7일—12월 2일)
소말리아혁명승리 세돐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10월 12일—11월 7일)
체스꼬슬로벤스꼬와 로므니아 방문 평양의학대학교원대표단(10월)
소말리아혁명승리 세돐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정부및군사대표단(10월 16일—25일)
애급 방문 우리 나라 정부및군사대표단(10월 14일—17일)
벌가리아 방문 우리 나라 농업과학원대표단(10월)
알바니아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10월 17일—11월 10일)
로므니아 방문 우리 나라 빙상혹케이선수단(10월)
쏘련 방문 김책공업대학자동화공학교원대표단(10월)
로므니아 방문 화학부문교원대표단(10월)
세계직련뷰로 제6차회의와 세계직업련맹총리사회 제22차회의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10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10월)
쏘련 방문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10월)
뽈스까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유술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청소년유술선수단(11월 1일—12월 15일)
중국 방문 우리 나라 과학원대표단(10월 25일—11월 17일)
로므니아 방문 《로동신문》기자대표단(11월)
우간다 방문 우리 나라 정부및군사대표단(10월 28일—11월 4일)
칠레에서 진행되는 라틴아메리카녀성쎄미나르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10월 17일—11월 6일)
쏘련에서 열리는 세계근로청년 상봉모임과 세계민청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는 사로청대표단(11월)
버마 방문 우리 나라 정부친선문화대표단(11월 10일—21일)
뽈스까 방문 우리 나라 정부통상대표단(11월)
체스꼬슬로벤스꼬 방문 우리 나라 정부통상대표단(11월)
기네에서 진행되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물리친 승리의 날 두돐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11월)
일본 방문 국제무역촉진위원회대표단(10월 7일—11월 14일)
칠레방문 조선로동당대표단(11월 21일—12월 19일)
몽골방문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11월 21일—28일)
쏘련방문 평양시인민위원회대표단(11월 21일—12월 2일)
쏘련에서 열리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뷰로회의에 참가하는 조선민주법률가협회대표단(11월)
쏘련방문 조선음악가동맹대표단(11월 20일—12월 5일)
월남 방문 조선기자대표단(11월 15일—12월 15일)
중국 방문 외국문출판사대표단(11월 25일—12월 5일)
벌가리아 방문 우리 나라 정부통상대표단(11월)
로므니아 방문 우리 나라 정부통상대표단(11월)
로므니아 방문 김일성고급당학교대표단(11월 30일—12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통상대표단(12월 6일—12월 22일)
벌가리아 방문 우리 나라 문화대표단(12월 6일—24일)
뽈스까에서 열리는 국제광업대회조직위원회 제31차회의에 참가하는 조선공업기술총련맹광업협회대표단(12월 8일—29일)
프랑스공산당 제20차대회에 참가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12월 13일—24일)
인도 방문 우리 나라 4.25축구선수단(11월)
인도 방문 우리 나라 탁구선수단(12월)
우루과이사회당 제37차대회에 참가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12월)
소말리아 방문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12월)
쏘련형성 쉰돐경축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 (12월 19일—24일)
쏘련형성쉰돐경축행사에 참가하는 우리나라녀맹대표단(12월 19일—24일)
쏘련형성 쉰돐경축행사에 참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12월 19일—24일)
쏘련형성 쉰돐경축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조쏘친선협회대표단(12월 19일—24일)

비괄 방문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12월)

중국 방문 우리 나라 양어대표단(12월)

중국에서 진행되는 조중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3차회의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과학기술협조대표단(12월)

국제리론발표회에 참가하는 김일성종합대학대표단(12월)

우리 나라 방문 다른 나라 대표단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표단(1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통상대표단, 단장—대외무역부 부부장 리 강(1월)

일본사회당 국제국장 가와자끼 간지와 그 일행(1월 5일—14일)

쏘련과학원경제학자대표단, 단장—쏘련과학원 동방학연구소 부장이며 상급연구사인 경제학사 까자께위치 이고리 쓰쩨빠노위치(1월 11일—2월 8일)

부룬디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이 나라 외무협조및계획부장 아르떼몽 씸바나니예(1월 12일—19일)

알바니아 정부통상대표단, 단장—이 나라 농업부 부부장 자이미 할미(1월)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대표단, 단장—일본자유당소속국회 중의원 의원이며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회장대리인 구노 쥬지(1월 18일—27일)

팔레스티나해방조직대표부 대표 무니르 이브라힘 함므드(1월)

꾸바작가대표단, 단장—이 나라 작가 훌리오 안드레스 챠꼰레예스(1월 18일—2월 3일)

탄자니아타보라혁명하원친선대표단, 단장—이학원 원장 엘. 케이. 음싸키(1월 21일—2월 4일)

뿌에르또 리꼬사회당대표단, 단장—이당 총비서 후안 마리 브라스(1월 28일—2월 3일)

일본《요미우리신붕》론설위원회 고문 다까기 다께오와 그 일행(2월)

칠레인민통일행동운동대표단, 단장—이 조직 총비서 호쎄로드리고 암부로시오(2월 19일—26일)

우루과이사회당대표단, 단장—이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비서인 호쎄 뻬드로 까르도쏘(2월 29일—3월 8일)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군사대표단, 단장—이 나라 정부 군사장비및군비부장 두옹 삼올 중장(3월 15일—18일)

조웽정부간 경제및과학기술협의 위원회 웽그리아측 경제실무대표단, 단장—이 나라 중공업부 부부장 실리 게저(3월 14일—28일)

소말리아 모가디쇼방송국 론평원 아브둘 카림 해쥐 디알리(3월 14일—28일)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통령특사 이 나라 교육및주조정부장 아브둘 하피즈 피르자다와 그 일행(3월 24일—27일)

수단집단체조대표단(3월)

중국주재 핀란드공화국 대사 베리 헤레니우스(3월 31일—4월 5일)

구라파에 있는《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책임자 까씨엔 히진 바기디(3월 31일—4월 27일)

스웨리예《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책임자이며 스웨리예 조선친선협회 서기이며 기자인 요르겐 아이 에릭슨(3월 31일—4월 18일)

시에라 레온《김일성원수로작연구소조》대표 모하메드 에스 코로마(3월 31일—4월 18일)

핀란드 땀뻬레《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대표 리뜨바 리나 하이밀라(3월 31일—4월 18일)

구라파에서 공부하고 있는 3대륙류학생들의《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 및 로작연구소조》대표 달미로 피구예라(3월 31일—4월 11일)

일본 호쎄이대학교수 야스이 가오루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학자대표단(3월 31일—4월 18일)

소말리아교원대학 교수 쌀레호 하지 파라호 디리르를 단장으로 하는 소말리아사회과학자대표단(3월 31일—4월 27일)

일본문화인대표단, 단장—음악평론가 야마네 긴지(3월 31일—4월 28일)

모리따니통신사 사장 아브델 라흐만 울드 브라힘 크릴(3월 31일—4월 18일)

오스트랄리아 잡지《해불》주필 스탠리 무어(3월 31일—4월 28일)

영국 런던《레드 모올》지 주필 타리크 알리(3월 31일—4월 11일)

탄자니아 다르 에스 살람종합대학 력학교원 저하드 찬널박사부부(3월 31일—4월 19일)

알제리 알제종합대학 교수 뗌마르 아미드(3월 31일—4월 11일)

알제리 뜰렘쎈중학교 교원 제롬 리아드부부(3월 31일—4월 11일)

싼또메 및 쁘링씨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대표 뻬레스 도스싼또쓰(4월)

이딸리아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 및 출판주체소조》 책임자이며 이딸리아 밀라노고등학교 법률 및 경제교원인 쎄르지오 쓰파잘이와 그 성원(3월 31일—4월 18일)

브라질 《김일성동지혁명활동 및 로작연구소조》 대표 아뽈로니오 까르발로(3월 31일—5월 2일)

스웨리예《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이며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집행위원인 네나르 닐슨(3월 31일—4월 18일)

스위스조선공보위원회대표단, 단장—위원장 와세르 오또(3월 31일—4월 18일)

적도기네공화국대표단, 단장—이 나라 교육부 총서기 훔 오비앙 음바(3월 31일—4월 11일)

말리대표단, 단장—말리통신사 사장—부바까르 마하만 뜨라오레(3월 31일—4월 11일)

수단통신사 및 작가, 시인, 문화인대표단, 단장—통신사 사장 아브둘 카렘 마흐디(3월 31일—4월 19일)

뻬루 리마 싼마르꼬스종합대학 교수대표단, 단장—이 대학 사회과학원 력사교수이며 박사이며 뻬루조선친선협회 위원 까를로스 다니엘 발까르쎌(3월 31일—4월 18일)

단마르크조선친선협회대표단, 단장—단마르크사회민주당 신문 《악츄엘트》기자이며 단마르크조선친선협회성원 아느헬르 피터슨(3월 31일—4월 28일)

노르웨이대외관계연구소 공보국장 하랄드 문제 코스(4월)

이라크신문 《알 라쉬드》 경영주 무스타파 아브둘 라티프 알피키키와 이 신문 책임주필 알리아맘무흐 쟈밀 알티그리티(3월 31일—4월 27일)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 대표 포르네 한스(3월 31일—4월 19일)

아프리카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책임자이며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인민조직 동아프리카책임대표인 사카리아 쉬깜바(3월 31일—4월 18일)

뽀르뚜갈령기네 및 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 행정서기국 경제사 빅도르 호레이르 몬떼이로(3월 31일—4월 14일)

서부독일텔레비죤방송 자유기자 로스한 브드너 둔지보이(3월 31일—4월 18일)

팔레스티나해방조직대표단, 단장—아브니달(4월 4일—7일)

끼쁘로스조선친선협회대표단,단장—이 협회서기장이며 《따네아》신문 책임주필 크리싼도스 싸비데스(4월 4일—19일)

수리아《문화》신문 주필 마트하드 아까쉬부부(4월)

탄자니아 다르 에스 살람종합대학 예술 및 사회과학부 학부장이며 경제학 상급교원 겸 책임자 제이. 에프. 르웨예마무박사(4월)

네팔기자협회 회장 고팔 다쓰 스레스타(4월)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친왕(4월 5일—5월 7일)

일본방송협회방송총국 부총국장겸보도국장 가와하라 마사히도와 그 일행(4월 7일—5월 2일)

파키스탄조선친선대표단, 단장—파키스탄 《김일성동지로작연구위원회》 위원장이며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무샤히드 후쎄인 싸이드(4월 7일—28일)

부룬디공화국 대통령특사인 이 나라 대통령실 관방부장 은따호까자 안또완과 그 일행(4월 11일—18일)

수리아아랍공화국친선대표단, 단장—이 나라 고등교육부장 샤케르 파함(4월 11일—18일)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대표단, 단장—모리따니인민당 사무청사종합국장이며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바까리 꾸이리바리(4월 11일—18일)

일본《아사히신붕》사 론설주간 에바다 기요시와 그 일행(4월 11일—5월 2일)

일본《교도통신사》 론설위원회 위원장 오다 야스마사(4월 11일—5월 2일)

칠레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이며 칠레사회당 중앙위원회 재정부장 마르따 멜로(4월 11일—23일)

핀란드조선친선협회대표단, 단장—이 협회 집행위원이며 핀란드경제계획국 부국장인 한누 린마인마(4월 11일—27일)

나이제리아 경제학자 윌리암 아니쉐(4월 11일—27일)

네팔 까뜨만두 빠탄공파대학 학장쿨라 라트나툴라드하르(4월)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 단장—이 나라 무역담당련방비서 무하메드 하드지츠(4월 19일—21일)

일본사회당활동가대표단, 단장—이당 국민운동 국장인 이또 시게루(4월 19일—27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 단장—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국인민해방군 심양부대사령인 진석련(4월 23일—30일)

로므니아정부군사대표단, 단장—이나라 국가쏘베트부위원장 에밀 보드나라쉬(4월 23일—29일)

쏘련정부군사대표단, 단장—쏘련국방부 부부장인 쏘련원수 끼릴 모쓰깔렌꼬(4월 23일—29일)

꾸바정부군사대표단, 단장—꾸바무력부 부부장인 소좌 오스까르 훼르난데스 멜(4월 23일—29일)

웰남민주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 단장—웰남인민군소좌 반장(4월 23일—28일)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군사대표단, 단장—고급군관 레 촉(4월 23일—28일)

체스꼬슬로벤스꼬정부군사대표단, 단장—민족보위부 제1부부장 중장 바쎌발로(4월 23일—29일)

웽그리아정부군사대표단, 단장—웽그리아인민군 총정치국장 소장 까르바티 페렌즈(4월 23일—29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정부군사대표단, 단장—이 나라 민족보위부 부부장 중장 웨르네르 플라이쓰네르(4월 23일—29일)

뽈스까정부군사대표단, 단장—민족보위부 부부장 겸 국토방위사령관인 중장 따데우스 뚜찹쓰끼(4월 23일—29일)

벌가리아정부군사대표단, 단장—인민보위부 부부장인 중장 밀초 아쎄노브(4월 23일—29일)

몽골정부군사대표단, 단장—몽골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중장 돈보빈 요돈두 이치르(4월 23일—29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 단장—이 나라 국방련방 서기국 실장 중장 요와노비츠 보쥐다르(4월 23일—23일)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 단장—이 나라 보위및민족복무부부부장 고드프레이오 모하가마(4월 23일—5월 5일)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 단장—수리아군 정치지도국장 아브둘가니 아브라힘(4월 23일—5월 2일)

소말리아정부군사대표단, 단장—이나라 민족군 부사령관 누르 아도 알리(4월 23일—5월 2일)

꽁고인민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 단장—꽁고민족인민군 대위 싸쑤 느게쏘(4월 23일—29일)

애급아랍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 단장—애급군 제2야전군사령관 소장 엘싸아드 마아문(4월 23일—29일)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 단장—이 나라 국방안전리사회 서기장 까르따꾸쑤마(4월 23일—29일)

모리따니회교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 단장—이 나라 헌병사령관 바트울드 마이우푸(4월 23일—29일)

팔레스티나해방조직군사대표단, 단장—야르무크군사령관 왈레드 아메르(4월 23일—29일)

수단정부군사대표단, 단장—수단군륙군병기대장 모하메드 누르 싸이드(4월 23일—29일)

알제리정부군사대표단, 단장—국립하급장교 양성학교 교장 아에드쟈알리(4월 23일—29일)

기네공화국정부군사대표단, 단장—우리 나라 주재 기네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디오쁘 마마두(4월 23일—28일)

이라크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 단장—이라크군부총국 정치도덕국장 아브둘 라호 에스• 알 말라호(4월 23일—28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 단장—군사대학교 교장 아호마드 쌀림 아비드(4월 23일—29일)

파키스탄정부군사대표단, 단장—륙군보병사단 사령관 아즈마트 아완(4월 23일—29일)

말리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 단장—참모장교 하말라 케이따(4월 23일—29일)

예멘아랍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 단장—예멘군 최고사령부 군사장비국장 아호메드 알 무딸라 끼야(4월 23일—29일)

인도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 단장—소장 바씨슈타 케이. 디(4월 23일—29일)

꾸바농촌민요단(4월 26일—5월 30일)

로므니아 아제르 쁘레스통신사 기자 이온 젤리쟈누(4월)

제20차올림픽대회 아세아지역축구 3조 예선경기에 참가하는 이란축구선수단(4월 29일—5월 3일)

프랑스북구라파상업은행대표단, 단장—이 은행 총재 기더 브와쏭(5월)

제20차올림픽대회 아세아지역축구 3조 예선경기의 심판을 볼 국제심판원들(5월)

중국상해무용단, 단장—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중국공산당 상해시위원회 서기인 상해시 혁명위원회 부주임 서경현(5월 6일—6월 10일)

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 단장—가나가와현 요꼬하마 시장인 아스까다이찌오(5월 9일—16일)

일본고등학교 축구대표단, 단장—일본체육협회 리사이며 지바현 체육협회 회장 야마구찌 규따 (5월9일—26일)

일본니홍텔레비존 사장이며 요미우리신봉사 최고고문인 고바야시 요소지(5월 9일—23일)

미국《뉴욕타임스》지부주필 해리슨 이. 솔스베리와 그 일행(5월 12일—28일)

일본전국교육텔레비존방송국 기자들인 보도부차장 가와우찌 잇세이와 그 일행(5월)

수단청년, 체육및사회사업부 청년대표단, 단장—수단청년, 체육및사회사업부 정치감독관 모하메드 안와르(5월 12일—27일)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아까마쯔 이사무의 부인과 그의 딸(5월 16일—31일)

쿠웨이트국회 의원인 아바스 하비브 메나웨르(5월 16일—23일)

중국관광단, 단장—중국 국가건설위원회 국장 무자문(5월 16일—6월 9일)

쏘련남자배구선수단(5월)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5월 19일—24일)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정부친선대표단 단장—수단 정무원 총서기 아호마드 바바크르 에이싸(5월 23일—5월 30일)

스웨리예녀성대표단, 단장—스웨리예 좌익녀성동맹 위원장 예와 팔메르(5월 23일—6월 6일)

레바논로동자, 사무원로동조합전국련맹대표단, 단장—이 련맹집행위원 쌀림 케셴(5월 23일—6월 6일)

탄자니아련합공화국당학교(키브코니대학)대표단, 단장—이 대학 농업경제학교원 암바키시에 피아마(5월 23일—6월 6일)

미국《워싱톤포스트》지 극동총국장 셀리그 에쓰. 해리슨(5월 23일—6월 24일)

이란인민당대표단, 단장—이 당 제1비서 에스깐다리 이라주(5월 30일—6월 6일)

일본공명당대표단, 단장—이 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다께이리 요시가쯔(5월 30일—6월 6일)

스웨리예진보적작가 아르비두 룬드베르그(5월 30일—6월 13일)

체스꼬슬로벤스꼬전력공업대표단, 단장—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건설및기술부 부장 유라이 붓샤(5월 30일—6월 13일)

뽀르뚜갈공산당대표단, 단장—총비서 알바로 꾼할(6월 6일—13일)

유엔주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상임대표 라할 아브델 리머프와 그 일행(6월)

뉴질랜드 크리스트처츠시 캔터브리종합대학 교수 위. 로쎈버그(6월 6일—20일)

카나다신문《토론토스타》기자 마크 게인부부(6월 6일—20일)

칠레공화국정부경제대표단, 단장—대통령궁전실 계획부장 곤쌀로 마르뜨네르(6월 9일—17일)

중국화학공업대표단, 단장—강소성혁명위원회 부주임 장파(6월 13일—7월 26일)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외교부 유엔담당 부부장 밀란 끌루싸끄(6월 6일—13일)

쏘련외교부일군들(6월 13일—20일)

소말리아국립종합대학대표단, 단장—대학 총장인 박사 살리호 모하메드 알리(6월 13일—27일)

로므니아공청기자대표단, 단장—로므니아공청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인 《쓰끈떼아 띠네레 뜰루이》책임주필 에우젠 플로레스꾸(6월 13일—27일)

민주독일 칼. 맑스시공업대학대표단 단장—이 대학 제1부총장 쿠르트 라이테르트(6월 13일—27일)

팔레스티나로동조합련맹대표단, 단장—팔레스티나해방조직 인민조직부 대중단체책임자 술레이만 알란(6월 13일—27일)

조쏘정부간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8차회의에 참가하는 쏘련측대표단, 단장—정무원 부총리 이. 떼. 노비꼬브(6월 18일—24일)

민주예멘 제1도대표단, 단장—제1도지사 또흐 아호마드 가딕(6월 18일—7월 4일)

핀란드공산당대표단, 단장—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 레오수온 떼애(6월 20일—27일)

칠레정부기관지 《라 나씨온》신문주필 오스까르 와이스(6월 20일—27일)

중국심양철로국롱구선수단(6월)

쏘련작가대표단, 단장—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쎄르게이 쓰미로노브(6월 20일—7월 4일)

전끼쁘로스로동련맹대표단, 단장—이 련맹 특별비서 아까스아 꽌띠스(6월 20일—7월 4일)

칠레근로자통일중앙대표단 단장—칠레우편전신협회 전국조직비서 페르란도 끼하네(6월 20일—7월 4일)

쏘련 모스크바시 활쏘기선수단(6월 20일—7월 4일)

쏘련따쓰통신사대표단, 단장—부사장 게. 엠. 오쉐웨로브(6월 27일—7월 11일)

아세아아프리카주택기구 서기장 아브델 하미드 잔팔부부(6월 27일—7월 11일)

조중압록강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정기회의에 참가하는 중국측대표단, 단장—중국 수리전력부 부부장 두성원(6월 30일—7월 29일)

쏘련국립모스크바합창단(6월 29일—7월 12일)

중국제2차조선방문 친선참관단, 단장—길림성혁명위원회 종희운부주임(7월 1일—26일)

일본도쿄로동자대표단, 단장—도쿄지방로동조합평의회부의장 사이또 가즈오(6월 30일—7월 11일)

꾸바유술선수단(7월 1일—26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인민보건부장 오마르 부젤라(7월 4일—11일)

로므니아전국녀성리사회대표단, 단장—로므니아전국녀성리사회 부위원장 수자나 갈빨(7월 4일—11일)

수리아아랍공화국 교육대표단, 단장—이 나라 교육부 부부장 하이리 나샤와트(7월 4일—18일)

웽그리아작가대표단, 단장—챠크 쥴라(7월 4일—18일)

유엔주재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상임대표 이온 다드꾸(7월 8일—14일)

웰남민주공화국 영화대표단, 단장—이 나라 문화부 영화국장 팡쫑꽝(7월 8일—21일)

중국탁구선수단(7월 11일—8월 5일)

일본 니이가다시장 와다나베 고따로와 그 일행(7월 12일—19일)

파들루뻐로동총련맹 서기장 헤르만송부부(7월 11일—26일)

꾸바공화국 정부친선대표단, 단장—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로동위원회 위원장 라싸로 뻬냐 곤쌀레스(7월 11일—8월 15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농업, 식료공업및림업로동자직맹대표단, 단장—이 직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게르하르드 빠웨르치크(7월 11일—26일)

애급아랍공화국기자대표단, 단장—이 나라 기자동맹 부위원장이며 《알굼후리아》편집국장인 아브델 아지즈 모함마두 아브둘 라호(7월 11일—26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대통령리사회 성원이며 림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아브둘 파타호 이스마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및정부대표단(7월 17일—23일)

쿠웨이트국가 국회대표단, 단장—쿠웨이트국가 국회 부의장 유스프 칼리드 알 무클리드(7월 18일—26일)

일본사회당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대표단, 단장—이 위원회 위원장 아사까 가구(7월 18일—27일)

말리공화국 외무및협조부대표단, 단

장—이 부 총서기 마마두 부바까르 깐떼(7월 18일—26일)

탄자니아련합공화국당학교(키브코니대학)대표단 단장—부학장 디. 티. 루킨도(7월 18일—8월 1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녀성총동맹대표단, 단장—이 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수아드 아브둘 하크야 페이(7월 18일—26일)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군사대표단, 단장—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부위원장이며 국방담당국무비서인 모하메드 알리 사마테르준장(7월 21일—28일)

예멘아랍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예멘아랍공화국 총리겸 외교부장 모흐쎈 알아이니(7월 27일—8월 1일)

로므니아농업과학자대표단(7월)

꾸바공화국건축가대표(7월 26일—8월 8일)

미국 하바드종합대학 제롬 코엔교수와 그 가족들(7월 28일—8월 5일)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관광단(7월)

시에라 레온공화국 수도 프리타운시대표단, 단장—이 시장 디. 티. 이끼보 베쯔(8월 1일—15일)

뽈스까철도체육협회탁구선수단 (8월 4일—19일)

쏘조친선협회회원들(8월)

로므니아농업생산협동조합전국련맹대표단, 단장—이 련맹위원장 게오르게 뻬뜨로쓰꾸(8월 8일—22일)

룩셈부르그에 있는 《김일성동지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연구소조》책임자 샤롤 도에르네르(8월)

기네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대표단, 단장—이 당 총비서이며 전쟁리사회 위원장 아밀카르 카브랄(8월 11일—19일)

꾸바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단장—이 동맹 공업담당비서 오스발도 까스뜨로(8월 15일—29일)

이라크로동조합총련맹대표단, 단장—이 련맹 문화공보비서 가지 마즈리(8월 15일—9월 12일)

탄가니카근로자전국동맹대표단, 단장—이 동맹 부서기장 룬가라자(8월 15일—22일)

국제학생동맹에 가입하는 뿌에르또 리꼬독립학생운동 상임대표 라파엘 앙굴라다(8월 15일—29일)

알제리기자대표단, 단장—이 나라 공보및문화부 부국장 에드루그 부알렘 부라힘(8월 15일—9월 1일)

유엔주재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상임대표 라자르 모즈쏘브(8월 19일—25일)

노르웨이왕국 외교부대표단, 단장—외교부 국장 톰. 브라알쎈(8월 19일—25일)

까메룬련방공화국정부친선대표단, 단장—이 나라 외교부장 밴쌍 에풍(8월 20일—24일)

중국인민해방군 녀자롱구선수단(8월 22일—9월 13일)

조중국경철도공동위원회 중국측대표단, 단장—길림성철도국 부국장 여위동(8월 22일—9월 23일)

상부 볼따제인민간의 친선협회대표단, 단장—이 협회 위원장 다우다 디알로(8월 22일—9월 5일)

전인도조선친선협회대표단, 단장—이 협회 부위원장 쇄쉬 부쉰(8월 22일—9월 6일)

웽그리아농업과학자대표단(8월 22일—9월 2일)

몽골인민공화국의회그루빠대표단, 단장—대인민후랄부의장 즈. 르하그와쑤렌(8월 25일—9월 2일)

단마르크국회의원그루빠대표단, 단장—알프레드 옌슨(8월)

쏘련공산당대표단, 단장—이 당중앙위원회 비서 까. 에프. 까뚜쉐브(9월 3일—11일)

중국축구선수단(9월 5일—30일)

쏘련까자흐쓰딴가맹공화국 까이라트축구선수단(9월 5일—12일)

중국청년대표단, 단장—관동성혁명위원회 부주임 량금당(9월 5일—10월 5일)

일본오사까부의회대표단, 단장—이 의회 의장 나시가와 도꾸오(9월 5일—12일)

시에라 레온 유엔상주대표 이스마엘 빈 테일르 카마라부부(9월 5일—12일)

일본《마이니찌신붕》기자대표단, 단장—이 신문 론설주간 다까하시 다께히꼬(9월 5일—19일)

핀란드공화국의회그루빠대표단, 단장—국회의원 베이꼬 루뜨꼬넨(9월 5일—12일)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 로베르또 비에찌부부(9월 5일—17일)

로므니아 아제르쁘레쓰통신사 및 《쓰끈떼아》 베이징주재 특파기자(8월말—9월 6일)

웽그리아통신사 베이징주재특파기자(8월말—9월 6일)

프랑스 에이 에프피통신사 베이징주재 특파기자(8월말—9월 6일)

일본과 조선의 로동자교류련대 련락회의대표단, 단장—이 회의 대표위원이며 일본로동조합 총평의회 고문 이와이 아끼라(9월 11일—26일)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련방회의 대표단, 단장—이 련방회의 의장인 알로이스 인드라 (9월 11일—17일)

중국농림과학원대표단, 단장—이 과학원 비서장 림산(9월 12일—10월 14일)

오지리공화국녀맹위원장 이르마 슈와제르(9월 12일—19일)

일본《아사히신붕》편집위원 아끼오까 이에시게부부(8월—9월)

일본《요미우리신붕》기자 에모도 요시노부(8월—9월)

일본《교도통신》기자 예구찌 히로시(8월—9월)

일본방송협회 《엔. 에취. 케이》기자 후꾸오까 가오루, 아나가와 요시로(8월—9월)

일본《니홍텔레비》기자 오즈미 가쯔로, 다까기시 마사미(8월—9월)

일본교육텔레비 기자 에비지고(8월—9월)

중국공산당 당사업일군휴가단(9월 12일—10월 11일)

일본사회당 참의원의원대표단, 단장—참의원 의원 아까네가꾸보 시게미쯔(9월 1일—14일)

국제자동조절련맹대표 프랑스학자 앙리 얍테르(9월 12일—23일)

일조우호친선청년실업계대표단 (9월 15일—26일)

로므니아농업, 식료공업 및 수리로동자직맹대표단, 단장—이 직맹위원장 꼰스딴띤 헤레쓰꾸(9월 16일—26일)

꾸바예술체조선수단(9월 16일—26일)

몽조친선협회대표단, 단장—몽골로동및로임위원회 위원장이며 이 협회 위원장 므. 르함쑤렌(9월 19일—26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문화대표단, 단장—이 나라 문화교양리사회 제1부위원장 이온 브라드(9월 19일—10월 5일)

쏘련직맹대표단, 단장—쏘련항공일군직맹중앙위원회 비서 웨. 게. 니끼찐(9월 19일—10월 5일)

벌가리아과학원대표단, 단장—과학원 부원장 보그단 꾸르떼브(9월 19일—10월 5일)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다르 에스 살람종합대학대표단, 단장—이 대학 대리총장 피우쓰 므쎄크와(9월 19일—10월 5일)

3대륙인민단결기구 상주 파키스탄대표 로스 마쑤드 후쎄인부부(9월 19일—10월 27일)

이딸리아농업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련맹대표단, 단장—이 련맹전국서기까를로 지체로끼아(9월 19일—10월 5일)

일본정치리론 잡지 《세까이》편집국장 야스에 료스께(9월 19일—10월 10일)

이딸리아공화국국회대표단, 단장—이딸리아공산당 출신 국회의원 미껠레 뻬스뗄로(9월 19일—26일)

이란탁구선수단(9월 21일—29일)

잠비아공화국정부친선대표단, 단장—부대통령 마인자 마디아스초나(9월 25일—30일)

중국인민해방군축구선수단(9월 26일—10월 21일)

뽈스까오뜨뽀쯔크군친선대표단 (9월 26일—10월 10일)

중국주재 스웨리예대사 아르네 브죠른 베르그(9월 29일—10월 6일)

또고친선협회 위원장 뽈리까르뽀 죤손(9월 29일—10월 4일)

애급아랍공화국 멘통신사기자대표단 단장—이 통신사 부장 모하메드 와그디 엘 싸이에드(10월 5일—10일)

꾸바《흐벤뚜드레벨데》지 기자 질레르모 라카르데(10월)

상부 볼따공화국정부친선대표단, 단장—이 나라 농업및축산부장 안뚜완 다꾸레(10월 5일—12일)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인 뻬루기자련맹 위원장 헤나로 까르네로 체까와 그의 가족(10월 6일—13일)

꾸바공화국정부통상대표단, 단장—무역부 부부장 에르미니오 가르씨아 라쏘(10월 6일—24일)

쏘조친선농장대표단, 단장—쏘련토지관개및수리부 부부장 엘. 베. 레와노브쓰끼(10월 10일—24일)

로므니아문까신문사대표단, 단장—이 신문사 주필 이온 걸레떼아누(10월 10일—24일)

쏘련지식협회대표단(10월 10일—24일)

쏘련탁구선수단(10월 10일—25일)

우루과이동방공화국국회대표단, 단장—우루과이사회당 총비서 호쎄 엔리께 디아스(10월 10일—24일)

체스꼬슬로벤스꼬녀성리사회대표단, 단장—녀성리사회 위원장 구스따 푸치꼬바(10월 10일—17일)

스웨리예사회민주청년동맹대표단, 단장—이 동맹 위원장 라르스 엔크비스트(10월 13일—24일)

싱가포르기자대표단, 인솔자—《성주일보》상급정치보도원 겸 편집원 고시형(10월 13일—25일)

일본사회당 부인활동가대표단, 단장—일본사회당 부인국장이며 일본부인회의 의장 다나까 스미꼬(10월 13일—26일)

예멘아랍공화국정부공보대표단, 단장—이 나라 공보부 출판보도국장 모함마드 후쎄인 알줌 나이니(10월 14일—24일)

아르헨띠나공산당대표단(10월 14일—24일)

말리공화국교육대표단, 단장—이 나라 민족교육 및 청년체육 부장 야야 바가야꼬(10월 17일—24일)

꾸바공화국 《라지오 아바나꾸바》단파방송국대표단, 단장—방송국 총국장 알프레드 비냐스 알론쏘(10월 17일—11월 1일)

웽그리아애국인민전선대표단, 단장—애국인민전선 전국리사회 비서 쎈뜨이슈뜨바니 쥴라네(10월 17일—11월 1일)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쓰끈떼아》기자대표단, 단장—이 기관지 부주필 안겔 빠라스끼브(10월 17일—11월 1일)

웽그리아기자대표단, 단장—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네프싸바드샤크》 부주필 내내시 야노쉬(10월 17일—11월 1일)

조쏘어업공동위원회 제3차회의에 참가하는 쏘련측대표단, 단장—쏘련어업부 부부장 미하일 아나똘리예비치 모를로브(10월 17일—11월 1일)

이딸리아조선친선협회대표단, 단장—국제정치 및 제인민간의 문화관계쎈터 책임자 로씨 미췔레(10월 17일—24일)

쏘련농업로동자및사무원직맹대표단, 단장—이 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이완슈끄라또브(10월 17일—24일)

이딸리아영화축전위원회 위원장 니노 쥬켈리(10월 17일—11월 1일)

세계직업련맹위원장이며 우루파이공산당비서이며 우루파이근로자중앙총비서 엔리께 빠스또리노(10월 17일—24일)

핀란드인민민주주의련맹대표단, 단장—이 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엘리 알레뉴스(10월 24일—11월 1일)

도미니까공산당 총비서 나르시쏘 이싸꼰데(10월 24일—11월 1일)

로므니아군대《별》체육단 축구선수단(10월)

중국베이징시친선대표단, 단장—중국공산당 베이징시위원회 서기 류소문(10월 27일—11월 14일)

중국정구선수단(10월 27일—11월 25일)

애급아랍공화국국립민족무용단(10월 23일—27일)

쏘조친선협회대표단, 단장—쏘련원유가공 및 원유화학공업부 부부장 쏘로낀(10월 31일—11월 14일)

우리 나라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사이의 과학기술협조위원회에 참가하는 독일측대표단, 단장—과학기술부 부부장 프리쯔 할베르트(10월 31일—11월 7일)

웽그리아직맹대표단, 단장—웽그리아예술산별직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바스 임레(10월 31일—11월 7일)

뻬루근로자총련맹대표단, 단장—이 련맹비서 알예한드로 크루즈(10월 30일—11월 14일)

일본《요미우리신붕》특별취재단, 단장—이 신문 론설위원 오가와 다께시(10월 31일—11월 25일)

조벌 두 나라 정부들 사이의 경제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4차회의에 참가하는 벌가리아정부대표단, 단장—정무원부총리 뻰쵸 꾸바딘쓰끼(10월 31일—11월 7일)

핀란드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오스모 까이빠이넨부부(10월 24일—11월 1일)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11월 2일—12월 4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및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친선대표단, 단장—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장이며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총리 뻰누트친왕(11월 4일—7일)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 단장—총비서 싼띠아고 까릴요(11월 6일—27일)

중국인민은행 및 중국은행대표단, 단장—중국인민은행 부행장 겸 중국은행 부총경리 방고(11월 7일—25일)

파키스탄교육대표단, 단장—이 나라 교육부 사무장 아브둘 말리 한 (11월 7일)

일본교직원조합대표단,단장—일본교직원조합중앙집행위원장 마끼에다 모또후미 (11월 7—17일)

뻬루공산당대표단, 단장—이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 에르네스또 로하스(11월 7일—21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무역대표단, 단장—이 나라 상업부장 라이아쥐야께르(11월 7일—11일)

프랑스국민회의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 쟝. 드. 브로그리(11월 7일—14일)

중국친선참관단, 단장—호남성혁명위원회 상임위원 왕치국(11월 7일—28일)

중국중앙기상국대표단, 단장—중국중앙기상국 부국장 장문선(11월 7일—25일)

뽈스까조선친선모델농업협동조합대표단, 단장—이 조합관리위원장 불라지 슬라브(11월 7일—21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과학원대표단, 단장—과학원부원장 웨르네르 칼와이트(11월 7일—21일)

로므니아력사교원대표단(11월 7일—21일)

웽그리아정부통상대표단, 단장—이 나라 무역부 부부장 또르도이 예뇌(11월 7일—14일)

로므니아군대 《쓰떼아와》청년축구선수단(10월—11월)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경제무역대표단, 단장—경제개발부장 케이. 에

스. 킹(11월 10일—14일)

말가슈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외교부장 디디에 라찌라까(11월 11일—17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의학자대표단(11월)

쏘련림업대표단, 단장—쏘련 림산 및 목재가공공업부 원동림업총국장 엔 에쓰. 싸우첸꼬(11월 13일—22일)

웽그리아인민공화국문화대표단, 단장—문화부 부부장 가랍 발지 요재프(11월 14일—28일)

쏘련직맹대표단, 단장—로쓰또브주직맹위원장 웨. 엔. 바라노브쓰끼(11월 14일—28일)

조중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 제12차회의에 참가하는 중국측대표단(11월)

수리아경제대표단, 단장—농업부 부부장 나입쥼아(11월 17일—28일)

단마르크외교부대표단, 단장—외교부정치국 부국장 니엘스 클리스티안 틸리쉬(11월 17일—22일)

쏘련군대체조선수단(11월)

우간다공화국대통령특사 루이클 온도가와(11월 21일—25일)

일조체육교류촉진련맹대표단, 단장—일본체육협회 리사 및 보급위원회 위원장이며 지바현 체육협회 회장 야마구찌 규따(11월)

캄보쟈왕국최고왕실회의 총서기 뿌 뼁쳉부부(11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문화대표단, 단장—문화부 부국장 균테르 쏨메르(11월 28일—12월 6일)

자유독일청년동맹대표단, 단장—이 동맹중앙위원회 비서 디테르 펄테르(11월 28일—12월 6일)

중국친선참관단, 단장—중국하북성혁명위원회 부주임 왕로명(12월 1일—22일)

로므니아떠마쇼아라《바나뚤》가무단(12월 1일—5일)

꾸바공화국과학원대표단, 단장—과학원 서기장 떼오비힐드 페르난데스(12월 5일—12일)

쏘련영화인동맹대표단(12월 5일—19일)

체스꼬슬로벤스꼬방송대표단(12월 5일—12일)

쏘련군대녀자배구선수단(12월)

웽그리아탁구선수단(12월 5일—12일)

쏘련청년종합권투선수단(12월 12일—28일)

중국텔레비존방송기술대표단, 단장—중국중앙방송사업국 부국장 동림(12월)

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단장—기네민주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기네공화국 정부총리 란사나 베아보기(12월 16일—22일)

쏘련《친선》가무단(12월 18일—29일)

몽골인민공화국정부무역대표단(12월 19일—27일)

뽈스까력사교원대표단(12월)

중화인민공화국 회붕비외교부장(12월 22일—25일)

국 제 회 의

제27차유엔총회; 미국의 뉴욕에서 1973년 9월 19일부터 3개월간 제27차유엔총회가 열렸다. 총회에는 132개 성원국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총회에서 알제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 유엔상임대표단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라는 의제를 의정에 포함시킬것을 공동으로 제기하였다.

알제리제안의 공동발기국들은 중국, 로므니아, 적도기네, 쏘련, 벌가리아, 백로씨야, 꾸바, 체스꼬슬로벤스꼬, 웽그리아, 몽골, 뽈스까, 우크라이나, 이라크, 말따, 칠레, 부룬디, 유고, 꽁고, 기네, 말리, 모리따니, 예멘아랍공화국, 소말리아, 시에라 레온, 수단, 탄자니아,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잠비아 등 29개 국이다.

이 나라들 외에도 유엔에서 많은 나라대표들이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또 유엔에서 조선문제가 일단 토의되는 이상 그 당사자인 조선대표를 참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요구에 의하여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가 상정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참가하게 되면 미제의 침략정체가 더욱더 낱낱이 폭로될것은 명백하였다.

이로부터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국가들은 이번 유엔총회에서도 제26차유엔총회때와 마찬가지로 조선문제를 상정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하였다.

알제리대표는 조선문제에 관한 새로운 의제토의를 연기하려는 미제의 음흉한 책동을 규탄하면서 이것은 유엔으로 하여금 조선에 관한 책임을 모면케 하려는 책동이며 또한 외부의 간섭이 없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남북조선인민들의 의사에 어긋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대표단 단장은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고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의 길에 가로놓인 온갖 인공적장애를 제거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아직도 남조선에 소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과 《유엔군사령부》 그리고 《유엔군》감투를 쓴 미군이 남아있다. 이러한 외부의 간섭은 오래동안 지속되고있는 조선분렬의 진짜원인이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엄중한 장애로 되고있다.

따라서 29개국이 제기한 문제를 토의하는것은 외국의 영향을 제거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문제이므로 미제의 지연책동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것 이외에 다른것이 아니라고 폭로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번에도 역시 추종자들을 동원하여 금번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의 토의를 연기하도록 하는 범죄적인 결정을 짓게 함으로써 조선인민과 세계의 공정한 여론에 뻔뻔스럽게 맞섰다.

특히 많은 나라 대표들이 《비법적인 기구》라고 규탄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1973년도예산을 승인함으로써 이를 배후에서 조작한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는 장본인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제27차유엔총회에서는 100여개의 문제를 토의하였지만 현시기 국제무대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정책, 이스라엘의 침략정책, 남아프리카의 인종격리정책, 뽀르뚜갈식민지정책 등 어느 하나도 종식시키지 못하였다.

실례로 제27차유엔총회에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규탄하고 앙골라, 모잠비끄, 기네비싸우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지만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나토침략세력들은 아직도 나팜탄, 땅크, 비행기들을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에게 공급해줌으로써 유엔의 소위 《결의》를 휴지화하였다.

유엔 제27차총회와 그후의 사태발전은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이며 세계도처에서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침략하는 원흉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쁠럭불가담국가외상회의; 가이아나의 수도 죠지타운에서 1972년 8월 8일부터 5일간 쁠럭불가담국가외상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50여개의 쁠럭불가담국가대표단들과 기타 10여개의 국가 및 민족해방조직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10일에 열린 쁠럭불가담국가외상회의 전원회의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대표단을 캄보쟈의 유일한 합법적대표로, 남부웰남공화립시혁명정부대표단을 회의정식성원으로 결정하고 론놀 도당의 《대표》들을 내쫓았다.

회의에서는 《죠지타운선언》과 《인도지나에 관한 결의》를 비롯한 일련의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죠지타운선언》은 미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신식민주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인도지나와 중근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모든 반제적, 반식민주의적 력량들의 련대성과 협조를 강화할 결의를 지적하였다.

선언은 조선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회의는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길에서 초보적인 성과들이 이룩된것을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회의는 조선인민앞에 나선 목적의 실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한 온갖 외세의 간섭을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회의는 외국군대들이 철수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선언은 인도지나 세 나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들이 철수할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인도지나에서 평화를 위한 본질적문제이다. 계속하여 캄보쟈문제는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내놓은 5개 항목선언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정치강령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선언은 아랍령토를 계속 강점하고있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규탄하고 팔레스티나를 비롯한 아랍나라들의 정의의 위업에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규탄하고 기네비싸우, 베르데갑제도, 앙골라, 모잠비끄,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을 재확인하였다.

선언은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음모, 도발,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독립을 공고화하기 위한 기네, 탄자니아, 잠비아, 꽁고인민공화국, 세네갈 등 아프리카나라들과의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라틴아메리카정세를 언급한 선언에서는 새사회를 건설하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화하고있는 칠레인민통일정부와 국유화조치를 취하며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있는 뻬루정부를 지지하였다.

선언은 식민지체계를 영원히 없애며 제국주의, 식민주의 등 온갖 형태의 침략을 반대하는데서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쁠럭불가담국가들의 결의를 힘있게 강조하였다.

제2차아세아아프리카녀성대회; 몽골의 수도 울란 바따르에서 1972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2차아세아아프리카녀성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과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국제민주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 첫날 회의에서는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상설서기국 서기장이 기본보고를 하였다.

첫날 회의에서 연설한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 단장은 조선녀성들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 모든 나라 녀성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그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고 말하였다.

단장은 또한 우리 녀성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자로서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믿음직하게 떠밀고나갈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녀성문제를 사회혁명의 중요구성부분의 하나로 보시고 탁월한 리론과 방침들을 제시해주시였을뿐만아니라 녀성들의 생활에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주시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과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상기시킨 다음 아세아, 아프리카 녀성들이 앞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과 녀성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3일회의에서 연설한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 단장은 력사상 처음으로 재일조선녀성들의 해외려행의 권리를 쟁취하고 본 국제회의에 참가하였다는것을 말하면서 이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한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와 대회의 대표들에게 사의를 표시하였다.

대회는 총선언과 일련의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인도지나에 관한 결의에서는 미제가 웰남, 캄보쟈, 라오스에서 감행하고있는 범죄적인 침략책동과 만행을 폭로규탄하고 인도지나 인민들과 녀성들이 벌리고있는 미제침략반대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그외에도 아세아아프리카나라 녀성들의 처지문제, 민족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할데 대한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제5차대회; 애급의 수도 까히라에서 1972년 1월 10일부터 4일간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제5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국제민주단체들에서 80여개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제5차대회 앞으로 보내신 축전이 전달되였다.

대회에서는 라오스, 캄보쟈, 웰남 인민들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중지하며 이 세나라들과 남조선, 일본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대회보고를 통하여 지적하였다.

보고는 미제가 조선에서 《철면피한 침략적인 방법으로》 정전협정을 계속 위반하고있다고 폭로하고 미제침략군의 전면적철수를 요구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대표단 단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제혁명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대회는 또한 일반정치선언과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중요한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제9차아프리카통일기구 국가수뇌자회의; 마로꼬의 수도 라바트에서 1972년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제9차아프리카통일기구 국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40여개 아프리카나라 지도자들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아프리카대륙의 여러 생활측면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과 중근동정세, 기타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수뇌자회의에서는 아프리카통일기구각료리사회 제18차, 제19차 회의들에서 채택된 결의들을 승인하였다.

이 결의들에서 아프리카통일기구성원국들은 앙골라, 모잠비끄, 기네비싸우 등 아프리카령토에 대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와 짐바브웨인민들에 대한 남아프리카, 남로데시아 인종주의정권의 파쑈통치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해방을 위한 아프리카해방운동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시하고 아프리카해방위원회의 예산을 50% 더 늘이기로 한결같이 결정하였다.

중근동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미제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팽창주의적야망을 폭로하고 이스라엘침략자들이 강점한 아랍령토로부터 당장 물러갈것을 요구하였다.

회의에서는 까메룬의 로동및사회복리부장이 아프리카통일기구의 사무장으로 새로 선거되였다.

라틴아메리카통일기구 제1차대회 메히꼬의 수도 메히꼬에서 1972년 6월 22일부터 수일간 라틴아메리카통일기구 제1차대회가 열렸다.

대회에는 칠레, 뻬루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진보적단체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미국놈들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공동의 리익을 수호》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호소문은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을 반대하고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힘을 합쳐 싸울것을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민주력량과 반제력량에 호소하였다.

호소문은 《미제국주의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의 길우에 가로놓인 주되는 장애물이다.》라고 락인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자연부원에 대한 외래독점체들의 지배를 끝장낼것을 견결히 주장하면서 꾸바혁명의 승리와 오늘 칠레, 뻬루에서 일어나고있는 심각한 혁명적변혁들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까리브해연안국가해양문제특별회의; 도미니까의 수도 산또 도민고에서 1972년 6월 5일부터 5일간 까리브해연안국가해양문제특별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까리브해연안국가들중에서 메히꼬, 꼴롬비아를 비롯한 15개 나라가 참가하였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예비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회의에 《방청》으로조차 참가하는것을 일치하게 거부했다.

회의진행과정에 많은 나라 대표들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미제의 이른바 《좌상》정책을 준렬히 단죄하면서 미제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령해를 독점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선언하였다.

6월 9일 까리브해연안국가해양문제특별회의는 《산또 도민고선언》을 채택하였다.

선언은 연해국가들이 완전한 자주권을 가지고있는 본국의 령해외에도 일정한 너비의 세습해역을 규정할수 있으며 세습해역내의 자연부원에 대한 자주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선언은 령해와 세습해역의 너비는 지리적조건을 고려하겠지만 어쨌든 그 전체 너비는 200해리까지로 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까리브해연안국가대표들은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령해와 세습해역을 공동으로 수호할 결의를 다지였다.

전아프리카녀성대회;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 에스 살람에서 1972년 9월말에 전아프리카녀성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아프리카 각 민족녀성단체 대표들과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나라 녀성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 단장은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롭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프리카를 건설하고있는 전체 아프리카녀성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단장은 조선녀성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배려와 보살피심속에서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자라났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차게 떠밀고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아프리카대륙의 해방과 관련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결의는 앙골라, 모잠비끄, 기네비싸우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고 아프리카인민의 해방투쟁을 탄압하고있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 남로데시아 인종주의자들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국 제 기 구

정치 및 군사기구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3대륙인민단결기구)

성립 1966년 1월 15일

목적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3대륙인민들의 단결과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며 이 지역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원 80여개나라, 우리 나라는 1966년 1월 15일 가입

기구 대회(최고지도기관, 2년에 1차씩 소집), 집행서기국(상설기관, 13명으로 구성)

본부소재지 아바나(꾸바)

기관지 뜨리꼰띠넨딸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성립 1958년 1월 1일

목적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사이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발전시키며 그들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성원 80개 나라, 우리 나라는 1958년 1월 1일 가입

기구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대회(최고기관, 2년에 1차 소집), 리사회(성원단체대표들로 구성), 집행위원회, 상설서기국

본부소재지 까히라(애급)

기관지 아세아아프리카불레찐

국제련합기구(유엔)

성립 1945년 6월 25일

목적 유엔헌장에는 세계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나라들간의 경제, 사회, 문화적 협조를 도모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성원 135개나라(1973년 9월 현재)

기구 주요기관, 보조기관 외에 전문기구, 협력기구 등이 있다.

주요기관으로는 총회, 안전보장리사회, 경제사회리사회, 후견리사회, 국제재판소, 사무국 등이 있다.

유엔총회 유엔의 최고기관이다. 총회는 1년에 한번씩, 매년 9월 세번째 주 화요일에 소집되며 안전보장리사회 혹은 반수이상의 성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특별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총회는 성원국가대표로서 구성되며 매개성원국은 5명까지의 대표를 파견하되 투표에서는 한표만을 가진다.

총회에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성원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표로 채택되며 수속절차상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반수로 그 결정이 채택된다. 총회앞에 제기된 문제들은 먼저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와 전원회의에서 직접 토론할 문제와 정치위원회, 특별위원회, 경제재정위원회, 사회인도및문화위원회, 후견위원회, 행정및예산위원회, 법제위원회들에서 토의할 문제를 결정한다. 매개위원회들은 제기된 문제들을 토론하고 그것을 총회에 제기하여 결정을 채택할것을 권고하게 된다.

안전보장리사회 유엔헌장을 철저히 준수하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할데 대한 책임을 지는 상설기관이다.

구성—5개의 상임리사국(쏘련,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과 10개의 비상임리사국(비상임리사국은 2년을 임기로 하여 5개나라씩 교체한다)으로 구성되였다. 5개의 상임리사국의 일치가결의 원칙에 의해서만 모든 문제가 결정된다.

경제사회리사회 54개성원국으로 구성된다. 매해 6개성원국들이 3년을 임기로 교체된다. 보조기관으로서 지역경제위원회들과 아세아극동경제위원회, 구라파경제위원회 등 직능위원회들이 있다.

후견리사회 후견령을 관리하고있는 나라들과 후견령을 관리하고있지 않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 성원들로 구성된다.

국제재판소 총회와 안전보장리사회가 선거한 15명의 판사들로 구성된다.

본부 헤그(화란)

사무국 사무총장과 기타 필요한 인원들로 구성된다. 사무총장은 안전보장리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에서 임명된다.

사무총장 쿠르트 왈트하임

본부소재지 뉴욕(미국)

유엔전문기구 유엔과 일정한 련계를 맺고 해당한 경제기술분야들을 취급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이 기구들은 각국 정부간의 협정, 조약들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기관으로서 각 기구는 특정의 전문리사회분야에서 국제적책임을 지니며 경제사회리사회를 통하여 유엔을 조정하고있다.

국제로동기구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유엔교육, 과학, 문화기구(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우리 나라는 1973년 5월 17일에 가입)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국제민용항공기구

만국우편동맹

국제전기통신련맹

세계기상기구

정부간해상협의기구

유엔무역및개발회의(우리 나라는 1973년 7월에 가입)

유엔협력기구 국제원자력기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 국제곡물협정, 국제사탕협정, 국제커피협정, 국제목화자문위원회, 국제양모연구소, 국제주석협정, 국제연아연연구소, 국제고무연구회

국제의회동맹

성립 1889년 6월 29~30일까지 빠리에서 진행된 9개국 국회의원들의 회의에서 창립

목적 각국 국회의원들간의 접촉과 련계를 강화하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한다.

성원 70여개의 의회그루빠로 구성, 우리 나라는 1973년 4월에 가입.

기구 총회(지도기관, 매해 1차 소집), 리사회집행위원회, 사무국, 조사위원회

본부소재지 제네바(스위스)

세계직업련맹

성립 1945년 10월 8일

목적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근절하며 전세계로동자들의 생활과 로동조건을 개선하며 로동계급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및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성원 60여개나라의 직맹 및 로조단체(1억5천 900만명 망라), 우리 나라는 1947년 5월 21일에 가입

기구 대회(최고기관, 4년에 1차 소집), 총리사회, 집행위원회, 집행국, 서기국, 산별직맹조직

본부소재지 쁘라하

기관지 세계직맹운동, 세계직련통보

세계민주청년련맹

성립 1945년 11월 10일

목적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청년들의 단결을 강화하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민족적독립을 쟁취하며 청년들의 훌륭한 미래를 위하여 투쟁한다.

성원 100여개나라의 200여개 청년단체 1억100만명의 청년들이 망라

우리 나라는 1946년 6월 24일 가입

기구 대회(최고지도기관, 3년에 1차 소집), 집행위원회, 뷰로

본부소재지 부다뻬슈트(웽그리아)

기관지 세계민청

국제학생동맹

성립 1946년 8월 18일~27일에 진행된 제1차세계학생대회에서 창립

목적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학생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복리와 교육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며 민족적독립, 민주주의적교육을 위한 투쟁에서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적 학생조직들의 단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성원 87개국의 전국학생동맹들이 가입, 우리 나라는 1947년 9월에 가입

기구 대회(최고기관, 2년에 1차 소집), 집행위원회, 서기국(상설기관)

본부소재지 쁘라하(체스꼬슬로벤스꼬)

기관지 세계대학생소식

국제민주녀성련맹

성립 1945년 12월 1일
목적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각국녀성들의 사회정치적 및 경제문화적인 권리를 옹호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며 각국녀성들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성원 97개나라의 100여개 녀성조직들이 가입, 우리 나라는 1946년 10월 15일에 가입,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은 1967년 10월 15일에 가입
기구 대회(최고기관, 4년에 1차소집), 리사회, 뷰로, 서기국
본부소재지 베를린(독일민주주의공화국)
기관지 세계녀성

세계평화리사회

성립 1949년 4월 25일 제1차세계평화옹호대회에서 상설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창설, 1950년 11월 제2차 세계평화옹호대회에서 상설위원회를 해체하고 세계평화리사회를 조직.
목적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기도를 반대하며 평화를 지키며 전세계평화애호력량을 단합하여 통일적인 투쟁에 조직동원한다.
성원 101개나라와 8개의 국제기구, 우리 나라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949년 4월 25일에 가입
기구 대회(최고기관), 리사회(대회와 대회사이의 최고기관, 2년에 1차 소집), 상무위원회, 집행위원회, 서기국
본부소재지 윈
기관지 평화옹호, 세계평화리사회통보

아세아아프리카기자협회

성립 1963년 4월 24일～30일 쟈까르따에서 진행된 제1차 아세아아프리카기자대회에서 창립
목적 아세아 아프리카 지역 기자들, 인민들사이의 련대성과 친선관계 및 두 대륙에서의 출판물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사업에 이바지한다.
성원 47개 나라의 기자단체, 우리 나라 기자동맹은 1963년 4월 30일에 가입
기구 대회(최고기관이며 2년에 1차 소집), 서기국
본부소재지 베이징(중국)

국제기자동맹

성립 1946년 6월 3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된 국제기자대회에서 창립
목적 세계평화와 제인민들간의 친선의 강화, 진실한 사회여론의 자유로운 보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전쟁도발책동에 대한 폭로규탄, 자본주의나라 기자들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세계진보적기자들사이의 련대성의 강화 등을 위하여 투쟁한다.
성원 97개나라의 기자단체 및 개인, 우리 나라는 1950년 9월 17일 가입.
기구 대회(최고기관, 4년에 1차 소집), 집행위원회, 서기국
본부소재지 쁘라하(체스꼬슬로벤스꼬)

아세아아프리카법률가협회

성립 1962년 10월에 꼬나크리에서 열렸던 제2차 아. 아 법률가회의에서 협회 조직준비위원회가 선출되였다. 이 위원회는 1963년 11월 6개국 상설서기국을 결성하고 이 기구의 창설을 서기국에 위임하였다.
본부소재지 꼬나크리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성립 1946년 10월
목적 법을 평화옹호에 복무케하고 민주주의적법률과학을 발전시키며 각국의 민주주의적 법률단체 및 법률가들과의 련계와 친선을 강화발전시키며 국제법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성원 40여개나라의 법률가단체, 우리 나라는 1955년 4월 23일 가입.
기구 대회(최고기관, 3년에 1차씩 소집), 리사회, 집행국(뷰로)
본부소재지 브류쎌(벨지끄)

아랍련맹

성립 1945년 3월 22일 창립
목적 성원국사이의 국가관계를 강화하며,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독립과 주권을 보위하기 위하여 그들사이의 정치적행동의 통일을 도모하며 성원국들사이의 리익에 저촉되는 일체 문제들을 공동으로 심의하며 경제, 문화, 사회, 보건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데 있다.
성원 17개나라—애급, 수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예멘아랍공화국, 리비아, 수단, 마로끄, 쿠웨이트, 알제리, 남부예멘, 아랍추장국련방, 오만, 까타르, 바레인, (팔레스티나는 방청으로 이 기구의 각종 회의에 참가)
기구 리사회(최고기관, 매해 2차 소집), 경제리사회, 합동방위위원회
본부소재지 까히라(애급)

아프리카통일기구

성립 1963년 5월 22일～26일에 진행된 31개국 아프리카독립국가 수뇌자회의에서 창립
목적 아프리카에서 식민지제도의 청산, 인종격리 및 인종차별정책의 배격,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아프리카나라들의 공동방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및 과학분야에서의 협조의 강화, 분쟁의 평화적조정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것을 임무로 한다.
성원 41개 아프리카독립국가
기구 수뇌자회의(최고기관, 1년에 1차소집), 각료리사회, 총사무국, 조정, 화해 및 중재위원회, 전문위원회(6개)
본부소재지 아디스 아바바(에티오피아)

아프리카말가슈공동기구

성립 1965년 2월
목적 프랑스공동체에 속한 아프리카나라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및 군사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며 국제무대에서 일치한 정책을 실시할것을 목적으로 결성되였다. 그러나 자이르(1972년 4월), 콩고(1972년 9월), 까메룬(1973년 7월 2일), 챠드(1973년 7월 3일), 말가슈(1973년 8월 4일)등이 탈퇴하고 성원국들 사이에서는 이 기구의 유익성에 대한 의견대립이 격화되고있다.
성원 10개나라—상아해안, 다오메, 가봉, 상부볼따, 니제르, 중앙아프리카, 세네갈, 또고, 루안다, 모리셔스.
기구 국가수반 또는 총리회의 (최고기관, 1년에 1차소집), 각료리사회(외교부장회의)

미주국가기구

성립 1948년 4월 30일에 진행된 제9차 미주련합총회에서 <미주국가기구헌장>을 조인하고 1890년에 창설된 <범미련맹>을 <미주국가기구>로 이름을 바꾸었다.
목적 미주대륙에서의 분쟁의 평화적해결과 호상리해의 촉진을 사명으로 한다고는 하나 미제는 라틴미주지배의 도구로 리용하고있다. 최근년간 미제의 침략책동이 걸음마다 파탄되고

미제에 대한 성원국들의 항거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감에따라 내부모순은 격화되고있다.

성원 23개나라—미국과 라틴아메리카 22개국

꾸바는 1962년 2월 탈퇴.

기구 총회(매해 소집), 외교부장회의, 상설리사회—사무국, 미주경제사회리사회

본부소재지 워싱톤(미국)

중미국가기구

성립 미제의 조종하에 1951년 12월 14일 창립.

목적 미제국주의자들이 중미나라들을 장악하여 이 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성원 5개나라—엘 살바도르, 과떼말라, 꼬스따 리까, 니까라과, 온두라스

기구 대통령회의, 외교부장회의, 집행위원회, 중미의회, 중미재판소, 경제리사회, 사무국

본부소재지 산 살바도르

북구리사회

성립 1952년 3월 16일

목적 북구제국의 의회,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가맹국의 공동의 문제를 협의한다.

성원 5개국— 이슬란드, 노르웨이, 단마르크, 스웨리예, 퓐란드

기구 리사회(최고기관, 년 1회소집), 상임위원회(경제, 사회, 통신, 문화, 법률 등 위원회가 있다), 매 가맹국에 사무국이 있다.

서구동맹

성립 1948년 3월 영국, 프랑스, 벨지끄, 룩셈부르그, 화란 대표들이 조인한 《브류쎌조약》에 1954년 10월 서부독일, 이딸리아, 미국, 카나다가 가담하여 결성, 이 기구는 서독재무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미제의 책동에 리용되여왔다.

성원 7개국—영국, 프랑스, 벨지끄, 화란, 룩셈부르그, 서독, 이딸리아, 관계국은 미국, 카나다

기구 리사회(최고기관), 총회, 사무국, 군비관리기관

본부소재지 런던(영국)

구라파리사회

성립 1949년 8월

목적 구라파의 《경제, 사회적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하나 사실상 《구라파통합》의 간판밑에 서구라파에서 군사뿔럭의 창설과 서독의 재무장을 위한 미제의 침략정책실현의 도구로 리용되여왔다.

성원 17개나라—영국, 프랑스, 벨지끄, 화란, 룩셈부르그, 이딸리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단마르크, 스웨리예, 토이기, 이슬란드, 서부독일, 오지리, 기쁘로스, 스위스, 말따 (희랍은 1969년에 제명)

기구 각료위원회, 자문위원회, 구라파회의협의회, 사무국

본부소재지 스트라스부르(프랑스)

와르샤와조약기구(우호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성립 이 기구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서부렬강들이 서독군국주의를 재생시키며 그를 《나토》에 인입시킬것을 목적으로 하는 《빠리협정》을 비준함으로써 새 전쟁의 위험이 커졌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구라파 8개국 사회주의나라들이 와르샤와에서 1955년 5월 14일 《우호협조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고 이 기구를 창설하였다.

목적 이 기구는 한 사회주의나라가 적들의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공동방위의 의무를 지게 되며 체약국사이의 경제문화관계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약은 평화를 옹호하며 사회주의나라인민들의 안전과 민족적독립 및 국가주권의 공고화를 지침으로 하는 방위적인 성격을 가진 조약이다. 유효기간은 20년이다.

성원 쏘련,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민주독일, 로므니아, 웽그리아, 벌가리아

기구 정치협상위원회(최고기관, 1년에 2차소집), 상설위원회, 합동사무국, 합동군사령부

본부소재지 모스크바(쏘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성립 1948년에 형성되였던 《서구동맹》을 모체로하여 1949년 4월에 미제가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에 맞게 개편하여 조작해낸 침략적군사동맹이다.

목적 미제가 서방제국주의자들을 자기에게 예속시키며 이 나라들을 리용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며 나아가서는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 호상간의 알륵과 거액의 군사비부담으로 인한 성원국들의 불만으로 그의 내부모순은 날로 격화되고있다.

성원 1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벨지끄, 단마르크, 이슬란드, 이딸리아, 룩셈부르그, 화란, 노르웨이, 에스빠냐, 희랍, 토이기, 서독, 카나다

기구 리사회, 상설리사회, 사무국, 각종 위원회, 군사기구들이 있다.

《나토군》은 동맹국들이 제공한 군대들로서 구성되는데 언제나 미제침략군중에서 총사령관이 임명된다.

본부소재지 브류쎌(벨지끄)

동남아세아조약기구(세아토)

성립 1954년 9월 8일 미제가 영국, 프랑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타이, 파키스탄 등 8개국을 긁어모아 조작.

목적 아세아의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며 동남아세아에서 새로 독립한 나라들과 이지역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말살하는데 있다.

최근년간 파키스탄이 탈퇴하고 프랑스, 오스트랄리아등이 회의와 군사연습등에 참가하는것을 거부하고있으며 성원국들사이에 내부모순이 격화되고있다.

성원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타이, 파키스탄(1973년 11월 7일 공식탈퇴)

기구 리사회(최고집행기관)와 각종 위원회가 있다. 합동군사령부는 없고 미제가 직접 지휘하고있다.

본부소재지 방코크(타이)

아세아태평양지역리사회(아스파크)

성립 1966년 6월 미제의 조종밑에 극동과 동남아세아의 반동국가및괴뢰들로 조작된 미제의 침략도구

목적 아스파크는 사회,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기구》라는 외피를 쓰고 아세아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적극 복무하여왔다. 그러나 아스파크는 1973년 3월에 말레이시아가 탈퇴하고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가 《자주적정책》을 선포함으로써 붕괴위기에 처해있다.

성원 일본, 필리핀, 타이, 남조선괴뢰, 남부웰남괴뢰, 장개석도당,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캄보쟈 및 라오스괴뢰도당은 방청으로 참가)

기구 각료회의, 상설위원회, 사무국

동남아세아국가련합(아세안)

성립 1967년 8월 미제의 조종밑에

조작된 반동기구

목적 동남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신식민주의적팽창과 지배를 유지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투쟁력량을 반대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원 인도네시아, 타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기구 외교부장회의(매해 1차씩소집), 상설위원회

안쥬스동맹

성립 1951년 9월 미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사이에 맺어진 《3국안전보장조약》에 기초하여 성립

목적 미제가 아세아의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을 반대하고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조작해낸 침략적군사동맹이다.

안쥬스동맹은 알류산렬도로부터 뉴질랜드에 이르는 일련의 섬나라들을 련결시키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군사동맹체계의 한부분을 이룬다.

성원 미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기구 리사회, 군사위원회

본부소재지 워싱톤

중앙조약기구(쎈토)

성립 1955년 2월 24일 토이기와 이라크간에 체결된 《호상방위조약》에 영국, 파키스탄, 이란이 참가하여 형성된 침략적군사동맹이다. 1959년 3월 이라크가 이 기구에서 탈퇴하자 이해 8월에 기타 성원국들이 이 기구를《중앙조약기구》(쎈토)로 개칭

목적 쎈토는 중동지역을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동남아세아조약기구》와 련결시켜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포위망을 완성할 목적으로 체결된 《반공군사망》의 한 고리이다.

이라크가 이《기구》에서 탈퇴하고 파키스탄이 모든 회의와 군사연습에 참가하지않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여있다.

성원 4개국—이란, 토이기, 영국, 파키스탄, 미제는 옵써버의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기구 리사회, 대리리사회, 군사위원회

사무국 (앙까라)

경제기구

철도협조기구

성립 1957년 9월 1일

목적 사회주의나라들간의 국제수송분야에서 과학기술적협조를 강화하는것 즉 국제철도 려객 및 화물수송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들간의 기술장비의 통일과 호상 협조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성원 12개나라, 우리 나라는 1957년 9월 1일 가입

기구 철도부장회의(최고기관, 성원국수도들에서 매년 1차씩 륜번제로 소집), 철도협조기구위원회, 철도운수위원회

본부소재지 와르샤와(뽈스까)

사회주의국가체신협조기구

성립 1957년 12월 16일

목적 체신분야에서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하며 그를 발전시키는데 있다.

성원 우리 나라를 비롯한 13개국

기구 상설조직은 없고 그 활동은 체신부장회의가 지도하며 부장회의 휴회기간의 활동은 정기회의 소집을 위임받은 나라의 체신부가 보장한다. 부장회의는 매년 1차씩 성원국들에서 륜번제로 진행한다.

경제호상원조리사회(쎄브)

성립 1949년 1월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6개국(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뽈스까, 웽그리아, 벌가리아, 로므니아) 경제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창립되였다. 1959년 12월 제12차총회에서 리사회의 규약, 협약 등이 채택되였다.

목적 사회주의나라들의 국제적경제조직으로서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를 실현하며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에 기초하여 성원국들의 경제를 발전시켜 통합경제를 실현하는데 있다.

성원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웽그리아,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로므니아 뽈스까, 벌가리아, 몽골, 꾸바, 1964년 협정에 따라 리사회일부기구들의 사업에 유고가 참가하고있다. 또한 쎄브의 일부 상설위원회회의들에 윁남민주공화국이 방청으로 참가한다.

기구 총회(최고지도기관, 성원국들의 수도들에서 륜번제로 매년 2차씩 소집), 집행위원회(리사회의 집행기관, 성원국의 부총리들로 구성되며 2개월에 1차이상씩 소집), 서기국, 상설위원회, 국제투자은행

본부소재지 모스크바(쏘련)

국제규격화기구

성립 1946년 10월 14일

목적 국제권고규격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국제적교류와 봉사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규격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과학, 기술 및 경제활동을 협조하기 위한데 있다.

성원 59개단체, 우리 나라는 1963년 6월 21일 가입

기구 총회(최고기관, 3년에 1차씩 소집), 리사회, 기술위원회, 서기국.

본부소재지 제네바(스위스)

아세아경제뷰로

성립 1962년 11월 1일

목적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확립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하루속히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 있다.

기구 경제토론위원회, 상설서기국(1963년 2월에 나옴)

본부소재지 콜롬보(스리랑카)

아세아아프리카경제협조기구

성립 1960년 4월 제2차 아세아아프리카경제대회에서 창립되였으며 1960년 5월 3일에 정식으로 발족되였다.

목적 아세아, 아프리카지역 나라들간의 경제적련계와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며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다.

성원 46개단체, 우리 나라는 1960년 5월 3일 가입

기구 대회(최고기관이며 2년에 1차씩 소집), 리사회(매해 1차씩소집), 상설서기국

본부소재지 까히라(애급)

아랍공동시장

성립 1965년 1월 1일

목적 주민 또는 통화의 이동의 자유, 령역내 또는 령역외 제품 무역의 자유, 거주, 로동 및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수송 및 통과, 공항, 항만 리용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다.

성원 애급, 이라크, 수리아, 요르단

기구 아랍금융기구, 아랍란카회사, 전아랍항공기구, 아랍해운회사

석유수출국기구

성립 1960년 9월 바그다드에서 열린 5대석유수출국회의(이라크,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베네수엘라)에서 창설되였다.

목적 석유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생산할당에 대해 국제석유회사와 협의하며 국제석유회사로부터 보다 많은 리권료를 획득하기 위해 수출국이 공동으로 교섭하는데 있다.

성원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알제리, 베네수엘라, 까타르, 인도네시아, 리비아, 아랍추장국련방, 나이제리아

기구 총회, 리사회, 사무국

본부소재지 윈(오지리)

동아프리카공동체

성립 1967년 6월 6일

목적 공업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재정 및 기술적 협조를 보장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간다의 캄팔라에 2천만파운드의 자본금을 가진 동아프리카개발은행을 두고있다. 이 은행의 출자금은 우간다와 탄자니아가 각각 38.7%, 케니아가 22.5% 투자하고 있다.

성원 케니아, 탄자니아, 우간다

기구 국가수반회의 (최고기관), 집행기구(특별히 임명된 3명의 각료들로 구성), 협상기구(성원국의 각료들이나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립법회의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

성립 1964년 11월

성원 31개국(아프리카독립국가에 한함)

기구 리사회, (리사국은 마로끄, 에티오피아, 리베리아, 가나, 나이제리아, 알제리, 애급, 다오메, 탄자니아)

본부소재지 아비장(상아해안)

안데스지역<공동시장>기구

성립 1969년 5월 26일

성원 칠레, 페루, 에꽈도르, 콜롬비아, 볼리비아

본부소재지 리마(페루)

중남미자유무역련합

성립 1961년 6월

목적 경제개발을 촉진하며 무역장벽을 철페하며 1980년까지 자유무역지역을 창설하는데 있다.

성원 아르헨띠나, 브라질, 칠레, 빠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메히꼬, 에꽈도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기구 체약국회의 (최고결정기관), 상설집행위원회, 집행사무국

본부소재지 몬떼비데오(우루과이)

중미공동시장

성립 1961년 6월 3일

목적 호상 관세를 철페하고 무역을 자유화하는데 있다.

성원 살바도르, 파떼말라, 꼬스따 리까, 니까라과, 온두라스

기구 대통령회의(최고기관), 외교부장회의 (2년에 1차씩 소집), 경제리사회, 사무국

본부소재지 파떼말라시(파떼말라)

미주개발은행

성립 1960년 2월

목적 아메리카나라들의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

성원 23개나라(미주국가기구성원국 23개국이 망라)

기구 총무회(최고기관), 리사회, 사무국

구라파경제공동체(구라파<공동시장>)

성립 1957년 3월 25일 프랑스, 서부독일, 이딸리아, 벨지끄, 화란, 룩셈부르그 등 6개국이 구라파<공동시장> 창설에 관한 조약에 조인하고 그후 이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1958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였다.

목적 서구라파에서 미제의 지배와 영국의 구라파침투를 막고 프랑스, 서부독일이 이 지역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창설한 <경제동맹>이다.

성원 프랑스, 서부독일, 이딸리아, 벨지끄, 화란, 룩셈부르그, 영국, 단마르크, 아일랜드

기구 경제사회평의회(자문기관, 소재지 브류쎌), 통화평의회(자문기관, 소재지 브류쎌), 구라파투자은행, 구라파사회기금, 개발기금, 운수위원회

구라파석탄및강철공동체

성립 1951년 4월

목적 성원국들사이에서 석탄, 강철의 단일한 공동시장을 창설하고 관세, 수량제한 등 무역상 제한을 없애며 성원국가시장들에 비성원국가들 특히 미영제국주의독점체들의 침투를 막기 위한데 있다.

성원 프랑스, 서부독일, 이딸리아, 화란, 벨지끄, 룩셈부르그

구라파원자력공동체(유라톰)

성립 1957년 3월

목적 <원자력부문에서의 협조>라는 간판밑에 서방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작

성원 프랑스, 서부독일, 이딸리아, 벨지끄, 화란, 룩셈부르그

기구 과학기술위원회, 공동원자력연구소, 국제재판소

구라파자유무역련합

성립 1960년 5월 3일

목적 영제국주의자들이 서구라파에서 저들의 리권을 유지하며 <령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구라파<공동시장>에 대항하여 창설한 배타적인 경제블럭이다.

성원 영국, 스웨리예, 노르웨이, 단마르크, 오지리, 스위스, 뽀르뚜갈, 이슬란드, 핀란드(준가맹국)

기구 리사회, 관세위원회, 무역전문위원회, 예산위원회, 농업조정위원회, 경제개발위원회, 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협의위원회

본부소재지 제네바(스위스)

국제항공운송협회

성립 1945년에 성립된 세계정기항공회사 단체이다

성원 104개회사(국제항공회사 90개, 국내항공회사 14개)

기구 년차총회, 집행위원회, 운임회의, 사무국

본부소재지 몬트리올(카나다)

경제협조개발기구

성립 1961년 9월 30일

목적 이른바<경제장성, 생활수준향상>이라는 미명밑에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여 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지배를 강화하는데 있다.

성원 23개나라(이외 준가맹국 1개국

기구 리사회(최고기관), 집행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회

본부소재지 빠리(프랑스)

국제상업회의소

성립 1920년
목적 각국 상업회의소의 련락조정을 하며 각국 실업인의 호상<원조>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무역을 증대하는데 있다.
성원 90개나라
기구 총회(최고기관, 가맹국 실업가들로 구성, 1년에 1차씩 소집), 리사회, 상설위원회
본부소재지 빠리(프랑스)

과학, 사회, 문화 기구

련합원자핵연구소

성립 1956년 3월
목적 사회주의나라들로서 조직된 과학연구 및 실험기구로서 원자력을 평화적목적에 리용하기 위하여 핵물리학분야의 리론 및 실천 사업을 공동적으로 진행하며 학자들간의 협조를 강화한다.
성원 우리 나라, 벌가리아, 웽그리아, 민주독일,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로므니아, 쏘련, 몽골, 민주웰남, 알바니아
기구 대표자회의(최고기관, 1년에 1차 소집), 과학평의회
본부소재지 두브나(쏘련)

사회주의나라보건부장회의

성립 1956년 4월 10일
목적 사회주의나라 보건일군들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더욱 확대하며 국제보건기구들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의 지위를 강화하는 등 공동보조를 취할 문제들을 토의한다.
성원 우리 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만 참가
기구 보건부장특별회의, 보건부장회의(년 1회소집)

세계과학자련맹

성립 1946년 7월 21일
성원 28개단체, 우리 나라는 1957년 9월 1일 가입
기구 총회(최고기관 2—3년에 1차소집), 집행리사회, 서기국
본부소재지 런던(영국)

국제과학동맹 리사회

성립 1921년에 창립된 국제연구리사회가 1931년에 국제과학동맹리사회로 개칭, 자연과학부문의 종합적성격을 띤 비정부적 국제기구
목적 자연과학분야에서 각국과학동맹의 활동을 조정하고 그들의 과학사업을 지원하며 성원국들의 과학사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호상 련계를 강화한다. 국제과학동맹리사회산하에는 13개의 과학동맹이 있다.
성원 60개, 우리 나라는 1961년 9월 28일가입
기구 총회(최고기관, 3년에 1차소집), 집행위원회, 뷰로
본부소재지 헤그(화란)

국제적십자

성립 1967년에 적십자의 국제조직으로서 적십자사련맹, 적십자국제위원회 각국적십자사들과 <전쟁희생자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1864년 조인)의 참가국들로서 구성되여있다.
우리 나라는 1958년 6월 27일에 가입
기구 대회(최고심의기관, 4년에 1차씩 소집), 상설위원회, 대표자리사회
본부소재지 제네바(스위스)

적십자사련맹

성립 1919년 5월 5일 26개국 적십자단체들의 참가하에 창설
목적 각국 적십자단체들의 국제적조직체로서 모든 나라 인민들의 재난구제사업과 보건위생, 간호원양성, 청소년적십자단체들간의 정보교환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성원 117개나라, 우리 나라는 1957년 10월 26일가입
기구 리사회(최고기관, 2년에 1차씩 소집), 집행위원회, 서기국
본부소재지 제네바(스위스)

적십자국제위원회

성립 1864년 8월
목적 <인도주의>와 <정치적중립성>의 간판밑에 자본주의제도와 침략전쟁을 미화분식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음으로 양으로 돕고있는 반동단체
기구 위원회(지도기관)
본부소재지 제네바(스위스)

국제영화기술협회동맹

성립 1957년
목적 영화기술분야에서 정보의 교환과 기술자들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적인 협조를 촉진시키며 영화기술발전과 관련된 규격을 표준화하는 사명을 가진다.
성원 20개나라 단체, 우리 나라는 1961년 9월 29일 가입
기구 총회(최고지도기관, 2년에 1차 소집), 리사회, 사무국
본부소재지 빠리(프랑스)

국제과학영화협회

성립 1947년 10월 빠리에서 창립
목적 과학영화의 리용을 표준화하고 필림의 생산과 리용 및 기술자재에 대한 통보와 과학영화의 국제적교환을 장려하며 과학영화생산의 국제적인 일치와 국제적인 체계에서 표준적인 문헌의 채용 및 평정을 장려한다.
성원 29개의 단체, 우리 나라는 1961년 9월 16일 가입
기구 총회(최고지도기관, 1년에 1차 소집), 리사회, 3개의 상설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있다.
본부소재지 빠리(프랑스)

국제도서관협회련맹

성립 1929년 6월 15—20일에 로마에서 진행된 제1차 국제도서관원및 도서해제가대회에서 창립
목적 도서관사업과 도서해제분야에서 호상협조를 강화하며 도서관, 도서관원및도서해제가협회와 기타 조직들간의 국제적련계를 발전시킨다.
성원 5개의 도서부문국제기구와 57개국의 92개 단체, 우리 나라는 1970년 11월 13일 가입
기구 대회(최고지도기관, 보통 5년에 1차소집) 총리사회, 집행국, 협상위원회, 11개의 위원회가 있다.
본부소재지 런던(영국)

국제문헌련맹

성립 1895년에 창립된 국제저작연구위원회를 1931년에 국제문헌연구소로, 1938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
목적 국제적공동사업을 통한 문헌 및 과학기술정보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성원 48개 협회, 우리 나라는 1967년 9월 14일 가입

기구 총회(최고지도기관, 2년에 1차 소집), 리사회, 집행위원회, 사무국
본부소재지 헤그(화란)

국제건축가동맹

성립 1948년 6월
목적 여러나라 건축가들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건축과 건설 분야에서의 경험들을 교환한다.
성원 77개의 단체, 우리 나라는 1955년 7월 11일 가입
기구 대회(최고기관, 2년에 1차씩 소집), 집행위원회, 뷰로
본부소재지 빠리(프랑스)

국제전기공학위원회

성립 1906년
목적 각국 전기공업부문의 규격을 조절하며 통일시킨다.
성원 41개나라의 단체, 우리 나라는 1963년 10월 25일 가입
기구 리사회(최고기관, 1년에 1차 소집), 집행위원회, 사무국, 60여개의 전문가위원회가 있다.
본부소재지 제네바(스위스)

세계가금과학협회

성립 1912년 7월 18일에 조직된 국제가금교원및연구가협회가 1930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침
목적 가금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교환을 장려하고 강연, 실험, 실습 및 실제적자료를 통하여 이 부문의 지식을 넓히도록하며 가금생산, 시장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소개한다.
성원 18개의 협회 및 72개 나라의 개별성원, 우리 나라는 1966년 8월 가입
기구 총회(최고지도기관, 4년에 1차 소집), 리사회
본부소재지 런던(영국)

국제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기구

성립 1946년 6월 26일
목적 각 방송단체들사이의 련계를 설정하고 방송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며 방송경험을 교환하고 방송활동분야에서의 정보를 교환하며 기타 방송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해결한다.
성원 25개 나라 방송기관, 우리 나라는 1954년 11월 29일 가입
기구 총회(최고지도기관, 2년에 1차씩소집), 행정리사회, 서기처, 기술중앙전문연구분과들이 있다.
본부소재지 쁘라하(체스꼬슬로벤스꼬)

국제우표수집가련맹

성립 1926년 6월 18일
목적 우표수집가들사이의 우표사업과 관련된 실무적 련계 및 협조를 강화하며 전반적우표수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그들의 리해관계를 옹호한다.
우리 나라는 1965년 6월 15일 가입
기구 대회(최고지도기관, 매해 소집), 리사회, 집행위원회, 뷰로
본부소재지 제네바(스위스)

국제자연및자연자원보호동맹

성립 1948년 10월 5일
목적 자연보호에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부, 국제적조직 및 인사들사이의 협조를 촉진시키고 자연보호에 대한 통보를 수집하여 성원국들에 제공한다.
성원 70개나라 정부 및 협회, 우리 나라는 1963년 5월 17일 가입.
기구 총회(최고지도기관, 3년에 1차 소집), 집행위원회, 서기국.
본부소재지 모르쥬(스위스)

국제양봉가협회련맹

성립 1949년
목적 전세계에서 양봉업의 과학기술 및 경제적발전과 양봉단체들사이의 친선협조를 촉진시킨다.
성원 46개나라 단체, 우리 나라는 1965년 8월 25일 가입
기구 총회(최고지도기관), 집행위원회, 5개의 상설위원회
본부소재지 로마(이딸리아)

국제항결핵동맹

성립 1922년에 국제항결핵중앙본부를 국제항결핵동맹으로 개편
목적 세계각국의 항결핵협회사업을 통일적으로 추진시키고 결핵과의 투쟁에서 얻은 경험을 교환하는 사업을 조직하며 항결핵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여 보도한다.
성원 87개 단체, 우리 나라는 1960년 9월 3일 가입
기구 대회(최고기관, 2년에 1차 소집), 리사회, 집행위원회
본부소재지 빠리(프랑스)

국제올림픽위원회

성립 1894년 6월 16—24일에 진행된 국제체육단체회의(국제올림픽위원회 제1차총회)에서 창립
목적 국제올림픽경기를 조직지도하며 비직업적운동경기와 체육운동을 보급장려하고 지도하며 각국체육인들간의 친선을 강화한다. 4년에 한번씩 올림픽경기를 한다.
성원 126개의 민족올림픽위원회, 우리 나라는 1962년 6월 5일에 가입
기구 총회(1년에 1회 또는 2회 소집), 집행위원회
본부소재지 로잔느(스위스)

올림픽위원회외에 체육기구로서 국제축구련맹, 국제배구련맹, 국제탁구련맹, 국제빙상련맹, 국제아마츄어륙상경기련맹, 국제아마츄어롱구련맹, 국제체조련맹, 국제아마츄어권투협회, 국제력기련맹, 국제아마츄어레스링련맹, 국제사격동맹, 국제궁술련맹, 국제항공련맹, 국제자전거동맹, 가네포련맹, 사회주의나라군대체육위원회가 있다.

일 지

국내주요일지

(1972년 1월—12월)

1 월

1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를 하심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정부지도자들과 새해축전과 년하장을 교환하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수단사회주의동맹 제1차대회에 축전을 보냄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에서 돌아온 재일동포자녀들의 합숙을 찾으시고 주신 현지교시 다섯돐 기념모임 진행 ▶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는 1월 3일부터 10일까지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주간》으로 설정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뽈스까통일로동당창건 서른돐에 즈음하여 이 당 중앙위원회와 레바논공산당 제3차대회에 각각 축전을 보냄

8일 김성애동지의 지도밑에 열린 전국녀맹열성자회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녀맹단체에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누애치기를 비롯한 좋은 일하기운동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토의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 《요미우리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의 로작 발표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펴주신 새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든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종업원들은 직맹열성자회의를 열고 4월 15일전으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앞당겨 끝내며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며 이해 계획을 10월 10일전으로 끝내며 년말까지는 125%이상으로 넘쳐수행할것을 결의하고 전국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서 모범을 보인 직맹조직들과 직맹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기계절과 체신절을 제정함에 대한 정령을 각각 발표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기록영화촬영소에 선물을 보내심

15일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제정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채택 ▶ 사로청창립 스물여섯돐을 맞이하여 모범적인 사로청조직과 사로청원들을 표창하는 《김일성청년영예상》수여식 진행

17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부룬디공화국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진행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에 선물을 보내심 ▶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대표단과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대표단 사이의 회담

23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및 일조무역회사 사이의 무역촉진을 위한 합의서 조인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농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농업과학연구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농업과학원 토양부문일군들과 과학자들을 표창하심

25일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대표단과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대표단사이의 공동성명 조인

26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탄자니아련합공화국 타보라혁명와친선대표단을 환영하는 붉은기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및학생모임 진행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건설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수도건설청년돌격대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또다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심 ▶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뿌에르또 리꼬사회당대표단 사이의 회담 진행

2 월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당, 사회안전 및 인민경비대 일군련석회의 7일까지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네팔왕국 전국왕이 서거한것과 관련하여 국왕 비렌드라 비르비크람 사호데바에게 조전을 보내심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문예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영화예술인들을 표창하심 ▶ 조선예술영화촬영소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전체 일군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7일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네돐기념 평양시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구분대들에서도 경축대회 진행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통신공, 공훈방송기계공, 공훈우편통신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한 정령 발표

8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구분대를 찾으시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네돐을 맞는 장병들을 축하하심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2차대회 19일까지 진행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기계제작공칭호, 공훈자동차운전사칭호, 공훈선전원칭호를 제정하는 정령 발표

19일 첫 기계절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건설정책을 높이 받들고 평양돼지공장건설에 참가하여 모범을 보인 건설자들을 표창하심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드리는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선물을 실은 《동해호》가 남포항에 도착, 부두에서 환영모임 진행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륙해운절을 제정함에 대한 정령과 공훈수매원, 공훈량정창고원, 공훈정미공, 공훈식량공급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한 정령 발표 ▶ 조선공업기술총련맹 자동화협회대회 27일까지 진행

29일 3.1인민봉기 쉰세돐 평양시기념대회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펴주신 새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든 희천의 영웅적 기계전사들이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끝냄

3 월

1일 김성애동지의 지도밑에 녀맹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전원회의가 2일까지 진행. 회의에서는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3대기술혁명과업수행과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토의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끝낸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전보를 보내심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까메룬련방공화국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경제대학에 선물을 보내심

5일 구성공작기계공장과 만경대공작기계공장의 기계전사들이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넘쳐 끝냄 ▶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봄철체육개막식 진행 ▶ 우리 나라를 방문한 우루과이사회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종합대학에 선물을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끝낸 구성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전보를 보내심

7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2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환영하는 평양시농업근로자집회 진행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끝낸 만경대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전보를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자신문사에 선물을 보내심 ▶ 김성애동지께서 3.8국제부녀절 예순두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주재 각국 외교대표부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녀맹원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심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혜산청년광산종업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심▶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협주단에 선물을 보내시고 이협주단예술인들을 표창하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의 공동명의로 조선인민군협주단 전체 작가, 예술인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 조선인민군협주단창립 스물다섯돐기념회 진행

14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부룬디공화국 대통령이 보내는 선물이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단장에게 전달됨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잠비아공화국방문과 관련한 공동콤뮤니케 발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에 군사원조를 줄데 대한 량국 정부사이의 협정조인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원도내 인민경제 각 부문사업을 23일까지 현지지도하심

18일 룡암포조선소에서 1천350톤급 행장운반선 《백마산》호를 무어 바다에 띄움 ▶ 윁남, 캄보쟈, 라오스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천—세포 사이의 새 철도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는 전국청년돌격대원들과 청년건설자들을 축하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하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일성상》을 제정함에 대하여와 《김일성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 정령을 발표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전거행진단을 환영하는 청진시군중집회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맑스-레닌주의학원에 선물을 보내심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지교시열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415군부대에서 기념보고회 진행

22일 조선국민회창건 쉰다섯돐기념중앙강연보고회와 전국사회과학토론회 진행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전원회의 확대회의 23일까지 진행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건설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을 표창하심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천—세포 사이의 철도건설에 참가하고있는 전국청년돌격대원들과 청년건설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예순돐기념전국당간부양성기관과학토론회 27일까지 진행

27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구분대들을 현지지도하시고 동해지구륙해공군지휘관, 정치일군들을 만나심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삼가드리는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선물을 싣고온 배들이 남포항에 도착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학도서 집필 및 출판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기관들과 일군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30일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제정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채택 ▶ 김성애동지께서 평양시 녀맹원들의 봄철나무심기를 지도하심

3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황해제철소 소결로직장건설에서 모범을 보인 건설자들을 표창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앞두고 녀맹중앙위원회에서 강연회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과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 간의 회담 진행 ▶ 계관근위천리마검덕광산에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끝냄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부총리 겸 공안부장인 사부치가 서거한데 대하여 주은래총리에게 조전을 보내심

4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인가족녀맹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심 ▶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앞두고 직총중앙위원회에서 중앙강연회를 가짐

3일 전국사회과학자대회 10일까지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 탁아소, 유치원 상점들에 선물을 보내심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모범을 보인 룡양광산에 표창을 하심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답례방문하심 ▶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과 팔레스티나해방조직대표단간의 회담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과 이라크사회부흥당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이 당들의 민족지도부에 각각 축전을 보냄 ▶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앞두고 사로청 중앙위원회에서 중앙강연회를 가짐

7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성애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평양지구군인가족녀맹 예술소조공연에 초대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끝낸 계관군위천리마검덕광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통일혁명당대표들이 평양에 옴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성진내화물공장과 이곳 일군들을 표창하심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빛나는 공헌을 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조선인민군(조선인민경비대) 군부대들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국가경제문화기관 간부들과 근로자들, 조선인민군(조선인민경비대) 군관, 장령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간부들에게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와 사회주의문화건설부문에서 사업하는 일군들에게 《김일성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각각 정령을 발표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전거행진단이 평양에 도착, 20여만 군중이 40리연도에서 그들을 열렬히 환영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맞으며 천리마구성공작기계공장의 로동계급이드리는 충성의 선물 1만 20대의 공작기계를 생산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함께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시하누크친왕이 지방참관을 위하여 평양을 떠나심,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참관하심

11일 서두수발전소의 제1계단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두수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기업소들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신 축하전보문과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 내각에서 이곳 건설자들에게 보낸 축하문을 전달 ▶ 김책제철소 3호해탄로건설을 끝내고 조업식을 진행, 모임에서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 내각의 축하문 전달 ▶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와 자강도인민위원회가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환영하여 연회를 차림, 연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연설하심 ▶ 조선로동당 중앙당학교를 《김일성고급당학교》로 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예순돐을 맞으며 전국출판보도부문일군들의 과학토론회 진행

12일 수령님탄생 예순돐을 맞으며 전국녀성과학토론회 진행

13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그이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축하문을 드림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기념로작전시회 열림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작기계 1만대고지를 점령한 천리마구성공작기계공장, 공작기계 2천 518대를 생산한 천리마만경대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성애동지께서 캄보쟈인민의 민족적명절인 새해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남조선혁명조직들과 인민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직들과 재일동포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보내온 선물을 당과 정부의 간부동지들이 돌아봄

14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중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발표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건설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건설사업소를 표창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전국녀맹예술소조공연을 보심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충성의 노래모임 가짐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야회 가짐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 축하방문하여온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만나심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소년단전국련합단체대회 가짐,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참석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전국 학생소년예술축전 종합공연을 보심

17일 강반석녀사탄생 여든돐기념 전국당간부양성기관녀성과학토론회 열림

18일 강반석녀사탄생 여든돐기념 중앙강연회 가짐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방문하시고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를 함께 보심 ▶ 남포혁명학원을 《강반석혁명학원》으로 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결정을 전달하는 모임 가짐 ▶ 웨. 이. 레닌탄생 백두돐에 즈음하여 영화감상회와 사진전시회 열림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전국대학예술축전 종합공연을 보심 ▶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녀사탄생 여든돐기념 중앙보고회 가짐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기관사, 공훈철길원, 공훈철도수송원, 공훈보이라공, 공훈소성공, 공훈도시관리공 칭호를 제정함에 대한 정령 발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6차회의 예비회의가 열림

21일 파키스탄조선친선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집회 가짐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예순돐을 경축하는 전국체육축전이 열림 ▶ 우리 나라와 루안다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조인

23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맞이하여 전국사회과학토론회 가짐 ▶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기념 중앙강연회 가짐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전국로동자예술소조 종합공연을 보심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경축보고대회를 성대히 가짐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제막식과 조선혁명박물관개관식 성대히 가짐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경축하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로농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 열병식 성대히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경축연회를 베푸심 ▶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경축하는 평양시근로자들의 야회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묘에 당과 정부 간부들이 화환을 진정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령님께 드리는 재일동포들의 편지전달이어달리기대표단 성원들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경축 집단체조 인민상계관작품 《로동당의 기치따라》를 창작한 지도일군 및 교원들과 각각 기념사진을 찍으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편지전달식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경축하는 집단체조 인민상계관작품인 《로동당의 기치따라》를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두돐에 즈음하여 차린 연회에 초대되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하심

27일 조선칠레친선협회 결성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6차회의 30일까지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면바다물고기잡이에서 높은 성과를 올린 12개 단체들을 표창하심

5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를 보심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안전성예술단체에 선물을 보내시고 이곳 일군들을 표창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앙송도원소년단야영소에 선물을 보내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 김영주동지께서 남조선중앙정보부장과 5일까지 회담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에 온 남조선중앙정보부장을(4일에도) 만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과 함께 사리원방직공장을 참관하시였으며 조선인민군 구분대도 찾으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의 참석밑에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환영하는 사리원시군중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황해북도위원회와 황해북도인민위원회가 연회를 차림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크와메 느크루마가 서거한데 대하여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호메드 세쿠 투레에게 조전을 보내심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차린 연회에 초대되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하심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학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에 선물을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원도 평강군과 평남도 문덕군에 모범교육군칭호를 수여하시고 평강군의 교육일군들을 표창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위하여 오찬회를 베푸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캄보쟈왕국의 공동성명 조인 ▶ 문화성과 대외문화련락위원회는 중국상해무용극단을 환영하여 연회를 차림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예술소조종합공연을 보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체육지도위원회에 선물을 보내심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조국에 온 재일조선인축하단, 자전거행진단, 재일조선인과학자대표단, 제6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진행 ▶ 중국 상해무용극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집회 진행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운수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리태영동무가 일하는 공장에 선물을 보내시고 이 공장일군을 표창하심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예순돐재일조선인축하단을 환영하는 함흥시군중대회 성대히 진행 ▶ 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을 환영하는 집회 진행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과 담화하심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출판지도국산하 인쇄공장들과 평양종합인쇄공장 종업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위원장을 환영하여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를 창조한 창작성원들과 지도교원들, 모든 학생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위원장과 회담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위원장과 함께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을 돌아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 9. 15주탁아소에 선물을 보내심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군절을 제정함에 대한 정령 발표 ▶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 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진행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위원장에게 소말리아에 대한 기록영화 《새사회건설에 일떠선 소말리아》를 선물하시고 이 영화와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를 함께 보심

22일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을 환영하는 사리원시군중대회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함께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이 천리마황해제철소를 참관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외국문출판사에 선물을 보내심

23일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과 그 일행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위원장이 연회를 차림, 연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연설하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정부 사이의 경제및기술적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던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위원장이 평양을 출발 ▶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아까마쯔 이사무의 부인과 그의 딸을 환영하는 평양시녀성들의 집회 진행 ▶ 조선인민군초병들이 전선서부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기여든 여러놈의 적무장악당을 격멸소탕 ▶ 우리 나라에서 수단혁명승리 세돐에 즈음하여 《조선수단친선주간》을 설정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서 중국상해무용극단의 공연을 보시였으며 그 지휘성원들과 예술인들을 만나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탄생 예순돐 재일조선인축하단 성원인 엄정민동지를 환영하는 평양시녀성들의 모임 진행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열일곱돐기념 평양시보고회 성대히 진행 ▶ 수단혁명승리 세돐 평양시기념집회 진행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국 《뉴욕타임스》기자들을 만나심

29일 박성철동지가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고 남조선당국자들과 회담 ▶ 문덕군내 농근맹원들 열성자회의를 열고 김매기를 제철에 끝내며 논밭을 알뜰히 가꾸어 지난해에 비하여 알곡생산을 1.3배로 높일것을 결의하면서 벌방지대 군들에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31일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이란인민당대표단사이, 우리 나라대표단과 일본공명당대표단사이의 회담이 각각 있었음

6 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칠레공화국사이의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할데 대한 공동콤뮤니케 조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공명당대표단을 위하여 만찬을 베푸심

2일 일본공명당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집회 진행 ▶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기념 중앙강연회 진행 ▶ 남조선학생들의 6.3봉기 여덟돐기념 평양시청년학생보고회 진행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량강도내 인민경제 각 부문사업을 현지지도하심 ▶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기념보고회 혜산시에서 진행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절을 제정함에 대한 정령 발표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을 기념하는 인민무력 및 군중시위 성대히 진행, 경축연회 가짐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웅진—부포사이의 새 철도건설공사에서 모범을 보인 기관, 기업소들에 선물을 보내심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량강도내 당, 정권 및 경제기관 일군협의회를 6일까지 지도하심 ▶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수립 세돐 평양시기념회 진행

6일 이란인민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결과에 대한 공동보도 발표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대표단과 일본공명당대표단사이의 공동성명 발표

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북도내 인민경제 각부문사업을 15일까지 현지지도하심 ▶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뽀르뚜갈공산당대표단 사이의 회담 진행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북부웰남의 모든 항구들을 봉쇄하면서 웰남민주공화국의 전지역에 야만적인 폭격과 포격을 더욱 미친듯이 감행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일본반동들이 정기국회에서 재일조선공민들의 제반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탄압말살하기 위한 악법을 조작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 《로동신문》이 1894년 6월 9일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 78돐에 즈음하여 《력사는 되풀이 될수 없다》라는 론설을 발표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북부웰남의 모든 항구들을 봉쇄하고 주민지역들에 대한 련속적인 폭격과 포격을 미친듯이 감행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탄생 예순돐재일조선인축하단을 환송하는 청진시군중대회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량강도의 인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 공작기계를 보내심 ▶ 김성애동지의 지도밑에 함경북도녀맹일군협의회 진행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및기술적 협조에 관한 협정과 1972년—1973년도 상품류통에 관한 의정서 조인 ▶ 칠레경제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탄생 예순돐재일조선인축하단이 떠나감

16일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 제20차회의에서 본회담의 의정을 합의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신문사에 선물을 보내심 ▶ 김성애동지의 지도밑에 함경남도 녀맹일군협의회 진행

19일 조쏘정부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8차회의가 평양에서 24일까지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벌가리아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우편물 및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조인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킴에 있어서 모범을 보인 4개의 2중천리마교원작업반에 천리마 영예상을 주심 ▶ 연극《연풍호》에 인민상을 수여하는 모임 진행

21일 조선로동당대표단과 핀란드공산당대표단사이의 회담진행

22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1도대표단을 환영하며 이나라 시정조치 세돐을 기념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청소년빙상및스키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준 학교와 체육선수단들에 선물을 보내심

24일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진행, 대회에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성시건설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선물을 보내주시였으며 열관리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주심 ▶ 첫 체신절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전국열관리원대회 30일까지 진행 ▶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받은 근위3급서평양기관차대 붉은 수송전사들 150만키로메터 무사고정시운행을 승리적으로 돌파

7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전원회의 6일까지 진행 ▶ 녀맹중앙위원회 김성애위원장동지께서 평양시 삼석구역 군인가족들의 누에치기를 지도하심 ▶ 우리 나라무역선 《만경봉》호가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일본에 도착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것과 관련하여 국내외기자회견 ▶ 우리 나라에서 조선알제리친선주간(7월 5일—7월 11일)을 설정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군중집회 각지에서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교예단창립 스물다섯돐을 기념하는 예술인들의 공연을 보심 ▶ 알제리독립 열돐 평양시기념경축집회 진행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어린이옷공장에 선물을 보내심

8일 김형직선생님탄생 일흔여덟돐기념 중앙강연회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518군부대창립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이곳 모범적인 교직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 조선인민군 제518군부대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성애

동지께서 로므니아전국녀성리사회대표단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심 ▶ 몽골인민혁명 선한돐 기념집회 진행

10일 우리 나라에서 《꾸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설정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평양교예단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제관계대학에 선물을 보내심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맹선전일군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 우리 나라에서 웰남에 관한 제네바협정 열돐에 즈음하여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지지주간(7월 14일부터 20일까지)을 설정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레유니옹공산당 제3차대회, 일본공산당창건 선돐에 즈음하여 이 당중앙위원회에 각각 축전을 보냄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 니이가다시장을 위하여 오찬을 베푸심 ▶ 일본 니이가다시장 와다나베 고떼로와 그 일행을 환영하는 집회 진행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김일성고등물리학교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

16일 수리아아랍공화국 교육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교육일군집회 진행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여 연회를 차림

18일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및정부대표단 사이의 회담 진행

19일 파눌루쁘로동총련맹 서기장부부를 환영하는 평양시근로자집회 진행

20일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21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사회당 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대표단을 위하여 만찬을 베푸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큰물피해와 관련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무위원회 한덕수의장에게 전문을 보내심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쿠웨이트국가국회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베푸심 ▶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보호를 요구한 일본고기배 20척이 우리 나라 항구에 들어옴 ▶ 우리 나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일본고기배 《호요마루12》호가 우리 나라 령해에 들어온것과 관련하여 일본적십자사로부터 보내온 전문에 대하여 답전을 보냄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방청성동무소속구분대장병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군사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베푸심 ▶ 조국방문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축구소조와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가 평양에 옴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예멘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하심

29일 남녀평등권법령발표 스물다섯돐기념 중앙강연회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립 스무돐을 맞는 국영5호종합농장에 선물을 보내시고 이 농장모범일군들을 표창하심

30일 강반석어머님 서거 마흔돐 중앙추모회 진행 ▶ 예멘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함흥시군중대회 진행

31일 불멸의 기념비적명작 우리 나라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가 제18차 국제영화축전에서 특별상과 특별메달을 받음 ▶ 예멘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진행 ▶ 당과 정부의 간부동지들과 평양시 내 근로녀성들이 강반석녀사의 묘와 동상에 화환과 꽃묶음을 드림

8 월

1일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열아홉돐에 즈음하여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친선야회 진행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우간다공화국 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 설정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문광만동무소속구분대 군인들에게 선물을 주심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립스무돐을 맞는 김일성고등물리학교에 선물을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 8월 6일에 하신 연설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발표 한돐을 맞이하여 중앙강연회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대표단 대변인은 본회담이 8월 5일에 열리지 못하게 된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측이 예비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줄것을 요구하여 성명 발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예멘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발표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성군내 지방산업공장들과 비날론, 염화비닐 생산능력확장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과 청년돌격대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극히 야수적인 폭격을 준렬히 규탄하여 성명 발표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에서 하신 연설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발표 열돐을 맞이하여 중앙강연회 진행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 열돐에 즈음하여 당의 공업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양덕군내 지방공업부문일군들을 표창하시고 공장들에 선물을 보내심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강반석혁명학원에 선물을 보내심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에라 레온공화국 수도 프리타운시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베푸심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민주과학자협회는 남조선위정자들이 남북공동성명발표후 남조선애국자들을 학살하는 엄중한 배신행위를 감행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6군부대 장병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11일 500t급대형랭장운반선 《비로봉》호 진수식 청진조선소에서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상설비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천리마룡성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경비대예술소조공연을 보심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화군 삼성, 채송 협동농장들에 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보내심 ▶ 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김병문동무소속구분대군인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방문 도꾜조선중고급학교축구소조와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음악무용소조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의 공연을 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여러 2중천리마작업반에 천리마영예상을 주심

19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제25회

졸업식진행

20일 평양시내 72개 공장, 기업소들과 820여개의 청년직장, 청년작업반, 청년돌격대들에서 1972년도계획과 6개년계획의 3년분과제를 끝냄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까메룬련합공화국 정부친선대표단을 위하여 만찬을 베푸심 ▶ 사회주의조국으로 돌아오는 재일동포들을 태워온 165차귀국선 《만경봉》호가 청진항을 떠남(27일 돌아옴) ▶ 까메룬련합공화국 정부친선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 김성애동지께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과 그리고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일군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앙방송예술단에 선물을 보내심

25일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본회담에 자문위원으로 참가할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이 재일조선인기자단과 함께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본회담에 참가할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과 재일조선인기자단을 환영하여 연회를 베푸심

29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 일용품공업성을 새로 내옴에 대하여와 지방공업성을 지방공업위원회로 고칠데 대한 정령 발표

30일 남북적십자단체들의 본회담 평양에서 개막, 본회담 제1차회의 성과적으로 진행

9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첫개학날에 평양시 대동문인민학교를 찾으시고 강령적교시를 하심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 청년학생들과 조국방문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련환회의에 참석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북적십자 본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한 자문위원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과 재일조선기자단을 환영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 《피바다》공연을 그들과 함께 보심

3일 남북적십자 본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한 자문위원인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과 재일조선기자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5일에는 함흥시군중대회, 11일에는 사리원시군중대회 각각 열림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립열돐을 맞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 선물을 보내시고 이곳 모범일군들을 표창하심

5일 조국에 와서 뜻깊은 여름방학을 보낸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축구소조와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음악무용소조 성원들을 환송하는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모임 진행(7일 일본을 향해 조국을 떠남)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쏘련공산당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베푸심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방문 도꾜조선중고급학교축구소조와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음악무용소조원들과 이 학교들에 선물을 보내심 ▶ 노르웨이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보부 개설

7일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열렬한 공산주의자인 김경석동지의 서거열돐평양시추모회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네돐을 맞이하여 중앙강연회 진행 ▶ 일본사회당 참의원 의원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집회 진행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세네갈공화국간의 대사급외교관계 설정 ▶ 남북올림픽단체 위원장들이 서독 뮌헨에서 남북체육교류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초청하여 평양과 서울에서 회담을 가질데 대하여 합의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사회당 참의원의원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베푸심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적십자단체들의 본회담 제2차회의에 참가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이 평양을 떠남 ▶ 핀란드공화국 의회그루빠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선물을 보내심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 당사업일군휴가단의 우리 나라방문을 환영하여 연회를 차림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경제정책을 높이 받들고 1972년도 2.4분기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공장, 기업소들과 당의 상업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을 각각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주시였으며 은천군에는 《풍년호》뜨락또르를 보내심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공산당 당사업일군휴가단을 위하여 오찬을 베푸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서돼지공장에 선물을 보내심

16일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련방회의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마이니찌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로작 발표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북적십자회담 우리측 자문위원으로 참가한 총련 제1부의장과 재일조선인기자대표단을 환송하는 연회를 베푸심(21일 조국을 떠나감)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에 선물을 보내심

21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김성애위원장동지께서 평양시 중화군 마장리와 신하리 군인가족들의 누에치기를 지도하심 ▶ 일본과 조선의 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로동자집회 진행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과 조선의 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이딸리아공화국 국회대표단을 위하여 만찬을 각각 베푸심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9월방직공장건설에 참가하여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건설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잠비아공화국 정부친선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베푸심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선물을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가 전달함

27일 공화국 각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을 기념하여 중국영화상영주간 시작

29일 잠비아공화국 정부친선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이에 앞서 27일에는 함흥시군중대회가 열림

10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학생절 열돐을 맞이하여 모범적인 학생들을 표창하심 ▶ 학생절 열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포녀성및어린이옷공장에 선물을 보내심

7일 중국공산당 당사업일군휴가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또다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심 ▶ 체육절 스물세돐기념 종목별 체육선수권대회 진행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천—세포사이의 새청년철도건설에서 맡겨진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전국청년돌격대원들과 철도건설자들을 표창하시고 전체 건설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 조선로동당창건 스물일곱돐기념 중앙강연회 진행 ▶ 룡성의 기계전사들이 1972년도계획을 100.3%로 빛나게 완수 ▶ 우리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지질탐사분야에서의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과 의정서, 우리 나라와 뽈스까인민공화국사이의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1차회의 의정서 각각 조인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천—세포 사이 새청년철도건설에 참가한 전국청년돌격대원들과 철도건설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심, 《청년이천선》의 새청년철도건설이 완공되여 현지에서 성대한 개통모임 진행

11일 우리 나라와 상부볼따공화국간에 외교관계 설정 ▶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붉은기만경대혁명학원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 진행 ▶ 상부볼따공화국 정부친선대표단과 제7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각각 진행 ▶ 조선페루친선협회 결성 ▶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스물다섯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문예총 중앙위원회와 산하동맹들 및 문예출판사에 선물을 보내심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성애동지께서 체스꼬슬로벤스꼬 녀성리사회대표단을 만나심 ▶ 전국체신일군대회가 14일까지 진행됨 ▶ 라오스독립 스물일곱돐 평양시기념회 진행 ▶ 조선끼쁘로스친선협회 결성 ▶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1차회의가 있었으며 공동보도를 발표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9월방직공장조업을 경축하는 로동자예술소조 종합공연을 보심 ▶ 방송절 두돐기념보고회 진행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체신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주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붉은기만경대혁명학원에 선물을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9월방직공장 조업식 성대히 진행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주군의 농촌경리발전을 위하여 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보내심

16일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마흔여섯돐을 맞이하여 강연회 진행 ▶ 체스꼬슬로벤스꼬녀성리사회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녀성들의 군중집회 진행

17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성애동지께서 일본사회당부인활동가대표단을 만나심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9월방직공장건설에 참가한 기관, 기업소들에 선물을 보내심

20일 남북적십자회담에 우리측 자문위원으로 참가할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과 재일조선인기자단이 평양에 옴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성학생소년궁전과 조선인민군기록영화촬영소에 각각 선물을 보내심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루과이동방공화국국회대표단을 위하여 만찬회를 베푸심 ▶ 세계직업련맹 위원장을 환영하는 평양시로동자집회 진행

2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 26일까지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평북도가무단이 창작한 가극 《은혜로운 해빛아래》를 보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 23차대회에 축전을 보냄 ▶ 우루과이동방공화국 국회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 민족보위성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진선참전 스물두돐을 기념하여 연회를 차림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스물두돐을 맞이하여 평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묘에 화환을 보내심 ▶ 일본사회당부인활동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녀성군중집회 진행 ▶ 남북적십자회담 제3차회의 진행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화국 내각에서 우의탑과 중국인민지원군묘에 화환을 드림

2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도미니까공산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연회를 차림

27일 웽그리아애국인민전선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도미니까공산당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베푸심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음악대학, 각지 잠업농장들과 육종장들에 각각 선물을 보내심 ▶핀란드인민민주주의련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11월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 휴식차로 우리 나라에 오는 캄보자 국가원수 노로돔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친선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하심 ▶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2차회의가 열림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조선측 공동위원장과 그 일행을 만나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나누심 ▶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 쉰다섯돐을 맞이하여 쏘련영화상영주간 시작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탄생 쉰다섯돐을 축하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연회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연설하심 ▶ 웽그리아직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로동자집회 진행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간부동지들과 함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싼띠아고 까릴요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을 맞이하심 ▶ 조벌 두나라정부들 사이의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4차회의 의정서와 경제및기술적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건설에 참가하여 모범을 보인 단체들에 선물을 보내심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싼띠아고 까릴요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을 환영하여 연회를 베푸시고 연회에서 연설하심 ▶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 사이의 회담 8일까지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므니아에서 일어난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명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그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르 위원장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내각총리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에게 조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명의로)을 보내심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2.8체육단에 선물을 보내심 ▶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정부 무역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및 도 (직할시), 시 (구역), 군인민회의대의원 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발

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 설정 ▶ 캄보쟈왕국독립 열아홉돐기념집회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뻬루공산당대표단을 환영하여 연회를 차림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성시인민병원에 선물을 보내심

11일 공화국내각에서 말가슈공화국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방문을 환영하여 연회를 차림

12일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경제무역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와 일본교직원조합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교직원집회 각각 진행

13일 김성애동지의 지도밑에 녀맹중앙위원회 제4기 제3차전원회의 15일까지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각도(직할시)직맹조직들과 직맹선전일군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14일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 싼띠아고 까릴요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을 환영하는 사리원시군중대회, 17일에는 평양시군중집회 각각 진행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평양시예술인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심

16일 우리 나라와 말가슈공화국 사이에 외교관계를 맺을데 대한 공동콤뮤니케 조인 ▶ 말가슈공화국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18일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스물일곱돐기념 중앙강연회 진행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을 위하여 만찬회를 차림

20일 조선로동당과 에스빠냐공산당 사이에 공동콤뮤니케 발표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전적지건설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 남북적십자회담 제4차회의 진행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제216호회천선거구 천리마회천공작기계공장및 회천시내 기관, 기업소 련합종업원대회에서 추대함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녀맹중앙위원회 청사와 녀성회관을 돌아보시고 하신 교시 두돐기념보고회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건성의약품상사를 표창하시고 이곳에 선물을 보내심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탁아소유치원공급소와 종합대학에 선물을 보내심

2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성군에 모범교육군칭호를 수여하시고 모범적인 일군들을 표창하심

26일 과학원창립 스무돐기념 전국학술발표회를 28일까지 진행

27일 우리 나라와 수리아아랍공화국사이에 경제및기술적협조에 관한 의정서 조인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뿌에르또 리꼬사회당창건 한돐에 즈음하여 이 당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과학원과 사회과학원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 ▶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3차회의 공동보도가 발표되였으며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회의가 열림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과학연구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과학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 혁명적출판물 《3.1월간》창간 서른여섯돐기념 출판보도일군보고회 진행

12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각 선거구선거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를 위하여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성대한 연회를 차림, 연회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연설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녀성출판사에 선물을 보내심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고인민회의대의원으로 선거하기 위한 제216호회천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대의원후보자로 등록한것과 관련하여 중앙선거위원회 보도 발표 ▶ 남북조절위원회 공동보도 발표

3일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맹세를 다지는 평양시학생소년들의 련합단체모임 진행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과학원창립 스무돐을 기념하여 열린 과학전시관을 돌아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주조선사에 선물을 보내심

6일 재일본조선과학자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과학자들의 집회 진행 ▶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받은 신성천역일군들 종업원회의를 열고 철도운수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것을 결의하면서 이에 호응하여나설것을 전국의 역, 대, 소들에 호소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696군부대 장병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천군내 각급 학교들과 교육기관들에 선물을 보내심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하여 로력적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리영성동무소속구분대를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주심 ▶ 김성애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민주녀성동맹 평남도위원회 전원회의 9일까지 진행

10일 혜산청년광산의 영웅적광부들 지난해실적에 비하여 5배에 달하는 광물을 생산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혜산청년광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심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근로자들과 함께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심, 전체 선거자들의 100%가 투표에 참가하여 전체 선거자들의 100%가 대의원후보자들에 찬성투표

13일 우리 나라와 중국 사이의 1973년도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 조인

14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새날소년동맹창립 마흔여섯돐기념 강연회 진행

1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57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초안)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 ▶ 우리 나라와 자이르공화국 사이에 외교관계를 설정할데 대한 공동콤뮤니케 조인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와 자이르공화국 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된데 대하여 자이르공화국 대통령 모부루 쎄쎄 쎄꼬에게 축전을 보내심 ▶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과 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사이에 21일까지 회담 진행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방문일정을 마치고 조국을 떠나게 되는 재일본조선과학자대표단을 만나시고 오찬을 베푸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란사나 베아보기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여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을 하심

19일 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혜산청년광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과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학생소년궁전에 선물을 보내심

20일 김성애위원장동지의 지도밑에 전국녀맹열성자회의 진행,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녀맹단체들에 맡겨주신 경제과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토의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제과업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녀맹단체들과 녀맹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란사나 베아보기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위하여 만찬을 베푸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과학연구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과학원산하 과학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 천리마화성협동농장에 많은 농기계설비들을 보내주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기네공화국 정부 사이의 경제및기술적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 쏘련형성 선돐에 즈음하여 함흥시와 원산시에서 기념집회 진행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6차전원회의 진행 ▶ 최고인민회의 제5기제1차회의 예비회의 진행 ▶ 우리 나라 외교부장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 사이에 회담진행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희붕비외교부장을 위하여 오찬을 베푸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잠업부문농장들과 누에를 많이 치는 협동농장들에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보내심 ▶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 희붕비동지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25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 28일까지 진행,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국가기관을 선거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함 ▶ 우리 나라와 몽골인민공화국 사이의 1973년도 상품호상납입및지불에 관한 의정서 조인

26일 로므니아인민공화국선포 스물다섯돐 평양시기념집회 진행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풍광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전보문을 보내심 ▶ 공화국북반부령역에 들어왔던 남반부어민들을 돌려보냄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 발표

28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형성 선돐 평양시기념대회 진행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되신 민족적경사를 축하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성대히 진행,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충성의 우등불모임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축하방문하여온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을 만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종합대학 제2호교사건설에서 모범을 보인 건설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시였으며 태천군의 농촌경리발전을 위하여 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보내심

30일 꾸바혁명승리 열네돐 평양시기념집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모리따니인민당창건 열한돐에 즈음하여 이 당 전국정치국에 축전을 보냄

3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평양시학생소년들과 유치원어린이들의 설맞이 모임 진행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되신 민족적경사를 축하하여 각지에서 집회 진행

남조선인민들의 주요투쟁일지

1 월

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1972년 새해를 맞이하여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축진을 보냄

8일 경기도 인천시 부두로동자들이 기업주놈을 상대로 임금 34.1%를 올릴것과 퇴직금지불 등을 요구하여 투쟁, 요구조건을 관철

11일 남조선당국의 직할기업체인 석공산하 로동자들이 임금 48%를 올릴것을 요구하여 투쟁.

13일 《경영합리화》의 구실밑에 《동화통신사》에서 쫓겨난 33명의 기자, 편집원들이 부당한 해고책동을 당장걷어치울것을 《사장》놈에게 요구하여 투쟁

17일 남조선철도부문로동자들이 《적자예산》이라는 구실로 로동자들에게 주어야 할 임금 3억원이나 미루고 주지 않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밀린 임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하여 투쟁

20일 부산시 홍아다이야공장 로동자 300여명이 악질기업주놈을 상대로 밀린임금의 즉시 지불과 휴업수당 지불 등을 요구하여 경찰과 맞서 싸우며 파업투쟁을 벌림

24일 경상남도 삼천포시 동금리 일대 350여세대 주민들이 남조선관계당국에 전기불을 보내라는 요구를 들이대고 투쟁

2 월

3일 미제의 《제1은행서울지점》에 고용된 남조선로동자 50여명이 임금 49.5%를 인상할것과 민족적박해를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

7일 남조선 강원도 홍천군 한일제사회사 로동자 270여명이 악질기업주놈을 상대로 밀린임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하여 파업투쟁

9일 전라남도 목포시 부두로동자 2천여명이 밀린임금을 즉시 지불할것을 요구하여 기업주놈을 상대로 투쟁 ▶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사곡리에 사는 한 청년이 이 읍 미암리 앞길에서 군수렬차를 뒤집어엎기 위한 대담한 투쟁을 벌림

11일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에 있는 갑천중학교 학생 250여명은 교원의 탈을 쓰고 학교에 기여들어 녀학생들을 롱락하는 악질교원의 죄행을 격분에 넘쳐 규탄하면서 그놈을 당장 학교에서 내쫓을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롱성 투쟁을 벌림

12일 경기도 양주군에 사는 1천여명의 주민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무슨 《목장》을 만들어놓고 우물에 오물이 흘러들게 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있는데 대하여 항의문을 들이대고 투쟁

20일 전라남도의 화순탄광 로동자 400여명이 악질기업주놈에게 밀린임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투쟁

25일 남조선의 부산시내 모처에서 《김일성주의연구소조》를 새로 결성,

첫날 회합에서 소조의 규약을 만들고 앞으로의 소조운영방침을 토의함

26일 남조선의 《한글학회》 등 37개 학술단체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추진하고있는 한문교육부활을 반대하여 《성명서》를 발표

3 월

3일 남조선의 금속로동조합 산하 《한국베아링지부》 로동자 400여명이 남조선당국의 로조원 해고 조작을 반대하여 투쟁 ▶경상남도 삼천포시 서동에 있는 대방국민학교 학생 670여명이 운동장을 비롯하여 그밖에 학교시설들을 갖출것을 요구하여 등교거부투쟁을 벌림

8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조선맥주주식회사》 로동자들은 모임을 갖고 로조내에 반목과 리간을 조성하며 로동자들을 로조에서 떼여내려는 악질기업주놈들의 악랄한 책동을 준렬히 항의규탄하며 이러한 범죄적음모술책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림

13일 전라남도 완도군 산지면 신리에 사는 5명의 청년들이 동리에 나타나 인민들의 동태를 내탐하며 돌아치는 악질경찰놈에게 불의에 달려들어 뭇매를 안기고 너부러뜨린후 권총과 탄약을 모조리 빼앗음

22일 경상남도 고성군 삼아광업소 로동자 160여명이 밀린임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1주일간 파업을 벌려 요구조건을 관철

24일 괴뢰군 《론산륙군사관학교》의 120여명의 사병들이 악질상관놈의 가혹한 《기합》에 격분하여 집단적으로 부대를 뛰쳐나와 1시간이상 시위투쟁을 벌림

25일 충청남도 대전시내 병원 간호원 100여명이 《자격이 없다》는 구실로 내쫓으려는 남조선관계당국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파업투쟁을 벌림

27일 경상북도 안동군 풍천중학교 학생 200여명과 학부형들이 《아무런 시설도 없는 학교에서 공부할것》을 강요하는 남조선문교부당국의 책동을 반대하여 등교거부투쟁을 벌림

30일 경기도 인천시에 사는 3만여명의 시민들이 상수도 수원지 근처에 만들어놓은 오물탕크를 당장 철거할것을 요구하여 투쟁

4월

1일 서울시 성동구 구이동에 있는 뻐스차장 40여명은 회사측이 차장들을 인간이하로 천대하며 혹사하고있는데 항의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3일 경상남도 울주군 온산면내 800여명의 어민들이 어장을 황페화시킨 남조선당국자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며 피해보상대책을 요구하여 투쟁

4일 미제침략군부대에 고용된 부평지구 로동자 200여명이 동료 100여명을 부당하게 해고시키려는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 ▶부산시 《시원합성섬유공업주식회사》 로동자 100여명이 인권을 유린하는 악질기업주놈과 《세무사찰》에 나선 40여명의 《합동기동사찰반》놈들을 집단적으로 때려눕힘

5일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앞바다에서 고기잡이하던 7명의 선원들이 폭압에 날뛰는 《해양경찰대》원의 총을 빼앗아 단호히 처단

8일 경기도 의정부시내 주민들이 미제침략군놈의 군수품창고에 불을 지르는 대담한 투쟁을 벌림

14일 우리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축하문과 축기를 드림

19일 전라남도 광주시내의 뻐스회사에 종사하는 녀차장 130여명은 관계당국에 몰려가 회사측의 폭행과 비인간적인 모욕을 참을수 없다고 하면서 이런 야만적행위를 당장 그만둘것을 요구하여 강경히 투쟁 ▶서울에 있는 《한국모방직회사》의 200여명의 녀성로동자들이 《투쟁위원회》를 뭇고 남조선《로동청》을 상대로 집단해고를 반대하여 투쟁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대방동에 있는 《롯데공업주식회사》의 200여명의 로동자들이 공장을 무턱대고 헐어버리려고 달려드는 40여명의 매판자본가놈의 졸개들을 쇠몽치와 몽둥이로 호되게 족쳐 세놈을 길바닥에 너부러뜨림

24일 미제침략군부대에 고용되였던 인천항 부두로동자 900여명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터에서 내쫓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생활대책을 세우라고 항의하여 투쟁을 벌림

28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일대 3천여명의 주민들이 군사시설물을 만들어놓고 수도물을 못먹게 만드는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범죄적행위를 규탄하여 투쟁을 벌림.

5 월

2일 남조선당국자들의 야수적인 언론탄압행위로 《대구일보》가 페간됨에 따라 신문사에서 쫓겨난 30여명의 기자, 편집원들이 관계당국에 밀린임금을 당장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

10일 남조선전역의 은행기관에 고용된 2만 3천여명의 종업원들이 임금을 깎아내리려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

11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정우운수뻐스회사》 150여명의 녀차장들이 회사 앞마당에서 걱하면 감독놈을 시켜 몸을 뒤지게 하는 악질기업주놈의 간악한 죄행을 규탄하면서 비인간적인 인권유린행위를 당장 걷어치울것과 숙식조건과 대우를 개선할것을 요구하여 시위와 롱성투쟁을 벌림

14일 경상남도에서 남조선전투경찰대의 전아무개대원이 갖은 비인간적행위를 일삼고있는 악질《상관》놈을 총으로 쏘아 현장에서 즉사케 함

15일 부산시내에서 활동하는 한 애국청년단체는 시내 모처에 《김일성장군님 뜻대로 남북협상 실현하자!》, 《남북협상은 국토통일의 지름길, 시민들은 분기하라》, 《김장군님의 남북협상 제안만이 통일에로 가는 길이다》라는 내용의 삐라들을 살포함

17일 서울시 경희대학교 학생 100여명이 군용자동차로 학생을 깔아죽인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살인만행을 폭로하는 프랑카드를 내걸고 교문앞에서 모임을 갖고 투쟁을 벌림

18일 서울시내 10여개 대학 녀학생들과 녀고생들 100여명이 《유령장학회》라는것을 만들어 학생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먹는 남조선학원모리배들의 사기행위를 항의규탄하여 투쟁

20일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에 사는 500여명의 가난한 주민들이 《작전지역》으로 선포해놓고 자기들의 집을 헐어버리려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규탄하여 항의시위투쟁을 벌림

23일 경상북도 상주고등학교 학생 1천여명이 학교시설과 학습조건의 보장을 요구하여 문교부당국을 상대로 투쟁

27일 충청남도 청양군에 있는 청양중석광산에서 일하던 260여명의 광부들이 악질기업주놈의 략탈행위를 반대하며 밀린임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하여 대중적투쟁을 벌림 ▶충청남도 공주군 신풍면 신풍중학교 학생 400여명이 《교육조건에 맞는 학습분위기조성》과 체육교원놈의 파쑈적만행을 규탄하며 그놈의 축출을 요구하는 등 6개항목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수업 및 등교 거부투쟁을 벌림

6 월

4일 충청북도 단양군 <충북질소단양공장> 200여명의 로동자들이 퇴직금 지불을 요구하여 투쟁

5일 남조선의 <신민당>의원 85명이 남조선당국자들이 선포한 <비상사태를 철거하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가두시위를 벌림, 시위탄압에 나선 300여명의 기동경찰과 충돌

8일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흥한화학주식회사 로동자 1천여명은 자기들을 부당하게 해고시키려는 악질기업주놈의 책동을 반대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9일 충청남도 금산지방 100여명의 농민들이 인삼경작과 수삼처분의 허가제를 강요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파쑈적수탈조치를 반대하여 <투쟁위원회≫를 뭇고 이 조치를 철회할것을 요구하여 투쟁

14일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에 사는 주민 150여명은 아무런 대책없이 자기들의 집을 마구 헐어버리려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책동에 격분하여 <대책없는 철거에 응할수 없다>고 하면서 치렬한 싸움을 벌림

16일 남조선 전역의 5만 7천여명의 섬유부문 로동자들이 악질기업주놈의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며 임금을 평균 27% 더 올릴것을 요구하여 투쟁에 일떠섬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주민 100여명은 <입주금>의 명목으로 80~85만원을 받아먹고는 <경매처분>의 형식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다른 놈에게 집을 팔아먹으려는 책동을 반대하여 악질매판자본가놈의 사무실에 몰려가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

25일 전라남도 목포시 충무동의 모처에서 로동청년 최모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배워줌

26일 전라남도 광주제일고등학교 학생 600여명은 <교원>의 탈을 쓰고 학교에 기여들어 폭력을 일삼는 <교원≫의 축출을 요구하여 강당에서 집회를 가지고 하루종일 롱성투쟁을 벌림

29일 충청북도 옥천군내 애국적주민들이 근북면 중약리 경찰<검문소>에서 오가는 주민들을 붙잡아놓고 욕설과 위협을 일삼는 경찰놈들의 행위에 격분하여 놈들의 <검문소>를 들이치고 <경비전화선>을 끊어버리는 투쟁을 벌림 ▶경기도 화성군의 애국적주민들이 이군의 오산읍에서 수원과 평택으로 뻗은 경찰놈들의 <경비전화선> 500여메터를 잘라버리는 투쟁을 벌림 ▶서울연세대학교 350여명의 학생들과 50여명의 의사견습생들이 합세하여 교원들의 대우를 개선하며 병원안에서 감행되고있는 부정부패행위를 없애치울것을 요구하여 투쟁

30일 서울시내 동대문시장과 청계동시장의 상인들 500여명이 세금을 80%나 끌어올린 남조선당국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 ▶ 시내 중구 청계동에 있는 250개의 상점상인들이 낮 12시부터 련대적인 공동투쟁에 일떠섬 ▶남조선의 항공회사 종업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투쟁을 벌림

7 월

4일 서울시 성북구 미화동에 사는 한 주민은 동내 군중들앞에서 <김일성주석님의 만세를 부른다고 누가 잡아가겠느냐>고 하면서 <김일성장군만세!>를 목청껏 웨침

15일 전라남도 려천군 화양면과 쌍봉면내 가난한 어민 800여명이 200여척의 쪽배에 나누어 타고 <령세어민 굶어죽는다. 생활대책을 세우라>는 구호를 웨치며 대중적인 롱성투쟁을 벌림 ▶부산시에서 상인 500여명이 장터를 강제철거시킨 남조선당국자들의 부당한 행위를 반대하여 투쟁

19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집을 강제로 헐어버려 한지에 나앉게 된 경상북도 안동시 당북동에서 살던 주민 270여명은 안동<시청>에 몰려가 생활대책을 시급히 세울것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21일 전라남도 광주시 광천동에 사는 한 주민은 대의동 파출소에 부당하게 잡혀가 경찰관놈의 고문을 받는 도중 격분을 참지 못하여 파출소내 경비전화기와 일반전화기를 까부시는 등 부당한 고문을 거부하여 완강히 투쟁

22일 서울시 룡산구 이촌동일대 800여명의 주민들이 이 지역인민들로부터 22만원의 돈을 빼앗아내고 전기를 보내지 않는데 격분하여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전기불을 보낼것을 요구하여 집단적인 시위투쟁을 벌림

26일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내 5개마을 농민들이 <빼앗긴 농지를 찾아내자>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국회의사당> 앞에 몰려가 시위투쟁을 벌림

28일 남조선<국군≫ 모부대소속 천아무개를 비롯한 두 사병이 경기도 인천시 북구 부평동 앞길에서 미제침략군 도날드라는 승냥이놈에게 뭇매를 가함

8 월

6일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동용리에 있는 한일섬유회사 로동자들이 임금 50~100% 올릴것을 기업주놈에게 요구하는 투쟁을 벌려 요구조건을 관철

9일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한국모방직주식회사> 1천여명의 로동자들은 로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로동조합의 결성을 방해하는 기업주놈의 책동을 반대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10일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 선류리의 200여명 농민들이 농토를 파괴하는 군용도로공사놀음을 반대하여 군용도로공사장으로 몰려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막아나서 5시간이나 괴뢰경찰과 맞서 싸움

13일 충청남도 당진군 양유지구에 벌려놓은 토목공사장에 내몰렸던 주민 600여명은 밀린임금을 즉시 지불할것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14일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에서 미제침략군 일곱놈이 리유없이 주민들에게 술병을 던지는 등 민족적멸시를 가하는데 격분한 이곳 20여명의 주민들이 놈들에게 돌벼락을 안기며 투쟁

16일 경기도 부평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800여명의 로동자들이 미제의 박해행위를 규탄하면서 삶의 권리를 짓밟는 횡포한 조치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여 집단적인 항의투쟁을 벌림

18일 부산에 사는 한 로동자는 100여명의 군중들앞에서 <김일성원수님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그이의 령도밑에서만 로동자, 농민들이 잘 살수 있다》고 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자기의 열화같은 신뢰의 정을 표시함

19일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에 있는 《서룡산업주식회사마산공장> 로동자 60여명이 임금을 주지 않고 미루는 악질기업주놈의 책동에 격분하여 1주일간에 걸쳐 파업투쟁을 벌림

21일 경기도 리천군 호법면 유산리의 200여명의 농민들이 그 무슨 공사를 벌린다면서 논을 못쓰게 만든 남조선당국자들의 죄행을 규탄하며 제방보수와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22일 서울시 성동구 군자동, 송정동, 능동 일대 주민들 300여명이 이른바 <공사≫를 벌려 농경지 65만여평을 못쓰게 만든 남조선당국자들의 책동을 규탄하며 농산물피해보상을 요구하여 투쟁

23일 부산에 있는 9명의 주민들이 일본령사관앞에서 제2차세계대전말기 《오끼나와》에서 자기들의 가족들을 학살한 이전 일본군병사 《가야마》라는자를 엄벌에 처할것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림

26일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파주리에 있는 성민산업사에서 일하는 녀성로동자 100여명이 악질기업주놈의 착취행위를 규탄하며 밀린임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하여 투쟁

30일 2만 3천여명의 방직로동자들이 선출한 대표들은 모임을 가지고 임금을 올려 지불할것을 요구하여 투쟁

9 월

3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모방직주식회사 로동자 2천여명은 부당하게 해고된 동료들의 복직과 퇴직금지불, 로조활동방해 중지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회사측이 로동자들을 착취하고 박해하여온 사실을 들어 폭로하면서 완강하게 투쟁

9일 경상남도 진주, 진양, 삼천포, 사천, 충무, 남해, 고성, 함안, 의령, 하동, 통영 등지의 3천 600여명의 농민들이 잎담배의 등급을 낮게 설정하고 농민들로부터 보다 많은 잎담배를 수탈하려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

11일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면 대황동의 한 집회장소에서 박아무개라는 녀성은 수많은 군중들앞에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발전하는 공화국북반부의 위력을 높이 찬양하면서 그의 찬란한 현실을 소개선전 ▶ 전라남도 광주시 송암동에 있는 연탄공장에서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하고있는 로동자들과 그 가족 200여명이 일터에서 내쫓으려는 악질기업주놈의 행위를 반대하여 롱성투쟁을 벌림, 탄압에 출동한 경찰 50여명과 치렬히 투쟁 ▶남조선강원도 횡성군 우천면내의 980여명의 농민들이 잎담배의 등급을 낮추어 헐값으로 수탈하려는 책동을 규탄하여 《수납》을 거부하는 투쟁을 벌림

15일 경기도 인천시에 사는 한 로동자는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지금 이남에서 못사는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김일성장군만세!》를 목청껏 웨침

19일 남조선 강원도 명주군 구정면에 사는 한 농민은 마을농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일성원수님의 정치가 좋다》고 선전.

21일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주변에 벌려놓은 도로공사장에 끌려나온 100여명의 로동자들이 기업주놈의 사무실에 몰려가 유리창을 부시며 밀린임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하여 롱성시위투쟁을 벌림

27일 진주시내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200여명의 간호원들이 휴일없이 매일 11시간이상 혹사당하고있는데 항의하여 남조선당국을 상대로 투쟁

10 월

6일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군산고려제지공장 300여명의 로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당장 지불할것을 요구하여 투쟁

9일 남조선 강원도 춘천에 있는 박아무개라는 《공무원》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공화국북반부를 열렬히 동경하여 소개선전

10일 경기도 인천시 남구 도화동주민 100여명이 아무런 대책없이 강제로 집을 철거하려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책동에 격분하여 《시청》에 몰려가 피해를 보상하며 살길을 마련해 내라고 요구하여 롱성투쟁

12일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삼산중학교 학생 500여명이 《수학려행》이란 구실로 학생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강요하는 학교측의 부당한 행위에 격분하여 등교거부투쟁을 벌림

18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서 한 주민이 수많은 사람들앞에서 소위 《평화통일》의 구호밑에 1인 1당 독재로 《종신대통령》을 하기 위해 《10월 유신》을 꾸며낸 남조선당국자들의 죄행을 폭로

25일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에 사는 정아무개주민은 마을사람들앞에서 한평생을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바쳐오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감명깊게 소개선전

30일 경기도 인천시 도원동에 사는 한주민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장기집권을 위해 조작한 이른바 《유신헌법개정안공고문》을 자기 집벽에 붙여놓은것을 물을 뿌려찢어버림

11 월

17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와 우산리 등지의 농민들이 《군청》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벼농사를 망치게 한 남조선당국의 처사를 폭로규탄하면서 피해보상을 내놓을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투쟁

24일 전라북도 리리시내 2천여명의 주민들이 《시청》당국이 자기들에게 수도물값을 2중으로 들씌워 빼앗아내려는 악랄한 략탈행위를 폭로규탄하면서 그따위 돈은 낼수없다고 강경히 항의를 들이대면서 투쟁 ▶충청남도 보령지구에서 한병사가 악질 《상관》놈이 외출도 못하게 하고 박해하는데 격분하여 가지고있던 총으로 그놈을 쏘아 넘기고 부대를 뛰쳐나감

12 월

1일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사는 김아무개주민은 《서울지방검찰청》의 악질검사들이 《참고인》이라는 명목으로 붙잡아다가 제놈들의 죄행을 규탄하였다 하여 《소란》이요, 《공무집행방해협의》요 하면서 터무니 없는 죄를 들씌운데 격분하여 악질검사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그 자리에 꺼꾸러뜨림

8일 경상북도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있던 1천여명의 어민들이 수산당국이 실시하는 《구역제조업》은 결국 어로활동을 제한하고 방해하려는 부당한 책동이라고 규탄하면서 넓은바다의 어장을 마음대로 쓸수 있게 하라고 강력히 주장

18일 서울시 영등포구 봉천동의 길을 가던 한 청년이 2명의 경찰놈들이 달려들어 무슨《통행금지시간》을 《위반》했다면서 폭행을 가하며 경찰 《파출소》로 마구 끌고가는데 격분하여 수류탄으로 한 놈을 즉사시키고 다른 한놈에게 중상을 입히는 징벌을 가함

25일 전라남도 남부지방의 농민들이 비싼값을 주고 사다 뿌린 농약때문에 보리가 거의다 죽어버려 막심한 피해를 입은데 격분하여 관계당국에 항의문을 들이대고 농작물에 피해만 주는 농약을 없애치우라고 강경히 요구하여 투쟁

재일조선공민주요일지

(1972년 1월－12월)

1 월

1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새해를 맞이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이 삼가 축전을 보냄 ▶한덕수의장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새해축하인사를 보냄, 여러나라 지도자들에게도 새해축전을 보냄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새해축전에서 주신 교시학습을 총련 각급 기관과 산하단체들에서 일제히 진행

8일 1972년도 총련의 할일을 더 잘하기 위한 간또지방열성자대회 도꾜에서 진행,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3일 1972년도 총련의 할일을 앞장서 수행하기 위한 조청 간또지방열성자대회 도꾜에서 진행,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4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제1차삿뽀로동기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선수들과 남조선 선수단을 공동으로 환영, 성원할데 대한 제의서를 《민단》에 보냄

15일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재일본조선교육일군들의 모임 도꾜에서 진행,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2차대회에 참가하는 재일조선인축하단이 도꾜를 떠남

16일 총련의 지도밑에 우리 나라와 일본간의 무역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조일수출입상사창립총회가 도꾜에서 열림(3월 1일부터 업무시작) ▶총련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 재일동포상공인들의 간담회 도꾜에서 열림

1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일본《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에서 재천명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열렬히 지지환영하여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담화를 발표

20일 총련중앙 제1부의장이 일본의 각 대학 교수들로 무어진《김일성저작연구회》의 주최로 열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철학사상에 대한 강연회에 강사로 출연

23일 제11차동기올림픽경기대회에참가하는 우리 나라 올림픽위원회대표단과 선수단을 환영하는 재일동포들의 모임 진행

26일 한덕수의장이 일본사회당 제35차대회에 참석하여 축하연설을 함.

30일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네돐기념 도꾜조선청년학생 제13차 이어달리기경기가 도꾜에서 열림

31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마흔세번째로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그이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감사전문을 보냄, 한덕수의장이 담화 발표 ▶한덕수의장이 의례방문하여온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대표단 단장과 그 일행을 만남

2 월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마흔세번째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드리는 재일본조선교육일군들과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 도꾜에서 진행,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 제9차전체대회에 축하문을 보내주신 한돐기념보고회 도꾜에서 진행,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7일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네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경축대회 도꾜에서 진행

8일 한덕수의장이 일본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층인민들에게 일본반동정부의《출입국법안》등 파쑈악법조작책동을 반대하는 재일조선공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줄데 대한 요청서를 보냄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신것과 관련하여 수령님께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편지를 드림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의 일본재입국허가를 지체없이 낼것을 일본당국에 요구하여 간또지방의 많은 동포들이 강력한 요청투쟁을 벌림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에게 보내주신 선물과 공화국로력영웅칭호를 전달하는 모임 도꾜에서 진행,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축하연회를 차림

19일 한덕수의장이 조일수출입상사설립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정부는 우리 나라의 무역대표부와 기술자들의 일본입국실현 등의 리행을 위해 해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담화 발표

20일 수령님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드리는 충성의 선물을 싣고《동해호》가 요꼬하마항을 떠남 ▶수령님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그이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전거달리기 시작

23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3.1인민봉기 쉰세돐을 공동으로 기념할데 대한 제의서를《민단》에 보냄

25일 한덕수의장이 의례방문하여온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일본《요미우리신붕》론설위원회고문일행을 만남

29일 3.1인민봉기 쉰세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3 월

1일 경애하는 수령님께 충성의 결의를 다지는 조일수출입상사일군들의 모임진행, 그이께 편지 드림, 조일수출입상사 업무 시작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총련의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주시고 가정생활이 곤난한 학생들에게 취학장려금을 내여주심과 함께 일본의 각 고등학교에 다니는 조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시는 배려를 돌려주신것과 관련하여 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감사전문을 보냄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한 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7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재일조선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주시고 가정생활이 곤난한 학생들에게 위학장려금을 내여주시며 일본의 각 고등학교에 재학하고있는 조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내여주신데 감사드리는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교직원, 학생들의 모임 진행,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2일 《윁남인민, 캄보쟈인민, 라오스인민의 반미구국투쟁지지주간》에 즈음하여 총련과 각 단일체들에서 윁남인민에게 편지를 보냄

14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출입국법안》을 국회에 상정시키려는 일본당국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7일 163차 귀국선 《만경봉》호 니이가다를 떠남

18일 수령님탄생 예순돐재일조선인축하단이 제출한 재입국허가신청에 대하여 그중 6명에게만 재입국허가를 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태도를 규탄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성명 발표

22일 수령님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드리는 충성의 선물을 싣고가는배들을 환송하는 모임 요꼬하마항에서 진행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탄생 예순돐 재일조선인축하단 환송대회 도꾜에서 진행

26일 수령님탄생 예순돐재일조선인축하단이 조국을 향하여 도꾜를 떠남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할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대표단이 도꾜를 떠남

27일 조은지바신용조합본점 새 건물 준공모임 진행

28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에게 수여하여주신 표창장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조선대학교 제14회졸업식 진행

31일 한덕수의장이 후꾸오까에서 일본기자들과 회견, 조선의 통일문제와 조일관계에 관한 담화 발표

4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교과서를 전달하는 모임 총련의 각급 학교들에서 진행 ▶제6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조국을 향하여 도꾜를 떠남

2일 총련기후조선초중급학교 새교사 및 체육관 준공축하모임 진행

3일 한덕수의장이 웽그리아해방 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총리에게 축전을 보냄

5일 총련사까이조선초급학교 새교사준공축하모임 진행

6일 어버이수령님탄생 예순돐기념강연회 총련중앙과 각 현본부들에서 일제히 진행

7일 총련 요꼬스까초급학교 새 교사준공축하모임 진행

8일 일본당국의 파쑈적악법《출입국법》조작을 반대하는 재일본조선인 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9일 어버이수령님께서 마흔네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그이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감사전문을 보냄, 한덕수의장이 담화를 발표 ▶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주신 김일성원수의 교시》집을 출판

10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예순돐기념 영화상영월간》이 총련 각 현본부들에서 시작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연회를 차림 ▶총련중앙국제국장이 일본당국이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재일조선공민대표들이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6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낸 일본재입국허가신청을 거부한것과 관련하여 담화 발표

15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기념재일본조선인중앙경축대회 도꾜에서 성대히 진행,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수령님께 드리는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충성의 선서모임이 일본 각지에서 진행 ▶수령님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일본의 각계인사들과 일본에 와있는 세계각국인사들을 초대하여 성대한 축하연회 차림 ▶수령님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총련에서 조직한 대음악무용서사시《조국의 해빛아래》공연 진행

18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총련간부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도꾜에서 진행,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19일 4.19인민봉기 열두돐기념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재일본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20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미제침략자들이 윁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을 대대적으로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닉슨놈에게 항의문 보냄

21일 수령님탄생 예순돐축하 재일조선과학자학술보고회 도꾜에서 진행

24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열다섯해동안이나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도꾜에서 성대히 진행,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수령님탄생예순돐을 축하하는 재일조선인 축구 및 배구경기대회 도꾜에서 진행

2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마흔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경축대회 도꾜에서 진행

5 월

1일 5.1절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8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남조선당국이 5월을 《방첩및승공의 달》로 정하고《반공》소동을 더욱 벌려고있는 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0일 《조선화보》창간 열돐기념 일군들의 모임 도꾜에서 진행 ▶한덕수의장이 체스꼬슬로벤스꼬해방 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냄

11일 파쑈적악법《출입국법안》을 반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13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윁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날강도적침략행위를 규탄하여 닉슨놈에게 항의문을 보냄

18일 총련중앙사회국장이 일본반동정부가 파쑈적악법인《출입국법안》을 중의원 법무위원회에 회부한것과 관련하여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담화 발표

23일 총련결성 열일곱돐기념 재일본조선인 중앙대회 도꾜에서 성대히 진행 ▶수령님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총련중앙간부들이 수여받은《김일성훈장》을 전달하는 모임 도꾜에서 진행

26일 164차귀국선《만경봉》호가 니이가다를 떠남.

30일 수령님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총련이 마련한 대집단체조 《수령님께 드리는 영광의 노래》도꾜에서 막을 열음

6 월

2일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이 국제교직원조합회의에 참가하였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수 있는 재입국허가를 획득

3일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

다섯돐기념보고회 도꾜에서 진행 ▶국제교직원조합회의에 참가할 재일본조선인 교직원동맹대표단이 도꾜를 떠남

5일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의례방문해온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일본고등학교축구대표단고문을 만남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배려에 의하여 재일조선과학자들이 수여 받은 박사 및 교수, 부교수증을 전달하는 모임 도꾜에서 진행

8일 《조선신보》복간 스무돐기념모임 도꾜에서 진행

10일 군마조선초중급학교 새교사준공축하모임에 앞서 한덕수의장이 기자회견, 일본당국은 재일조선공민들의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미국《뉴욕타임스》지 기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하신 담화내용을 지지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이 담화를 발표

15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신 한돐기념 재일본조선소년단원들의 모임 도꾜에서 진행,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한덕수의장이 의례방문해온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일본공명당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성원들을 만남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수령님탄생 예순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일본에 무사히 도착한것과 관련하여 전보문을 보냄 ▶ 수령님탄생예순돐재일조선인축하단이 도꾜 도착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이 국제직맹회의에 참가하였다가 일본으로 돌아감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탄생예순돐재일조선인축하단의 사업보고모임 도꾜에서 진행,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20일 재일본조선인신용조합협회창립 스무돐축하모임 도꾜에서 진행,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23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사로청제6차대회에서 력사적연설을 하신 한돐기념 재일본조선청년학생들의 중앙모임 도꾜에서 진행,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24일《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27일 총련중앙위원회 제9기 제3차회의 도꾜에서 진행,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30일 끝남)

30일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의례방문하여온 전인도민주당 위원장을 만남

7 월

4일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7.4남북공동성명을 지지환영하는 담화를 발표

5일 총련분회열성자 제11차대회 도꾜에서 진행(7일 끝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고 실현하는 운동을 공동으로 벌릴데 대한 제의서를 《민단》에 보냄

6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촉진을 위한 7.4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각지에서 일제히 진행)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환영하는 성명을 발표

7일 어버이수령님께서 마흔다섯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그이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감사전문을 보냄,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담화를 발표

10일 니이가다 조선초중급학교 체육관준공축하모임 진행, 한덕수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근의 조선문제와 관련한 담화를 발표

11일 총련중앙위원회 제9기 제3차회의 결정집행을 위한 총련산하 단일단체회의 일제히 진행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우리 나라에 대한 비우호적 정책을 당장 시정하라는 요청서를 일본 새 내각에 범

12일 한덕수의장이 의례방문하여온 중국상해무용극단 단장을 만남

13일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축구소조와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 성원들이 여름방학기간에 조국을 방문하였다가 다시 일본으로 갈수 있는 재입국허가를 획득, 한덕수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담화를 발표

15일 어버이수령님께서 마흔다섯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는 재일본조선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 도꾜에서 진행,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20일 총련중앙위원회 제9기 제3차회의 결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총련의 각 현본부집행위원회들이 일제히 진행

21일 한덕수의장이 남북조선적십자단체간의 본회담을 열렬히 지지환영하는 재일동포들의 대회를 공동으로 가질데 대한 제의서를《민단》에 보냄

23일 총련파《민단》의 공동주최로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도꾜도 오따지역동포들의 대회 진행

25일 한덕수의장이 의례방문하여온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일본 니이가다 시장을 만남

26일 어버이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조국을 방문하는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축구소조와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 성원들이 도꾜를 떠남.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깅끼지방재일본조선인대회에 참가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담화를 발표

27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한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28일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도꾜도 시나가와지역 조청파 한청산하 청년학생들의 모임 진행

29일 남북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하여 총련산하의 청년단체와《민단》산하의 청년단체가 공동으로 중앙대회를 가지기로 합의하고 도꾜에서 공동기자회견 가짐

30일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며 남녀평등권법령발표 스물여섯돐을 기념하는 재일본조선녀성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8 월

1일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일본에서 진행되는 두개의 원수폭금지세계대회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담화를 발표 ▶재일본조선청년동맹결성열일곱돐기념, 조청반 열성자 6차대회가 도꾜에서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3일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환영하여 총련 도꾜도 시나가와지부와《민단》지부가 공동모임 진행

4일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환영하여 총련 도꾜도 가쯔시까지부와《민단》지부가 공동모임 진행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1971년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연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발표 한돐에 즈음하여 총련중앙에서 강연회 진행 ▶한덕수의장이 후꾸오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조선의 통일문제와 조일관계》에 대한 담화를 발표 ▶ 몽골에서 열리는 제2차 아세아 아프리카녀성회의 참가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의 재입국허가를 받아냄

7일 총련 도꾜도본부위원장과 《민단》 도꾜도본부단장이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도꾜전체동포들의대회를 가지기로 합의 ▶ 총련산하 재일본조선청년동맹과 《민단》산하 《재일한국학생동맹》의 공동주최로 남북공동성명을 열렬히 지지하는 재일동포청년학생들의 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9일 제2차아세아, 아프리카 녀성대회에 참가할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 도꾜를 출발

11일 어버이수령님께서 큰물피해를 입은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신 배려에 대하여 감사 드리는 모임진행

12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일본에 머무르고있는 중국상해무용극단을 환영하여 연회를 차림

15일 조국해방 스물일곱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 한덕수의장이 인도네시아공화국 독립선포 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 ▶ 총련 도꾜도본부와 《민단》 도꾜도본부의 공동주최로 8.15조국해방 스물일곱돐을 기념하며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도꾜전체동포들의 대회 진행

17일 남북적십자 본회담에 참가하게 될 자문위원과 재일조선인기자단성원들이 일본재입국허가를 받아냄

18일 한덕수의장이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본회담의 실현을 지지환영하는 대회를 공동으로 가질데 대하여 협의할것을 《민단》에 제의

21일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축구소조와 일본에 머무르고있는 중국상해소년축구단간에 친선축구경기

25일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본회담에 참가하게 될 자문위원과 재일조선인기자단이 조국을 향하여 도꾜를 출발 ▶ 165차귀국선 《만경봉》 호가 니이가다를 떠남

30일 한덕수의장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사이의 본회담이 열린것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담화 발표

9 월

1일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본회담을 열렬히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도꾜에서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일본기계학회 제2차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할 조선대외과학기술협회대표단을 환영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진행

3일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본회담 개최를 열렬히 지지하여 조청오사까부본부와 《한청》 오사까부본부 공동주최로 오사까부동포청년학생들의 대회 진행

6일 총련 오끼나와현본부 결성대회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총련 미야기현본부회관준공축하모임 진행

8일 공화국창건 스물네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경축대회 진행 ▶어버이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조국에서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내고 돌아온 재일청소년학생들 보고모임 도꾜에서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15일 45명의 재일동포들이 영광스러운 조국에로 다녀갈수 있는 일본재입국허가를 받아냄

16일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가 의례방문하여온 일본사회당 참의원 의원대표단을 만남▶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결성 스물다섯돐기념모임 진행,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19일 제2차 아세아, 아프리카녀성대회에 참가하였던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의 보고모임,어버이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의례방문하여온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을 만남

21일 한덕수의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가 의례방문하여온 일본 《마이니찌신붕》 기자대표단과 그들과 함께 온 이 신문사 도꾜본사 편집국장을 만남

24일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새교사준공축하모임 진행

27일 우리 나라 무역선 《만경봉》 호와 제7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조국을 향하여 오사까를 출발

29일 우리 나라 사회과학자대표단을 환영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본회담 1차회의에 참가하였던 자문위원과 재일조선인기자단의 보고모임 진행

30일 한덕수의장이 중화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을 축하하여 주은래국무원총리에게 축전을 보냄

10 월

5일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제2차세계대전시 오끼나와조선인강제현행학살진상조사단을 만남

7일 한덕수의장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국가쏘베트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냄

10일 어버이수령님께서 마흔여섯번째로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그이께 감사를 드리는 편지를 보냄, 한덕수의장이 담화를 발표

14일 김성애위원장동지께서 재일동포녀성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도꾜에서 진행 ▶ 한덕수의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가 의례방문하여온 일본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을 만남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스물다섯돐기념 재일조선녀성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채택

16일 어버이 수령님께서 마흔여섯번째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조선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진행

17일 공화국창건 스물네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체육축전 도꾜에서 진행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일본 《요미우리신붕》 사장과 론설위원회고문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한덕수의장이 전달 ▶우리 나라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표단을 환영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있음

27일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총련일군들의 모임 있음,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1 1 월

3일 광주학생운동 마흔세돐을 기념하는 재일조선청소년학생중앙대회 도꾜에서 있음

6일 어버이수령님께서 도꾜조선중고급학교와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공화국창건스물네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재일본조선학생미술전람회 열림

9일 공화국창건스물네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예술축전이 있음

14일 한덕수의장이 사회주의10월혁명승리 쉰다섯돐에 즈음하여 쏘련내각총리에게 축전을 보냄

17일 한덕수의장이 의례방문하여온 중국청년탁구대표단을 만남

18일 재일본조선인과학자들의 강습회 도꾜에서 진행

21일 한덕수의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가 의례방문하여온 일본교직원조합대표단을 만남 ▶우리 나라 과학원창립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할 재일조선과학자대표단이 일본재입국허가를 받아냄

25일 우리 나라 과학원창립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할 재일조선과학자대표단이 도꾜를 출발

28일 한덕수의장이 알바니아해방스

물여덟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총리에게 축전을 보냄

29일 한덕수의장이 유고슬라비아인민의 민족적명절인 공화국의 날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냄

12월

6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열렬히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있음,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제7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의 보고모임 진행 ▶1972년도 총련의 지방가무단 예술경연대회 도꾜에서 있음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열렬히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지방대회들이 진행

15일 제166차귀국선 《만경봉》호가 니이가다항을 출발

16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도꾜에서 진행,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17일 조선대학교에서 고구려고분벽화 사진모사도전시회 열림

18일 한덕수의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된 재일동포대표들이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낸 일본재입국허가신청을 일본당국이 거부한것과 관련하여 담화발표 ▶한덕수의장이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창건열두돐에 즈음하여 원우수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냄 ▶재일본조일수출입상사 간부들이 일본재입국허가를 받아냄 ▶재일본조선학생제17차학과별연구토론회 있음

23일 우리 나라 과학원창립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였던 재일본조선과학자대표단이 일본에 도착

24일 한덕수의장이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민주공화국의 각지에 또다시 야만적폭격을 가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닉슨놈에게 항의문 보냄

25일 한덕수의장이 쏘련형성쉰돐에 즈음하여 쏘련내각총리에게 축전을 보냄

26일 우리 나라 과학원창립스무돐기념 행사에 참가하였던 재일본조선과학자대표단의 보고 모임 진행

28일 재일본조선교육일군들의 강습회 진행

30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신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국제 주요 일지

(1972년 1월~12월)

1월

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사회주의나라를 비롯한 세계여러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이 새해를 축하하는 전문, 축하편지들을 보냄

2일 수단에서 유일한 정치조직인 수단사회주의동맹창립대회 진행(10일까지), 위원장으로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가 선거됨

7일 레바논공산당 제3차대회 진행

9일 다르 에스 살람에서 진행된 아프리카통일기구 방위위원회 회의에서 아프리카의 민족해방운동에 재정 및 물질적 원조를 강화할데 대한 결정채택

13일 가나 제1보병려단지휘관인 아참퐁대좌를 비롯한 장교집단이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아참퐁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국리사회를 조직 ▶ 말레이시아, 필리핀, 모리따니 및 다오메가 아．아인민단결기구에 가입

15일 까히라에서 아．아인민단결기구 제5차 대회 80여개 국제민주단체대표들이 참가하여 진행, 웰남, 라오스,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을 규탄, 남조선, 인도지나, 일본으로부터의 즉시 철거를 요구

16일 에티오피아 황제 애급을 방문하고 애급대통령과 아프리카통일기구 및 아프리카나라들간의 관계 문제 등에 관해 회담하고 공동콤뮤니케 발표 ▶ 애급에서 아지즈 시드키를 총리로 하는 새 내각 구성

21일 뉴니지에서 국영석유회사창설(조선중앙통신) ▶ 까히라에 있는 우리 나라 문화회관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로선을 따라 전진하는 조선의 사회주의농촌》이라는 제목의 사진전람회 진행

22일 영국이 배타적인 《구라파공동시장》에 가입

24일 아랍추장국련방 성원국인 샤르쟈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남. 련방군에 의해 진압됨

25일 와르샤와조약참가국 정치협상위원회 회의 쁘라하에서 진행. 《구라파에서의 평화안전 및 협조의 절박한 문제》를 심의

26일 세계보건기구리사회가 장개석도당을 내쫓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가입시킴 ▶ 일본사회당 제35차대회 진행

27일 제4차국제도서전람회 까히라에서 진행(2월 7일까지)

30일 북아일랜드의 런던데리인민들 영제국주의자들의 탄압에 항의하여 강력한 시위 단행, 영제국주의자들 시위군중에게 무차별사격을 가하여 인민들을 사살 ▶ 네팔왕 마헨드라가 사망하고 31일 그의 아들 비렌드라가 왕위를 계승 ▶ 파키스탄이 영련방에서 탈퇴 ▶ 일본반동들 미제가 요꼬스까해군기지의 일본반환협정을 철회하고 요꼬스까를 미제7함대 본부로 계속 사용하는데 동의

31일 파키스탄대통령이 중국을 방문(2월 2일까지)

2월

1일 리비아정부 이전봉건왕조가 영제국주의자들과 맺었던 우호 및 동맹조약과 군사 및 재정협정을 페기(로동신문)

2일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의 《평화안》을 배격하고 웰남문제해결을 위한 7개항목해결책의 두가지 기본문제에 대하여 재천명 ▶ 애급대통령 사다트 쏘련방문, 새 무기공급문제 토의

5일 민주웰남정부 1월 25일의 미제의 기만적인 《평화안》을 규탄하여 성명 ▶ 국제아랍로조련맹이 남조선당국자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조선중앙통신) ▶ 말리평화옹호위원회가 남조선당국자들이 조작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규탄하여 성명(조선중앙통신)

6일 인도총리와 방글라 데슈 총리간에 3월 25일까지 방글라 데슈로부터의 인도군의 완전철수에 합의

8일 일본 도꾜에서 일조로동자교류

련대련락회의 결성

9일 방글라 데슈 공산당 외국인소유의 공업, 농업 및 자본을 몰수할것을 예견한 6개항목의 강령채택

11일 소말리아에서 사회주의사상을 선전하는 전국적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최고조정위원회 창설, 각 주들에서 지방위원회를 조직(조선중앙통신) ▶ 프랑스의 베르사이유에서 인도지나인민들의 평화와 독립을 위한 세계대회 진행

15일 꽁고가 쏘련 및 중국과 군사장비공급에 관한 협정체결 ▶ 에꽈도르에서 군사정변, 군사령관이 정권 장악

16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리따니청년들에게 보내시는 선물전달식 누악소뜨에서 진행

17일 탄자니아에서 아프리카인이 아닌 사람들을 정부내에서 제거 ▶이딸리아에서 기독교민주당의 단독내각 구성

18일 미국공산당 제20차전국대회 진행(22일까지), 총비서로 거스 홀이 선거됨

21일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 28일 공동콤뮤니케를 발표

22일 나이제리아에서 외국석유회사들의 활동을 제한할데 대한 결정채택(조선중앙통신) ▶ 까타르에서 황태자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추장을 내쫓고 정권을 장악

24일 로므니아와 웽그리아가 20년간의 우호조약 체결

26일 쏘련에서 발사한 자동정류소《루나 20호》의 귀환기구가 달암석표본을 가지고 지구로 돌아옴

28일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를 결성

3월

3일 수단에서 전국의 통일적인 범위안에서 남부수단에 지역적자치를 줄것을 선포하는 공화국법령 발표, 3월 3일을 《국가통일의 날》로 결정

4일 뽈스까에서 와르샤와조약참가국 륙해공군군사연습 진행

5일 아랍석유수출국가기구 각료리사회에서 수리아, 애급, 이라크의 가입을 승인(성원국 11개국)

6일 쏘련과 칠레간에 정기항공로개설협정 조인

12일 까히라에서 아랍공화국련방 전국회의 제1차회의 진행

13일 영국이 대만에 있는 대표부(령사관)를 페쇄하고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

15일 이딸리아공산당 제13차대회 진행 ▶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이 요르단반동들의 《아랍련합왕국》조작책동을 규탄

16일 파키스탄대통령 부토 쏘련을 방문(17일까지)

17일 로므니아와 민주웰남간에 로므니아가 민주웰남에 경제 및 군사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 조인

18일 인도의 뉴델리에서 국제도서전람회 진행

19일 아랍공화국련방 대통령리사회가 요르단반동들의 《아랍련합왕국》 창설안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 다카에서 인도와 방글라데슈간에 25년기한으로 친선, 협조 및 평화조약과 공동성명 조인 ▶ 프랑스대통령 퐁피듀와 영국총리 히스간에 《구라파통합방법》, 《국제통화체제개혁문제》 등에 합의

23일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자푸)과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자누)의 대표들이 남부탄자니아 므베야에서 합동군사령부를 조직할데 대한 협정에 조인

24일 일본 나라현 다까이찌군 아스까촌에서 다까마쯔즈까고분 발굴

26일 영제국주의자들과 나토가 해마다 말따군사기지사용료로 1천 400만파운드를 말따에 지불하기로 한 영국말따방위협정조인

28일 북아일랜드의 30만 로동자들이 북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통치를 반대하여 총파업 ▶ 기네민주당 제9차대회 진행

29일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방글라데슈의 가입을 승인

30일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이 미제와 그 괴뢰에 대한 대규모의 전략공세시작 ▶ 우간다에서 이스라엘대사관 폐쇄

31일 도꾜도의회에서 《일조우호촉진도꾜도의원련맹》 결성 ▶ 핀란드공산당 제16차대회 진행 ▶ 오스트랄리아공산당 제23차대회 진행

4월

8일 뽈스까의 서남부지역에서 뽈스까, 쏘련부대들의 합동전술훈련 진행(10일까지) ▶ 탄자니아 제1부대통령이며 잔지바르혁명리사회 위원장 쉐이크 아베이드 아마니 카르메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원쑤들의 흉책에 의하여 피살

9일 쏘련과 이라크간에 15년간의 우호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체결

10일 우리 나라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과학자, 지식인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또한 그들은 공동명의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조국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

11일 윈에서 와르샤와조약국 수뇌자회의 진행(12일까지)

12일 알제리수도 알제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알제리에 있는 여러 나라 투쟁단체대표부성원들의 련합모임 진행, 모임에서 수령님께 드리는 결의문 채택 ▶ 도꾜지방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들의 합동연구회 도꾜에서 진행, 그이께 드리는 축하편지 채택

13일 칠레 각정당, 사회단체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드리는 공동축하편지를 채택

14일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레닌훈장을 수여함에 관한 정령 발표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그이께 세계 여러나라 당및 정부지도자들과 사회활동가들,《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들, 각계인사들이 축전 축하편지를 보냄

1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세계 여러나라 통신, 방송, 신문들 기념론설과 특별기사를 발표, 여러 나라 출판사에서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을 소개한 서적들과 수령님의 로작을 출판, 세계혁명적인민들 경축모임 진행, 중국 베이징에서 김일성동지의 로작 및 혁명활동사진전람회 진행, 구바, 파키스탄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경축사진전람회 진행

17일 만국우편련합이 대만을 내쫓고 중국을 받아들임

21일 말가슈청년학생들이 식민지통치시기로부터 내려오던 반동적교육체계 개편을 요구하여 동맹휴학시작

22일 비마에서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초안 발표

24일 기네민주당 제9차대회 진행(27일까지)

26일 일본의 도꾜지방 로조평의회산하 30여개 로조단체대표들이 정부에 몰려가 파쑈적인 《출입국법안》을 당장 없애치울것을 강력히 요구

27일 가나 이전대통령 느크루마 사망 ▶ 애급대통령 사다트가 쏘련을 방문, 호상 군사적협조 강화문제 토의 ▶ 일본 전국의 교통운수부문 55개 로조 및 기업소의 160여만 로동자들이 총파업시작

29일 부룬디에서 바후투족과 왕권지지파세력들이 연금중에 있던 이전왕

을 석방하려고 시도하다가 안전군과 충돌한것을 계기로 무장반란 일어남

5월

2일 침략적나토성원국들이 지중해에서 군사연습소동을 벌림으로써 이 지역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킴

3일 제네바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65개국의 참가하에 적십자국제위원회 회의 진행(4주일간 진행) ▶ 꾸바총리 피델 까스뜨로 기네 방문

5일 베이징에서 아세아탁구련맹 창립, 우리 나라를 비롯한 16개 나라들이 참가

7일 이딸리아에서 국회선거 진행

8일 미제의 전쟁두목 닉슨놈이 북부웰남의 앞바다에 기뢰를 부설하여 하이퐁항을 비롯한 모든 항구들을 봉쇄하며 북부웰남 전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것을 명령

10일 일본 변호사련합회 파쑈적인 《출입국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 발표

12일 로므니아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간에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 우루과이에서 약 40만명의 근로자들이 친미반동정부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여 파업 ▶ 영국의 30만 철도로동자들이 반동적인 《로조법》을 반대하여 총파업, 618개의 렬차운행이 중지되고 36개역이 폐쇄됨

13일 말가슈정부 교육체계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와 관련하여 비상사태 선포

15일 미일반동들이 기만적인 오끼나와 《반환》놀음을 벌림 ▶ 오끼나와와 일본 각지의 511개소에서 26만 7천명의 인민들이 미일반동들의 《오끼나와반환》놀음을 반대하는 강력한 항의 시위와 집회 진행

17일 파키스탄과 우간다 간의 군사협조협정 체결 ▶ 서독하원 본회의에서 쏘련과의 《무력사용포기선언에 관한 조약》, 뽈스까와의 《관계정상화의 기초에 관한 조약》 비준

21일 몽골대인민후랄 상임위원회 위원장 즈.쌈부 사망 ▶ 온두라스공산당 제2차대회 진행 ▶ 뉴욕에서 미국 흑인들의 제1차전국대회에서 채택된 《흑인들의 정치강령》 발표

22일 미국대통령 닉슨이 쏘련방문(30일까지), 29일 공동콤뮤니케 발표 ▶ 쎄일론제헌의회에서 나라이름을 스리랑카공화국으로 고침 ▶ 뻬루에서 미제의 《인터내슈널》석유회사를 완전히 국유화

24일 애급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회관에서 우리 나라 미술작품전람회가 열림

27일 애급과 리비아가 아랍사회주의동맹을 통합하기로 결정

29일 유엔국제전신련맹에서 다이완을 내쫓고 중국을 승인

30일 일본 《적군파》청년들이 2명의 팔레스티나유격대원을 살해한 이스라엘침략자들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텔 아비브의 로드비행장을 공격

31일 닉슨이 뽈스까를 방문

6월

1일 웰남민주공화국과 칠레간에 대사급외교관계 맺음 ▶ 이라크정부 서방제국주의독점체들의 소유인 《이라크석유회사》를 국유화

3일 쏘련, 미국, 영국, 프랑스 외교부장들 베를린 4개국협정에 조인 ▶ 수리아정부 《이라크석유회사》의 송유관과 설비 국유화

5일 캄보쟈애국적무장력 대낮에 피뢰국방부에 포사격을 들씌워 적들을 죽이고 론놀놈의 《별장》을 들이침 ▶ 유고대통령찌또 쏘련방문(10일까지) ▶ 까리브해연안 국가들 해양문제특별회의에서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평화와 세습해역을 공동으로 수호할 결의 다짐

8일 일본의 와까야마시에서 고구려시대것으로 인정되는 장식벽화를 발견

9일 일본전국혁신시장회가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의 국교를 정상화하며 경제, 문화, 기술 등의 교류를 촉진시킬데 대한 결의 채택

12일 아프리카통일기구수뇌자회의 의장으로 마로끄왕 하싼 2세를 선출

14일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뽀드고르느이 웰남민주공화국 방문(19일까지)

17일 닉슨놈의 재선위원회 경비주임을 비롯한 5명이 민주당본부가 들어있는 《워터게이트》호텔에 침입하여 고장난 도청장치를 수리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됨, 이 사건은 미국의 정계를 뒤흔드는 일대 정치적문제로 확대되여 닉슨도당의 정치적위기를 조성 ▶ 8년간 일본총리자리에 앉아 독점자본의 머슴군으로,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안내자로 악명떨친 사또가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배격에 의하여 쫓겨남

18일 알제리의 케미스 엘 케스나농장에서 토지개혁법안에 의한 첫 토지분배식 진행

22일 메히꼬에서 라틴아메리카통일기구 제1차대회 진행, 미제의 예속으로부터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공동의 리익을 수호할데 대하여 로의

24일 스리 랑카 총리 반다라 나이케 중국방문(7월 5일까지)

25일 중국이 가이아나와 대사급외교관계 맺음

28일 우간다와 수단이 호상방위협정 체결 ▶ 인도의 심라에서 부로一간디회담 진행, 7월 3일 두나라 관계에 관한 협정 체결

30일 파키스탄이 영련방에서 탈퇴

7월

1일 까히라에 있는 《구리》문화궁전에서 조선문화주간 개막, 미술작품들과 공예품 전시 ▶ 필리핀에서 《공산당선언》을 비롯한 약 600종의 책과 정기간행물의 공개를 명령

7일 일본에서 다나까내각 구성

9일 적도기네 민족통일당 제2차민족대회 진행, 느게마를 종신대통령으로 임명

11일 일본의 지방의회들에서 우리 나라와의 교류확대와 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결의와 의견서를 채택

17일 일본 나가노현에서 《일조우호촉진현의회의원련맹》을 결성

18일 사다트대통령 애급에서 쏘련군사고문단의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 일본정부 제2차대전시의 피해보상으로 이딸리아정부에 120만딸라의 위문금을 지불하기로 결정

20일 로므니아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 진행 ▶ 알제리를 비롯한 13개국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의 의제를 유엔에 제출

21일 일본 도꾜도지사 미노베가 총련본부를 실질적인 외교기관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과세된 고정재산 및 부동산취득세를 면세하기로 결정 ▶ 일본 기후현에서 《일조우호촉진현의회의원련맹》을 결성

23일 캄보쟈민족해방군 프놈펜비행장과 부근의 괴뢰군훈련소에 포사격을 들씌워 전투기재들을 파괴

25일 뻬루에서 외래독점자본가놈의 전국전화회사를 몰수하기로 결정

30일 애급—리비아수뇌자회담 진행(8월 2일까지), 량국을 단일국가로 완전히 통합하기로 결정 ▶ 중국 신화통신사와 미국 에이피통신사가 보도 및 사진을 교환할데 대하여 합의 ▶ 동구라파공산당 수뇌자회의 진행

31일 리비아의 비니가지에서 애급대통령 사다트와 리비아혁명지도리사회 의장 가다피가 회담하고 완전통합을 결정

8월

1일 쏘련의 레닌그라드에서 우리 나라 및 사회주의나라 어업일군들이 협조문건에 조인(어선건조, 어로기술, 어로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연구사업진행과 관련하여)

2일 일본 도꾜에서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진행(8일까지)

4일 일본 법무성이 몽골에서 진행되는 제2차 아세아아프리카녀성회의에 참가할 재일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 5명에게 처음으로 재입국을 허가

5일 우간다 대통령 아민이 이 나라에 있는 8만명의 영국공민들에게 3개월이내에 떠날것을 명령

7일 일본총평대회진행(11일까지), 채택된 결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관계수립을 제의

8일 가이아나에서 제4차쁠럭불가담국 외교부장회의 진행(12일까지), 회의에서는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우리 나라의 노력에 지지를 표시하고 모든 외국군대철수를 요구

9일 일본—조선체육교류촉진협회창설 ▶ 핀란드의 부르끄시에서 조선친선협회 주최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 진행

11일 브라자빌에서 우리 나라 정부가 꽁고정부에 보내는 선물 뜨락또르전달식 진행 ▶ 파키스탄에서 공산당활동을 합법화

14일 몽골에서 제2차아세아아프리카녀성대회 진행(18일까지)

16일 일본학자들(20명)이 조일외교관계수립을 위하여 노력할것을 성명

17일 마로끄국왕 하싼2세가 프랑스방문을 마치고 귀국도중 마로끄령공에서 그를 호위하던 제트전투기들로부터 공격을 받음 ▶ 중국정부와 미제의 아르씨에이회사간에 베이징에 통신위성지상국을 신설하며 상해지상국을 확장할데 대한 계약을 체결

19일 바그다드에서 세계평화리사회, 아세아아프리카단결회의, 이라크평화단결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이라크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회의 진행(국제단체들과 50여개국의 민족단체들이 참가) 정치선언과 행동강령채택, 6월 1일을 이라크인민과의 련대성의 날로 결정

20일 스리 랑카공산당 제8차대회 진행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파견하신 우리 나라 교원들에 의하여 꾸려진 탄자니아 다르 에스 살람 민족교육대학 타누혁명력사연구실 개관식 진행

22일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남로데시아를 국제올림픽대회에서 추방하기로 가결, 제73차국제올림픽위원회총회본회의는 남로데시아의 올림픽대회참가초청을 철회하기로 결정 ▶ 일본 미쯔이은행과 우리 나라 무역은행간에 거래계약을 개정, 파운드화대신에 독일마르크를 결제통화로 하기로 합의

24일 메히꼬정부 《교원》이란 간판밑에 메히꼬에 기여들어 파괴활동을 일삼던 미국놈들을 내쫓음

26일 《일조로동자교류련대 돗도리현 련락회의》 결성 ▶ 독일의 뮨헨에서 제20차국제올림픽대회 진행(9월 11일까지), 우리 나라를 비롯한 122개국에서 1만명이상의 선수들이 참가

30일 일본 법무성이 수력에 관한 제2차국제토론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의 일본입국을 승인

9월

1일 제9차 알제국제시장 우리 나라를 비롯한 41개 나라의 참가하에 개막 ▶ 미제의 우두머리 닉슨과 일본총리 다나까가 유엔총회에 조선문제를 상정시키지 않기로 공모결탁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책동

4일 일본신문 《슈깡요미우리》는 《주체의 나라 조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154페지의 특별별책 발간, 책표지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심 ▶ 일본에서 수력학에 관한 제2차국제학술토론회 진행(우리 나라를 비롯한 14개국 참가) ▶ 일조협회 전국에서 일조간의 교류촉진과 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10만명서명운동 시작

5일 팔레스티나유격대들이 《뮨헨올림픽촌》을 습격, 이 사건으로 력사상 처음으로 올림픽경기가 24시간 중지됨 ▶ 일본에서 일조문화교류협회 창설 ▶ 웰남민주공화국과 적도기네가 외교관계를 맺음

6일 일본에서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창설 ▶ 노르웨이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 설치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4돐에 즈음하여 애급에 있는 우리 나라 문화회관에서 사진전람회진행

8일 칠레와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간에 대사급외교관계 맺음

10일 아랍련맹리사회회의 까히라에서 진행(12일까지),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중근동 나라들에 굳은 련대성을 표명한 총정치선언 채택, 10개국 아랍나라 외교부장 및 국방부장들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

11일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웰남에서 미제의 침략전쟁을 끝장내며 평화를 회복할데 관한 성명》 발표

12일 노르웨이에 우리 나라 공보부 개설(조선중앙통신)

18일 민주독일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21개국의 참가하에 국제영화기술자회의 진행

19일 제27차유엔총회 개막

22일 꽁고가 아프리카—말가슈공동기구에서 탈퇴

24일 콜롬비아에서 공산당을 포함한 진보적운동인 민족야당동맹결성

25일 일본총리 다나까가 중국을 방문(30일까지), 29일 중일공동성명 발표, 29일부터 두나라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

28일 애급대통령 사다트가 팔레스티나림시망명정부수립을 제안

10월

7일 아랍공화국련방 대통령리사회 제5차회의 진행

8일 말가슈에서 국민투표 진행, 라마난트소아가 대통령으로 당선

9일 수단에서 니메리를 총리로 하는 새 내각구성 ▶ 일본군국주의자들 《제4차방위력정비계획》을 국회에서 강압통과

11일 중국과 독일련방공화국간에 외교관계수립 ▶ 미제공중비적들 하노이주재 프랑스대표부를 파괴, 알제리, 인도, 캄보쟈대사관도 일부파손

14일 까히라 《리하니》문화궁전에서 조선문화주간 개막, 수예품과 미술작품 기타 전시 ▶ 에스빠냐공산당 제8차대회 진행

16일 꾀펜하븐에서 인도지나에서의 미제의 전쟁범죄국제조사위원회 제3차회의 진행

17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말리아 시아드 바레 위원장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선물을 우리 나라 정부 및 군사대표단이 전달 ▶ 비엔티안에서 라오스애국전선 위원장 수파누봉과 비엔티안정부 수상 푸마간의 본회담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예비회담 시작

21일 노르웨이에서 조선영화상영주간 대성황리에 진행(26일까지)

22일 아이띠에서 미제의 혈액독점회사 폐쇄

23일 칠레에서 미제독점회사 《제네럴 엘렉트릭캄파니》 산하 일렉트로마

트공장을 징발 ▶ 뿌엔떼아 뻬뜨레에서 파들루쁘공산당 제5차대회 진행

24일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미제의 《현지정화》제의를 배격하고 캄보쟈문제는 그어떤 《회담》을 통하여 해결할수 없다고 성명

26일 일본에서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토론회 진행

31일 이딸리아의 전국 각지에서 300여만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인상과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

11월

7일 미국에서 제38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주지사 선거 진행

8일 파키스탄이 미제의 아세아침략기구인 세아토에서 탈퇴

16일 일본이 다이완주재 일본대사관을 페쇄

18일 도꾜에서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모여 《주체사상의 본질과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한 연구토론회》 진행

19일 자이르가 장개석괴뢰와 관계를 끊고 중국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21일 파키스탄이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탈퇴

25일 뉴질랜드에서 국회의원선거 진행, 레이버당이 87개 의석중 55개의석을 차지

26일 중국이 민주웰남에 경제 및 군사원조를 무상으로 줄데 대한 협정 조인 ▶ 리비아의 타라불스에서 남부예멘대통령리사회 위원장과 북부예멘공화리사회 위원장간에 회담을 진행하고 남북예멘간의 통합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 ▶ 챠드가 이스라엘침략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음

30일 칠레대통령 알옌데가 뻬루, 메히꼬, 뉴욕, 알제리, 쏘련, 꾸바를 방문(12월 15일까지)

12월

1일 자이르가 우리 나라를 승인하기로 결정, 남조선괴뢰 《대사》를 내쫓음 ▶ 민주웰남과 오지리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음

3일 일본에서 일조체육교류촉진련맹 창설

4일 온두라스에서 군사정변, 군사령관 오스왈도 로뻬스 아렐라노가 정권을 장악

6일 오스트랄리아정부 남아프리카 인종주의자들의 공보쎈터를 폐쇄

10일 일본에서 제33차중의원선거 진행, 공산당을 비롯한 민주세력 크게 진출 ▶ 단마르크의 코뻰하븐에서 북구라파나라들에 있는 조선과의 친선협회들이 첫련합회의 진행

11일 인도와 파키스탄간에 카슈미르지역의 통제선이 확정되고 두 나라 군대들이 이 지역으로부터 철수

13일 단마르크에서 단마르크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우리 나라 영화상영주간 개막, 18일까지 불후의 기념비적명작 《꽃파는 처녀》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비롯한 여러편의 우리 나라 영화들을 상영

14일 프랑스공산당 제20차대회 진행

15일 말가슈가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음

16일 파키스탄에서 새 헌법 채택

18일 시에라 레온 수도 프리타운에서 아프리카 16개 나라의 당과 정부의 책임적인 인사들, 정치활동가들과 사회활동가들, 박사, 교수들, 출판기관사장, 주필들,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들과 투쟁단체대표 등 50여명의 대표들과 수많은 방청자들의 참가하에 《전아프리카 김일성동지주체사상토론회》 진행(20일까지) ▶ 우간다에서 외국인소유의 차농장들과 공업, 농업 및 운수 분야에서 미영독점체소유의 8개 대회사를 국유화하기로 결정

18일 미제의 전쟁우두머리 닉슨이 북부웰남 20도선이북에 대한 야수적인 폭격을 《재개》할것을 명령

19일 오스트랄리아에서 휘틀람을 총리로 하는 레이버당정부 조직

20일 레바논에서 미국대사관이 로케트탄벼락을 맞아 박산남

21일 모스크바에서 쏘련형성 쉰돐기념경축회의 진행(22일까지) ▶ 민주독일과 서독간에 관계기초에 관한 조약 조인

28일 오스트랄리아 항만로조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만행에 항의하여 《미국선박짐부리기작업배척운동》을 전국적으로 벌릴것을 호소 ▶ 이딸리아의 제노아, 베니스를 포함한 9개의 큰 항구들에서 부두로동자들이 미국놈의 무역선에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을 일치 거부

30일 빠나마에서 민주웰남에 대한 미제의 폭격만행을 반대하여 강력한 반미시위 진행 ▶ 뻬루정부 꾸바에 110척의 어선을 건조하여 주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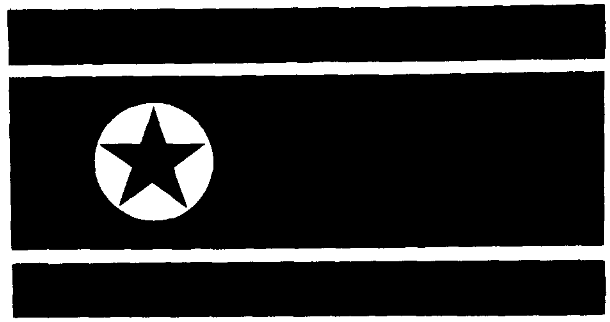
조선중앙년감 (1973년)

발행소	**조선중앙통신사**	평양시 외성구역 오탄동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 쇄	1973년 11월 30일	발행 1973년 12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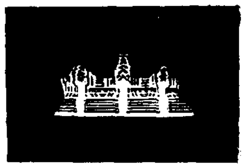
ㄱ—34700 값 5원 50전

세계 여러 나라 기 발

아세아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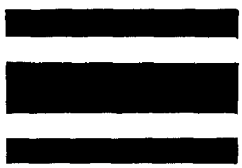

중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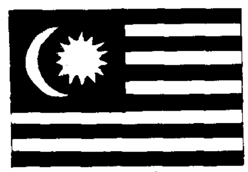

캄 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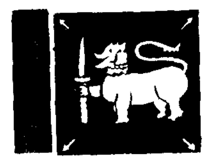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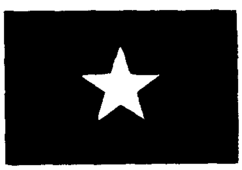
파키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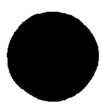

몽 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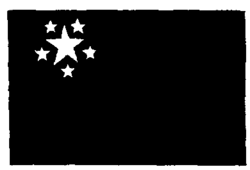

타 이


말레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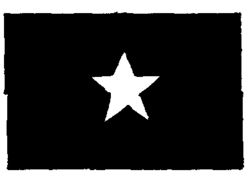

스리랑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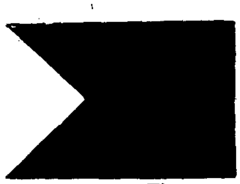

윁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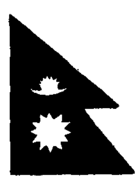

일 본


버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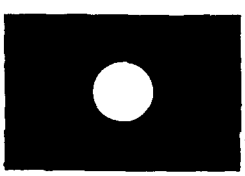

말 디 브


남부윁남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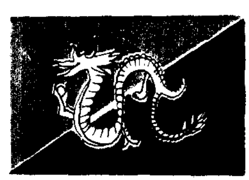

필 리 핀


네 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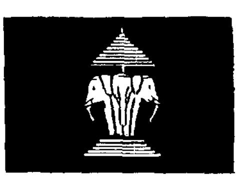

아프가니스탄


라오스애국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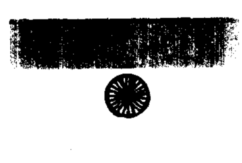

브루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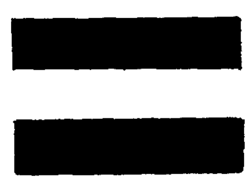

부 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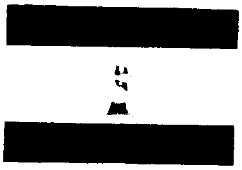

이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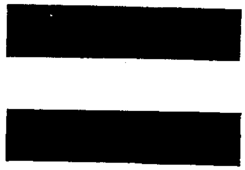

라 오 스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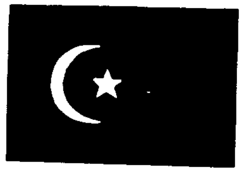

인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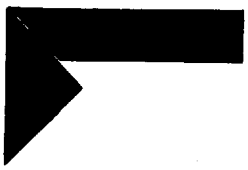

이 라 크


레 바 논


예 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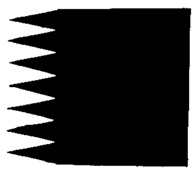

요 르 단


토 이 기


팔레스티나

끼쁘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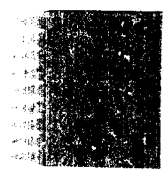

이스라엘


바 레 인


수 리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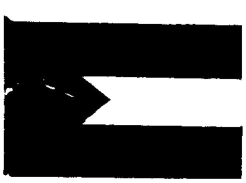

방글라데슈

사우디 아라비아


까 타 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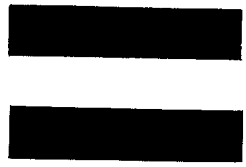

쿠웨이트


아랍추장국


민주예멘

아프리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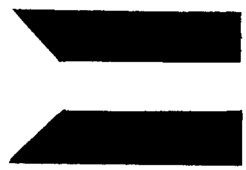

말 리


애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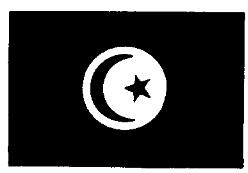

세 네 갈


리 비 아


감 비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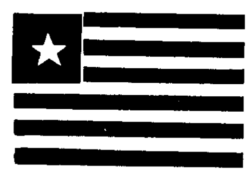

수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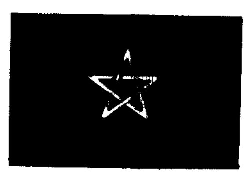

기 네


뜌 니 지


시에라 레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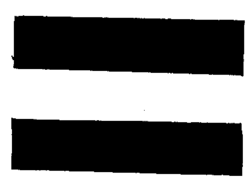

알 제 리


리베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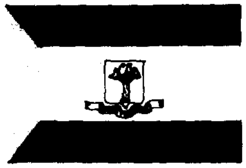

마 로 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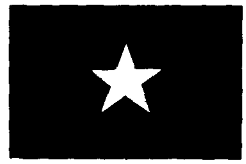

상아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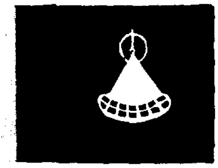
모리따니


상부볼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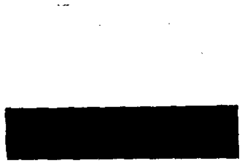

가 나


적도기네


소말리아


레 소 토


또 고


가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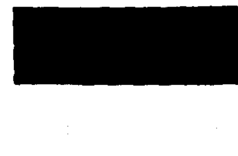

케 니 아


말 가 슈


다 오 메


꽁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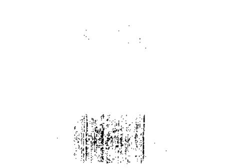

탄자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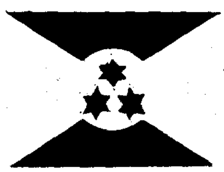

모리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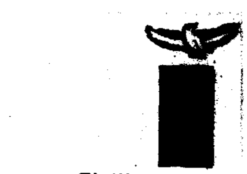
나이제리아


자 이 르


말 라 위


니 제 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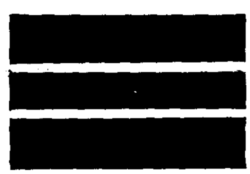

부 룬 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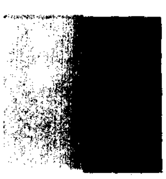

잠 비 아


차 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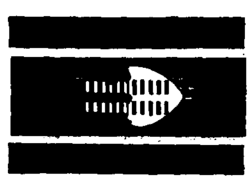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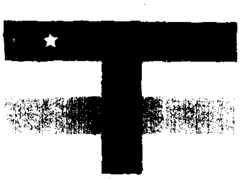
루 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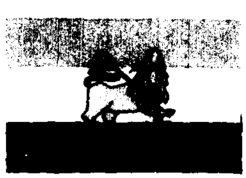

보쯔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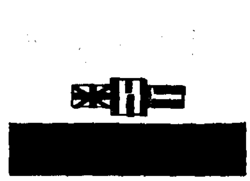

까 메 룬


우 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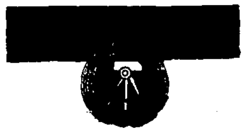

느그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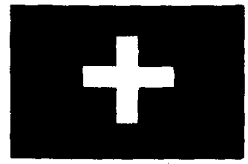

중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구라파주


민주독일


스위스


뽀르뚜갈


쏘련


유고슬라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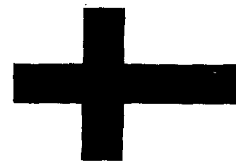

프랑스


희랍


뽈스까


서부독일


모나꼬


핀란드


체스꼬슬로벤스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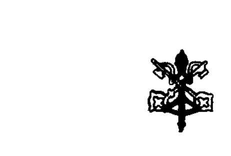

화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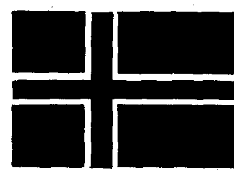

이딸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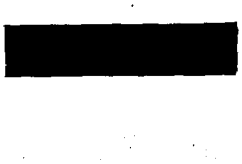

스웨리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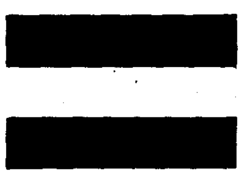

로므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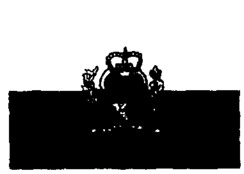

벨지끄


바띠까노


노르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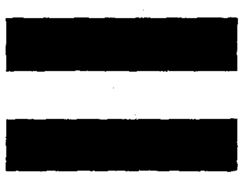

웽그리아


룩셈부르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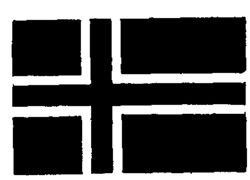

산 마리노


단마르크


벌가리아


오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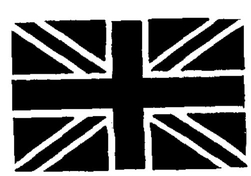

에스빠냐


이슬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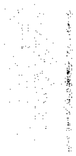

알바니아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영국

아메리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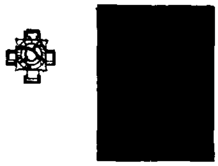
아일랜드



니까라과



가이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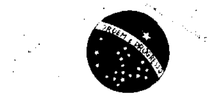
말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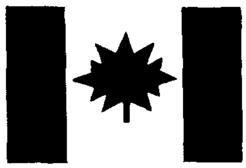
꾸바



꼬스따리까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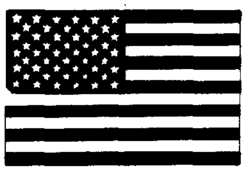
카나다



빠나마



꼴롬비아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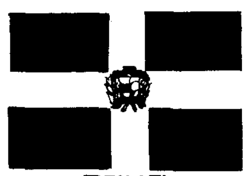
아이띠



에꽈도르



메히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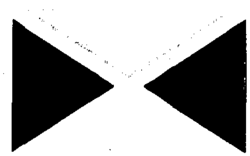
도미니까



뻬루



과떼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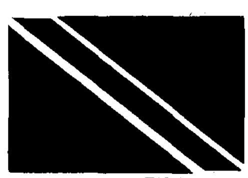
져메이커



볼리비아



살바도르



트리니대드토바고



빠라과이



온두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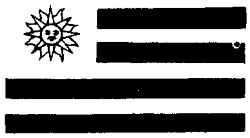
베네수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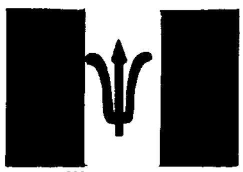
아르헨띠나



칠 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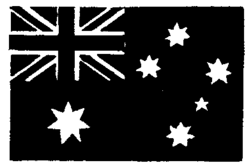


우루과이



바베이도즈

대양주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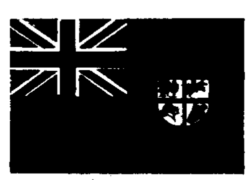
나 우 루



서부사모아



통 가



피 지